洪城勞動謠

洪城文化院

제 자 장강 변 수 길

표지화 디자인 전 만 성

洪城의 勞動謠

(부록 ; 동요, 흥민요, 의식풍속요 등)

Working Songs of HONG SŎNG
district by Yi, So-Ra

이 소 라 씀

洪城文化院

00536

발 간 사

노동요는 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학식이 많은 학자들이나 음악적인 어느 전문가들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은 더욱 아니다. 긴 밤을 지나온 어둠이 아침 햇살에 물러서기가 무섭게 논밭으로 나아가 하루종일 일을 하는 농부의 입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그것이 마침내 입에서 입으로 오랜기간 거쳐 오는 동안에 그나름대로 다듬어진 것이다. 그래서 한 지방의 농요 속에는 한 지방 모든 농부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면서 공감을 사게 되고, 그것이 또한 오랜 세월을 두고 자자손손 계승되어 온 자취가 숨겨져 있게 마련이다. 농요가 한 민족의 정신적인 역사라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만큼 가치가 큰 것도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홍성의 노동요는 노래로 된 홍성지방 구비전승의 민요이다. 또한 홍성의 농요는 비전문적인 홍성의 농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 농사짓기라는 노동을 하는,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부르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 즐기며 부르던 노래이다. 따라서 홍성의 농요 속에는 홍성에 살면서 언제나 자신에게 열중하며, 스스로의 의식을 충실하게 반영한 홍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배어있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홍성의 노동요는 홍성 사람들의 정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다. 다만 홍성 사람들의 정신을 엿보일 뿐이다. 그러나 홍성의 노동요를 통해서 홍성 사람들은 실제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였던 또다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홍성의 노동요속에 숨어있는 홍성 사람들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홍성 사람들은 영원히 전진하고 영원히 희망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홍성의 노동요를 수집·정리하여 한권의 책으로 편찬해주신 문화재전문위원 이 소라님, 그리고 여러모로 협조해주신 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록 홍성의 노동요가 홍성 사람들의 정신적 보금자리로서의 구실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994. 12

홍성문화원장 황 규 철

인 사 말

겨울 밤의 한 젊은 나그네가 아코디온 소리에 반하여 무작정 방문을 나섰다가 어느 허름한 여관의 이층방에서 귀한 노인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평생 잊지못할 추억과 함께 훗날 그 아코디온을 나그네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다는 실화(實話)가 문득 생각납니다.

제가 노동요 특히 농요연구에 매료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보존에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그 나그네처럼 홍성의 노동요와 소중한 만남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지방에 이렇듯 자연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는 줄은 음악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편에 따라 바람소리나는 들판에서도 녹음하고 마을회관의 오두막이나 담배연기 자욱한 노인정, 어린 손자들이 들락거리는 안방에서도 녹음된 것이라 비록, 테잎의 음질이 좋지못하더라도 흙속에 묻혀있는 진주를 캐듯 그속에서 한국인의 속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집필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노동요에 관한 개론서가 나오기까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넓이와 깊이를 더할 의도였지만, 부족한 대로 이쯤해서 손을 놓고 또 훗날을 기약하여야 겠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은데도 「홍성의 노동요」를 기획하신 홍성문화원과, 적극 협조하신 홍성군청 및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

옛 기억을 되살려 채집에 응해주신 수많은 가창자들과 제보자, 안내해 주신 분들, 홍성의 知人들과 아울러 출간의 의도에 동참해 주신 출판사의 노고도 적지않습니다.

1994년 12월

글쓴이 이 소 라

차 례

* 일러두기 11

(1) 개 관 15

1) 배경(背景)

2) 녹음,조사 지역

3) 노동요의 의미

1. 노동요와 민요의 관계

2. 노동요의 종류

4) 농사 일정

(2) 홍성군 노동요의 특색(特色) 37

(3) 결성 농요 (結城 農謠) 40

1) 발굴과 재현

2) 구성

3) 모심는 소리(겹상사)

4) 건젱이소리(어기야하)

5) 가래질 소리

6) 얼카덩어리

7) 지대기소리

8) 만물소리

9) 장원질 소리(종헤 類)

10) 현대적 수용과 보급

* 악보 〈홍주 1~10〉 53

(4) 소부림말 71

(5) 모찌는 소리 〈홍주 11,12〉 71

(6) 모심는 소리(田植唄,揷秧歌) 〈홍주 13~43〉 72

1) 모심는 소리의 유형
2)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
1.겹상사
2.사지(하지) 소리
3.기타

(7) 논매는 소리(논맴소리,草取唄, 菇草歌) 〈홍주 44~123〉 87
1) 개관
2) 얼카덩어리 〈홍주 44~65〉
3) 산타령(수양산 類) 〈홍주 66~78〉
4) 잦은 산타령 (산아지 類) 〈홍주 79~88①〉
5) 두리둥개 내사랑 〈홍주 90~93 I〉
6) 매뚜리 〈홍주93 II~98〉
7) 술미 〈홍주 99~102〉
8) 어거리 에야호 〈홍주 103,104〉
9) 방게 類 〈홍주 105,106〉
10) 논매는 양산도 〈홍주 108,109〉
11) 문성이,산여,좋다,두레,마루,몸돌산여,밀가는소리〈홍주 112~120〉
12) 배꽃타령,상사,두덩덩실, 기타

(8) 장원질 소리 〈홍주 124~127〉 99
1) 종헤 소리
2) 꽃나부 서는 소리
3) 지와밟기
4) 중동넘기

(9) 거둠소리 (收穫謠) 〈홍주 128~158〉 115
1) 벼바숨 소리 (개상질 소리)
2) 벼베는 소리
3) 죽가래질 소리, 나부질 소리
4) 말 되는 소리, 볏단 쌓는 소리
5) 도리깨질 소리

(10) 길쌈 노래 〈홍주 159~168〉 119

1) 삼삼는 노래
2) 물레노래
3) 베틀노래

(11) 밭매는 노래, 나물캐는 노래 〈홍주 169~178〉 121

(12) 두렁 가래질, 물품는 소리 〈홍주 179~185〉 129

(13) 터다짐 소리(못뚝 · 집터다짐,말박는 소리)〈홍주 186~199〉 130

(14) 나무꾼 소리(나무내리는 소리, 기타) 〈홍주 200~209〉 132
1) 광천 독배
2) 나무내리는 소리
3) 동풍가
4) 지게상여 소리
5) 아리랑

(15) 보부상 노래 〈홍주 211〉 135

(16) 어로요 (漁撈謠) 〈홍주 212~218〉 137
1) 배치기(봉기타령)
2) 고기 푸는 소리
3) 노젓는 소리
4) 산세는 소리 등

(17) 상부(喪夫)소리 〈홍주 219~254〉 141
1) 널 액막음 소리
2) 행상(行喪) 소리
3) 묘쓰는 가래질
4) 회다지

* 악보 〈홍주 11~254〉 149

* 부록 〈홍주 255~349〉 321

○ 동요〈255~289〉
○ 놀이요〈290~298〉
○ 홍민요,기타 〈299~330〉
○ 의식풍속요〈331~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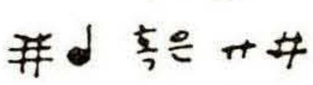
* Summary 435
* 〈도〉 〈표〉 색인 439
* 사진 색인 440
* 악보 색인 443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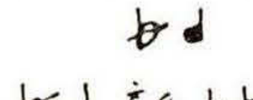
(메) 메김선율, 메김소리
(받) 받음선율, 받음소리
(齊) 제　창
(앞) 앞소리
T.P.　이조점(移調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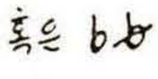
 　①內在拍 ②내재마디

 　# (반음올림표)보다 적게 올리는 표

 　#보다 더 많이 올리는 표 𝄪 < # < 𝄪 < ×

　b (반음내림표)보다 더 적게 내리는 표

 　b 보다 더 많이 내리는 표 𝄫 < 𝄬 < b < 𝄬

 　또렷이 음을 내지 않고 스쳐지나가는 음, 혹은 말하듯이 내는 음 (recitative), 의성어

 　불안정한 음

　곧게 뻗다가 요성하는 음

　곧게 뻗다가 퇴성하는 음

 　弱搖(약한 요성)

　음의 끝을 끌어 내림(退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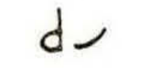
 　거문고의 전성(轉聲)처럼 제자리에서 굴려내는 음

　음의 끝을 끌어올림

 　기준길이보다 짧은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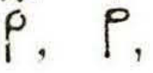
 　기준길이보다 긴 음

 　굴리면서 내려옴

 　미끌어지며 차차 내림

 　매끄럽게 차츰 올림

 　3분박 4박 장단, 즉 1마디안에 ♩. 음표가 4개씩 들어 있음

 　假聲, 속소리

 　미묘하게 약간 높은 느낌의 음

 　미묘하게 약간 낮은 느낌의 음

S·R　채보자의 교정 악보

土 民　토박이(해당지역에 태어나서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

(素 88-4-17) Tape Number(채보 채록에 사용된 필자 소장의 카셑 테잎 번호)

줏대음　:예를 들어 출현음이 인 곡에서 주요 구성음이 $g^1a^1c^2d^2e^2$ 이고 d^1 은 단지 장식음적인 기능일때 한 선법의 기초가 되는 g^1을 줏대음으로 봄.

(1) 개 관

(2) 홍성군 노동요의 특색

(3) 결 성 농 요

(1) 개 관

1) 배경 (背景)

충남 홍성군은 한반도의 중남부 서해안변에 위치하며 서산군,예산군,청양군,보령군과 이웃한다. 1992년 8월, 중국대륙과의 문호개방을 즈음해서 서해안 지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홍·보 개발사업지구〈도 1〉가 설정되는 등, 21세기를 향한 웅군으로서의 재도약을 다지고 있다.

산경도(山經圖;물줄기를 중심하여 산맥을 구분하는 지도 〈도 2〉)에 의하면 홍성군엔 금북정맥(錦北正脈)이 통과한다.

금북정맥은 속리산(1508m)에서 대간맥(大幹脈)을 북쪽으로 틀어올려 되 뻗어내리는 차령산맥의 줄기가 경기도 안성군의 칠현산(516m)에서, 용인-안산-인천 쪽으로 진행하는 한남정맥(漢南正脈)과 갈라져서 천안,예산을 지나 홍성과 보령의 경계인 오서산(烏棲山,烏栖山,烏巢山 : 791)에 머물은 후, 남으로 성주산(보령군의 청라면·미산면의 경계 : 680), 북으로 가야산(서산군 해미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경계 : 677.6)을 거쳐 서해안에 이르는 정맥이다.

홍성군의 이동(以東)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달리는 차령산맥은 홍성군내에서 현저히 낮아져 구릉성 산지를 이루는 바, 이렇듯 금북정맥이북의 홍성군을 중심으로 잔잔하고 아늑한 지대가 통칭 내포(內浦)라 불리웠다.

내포지방은 차령산맥으로 인하여 대전이나 부여방면과의 내왕이 적었고 충남 서북부지역으로서의 독특하고 고유한 노동요들을 형성해 놓았다.

홍성지방민의 시외통화량(1984년도 한국통신공사 대전支社의 통계자료)을 보더라도 대전,부여방면 보다는 예산,서산,대천지방과의 교류가 더욱 빈번함을 알 수 있다.

홍성군내의 수계(水界)는 천수만界(와룡천,금리천,학산천,청광천)와 아산만界(금마천,무한천)로 나누이며 그 분수령은 용봉산,일월산 및 남산을 연결하는 산줄기〈도 3〉이다.(「홍성군지」 참조)

홍성군의 산계(山界)를, 용봉산을 기점하여 일월산,지기산으로 이어지는 동남부와 삼준산을 기점하여 보개산,지기산으로 이어지는 서남부 및 그 양지역 사이의 중앙부(V자형)로 대별하여 볼 때 동남부와 서남부는 지형의 발달양상 등이 서로 대칭적이고 유사하며 불연속적 소규모의 구릉성 산지가 불규칙하게 산재한데 비해 중앙부는 산세가 다소 험준하다.

한반도에는 구석기인들이 약 70만년전부터 거주했음이 덕천 승리산 동굴,단양 상

시 동굴, 청원 두루봉 동굴과 평양의 만달리 등지에서 발굴된 사람의 화석으로 밝혀져 있다. 충남에서는 공주군의 석장리와 이웃 서산군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다.

빙하기가 끝날무렵에 신석기인들이 해안이나 강변에 정착하면서 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로 약 7천년전의 것이다. 홍성군에서는 홍동면과 홍북면,홍성읍,은하면 등지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돌도끼 등의 마제석기류,기타)이 발굴된 바 있다.

1989년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출토된 볍씨는 5천년전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김포군의 토탄층에서 나온 볍씨는 4천년전(B.C 2000년대)의 것임이 카나다 토론토 대학 년대측정 실험에서 밝혀졌다.

만주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청동기시대는 B.C 10세기경에 비롯한다하며 그 전형적 유물인 고인돌이 홍성군내에도 산재해 있고〈사진 1〉 또한 이삭을 자르는 추수용 도구인 반달돌칼도 7개(팔괘리 2, 소암리 4, 부기리 1)가 발견된 바 있다.

B.C 4세기경이 되면 청동기 대신 철제농기구가 사용되기 시작하며 삼한의 부족사회들도 한층 더 국가적 면모를 갖춘다. 홍성읍엔 마한의 감계비리국(監奚卑離國)이 존재했다하며,결성면엔 고비리국(古卑離國), 장곡면 산성리 1구는 사로국(駟盧國), 금마천 유역은 월지국(月支國)의 수도였고,갈산면 대사리는 소위건국(素謂乾國)의 터였음이 주장되고 있다.(朱옥노,裵동순)

백제시대엔 옛 결성군지대의 결기군(結己郡)과 장곡의 사시량현(沙尸良縣),홍성읍의 고막부리(古莫夫里)및 갈산의 우견현(牛見縣) 등이 위치했었다.

통일신라 경덕왕시대에 와서는 결기군을 결성군(潔城郡)이라 하였으며,장곡엔 신량현(新良縣 ; 삼국사기에선 黎陽縣〈사진2〉)이 위치했고, 우견현은 목우현(目牛縣 ; 삼국사기에선 高丘縣)이라 불리웠다.

고려 성종 14년(995)에 처음으로 10도를 실시하여 각도에 주현진을 설치할 때 하남도 운주에 속하고 운주목사가 파견되었으며 현종 3년(1012)엔 운주대신 홍주(洪州)로 명칭을 고치고 주지사(州知事)를 두었다. 이당시 홍주는 천안,서산(부성현), 現 부여군의 임천(가림현)과 함께 각자의 속군현을 거느린, 차령이북지역의 대읍이었다.

조선조 초기인 태종,세종시대 8道制下의 홍주목은 차령이북의 충남 서북부지방을 총괄하였으며, 현금의 당진군,서산군,태안군,예산군,청양군,보령군지역 행정의 중심체였다. 8도제는 태종 13년(1413)이래 500년 가까이 큰 변동없이 쓰여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23부제로 개편되었고 이듬해인 1896년엔 13도제로 재차 개정되어 충청남도라는 도명이 탄생되었다.

13도제 아래에서 홍주목은 홍주군,결성군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군으로 분할되었

다. 1914년엔 홍주군과 결성군(結城郡)을 합군하여 홍성군(洪城郡)으로 출범되었다. 1983년엔 서산군의 고북면 대사리가 갈산면에, 1989년엔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가 서부면에 편입되었다.

현재의 2읍 9개면중 홍성읍·홍동면·홍북면·금마면·장곡면과 갈산면은 홍주군 관할이었고 결성면·서부면·은하면·구항면과 광천읍은 대개 결성군 관할이었다. 〈도1〉 참조

1986년도 홍성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임야가 50.9% 논이 21.3% 밭은 16% 남짓된다. 서부면은 63%로 임야비율이 제일 높은데 비해 홍성읍을 비롯한 금마천유역(금마면,홍북면,홍동면)과 광천읍은 낮다.〈표 1〉

〈표 1〉 읍·면 別 임야 및 답의 비율

1985년 12월 현재

읍·면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林 野 (%)	39.1	45.3	44.5	40.9	45.7	59.5	49.2	48.3	63.0	56.5	57.8
畓 (%)	22.0	22.7	23.5	28.6	23.7	19.1	21.6	20.0	19.3	19.2	19.1

금마천 연변의 평지를 제외하고는 대개 산악이 起伏한 사이에서 들을 이룬다. 1986년도의 面政보고에 따르면 금마면은 91.7 %가 농가임에 비해, 고려때에 장이 서기 시작하면서 커진 고을인 광천읍은 30.9%가 농가이다.

내포는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하계다우한 지대로 벼농사 시기에 강수량이 많아 도작에 적당한 기후조건을 갖추었다. 또한 강진(强震)구역으로 꼽히며 홍성읍에서도 온천이 발견되었다. 공주는 무맥(武脈), 홍성은 문맥(文脈)이라는 풍수설에 의거하여 홍성지방으로 낙향 은거하는 선비들이 적지않았고 문과급제자도 많이 배출되었다.

홍성지방은 천안-홍성-서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온양-홍성-장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중앙에 있으며 장항선 철도(서울-천안-홍성-대천-장항)가 지나가는 서북부 충남교통의 요충지이다.〈도 4〉

최영,성삼문,김좌진,한용운 등이 모두 이 지방 출생이며 마애석불,향교,전통가옥,용대기놀이,결성농요 기타 유형·무형의 문화유산들이 풍부한 고장이기도 하다.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사이에 산신제,당산제,노(路)신제,풍어제 등의 대동제가 대개 열림으로써, 경기지방의 10월 산신제와 비교가 된다. 결성면 성호리, 서부면 어사리, 장곡면 옥계리와 광천읍 운용리 등지에서는 줄다리기를 했었다.

홍동면 금당리에서 정월 14일 달밝은 저녁에 놀았다는 거북놀이는 이천군 등 경

기지방이 본고장인 8월 추석놀이가 전파된 것으로 홍동면은 거북놀이의 서남쪽 한계지역에 속한다. (조용택은 1927,8년 경에 두사람이 멍석 또는 맷방석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우리 거북, 금년 풍년 들게 해 다오 "하며 금당리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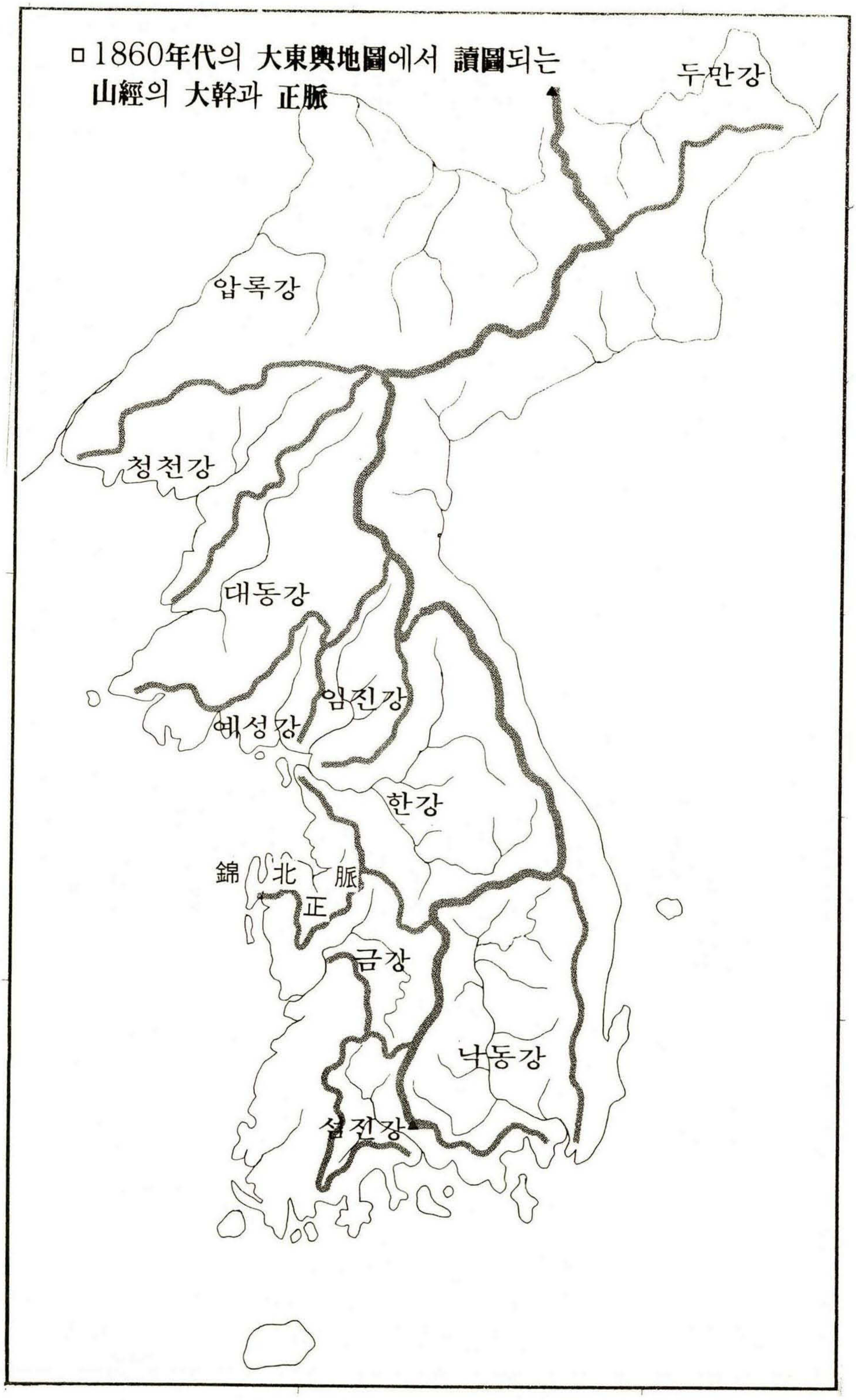
강강술래 놀이를 했다는 마을(갈산면 가곡리,광천읍 운용리)이 있는 바, 이는 호남지방으로부터의 영향이다. 홍성군은 강강술래의 북쪽 한계지역이 된다.

경계지점의 모습에 대하여는 〈사진 3 ~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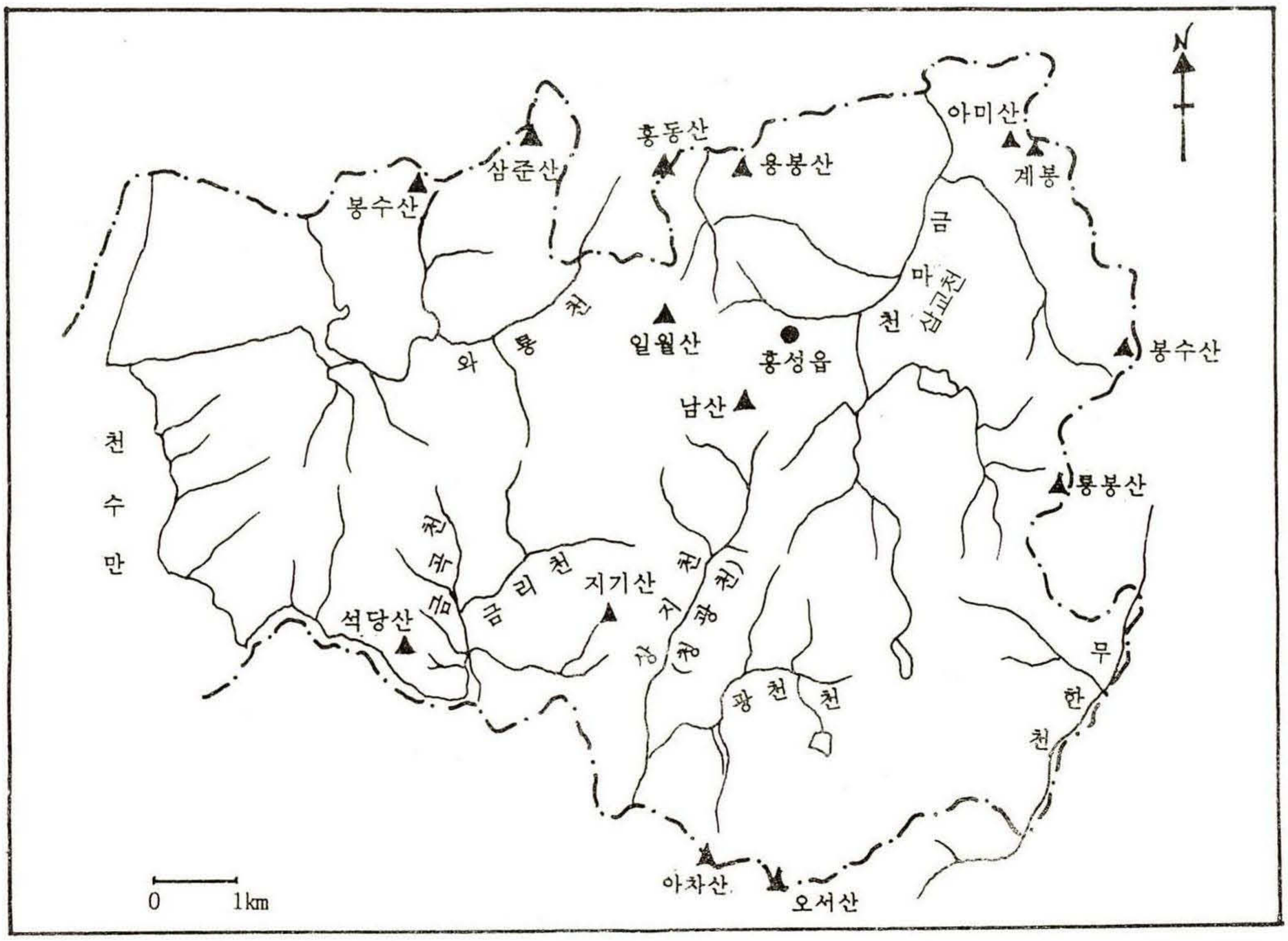
〈도 1〉 홍성군의 녹음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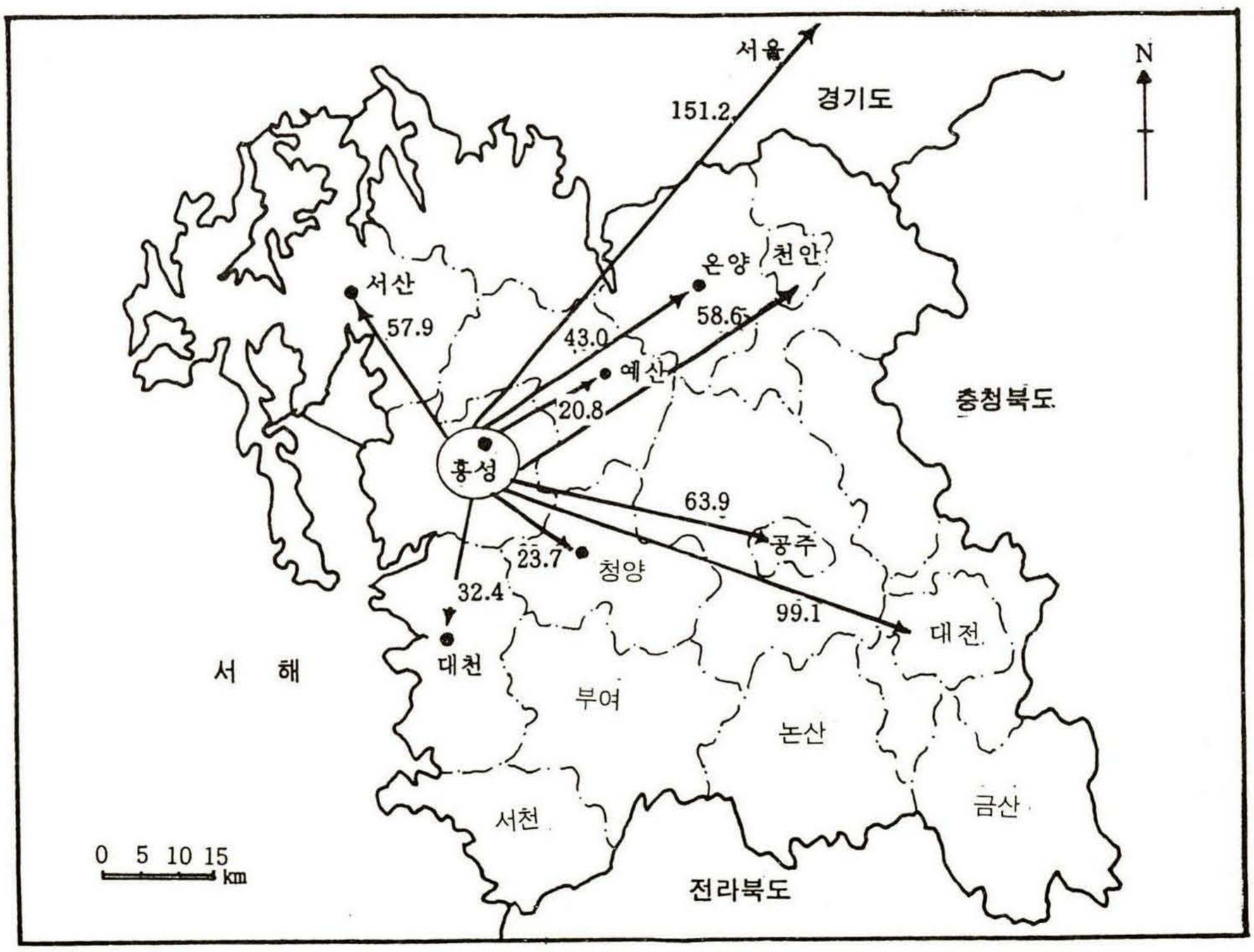
〈도 2〉 山 經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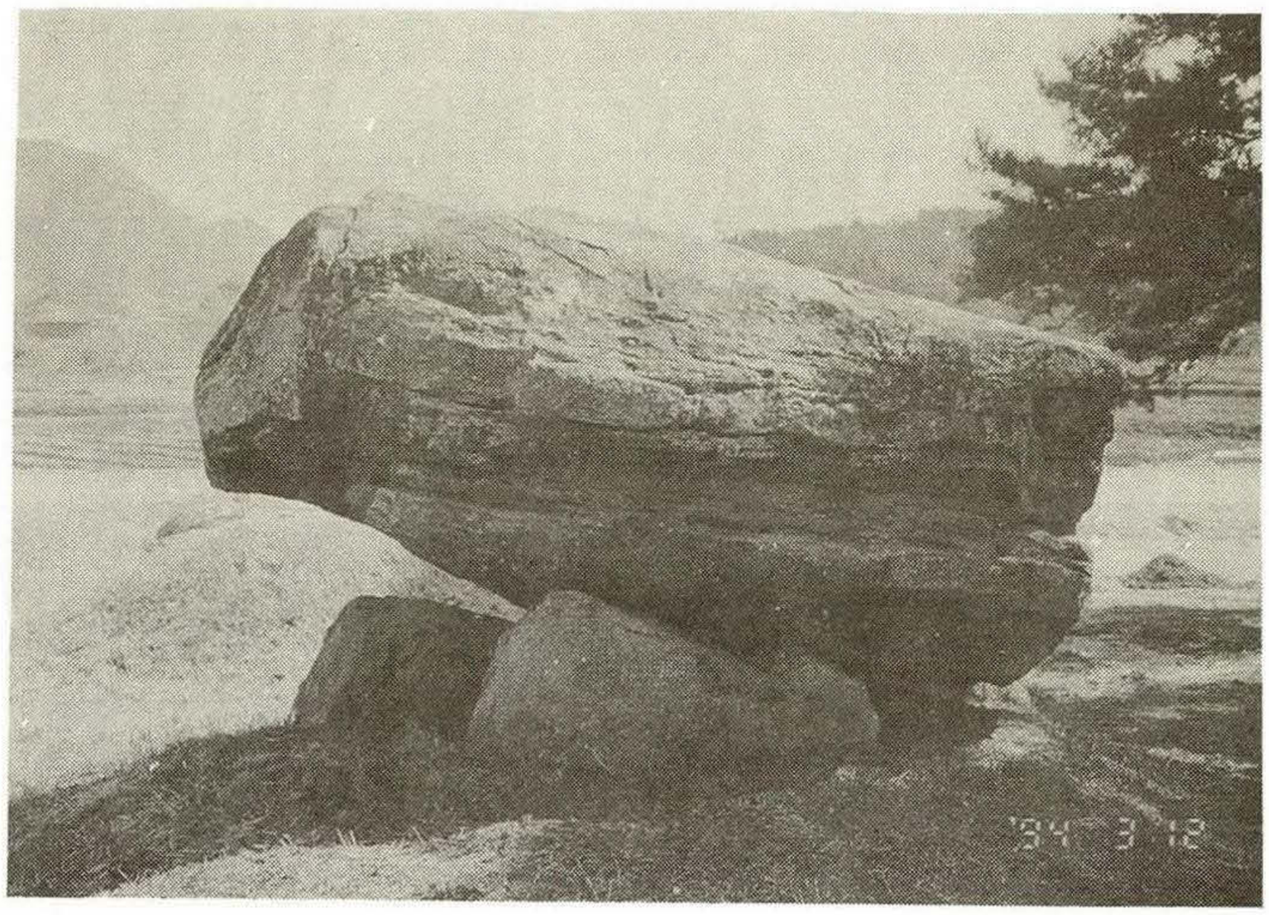

□ 1860年代의 大東輿地圖에서 讀圖되는
山經의 大幹과 正脈
두만강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예성강
한강
錦北脈
正
금강
낙동강
섬진강

〈도 3〉 홍성군의 주요 산지와 하천



〈도 4〉 홍성군의 위치와 주요 지역간의 접근도(단위: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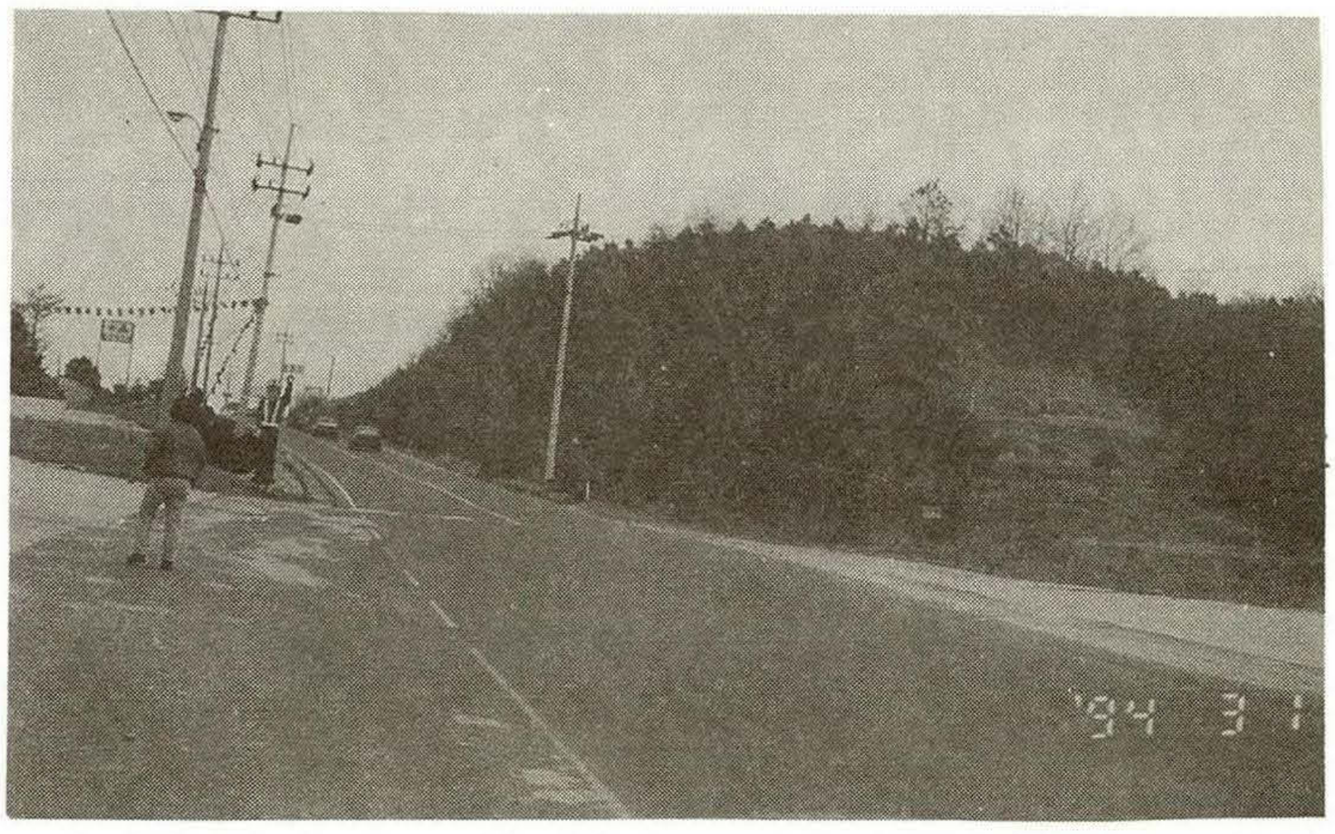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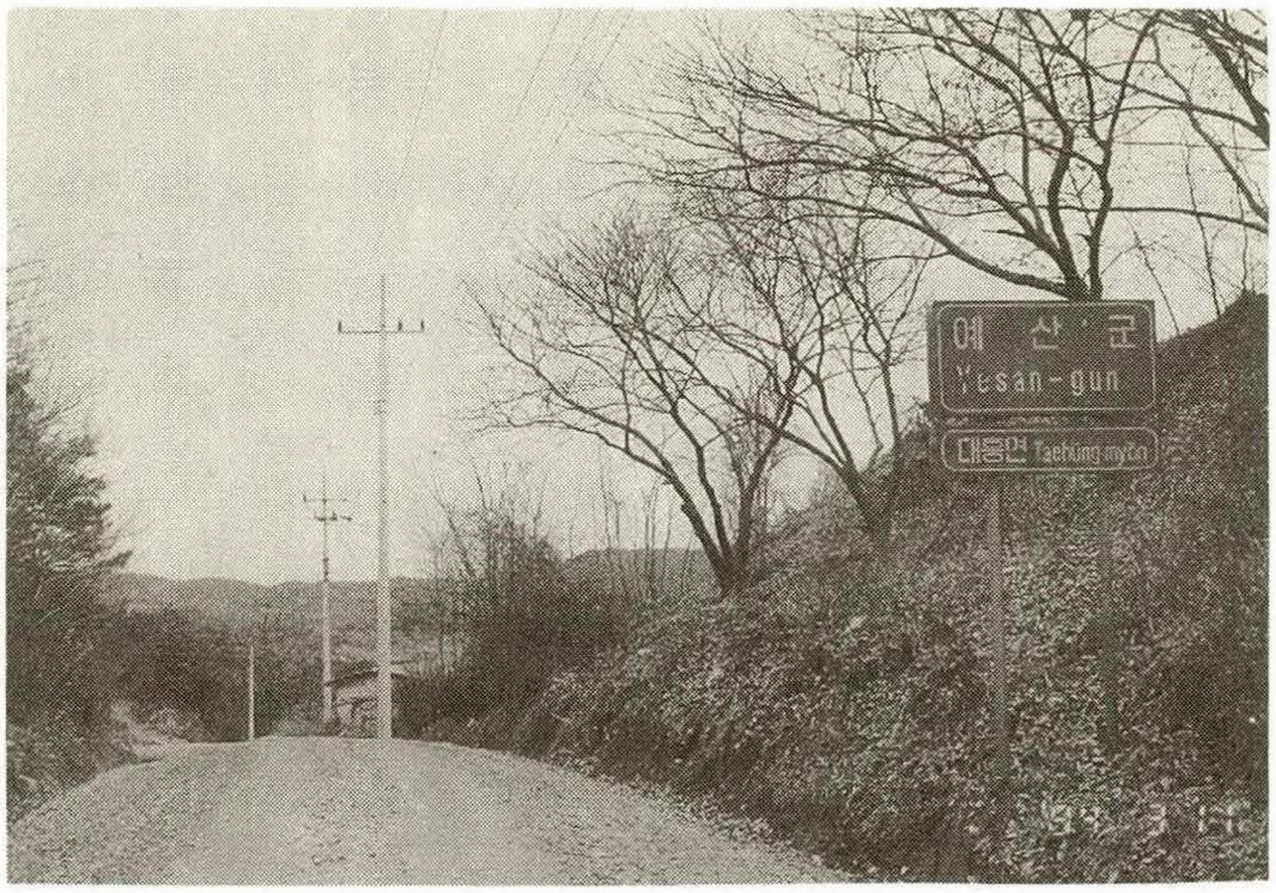
〈사진 1〉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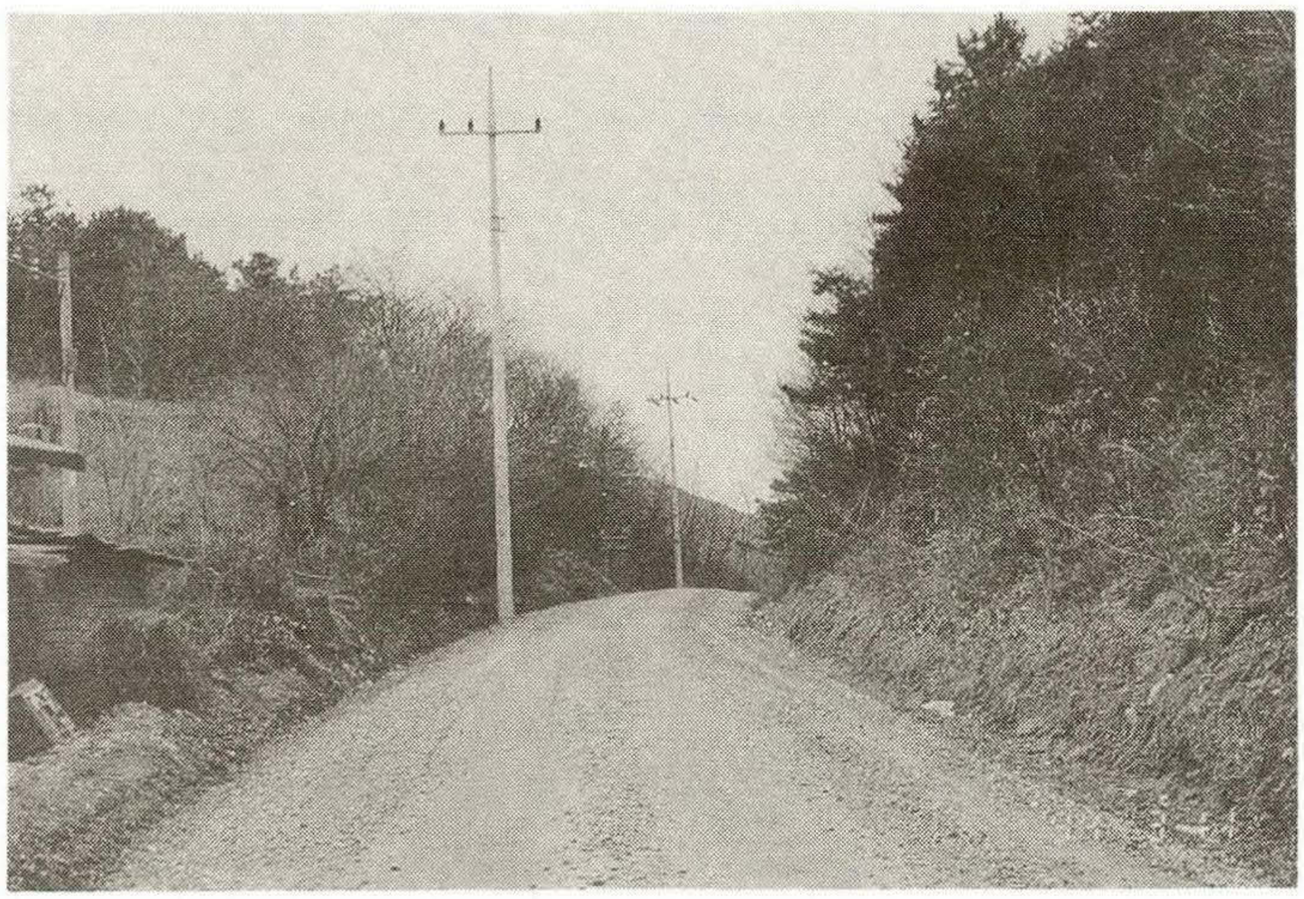
〈사진 2〉 여양현(黎陽縣, 驪陽縣)의 옛터라고 말하여지는 장곡면 광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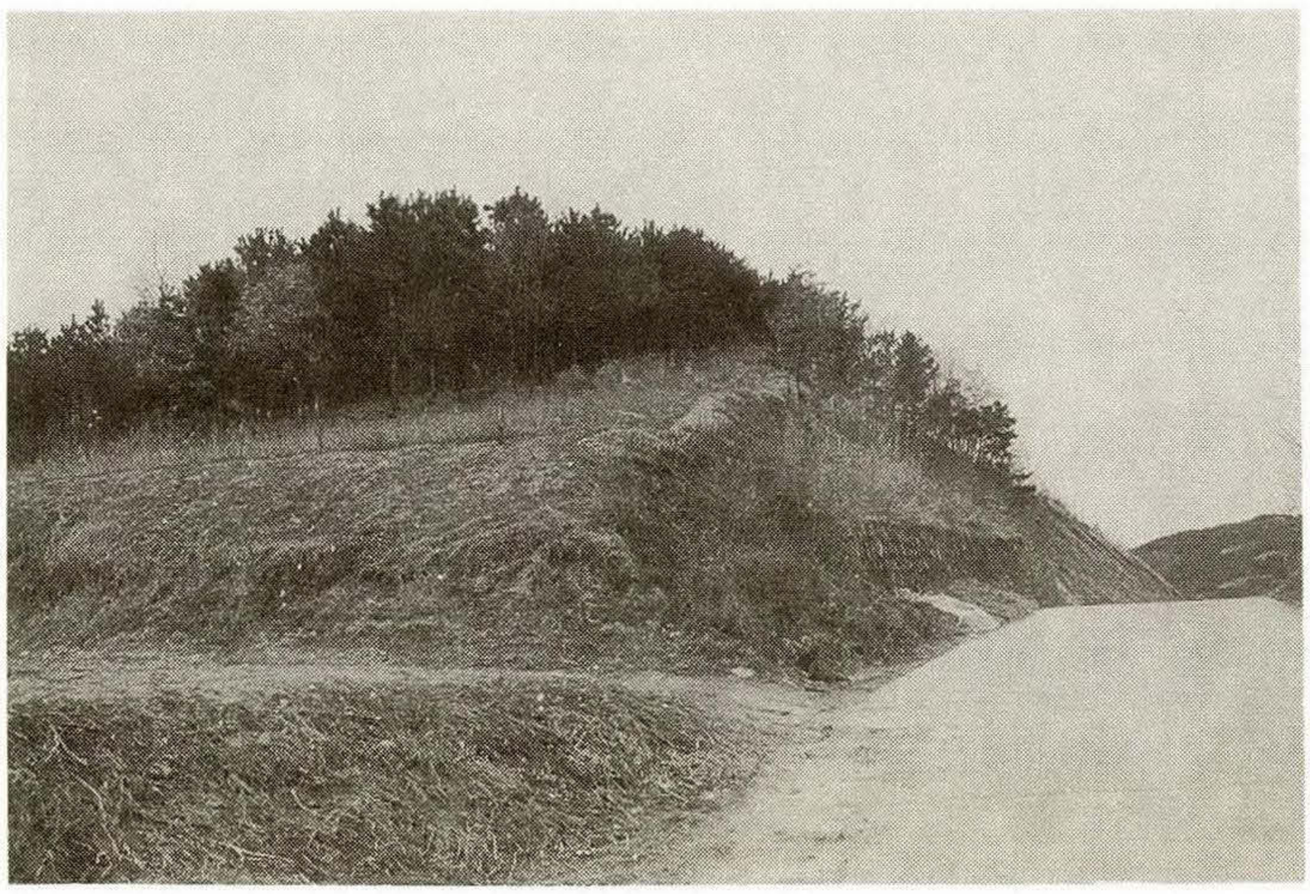
〈사진 3〉 남산고개(〈도1〉의 ①지점)
이곳을 기점으로 北쪽물은 홍성읍 남장리를 거쳐 삽교천으로 흐르고 남쪽물은 구항면 마온리를 거쳐 옹암포로 내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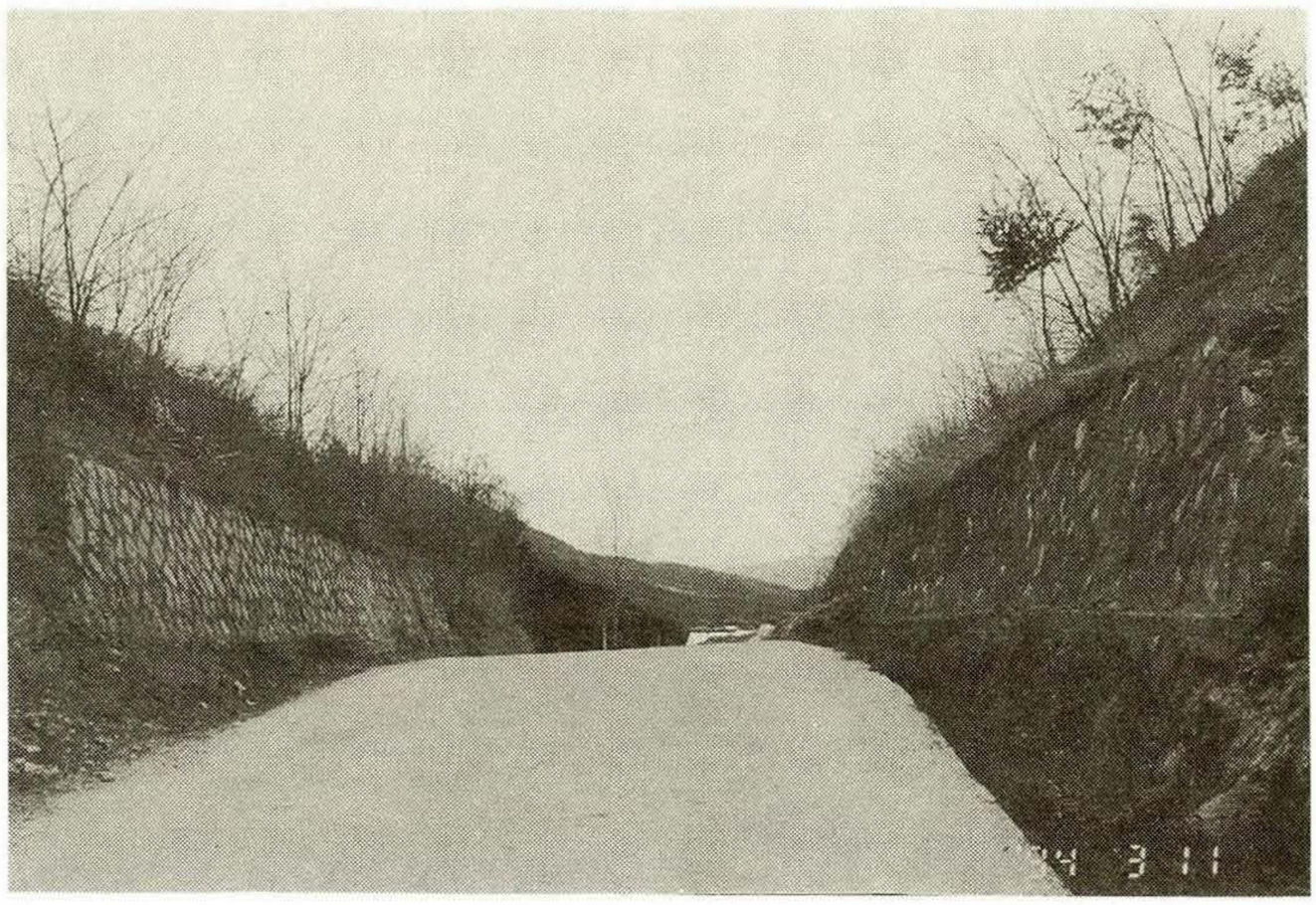
〈사진 4, 5〉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대흥면 경계(〈도 1〉의 ②)
· 신양을 거쳐 대전으로 갈 수있다.
· 地方道.(郡內)BUS안다님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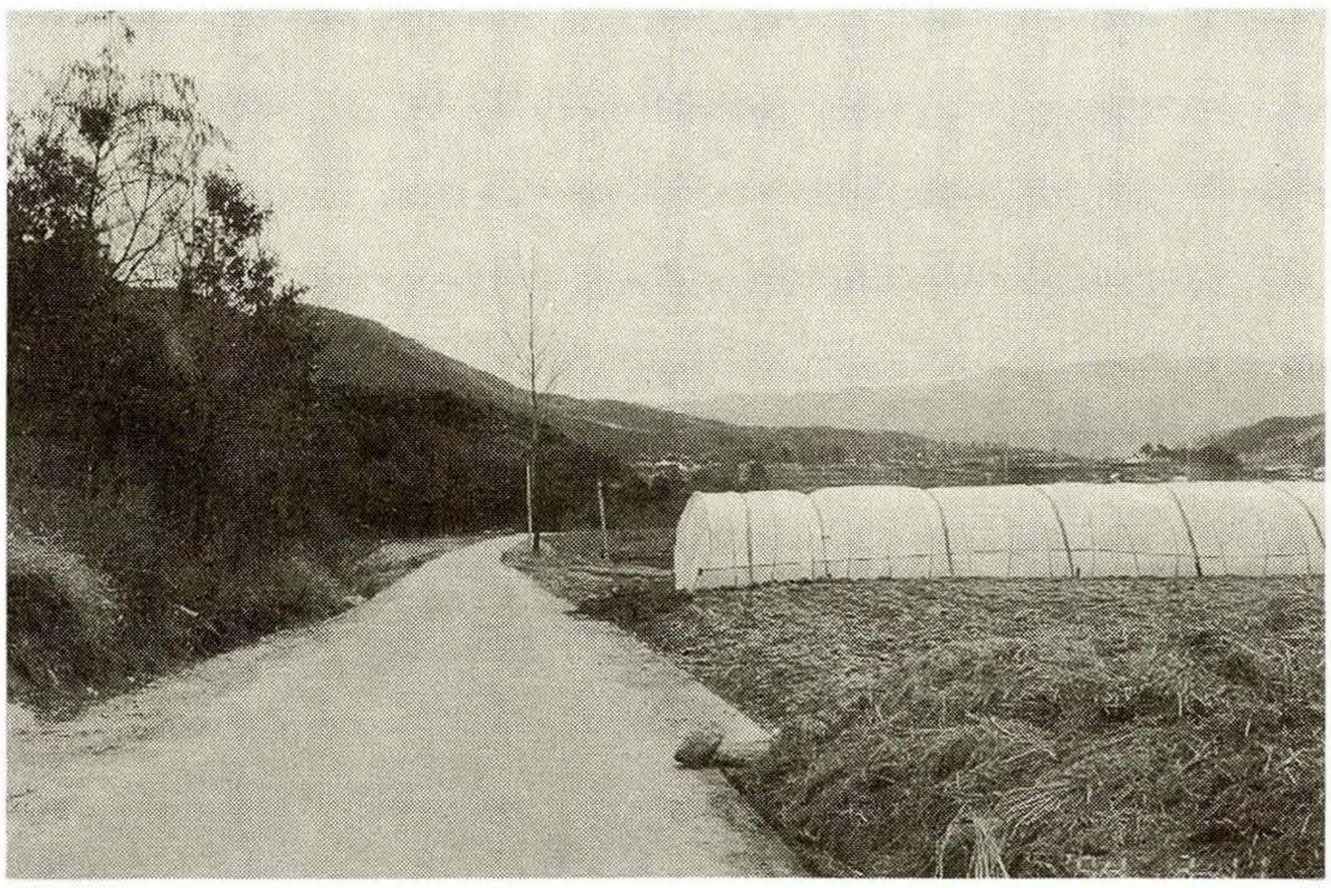
〈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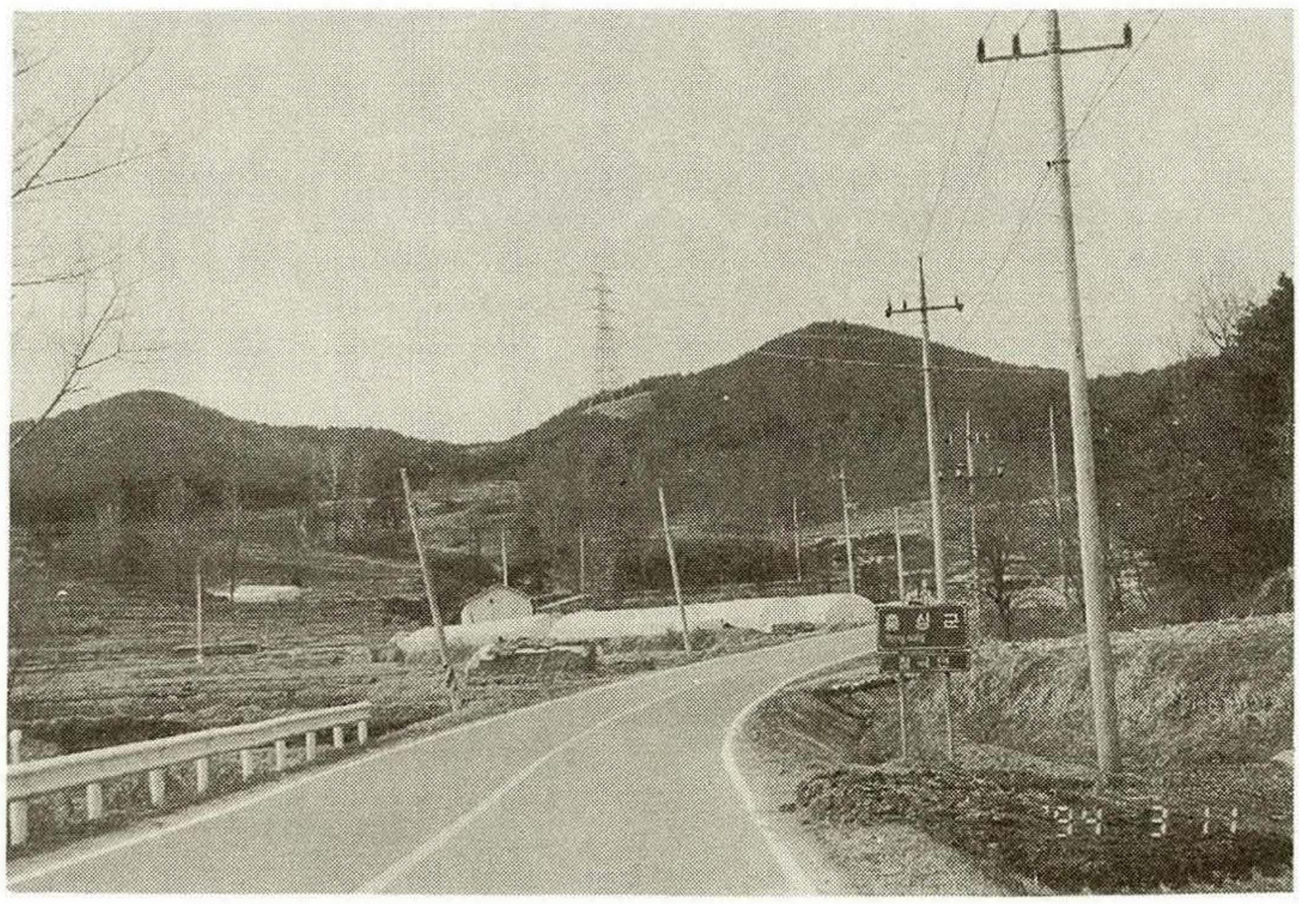
〈사진 6, 7, 8〉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광시면
〈도 1〉의 ③
· 홍성읍까지 20km가 못되므로 홍성읍이 생활권임.
· 농업도로임.
〈사진 6〉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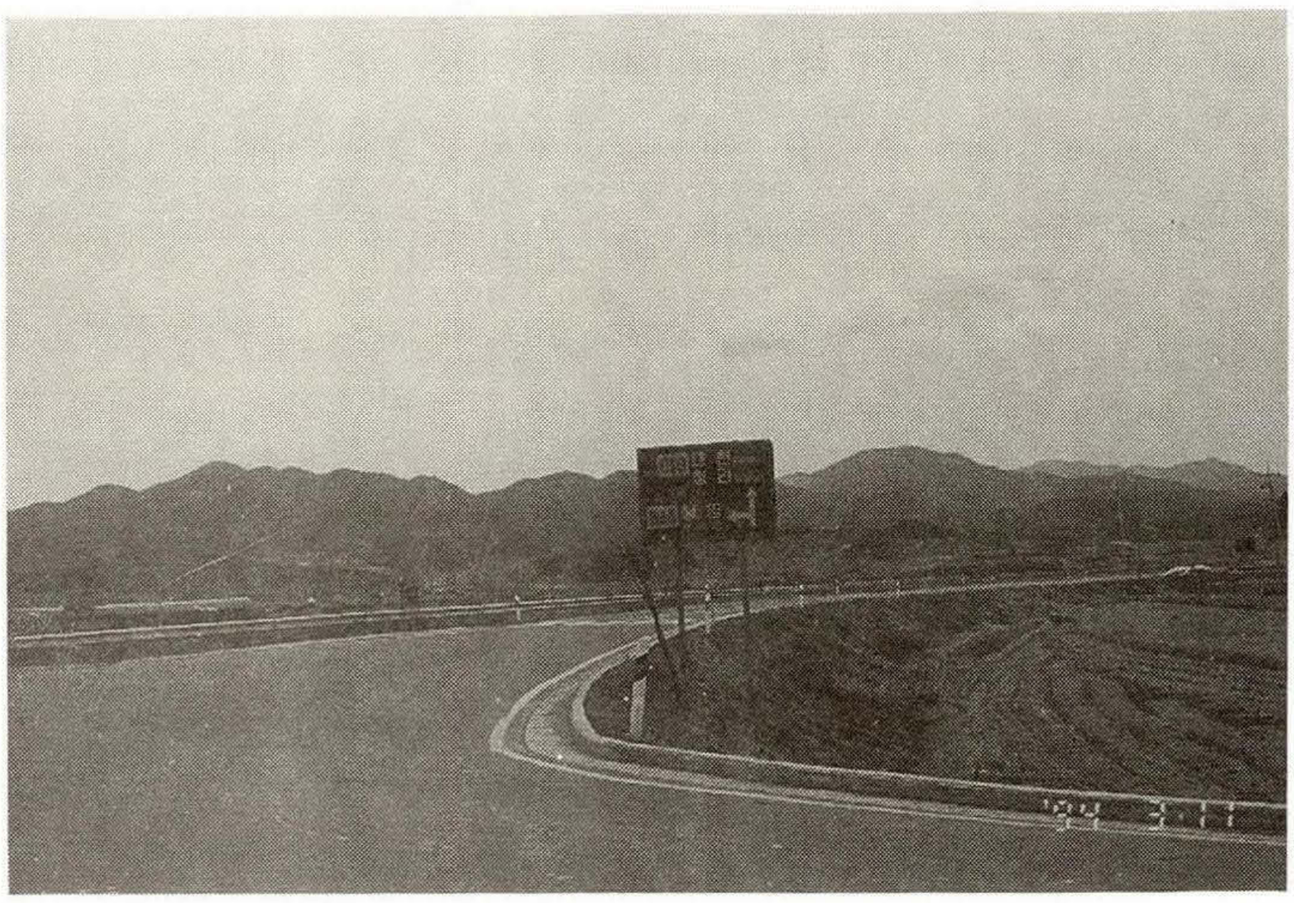
〈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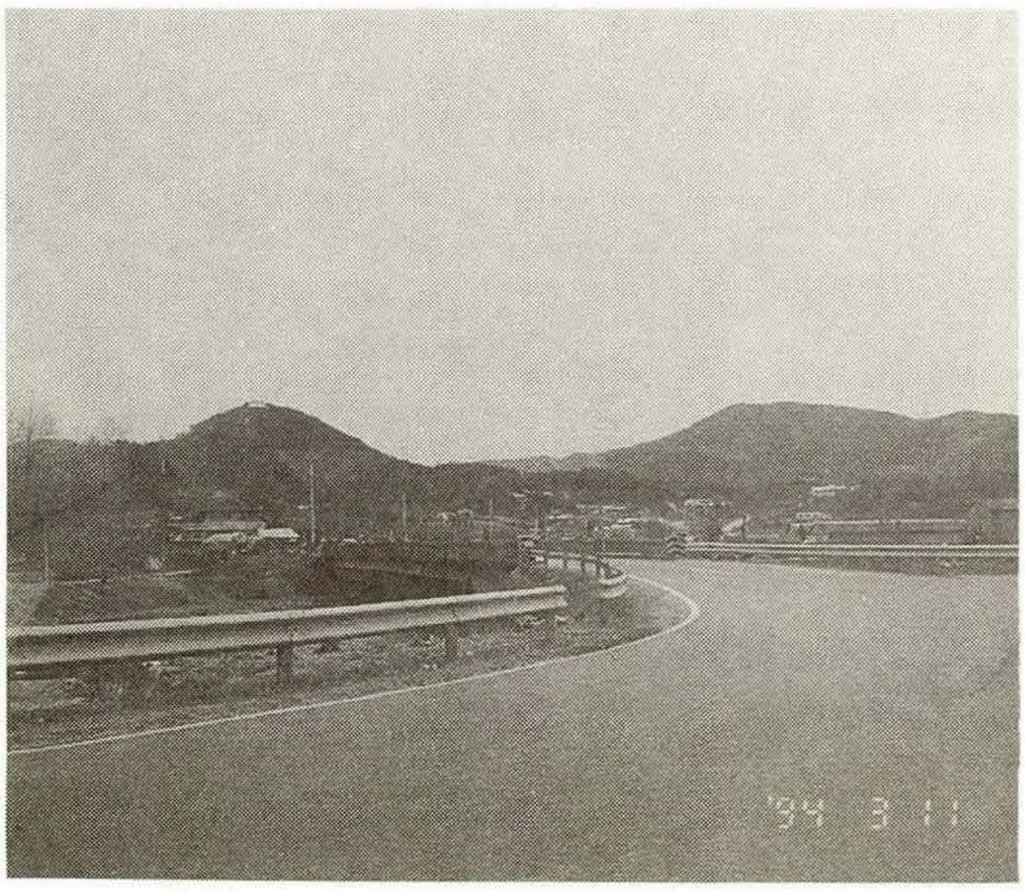
〈사진 9〉 예산군 광시면에서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로 들어가는 경계 지점인 도로(〈도 1〉의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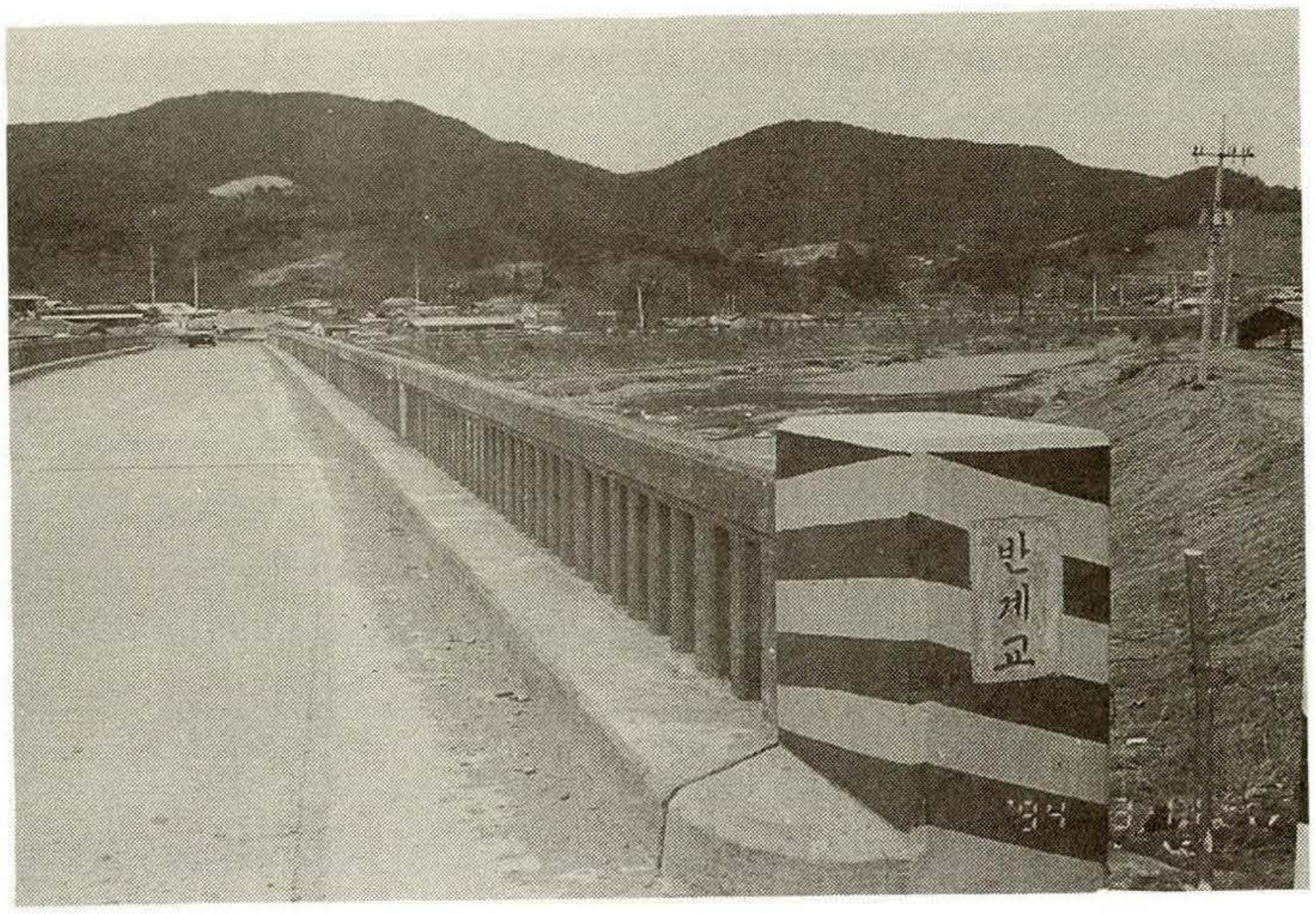
〈사진 10, 11〉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지점 (〈도 1〉의 ⑤)
청양군 비봉면의 614道路와 大川行 619道路의 분리지점.
〈사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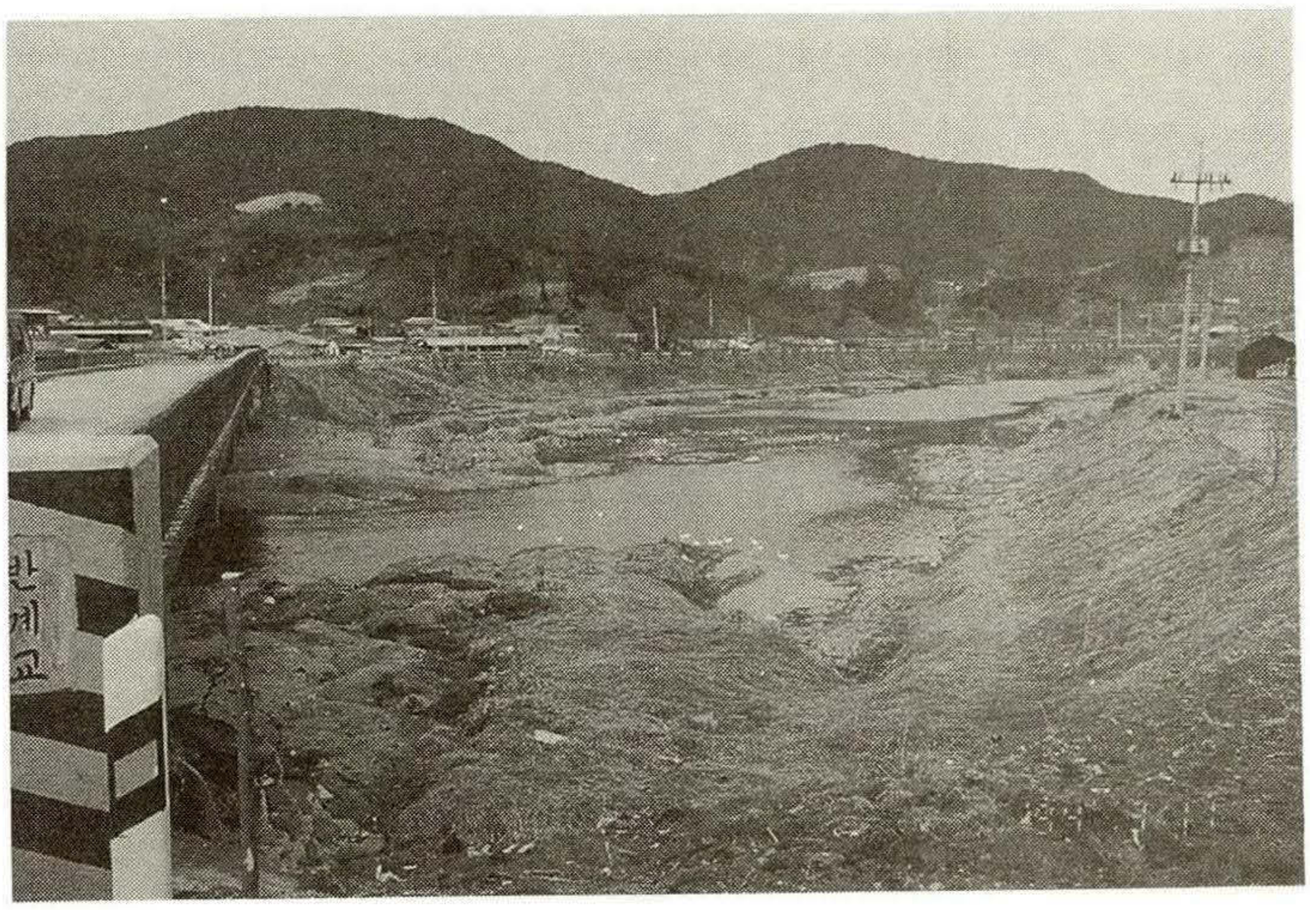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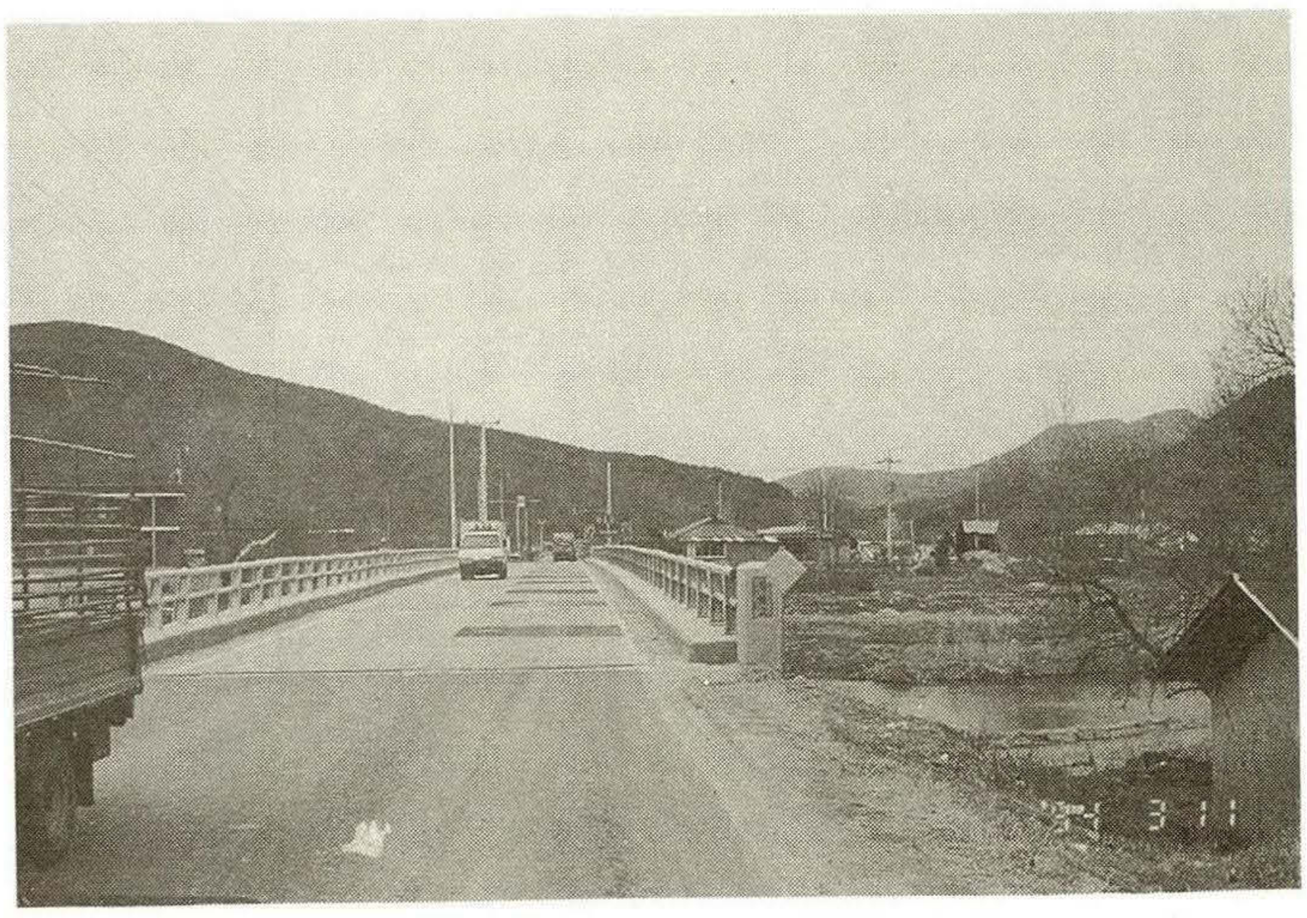
〈사진 12, 13, 14〉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와 청양군 비봉면과의 경계가 되고 있는 磻川의 반계교(1981年. 6月 준공. 길이 105m)
(〈도 1〉의 ⑥)
〈사진 12〉



〈사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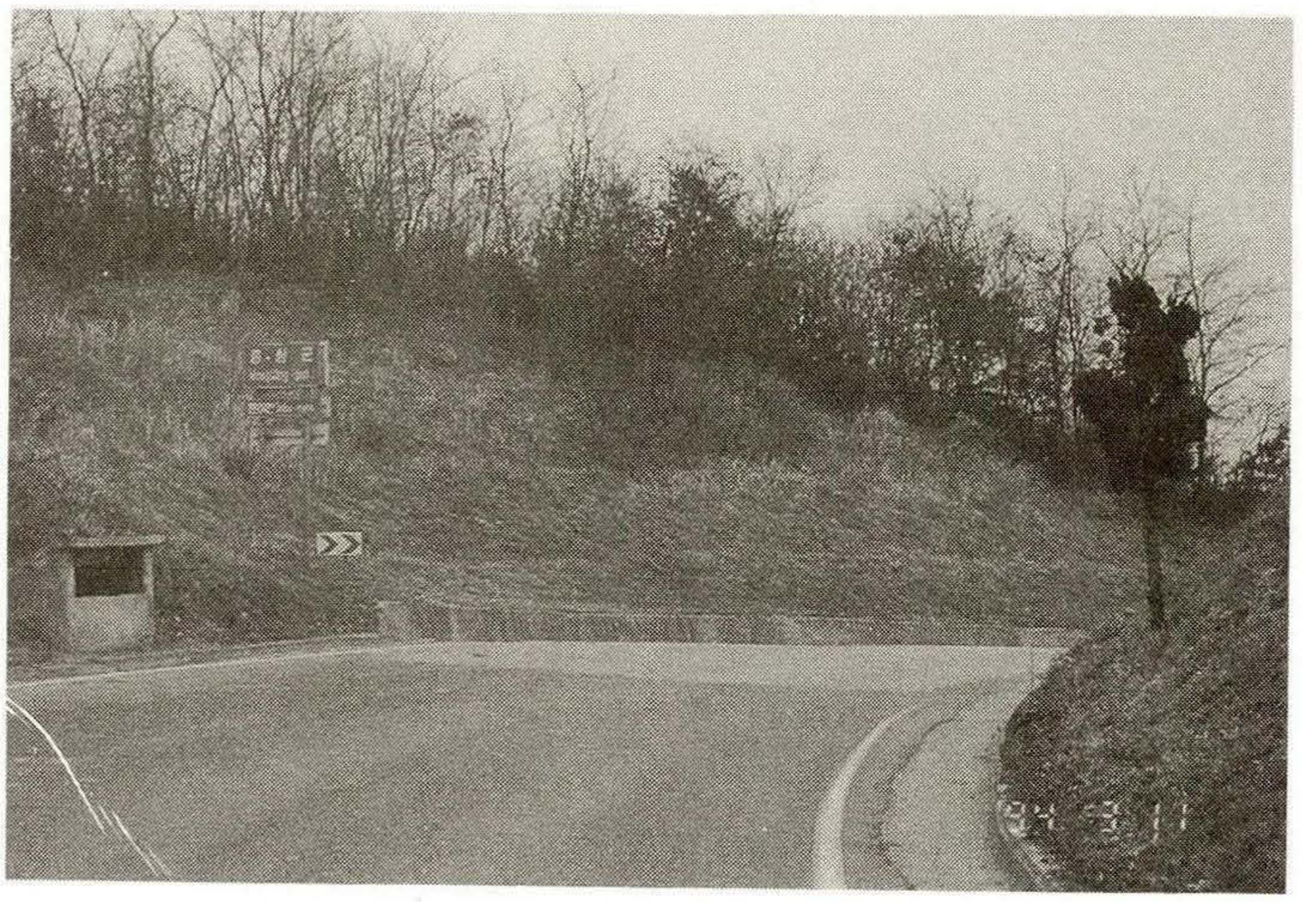
〈사진 14〉



〈사진 15〉 청성교(길이 105m)
1965년 준공. 1970년 완공.
· 다리건너편에 표지판이 있다.
(〈도 1〉의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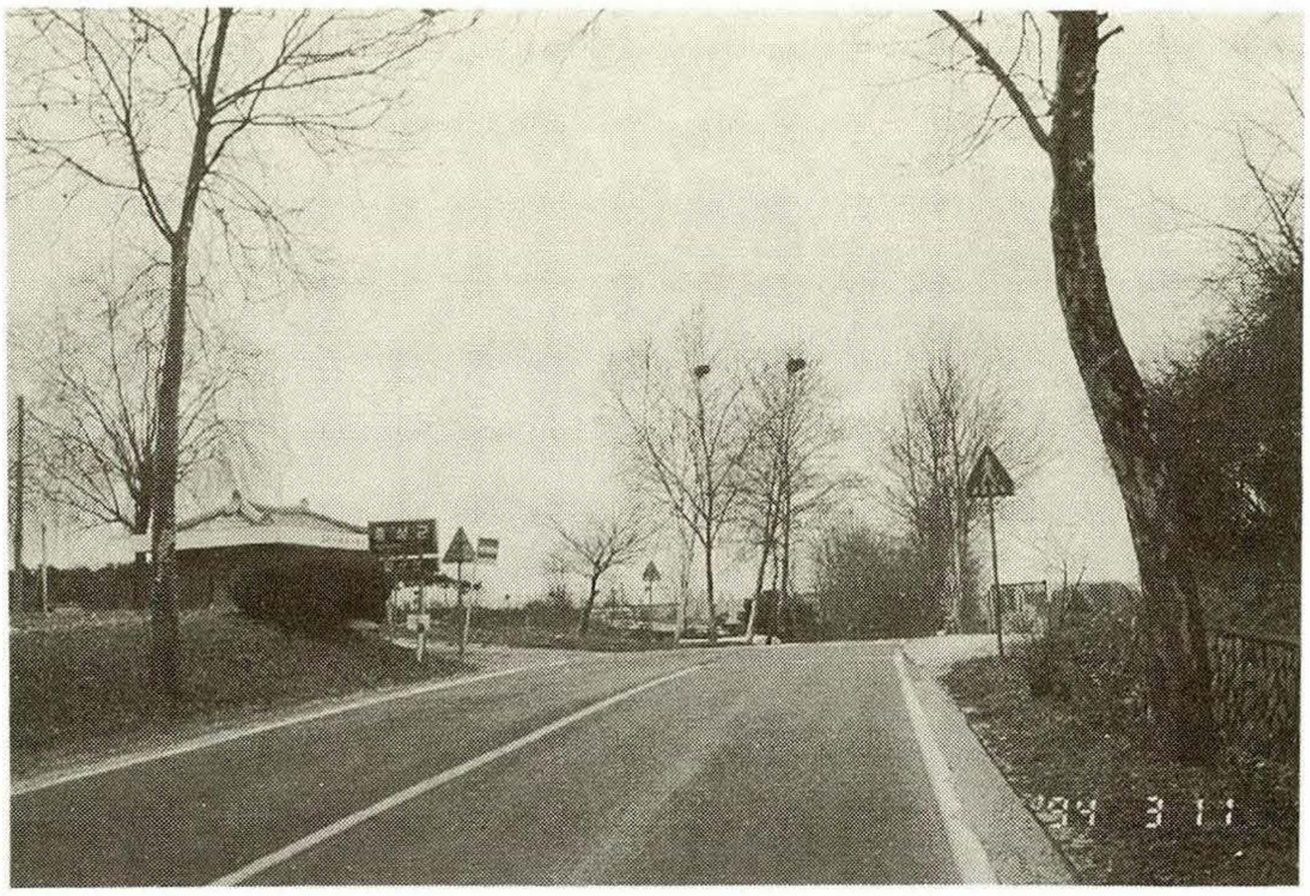
〈사진 16〉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와 보령군 청소면 의식리 옻배미마을과의 경계지점.(차내에서 촬영)
〈도 1〉의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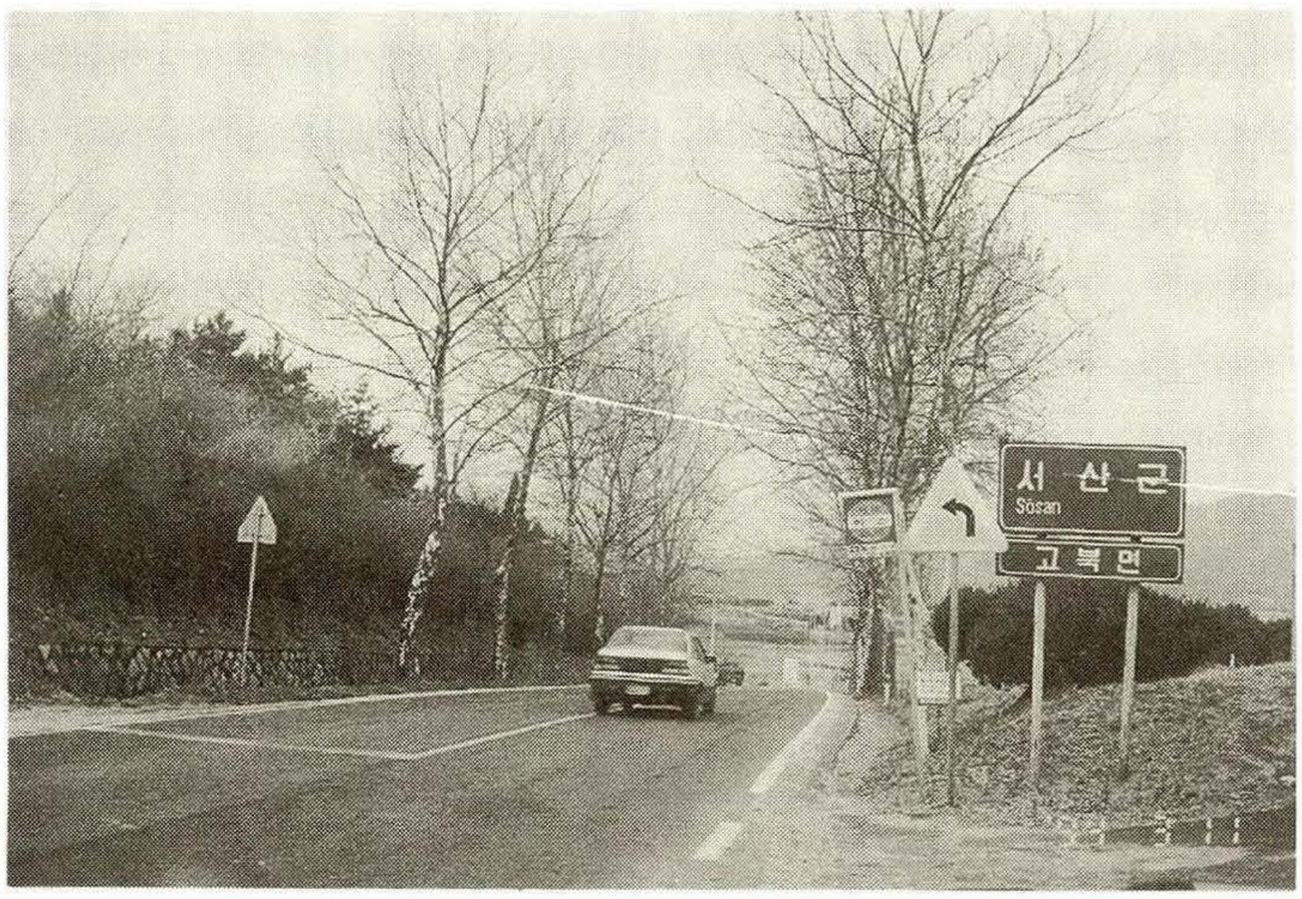
〈사진 17, 18〉 홍성군 은하면↔보령군 천북면 군계인 댓고개
〈사진 17〉 〈도 1〉의 ⑨
은하면 장척리에서 댓고개로 가는 고갯길



〈사진 18〉 천북면 신죽리 댓고개에서 은하면 장척리로 넘는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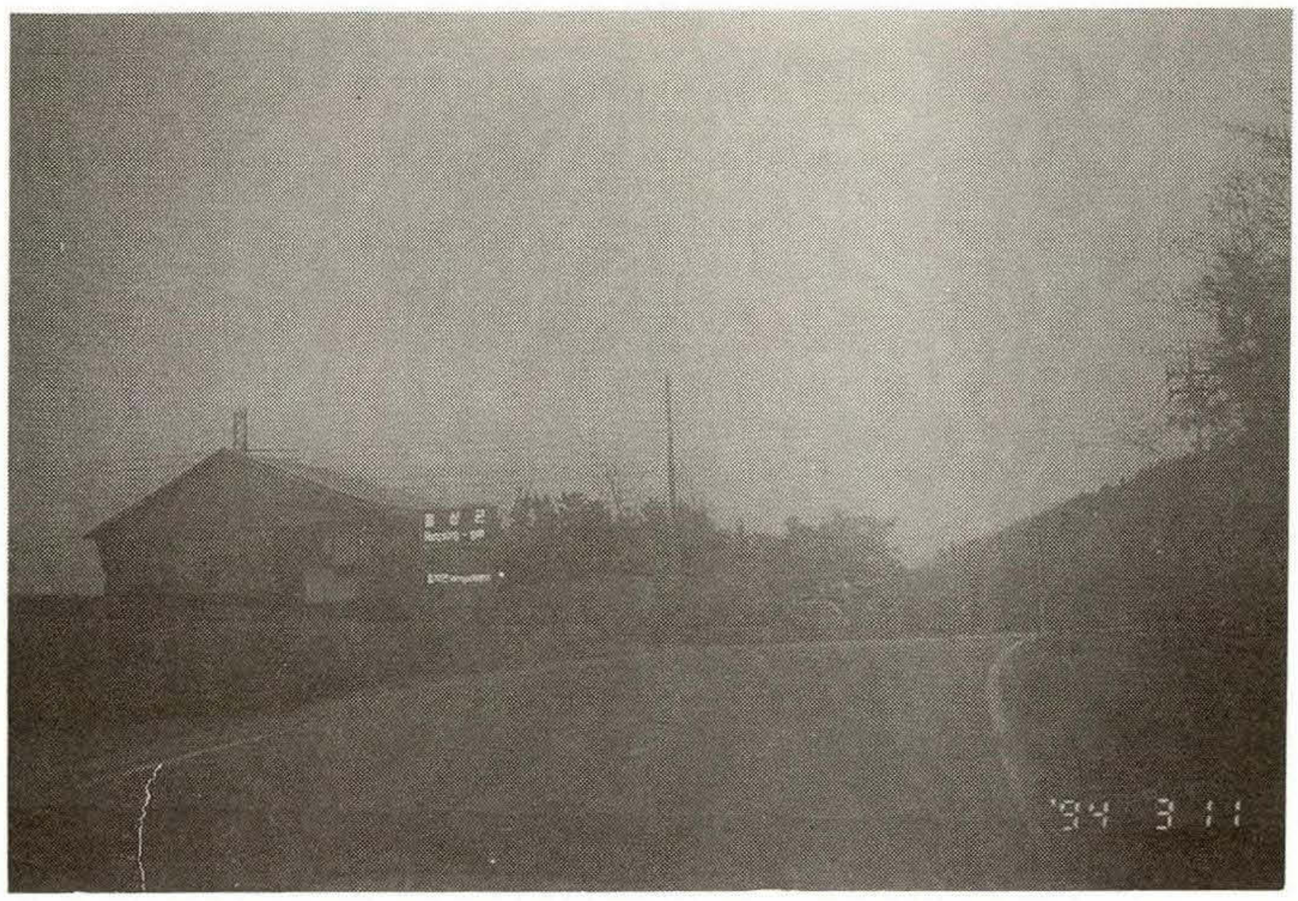
〈사진 19, 20〉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와 서산군 고북면 양천리와의 경계인 완만한 고개 〈도 1〉의 ⑩
〈사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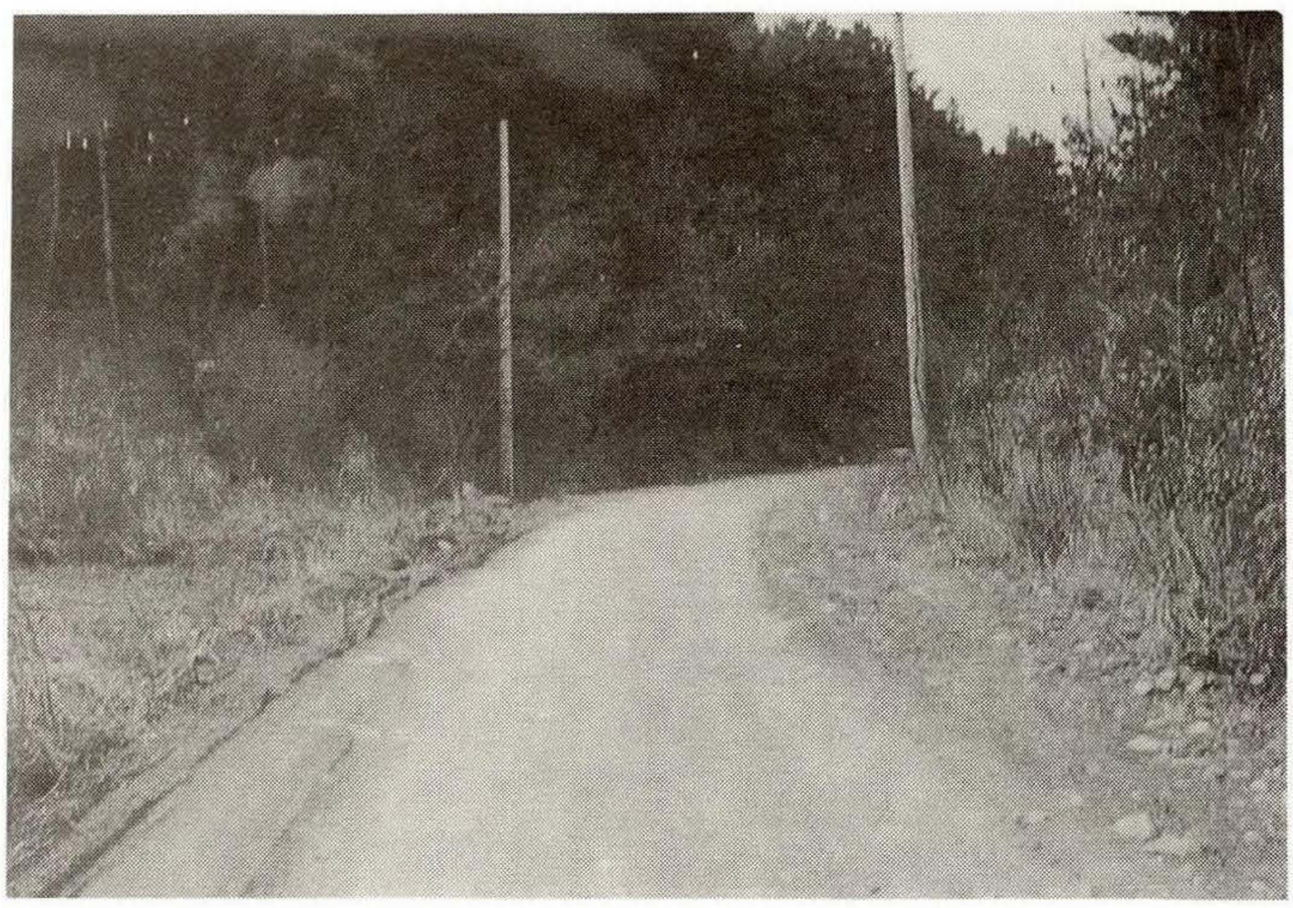
〈사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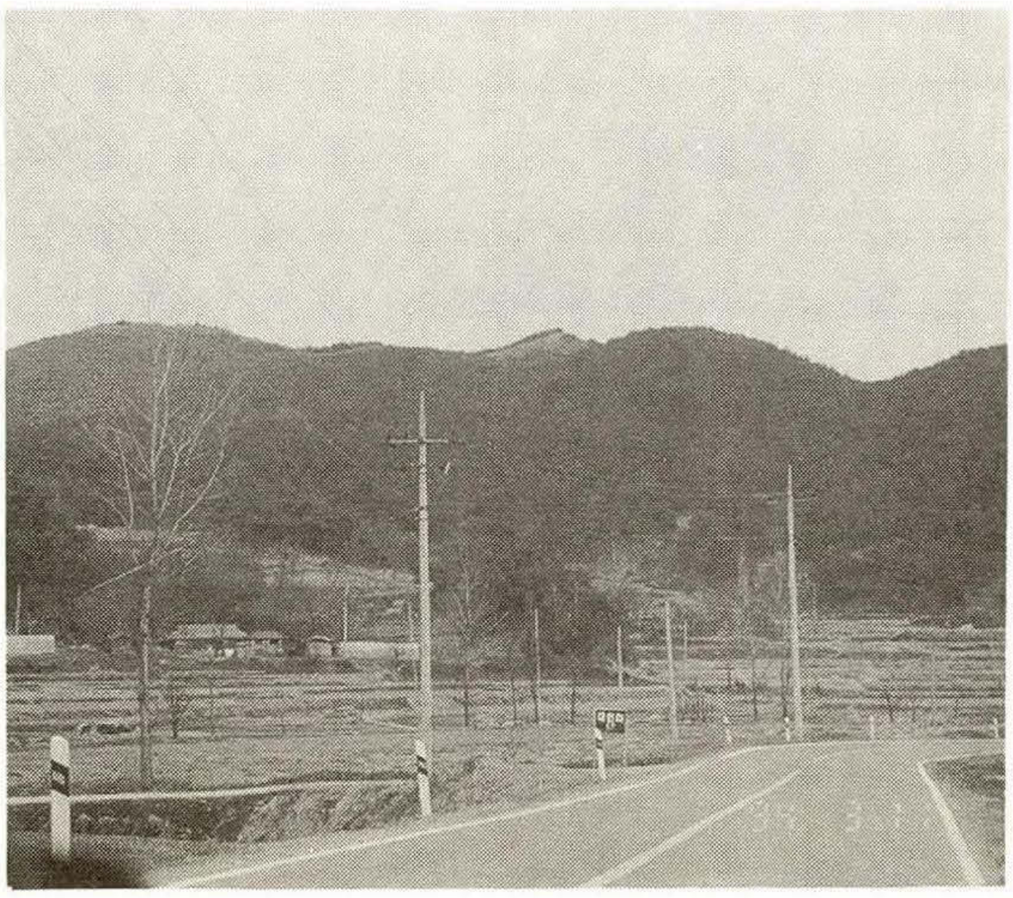
〈사진 21〉 홍성군 갈산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군계인 구성교(길이 34m, 1991년도 완공. 아래로는 가곡천이 흐른다). (〈도 1〉의 ⑪)



〈사진 22〉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과의 군계인 고개 (〈도 1〉의 ⑫)
⑩지점보다는 평평하지 않으나 그리 험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진 23〉 범티고개(장곡면 오성리와 광천읍 가정리와의 경계지점) (〈도 1〉의 ⑬)



〈사진 24〉 홍주 오사대밭과 결성 오사대밭의 경계
산쪽을 향하여 나와있는 논사잇길이 옛 결성군과 홍주군의 경계였다. (〈도 1〉의 ⑭)

2) 녹음 지역 (1986년 3월 ~ 1994년 3월)

1986년으로 부터 1994년 까지의 기간내에 필자의 홍성군 조사 녹음지역은 아래와 같다. 〈지도 1, 표 2〉 참조

이중에서 제1차 조사는 1986년과 1987년에 행해졌고 그 내용이 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3집 」(1989년 8월 발간)에 실렸었다.

제2차 조사는 1989년 11월과 1990년 2월에 실시되었고 그 일부가 1990년 12월 간행 「홍성군지 증보판」에 게재되었다.

제3차 조사기간은 1991년 6월 부터이다. 본서에 관한 보충조사를 위해, 1993년도에 홍성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및 홍성문화원의 협조로 마을단위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994년 2월과 3월에 방문 녹음을 실행하였다.

참고로, 필자는 1984년부터 1989년 8월 사이에 전국을 읍면단위로 1개마을 이상씩 집중적으로 모두 방문하여 전래민요 특히 농요를 골고루 녹음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회있는 대로 조사,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표 2〉 홍성군의 전래민요 녹음조사 지역(1986~1994)

홍성읍	남장,송월리
광천읍	담산,대평,매현,상정,옹암,운용,월림리
홍북면	노은,대동,대인,석택,신정리
금마면	덕정,봉서,송강,신곡,인산,죽림리
홍동면	금당,신기,(운용),운월,홍원,효학리
장곡면	가송,광성,대현,오성,옥계,월계,죽전,지정, 화계,행정리
은하면	대천,목현,유송,장곡,장척,화봉리
결성면	교항,금곡,무량,성남,성호,읍내,형산리
서부면	광리,남당,상황,어사,죽도리
갈산면	가곡,동성,상촌,와리,행산리
구항면	공리,내현,대정리

또한 설문지 응답마을은 아래와 같다.

홍성읍 : 고암1 역치, 고암2 문화동, 고암5 영암, 내법리 법수, 오관4, 오관5 신촌, 오관8 동정동, 오관9 홍주동, 오관10, 월산리 월계

광천읍 : 광천리 신대, 내죽리 죽전, 담산리 상담, 매현리 매현, 벽계리 둔전, 벽계리 백동, 신진리 신촌, 옹암리 노동, 옹암리 독배, 운용리 운용, 월림리 공수, 월림리 월곡

홍북면 : 갈산리 원갈산, 갈산리 정두, 내덕리 서력, 내덕리 어정, 내덕리 요덕, 노은리 상리, 대동리 대지동, 대동리 동방송, 대인리 감나무골, 대인리 내동, 봉신리 이동, 봉신리 지동, 산수리 당산, 산수리 주봉, 상하리 상산, 상하리 하산, 석택리 택리, 석택리 석교, 신경리 꾸촌, 신경리 신리, 신경리 자경동, 신정리 가룰, 용산리 용갈산, 용산리 용두, 중계리 동막, 중계리 홍천

금마면 : 가산리 가야, 가산리 정광, 덕정리 내가, 덕정리 용당, 봉서리 봉서, 부평리 평리, 부평리 상봉, 송강리 송강, 송암리 구암, 송암리 와야, 신곡리 당곡, 신곡리 신곡, 용흥리 고정, 용흥리 용강, 월암리 마사, 월암리 봉암, 인산리 석산, 인산리 인흥, 장성리 장파, 장성리 천변, 죽림리 내기, 죽림리 배양, 화량리 금굴, 화량리 신촌, 화량리 평촌, 화량리 화전

장곡면 : 가송1 조잔, 가송2 가실, 광성1 성벌, 광성3, 대현2 달구재, 대현리 대부동, 도산1 산양, 도산2, 산성2 수문동, 상송2 반송, 상송3 오미, 신동리 신곤, 신풍리 샘골, 옥계2 제실, 월계1 우러내, 월계2 용못, 죽전리 대밭, 지정1 지정, 지정2 계산, 천태2 꽃바위, 행정1 조쟁이, 화계2 모산

은하면 : 금국리 금리, 금국리 상하, 대율리, 대천리 대실, 대천리 월실, 대천리 합천, 대판리 대판, 대판리 백인, 덕실리 구동, 덕실리 미어실, 목현리 목현, 유송리 유송, 장곡리 월곡, 장곡리 장말, 장척리 장자울, 장척리 중리, 장척리 포항, 학산리 거산, 학산리 내남, 학산리 내동, 학산리 학동, 화봉리 상가, 화봉리 야동, 화봉리 중가, 화봉리 하가

결성면 : 교항리 서지동, 교항리 용동, 교항리 원교항, 교항리 자은동,
금곡리 먼내, 금곡리 원금곡, 금곡리 해동, 무량리 역촌, 무량리 원무량,
성곡리 박철, 성곡리 원성곡, 성남리 내남, 성남리 신리, 성남리 중리,
성호리 가곡, 성호리 원성호, 성호리 후청동, 용호리 덕우,
용호리 두지동, 용호리 평산, 읍내리 교촌, 읍내리 좌우촌,
형산리 구수동, 형산리 원형산, 형산리 주교

서부면 : 거차리 거차, 거차리 연새굴, 광리 소리, 광리 중광, 궁리 당곡,
궁리 산막, 궁리 원당, 궁리 하리, 남당리 남댕이, 남당리 내동,
남당리 소도, 상황리 느리실, 상황리 속동, 신리 사구시, 신리 안니골,
양곡리 양곡, 어사리 사태말, 어사리 송촌, 이호리 산수동, 이호리 중촌,
이호리 하촌, 죽도리 대섬, 중리 능골, 중리 원중리, 중리 태흥골,
판교리 덕골, 판교리 무덤, 판교리 수룡동, 판교리 염불암

갈산면 : 가곡리 노상, 가곡리 동막, 기산리 사천, 동산리 동산, 동성리 동곡,
동성리 성촌, 부기리 진죽, 쌍천리 당마루, 신안리 구성, 신안리 신촌,
신안리 안악, 오두리 오두, 운곡리 신곡, 운곡리 운정

구항면 : 공리 공수동, 공리 수리골, 남산리 남산, 내현리 내현, 내현리 화산,
대정리 돌소지, 마온리 마온, 마온리 욧골, 신곡리 신곡, 신곡리 척괴,
오봉리 봉지, 오봉리 오봉, 장양리 벌리, 장양리 장버들, 지정리 묵동,
지정리 지석, 청광리 묘동, 청광리 소반, 태봉리 외궁, 태봉리 태봉,
황곡리 하대, 황곡리 황곡

3) 노동요의 의미

1. 노동요와 민요의 관계

민요(民謠)란 민(民)이 그 생활감정 등을 표현한 노래로서 오랜 세월동안 전하여 온 것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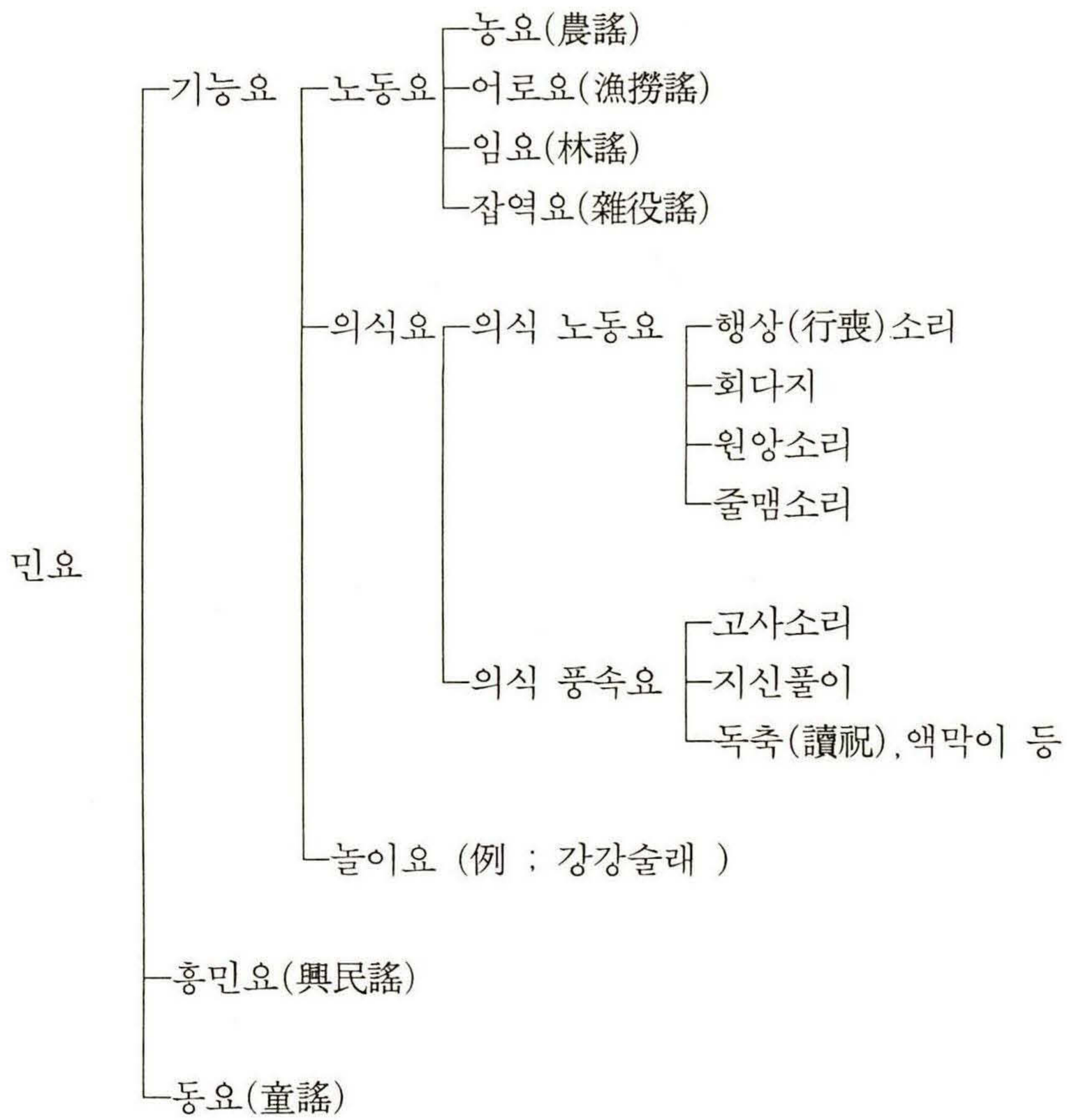
여기에서의 民이란 어떤 공동체속의 자연인(自然人)을 의미한다. 동시대의 횡적 공동체가 아니라도 좋으나 일개인의 창작물인 것에 그치지않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것이 요구된다.

당대에 애창되는 노래라 할지라도 민요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세월의 이끼가 끼어야 한다. 적어도 3세대(100여년)는 전해 내려가야 비로소 그 자격이 생기지 그렇지

한 경우는 한갓 유행가에 불과하다.

노동요(勞動謠;일노래)는 민요의 일부분이다.

민요는 그 기능 및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민요중에서 우선 대상을 기준으로 그 주체 또는 객체(例;자장가)가 어린이인 경우를 동요로 묶는다. 나머지는 다시, 노래하는 상황과 그 본래적 기능을 참작하여 음악내적 기능(內的 機能 ; 단순히 여흥을 위함)이외에 별도의 외적 기능(外的 機能 ; 勞動,儀式,춤 내지 놀이 등)이 있는 것들을 기능요(機能謠)로 구별한다.

기능요는 그 행위 상황과 기능의 종류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및 놀이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요란 노동(勞動 ; 육체적 노력을 들여 일을 함)에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例; 장원질소리)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의식요(儀式謠)는 어떤 의식(儀式 ; 예의를 갖추어 거행하는 일정한 방식의 行事)에 쓰이는 노래인 바, 육체적 노동이 가미되는 의식 노동요와 그 이외의 의식 풍속

요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원앙소리란 혼인 때에 앞 가마꾼이 가마를 잘 메고가기 위해 내는 소리이며, 줄맴소리란 마을에서 세시풍속으로 행하는 줄다리기 때에 줄을 메고 나가면서 하는 소리이다.

놀이요(遊戱謠)는 춤이나 놀이에 수반된 노래로서 유희성이 보다 두드러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민요의 종류는 각 나라의 문화와 관점 및 필요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노래를 가지고 어느 장르에 소속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가래질 소리를 고기푸는 기능으로 볼때는 어로요, 묘쓰는 가래질로 볼때는 의식 노동요, 논두렁 가래질로 볼 때는 농요, 집지을 때의 흙가래질로 볼 때는 잡역요에다 소속시킬 수 가 있기 때문이다.

2. 노동요의 종류

노동요란 육체적인 일과 직접 관련을 가지거나 또는 밀접한 관계로서 불리우는 노래를 말한다. 본서에서는 의식 노동요를 포함하기로 한다.

노동요를 그 일의 종류에 따라 농요,어로요,임요(林謠),잡역요 및 의식 노동요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화해 본다.

농요란 농촌생활중 농사일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불리우는 노래를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농업노동의 결실로 얻은 산출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작업인 길쌈노래나 제분요를 농요의 범주에 넣었고, 나무꾼소리 등은 임요(林謠)로서 별도 설치하였다.

〈표 3〉 노동요의 종류

- 농요
  - 모찌는 소리
  - 모심는 소리, 모심고 귀가길에 부르는 소리
  - 논맴소리
  - 장원질소리
  - 소모는 소리(밭가는 소리,써레질 소리)
  - 논두렁 가래질 소리
- 거둠소리 (收穫謠)
  - 벼베는 소리, 벼 묶는 소리, 목매소리
  - 볏단 쌓는 소리
  - 타작소리
    - 개상질(벼바숨)소리
    - 도리깨질 소리
  - 이삭 훑는 소리
  - 죽가래질 소리
  - 나부질 소리

- 등짐소리,소마차 끄는 소리
- 말 되는 소리
- 따비질소리
- 종자심는 소리
- 밭밟는 소리
- 밭매는 노래
- 나물캐는 노래
- 두렁 가래질
- 물품는 소리 (맞두레질,용두레질,무자위)
- 못뚝 다짐소리
- 작두소리
- 길쌈노래 (삼 삼는 소리,물레노래,베틀노래)
- 제분노래(製粉謠 ; 맷돌,절구방아,디딜방아,연자매)

어로요
- 노젓는 소리(해녀노래,시선배,소흑산도 노젓는 소리 등)
- 닻감는 소리
- 든대질소리
- 줄 꼬는 소리(내왕소리)
- 그물 당기는 소리
- 멸치 후리는 소리
- 갈치낚는 소리
- 고기푸는 소리
- 만선(滿船)노래 (배치기,서우젯소리 등)
- 산 세는 소리, 기타

임요(林謠)
- 나무꾼소리(지게목발노래)
- 풀베는 소리
- 톱질소리,나무쪼개는 소리
- 나무내리는 소리
- 목도소리, 운자소리, 기타

잡역요
- 집짓는 소리(터다짐,가래질,상량,흙나르는 소리, 흙덩이 바수는 소리,집줄놓는 소리 등)
- 보부상 노래
- 풀무질소리(똑딱불미,토불미,디딤불미)
- 다디미질 소리
- 바느질 노래
- 짚두드리는 소리
- 망건노래류

의식 노동요

4) 농사일정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에 큰집을 돌아다니며 볏가리할 쌀을 얻고 큰집 마당에 벼가릿대(7,8자되는 긴 장대를 삐죽 삐죽 짚이 나온 동아줄 3가닥으로 말뚝을 박아 고정시킴)를 세운 후, 음력 2월 초하루가 되면 볏가리쌀로 떡을 하고 큰집에서 내놓은 술로 먹고 마시며 새해의 농사철을 맞이했다. 벼가릿대는 태워버린다.
(서부면 광리에서는 술 1통 낼만한 집의 마당에다 정월 보름날 벼가릿대를 세우고 안에 술단지를 넣어 두었다가 2월 1일에 꺼내어 마셨다. 장곡면 광성리나 홍동면 금당리 등지에서는 벼가릿대를 세우지 않았다.)

음력 2월(양력 3월)의 내포 들녘에서는 겨우내 굳은 논밭을 쟁기소로 깊이 갈아엎어 공기가 잘 통하도록 애벌갈이(初耕)를 한다. 퇴비,풀,북떼기 등을 고르게 펴서 밑거름을 준다.

4월 초(以下.양력)에 재경(再耕)을 하는 한편, 한식(보통 4월 5,6일)을 기준하여 침종한다. 즉, 바탱이에다 물을 붓고서 볍씨를 담근다.
며칠이 지나 벼의 싹이 파릇파릇 돋으면 논의 적당한 곳을 택하여 네모반듯하게 못자리(모판)를 준비한다.

침종후 15~20일 째인 곡우(穀雨 ; 4월 20,21일)께에 논물을 가득 채운다. 모판에다 낙종한다. 살얼음이 얼 정도로 춥더라도 낙종은 항상 새벽에 한다. 싹튼 볍씨가 골고루 떨어지는지를 잘 살피기 위해서이다.

소만(小滿 ; 5월 21일경)에 관수(灌水 ; 물관리)와 시비(施肥)를 하여 육묘(育苗)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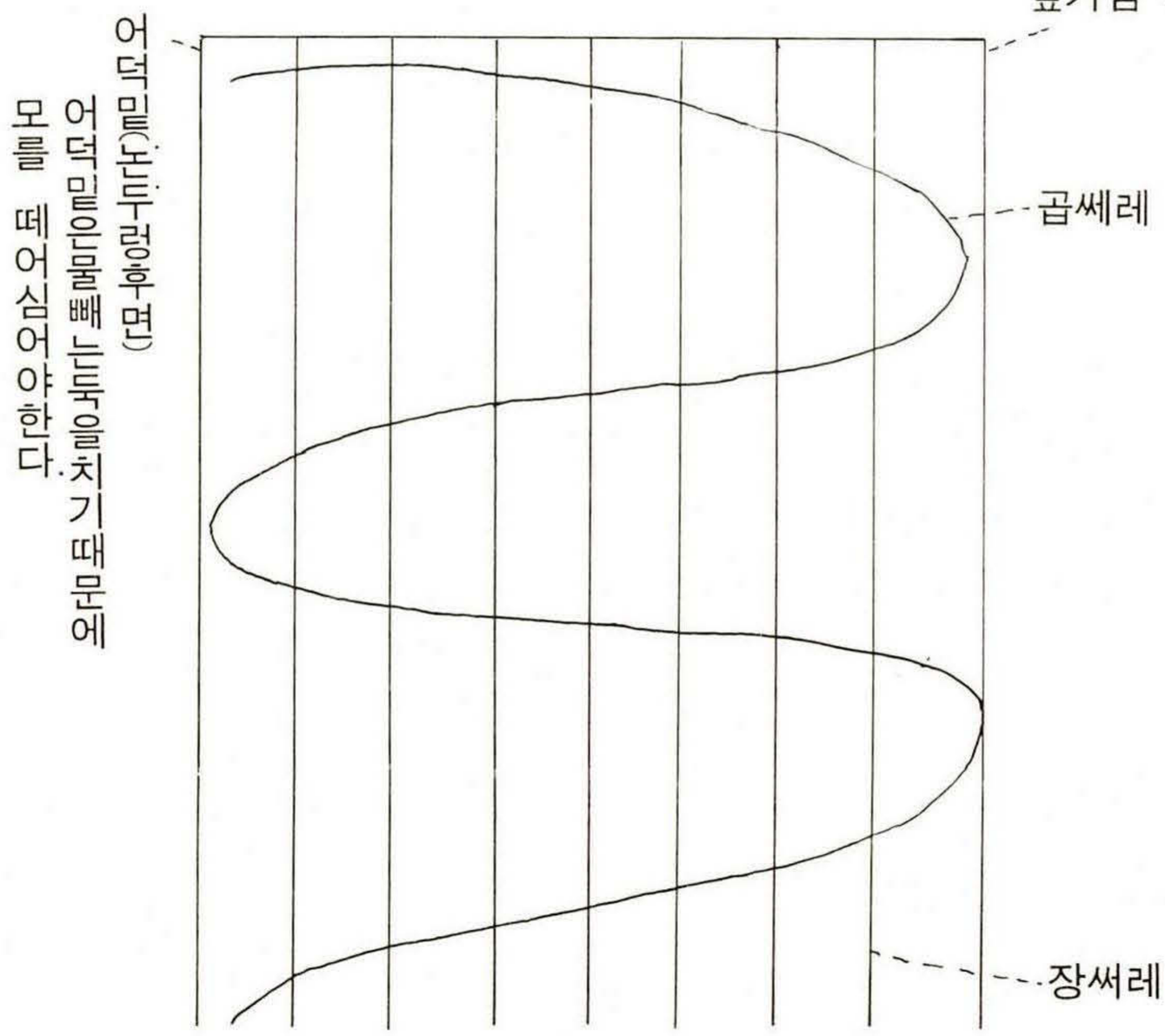
결성면 읍내리에서는 모판의 밑거름으로 마른열잎(삼나무잎; 제일 많이 썼다), 말려 묶어둔 칡덩쿨,뚝에 쏘복쏘복 나오는 풀, 떼풀 등을 발로 밟거나 용발(나무를 엮어 만듬)로 눌러 깊숙이 넣는다. 모판을 만든지 2,3일 후 굳은 모판에다 5일내로 낙종한다. 중거름으로는 고래재,구벽토,개똥오줌,인분뇨 등을 오줌에 섞어 사용한다.

재경후 모내기전에 써레질을 한다. 논을 고루기 위해 곱써레(어덕밑에서 앞가심으로 왔다갔다 함)를 한 다음 장써레(골을 따라 쭉- 나감)를 한다〈도 5〉.

낙종한지 40여일 뒤인 망종(芒種;6월 5일경) 무렵에 볏모를 뽑아 이앙한다. 보리는 익어 먹게 된다.

모심은지 보름(결성면 읍내리 ; 夏至 6월 21일경. 음력 5월 13일)내지 20일(장곡면 옥계리) 만에 건젱이(걸망) 한다. 걸망할 때는 논물을 바짝 빼고 잡풀을 건져낸다.

〈도 5〉 써레질



홍성지방에서는 아시와 두벌을 호미로 맴이 일반이다. 옥계에서는 걸망 후 열흘만에 아시매고 아시 후 7일 만에 두벌매며 두벌 뒤 10~15일 사이에 손으로 만물매기를 했다.

홍북면 산수리에서는 이앙(음력 5월 6~10일)하고 15일 만에 아시매며, 6,7일 후에 두벌, 두벌매고 15~20일 뒤에 만물을 매었다.

결성면 읍내에서는 소서(小暑;7월 7일경)에 아시벌매고 말복(8월12일경)에 두벌매며 처서(處暑;8월 23일경)에 만물을 맸다.

한로(寒露;10월 8일경)에 낫으로 베어 수확하고 입동(立冬; 11월 8일경)에 바숨(타작)한다. 소설(小雪;11월 22일경)께에 집지붕을 새로이 이었다(蓋草)

(2) 홍성군 노동요의 특색

차령산맥으로 인하여 대전·부여방면과의 내왕이 적어, 충남 서북부지역으로서의 고유한 민요권을 형성하고 있는 홍성군 노동요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요의 종류별 특징

1. 거둠소리(收穫謠)가 다양하다 ; 벼바숨소리가 우수하고 흔하며, 드문 종류(稀謠)인 죽드림·나부질소리가 있고 나락베는 소리·말되는 소리·볏단쌓는 소리·도리깨질 소리도 수집된다.

2. 논맴소리가 다양하다 ; 보통 세벌김을 매되 두벌까지는 대개 호미로 매고 만물은 손으로 훔친다. 두레는 논맬 때 조직되어 음력 7월 두레먹기까지 선다. 아시맬 때의 얼카덩어리를 비롯하여 만물소리인 수양산系 산타령·산아지等의 자진산타령·두리둥개 내사랑·매뚜리·술미·어거리 에야호·방게類·논매는 양산도·배꽃타령·상사·매화타령·두덩덩실·기타의 에염싸는 소리 및 결성농요의 독특한 만물소리들(산여,좋다,두레,마루,몸돌)이 있다.

3. 건젱이소리가 따로 있다 ; 모심고 나서 아시매기 전에 손으로 잡풀을 건져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는 곳은 드물다.

4. 장원질소리가 다양하다 ; 마지막 논을 매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상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괭이말,걸채 또는 어깨말에 태우지 않는 대신, 삼동·사동 꽃나부(무동)를 세우며 풍물을 울리면서 풍년을 구가한다. 이때 꽃서는 소리,종헤소리,지와밟는 소리 및 중방넘는 소리가 있다.

5. 어로요의 존재 ; 서해에 면해 있으므로 봉기타령 등의 어로요가 녹음된다.

2) 향토성

1. 겹상사 ;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는 광의의 상사류에 속하되 금마천(삽교천)以西의 겹상사지대와 이동의 하지(사지)소리지대로 대별되며 그 경계지대에선 복합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 나누임이 舊결성군 경계선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겹상사는 결성방면에서 창출된 소리로 그 받음구의 처음에 '어러얼러얼럴 상사리'를 반복함이 특징이다. 예산군 삽교읍과 서산군 해미면 및 보령군 천북면에 까지 전파된 경쾌한 리듬의 흥겨운 곡이다.

2. 결성농요의 산여를 위시한 일련의 만물소리와 건젱이,매뚜리,술미소리들은 향토성이 짙다. 이들과 함께 논맴소리중 두리둥개 내사랑,어거리 에야호는 겹상사지대에서, 방게류와 논매는 양산도는 하지소리지대에서 발견된다.

3. 얼카덩어리 ; 군내에서 두루 불리웠던 아시논매는 소리로서 충남의 대표적인

논맴소리이다. 당진·서산·홍성군 등 서북부 충남이 그 중심지역이며 남부 경기도(안성,평택,용인,화성,시흥)에 까지 파급되었다.

중심지역에선 긴 얼카덩어리와 잦은 얼카뎅이가 함께 불리우나 한계지역인 천안·금산군으로 가면 잦은쩔만 존재한다.

4. 벼바숨 소리 ; 벼타작소리의 발달은 홍성군의 특색이자 충남농요의 특징이다. 개상질소리는 충남에서도 홍성군을 비롯한 중서부지역이 왕성하고 천안·연기·아산·금산군 등의 동부지역에선 찾기 어려워진다.

예산·보령·청양·부여·논산군의 것은 홍성군과 동류이며, 서천·공주군의 것은 가락이 조금 다르다. 서산군의 것과는 유형을 달리한다.

죽드림소리는 서산군에서, 나부질소리는 서산군과 부여군에서 발견된다.

5. 꽃서는 소리,중동넘기 ; 장원질 때의 꽃나부 세우는 소리·중동넘고 지와밟는 장면은 모두 향토성이 높다. 종헤류가 장원질소리로 수집되는 곳은 천안·연기·공주군 등이며 홍성군의 받음구例는 에헤라 종헤호, 워놀이나 종아종종, 에기여라 종게좋소이다.

6. 수양산系는 산타령의 홍성쩰이다. 광천 독배를 소재로한 청춘가곡풍이나 강원도 열시장사를 원망하는 강원도아리랑 곡풍의 삼삼는 소리도 향토색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7. 행상소리는 (메)와(받)이 3분박4박 2마디씩인 非어거리넘차류가 일반적이다. 장곡면 옥계리에선 상두꾼을 앞패와 뒷패로 나누어,요령잽이가 멕인다음 앞패가 이를 받고 이어서 뒷패가 받되 앞패보다 소리를 질러낸다.

상여내릴 때는 "우여우여"한다. 널액막음소리는 "중상(맥)이오"계통이다.

달구꾼이 각자 달굿대를 쥐고 광중에 들어가 회를 다지는 지대에 속한다. 긴 달고와 잦은 달고가 있으나 회다지소리로는 달고류 뿐이다.

3) 복합성

1. 선법(旋法) ;다양한 선법의 공존은 홍성군 노동요의 한 특색이다.

2. 터다짐소리 ; 집터다짐소리로 차류·지점류·상사류가 녹음된다. 차류는 경상도, 지점류는 충북, 상사류는 전라도가 본고장이다.

3. 봉기타령 ; 이는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 쪽이 출처지인 만선 풍어노래이다. 수집곡 중엔 5도에다 단3도를 얹은 구성음에다 중간음을 강하게 떠는 서도창법에 가까운 것도 나왔다.

고기퍼담는 소리는 받어라쩰이다. 이 받음구를 일노래로 부르는 예는 서천군·부여군의 노적소리, 부안군·완도군 일부·추자도의 고기퍼담거나 흙파낼때의 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

4. 모찌기 ; 황해도 연백과 경기도 파주방면이 중심지인 쩠네류가 서산군·당진군 쪽으로 오면 철더럭쿵찧으로 발견된다. 홍성군에서도 철더럭쿵찧이 어렵게 수집된다.

5. 강원도에서 이따금 볼 수 있는 지게상여놀이가 홍성군에도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 거북놀이의 흔적을 홍동면 금당리에서 듣게 된다.

한편 줄다리기,강강술래,지와밟기가 있고 정월 당제지역인 점은 남쪽 문화의 한계지역임을 의미한다.

(3) 결성 농요

결성면의 성남리,금곡리에서 불리워왔던 결성농요가 1993년 제34회 전국민속경연에서 종합 최우수 대통령상을 획득하였다.

홍성군에는 결성농요 뿐만 아니라 결성면의 형산리 농요, 장곡면의 가송리농요와 옥계리 농요, 서부면의 광리 농요 등 유서깊고 다양하며 우수한 가창자들을 구비한 농요들이 있지만 이곳에서는 결성농요에 대해 특히 알고자하는 현실적인 수요에 응하여 별개의 항으로 다룬다.

1) 발굴과 재현

필자가 홍성군지 증보판의 민요집필 의뢰를 받고 성남리와 금곡리를 처음 방문한 것은 제2차 조사기간인 1989년 11월 28일이었다.

이때는 이미 홍성군 1차 민요조사 내용이 「한국의 농요 제3집」에 게재된 뒤였으며, 이날은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서 광대의 효시로 꼽힌 결성 최선달의 이름이 결성면 성남리에 거주하는 최재설의 족보에 보인다는 배동순의 제보에 따라 최선달에 관한 자료수집차 성남리를 방문하였고 내킨 김에 농요를 알만한 사람이 있다는 금곡리로 찾아든 것이었다.

날은 이미 어두웠지만 최광순 댁에서 최광순,최용근,최용환 형제들을 만나, 1990년 2월 1일(음력 1월 6일) 옹암당산제 참관차 내려올 때에 결성면 읍내리 농인정에서 농요를 아는 노인들을 모시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1990년 2월 2일. 김청규의 협조로 읍내리 노인정에 모인 노인들 중에서 최양섭, 정학재,김학인(무량리),최유엽 및 장종환의 농요를 주로 조사했다.
밀가는 소리(건젱이)와 산타령 수양산 및 무동세울때의 꽃쓰는 소리 등을 녹음했다. 마루소리와 멘생이(문성이)가 있었으나 6·25사변 이후에 없어졌음을 알고 최유엽껜 마루소리,정학재껜 멘생이의 기억을 좀더 확실하게 되살려 볼것을 부탁했다. 먼들소리도 실마리가 찾아졌다. 김청규와 황성창께 노인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틈틈이 독려해 줄 것과, 드물고 매우 귀중한 소리인 만큼 기억이 되살려지는 대로 곧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1년 5월. 드디어 재현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6월 7일에 내려가 결성농협 2층 강당에서 최양섭,정학재,박복순,최환섭,이인환(성호리) 및 최광순이 부르는 일련의 만물소리 들을 녹음할 수 있었다. 황성창의 끈질긴 추적으로 복잡한 만물소리들이 제법 질서가 잡혀있었다.

1991년 6월 26일. 실제 논에 들어가 옛날처럼 모를 심고 논을 매가며 재현하였다. 칠채가락의 길굿도 치고, 꽃쓰는 장면을 연출해 보았으며, 나무절구통을 누여

놓고 벼바숨소리도 불러 보았다. 군청에서는 전옥진계장이 나와 이를 참관하였다.

1991년 10월 6일. 농민요보존회의 제2회 대학로 공연에 결성농요가 초청되어 소박한 그대로를 발표하였고 국내외의 민요전문가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1991년 10월 18일 오후 3시. KBS와의 인터뷰 방송이 있었다.

1992년 1월 30일 지대기소리를 아는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조종락(80세.土民)을 찾아 이를 전수받고 4월 10일엔 이신기(교촌리. 81세)와 김학인으로 부터 벼바숨소리를 교습받았다. 원가창자의 소리 및 그 전수과정이 녹음되어 필자에게 우송된 바 있다.

1992년 11월 23일. 대전KBS의 "홍성을 아시나요"에 황성창,최양섭,최광순이 출연하였다.

1993년 12월 1일 MBC 최도영 PD 일행과 「민요대전」용 보존녹음이 있었다.

1993년 4월. 충남대표로 제34회 전국민속경연 출연이 확정됨에 따라 10월 8일 출전일까지 숱한 난간을 극복해가면서 정인삼의 지도 연출로서 연습에 돌입했다. 이 연습과정에서 겹상사의 잦은 소리가 첨가되고 장원질소리 "종게 좋소"가 발굴된다. 또한 만물 때의 에염싸는 소리가 〈홍주 9〉과 같이 몸돌산여+몸돌소리로 재정비된다.

1994년 2월 27일. 결성에서 모였던 농민요보존회(現. 두렛소리보존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필자는 본서의 테이프용 결성농요를 재녹음하였고 아울러 "종게 좋소"의 발굴내력을 조사하였다.

2) 구성

결성농요의 공연은 마을 공동작업 형태인 두레가 난 아침 대로변에 꽂아놓은 용대기 앞에 모여 좌상의 지시에 따라 풍년을 기원하는 용신제로 부터 시작된다. 상쇠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대기전 비나이다. 사해 용왕님전 비나이다. 금년 농사도 대풍으로 점지하여 주시고, 우순풍조 시화연풍, 국태민안을 간절히 비나이다 "라고 빌면 일동 재배한 후 영기(令旗)를 앞세우고 논으로 간다.

모심는 소리에 이어 손으로 잔풀을 건져내는 건젱이소리를 한다.

다음에, 장마비로 인해 뚝이 무너졌음을 상정하여 생솔가지,섬과 말뚝 등을 박고 무너진 흙을 퍼올리며 가래질 소리를 한다.

호미로 아시벌 매며 얼카덩어리를 부르다가 잠시 중단하곤 잡풀이 얼마나 짙은가에 따라 상,중,하로 논값을 정한다.

새참을 이용하여 지대기소리를 부르며 지게놀이를 하면서 휴식한다. 이윽고 손으로 만물매는 장면이 전개된다.

산여-좋다-두레-좋다-마루-좋다로 연이어 부른다음 둥그렇게 좁혀가며 에염을 싸

면서 멕+받(몸돌산여+몸돌)의 에염싸는 소리를 한다.
산여曲을 A. 좋다曲을 B라 할 때, 본래 들판에서 부를 경우는 AB + 두레 BAB + 마루 BAB + 문성이 BAB 로 가창되었으나 공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재편성하였고 문성이도 생략하였다.

좋다曲은 독창한다. 두레,마루,문성이는 여럿이 입을 모아 함께 부르는 바, 이를 볼두렝이소리라고도 일컫는다. 산여曲은 독창,제창 또는 선입후제창(先入後齊唱 ; 한사람이 첫마디를 소리내어주면 이어서 다함께 부름) 된다.

마지막으로 무동을 태우고 귀가길의 장원질 장면에서 "종게 좋소"소리가 불리워진다.

결성농요로는 이들 이외에 쩠네類의 모찌는 소리, 못뚝 다짐소리, 벼벨 때의 산타령(수양산), 벼바숨소리, 말되는 소리, 꽃서는 소리 등이 있다.

3) 모심는 소리

〈홍주 1〉의 겹상사는 모심는 상사류의 결성型으로서 결성지방이 그 출처지이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어러얼 러얼럴 상사리, 어러얼 러얼럴 상사리, 헤 헤 헤헤 여루 상사리여 " 이다.

겹상사의 민요권은 서부 홍성군〈도 6〉과 보령군 천북면, 서산군 해미면, 예산군 삽교읍에 이른다.

메김선율(以下.메)은 3분박5박 1마디+3분박4박 2마디 씩이고, 받음선율(以下.받)은 3분박4박 4마디 씩이다. (받)이 (메)보다 긴(받〉메) 멕받형식에 속한다.

메김구 3행중 끝행은 "어럴 러얼럴 사앙사리"라는 고정구(固定句)이다.
이는 받음소리꾼들이 일제히 받기 쉽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구성음은 미라도레미` 이다. 요성(搖聲)은 기음(基音)인 미와 라에 있다.
미와 라의 음정은 완전4도보다 약간 좁아지기도 한다. 종지음은 라音이다.

겹상사는 경쾌한 리듬으로 어깨춤이 절로 나며 배우기 쉬운 곡이다.
메김구의 변화부분은 다른 재미난 가사로 대체해서 불러도 좋다. 학교의 음악시간에 가르쳐보도록 권하고 싶다.

〈홍주 1〉의 잦은소리는 경연준비를 하면서 첨가되었다. 메김구에 겹상사에서와 같은 고정구를 습관적으로 넣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메)와 (받)을 각각 1마디씩되게 멕이고 받음이 보다 세련되고 바람직하다. 즉,

(메) 앞가심이 붙여심고
(받) 어럴 럴럴 상사리
(메) 어덕밑이 떼어심세

(받) 어럴 럴럴 상사리

앞가심,어덕밑에 대해서는 전게 〈도 5〉를 참조. 속도가 잦아짐에 따라 요성이 적어지고, '어러얼 러얼럴'로 풀어 소리하던 것을 '어럴 럴럴'로 붙여 소리하며, 미-라의 4도음정이 장3도에 가까와진다.

4) 건젱이(밀가는 소리) 〈홍주 2〉

모를 심고 15일 정도 지나서 논물을 빼고 잡풀을 손으로 건져내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희요(稀謠)이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어기야하" 이다.

(메)와 (받)이 각각 8분의6박 1마디씩이다. 〈홍주 2〉I 의 구성음은 미라시도미`이다. 도퓹은 남도계면조의 꺾는 윗음의 기능을 가진다. 기음인 미에서 종지한다. (메)의 끝음으로 미,라,시퓹이 쓰이며 이때 라와 시퓹은 퇴성(退聲)한다.

5) 가래질 소리 〈홍주 3〉

논두렁 가래질, 묘쓸 때의 가래질과 같은 흙가래질 소리나 그물 속의 고기 들을 퍼담을 때의 가래류 소리나 매양 같은 곡이며 일의 종류에 따라 메김구의 가사 내용이 달라질 따름이다.

멕받형식이다. 〈홍주 3〉I 의 받음구는 "어나항 처-헌 가래허" 이다.

他郡의 받음구들도 가래類가 보편적이지만 고기퍼담을 때는 바디,사리,에라소,어이야 받어라,술배,어이여자차 等의 예가 있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출현음은 (라)도레미(솔)이다. 주요구성음은 도와 미퓹이다. 도에서 종지한다. 라퓹은 더 낮은 솔로 대체되는 적도 있다.

6) 얼카 덩어리 〈홍주 4〉

호미로 아시맬 때의 논맴소리이다.

서북부 충남이 본고장이다. 얼카덩어리類는 충남일대 뿐만 아니라 남부 경기도인 평택,안성,화성,용인군과 시흥시에 까지 전파되어 있다.

멕받형식이다. 받음구는 "얼카 더엉어리" 이며, 잦은 소리에서는 "얼카뎅이"로 바뀐다. 얼카덩어리란 호미질로 지심덩어리를 떼어엎는 정경을 묘사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홍주 4〉I 은 비고정(非固定)장단에 속한다. 메김구는 2음보 씩이며 그 1음보는 4내지 6字 구성이다. 구성음은 도미솔라(도`)이다. 도미 사이에 레퓹도 출현하지만 짧은 경과음 내지 장식음적으로만 쓰인다. 도 또는 미퓹을 주로 요성한다. 장3도에

다 단3도를 얹은 도미솔선법에 속한다.

〈홍주 4〉Ⅱ는 (메)와 (받)이 각각 8분의6박 1마디 씩이다. 메김구는 1음보이며 4내지 6字 구성이다. 대체로 도미솔선법에 속한다. 미에서의 下行이 장3도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7) 지대기 소리 〈홍주 5〉

결성면 형산리 지동마을에서 논뚝에 줄지어 세워둔 볏단묶음을 타작하기 위해 지게로 져 나를 때에 불렀다는 소리이다.

경연작품 속에서는 참을 먹으며 잠시 휴식하는 사이에 기분전환을 하여 피로를 풀겸 지게를 상여 나가는 것처럼 엮어 놀며 부르는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결성면에서는 일하고나서 쉴참에 상여놀이를 하곤했다고 한다(황성창 대담). 장곡면 광성리에서 녹음한 지게 상여曲(후술)은 여럿이 나무하러 갔을 때 지게를 꺼물쳐가지고 양쪽에 두사람씩 네사람이 메고 놀던 소리이다. 강원도에서도 나무꾼들의 상여놀이노래가 이따금 수집된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에 헤 헤헤 헤이야, 어허라 넘어간다" 이다.
어허라 넘어간다 대신에 어허 넘쳐 넘어간다 라고도 부른다.행상(行喪)소리를 닮은 점은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 씩이다.

구성음은 도미솔라이고, 미에서 종지한다. 도미솔선법에 속한다.

첨부된 메김가사 가운데 10~12로 부터 그당시 광천독배는 부유한 고장이며 광천독배로 시집가기를 처녀들이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13과 15는 경상도지방 터다짐소리에 흔히 등장하는 전형적 가사인 바, 내용이 재미있어 담방구타령이나 다른 고장 민요에 원용되곤 한다.
16,17 등은 경상도 모노래에 자주 나오는 가사이다.

8) 만물소리 〈홍주 6 ~ 8〉

결성농요의 만물소리는 매우 독특한 짜임의 조곡(組曲;SUITE)이다.
경연작품以前의 구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AB + 두레 BAB + 마루 BAB + 문성이 BAB + 에염싸는 소리(몸돌산여+몸돌) 이다.

두레와 마루 및 몸돌의 노랫말은 뜻없는 입타령으로만 되어 있으며 여럿이 제창한다. 좋다曲(B)과 몸돌산여는 독창한다. 산여曲(A)을 선입후제창 또는 제창한다고 할 때 결성농요의 만물소리는 결국 제창+독창의 반복이 된다. 이리하여 독창하는 좋다曲과 몸돌산여가 멕받형식의 (메)에 해당한다면 여럿이 함께 부르는 그 이외의 곡들은 (받)에 해당한다고 일응 분석해 볼 수 있다.

경연에서는 산여B + 두레B +마루B +에염싸는 소리로 가창했다.

1. 산여曲 〈홍주6의 I 前半〉

산여曲의 노랫말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 반이나 넘어
이여 - , 늙어,
늙어 - 허, 어이여,
늙어- 헤, 에헤

○ 오가한데 헤헤이
이여 어허어, 상대,
사앙대 - 에이여어,
사앙대 - 헤, 에헤

○ 청사 - 하 한리 - 헤헤이
이여 어허어, 벽계,
벼 - 허 - 억 계, 에 -, 이 - 여,
벼 - 억 계 헤에헤

예를 들어 황진이의 시조 제1행인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에서 '청산리 벽계'만 가지고 풀어 내면 산여曲의 가사가 된다.

청산리는 1회 발음되지만 벽계는 3회 발음된다.

비고정장단曲이다. 구성음은 도(레) 미솔 이다.

2. 좋다曲 〈홍주6 I 의 後半, 홍주 7의 後半〉

좋다曲의 노랫말은 "좋다 - , 얼씨구 절씨구 + C + 에헤 " 로 엮어진다. C 는 변화부분이다.

C 부분의 가사로는 다음의 예들이 있다.

○ 패랭이 꼭지에, 지화를 꽂고
해오래기 춤을 너울너울 춘다

○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이 또있느냐하

○ 오동복판 거문고는,
줄만 골라두 소리가 난다

○ 오동추야 달밝은데
생각나는게 임뿐일세

○ 산도 설고 물도 선데
누구를 찾아 내 여기왔나

○ 날아가는 기러기야
한양성에 가거들랑
요내소식 전해다오

○ 꽃피면 춘절이요, 잎피면 하절이요
황국단풍 추절이오, 백설이 날리면
동절이라네

○ 뒷동산이난 푸른 청자야
앞내께헤는 늦청자로다

○ 백두산 꼭대기, 눈오나마나
어린신랑 데리고 잠자나마나

○ 저기가는 저 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날) 사위 삼어요

○ 기와장은 다부서지고
석가래만 남아했구나

○ 가운데는 청처짐하고
양베리는 허위 허위 나가거라

○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를 마라

○ 성호나룻게 굴따는 아낙네들
굴따는 소리가 처량하구나

○ 성호나룻께 굴따는 아낙네들
콧노래가 구슬프다

○ 저울산 장수바위야
이골의 내력좀 알려나 다오

○ 석당산 산마루야
이 산의 내력이나 말하여 다오

○ 고산사 노승들의 염불소리가
처량도 하다

○ 청용산 봉화대의 봉졸들아
왜구놈들을 조심해라

○ 해창 개바닥의 능젱리야
네 맛이 더욱 좋구나

좋다曲은 산여曲이나 두레,마루 또는 문성이의 뒤에 이어 부른다(끝음이 끝나기전에 좋다가 시작되기도 한다)

비고정장단曲에 속하나, 좋다의 '다'와 C의 끝字 및 에헤는 길게 뻗고, 얼씨구 절씨구와 C는 촘촘한 가사붙임을 한다.

〈홍주 6〉I 의 좋다曲은 도(레)미솔을 구성음으로 함에 비하여, 〈홍주 7〉의 그것은 솔(라)도레(미) 또는 라레미(솔)을 구성음으로 한다.

3. 두레소리 〈홍주 6〉II

메김소리꾼의 좋다曲에 이어 받음소리꾼들이 일어서서 가지런히 소리내기 위해 서로 입을 마주보며 부르는 볼두렝이 소리이다.

노랫말은 "이여, 어, 이여엇, 어어 어엇, 이히 "로 비고정장단의 긴 입타령이다. 좋다曲의 끝 '헤'에 악보에서처럼 소리마중나갔다가 부른다.

출현음은 (미솔)라도(레) 이다. 주요음은 라픕과 도픕이다. 도에 강한 요성이 있다. 라픕은 길게 뽑은 후 퇴성하여 맺는다.

4. 마루소리 〈홍주 7〉

두레소리처럼 긴 입타령의 볼두렝이 소리이다.
노랫말은 "오아, 아, 아아하, 아하에엣, 에엣, 이히 " 이다.

구성음은 솔라도레미 이다. 솔을 요성하는 적도 있고 퇴성하는 적도 있다.

5. 에염싸는 소리 〈홍주 8〉

다매갈 무렵 둥그렇게 모여들며 에워싸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이는 멕받형식의 곡이다. 몸돌산여가 메김소리에 해당하고 몸돌소리가 받음소리에 해당한다.

받음구는 긴 입타령의 "이-헤-, 헤헤에, 헤에이여" 이다.

첫행의 이-헤- 는 (메)의 첫행인 이히헤헤와 공통된다. 몸돌소리의 끝말은 '이여'임으로해서 두레소리나 마루소리의 끝말이 '이히'인 것과 구별된다.

메김구는 "이히헤헤 + C + 에헤 " 이다. 固定句 '이히헤헤'는 좋다曲의 '좋다-얼씨구 절씨구'에 해당한다.변화부분인 C와 고정구 에헤는 좋다曲의 그것과 상통한다.

실제 들에서는 멕이고 받기를 5회정도 되풀이하곤 끝이 난다.

(메)(받)이 각각 처음엔 레파라시 또는 레파솔라시픕으로 엮다가 뒤에 가서는 도(레)미솔(라)의 구성으로 바뀐다.

9) 장원질소리(종헤類) 〈홍주 9,10〉

〈홍주 10〉은 논을 다 매고나서 귀가길에 꽃나부(무동)를 세우고 춤추며 걸어갈 때 불렀다는 장원질소리이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에기여라 종게좋소" 이다. 이 받음구는 성남리에서 25세에 금곡리로 이주한 최병호(1928년생)의 기억에 의거한다.

그는 열서너살 때 성남에서 무동을 섰었기 때문에 이를 안다고 했다.

고증당시(1994.2.27) 노인정에 모였던 노인들 중에서 최양섭(73세.성남리), 최환섭(74세) 등 7,8인이 이러한 계통의 장원질소리를 들었노라고 했다.

최병호는 종게좋소를, 논을 다매고 나서 술마시고 노는게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부자집에서는 논매기꾼을 40명 내지 50명 얻었으며 논매고나면 앞마당에다 모기불 피우고,밀짚방석 깔아 술과 음식 장만해 놓곤 빙 둘러앉아 먹고 마시며 즐겼다.

이는 장곡면의 광성리(에헤라 종헤호)와 옥계리(워 노리나 종아종종) 및 공주군 정안면(에허라 중화〈韓國의 農謠 악보 1517〉), 연기군 서면(종달오 소리), 청원군 풍세면(어기여라 종다루〈악보 2093〉),고창군 부안면(종헤 소리〈악보 1368〉) 등지에서 수집되는 종헤類의 장원질소리 계통으로 보인다.

〈홍주 10〉에서는 '종게'의 게를 종보다 높여 소리냄에 비해 〈홍주 9〉에서는 낮추어 내고 있다.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 씩이다.

〈홍주 10〉의 구성음은 미라도 이며 기음종지한다.

〈홍주 9〉은 (라)도(레)미솔픕으로 짜여 있다. 도픕이 줏대음이며 줏대음에서 종지한다. 주요 구성음을 도미솔로 볼 때, 줏대음으로 부터 중간 주요 구성음까지의 음정이 장3도(도-미)로서 〈홍주 9〉의 4도(미-라)보다 좁다.

일반적으로 미라도 선법은 도미솔 선법보다 곡의 분위기가 약간 무거운 감이 난다.

10) 현대적 수용과 보급

농요는 일노래이기 때문에 일의 방법이 바뀌어지자 50여년전 부터 이땅에서 사라져갔다.

주로 7,80세되신 노인들의 몸에 벤 기억으로 부터 되살려내고 있는 이 농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민중의 미기록 역사이며 창조물이기에 더욱 소중하다.

오늘날의 세계는 개방화,국제화로 각 나라의 개성이 추구되고 요구된다.개성은 국제적 경쟁력을 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편인 탓이다.

전통문화는 그 나라의 개성을 잘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의 일노래도 새롭게 조명되어 수용되고 보급되어야할 필요성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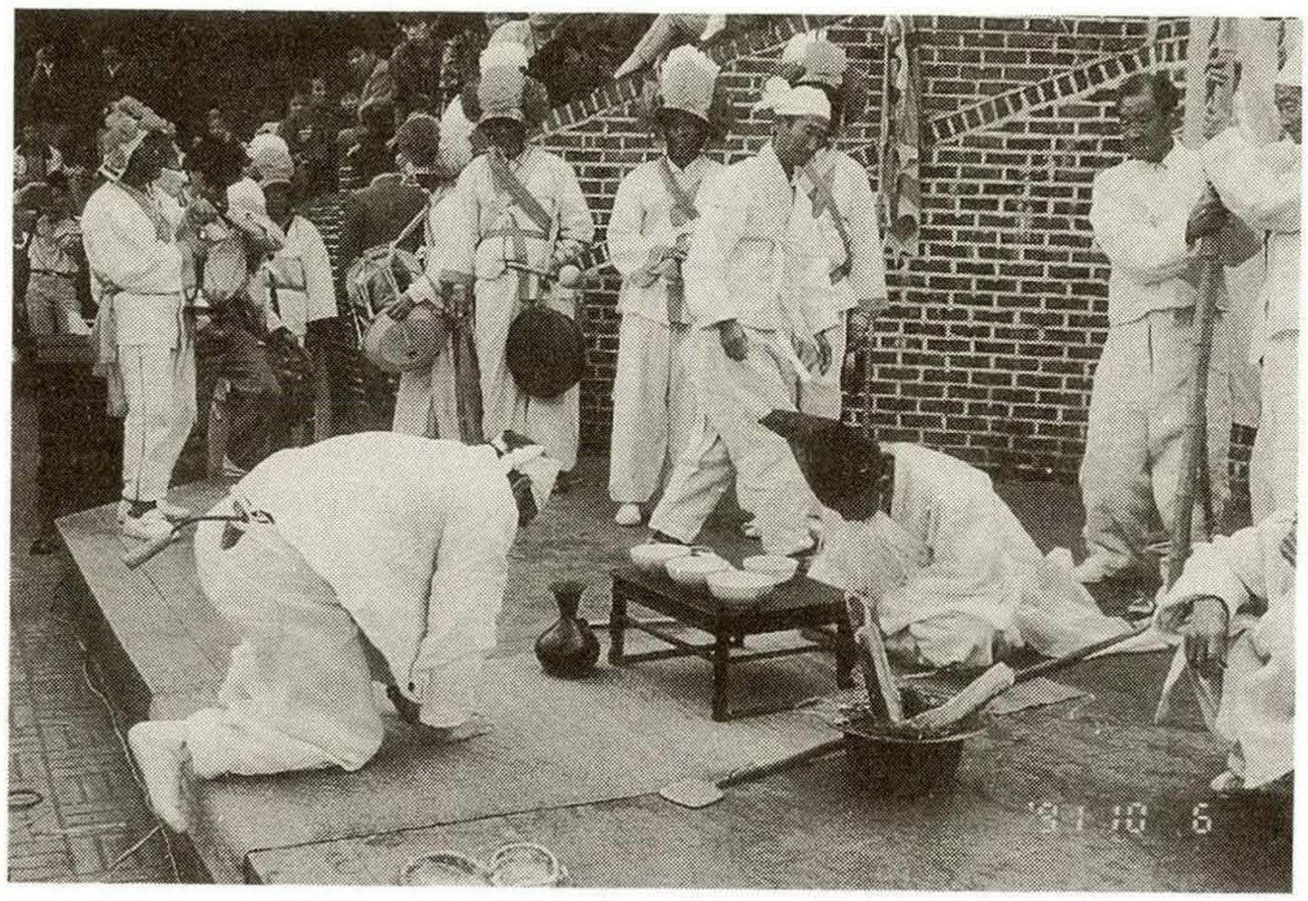
우선 국민학교의 음악교육으로 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겹상사, 결성농요의 만물소리, 벼바숨소리, 산타령 수양산가, 두리둥개타령 등 감흥있는 곡들이 적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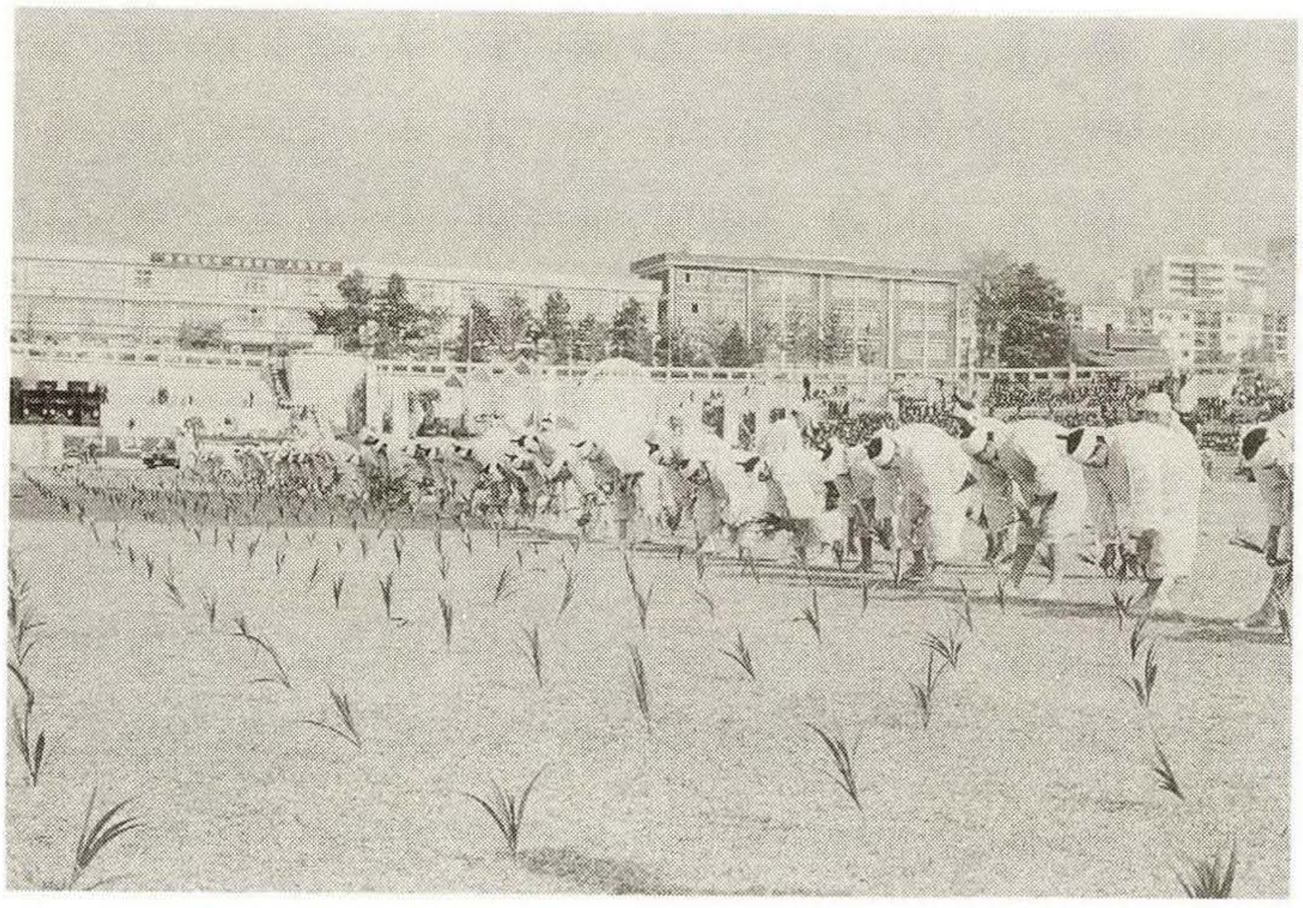
처음부터 선율을 개작하려고만 들지말고 메김구 정도 첨가하여 부르는 중에 자연히 합창곡,합주곡으로도 발전시켜 세계무대에서 개성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여러가지 작품으로까지 승화시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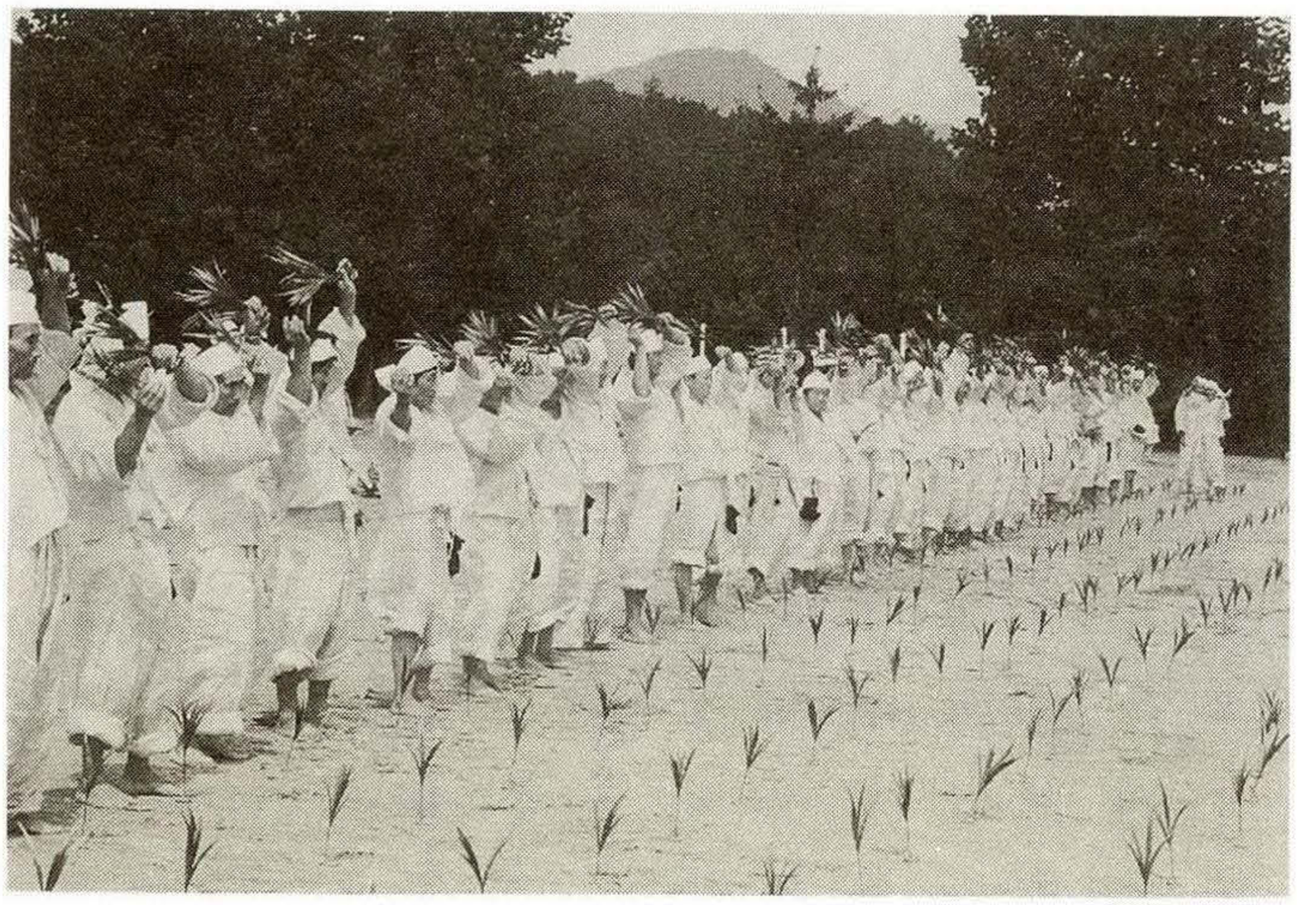
〈사진 25〉 장원질 장면



〈사진 26〉 용신제 장면 (1991. 10. 6 대학로 공연)



〈사진 27〉
모심는 소리 장면(메김소리 때)



〈사진 28〉 받는소리때의 모심는소리 장면



〈사진 29〉 결성 농요마을 앞들에서의 논매는 소리 장면(199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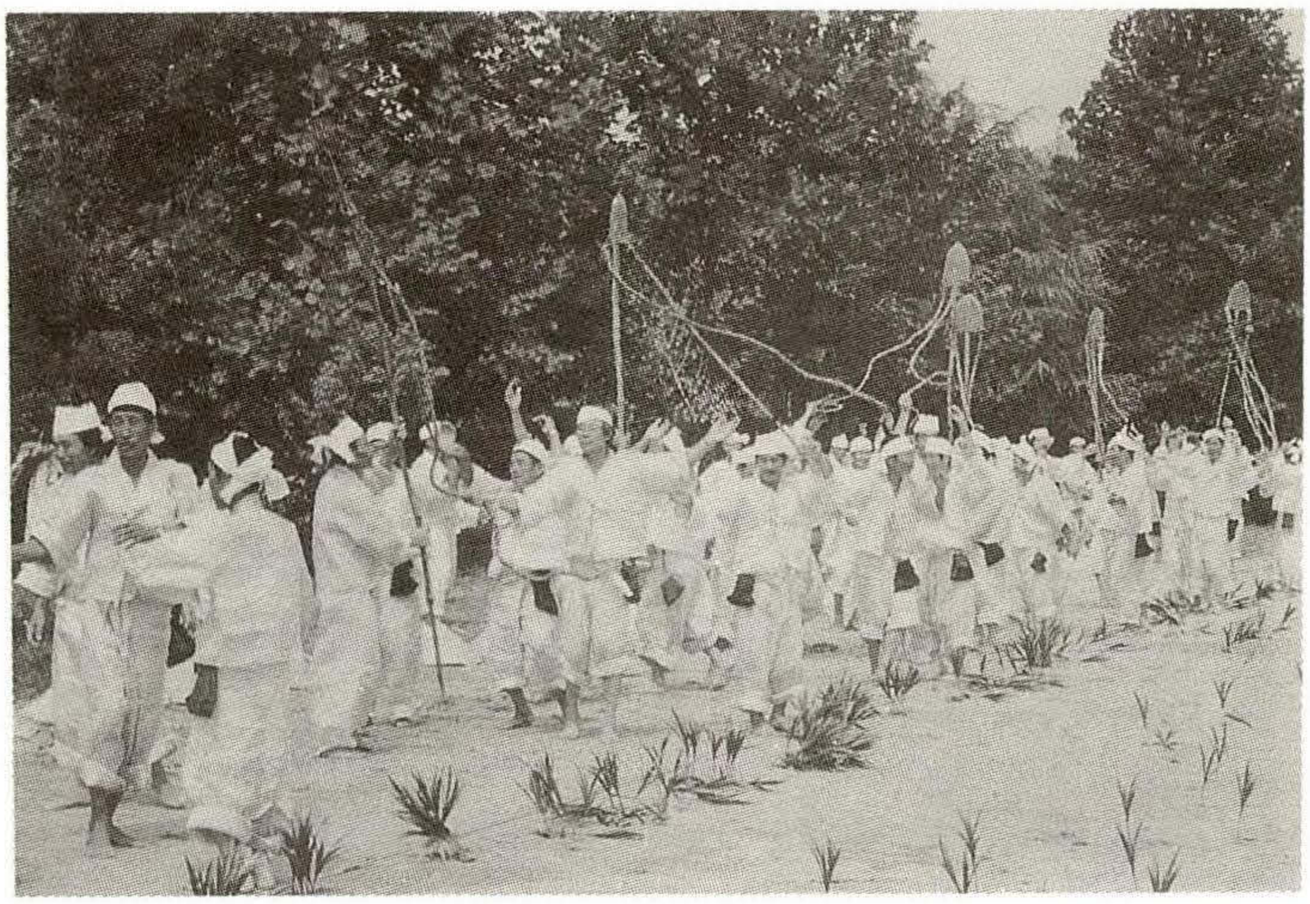
〈사진 30〉 50여년전에 들판에서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결성농요를 결성 들에서 재현한 주역들
(1991. 6. 26)



〈사진 31〉
논맴소리 에염싸는 장면
(1991. 결성 들판)



〈사진 32〉
잦은 얼카뎅이의 끝맺는 장면



〈사진 33〉 가래질소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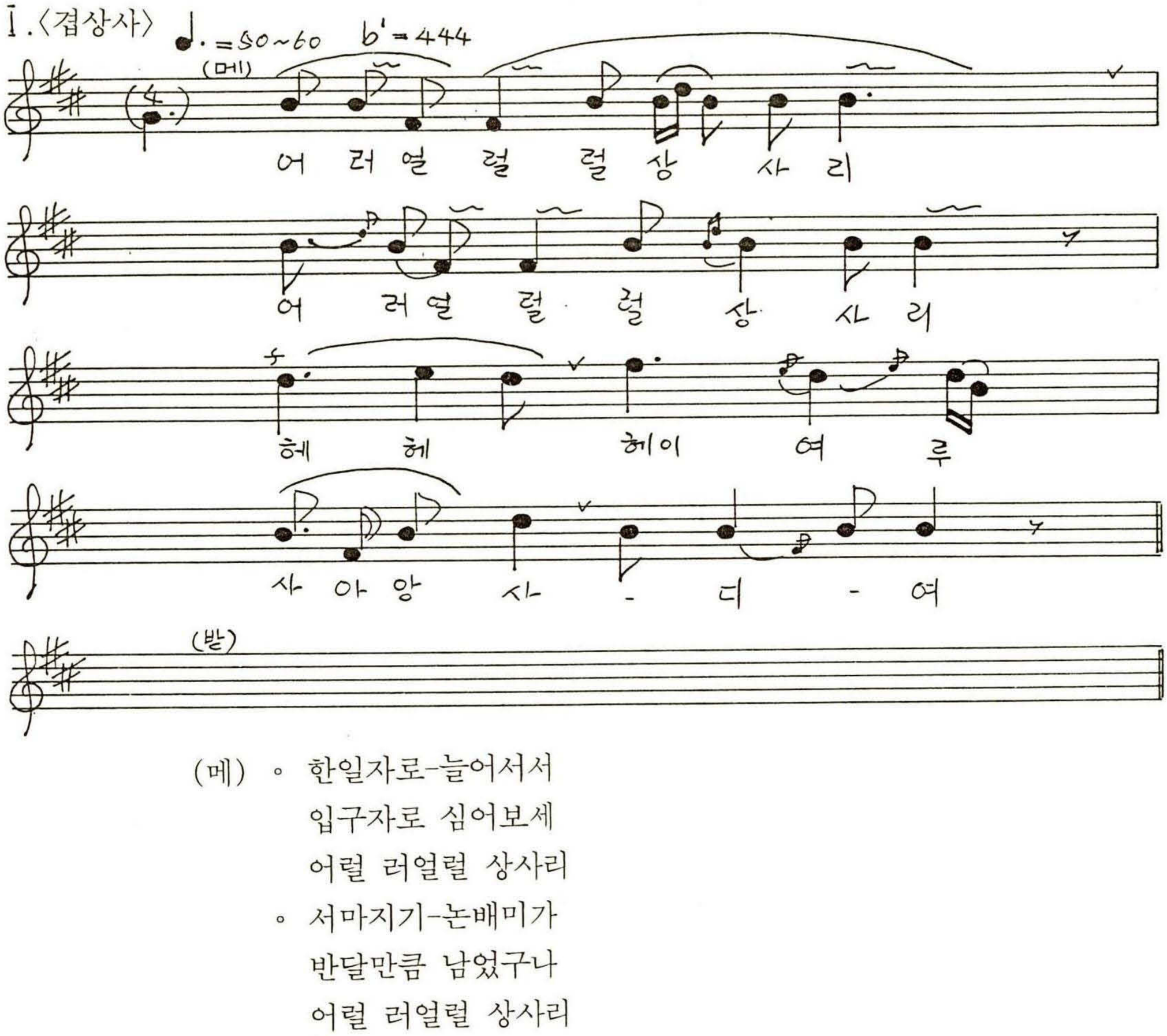
〈사진 34〉 지대기소리 장면

〈홍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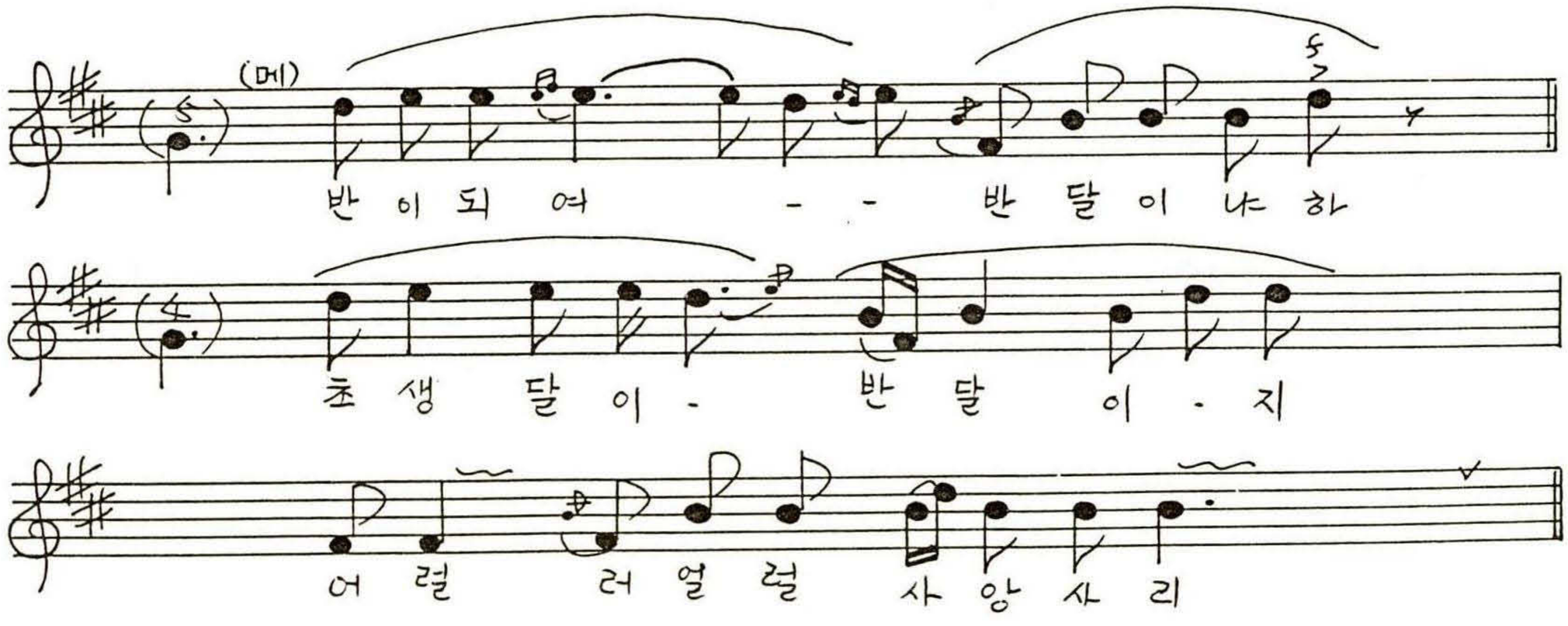
홍성군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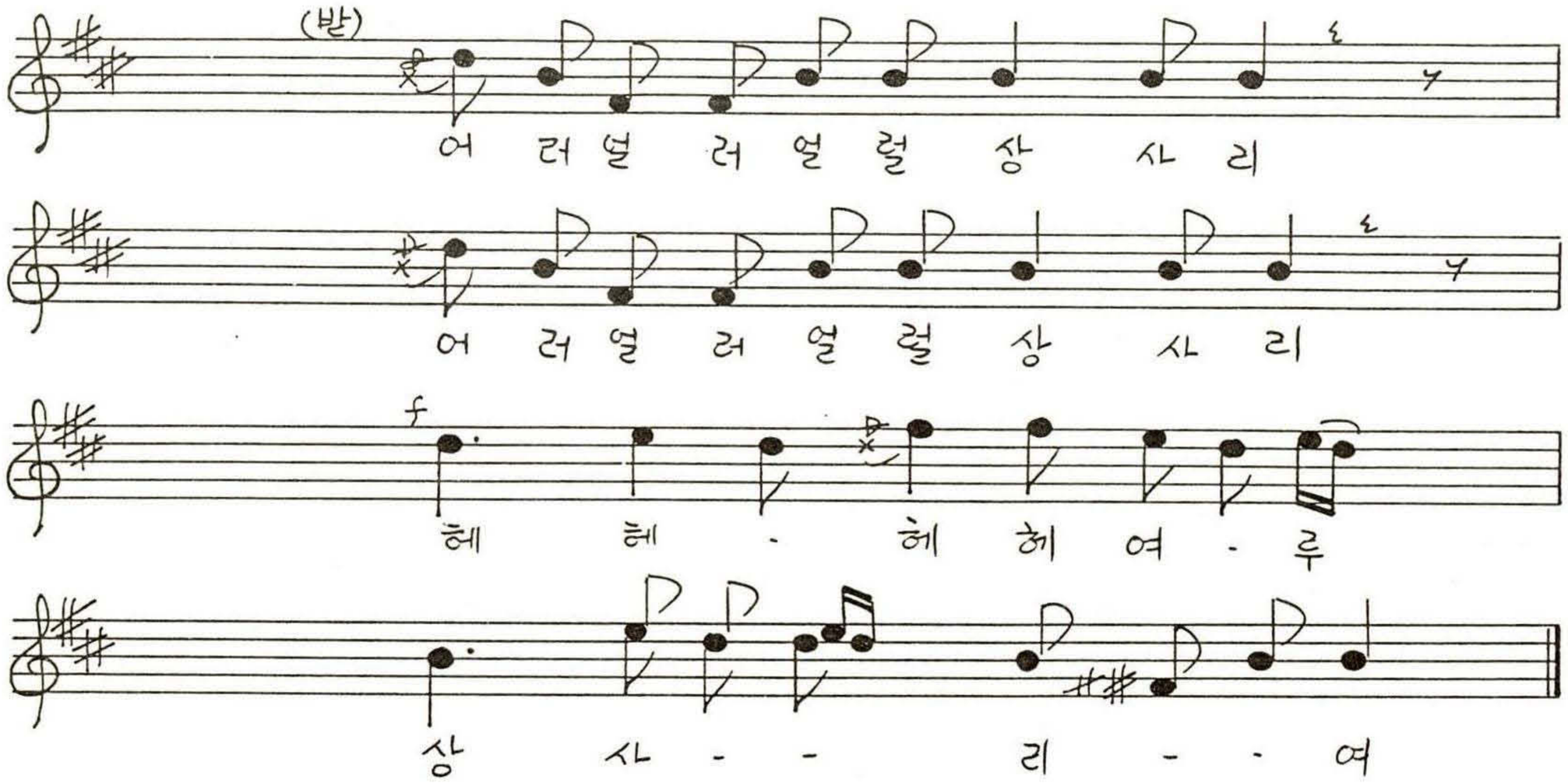
모 심 는 소 리

(메)최광순
(반)결성농요단
素 94-2-27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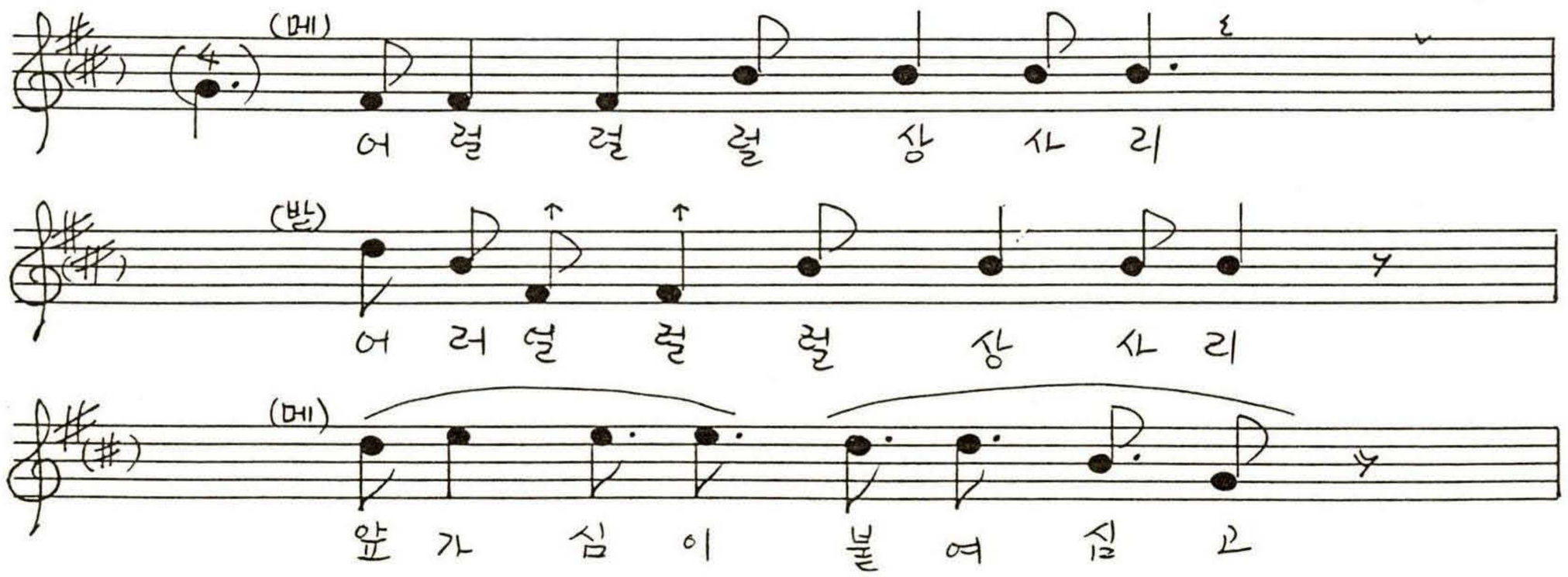
(메) ◦ 한일자로-늘어서서
입구자로 심어보세
어럴 러얼럴 상사리
◦ 서마지기-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구나
어럴 러얼럴 상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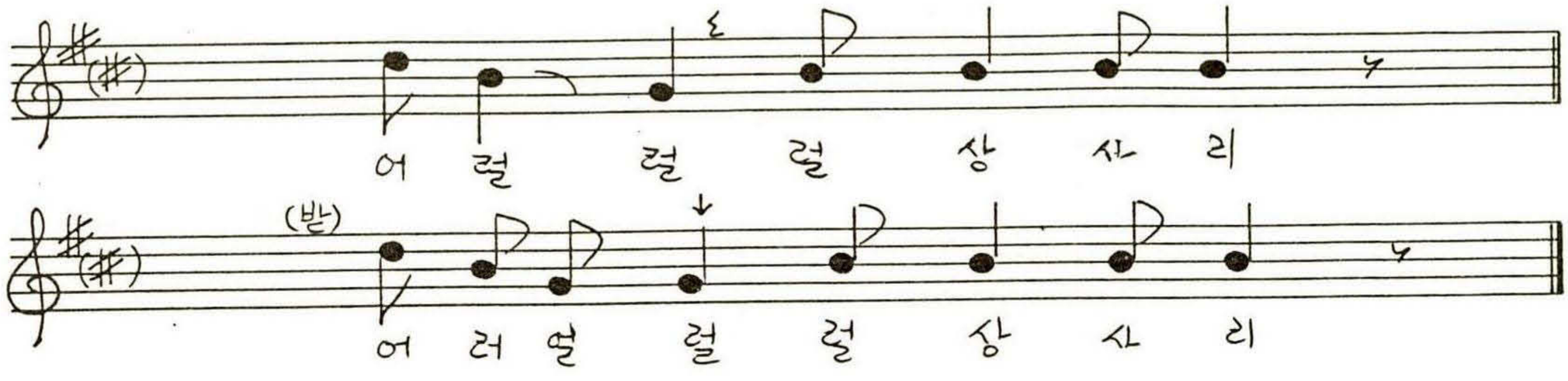




(메) ◦ 여보시요- 농군님네
정신디려서 잘심어주세
어럴 러얼럴 상사리
◦ 이 논배(미)- 얼른심고
장구배미루 넘어를 가세
어럴 러얼럴 상사리

Ⅱ.〈잦은소리〉 ♩. = 100





(메) ◦ 어덕밑이 떼어심세, 어럴 럴럴 상사리
◦ 금년농사는 대풍이요, 〃
◦ 놀어보세 놀어봐, 〃
◦ 젊었을때 놀어봐, 〃
◦ 늙어지면 못 놀어, 〃
◦ 놀자 놀자, 〃

〈외침〉 - 다 심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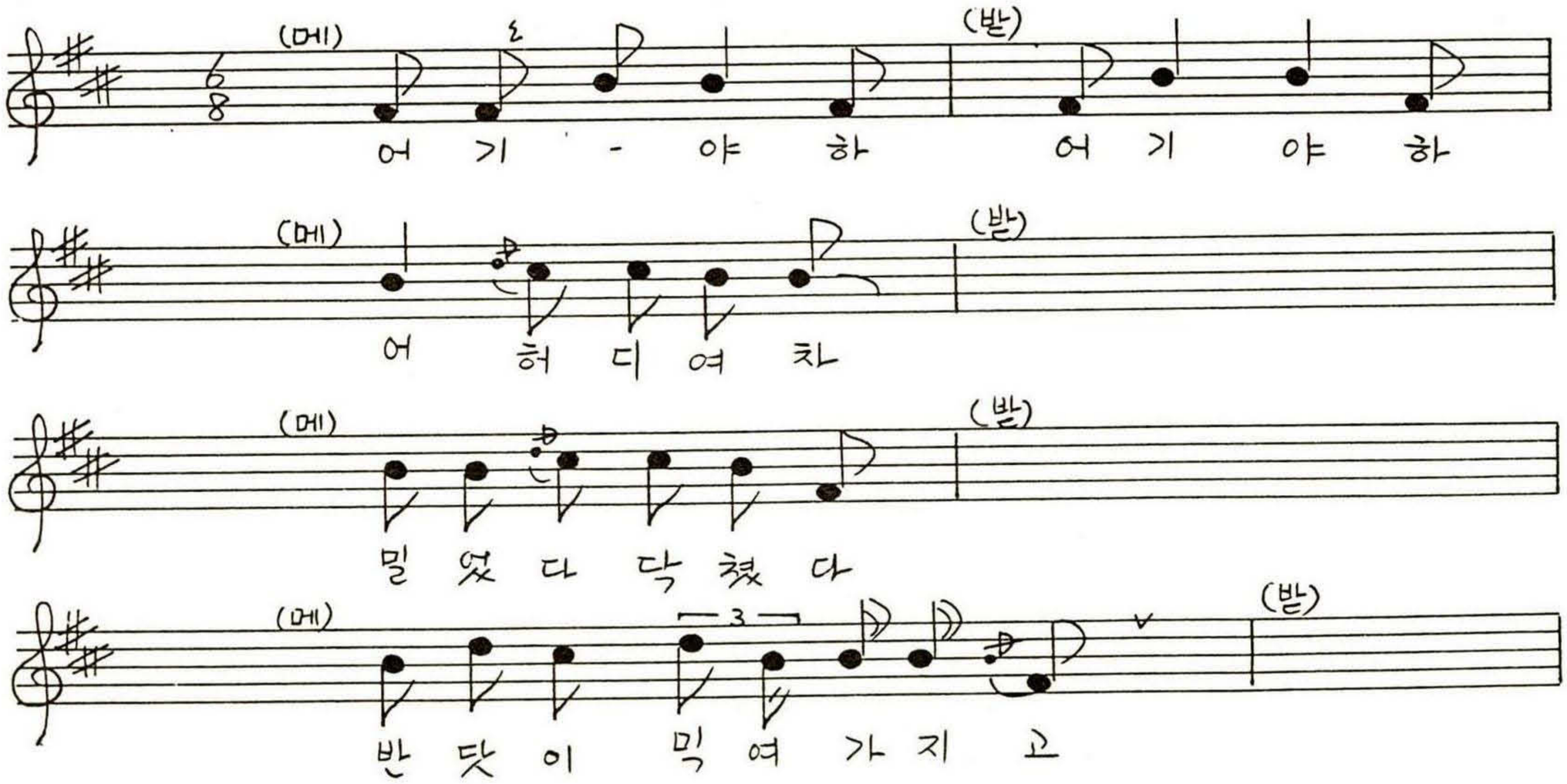
〈홍주 2〉 홍성군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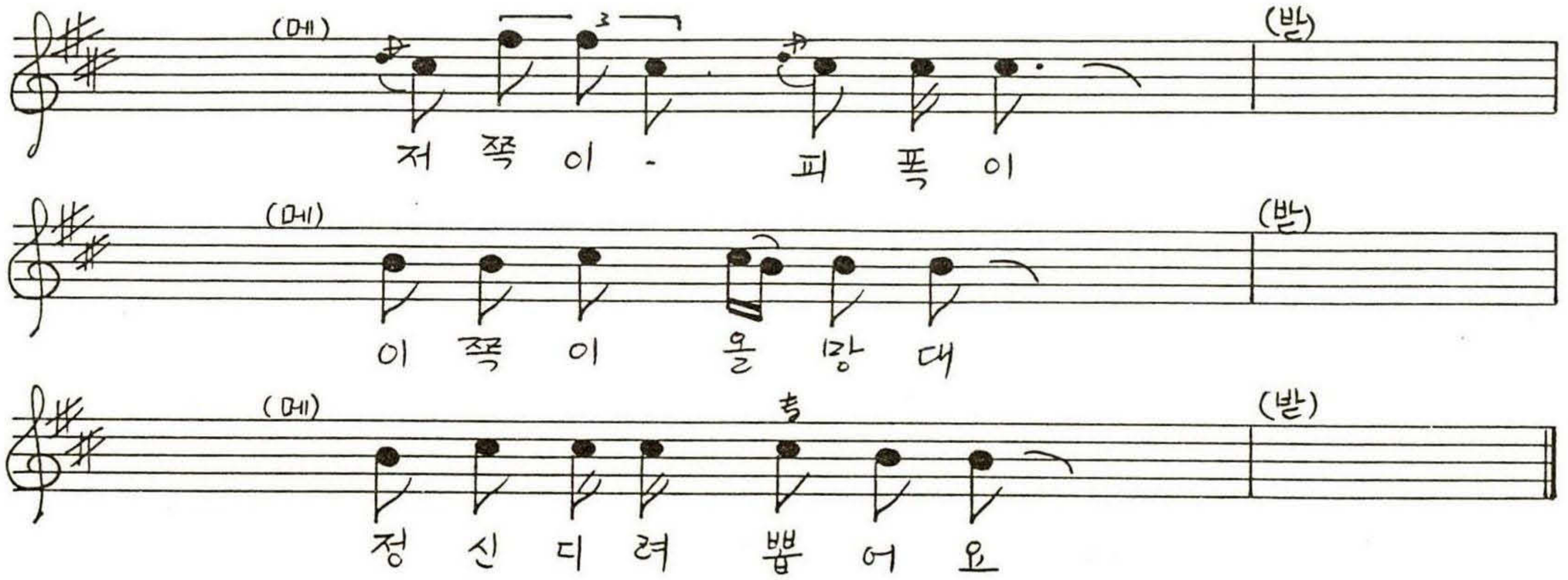
건 젱 이 소 리

(메)최광순
(받)결성농요단
素 94-2-27②A

I. ♩. =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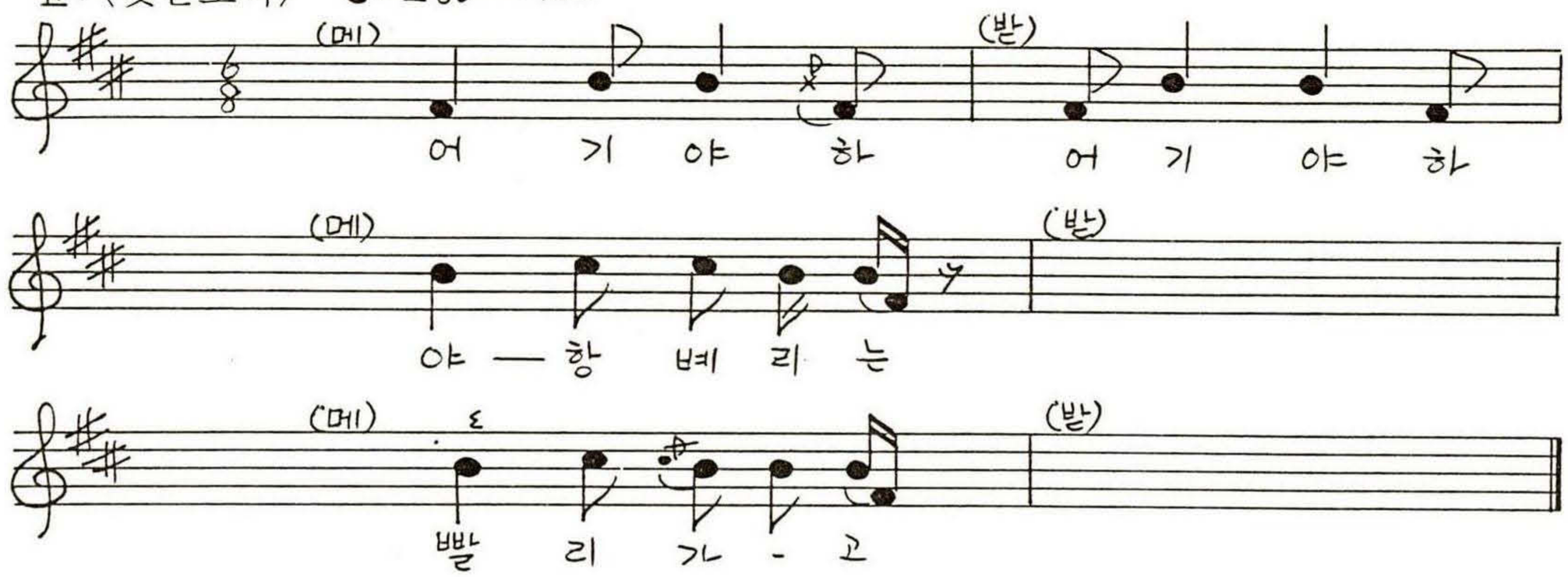
〈외침〉 - 농군들 건쟁이들 허세 -





(메) ◦ 청천 하날에
◦ 잔 별두 많구요
◦ 요내 가슴이
◦ 수심도 많구나

Ⅱ.〈잦은소리〉 ♩. =86 → 100



(메) ◦ 가온데는
◦ 청처짐 합시다
◦ 옆사람 봐가며
◦ 앞을 보며
◦ 먼들 가락에
◦ 정신 디려서
◦ 잘 좀 매세
◦ 잘도 맨다
◦ 우리 농군들
◦ 잘 두 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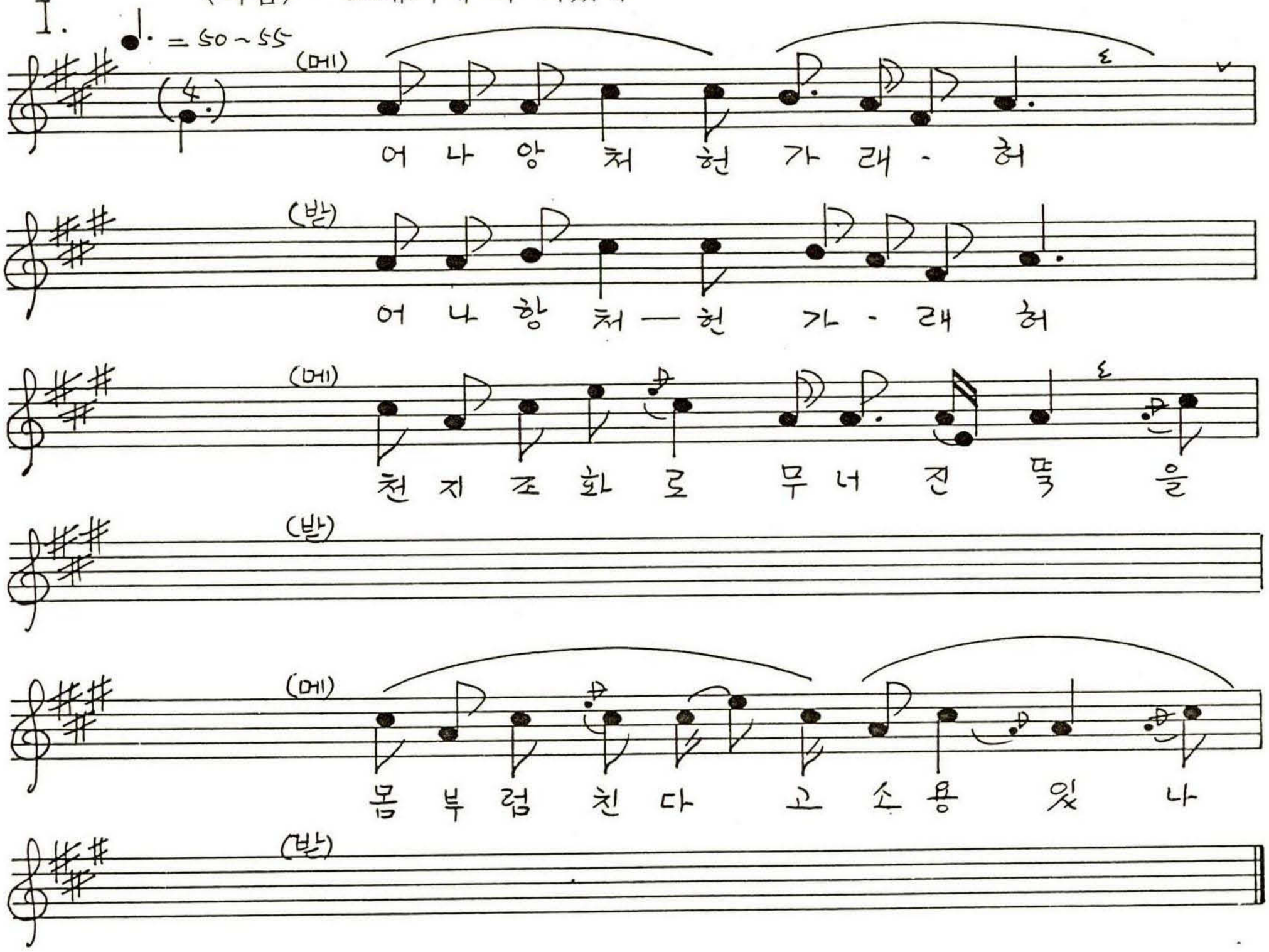
〈외침〉 - 다 맸네-

〈홍주 3〉 홍성군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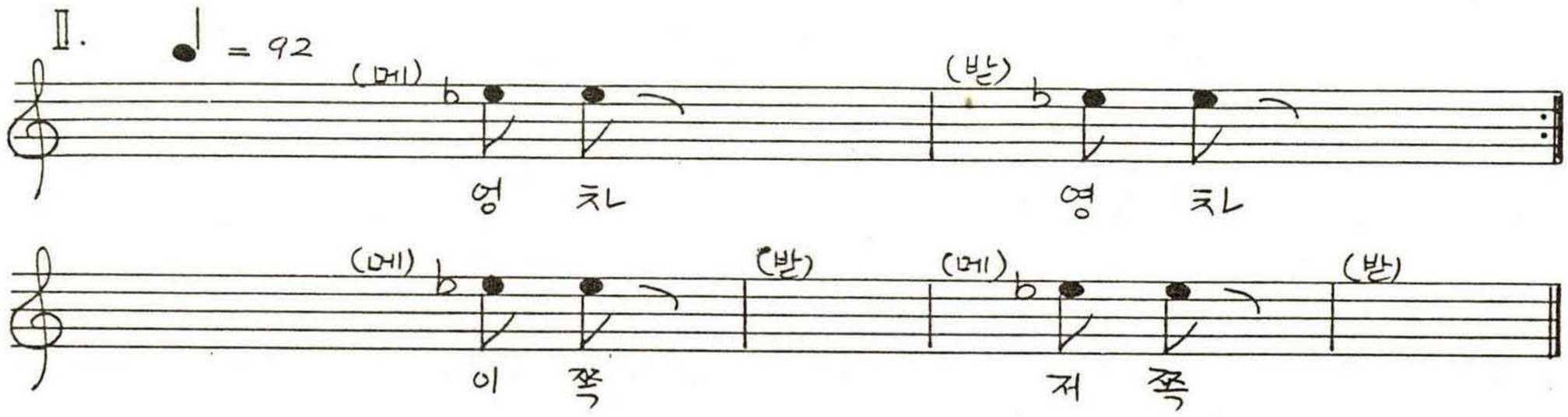
가 래 질 소 리

(메)최광순
(받)결성농요단
素 94-2-27②A

〈외침〉 - 소내기에 뚝 터졌네-



(메) ◦ 한탄을 마소, 근심을 마소
◦ 오늘 해전이 완공을 할꺼니
◦ 어서 빨리 술가져오시오
◦ 술동이 우에다 전자리포 덮었네
◦ 이 뚝도 막구 저 뚝도 막세
◦ 말잘하는 소진장이
◦ 육국 천할 달랬건만
◦ 소내기 구름을 왜 못달랬나



(메) ◦ 근력
◦ 디려서
◦ 빨리
◦ 막세
◦ 잘도
◦ 헌다
◦ 잘도
◦ 허오

〈외침〉 - 다 막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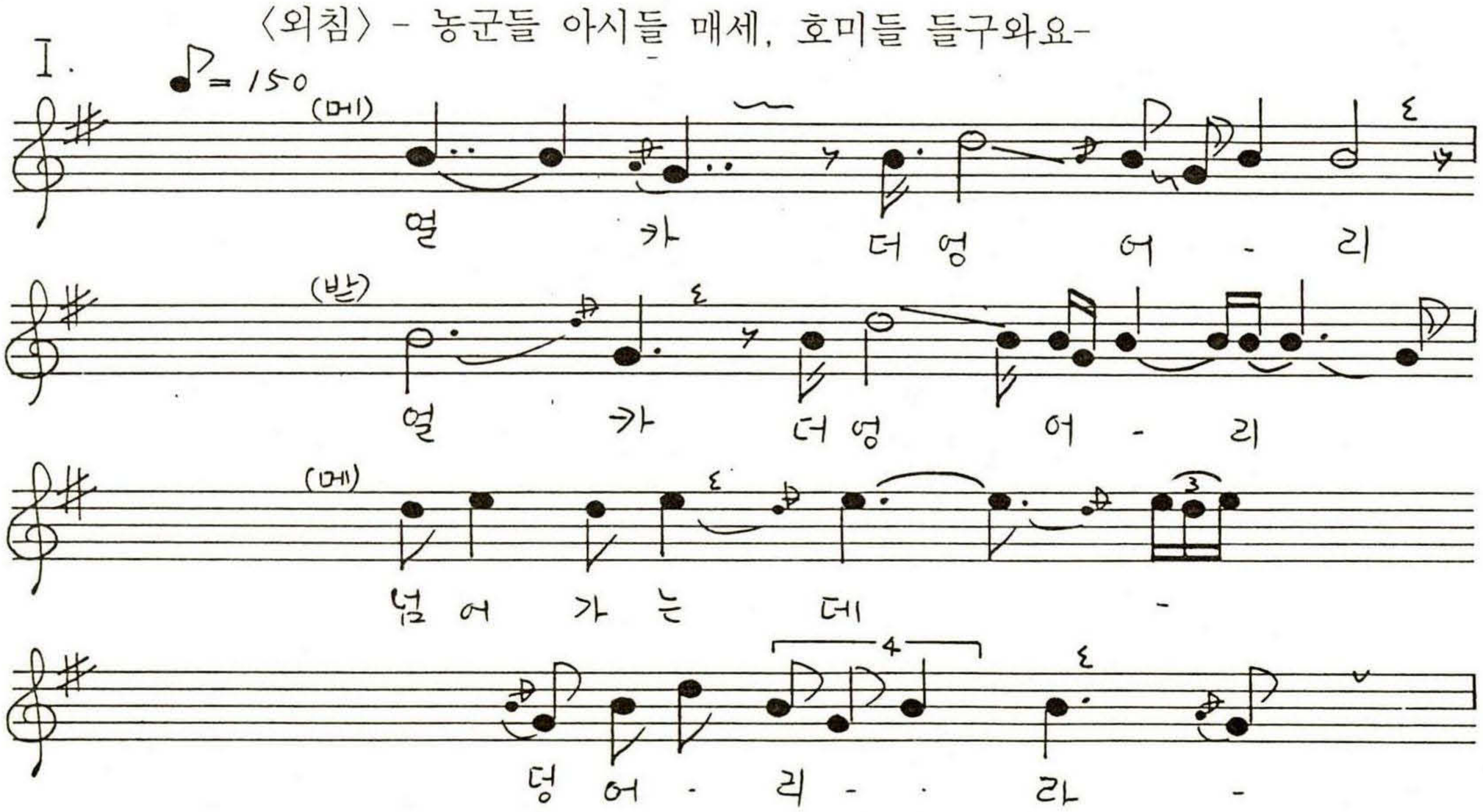
〈홍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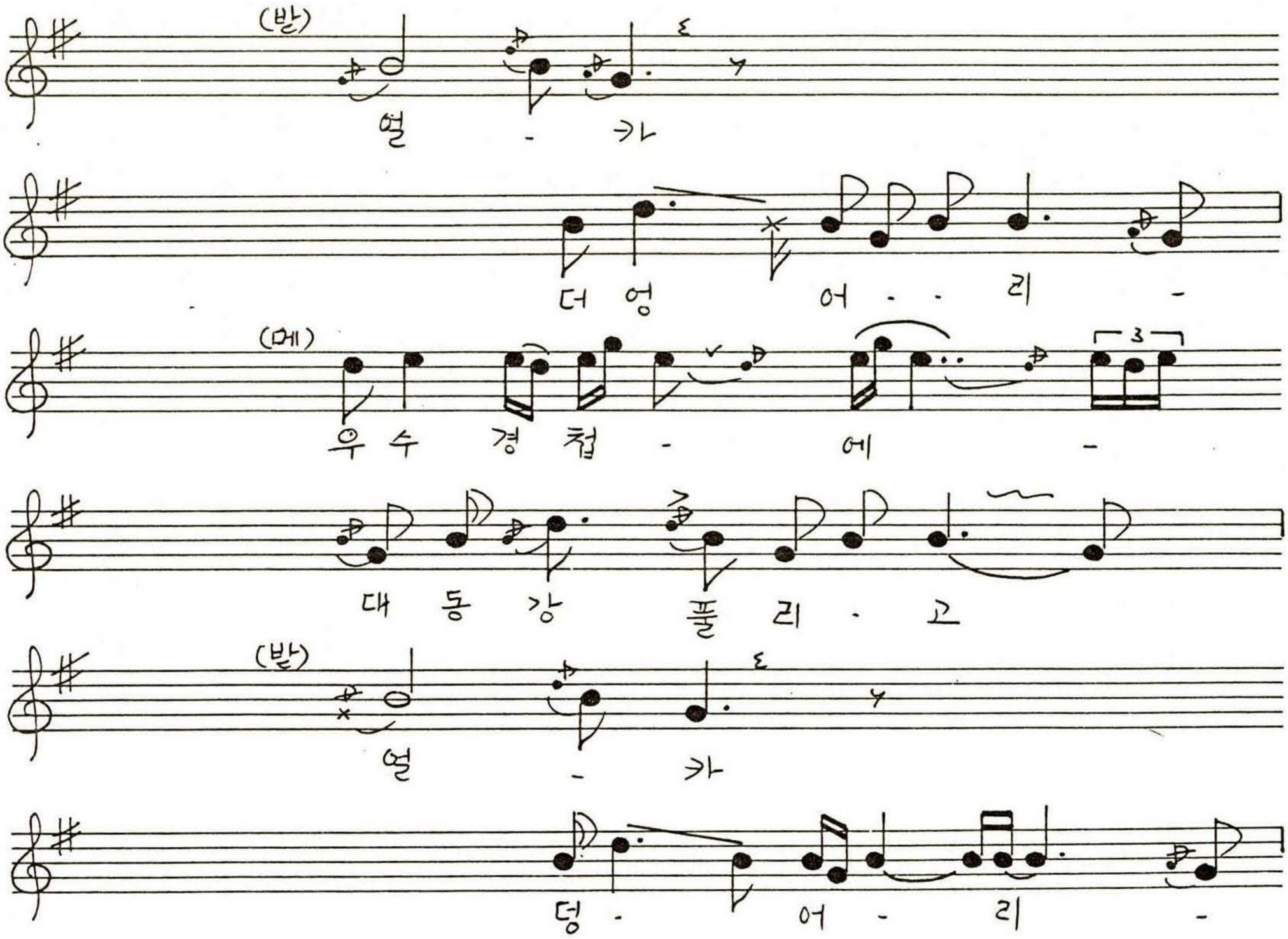
홍성군
결성농요

얼 카 덩 어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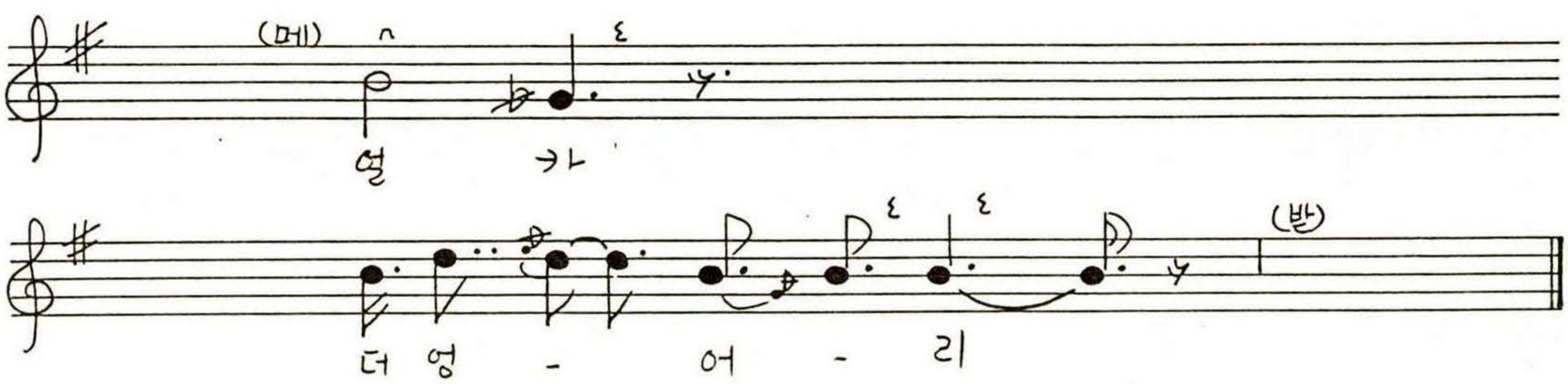
(메)최광순
(받)결성농요단
素 94-2-27②A

〈외침〉 - 농군들 아시들 매세, 호미들 들구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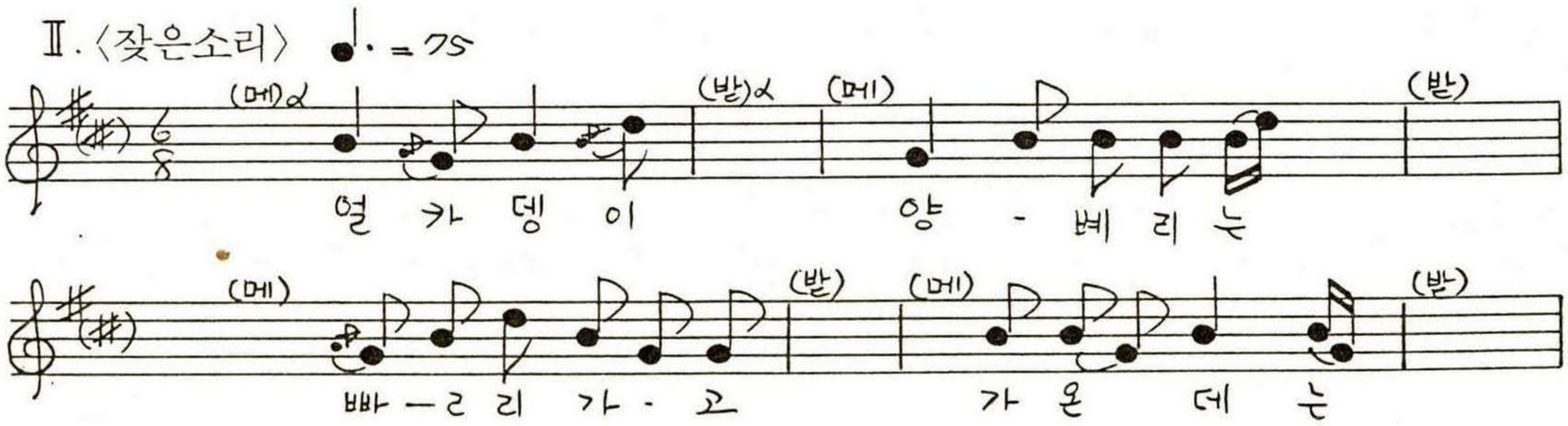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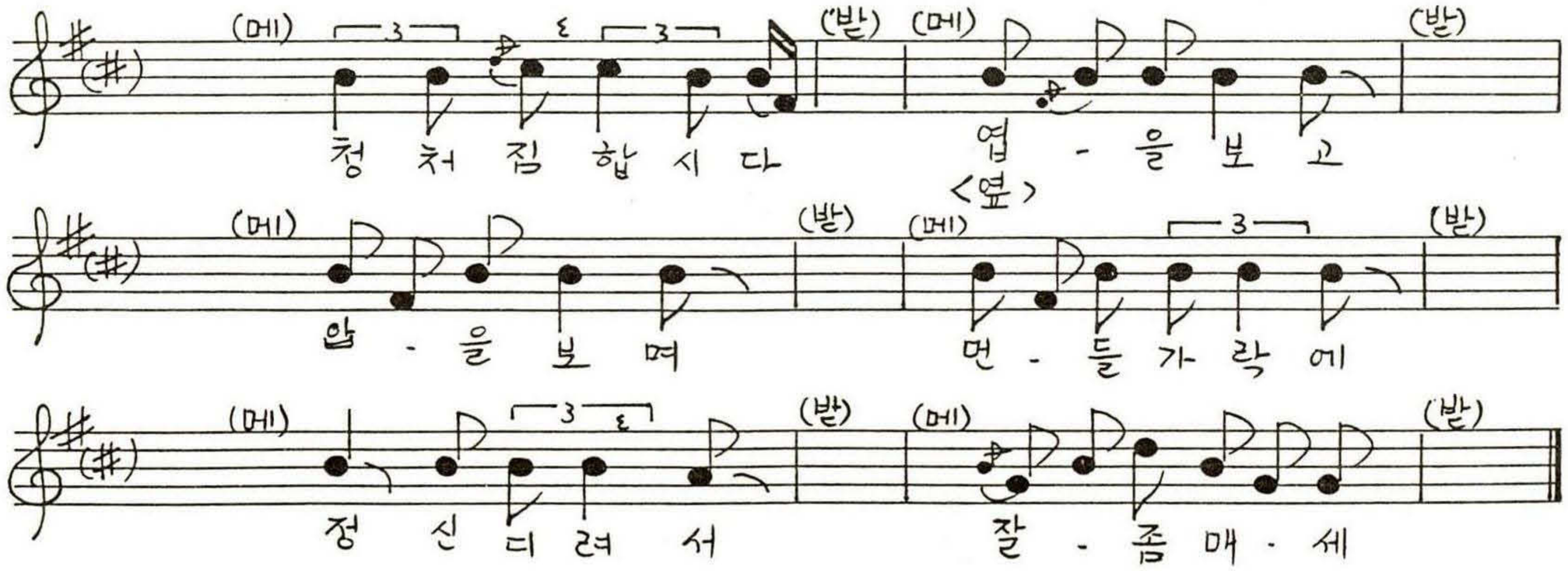


〈외침〉 - 이 논은 너무많이 짓어서 최상으로 정합시다 -



Ⅱ.〈잦은소리〉 ♩.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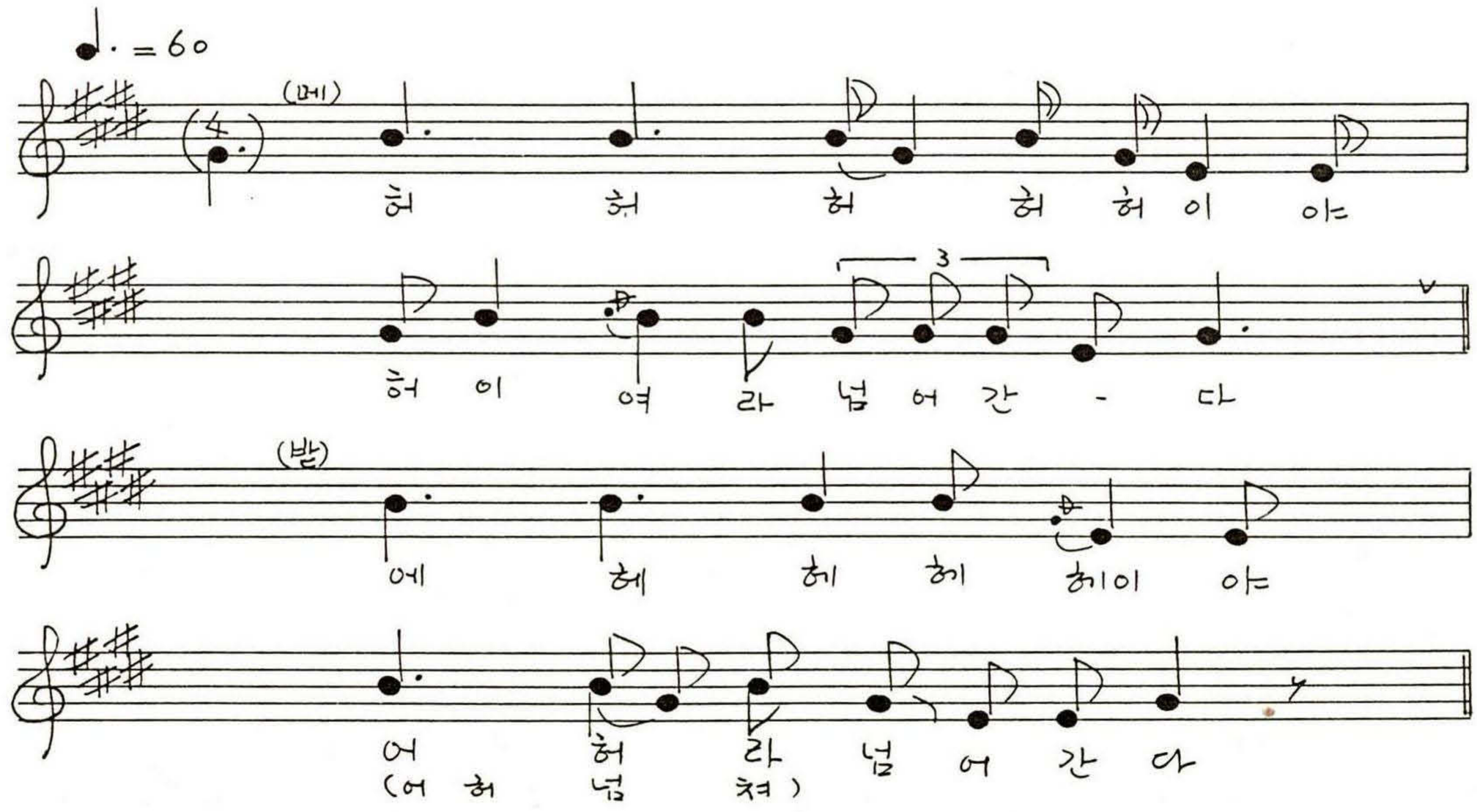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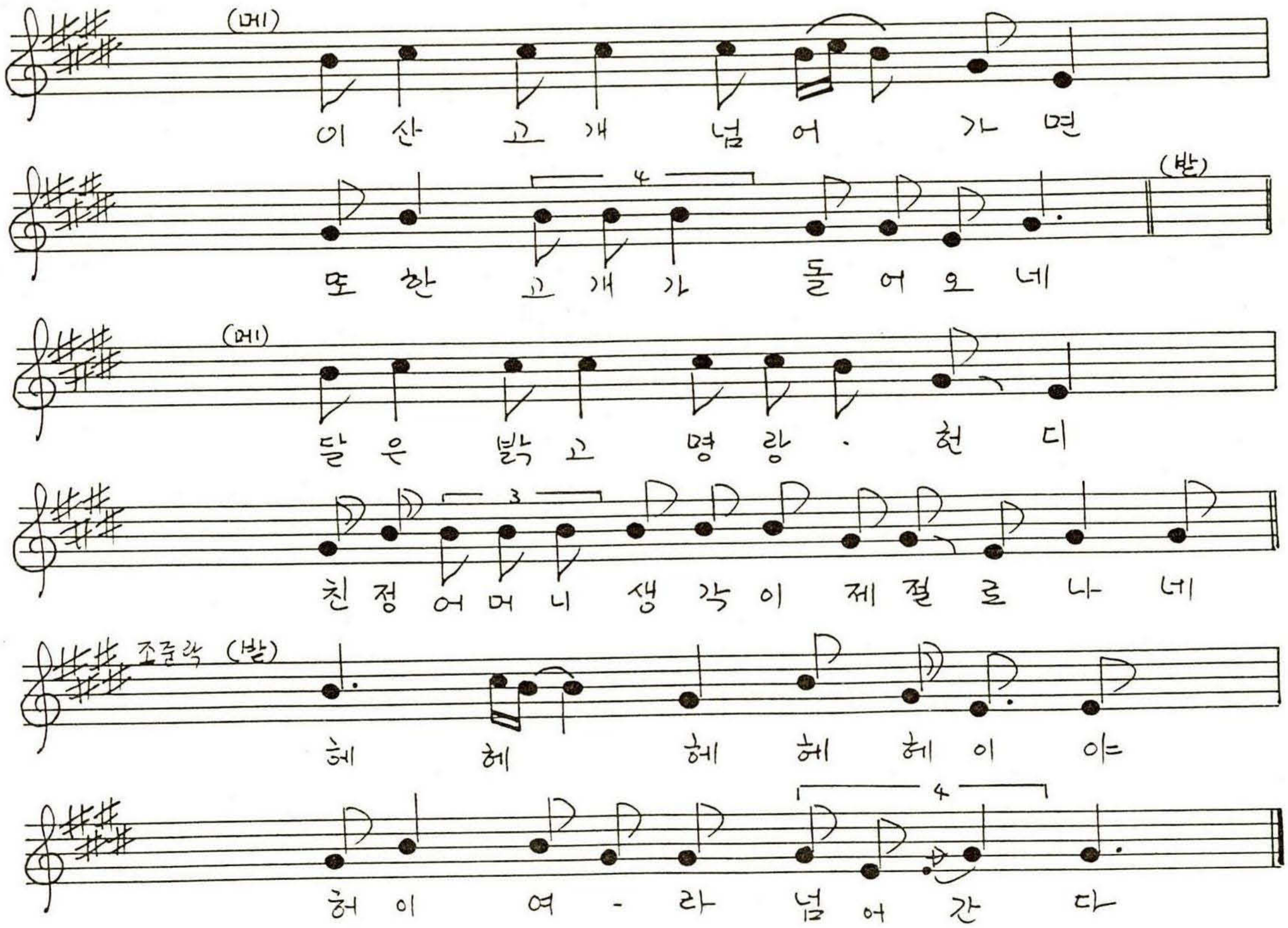


(메) ○ 잘도맨다
○ 우리 농군들
○ 잘두맨다
〈외침〉 - 다 맸네 -

〈홍주 5〉 홍성군
결성농요
지 대 기 소 리

(메)조종락(형산리구수동土民. 1913, 남)
(받)조성봉·최광순 등
素 92-10-18[A]
(1992. 2. 10 황성창 녹음)





(메) 1. 주야장천 밤도진데
나만홀로 밤이 긴가
2. 월출동녁 해는 지고
옥창 앵도가 다 붉었네
3. 시오시오 부자네라
원장부지가 이 아니야
4.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임을 따러 나는 간다
5. 해는 지고 저무는데
옥창 앵도가 다 붉었네
6. 오늘해도 다 넘어가고
골목골목이 연기만 나네
7. 청천하늘에 잔 별도 많고
요내가슴에 수심도 많다
8. 이내몸은 여자가 되여
광천독배로 시집못간 요내팔자
9. 이세상을 떠나가서
다시한번 태어나서
10. 광천독배로 시집을 가서
한번 잘 살어보세
11. 빕새는 적어도
봄이 되며는 새기를 깝디다
12. 날다려가게 날다려가게
한양 낭군아 날다려가게
13. 저기가는 저할머니
딸 있거든 날 사위 삼으오
14. 해는지고 저무는데
옷갓을 하고 어디를 가오
15. 첩의 집이 가시거든
나 죽는 꼴을 보고가오
16. 호지 중천에 뜬 기러기
울고가는 저 기럭아
17. 백의 수심 사지중에
정별하던 저군사야

〈홍주 6〉 홍성군 결성농요

I. 산 여 소 리
II. 두 레 소 리

산여, 두레:최양섭
좋다:최광순
채보:이소라(94-2-27②A)

I.

〈산여〉 ♪= 150

반 이 나 - 넘 어

이 여 늙 어 -

늙 - 어 - 허 -

어 이 - 여

늙 - - 어 헤 에 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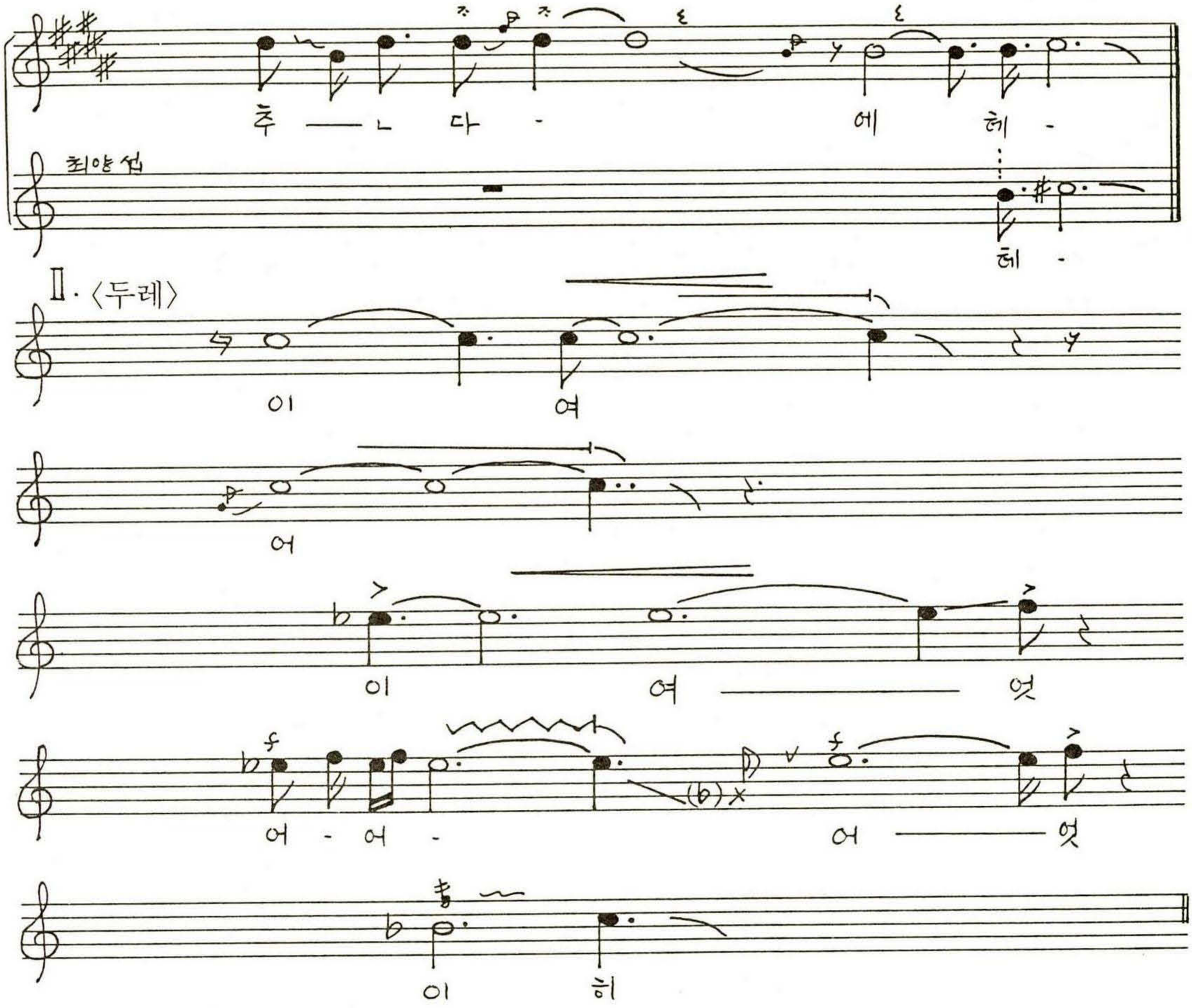
〈좋다〉

좋

다 - 얼 씨 구 절 씨 구

패 랭 이 꼭 지 에 지 화 를 꽂 고

해 오 래 기 춤 을 . 너 울 . 너 우 울



〈좋다〉 좋다 ---
얼씨구 절시구
천하지 대본은
농사밖이 또 있느냐하
에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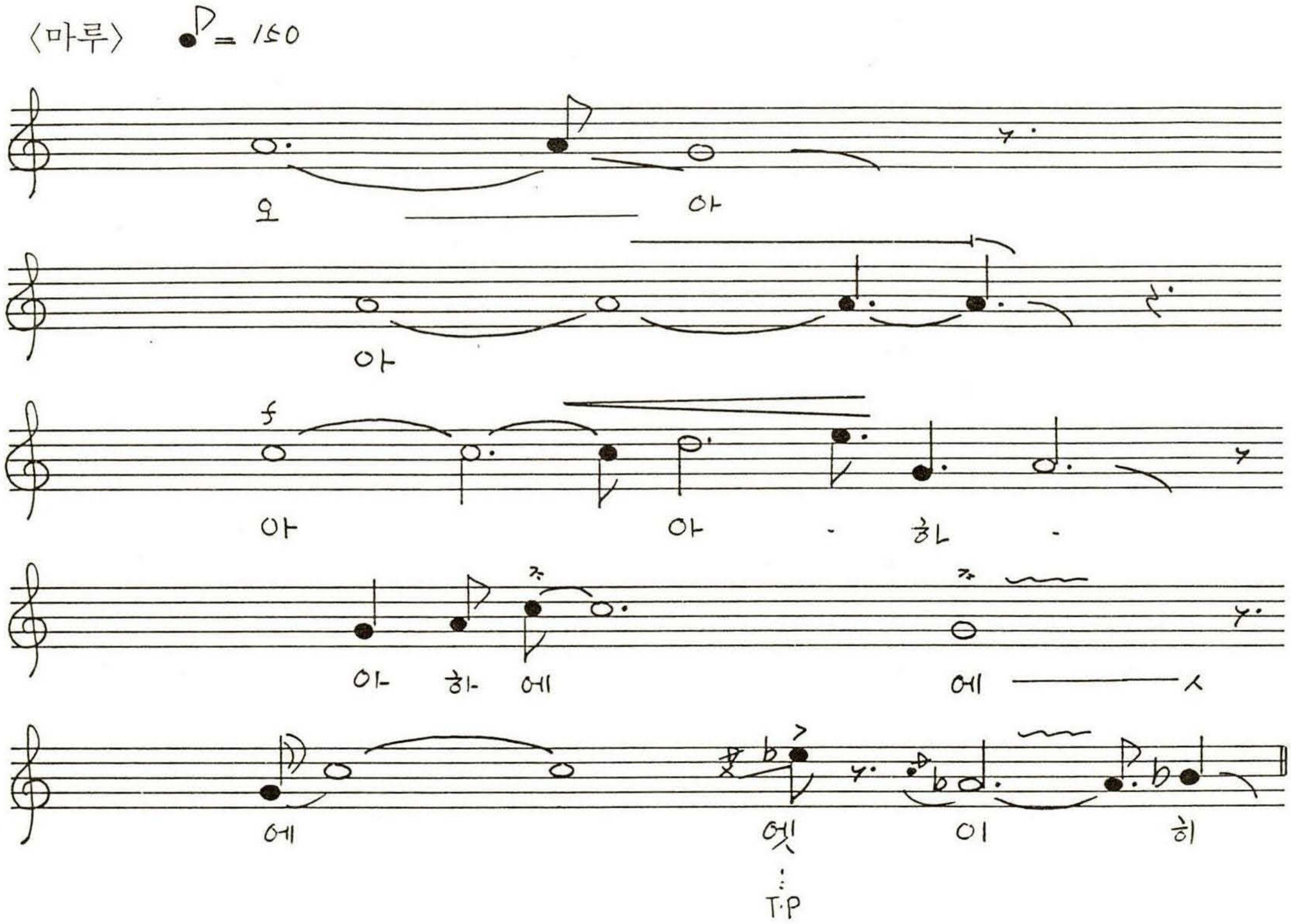
〈홍주 7〉

홍성군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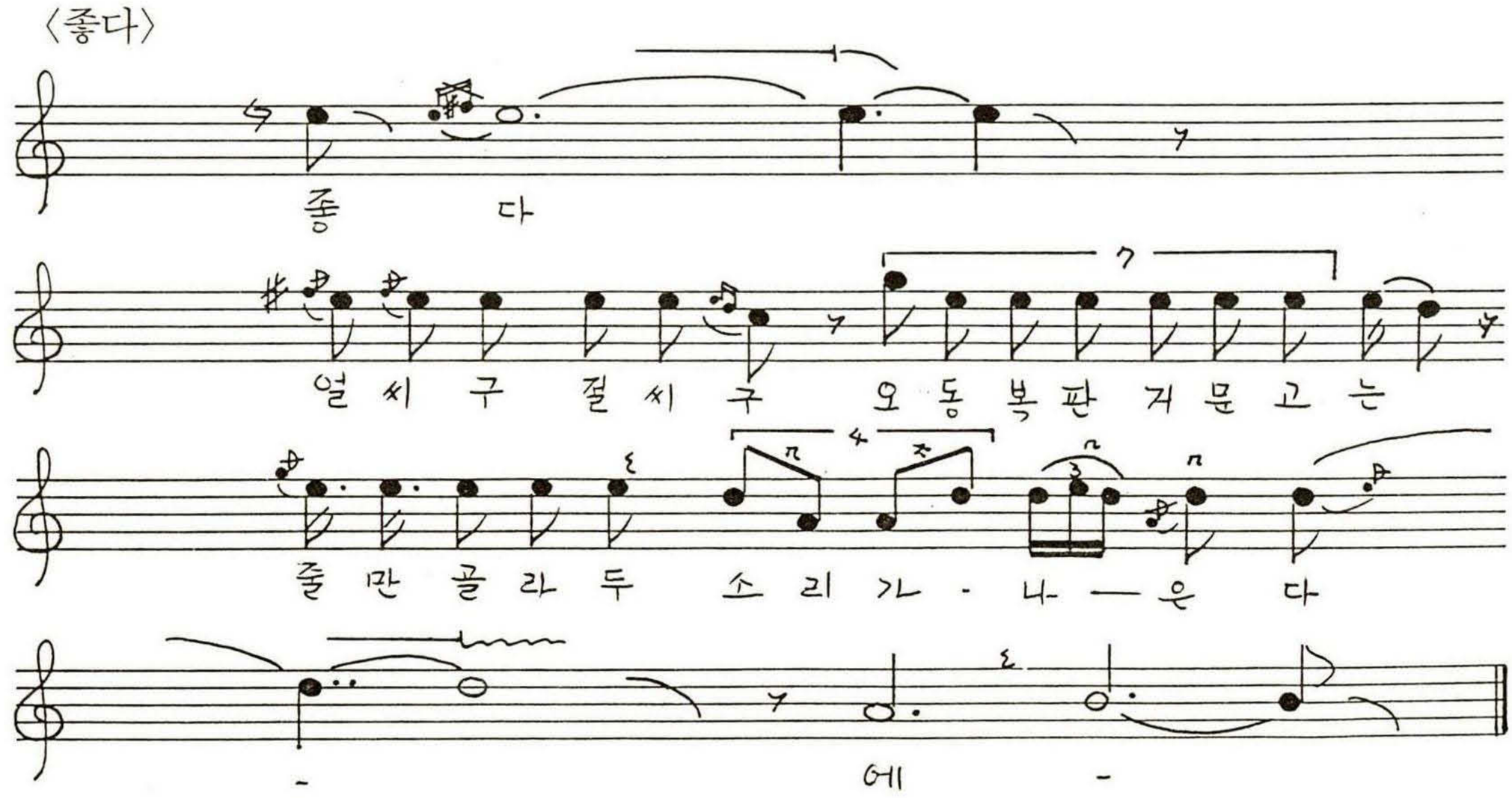
마 루 소 리

마루:결성농요단
좋다:최광순
채보:이소라(94-2-27㉡A)

〈마루〉 ♪= 150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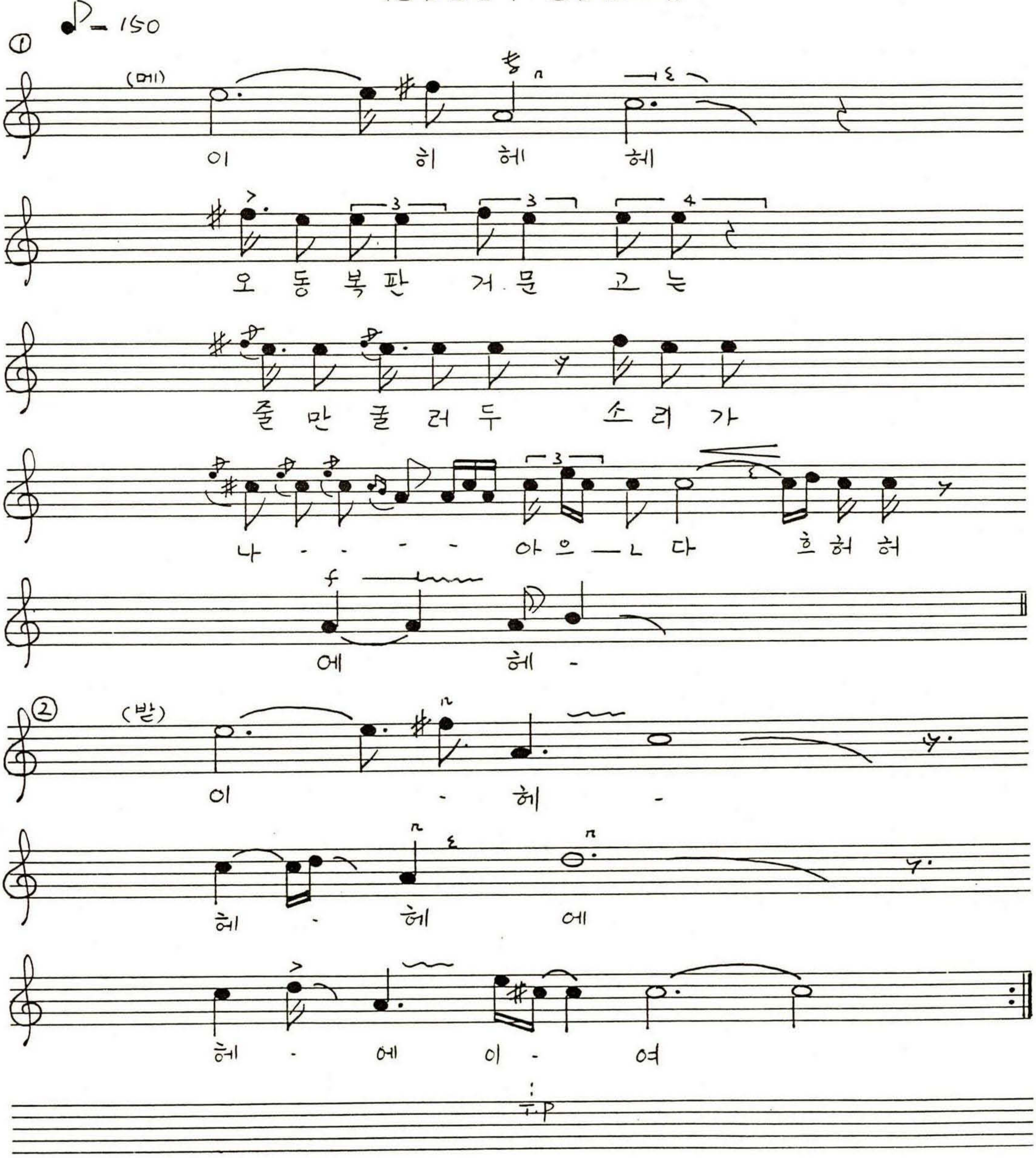
〈홍주 8〉

홍성군
결성농요

에 염 싸 는 소 리

① 최양섭
② 결성농요단원들
이소라채보(94-2-27ⓐB)

(①몸돌산여 + ②몸돌소리)



(메) ◦ 이히 헤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구서 웃지를 마으라
에헤

◦ 이히헤헤
들농사 잘지어서
국가에 상납하고
부모 봉양하고
어린 처자들 배채워보세
에헤

◦ 이히헤헤
인간칠십은 고령이오
무정세월은 양유파라
에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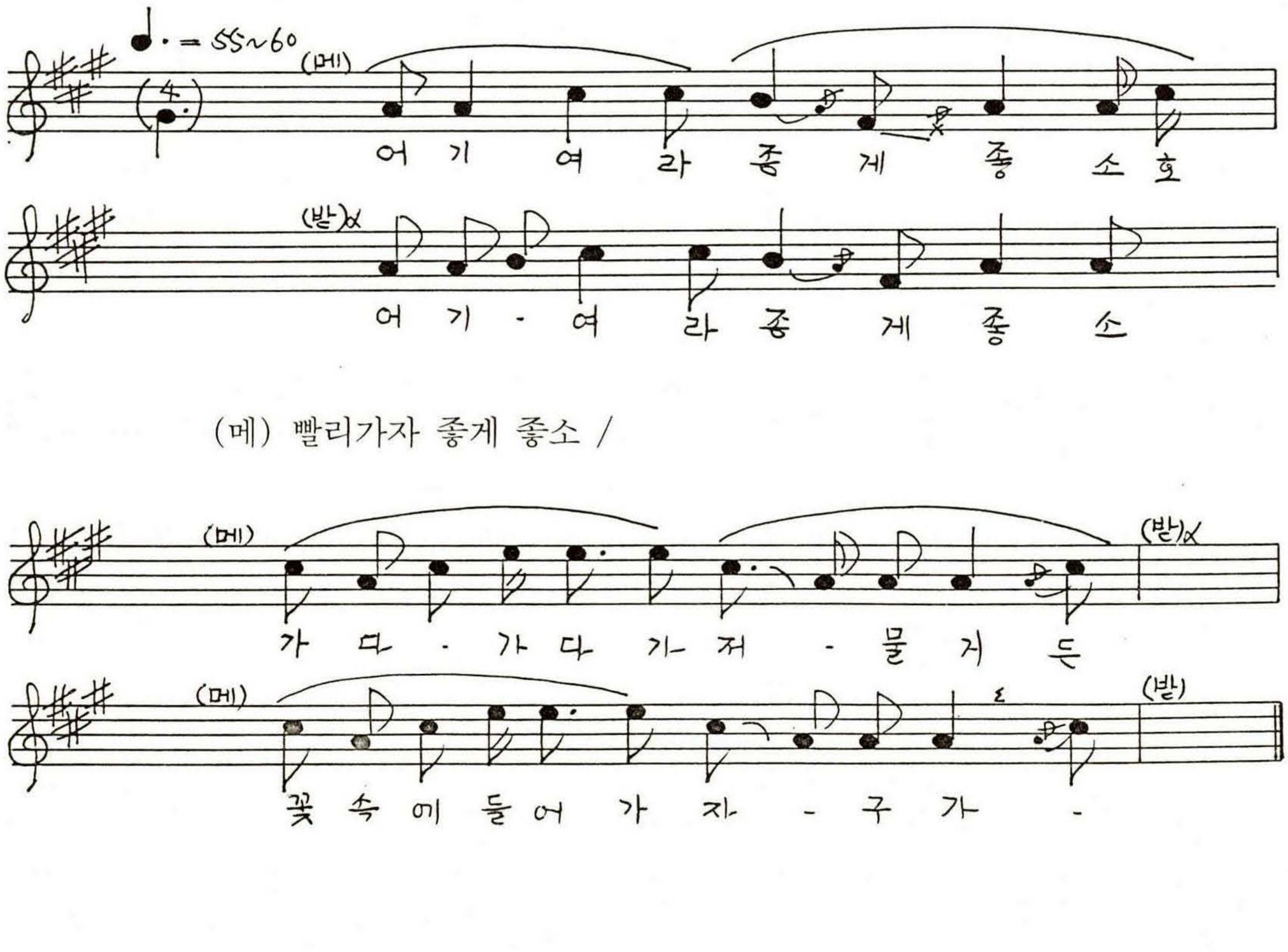
◦ 이히헤헤
패랭이 꼭지다 기화를 꽂고
해우래기 춤만 너울너울춘다
에헤

〈홍주 9〉

결성농요

장 원 질 소 리

(메)최광순
(받)결성농요단
素 94-2-27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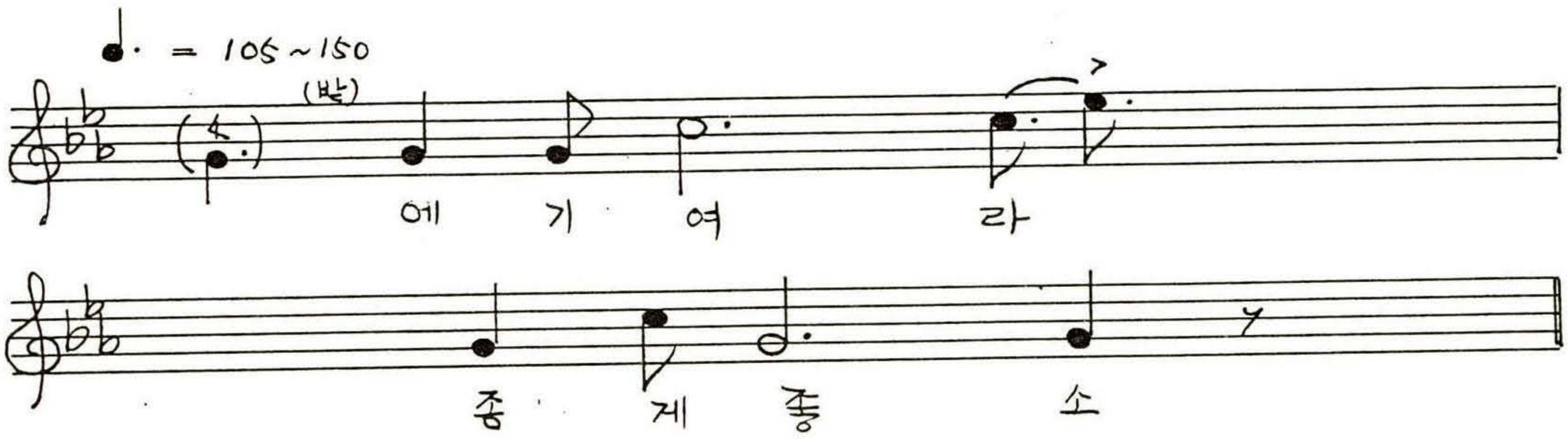
(메) 빨리가자 좋게 좋소 /

(메) ◦ 명사십리 해당화야
◦ 꽃시진다 서러마라
◦ 명년삼월 돌어오면
◦ 그 꽃 다시 피나니라
◦ 여보쇼 쥔양반 종게좋소
◦ 논 잘 맸더니 종게 좋소
◦ 닭 잡고 술먹세 종게 좋소
〈외침〉 - 다 왔네-

〈홍주 10〉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장 원 질 소 리

최병호(1928. 남. 성남리출생 25세에 결성면 금곡리 이주)창
素 94-2-27①B



(4) 소 부 림 말

(5) 모 찌 는 소 리

(6) 모 심 는 소 리

(4) 소 부림말

논밭을 가느라고 소를 부릴 때의 작업 지시적인 말도 지역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에서는 흔히 두마리 소를 부리는데 마라소(오른쪽 소), 안소(왼쪽 소)를 번갈아 불러가며 하도 구성지게 부르는 겨리소모는 소리에 반하여 산길을 걷던 나그네가 발을 멈추곤 했다는 일화들이 있다.

홍성지방에서는 논밭갈이에 한마리 소를 부린다.

왼쪽으로 몰 때 "쪄 쪄 쪄 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릴 적엔 고삐를 오른켠으로 잡아 당기기만 해도 된다. "이라!" 하면 전진, "워"하면 서고 "무워라"(결성면 금곡), "무러"(구항면 내현)하면 뒤로 물러난다.

중국의 운남성 리장(麗江)에 사는 나시족(納西族)은 두마리소로 밭을 갈면서 좌, 우로 돌릴땐 "꺼" 전진은 "이와" 하고 멈출 땐 "라!" 뒤로 물릴 땐 "소우" 라고 했다.

일본 山口縣의 소는 다시(タシ)하면 左로, 세요(セヨ)하면 右로 돈다. 아또(アト)하면 뒤로 물리고 시(シ)하면 전진한다.

(5) 모찌는 소리<홍주 11, 12>

홍성군에서는 희요인 모찌는 소리를 서해안이 가까운 서부면 광리〈12〉와 결성면 금곡리〈11〉에서 제3차 조사시에 녹음하였다.

최홍식(1923.금곡리 출생.28세경에 읍내리 이주)은 10세 조금 넘어 금곡리에서 어른들이 부르는 것을 들었다하며 금곡리엔 피난민이 없었다고 한다.

성남리엔 모찌는 소리 없다. 모심는 일꾼들이 모를 찐다. 금곡에선 30~40명이 하루 심을 분량을 한참(아침10시경)이면 쪘다.

〈11, 12〉는 서북부 충남인 서산군(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2집」〈악보 281 및 보례 1·2·3〉참조), 당진군의 모찌는 소리와 동류이다. 〈11〉은 멕받형식이며 그 받음구는 "철드럭쿵 철써억허더니 또한침 쪘네"이다. 〈12〉의 가사는 "철떡 철떡허더니 또한침 쪘네" 이다.

이러한 철더럭쿵類는 황해도 연백평야의 쪘네類와 바다를 통하여 교섭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구별되며, 서산군·당진군을 본고장으로 한다.

쪘네類의 받음구는 "쪘네 쪘네 또한침 쪘네"이며, 황해도의 연백·평산·벽성·옹진군과 경기도의 장단군, 파주군, 강화군에서 수집된다. 김포군에도 드물게나마 알려져 있다.

모찌기는 모의 이앙법의 보급(농업史에서는 조선조初로 본다)에 따르는 작업이므로 모찌는 소리의 발생 上限은 15세기가 된다. 논의 이모작이 삼남지방에 널리 행해진 것은 18, 9세기라고 한다.

철더럭쿵類는 15세기이후 조선조 시대에 서산군·당진군 방면에서 나온 모찌는 소리라 하겠다.

〈11〉은 비고정장단으로 가창되었다. 〈12〉는 내재4박 두마디로 볼 수 있다. 〈11〉은 꺾는 기능이 있는 남도 계면조 선법에 속하고 〈12〉는 도미솔 선법에 속한다.

(6) 모심는 소리<홍주 13~43>

1) 모심는 소리의 유형

한반도의 모심는 소리는 1.상사류 2.하나류 3.아라리류 4.모노래 류 5.기타로 분류된다.

1. 상사류

전라도와 다수의 충남지역에서 불리웠던 모심는 소리이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에 상사 어휘가 들어감을 특색으로 한다.
받음소리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으로 나누인다.

a. 농부가型

전북이 본고장인 모심는 소리로 전남 일부지역에서도 불리운다. 전북과 폭 500m의 금강을 경계로 마주하고 있는 부여군에서는 부여형 상사와 더불어 제2의 모심는 소리로 부르는 마을이 있다.

받음구는 "여 여허어 여허이 여허루 상사뒤여"이다.

판소리 춘향가에 유입되어 널리 알려졌다.

b. 겹상사 (상사리 반복형)

홍성군의 결성방면이 출처지이다. 홍성군의 금마천以西인 홍북면, 홍성읍, 구항면, 갈산면, 서부면, 결성면, 은하면(남쪽의 장척리 부근 제외)에 전파되어 있고 인접지역인 서산군의 해미면, 예산군의 삽교읍과 보령군의 천북면에서도 수집된다. 〈도 6〉 참조.

받음구는 "어러얼 러얼럴 상사리, 어러얼 러얼럴 상사리, 에 헤 헤헤
여루 상사리여 " 이다.

c. 부여형 상사 (산유화)

부여군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논산군, 공주군, 청양군에 전파되어 있다.
받음구는 "헤 헤헤 아 헤헤이, 에헤이 에여루 상, 사디요 " 이다.

받음선율에 있어 '상' 다음에 숨을 쉬며 '상'보다 '사'를 높이 소리내는 점이 특징이다.

d. 청원형 상사

이는 미호평야를 중심한 청원군, 천안군 및 연기군 일부지역에서 발견된다.

받음구는 "에헤이야헤- 에헤이여루 사앙사나디요"이다. 첫부분인 '에헤이야헤-'의 끝 '헤-'를 길게 뻗는 경향인 점이 특징이다.

e. 전남형

전남에 전승되고 있는 곡에는 지역별로 진도형, 고흥형, 나주형 등등이 있다.

진도형의 받음구는 "어기야 어허이 여허 허우라 사으흥사 로호세"이다.

처음에 '어기야'로 시작하며 상사를 '사흐응사'로 몇번 꺾어 부른다.

같은 진도군이지만 의신면에는 이와 달리 "아 하 하아라 사하앙 사하하 디여여"의 받음소리가 있다.

고흥형의 받음구는 "어이여이 여로, 여로 상사나뒤여이여" 이다. 중간에 '여로'를 두번 겹쳐내고 있다.

나주형의 받음구는 "에헤헤루 (상)사디요" 이다. 잦은상사뗄의 받음구에 가깝다. 상사의 '상'을 빼고 '사디요'로 부르는 곳이 적지않다.

f. 잦은 상사

농부가뗄, 부여형 상사, 진도형, 고흥형 등에, 다심어갈 무렵에 부르며 속도가 보다 빠른 잦은 상사뗄의 받음구들이 따로 있다.

2. 하나류

경기도와 황해도 연백평야의 모심는 소리이다.

열소리, 허나기로구나, 여기도 하나 및 혼합형(나열뗄, 김포뗄)이 있다.

a. 열소리

중부 경기도의 모심는 소리로서 전형적인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다시 '새로하나'로 부터 열까지 세어나간다.

한 사람이 "하나를 심었다 둘이로구나, 둘을 심었다 셋"하면 다른 사람이 "셋이로구나 넷이로다, 넷 간데는 다섯일세"라고 이으면서 교대로 불러나간다.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서울, 양주군, 남양주군, 광주군, 안양시 일부, 안산시 일부, 화성군 일부지역에서 수집된다. 열소리의 북쪽 한계지역인 파주군에서는 광탄·조리·교하·월롱면, 금촌읍과 같은 고양시에 보다 가까운 남부지역에서 발견된다.

b. 허나기로구나

연백소리라고도 일컬어지며, 황해도 연백군과 평산군, 강원도 철원군, 북부 경기

도인 포천·연천·파주·강화군 일부지역에 전파되어 있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허나 허나 허나기로구나" 이다.

c. 여기도 하나

이는 남부 경기도의 모심는 소리이다. 안성·용인·평택·화성·이천·여주군 일부지역과 안성군에 인접한 서북부 충북의 진천·음성군 일대 및 충남의 아산군 일부지역에서 수집된다.

"여기도 하나요, 어하 저기도 또 하나"를 멕받형식의 받음구로 쓰기도 하고, 무후렴으로 여럿이 번갈아 부르는 가사로 쓰기도 한다.

d. 혼합형

열소리와 여기도 하나의 혼합형이라 할 수 있는 나열형(羅列型)이 화성군의 남양반도(마도·송산·서신면)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여기두 하나를 심었구나, 저기도 또하나를 심었다. 여기는 양석자리요, 저기는 대석자리라.

하나간데 둘 못가랴, 둘 간데 셋도 가구 셋 간데 넷 간다"와 같다.

김포型은 허나기로구나에 열소리가 혼합되었다. 그 받음구는 "허나 허나, 하나 둘이로고나" 이다. 김포군 뿐만 아니라 파주군 월롱면 능산2리에서도 수집하였다.

3. 아라리류

강원도의 모심는 소리는 아라리류로 대표된다.

아리리류에는 자진아라리, 강원도 아리랑 및 아라성型이 있다.

a. 자진 아라리

멕이고 받을 때의 받음구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이다. 5박장단曲에 가깝다.

양양군, 명주군과 강원도 고성군 일부지역 및 강원도 민요 영향권인 동부 경기도의 양평군 일부·여주군 일부지역에서 모심는 소리로 수집된다.

b. 강원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은 강원도 민중의 바탕소리로서 특히 나무꾼소리나 모심는 소리로 많이 불리웠다.

받음구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날 넨겨주소" 이다. 무후렴의 교창형식으로도 불리운다.

c. 아라성

이는 강원도 아리랑의 중원型으로서 멕받형식이며 받음구가 "아하하 리히야하, 아라리요-우, 아리랑, 얼싸, 아라성아" 이다.

충북 중원군을 중심으로 그 영향권인 괴산군 일부지역 등 그 인근에 전파되어 있다. 경북 문경군 가은읍에서 수집한 받음구는 "이야이야 아라리야 아리랑 아리송 어

러리야" 였다.

4. 모노래 류

모노래는 경상도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이다.

후렴구가 없고(無後斂), 서로 대귀적(對句的)인 가사를 두패로 나누어 교창하며, 전파의 중심지역(경주 부근과 가야지대)에서는 아침·점심·저녁別로 구분해서 부르는 가사가 있는 점이 특이하다.

경남일대와 예천방면(예천·안동·영풍군)을 제외한 경북일대 및 남부 충북(영동·옥천·보은군), 충남 금산군, 전북의 무주·장수군에서 두루 불리운다.

남해군은 그 서남쪽 한계가 되며, 남원·진안·단양·괴산군 일부와 청원군 일부지역(보은군과 인접한 미원·낭성·가덕면과 문의면) 및 대전직할시 일부지역에까지 전파되어 있다.

5. 기타

기타류에는 예천군系, 방게소리, 하지소리, 서천형, 민아리, 푸지기, 헤용소리, 모헤소리 등이 있다.

a. 예천군系

예천방면에선 모심을 때 노래하지 않았다는 곳이 적지않다.

예천군의 모심는 소리에는 아부레이수나型(예천읍 통명동)과 그 잦은 소리인 도움소 및 이여송型(풍양면 공처, 하리면)이 있다. 모두 멕받형식이다. 그 받음구는 각각 "아부레이수나 이도오(수나)", "돔소 돔소 에헤루와 도홈소", "아오, 에이여송아, 아오"이다.

안동군의 와룡면과 북후면에서도 이여송型이 나온다.

영풍군에서는 아부레이수나型과 이여송型으로 보이는 '아도리요' 및 모노래류를 수집한 바 있다.

b. 방게소리

충남 당진군을 비롯하여 그 인근의 예산군 일부지역과 서산군의 음암·운산면, 아산군의 음봉면 원남리에서 모심는 소리로 녹음했다.

멕받형식이며 그 받음구는 "에헤~야, 흥어~에이히야, 히야, 에~오, 바에~ 흥게논다(노더니 방아)" 이다.

c. 하지소리

동부 홍성군에서 수집되는 型으로 장곡면 가송리의 받음구는 "에이~ 이~ 요~, 오~, 하으지요~"이다. 하으지의 '하' 대신에 사지, 사디, 사지처럼 '사'로 발음하는 마을이 더 많다. 따라서 하지소리는 상사류의 변종으로 볼 수 있다. 후술 참조.

d. 서천형

충남 서천군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이다. 부여군에서는 예외적이나 옥산면의 봉산2리(봉곡)·신안리에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봉곡의 받음구는 "에, 에헤이여라 하하, 사헤헤가 네로, 고나" 이다.

e. 민아리 (미나리)

이는 강원도 홍천군의 대표적인 모심는 소리이다. 삼척·횡성·원주·인제·양구·고성군과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모심으면서 불렀던 마을들이 있다.

상기 지역과 함께 춘성·화천·철원군, 포천군의 내촌면, 남양주군 수동면에서는 석양판에 (화전)밭 맬때 흔히 민아리를 애창했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대개 논보다 밭이 훨씬 많다.

민아리가 논맴소리로 발견되는 곳은 서북부 양양군, 삼척군, 포천군(군내·내촌·소흘·신북면) 및 서울시 노원구 등지이다.

민아리는 후렴구가 없고 모노래와 공통된 노랫말들이 상당 수에 달하는 점으로 보아 경북 울진군까지 올라온 모노래의 물결이 강원도로 오면서 좀더 느리고 암울한 색갈을 띈 민아리로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f. 푸지기

황해도 은율군에서 모심거나 논맬 때 불렀던 푸지기의 후렴구는 "그래도 그임을 만~나 하허양, 아항 아양아-, 에허으양, 에~헤이야-헤으럼도, 갈까보다" 이다.

g. 헤용소리

이는 본시 평산군과 황해도 남부지역(연백·벽성·옹진·장연군, 해주시 등)의 논맴소리로 보이나 옹진·평산군 일부지역에서는 모심을 때도 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멕받형식이며 받음구는 "헤용 헤용 모헤용, 모헤이에 모헤용" 이다.

h. 모헤소리

함남 홍원군 보현면의 모심는 소리로 그 받음구는 "에 솔려나 모헤로다"이다.

2).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는 모두 광의(廣義)의 상사류로 묶을 수 있다.

이들은 금마천(삽교川) 以西의 겹상사와 以東의 하지소리로 대별되며, 그밖의 상사형도 보인다.

〈도 6 〉에서의 구 결성군 경계선은 겹상사와 하지소리의 경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구 결성군 지역에서 광천읍과 은하면 장척리 등지는 하지소리지대에 속한다. 행정적 경계선보다 민요권이 더욱 옛 민중의 생활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 겹상사 (상사리 반복형) 〈홍주 1, 13~22〉

겹상사는 (받)의 처음에 '어러얼 러얼럴 상사리'를 반복함이 특징이다. 상사리는 '상사디' 또는 '상사지'로도 발음된다.

(받)은 3분박4박 4마디로 구성된다. 그 1박의 소요시간은 1초 남짓으로, 일노래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M.M = 50~60의 속도(以下.겹상사의 속도)로 불리운다.

채보된 악보의 (메)는 3분박4박 2~6마디의 예가 있지만 (메)가 (받)보다 짧은 경향이다. 〈홍주1〉에서 처럼 메김구 끝에 (받)의 첫 상사리를 예시하는 예가 결성면 형산리의 〈홍주 13 〉에서도 보인다.

군내의 겹상사지대는 결성·서부·갈산·구항면 일대이며 홍북면 석택리, 홍성읍 송월리, 은하면의 대천리에서도 수집하였다. 은하면 유송·장곡리의 것〈홍주 23 〉은 이미 겹상사의 한계지역 현상을 나타내어 상술한 상사리가 반복되지 않는다.

〈표 3〉에서 〈1, 13, 14, 15〉의 구성음관계를 보면 미라도(미-라 사이가 좁아지기도 한다) 또는 미라시도가 주종을 이룬다. 요성은 기음인 미와 라音에 있고 라音에서 종지한다.

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은 선입후제창이 고정창법인지 〈20〉의 어덕밑以下나 셋마지기 以下를 제창했다. 모심을 때는 논맬 때보다 노래를 많이 안부르는 편이라 했다. (메)는 농부가와 좀 다른 느낌의 선율이었다.

갈산면 상촌리의 김선균(1907.남.土民)은 '이 모를 심을 때 앞가슴일랑 붙여심고 어덕밑일랑 떼어 심잔다 어럴럴럴 상사디 에헤 에헤이여라 상사리'라고 대충 소리하였으나 겹상사찔이 참고된다.

구항면 대정리의 경우는 서승만(1925.남.대정리출생.30세정도까지 살다가 광천읍 벽계리 이주)과의 전화대담(1994.3.1)으로 겹상사임을 확인했다.

<도 6>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





<사진 35> 모심는 장면(결성면)

2. 하지소리 〈홍주 24~27, 30~42 I〉

하지소리의 받음구로는 다음 예가 있다.

<표 4 > 하지소리의 받음구

악 보	지 역	가창자	받 음 구	비 고
24,25	장곡면 가송	우 준	에이, 이요,오, 하으지요	하지
26 I	장곡면 옥계	이사용等	에이,이여라,사리요	사리
27	장곡면 옥계	이태훈	에이, 이여라, 사지요 (하지요)	사지 하지
30	장곡면 광성	송학기	에이, 이여라, 사디여	사디
31	장곡면 월계	최주복	에이, 이요라, 사리	사리
32	장곡면 죽전	김항제	에헤어, 어 사지	사지
33	장곡면 오성	안산옥	에이, 이여라, 하지요 (사지요)	하지 사지
34	장곡면 대현	김창식	에이, 사지요 (사디요)	사지 사디
35	장곡면 화계	김윤재	에이, 이요라, 하지요	하지
36	장곡면 지정	김기운 이은기	에이여, 사지여 에이여라, 사지오	사지 사지
37	장곡면 행정	송상현	에이, 이여라 사디여	사디
38	광천읍 월림	김이동	에이, 이여라, 사디요호	사디
39	은하면 장척	배선직等	에이, 이여라, 사지요	사지
40	광천읍 운용	김유돈	에이, 이여라, 사디여	사디
41	광천읍 상정	최사방	에이여라, 사디	사디
42 I	홍동면 운월	주정순	에이여라 사디여	사디

〈표 4 〉로 부터 하지와 사리찔은 장곡면에서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26, 27〉은 같은 옥계리인데도 메김소리꾼〈사진 36, 37〉에 따라 받음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의 의미에 대해 안산옥〈사진 38〉은 모심는 철이 하지때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상사류의 나주찔에도 '상사디요' 대신에 '사디요'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한국의 농요 제3집」〈악보 606~612〉 및 상술 전남찔 참조) 하지소리의 사디찔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후자는 전자보다 배로 긴 소리이다. 메김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자는 2음보격 1행인데 비하여 후자는 2음보격 2행으로 구성되어 있어 배로 길다.

〈홍주 25〉는 〈24〉를 재해석한 채보자의 해석악보이다. 〈25〉에서 하지소리의 (받)은 3분박4박 두마디 씩이되 그 1박이 진양(註 1)보다 더 긴 M.M25이다. 메김구 1음보는 4~9字 구성이다.

장곡면 옥계리〈26, 27〉의 메김구는 '헤헤 허-허, 허허'〈26〉 또는 에헤에〈27〉라

는 뜻없는 입말로 시작한다.

김이동〈사진 39 〉은 홍동면 원천리 역말에서도 사디찧을 부른다고 했다. 〈홍주 38〉은 광천읍 월림리에서 故박길동과 함께 일하며 배웠으며, 벼 한말 가져다 먹고 여러마을 일꾼들이 함께 일하곤 했다한다.

장곡면의 최상복(1916.남.오성리土民)은 오성·광성·신풍리에서 모두 사디찧으로 모심었으며 그 (받)을 "에이여라 사, 사디오"라고 소리내었는데, 요즈음은 시조에 익숙해 있는 듯 시조가락처럼 되어버렸다.

홍동면 효항리 효동마을의 그것도 사지찧이다(최복희 대담 ; 68세.土民).

김항제는 〈32〉를 달고처럼 소리한다고 評했다. 〈38〉은 김이동의 긴달고 선율과 통한다. 〈39〉의 배선직은 '사지요'의 끝을 올리면 달고소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내려야한다고 했다.

〈표 3 〉의 〈24~39〉를 보면, 도(레)미솔라〈24, 25, 26 I 이사용唱, 31 〉 구성이 많은 편이나, 미라도레〈39〉 및 솔도레〈26 I , 27 〉도 섞여 있다. 기음 내지 줏대음에서 요성하고 종지하는 경향이다.

3. 기타 〈홍주 23, 26 II , 28, 29, 42 II , 43 〉

은하면 장곡·유송리의 〈23〉은 상술한 바와 같이 겹상사의 한계지역 현상으로, 겹상사의 특징인 상사리 반복이 없다. 따라서 (받)이 3분박4박 3마디 씩이며, 받음구는 "어럴 럴럴 상사리, 에 헤 허이 여루, 상사디히여" 이다.

(상사리요)

〈26 II , 28〉은 장곡면 옥계리에서 긴 하지소리에 이어 부르는 잦은 모심는 소리이다. 받음구는 "에헤, 에이여루, 상사리요"이다. (받)은 내재4박 내지

(상사하디요)

3분박4박 두마디 씩이며, 겹상사 (받)의 제3, 4행과 관련된다. 안산옥은 오성리(가송리와 5리거리)에서도 다심어갈 무렵에 얼럴럴 상사디를 부른다고 하였는데 옥계리의 가락이 참고가 된다.

〈29〉는 금마면 봉서리·인산리의 것이다. 〈29〉의 (메)가 3분박4박 2마디이고 메김구가 2음보격 2행 이상인 점으로 보아, 실제 들에서 부를 때는 받음구 "에이여라 상사디여"가 하지소리처럼 좀더 길고 유장하게 불리워질 것 같다. 금마면 송강리의 경우도 〈29〉가 참고된다(이관수와의 대담으로부터 판단됨).

〈42 II 〉는 홍동면 운월리에서 하지소리에 이어 다 심어갈 무렵에 불리우는 모심는

잦은소리이다. 받음구는 "어럴럴럴 사앙사디야"이다.(받)은 3분박4박 1마디씩이며 그 1박의 소요시간은 1초(M.M 60)이다.

〈43〉은 광천읍 매현리 매성에서 수집되었다. 황후성(1904.매성土民)은 이를 "충청도 농부가"라고 칭하는 바, 이는 전라도 농부가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미완성으로 받음구가 가창되지 않았지만, 그는 벼바숨, 얼카덩어리를 분명하게 재현했다.

금마면 죽림리 배양마을과 장곡면 신곡리(김재경), 홍동면 금당리〈사진 40 〉에선 모심을 때 노래 안했다고 하며, 갈산면 가곡리 동막〈사진 41 〉에서도 모심으면서 "줄넘겨- "라고 외칠 뿐 노래 안했다고 한다.



<사진 36> 장곡면 옥계리에서, 1990년 촬영
가창자인 이태훈(1921, 土民. 右로부터 두번째 모자쓴 분)과 김순삼(1939, 土民. 우측 끝) 및 김갑현 등 녹음 협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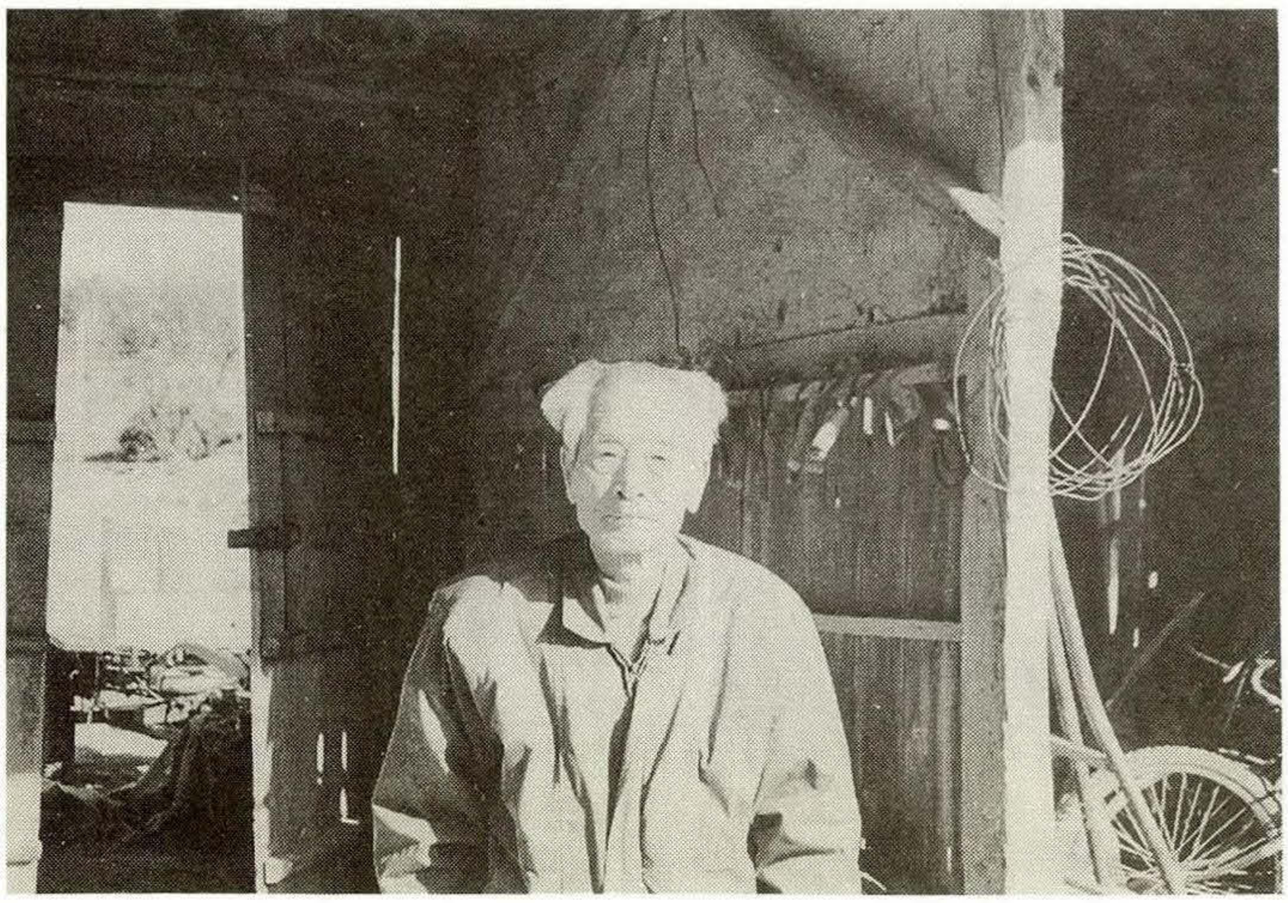
<사진 37> 장곡면 옥계리 제2次 녹음 장면(1994년)
중앙에 모자쓴 분이 이사용(1927, 土民)



<사진 38> 장곡면 화계리에서
밑줄 좌로부터 김윤재 · 안산옥(1919, 오성 土民), 김속원, 최재열
윗줄 : 배동순(녹음협조자), 윤강기 · 최재동



<사진 39> 김이동(69세 · 홍동면 원천리 출생, 21세에 광천읍 월림리 공수마을 이주) 1994년 공수마을 자택 앞에서



<사진 40> 홍동면 금당리의 자택에서. 조용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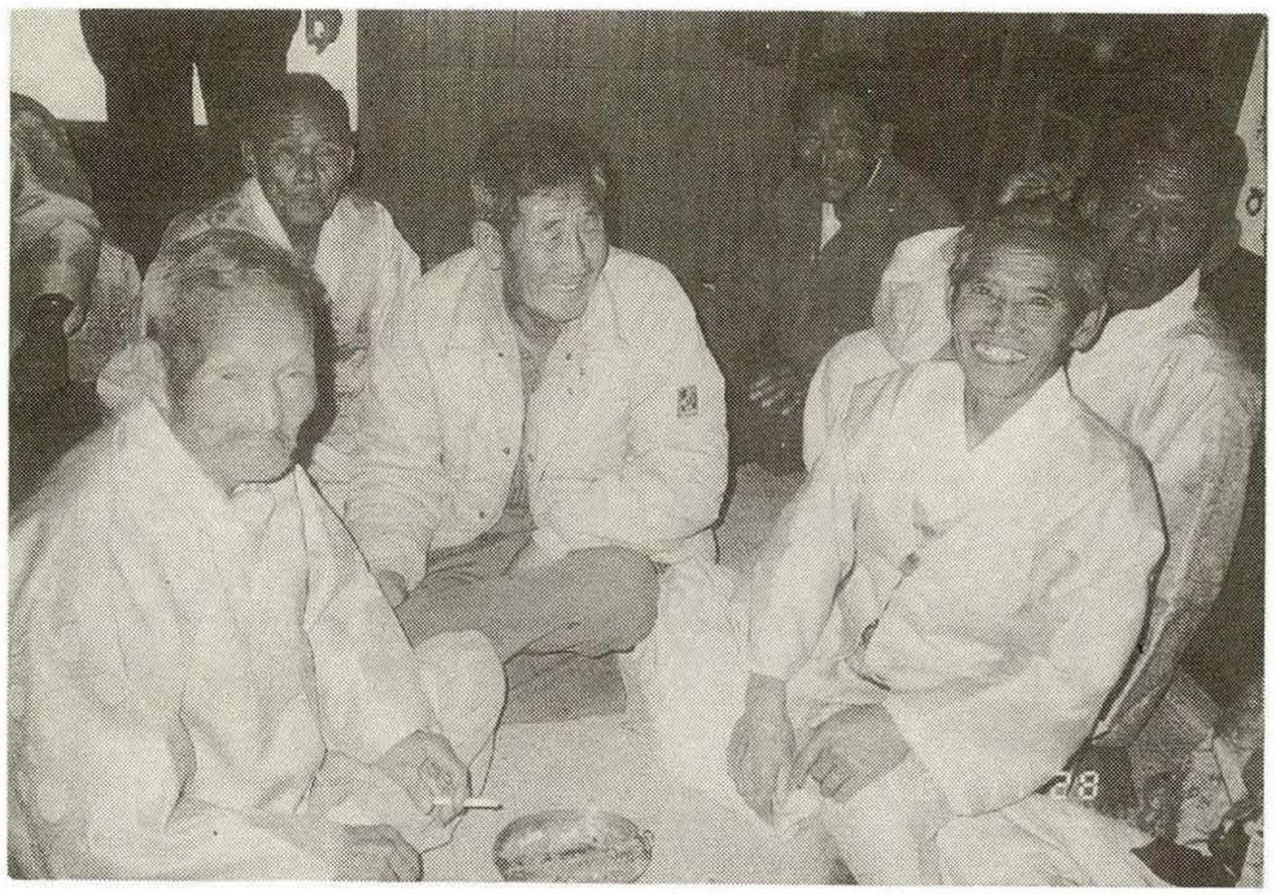
<사진 41> 갈산면 가곡리 동막 윤민식 이장댁에서.
좌로부터 윤민식, 고복근, 이능세, 공철영 및 녹음관계자들



<사진 42> 장곡면 광성리 녹음.
김윤환(75세), 송학기(69세)



<사진 43> 장곡면 월계2구, 최주복(1916, 土民)



<사진 44> 광천읍 노인정에서 1989년 촬영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73세), 김종대(81세)



<사진 45> 장곡면 지정리의 자택에서,
김기운(1923, 지정1구 土民)



<사진 46> 장곡면 행정1구 자택에서,
송상현(1921, 土民)



<사진 47> 눈에 덮인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에서.
가창자 배선직(1928, 土民)·배신희·배만희·배인희 및 녹음협조자 배동순과 필자.
(1990. 2. 1 박문신 촬영)

(7) 논 매 는 소 리

(8) 장 원 질 소 리

(7) 논맴소리<홍주 44~123 >

1) 개관

1. 두레 논매기

논맴소리의 발달은 공동작업 형태인 두레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a.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가) 두레 서는 시기 ;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의 두레는 논맬 때로 부터 두레 먹는 날(칠월 칠석)까지 서며, 이 기간동안 마을 복판에다 용대기〈사진 40, 41 〉를 세워둔다. 중광마을에서는 아시를 호미로 매고 두벌과 만물은 손으로 맸다.

나) 두레조직 ; 두레꾼은 40~50명이며 그중에 좌상, 이좌, 총각대방, 서기, 유사 각각 1인과 늑사 2인을 둔다.

좌상은 두레의 어른(대표)인 바, 그 동네에서 가장 신임받는 노인으로 삼는다. 이좌는 좌상밑에서 실제로 일을 총감독하는 사람이다.

총각대방의 임무는 머리땋은 총각들을 다스리며, 화롯불과 회초리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다. 나이많은 총각중에서 뽑는다. 그는 총각들의 반장일 뿐, 기혼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없다.

서기는 잡풀의 많고 적음을 가려 계산을 하며, 유사는 서기와 함께 다니면서 논값을 정한다.

늑사란 포졸에 해당한다. 만약 두레에 불참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영기〈사진 42 〉를 앞세우고 가서 잡아온다.

다) 참 시간 ; 아침밥은 각자 집에서 먹고 6시경에 마을복판 용대기 세워둔 곳에 모였다가 길풍장을 치며 들로 나간다. 먼 논으로 갈 때는 용대기를 앞세우고 가나 가까운 논엔 안들고 나간다.

논에 도착하면 한바탕 풍장을 치고 논일을 시작한다. 10시경에 참을 먹고 풍장으로 흥을 돋운 다음 다시 논에 들어간다. 12시 반에서 13시 사이에 점심이 나온다. 점심 풍장후 논일을 하고 15, 6시에 참을 먹으며, 마지막 논일후 제각기 자기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다.

그러나 만물을 매고나면 귀가시에 꽃나비 4동(후술.장원질소리 참조)에다 지와밟기를 하며 부자집 마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놓은 술상으로 피로를 풀고 풍년을 예축하곤 했다.

라) 두레 싸움 ; 중광마을 주변엔 소리(광리), 상황(상황리), 당곡(궁리), 산막(궁리)과 같은 자연부락들이 있어 중광마을 두레와 길에서 만나는 수가 있다. 궁리는 일제시대에 광리에서 살림을 채려나간만큼 당연히 중광두레가 선생 두레이다. 길에서 두마을 두레가 마주쳤을 때, 서로 선생두레라고 우기며 오래된 용대기

〈사진 41〉에 먼저 절을 않거나 한쪽 두레패가 놀다가자고 북을 울리는데도 다른쪽 두레패에서 북으로서 화답하지 않으면 두레싸움이 벌어진다. 두레싸움은 상대방 용대기를 자빠뜨리거나 꿩장목을 먼저 빼앗는 쪽의 승리로 돌아간다. 용대기는 신성시 여겨지고 그 마을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광천읍 운용리에서는 운용마을과 상구렁실이 두레싸움을 하곤했는데 진편은 술을 내야되고 이긴편에게 매사 굽실굽실해야 했다(이병후).

장곡면 광성리에서는 결판이 안나면 며칠씩 싸우는 일도 있었다(김윤환).

장곡면 가송리(우덕명:1919.남.土民)는 영기들고 다니며 호미질할 때 죽전리(대밭)와 두레싸움을 했었다.

마) 꽁배술 ; 심부름이나 하다가 18세가 되면 어른 청에 들수가 있다. 이때 신고자(후임자)가 한턱 내는 1~2말의 막걸리를 홍성지방에서는 꽁배라고 일컫는다. 이 신고술은 시루떡과 함께 두레먹는날 마시고 즐긴다.

b. 他 例

가) 금마면 월암리, 봉서리 ; 두레서면 동네사람이 다 나간다. 월굴이(월암리)는 마을이 작아서 두레꾼이 30명정도 되고 봉서리는 커서 90명정도 된다. 주로 아시맬 때 용대기 앞세우고 두레논을 맸다. 논맨 값을 모두 모아 7월7석 두레먹는날 술떡마련하여 풍장치며 하루 즐긴다.

결성면 형산리에서도 7월7석에 동네 넓은 장소에 모여 꽁배술을 마시며 두레를 막음했다.

구항면 내현리 발현의 두레는 부락민을 총동원하여 20~40명으로 구성되었다.

서부면 어사리에서는 풍년들면 두레질하고 풍년안들면 자기네끼리 품앗이할 뿐 두레질 않는다.

나)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 서지동 두레는 이웃 용동이나 자은동 두레와 마주치게 되며, 이 때 두레싸움을 하곤 했다.

서지동에서는 용대기 갖고가서 꽂아놓고 논맬 때 북안치고 소리만 했다(김창영). 백중엔 머슴들이 개별적으로 노는데, 주인집에서 머슴에게 술받아 먹으라고 1000원 또는 500원을 주었다.

홍동면 금당리에서는 상쇠가 보통 소리를 멕이는데 논맴소리하면서 북을 쳤다. 백중에는 장에 가서 몸보신하라고 머슴에게 돈을 주었다.

2. 논맴소리 종류

모심는 소리에 비하여 논매는 소리의 종류가 훨씬 많고 민요권이 더욱 세분화된

다. 따라서 한국의 농요중에서 논맴소리가 차지하는 부피가 제일 크다. 논매는 작업에 고유한 소리도 많지만, 흥민요를 유용하기도 한다.

홍성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시와 두벌을 호미로 매고 만물을 손으로 매기 때문에 손으로만 매는 지역(예;진도군)에 비해 논맴소리가 다양하다.

호미로 맬 때는 얼카덩어리를 부른다.

만물소리로는 수양산類의 산타령과 산아지 등의 잦은 산타령, 두리둥개 내사랑, 매뚜리, 술미, 어거리 에야호, 방게類, 논매는 양산도, 결성농요 특유의 만물소리(산여, 좋다, 두레, 마루, 문성이, 몸돌산여, 몸돌소리), 배꽃타령, 상사 및 두덩덩실 등등이 있다.

결성농요에서 모심은 후 보름만에 잡풀을 건져내는 건젱이소리(밀가는소리;전술)도 손으로 논매는 소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2) 얼카 덩어리<홍주 4, 44~65>

1. 얼카덩어리의 민요권

얼카 덩어리는 충남을 대표하는 논맴소리로서 서북부 충남인 당진·서산·홍성군이 그 중심지이다. 얼카덩어리類는 충남 일대 및 남부 경기도인 안성·평택·용인·화성군, 시흥시에까지 전파되어 있다. 청원·진천군 등 충북(음성군엔 얼카덩어리의 영향을 받은 잘하네型인 "잘하네 못하네 얼카산이가 잘하네"가 있다)이나 전북지방에선 잘 발견되질 않는다.

충남에서도 그 중심지에서는 호미로 논맬 때의 긴 얼카덩어리와 이어서 부르는 잦은 얼카뎅이의 조곡(組曲)으로 짜여지지만 한계지역인 금산군이나 천안군에 이르면 잦은型만 주로 불리운다.

금산군에서 가장 보편적 논맴소리인 "얼카산이야"는 금산군과 舊대덕군(대전직할시)에서 주로 수집되는 바, 이는 금산·논산·공주·구 대덕군 등지에 전파되어 있는 "잘하네 잘하네 얼카산이가 잘하네"라는 받음구를 가진 잘하네型에서 유래하는 잦은型이다.[1)]

2. 홍성군의 얼카덩어리

홍성군은 얼카덩어리의 중심지역에 속한다. 긴 얼카덩어리의 받음구는 "얼카 덩어리"이며 다매갈 무렵에 둥그렇게 에염을 싸면서〈사진 31, 32〉 부르는 잦은 소리의 그것은 "얼카뎅이"〈4Ⅱ, 44Ⅱ, 45Ⅱ, 47Ⅱ, 48Ⅱ〉 "얼카덩어리"〈51Ⅱ, 52Ⅱ, 57Ⅱ, 58Ⅱ〉 "어화뎅이"〈47Ⅱ〉 이다.

결성농요〈홍주 4 〉의 경우, 잦은 얼카뎅이〈4Ⅱ〉는 (메)와 (받)이 각각 8분의 6박

---

1). 잘하네曲에 관하여는 필자의 「상주의 민요」상주군.1993. 109쪽 참조

(즉, 3분박2박. 1박=M.M 75) 1마디씩임에 비해 긴 얼카덩어리〈4 I 〉는 비고정장단으로 채보되어 있다.

그러나 〈4 I 〉(받)의 음길이를 〈표 5 〉에서 보면 '얼'은 '카'보다 조금 길게 소리내며(얼〉카) '덩'과 '리'보다 '어'가 짧은(덩, 리〈어) 규칙성을 볼 수 있다. (얼카 : 덩어리)의 소요시간비는 평균 3:4 가 된다.

〈4Ⅱ〉(받)의 소요시간보다 긴소리의 그것은 6배정도 길다.

<표 5> 긴 얼카덩어리<홍주 4 I > 받음구의 음길이

받 음 구	얼	카	덩	어	리
음길이	3	2	2.5	1.75	2
	2.5	2	2.25	1.5	2
	2.5	2	2.25	1.75	2
비 고	2.5〉3	2	2.25〉2.5	1.75〉1.5	2

〈표 6〉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미라시도, 솔도레미, 도미솔旋法 등이 보인다. 다양한 선법의 공존은 충남농요의 한 특징이다.

홍성군의 조사지역에서는 모두 얼카덩어리를 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2)]

결성면 형산리의 김용세는 얼카덩어리曲을 가리켜 아시땅을 파는 소리라고 일컬었다.

장곡면 가송리의 우준(1940.남.土民)은 노니나타령〈홍주 77 〉을 부르면서 멕일 때는 논을 매고 받음소리하면서는 춤을 추다가 어덕밑에 둥그렇게 모여들면서 잦은 찔인 〈홍주 46〉을 "네 다리 빼라" "내 다리 박자"하며 불렀다. 앞가슴〈도 5〉을 똥아리 몽두리라 한다.

은하면 유송리의 김명복〈홍주 56 〉은 아랫녘에서는 '얼카하'와 같이 얼카 다음에 '하'를 발음하는 점이 유송리나 장곡리와 다르다고 했고 함께 있던 장곡리의 전복한도 이를 긍정했다. 김명복이 말한 아랫녘엔 은하면 대천리〈홍주 57 〉가 해당한다.

3) 산타령(수양산)<홍주 66~78>

만물매는 소리인 수양산曲은 산타령의 홍성찔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결성면 성호리의 강영신은 벼벨 때와 두벌맬 때 〈66〉을 불렀다고 했으나 결성면

---

2) 홍성읍 남장리 1구 모종복(1915.남), 광천읍 상정리 최사방(1907. 남), 광천읍 홍순우(1910.남)·이덕환, 갈산면 동성리 강수로, 서부면 어사리 한동석, 서부면 광리(호미로 맬때나 손으로 맬때를 불문하고 끝낼무렵에 "얼카뎅이"를 잦게 부른다), 결성면 교항리 김창영 등.
김창영의 얼카덩어리는 그의 술미曲〈홍주 99 〉과 비슷한 선율이다. 메김구로는 "석양볕에 기다리고,한일자로 늘어서서,입구자로만 매여 가잔다"라고 소리했다.

〈홍주 47 I 〉첫행 '리'의 e플렛은 d를 낸다는 것이 조금 격하다 보니 높여진듯 하다.

교항리 서지동의 김창영은 논맬 때는 안부르고 놀면서 부른다고 했다.

광천읍 운용리의 선소리꾼인 김유돈은 논맬 때 〈71〉을 처음에 부른다음 양산도를 부르고 3분의1 남았을 적에 얼카덩어리를 하며 둥그렇게 에워싸고는 '어기여차' 외치고 나왔었다.

결성면 금곡·무량·성남·성호리, 은하면 대천·유송·장곡·장척·화봉리, 홍동면 운월리, 홍성읍 송월리, 갈산면 와리, 광천읍 운용리, 서부면 광리[3]·상황리〈75〉·남당리〈76〉 및 장곡면 가송리〈77〉에서 수집하였다.

긴 받음구가 있는 유장한 소리이나 서부면에서는 받음구없이 가창했다〈75, 76〉. 남당리 소도마을 사람들은 선입후제창에 익숙한 듯 〈76〉을 처음에 앞소리꾼이 3음보 부르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일제히 제창했다. 즉, 아래의 예에서 백두산아 이하를 제창함이 定型的이다. B는 固定句이다. A와 C는 서로 對句관계일 필요가 없다. 〈74〉는 후렴구가 있으나 〈76〉의 가창방법이 참고가 된다.

○ (A) 산아 산아 수양산아
눈비 맞어서 백두산아
(B) (흥)에- 에-
(C) 바람불고 비올줄 알면
어떤 사람이 (빨래)질 갈까

받음구를 예시해보면 〈표 7 〉과 같다.

<표 7> 수양산曲의 받음구

홍 주	지 역	가 창 자	받 음 구
66	결성 성호	강 영 신	어이기 나누 나하하누, 어이기 나누 나하하누, 어이기나 나흐 흐예, 어허 산아지로 고나

3) 서부면 광리에서는 논맬 때, 처음에 문성이(민생이)를 부른 다음 매화타령을 부르고 세번째로 수양산을 부른다고 했다(민병국).
장곡면 옥계리에서는 수양산曲을 부르지않았다고 한다(이태훈).
장곡면 월계2구의 최주복 및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에서도 수양산曲을 몰랐다.
은하면 화봉리 야동의 정동의(1914.土民)는 〈72〉를 50세까지 들에서 김교성(1922.남.土民)의 사촌이 멕이는 대로 훗소리를 따라 불렀지만 30년만에 처음 재현해 본다고 했다. 노령으로 음정은 떨리는 점이 있었으나, 몇번 부르는 동안 음정과 가사가 고정적이었다.〈사진 44 〉
전북 옥구농요의 만경산타령(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1집」)이 참고된다.

홍 주	지 역	가 창 자	받 음 구
67	결성 성남	장 종 환	에헤 에, 어이기 나노 나노, (내나노) 난다 디여루, 산이로고나
68	은하 대천	김 향 경	헤 헤이 에야, 나 헤- 나하 노 나헤 헤헤, 헤이 사나니로 고나하
69	홍성읍 송월	윤 종 필	에이기 나누 나- 헤헤, 에이기 나누 나하 헤헤, 에이에 에루구나야, 에 아무리 허허여, 해야도 산아니라
70	결성 무량	김 학 인	허이기 나누 나누나, 허이기 나누 나누나, 헤 -- 거드렁 거리고 산아지로고나(산나니로다)
71	광천 운용	김 유 돈	어, 이노하, 헤, 헤에, 에 에요, 이이, 이 이, 헤 헤로사, 이여라
72	은하 화봉	정 동 의	에-, 나하 에이 니하 노, 나헤 헤잇, 에헤이 산아니로, 구나 하 으헷 에야
73	은하 장척	배 선 직	에이기나노, 나~, 에이기 나노, 나에 헤에, 사나이로구나
74	은하 장곡	전 복 한	에나 헤헤, 나 헤헤에 헤루만 산이로, 구나 에헤야

홍 주	지 역	가 창 자	받 음 구
77	장곡 가송	우 준	노, 이노 하, 헤이, 헤 헤, 헤루, 이-, 이-, 헤, 헤라 사, 헤, 헤라
78	홍동 운월	주 정 순	에로, 구이나, 구이나-, 아헤--, 에, 헤 헤헤루 사라 -ㅇ 이기로-호, 구- 나

수양산曲은 비고정 내지 복합적인 장단에 속한다.

〈표 8〉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솔(라)도레미의 솔선법에 속한다. 솔픕아래로 미픕이 출현함이 보통이나 미선법에 있어서 솔이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우리 민요선법의 내용과 맞지않으므로 솔을 줏대음으로 해석한다.

솔선법상 라픕은 출현빈도 및 비중이 약한 편이다. 줏대음에서 종지하는 경향이다. 요성은 〈표 8〉과 악보 참조.

한옥타브가 넘는 넓은 음역의 멋이 덤북 담겨있는 노래이다.

4) 잦은 산타령<홍주 79~88①>

1. 산아지系 〈홍주 79~84 Ⅰ, 88① 〉

산아지는 진도아리랑의 선구가 되는 곡으로 섬진강 중·하류 유역의 논맴소리·장원질소리였던 것이 흥겨운 가락으로 인하여 널리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중심지역의 '산아지'라는 받음구가 곡성군까지도 유지되지만 순창군에 이르면 '산아지로고나'가 '산이로고나'로 대체된다.

홍성군에서는 산아지曲이 논맴소리로 수집되며, 〈88①〉의 받음구에서만 '산아지'의 흔적을 남긴다. 서부면 어사리 〈83〉은 산아지의 (메)에 해당하며 나무꾼소리의 例로 불리워졌으나, 인접한 남당리의 이연준은 〈81〉을 남당·어사리 쪽의 논맴소리라고 하였다.

〈79〉 에, 에헤에이야 / 어허디여루 산이루구나
〈80〉 에야디야 에헤 헤이헤이야 / 에야디여라 산이로다
〈81〉 에야디얏 에헤에얏 / 에야디엿 산이로구낫
〈82〉 에야라디야라 에헤에 에이야 / 에헤 에이여루 산이로다
〈84 Ⅰ〉 에이야디야, 헤헤헤헤야 / 헤헤, 디여라, 산이로고나
〈88①〉 에헤, 오호호디야 / 오호디여, 산아지로 더구나

(메)와 (받)이 각각 3분박4박 2마디씩에 해당한다. 〈표 9〉에서 구성음관계를 보

면 미라시도가 지배적이며 꺾는 기능이 나타나고, 기음 내지 줏대음의 4도 윗음에서 종지하며 기음 또는 그 4도윗음을 요성하는 경향임은 중심지역의 그것과 통한다.

2. 기타 〈홍주 85~87 〉

금마면〈85, 86〉과 장곡면 옥계리〈87〉에서 수집된 것은 산아지曲과 구별된다. 이들 가창자는 수양산系의 산타령을 몰랐다.

〈85〉는 (메)와(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며 그 받음구가 "어야디야 산이로구나"이고 주요구성음은 도미솔라이다.

옥계1구 반계(등대실)마을〈87〉의 이태훈(녹음당시 70세)은 밭매면서 얼카덩어리를 부르고 만물 때는 방게〈홍주 106〉를 부르며 호미로 논매면서 〈87〉을 가창했다고 한다. 메김구의 他例로 "청천하늘에 별도 많구요, 요내 가슴에 수심도 많구나"를 떠올렸는데, 한사람이 시작하면 가사를 아는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도 한다.

5) 두리둥개 내사랑<홍주 90~92>

서부면 남당리〈90〉·어사리〈91〉와 결성면 형산리〈92〉에서 만물소리로 수집되었다. 그 받음구는 다음과 같다.

〈90〉 에 헤, 에허 헤이야, 엉어루화 엉어루화
두리둥개둥개 내사, 러엉아 에헤이야
〈91〉 어, 헷, 어허 어이얏, 어허루화 어허루화
두리둥개둥개 내사랑, 어헝아 에헤야하
〈92〉 어이 얼싸 어루화 삼마야라
두리둥개둥개 내사랑- 랑아 에헤에야

메김구 끝에 '에헤이야하'와 같은 경과구가 나오며, 이를 〈90〉에선 (메)와(받)이 합세해서 함께 불렀다. 구성음관계는 〈표 10〉을 참조.

진안군 마령면의 섬마타령, 장흥군 부산면의 제고타령, 고흥군 도덕면의 두리둥가 둥가 내사렁, 남해군의 둥가타령 및 개성난봉가의 후렴을 응용한 황해도 봉산군의 섬마타령 등과 유관하다(각 악보에 대하여는 필자의 「한국의 농요」를 볼 것).

6) 매뚜리 소리<홍주 93~98>

결성면 형산리의 고들미〈93〉·구수동〈95〉, 구항면의 공리〈94〉·내현리〈96〉 및 갈산면의 가곡리〈97〉·행산리〈98〉에서 수집되었다. 서부면 어사리나 결성면 금곡리, 홍동면 운용리 등지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했다.

매뚜리 소리는 홍성군을 출처로 하는 만물 때의 잦은 논맴소리인 바, 군내에서도

서북부쪽에서 주로 발견된다. 서산군 안면읍과 근흥면에선 "얼카 훔띠리기(야)" "에혀라 훔띠려라"짤이 나온다.

매뚜리曲의 받음구로는 다음의 例들이 있다.

> 얼카 매뚜리세〈94〉, 얼카 매뚜리〈96 · 97 · 98〉, 어하 매뚜리요〈95〉
> 어하 매뚜리〈97〉, 에화 맷돌이야〈93 I 〉, 어화 맷돌〈93 II〉

행산리의 임희종은 매뚜리란 손으로 논매느라고 맥질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고, 가곡리의 윤민식은 얼카덩어리때 호미로 파서 덩어리를 만들어 놨던 것을 매뚜리때 매끼하게 하는 것이므로 '매뚜리'란 매끼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구성음관계는 〈표 11〉 참조.

7) 술미<홍주 99~102>

만물때의 술미소리가 녹음된 곳은 결성면 교항리〈99〉, 서부면 어사리〈100〉와 광리〈102〉, 갈산면 동성리〈101〉이다. 이들 마을은 모두 바다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갈산면 상촌리의 김선균(1907.土民)은 술미소리를 하지않는다고 했다.

그 받음구는 "어하 술미야" "에 술미야" "어 술미" 이다. 어로요의 술배類[4]와 부안군 위도띄뱃놀이의 술배소리("어와 술배야" "에이야 슬배야")가 참고된다.

김창영의 술미〈99〉는 그의 얼카덩어리曲과 同類이다. 구성음은 〈표 12〉를 참조.

8) 어거리 에야호<홍주 103, 104>

홍북면의 대동리〈103〉·석택리〈104〉에서 녹음된 만물소리이다.

(메)와(받)이 3분박4박 2마디씩이며 그 받음구는 "에헤 에이헤/어양 허거리 헤야호"〈103〉, "에헤헤 에헤헤 헤이야/에야 덩어리 에야호"〈104〉이다. 면접한 예산군 삽교읍에서도 발견된다.

논산군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부여군 舊석성현 지역의 주된 논맴소리인 에이양 허리曲과 서산·당진·청원군의 행상류 논맴소리와도 비교가 된다.[5] 홍북면 대인리의 이석희는 행상曲에다 "아하아하, 아하이 아하"라는 가사를 얹은 것이 만물소리라고 한다.

〈103, 104〉의 구성음은 도(레)미솔라도` 이며, 기음인 도에서 요성하고 종지하되 끝을 올린다〈표 13〉.

---

4) 고기 퍼 실을 때(서천군의 "어여 슬비야", 소흑산도의 "에야하 술배야")와 어로용 밧줄 꼴때(거문도)의 술비소리(필자의 「한국 어로요 모음」수협중앙회.1990.p24)

5) 필자의 「부여의 민요」부여문화원.1992.p111,149 및 「한국의 농요」 제 2·4집 참조.

9) 방게 類<홍주 105, 106>

장곡면(광성리, 옥계리 등)엔 방게류가 전해져 있다. 광성리〈105〉의 받음구例는 "어이겨, 에에이여-라, (이논배미서 꽃)바앙하가 논다"이다.

〈105, 106〉의 구성음은 솔(라)도레미솔이다.

안산옥은 그의 고향인 장곡면 오성리의 논매는 방게타령이 〈106〉과 다르다고 했다. 홍북면 대인리의 서귀봉은 〈107〉이 '논-다'로 맺는다지만 방게류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받음구가 '방게(방애) 논다'類로 끝나는 예는 당진·서산·예산군의 모심는 소리, 평택군과 전북찧의 논맴소리 및 고흥군의 모찌는 소리 등에 있다(「한국의 농요」 참조).

10) 논매는 양산도 <홍주 108, 109>

광천읍 운용리〈108〉와 장곡면 가송리(우덕명, 우준〈109〉)에서 논맬 때 불렀던 것으로 수집된다. 김유돈은 수양산에 이어 〈108〉을 많이 부르며, 맬 논이 1/3정도 남았을 때 얼카덩어리를 하고 둥그렇게 에염을 싸면서 "어기여차"를 부른다고 했다. 〈108〉은 솔선법에 속한다.

논매는 양산도는 일반 흥민요인 양산도와는 구별된다. 전자는 전남 화순군에 널리 전해져 오며, 다른 지방엔 드문 곡이나 전남의 고흥군 도화면·신안군 암태면·담양군과 전북의 남원군 아영면 및 경기도 안산시의 수암동·신길동에서 녹음한 바 있다.

은하면 장척리의 배신희는 논매고 나서 논둑에 앉아 술마시며 쉴 때 양산도를 부르기도 했다고 가창해 보였으나 일반 흥민요인 양산도에 불과했다.

결성면 무량리의 김학인, 장곡면 월계리의 최주복은 논맬때가 아닌 흥민요로서 일반민요 양산도를 부른다고 했다. 홍성읍 송월리 윤종필唱도 후자에 속한다("어 양산을 가세 양산을 가세, 시양사 초롱에 불밝혀라, 에라 놓아라 나는 못놓겠네, 산천이 무너져도 나는 못놓겠네").

11) 문성이, 건젱이, 산여, 좋다, 두레, 마루, 몸돌소리<홍주 112~120>

이들은 결성농요의 만물소리와 밀가는 소리〈112〉이다. 1994년 이전의 채록분과 리듬의 해석악보〈115~118, 120②〉 및 현재의 결성농요 공연〈홍주 1~10〉에서 빠져있는 문성이〈119〉를 실었다.

문성이(문셍이, 멘생이, 면생이, 민생이)는 만물소리로서 희요(稀謠)이다. 화성군 팔탄면 구장리와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음암면 및 대전시 탑립동에서 수집된다. 구

장농요와 야당농요의 그것(「한국의 농요」제2·4집 참조)은 전승상태가 양호했다. 야당리의 이봉을은 논매러 처음 들어서서 부르는 소리로 멀리 들린다하여 문성이라 한다고 했다. 구장리에서는 손으로 논훔칠 때 처음에 두울레를 부르고 이어서 면생이, 긴방아, 자진방아, 상사를 부르며 먼들소리로 쌈을 싸고 끝난다.

〈119〉는 문성이라기 보다 '방게흥게 논다'의 방게類에 가까와 문제가 된다. 문성이나 두레〈117〉나 어느것을 먼저 불러도 좋다고 했다. 결성면 무량리의 김학인(1918)은 12살 때 들었는데 20여명이 세벌논 매면서 석양판에 일곱사람이 따로 나와 멘생이를 부른다고 했다.[6]

서부면 광리에서는 만물 때 처음엔 민생이[7]를 부르고 다음에 매화타령과 수양산을 부른다.

만물소리로 '산요'라는 곡명이 보령군 천북면 조사에서도 나왔다.
구성음관계는 〈표 13〉 참조.

12) 배꽃타령, 두덩덩실, 매화타령, 상사, 기타

1. 배꽃타령〈홍주 110〉

〈110〉은 서부면 광리에서 수집되었다. '합덕이나 방죽'이라는 가사가 당진군 면천면의 배꽃타령에서도 나왔다.

배꽃(연꽃)타령類를 논맬 때 부르는 예는 전북(순창·임실·장수·정읍군 등)에 많은 편이다.

2. 기타

두덩덩실〈홍주 88②·89 〉쩔이 은하면 장곡리의 선소리꾼인 전복한(1921.土民)唱에서 나왔다. 무당패[8]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노래가 아닐까 싶다.

진도군 의신면의 하중밭들나들이에도 비슷한 리듬의 '사브랑 삽작'같은 독특한 가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웃마을인 유송리의 김명복은 〈88①②〉를 일컬어 세화자曲이라 하고 전복한은 세벌매는 소리라 하며 이를 가창하였는 바, 세화자(세워자·세월이소리)라는 곡명은 화순군·나주군을 비롯하여 영산강을 낀 서북부 전남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88〉과는 구별된다.

---

6) 김학인 대담 : 멘생이는 3장까지 있다. 고산寺 스님들이 재올릴때도 멘생이를 부른다.
7) "에 - 오아 - 어이, 에 - 오-" 한 다음 일어서서 '아 - 어이'하는데 '어이'할 때 메김소리가 시작된다고 한다.
8) 줄타기와 노래를 하는 남사당을 서부면에선 무당패라 불렀다. 서부면 광리에서는 부자집 환갑잔치 등에 며칠씩 무당패들이 묵고 갔다. 서산군 사람으로 고무다리한 장구잽이가 장구에 능했는데 이를 보고 민병국이 배웠다.

매화타령을 홍성읍 송월리〈홍주 65Ⅱ〉와 서부면 광리에서는 논매면서 불렀다. 홍민요인 매화타령(홍북면 최화순唱 참조)과 같은曲인지는 불분명하다.

〈홍주 84Ⅱ〉의 "어야디여"와 〈홍주 122〉는 논다매갈 무렵에 둥그렇게 에염싸면서 몇번 외치는 소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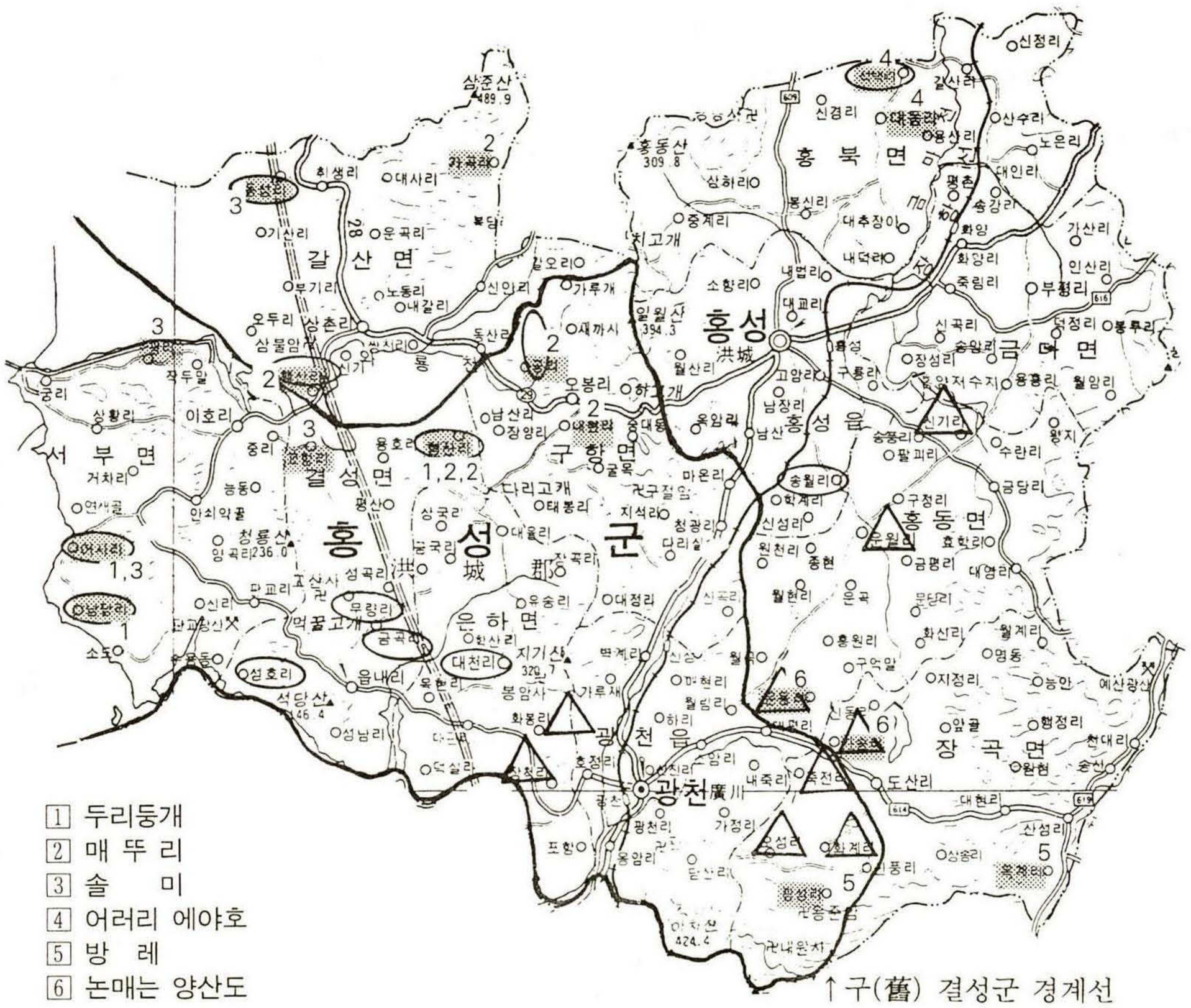
금마면 송강리에서는 만물소리로 상사류("에헤헤야 상사디야")가 나왔다.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에서는 모심는 사리소리("에이이, 이여라, 사리요")를 논맬 때도 부른다고 했다.

〈홍주 121〉의 '닐니리야'는 장곡면 월계2구 최주복(1916.土民)唱인 바, 끝은 "쉬 - " "위여차 - "하고 맺는다고 했다.

〈홍주 123〉은 은하면 목현리에서 녹음되었다. '밀었다 댕겨라'가 받는 소리라고 하며, 끝낼 때는 뜸백이가 물먹는 소리같이 "후루루루" "울룰룰루" 또는 "뜸뜸뜸" "들들들"하곤 했다.

<도 7> 홍성군의 논매는 소리 분포도



(8) 장원질 소리<홍주 9, 10, 124~127>

맘논을 매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풍물을 치며 풍년을 구가하는 장원질행사도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상머슴을 소에 태우는 곳, 소에 거꾸로 태우는 곳, 괭이말(괭이자루)을 타거나 어깨말(다른 사람의 어깨에 태움)을 타는 곳도 있지만 경기·충청의 웃다리농악지대에서는 이때 3동, 4동 무동이 서고 풍물만 울리는 곳이 많다.

홍성군에서는 장원질 소리로 종헤類와 무동 꽃나부 서는 소리 및 지와밟는 소리가 녹음된다. 그밖에 장곡면 화계리에서와 같이 꽃나부 세우고 올때 한 사람이 "동네 어른들 약주 잡수러 오시오-"하면 다른사람들은 "어이"하고 3회 반복하여 외치는 예가 있으며, 구항면 내현리의 중방넘기가 있다.

1) 종헤소리〈홍주 10, 124〉

홍성군 종헤類의 받음구는 다음과 같다. 〈124Ⅱ〉의 이태훈은 '종아종종'을 '좋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장곡면 화계〈124Ⅰ〉: 에헤라 종헤호

장곡면 옥계〈124Ⅱ〉: 워 놀이나 종아종종

결성면 성남〈10〉: 에기여라 종게좋소

타지방의 예로는 천안군의 종다루, 연기군의 종달오, 공주군의 중화 및 고창군의 종헤소리가 있다.

2) 꽃나부 서는 소리 〈홍주 125〉

결성농요에서는 4동 꽃나부를 세울 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125〉처럼 "오-.오-오"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힘을 북돋아 준다. 은하면 대천리에서도 꽃설 때 "오-"소리를 질렀다고 한다(김향경 대담). 은하면 장곡리의 전복한은 무동세우면서 "우루루.."하며 외칠뿐 별 노래는 없다고 했다.

4동을 세우자면 밑둥에 장정 4인이 둥그렇게 어깨걸이를 하고 이층에 3인이 오르며 3층에 장정 1인이 오른다. 제3층의 장정 위로 중처럼 꼬깔을 쓴 작은 아이가 선다.

장곡면 광성리·행정1구·옥계리·화계리, 서부면 어사리·광리, 갈산면 와리, 홍북면 대인리, 결성면 교항리 및 홍동면 금당리에서도 무동 세우고 들어왔음이 확인되었다. 장곡면 대현리1구의 강창식(1935)도 8·15해방전에 직접 삼동나비 서보았다고 한다. 결성면 성남리의 최병호(1928)는 열서너살에 꽃나비(회오리삼동)를 섰었다. 와리의 박홍하(1916)는 삼동나비 세우면서 무너져 목을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3) 지와밟기 〈홍주 126, 127 〉

장곡면 광성리에서는 장원질에서 두레꾼들이 허리를 붙잡고 한줄로 엎드려 있는 등잔등 위를 13, 4세된 아이가 밟고갈 때 〈126〉을 부른다. 등을 먼저 밟힌 사람은 다시 앞으로 나가 선다. 아이가 넘어지지않도록 양켠에서 붙들고 논맨 주인집 안마당에 들어서면 멍석 깔아놓고 북어며 술이 준비되어 있다.

〈126〉은 (메)와(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며 받음구는 "얼럴럴 지와밟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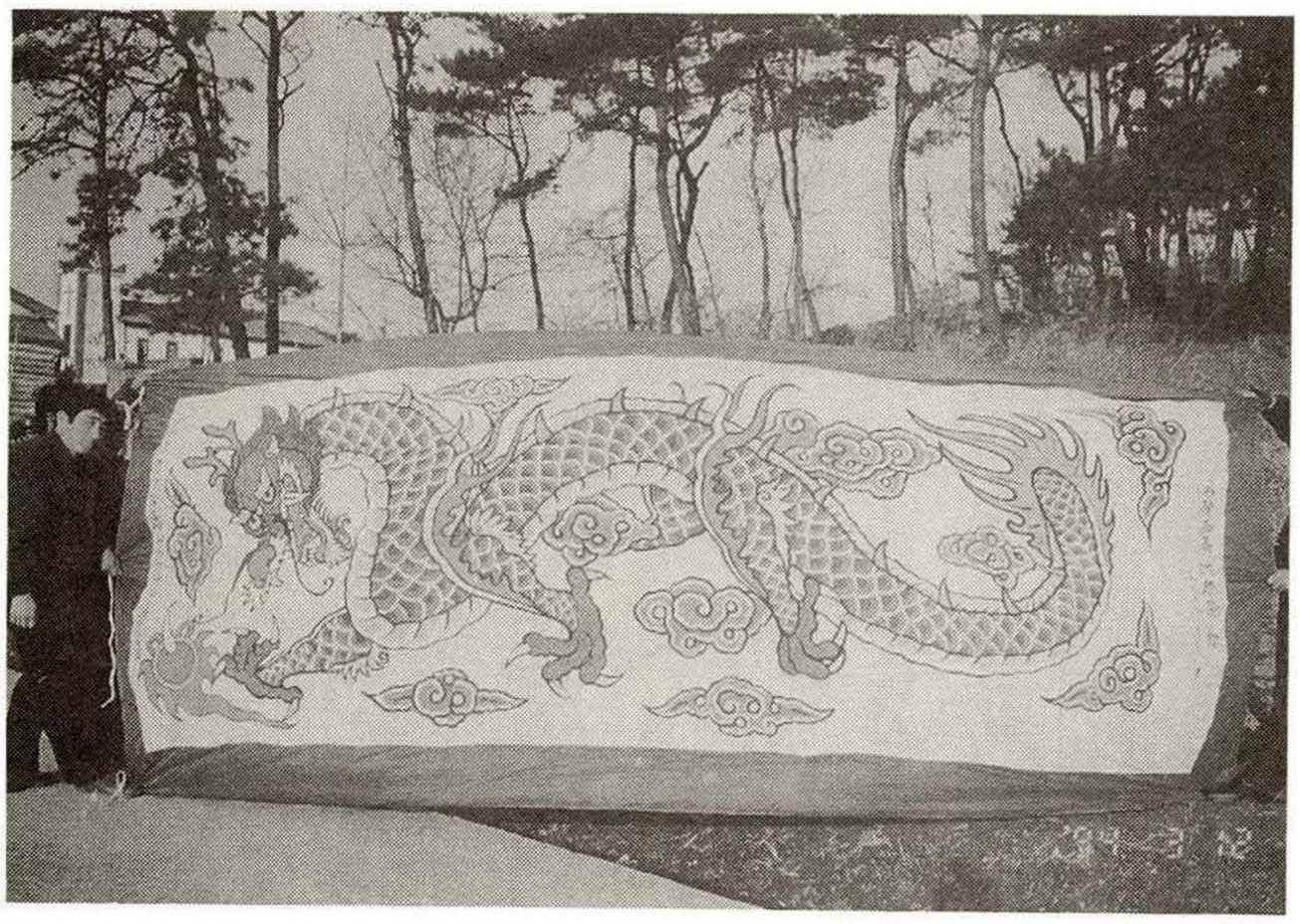
〈127〉은 4, 5년전엔 결성면 소속이었다는 갈산면 와리의 것으로 받음구가 "얼카 지와밟기" 이다. 주인네집에 들어가면 가오리포와 막걸리가 나왔다.

지와밟기를 다 했던 것은 아니다. 결성면 교항리, 서부면 광리·어사리, 홍동면 금당리, 갈산면 행산2구에서는 지와를 밟았다.

4). 중동넘기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에서는 논 다매고 저녁먹으러 주인집에 들어올 때 집밖에서부터 20~40명의 두레꾼들이 일렬로 서로 손을 잡고 발로 한사람씩 손잡은 윗쪽을 넘으며 "어라 중방넘자"라고 소리하면서 중방넘기를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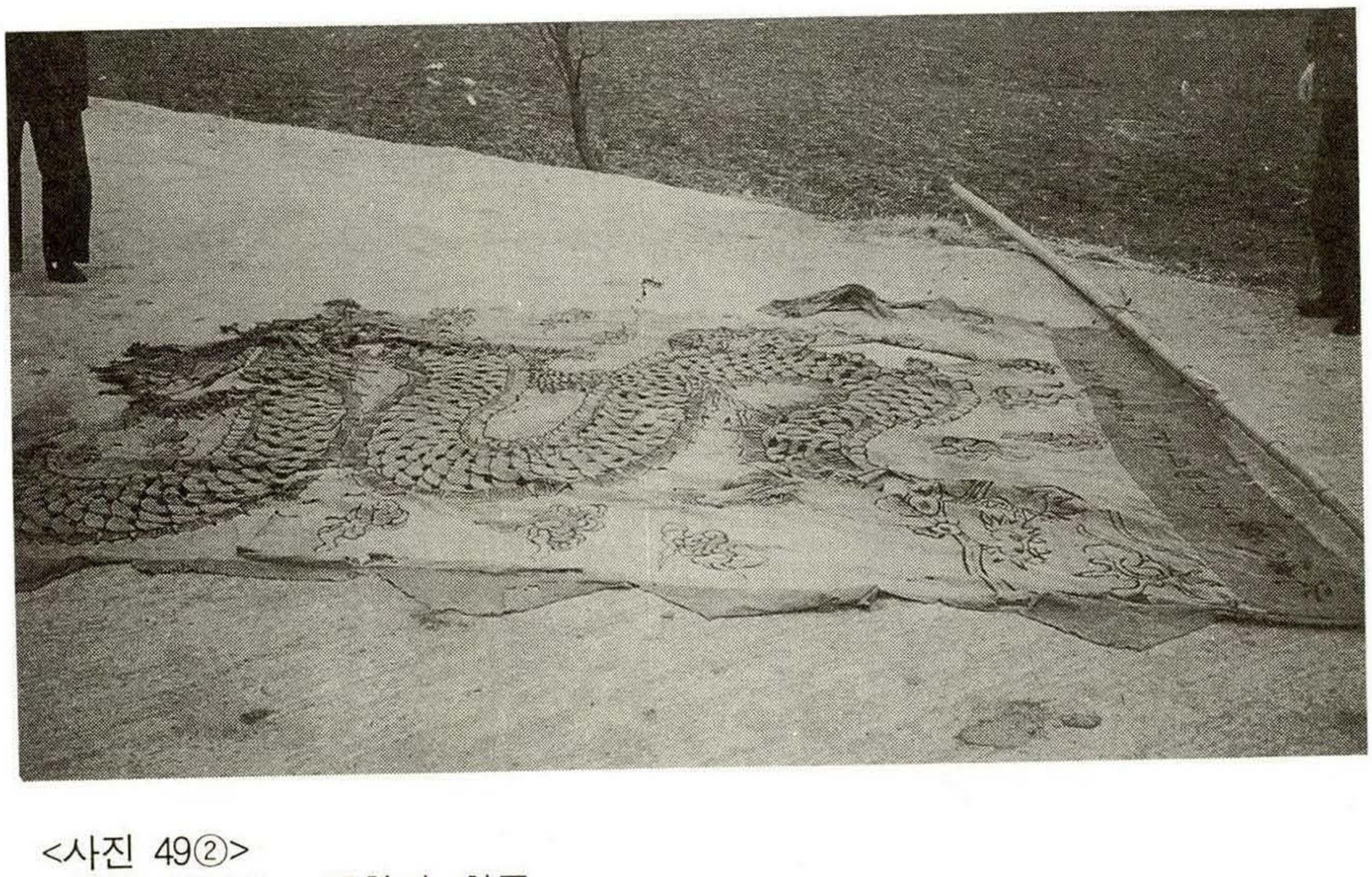
옛날 중방(대문의 문지방, 문턱)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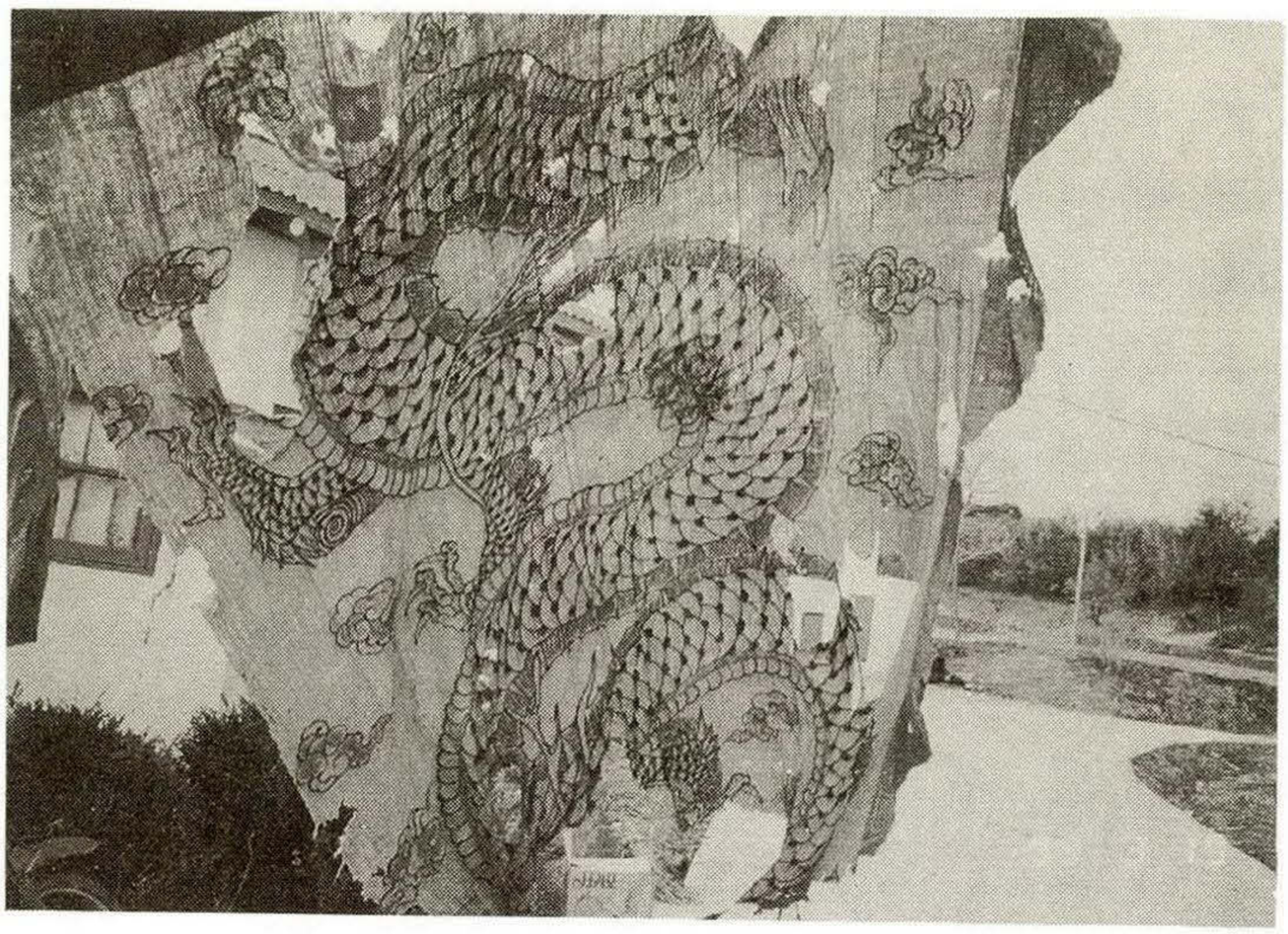
<사진 48>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대기의 용포(지네발을 아직 달지 않았다)
1992. 10월에 증수된 이 용그림은 서부면 이호리의 고준행(59세·남, 土民)이 그렸다.

<사진 49>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포의 용머리쪽 年代記 : "眞平王" 五0年(六三三) 夏大旱祈雨畫龍 一九九二年 十月增修"라고 쓰여 있다.
三國史記 眞平王條에 보면 五十年 : "夏大旱 移市畫龍祈雨 秋冬民飢 賣子女"라는 기사가 나온다.
진평왕 50년은 서력기원 628년이므로 六三三은 六二八로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라 진평왕 50년은 백제 武王 29년이므로 처음엔 백제왕의 년대를 기재했던 것이나 통일신라시대에 용대기를 증수하면서 신라왕 년대기로 고쳐 기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본다.





<사진 49②>
<사진 49②③> 구항면 황곡리의 오래된 용대기 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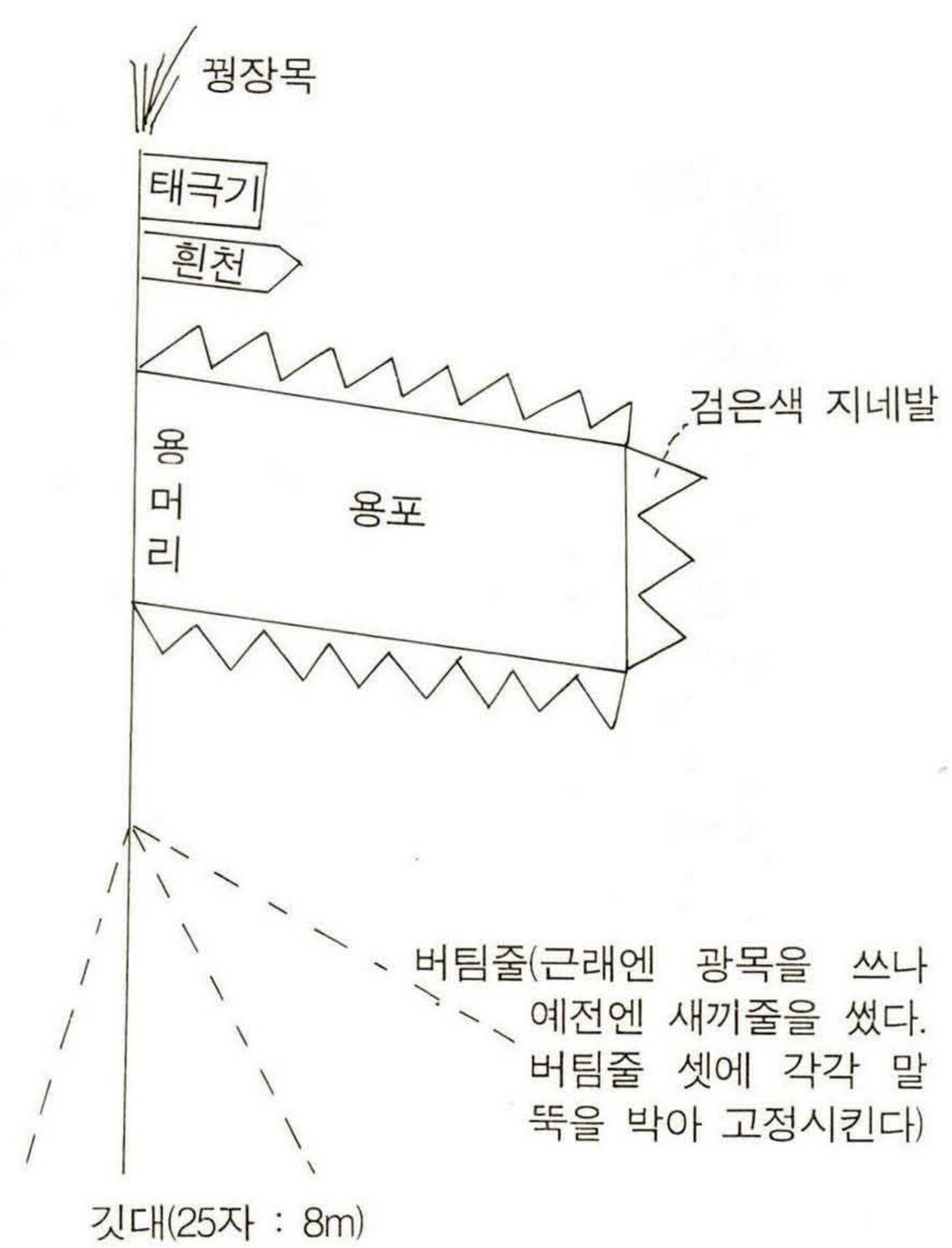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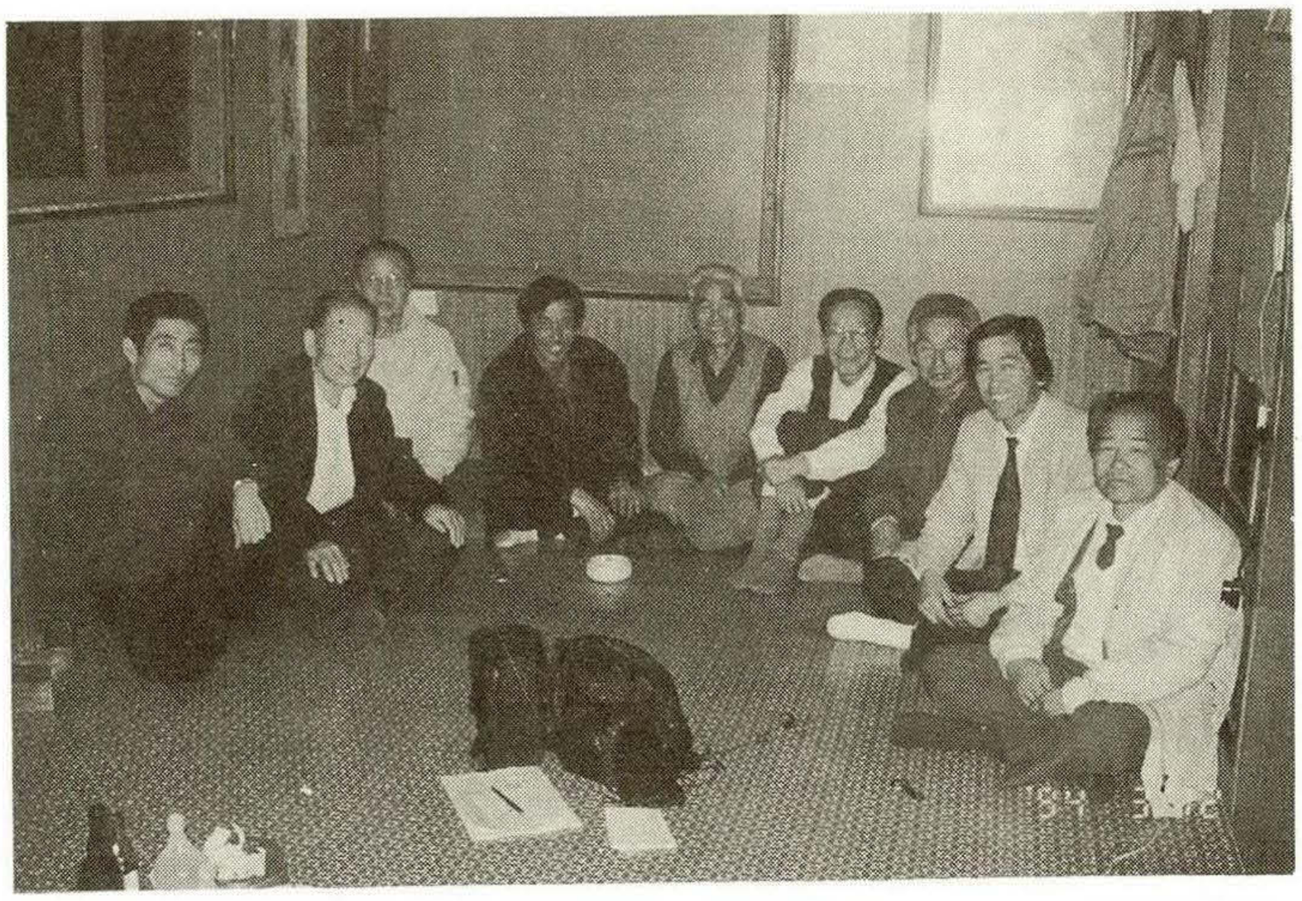
<사진 49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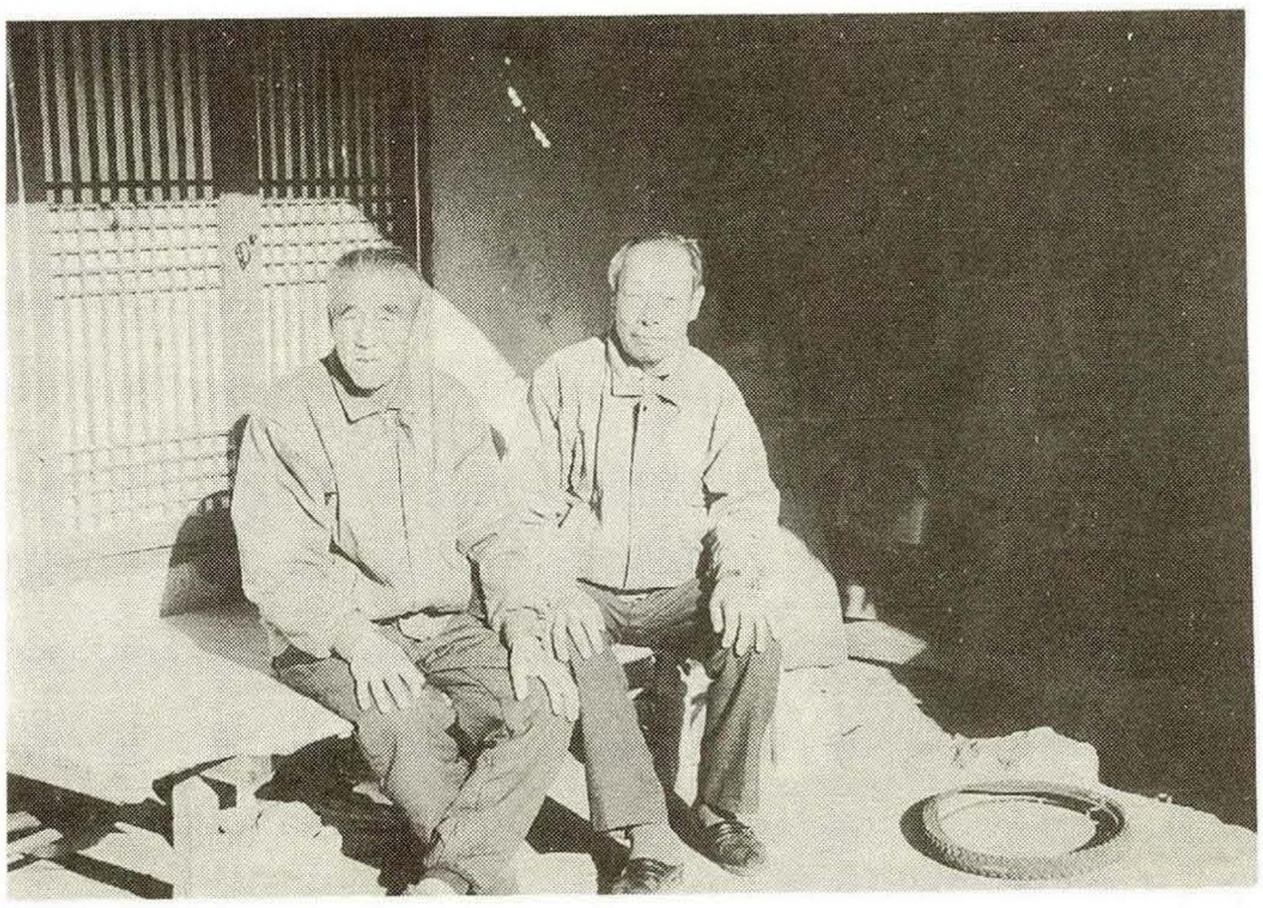
<사진 50>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의 영기(令旗) : 적색영기(붉은바탕에 푸른 令字)와 청색영기(푸른바탕에 붉은 令字)가 있다.

<도 8 >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대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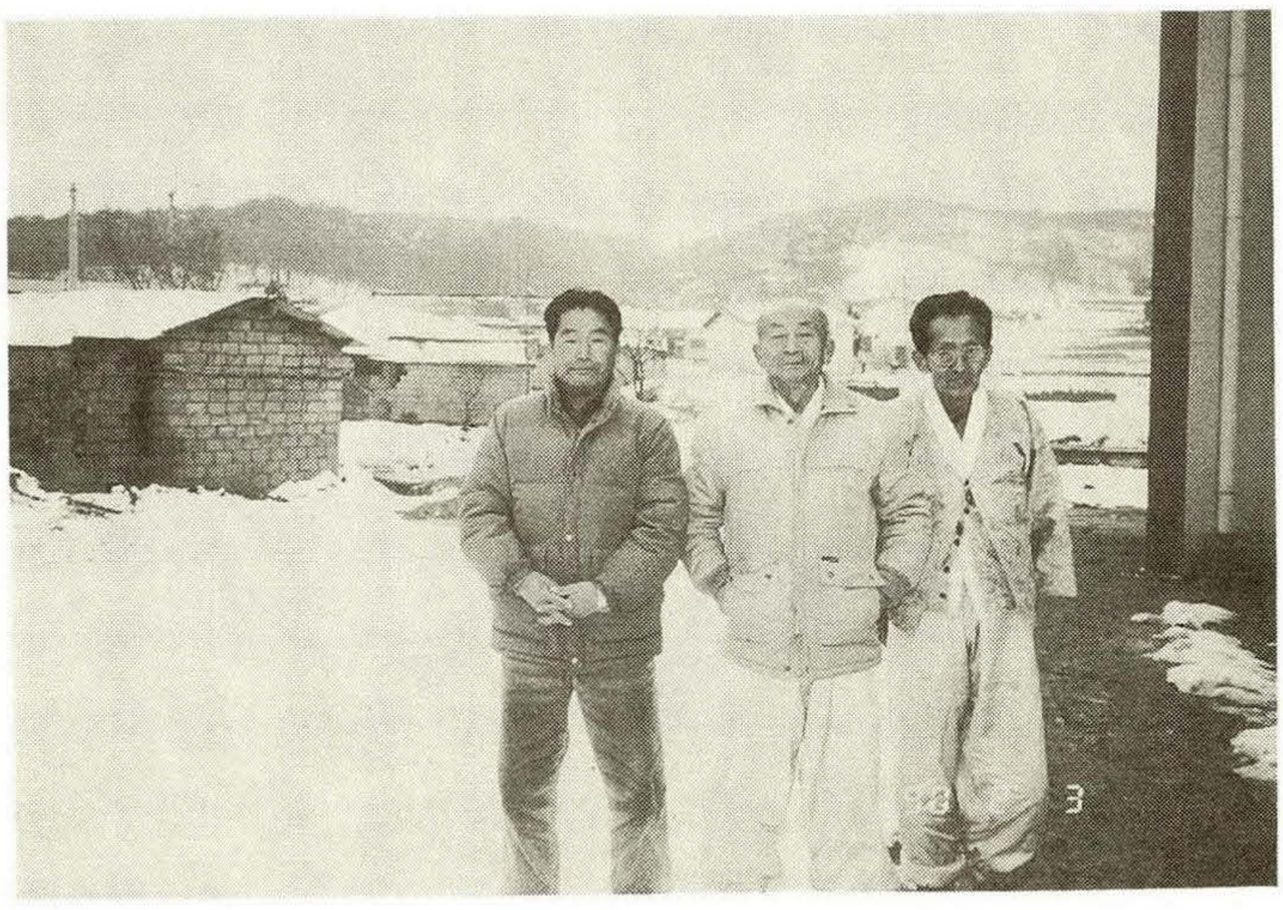




<사진 51>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녹음.
민병국(1916, 여흥민씨, 11代째거주)
민정식(1918, 광천읍출생, 8세에 중광 이주)
엄대섭(67세, 오른쪽 끝, 상황리 土民)
이정규(58세, 한산李씨, 중광에 5대째거주)
박광한(65세, 중광土民)
박동식(1938, 엄대섭옆, 상황리 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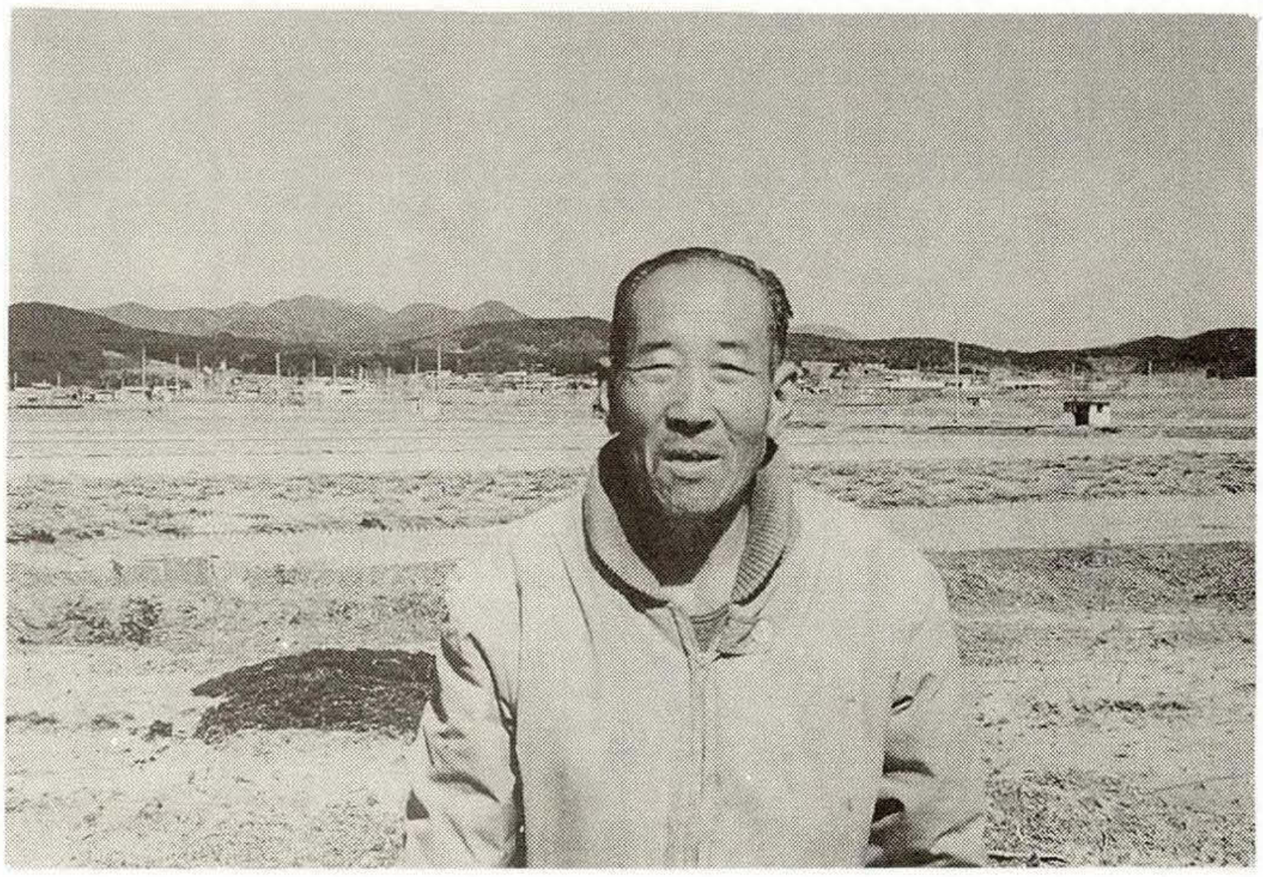
<사진 52> 은하면 화봉리 야동의 가창자인 정동의 (1914, 土民)댁에서 안내자 김교성(1922, 土民)과 함께



<사진 53> 은하면 대천리 대실마을에서.
김향경(1920, 土民)·김옥성(1921, 土民)·이문갑(1917, 土民)



<사진 54>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
전정환(71세, 장곡면 지정리 출생, 7세때 발현 이주)
전용성(82세, 발현土民, 중간)
방종석(59세, 里長, 왼쪽 낮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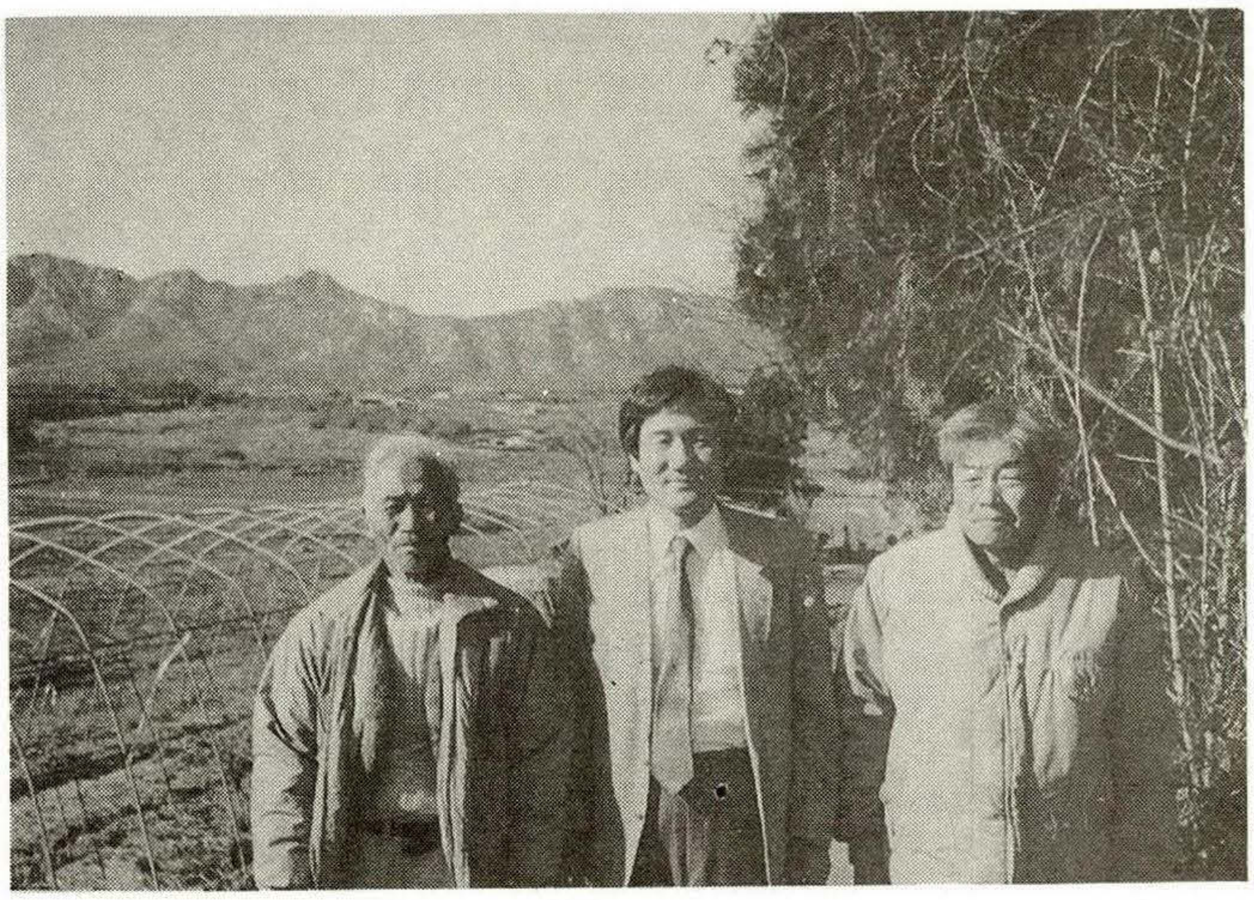
<사진 55>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에서
김창영(1916, 서부면 수룡동 출생, 18세에 교항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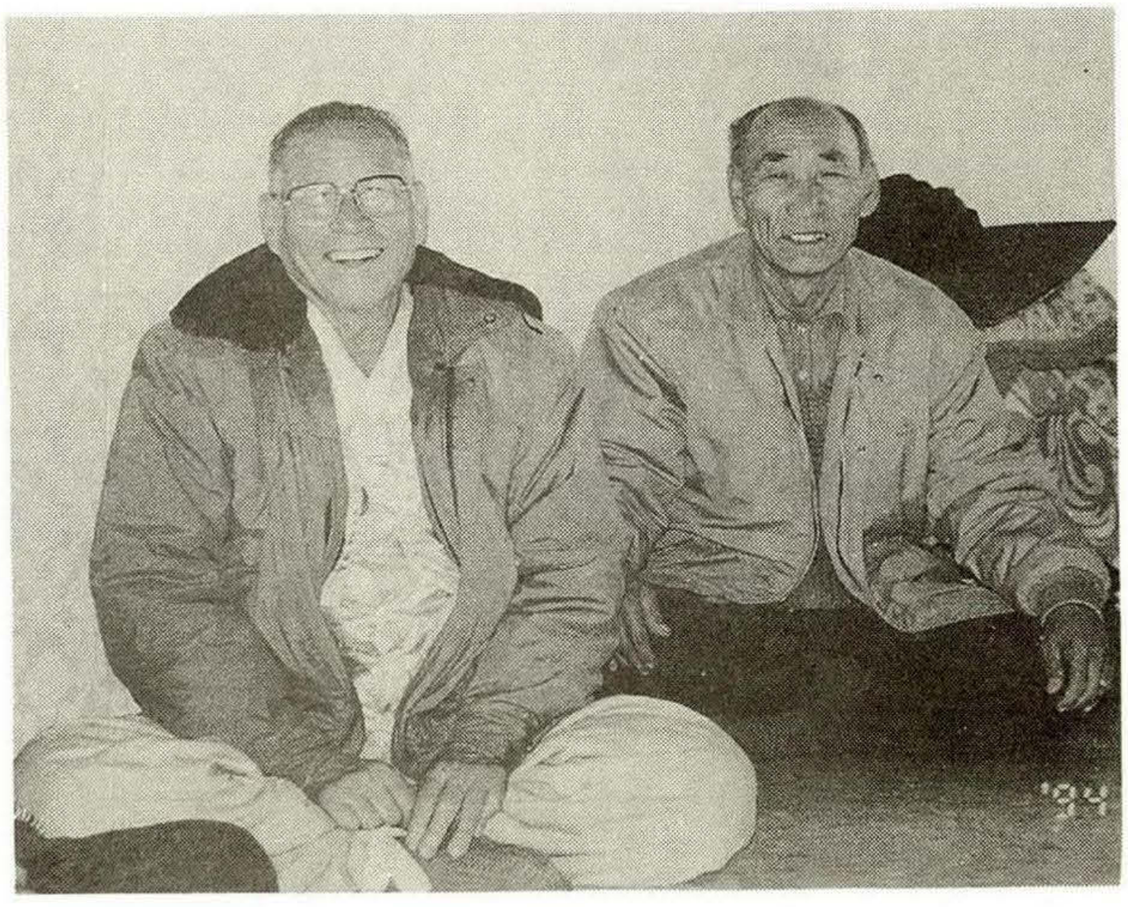
<사진 56> 홍동면 신기리·금당리 녹음
앞줄 왼쪽부터
조광식(1924·공주군 신평면 산정리 출생 신기리 반교 거주)
조용택(1917, 금당리土民)
조용철
정기석(꽹과리, 1922 신기리 土民)
이기춘(1918, 금당리土民)



<사진 57> 서부면 어사리
한동석(1919, 土民)
이상순
최창묵(1921, 土民)
김선목, 이연준(서부면 죽도 출생, 6세에 남당리 이주 1923) 등 녹음관계자들



<사진 58> 홍북면 대동리
윤봉성(80세, 호적이름은 윤기봉,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에서 1910 출생, 20代에 대동리 이주)
황규철 문화원장(중간)
임성구(67세, 장곡면 행정리에서 1923 출생, 25세에 대동리 이주. 나무쪽)



<사진 59> 금마면 신곡리 신곡 녹음
김재경(1922 · 土民)
김대곤(1919 · 土民)



<사진 60> 광천읍 운용리
이병후(67세) : 1924, 土民
김청일(52세) : <사진 64>의 김유돈의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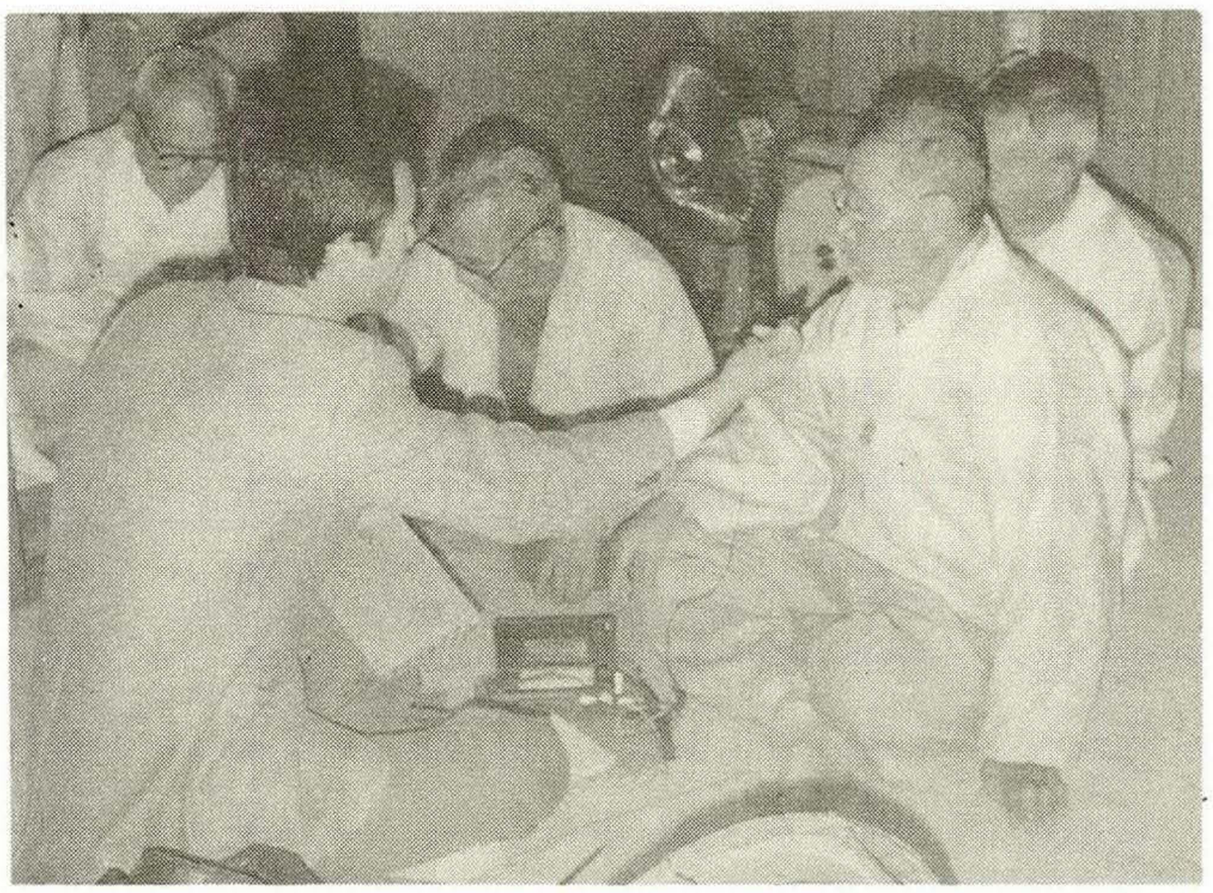
<사진 61> 금마면 덕정리 2차 방문 1994(강월 노인정 앞들에서)
이관수(1925 · 송강리)
박종서(1925 · 봉서리土民)
민재식(1913 · 인사리 인흥土民)
최병현(1921 · 월암리 월굴이 土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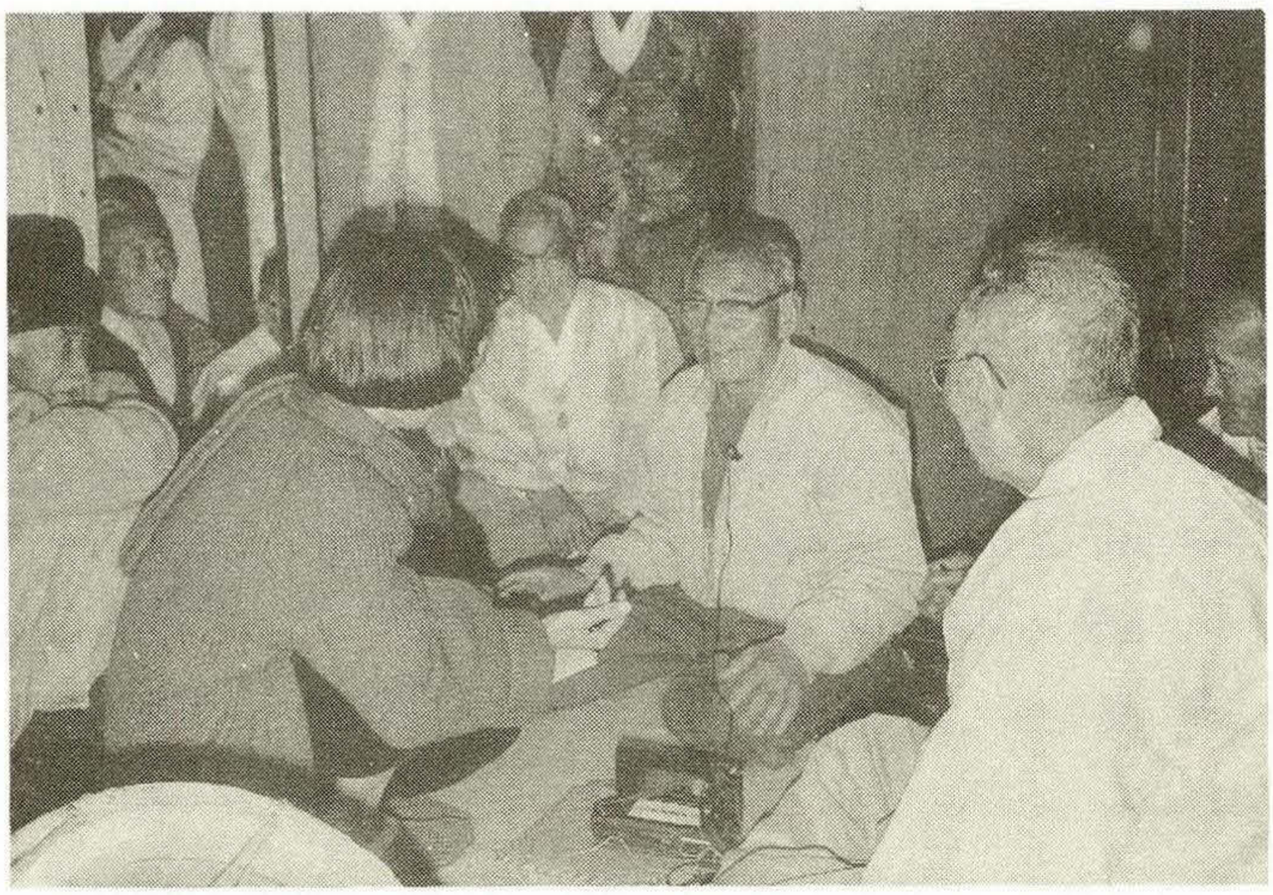
<사진 62> 금마면 덕정리 1차 방문(1989)
권영욱(65세) : 1925 · 덕정리 土民
민재식(77세) : 1913 · 인사리 인흥土民
이환성(65세) : 덕정리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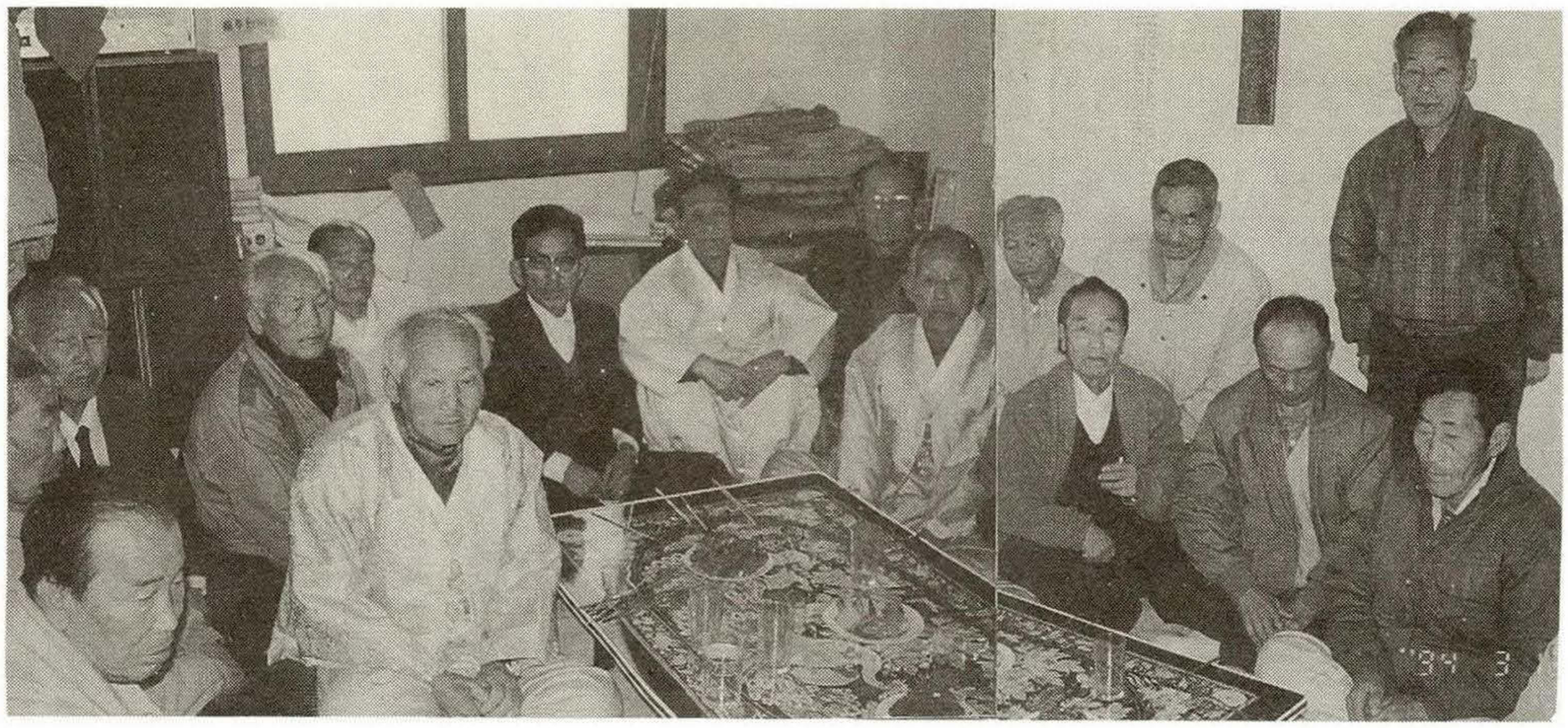
<사진 63> 투병중인 은하면 장곡리 전복환(마이크)댁에서. 유송리 김명복(중간)과 안내자



<사진 64> 광천읍 운용리 김유돈(1907)



<사진 65> 광천읍에서(1989. 11. 30)
황규덕(1916 · 홍동면 원천리 출생. 2년전에 광천읍 죽전리 이주)



<사진 66> 홍북면 대인리 녹음(1994. 3. 12)
임동순(1917 · 신사마을)
이을새(72세 · 내산)
이석희(71세 · 내산)
성한용, 조춘희(73세 · 산수리 출생)
단농산(75세 · 노은리 6代째 거주 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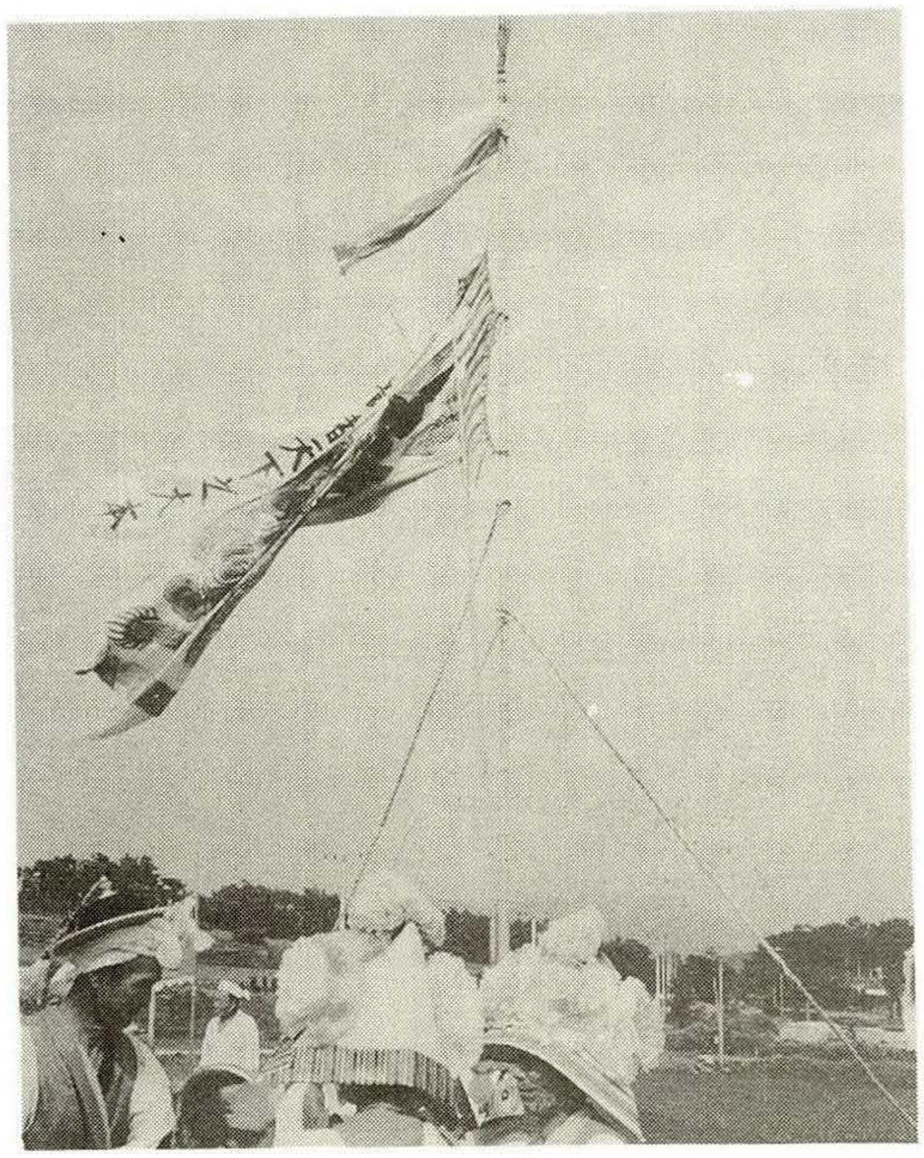
<사진 67>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에서
신시영(61세)… 대담중에 있는 분. 가정리土民임.



<사진 68> 결성농요마을 제1차 방문(1989. 11. 28)
최재설(앞줄왼쪽두번째, 구두 안신은 분) 1日면장 댁에서. 부인인 김정난(64세 · 은하면 출생, 20세에 시집옴)과 함께



<사진 69> 결성면 금곡리 최광순 댁에서
최용환 · 최용근 및 녹음관계자들



<사진 70> 결성농요마을 용대기



<사진 71> 결성면 성남리 녹음
정학재(오른쪽끝 검은 잠바, 70세때. 土民)
최유엽(75세때 · 성남리 신리마을土民)
장종환(72세때 · 금곡리 土民)



<사진 72> 결성농요조사(1990. 2. 2)
결성농협 2층에서
최양섭(오른쪽 한복차림, 1922, 성남리 土民) 등



<사진 73> 결성면 읍내리 노인정에서,
김학인(1918, 무량리)과 녹음 협조자 김청규 농협장



<사진 74> 결성농요 장원질소리에 대한 고증조사 장면 (1994. 2. 27)
오른쪽 끝이 최병호(67세 · 성남리에서 25세까지 살다가 금곡리 이주)



<사진 75> 결성농요 테입제작을 위한 가창자들과 녹음 관계자들.
1994. 2. 27 결성면사무소 앞에서 최광순 · 최양섭 · 최홍식 · 정홍남 · 최용권 · 최병호 · 장종환 · 강영신 등

(9) 거　　둠　　소　　리

(10) 길　　쌈　　노　　래

(11) 밭매는 노래, 나물캐는 노래

(9) 거둠소리 〈홍주 128~158 〉

충남지방은 한반도에서 가장 벼타작계통의 소리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고, 독특하며 잘 짜여진 벼바숨소리를 이룩해 놓은 고장이다.

홍성군에서는 거둠소리로 개상질소리를 비롯하여 죽가래질·나부질·벼베는 소리·말되는 소리·볏단 쌓는 소리 및 도리깨질 소리가 수집된다.

1) 벼바숨(벼바심,자리개질,잘개타작,개상질,벼타작)소리〈홍주 128~144〉

볏뭇을 자리개(조리개;볏단을 태질하기에 알맞도록 묶는 새끼줄이다.양끝을 머리땋듯이 땋아 쥐기 편하게 만듬)에 묶은 후, 옆으로 누여놓은 나무 절구통 위에다 12회 정도 둘러쳐서 낟알을 떨구는 작업〈사진 76 〉의 소리이다.

벼바숨소리는 충남에서도 홍성군을 비롯한 중서부지역이 왕성하다.

천안·연기·아산·금산군 등의 동부지역에선 찾기 어려워진다.

홍성군의 일반유형과 동류의 것이 예산·보령·부여·논산·청양군에도 전파되어 있다. 서천군과 공주군에도 있으나 가락이 조금 다르다. 서산군의 것은 유형을 달리한다. 김선균(1907.갈산면 상촌리 土民)은 '엣차'하지 '에야행-- "같이는 하지않는다는 것으로보아 상촌리의 것은 서산군의 유형과 유관하지나 않을까 여겨진다.

처음에 메김소리꾼이 타작마당에 들어서면서 "들왔나" 또는 "맸나" "어디야 웃" "나왔나" "왔나"하고 외치면 다른 타작꾼이 "어-이" 또는 "맸다" "에-"하며, 절구통을 사이에 두고 메김소리꾼과 마주서서 자기 어깨에 올린 볏뭇도 내려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린다.

장곡면 가송리〈136〉에서는 "에야호"를 시작하기 전에 두번 찍어 서로간에 호흡을 맞춘다.

게재한 악보중에서 〈138〉의 구조가 보다 典型的이다. 〈138〉은 8분의6박장단曲이다. (메)와 (받)이 기본적으로 각각 1마디씩이다가 함께 부르는 긴 후렴구 앞에서 (메)가 배로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긴후렴구가 곧 시작된다는 예고를 준다.

마지막 노랫말은 '나헤' 또는 '나간다' '나가' '나가세' 등으로 태질하고 난 볏뭇 동가리를 내던지면서 하는 소리이다. '나간다'型이 보다 많다.

"닭잡고 술먹세"(〈128~130,131Ⅱ,133,137,138,141〉및 홍동면 금당리 조용택 唱,구항면 내현리,광천읍 운용리)와 '오서산'(〈131Ⅰ,132,135,139〉및 장곡면 광성리·오성리), '참나무 개상'〈128~130,133,135~138,143〉이라는 용어가 메김구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도 바숨일을 마치면 닭잡아 20여명이 먹곤 했었다(장곡면 행정1구 송상현 대담).

〈표 14 〉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벼바숨소리는 솔라도레미의 솔선법에 속한다. 솔

또는 도퍕에서 종지한다. 솔을 주로 요성하되 도 또는 레를 요성하기도 한다.

장곡면 오성리 안산옥의 바숨소리〈131Ⅱ〉 가사例는 아래와 같다.

① (메) 아하호
(받) 아하호
(메) 오소산 상봉이
(받) 아하호
(메) 북소리 난다
(메&받) 헤헤야 허허호 허허허호,헤헤이 허요

② (메); 오소산 중턱이 / 에두러진 소나무

③ (메); 날과 같이도 / 홀로나 섰다.

광천읍 운용리의 이병후(메)·김청일(받)창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짧다.

(메)들왔나. (받)어기여차
(메) 에야호
(받) 에야호
(메) 닭잡고 술먹세
(메&받) 에야호 에헤야 어호 어호 에헤야 나간다

장곡면 광성리 김윤환(메)·송학기(받)의 唱도 전형적이질 못하다.

(받) 에야호
(메) ㅇ 어서 어서 넨겨치세
ㅇ 두고팡이 깨진다네
ㅇ 오성산 산상봉 난봉이 들어
〈단풍〉

2) 벼베는 소리〈홍주 66 〉

결성면의 강영신(1913.성호리 가곡출생.35세에 금곡리 원금곡 이주)은 산타령(수양산系)을 벼벨 때도 부른다고 했다.(상술. 논맴소리 참조)

3) 죽가래질·나부질 소리〈홍주 145~154 〉

1. 죽가래질(죽드림)소리〈145~147,149~154 〉란 나락의 알갱이와 함께 섞여 있는 쭉정이를 죽가래(나무가래)로 뒤김으로서 바람을 이용하여 쭉정이를 날려보낼 때 부르는 소리를 말한다. 희요(稀謠)이다. 서산군에서도 발견된다. 받음구가 "오헹" 또는 "어허두야", "헤하", "으하" 등인 멕받형식으로도 불

리우고 나부질꾼과 마주서서 죽가래로 "어이혀라 죽가래질"하며 퍼올리면 키〈사진 77 〉로 부치면서 "어허라 나비질"하고 교대로 唱하기도 한다〈149〉.

2. 나부질(나비질)이란 곡식에 섞인 검부러기나 티끌들을 날려보내기 위해 키로 나비 날개치듯 부쳐 바람을 내는 짓을 말한다. 역시 희요에 속한다. 서천군과 부여군에서도 발견된다.

4) 말되는 소리〈홍주 158 〉, 볏단 쌓는 소리 〈홍주 157 〉

〈158〉은 탈곡한 곡식을 섬이나 가마니에 말(斗)로 되어 담는 소리이다. 처음 하나는 세지않고 둘부터 세어 나간다. 말되는 사람이 "둘" 하면 섬을 잡고 있는 사람이 "두말"하고 복창한다. 열까지 세면 "또 한섬"하곤 새로이 세어나간다.

〈157〉은 볏단 쌓는 사람이 "하나로다"로 부터 "아홉 열이요"까지 세고나면 타작관(마름)이 앉아서 "열"하고 산을 뽑아 열개가 모이면 추녀끝에 달아놓기도 한다.

5) 도리깨질 소리〈홍주 155,156 〉

보리바심엔 주로 도리깨가 사용되었다. 장곡면 옥계리에서는 한편에 3,4인씩 양켠으로 마주서서 "으하" "으호"하며 교대로 도리깨를 내리쳤고 "윅"하면서 보리를 뒤집곤 했다(이사용 대담).

결성면 금곡리〈155〉와 서부면 광리〈156〉의 받음구는 "으헤"이다. 금곡리의 최광순(1926)은 도리깨질 조금하다가 탈곡기계가 나와 그만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멕여보진 않았다고 한다. 〈156〉의 메김구로는 "이리치구/저리치구/곤네쳐라/빨리" 등의 주로 작업관계 말들이 쓰이고 있다.

은하면 목현리 오정산唱과 서부면 남당리 박원제唱의 받음구도 "으헤"이다. 구항면 공리 김옥환은 죽드림이나 도리깨질할때 "오헤"한다. 장곡면 월계2구의 최주복은 "어허", 장곡면 오성리의 안산옥은 "어" "어이" 한다.

장곡면 죽전리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서서 내려칠 때 "어야디여"하기도 한다. 김항제의 메김구로는 "이리로 제키고/저러키 제키고/마구쳐라/곱쳐 쳐라/이렇기 치고/저렇기 치고/보리 잘떨어진다-"등이 있다.

〈사진 76~78 〉



〈사진 76〉 벼바숨소리장면
결성농요. 대학로 공연
(1991.10. 6)



〈사진 77〉 결성농요의 거둠
도구들
키 · 말 · 섬



〈사진 78〉 결성의 나무가래

(10) 길쌈노래〈홍주 159~168 〉

홍성군의 노동요 가운데서 주로 여성 노작요(勞作謠)에 속하는 것은 길쌈노래와 밭매는 노래,나물캐는 노래 및 맷돌노래이다.

길쌈노래란 대마,저마같은 섬유식물로 부터 삼을 삼아 실을 만들고 베틀로 베를 짜는 과정에서 불리워지는 노래를 일컫는다.

삼삼는 노래,물레노래 및 베틀노래가 있다.

1) 삼삼는 노래〈홍주 159~163 〉

강원도 열시장사類가 금마면〈159,160〉·서부면〈162〉·광천읍〈161〉에서 발견되었다. 강원도에서 열시(삼씨)를 보급한 관계로 삼을 삼게되었으니 여름 농사철, 몸은 피곤하고 날은 더워 쏟아지는 잠을 억제하고 삼을 삼노라면 열시장사가 원망스럽기까지 하여 "다죽어라 다죽어라 강원도 열시장사 다죽어라"하고 강원도아리랑 곡풍에 얹어 하소연 하기도 한다.

〈표 15 〉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159,160,162〉는 장3도 내지 완전4도에다 단3도를 얹는 선법에 속하고 〈161〉은 솔라도레미의 솔선법에 속한다.

모두 기음에서 3 또는 4도 윗음인 중간음에서 종지한다.

금마면 인산리의 민재식(1913.남.土民)은 옛날 노인네들이 삼삼으면서 잘 부른다고 아래의 가사를 강원도아리랑曲으로 불렀다.

ㅇ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강원도 열시장사는 다 죽거라
ㅇ 살어라 살어라 광단목 장을랑 살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163〉은 강원도 아리랑의 후렴으로 시작해서 메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진아라리 형태로 엮어져 있다. 삼삼을 때 부르는 노래의 예로 가창되었다.

첨부된 가사엔 물레질이나 디딜방아,콩밭매기에 관계되는 내용도 보인다.

출현음은 솔(라)도레(미)이며 솔 또는 도에서 종지한다〈표 16 〉.

〈홍주 164 〉는 잠이 소재가 되어있는 점에서는 삼삼는 노래에 분류시킬 수 있고 예전 며느리의 실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가락과 가사엮음은 자의적이다.

2) 물레노래〈홍주 165 〉

〈165〉의 가사는 물레질에 관한 전형적인 노랫말이나 선율은 자의적이다.

이성점(1916.갈산면 오두리출생.16세에 결성면 읍내리 교촌으로 시집옴〈사진 81

〉)은 〈165〉와 동류의 가사인 "물레야 물레야 어뱅뱅 돌어라,이웃집 김도령,좋구나, 찬이슬 맞는다"를 청춘가 곡풍으로 불렀다[9]. '좋구나'는 일반민요 청춘가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서부면 죽도의 홍아지도 "물레야 바쿠야 어서 빙빙 돌아라"를 청춘가 곡풍으로 唱했다.

3) 베틀노래〈홍주 166~168 〉

전형적인 베틀노래의 가사엔 천상에서 놀던 선녀가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옥난간에다 베틀을 차려놓고 베를 짠다는 서두로 부터 시작하여 베틀의 각 구조를 비유해서 길게 읊은 후, 그렇게 짠 베로 오라비나 서방님의 옷을 짓는 내용들이 많다. 〈166,167〉도 이 범주에다 넣을 수 있다.

〈167〉은 2음보격 1행이 선율 1마디를 이루며 그 1음보는 4자 구성이다. 단 매행마다 그 제1음보의 끝字는 길게 뻗고 제2음보 끝엔 쉼표가 들어간다.

〈168〉은 '오늘날도 하심심하여'로 시작하는 일반 흥민요(일반조)인 베틀가 가사에다 무녀인 최정연의 입심이 섞여 줄줄이 읊어져 있다.

서부면 죽도의 홍아지〈사진 84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의 신현정(1934.보령군 줄포면 마강리 출생.20세에 장자울로 시집옴), 장곡면 죽전리의 김항제,홍북면 신정리의 김세원·최인석·임현분(1934.女.土民)과 갈산면 동성리 강수로唱의 베틀가도 일반조이다.

홍북면 최화순(1914.여.노은리 출생.신정리로 시집감)唱은 "벼틀을 놓세, 벼틀을 놓세, 옥낭강에다 벼틀을 놓세. 낮이 짜면 일광단이라, 밤에 짜면 월광단이라.....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노라"하고 일반조 가사에 이어 "올려다 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각(자)장판. 인물병풍을 둘러치고 홍공단 이불을 쭉 펴놓고, 궁궁침 잣베개를 돋와 베고,금실금실이 잘도 논다."하고 범벅타령에 잘나오는 내용을 섞었다.

한상예(1934.광천읍 장고개 출생.17세에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로 시집옴)는 일반조로 "들창밖에 나리는 비,가신 임의 눈물이로다. 가신 곳을 알아야 우산 장화나 보내지,어햐아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 낮에짜면 일광단, 밤에 짜며는 월광단. 월광단 일광단 다 짜서 정든님 와이사쓰나 해 주지. 에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지누나"를 唱했다.

---

9). 이성점의 청춘가 가사엔 다음의 예도 있다.

ㅇ 앞강에 뜬 배는 임실러 갈 배고
뒷강에 뜬 배는, 좋다, 임실러 올 배라

ㅇ 산이나 높어서 못오시나
물이나 짚어서 (좋다) 못오시나

(11) 밭매는 노래, 나물캐는 노래 등.〈홍주 169~178 〉

1) 밭매는 노래로는 광찬밭類〈169,170〉, 얼카덩어리〈172〉와 사촌성님〈174~176〉등의 시집살이 노래 등등이 수집되었다.

신현정(1934.보령군 줄포면 마강리 출생.20세에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로 시집옴)의 광찬밭("길차고 광찬 밭에서 면화따는 이, 저처녀야. 면활랑 내따올께,내품안이나 정들여주오. 정들기 어렵지 않소,면화따기가 늦어가오")도 〈169,170〉과 마찬가지로 노래가락 곡풍이었다.

〈표 16 〉의 〈169〉를 보면 솔(라)도(레미솔`라`)가 출현음으로 음역이 1악티브를 넘으며 레퍂은 약간 낮게 소리내기도 한다.도퍂에서 종지한다.

사촌형님의 일반형은 〈176〉처럼 시집살이가 고추처럼 맵다는 내용이지만 〈174, 175〉의 창자들은 어려울 것 없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174〉의 '요강대야 발치놓고'이하는 범벅타령에 잘나오는 가사이다.

〈표 16 〉에서 〈174,175〉를 보면 솔(라)도레의 구성음에다 기음인 솔종지 이지만 〈174〉의 경우, 미라시도의 꺾는 남도계면조 선법이 가미된다.

〈171〉은 처음에 사촌성님 문구가 빠져있지만 크게는 같은 류형으로 볼 수 있다.

얼카덩어리에 대하여는 논맴소리 참조.

〈173〉은 최정연의 푸념소리이지만 그 내용중에서 한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다. 바래기(바라기,바랭이)는 밭이나 길가에 흔하게 나는 일년생 풀이다.

2). 주추캐는 처녀〈177〉는 창부타령곡풍의 일반 홍민요이지만 황해도 봉산 구월산밑에 '쥐치(주추)를 캐는 저처녀'가 소재로 되어있는 점에서 나물캘 때도 원용이 됨직하다. 음역이 넓고(솔라도레미솔`라`도`) 솔선법(평조선법)에 속한다. 기음인 솔과 그4도윗음인 도에서 요성하고 도퍂에서 종지한다〈표 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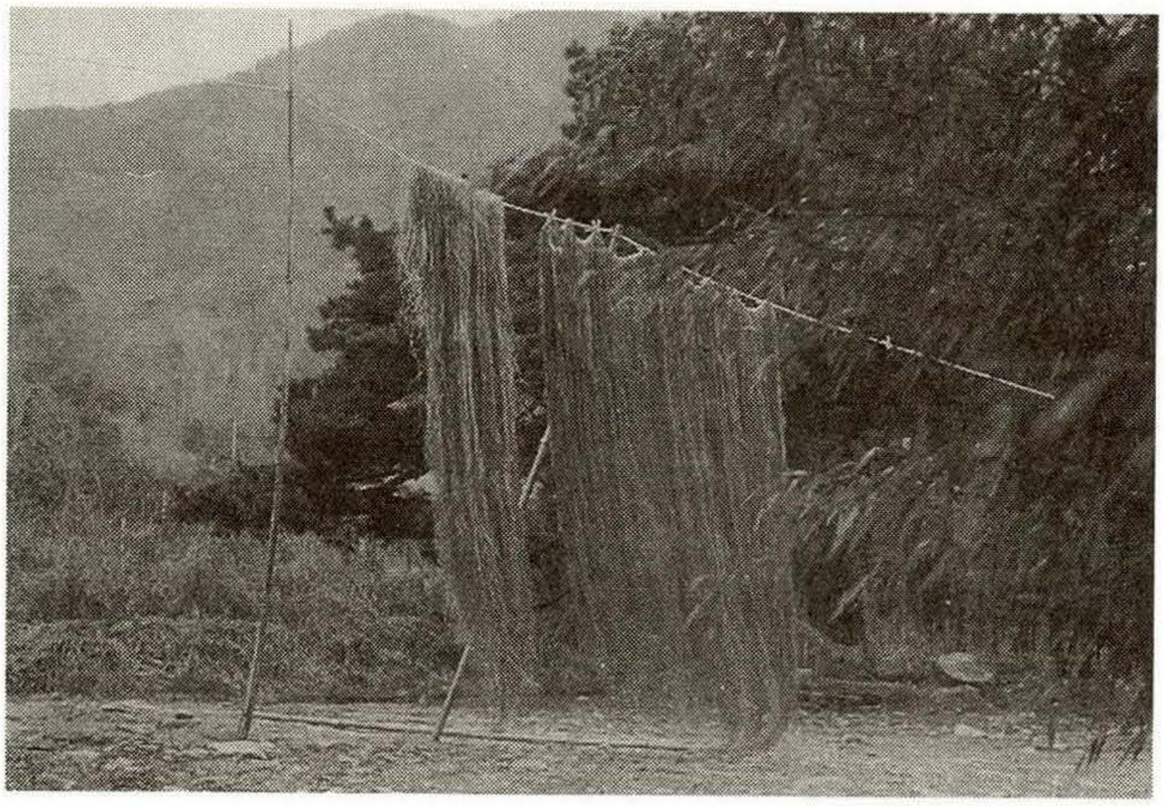
홍북면의 최화순(1914.女.土民)은 나물캐면서 부르는 노래로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하면서 일반 홍민요 도라지타령을 가창했다. 서부면의 홍아지는 "아장아장 걸어간다. 산들산들 부는 바람,아리랑타령으로 넘어간다"의 유행가곡풍을 불렀다.

또한 최정연의 나물뜯는 푸념은 이러하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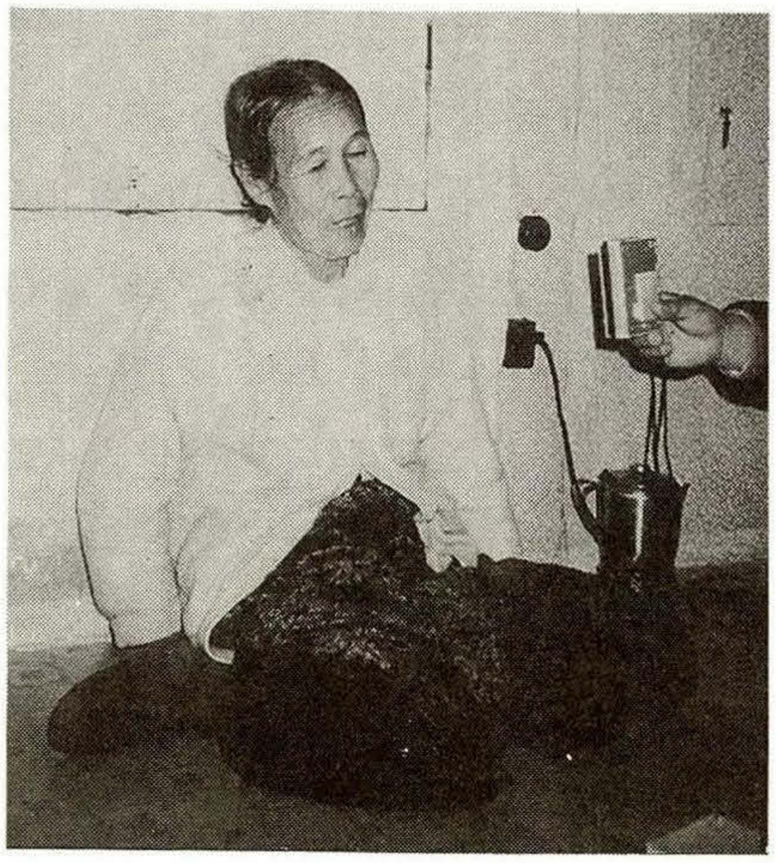
"친구들아 나물뜯으러 가자.
할머니 모시고 갈까,아줌마 모시고 갈까,형님 모시고 갈까.
아우들아 친구들아 너물 뜯으러 가자.
높은 산에 갈까,얕은 산에 갈까,모진 산 찾어갈까.
아치너물에 참치다 멱치 치구를 다 뜯어놓고,
반갓너물 뜯어 영감님을 봉창할까.

고사리 대사리 꺾자, 회핌 대침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어 초하루 보름에 삭망을 헐까,
할아버지 할머니 기구에도 써볼까.
정월 열나흘 달맞이너물 허여서 보름날도 먹어볼까.
야산에는 해발고사리,청산에는 먹고사리,앞질에는 회침이로다하.
일꾼에다 재울까,내머리 여울까,할머니 앞치마다 받어올까,
꼬부랑영감 등에다 지고 내려올까.
아서라 내가 보따리 양손에 들어매고,구러기다 매고 들어올까.
많이 뜯었다 큰소리허더니,고사리는 서너주먹도 못한바라.
고만저만 줏어생겨.
너물도 맛이 있고,고사리도 맛이 있지만,
무슨 나물이든지 입맛당겨 먹으면,식수에도 명복이 따러간다.
열나흘날 기다렸다 대보름날,천만덕을 입어보자"

〈178〉은 맷돌질에 관한 최정연의 푸념소리이다.



〈사진 79〉 삼을 말리는 정경
-장곡면 참뱅이 마을에서



〈사진 80〉 은하면 대천리
월실자택에서
손천순(1918.서부면 상황리
출생.18세에 월실로 시집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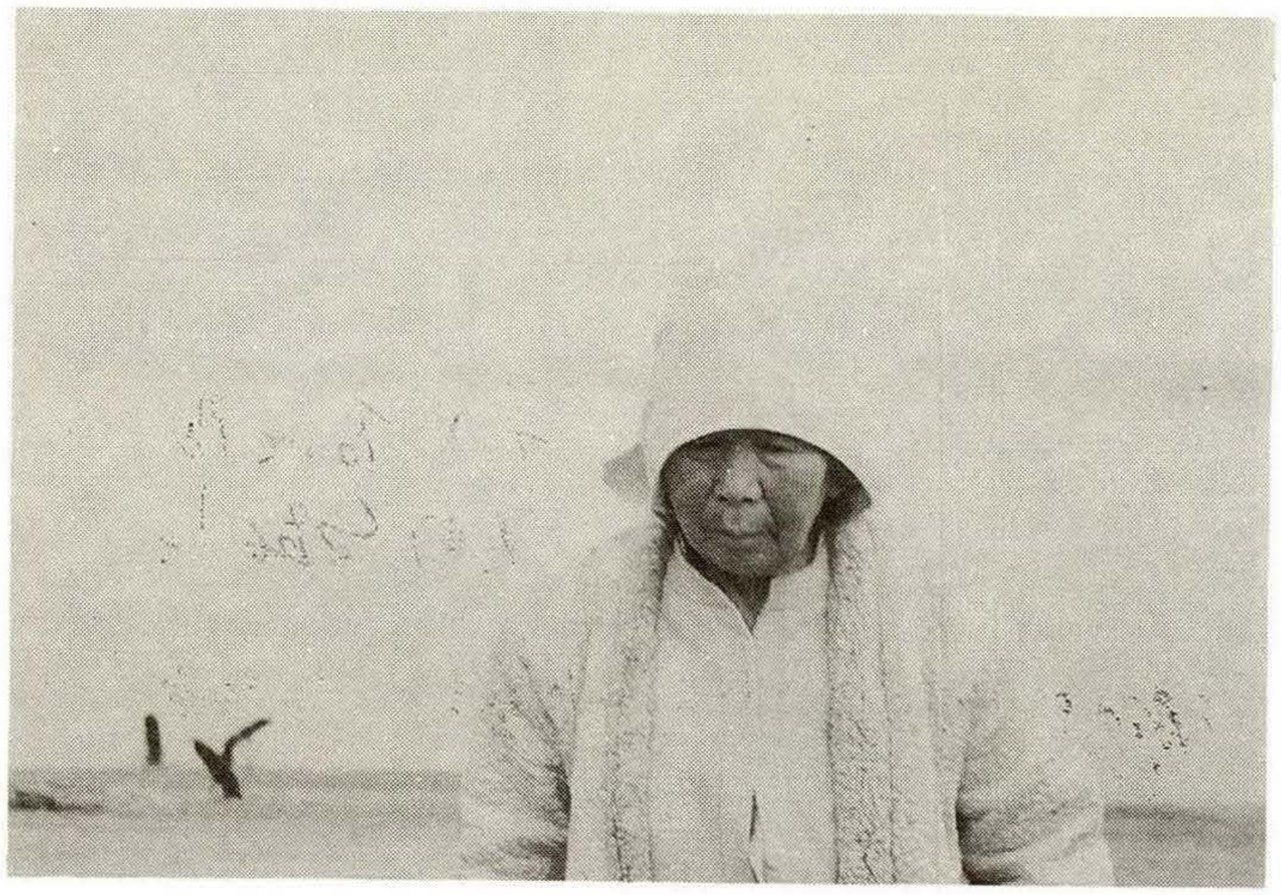
〈사진 81〉 결성면 읍내리 교촌의 김만균가족.
이성점(1916. 갈산면 오두리 출생. 16세에 시집옴. 중간)과 김만균댁에 가보로 내려오는 양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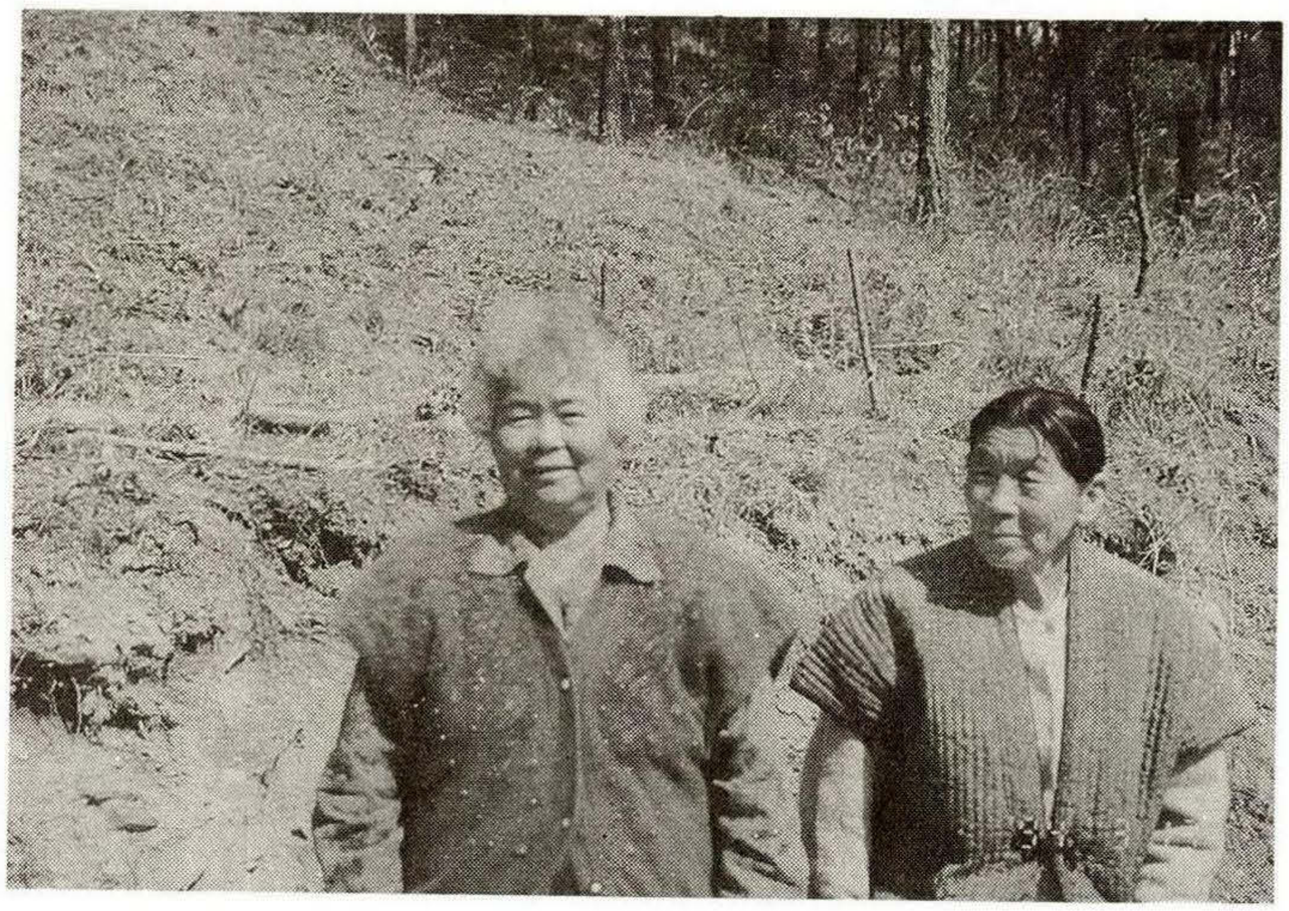
〈사진 82〉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최광배 모친(마이크 꽂은 분. 1932. 土民)



〈사진 83〉 광천읍 독배당산굿에서
마을 소지를 올리는 최정연(1923. 부여군 내산면 출생. 1950년전후부터 광천읍거주)



〈사진 84〉 서부면 죽도에서
1990년 2월.
홍아지(80세. 보령군 오천면 출생. 6세에 홍성군 서부면 안흥동이주. 13세에 죽도에 민며느리로 들어옴)



〈사진 85〉 장곡면 옥계리 녹음
전차순(1924. 청양군 목면 대평리 출생. 15세에 대평리 웃동네로 동네 결혼. 38세에 옥계 이주. 왼쪽 키큰분)
김옥녀(1917. 황해도 곡산 출생. 4세에 강원도 이천 이주. 19세에 춘천으로 시집감. 6·25때 옥계리로 피난옴)



〈사진 86〉 장곡면 옥계리 山에서
김임순(1912. 서산군 해미면 홍천리 출생. 18세에 옥계로 시집옴)
이종순(1933. 청양군 청양읍 장성리 출생. 19세에 옥계로 시집옴)
기타.



〈사진 87〉 갈산면 가곡리 동막에서
다리헤기 놀이를 재현 중인 이부숙(1936. 갈산면 신안리 출생. 21세에 시집옴)과 김연숙(1947.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1구 출생. 21세에 시집옴)



〈사진 87②〉 서북면 광리 출토 마곡석. 황성창 제공

(12) 두렁가래질, 물품는 소리
(13) 터 다 짐 소 리
(14) 나 무 꾼 소 리
(15) 보 부 상 노 래
(16) 어 로 요
(17) 상부(喪夫)소리

(12) 두렁 가래질, 물품는 소리

1). 두렁 가래질〈홍주 3I, 179~185 〉

예전에는 논두렁 가래질을 잘해야 농사 잘짓는다고 했다. 두더지 구멍같은 것을 가래질로 메꾸는 것을 '드렁맨다'라고 한다.

가래질이란 〈사진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래날 양쪽으로 긴줄을 끼우고 가래자루 잡은 사람이 가운데 서서 소리를 멕여가며 흙을 떠올리면 양쪽에 줄잡은 두 사람은 함께 소리를 받으면서 줄을 잡아당기는 작업을 말한다.

가랫줄을 가지런히 잡아당겨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하는 구령대신에 노래를 부른다. 따라서 표준형은 (메)와(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받음구로는 결성농요의 "어나항 처-헌 가래허"를 비롯하여 "에낭넝청 가래호호"〈180〉, "에이영차 가래호"〈185〉 등이 있다. 주정순〈179②〉은 "에이여라 가래호"라고 하며 홍동면 운월리 운곡에서는 '넝청'을 안넣는다고 강조한다.

봉분만들기 위해 떼뜨는 가래질의 경우도 어낭청 가래호〈223 II〉,어낭청청 가래호〈224 III〉,에나앙처헌 가래호호〈226〉,어낭청청 가래야하〈252〉로 메김가사에서 차이가 날 뿐, 별다를 것이 없다.

〈180〉에서 김용세는 가래호'호' 라고 끝을 올리며 강하게 끊고, 노래를 마치면서 말하는 투로 "어 놓고- 한잔먹고"라고 하는데 이는 그의 습관이다.

〈표 17 〉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솔을 줏대음으로 하는 솔(라)도레미 구조가 많다. 〈180,252〉의 경우는 미라시도의 꺾는 기능을 나타내며 〈226〉에서는 미라시도 구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줏대음에서 종지하는 경향(4도 윗음에서 퇴성하는 경우 등을 포함)이 있다.

2). 물품는 소리

논에 물을 대는 옛 농구에는 고리두레(맞두레)·지릅두레(용두레)·무자새(무자위) 등이 있다.

결성면 금곡리에서는 예전에 지릅두레를 사용했었는데 소리라곤 수를 셀 뿐이었다.

갈산면 상촌리의 김선균(1907.土民)은 맞두레질하면서 "엇차", 용두레질 때는 "싯차"라고 소리내곤 했다.

장곡면 옥계리에서는 별로 물을 품지않았다고 한다(이태훈 대담).

(13)터다짐 소리〈홍주 186~199 〉

묘터를 다지는 회다지소리는 뒤에 별도로 다루고 이곳에서는 못뚝이나 집터다짐 및 말박는 소리에 언급하고져 한다.

한반도의 터다짐소리는 그 받음구에 따라 차類,상사류,지경류,지점류,지정류,망깨류,달고류 및 기타로 분류된다.

차류와 망깨류는 경상도가 본고장이고, 상사류는 전라남북도, 지경류는 경기도, 지점류는 충북이 그 중심지이다.

홍성군의 터다짐소리로는 차류〈186~191〉 지점류〈192~197〉 상사류〈198〉 및 기타〈199〉가 수집된다.이렇듯 터다짐소리가 다양한 것은 홍성군 민요 내지 문화의 복합성을 의미한다. 그 받음구와 녹음마을은 아래와 같다.

〈186,189〉결성면 성남·금곡리 ; 어이여(허)라 차하
〈187,190〉홍북면 대인리 매산(서귀봉) ; 어이허로 차하.(어이허라 차하)
〈188〉장곡면 가송리 ; 어이여러 차
〈191〉장곡면 월계2구 ; 위여 차
- ㅇ 결성면 성호리(정철규) ; 어기여 차
  (메김구例는 "버번쩍 들어라" "코공콩 놓아라")
- ㅇ 서부면 남당리(이연준) ; 어기여 차
- ㅇ 은하면 대천리(김향경) ; 어이여 차
- ㅇ 홍북면 노은리(단농산) ; 어이여라 차

〈192〉금마면 봉서리 ; 에혀라 지짐이호
〈193〉홍동면 운월리 ; 에이여라 지젬이호
〈194〉결성면 형산리 ; 오하 지점이야
〈195〉홍북면 대동리 ; 어이혀라 지점이호
〈196〉결성면 교항리 ; 어하 지점이야
〈197〉갈산면 가곡리 ; 어여라 지점이호
- ㅇ 장곡면 오성리(안산옥) ; 어이여라 지점이요
- ㅇ 금마면 인산리(민재식) ; 어이혀라 지점이호
  (메김구例는 "봉서산 줄기가 줄기줄기 내려와서" "이터가 떨어졌네")
- ㅇ 홍동면 금당리(조용택) ; 에야라 지점이호
- ㅇ 홍북면 대인리 신사(임동순) ; 에이여라 지점이호
  (메김구例는 "이지점을 다지며는, 어느시절에 상량허나")

〈198〉금마면 신곡리 여술(김제면,맹덕호) ; 어럴럴럴 상사디요

〈199〉은하면 목현리 ; 에이또 마개

〈192〉의 최병현(금마면 월암리 월굴이 土民.1921)唱 별첨 메김구에는 '봉서산에, 임존성 안에' 라고하여 역사학자들간에 그 위치에 관하여 설이 나누이고 있는 임존

성을 들먹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병현은 20여세에 동네에서 지점소리를 멕였으며, 3백근되는 돌에 12가닥 동아줄을 매고 1가닥에 2,3명이 붙잡았었다.월굴이마을의 메김구는 길어서 일반형에서 벗어난다.

〈199〉의 오정산은 일본가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한다. 금산군 부리면에서 수집한 저수지 말박는 소리의 받음구인 "엥코나 쫀다"와 함께 기타류의 외래형에 속한다.

지점류와 상사류는 (메)와(받)이 3분박4박 1마디씩임이 일반형이다. 차류는 내재 6박 1마디씩인 경우가 많다.

구성음관계는 〈표 18 〉참조.

(14) 나무꾼소리〈홍주 200~209 〉

지게를 지고 산길을 걸으면서 지게막대기 장단을 쳐가며 잘 흥얼거리는 소리로 노랫가락,청춘가,창부타령,아리랑 류가 애창됨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밖에 지역에 따라서는 어산영(경상도),육자배기(전라도),놀노리소리(중·서북부 경기도)가 많이 불리운다.

홍성군에서는 일반例 이외에 나무내리는 소리〈201〉 동풍가〈202〉 일반쪼의 양산도(광천읍 매현의 황후성),자진산타령〈홍주 83 〉 등이 나왔다. 초군들의 지게상여놀이 노래도 수집된다(장곡면 광성리〈홍주 209〉. 또한 결성농요편의 지대기소리〈홍주 5 〉 참조).

1). 광천 독배 等

〈200〉은 청춘가 곡풍이지만 '광천 독배'를 소재로 한, 가사내용이 향토적이다.

광천읍 옹암리 독배는 50여년전만 하더라도 충남에서 가장 큰 광천시장의 관문인 포구였다. "광천 독배로 시집못간 요내팔자를 누가아나"〈홍주 307〉라든지 "광천독배 술맛은 좋아도,건달놈 등살에 술을 못먹겠네"〈200〉 또는 김항제의 "광천독배는 살기는 좋아도,왜놈의 등살로 못살갔구나"[10] 에서 옛 포구의 번영을 읽을 수 있다. 지금도 남아있는 새우젓 저장굴과 새우젓가게와 함께. '광천 독배' 민요가 이웃 보령군에서도 발견된다.

〈표 1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은 음역이 넓고 솔선법이며 기음종지한다. 기음과 그 4도윗음을 요성하는 경향이다.

전용성(구항면 내현리 발현)은 지게목발치면서 "실날같은 몸에다가,태산같은 짐을 지고,어허청청 잘도 간다"라고 소리하곤 했다.

2). 나무내리는 소리

〈201〉은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사람들이 오서산으로 떼지어 나무하러 갔다가 나무내리면서 부르던 소리이다. 받음구는 "오호 호호,어허이 어허 호아"이다. 장자울의 행상소리(받음구; "아아 아하,에 헤이이 어하")와 메김선율이 유사하나 받는소리에 있어서 전자의 선율은 상행종지함에 비해 후자의 그것은 하행종지하는 등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메)와(받)이 3분박4박 2마디씩이며 메김구는 2음보격 2행이다.

---

10). 김항제(1917.장곡면 죽전리)의 광천독배는 청춘가 곡풍으로 가창되었으며 다음의 가사로 이어졌다.

ㅇ 우리가 살며는 몇십백년 사느냐
살아생전에 에헤 나도나 〈놉〉시다

구성음을 〈표 18 〉에서 보면

미(솔)라도레 이되 미가 약간 올려 소리내지기도 하고,종지음의 끝을 올리되 솔音에 못미치곤 한다.청양군에서도 관련곡이 발견된다.

장곡면 가송리 사람들도 예전에 오서산으로 나무하러 수십명씩 떼지어 다녔는데, 별노래는 없다고 했다(우덕명:1919.남.土民).

3). 동풍가

동풍가〈202〉는 슬슬 東風에 궂은비 온다는 첫머리말에 따라 붙여진 곡명으로, 흥겨운 곡이다. 강원도 고성방면(최회각唱)이나 전북 옥구군(고판덕唱),제주도 성읍(조을선唱) 등지에서도 녹음된다. 홍성읍의 윤종필唱〈202〉은 3분박4박장단에 출현음이 (레)미솔라도`레`미` 이다. 후렴구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육지에서는 '어럼마 둥개(두리)둥둥'형이 살아있는데 비해 제주도의 조을선 창에선 '내동동'으로 대체되었다.

〈202〉: 에헤 여허 에헤 야하/어러엄마 두리둥 두웅/
〈청〉사 〈홍〉록에 봄바람
최회각 : 에헤 허에 에헤헤 야/어러엄마 둥개두웅 두우웅/
니가 노더어헌 사랑가
고판덕 : 허어 어어이여어 어허어유오/〈어럼〉마 두리둥 두웅둥/
니가나 노던데 서어랑
조을선 : 에헤에 에헤헹이 에--요옹/사랑아 내동동/
내사랑만 가노라

4). 지게상여 소리

〈209〉는 장곡면 광성리에서 여럿이 나무하러갈 때 지게를 꺼물쳐가지고 양쪽에 둘씩 넷이 메고 상여놀이를 하면서 올라가는 소리이다. 요령잡이가 처음에 "어허이 어하"하면 상두꾼들이 "어허이 어허호"라고 받는다.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나무꾼들의 지게상여놀이는 강원도지역 민속경연에서 종종 출품되고 있다.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의 김창영은 지게상여놀이를 못해보았다고 했다.

5). 아리랑

아리랑類에는 강원도아리랑을 비롯하여 자진아라리,엮음아리랑,서울 아리랑,진도아리랑,밀양아리랑,전문 藝人들의 긴아리랑,아라성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강원도아리랑은 원래 나무꾼소리로서 강원도 민중의 바탕선율이며, 가장 오래된 아리랑으로 사료된다. 다른 도에까지 깊숙이 널리 전파되어 있다.

서울아리랑은 나운규의 영화아리랑이 1926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제가로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지금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은 영화아리랑에 자극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진도아리랑은 섬진강 유역의 장원질소리·논맴소리인 산아지(자진산타령)를 기초로 하여 후렴만 바꾼 것이다.

자진아라리는 함경남도 원산이나 강원도 양양·명주군 방면에서 모심는 소리로 수집된다. 5박[11] 엇모리장단의 경쾌한 리듬으로 인하여 또 한갈래가 덜커덩 찧는 방아나 영감아 땡감아 등 재미난 민요가사들에 얹쳐 전국적으로 널리 스며들어가 있다.

아라성은 강원도아리랑의 영향을 받은,충북 중원군의 모심는 소리이다.

엮음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지방의 소리꾼들이 강원도아리랑을 기본으로 하여 배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긴아리랑은 경기도지역 예인들 사이에서 불리워왔다.

홍성군의 가창자들은 강원도아리랑류〈204~206〉, 엮음아리랑〈207①②〉과 자진아라리〈208,210〉 및 서울아리랑을 부르는 편이되 서울아리랑을 누구나 다 부를 줄 아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장곡면 옥계리의 메김소리꾼인 이태훈(1921.土民)의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라리요,아리랑 고개로 날만넨겨주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나네"하고 서울아리랑의 전형적인 가사이되 곡은 자의적이었다.

안산옥(1919.장곡면 오성리)은 밀양아리랑과 서울아리랑을 애호한다.

윤봉성(홍북면 대동리)은 "눈이 올랴나 비가 올랴나,억수장마 질려나, 마수산 검은 구름이 다 모여든(다)"를 강원도아리랑곡으로 가창했다.김명복(은하면 유송리)唱도 강원도아리랑에 속했다.

이병후·김청일(광천읍 운용리),김태순·이사용(장곡면 옥계리), 김재경 (장곡면 신곡리),김향경(은하면 대천리) 및 최광순(결성면 금곡리)은 아리랑 중에서 잘 부르는 것으로 서울아리랑을 唱했다. 홍아지(1911.女.서부면)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고개는 열두나 고개, 마즈막 고개는 생이별 고개"를 서울아리랑 곡풍으로 불렀다.

---

11). 〈홍주 2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하게 5박이라기 보다는 한장단의 후반이 전반보다 약간 짧은 경향이다.

(15)보부상 노래〈홍주 211 〉

봇짐장사(褓商)와 등짐장사(負商)를 의미하는 보부상(褓負商)들이 지역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전국의 시장 경제를 장악하게된 시기는 대체로 고려말이었다. 이성계가 고려말에 함경만호(萬戶)로 여진족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었을 때 등짐장수 백달원(白達元)이 생명을 구해주었던 일이 있었는데 태조로 등극한 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각 고을에 임방(任房)을 설치하고 시장의 관리권과 주요물자의 전매권을 줌으로써 보부상들이 시장운영권을 얻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와서, 특히 임자·병자난을 비롯하여 국가의 위급시에 전국 각지에서 양식이나 군자금을 조달하여 구국충성을 바친 것은 보부상의 역사적 의의로 꼽힌다.

충남에는 서쪽으로 홍성·결성·광천·청양·대흥(예산군)·주포(보령군)의 6군 商務右社와 동북쪽으로 예산·덕산 등의 예덕 상무우사 및 남쪽으로 부여·홍산·임천·한산·서천·남포·비인·정산(定山)의 모시상품이 주가 되는 저산(苧産)8읍 상무우사가 조직되어 있었다.

〈211〉은 결성면 성호리 보부상들이 4,50명 줄을 지어 고개를 넘으며 불렀다는 노래이다. 성호리 원성호는 논이 적으나 포구였던 관계로 해물이 풍부하여 마을사람들이 조기,칼치 등을 지고 팔러다녔다. 가창자인 정철규의 부친도 보부상이었으므로 따라다니며 듣고 배운 것이다. 〈211〉은 육자배기 곡풍이며 남도계면조 선법에 속한다.〈표 18 〉참조

홍성군에서는 부여·서천방면의 보부상노래인 계화타령(필자의 「부여의 민요」 참조)이 발견되질 않았다.

성호리 보부상들은 다음과 같은 장돌뱅이노래를 부르지않았다고 한다.

ㅇ 짚신에 감발지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짚신차고 이고지고
이장 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 만나 반기며
이소식 저소식 묻고 듣고

ㅇ 목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비가오나 눈이오나 외쳐가며
들또부 장사하고 해질무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날 저장에서 다시 만나세

- 은하면 배선직 제공.(광천읍에서 얻었다고 함) -

성호리의 김형안은 홍성40리,광천30리,보령70리,청양70리,갈산30리,예산50리,덕산의 안내場 70리 길을 쌀 1가마니 지고 넘나들었다. 점심먹고 출발하여 수덕고개에서 자고 날이 새는 대로 넘어가서 덕산 안내場을 보곤 했었다.

바다가 가까운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에도 보부상이 있었다. 해미50리를 갈려면 육로로 갈산20리를 거쳐 갈 수 있었지만 태안을 갈려면 배를 탔다.

중광사람들은 예전에, 20리 거리인 결성면 용호리場을 보았었는데 해방뒤에 갈산장이 생긴 후로는 지금까지 주로 갈산장을 다닌다.

장곡면 옥계1구 반계(磻溪:등대실)마을 보부상들은 험한 산(차령산맥의 지맥이 장곡에 있음)을 피하여, 결성·홍성 방면보다는 광시·청양이 생활권이라 광시·청양쪽으로 다녔다.(김갑현 대담)[12]

이 지역의 옛길은 아래와 같다.

ㅇ 장곡면 광성리-장곡면 오성리-범티고개-광천읍

ㅇ 청양군 화성(化城)-공주군 신풍-공주

ㅇ 예산군 광시-대흥-예산읍-합덕-평택-서울

옥계리는 청양 보부상과 내왕이 많았고 부여와는 별 내왕이 없었다고 이성범(1919.반계土民.이율곡의 외손)은 말한다.

---

12) 장곡면이 1909년에 통합되기 이전엔 오사면, 성지면, 유곡면으로 나뉘어 있었다. 12등급의 면적부(호적부에 해당)를 보면 보부상 기록이 있다.(장곡면 도산리 거주. 김갑현 대담)

(16)어로요〈홍주 212~218 〉

서해안에 면접해 있는 결성면과 서부면에서 봉기타령(배치기), 고기 퍼는 소리, 노젓는 소리,산세는소리 등의 어로요가 수집되었다.

1). 봉기타령〈홍주 212~214 〉

이는 귀향길의 고깃배가 만선의 표시로 봉旗를 꼽고 봉기위에는 연화(蓮花)를 받아 만선의 기쁨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나가는 상고선(商船)으로 하여금 거래할 물량이 있음을 알게끔 배위에서 풍물을 치며 흥겹게 부르던 풍어노래이다. 배치기,에밀양,이물양,봉죽 또는 봉주타령이라고도 한다.

만선어귀에서는 만선귀향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뭍에 올라와서는 마을사람들과 어울어져 한바탕 풍어·풍년을 구가하는 점이 흡사 농요의 장원질소리와 같다.

봉기타령의 본고장은 서해안 중에서도 황해도 연안과 경기만 쪽이다.신나는 노래인 고로 널리 전파되어 충남 앞바다는 물론이고 목포나 진도군의 조도 및 소흑산도에 까지 전해져 있다.

〈212〉의 가사를 통해 결성면 성호리 뱃사람들이 연평바다에 고기잡으러 가면서 북치고 나서던 정경을 그릴 수 있다. 〈212〉와 결성면 성남리의 〈213〉에 모두 우리배 '유덕船'이 장원(滿船)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보아 이지역 어부들이 많이 타던 배가 유덕선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상순(1926.서부면 어사리)창의 배치기 가사는 아래例와 같다.

ㅇ 배다리 아주머니 신수가 좋아,
술동이 밥동이 머리우 이고서 갯발머리에 궁둥춤춘다
에~ 어허어 어허어 어허요
ㅇ 칠산바다 들어오는 (조기),
우리배 방자로 다둘러 내실다
에~ 어허어 어허어 어허요
ㅇ 에~ 굿마루 다꺼라,
굿마루 다시다
에~ 어허어 어허어 어허요

〈212~214〉는 3분박4박장단곡에 속한다. 독창 2마디에 이어 다함께 후렴 3마디를 부르고 나면 노래없이 풍물 2장단이 들어감이 보통이다.

〈표 18 〉에서 보면 최양섭 창〈213〉이 5도+단3도 구성에 중간음을 강하게 떠는

서도소리에 보다 가깝다.

2). 고기 퍼는 소리〈홍주 215 I ,216 〉

그물속의 고기를 가래(바디)로 퍼담을 때 부르는 소리에는 1.가래(동·남·서해안 일부) 2.바디(인천 앞바다) 3.사리(경남 고성) 4.에라소(함경도) 5.어이야 받어라(홍성군,부안군,추자도) 6.술배(소흑산도,서천군) 7.어이여자차(당진·보령·옥구군) 등이 있다. 그중에서 가래류가 가장 보편적이다.

서해안에는 1·2·5·6·7의 예가 있고 동해안에는 1·4 , 남해안에는 1·3·5·6의 예가 있다.

홍성군의 결성면〈215 I : "어이야 받어라"〉과 서부면〈216 : "(아나) 받어라"〉에서는 받어라類가 나왔다.

받어라 계통의 받음구를 일노래로 부르는 경우를 서천군·부여군의 노적소리와 부안군·완도군 일부·추자도의 고기퍼담거나 흙파낼 때 부르는 소리에서 볼 수 있다.

3). 노젓는 소리〈홍주 217 〉

오늘날엔 작은 고깃배들도 발동기를 부착하여 노를 저을 필요가 없지만, 예전의 배들은 모두 노를 젓도록 되어있어 어로요 가운데서도 가장 다양하게 발달한 곡목이 바로 노젓는 소리이다.

제주도의 해녀노래, 함경남도의 지어소리 등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노젓는 작업임에는 다름이 없어서 그 받음구들은 어이야디여/어이야자차/이여싸/에헤(야)/어기여라차 에서와 같이,거의가 노를 젓기위해 힘을 내는 의성어적인 것임에 공통된다.

서부면 어사리의 〈217〉은 중부 서해안(강화도 등)의 유형에 가깝다.(필자의 「한국 어로요 모음」1990.수협중앙회 刊 참조). 김형안(결성면 성호리)의 노젓는 소리도 "어여디여 어여"로 이 범주에 든다.

이택준(1940.남.서부면 죽도土民.호적名은 이옥준)은 죽도에서 노저을 때 "잇샤 잇샤"할 뿐, 별소리가 없다고 하였다.

4). 산세는 소리 〈홍주 218 〉, 기타

〈218〉은 결성면 성호리에서 조기·칼치 등의 수를 세던 소리이다.

단위는 10마리가 1뭍이요, 100마리가 1단, 100뭍이 1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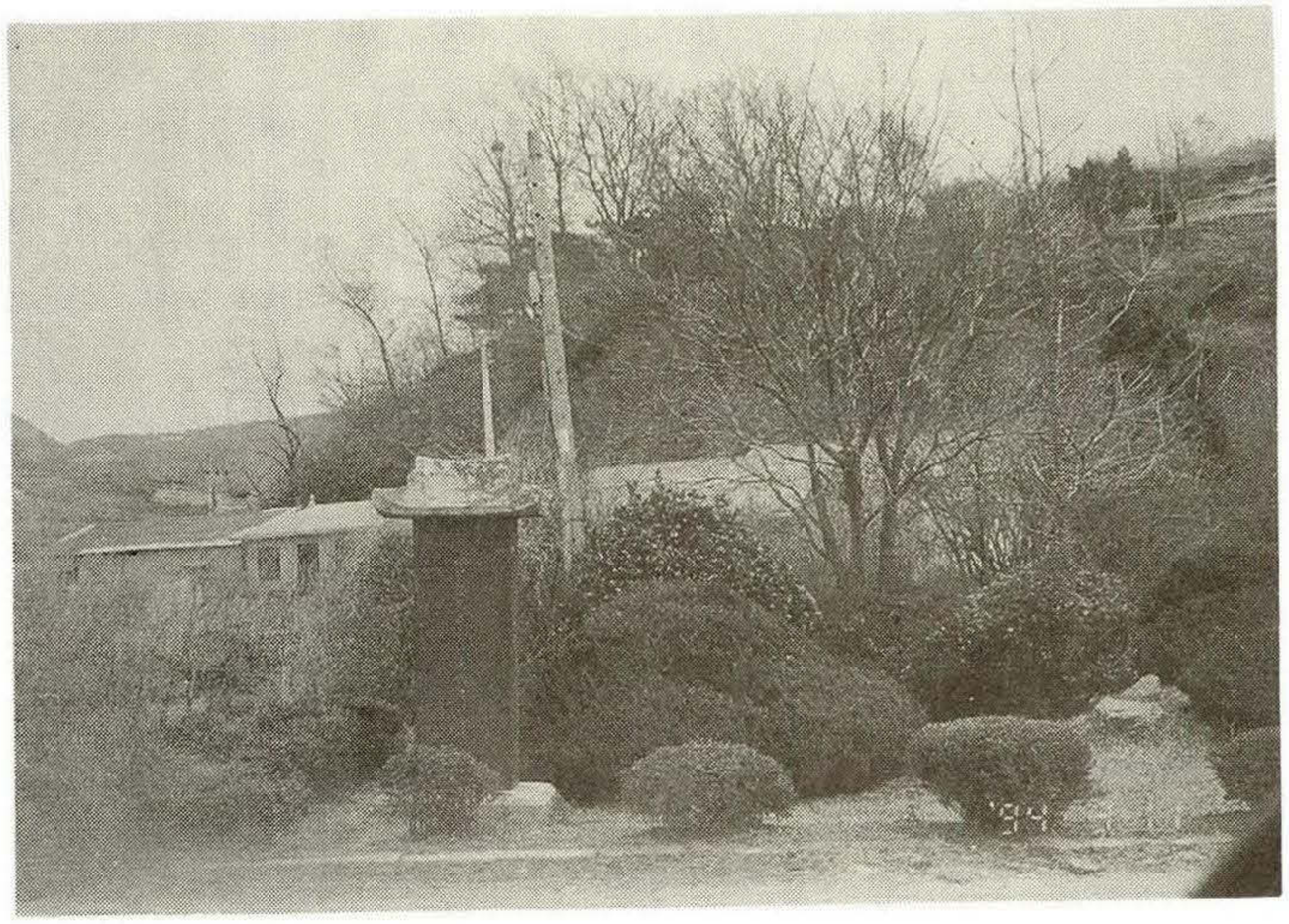
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농요〈홍주 157,158 〉에서와 마찬가지로 열까지 센 후, 산가지 등으로 어떤 표시를 해 두고는 다시 세어 나간다.

〈218〉의 구성음은 솔도레미 이다〈표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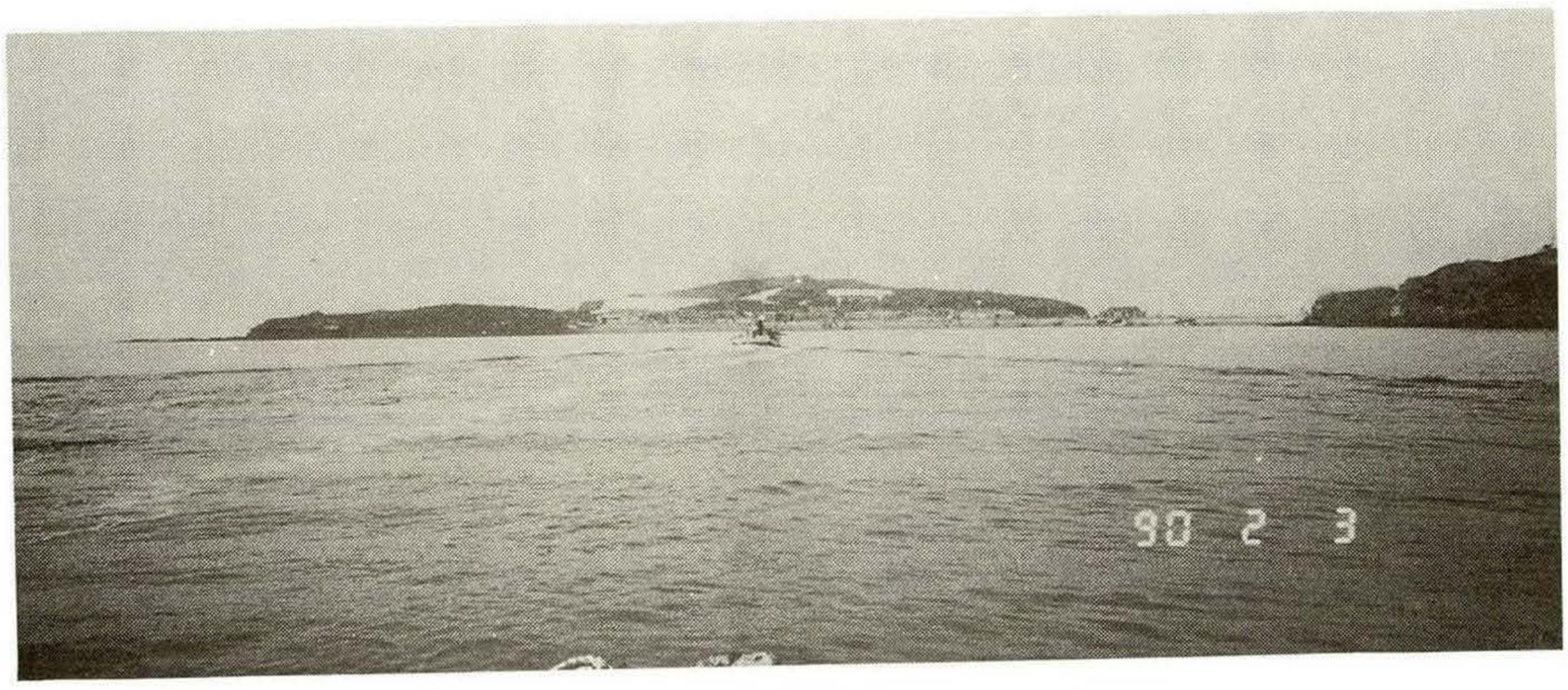
이상순(서부면 어사리)은 닻감을 때나 그물 당길 때도 일의 속도에 맞추어 "어야

디야(차)"를 적당히 응용해 부른다고 한다.〈217〉참조

〈215 Ⅱ〉는 일반 흥민요인 뱃노래곡으로 가창된 것이다. 홍아지(서부면)의 뱃노래도 일반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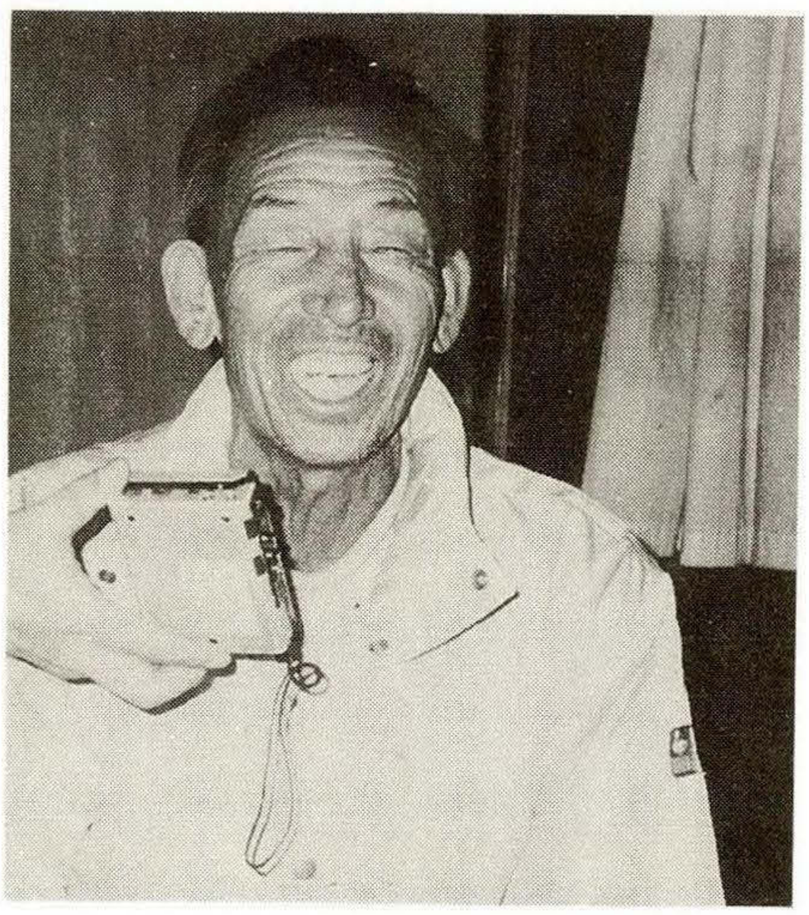
〈사진 88〉 보부상 비
소재지 : 광천읍 옹암리
동학난에 홍주성을 수호했던 김병돈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홍주의 보부상들이 전적지인 광천 구장터에 세웠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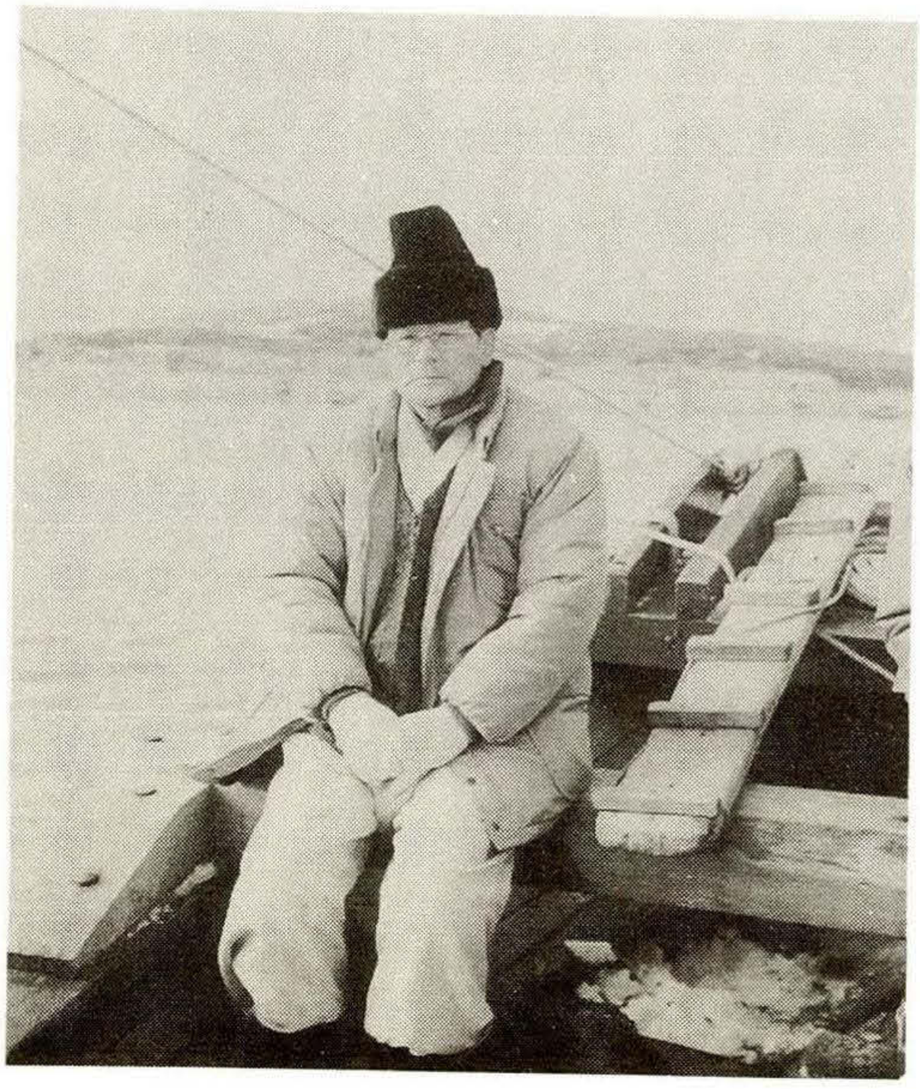
〈사진 89〉 서부면 죽도
1989년도에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가 홍성군 서부면으로 편입되었다.



〈사진 90〉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에서 1990년 2월
정철규(1929, 土民)
김형안(1928, 土民)



〈사진 91〉
김재동(1928.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출생. 1975년경에 은하면으로 이주)



〈사진 92〉 이연준(1923. 서부면죽도 출생. 6세에 서부면 남당리 이주)

그가 아는 바로는 죽도에 전주이씨→편씨→한산이씨(이연준 선조)→해주오씨順으로 입주했다.

그의 曾祖父가 稅穀을 실러 경상도 김해에 갔는데 장질부사에 걸려 돌아가셨기때문에 문책을 피하기위해 일가가 죽도로 들어갔다한다.

죽도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사람이 죽고 부엉이가 울면 장가들거나 섬으로 사람이 들어 온다고 하여 부엉이를 길조로 여겼다.

죽도 사람들은 어업에 종사하는 외에 대나무로 조리를 만들어 보름날 많이 육지로 내간다. 노리(문바르는 풀)도 나고 고령토도 생산된다.

(17)상부소리〈홍주 219~254 〉

사람이 죽으면 죽은이의 헌옷가지 적삼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 예를 들어 "전주 이씨- , 전주 이씨 - , 전주 이씨 - " "복,復,복"하고 외치곤 망인의 혼이 찾아오기 쉽게 적삼을 지붕위에 던진다(결성면 성호리 김형안 대담).

죽음의 현상은 혼이 몸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겠거든 찾아오라는 뜻의 외침으로 보인다.

성호리에서는 사주(사제)밥 3그릇,짚신 3켤레,물3그릇 놓고 사주제를 지내고 적삼을 들고 집에서 떨어진 거리로 나가 묻는다(거리 삼신이라 해서 옛부터 사람은 삼신을 받아 태어난다는 사상).[13]

상례(喪禮)에 관련된 소리로는 널액막음소리와 발인제 독축〈홍주 331,332〉,행상소리,묘쓰는 가래질소리 및 회다지소리가 있다.

1). 널 액막음 소리

이는 시신을 모신 널을 방에서 내갈 때, 동서남북 사방에 널을 들이밀면서 액막음으로 "중상맥이오"하고 외치는 소리이다.

성호리에서는 널을 들고 방을 한바퀴 돌고 말없이 방문을 나오면서 마루 내디디는 데다 바가지를 작신 밟아 깬다. 그러고 나서 마당에 놓인 상여까지 가면서 "영신아 영신아 .. " 한다.광천읍 운용리나 결성면 금곡리에서도 바가지를 깨고 나간다(이병후,최광순).

서부면 어사리에서는 방에서 관을 내오면서 "엉수 엉수"하며, 젊은 사람이 죽거나 액상(厄喪)일 때는 바가지나 호박을 깨고 나오지만 늙어죽었을 땐 그냥 나가도 된다(이상순 대담).

경남 양산군에는 방문을 나서면서 문지방에다 칼이나 도끼로 세번 긋는 곳들이 있지만 홍성군에는 그러한 예가 나오질 않았다.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홍성군의 널액막음소리는 "중상(맥)이오"
계통이다. 경북의 상주군에서도 보편적으로 "중상이야" 한다.
타군의 예로는 중방맥이요(부여군), 동방동방 동방이오(공주군),

---

13)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에서는 거리제를 지낼 때 삼거리에서 지내지 단거리에서는 안지낸다. 짚을 열십자로 깔고 그 위에 떡,짚신 3켤레와 돈 한,두푼을 놓는다. 거리제가 끝나면 음식은 그대로 두고 그릇만 가지고 오는데, 문밖에 두었다가 익일 날샌 후에 들여온다.

톱질이야(금산군,대전), 그밖에 "동구맥이요" 등등이 있다.

〈표 21 〉 홍성군의 널액막음 소리

지 역	대 담 자	널액막음소리	비 고
장곡면 옥계리	이 태 훈	중상이오	바가지깨고 나감
장곡면 광성리	송 학 기	〃	
구항면 내현리	방 종 석	중생이오	〃
장곡면 화계리	김 윤 재	중상맥이요	〃
금마면 월암리	최 병 현	중상맥이요	중상일에 관계없이함.
금마면 봉서리	박 종 서	중상맥이요	
서부면 상황리	박 동 식	〃	중상든 날만 함.
홍북면 대인리	임 동 순	중상맥이오	
홍북면 대동리	윤 봉 성	중상마지요	바가지 깸.
갈산면 가곡리	윤 민 식	중상방이오	

2). 행상소리

홍성군의 행상소린 3분박4박 2마디씩의 非어거리넘차類가 일반이다.

그 받음구例는 〈표 22 〉와 같다.

엇비슷한 중에서도 장곡면 월계·광성·지정리는 "어(허) 허하/ 에 헤이 어호"로 일치한다.

장곡면 옥계의 경우는 같은마을에서 서로 다르게 나왔는데〈219,221〉 이태훈의 창〈221〉은 선소리꾼 혼자서 가창한 것이므로 〈225〉에서 선소리꾼과 상두꾼들이 달리 발음하는 예나 장곡면의 일반적 경향으로 보아 〈219〉가 옥계리 상두꾼들 소리로 판단된다.

홍북면〈231,239,245〉은 모두 "어(허이 어허)하/에 헤이 어하"系를 취하고 있다.

끝에 '너호' '너하'를 넣은 것은 김향경〈223〉 김선균〈249〉 김창영〈247〉唱이며, 갈산면 가곡리의 1마디 행상("에 헤이 너하"〈237〉)에서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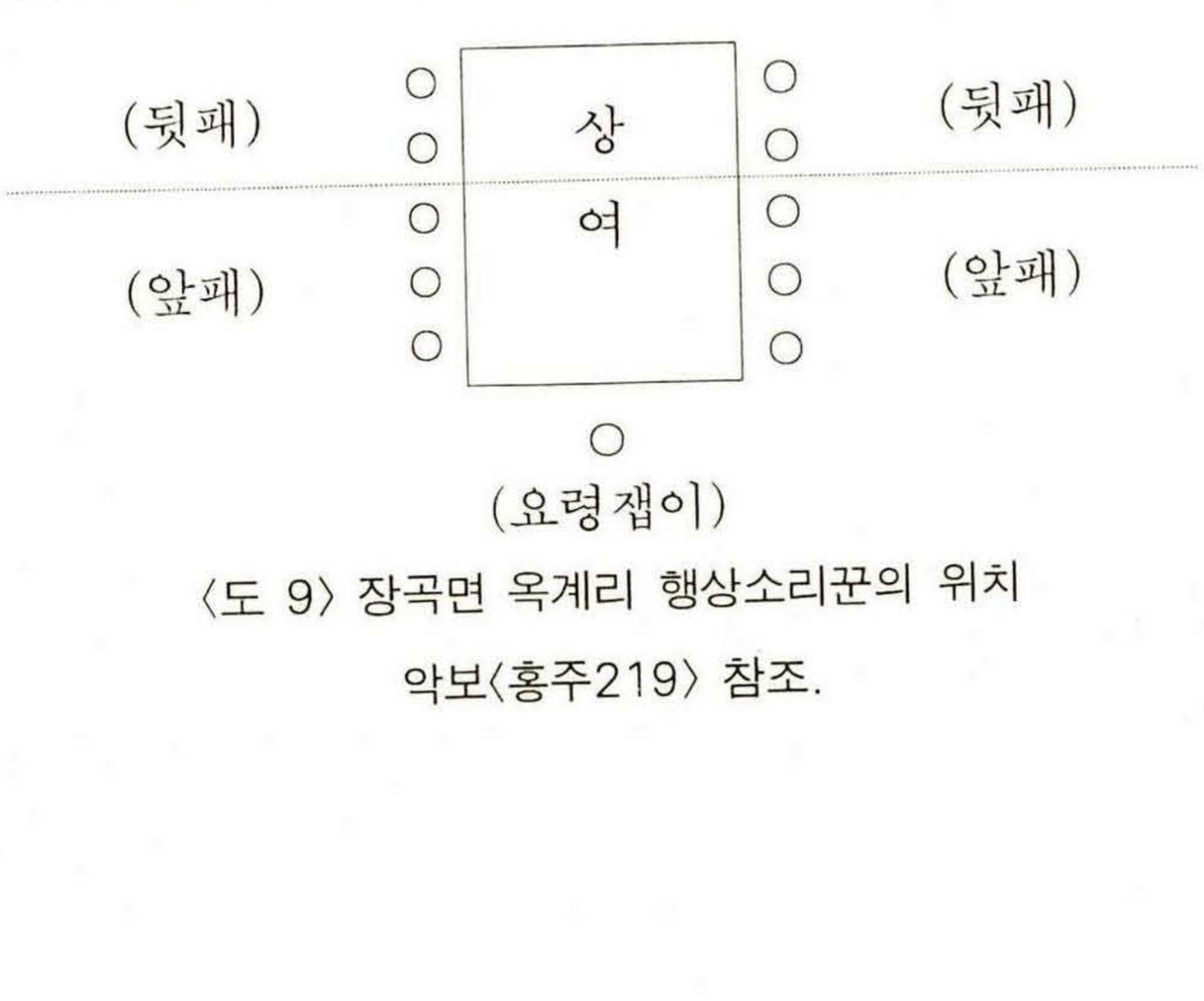
어거리넘차類는 김용세唱〈229〉과 안산옥의 〈241〉(받)②에서 나타난다.

갈산면 가곡리 동막마을〈237〉이나 은하면 목현리〈230 : 에 헤이 여호〉,구항면 내현리("어허 어하")처럼 한마디 행상소리만 하는 곳도 있고,장곡면 가송리처럼 두마디소리〈228 I 〉이외에 빨리갈때 선소리꾼이 "어허 허하"하고 두마디소리의 첫마디를 멕이면 상두꾼들은 그 둘째마디에 해당하는 한마디소리〈228 II : 어허이 허호〉로 받는 곳도 있다. 〈243〉에서는 호상의 경우,두마디소리로 하고 보통은 한마디소리("어허이 어하")로 하는데 혼자 가창한 것이고, 같은 장곡면인 점으로 보아 〈228

II〉처럼 상두꾼들은 두마디행상의 둘째마디로 받기도 할 것이 예상된다.

〈표 22 〉 홍성군 두마디 행상의 받음구

ㅇ 어허 허호/에 헤이야 어호〈219〉장곡면옥계 ㅇ 허허 허허호/에에이 허허허 허야호〈244〉홍동면홍원 ㅇ 어허 허허호/에 에이 허허호〈250〉장곡면화계 ㅇ 어허이 허호/어 허이 허호〈251〉광천읍운용
ㅇ 어허 허호/에 헤이 너호〈223〉은하면대천 ㅇ 어허 어호/에 허이 너허호〈249〉갈산면상촌 ㅇ 어허 허하/어 허이 너하〈247〉결성면교항
ㅇ 어어 허-ㅇ허/에이 허이 어호〈228〉장곡면가송 ㅇ 어허 허 허우/에 헤이 오호호〈232〉홍동면운월
ㅇ 어 - - 하/에 에이 어하〈231〉홍북면석택 ㅇ 어허이 어허하/에 헤이 어하〈245〉홍북면대인 ㅇ 어허 허화/에 헤이 허화〈239〉홍북면대동
ㅇ 어허 허허하/에 헤이 어호〈243〉장곡면월계(호상) ㅇ 어허 허하/에 헤이 어호〈246〉장곡면광성 ㅇ 어 - 허하/에 헤이 어호〈248〉장곡면지정 ㅇ 에 헤이 어화/에 헤이 어화〈225〉서부면상황 ㅇ 에허 어하/어 허이 어호〈233〉결성면성호
ㅇ 오호 오호호/에 흐야 호호호〈221 I 〉장곡면옥계;이태훈(메) (참고:〈225〉메김) ㅇ 오호 호호/에 헤야 오호〈221 II〉잦은.(옥계 이태훈) ㅇ 오 - 호호/에 허이 호하〈235〉금마면봉서 ㅇ 오호 호호/에 헤이 어호〈241〉장곡면오성(받)①
ㅇ 아아 아하/에 헤이이 어하〈224〉은하면장척
ㅇ 에헤 어호/어거리가넘차 너거리호와〈229 I 〉결성면형산리 ㅇ 오호 호호/어허넘차 어호〈241〉장곡면오성(받)②



〈도 9〉 장곡면 옥계리 행상소리꾼의 위치

악보〈홍주219〉 참조.

두마디행상에서는 메김도 2마디, 한마디행상에서는 메김도 1마디로 가창함이 일반형이다.

장곡면 옥계〈219〉에선 〈도 9 〉와 같이 상여 양켠을 상두꾼 5인씩 10人이 메는데, 요령잽이(선소리꾼,메김소리꾼)가 2마디 부른 다음, 앞패가 이를 받고 이어서 뒷패가 받되,앞패보다 소리를 질러(높여) 낸다.

높은데 오를 때는 "엇샤 엇샤"〈228,239,241〉"웃차 웃차"〈229〉한다.

상여 내릴때는 "우여우여 우여.."〈221,224,233,239,243,250〉 한다.

〈243〉의 최주복은 상여를 어깨에 올려메면서 "우여라,우여차"한다고 했다. 〈233〉의 김형안은 요령잽이가 요령만 흔들면 올려멜 준비하라는 신호가 된다고 했다.

〈표 19 〉에서 구성음관계를 보면 "도(레)미솔라" 또는 "미(솔)라도레"가

보다 많은 편이다. "미라시도"계통은 김용세〈229 I 〉,최광순〈234〉과 최주복〈243 II〉唱에서 나타난다. 중간음 종지의 예〈229 I 〉도 있으나 기음종지가 지배적이며 중간음에서 퇴성하여 결국 기음종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기음 및 중간음을 요성하는 경향이다.

3). 묘쓰는 가래질 〈홍주 223 II ,224 III ,226,252〉에 대하여는 상술(12). 두렁가래질 참조.

4). 회다지 소리〈홍주 220~224, 227, 229 III , 230 II , 232 II , 234, 236, 238, 240, 242, 253, 254〉

〈220〉은 장곡면 옥계리 이태훈의 모친인 담양 전씨의 30년 가까이된 묘를 이장하면서 불렀던 실황녹음 악보이다.

〈사진 94,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명이 광중에 들어가 각자 달굿대를 손에 쥐고 광밖에서 멕이는 선소리꾼의 소리에 맞추어 몸을 돌리며 회를 다진다. 보통 3회 다지되 마지막은 평토에서 한다. 달굿대는 상여밑에 고였던 것을 빼서 쓴다.

매회마다 처음엔 긴달고〈220 I 〉 몇마디를 하고 이어서 잦은달고〈220 II〉로 넘어간다. 선소리꾼이 "쉬어가지고 다시 합시다"거나 "고만저만 파양궁합시다"하면 딱 돌아서서 함께 긴달고로 한마디 받고 끝낸다.

잦은달고는 (메)와(받)이 각각 3분박4박 1마디씩이다. 1박의 속도는 M.M 55~67 (즉.1초정도 소요됨)이다. 메김소리 동안에 달구꾼들은 "어 허"하면서 힘을 쓰고 흥도 돋군다. 메김때나 받음(어기여라 다-알공)때나 반장단에 한발씩 옮긴다.

긴달고의 받음소리〈220 I 〉 동안에 달구꾼들은 발을 세번 딛는다. 따라서 〈220 I 〉의 (받)은 내재3마디 구성으로 보게된다.

즉, ①에-에 ②오-오 ③오오-ㄹ고 장곡면 가송리에서는 6~8인이 각자 달굿대 쥐

고 광중에 들어가 노래하며 다진다(우덕명 대담).

금마면〈236〉에서도 3회 다지되 평토전에 보통 10人이 광중에 들어가며,서로 어깨를 짚고 시계방향으로 빙빙 돈다고 했다.

갈산면 가곡리〈238〉에서는 3회 또는 5회 다진다. 광중에 20~30명이 들어가서 원(圓) 하나를 만들어 서로 어깨잡고 같은 방향으로 세바퀴 돈다음 반대방향으로 빵 돌려 돈다. 잘 다지기 위해 무릎을 잡고 콱! 눌리기도 한다.

잦은달고를 마칠때는 함께 "위 - "하고 외치곤 한다.

(20~30명이 광중에 들어가서 서로 어깨를 잡고 돌므로 달굿대는 각자 잡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홍성군의 잦은달고 받음구例는 어기여라 다-알공, 에기여라 다알고, 어이여라 달고, 에헤라 달고 이며 긴달고의 그것은 "오,오오-알공" "에이,여러-아,다알공" "에-다할고" "에,이,이여(허)라,다알고" "에이,이여라,다알고" "에위라 다알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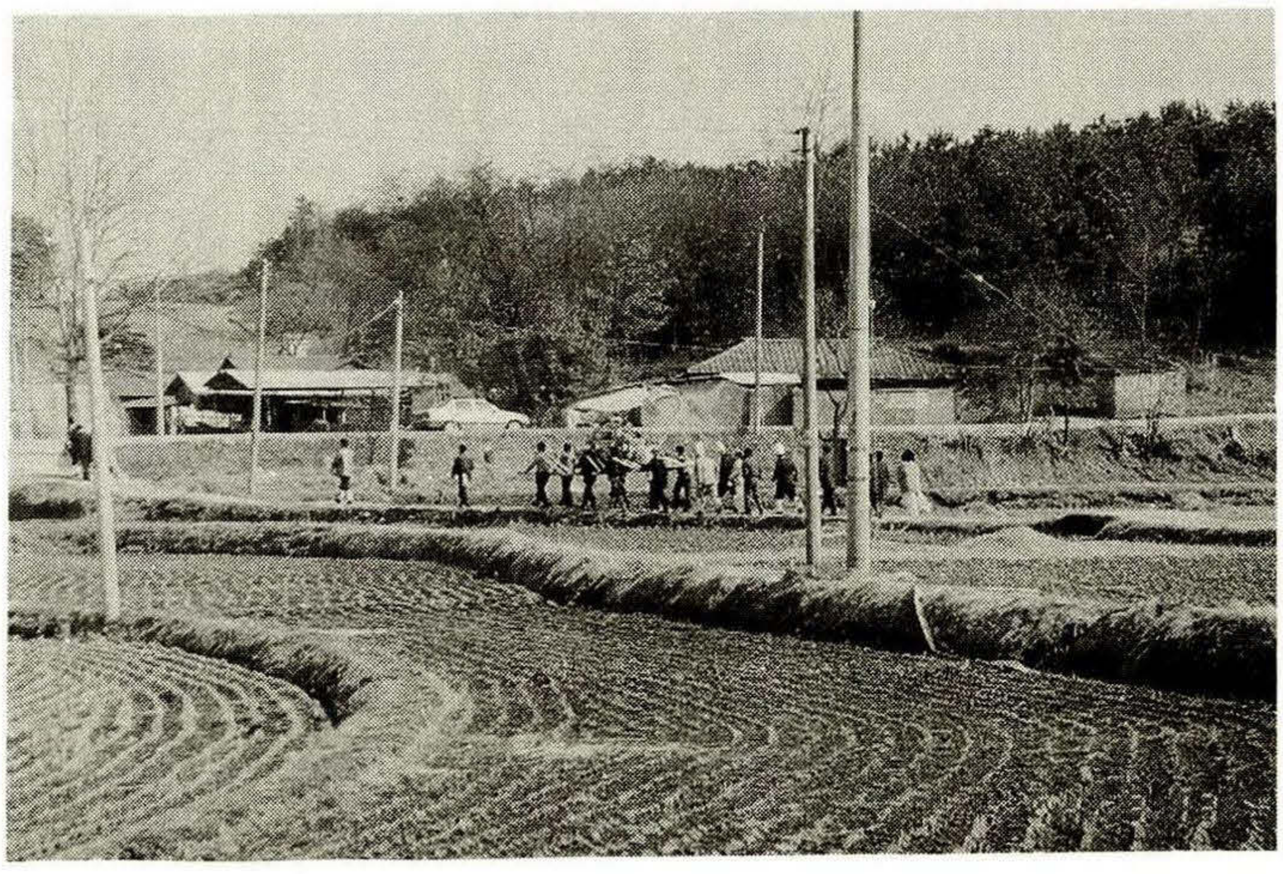
전남지역이나 양산군 방면 같이 별로 회다지지 않는 지대에서는 회다지는 소리가 따로 없기 마련이다. 다지더라도 각자 달굿대를 손에 쥐고 달구꾼들이 광중에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 중·북부나 강원도 풍속과 통한다.

경북의 상주군이나 예천군에서는 달굿대없이 발로만 다지며 광중에 들어가지않고 평토 후,봉분을 쌓으면서 다졌다.

경기도 중·북부지역에선 회방아(회다지)때 노래를 여러종류(例;여섯가지) 부르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주로 달고류를 부른다.

충남에서도 부여군의 경우는 회다지소리를 별로 하지않는 편이며, 금산군에서는 달굿대없이 등을 맞대고 발로만 다진다.

〈표 20 〉에서 달고소리의 구성음관계를 보면 홍성군은 미라시도, 도미솔, 미라도, 솔도레미 등이 공존하는 지대임을 알 수 있다. 중간음에서 종지하는 경향이다.



〈사진 93〉 옥계리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장곡면의 행상 장면



<사진 94> 장곡면 옥계리의 첫번 회다지 장면



<사진 95> 장곡면 옥계리의 제2회 회다지 장면



<사진 96> 달굿대와 발의 위치 -장곡면 옥계리-



<사진 97> 회다지를 마치고 포즈를 취한 장곡면 옥계리 주민들과 관계자들

악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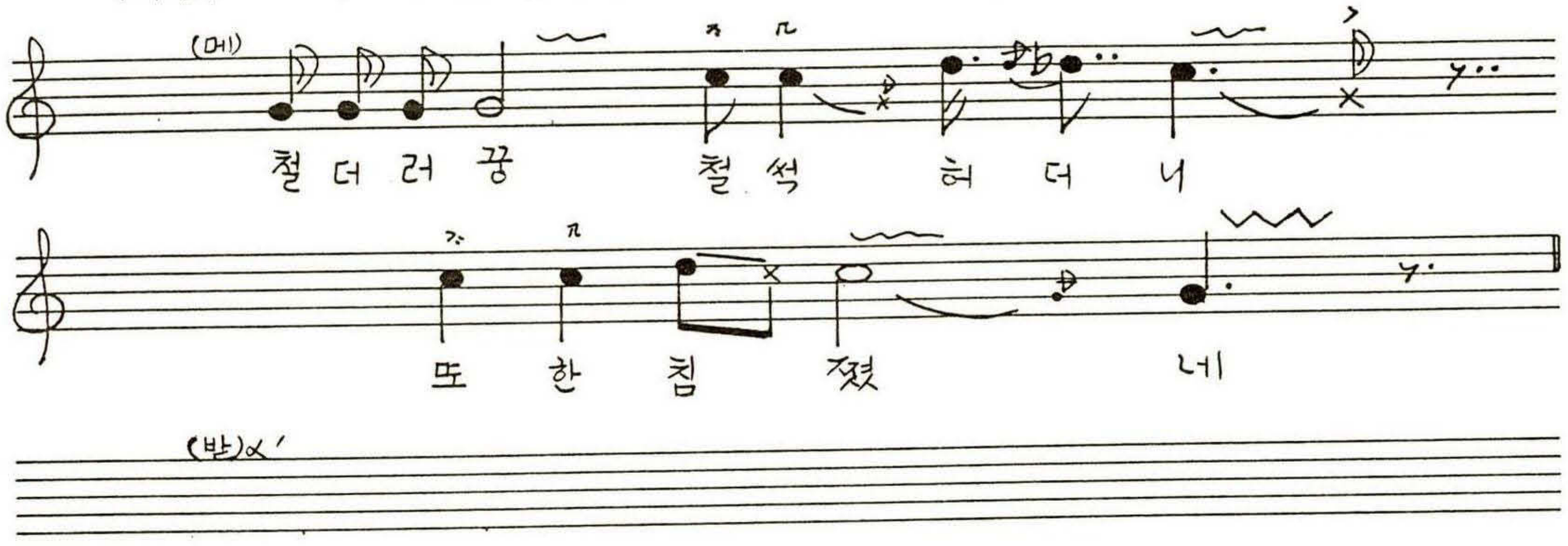
〈홍주 11〉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모 찌 는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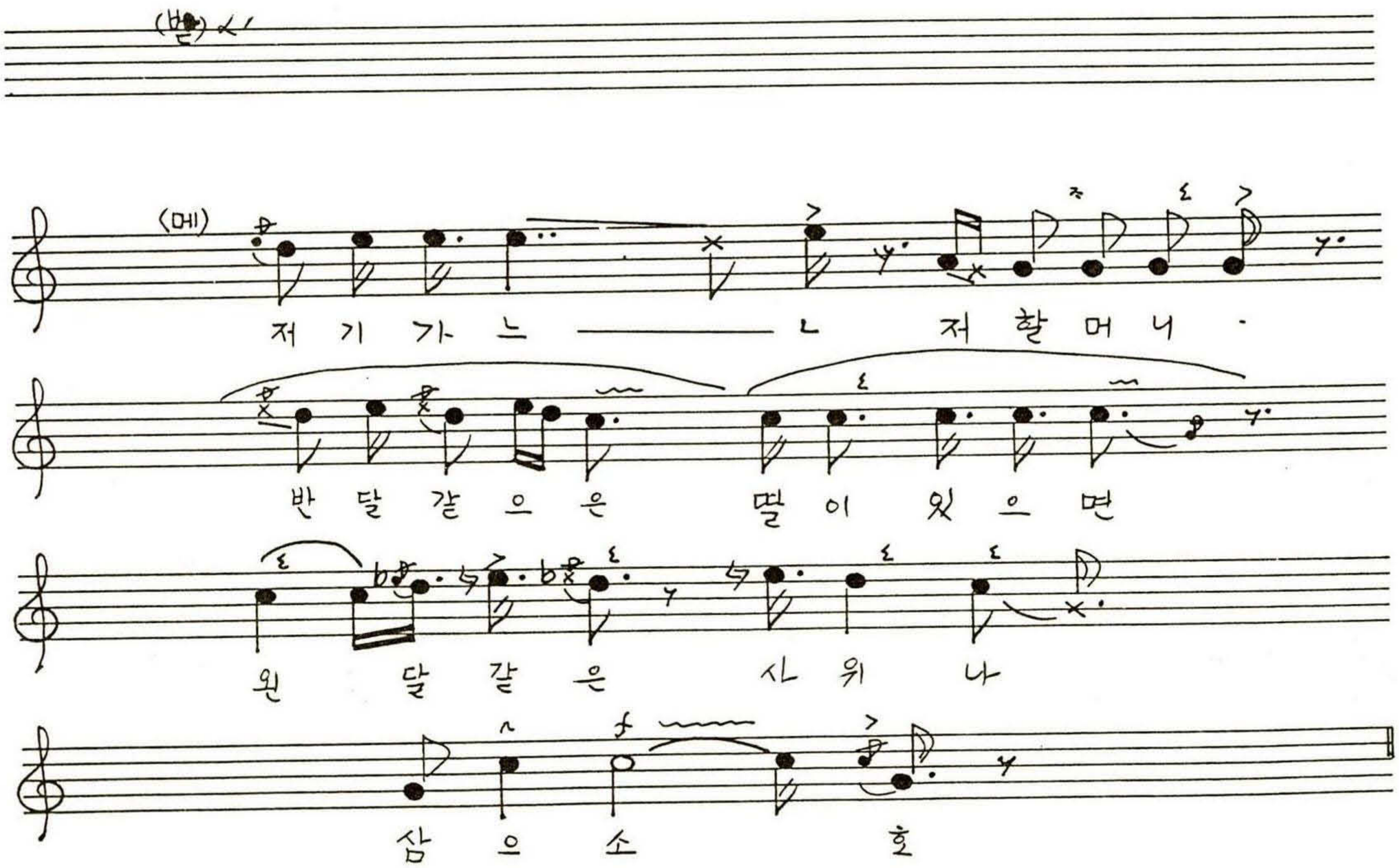
(메)최홍식(1923.남.금곡출생. 28세경에 결성면 읍내리 이주)
(받)결성농요단원
素 94-2-2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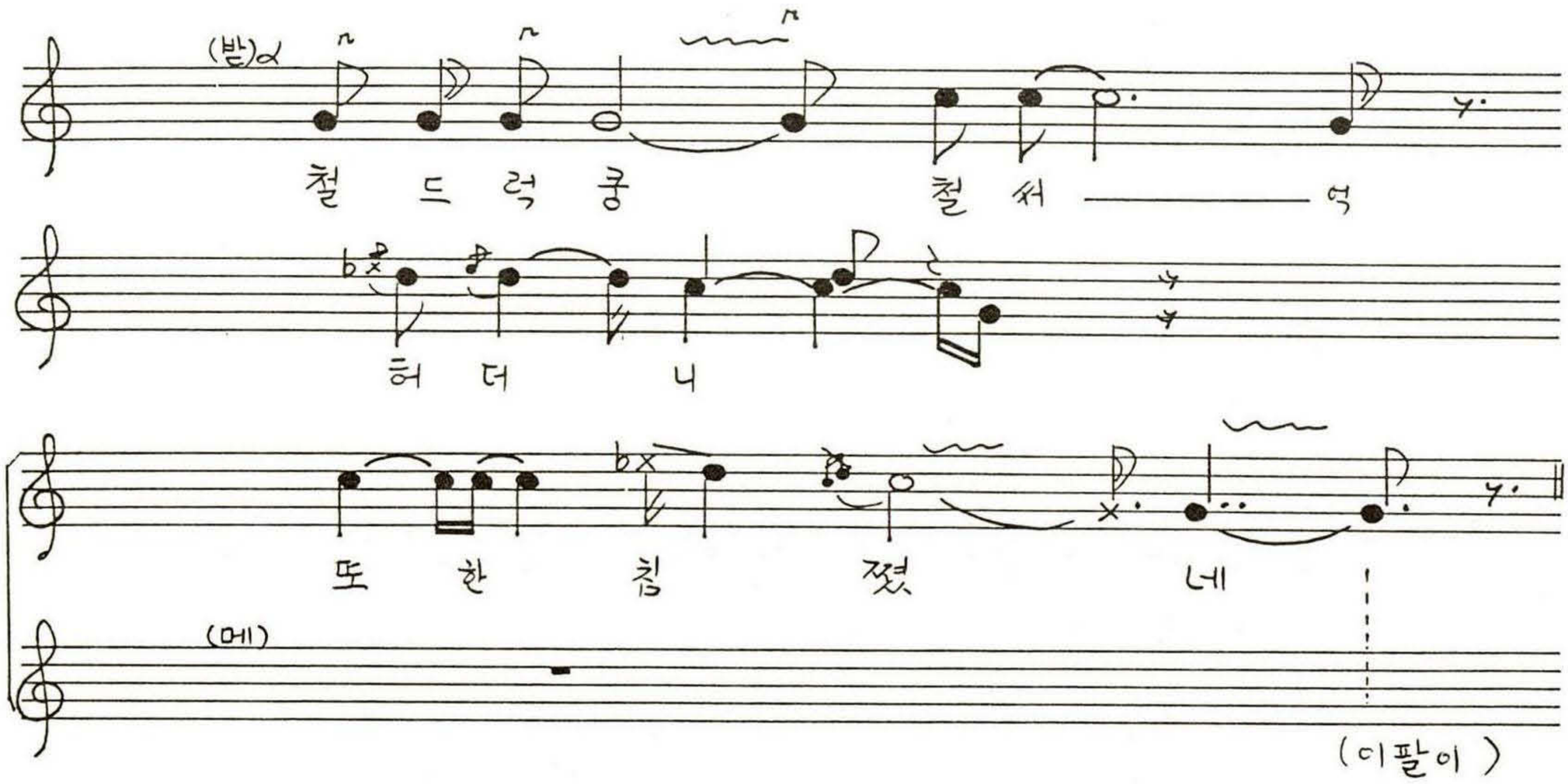
♪= 150

〈외침〉 : " 자 - 모들 찝시다."



(메) 시작이면 반이라 했으니,
금년농사도 반농사는 지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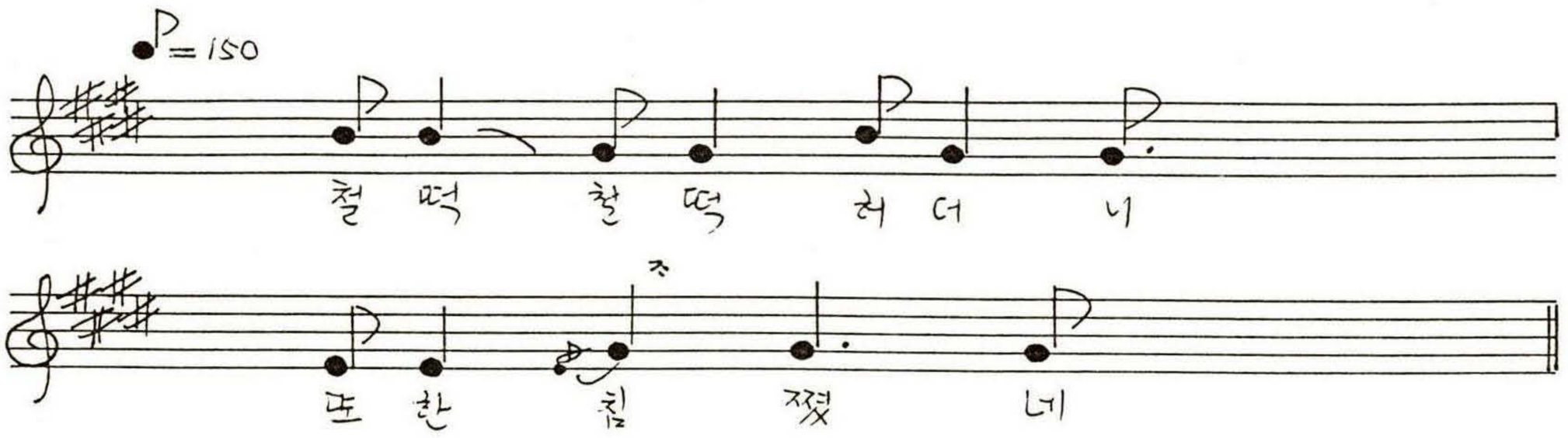


십육~. 열여섯살인데,
농의소 팔아서 날여워 주시오 /(받)α
(메) 놀다가시요. 자다가시게
보름달이 지새두록 노다를 가시요 / (받)α
〈외침〉: " 다 쩠네 --"

〈홍주 12〉 홍성군 서부면 광리 중광

모 찌 는 소 리

민병국(1916.남.土民)창
素 94-3-12[B]



〈홍주 13〉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모 심 기

(메)김용세(1918.남.土民)
(받)조인해,김기한,박영규,
정용만,장종구
素 86-3-25②

♩. = 55~60

(메) 열 럴 럴 상사 데헤여 어러리널널 상사디 에헤 어헤이 · 여루 상 사 · 뒤 · 요(후)

<북:김용세>

(받)ㅅ

(메) 상사났네 상사로다 임을 · 못 보아서 상사 났 네 어럴럴럴상사데(후)

(받)ㅅ

(메) 한밀자로 - 늘어 서 서 웬 구 짜로 심 어 갈 -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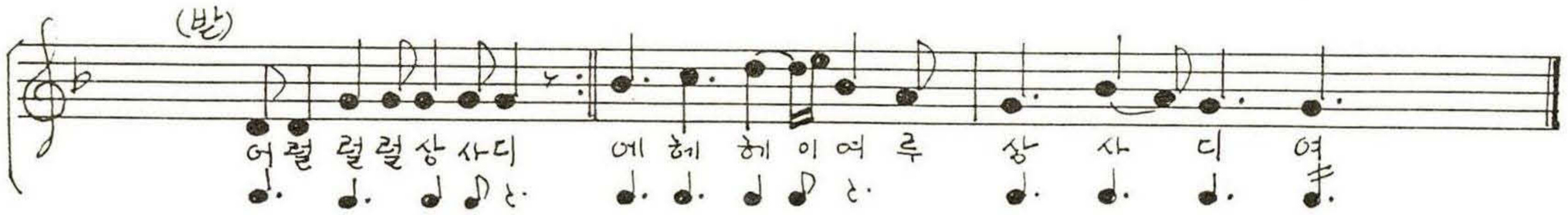
이 농사 이리 지여서 누구 허고먹지 - 허 느 냐 어럴 럴럴상 사데 헤

(받)ㅅ

(메) 늙은부모 봉양하고 젊은아내 배채우고 어린 애기들허구 먹지 허구느냐 어럴럴럴 상사 데헤

(받)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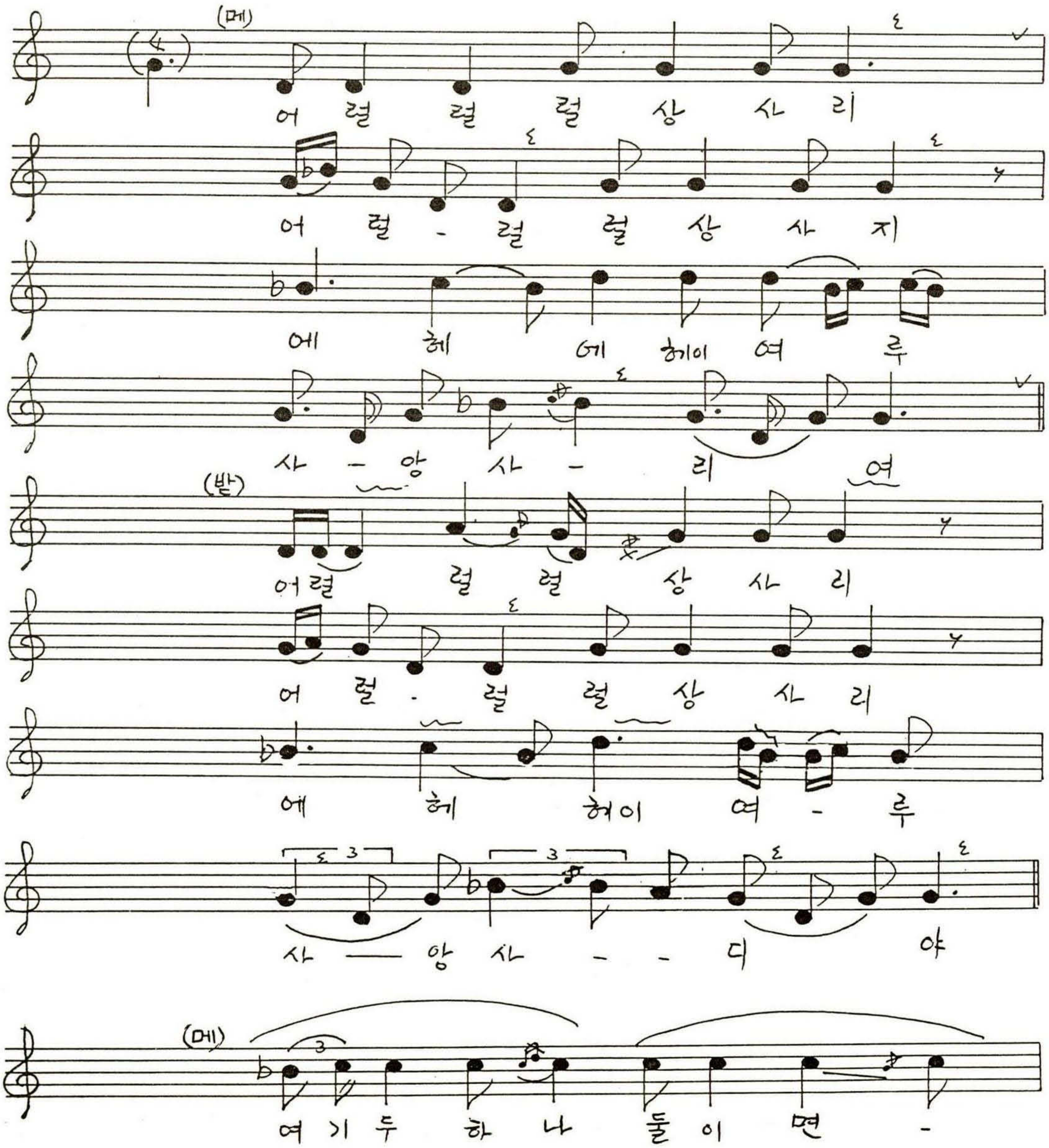
(메) 앞가심은 〈음〉 뭉쳐 심고 번덕 밀일랑떼여서 심 세 어러리널 널장 · 사 데 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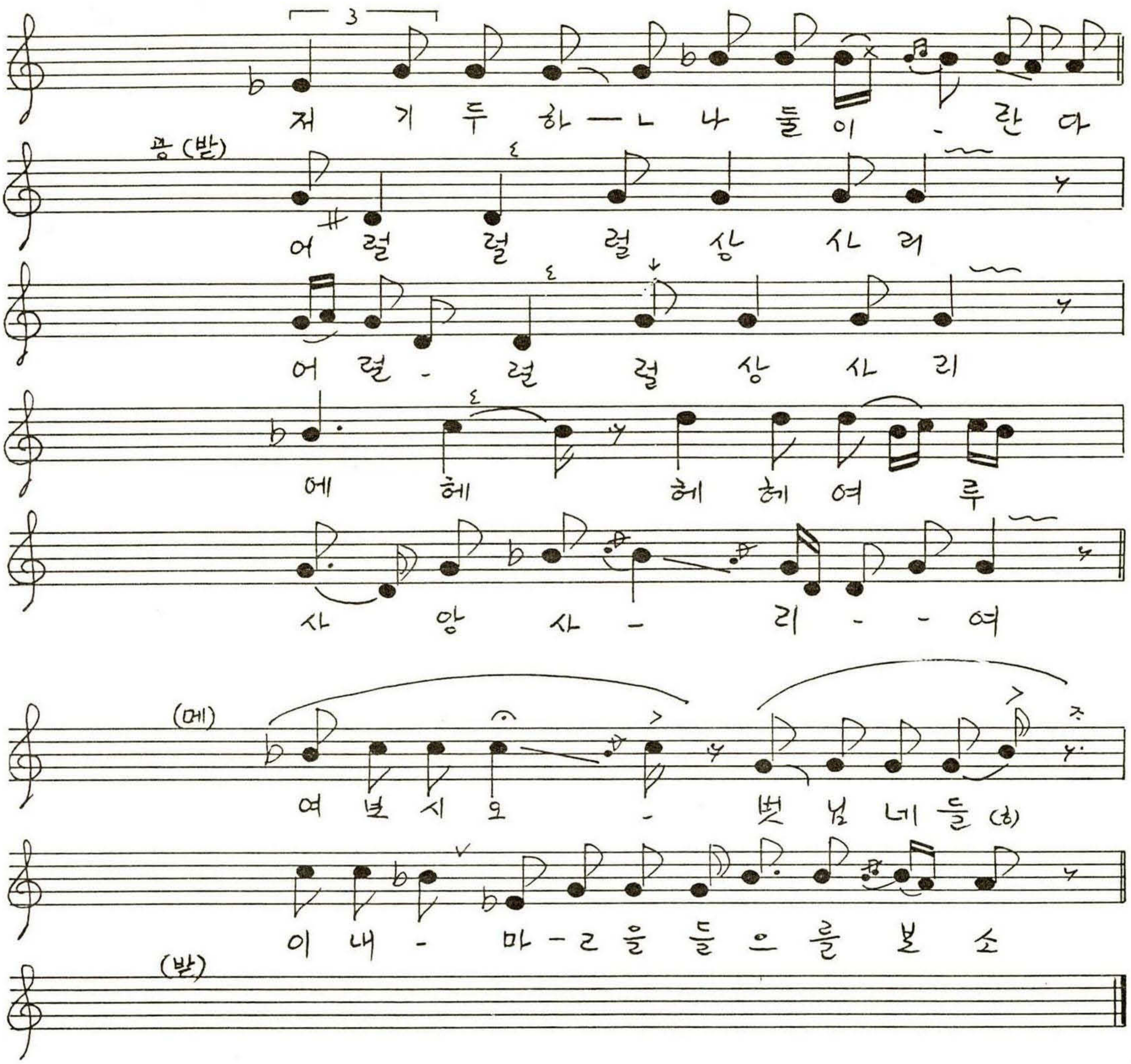


〈홍주 14〉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모 심 는 소 리

(메)최용근(1927.남.土民)
(받)최용환(1933.남.土民)
素 89-11-28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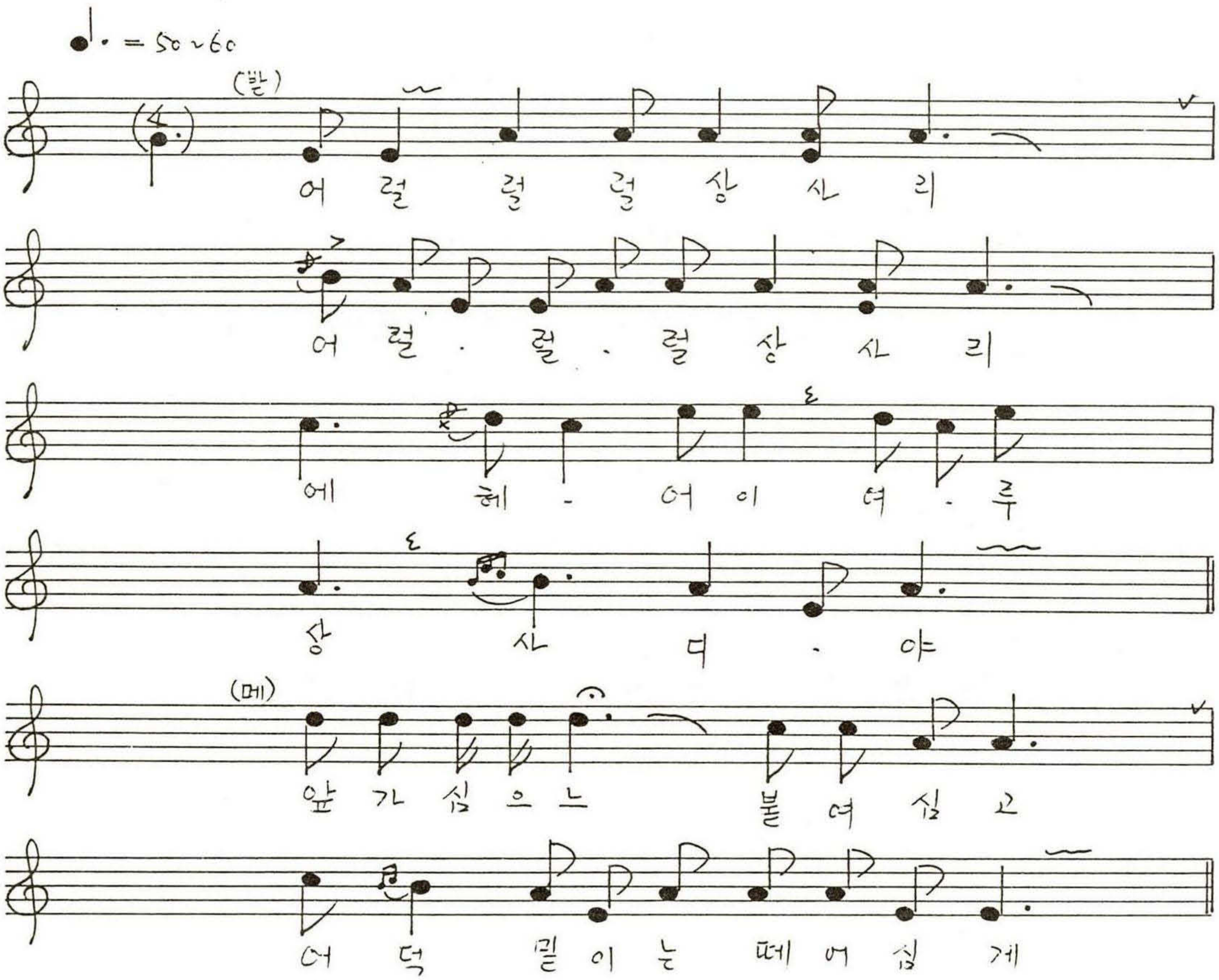


(메) ○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면 그만이요
○ 이논배미 얼른심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자
○ 이농사를 얼른지어
국가군량미 하려니와
우리 농군도 먹어보세

〈홍주 15〉 홍성군 서부면 광리 중광

겹 상 사

민정식(1918.남.광천읍출생 8세에 중광이주)창
素 94-3-12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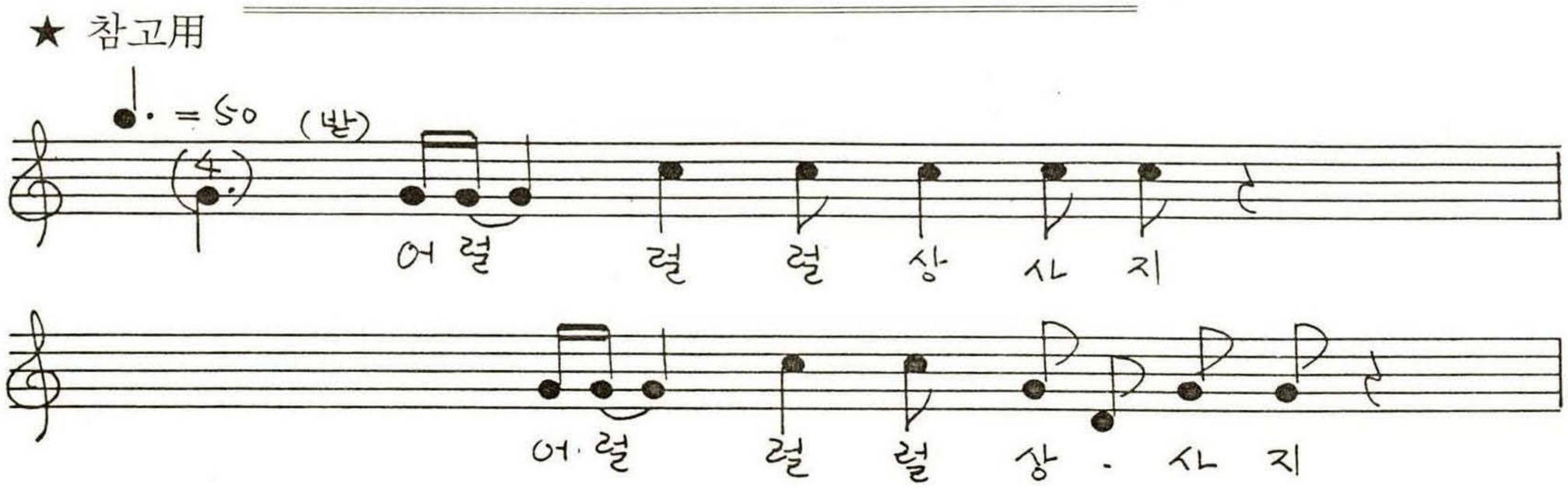
에헤 에이려루 상사디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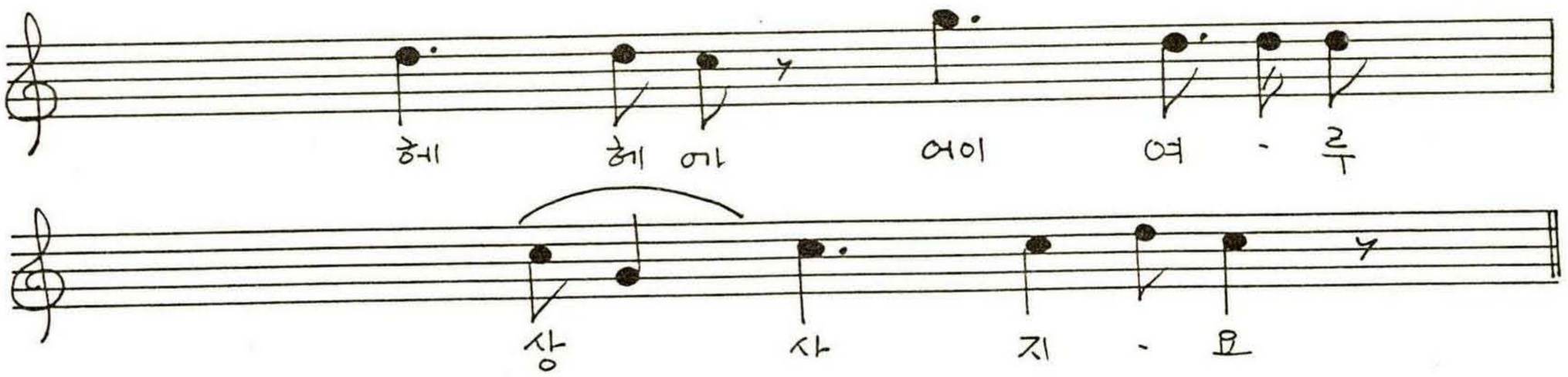
〈홍주 16〉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대실

상사리반복형(모심기)

김향경(1920.남.土民)唱
素 90-2-3④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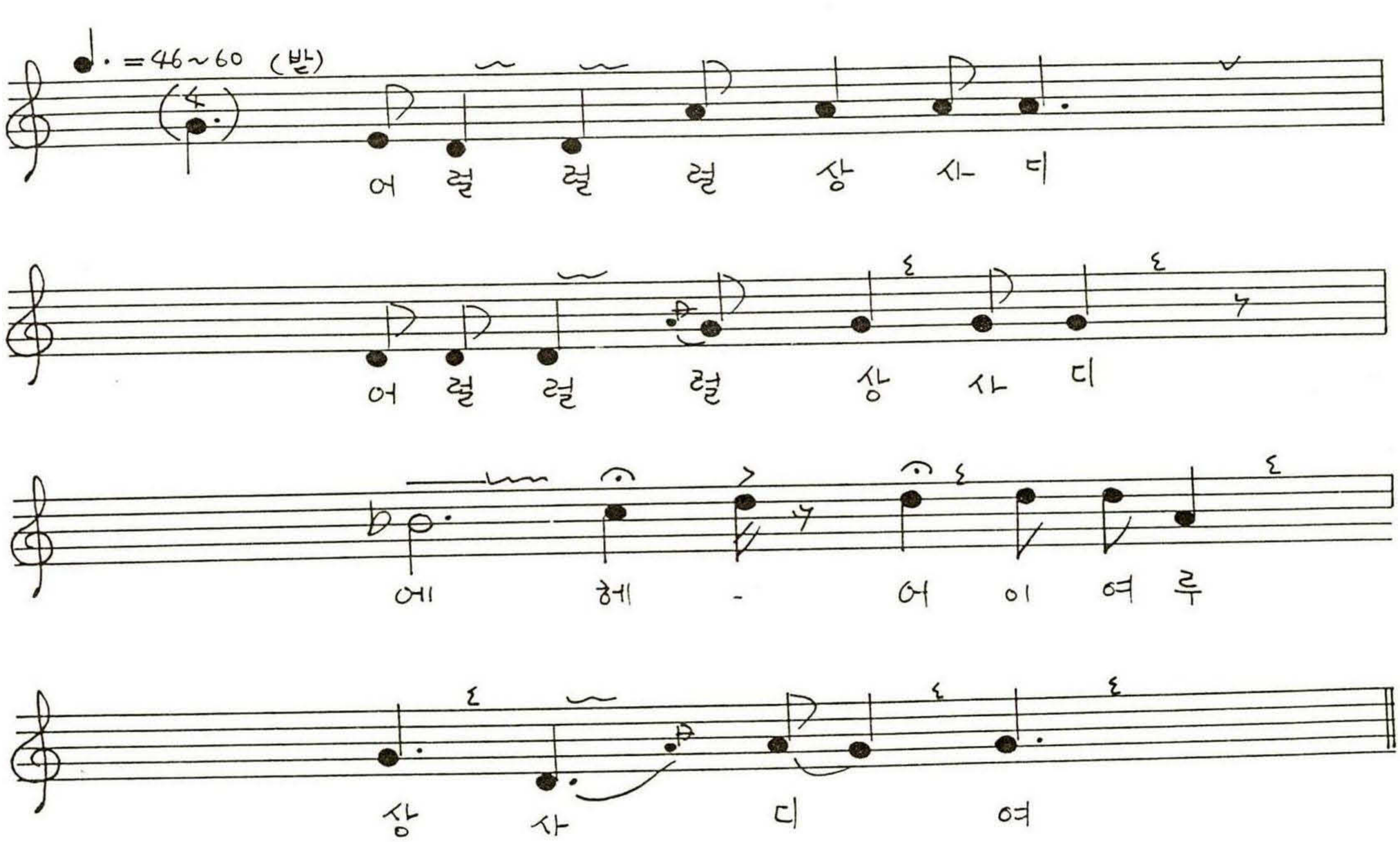
(메)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같이 남았구나
어헤 어이 여루
상사지히요

〈홍주 17〉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겹 상 사

임희종(1923.남.土民)
素 90-2-3㉦B

★ 참고用
〈實音은 장3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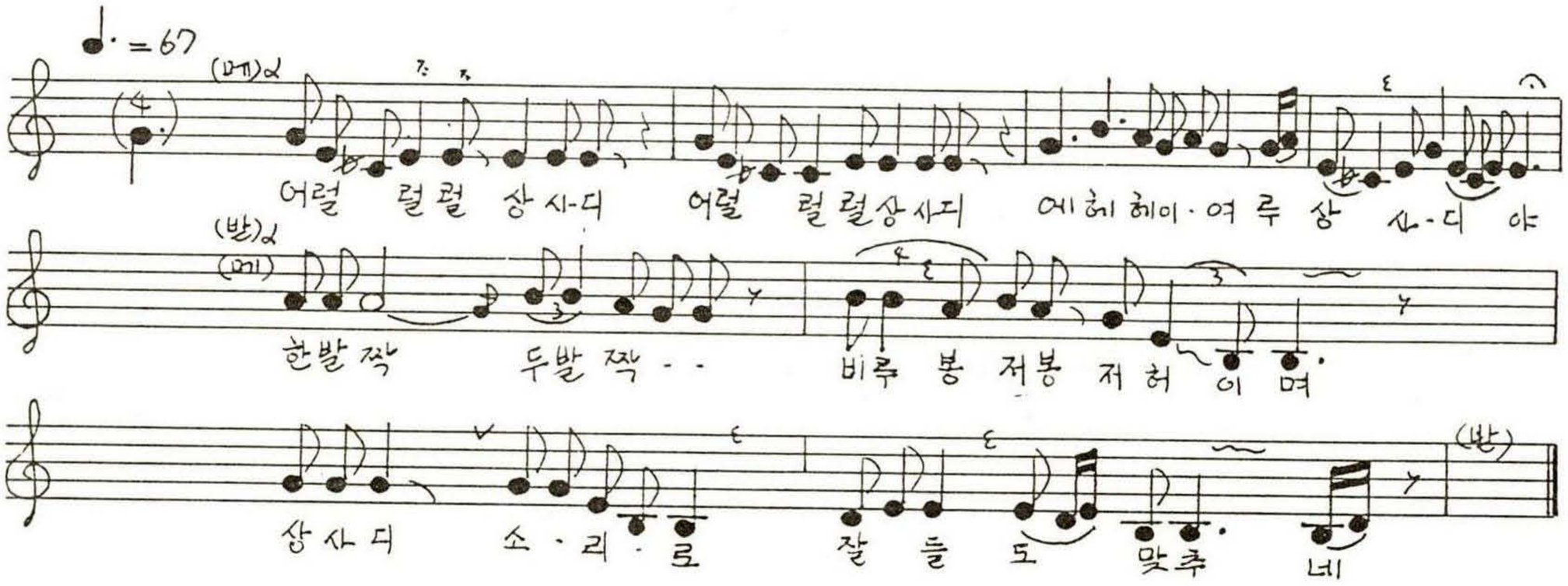


〈홍주 18〉 홍성군 홍북면 石宅里

모 심 기

(메)김세원(1929.남.土民)
(받)최인석(1932.남.土民)
素 87-3-30(1)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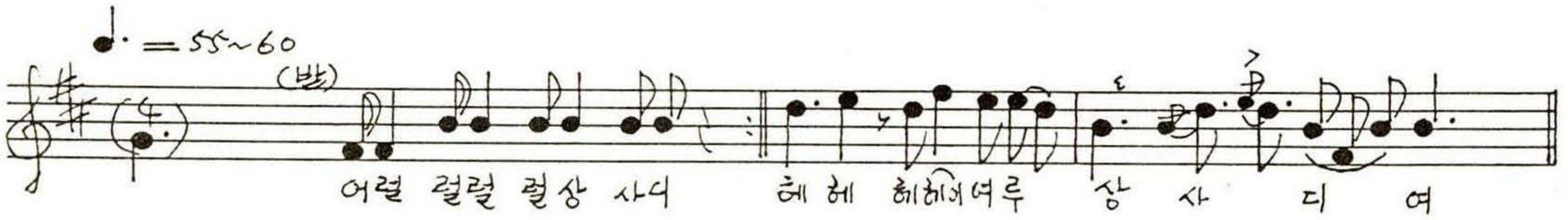


〈홍주 19〉 홍성군 구항면 공리

모 심 기

김옥환(1919.남.土民)
素 87-3-30①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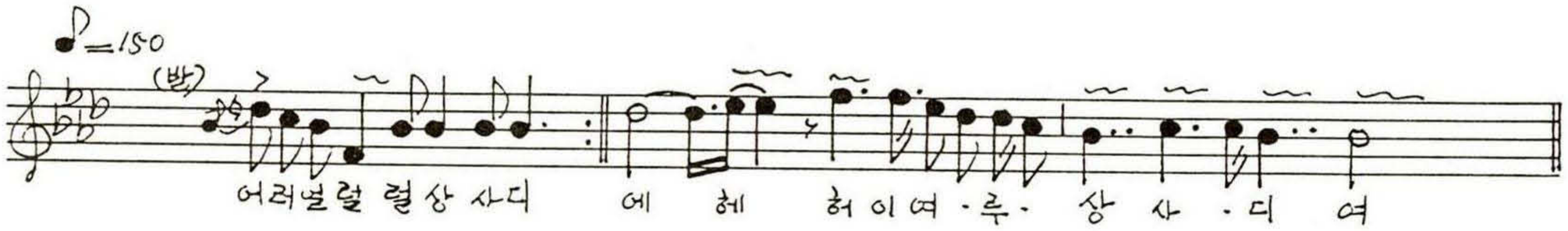


〈홍주 20〉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

모 심 기

박원제(1919.남.土民)唱
素 87-3-30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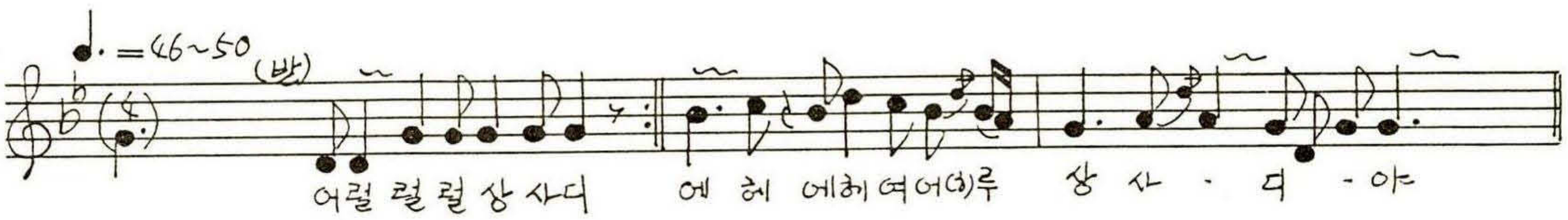
★ 참고用



(메) 여봐라 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오보소 아하농부야 말들어.
어덕밑엘랑은 콩패어심고, 앞가심엘랑은 훔쳐서 심세/
여봐라 농부님네 이내말을 들어보소 아하 농부야 말들어.
셋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이게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반달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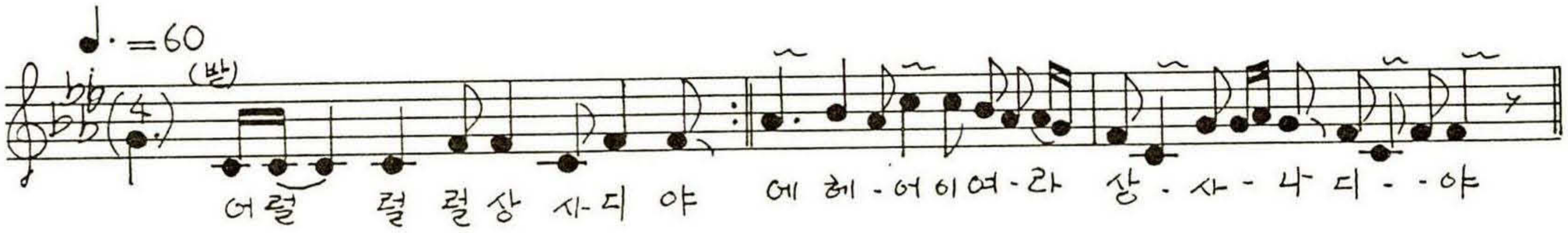
〈홍주 21〉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모 심 기** 강수로(1921.남.土民)唱
素 87-3-30②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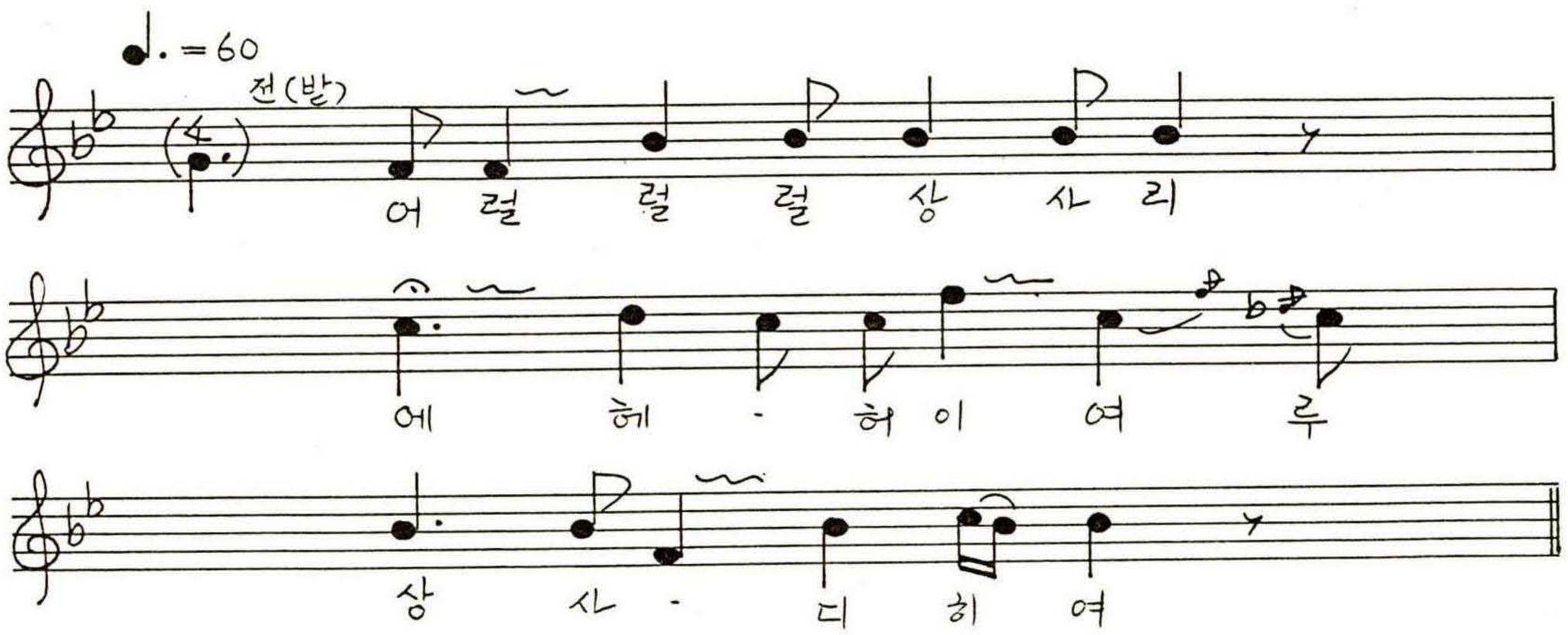
〈홍주 22〉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모 심 기** 윤종필(1900.남.土民 호적명은 복길)唱
素 87-4-17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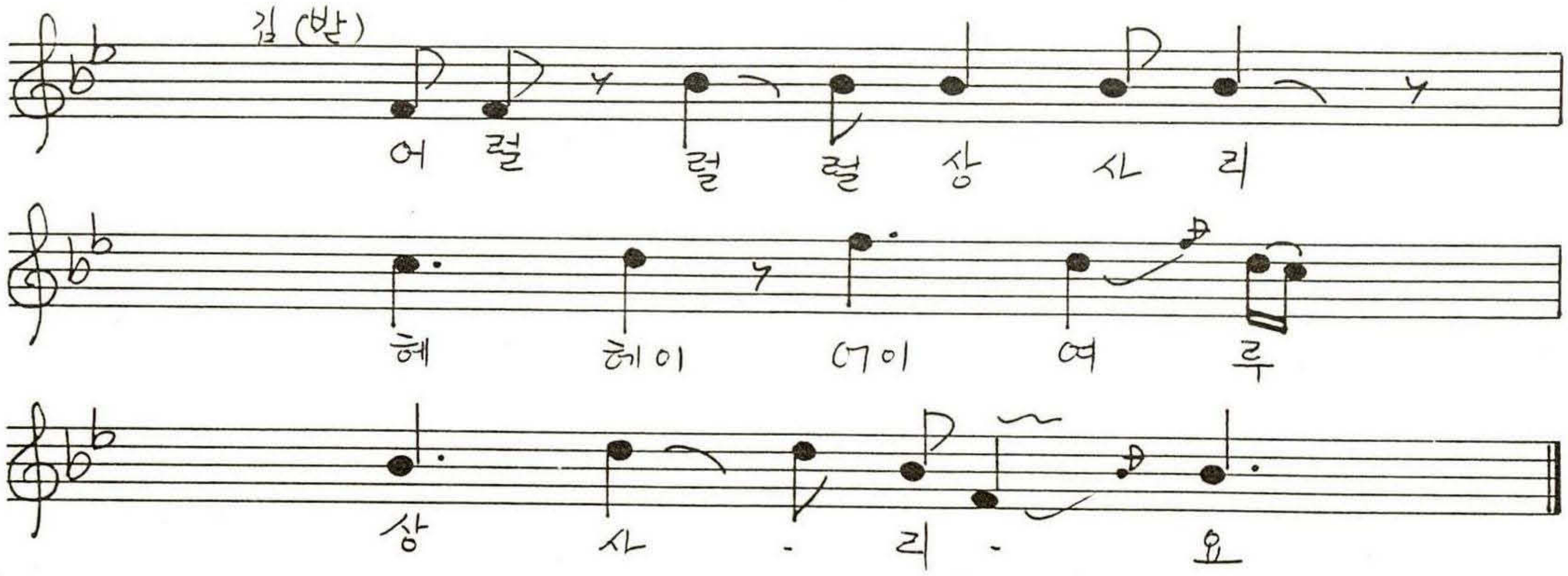


(메) 오늘날 여기서놀고 내일날은 어디가 노냐/

〈홍주 23〉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유송리 **모 심 는 소 리** 전복한·김명복
素 94-3-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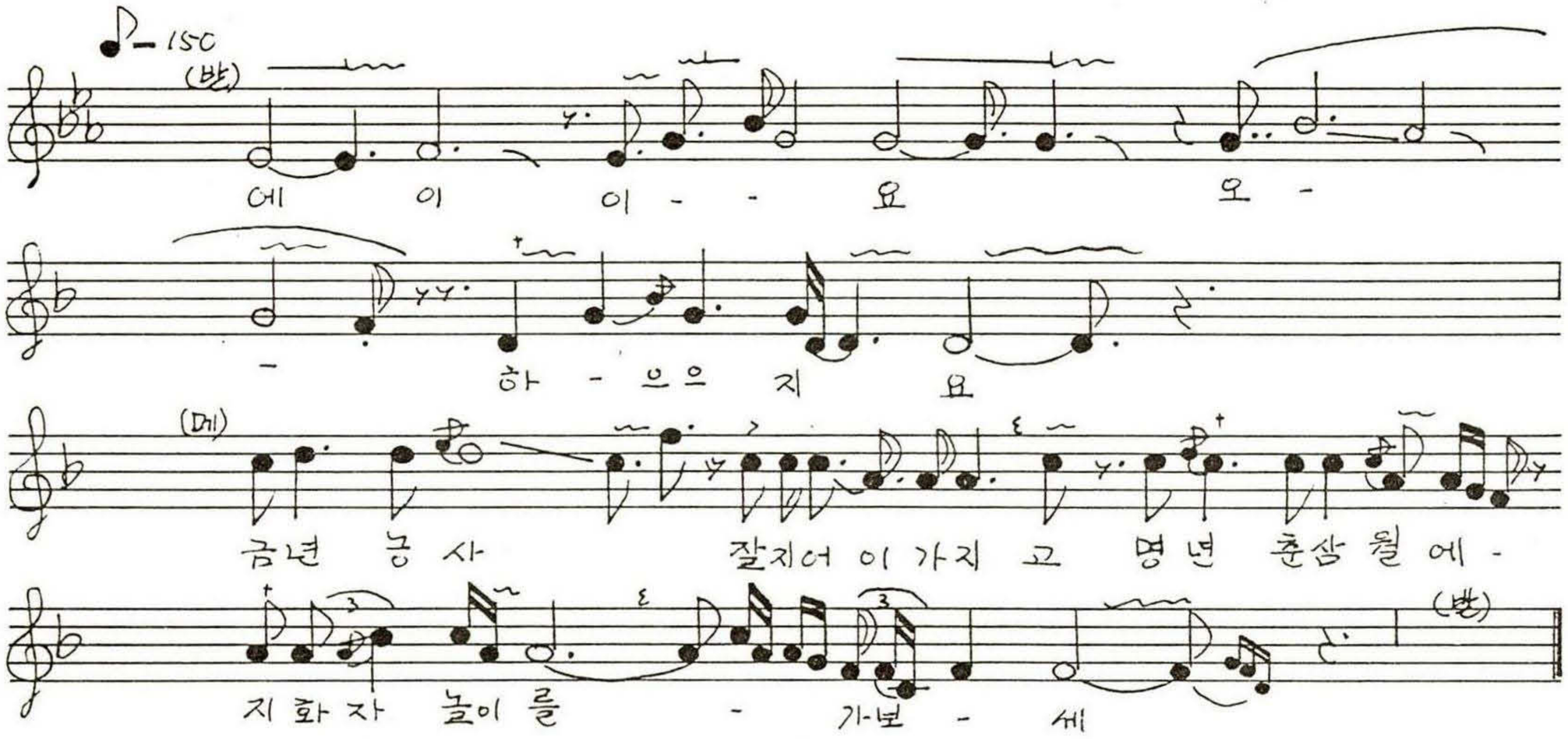
김 (메) ○ 우리가 살며는 몇백년 사나
살아서 생전에 요렇게 놀아 봅시다.
○ 니가 잘나서 일삭 이더냐
〈색〉
내눈이 어두워 환장이지



〈홍주 24〉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모 심 는 소 리

우준(1940.남.20대째 거주 土民)唱
素 87-3-30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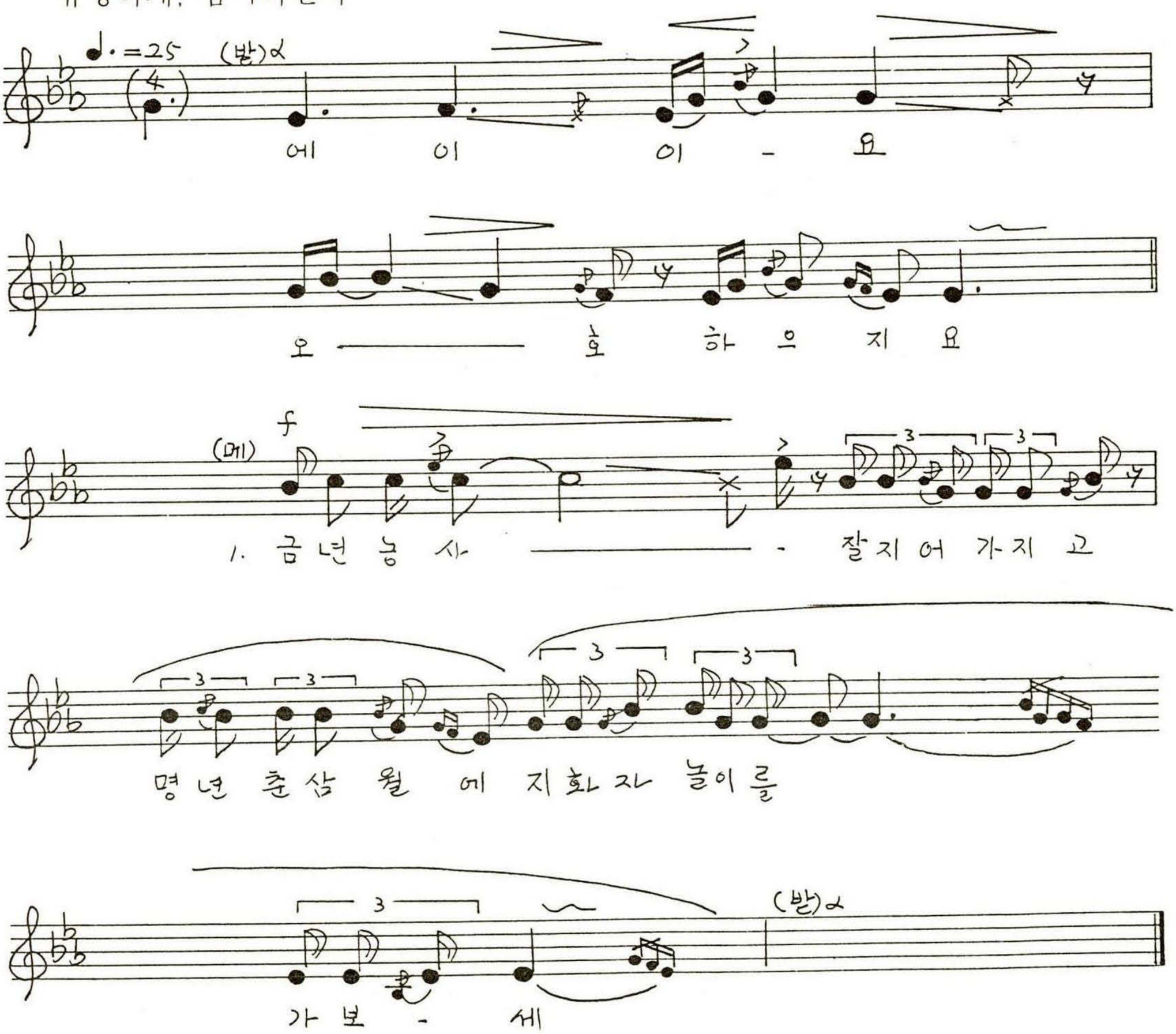
(메)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늙어간다/
금년농사-잘지어가지고, 명년춘삼월에 지화자놀이를 가보세/
산지조종은 곤륜산이고요, 수지나조종은 황해수라/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녁에 저달이 솟네/

〈홍주 25〉

하 지 소 리

〈S · R〉

유장하게, 음미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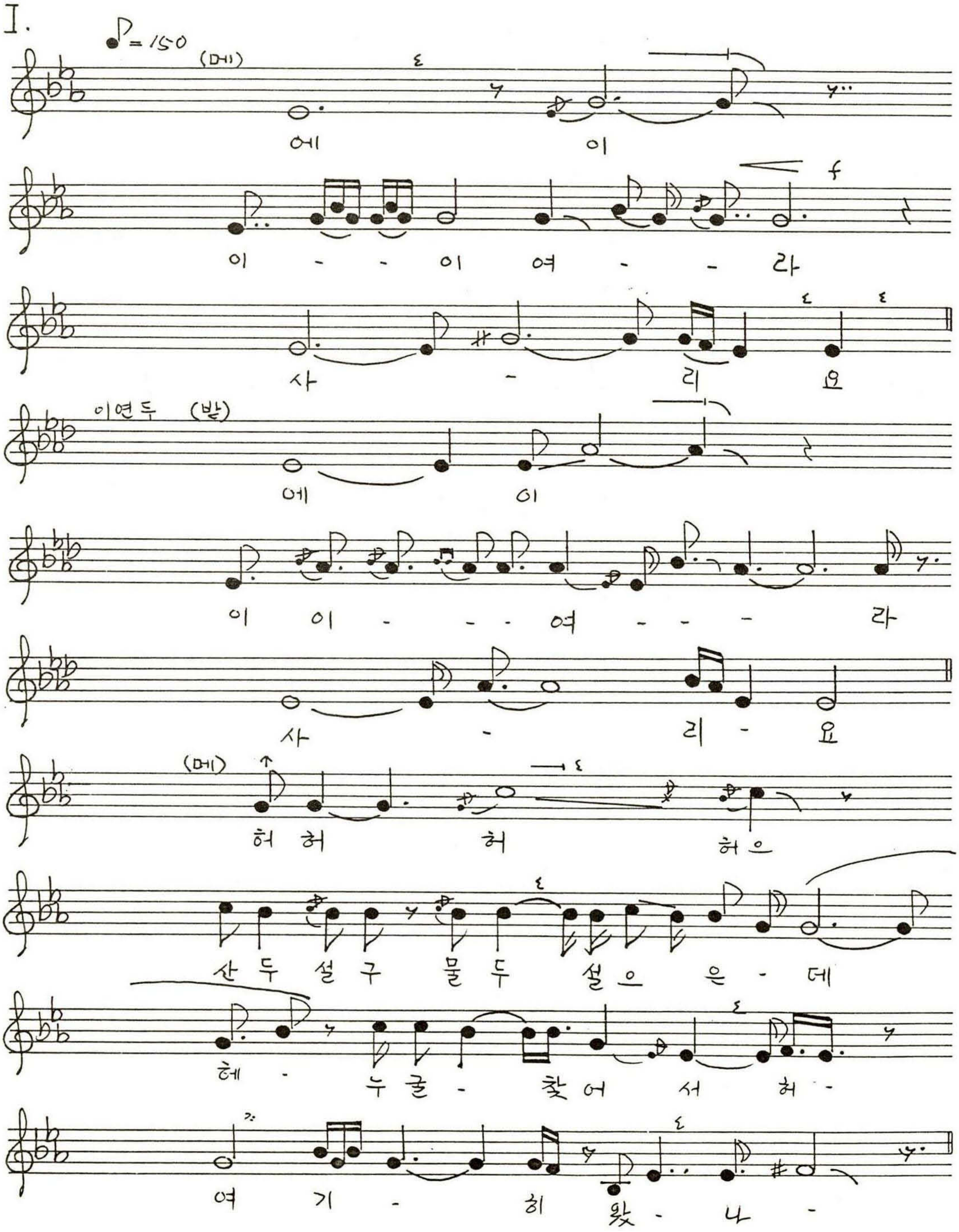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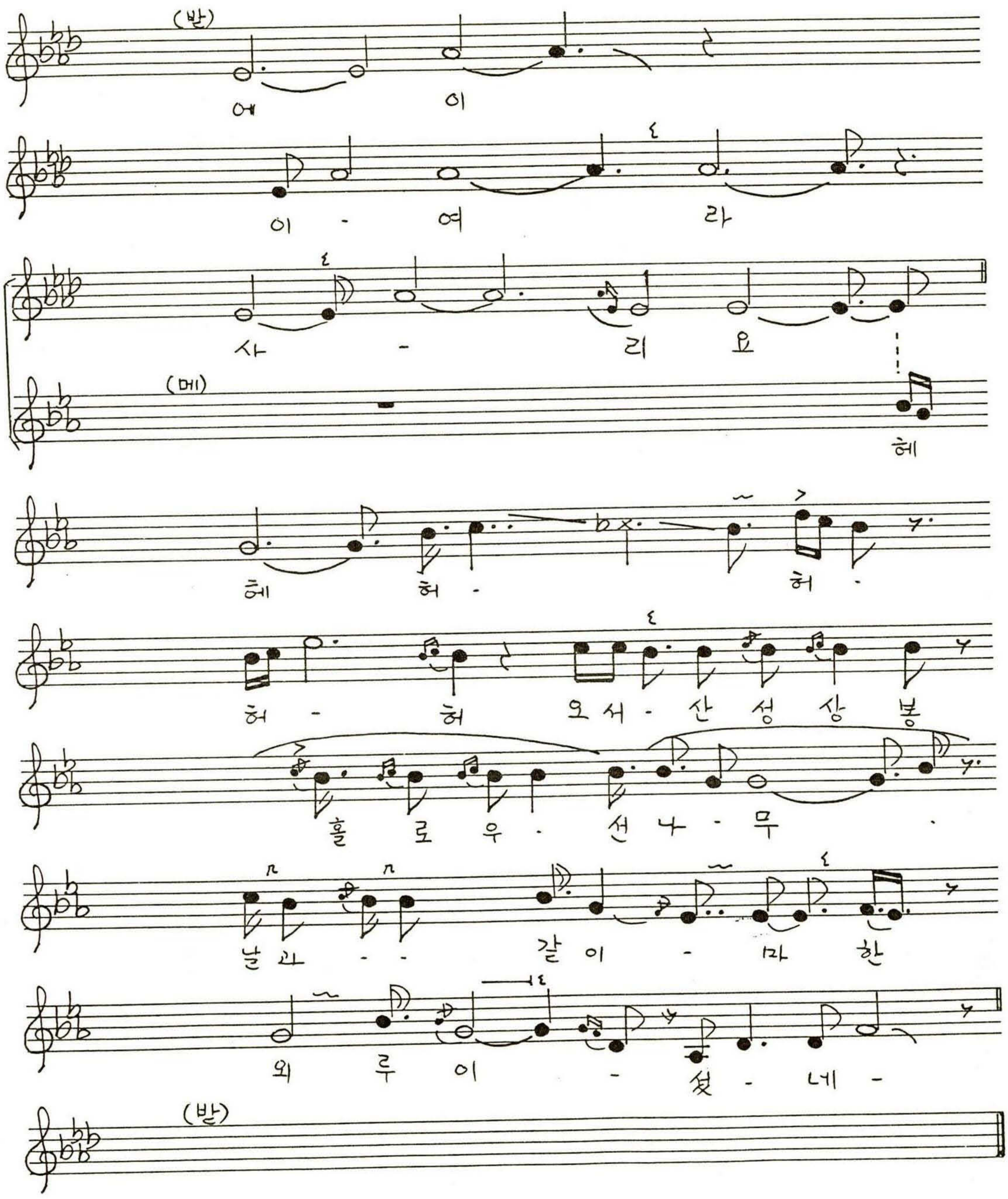
(메) 2. 오늘날으 - ㄴ 여기서 놀고,
내일날은 어디서 노 - 나/
3. 오수산 꼭대기 -, 먹구름 모였다
소나기 삼형제 거기들었 - 다.

〈홍주 26〉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모 심 는 소 리

(메)이사용(1927.남.土民)
(받)이연두·이순필·전원표
조춘성·심상일
素 94-3-12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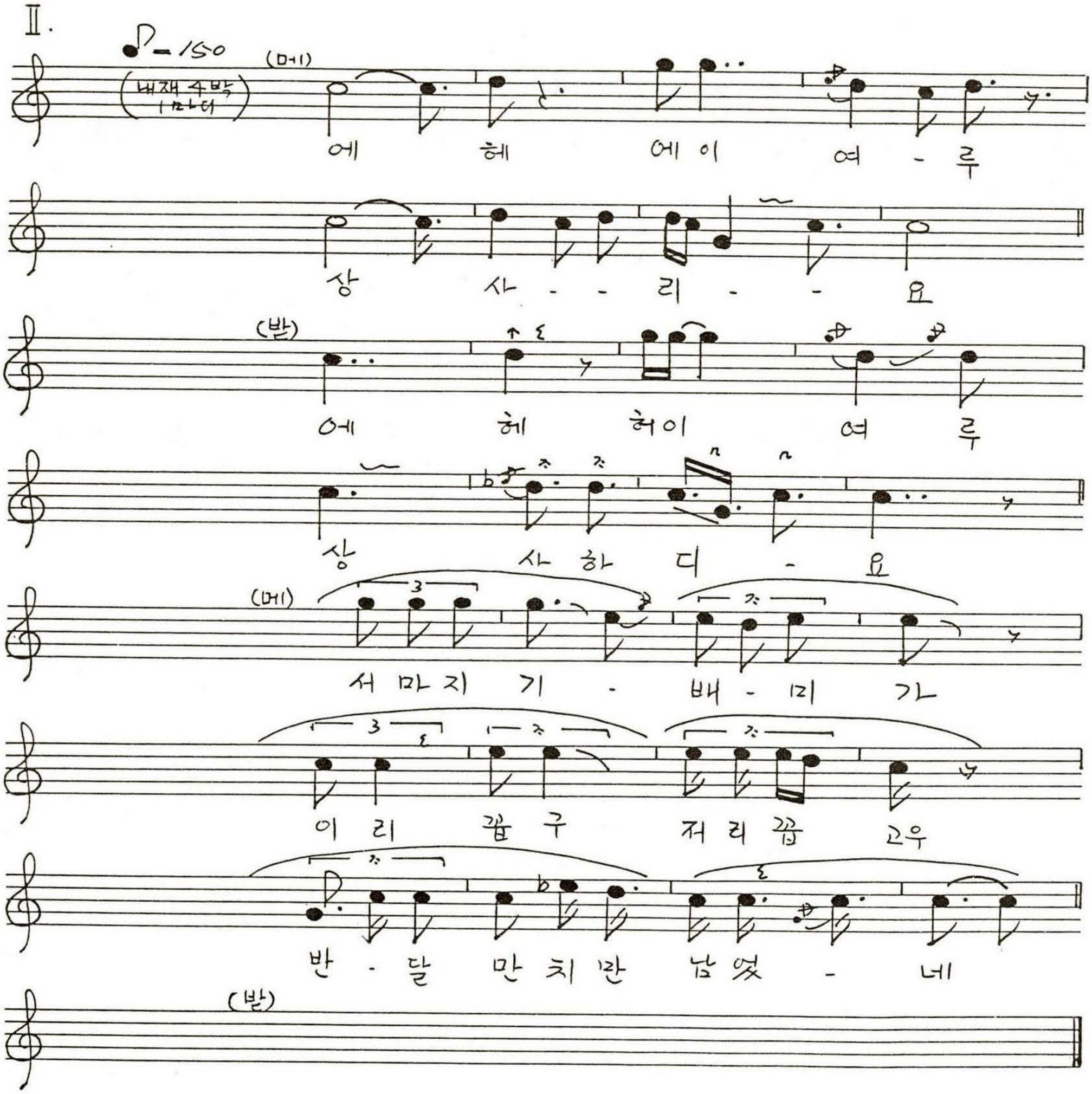




(메) ○ 헤헤 허-허, 허-허,
말은 가자구 네굽을 놓는데
임은 붙들고 낙로(루)를 허네

○ 헤헤 허-허, 허허,
산중 귀물은 머루나 다랜데 헤에
인간 귀물은 나하나 뿐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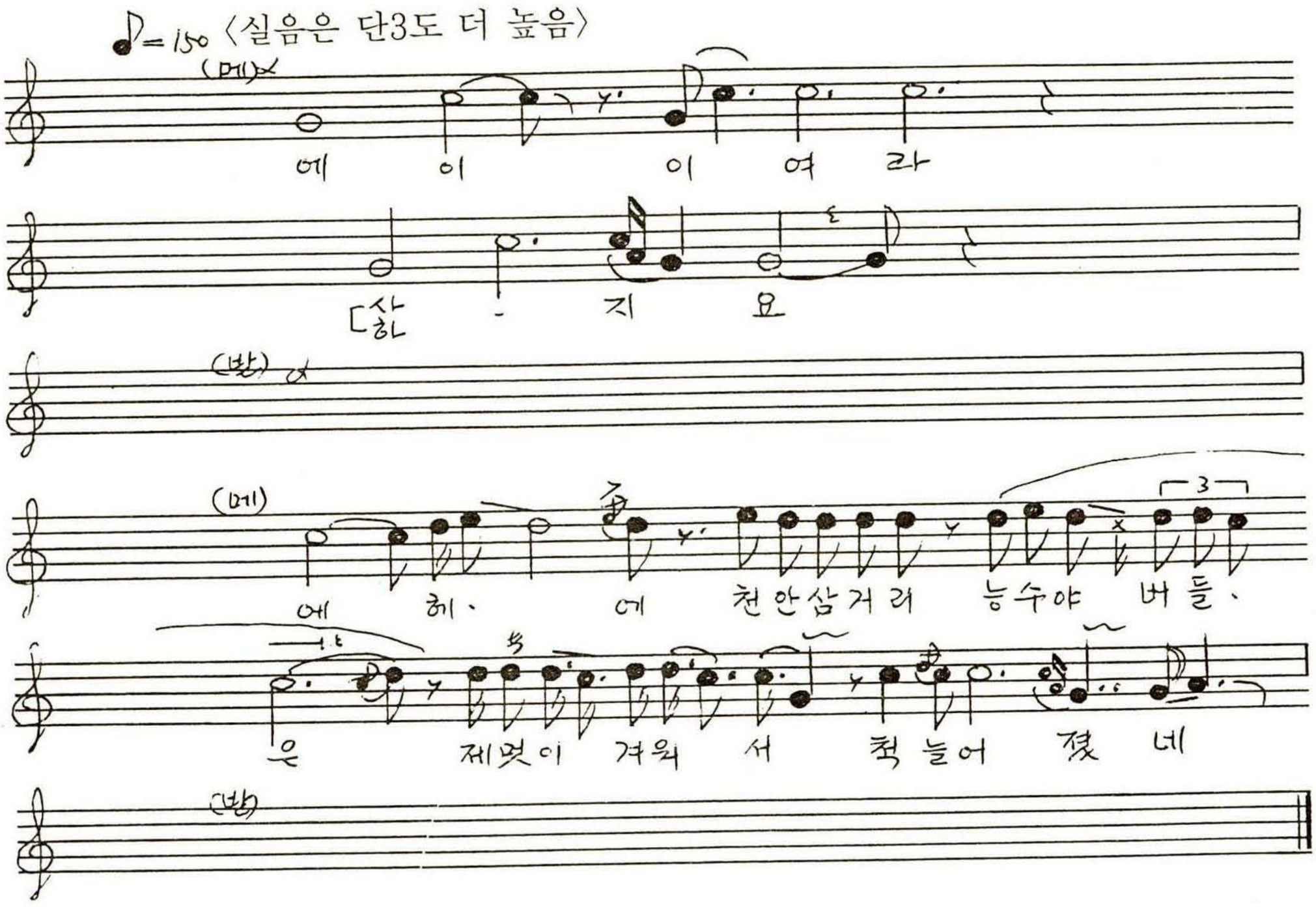
○ 헤헤 허-허, 허허,
수천당 세모진 가지에 이
높드락이 그네 매고
○ 헤헤 허-허, 허허,
귀물명산(인) 만장봉(이)
바람 분다고 쓰러를 지랴
○ 헤헤 허-허, 허허,
청사초롱에 불밝혀 놓아라
죽었던 낭군이 또 살아오네
○ 헤헤 허-허, 허허
말은 가자고 낙루를 허는디
임은 말자고 낙루를 허네



〈홍주 27〉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모 심 는 소 리

(메)이태훈(1921.남.土民)
(받)김순삼(1939.남.土民)
아명은 김정옥
素 90-2-2④B



(메) 에헤에 우리가 살으며는 몇백년 몇천년 사드란 말이냐,
살어서 생전에 맘대로 노세/
에헤에 천질만질 뚝 떨어져는 살어도
임 떨어지고는 나 못살겠네/
에헤에 열두살 먹어서 장구통을 메이니 구지월 꽁무니 갈보네/
에헤에 금전이 중터냐 인간이 중한것, 두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라/

〈홍주 28〉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상 사** 이태훈(90-2-20⑤A)唱

★ 참고用
(단, (받)은 안정됨)

♩. = 60~67

(메)
저 건 너 갈 미 봉 에
거 무 렇 게 떠 오 는 게 비 아 니 냐
우 장 을 허 리 다 - 두 르 고 -
물 꼬 맥 이 를 가 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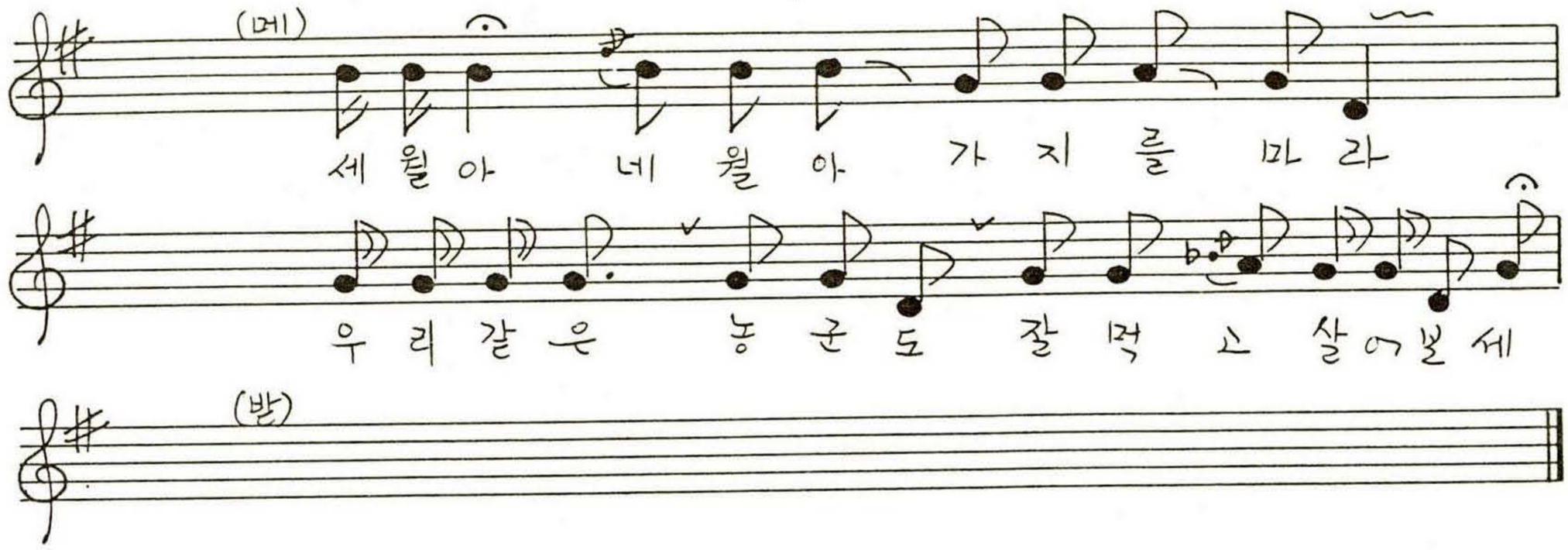
(받)
에 ——— 이 어이 여 - 루
상 사 하 디 - 요

〈홍주 29〉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인산리 **모 심 는 소 리** (메)박종서(1925.남.봉서리土民) (받)민재식(1913.남.인산리土民) 素 94-3-11[B]

★ 참고用 (녹음 불량)

(메)
에 이 여 리 상 사 디 - 여

(받)
에 이 여 - 리 상 사 디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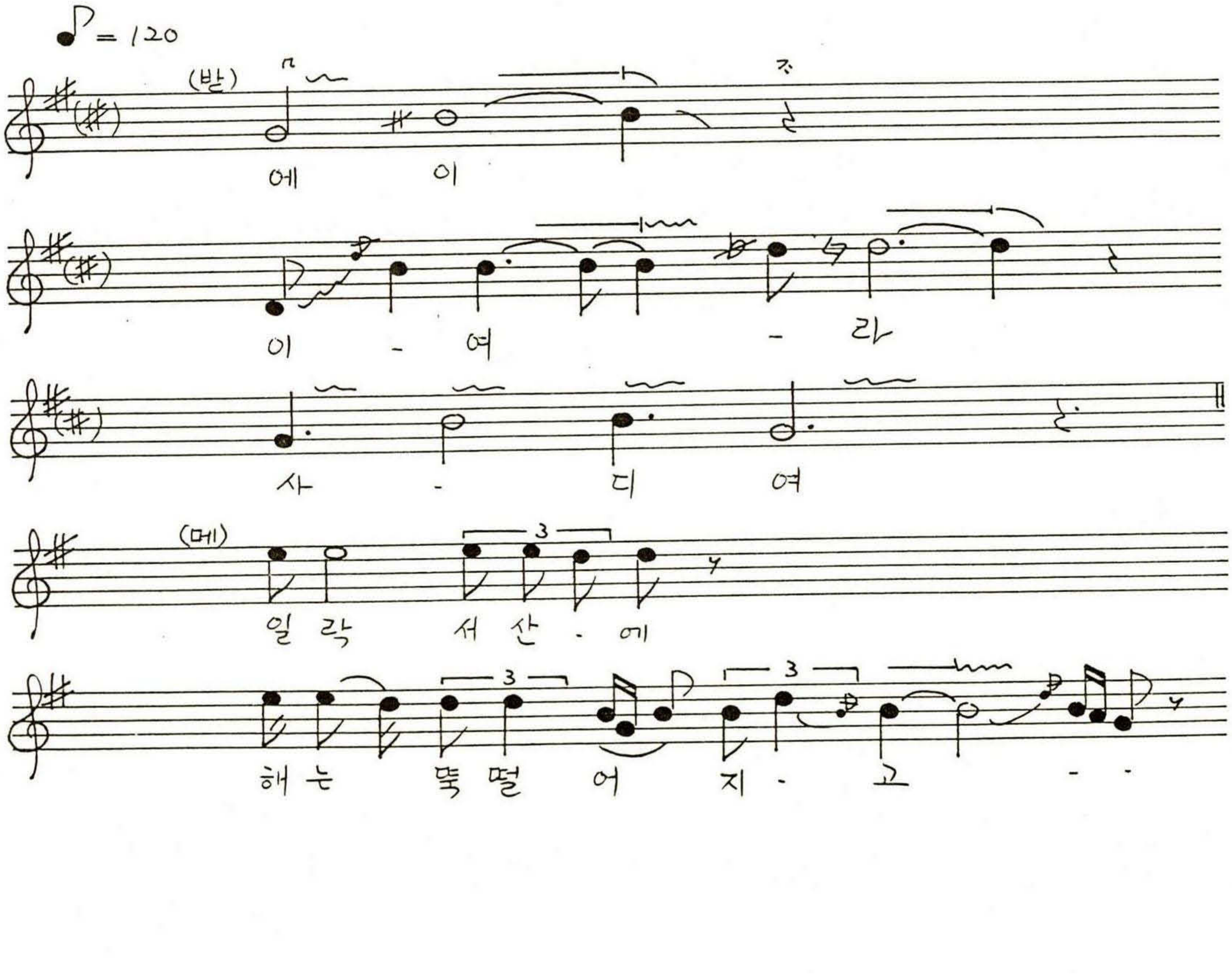
(메) ○ 들어서세 들어서세
모심으러 들어서세
○ 가세 가세
모심어 나가세
이배미를 심구서
또 심을 자리가 많구나
○ 또 심고 또 심고
이배미를 다 심어
농사짓기를 힘씁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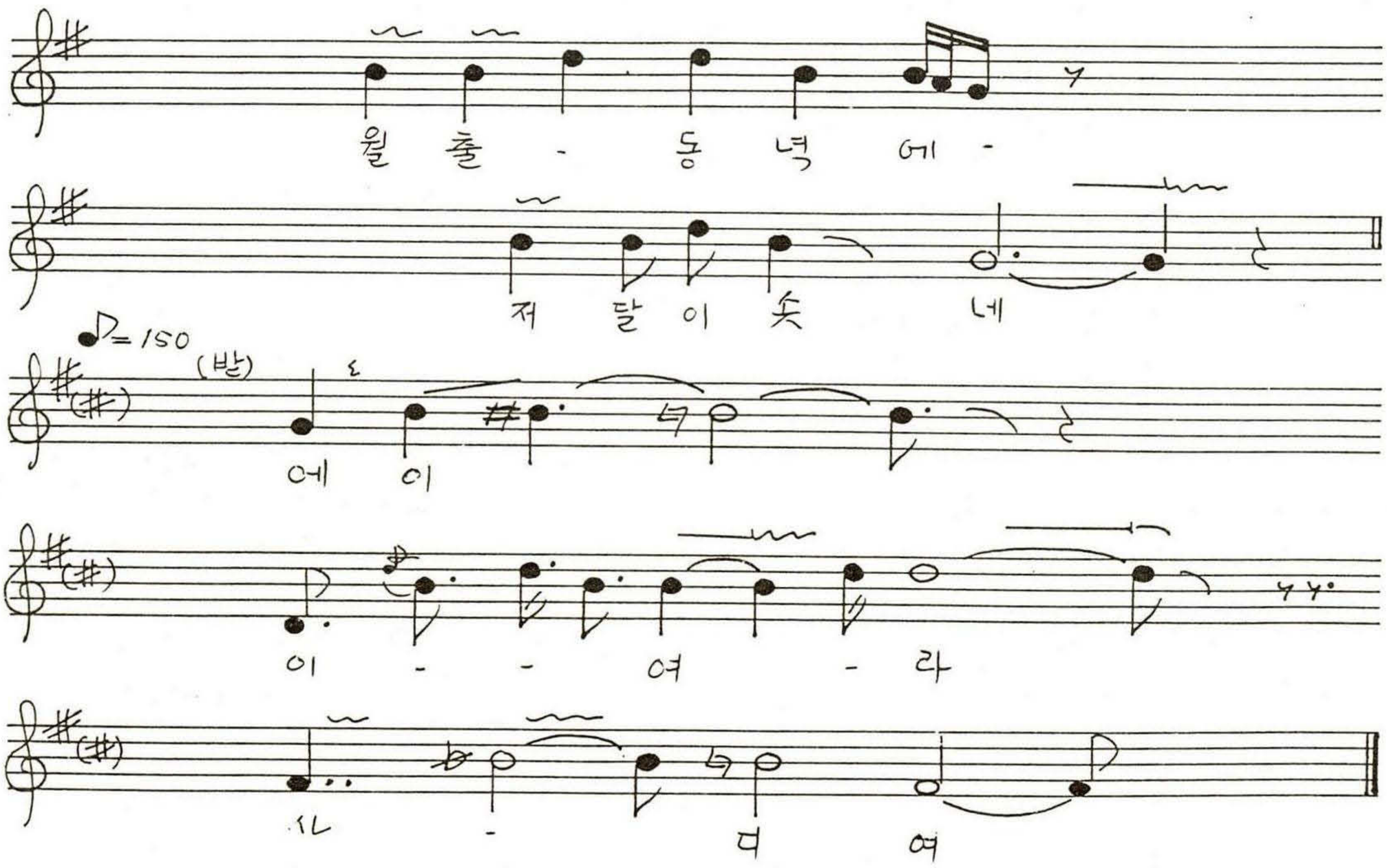
○ 이배미를 다 심었으니
여럿배미로 또 들어간다
여럿배미 또 심고
녹음 밑이가 또 남었구나
○ 다심었다 다심었다
열다섯배미를 다심었다
풍년을 가야카고
(귀약하고)
풍년중에 우리도 잘 살으세

〈홍주 30〉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모 심 는 소 리

송학기(1926.남.土民)唱
素 94-2-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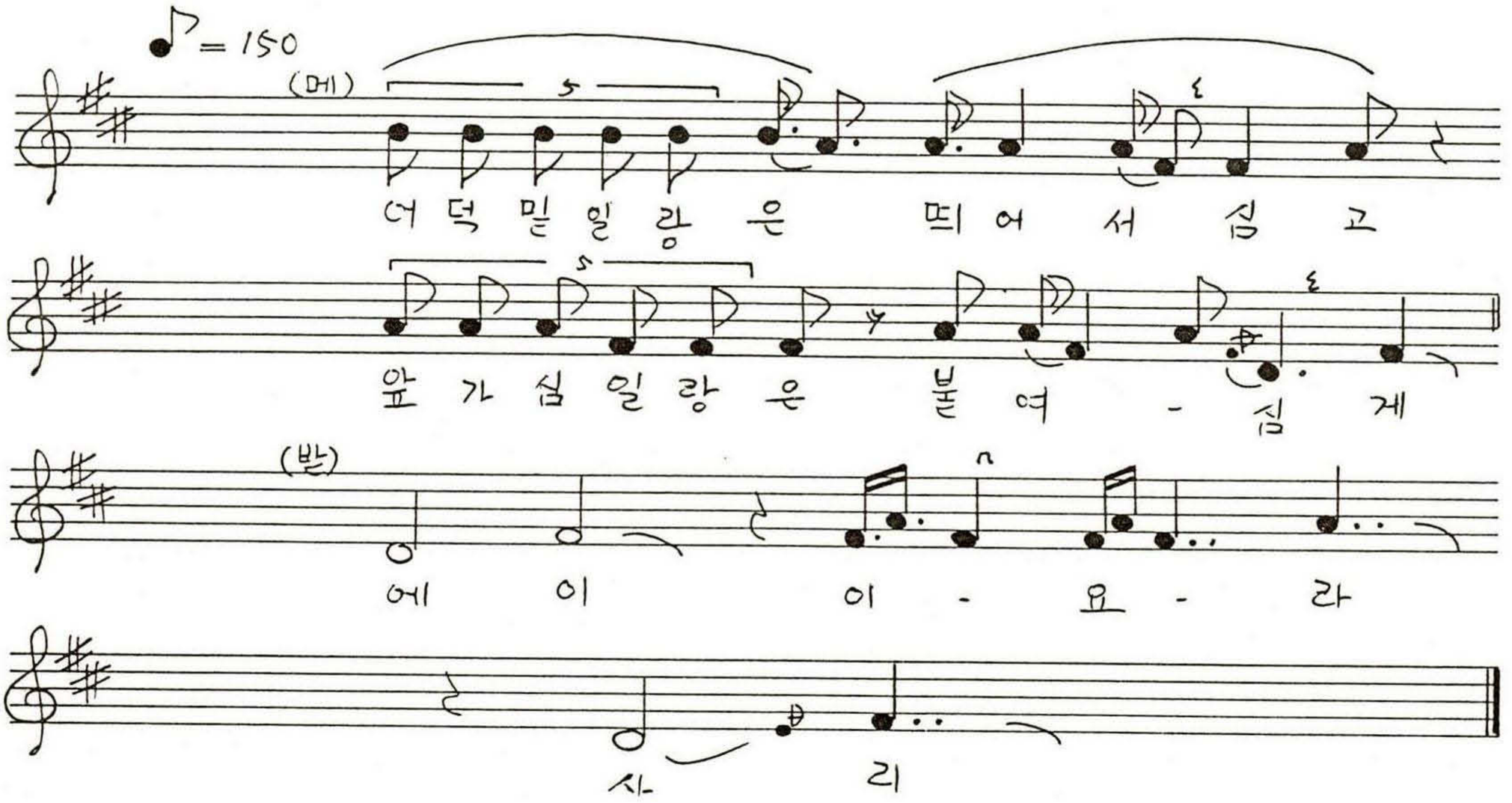




〈홍주 31〉 홍성군 장곡면 월계2구

모 심 는 소 리

최주복(1916.남.土民)唱
素. 94-2-27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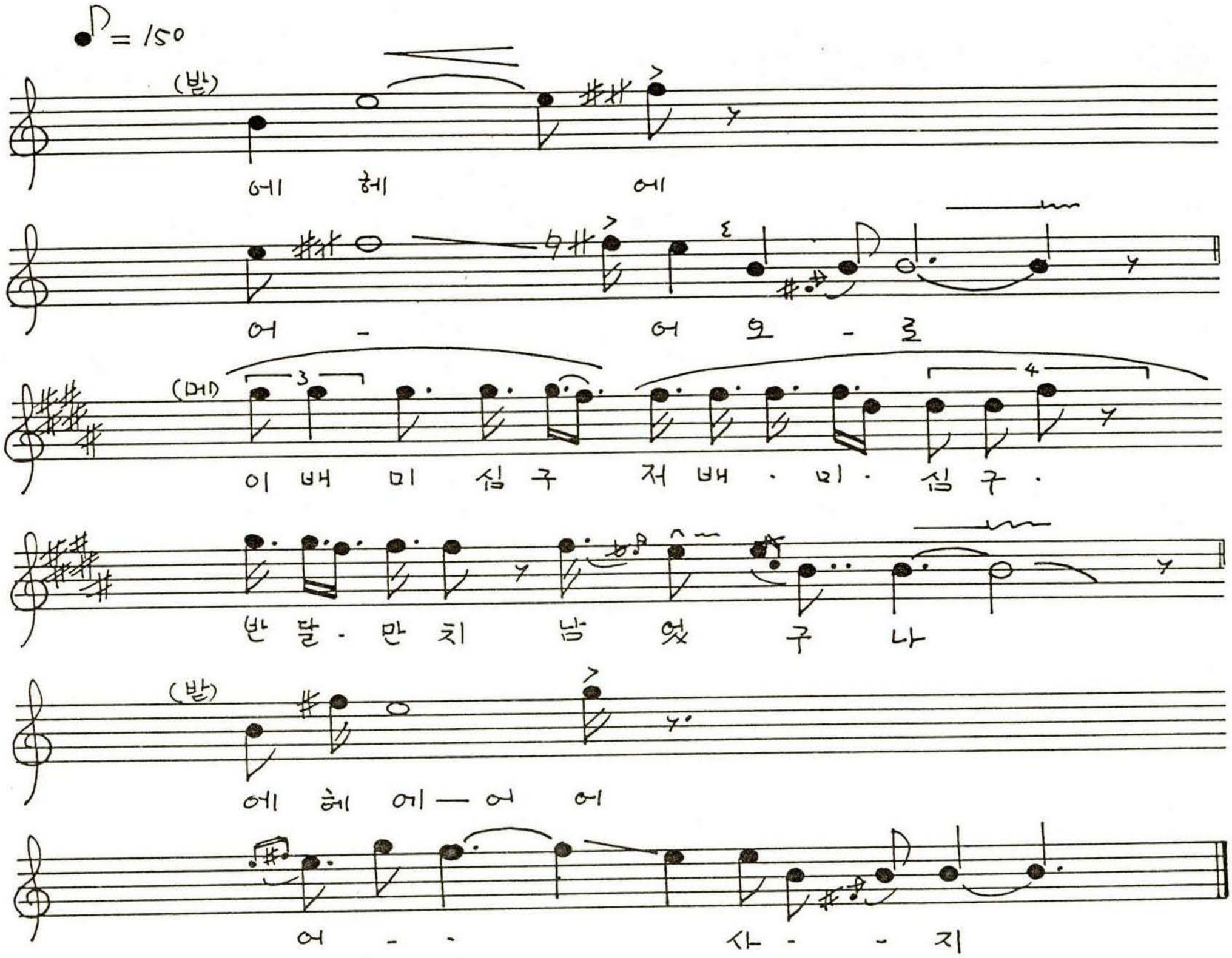


(메) 골목골목은 연기만 나는데
각신각신 심읍시다.

〈홍주 32〉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사지소리(모심기)

김항제(89-11-28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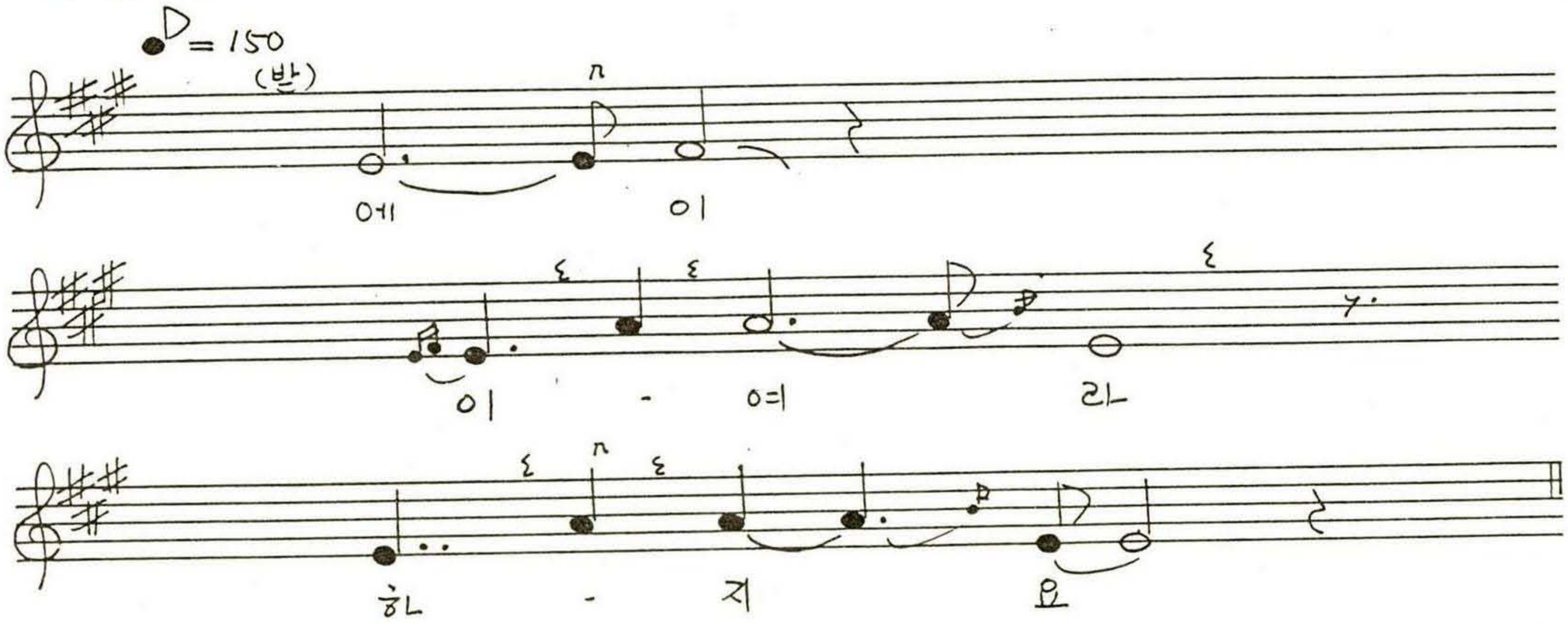


〈홍주 33〉 홍성군 장곡면 오성

하지소리(모심기)

안산옥(1919.남.土民) 89-11-28B

★ 참고用



(메) 이 배 미 빨 리 - - - - 심 고 - 장 구 배 미 · 루 건 너 - 가 세 (받) 에 이 에 이 - - 여 - 라 - 지 - 요

〈홍주 34〉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1구(대부동) **모 심 는 소 리** 강창식(1935.남.土民)唱 素. 94-3-11[A]

♩=150

(받) 에 이 - 사 지 - 요

(메) 우 리 가 이 모 를 캐 나 서 일 가 · 간 이 어 렵 지 · 않 게

모 를 심 어 보 세

(받) 에 - 사 - - 디 요

〈홍주 35〉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모 심 는 소 리

김윤재(1915.남.장곡면광성리 출생. 해방전인 1940년경에 화계리 이주)
素 90-2-2④A

★ 참고用 (∵녹음상태 불량)

♪= 150 (메기)

청 천 (하 느 을 -)

잔 별 도 - 많 (고 - -)

요 내 가 삼 (엔 -)

수 심 두 많 에

(받) 에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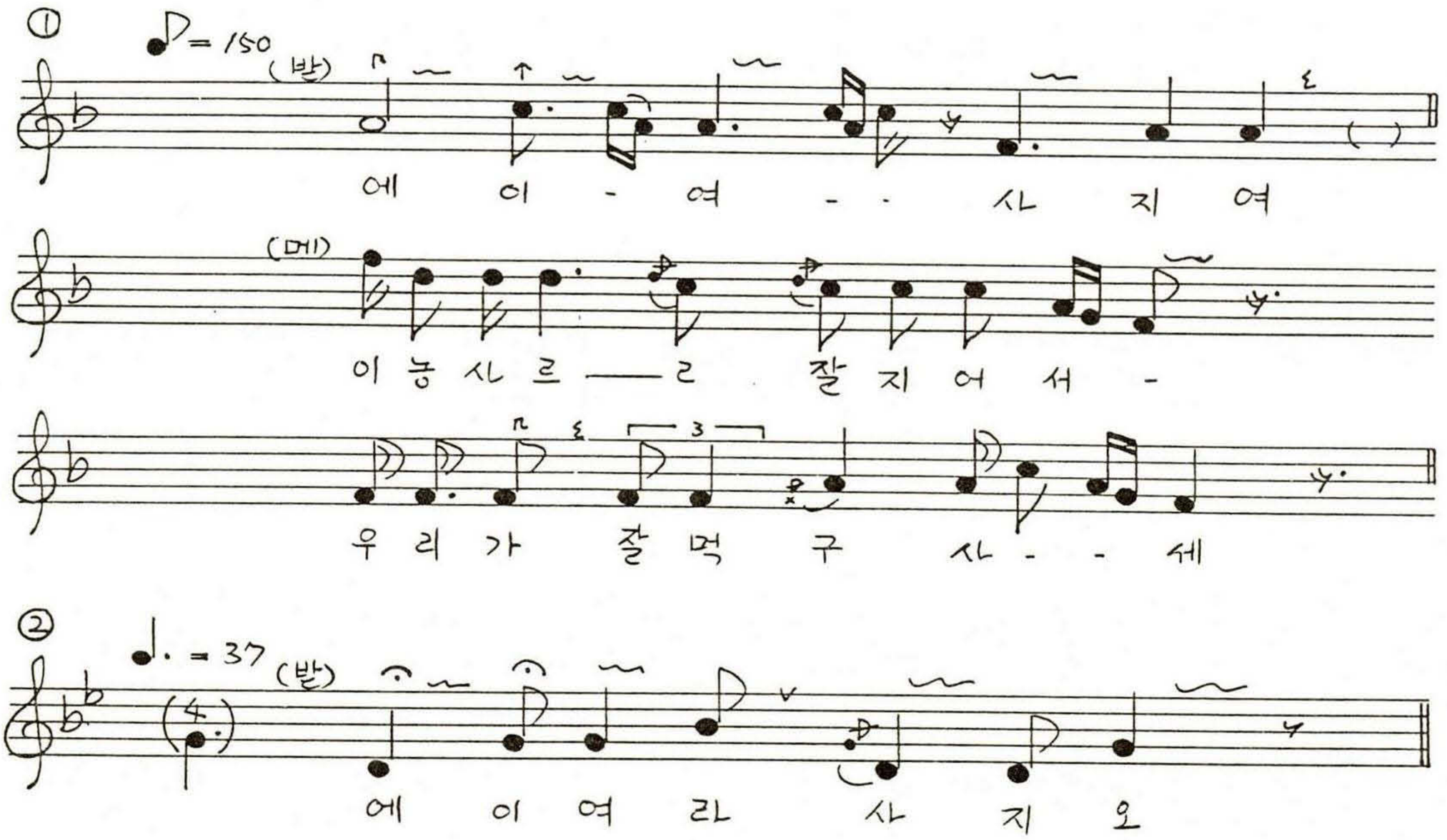
이 - - 요 라

하 지 - 요

〈홍주 36〉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모 심 는 사지**

①김기운(1923.남.지정1구土民)
②이은기(1937.남.지정2구土民)
素 94-2-27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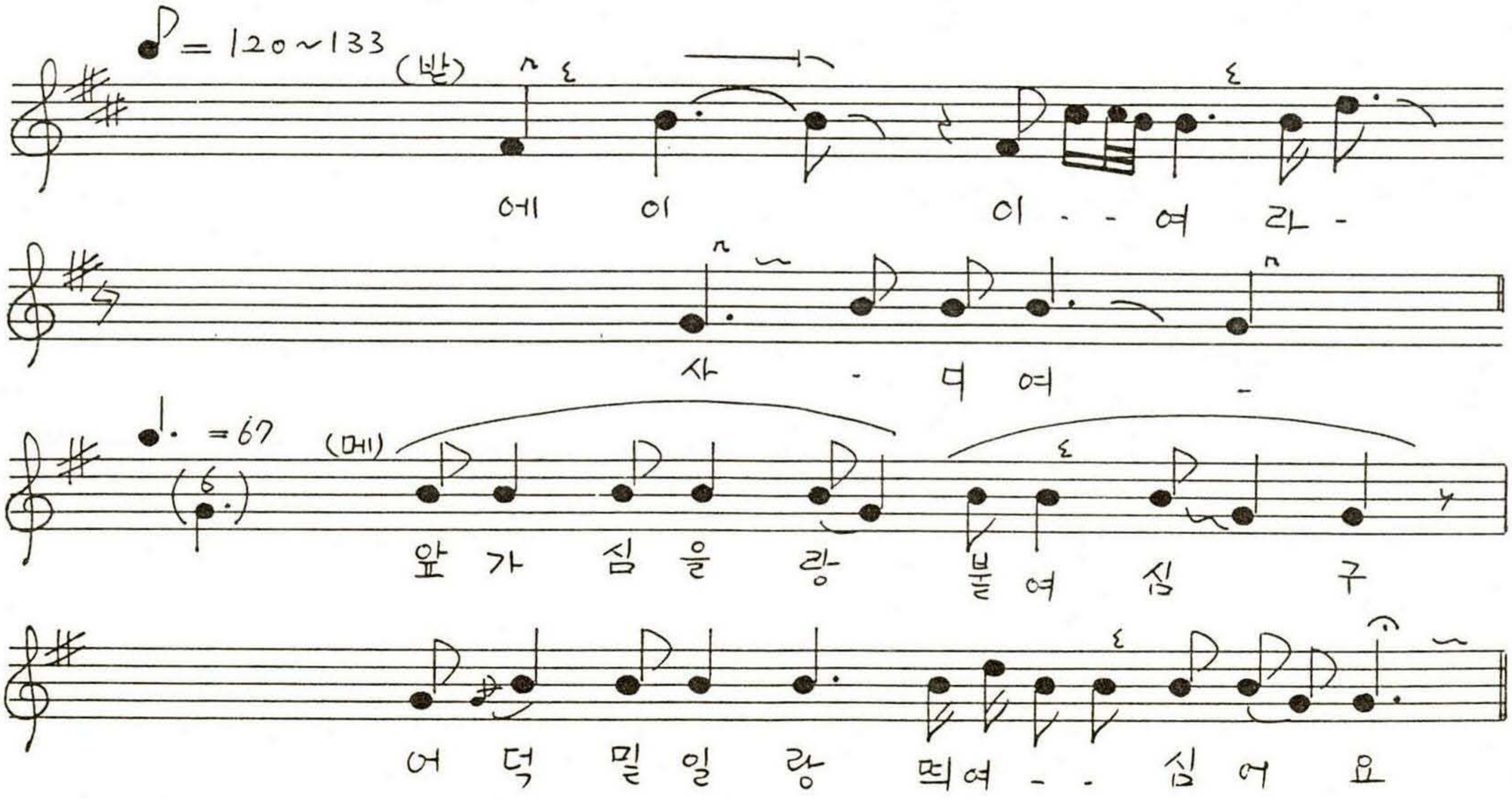
★ 참고用



(메)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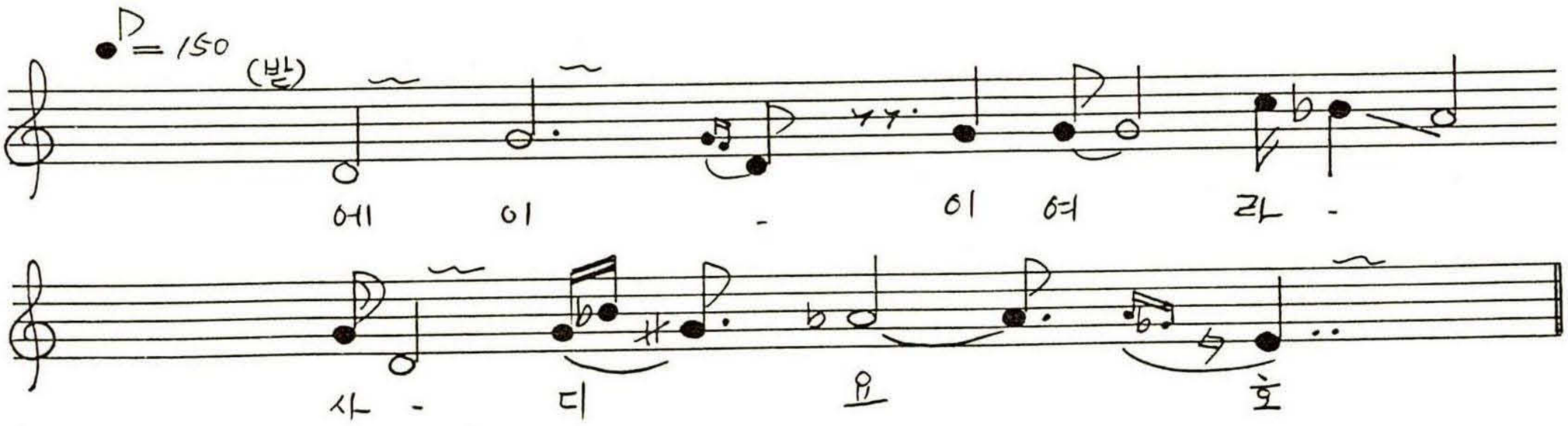
〈홍주 37〉 홍성군 장곡면 행정1구 **모 심 는 사디**

송상현(1921.남.土民)唱
素 94-2-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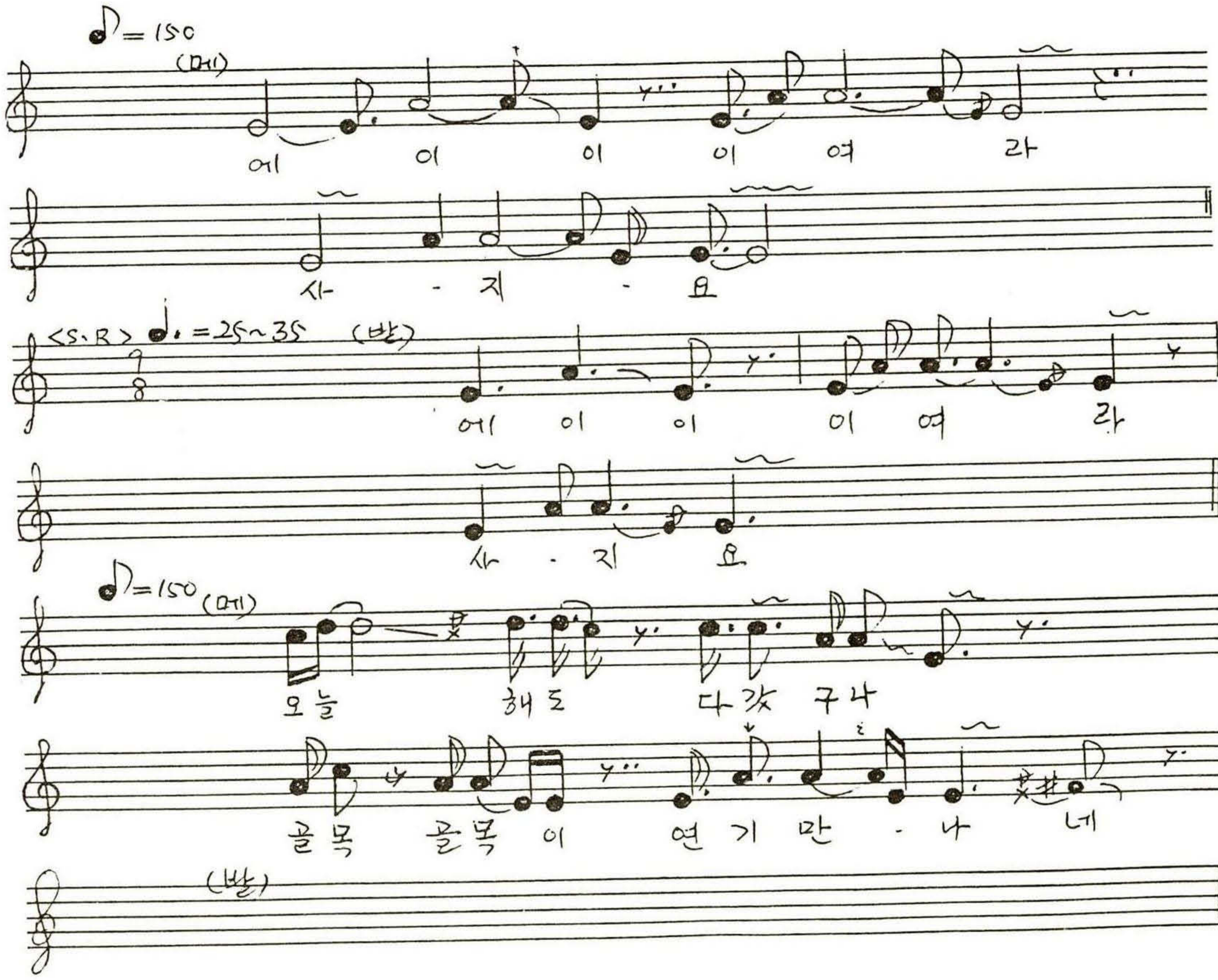
〈홍주 38〉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공수 **모 심 는 사디**

김이동(69.남.홍동면 원천리출생) 21세에 공수 이주해서 사디를 배웠음)唱
素. 94-2-28[A]



〈홍주 39〉 홍성군 **사지소리(모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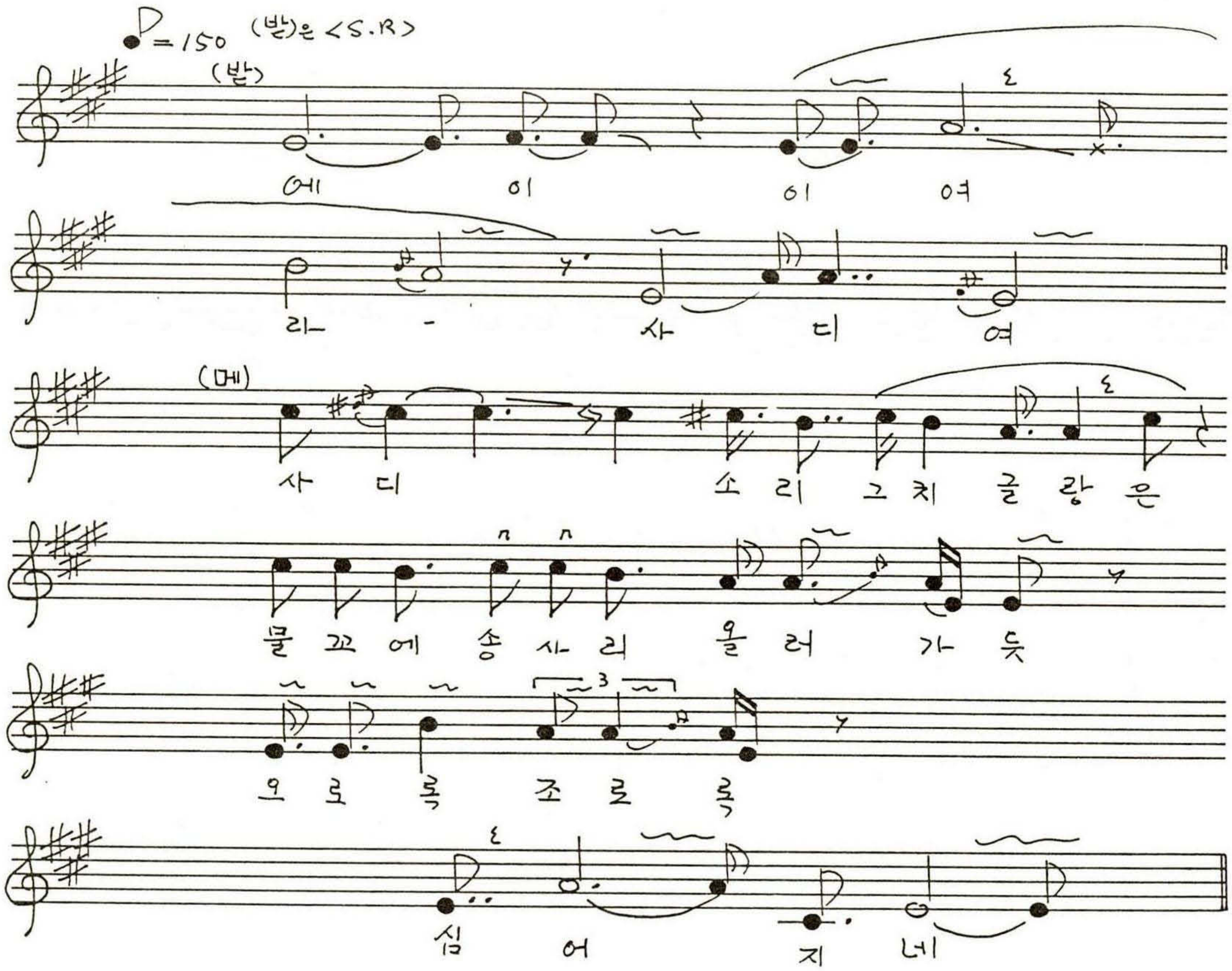
(메)배선직(1928.남.은하면 장척리 장자울土民)
(받)배선직·배신희·배만희·배인희
素 90-2-1[①A]



〈홍주 40〉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모심는 소리(사디)

김유돈(1907.남.土民)唱
89-11-3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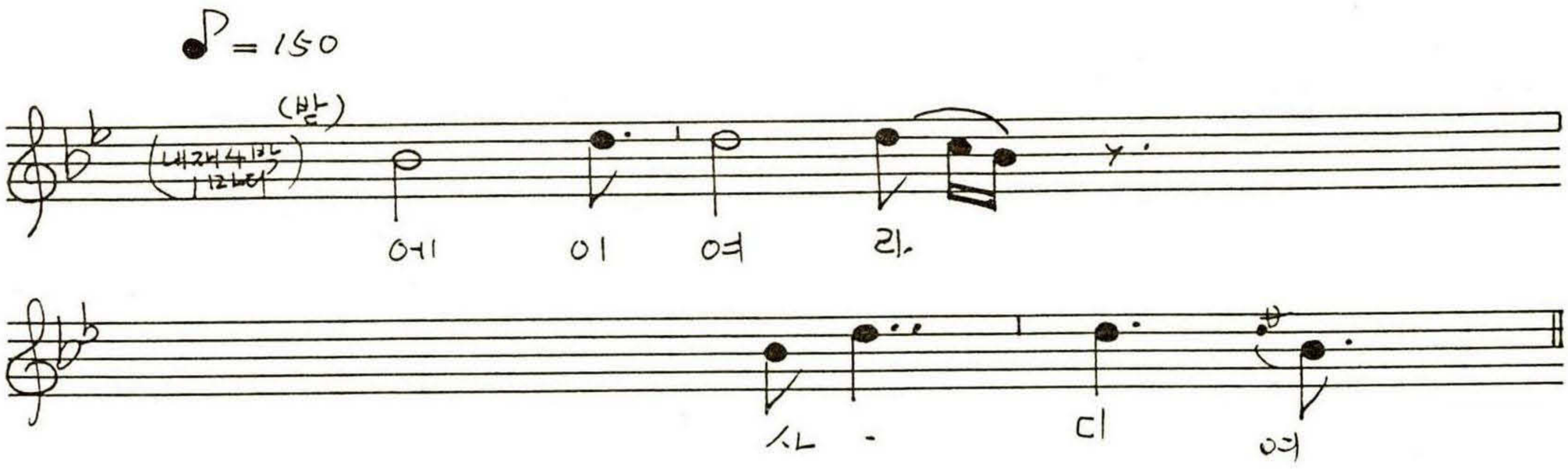


(메)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해수로다
○ 오늘해는 다 갔는디
골목골목에 연기만 돈다
○ 인생백년은 얼마나되는지
우리한번 황천가며는
영 그만 이로구나

〈홍주 41〉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사디소리(모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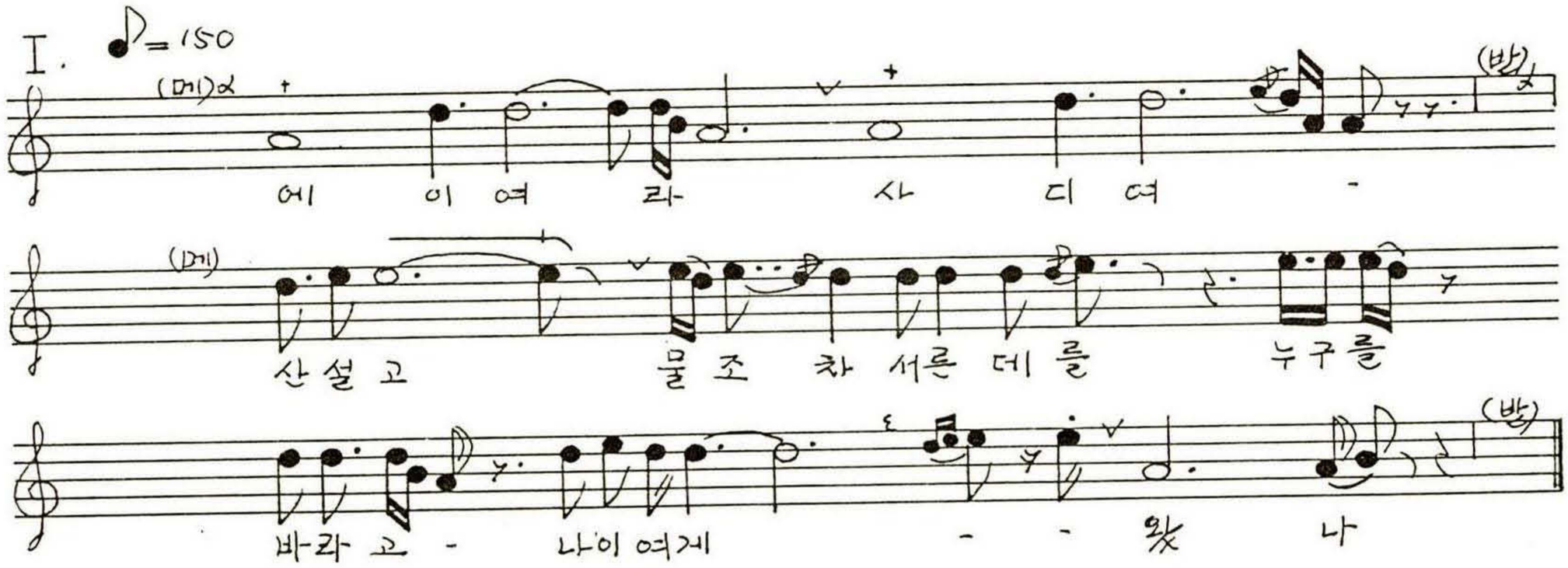
최사방(1907.남.土民)唱
素 90-2-3⑦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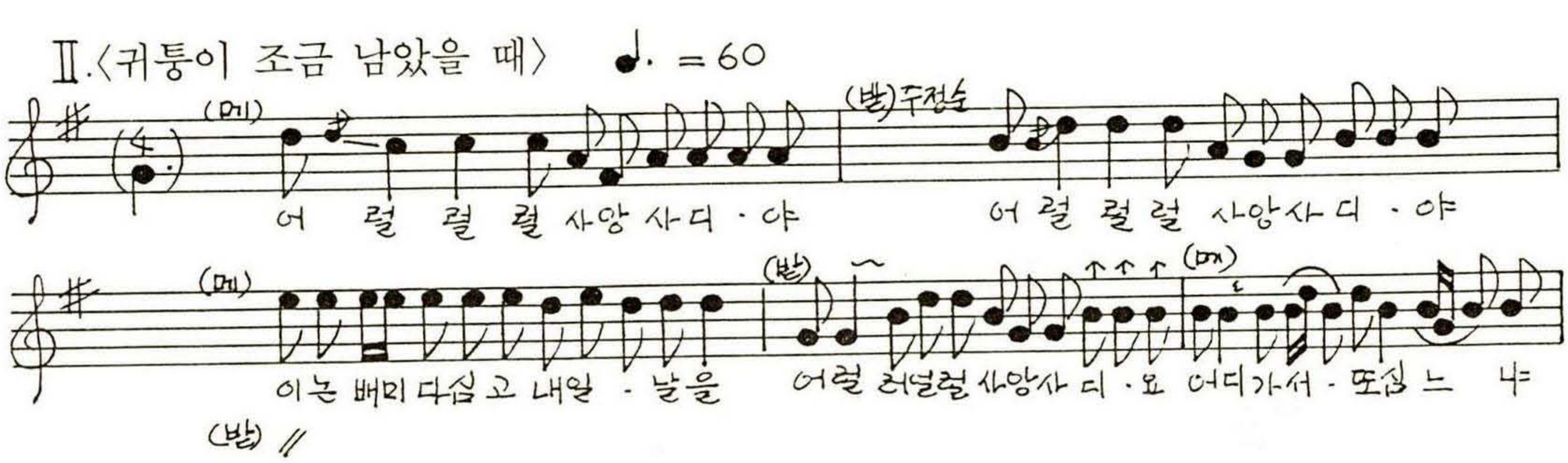
〈홍주 42〉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모 심 기

(메)주정순(1927.남.土民)唱
(받)주한노(1927),주정복(1927)
素.87-3-30③B



(메) 울퉁불퉁에 저남산보소, 우리도 죽으면 저모냥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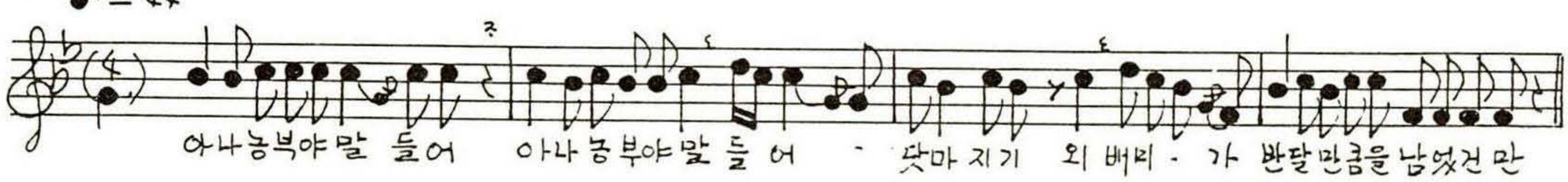
〈홍주 43〉 홍성군 광천읍 매현마을

모 심 기

황후성(1904.남.土民)唱
素 86-3-25②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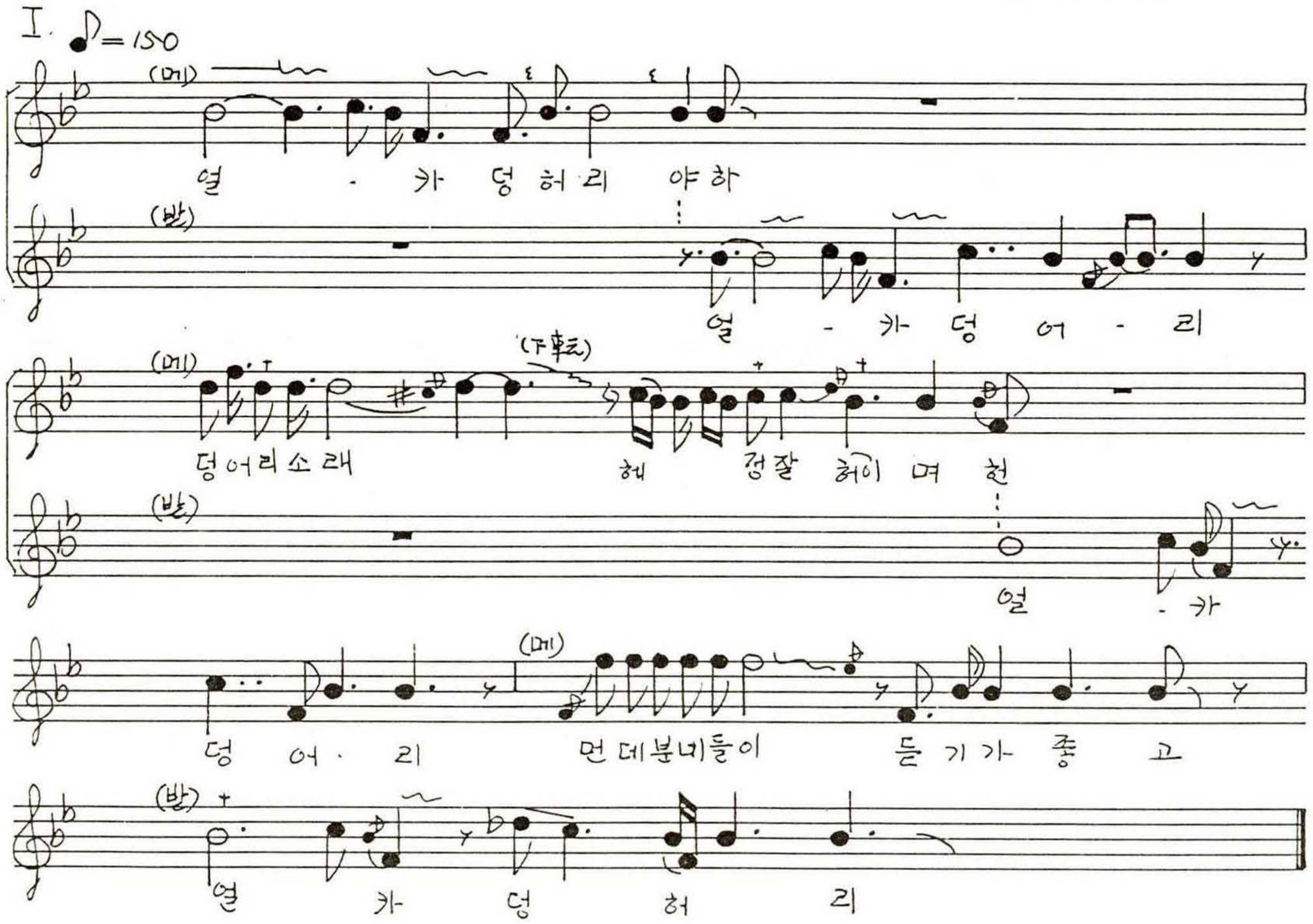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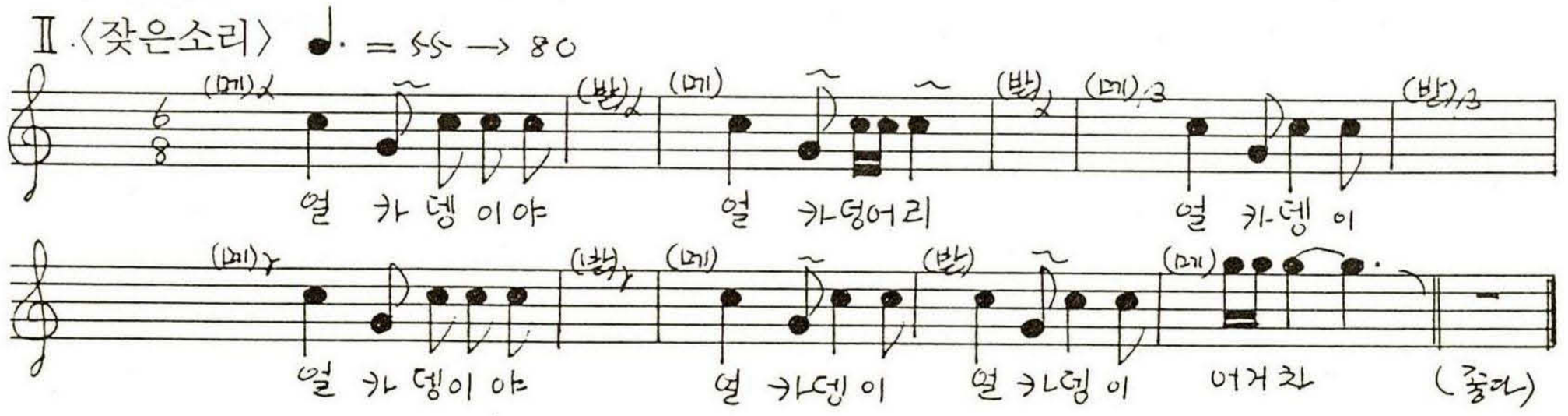
〈홍주 44〉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도

얼 카 덩 어 리

(메)박원제(1919.남.土民)
(받)한상진, 김덕진
素 87-3-30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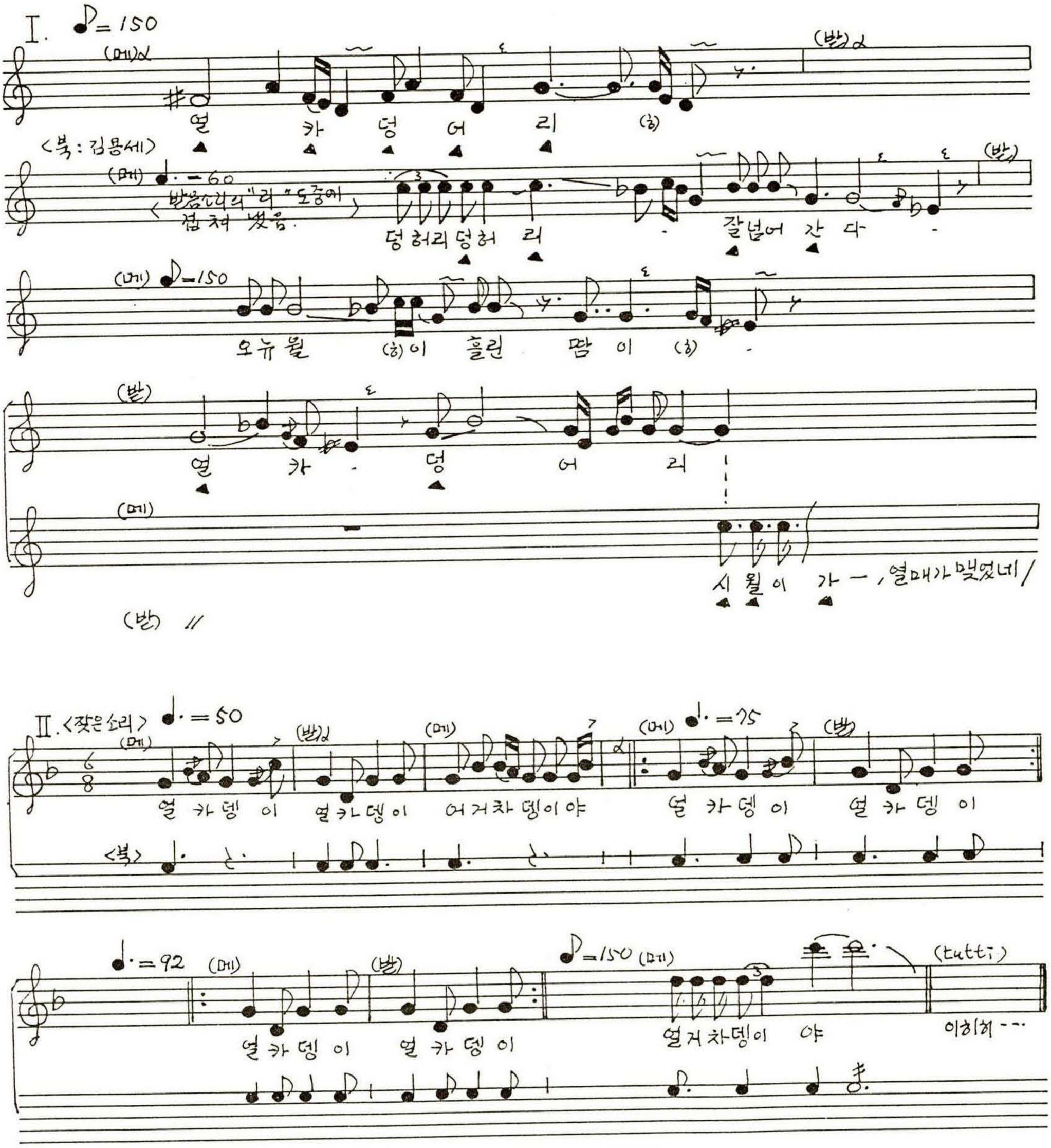
(메) 가깨분네는 보기가 좋소/



〈홍주 45〉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얼카덩어리(이시논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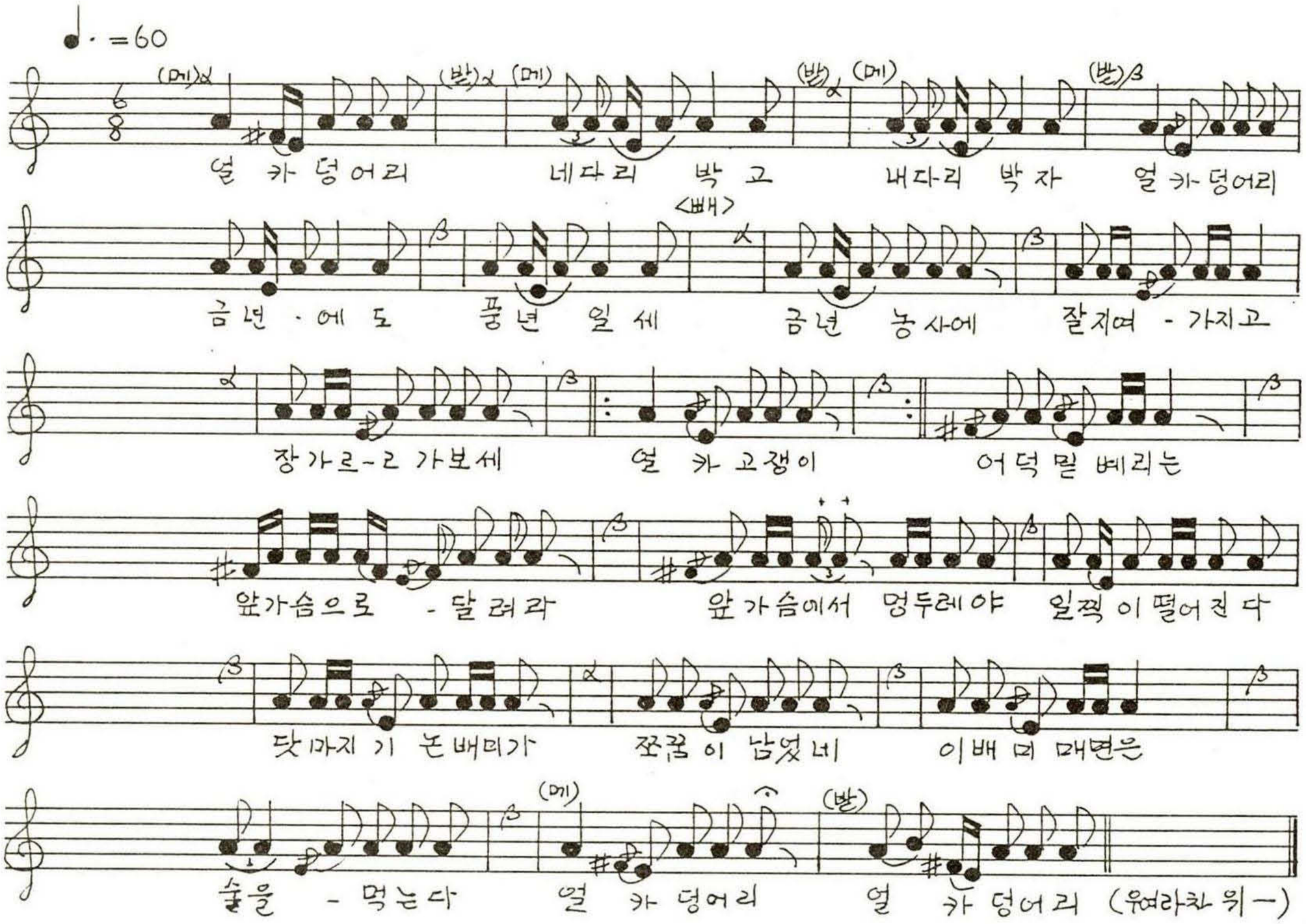
(메)김용세(1928.남.土民)
(받)조인해 등 5人
素 86-3-25②A



〈홍주 46〉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얼 카 덩 어 리

(메)우준(1940.남.土民)
(받)윤청영(1942.남.土民)
素 87-3-30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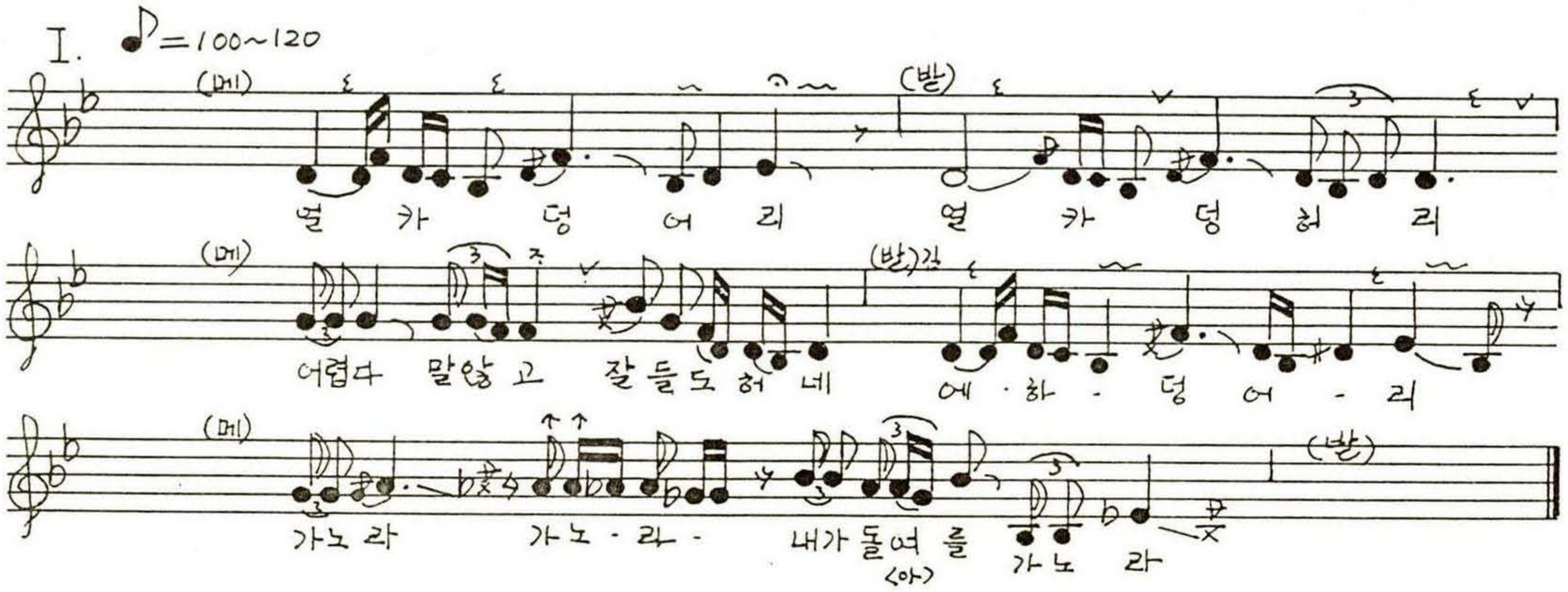


(메) 세얼아 네얼아/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청춘이/ 다늙어간다/
그럭저럭/ 거의 짐 맸구나/ 똥아리 몽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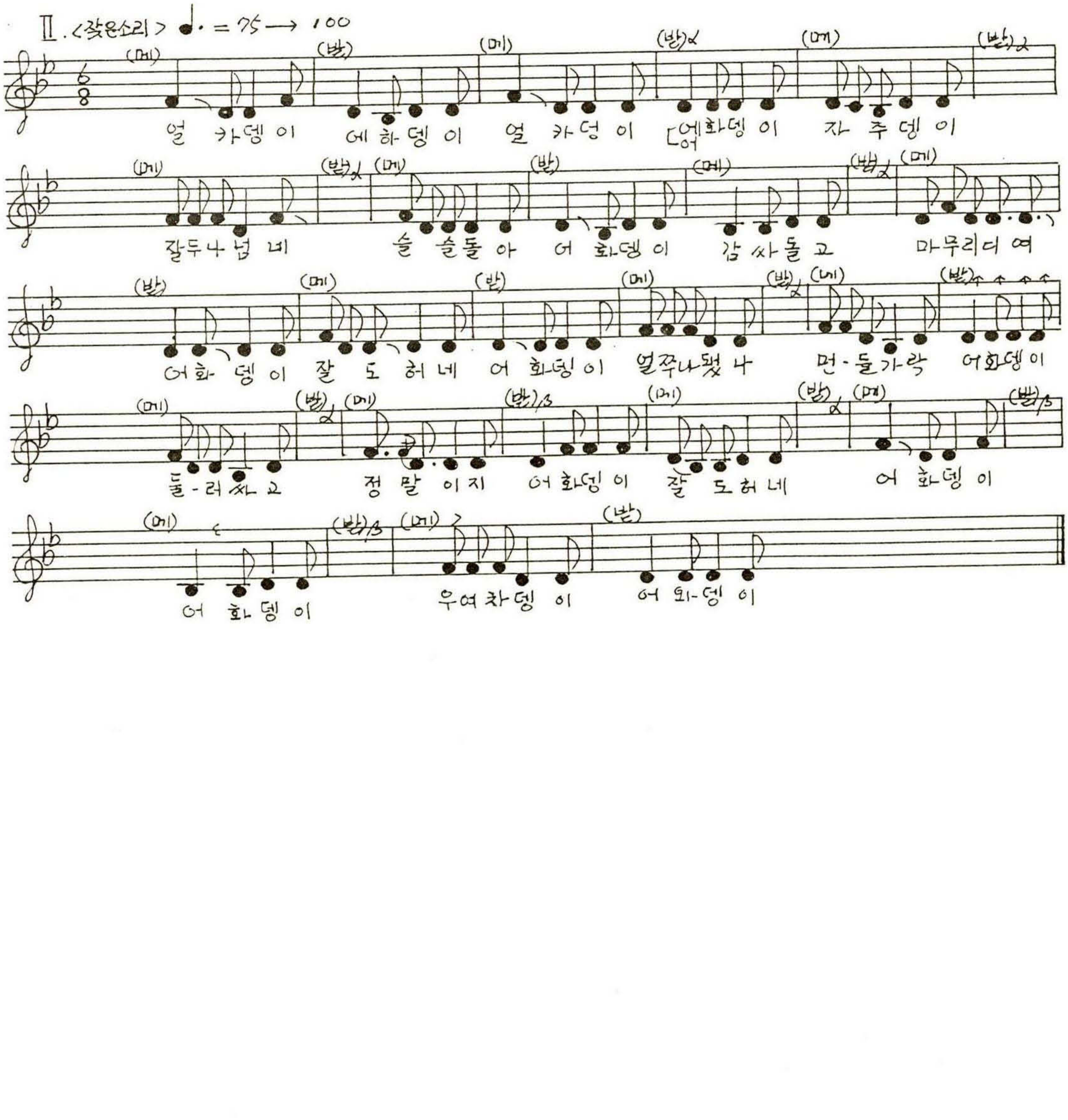
〈홍주 47〉 홍성군 홍북면 石宅里

얼 카 덩 어 리

(메)김세원(1929.남.土民)
(받)최인석(1932.남.土民)
素 87-3-30①A



(메) 노자좋구나 정말로지 잘노여/ 저건너 갈미봉에 비가묻어 들오네야/
저건너 용봉산 산상봉에는… 구름이 웅쿨웅쿨 솟아드는구려/
내가가며는 아주를 가나요/ 진국명산에 만장봉에는/
바람분다고 서러를 치나요/ 저건너산 상봉에는 전봇대세우고/
사기등잔초로 소리가 들리나/ 에 에하 덩어리/
난구이이런데도 구목이되면는/ 오던 사이도 아니나오네요/
〈나무라도〉 〈고목〉 〈새〉
꽃이란데도 낙화가되며는/ 오던 나비도 아니나오구요/
물이란데도 건수가되며는/ 놀던 고기도 아니나 오네요/
인생이래도 늙어지며는/ 오던 친구도 아니나 오나요/
어렵다말않고 노래도 잘불르네/ 에하 덩어리/
얼카 덩어리/ 소리도 나도 잘들도하시네/ 에하 덩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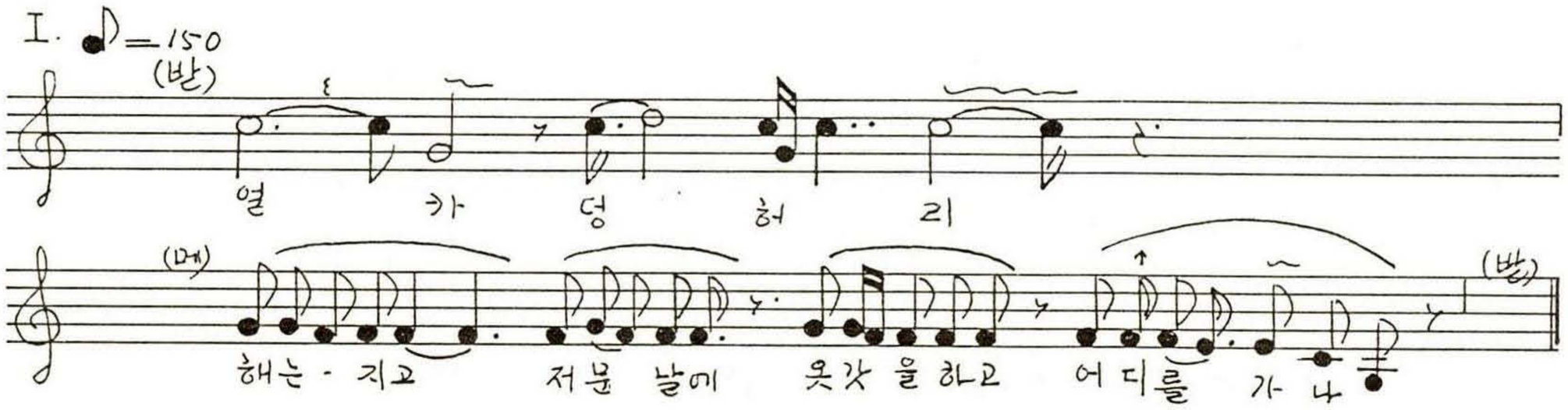


〈홍주 48〉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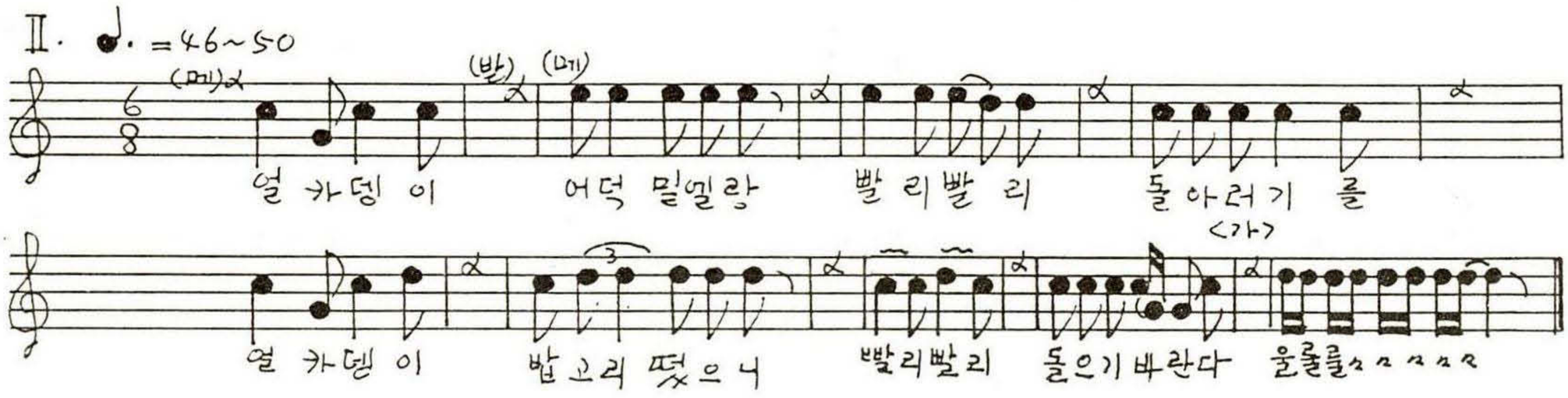
얼 카 덩 어 리

오정산(1921.남.土民)唱
素 87-3-30②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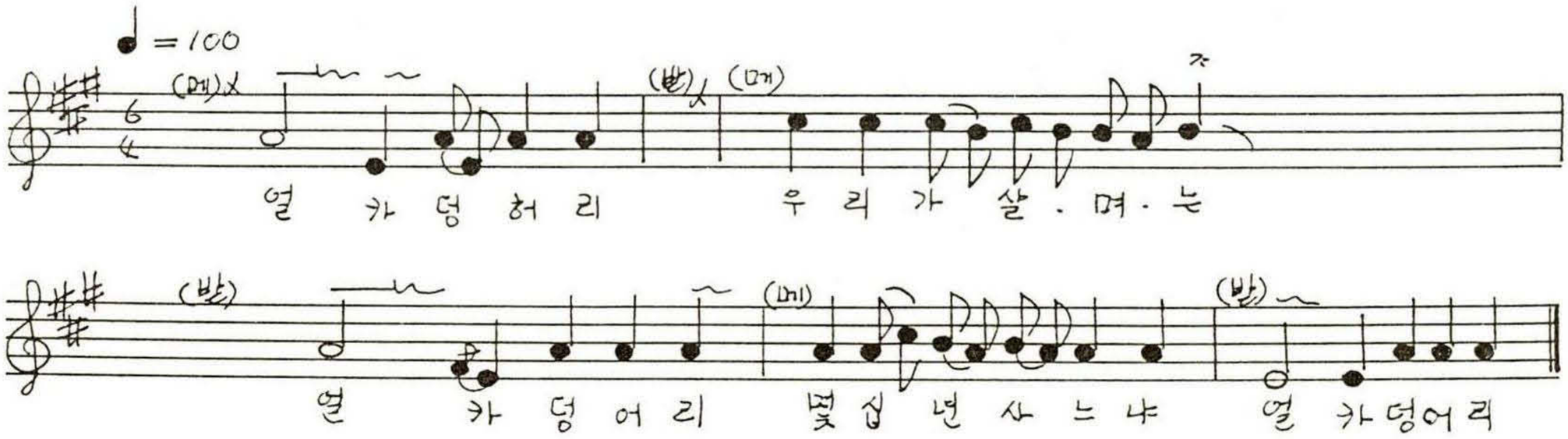
(메) 이논배미 매구서는 장구배미로 넘어갈테니 빨리들매소/
인저가면 언제오나 명년이때 춘삼월이 너는 또다시 보련만/
언제는 사자더니 언제는 마다고 내천짜 쓰느냐/



〈홍주 49〉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은곡

얼 카 덩 어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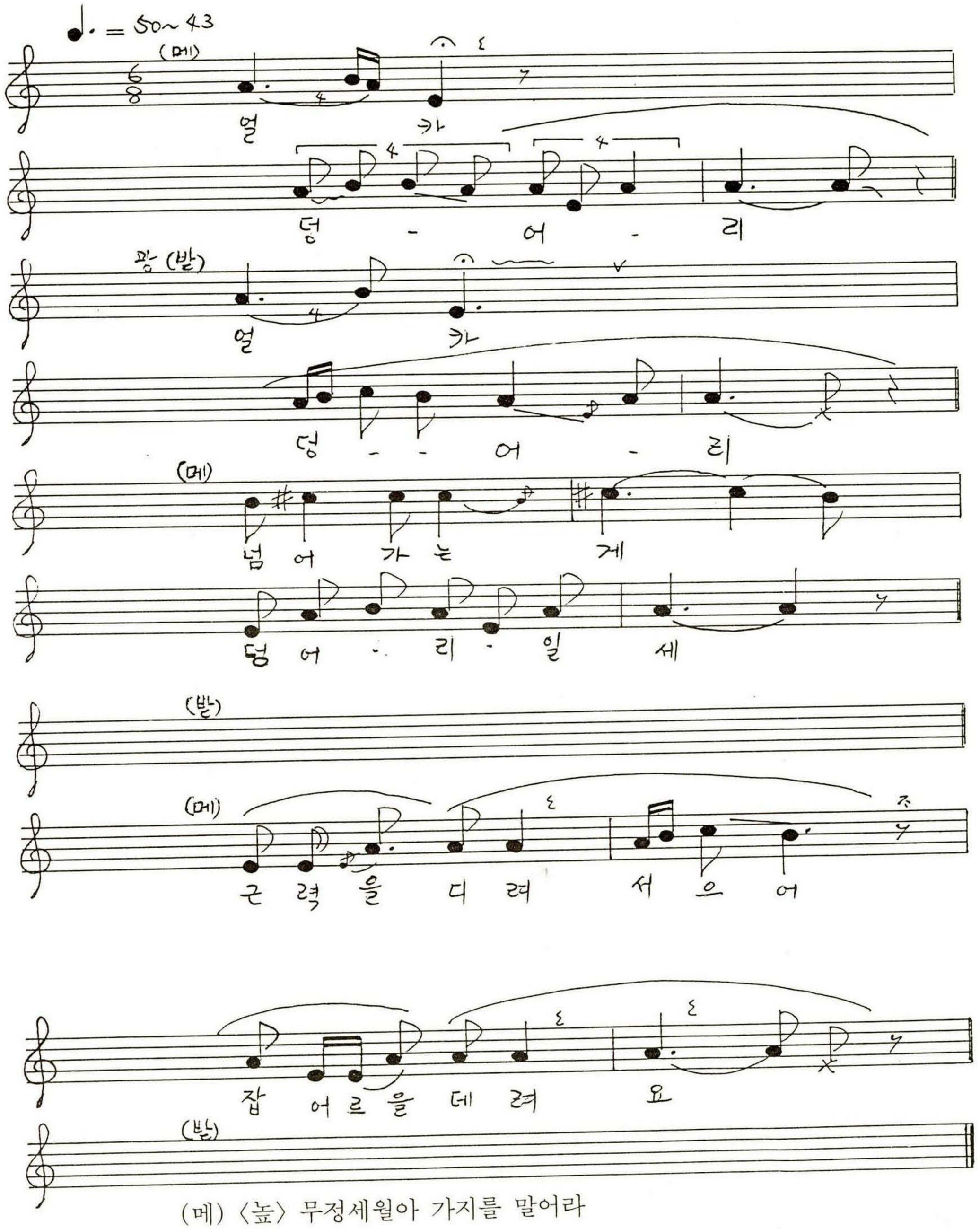
(메)주정순(1927.남.土民)
(받)주한노, 주정복
素 87-4-17^



〈홍주 50〉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얼 카 덩 어 리(아사논)

(메)최광순(1926.남)
(받)최용환, 최용근
素.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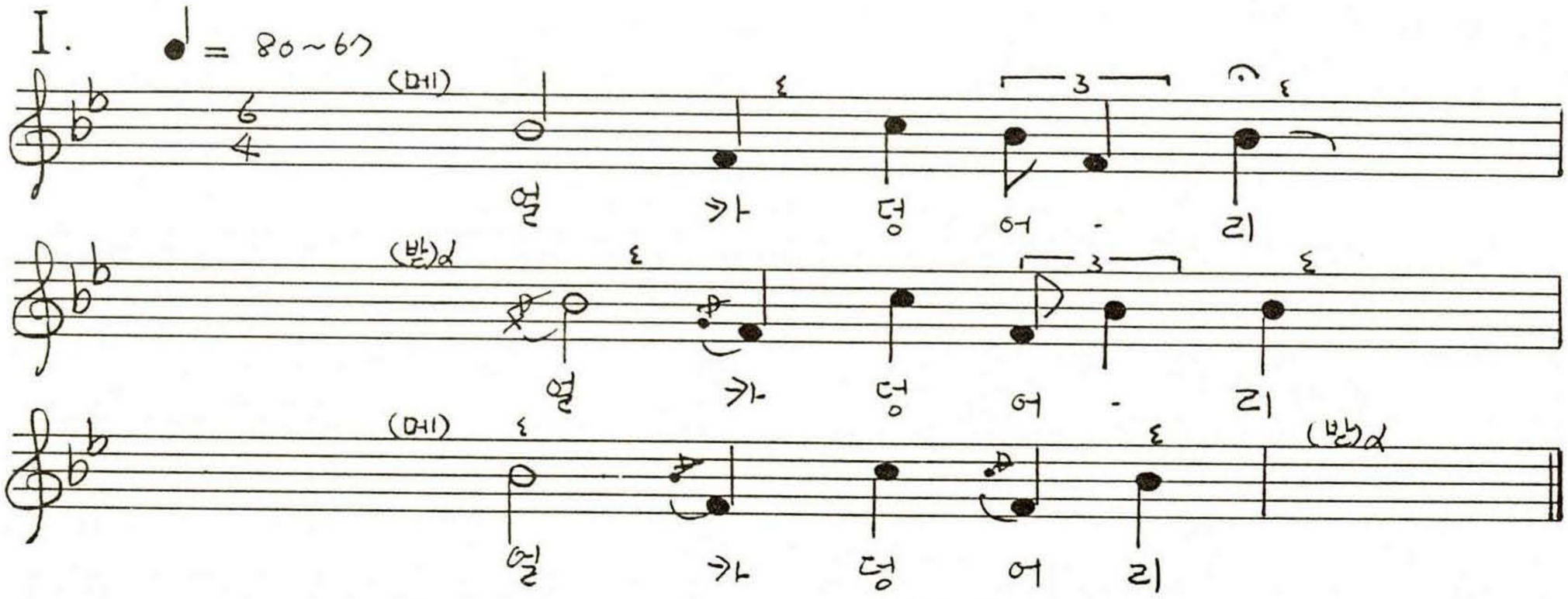


(메) 〈높〉 무정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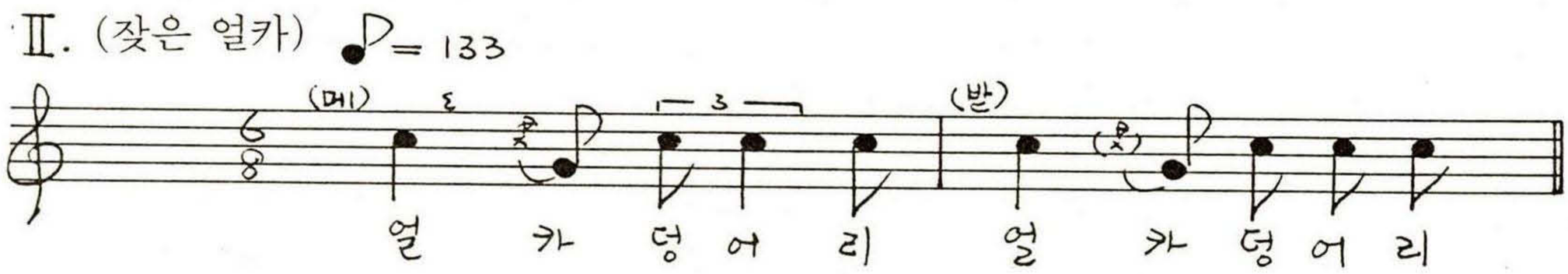
〈홍주 51〉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얼 카 덩 어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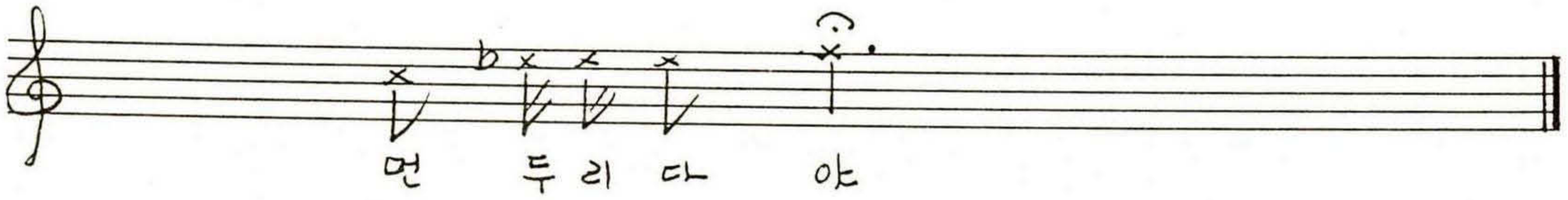
(메)배신희(1916.남.土民)
(받)배만희·배선직·배인희
素 90-2-1①A



(메) ○ 이 논배미 다매구서
장구배미루 넘어가세
○ 장구배미 그럭저럭 다매구서
반달만치 남었네
(말하듯이)- 자, 조금 자주매야지 이거 해 늦었네--



(메) ○ 따비를 지질말고 잘들매세
○ 오늘밤은 이며는 훗날에는 부자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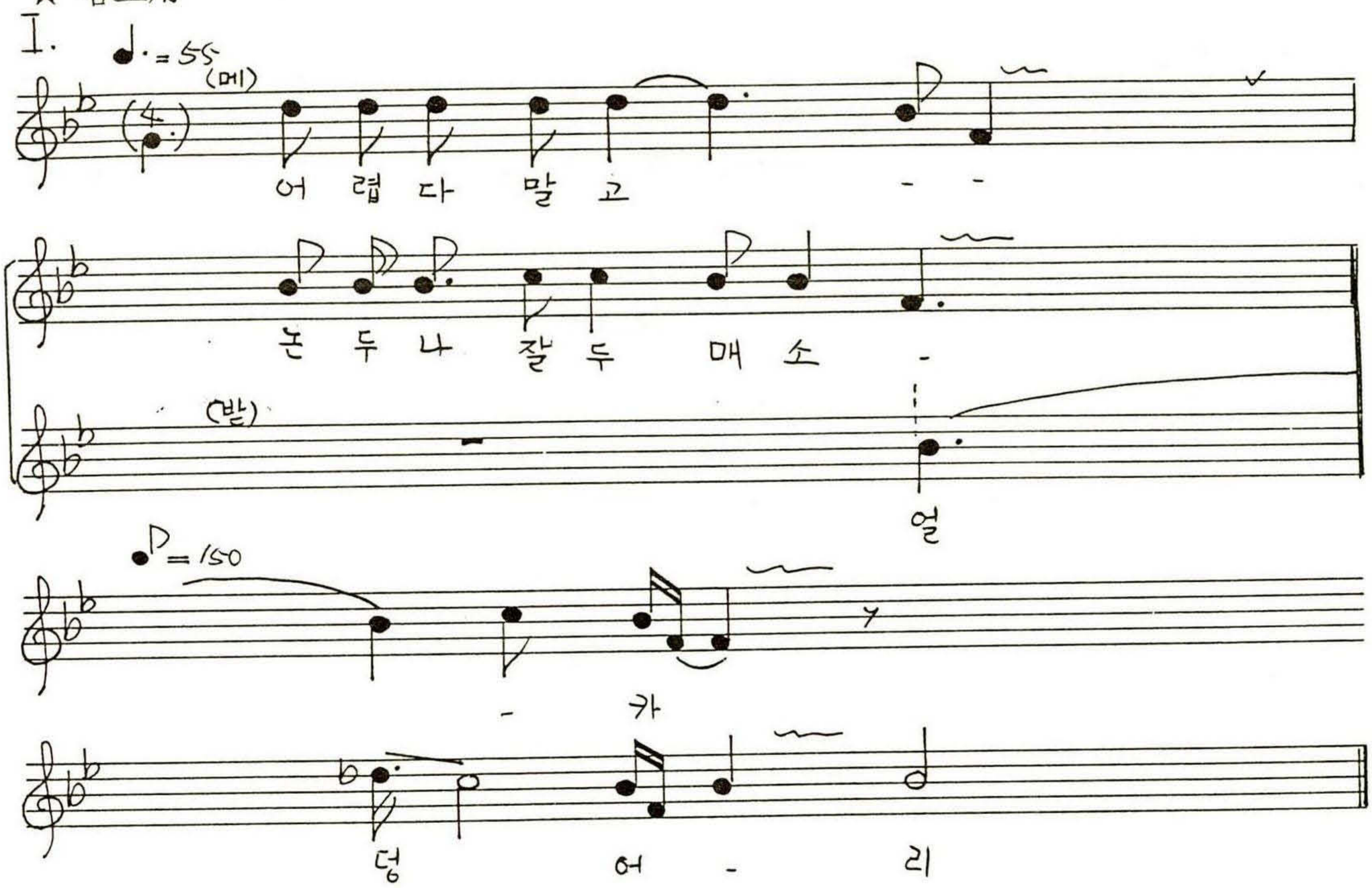


〈홍주 52〉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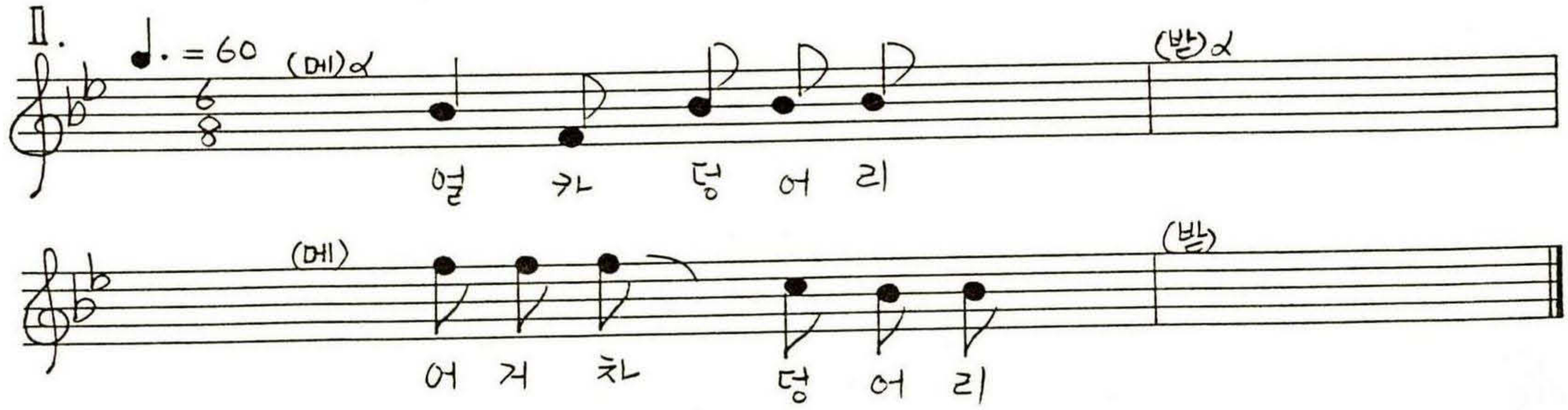
얼카덩어리 (Ⅰ.긴소리 Ⅱ.잦은소리)

(메)고복근
(받)윤민식·공철영
素 94-2-27①B

★ 참고용



(메) ○ 에 - 위 - 어라, 우리 농군 논매세
○ 일락서산에 해는 지구서, 큰일은 났네
○ 잘두나 매네 잘두나 매네, 우리야 농군이 잘두나 매네
○ 앞가심일랑 뚝 떠서 심고, 어덕밑이는 훤칠허게 얽어매소
○ 우리가 살며는 얼마나 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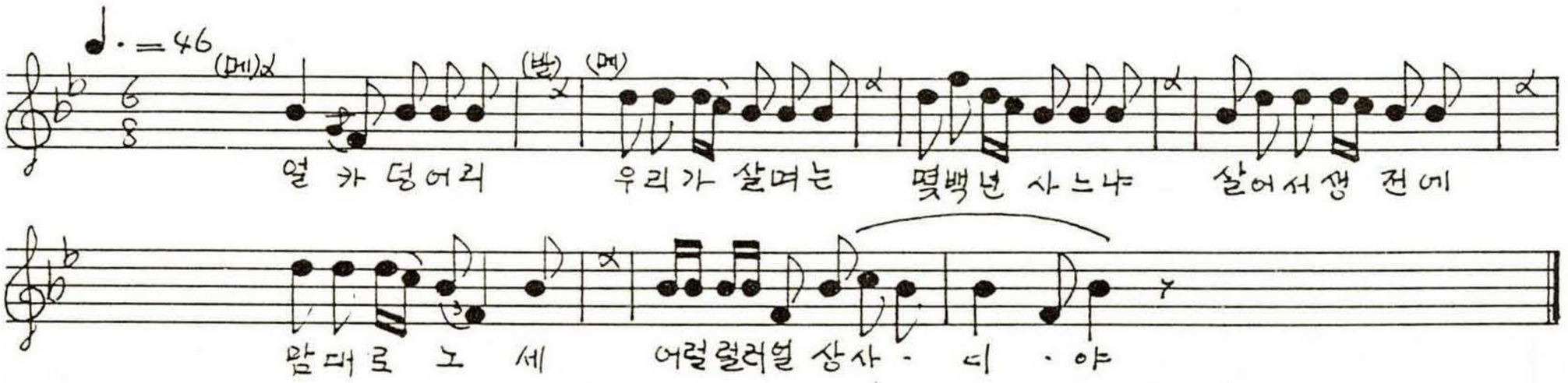
(메) ○ 니가 뛰면 나두 뛰고
○ 막걸리동이가 웬일이요
○ 막걸리 한잔에 속지말고
○ 잘두나 매세요 잘도 매세요/ "위-"

〈홍주 53〉 홍성군 광천읍 매현마을

얼 카 덩 어 리

황후성(1904.남.土民)唱
素 86-3-25^{②B}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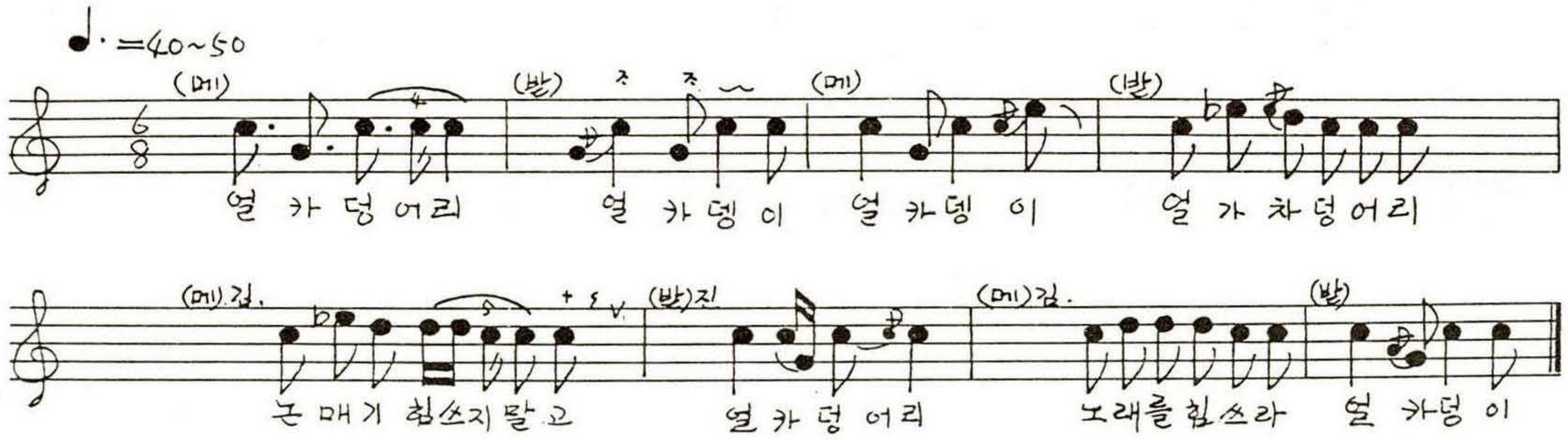


〈홍주 54〉 홍성군 구항면 공리

얼 카 덩 어 리

(메)진병옥(1911.남.土民)
(받)김옥환(1919.남.土民)
素 87-3-30^{①B}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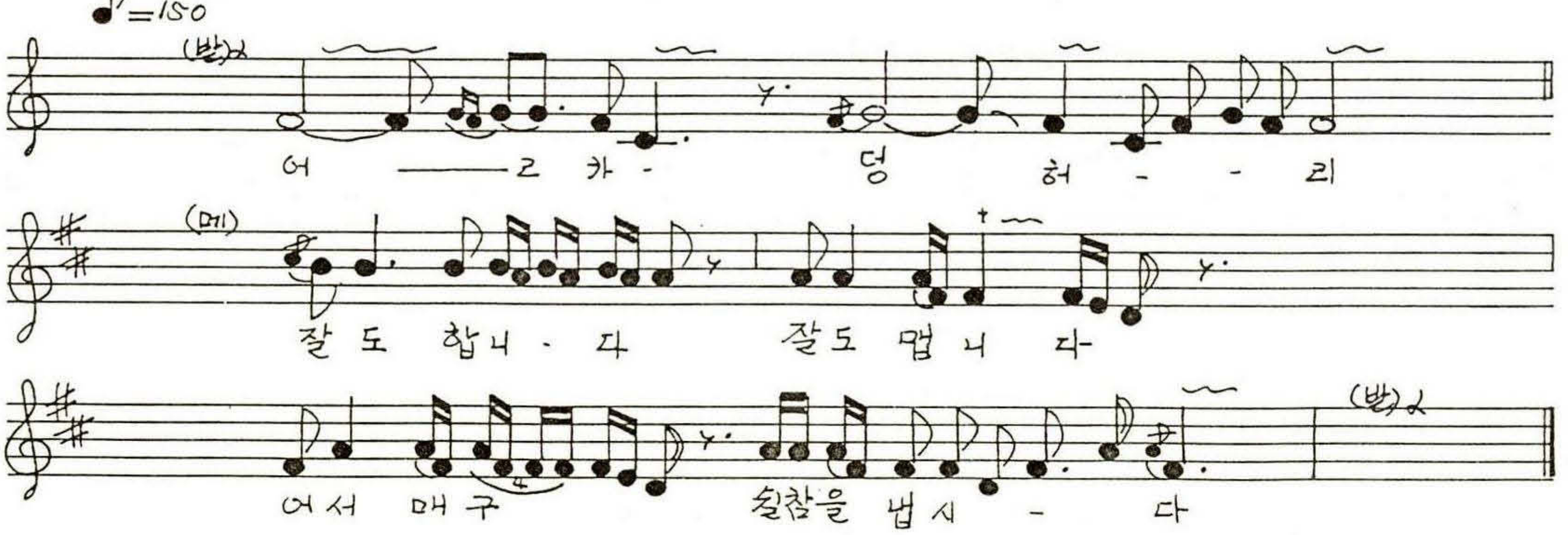


〈홍주 55〉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매산

얼 카 덩 어 리

서귀봉(1922.남.土民)唱
素 89-4-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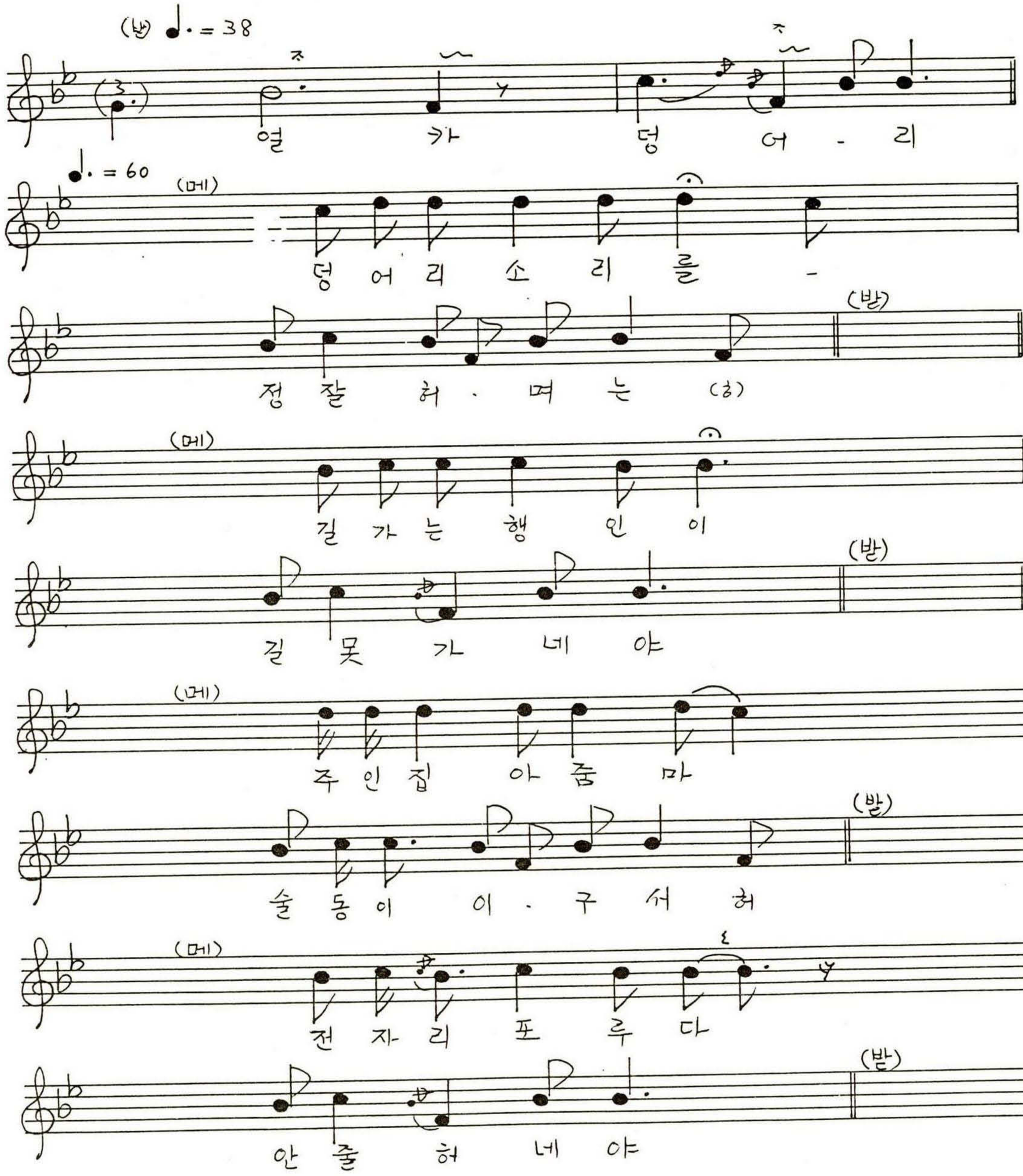
★참고用



〈홍주 56〉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유송리

얼 카 덩 어 리

(받)김명복(1919.남.유송리土民)
(메)전복한(1921.남.장곡리土民)
素 94-3-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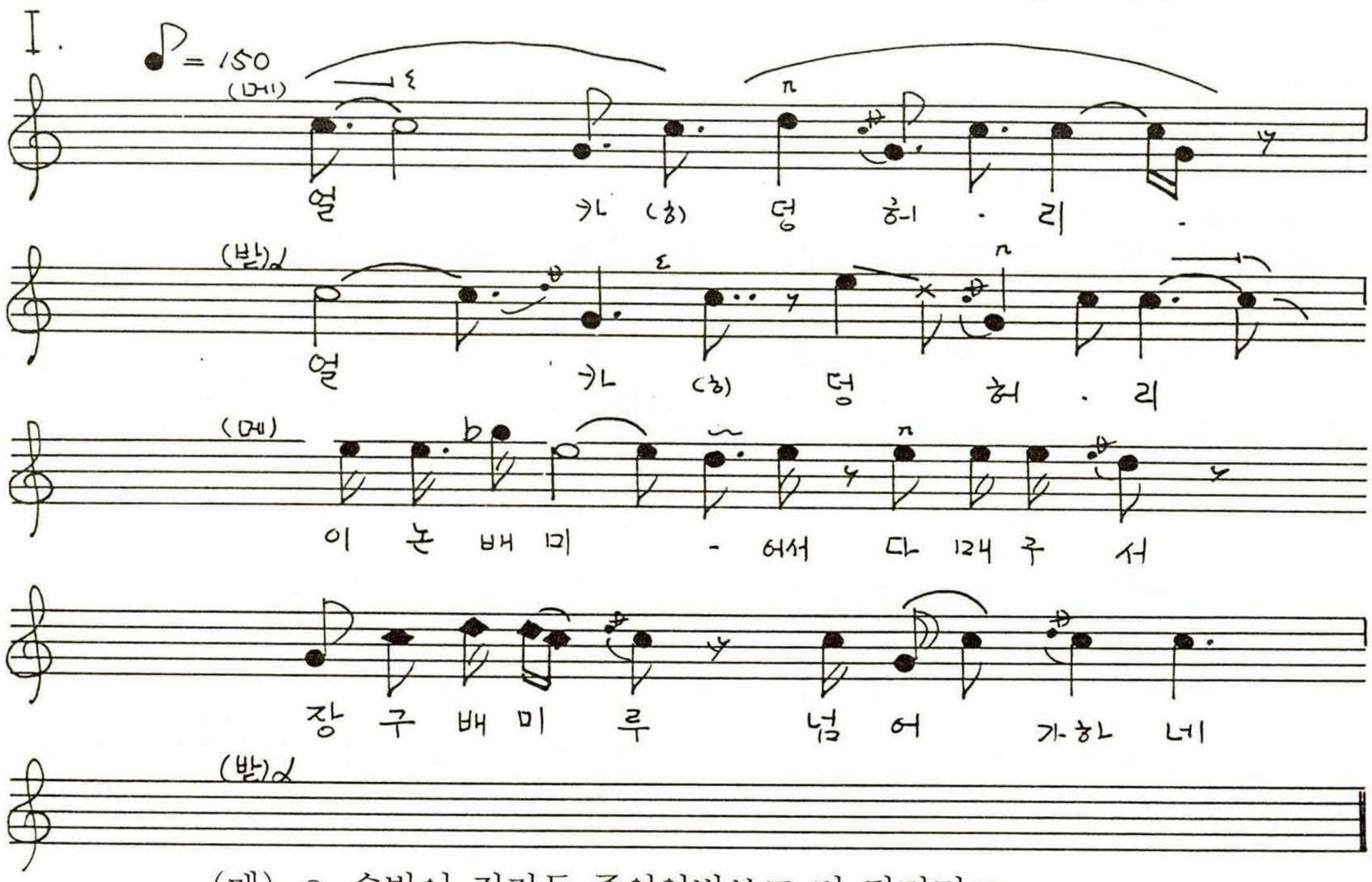
(메) 엎지 갓집을
잘두나 파논다하

〈홍주 57〉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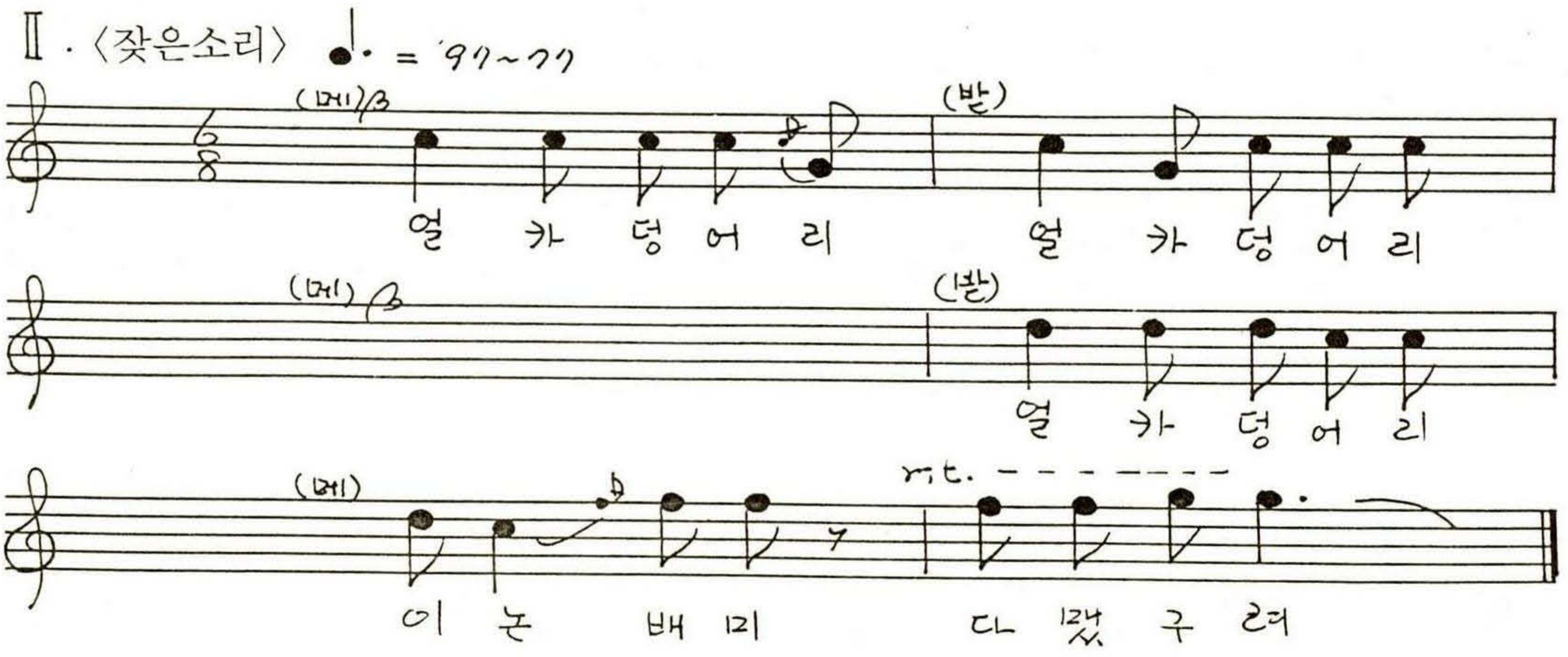
얼카덩어리(호무질)

(메)김향경(1920.남)
(받)김옥성(1921.남.土民)
이문갑(1917.남.土民)
素 90-2-3㉣B

★ 참고用



(메) ○ 술밥이 적거든 주인양반보고 더 달라먹고
일하는 것은 틀림없이 잘해 주십시오
○ 덩어리소리는 잘하구 보며는
가는 아기가 질을 축낸다네
○ 서산에 해는 다 갔는디 논은 잔뜩 남었으니
여러일꾼들이 부지런히 힘을 써 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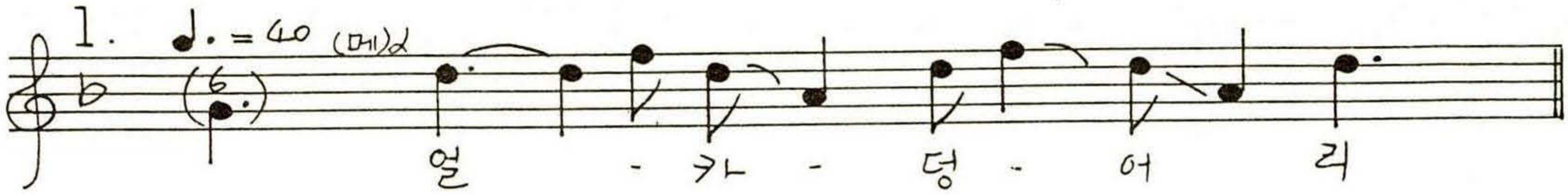


〈홍주 58〉 홍성군 금마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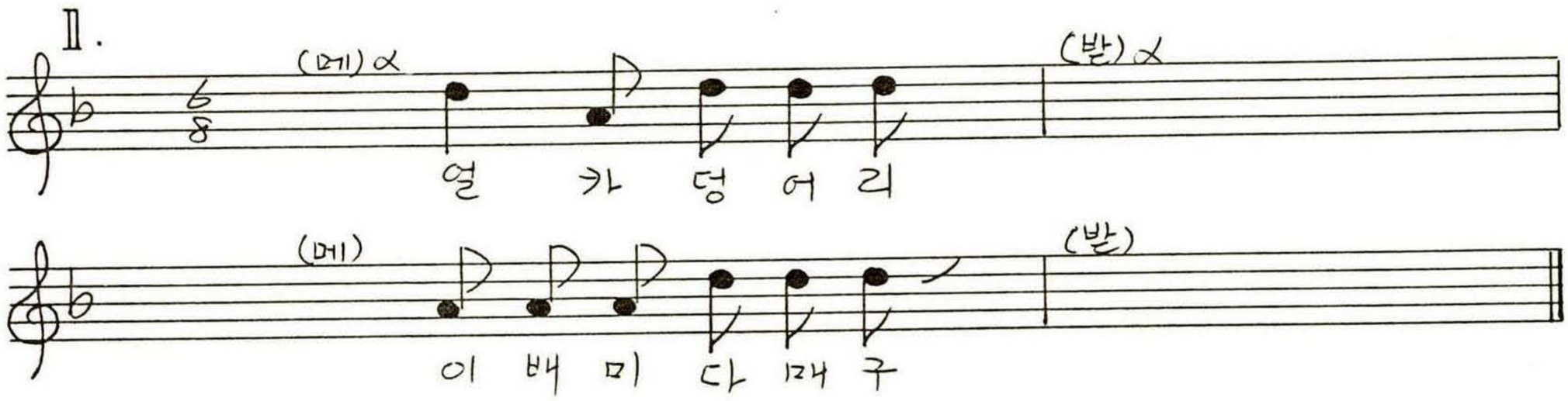
얼카덩어리 (Ⅰ.긴소리 Ⅱ.잦은소리)

(메)민재식(1913.남.인산리土民)
(받)박종서·최병현 등
덕정리 강월노인정 회원들
素 94-3-11[B]

★참고用(녹음상태不良)



(받) α
(메) 장구배미로 또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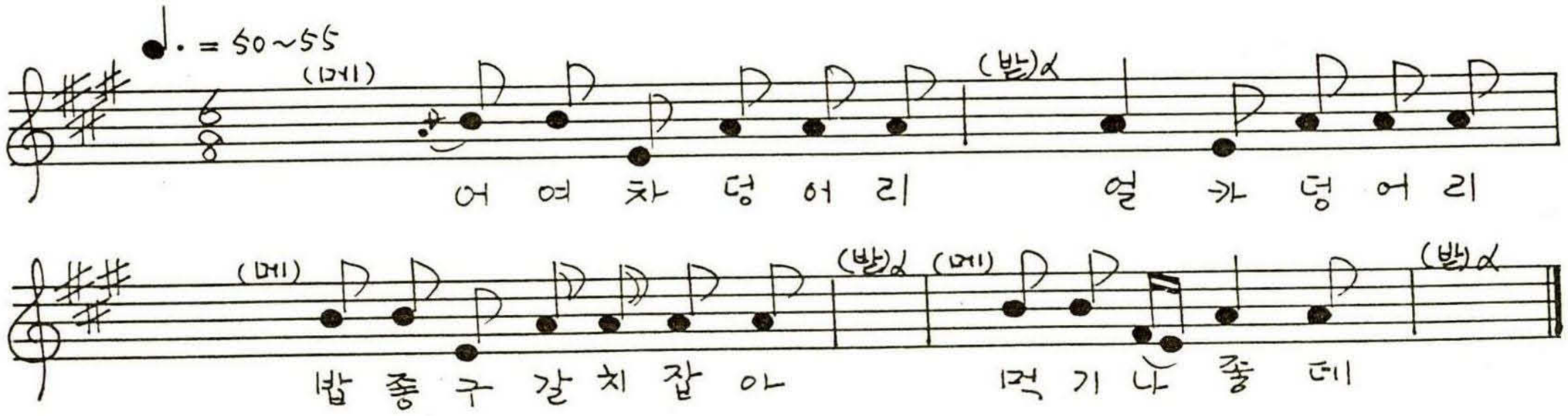


(메) ○ 술먹게 되였네
○ 얼카 덩어리
〈다같이〉 우여차 -

〈홍주 59〉 홍성군 장곡면 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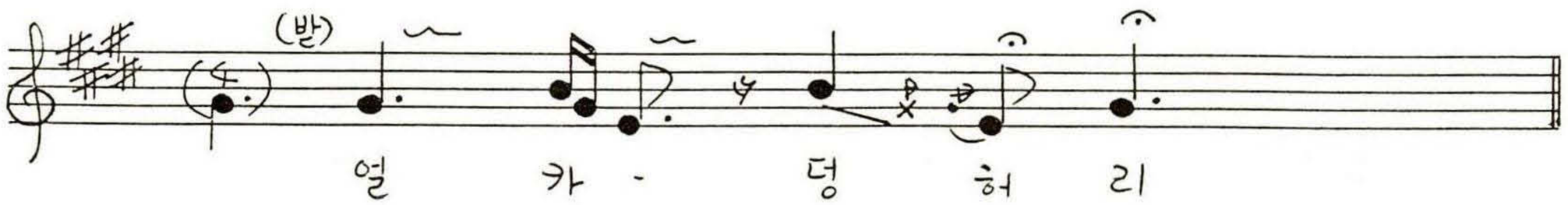
얼 카 덩 어 리 (호미)

안산옥(1919.남.土民)唱
素 89-11-2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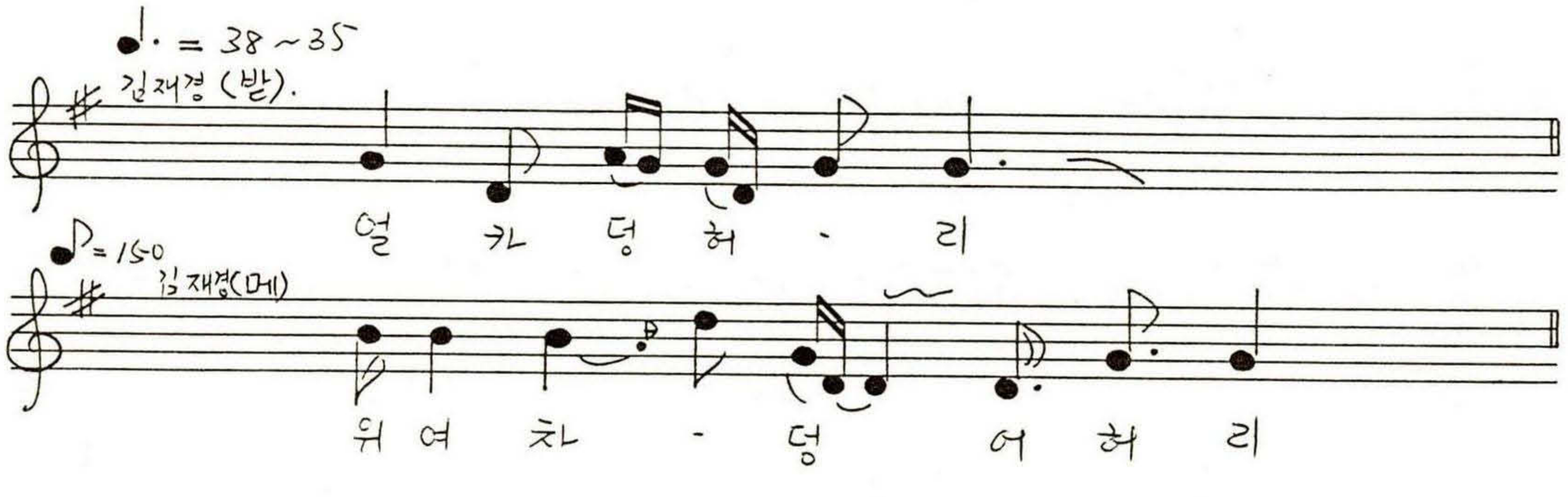
(메) 논매기는 어렵다/

〈홍주 60〉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얼 카 덩 어 리** 조병태(1930.남.土民)唱 素 94-2-27③B



(메) 서산에 해는 지고, 논은 남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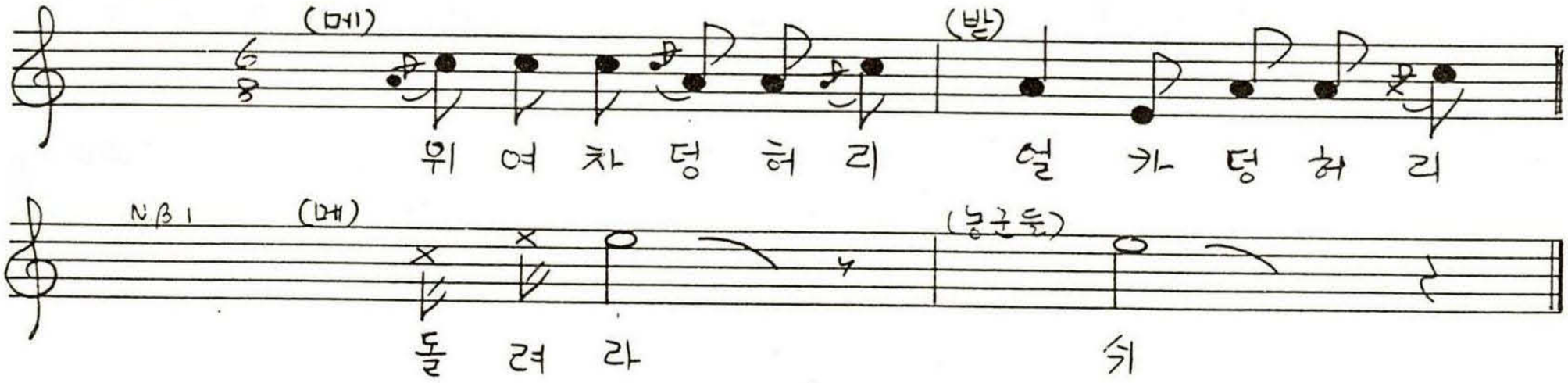
〈홍주 61〉 홍성군 장곡면 신곡리 **얼 카 덩 어 리 (호미)** 김재경·김대곤 素 94-2-27③B



김대곤 (메) ○ 이논배미를 다 매구서,
어느 배미루 갈아가나
○ 어거디여차 덩허리
※ 끝날 무렵엔 "위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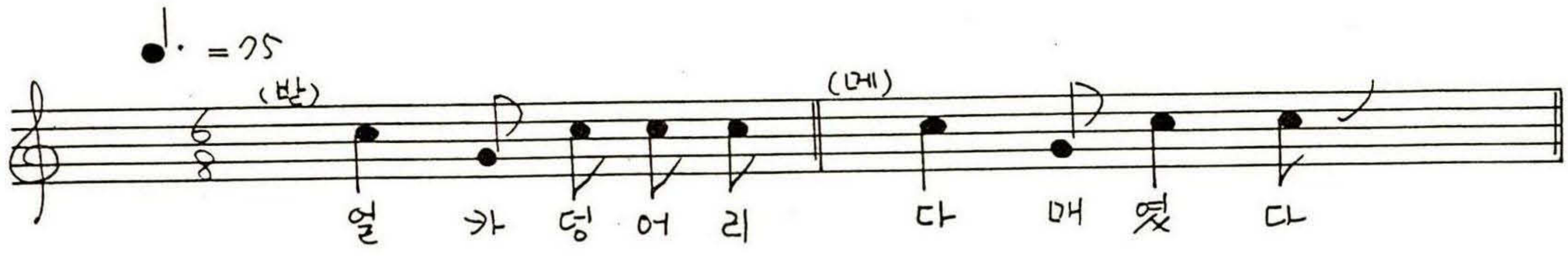
〈홍주 62〉 홍성군 장곡면 월계2구 **얼 카 덩 어 리 (호미)** 최주복(1916.남.土民)唱 素 94-2-27③B

〈실음은 단3도 더 낮음〉



※ NB1. 어덕밑에 가는 분이 앞가심으로 "돌려라-"한다.
다 매면 "쉬-"하고 외치며 끝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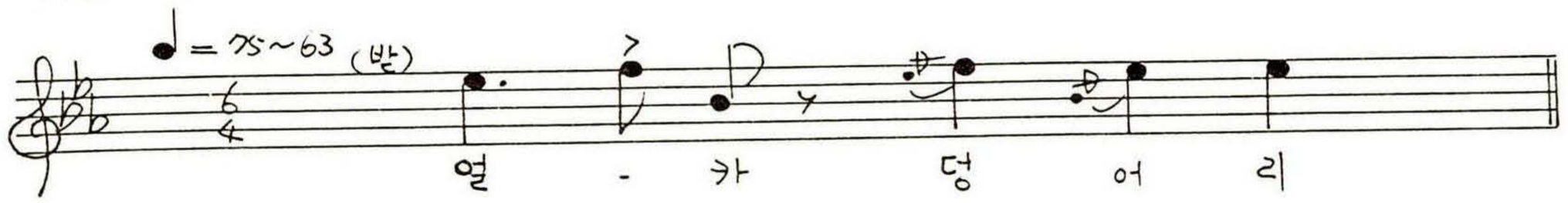
〈홍주 63〉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얼 카 덩 어 리** 김항제 唱 素 89-11-28③A



(메) ○ 이 덩어리 저 덩어리
○ 툭툭쳐서
○ 펄펄 내려라

〈홍주 64〉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얼 카 덩 어 리** 정기석(1922.남.土民) 素 90-2-3⑦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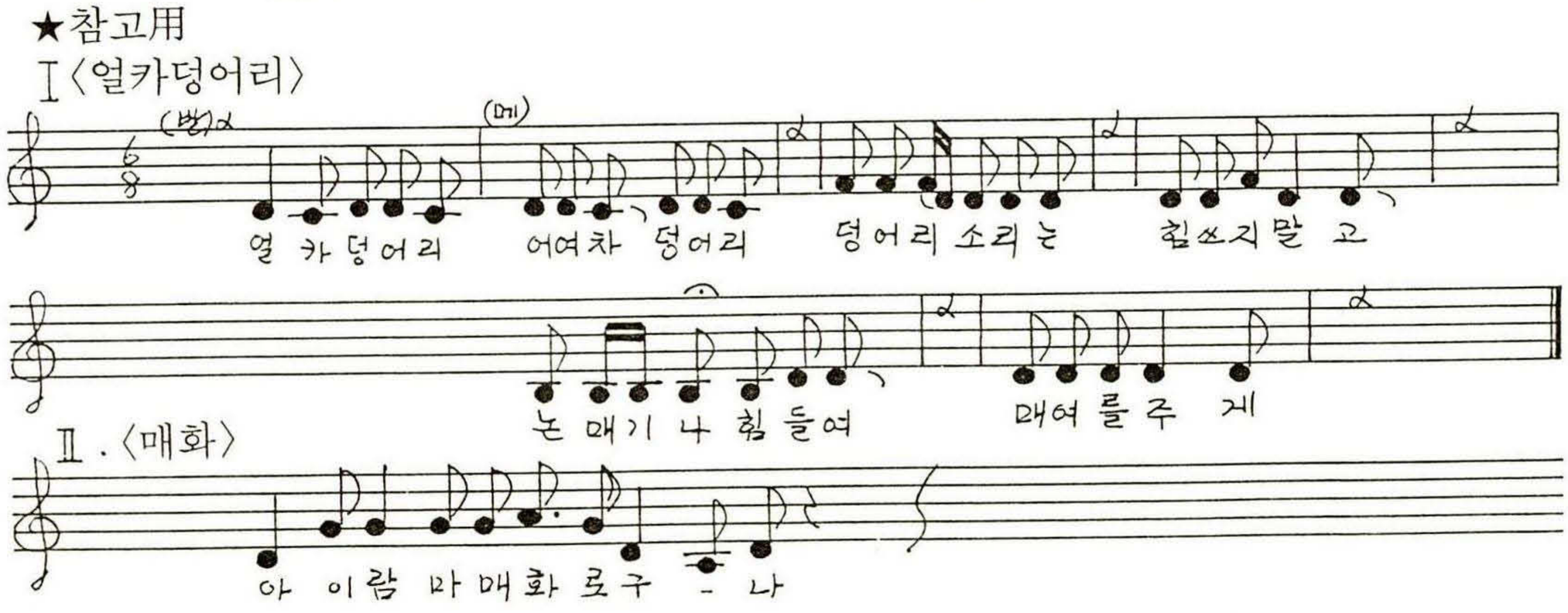
★참고用



(메) ○ 천지 조종은 곤륜산이고
수지 조종은 황해순데
○ 높은데는 찍었다가
깊은데는 누워볼까
○ 높은지체 부모님께 공양하고
짚은 지체난 우리가 먹세

〈홍주 65〉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논 매 기** 윤종필(1900.남.土民)唱 素 87-4-17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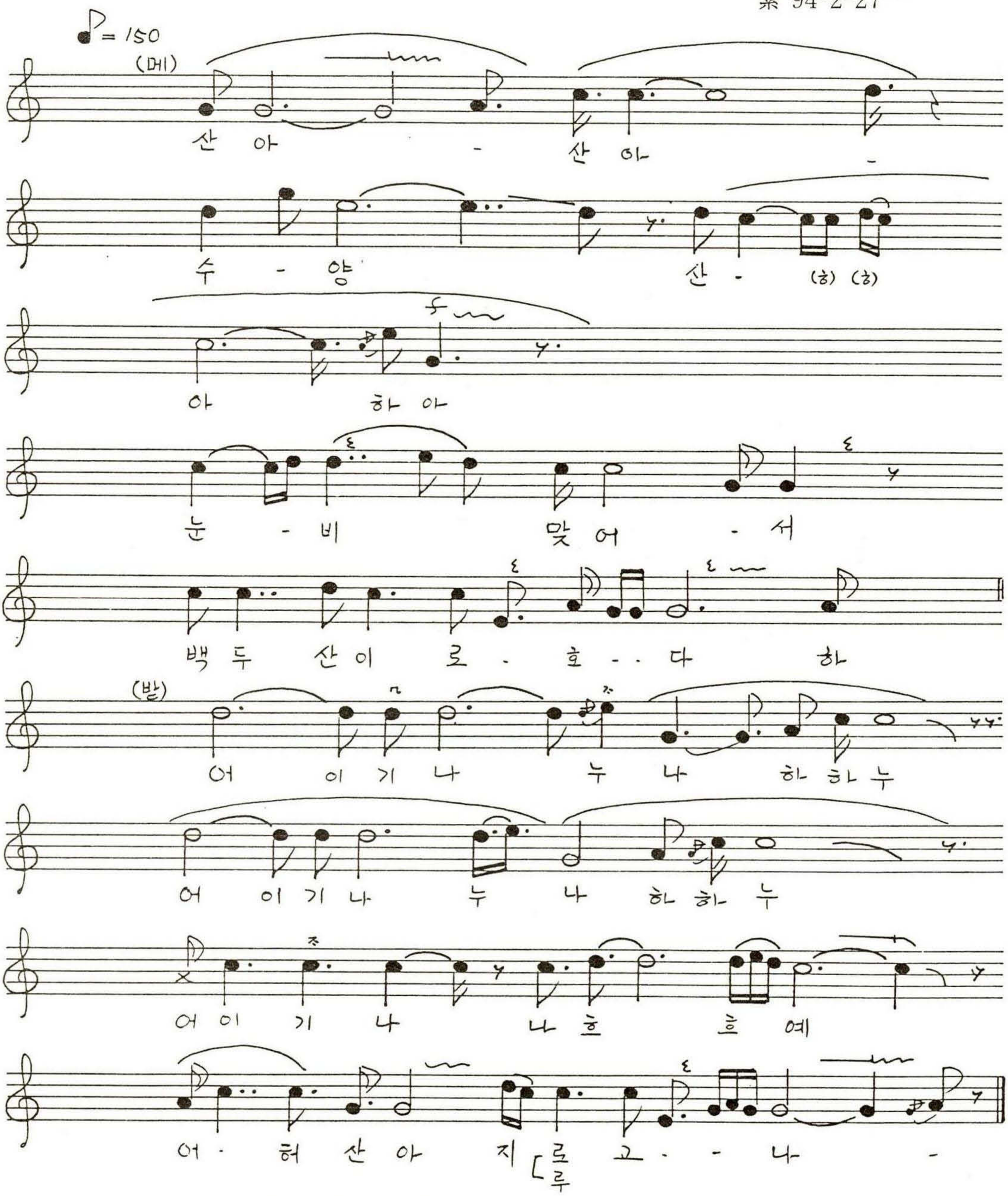
★참고用



〈홍주 66〉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가곡

산 타 령(벼베는 소리, 두벌매는 소리)

강영신(1913.남.가곡출생. 35세에 결성면 원금곡 이주)唱
素 94-2-27②B



(메) ○ 산천~ 초목~ 푸르러~ 오구~
우리네 인생은, 나날이 늙네- 헤
○ 노자-노자, 젊어서 노지 -
늙어허지며허는, 나는 못노리라 하

〈홍주 67〉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성남리 **산 타 령(논매기)**

장종환(1918.남.금곡리출생. 성남리거주.)唱
素 89-11-30[A]

♪=150

(메) 산아 산아 - 수양 - 산아 - 아
눈 - 비 - 맞어 백두 산이 로다 -

(받) 에 - 에 - 에 어이기 나 노 나 노
내 - 나 - 노 난다더여 - 로 산이로 고 나 -

(메) 바람이 불라면 - 태풍이 불고 -
풍 년 - - 이 올 - 라며는 인풍 년이 오요 - -

(받)

(메) 오라 는디는 저녁이 가 고 -
동 - 네 - - 술 - 집이 는 대 낮이나 갈 까 -

(받) 에 헤 에 - 어이기 나 노 나 노
난 다 디여 - 루 산 이 로 고 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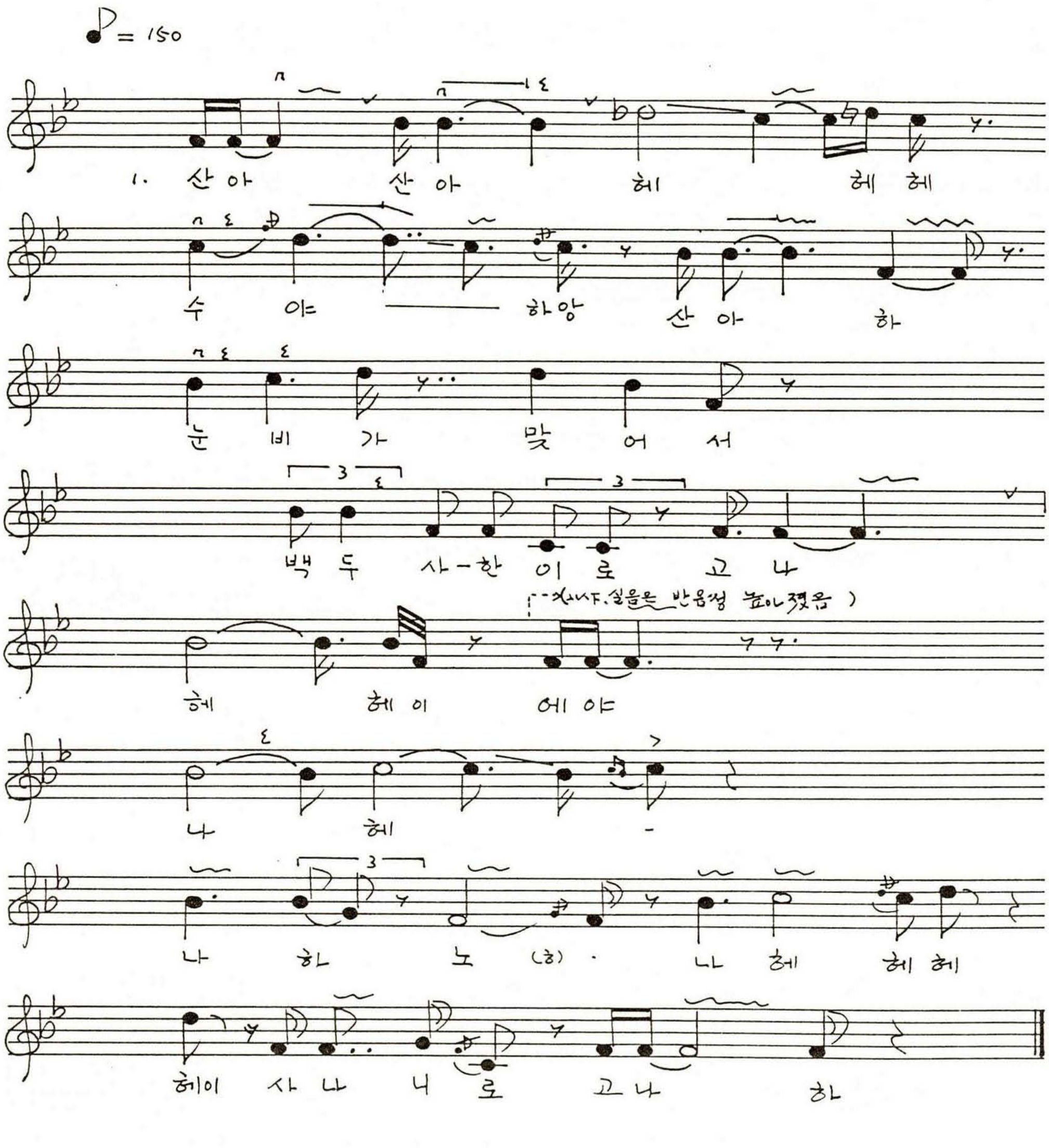
(메)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신 님을 왜 보냈는가/
의라 하는건 반듯한 놈인데, 잠자고 정든 것은 잊을 수가 없네/

〈홍주 68〉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산 타 령(수양산)

김향경
素 90-2-3④B

- 만물소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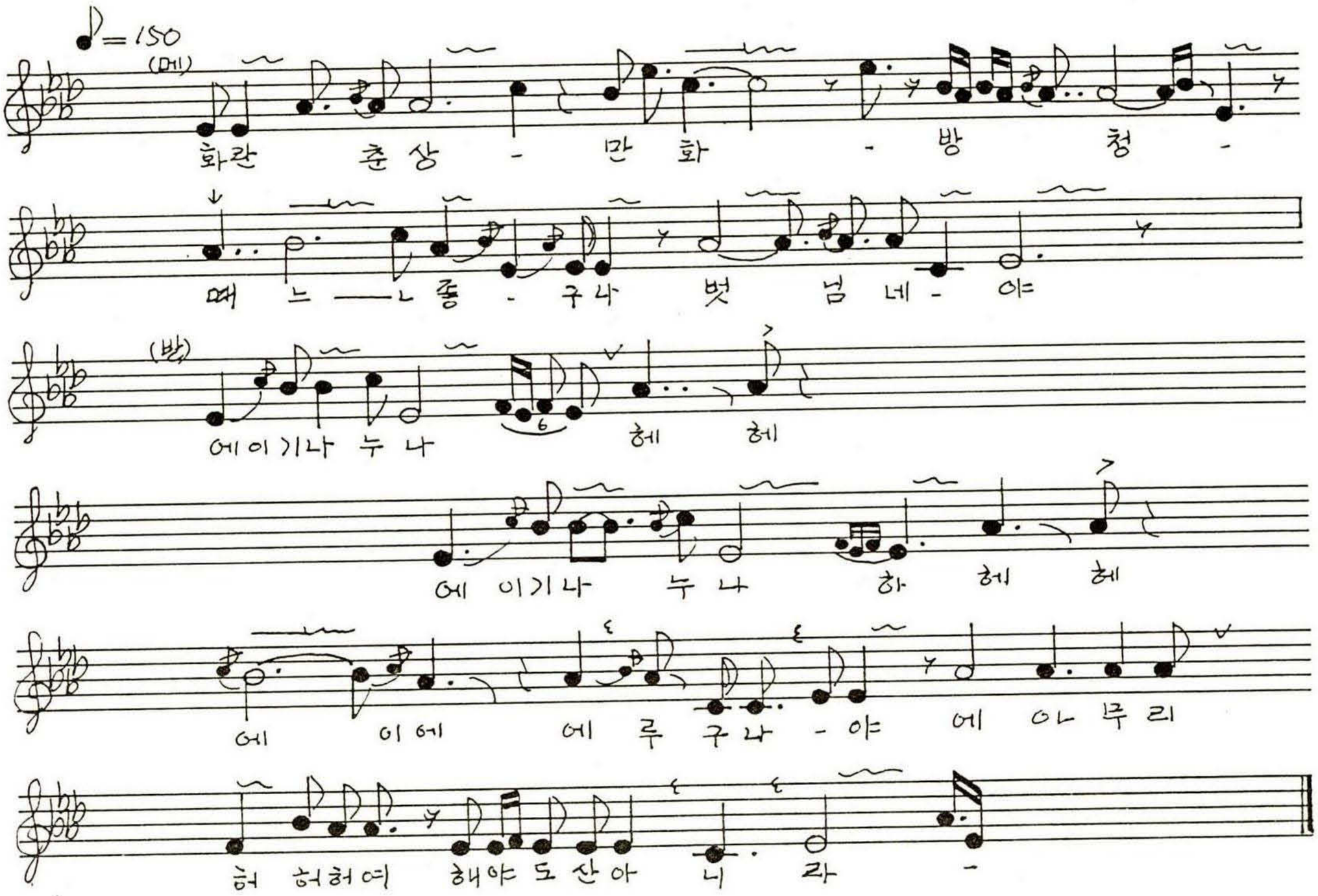


2. 산속에~ , 구미는~ , 머루나 다랜데 헤
   인간의 구미는, 너허고 나로구나 에
3. 이논배미~ 다 매며는, 쥔양반의 술바틈에다
   전절이를 덮어내놓는다네, 헤~

〈홍주 69〉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만 물 매 는 소 리

윤종필(1900.남.土民)
素 87-4-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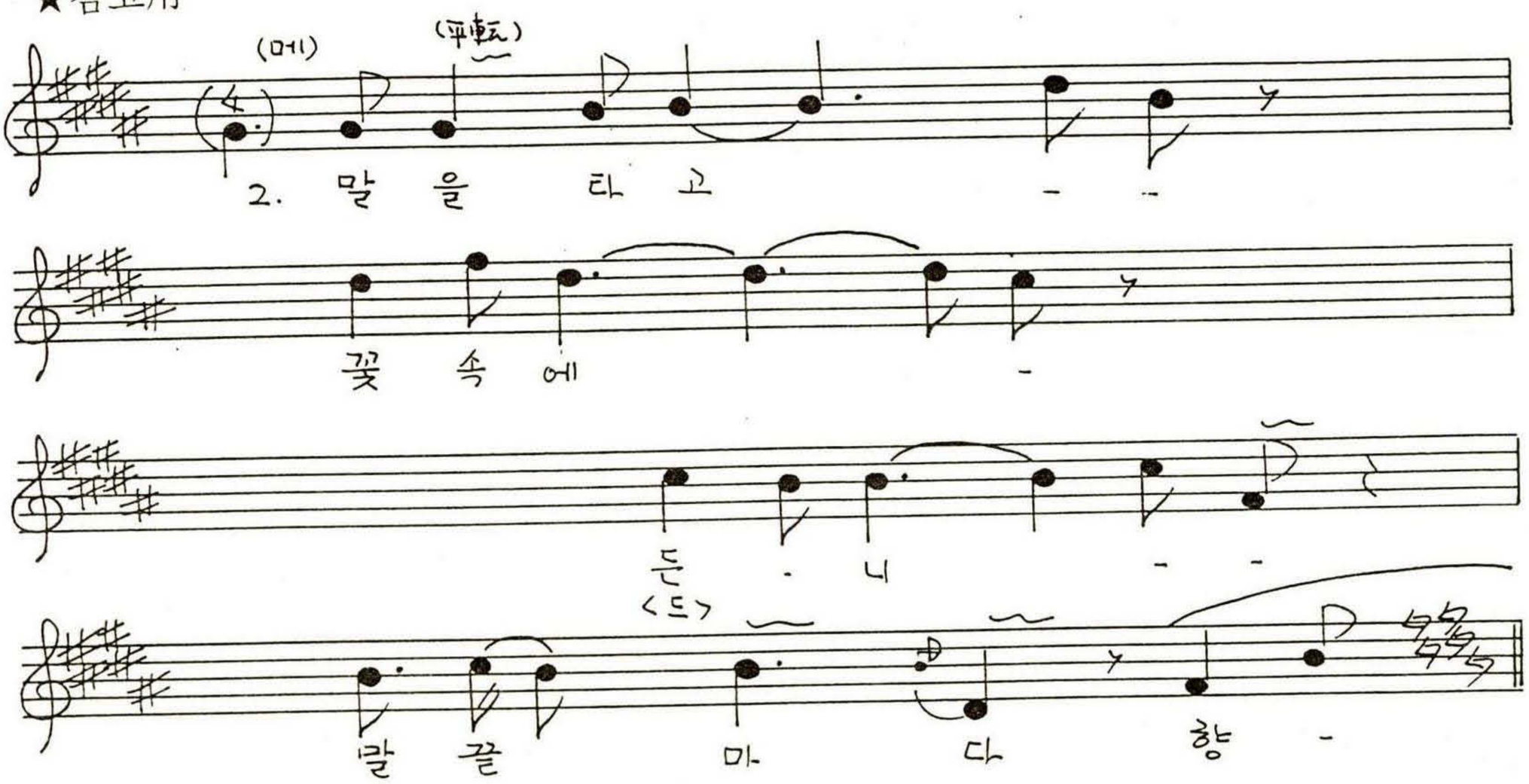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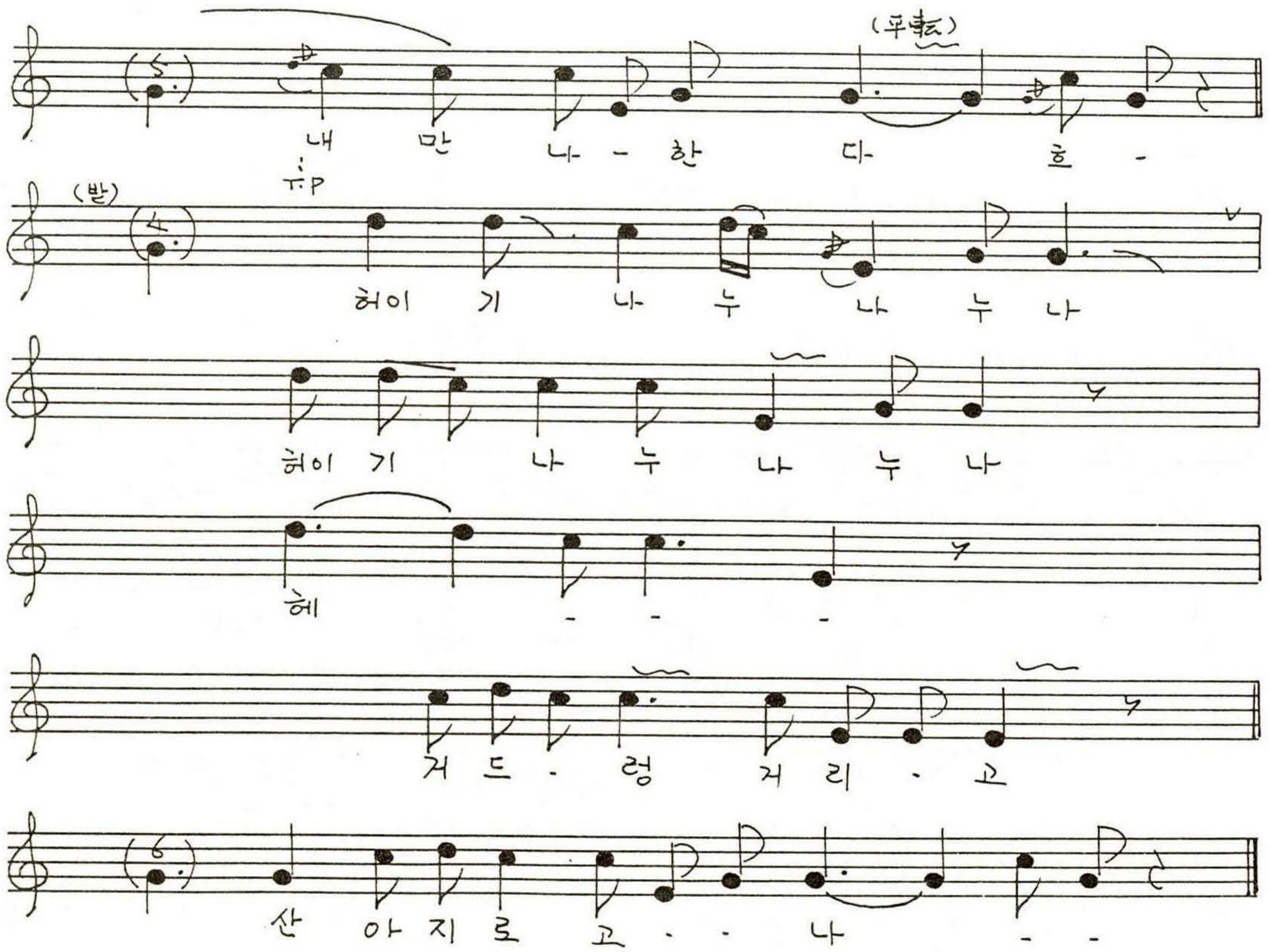
〈홍주 70〉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산 타 령(논맴)

김학인 唱
素 90-2-2⑤B

★참고用





(메) 1. 소각수에~ 푸른 것이~
오색당사실로 쌍끈을 매고~
임이 뛰며는 내가 밀고
내가 뛰며는 임이 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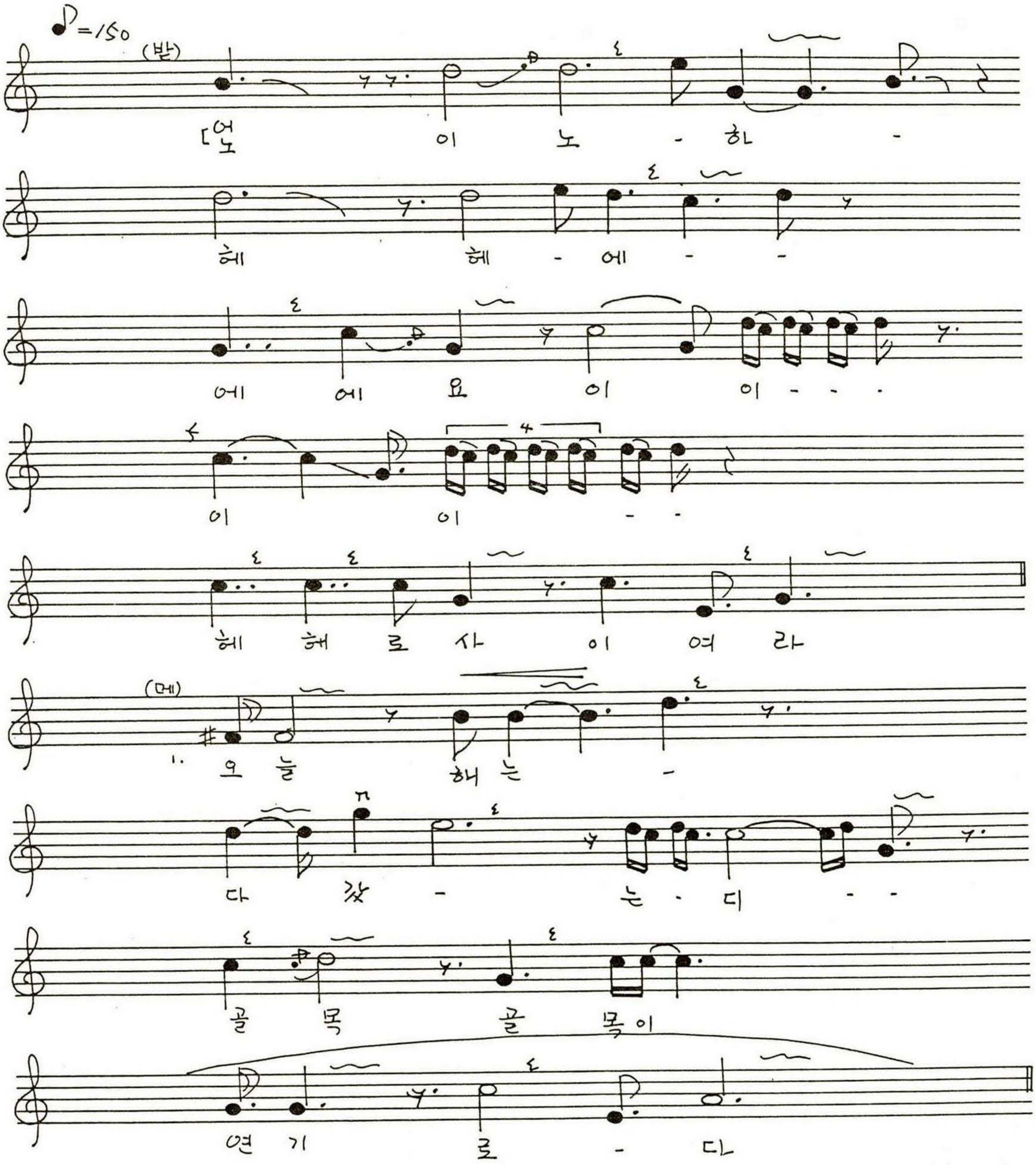
(받) 어기나누 나누나
어기나누 나누나
헤 헤에
거드렁 거리고
산나니로다.

〈홍주 71〉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논 맴 소 리

김유돈
素 87-11-30[A]

★참고用 (∵음정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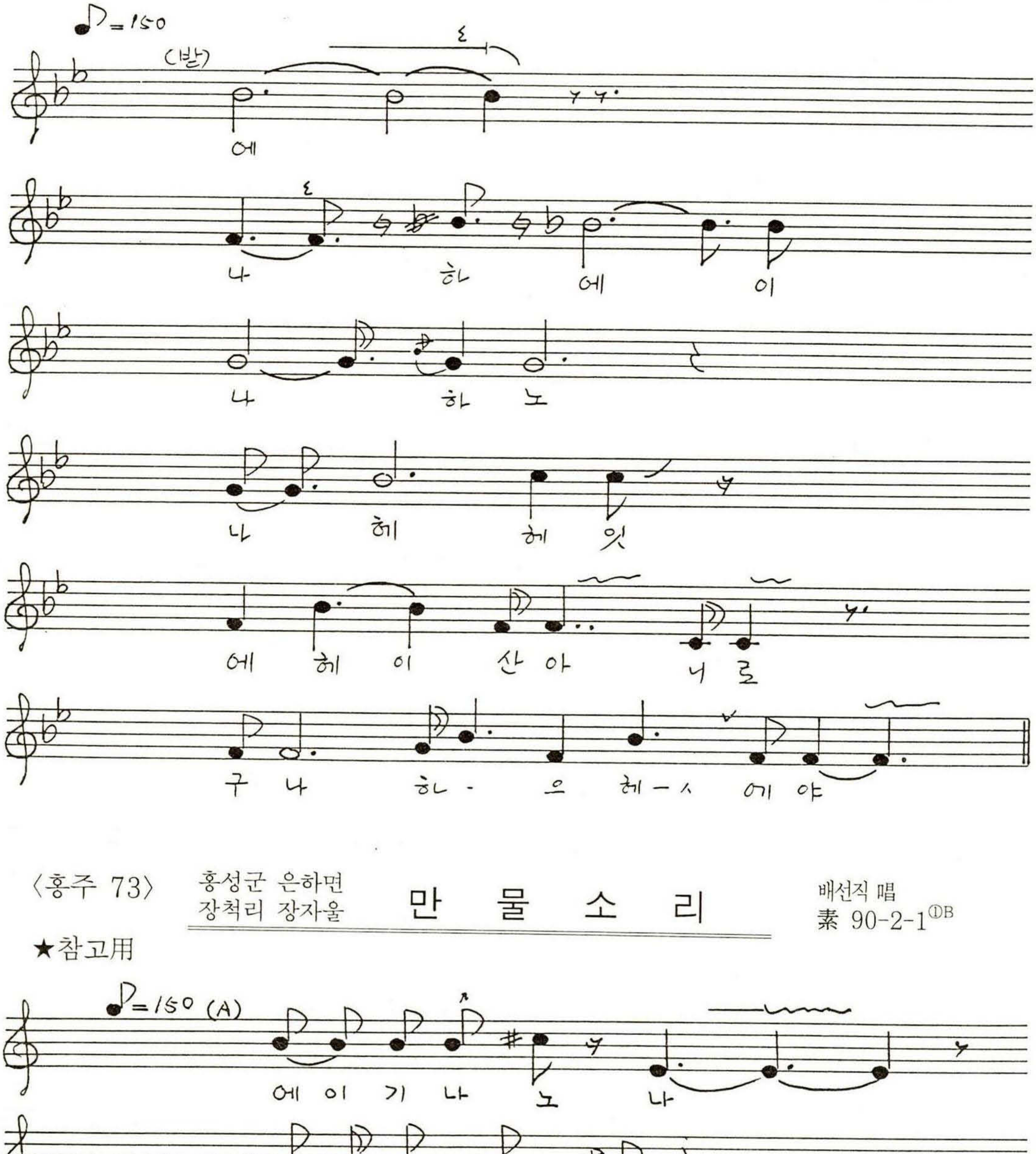


2. 산아 산아 수양산아
   눈비 맞어서 백두산이로 - 다

〈홍주 72〉 홍성군 은하면
화봉리 야동

만 물 소 리

정동의 (1914.남.土民)唱
素 94-2-28[A]
녹음협조:김교성
(1922.남.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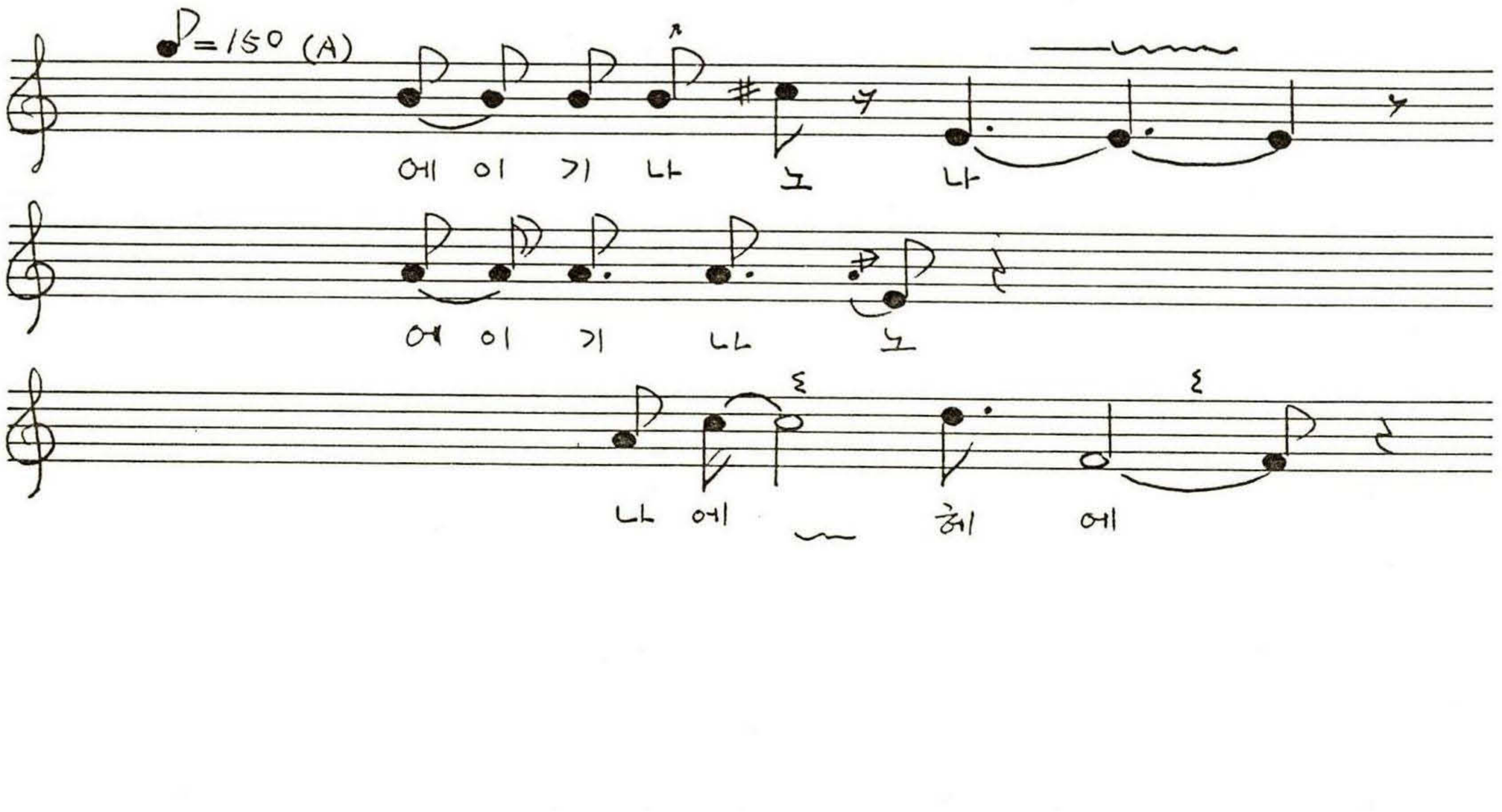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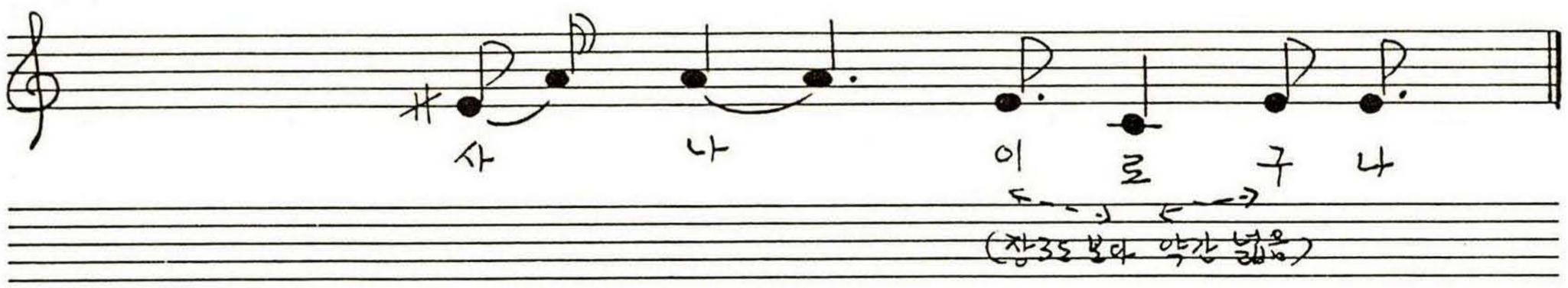
〈홍주 73〉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만 물 소 리

배선직 唱
素 90-2-1[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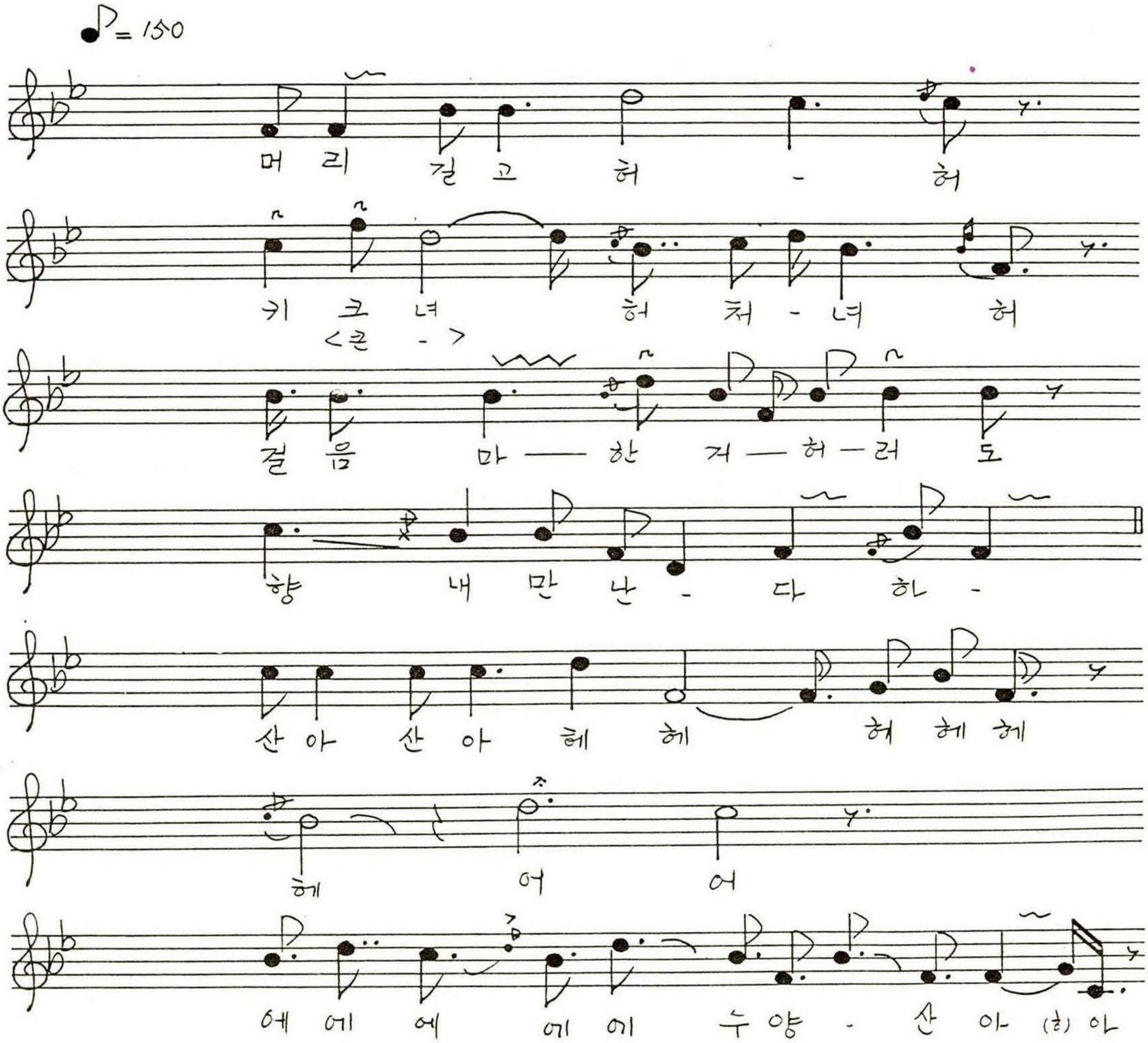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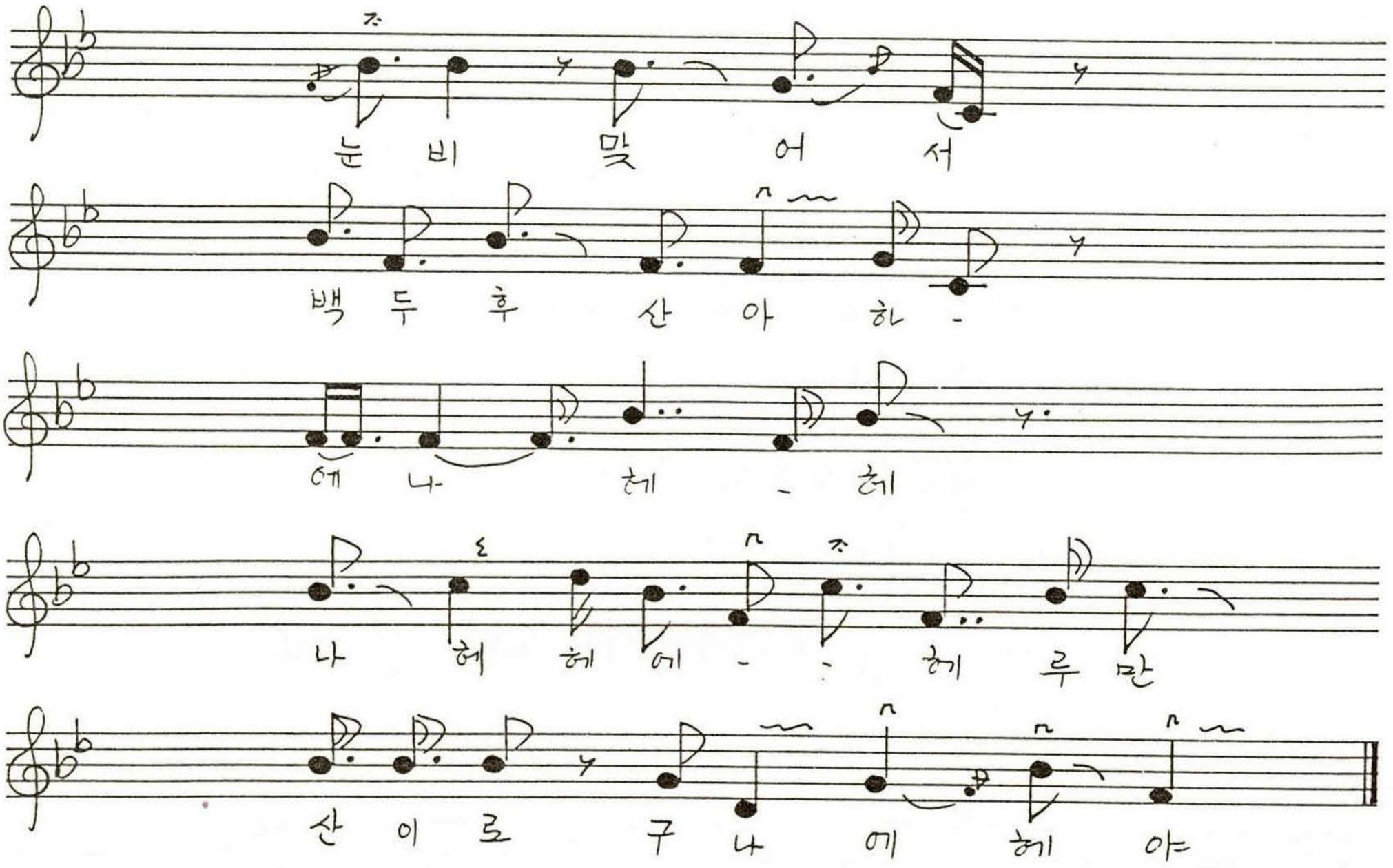




(B) "에기나노, 에기나노 나아에,
에기나노,
나헤 헤에
사하나이로구나"

〈홍주 74〉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수양산(두벌매는 소리)** 전복한(1921.남.土民)唱 素 94-3-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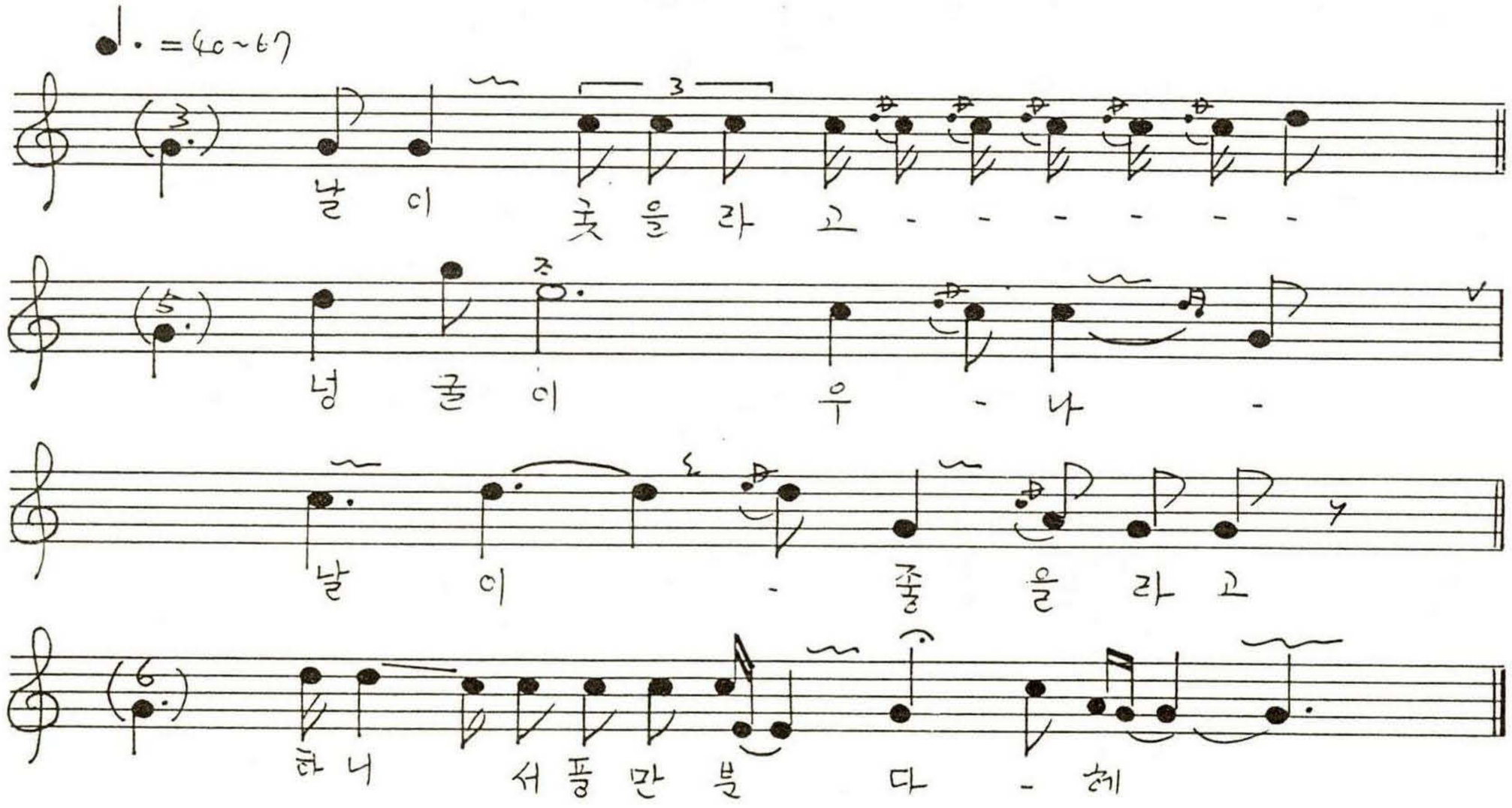




〈홍주 75〉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수 양 산

엄대섭(1928.남.土民)唱
素 94-3-12②A



○ 산아산아 수양산아
눈비 맞어서 백두산이로구나 아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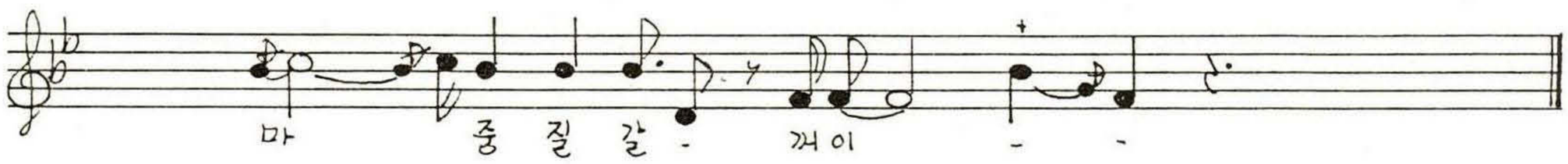
(민병국 唱) ○ 헤헤 설렁일랑 설렁일랑
바람이 분다고 설렁일네

(민병국 唱) ○ 오란데 저녁이 가고
동네 술집이 대낮이 간다.

〈홍주 76〉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

만물매는 소리(Ⅰ)

(앞)박원제(1919.남.土民)
(齊)한상진(1917.남.土民)
김덕진(1918.남.土民)
박원제(1918.남.土民)
素 87-3-30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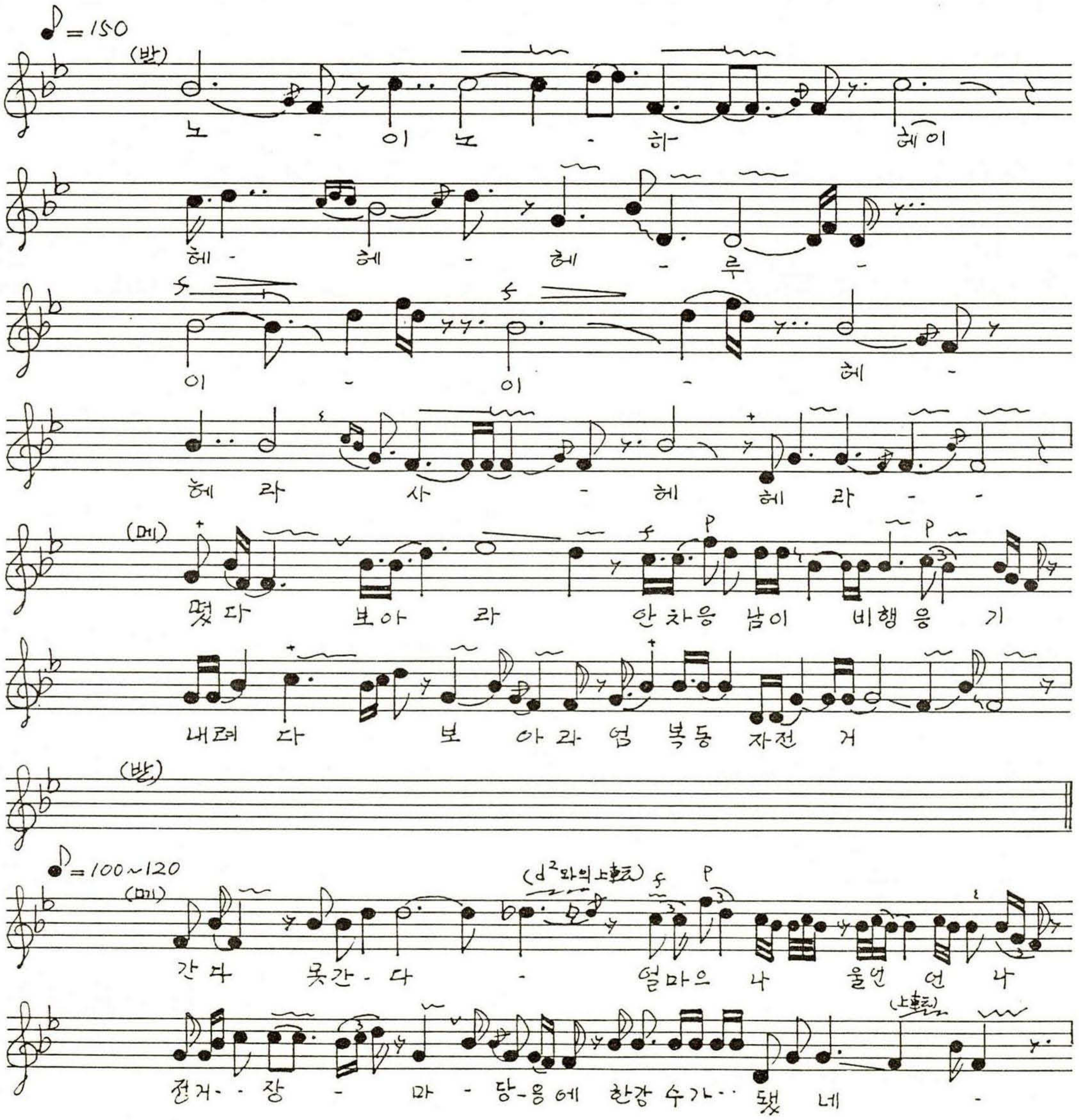


③ (앞) 도령도령 날다려가게, 한양 낭군이
(齊) 날다려가게, 이에-에, 일락서산 해는 지고 월출동녘에 저달이 솟네헤/
④ (앞) 산아산아 수양산아 눈비맞어서
(齊) 백두산아, 홍에-에, 해는 지고 저무신 날에 옷 갓을 하고서 어디를 가나/

〈홍주 77〉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논 매 는 소 리

우준(1940.남.20대째거주 土民)唱
이소라채보 87-3-30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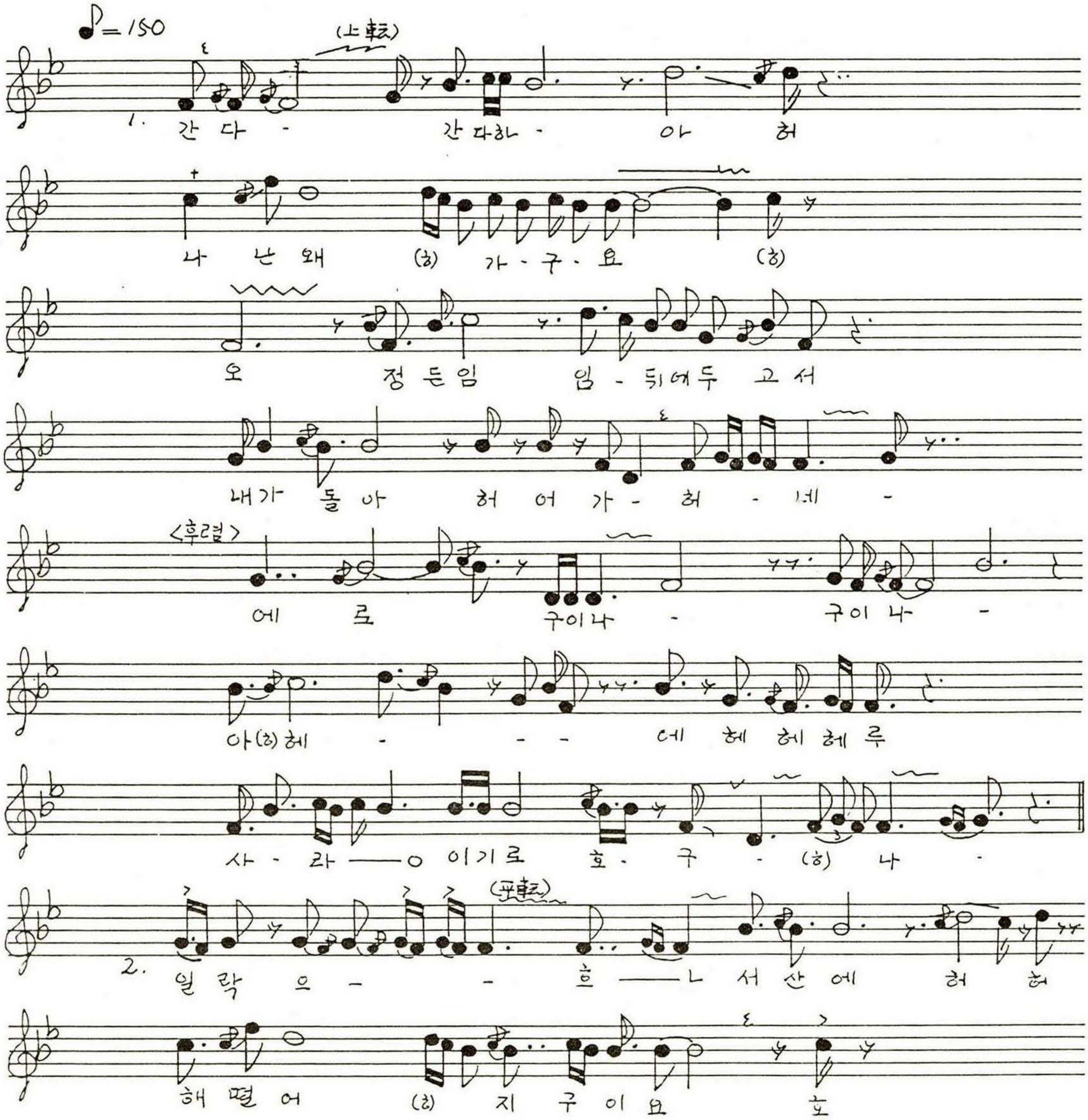
(받)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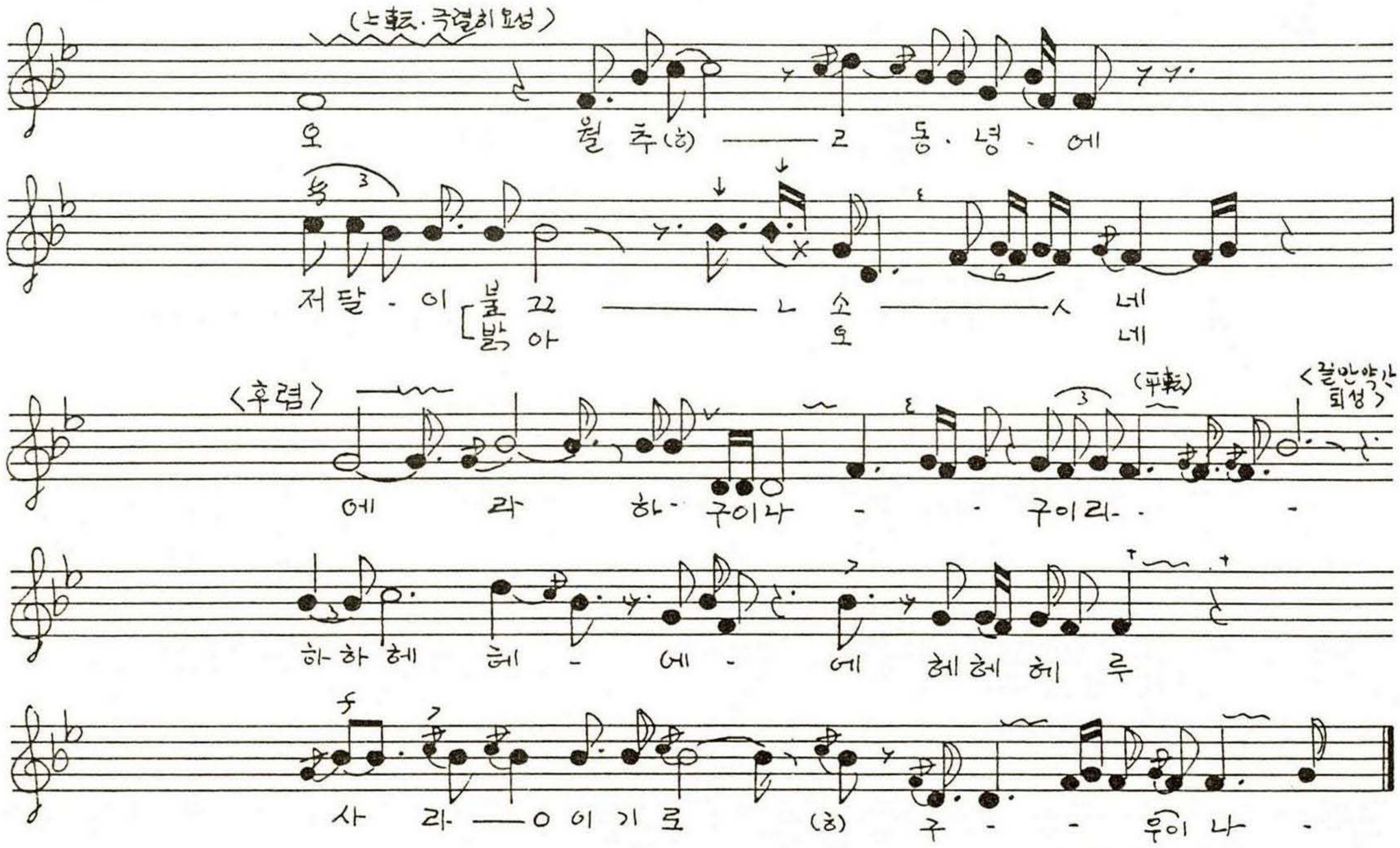
(메) 앗서라 말아라 니그리 말아라, 사람의 괄세를 니그리 마라/
간다 못간다 얼마나 울었나, 정거장마당에 한강수가 됐네/
세월이가기는 바람결같구요, 인간이 늙은건 물거품과 같구나/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구요, 우리네 살림살이 근심도 많구나/
놀기가 좋기는 꽃장구일체고, 잠 자리 좋기는 에루화 춘향이 웃방일세/

〈홍주 78〉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운곡

논 매 는 노 래

주정순(1927.남.土民)唱
素 87-4-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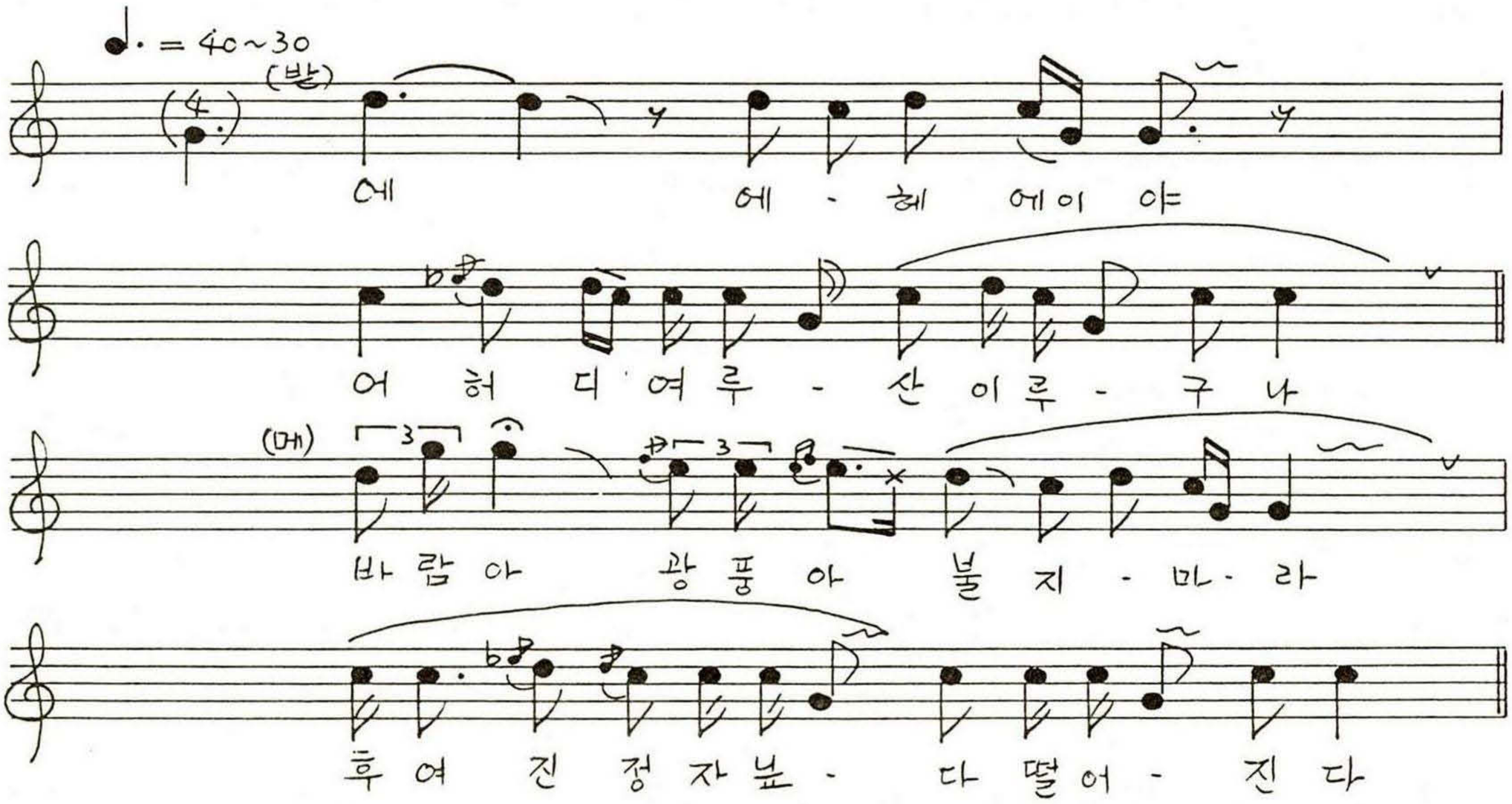


3. 산천초목은 젊어만 간데 에에, 우리네 청춘들은 다늙어가네/(후렴)

〈홍주 79〉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잦 은 산 타 령

강영신(1913.남.土民)唱
素 94-2-27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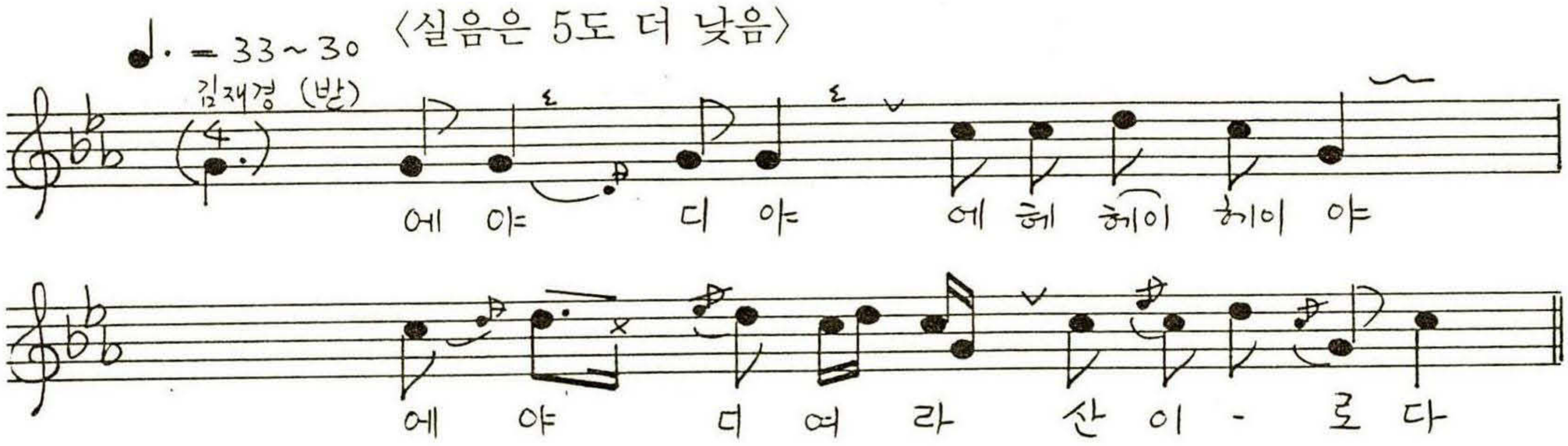
(메) ○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구서 웃지마소

〈홍주 80〉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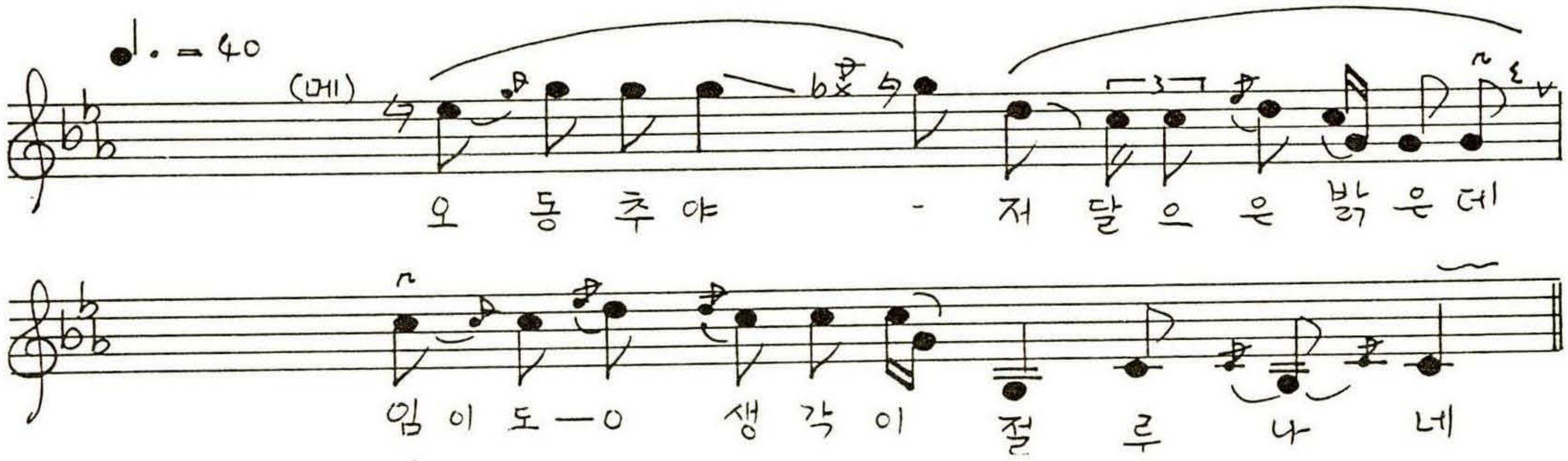
만물소리(산아지系)

창:김대곤(1919.남.土民)
김재경(1922.남.土民)
素 94-2-27③B

〈실음은 5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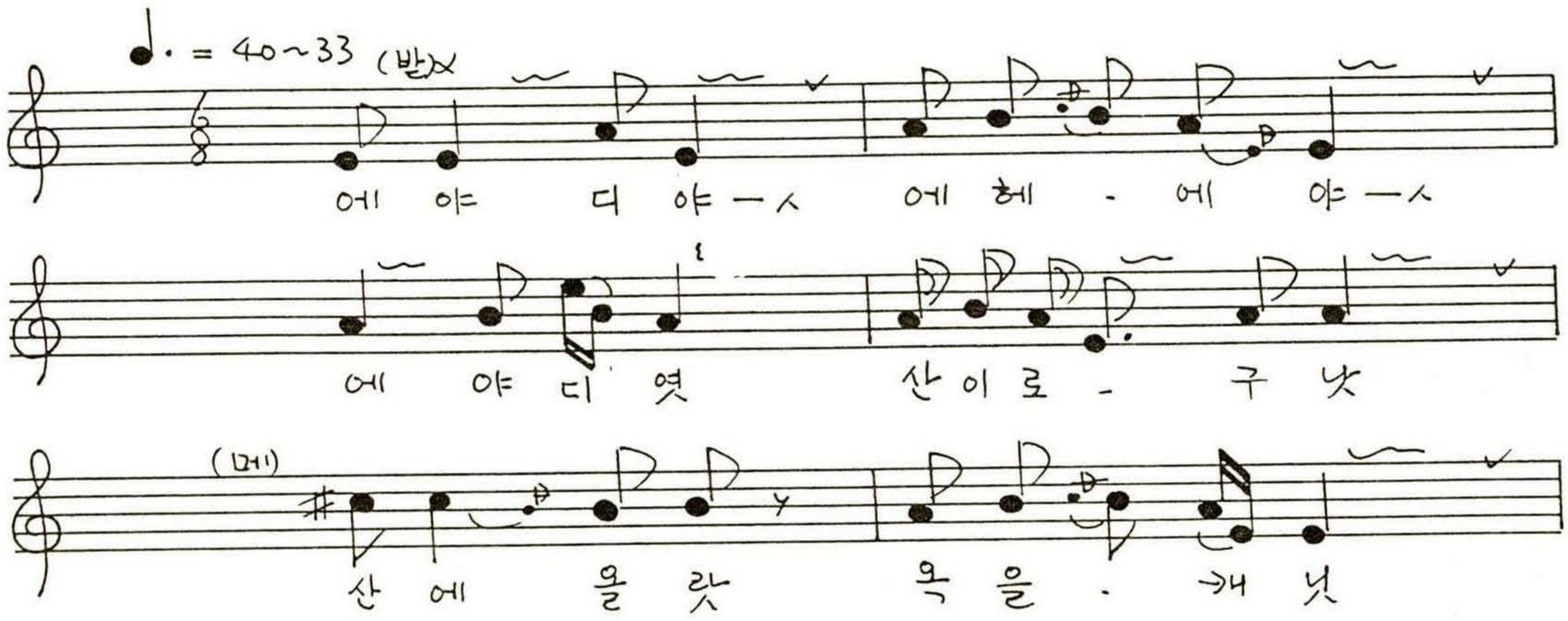
(메) 이 논배미를 다 매구서
장구배미루 들어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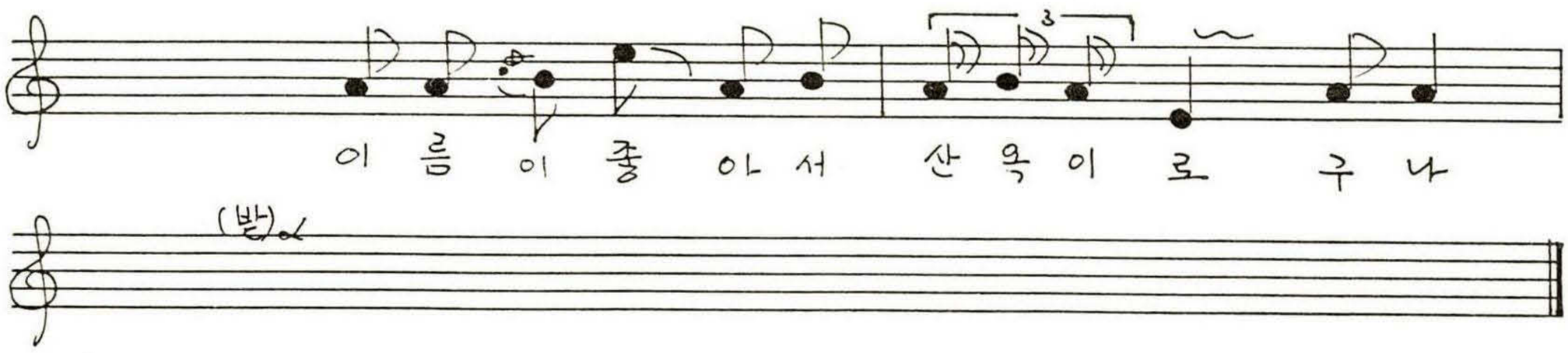


〈홍주 81〉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산 아 지 (논 맴)

이연준(1923.남.서부면 죽도출생.
6세에 남당리 이주)唱
素 90-2-3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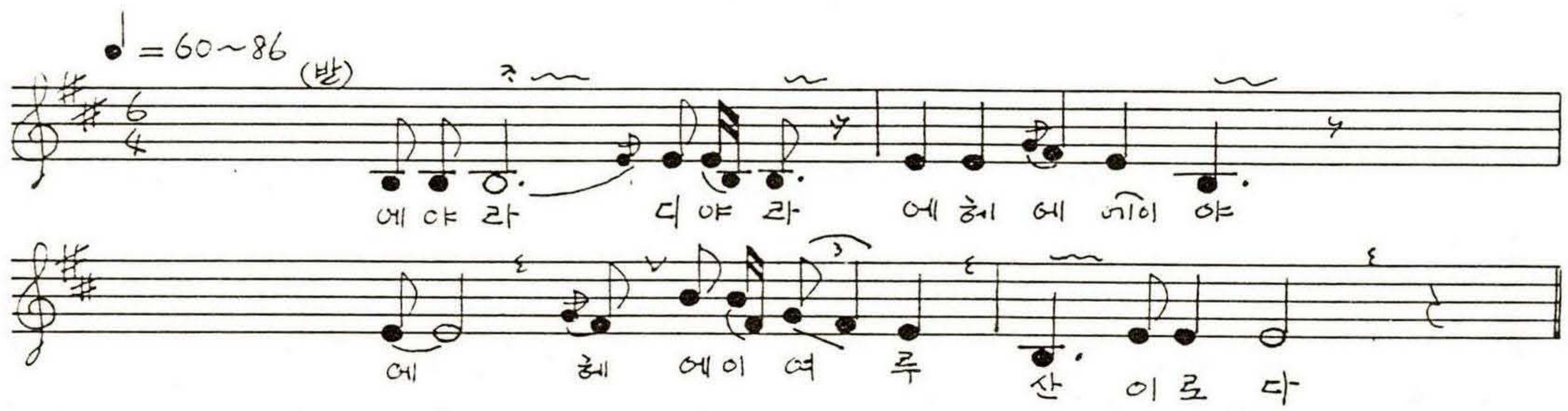




〈홍주 82〉 홍성군 홍북면 石宅里

(자 진) 산 타 령

김세원(1929.남.土民)唱
素 87-3-3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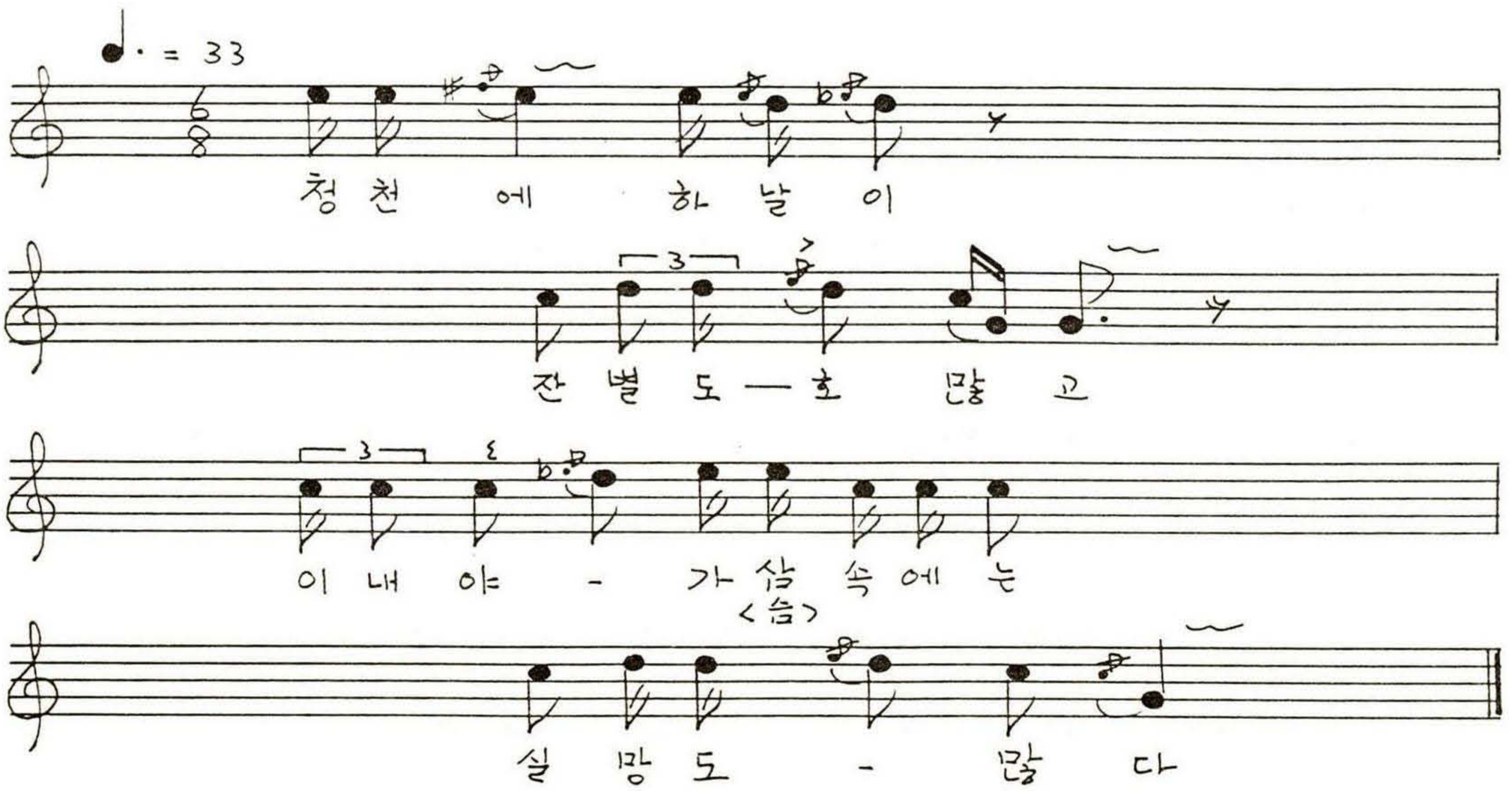


(메) 가는님 허리를 시리담썩 안고서, 가지를 말라고 통사정만하네/
저건너 갈미봉에 비가묻어들온다, 여러일꾼 빨리빨리 매여라보세/

〈홍주 83〉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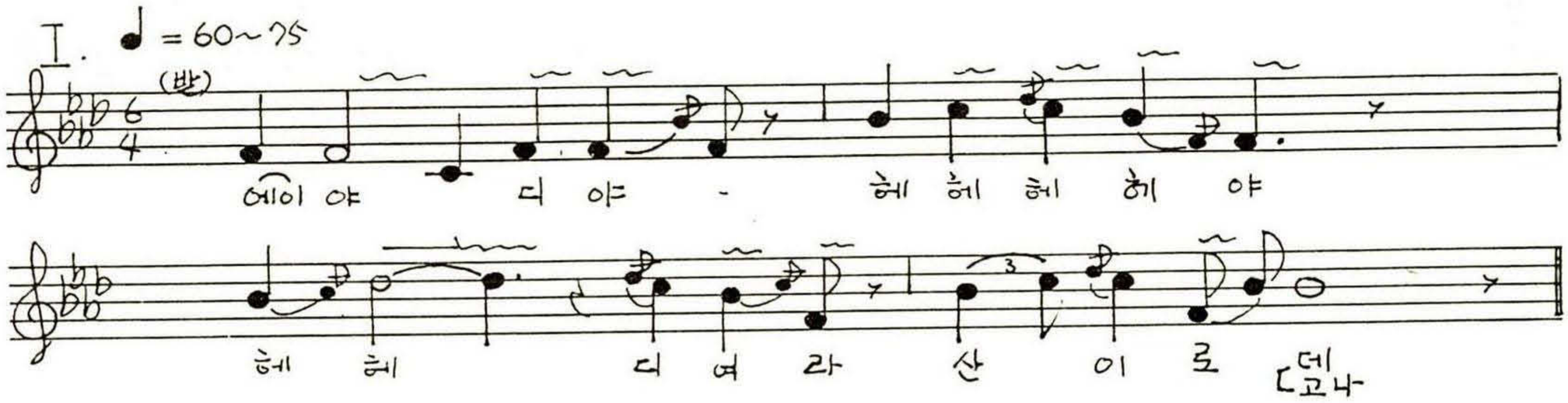
자 진 산 타 령
메 김 소 리 (나 무 꾼)

한동석(1919.남.土民)唱
素 90-2-3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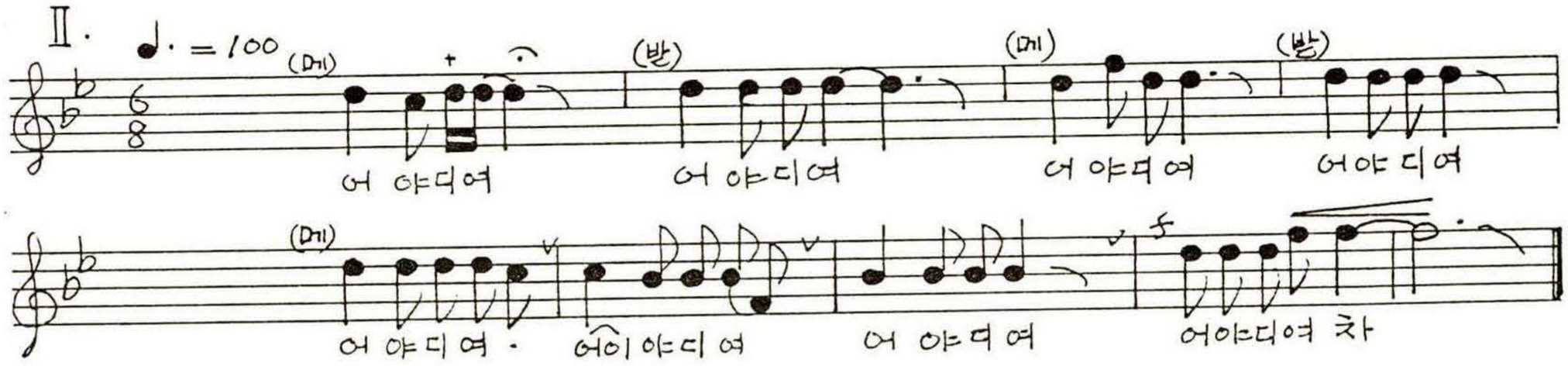


〈홍주 84〉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신곡리 **논 매 기**

(메)유종근(1937.남.죽림土民)
(받)김제면(1924.남.신곡土民)
맹덕호(1936.남.신곡土民)
素 86-3-25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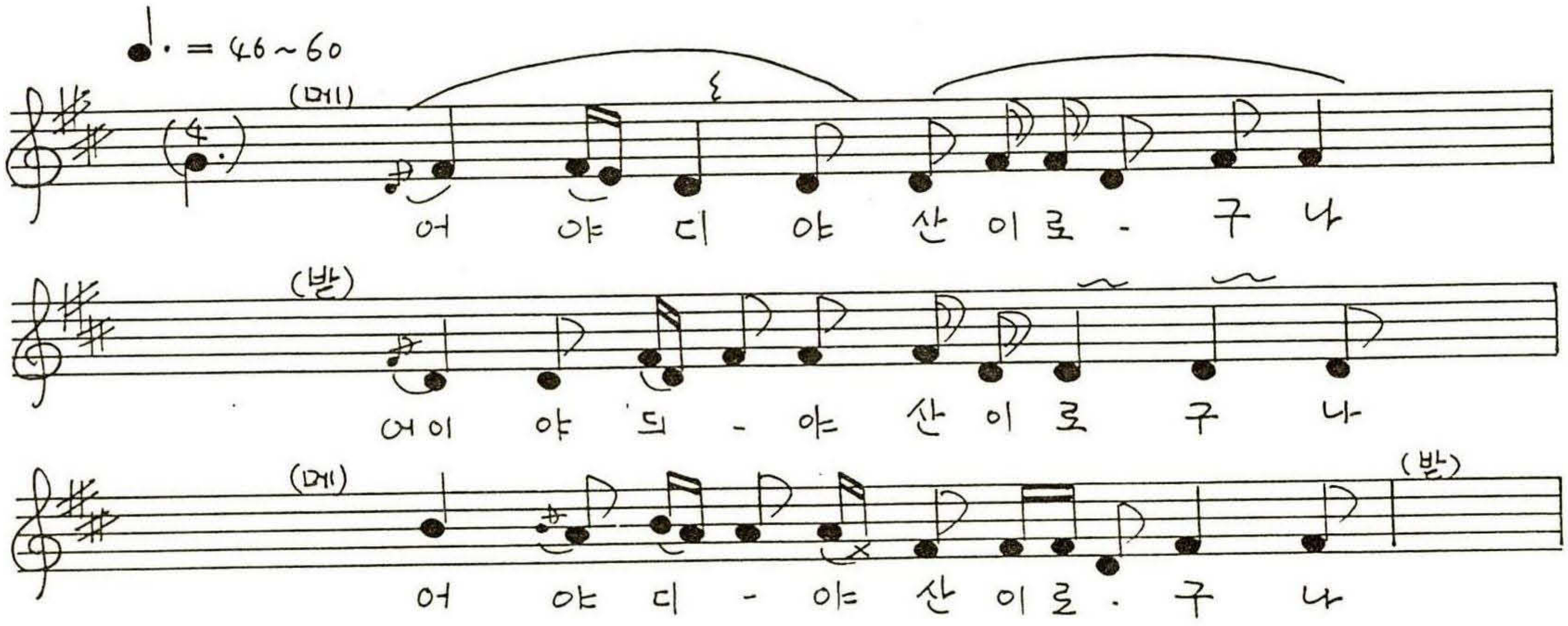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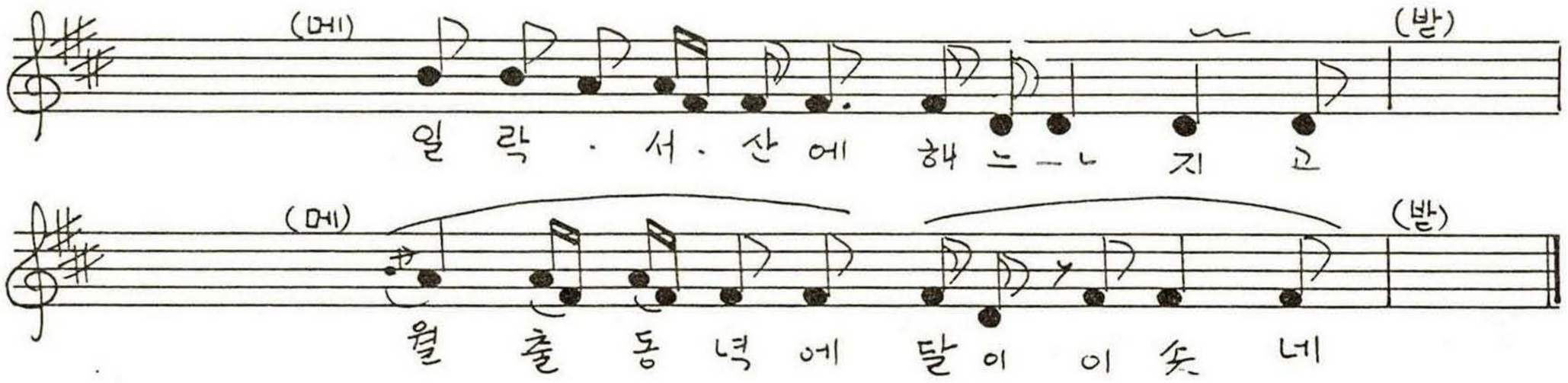
(메) 일락은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동녁에 달이솟네/
간다간다하 날두려가노라 내가가면 아주나가나/
무정세월아 오고가지를마라 아까운 청춘이 다늙어가누나/
무정한 세월은 오구나가구요 아까운 청춘은 다늙어가네/



〈홍주 85〉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산이로구나 (논맴)**

이환성(1925.남.土民)唱
素 89-11-29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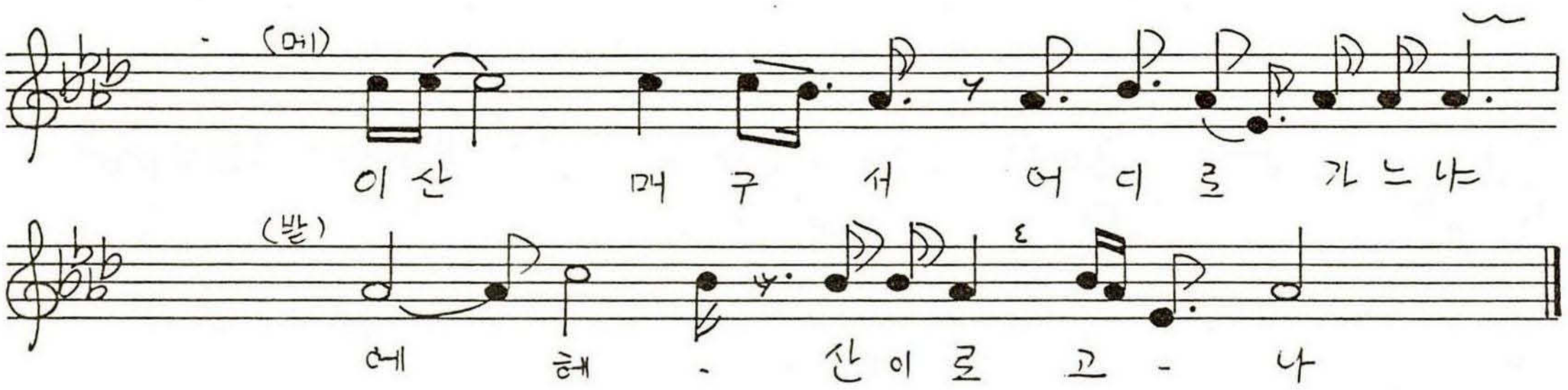
〈홍주 86〉 홍성군 금마면

만 물 소 리

(메)최병현
(받)박종서
素 94-3-12[A]

♪= 150

-논매러 들어가세
만물하러 들어가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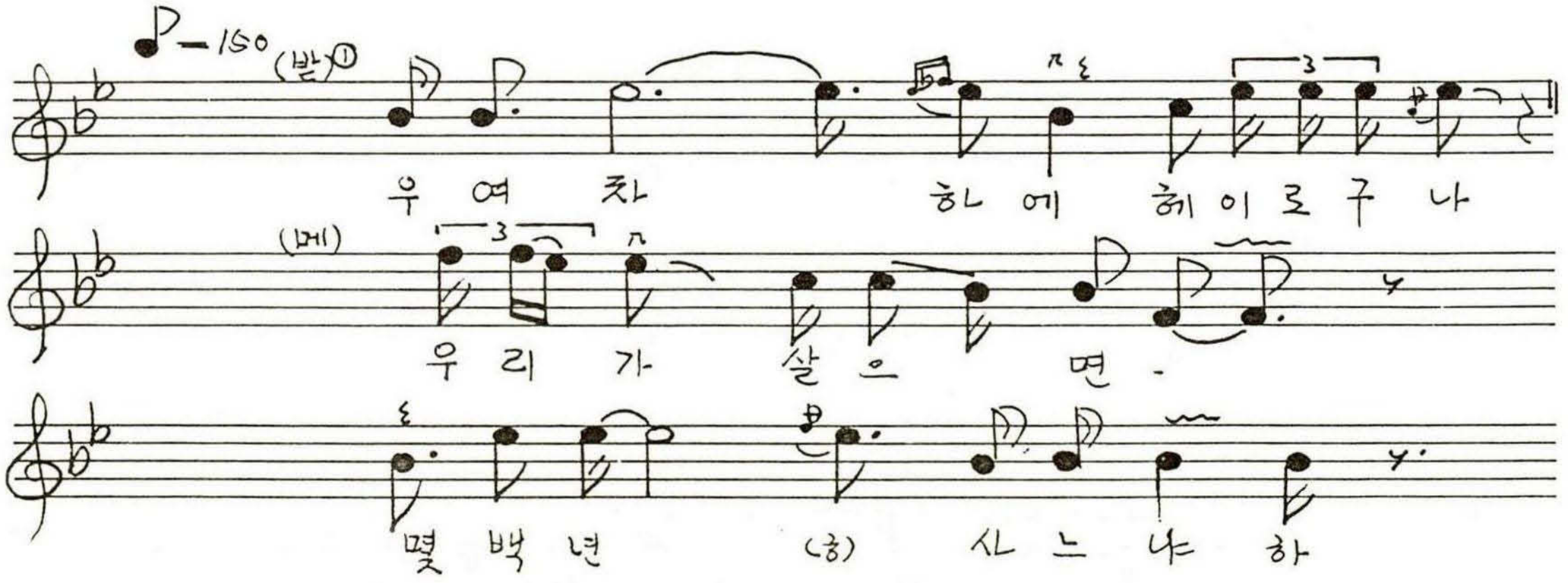


(외침) "위- , 빨리매세- "

〈홍주 87〉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논 맴 소 리(호미)

이태훈(1921.남.土民)
素 90-2-2[④B]



살 어 서 생 전 에
맘 대 도 ——— 호 노 세
(받)② 어 - 함 뜨르르 ——— 으

〈홍주 88〉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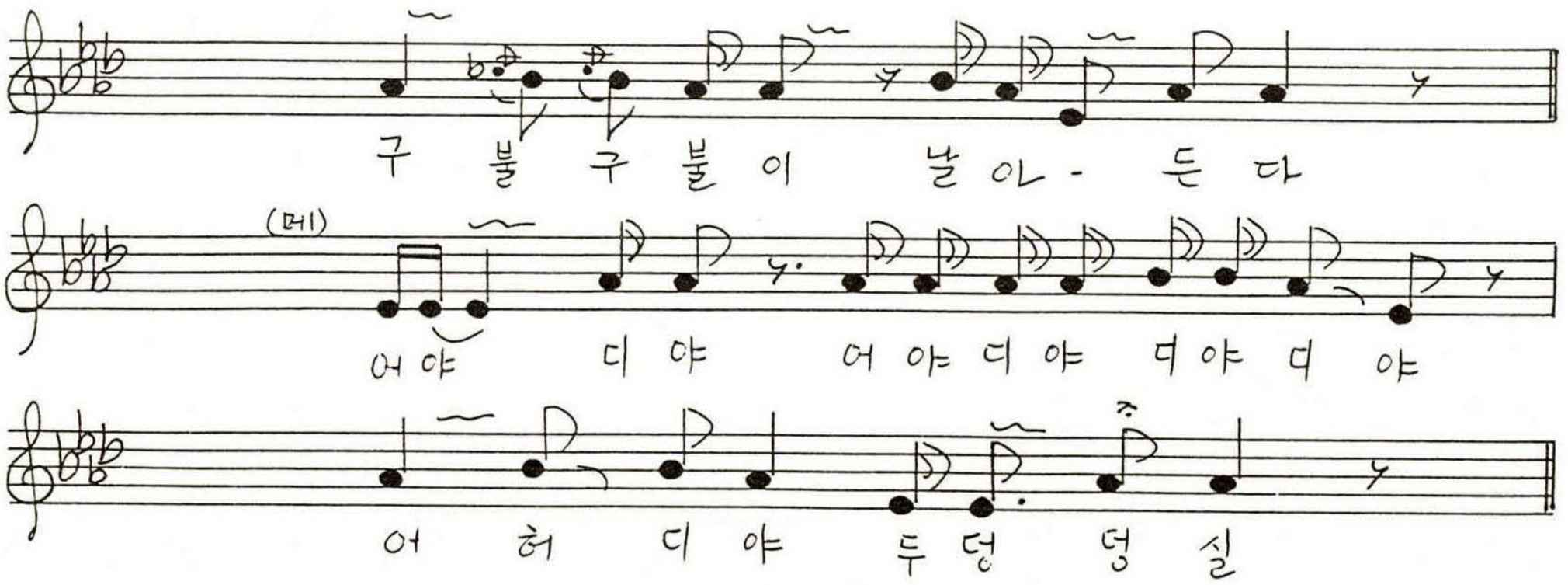
①세벌매는소리(산아지)
②두 덩 덩 실

전복한(1921.남.土民)唱
素 94-3-1[A]

① ♩. = 46~44

(메) 마 구 자 실 과 부 양 총 을 매 구 서
두 리 봉 꼭 대 기 로 성 전 으 을 간 다
(받) 에 헤 오 호 호 디 이=
오 호 디 여 산 아 지 로 - 더 구 나

② ♩. = 46~50 (메)
제 자 라 볼 보 기 남 의 잔 듸 떠 를 떡 고
3 사 브 랑 삽 작 거 려 서 발 장 단
3 사 브 랑 삽 작 거 려 네 발 장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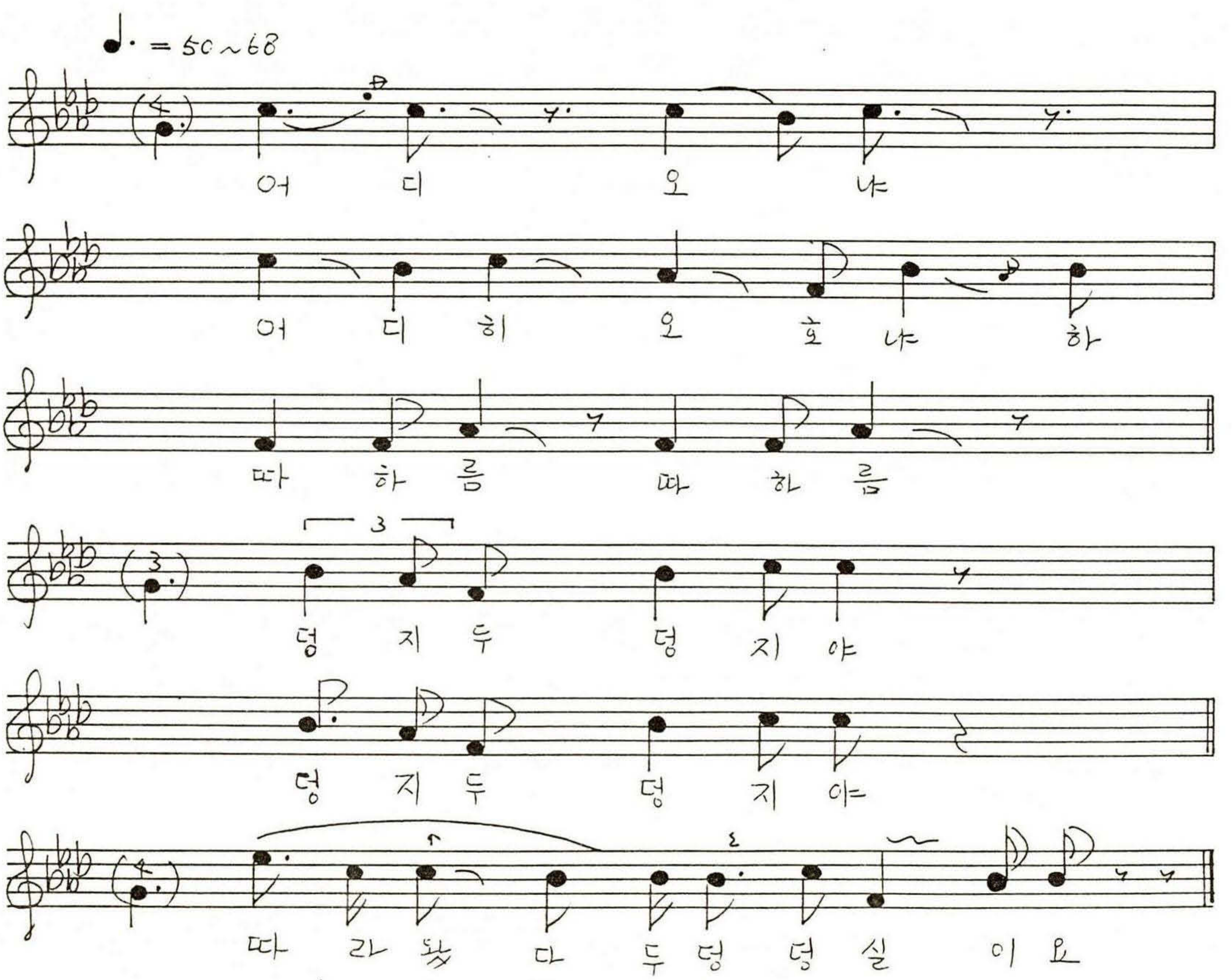


(받) 에- 어허허야, 어허로디야

〈홍주 89〉 홍성군 은하면 장곡리

세 벌 소 리

전복한(1921.남.土民)唱
素 94-3-1[A]



〈홍주 90〉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소도마을

만물매는소리(Ⅱ)

(메)박원제(1919.남.土民)
(받)박원제, 한상진, 김덕진
素 87-3-30③A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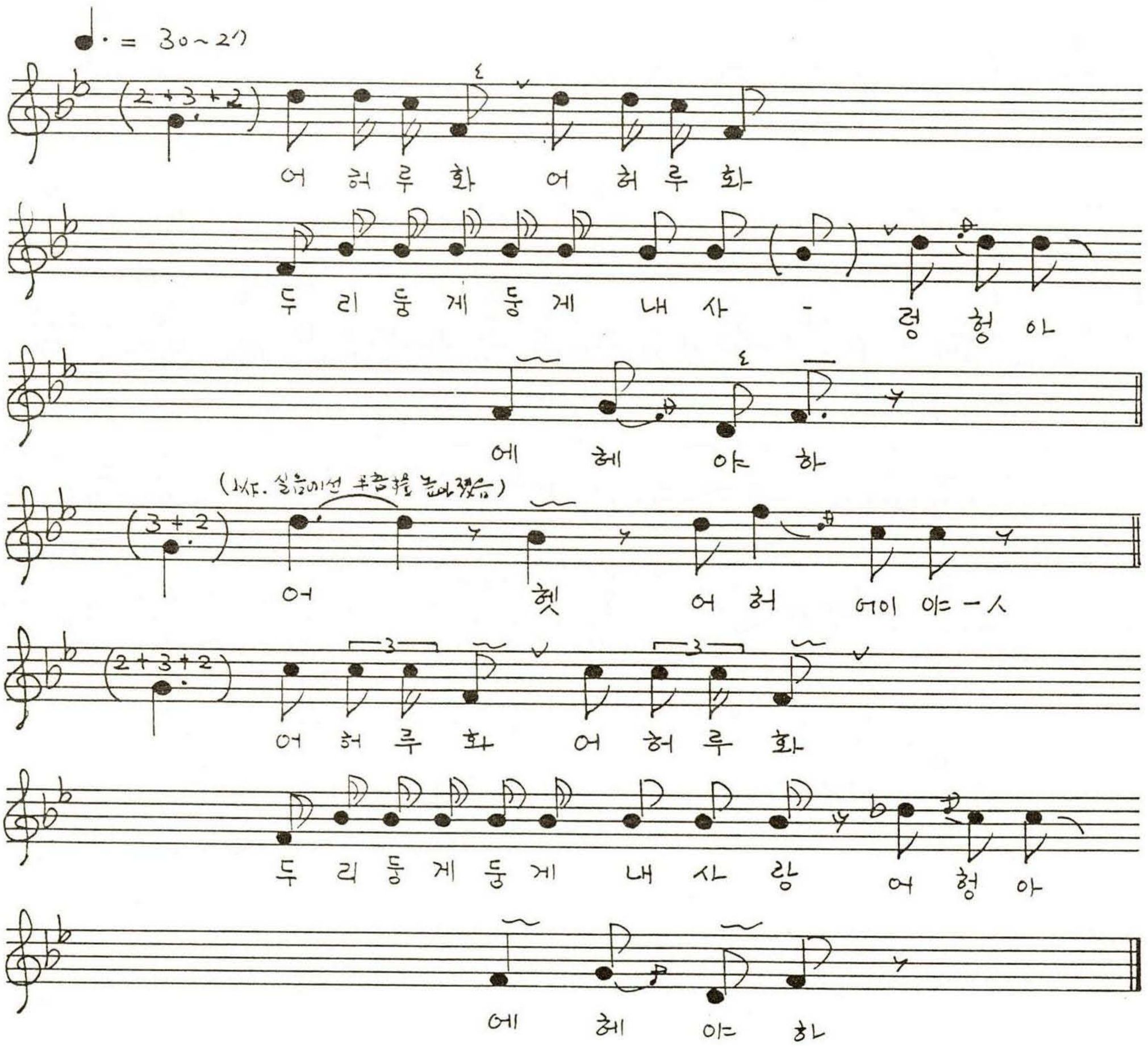
(메) 에헤 허 허 어 허 허이야 엉 어루화 엉 어루화
두리둥개 둥개내 사 - 러 엉 아 에 헤이 야 하
가 네 (후) 가 - 노 다 나는 돌여 가 네
임 을 다 따 러 서 나는돌여 가 - 네 에 헤이 야 하 -
(받) 에 헤 - 에 허 헤이 야 엉 어루화 엉 어루 화
두리둥개 둥개내 사 - 러 엉 아 에 헤 이 야
(메) 가는임 허리를 - 다리담 쑥 안 고
가 - 지를 - 말 라 고 통 - 사 - 정 한 - 다 에 헤 이 -
(받) 에 (후) 에 - 에 헤 에 야 엉 어루화
엉 어루화 두리둥개둥개 내 사 - 렁 - 아 에 헤이야 -

(메)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느냐, 나를버리고 가는낭군, 가고싶으냐 〈싶어 가느냐〉

〈홍주 91〉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두 리 둥 개 내 사 랑 (두벌, 세벌논맴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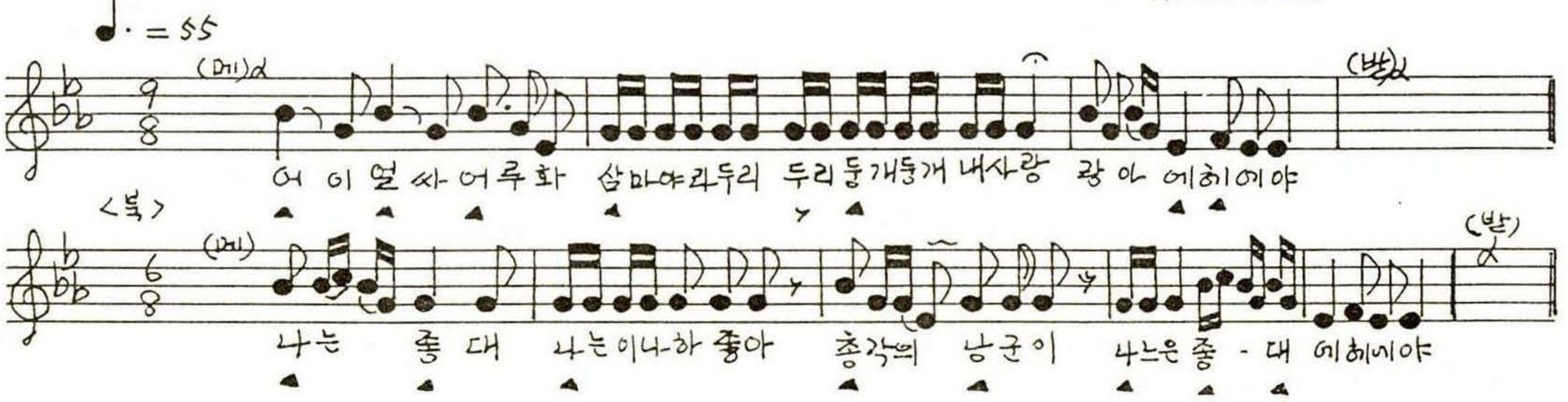
최창묵(1921.남.土民)
素 90-2-3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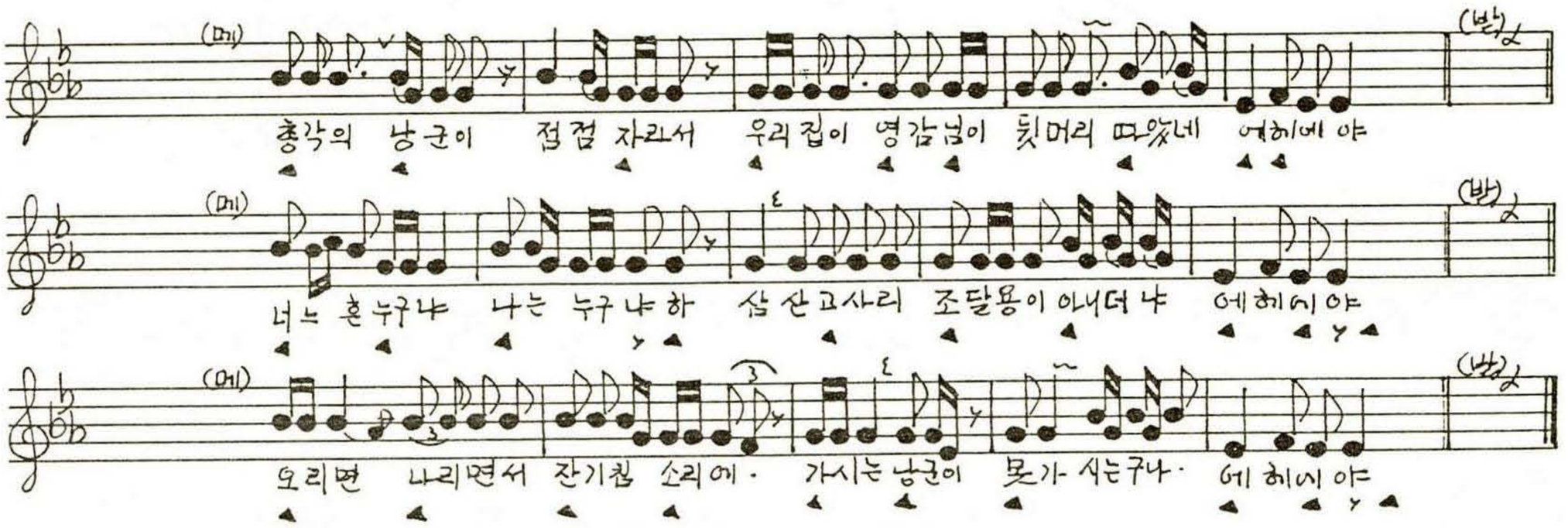


〈홍주 92〉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고들미

만 물 소 리

(메)김용세(1928.남.土民)
(받)조인해, 김기한, 박영규, 정용만, 장종구
녹음협조 : 강대식
素 86-3-24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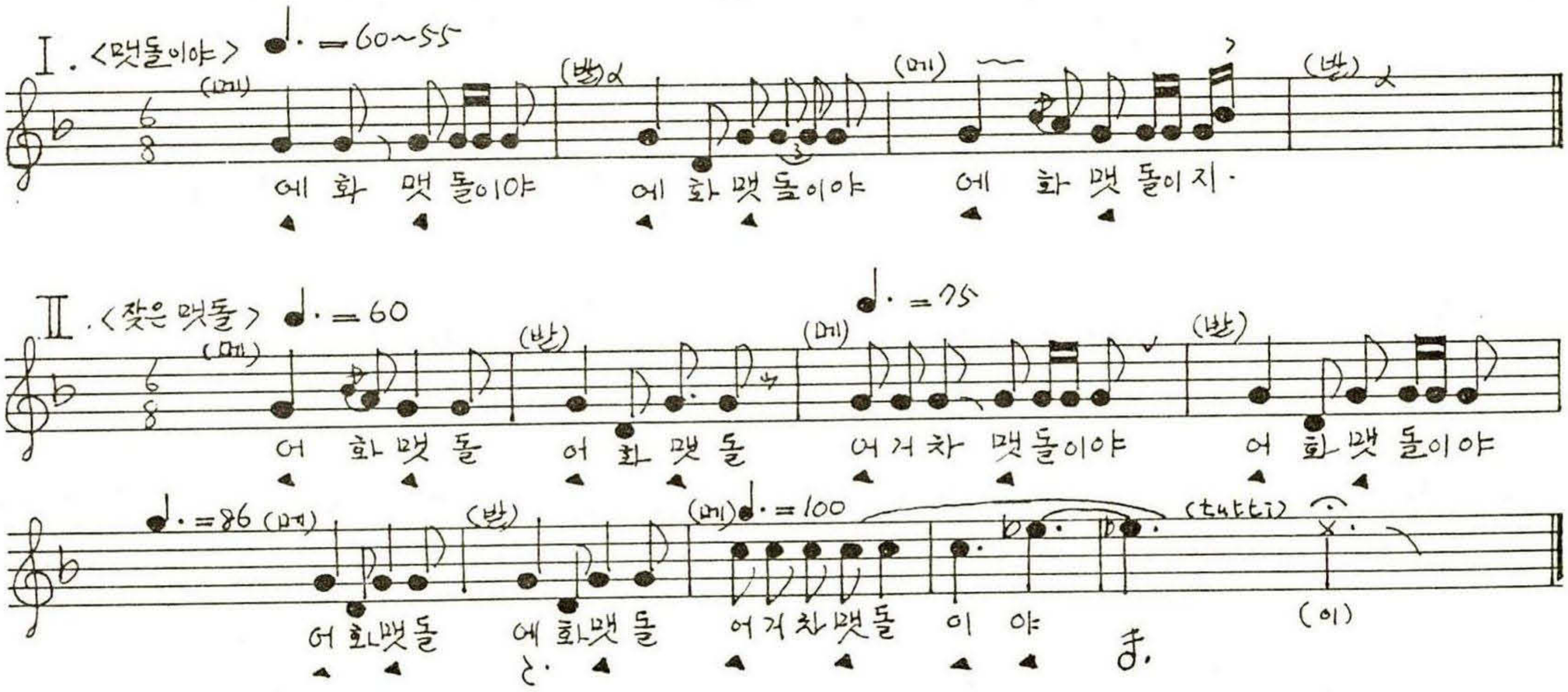




〈홍주 93〉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고들미

맷 돌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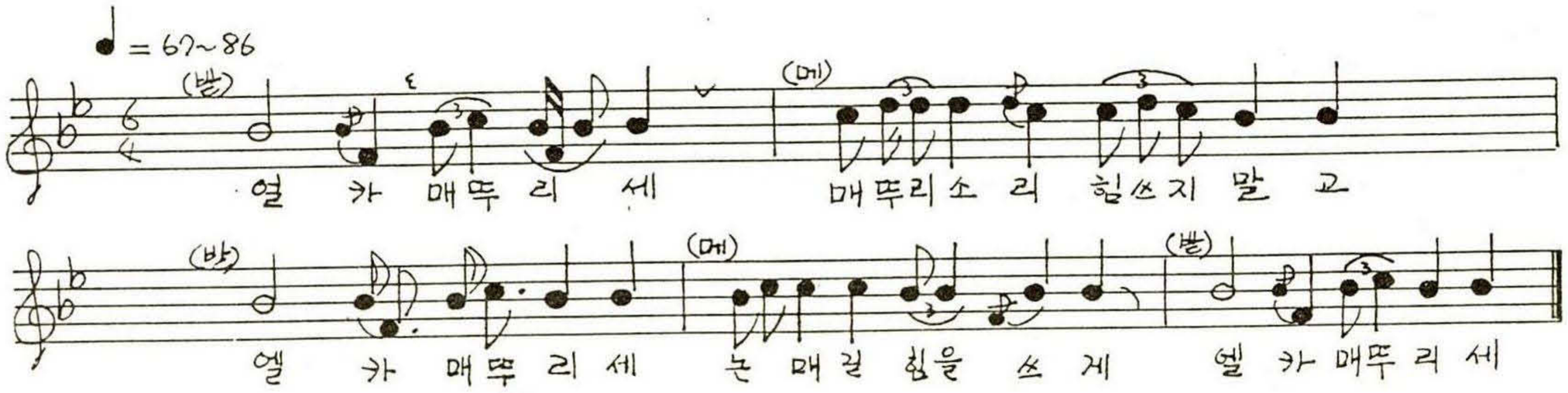
김용세唱
素 86-3-24②A



〈홍주 94〉 홍성군 구항면 공리

(잦은)만 물 소 리

(메)김옥환(1919.남.土民)
(받)진병옥(1911.남.土民)
素 87-3-30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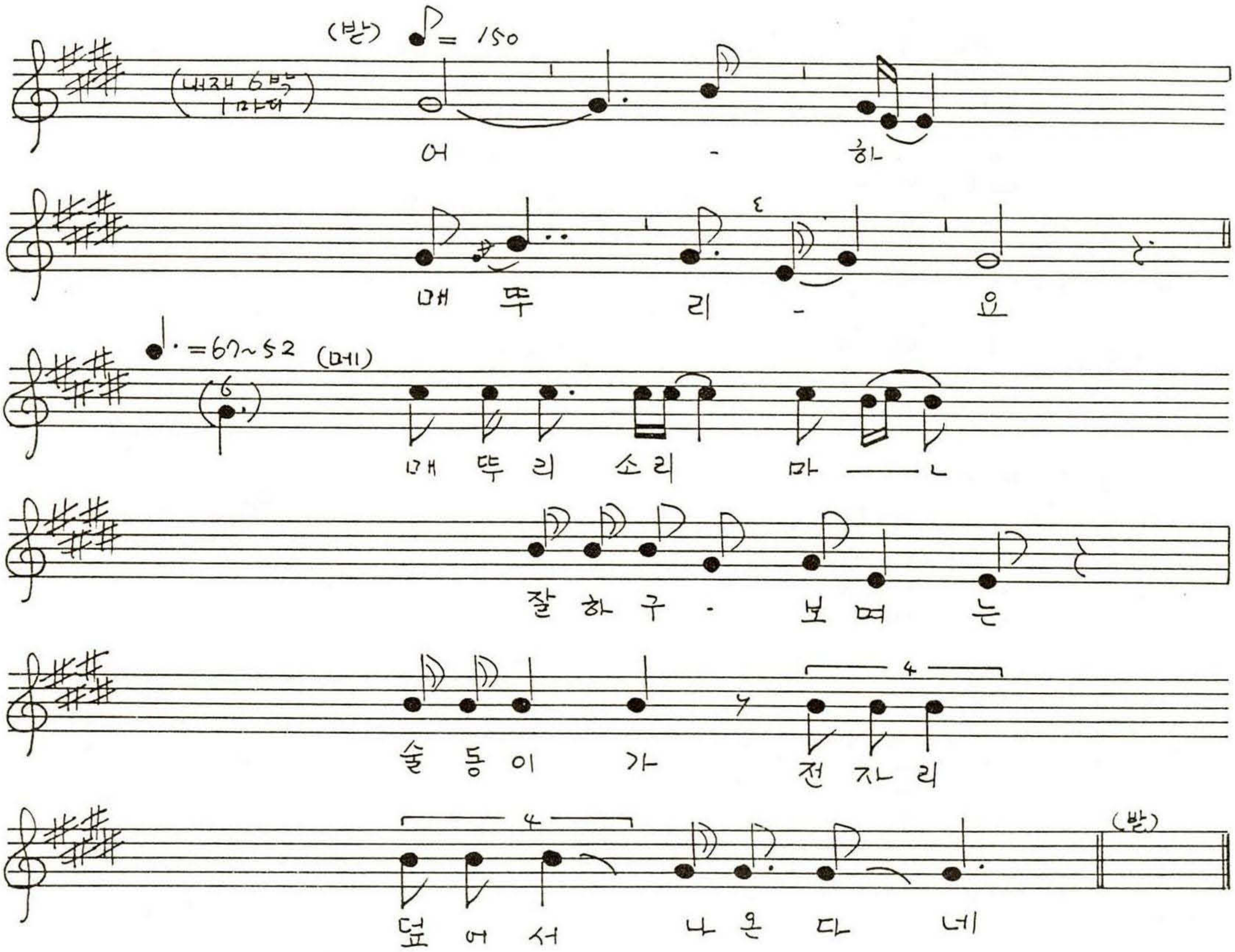


얼거디어차 매뚜리여/어하 매뚜리세/이러저리 매뚜리세/
매뚜리소리 정잘하면/먼데사람 듣기가좋다/얼가디야차 매뚜리일세/

〈홍주 95〉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매뚜리소리(논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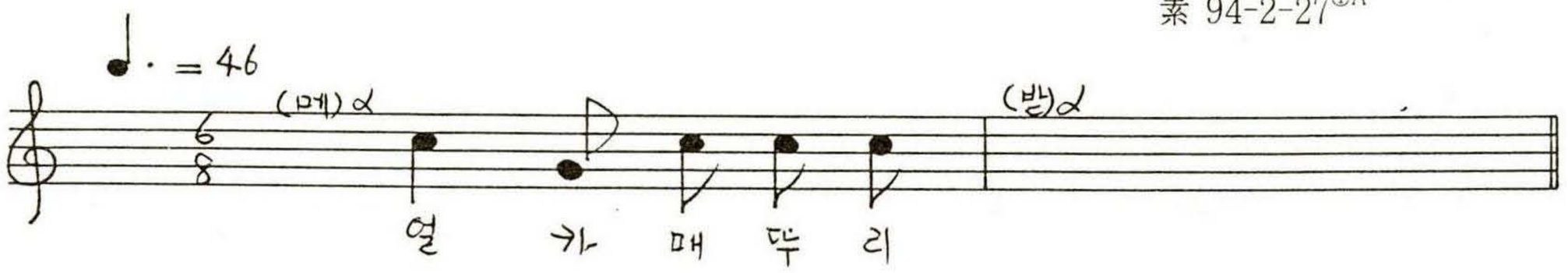
조종락(1913.남.土民)
('92.2.20 황성창녹음)
素 92-10-18



〈홍주 96〉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발현

매 뚜 리

(메)전정환(1924.남.장곡면 지정리 악골출생.7세에 발현 이주)
(받)방종석(1934.남.土民)
素 94-2-27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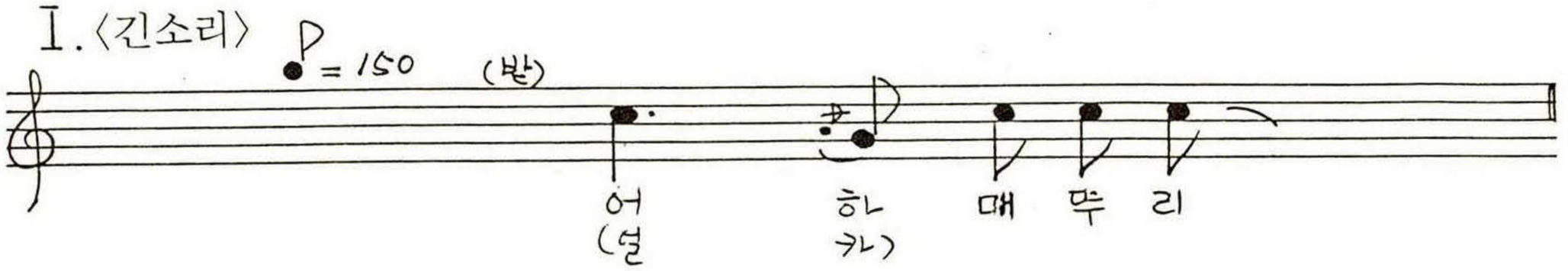
(메) ○ 메뚜리 소리도, 잘 넘어간다
○ 물속으로는 구 신뎅이
〈귀〉
○ 물밖으로는 번개뎅이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홍주 97〉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매 뚜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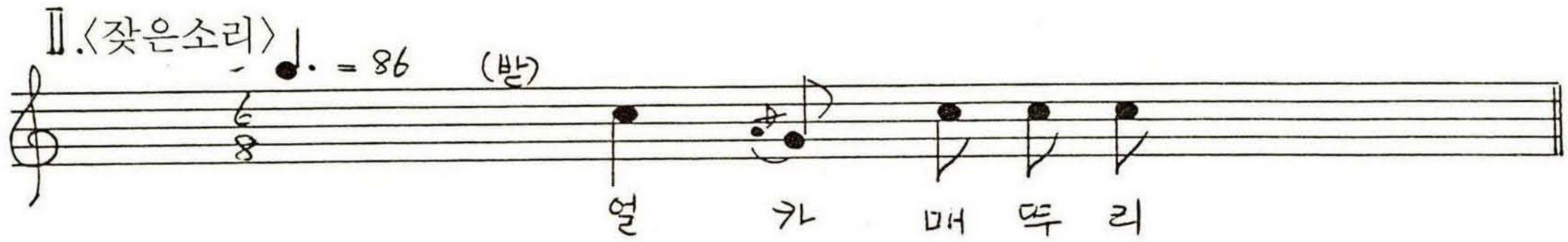
(메)윤민식
(받)공철영
素 94-2-27ⒹB

Ⅰ.〈긴소리〉



(메) 먼데도 잘들린다

Ⅱ.〈잦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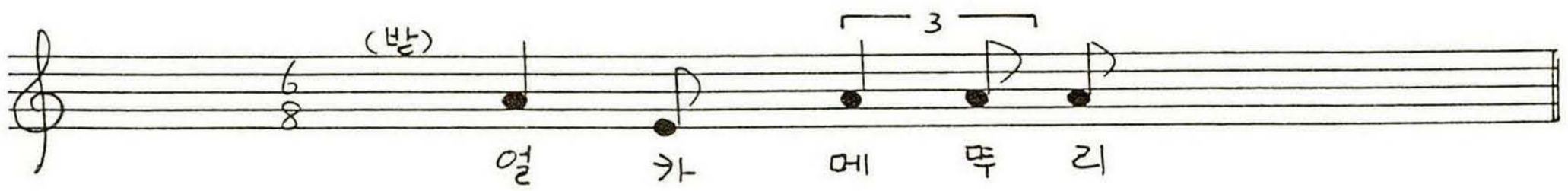


※ 어덕밑에 모여 "우- "하며 끝낸다

〈홍주 98〉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

매 뚜 리 (논맴)

임희종(1923.남.土民)
素 90-2-3⑦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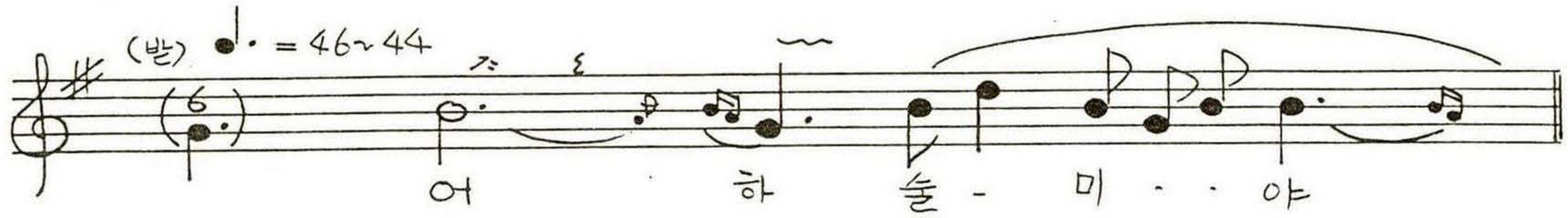


〈홍주 99〉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만 물 (술 미)

창:김창영(1916.남.서부면 수룡동 출생. 18세에 서지동 이주)
녹음협조 : 임기영
素 94-2-28ⒷB

實音은 3도 더 높음



(메)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서
부모봉양 전부 다 하고

♪=150

(메) 3

천 하 지 대 본 은

농 사 라 - 지 요

여 러 농 - 민 네 허

농 사 에 힘 을 쓰 세

(받)

어 - 허. 술 - 미 - 야

〈홍주 100〉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술미소리(만물)

①최창묵(1921.남.土民)
②한동석(1919.남.土民)
素 90-2-2⑥B

① ♪=150

(메) (받) (메)

어기 술 미 야 에 술 미 야

(메) 3

에 야 디 야 - 술 미 로 다 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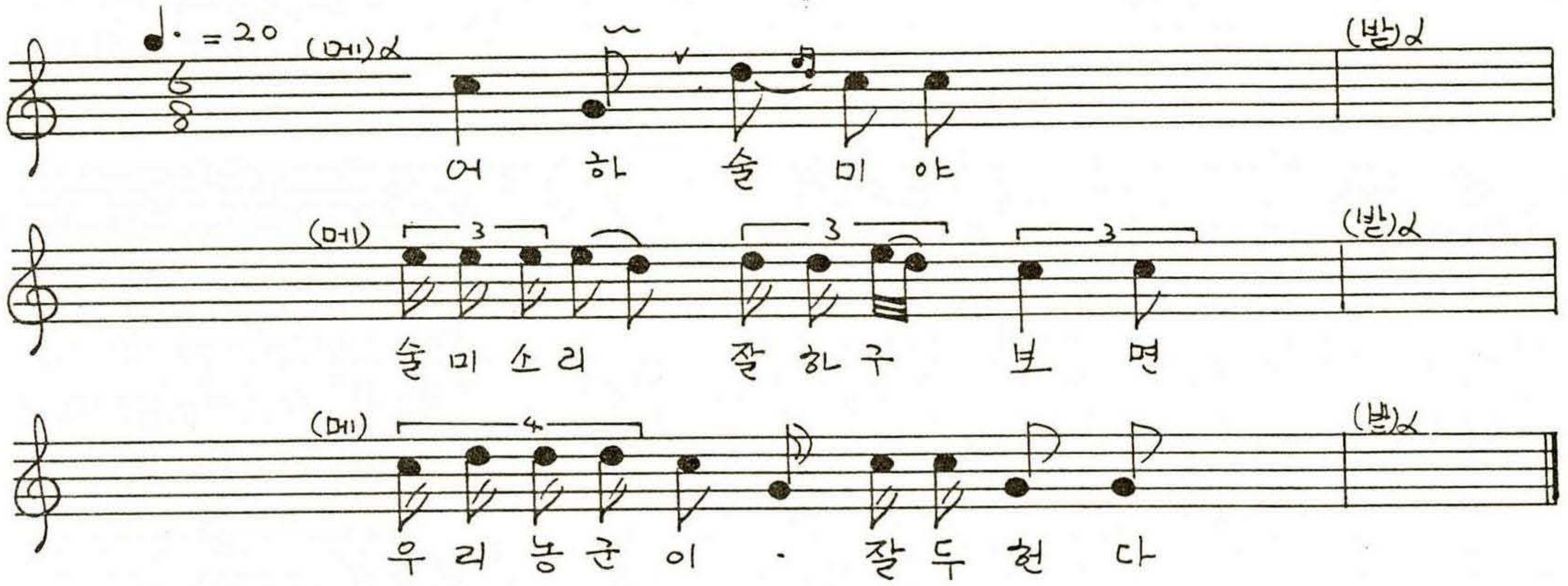
(받) (메)

어 기 여 라 술 미 로 다

(받)

에 술 미 야

② ★ 참고用(리듬 : 〈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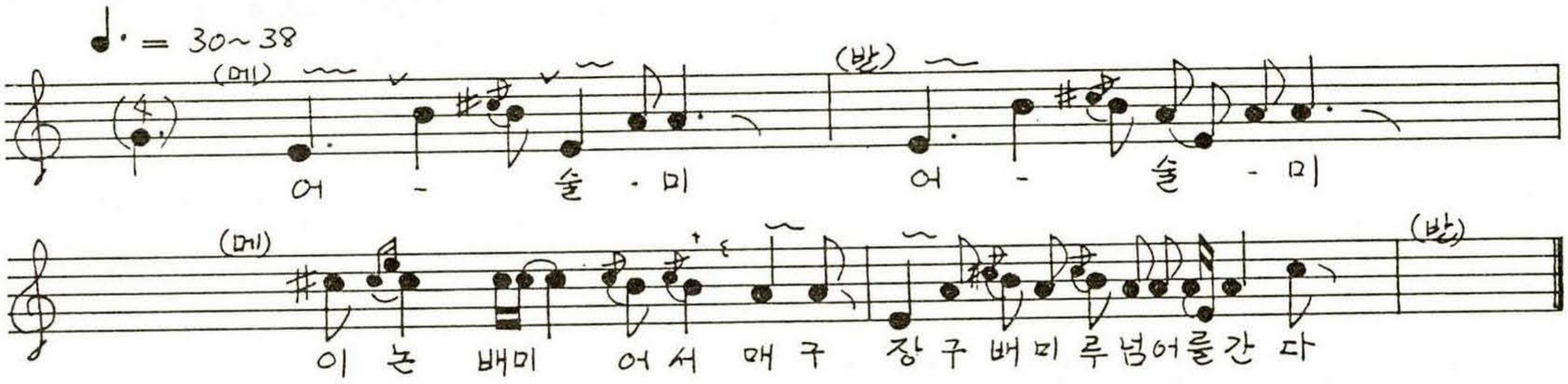


(메) 술미야 술미로구나/

〈홍주 101〉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만 물 매 는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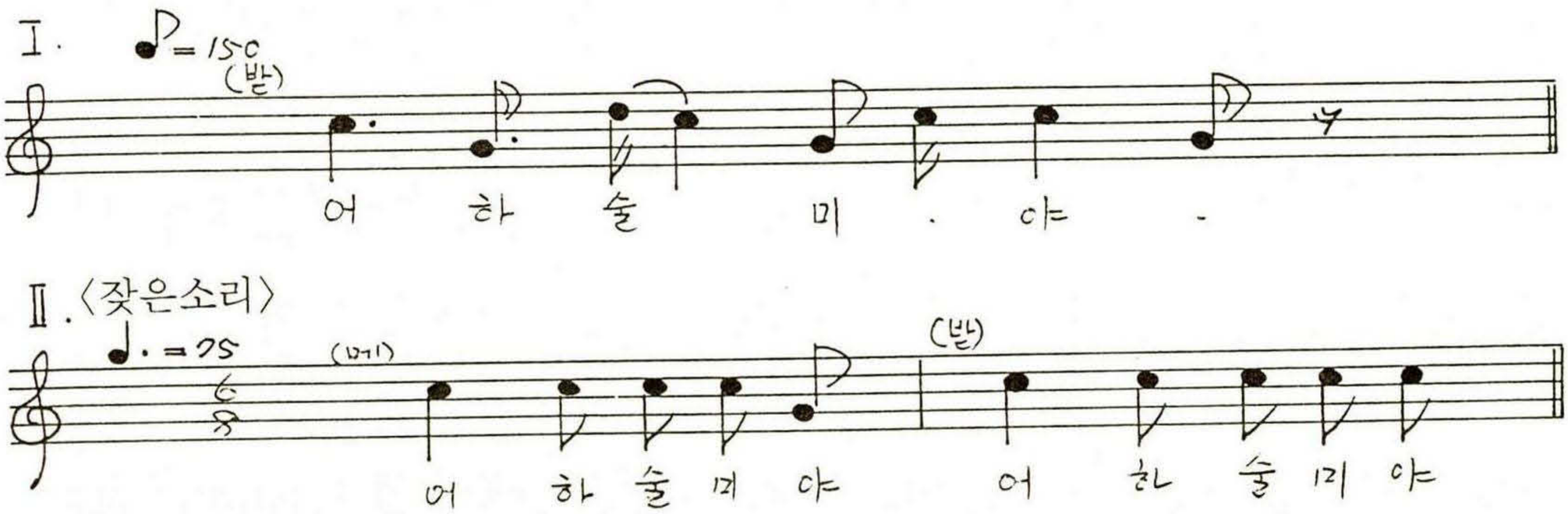
강수로(1921.남.土民)唱
素 87-3-30ⓘB



〈홍주 102〉 홍성군 서부면 광리 중광

어 하 술 미

민병국·민정식
素 94-3-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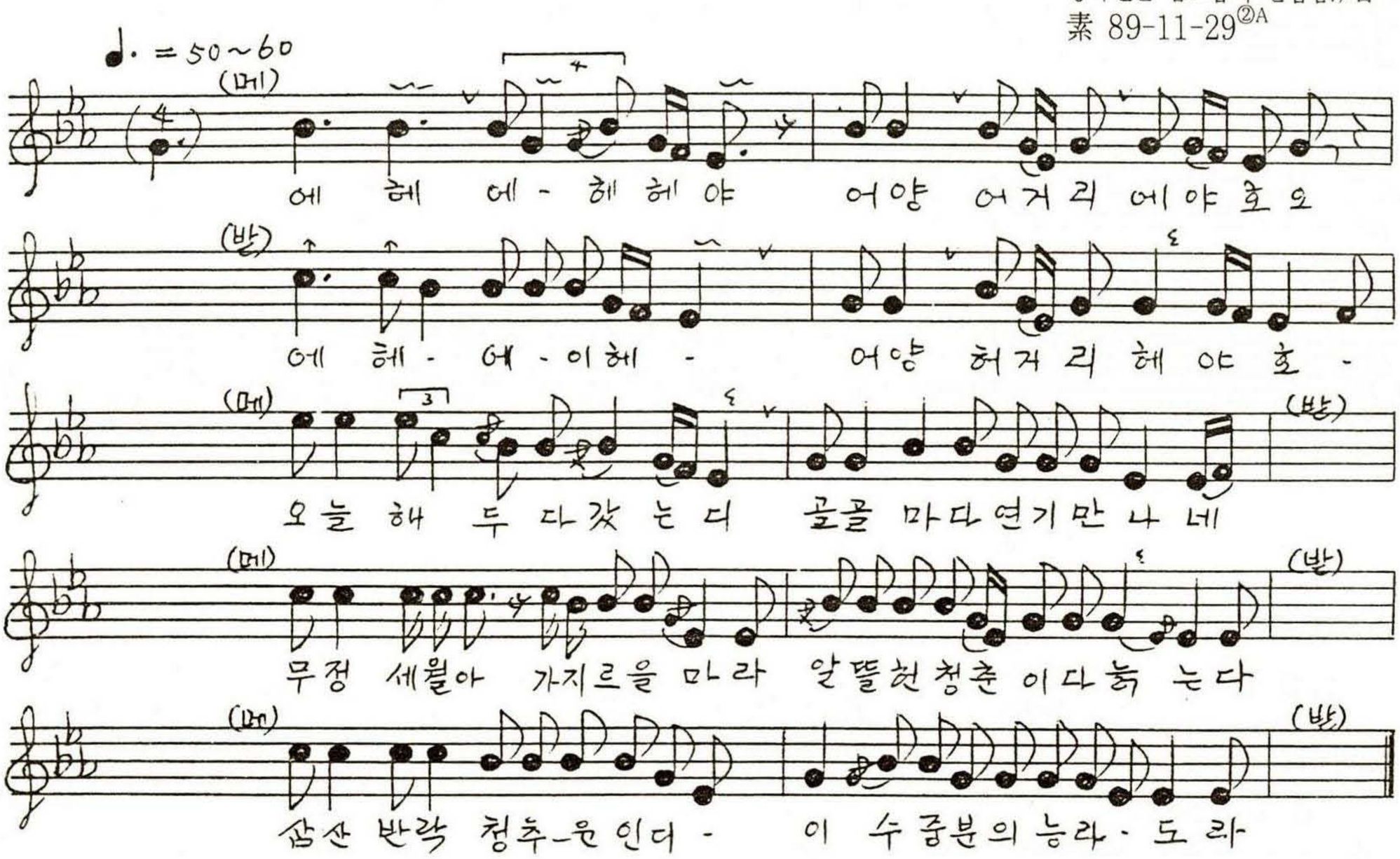


〈끝날때 외침〉 "에 - "

〈홍주 103〉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만 물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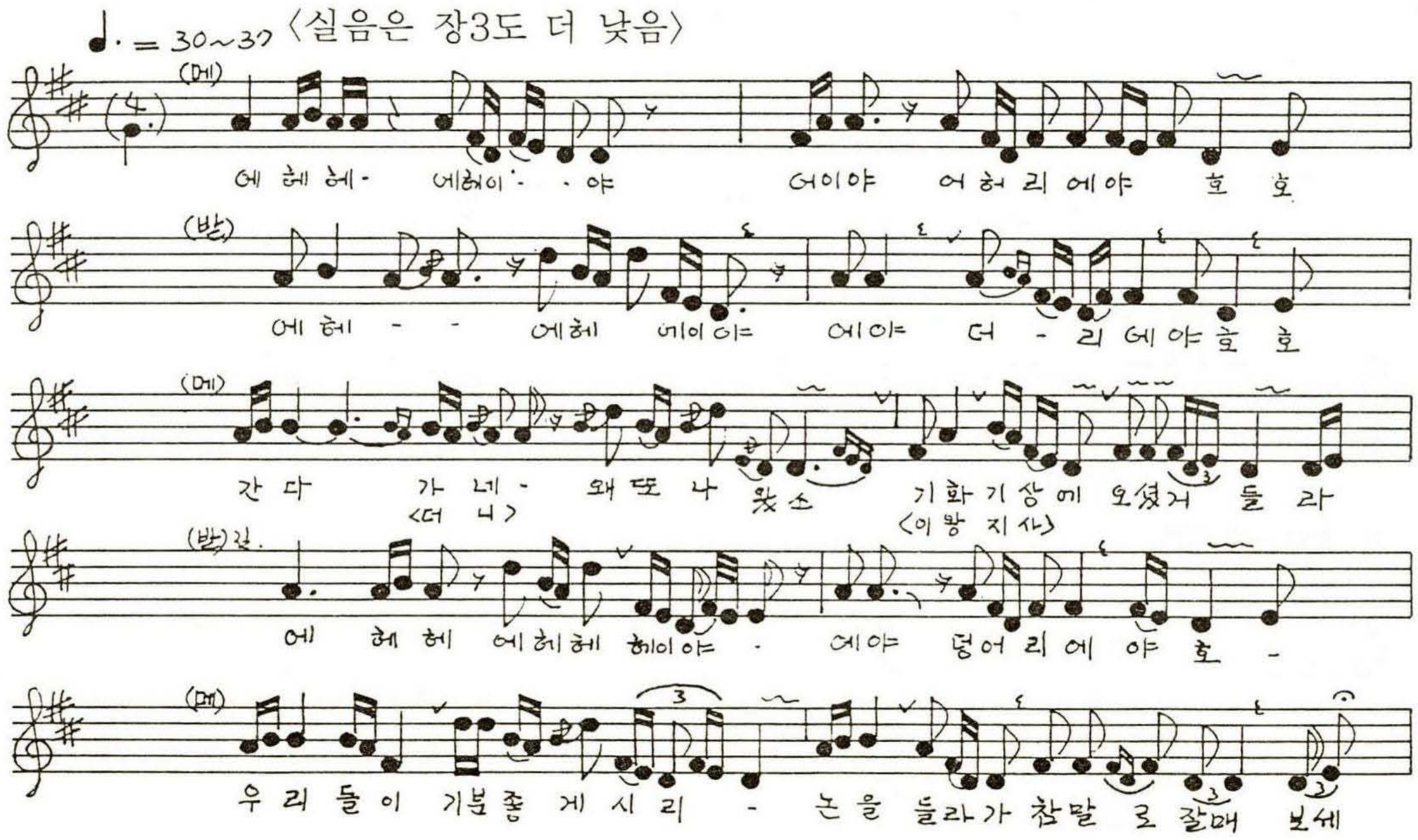
윤봉성(1910.남.예산군 삽교읍 수촌리출생.20세에 대동리 이주. 홍북면은 삽교읍과 면접함.)唱
素 89-11-29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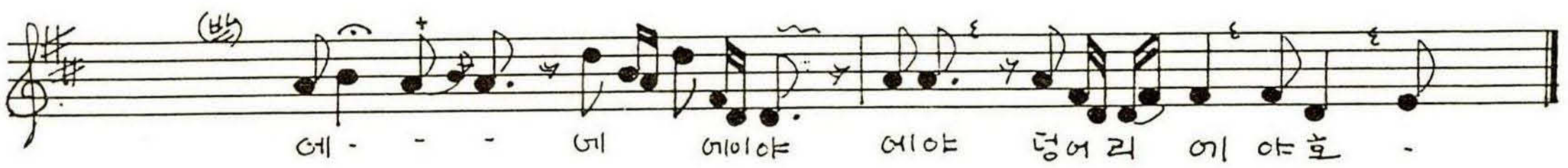


〈홍주 104〉 홍성군 홍북면 石宅里

만 물 매 는 소 리

(메)김세원(1929.남.土民)
(받)최인석(1932.남.土民)
素 87-3-30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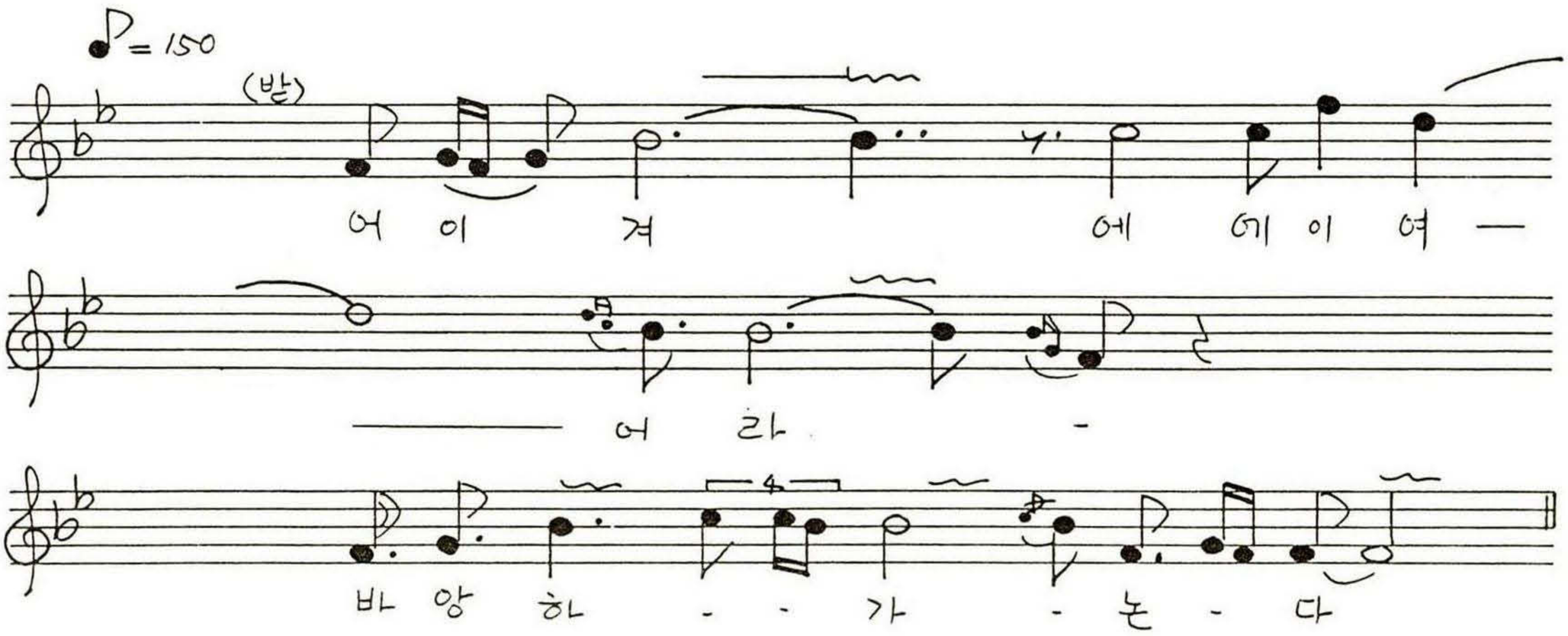


(메) 저건너갈미봉에 비가묻어들오라, 어둑컴컴해 구름이 뭉클뭉클닥아서/
구름밖에도는 저기러기, 우리를 바라보고 잘도나노네/
여러농군님들 어렵다말씀않고, 정말오직차분차분히 논두나잘매네/
노세노세 정말로지 잘도노세, 요런시절 우리들이 못논다면/
젊으나 젊은 청춘들이, 논매기 힘을 안쓰면 어느누가하나요/
어렵다말씀을 마시고서, 참말루오지 기분좋기 잘도하시네/
가네가네 우리들이 노다가지, 어늬때나 이노릇을 면하려나보까/
진국명산 만장봉에, 바람분다고 서러를지나/
가노라가노라 내가돌아가네, 아주돌어를 내가나가나/
천안삼거리 능수야버들은, 제멋이지쳐서 척늘어졌구려/
저기저학두루미 날개를 수른수른, 우리들이 논매는 팔놀림 같애/

〈홍주 105〉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논맴소리(방아가 논다)

송학기(1926.남.土民)창 素. 94-2-28[A]



(메) 논다 논다 꽃방아가 논다
이 논배미서 꽃방아가 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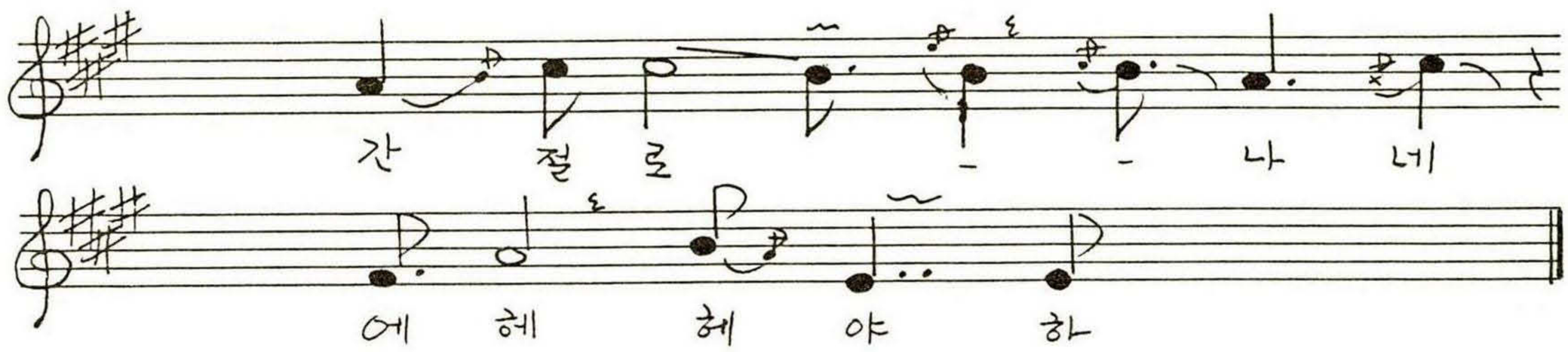
어 라 - 이 논 - 배 미 - 서 꽃 방 아 가 - 논 - - 다

〈홍주 106〉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방 게 소 리(만물)** 이태훈(90-2-2 ㉮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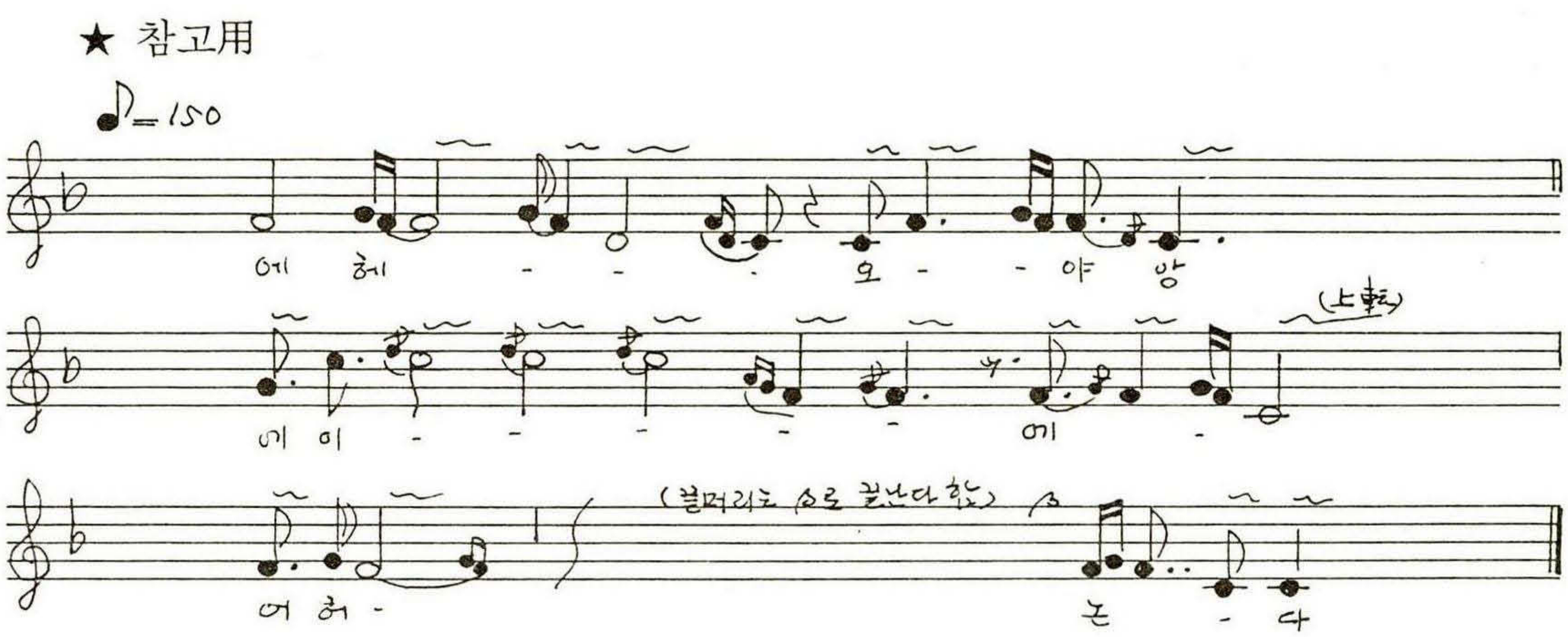
♩=150

에 헤 헤 헤 헤 에 야 - 방 게 이 예 이 가- 논 다 에 에 헤 야 에 헤 헤 에 - - 달 도 - 밝 구 요 —— 호 별 도 - - 밝 은 데 정 든 님 생 각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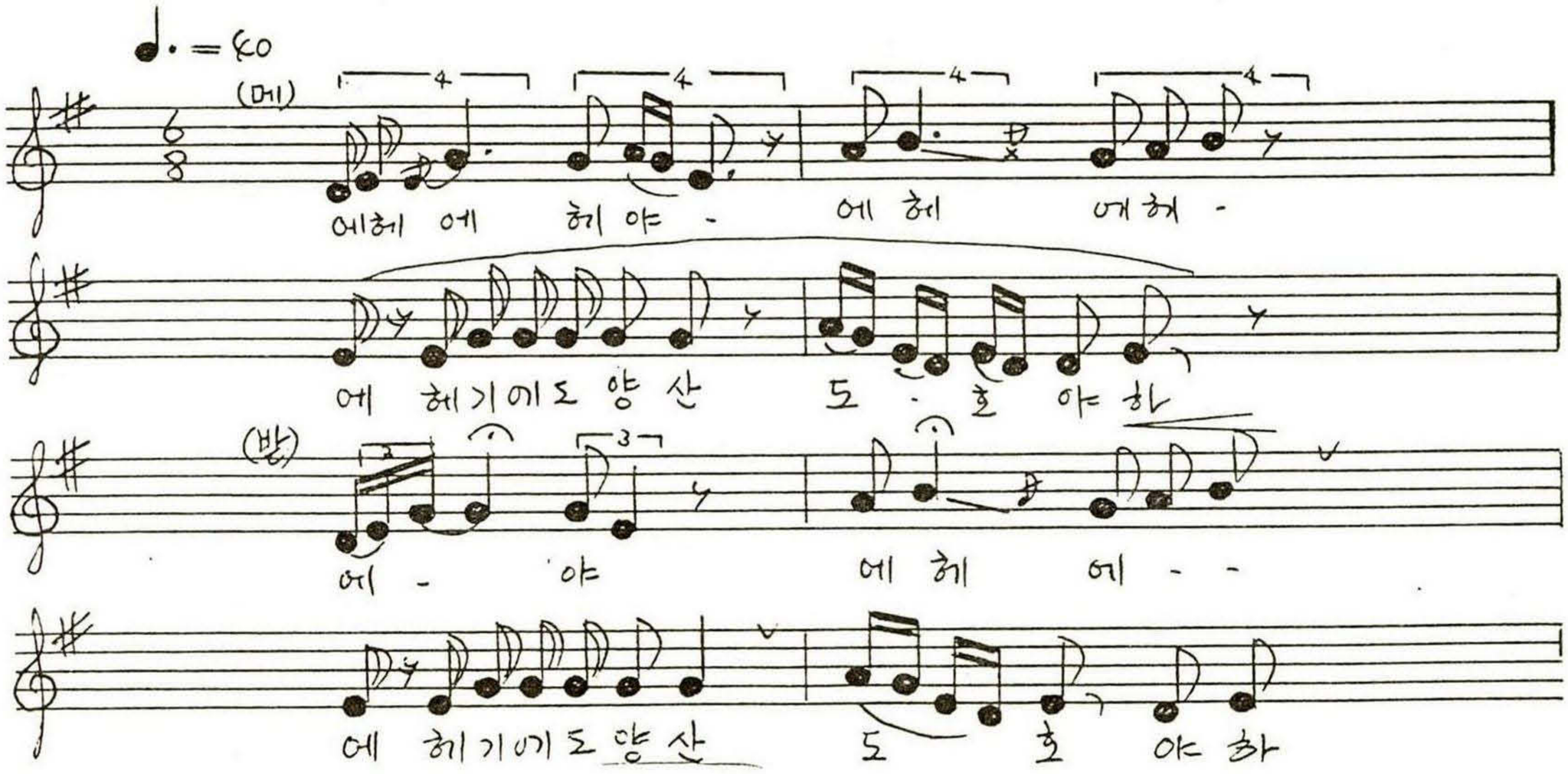
〈홍주 107〉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매산마을 **만물매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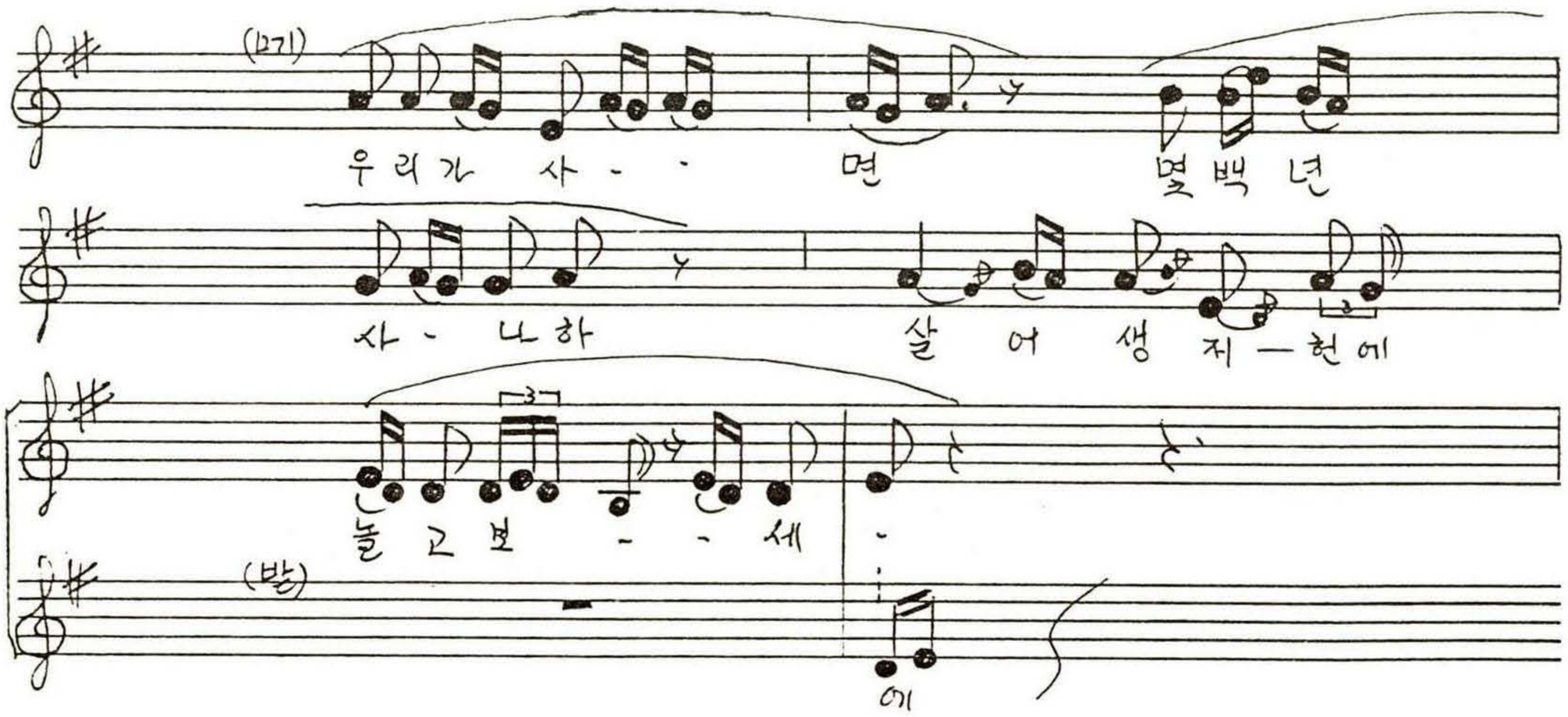
서귀봉(1992.남.土民)창
素. 87-4-17[B]



〈홍주 108〉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논매는 양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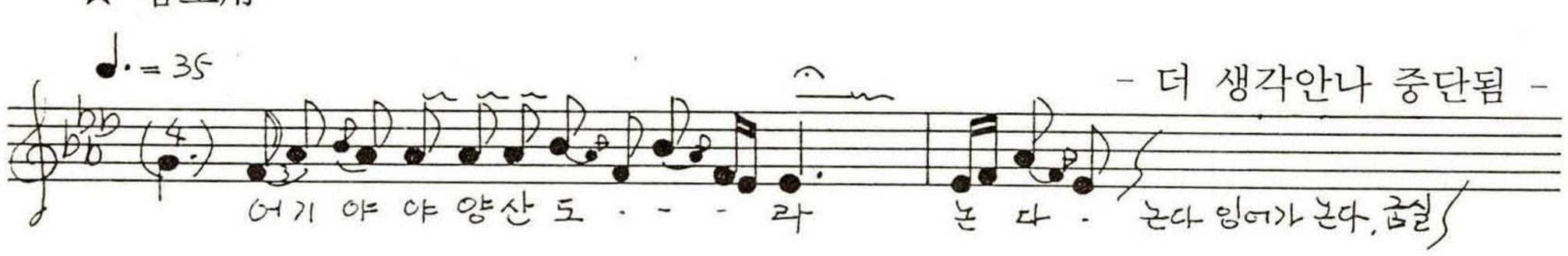
(메) 김청일(1939.남.土民)
(받) 이병후(1924.남.土民)
素. 90-2-3[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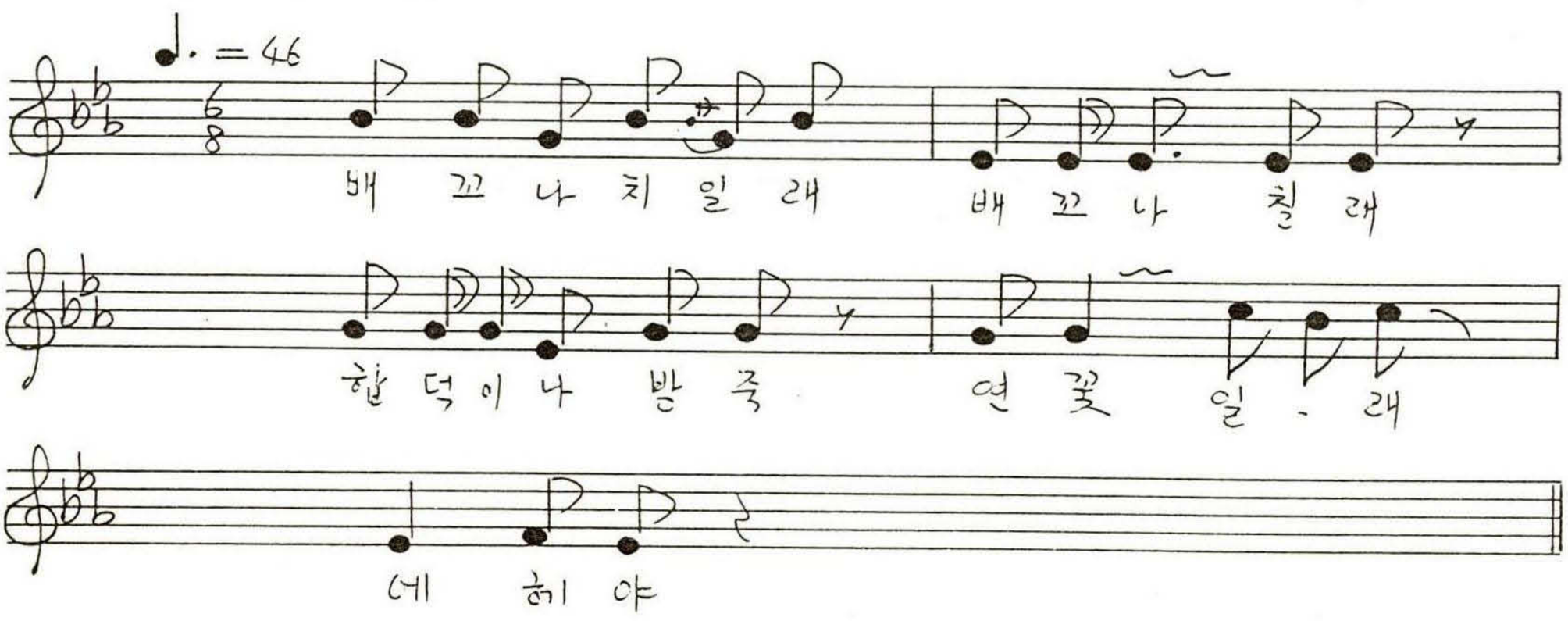
〈홍주 109〉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논매기(양산도風)** 우준(1940.남.土民)창 素. 87-3-30③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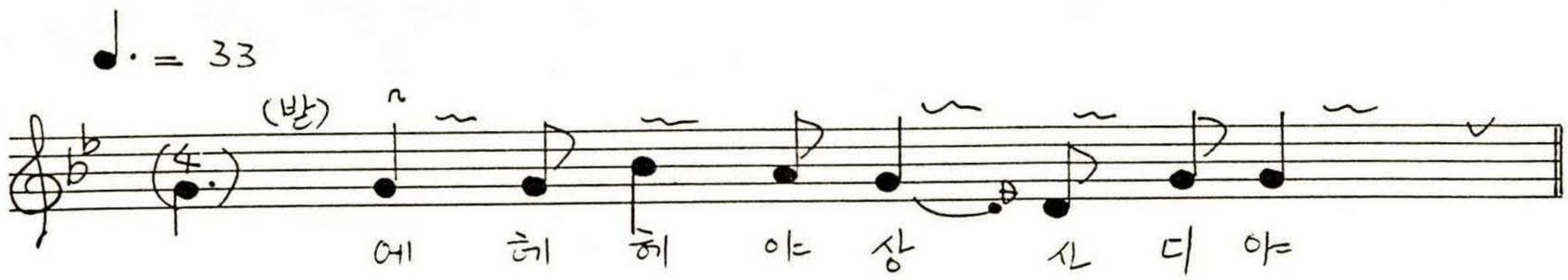
〈홍주 110〉 홍성군 서부면 광리 **배 꽂 타 령** 민정식 창 素. 94-3-12③A

★ 참고用(미완성)



〈홍주 111〉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상사(손으로 풀뽑을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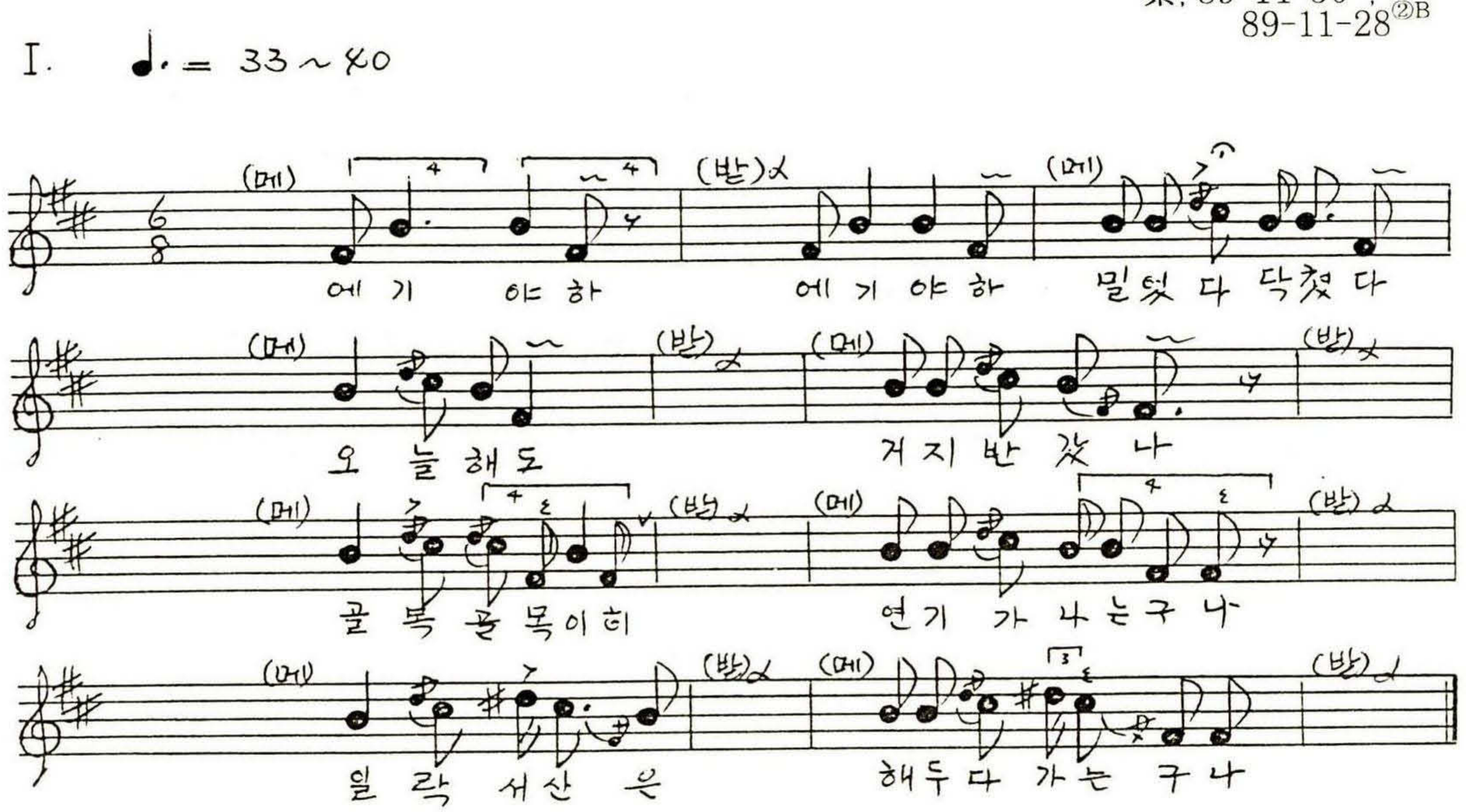
하재신(1930.남)
素. 94-2-27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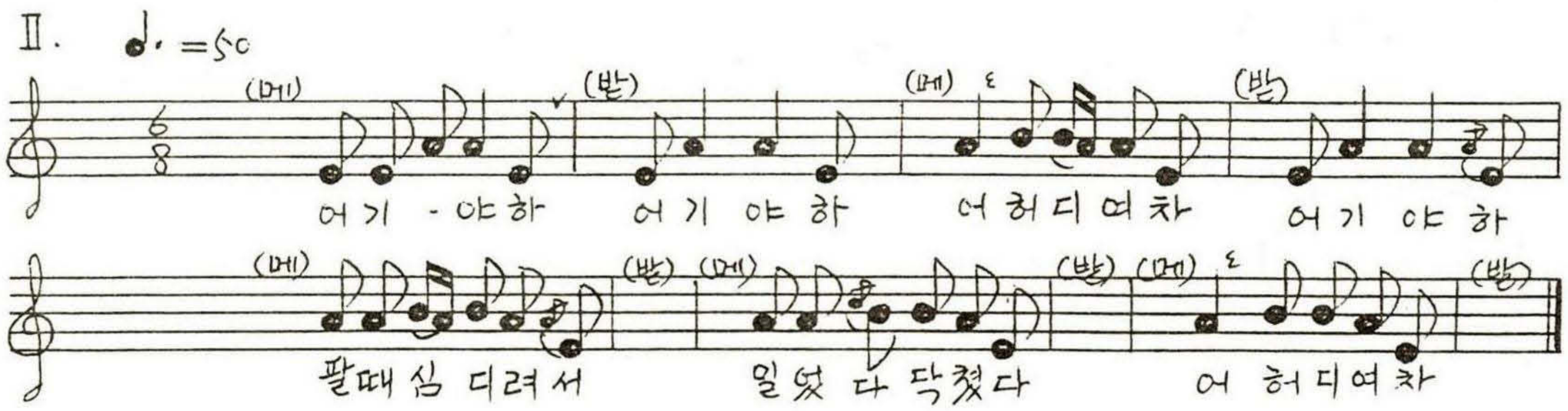
(메) 이논자리 잘두나 매년
금년 풍년이 온다더라

〈홍주 112〉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성남리 **밀가는소리(건젱이)**

Ⅰ.(메)최유엽(1915.남. 성남리土民)
(받)정학재·장종환·최광순 등
Ⅱ.(메)최광순(1926.남. 금곡리土民)
(받)최용근·최용환
素, 89-11-30A, 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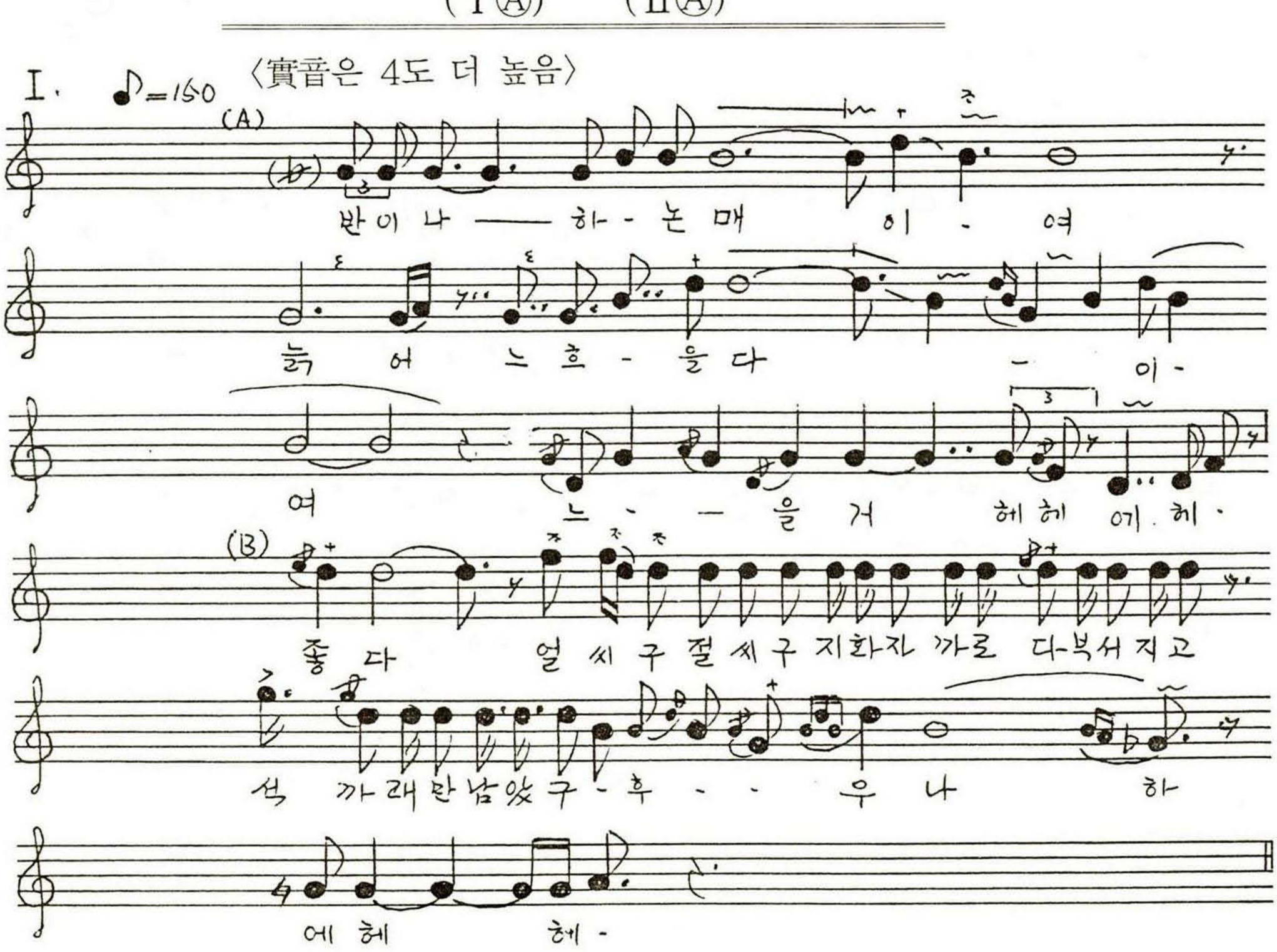


(메) 우리가 살며는 / 몇백년사는냐 /살어서 생전에 / 맘대루 놉시다.//



(메) 무정 세월아
오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은
다 늙어 갑니다.
저기 저 할머니
나좀 봅소
딸이 있으면
나 사위삼으소
저기피포기
이쪽이 올망대
팔대심 들여가지고
정신을 채려서
어허디여라

〈홍주 113〉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산여"와 "두레소리"(논매기) (Ⅰ Ⓐ) (Ⅱ Ⓐ) 최양섭(1922 남.土民)창 素. 90-2-2 ⑤B



Ⅱ.

(A)

이 여 이 여

이 여 허 이 히

f

이 여 - 어 이 히

(B)

좋 다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동녁에 저달이

사 - 으 - 으 엇 네 -

<소>

에 헤 이

Ⅰ.

(A)

허 가 하 아 으 네 헤 이 -

여 허 상 대 사하 하 응 대

헤 에 이 이히 이히 이 - 여 허

허 어 허 응 대 헤 에 헤

(B)

조 - 흘 다 오동복판 거믄 고 는

줄 만 땡겨 도 소리만 나으 으 - 느 다

- 에 헤 에

Ⅱ (A)

이 여 어

이 여 허 이 이 - 여 -

어 - 이 허 -

정학재 창 (B)

좋 다 얼씨구 절씨 구 기화 지 자

좋 - - 네 헤 에 헤

〈홍주 114〉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Ⅰ.산여 Ⅱ.두레 Ⅲ.좋다

최양섭(1922 남.土民)창
素. 91-6-7①A

Ⅰ.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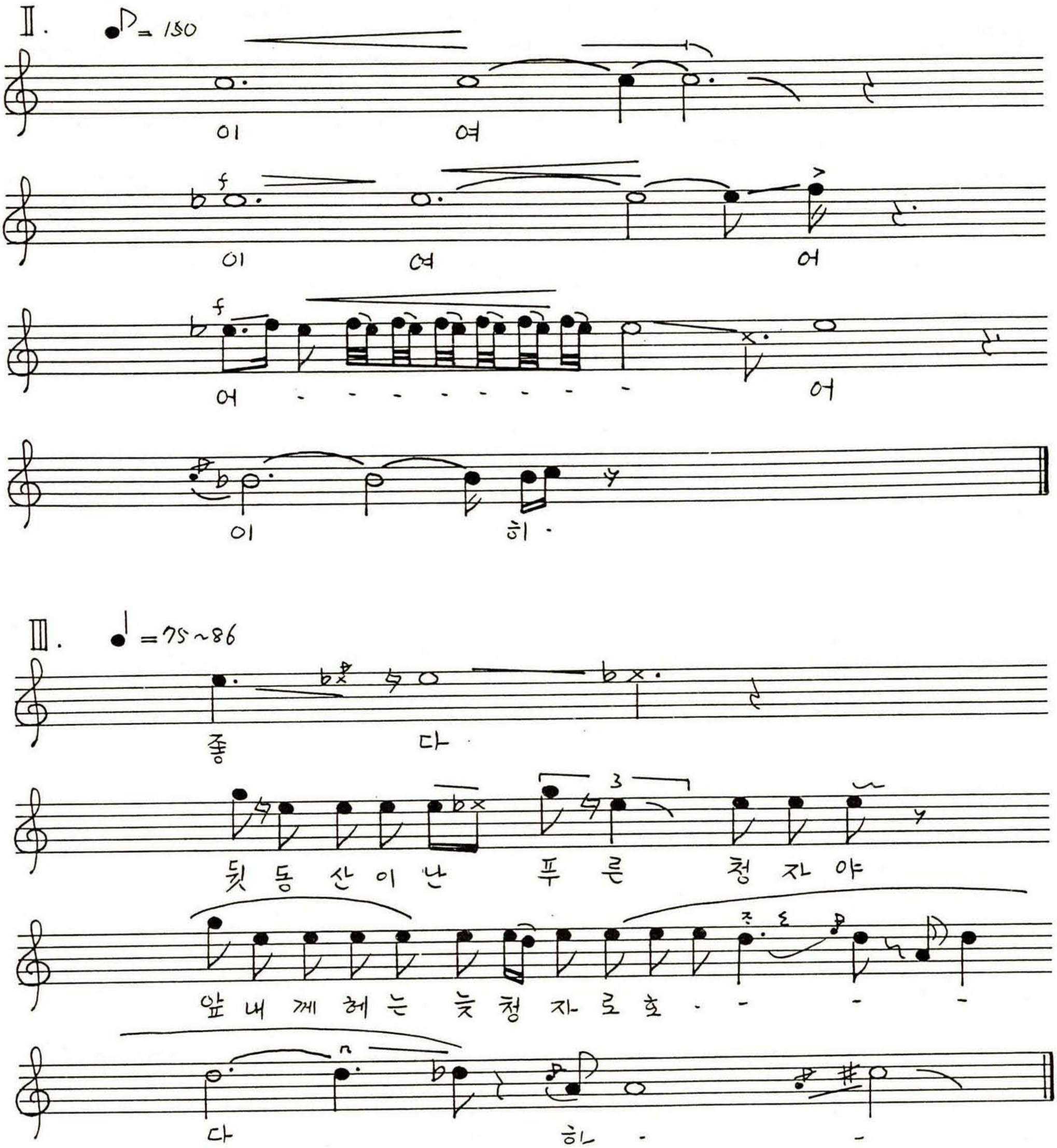
오 가 하 한 - 데 헤 헤 이

이 여 어 허 어 상 대

사 — 앙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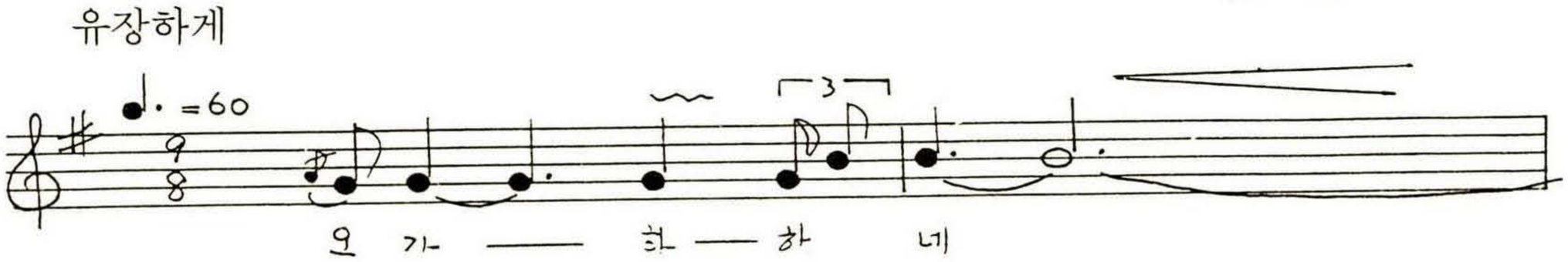
에 - 이 - 여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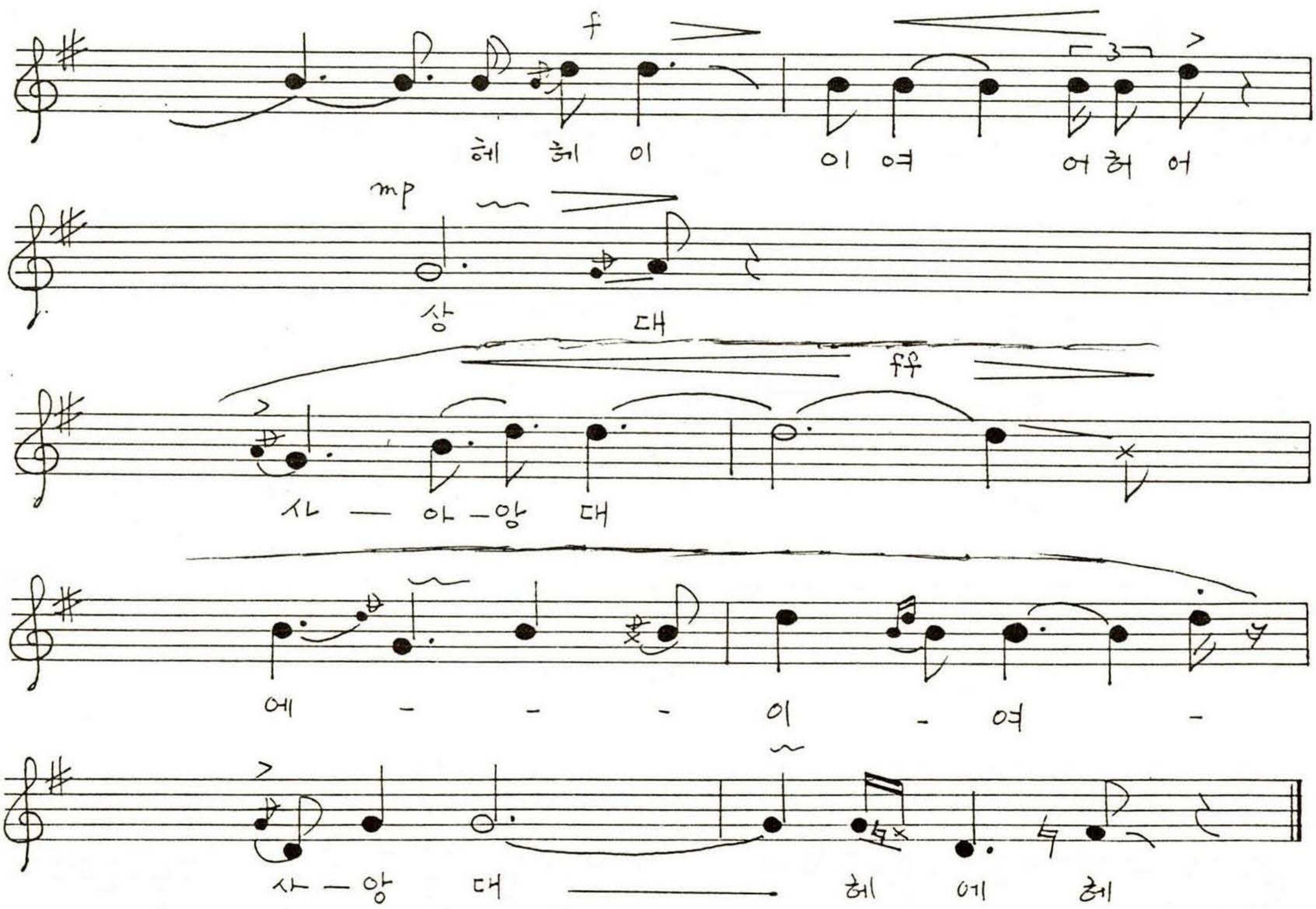
사 — 앙 대 헤 에 헤



〈홍주 115〉 결성농요 산 여

〈S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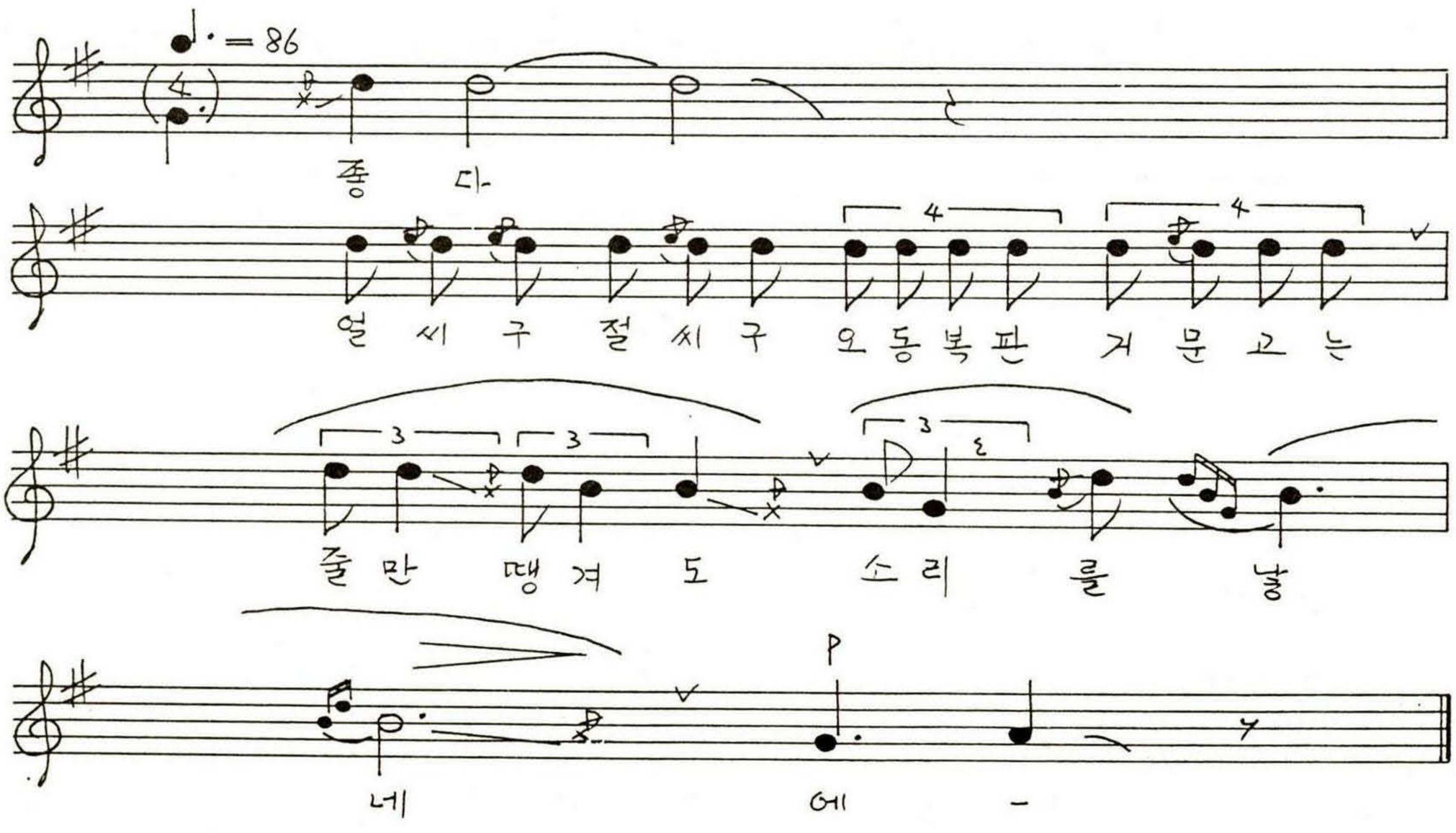




〈홍주 116〉 결성농요

좋 다

〈S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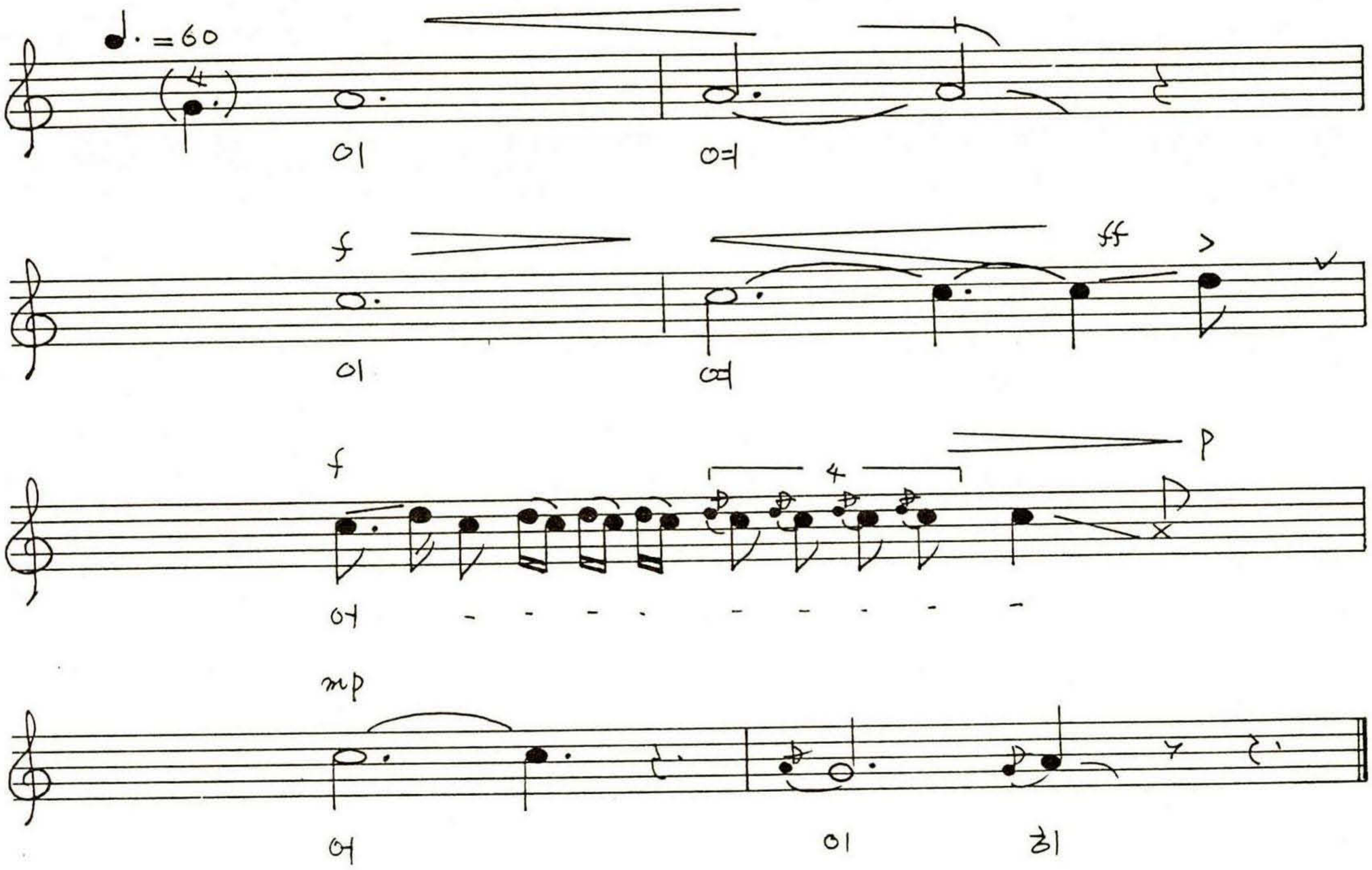


〈홍주 117〉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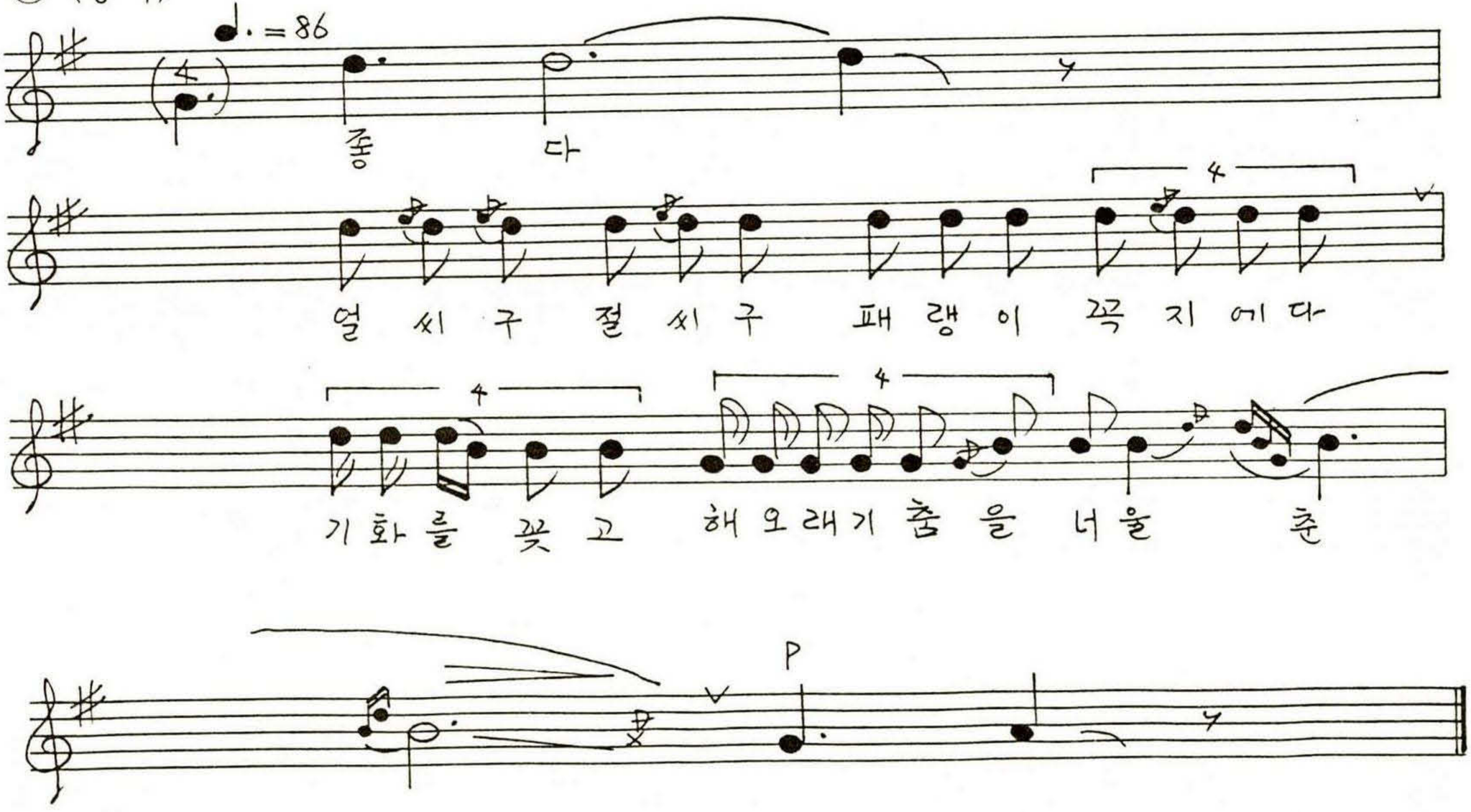
두 레

〈S.R〉

① 〈두레〉



②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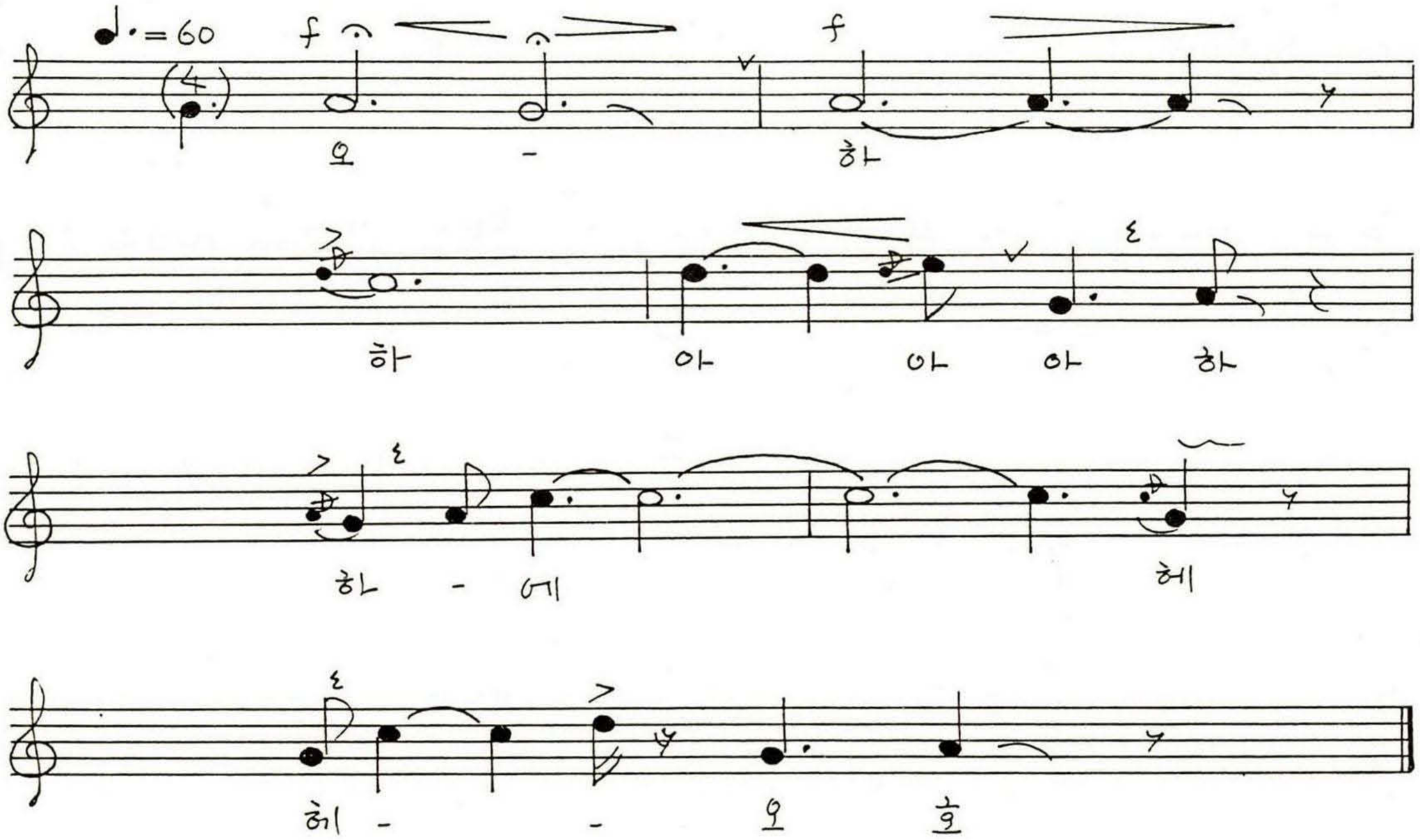


〈홍주 118〉 결성농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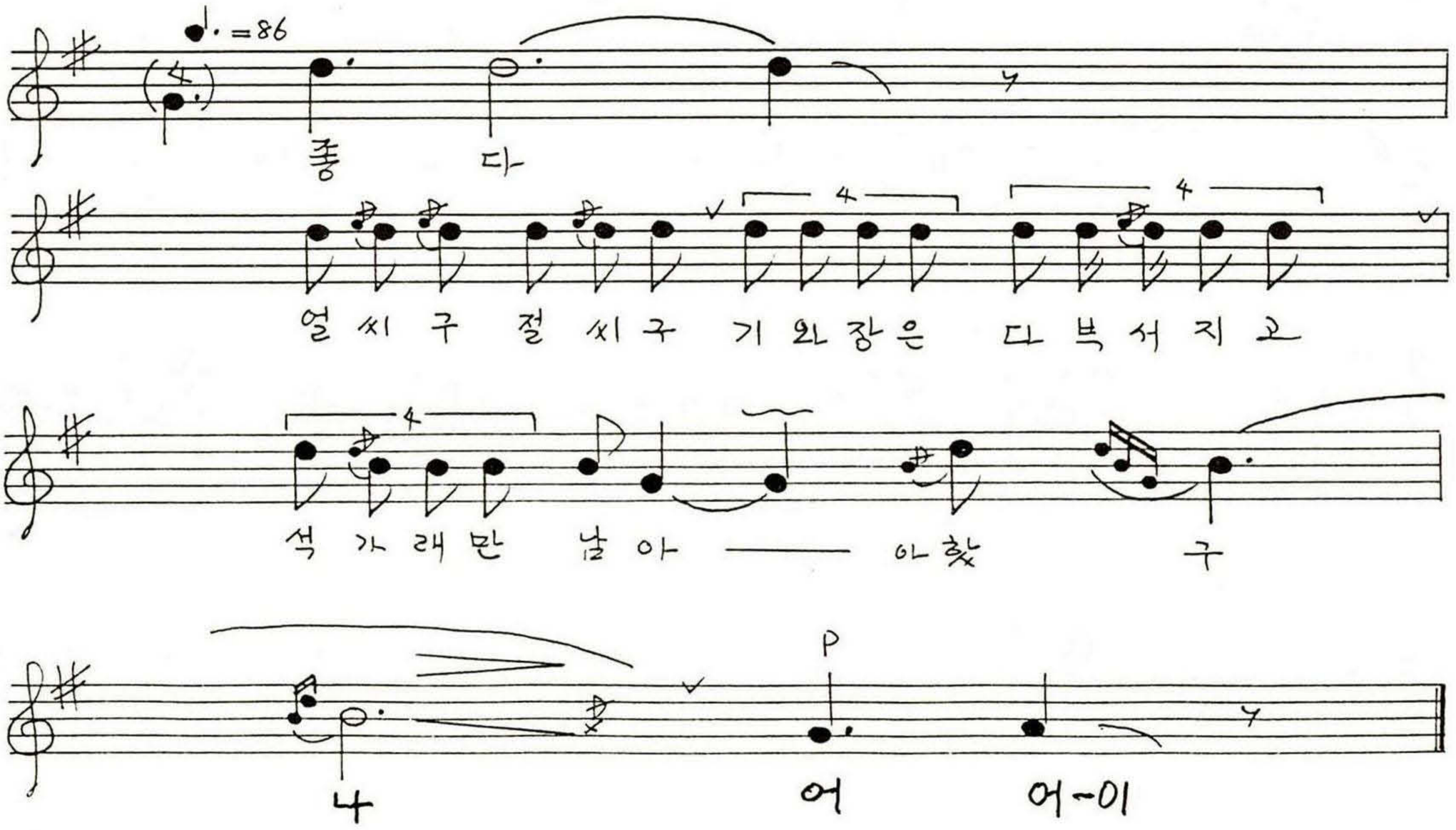
마 루

〈S · R〉

① 〈마루〉



② 〈좋다〉



〈홍주 119〉 홍성군 결성농요

문 성 이

문성이 : 최양섭
좋 다 : 최광순
素. 94-2-27②B

〈문성이〉 ♪= 150

아 하 헤

헤 - 에 -

방 게 흥 게 가

노 - 호 호 호 — 운 다 하 하 하

에 헤 -

I.P

②〈좋다〉 〈S.R〉

♩. = 133

좋 다

일 락 서 산 해 는 지 고

월 출 동 경 달 이 솟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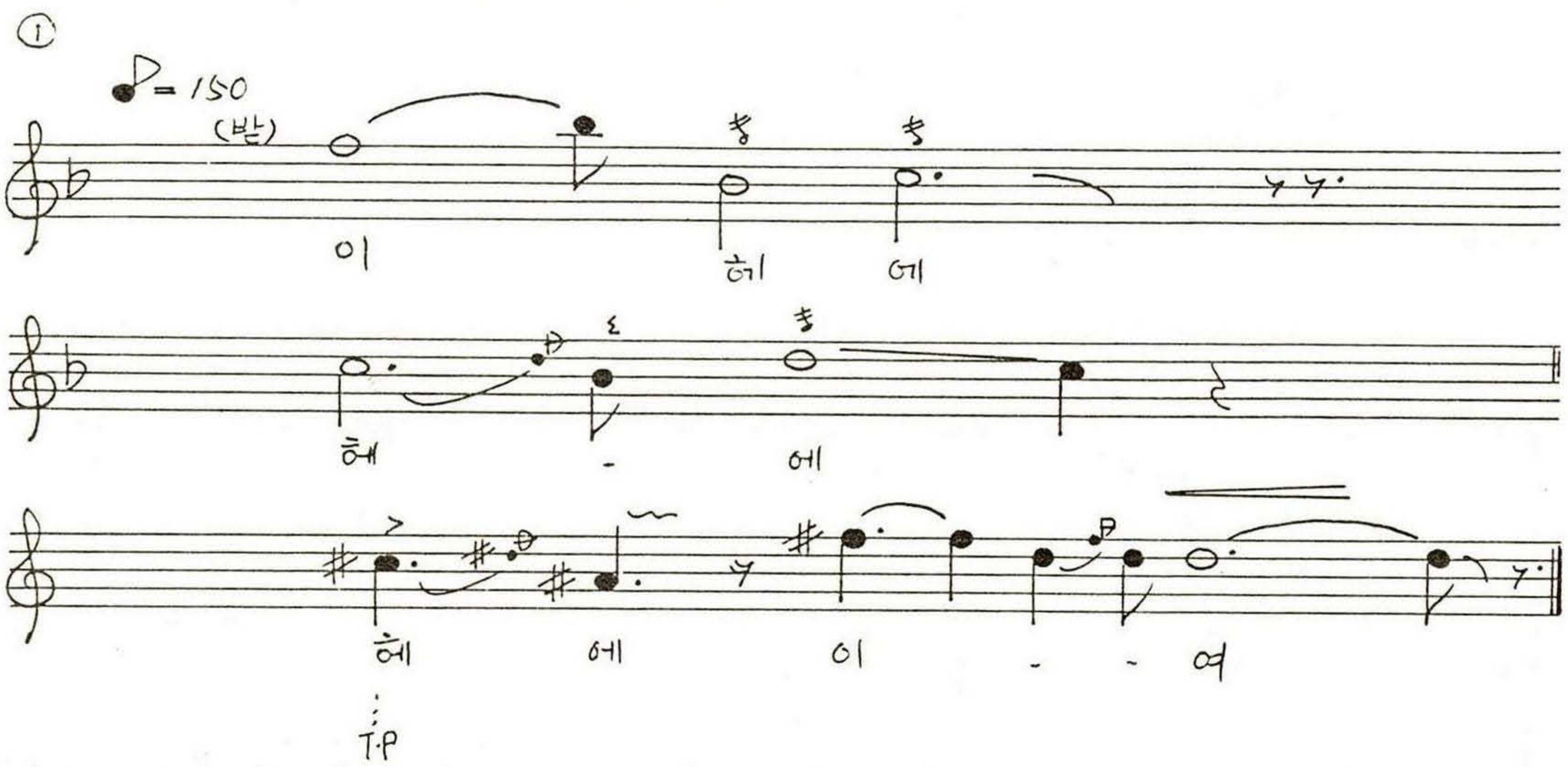
나 -

〈홍주 120〉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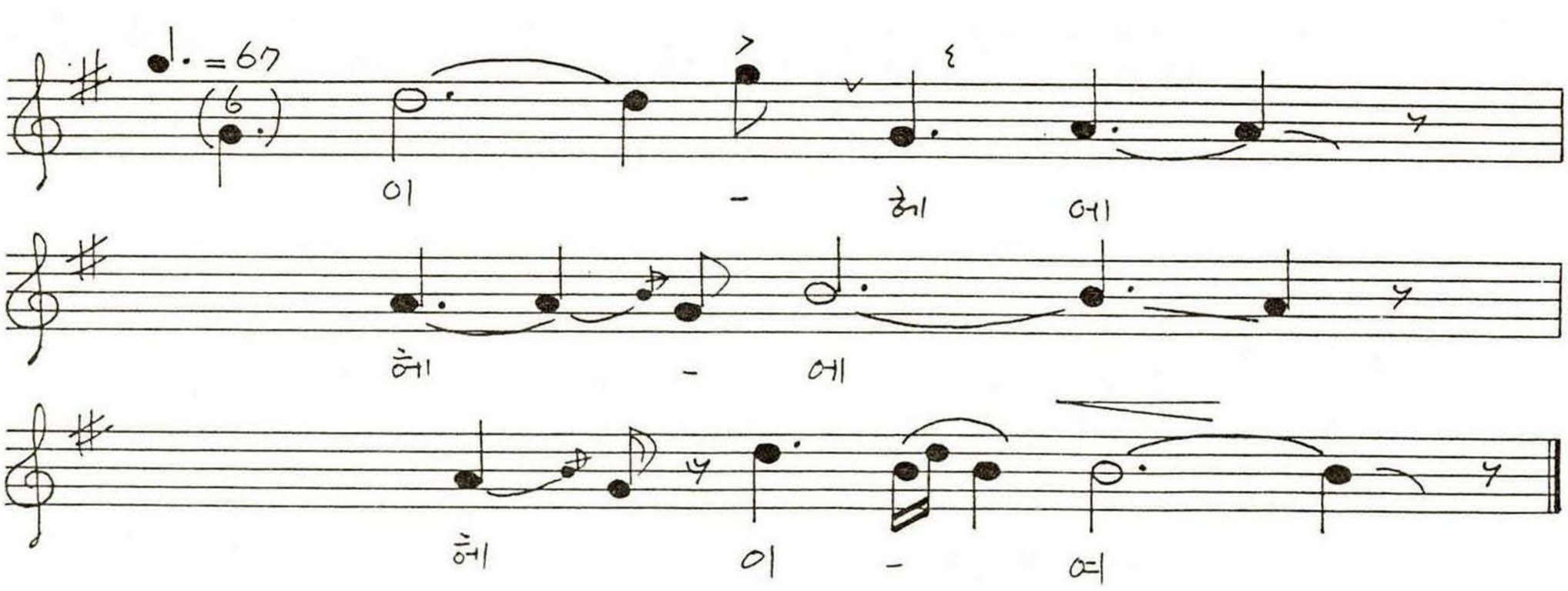
몸 돌 소 리

최양섭(1922.남.土民)창
素. 91-6-17(1)A

①



② 〈S ·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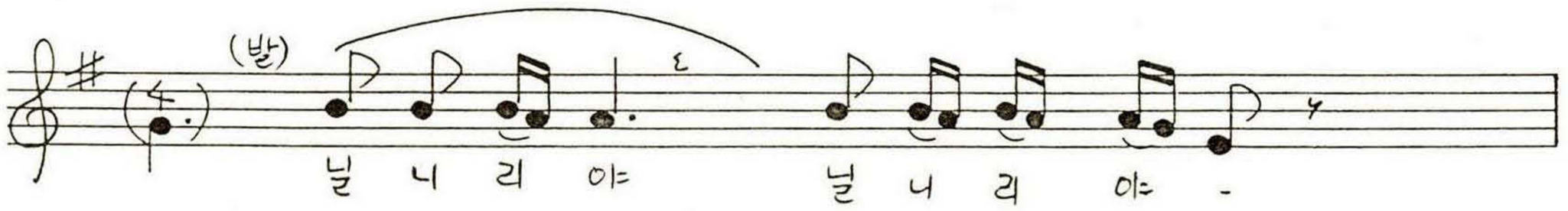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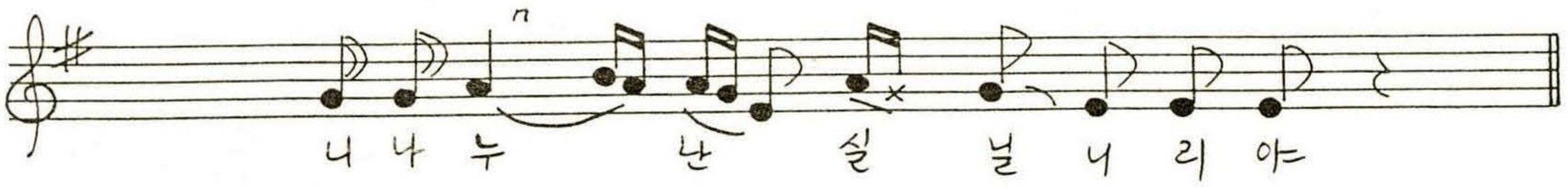
〈홍주 121〉 홍성군 장곡면 월계2구

논 훔치는 소리

최주복(1916.남.土民)창
素. 94-2-27(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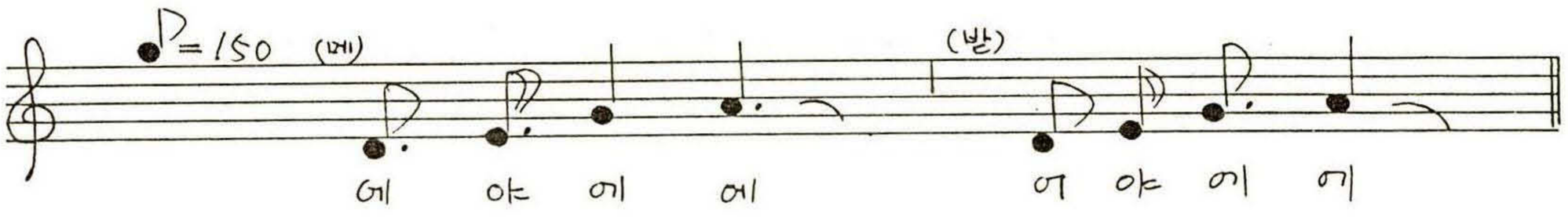
★ 참고用
젊은시절에 어른들과 함께 논매며 들었던 소리로
받음소리는 제대로 기억났다고 함.
엉덩이를 내두르며 손으로 논 훔칠 때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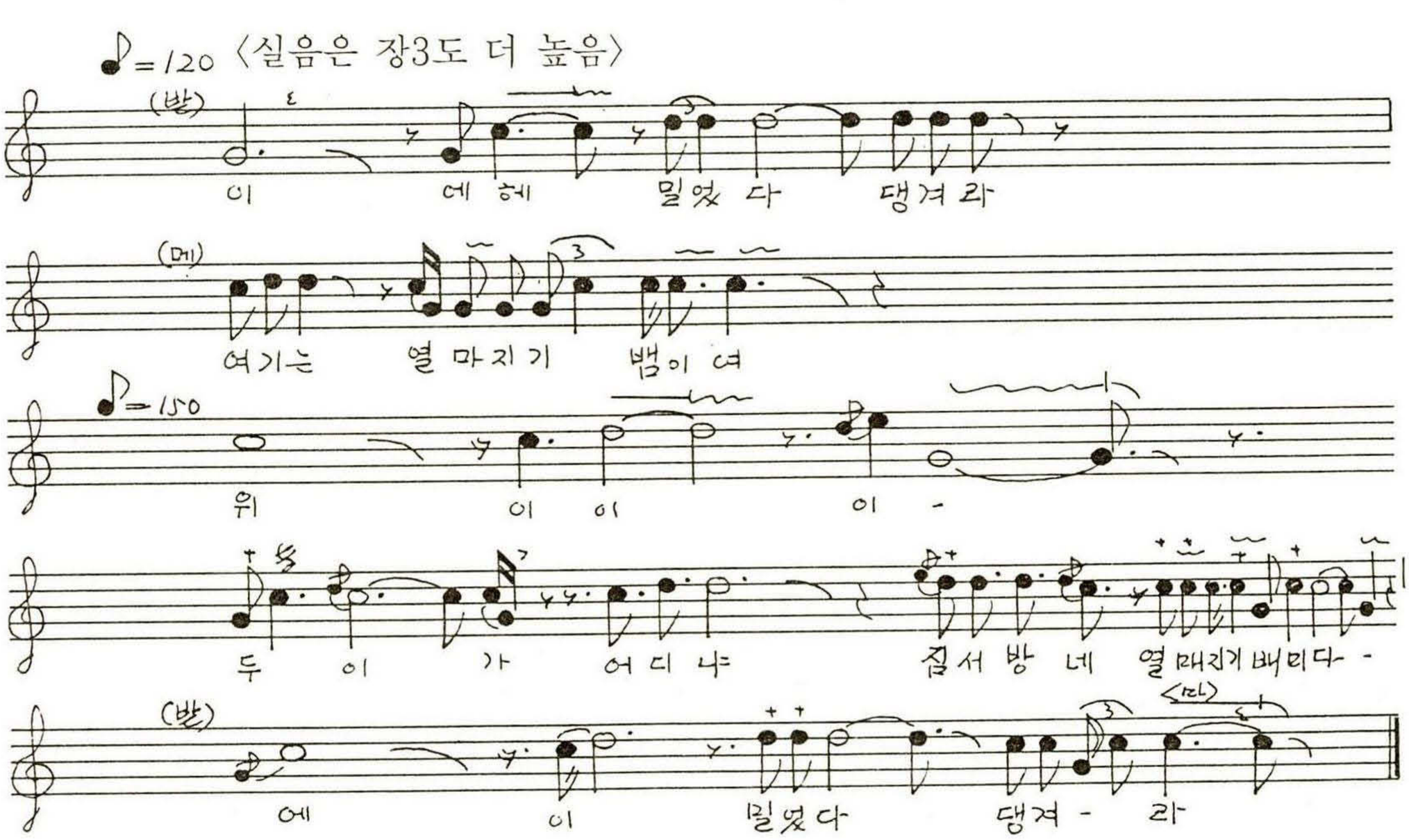


〈홍주 122〉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쌈쌀때(몬돌할 때)** 신세진(1918.남 土民) 素. 89-11-28 ③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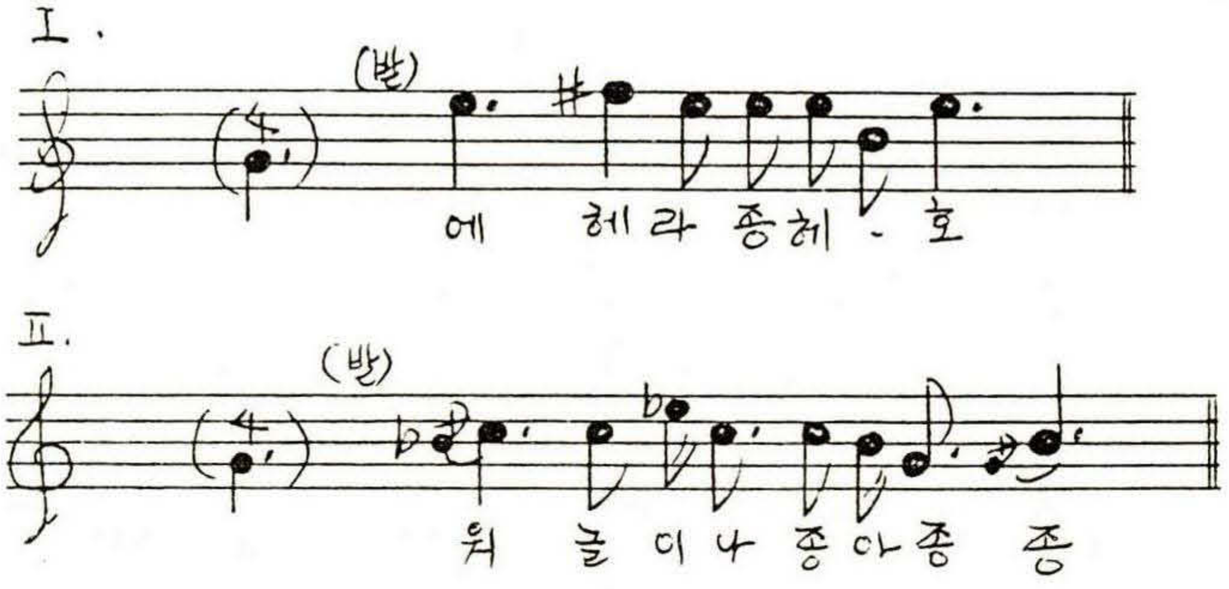
〈홍주 123〉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만물매는 소리** 오정산(1921.남 土民)창 素. 87-3-30 ②B



〈홍주 124〉 홍성군 장곡면

장 원 질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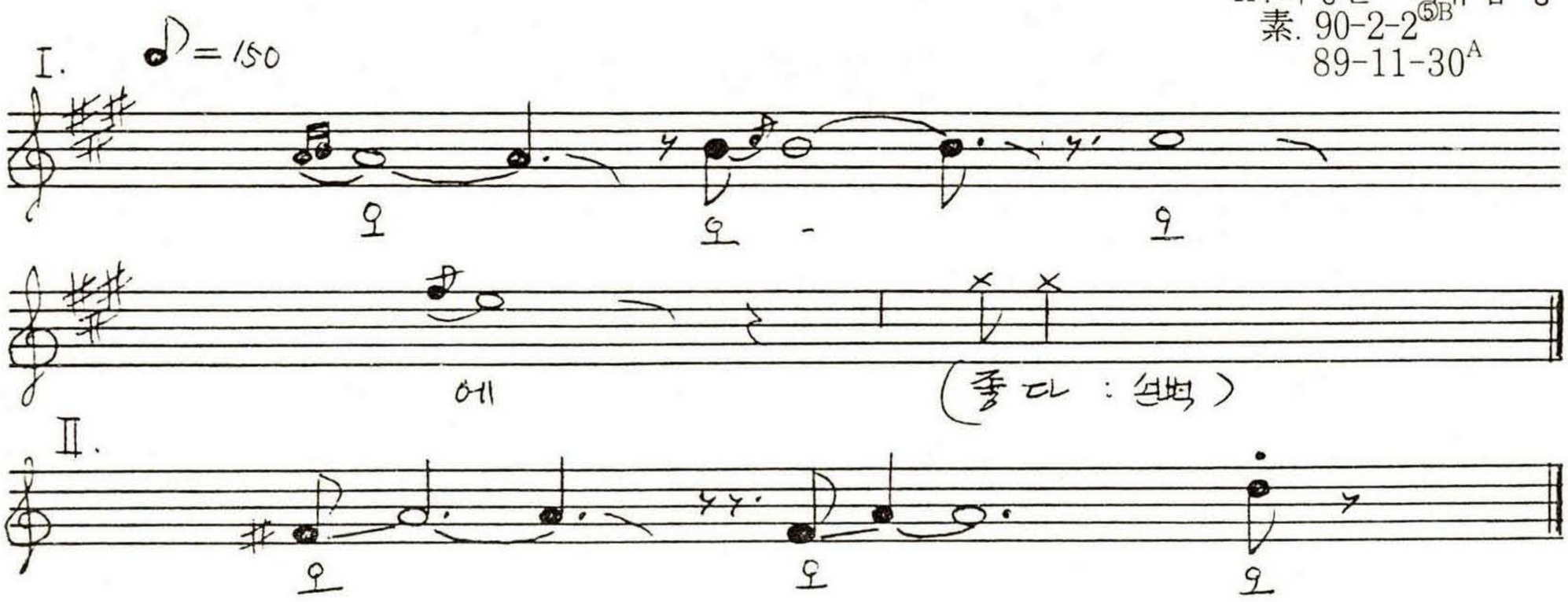
I.김윤재(1915.남.광성리 출생. 해방전인 50여년전에 화계리 이주)
II.이태훈(1921.남.옥계리 土民)
素. 90-2-2④A
90-2-2⑤A



〈홍주 125〉 홍성군 결성면

꽃서는 소리(무동설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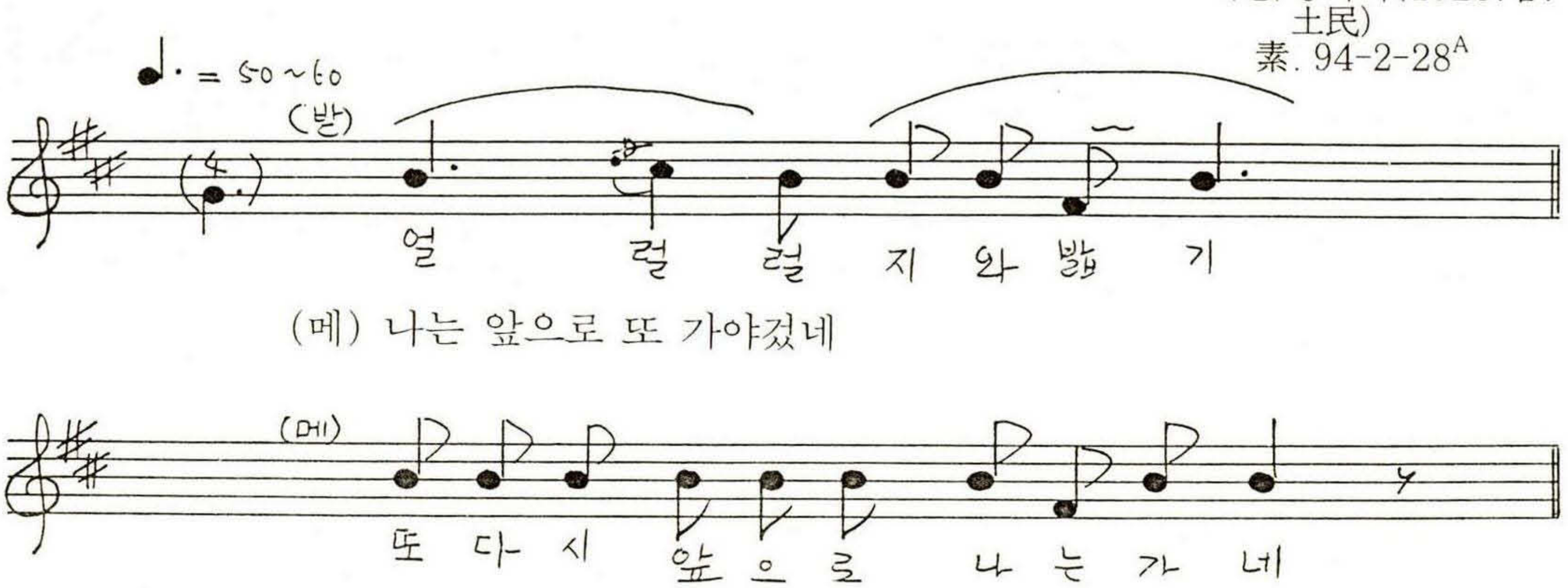
I.김학인(1918.남. 무량리土民)
II.최광순・최유엽 등
素. 90-2-2⑤B
89-11-30A



〈홍주 126〉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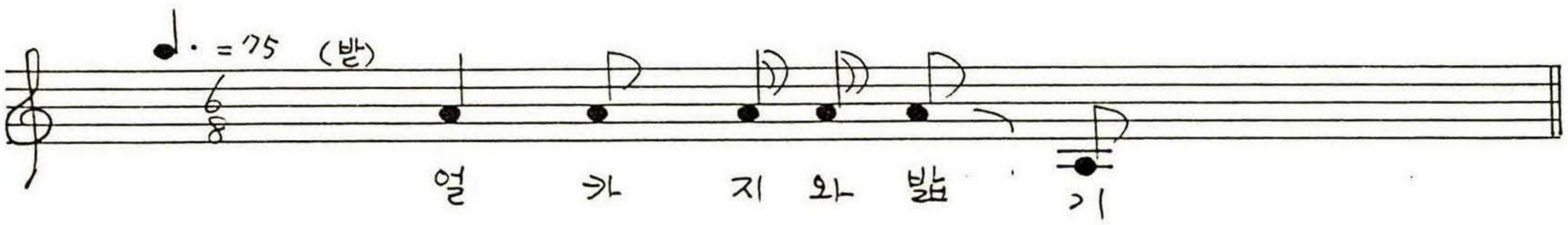
지 와 밟 기

(메)김윤환(1920.남. 土民)
(받)송학기(1926.남. 土民)
素. 94-2-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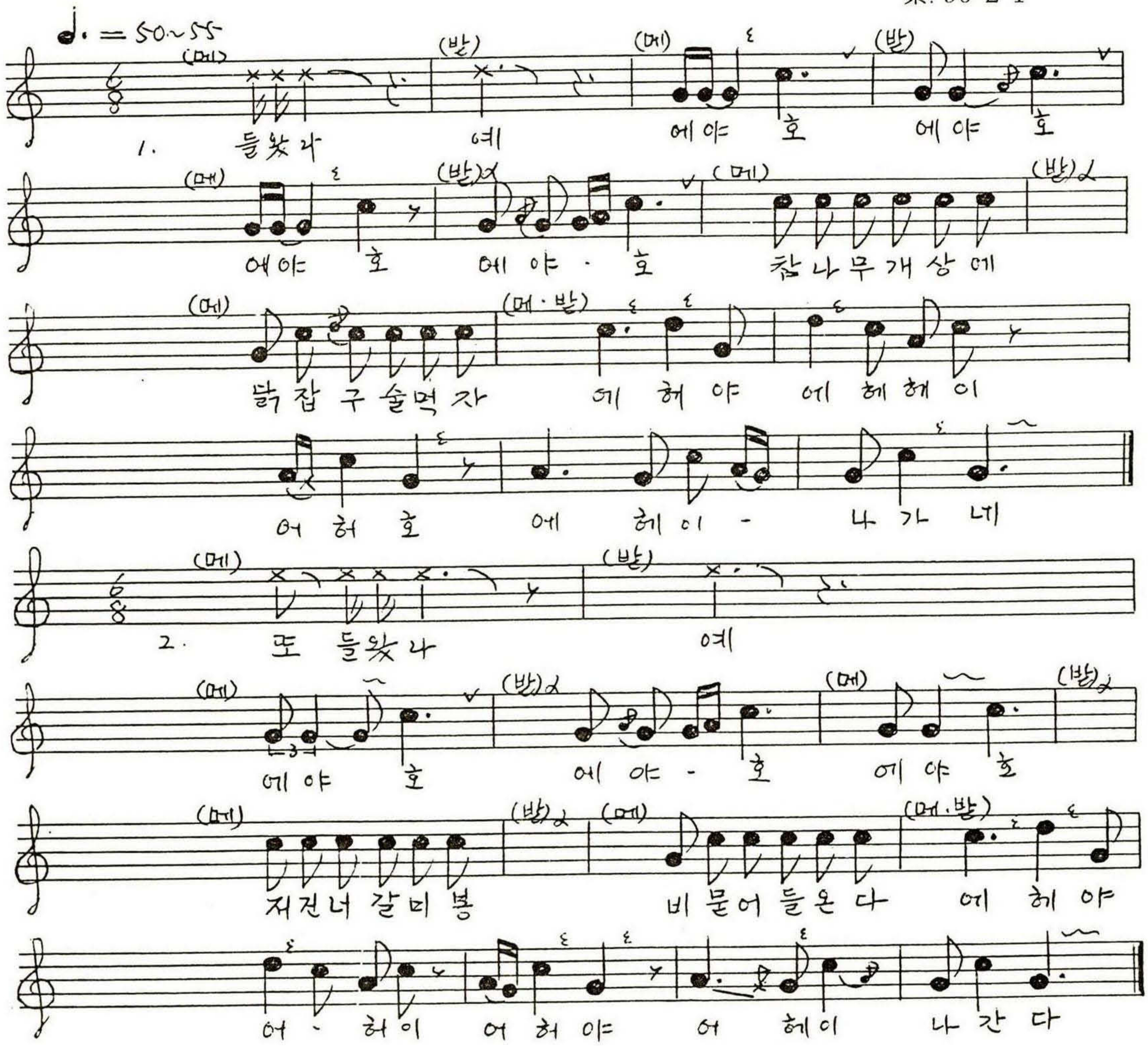


〈홍주 127〉 홍성군 갈산면 와리 **맘논후 지와밟는 소리** 박홍하(1916.남.土民) 素. 90-2-3⑦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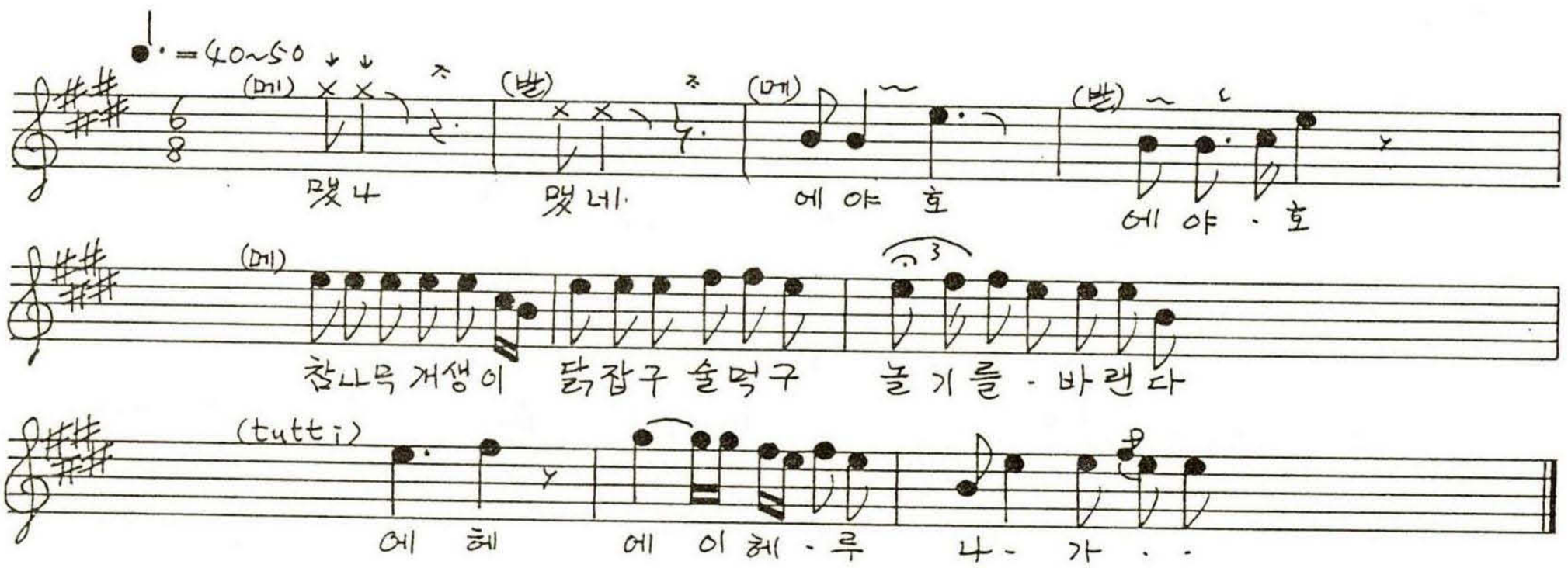


〈홍주 128〉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벼 바 숨** (메)배신희(1916.남.土民) (받)배만희,배선직,배인희 素. 90-2-1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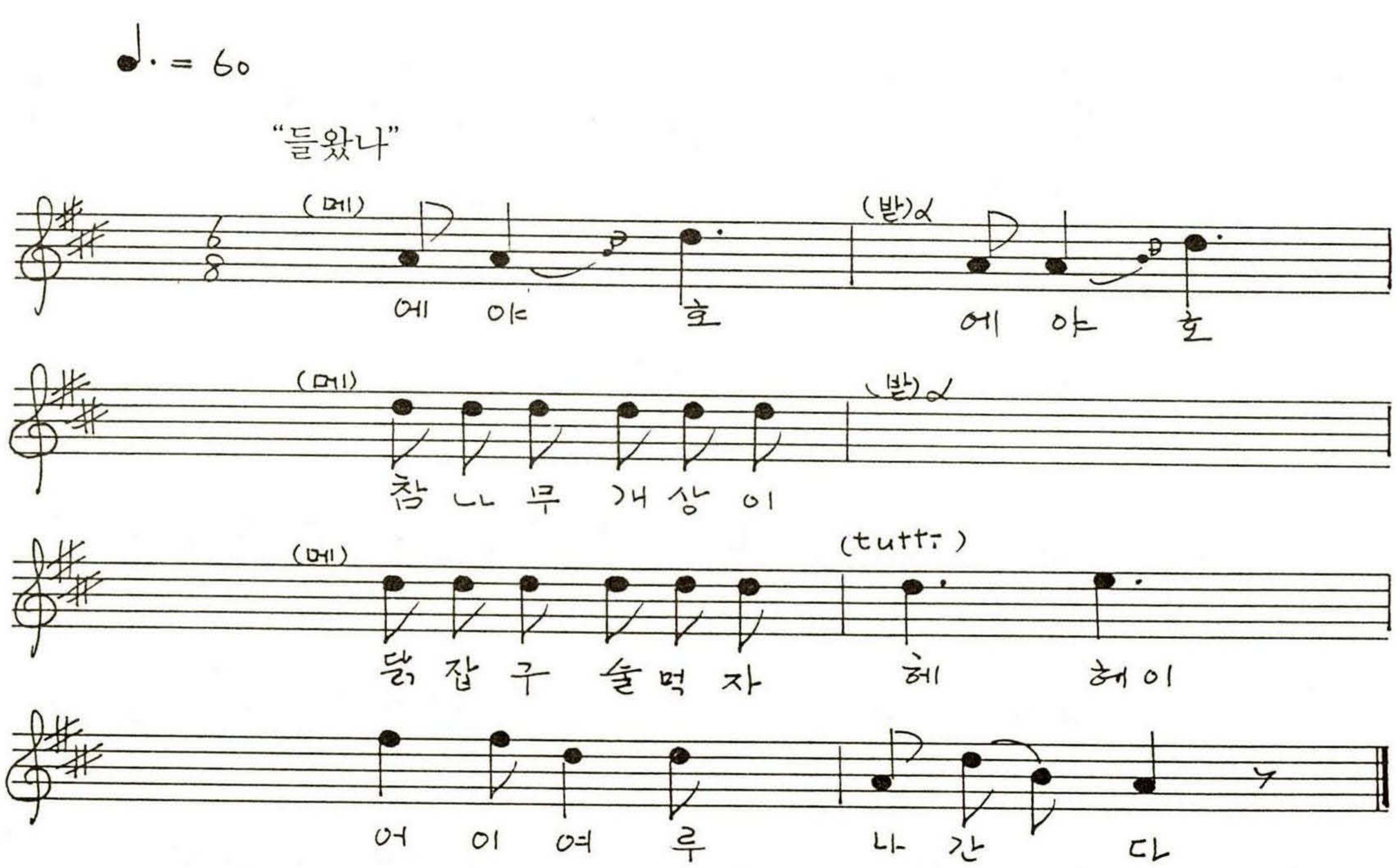


3. (메) 간다 간다, 이수건너서, 백로로 간다 /

〈홍주 129〉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자 리 개 질** 오정산(1921.남.土民)창 素. 87-3-30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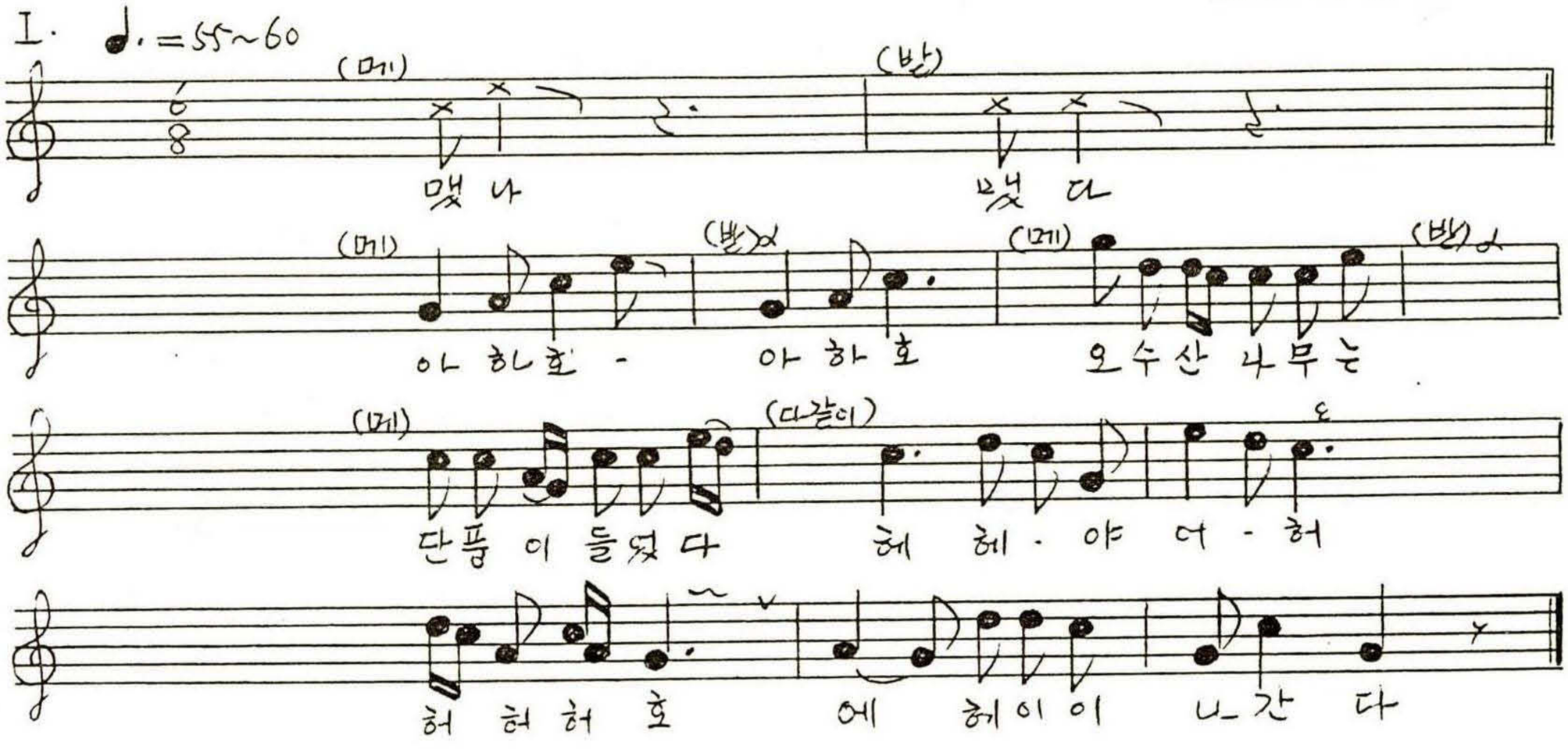
〈홍주 130〉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대실 **개 상 질** (메)김향경 (받)김옥성 素. 90-2-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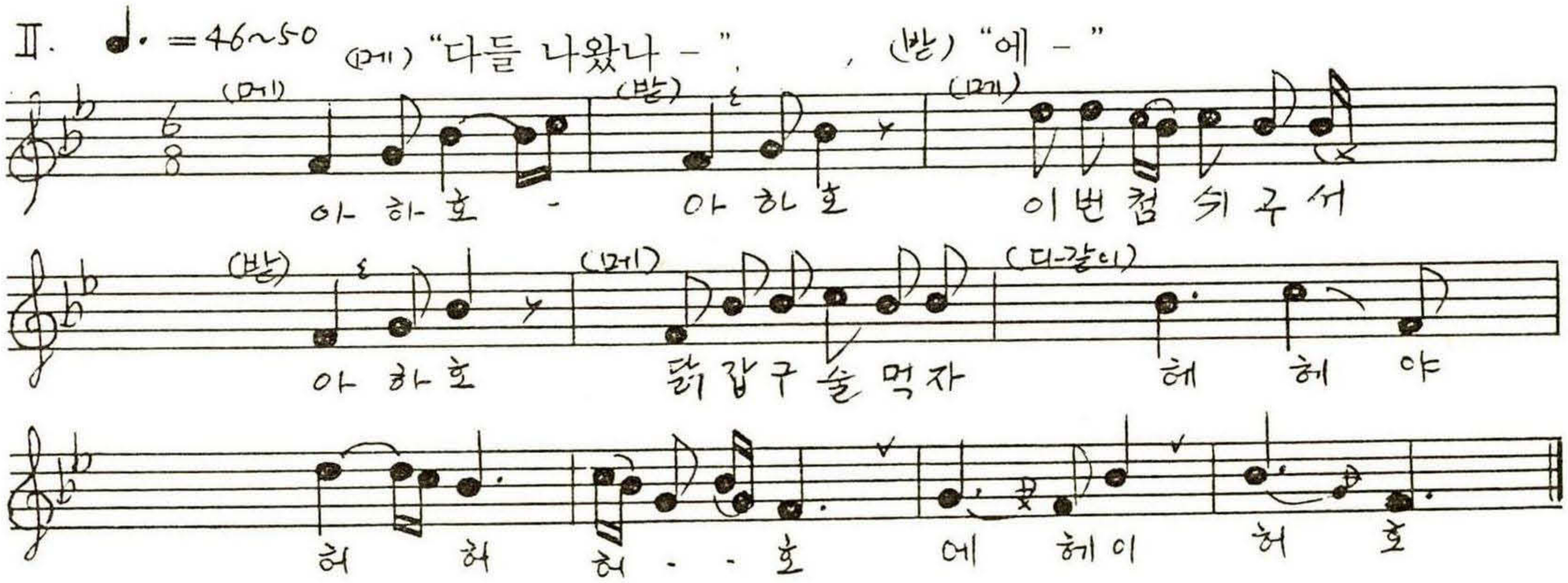
〈홍주131〉 홍성군 장곡면

벼 바 숨

I. 김항제(1917.남.장곡면 죽전리)창
II. 안산옥(1919.남.장곡면 오성 土民)창
素. 89-11-2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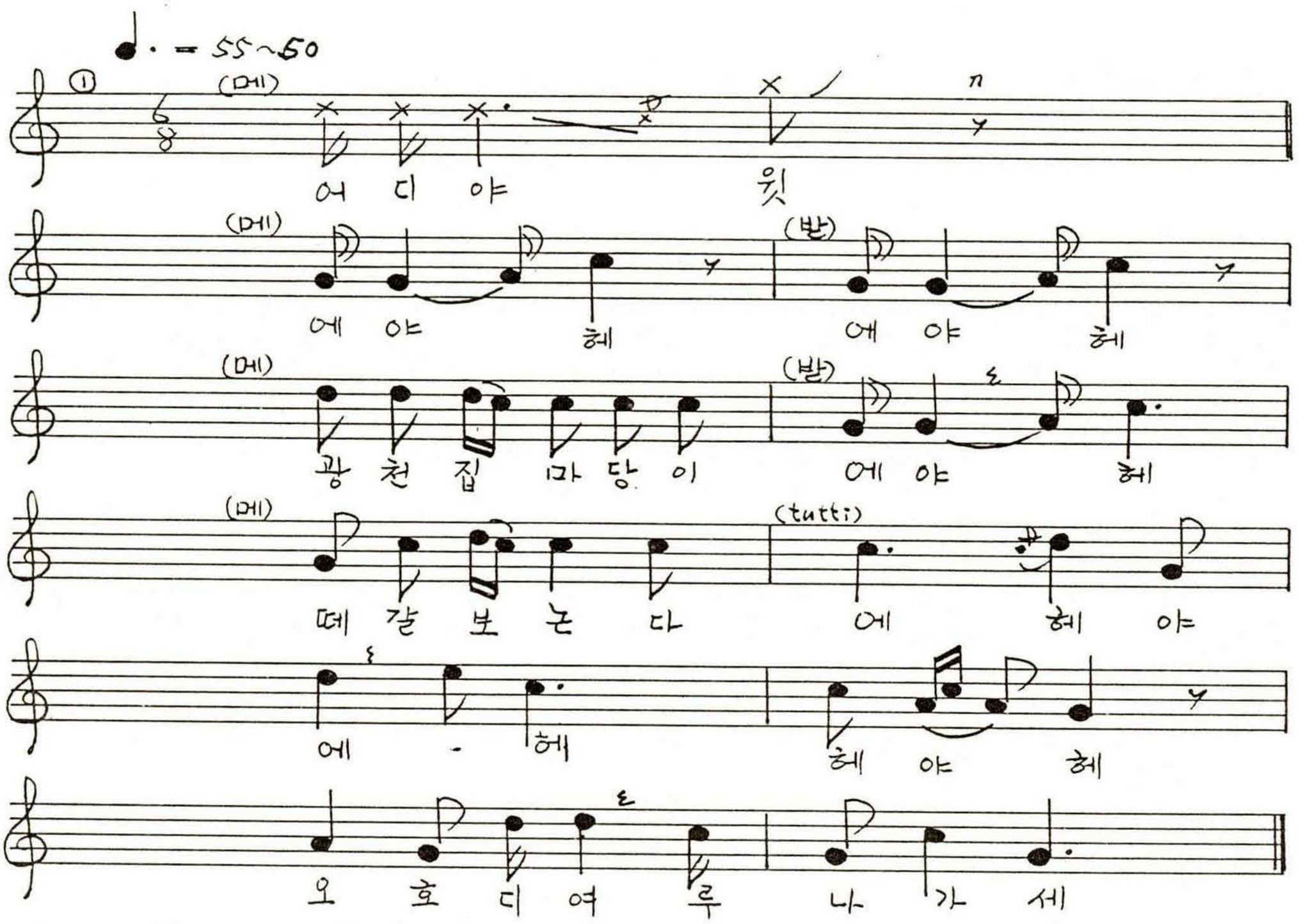
(메) 서산에 지는 해는 / 지고 싶어 지느냐 //



(메) 노세노세 / 젊어서 노지 //
술먹고 숲거던 / 생뜨물 먹지 //
(싶)
니가 잘나서 / 일색이 되나 //

〈홍주 132〉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벼 바 숨**

(메) 이태훈
(받) 김순삼
素. 90-2-2⑤A



② (메) 저건너 갈미봉 / 비묻어 들온다
③ (메) 오소산 산상봉 / 실안개 논다
④ (메) 노세노세 / 젊어서 노자

〈홍주 133〉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개 상 질**

(메) 이사용
(받) 옥계리주민들
素. 94-3-13①B



(메) (받)

참 나 무 개 상 은

(메) 3 3

닭 잡 구 술 먹 자

(tutti)

에 헤 야 어 - 예

헤 야 - 호 어 허 디 여 루

나 가 세

〈홍주 134〉 홍성군 장곡면 화계리

벼 바 숨

김윤재(90-2-2④A)

♩. = 65~67

"허라, 엇치"
"나왔나, 헷차"

(메) (받)

아 하 호

(메)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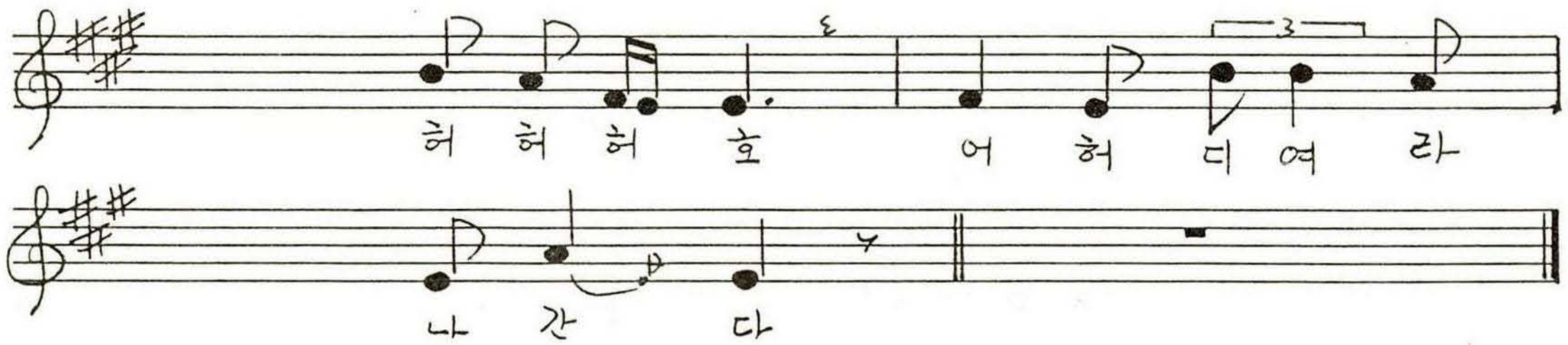
그 럴 구 말 구 서

(메) 3

(오 소) 산 상 봉 에 단 풍 이 들 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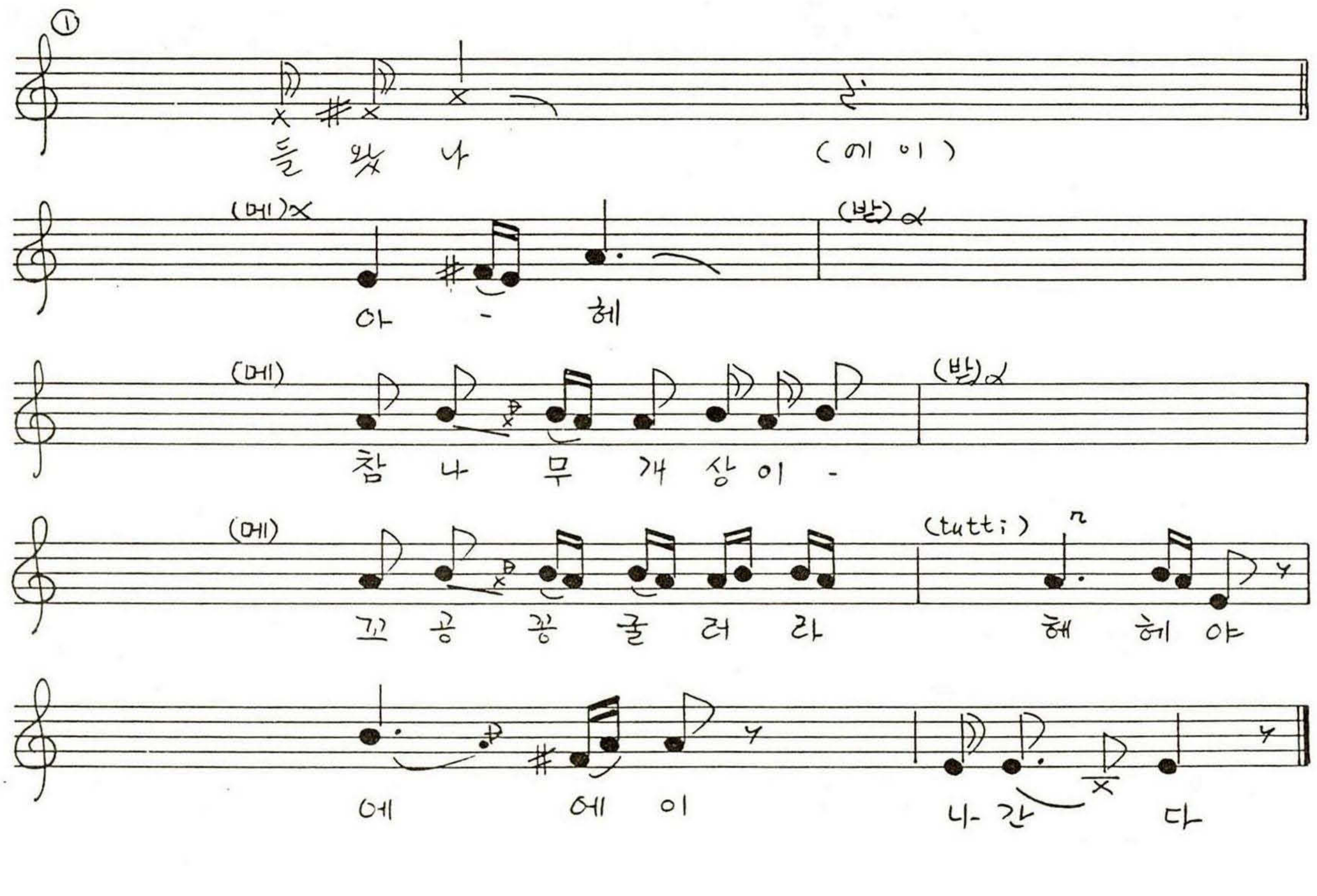
(tutti)

에 헤 · 이 헤 헤 호



(메)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구나

〈홍주 135〉 홍성군 장곡면 월계 2구 **벼 바 숨** 최주복(1916.남.土民)창 素. 94-2-27 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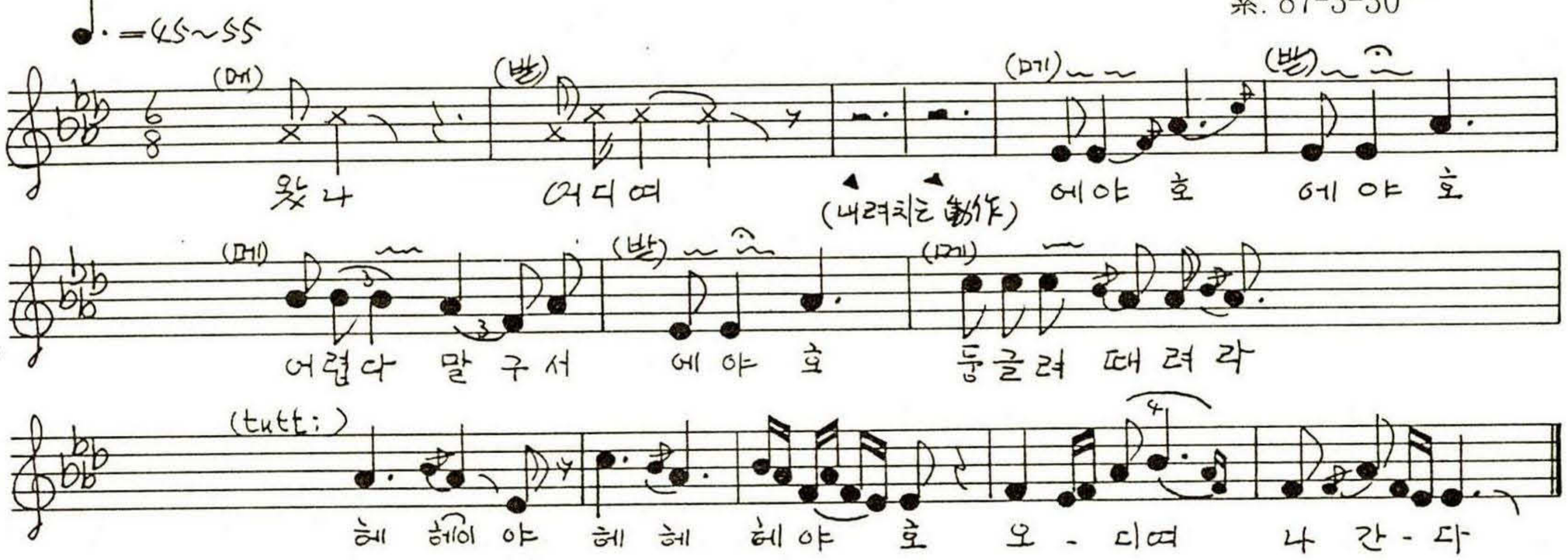


② 들왔나, 에이
아아헤, 아아헤
오성산 꼭대기 아아헤
비묻어 들온다. 에헤야
에어라 나간다.

〈홍주 136〉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개 상 질

(메)우준(1940.남.20대 째거주土民)
(받)윤청영(1942.남.土民)창
素. 87-3-30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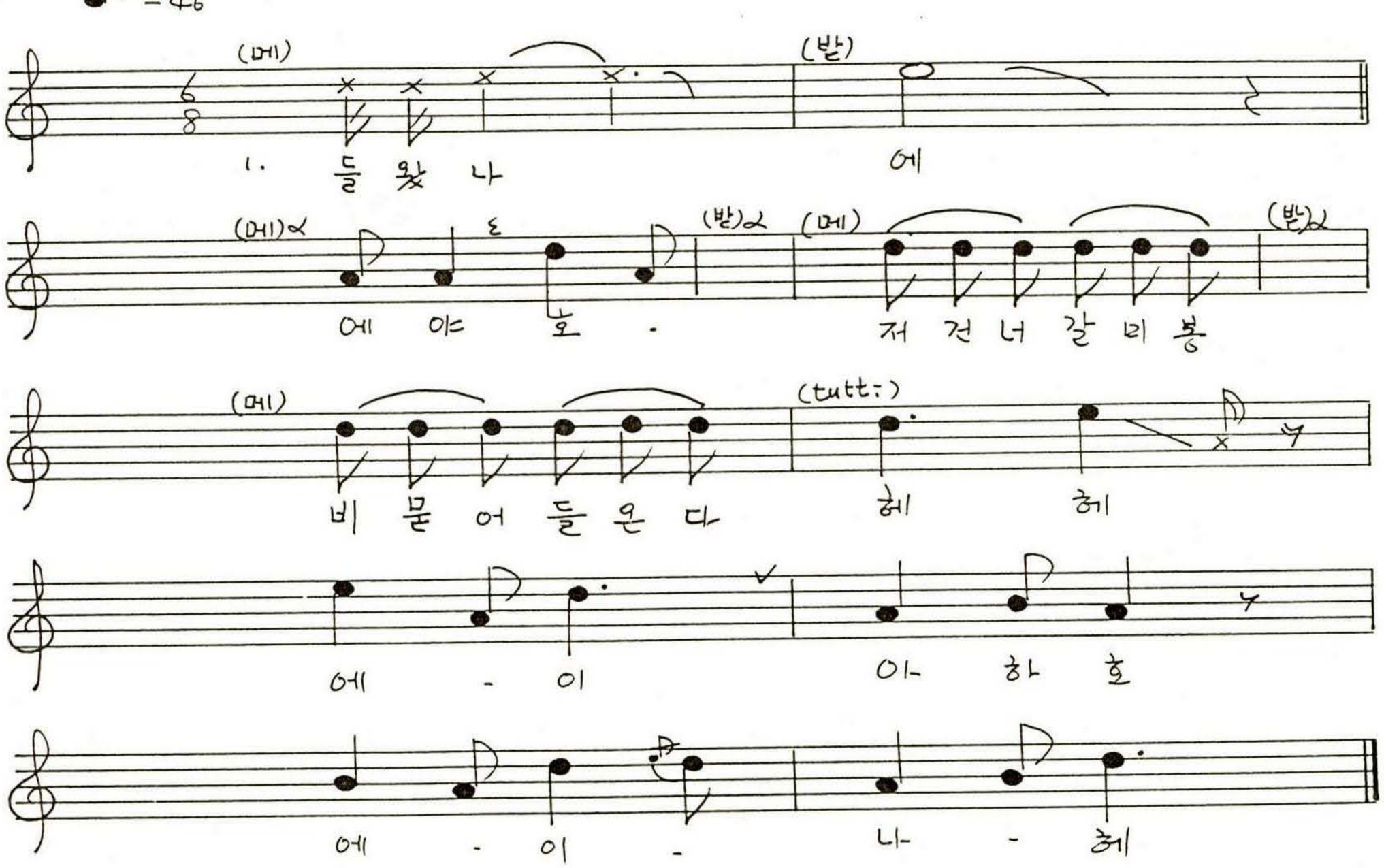


(메) 참나무 개상에, 버드나무 죽가래/
저건너 갈미봉에, 비묻혀 들온다/
우리가 살며는, 몇천년 사느냐/
세월아 네월아, 왔다 가지마라/

〈홍주 137〉 홍성군 결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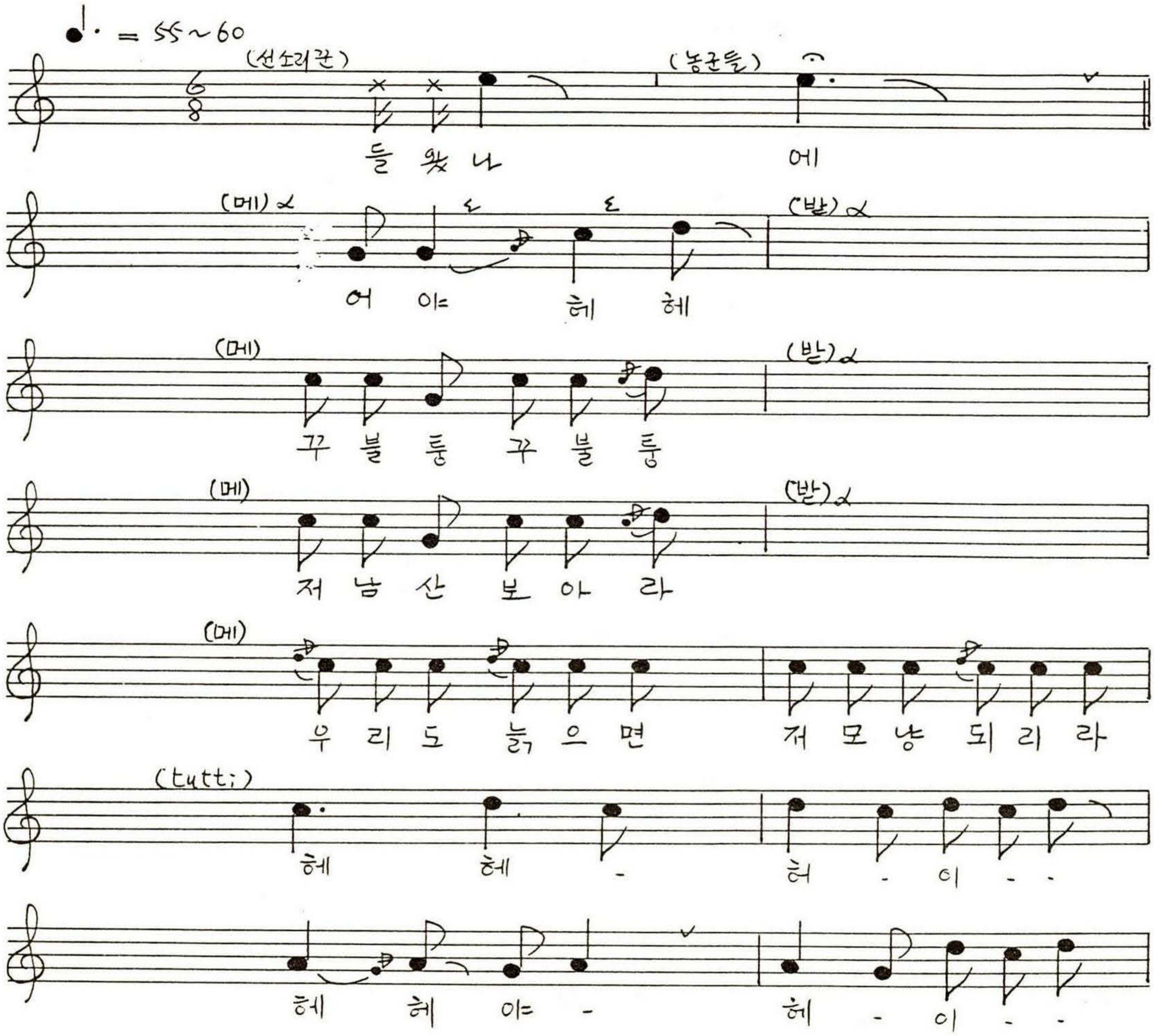
벼 바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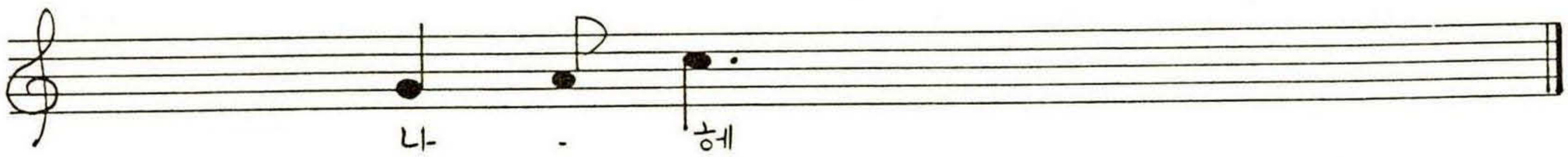
결성농요단
(제2회 대학로공연)
素. 91-10-6①B



2. (왔나- /에 -)
   (메) 에야 헤헤
   (받) 에야 호
   (메) 참나무 개상이 / (받) α
   (메) 닭잡구 술먹자 /(tutti)
3. (메) 이팔청춘이, 소년들아
   백발을 보구서 웃지를 말어라
4. (메) 충청도에, 계룡산은
   백마강이 둘러있단다.

〈홍주 138〉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벼 바 숨** 최광순(1926.남 土民)창 素. 94-2-27㉡B





○ 들왔나, 에 -
어야헤, 어야헤
보꿈물 청치마, 어야헤
연분홍 저고리, 에야헤
밤 봇짐 싼다.(tu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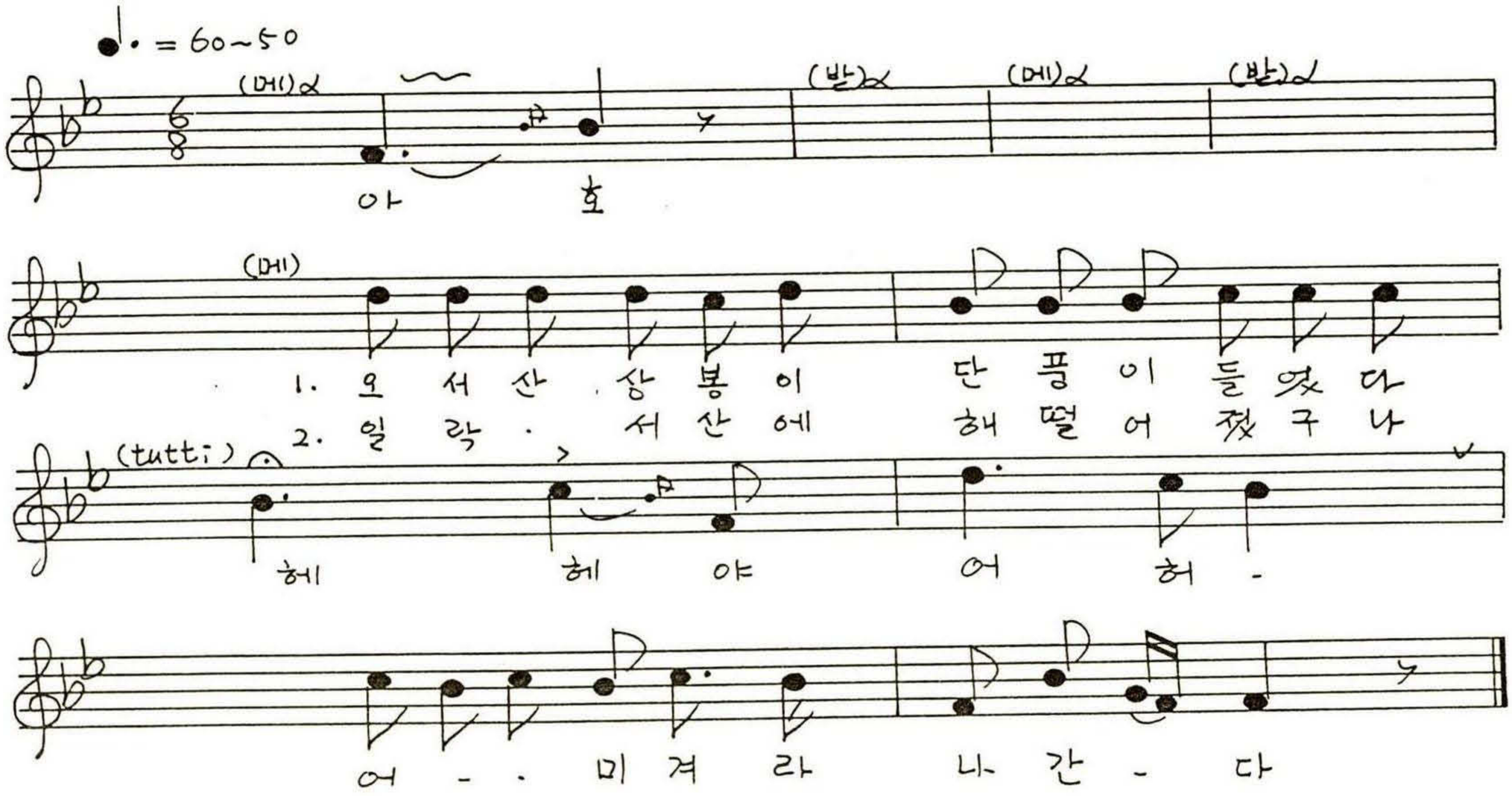
○ 들왔나, 에 -
어야헤, 어야헤
이팔청춘, 어야헤
소년과부, 어야헤
새벽달 바람에 밤 봇짐 싼다.(tutti)

○ 들왔나, 에 -
어야헤, 어야헤
참나무 개상에, 어야헤
닭잡고 술먹세(tu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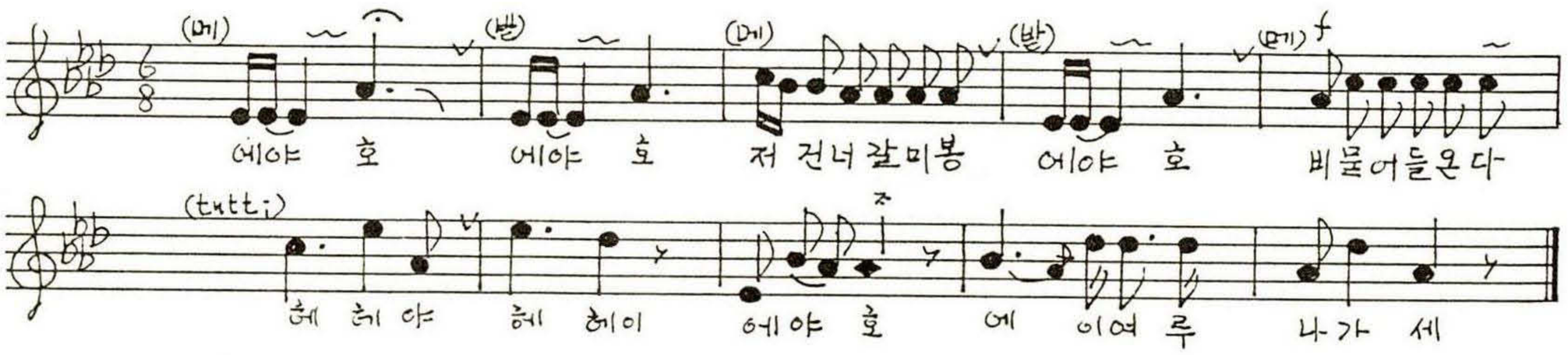
〈홍주 139〉 홍성군 광천읍 대평리

벼 바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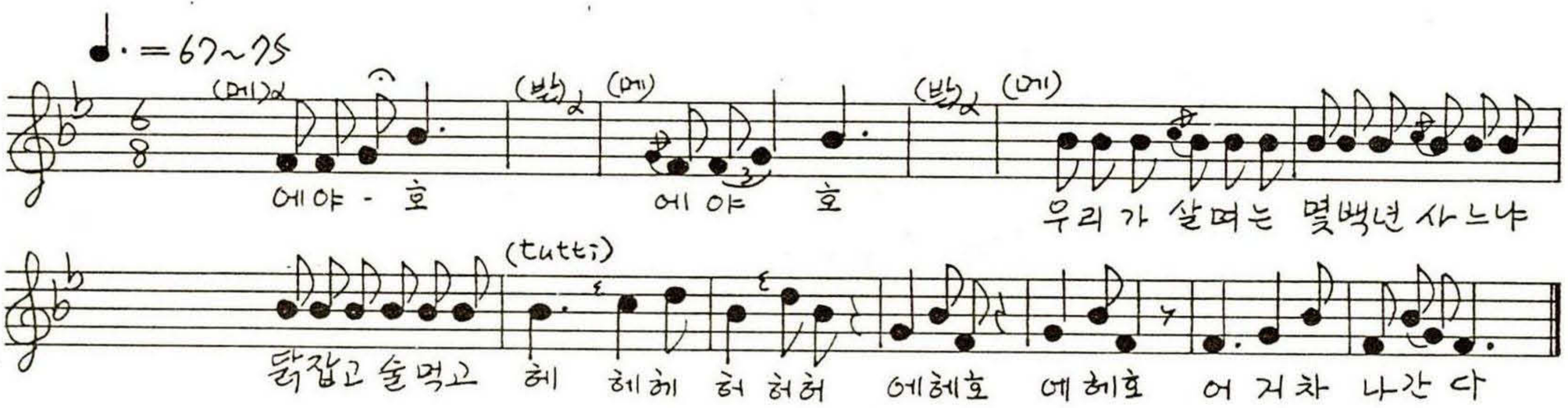
김종대(1909.남.土民)창
素. 89-11-28(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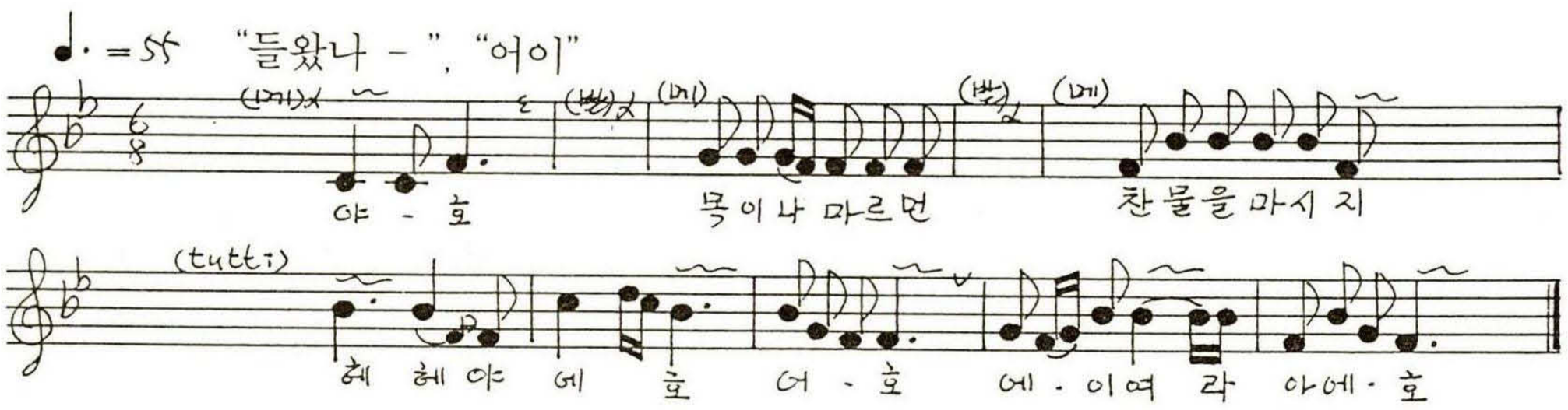
〈홍주 140〉 홍성군 광천읍 매현마을 **벼 바 숨 소 리** 황후성(1904.남.土民)창 素. 86-3-24[②B]



〈홍주 141〉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운곡 **자리개질(벼바숨)** 주정순(1927.남.土民)창 素. 87-4-17[A]



〈홍주 142〉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벼 바 숨 소 리** 윤종필(1900.남.土民)창 素. 87-4-17[B]



〈홍주 143〉 홍성군 은하면 유송리 **벼 바 숨** 김명복 94-3-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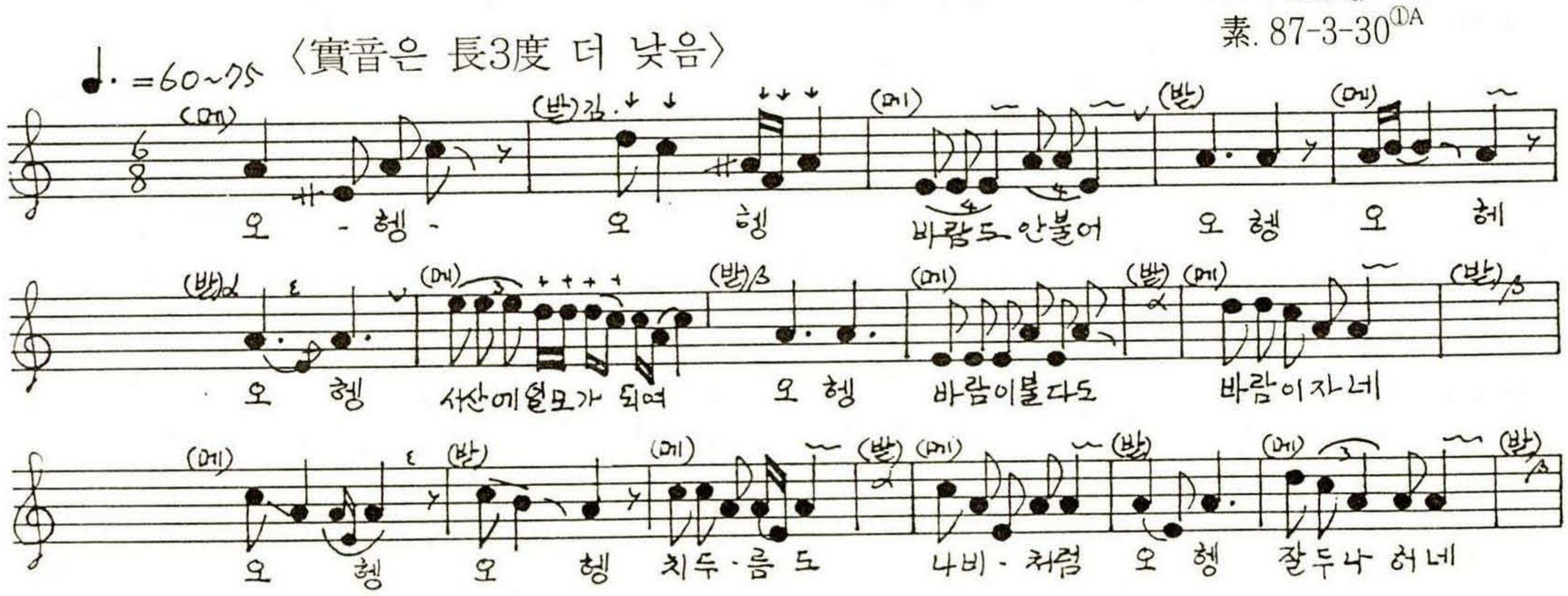
(받) 에야호
(메) 참나무 개상이 /
저건너 갈미봉 /
비묻어 들온다 /
※ 전복한은 맨날 "에야호"만 하남 하며 핀잔 주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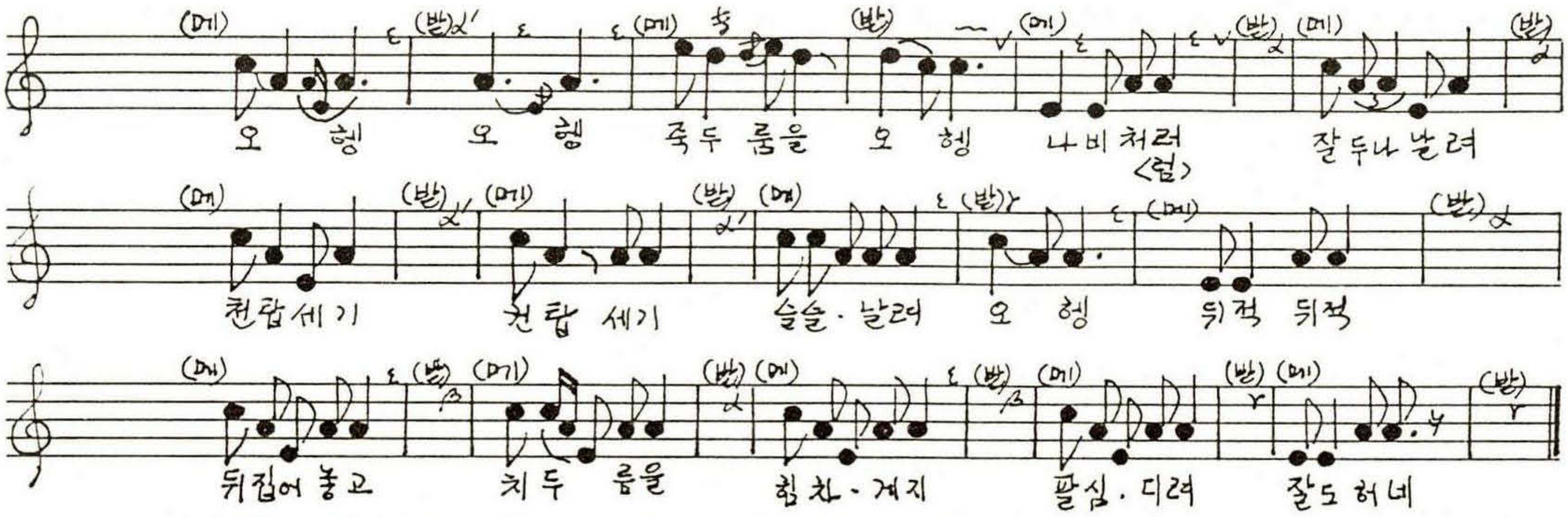
〈홍주 144〉 홍성군 신곡면 **벼 바 숨** 김재경 94-2-27[③B]

-일반형임-

"들왔나.
에 -"
에야호
· 에야호
저건너 갈미봉
· 에야호
비몰아 들온다
· 에야호
우장을 둘러라
헤 헤 헤 에헤헤 헤야호
- 나가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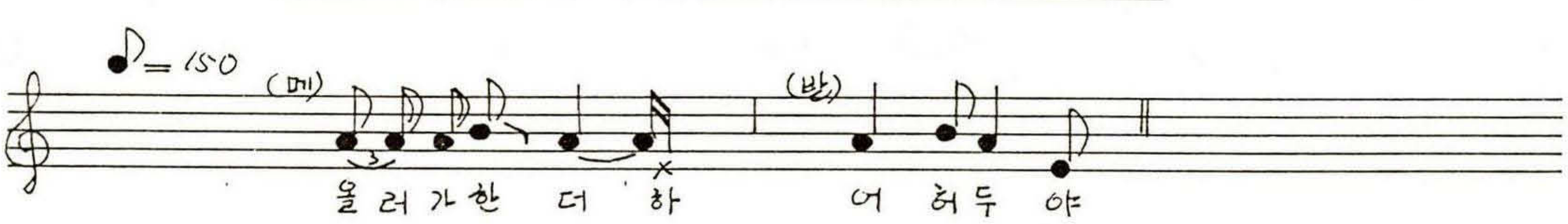
〈홍주 145〉 홍성군 홍북면 石它里 **죽 드 림** (메)김세원(1927.남. 土民) (받)최인석(1932.남. 土民) 素. 87-3-30[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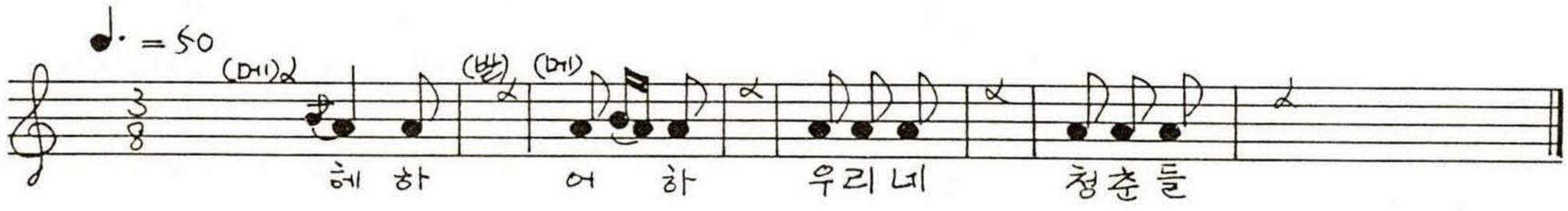


(메) 오헹/ 바로걸어/ 슬슬가면/ 돌어가며/ 잘도하지/ 회전을 바꾸어/ 좌회전으로/
슬슬돌어/ 잘도하지/ 바람보담/ 치바람이/ 잘도날려/ 나락볘는/ 사륵사륵/
소리를나는듯/ 얼추디렷나/ 잘도디리네/ 볏빛같은/ 황금빛같로/ 노릇노릇/
소록소록/ 긁어모여/ 산더미처럼/ 긁어모여/ 일배일배/ 수일배라더니/
막걸리한잔/ 먹어가며/ 한번또한번/ 재미시럽게/ 우리들이/ 기분맞취/
디려놓고/ 주저앉어/ 술이나 먹다/ 쉬었으니/ 해여보세/ 오헤/
어렵다 말앞고/ 잘들도허네/ 오 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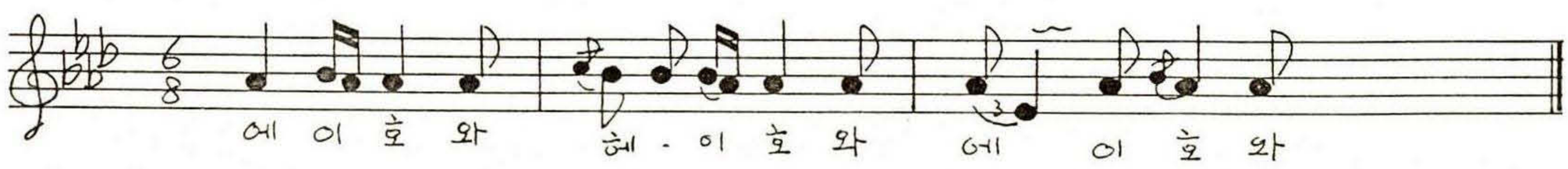
〈홍주 146〉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죽 가 래 질** 김용세 창 素. 86-3-25②A



〈홍주 147〉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죽 가 래 질** 주정순(1927.남.土民)창 素. 87-4-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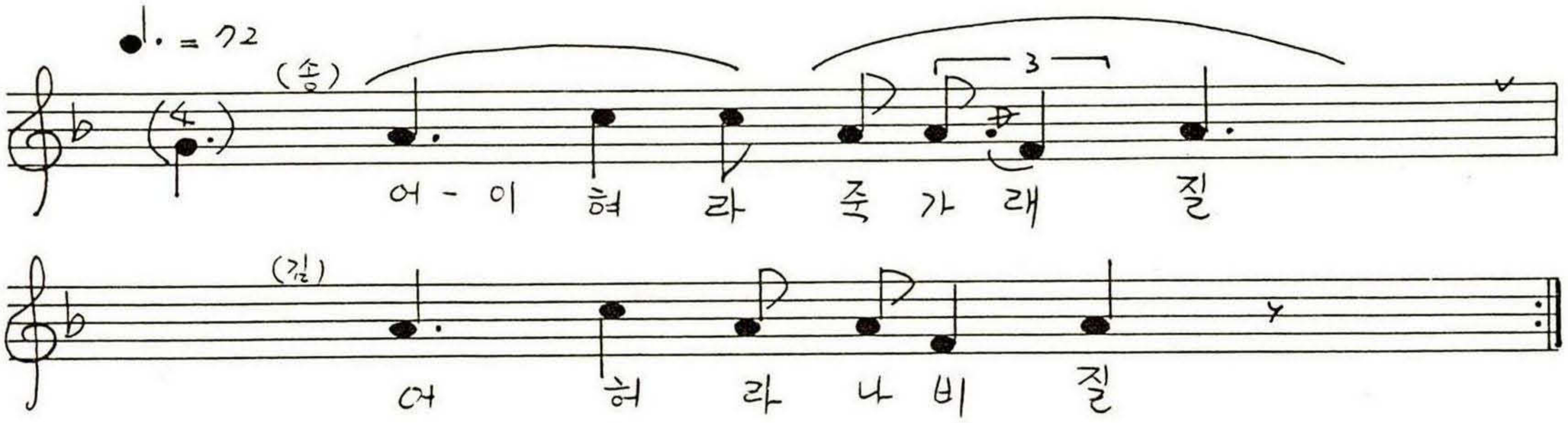


〈홍주 148〉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나 부 질** 주정순(1927.남.土民)창 素. 87-4-17A



〈홍주 149〉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죽 가 래 와 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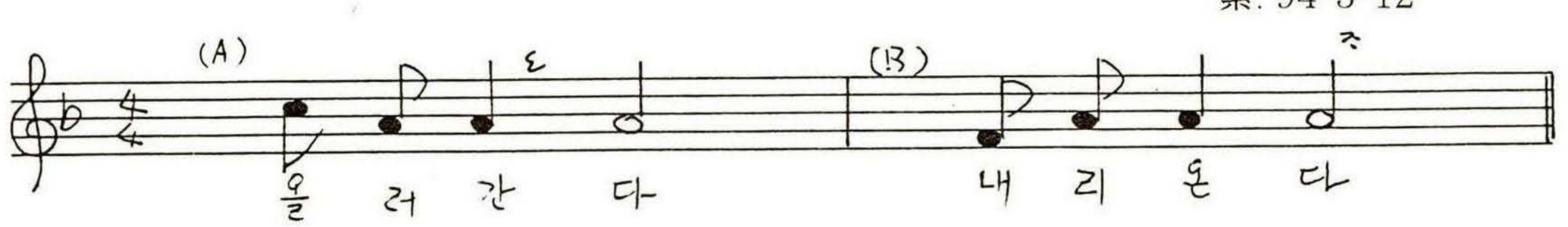
송학기 · 김윤환
素. 94-2-28[A]



※ 죽가래로 떠올리면 나비로 부쳐나간다

〈홍주 150〉 홍성군 서부면 광리 **죽 가 래 질**

A. 민정식(1918.남.8세 부터 중광 거주
B. 이영규(1921.남.중광土民)
素. 94-3-12[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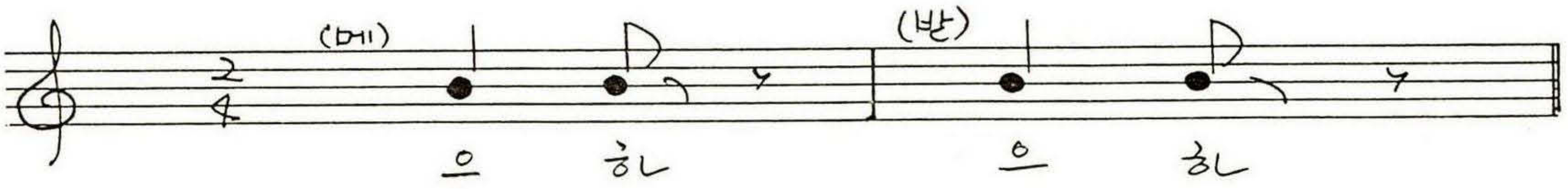


(A) · 올러 가고
· 올러 가네

(B) · 바람이 잘 불고

〈홍주 151〉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죽 가 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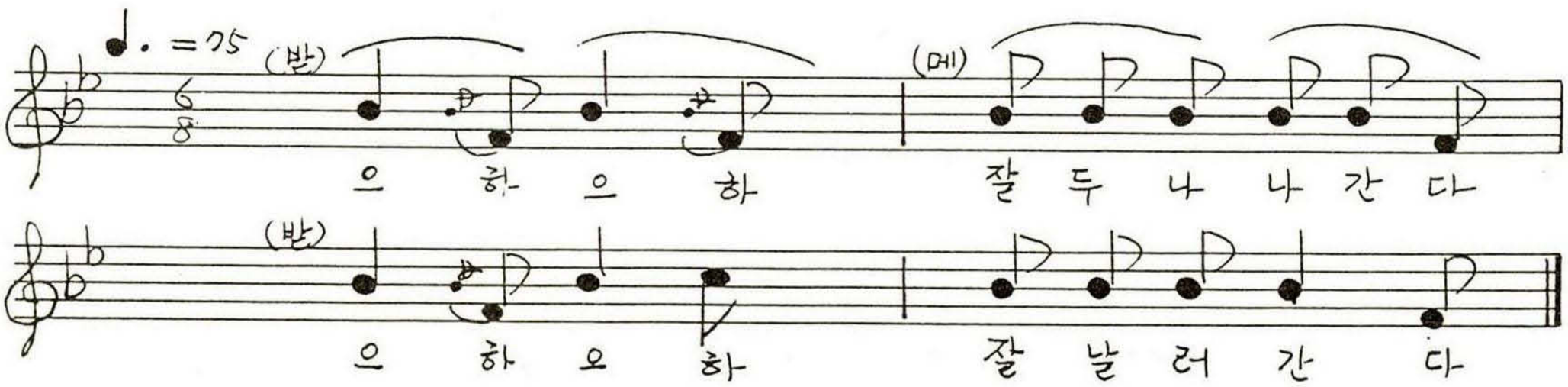
이사용(94-3-13[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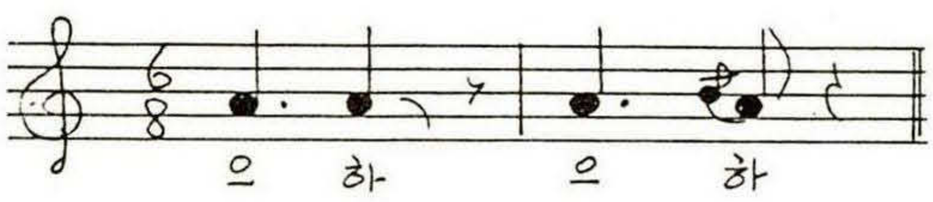
※ 1人의 죽가래꾼이 "으하"하면 옆에 선
1人의 나부질꾼이 "으하"하며 소리를 받는다.

〈홍주 152〉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죽 가 래 질 소 리** 이태훈(90-2-2⑤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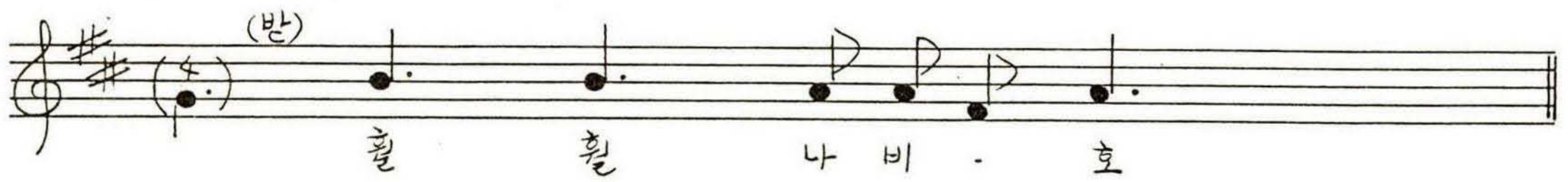


〈홍주 153〉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 **죽 드 림** 강수로(1921.남.土民)창 素. 87-3-30②A



〈홍주 154〉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화계리 **나 부 질** 김윤재(90-2-2④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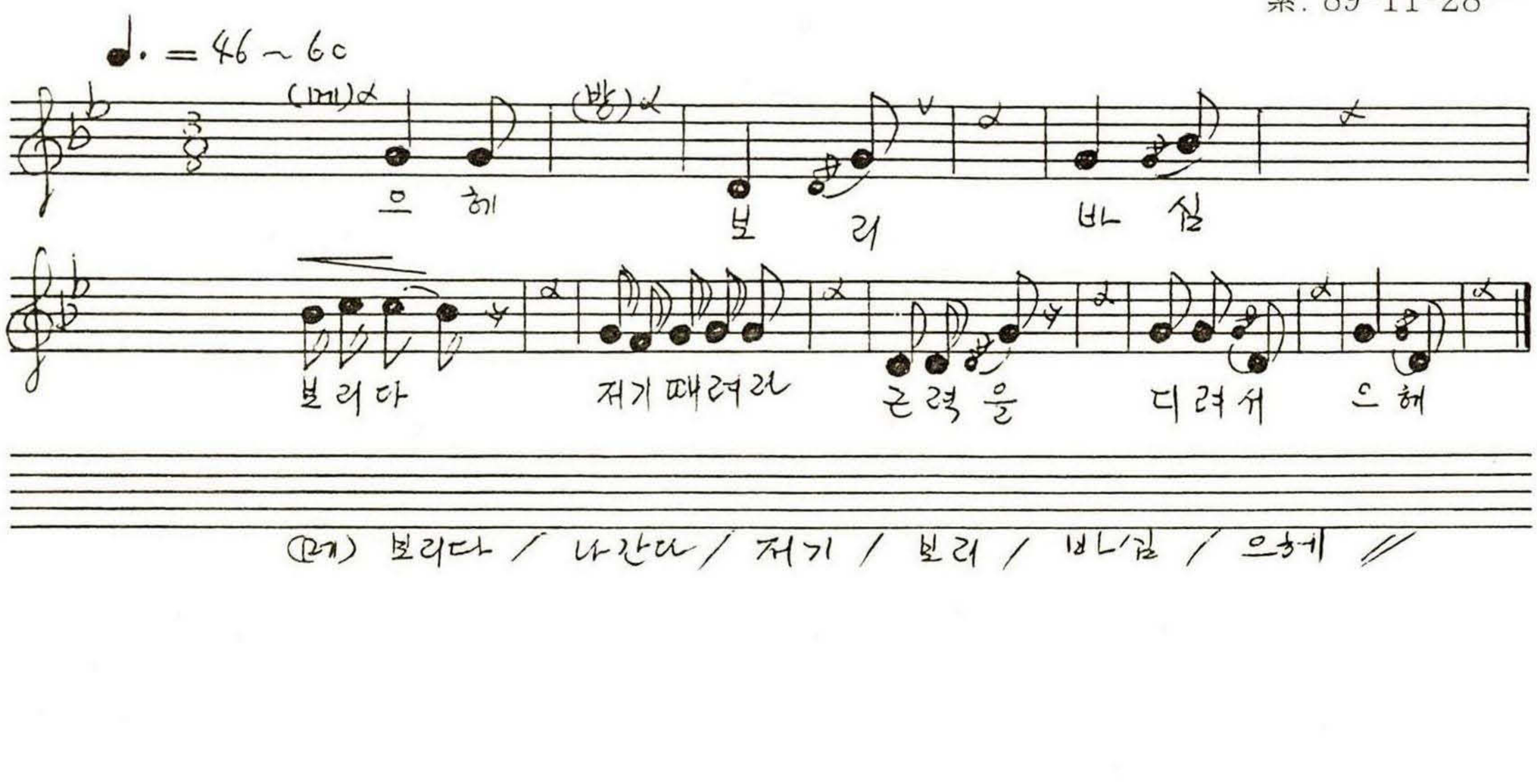
★ 참고用



※ 죽가래질 : (甲) 올라간다. (乙) 내리온다.

〈홍주 155〉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보 리 바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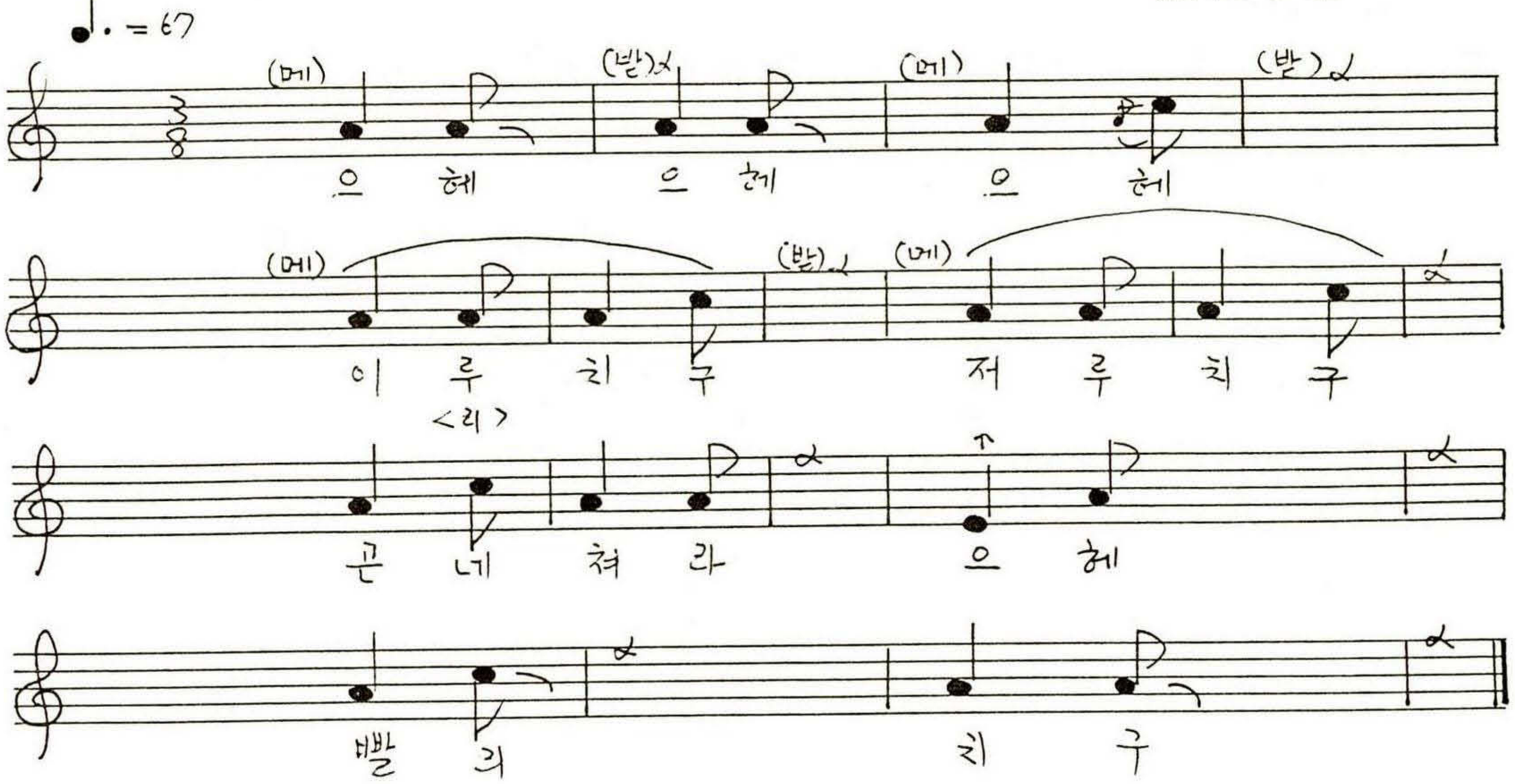
(메)최광순(1926. 남.土民)
(받)최용근·최용환
素. 89-11-28②B



〈홍주 156〉 홍성군 서부면 광리 중광

도 리 깨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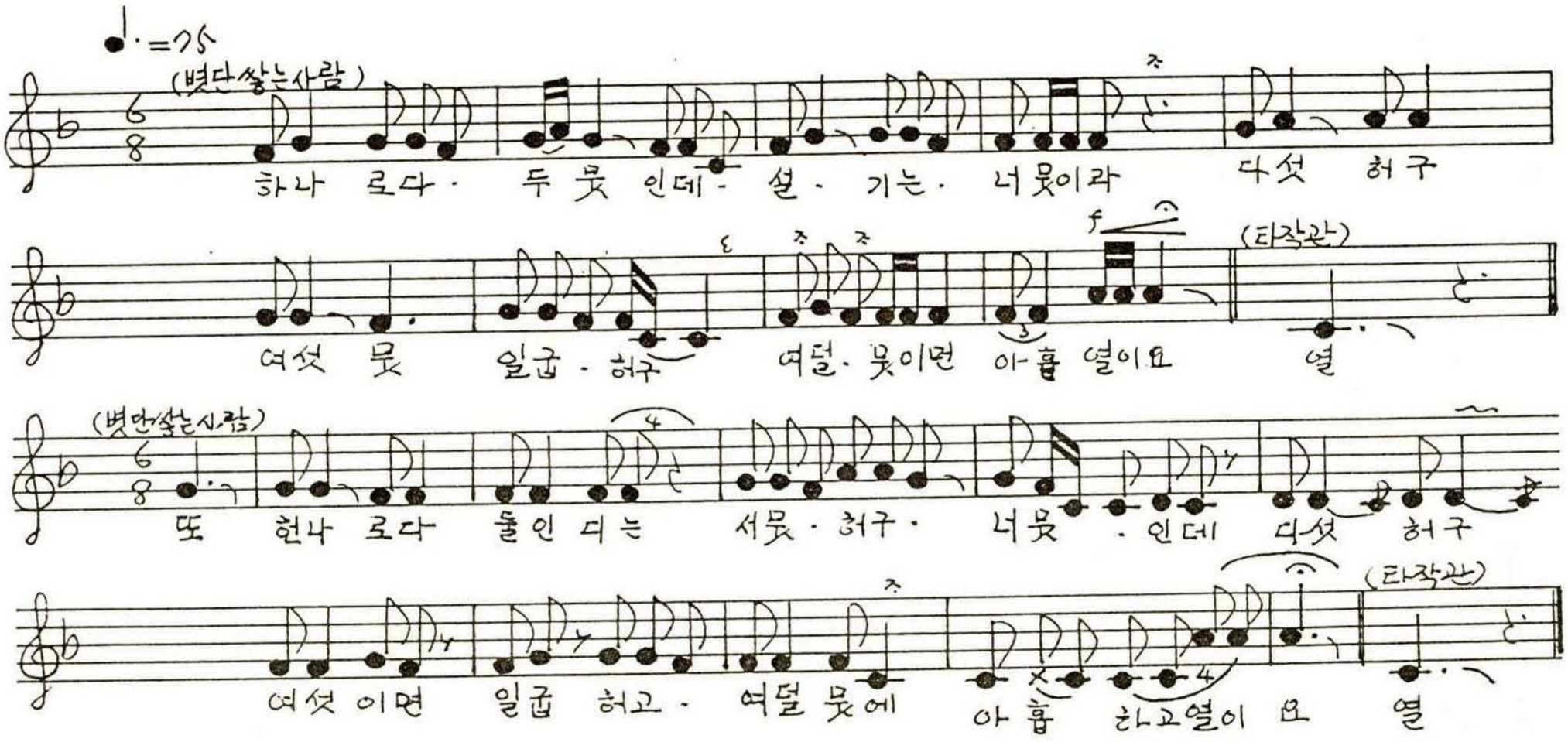
민정식(1918.남.8세 부터 중광거주)
이영규(1921.남.土民)
素. 94-3-12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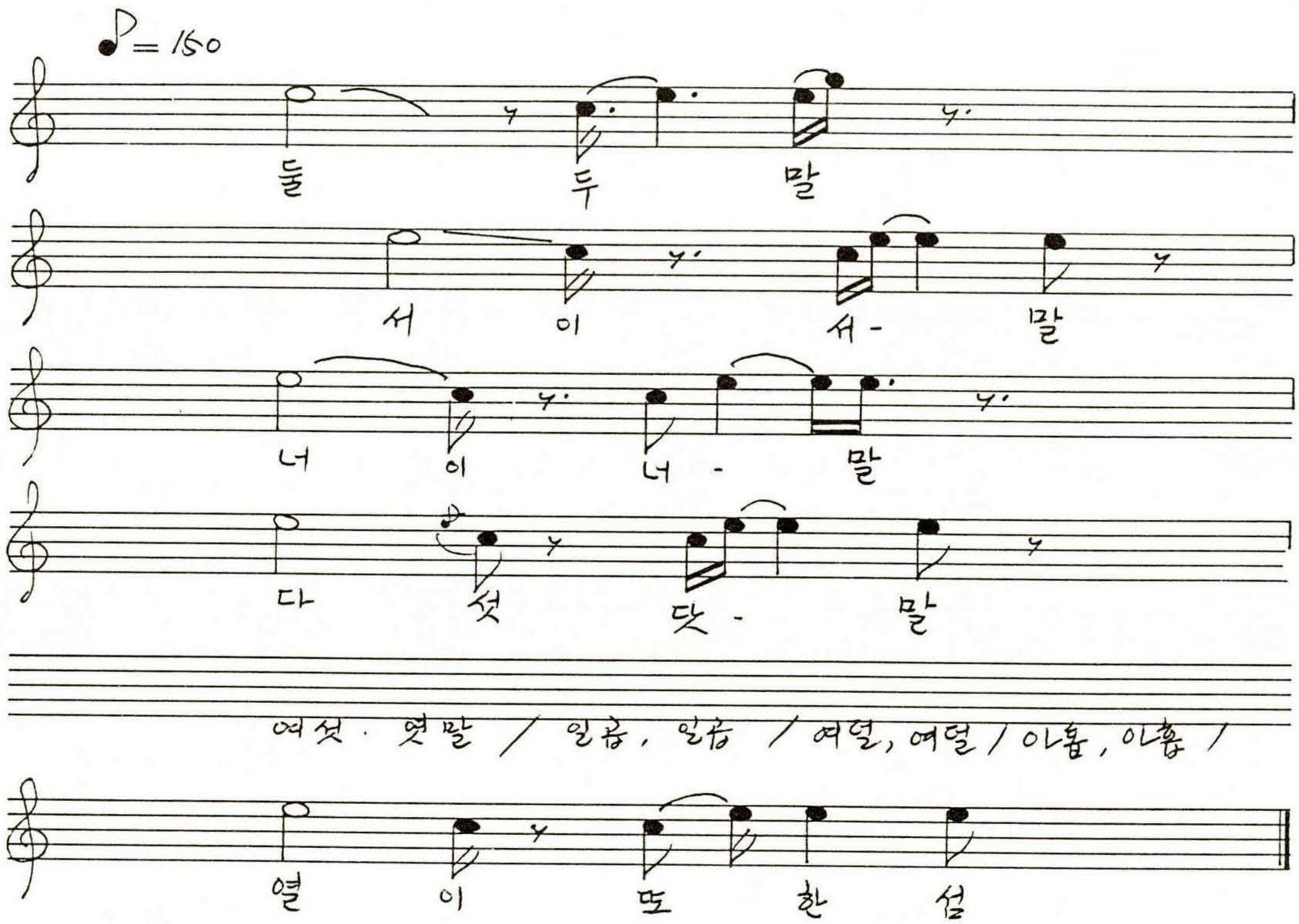
〈홍주 157〉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볏단 쌓는 소리

김용세(1928.남.土民)창
素. 86-3-24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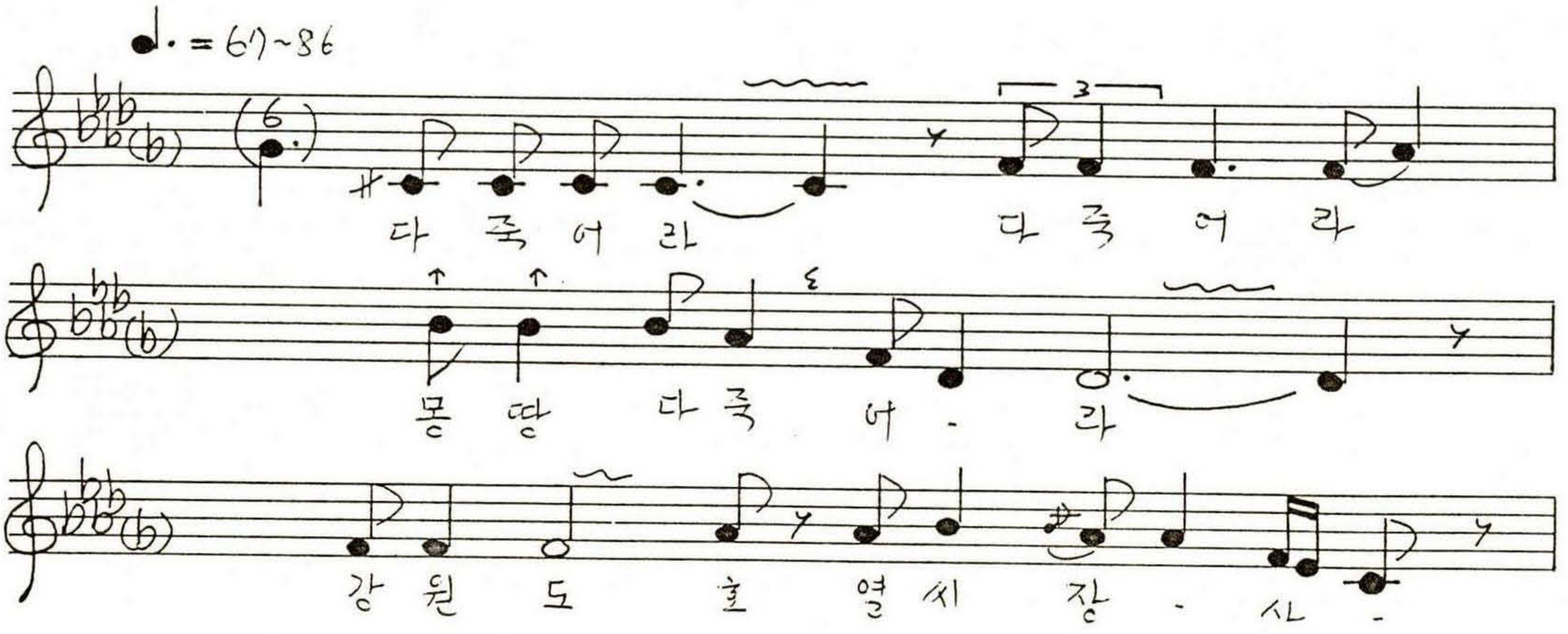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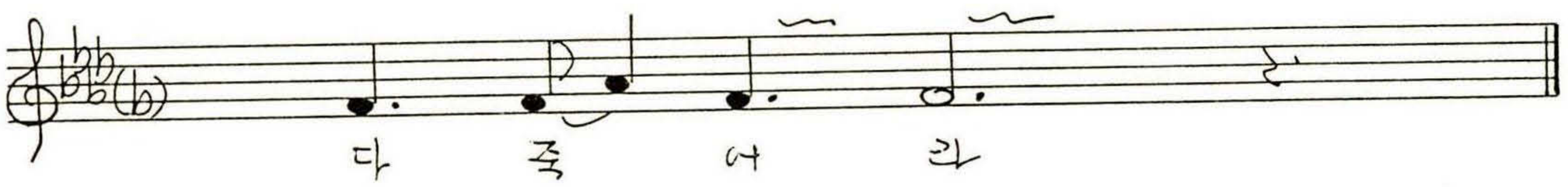
〈홍주 158〉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말 되 는 소 리** 최용환 창



(※ 처음 하나는 세지 않고 둘부터 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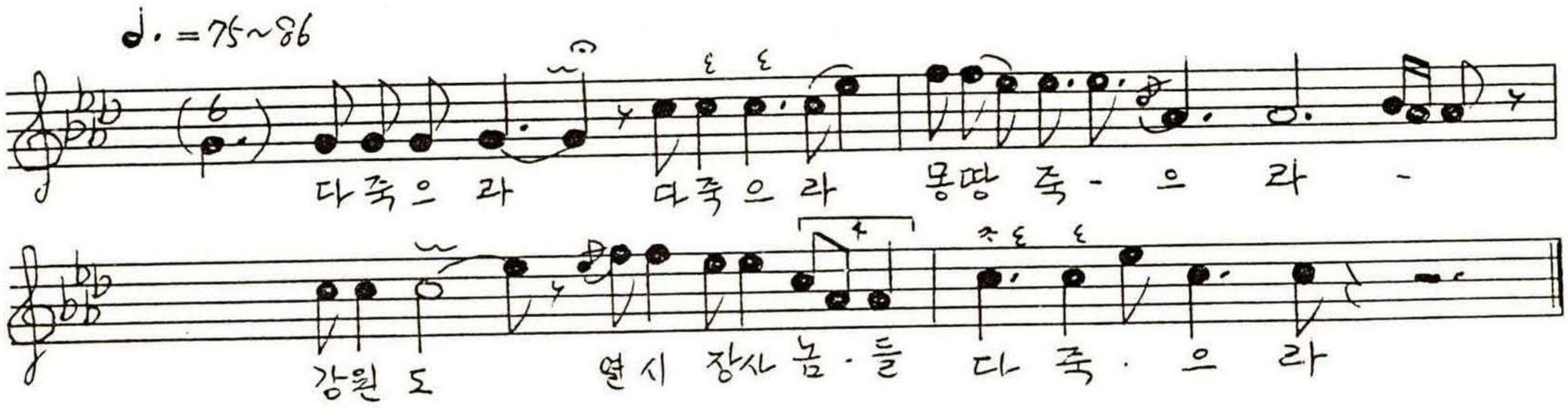
〈홍주 159〉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삼삼는소리(강원도 열시장사)** 권영욱(1925.남.土民)창 素. 94-3-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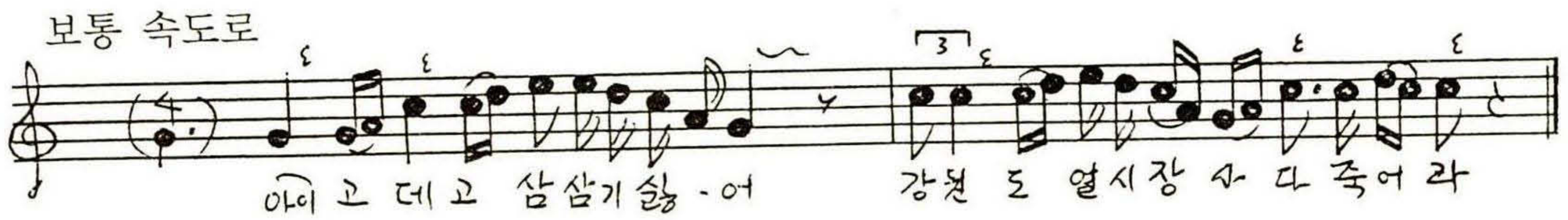


(獨白) 날은 따뜻하고 마음은 산란한데
아이구 삼삼기 싫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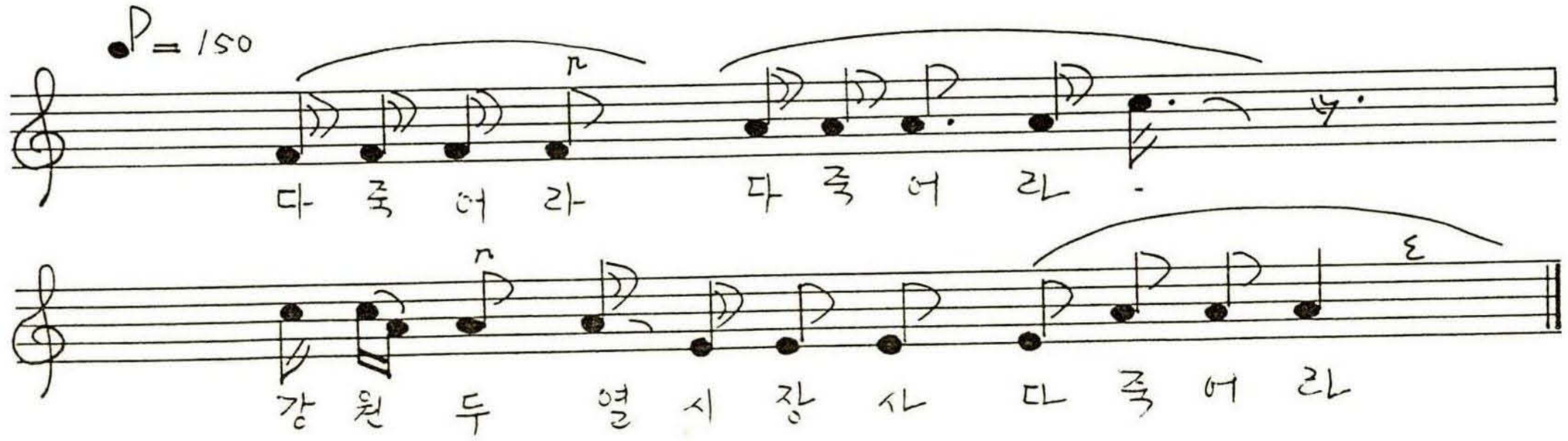
〈홍주 160〉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내가 **삼 삼 기** 권영욱(1925.남.土民)창
素. 89-11-29 ②B



〈홍주 161〉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삼 삼 기** 이병후(1924.남.土民)창
素. 90-2-3 ⑰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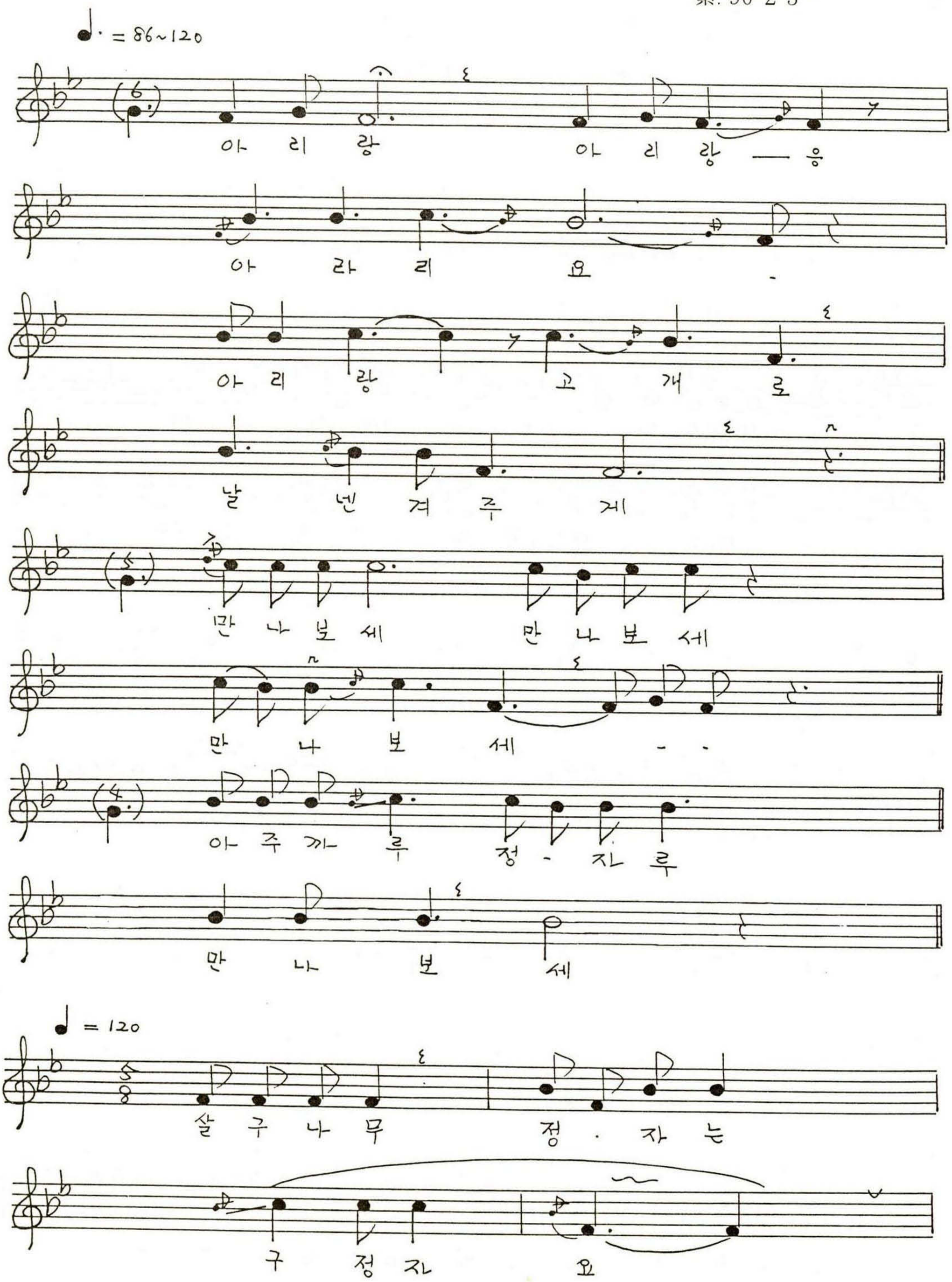
〈홍주 162〉 홍성군 서북면 광리 **강원도 열시장사** 민정식 창
素. 94-3-12 ③B



〈홍주 163〉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은하면 대천리 월실

삼 삼 는 소 리

손천순(1918.여.상황출생.1
8세에 월실로 시집옴)
素. 90-2-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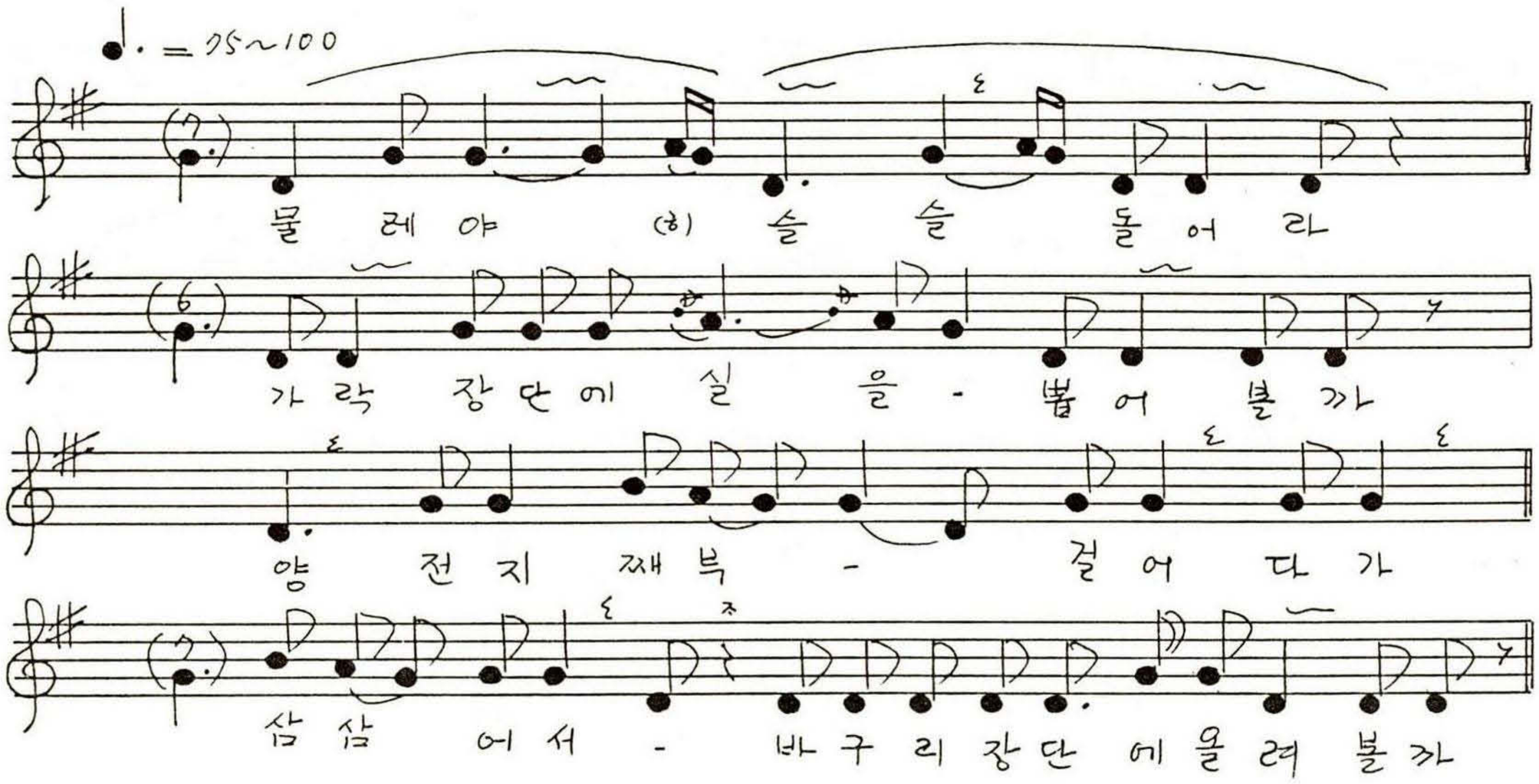


○ 물레야 물레야 배뱅벵 돌아라
이웃집 김도령 밤이슬 맞네 /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넨겨주게 /
울타리 뜯으면 나온다더니
한폿짝 다 문여도 아니나 나온다 / (후렴)
○ 닐닐리 쿵다쿵 찧더니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밤마실가나 / (후렴)
올라당 팔라당 홍갑사댕기
군때도 안묻어 날 택일 왔네 / (후렴)
○ 해준다고 해준다고 허더니만
열둘이 얼러서 홍갑사치마
스무둘이 얼러서 발발 찢네 / (후렴)
○ 아리랑 타령은 누구라 냈나
건방진 큰애기 내가 냈지 /
(밭매는 소리例로 부른것) ○ 시어머니 산소는 비둘기 봉에다 썼나
우리집 냄편은 콩밭으루만 가네 / (후렴)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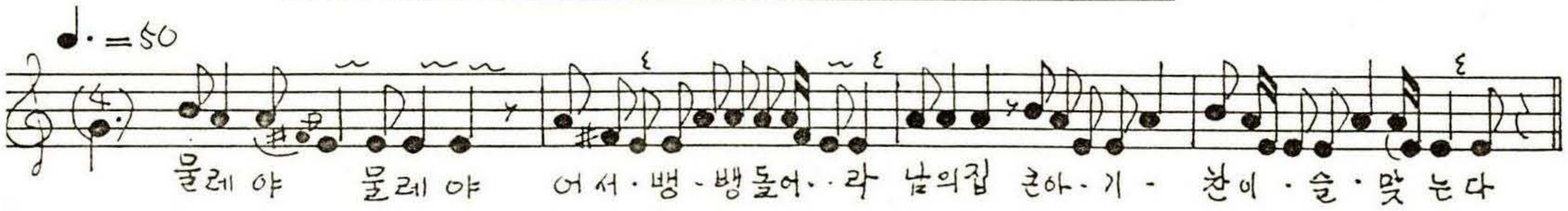
〈홍주 164〉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잠아 오지마라(길쌈)** 최정연(89-11-29[A])

"잠아 오지마라,
긴머리 시어머니 장단에다 매맞고
머리끄댕이 내리쳐서 이마 방아 찧고
참솔 밭에 잠이 들어
술술 잠이 드는구나
서방님은 안오시고"



"모시삼어서 기상오라버니 옷을 맨들까
내잠은 천번 만번 잠이들어
앉인자리 잠들고, 부엌이 아궁이 앞이 잠이 들고
바쁜 길이다 달려가세, 까적빠지 잠이드네
인간에사 못다자면, 언제 다 자나
서방님 저쳐 놓고, 저세상에 가서
질쌈 그만두고, 천년만년 잠이나 자 보세"

〈홍주 165〉 홍성군 홍북면 **물 레** 최화순(1940.여.土民)창 素. 87-3-3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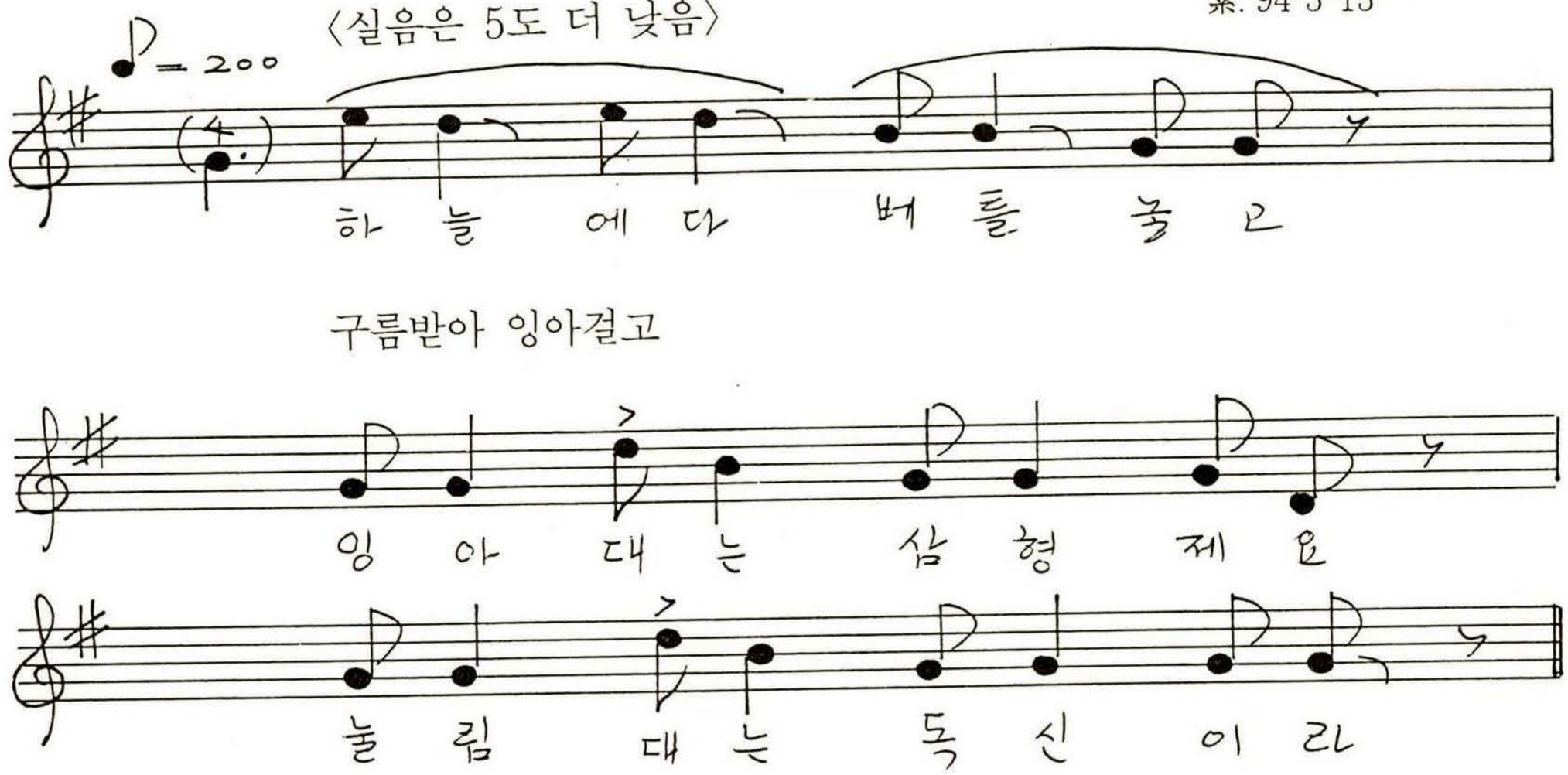
물레야 어서 뱅뱅 돌어라 //

〈홍주 166〉 베 틀

강원도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김옥녀(1917.여.황해도 곡산 출생.4살에 강원도 이천 이주 6·25때 옥계로 피난옴)
素. 94-3-13ⓓB

〈실음은 5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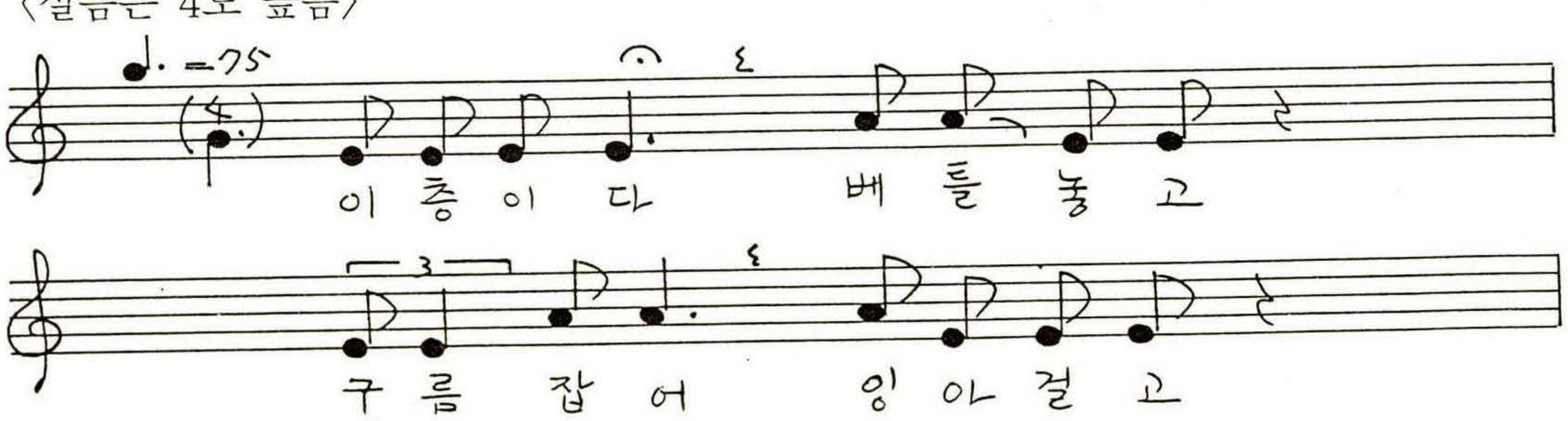
행려나무 북바지에
천하일색 올라앉어
낮에 짜며는 일광단이요
밤에 짜며는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내서
시내 갱변에 말려서
옥다디미돌에다 뚜드려
옥가새로 옷을 말라
우리 낭군님 와이샤스나 지여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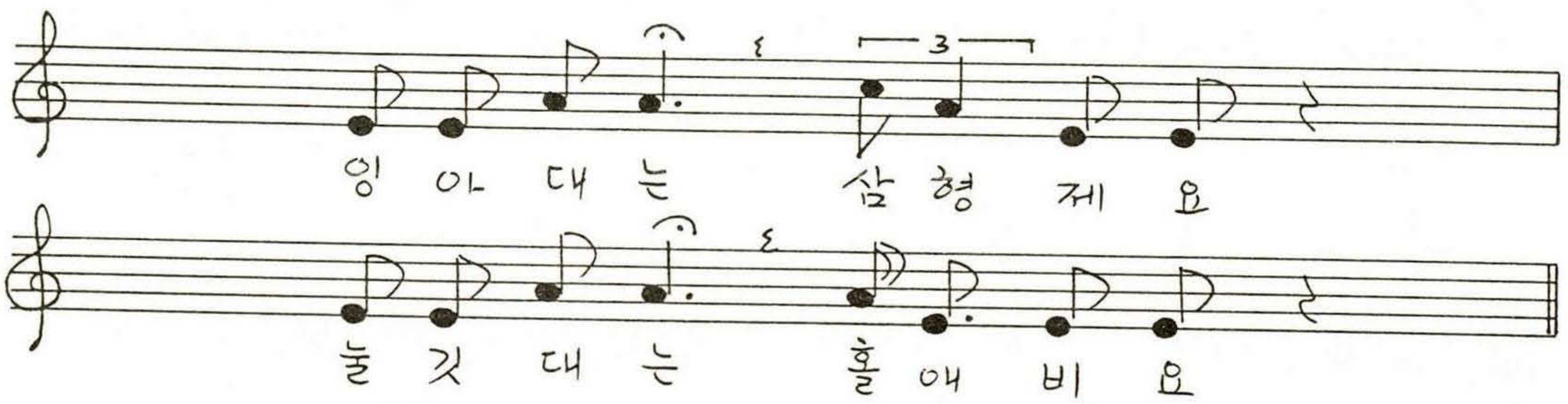
〈홍주 167〉 베 틀

청양군 목면 대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전차순(1924.여.대평리 출생. 15세에 동네 결혼. 38세에 옥계이주)
素. 94-3-13ⓐA

〈실음은 4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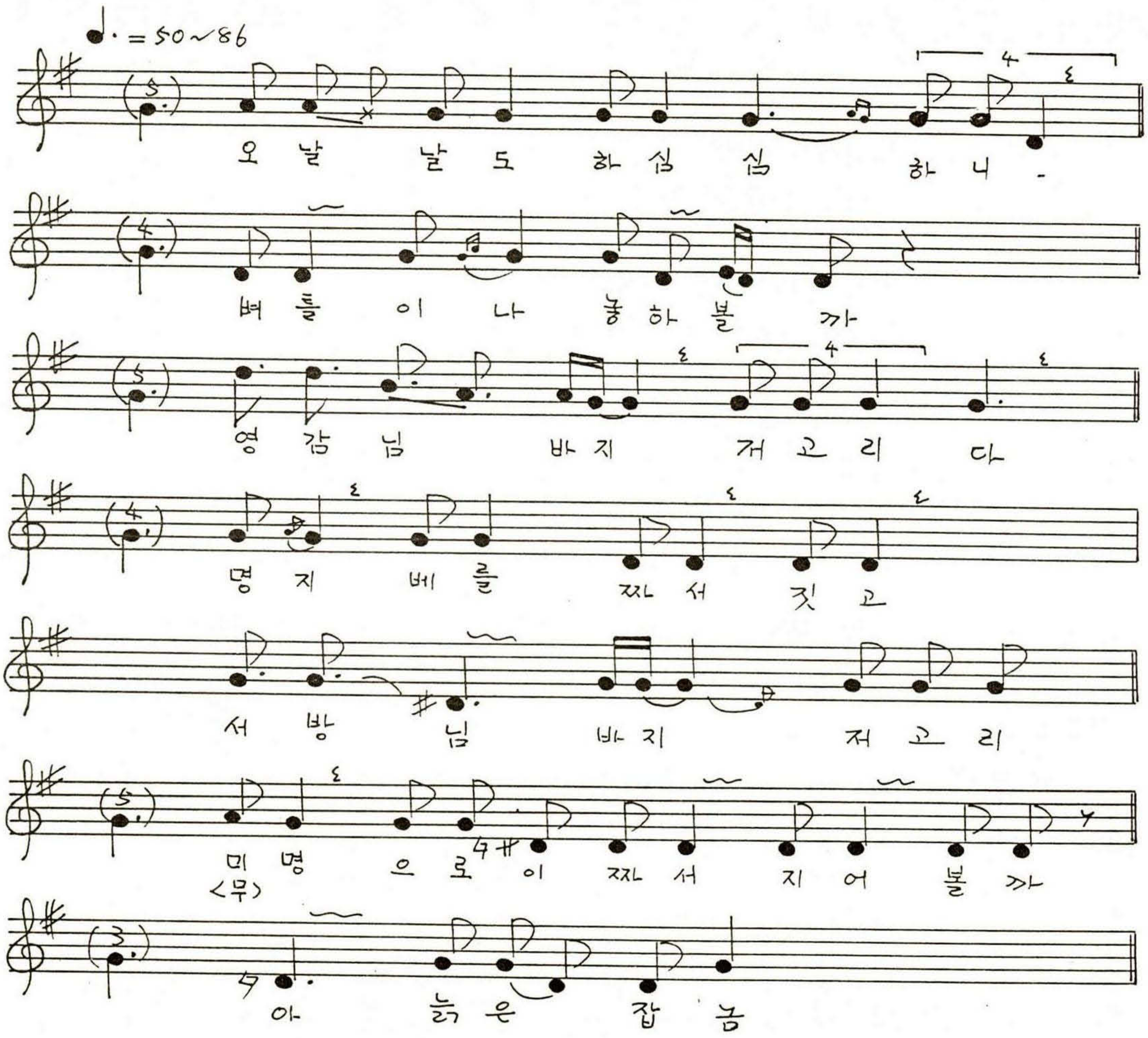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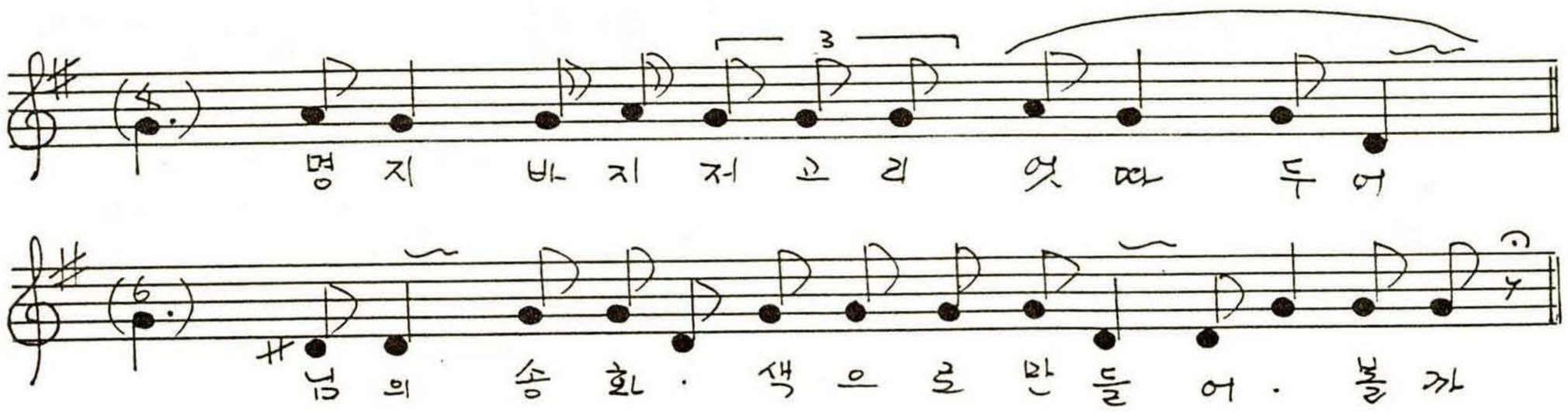


이베 짜서 무엇허나
우리 낭군 수발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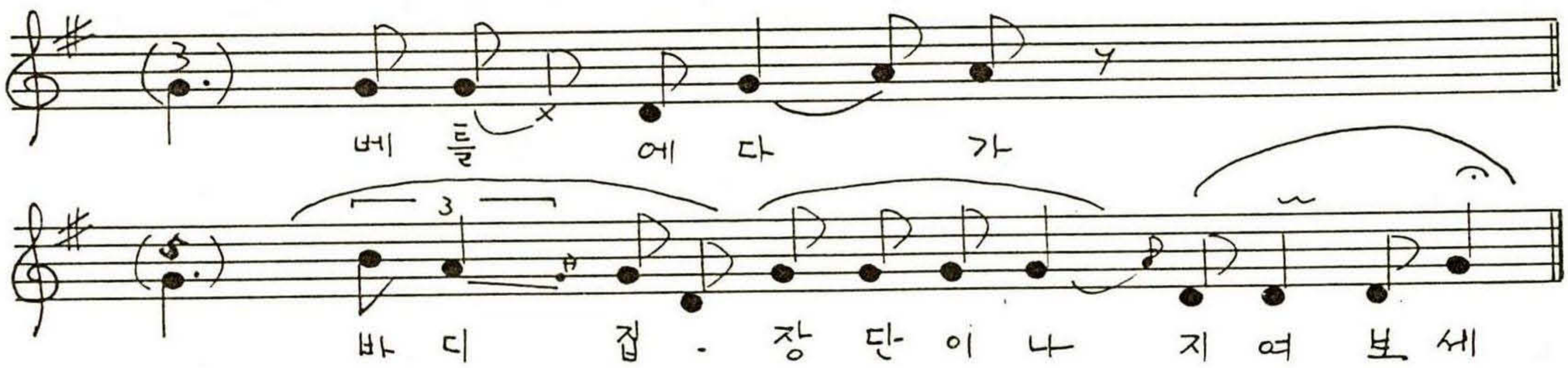
〈홍주 168〉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베 틀** 최정연(89-11-29[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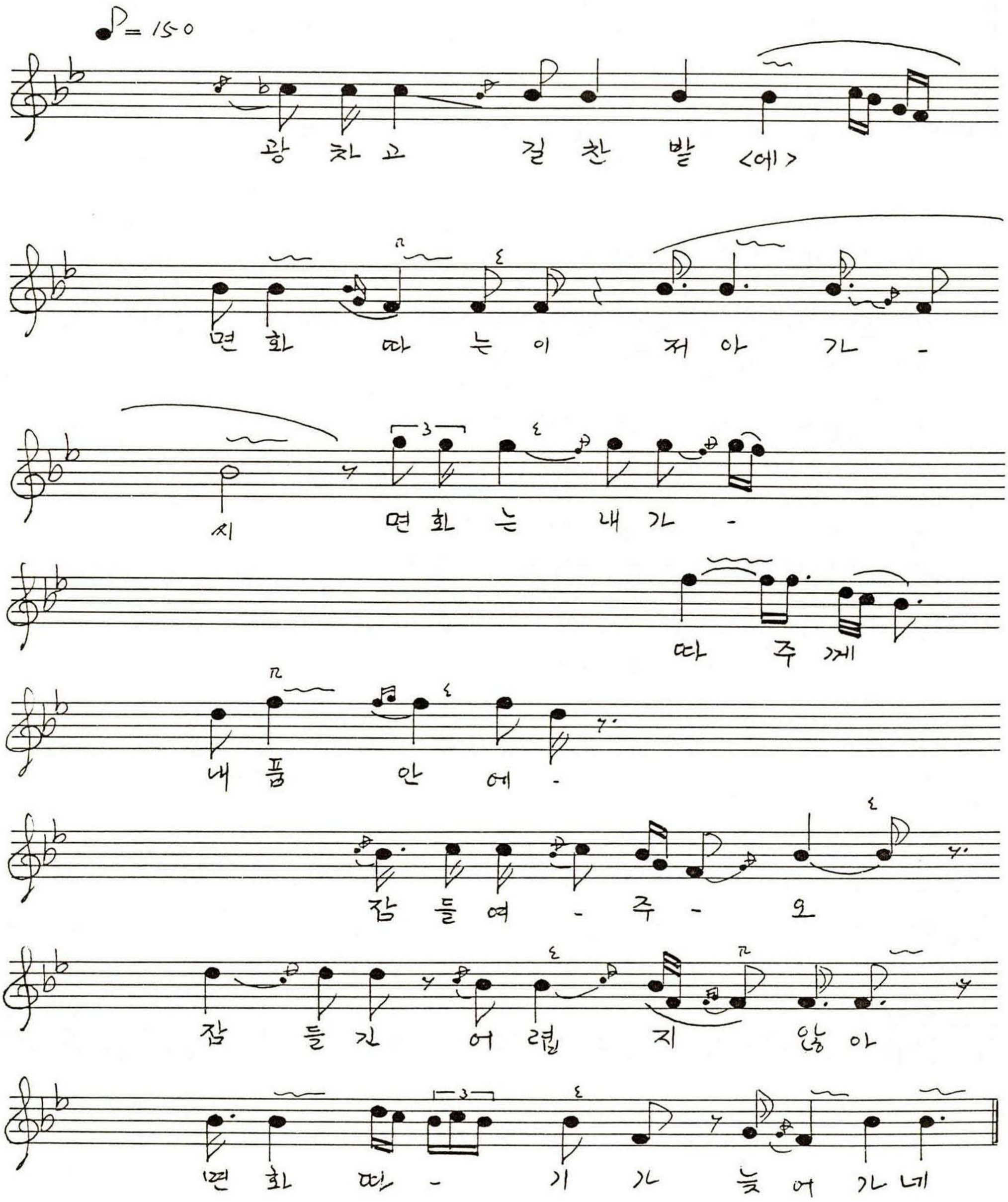
아아 순포로도이 짜고 생모시로도이 짜고 다 잉아대는 샘형제로다
앉인자리 진틀 장게틀을 만들어다 세모로다 빙에를 달어 놓고
잉아대는 샘형제로다. 북받이는 툇마루도 만들어서 바디집은 살살 둘러줄때
낮에 짜면 일광단 짜고 밤에 짜면 야광단이라. 첫 솜씨는 다 하 이리저리
둘러서 소를 맬까 돼지를 길러볼까 말맬때 소맬때 다들어졌으니 시집살이
못헐 내팔짜냐, 모시짜면 좋은가락 둘러다가 펴양기상 오라버니 옷을 짓고
공단에도 가리가고 비단에도 가리가네
시아버지 바지저고리 잘 만들고 덧저고리 잘 만들어
메느리 화목하고 이 집안에 이름내어 볼까
베를 짜서 다 일광단 월광단 모도짜서, 강원도 금강산에
일이봉 암자에도 찾어갈까 -
에라 세모시 장단 그만두고 나무지게 지어 볼까
앉인자리 다디미 장단이나 지어볼까
베를 짜자니 골아프고 물을 이자니 머리 아프고
앉인자리 살림일랑 사기장단이나 지어볼까
물동이 바가지 장단 지어볼까



〈홍주 169〉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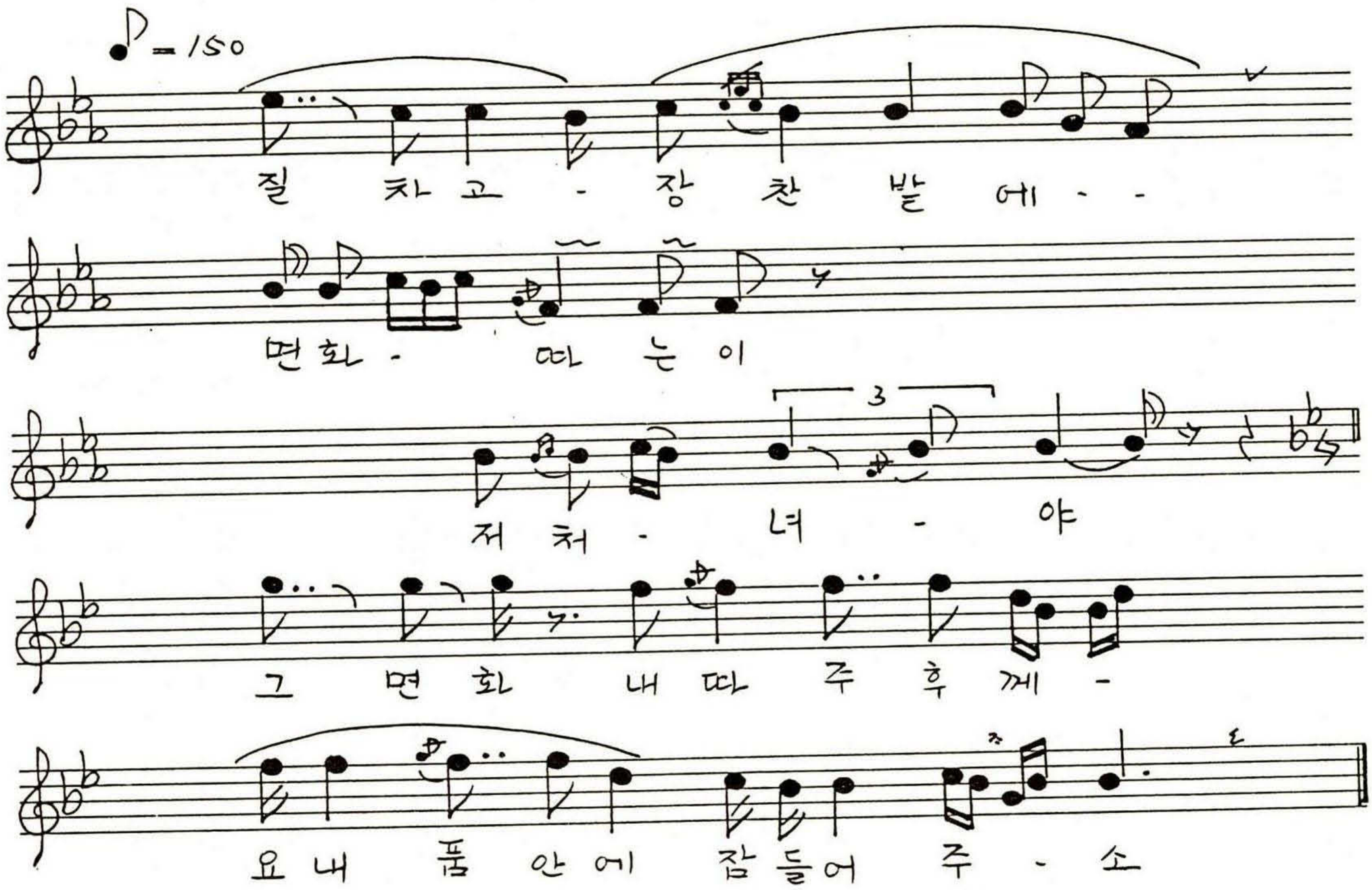
광 차 고 길 찬 밭

최광배氏 모친(1932. 土民)
素. 89-11-28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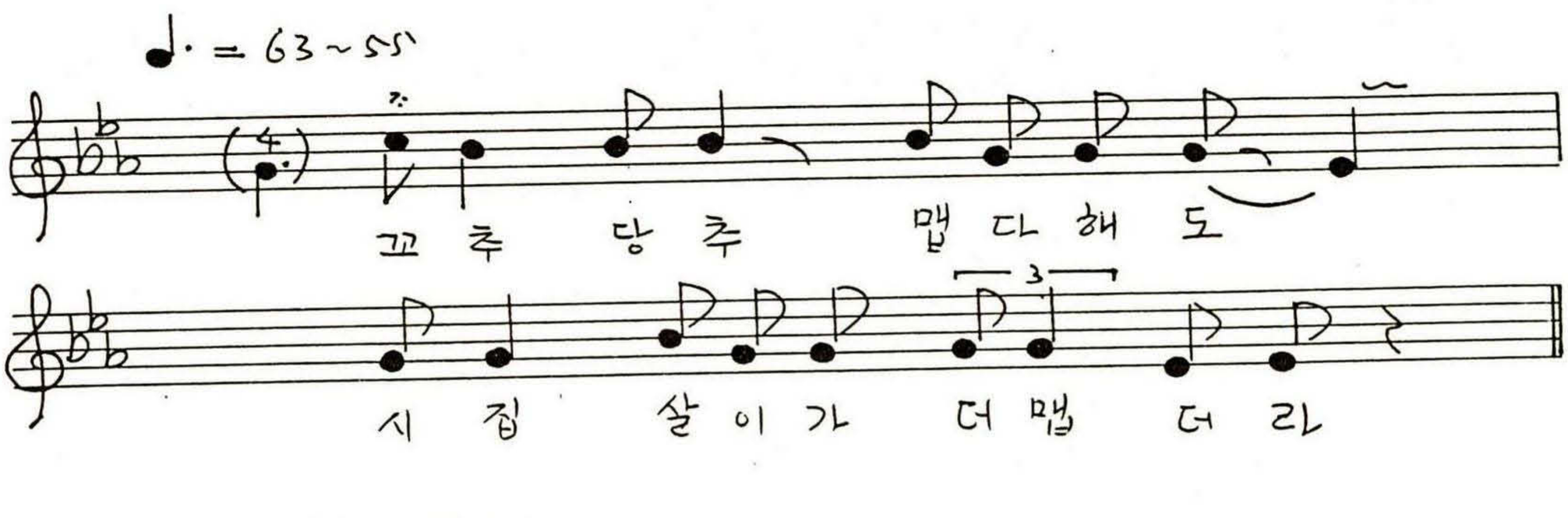
〈홍주 170〉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질차고 장찬 밭**

전차순(1924 여)
素. 94-3-13 ①A



〈홍주 171〉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시 집 살 이**

전차순(1924 여)
素. 94-3-13 ①A



시아버니 호령해여
시어머니는 꾸중허네
남편은 미련해여
시동상은 마당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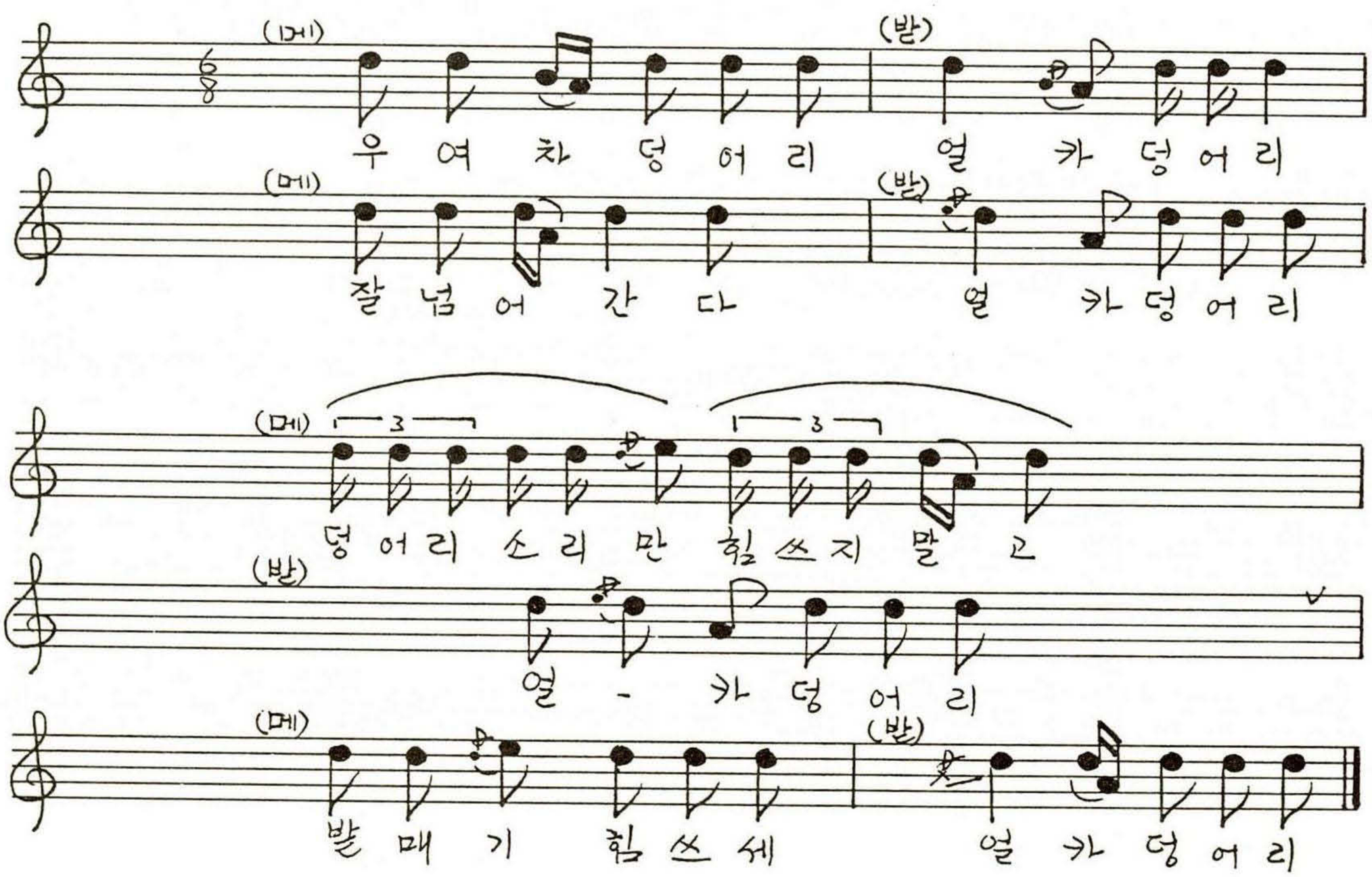
시누아기는 뾰쭉새요
꼬초당초 맵다해도
시집살이가 더 맵더라

〈홍주 172〉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얼 카 덩 어 리

(메)이태훈
(받)김순삼
素. 90-2-2④B

- 밭매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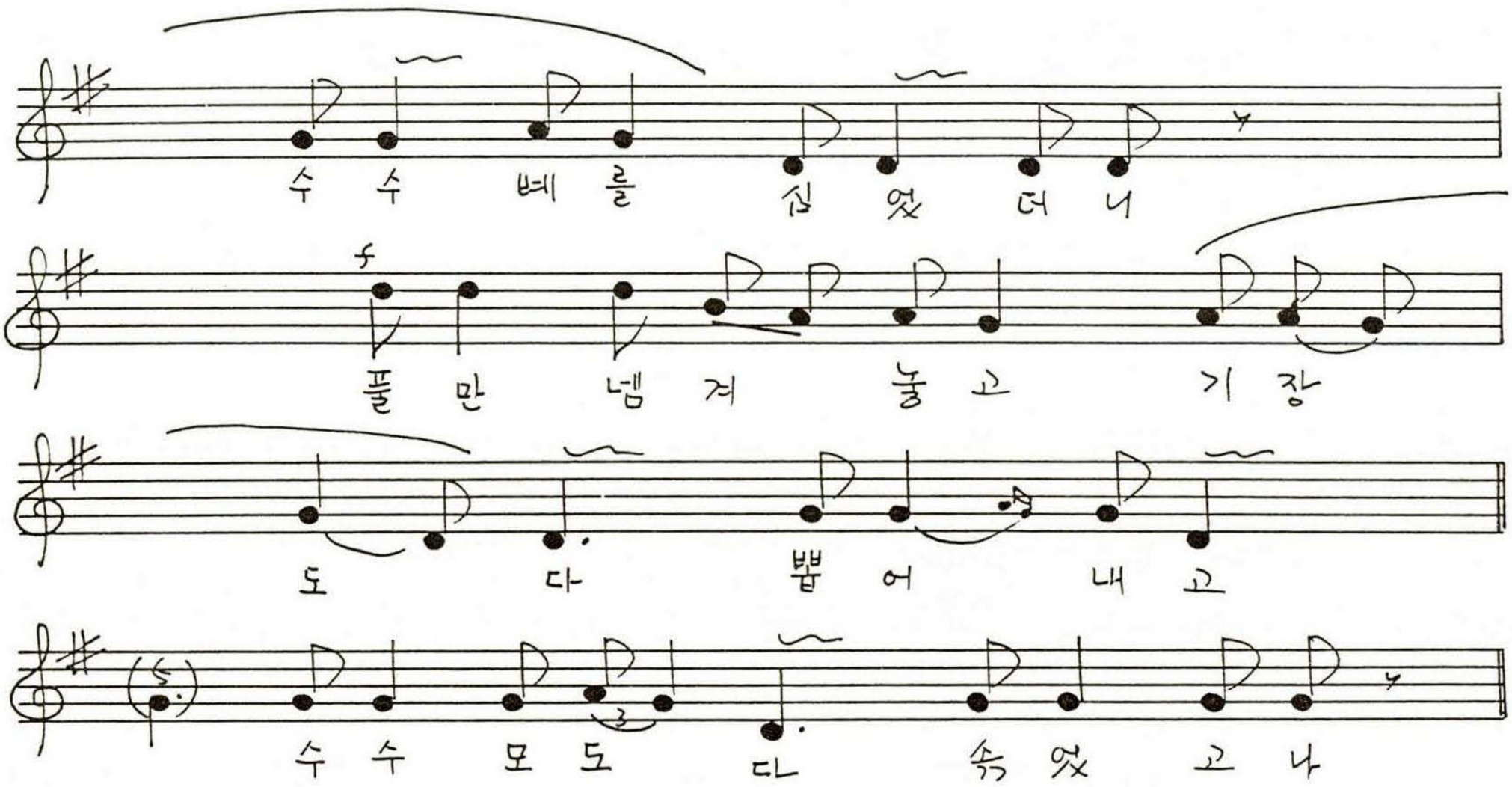


(메) 얼카덩어리 / 우여차 덩어리
잘 넘어간다 / 우여차 덩어리
시엄시엄 하지말고 / 빨리를 매구서
술한잔 먹구 / 쉬어서 해볼까
위여차 덩어리 / 덩어리 덩어리
탁탁 투드려 맵시다 / 위여차 덩어리
잘 넘어간다 / 덩어리 소리만 힘쓰지 말고
밭매기 힘쓰세 / 위여차 덩어리
잘넘어간다 / 덩어리 소리를
잘허고 보면 / 질가는 행인들
젙눈을 파누나 / 우여차 덩어리
잘 넘어간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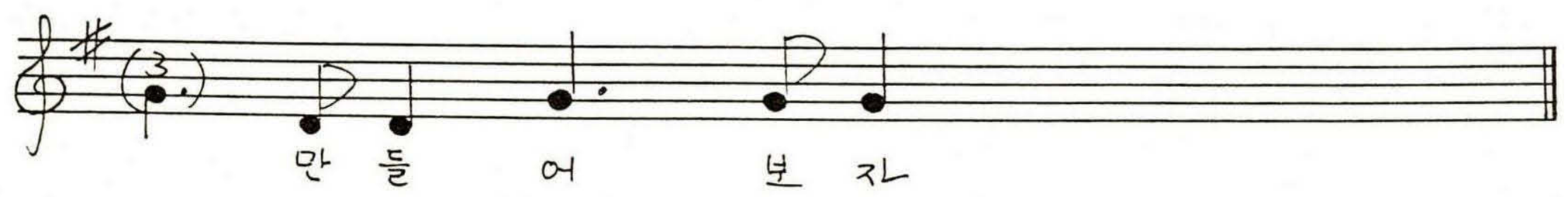
〈홍주 173〉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밭 매 는 노 래** 최정연(89-11-29^{B})

♩. = 50~75

봄 철 에 다- 심 은 곡 석
<식>
가 을 철 에 거 두 - 라 고
풀 을 매 자 개 삼을 잡고다 풀을 매지-
풀 을 매 는 - 디 바 래 기 는 다
열 두 마 디 걸 렸 더 나 -
수 비 덤 은 성 허 고
질 갱 · 이 도 매 고 다
방 동 산 이 거 버 볼 까
다 아 메 느 리 재 메
느 리 풀 을 맬 때 지 장
<기>



방동산이 풀인데 왕골제슴 곡석인줄 알고 메늘이가 다 넨겼고나
메물심어 이파심어 녹두심어 적두 팥에다 대추밤콩 검은밤콩
푸른밤콩 다 심었더니 밭골안에다 메주같이 몸부름 치었고나
기심매자 기심매어 시간가고 바쁘다. 풀은 넨겨놓고 곡석만 다 솎었네
서울아가씨 메느리는 호미자루 웬말이냐 집어치고
대만밖에 나섰고나, 열두고개 넘어가서 밑메느리 받아드렸더니
풀은 잘 매는데 씨앗은 고르시지 못허는고나
메느리 샘형제 불러앉혀놓고 농사짓자허니 못난 밑메느리는 좋아허고
서울에서 얻은 메느리는 대문밖에 눈물만 흘리고,
시아버니 허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농사지어
우리가정 이어갔느냐. 아 서석밭은 서석모는 하나도 없고
방동산이 바래기 풀만 서너가지다 가꿨으니 농사꾼이 아니로다.
너희들이 풀을 맬래 집안에서 질쌈허고 빨래허여다 바느질만 허고
살림살이 알뜰하게 허여 대문밖에 나가지 마라
대문안에 풀을 갖다 오늘부텀 하나둘썩 일러줄테니
일러주면 풀잎이 시들어서 삼잎인 열잎인가 다 풀이름을 몰러서
숯껌방으로 부뚜막에 그려노니 무슨 글이냐
니가 쓴 글은 풀이 아니고 풀잎모양을 그렸구나 -.
그만 저만 농사지을때 일꾼이나 여닐곱 두자. 아니 나는 하님 불러시어 밭을 매고
바깥에는 머슴두어 논일을 허여 우리 풍년가을



〈홍주 174〉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사 촌 성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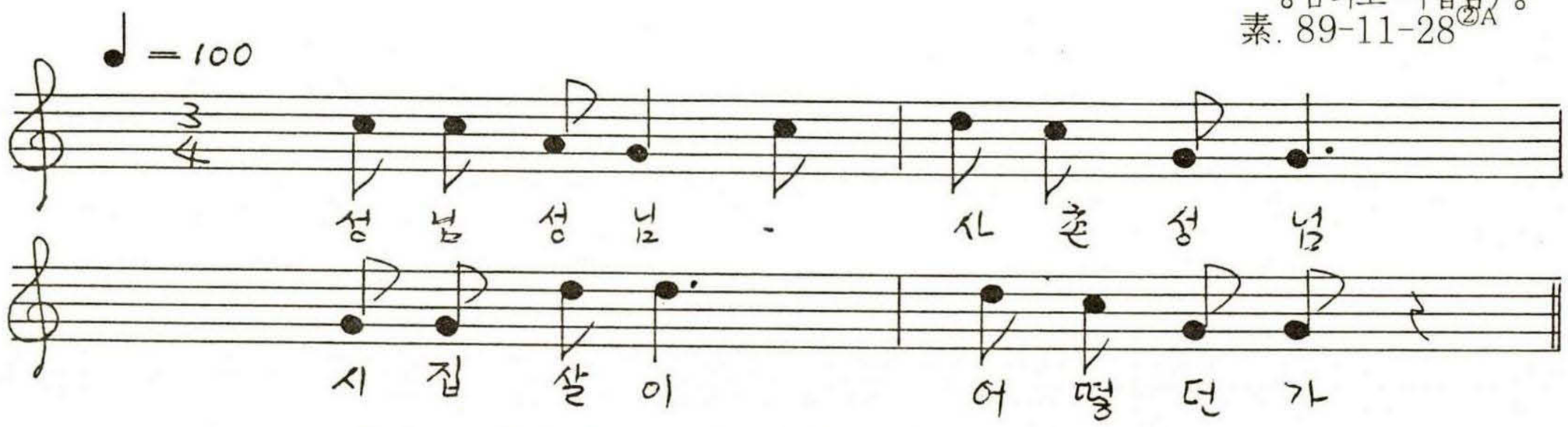
최광배씨 모친(1932. 여.土民)
素. 89-11-28③A

형 님 형 님 사 촌 형 님
시 집 살 이 어 떻 던 가
좋 데 좋 데 나 는 좋 데
요 강 대 와 발 치 놓 고
<야> 잔 버 개 돋 워 비 고
올 려 보 니 소 라 반 자
내 려 보 니 흉 강 단 이 불
펴 트 려 덮 고 창 포 발 에
<펴 · 서>
금 잉 아 놀 듯 굼 실 굼 실 이
아 두 좋 대

〈홍주 175〉 홍성군 은하면 결성면

사 촌 성 님

김정난(1926.여.은하면 출생. 20세에 결성면 성남리로 시집옴)창
素. 89-11-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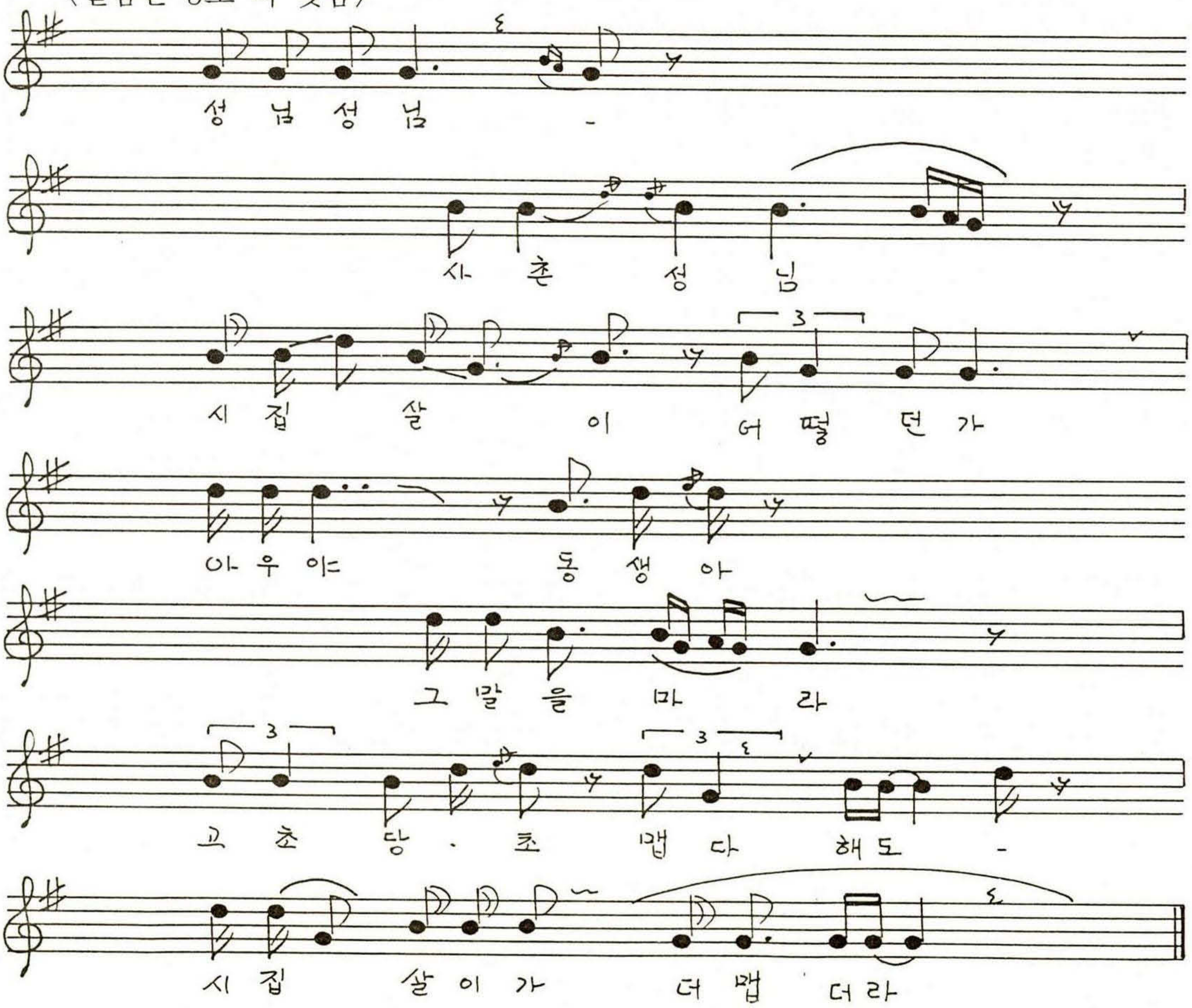
명지 꼬리하나 감기만 하더라
누워서 수수팥단지
먹기뱀이 안되더라

〈홍주 176〉 홍성군 서부면 은하리

사 촌 성 님

손천순(90-2-3ⓘA)

★ 참고用
〈실음은 5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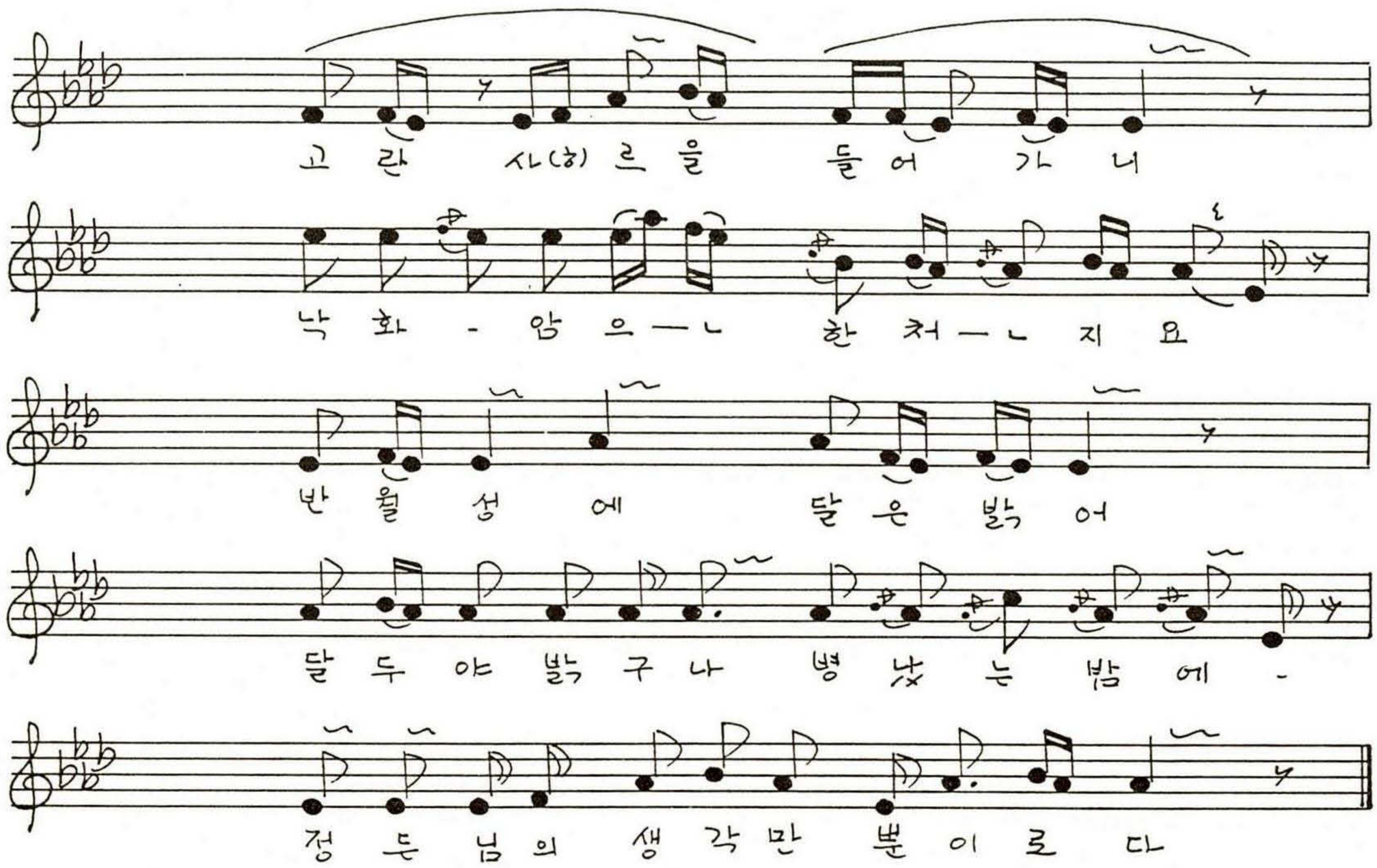
〈홍주177〉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주추캐는 처녀

윤진복(1943.남.홍성읍 출생.8세에 홍원리 이주)
素. 89-11-28[A]

♩.=60~55

2. 황해도 봉산 구월산 밑이 -
<에>
쥐치르을 캐는 저처 - 녀 야
너 호이 집이 어디메 그일래 -
해가 져 (히)도 이니가 나
나 호이 집을 · 아시라 거드 — 느
이산을 넘고 저강을 건너
모란봉 넘고 안개가 모인
초가 삼간이 내집이 오니
따음이 있거든 따러 오소
백마강에 배르-을 굴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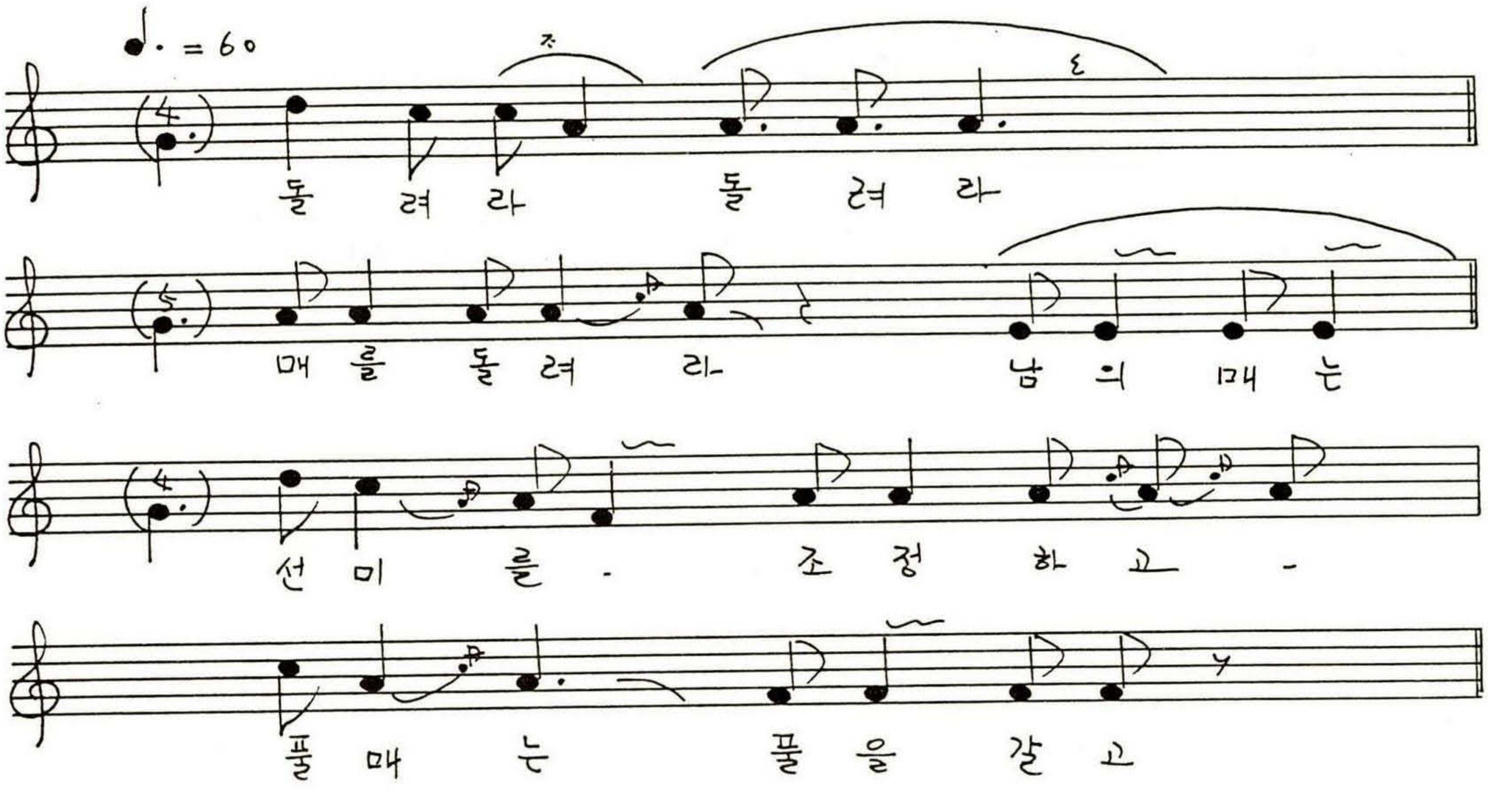


1. 아니 아니 놀지를 못허리라
1945년 팔월 십오일 해방된 날
연락선에 이 몸을 실어
부산 항구를 도착하니
집집마다 태극기 달고
곳곳마다 만세소리
남의집 낭군은 다 오시는데
우리집 낭군은 왜 못오시나하
숙연타는 아기씨였나
이북으로 끌려갔나
뒷동산에 썩은 밤
도토리싹을 틀 때나 오실려나
가마솥에 있는 개가
어멍멍 짓어야 오실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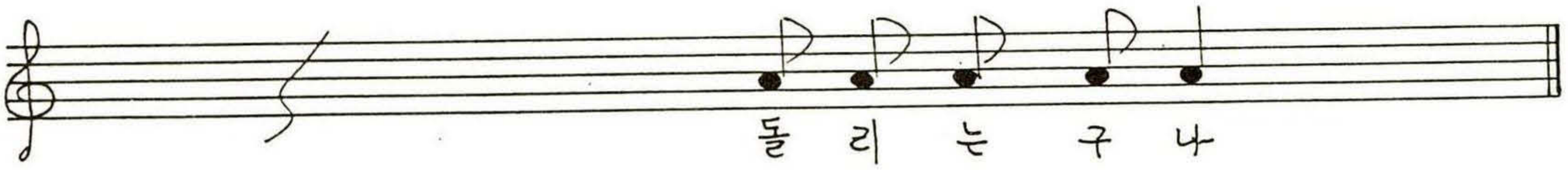
3. 임아 임아 정든 임아
요내신세 죽거들랑
다른 손길을 대질말고
정든임 손길에 달려들어
육십리 광풍을 꼭꼭 묶어
칠성당으로 안내하소
옻나무 장광채 북나무 염주로
요리조리 빗질러 놓고
열두 군사를 불러놓고
주학으로만 물을 주소
황천의 길이 멀다더니만
대문 밖이가 웬말이냐

〈홍주 178〉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맷 돌 노 래** 최정연(89-11-29^{B})

〈실음은 4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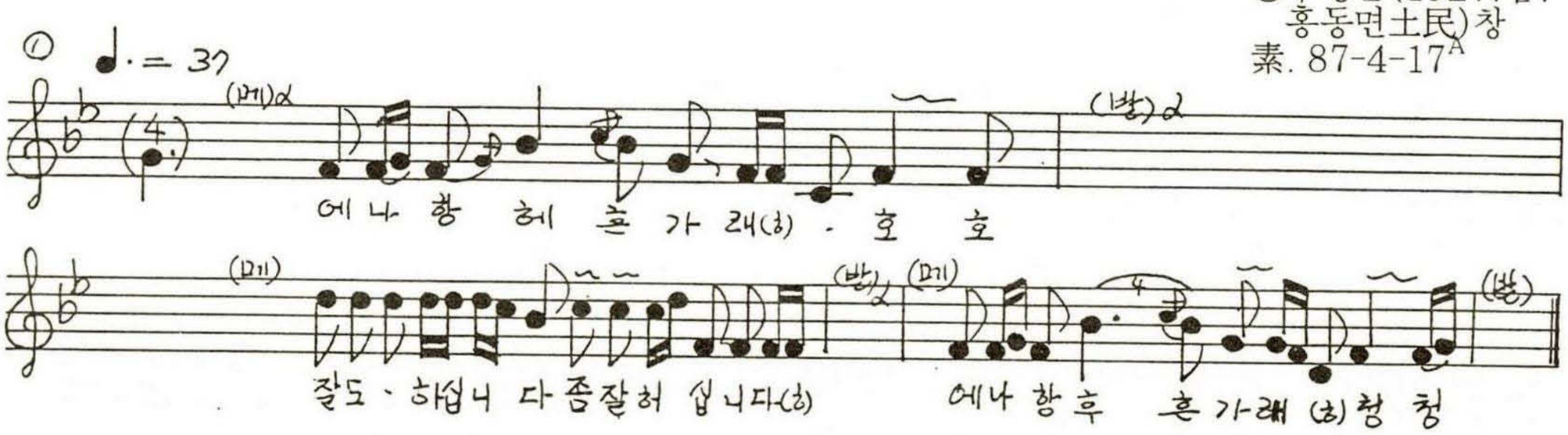
다 중매 큰매 슬슬 돌려라, 호밀갈어 일꾼 수제비다 양반둘러다
매물갈어다 시아버님 매물국수 만들고 메느리 고부찌리 밀갈어서
수제비 맨들어 주고 칼국수로 만들까 가락으로 지어서 맨들으까
천품녹두 갈어 녹두묵 쑤고 메물갈어 메물묵 쓸쓸 갈어서 두부콩을
갈어 볼까. 섣달 그믐 해는 짧고 맷돌은 돌리기 바쁘다
앞으로 돌고 뒤로 도느냐. 슬슬슬슬 맷돌 돌려
시아버니 불러보니 다 너털이 웃음소리 시어머니 불러보니
한숨소리 천둥같고 말소리 비상같어 메느리 건방지다
시아버니 앞에 엉뎅이 춤추며 맷돌 돌릴때 나무매를 돌리느냐
돌매를 돌리느냐, 비단풀 쑤랴고 풀매를 앉어서 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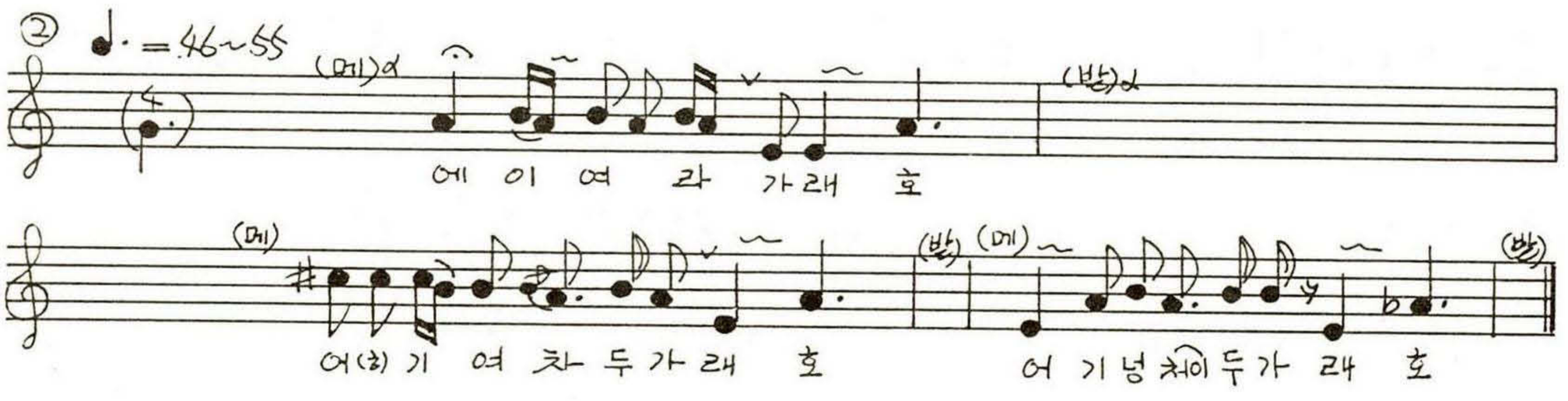
〈홍주 179〉 홍성군

가 래 질

①박원제(1919.남. 서부면土民)창
素. 87-3-30③A
②주정순(1927.남. 홍동면土民)창
素. 87-4-17A



(메) 우리역군들 좀잘하십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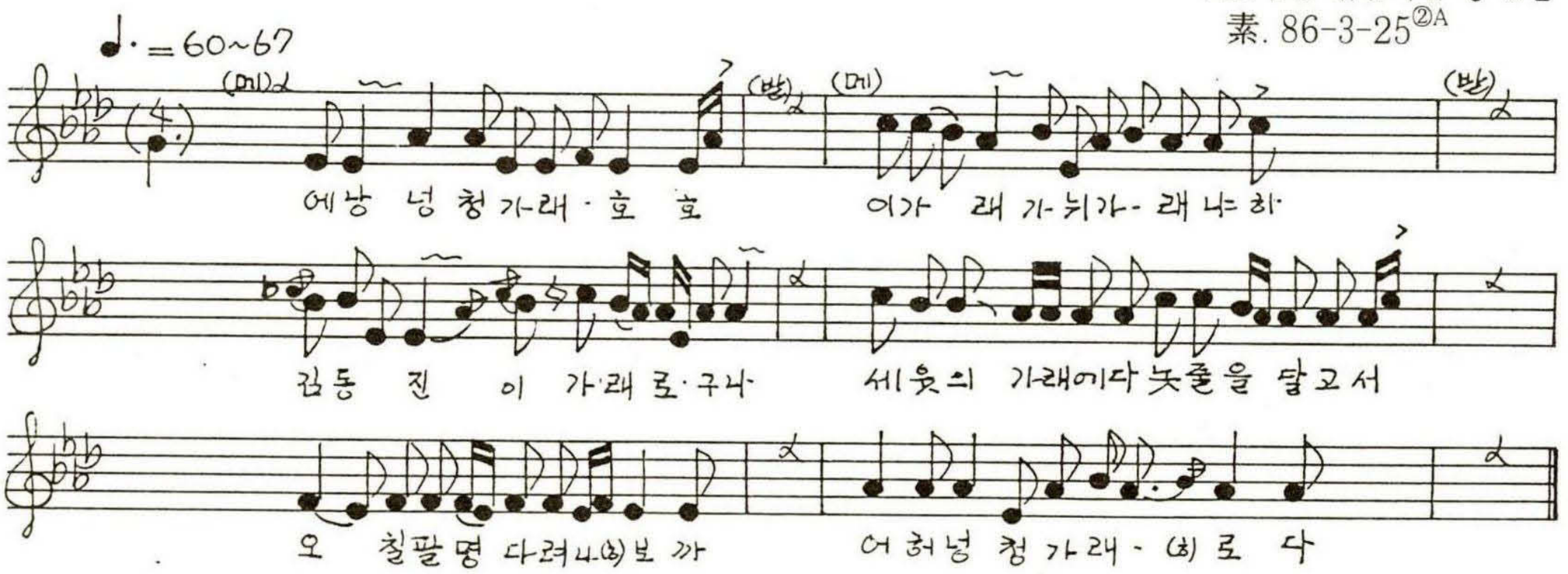


(메) 한통 찍어서 잘두루 던진다 / 어기넝청두 가래호 / 여기저기 잘들빠서 /
잘두넘기면 재미가 난다 / 에어리소리 잘만허면 /
길가던 행인도 걸음을 멈추리 / 어기넝청두 가래호 /

〈홍주 180〉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가 래 질 소 리

(메)김용세(1928.남. 土民)
(받)김용세,김기한 등 6인
素. 86-3-25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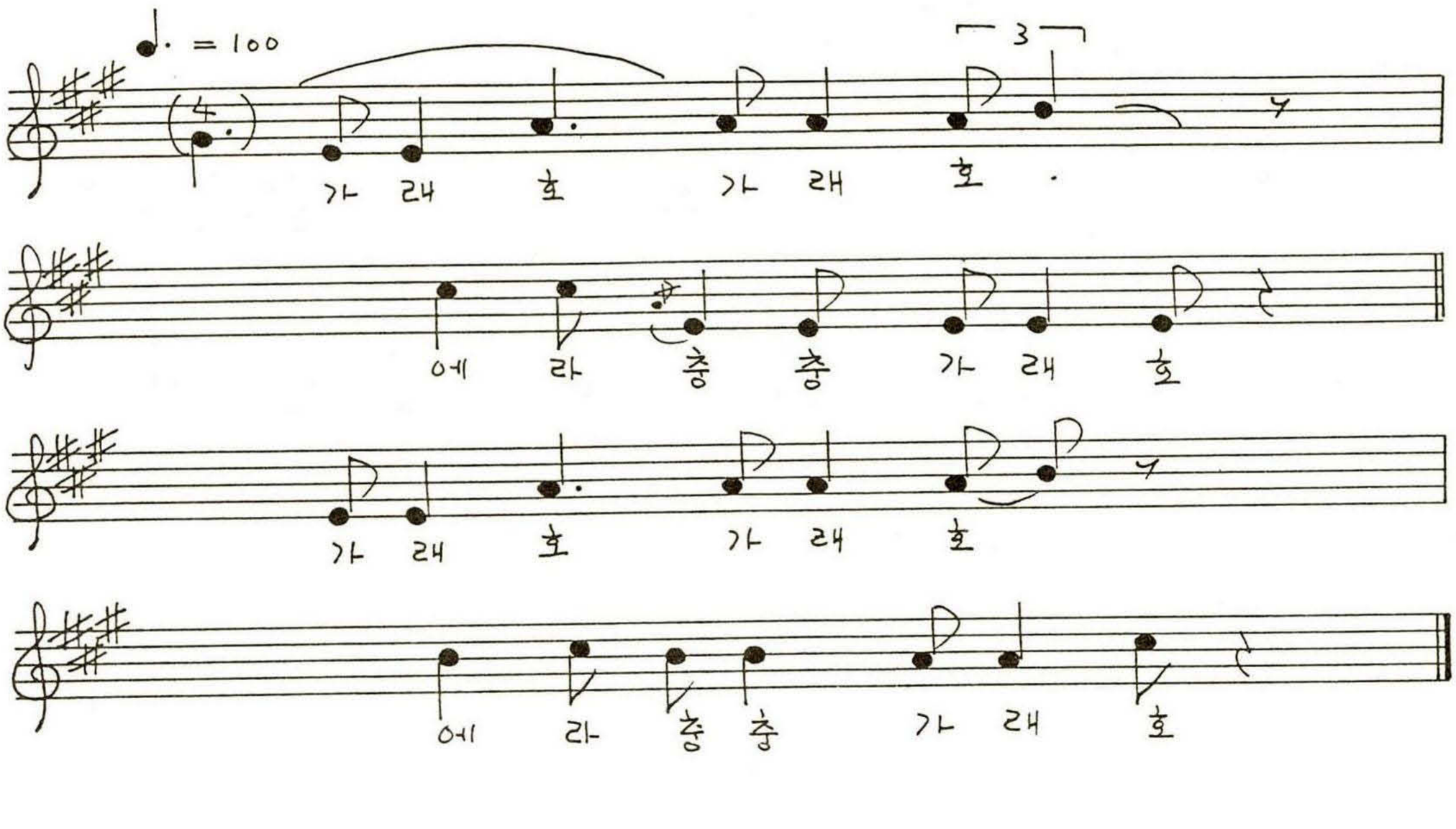


(메)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 하나만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
후첸강산엔 호걸이 놀고 / 황노천지에 용이나 우네 / 어랑청가래호 /
-끝엔 말투로 "어 놓고- 한잔먹고" 하며 마쳤음.-

〈홍주 181〉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드 렁 가 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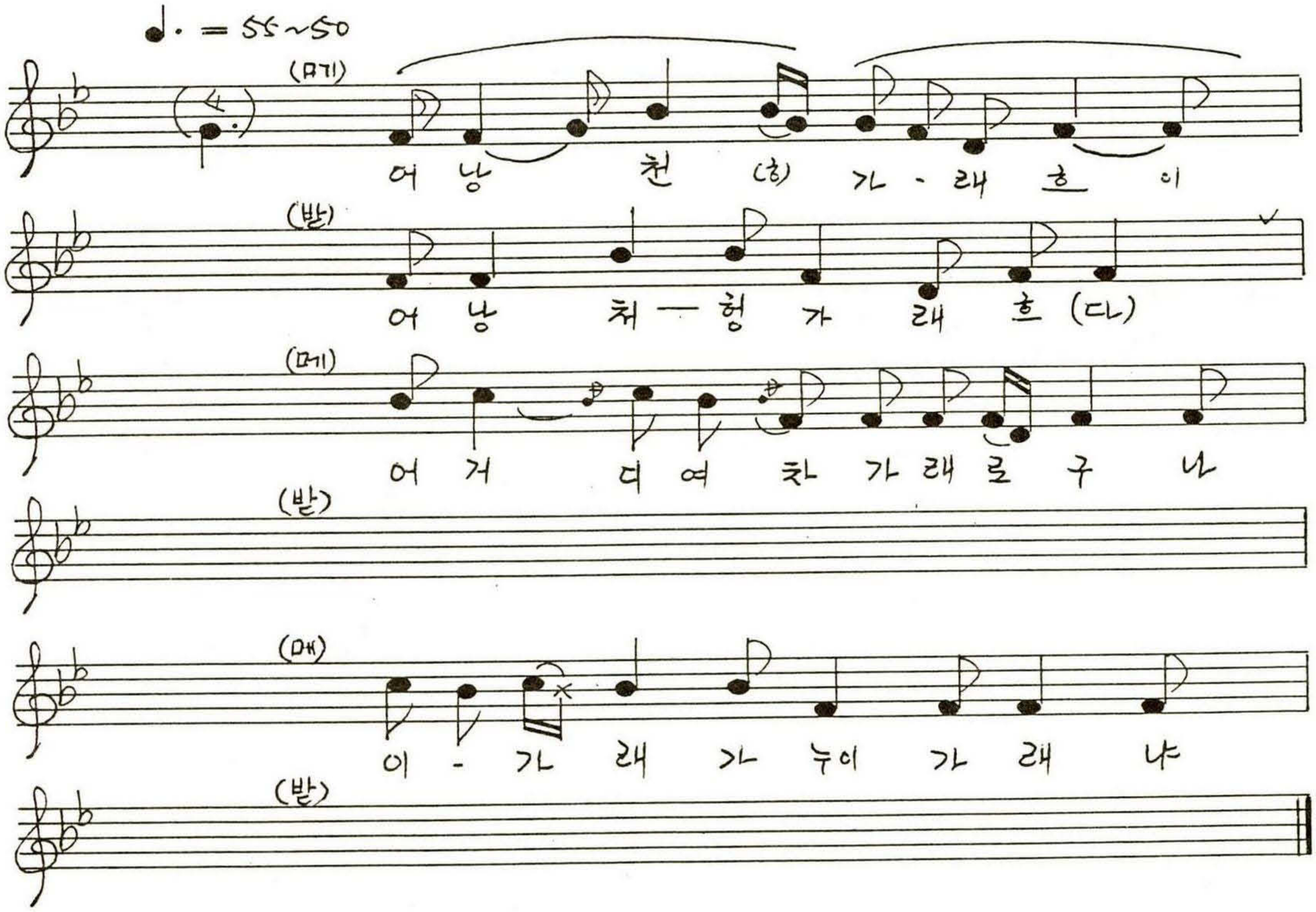
조용택(1917 남.土民)
素. 90-2-3 ⑤B



〈홍주 182〉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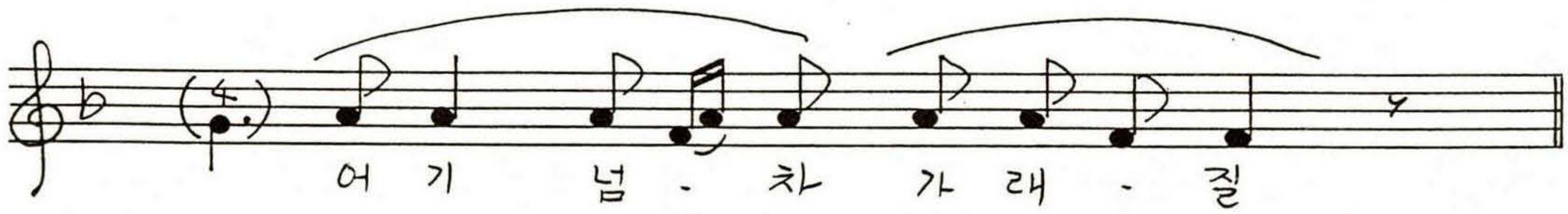
가 래 소 리

(메)최용근
(받)최용환
素. 89-11-28 ②B



(메) 김동지네 가래로구나
이팔청춘 소년(드을)아
백발보고서 희롱을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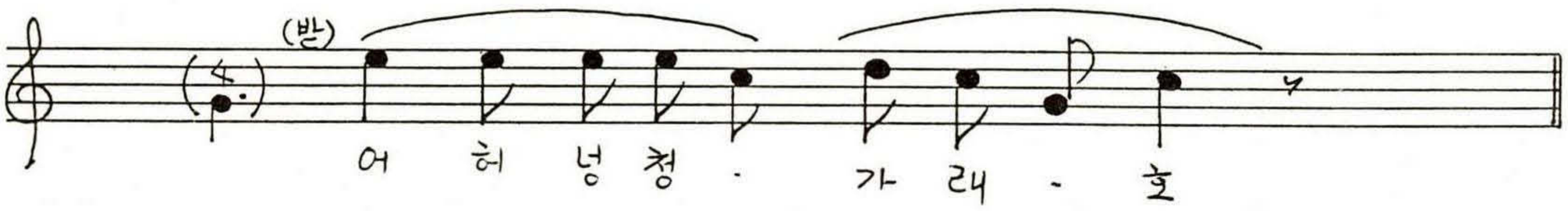
〈홍주 183〉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가 래 질** 김윤환(1920.남.土民)창 素, 94-2-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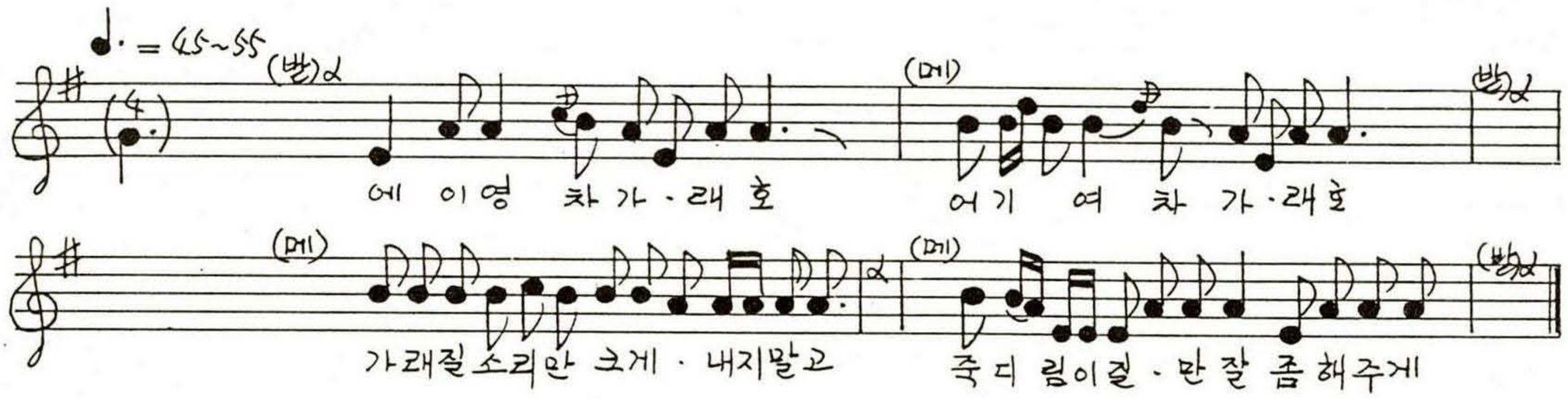
○ 에 헤야 가래질

〈홍주 184〉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두 렁 가 래 질** 공철영(94-2-27[①B])

★ 참고用



〈홍주 185〉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가 래 질** 윤종필(1900.남.土民)창 素. 87-4-1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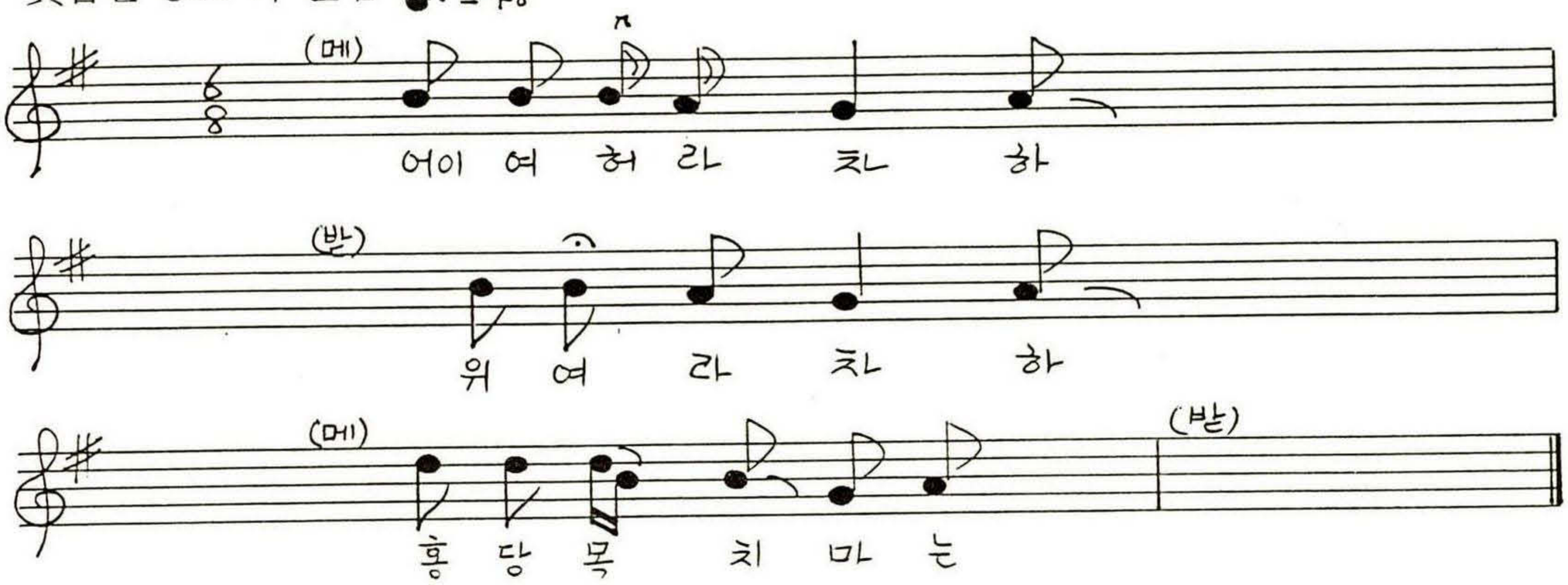
(메) 오늘날은 여기서 허고 / 내일날은 다 어디가 하나 /

〈홍주 186〉 홍성군 결성면 **터 다 짐**

(메)최양섭
(받)결성농요단원
素. 94-2-27ⓑ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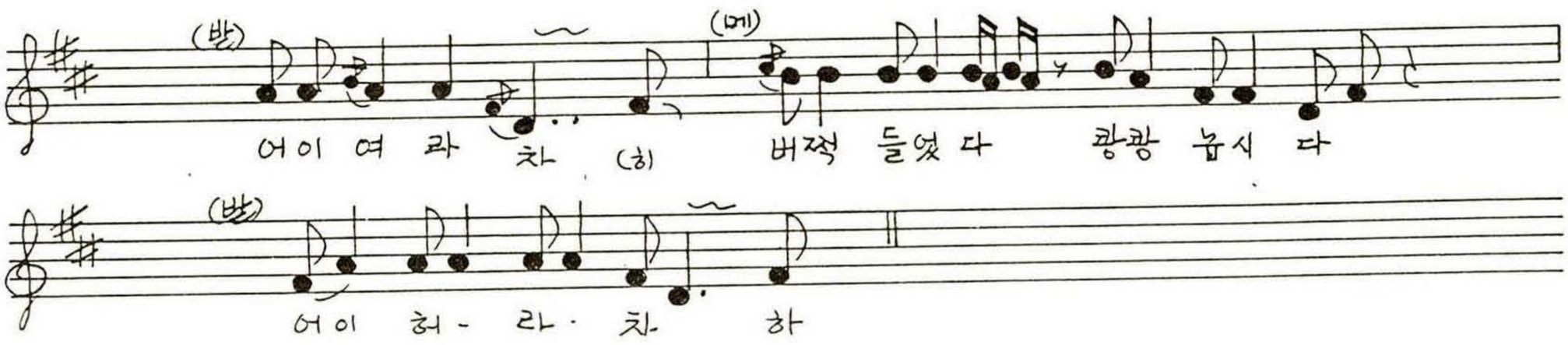
實音은 3도 더 높음 ♩. = 48



(메) • 붉어야 좋고
• 패랑저 단속곳
• 넓어야 좋다네
• 니가 잘나서
• 일삭이냐 〈색〉
• 내 눈이 어둬서
• 한장이 된다 〈됐다〉
• 일락 서산에
• 해는 다지고
• 월출 동녁에
• 저달이 솟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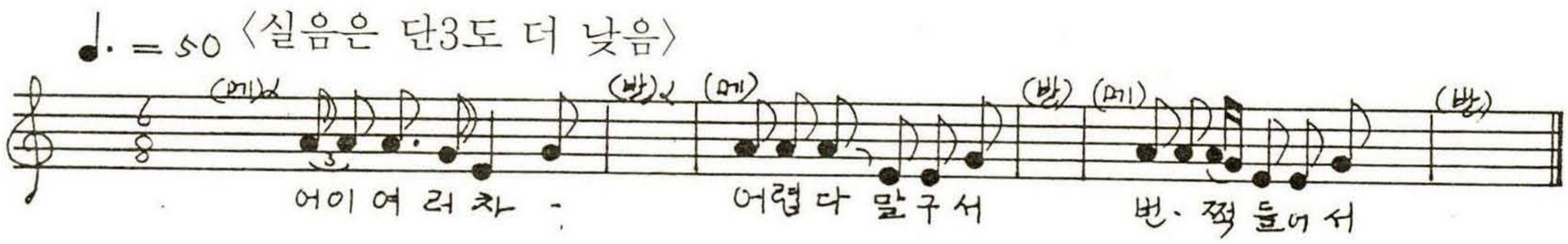
〈홍주 187〉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매산 **지 경 닦 이** (말 박는 노래 혹은 집터)

서귀봉(1922.남.土民)창
素. 87-4-17ⓑ



〈홍주 188〉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지 경 닺 이**

(메)우준(1940.남.土民)
(받)윤청영(1942.남.土民)
素. 87-3-30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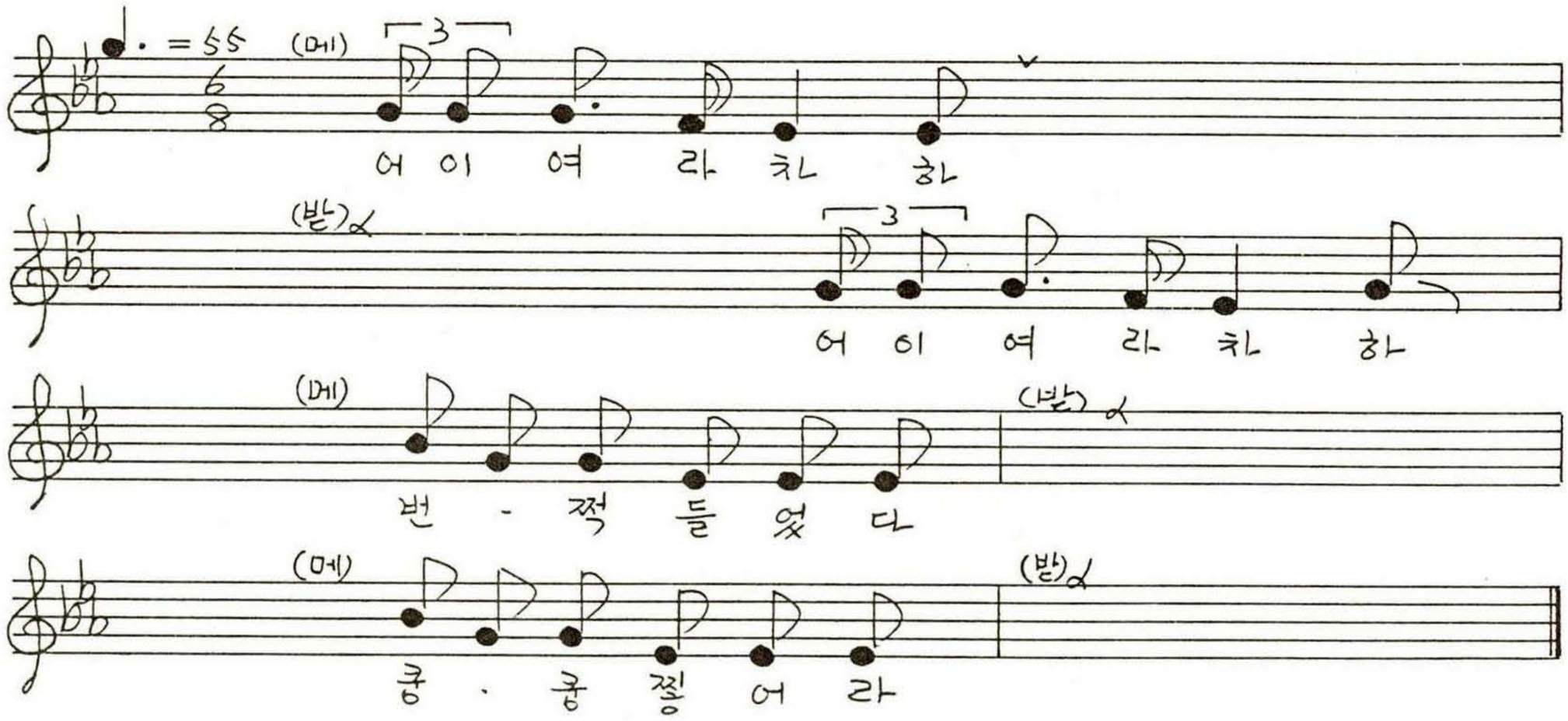


(메) 쾅쾅 놔-라 / 선줄을 당겨서 / 죽죽 나가라 //

〈홍주 189〉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터 다 짐(차)**

최용근 창
素. 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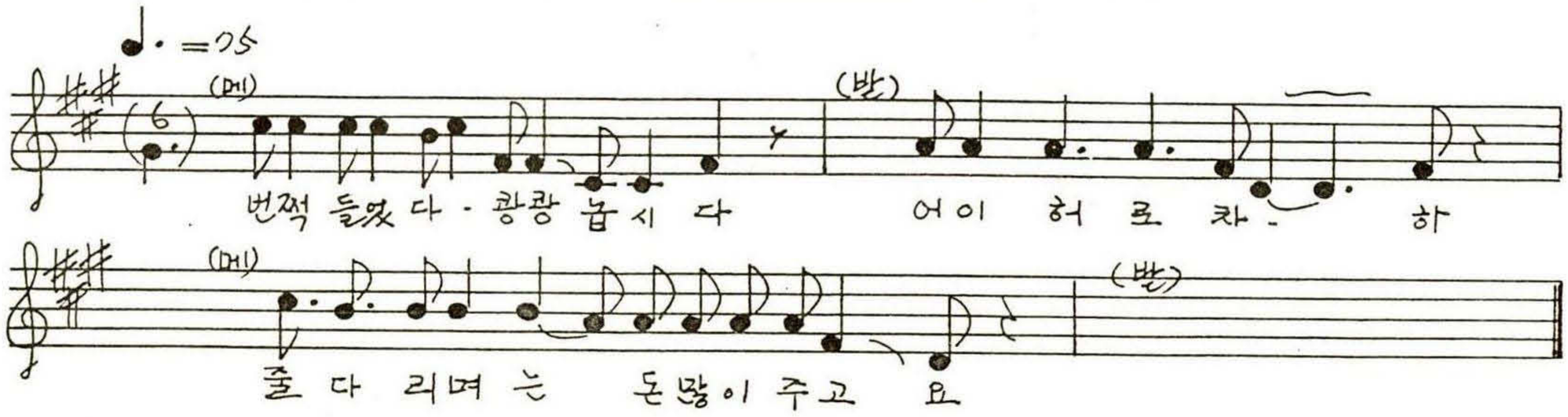
★ 참고用



(메) 노세 노세 / 젊어만 놉시다 /
쿵쿵 찧면서 / 노래를 합시다 /
번쩍 들어서 / 쿵쿵 찧읍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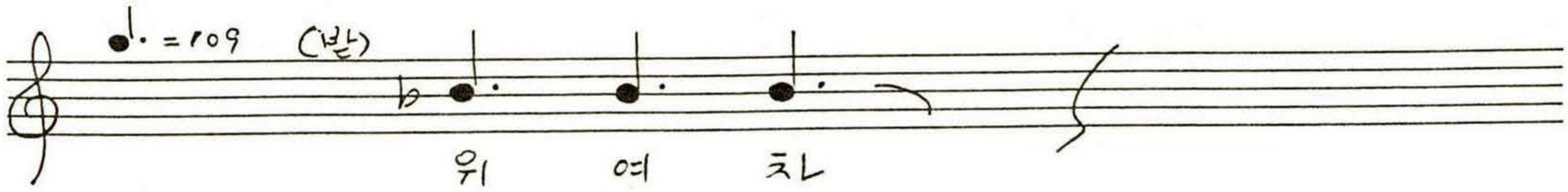
〈홍주 190〉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매산 **지 경 닺 이**

서귀봉(1922.남.土民)창
素. 87-4-17B



〈홍주 191〉 홍성군 장곡면 월계2구 **터 다 짐** 최주복(94-2-27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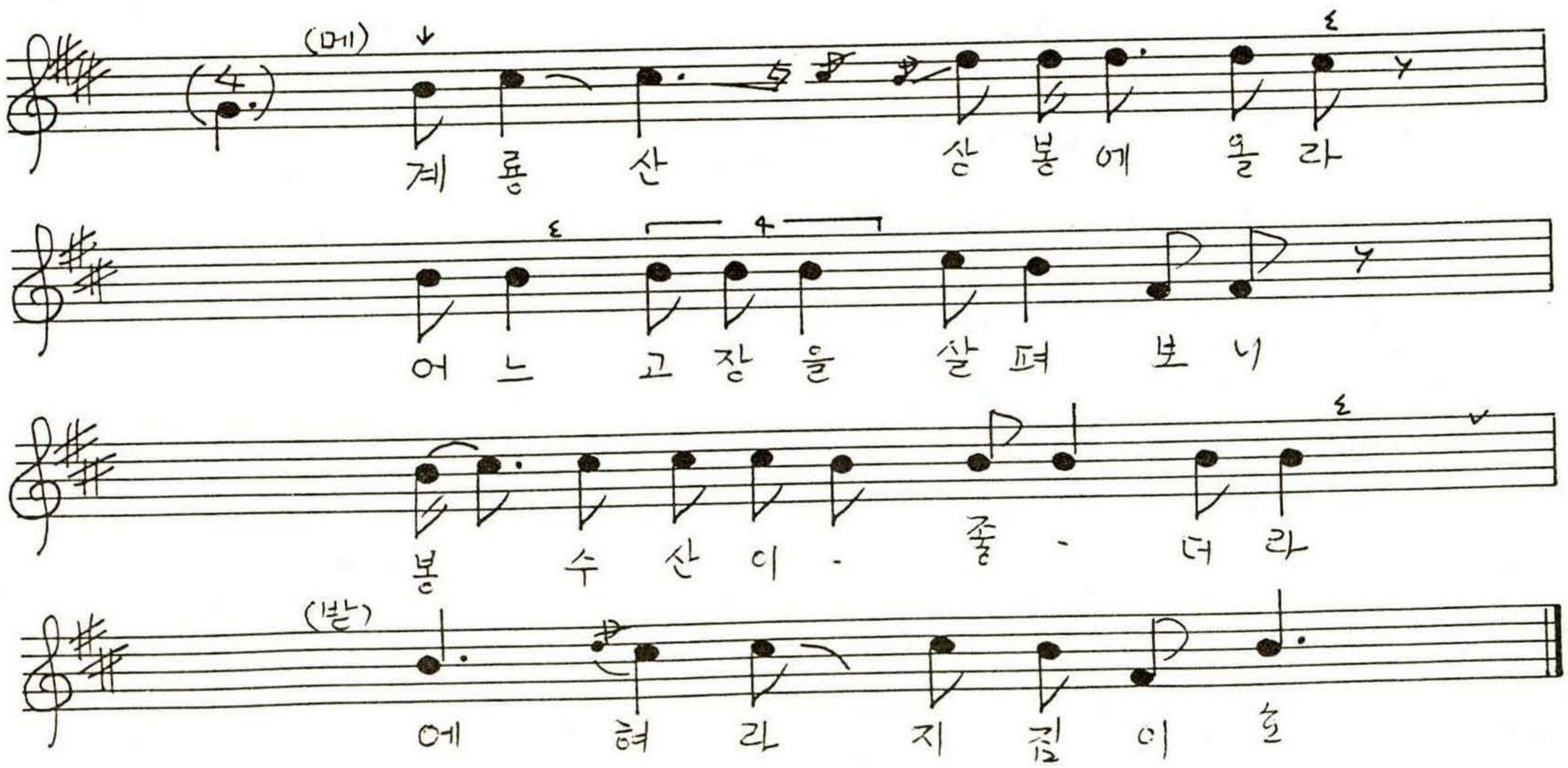
★ 참고用



〈홍주 192〉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봉서리 **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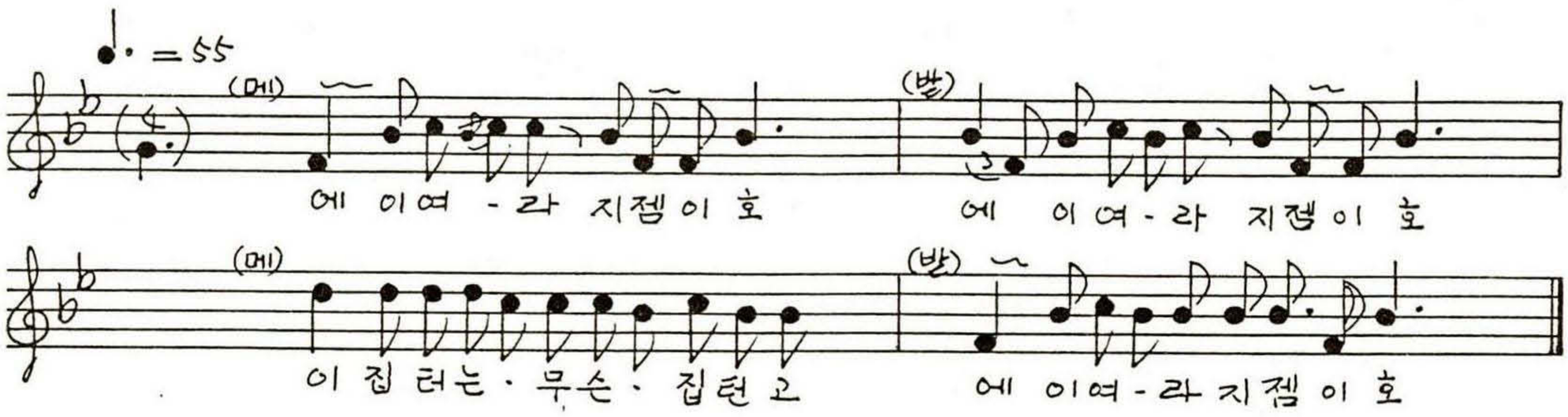
(메)최병현(1921.남. 월암土民)
(받)박종서(1926.남. 봉서土民)
素. 94-3-12A

(메) ○ 이 터를 세울적에 어느 명산을 빌어다가
이 터를 점지하였던가
○ 곤륜산 명기로서 백두산으 건너와서
허전터전으 상승터드로 들어왔네
○ 인왕산이 주산이요, 왕십리는 청룡이요
북악산은 백호로다
○ 안산은 남산이요, 한강을 둘렀으니
오백년 도읍지지가 분명ㅎ더라
○ 인왕산이가 돌아올제 경기도에서 충청도루 썩 건넜다
○ 그 산 명기가 어드로 갔나, 충청북도에 속리산으로
건너와서 계룡산으로 건너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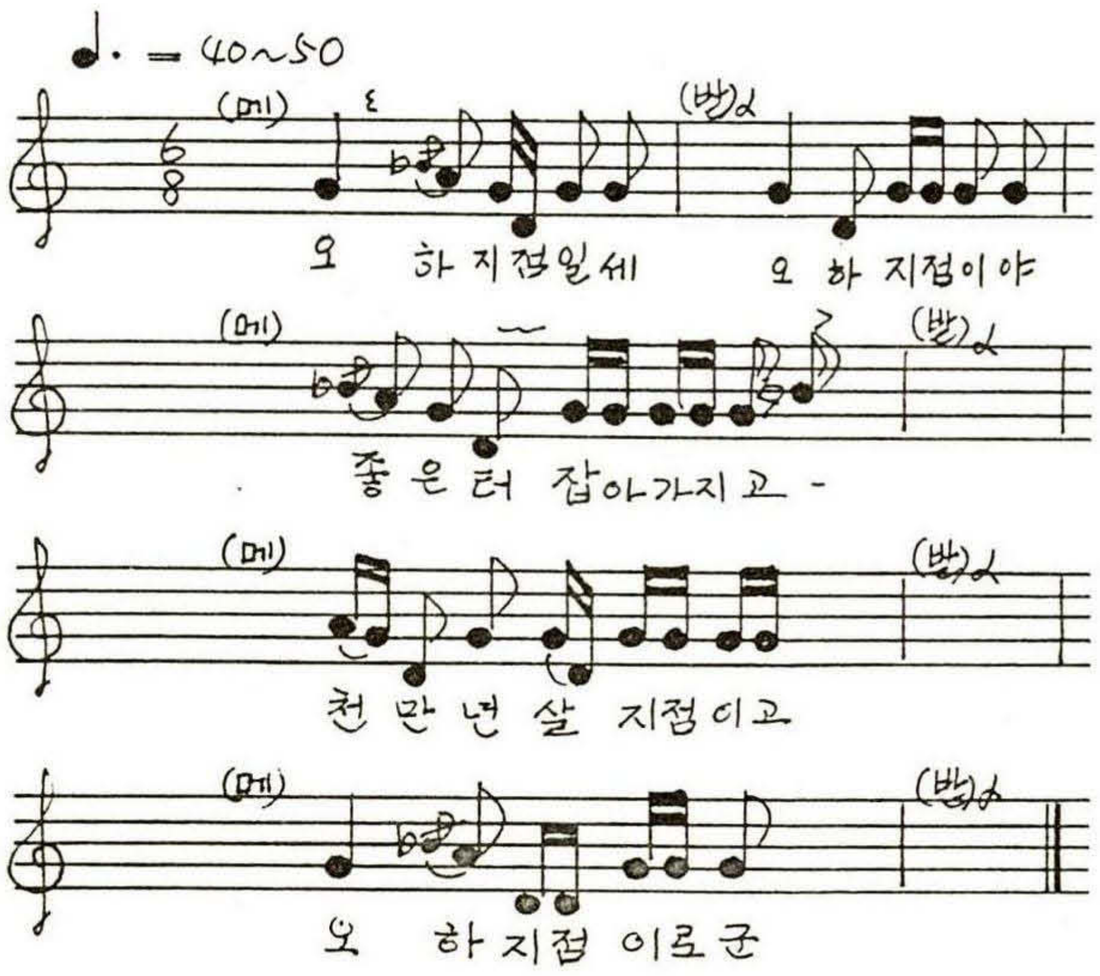
(메) ○ 봉수산에, 임존성 안에 설쭉 앉어
사두 팔방을 살펴보니
〈면〉
○ 이쪽으로 들어서 봉수산이 슬쩍 건너서
광원루 언저로 건너섰네
○ 이 노인정이 유명허게 노인이 이렇게 많이 모여
건강 복지를 기원합니다.

〈홍주 193〉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운곡 **지 경 닷 이** 주정순(1927.남.土民)창 素. 87-4-17[A]



(메) 오수산 뭉칭이 뭉치뭉치 / 여기와서 뚝떨어져서 /
천하명당이 여기로다 / 여기두 저기두 쾅쾅 굴러 /
잘두 다진다 지점이호 /
이집짓고 잘 살면은 / 부귀영화를 누리로다 //

〈홍주 194〉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지 경 닷 이** (메)김용세(1928.남.土民) (받)조인해 기타 4人 素. 86-3-25[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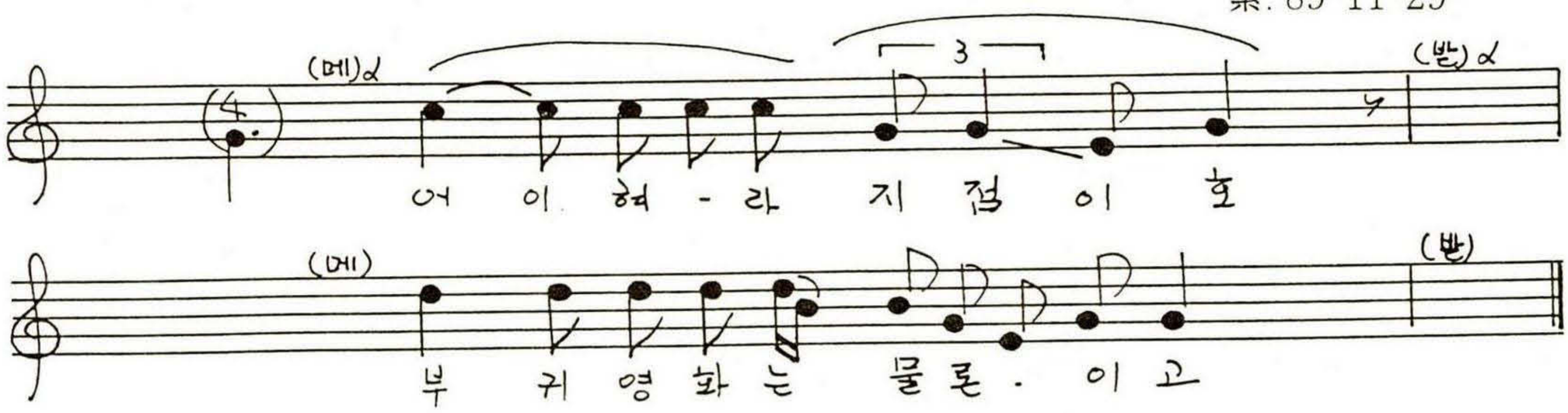


(메) 큰돌은 매여서 /
동아줄로 묶어서 /
단단하게 다지는 지점 /
이 집 지어 가지고 /
아들 딸 잘 낳서 /
우리 늙은이들
보국민 향년 터 /
어하 지점 //

〈홍주 195〉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예산군 삽교읍 **터 다 짐**

(메)윤봉성
(받)임성구(1923.남. 장곡면 출생.25세에 대동리 이주)
素. 89-11-29②A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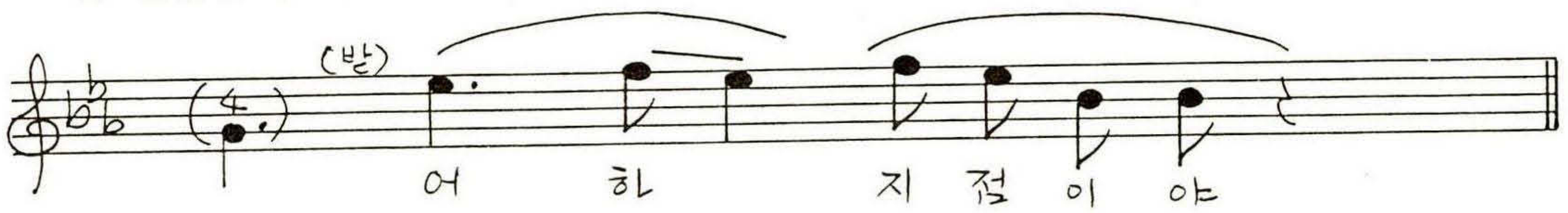


(메) ○ 이 집터다 집을 지며는

〈홍주 196〉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터 다 짐**

김창영(94-2-28B)

★ 선율은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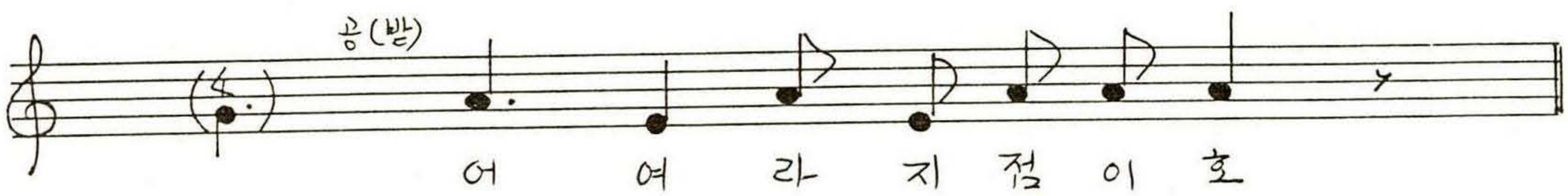


(메) ○ 이 지점 다져서 이 터에다 집 지으면
효자충신 열녀가 나고
○ 개를 멕이면 삼살개 되고
소를 멕이면 억대황소가 (된다)

〈홍주 197〉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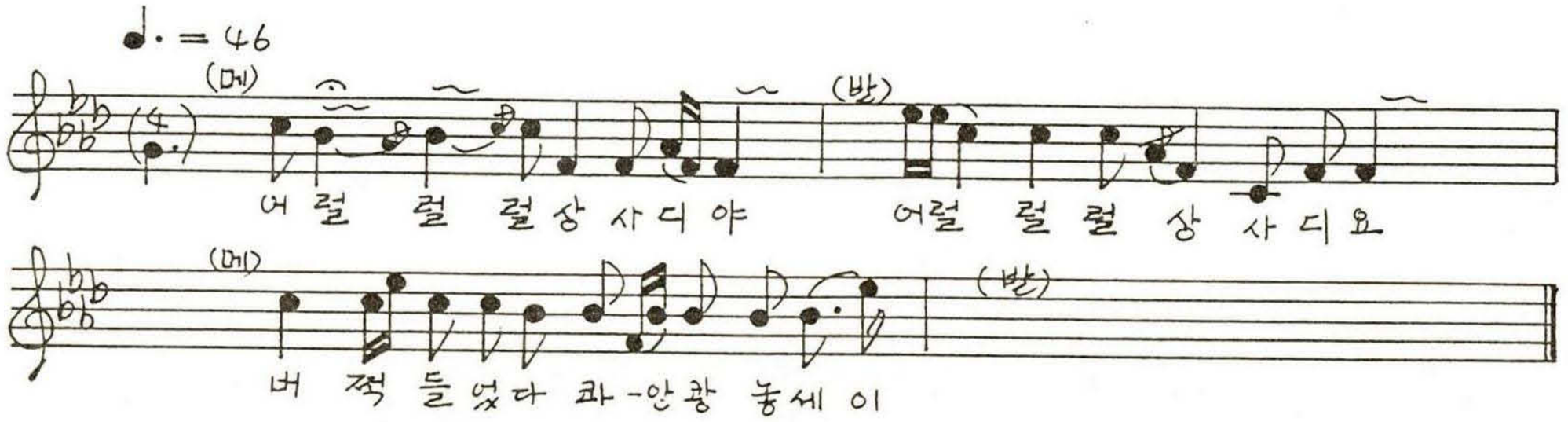
(메)공철영
(받)윤민식 · 고복근 · 공철영
素. 94-2-27①B

★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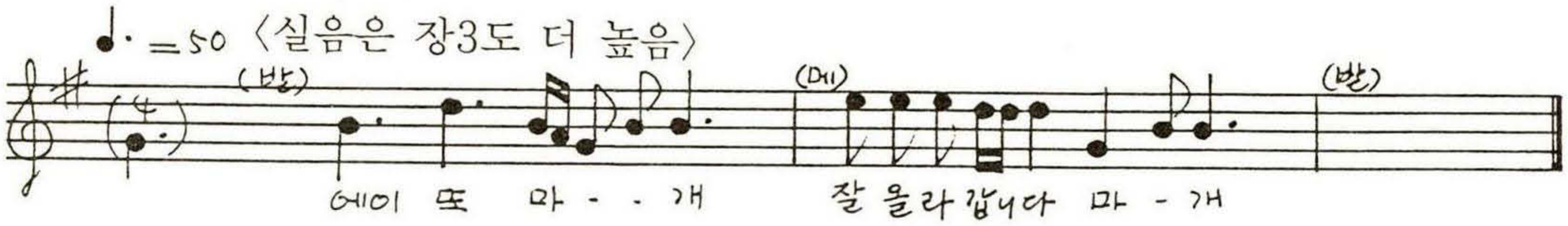
(메) ○ 이 터를 닦어 부자를 내고
○ 아들을 낳면 장군을 낳고
○ 딸을 낳면 열녀를 낳요
○ 어허라 지점이호
○ 여기 저기를 둘러봐도
○ 여기가 제일 명당

〈홍주 198〉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여술 **지 경 닦 이** (메)김제면(1924.남.土民) (받)맹덕호(1936.남.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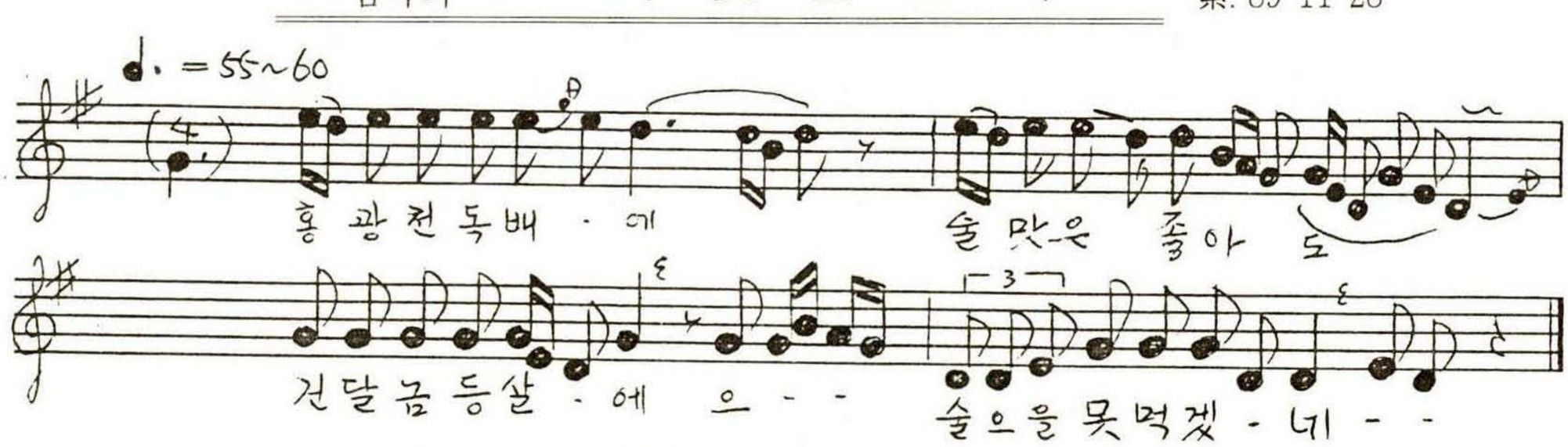
(메) 저기 저기 저산 밑에 / 월출동녘이 솟아서 오구요 /
이 터를 집을 지켜 / 자손만대를 살으를 갈제 /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 어럴럴러 상사디야 /
이기 저기를 잘 다릴세 / 상기둥에 많이 찧고 /
모두 모두나 잘 찧어주면 / 어럴럴럴 상사디야 /
여보시오 여러분네 / 버쩍 버쩍 들었다 놓고 /
우리 한잔을 먹으나 볼까 / 놓고- //

〈홍주 199〉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말 박 는 소 리** 오정산(1921.남)창 素. 87-3-30②B



(메) 길이가는 저 처녀봐라 / 가다 말고서 여기난 못가네 /
싱앗대를 잘 쳐다보고 / 힘차서 달겨서 돌립시다 /
노자노자 젊어서노자 / 늙어지며는 못 노리로다 /
에이 또 마개//

〈홍주 200〉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나 뭇 군 소 리** 최광순(1921.남.土民)창 素. 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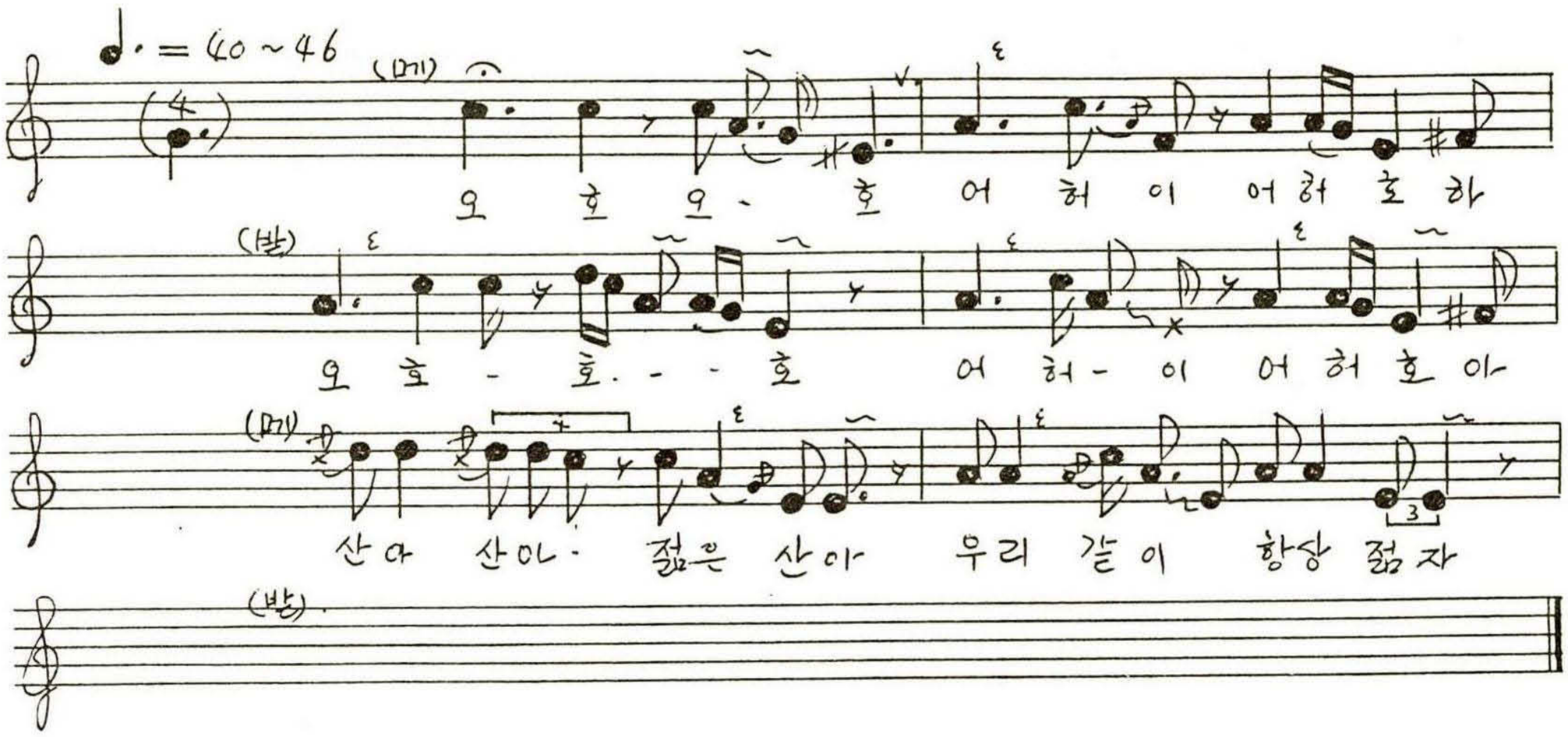


○ 어설난봉이 술맛은 좋(아도) 돌쟁이 안주라 술맛이 없구나

〈홍주 201〉 홍성군 은마면 장척리 장자울

나무내리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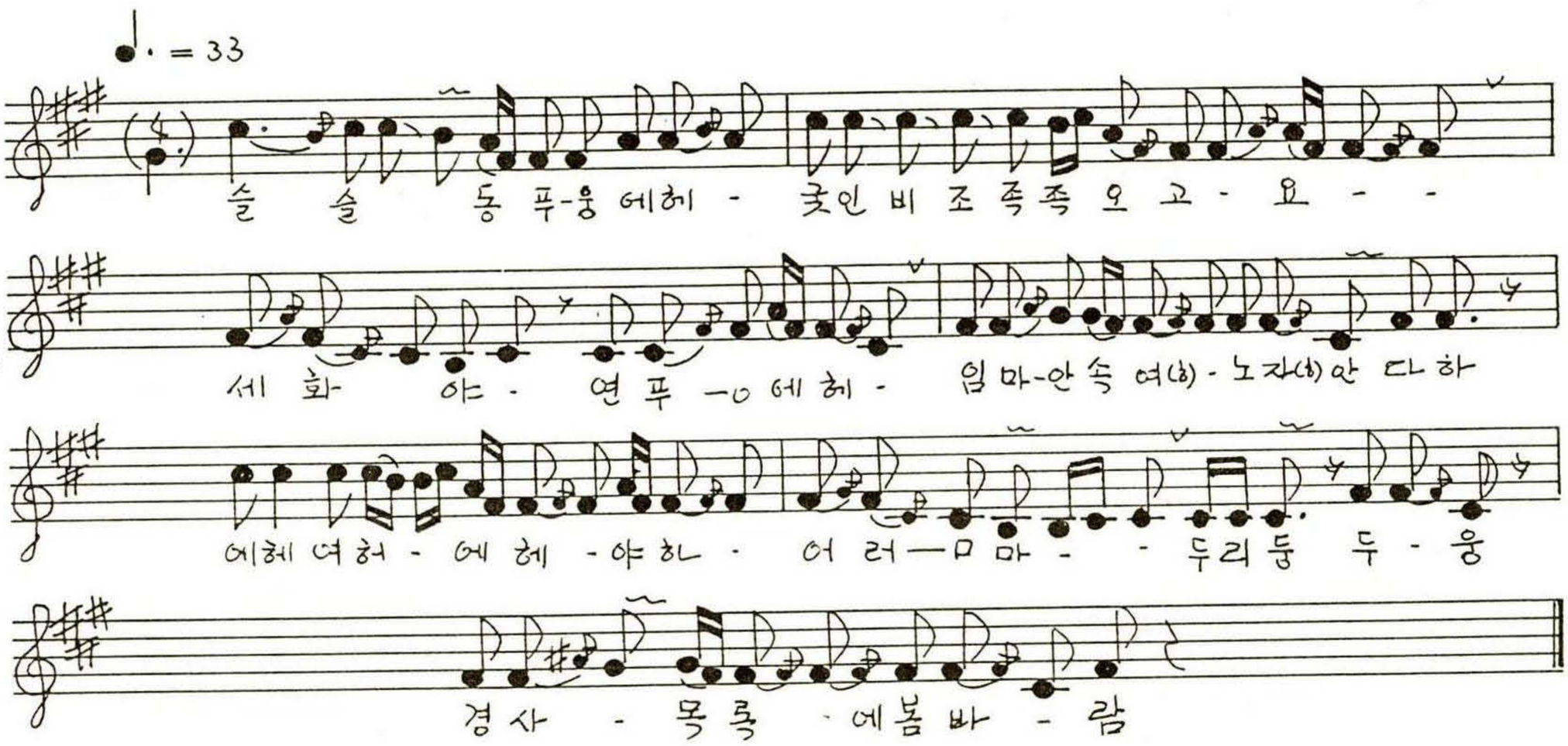
배신희(1916.남.土民)창
素. 90-2-1[①A]



〈홍주 202〉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나뭇군 소리(동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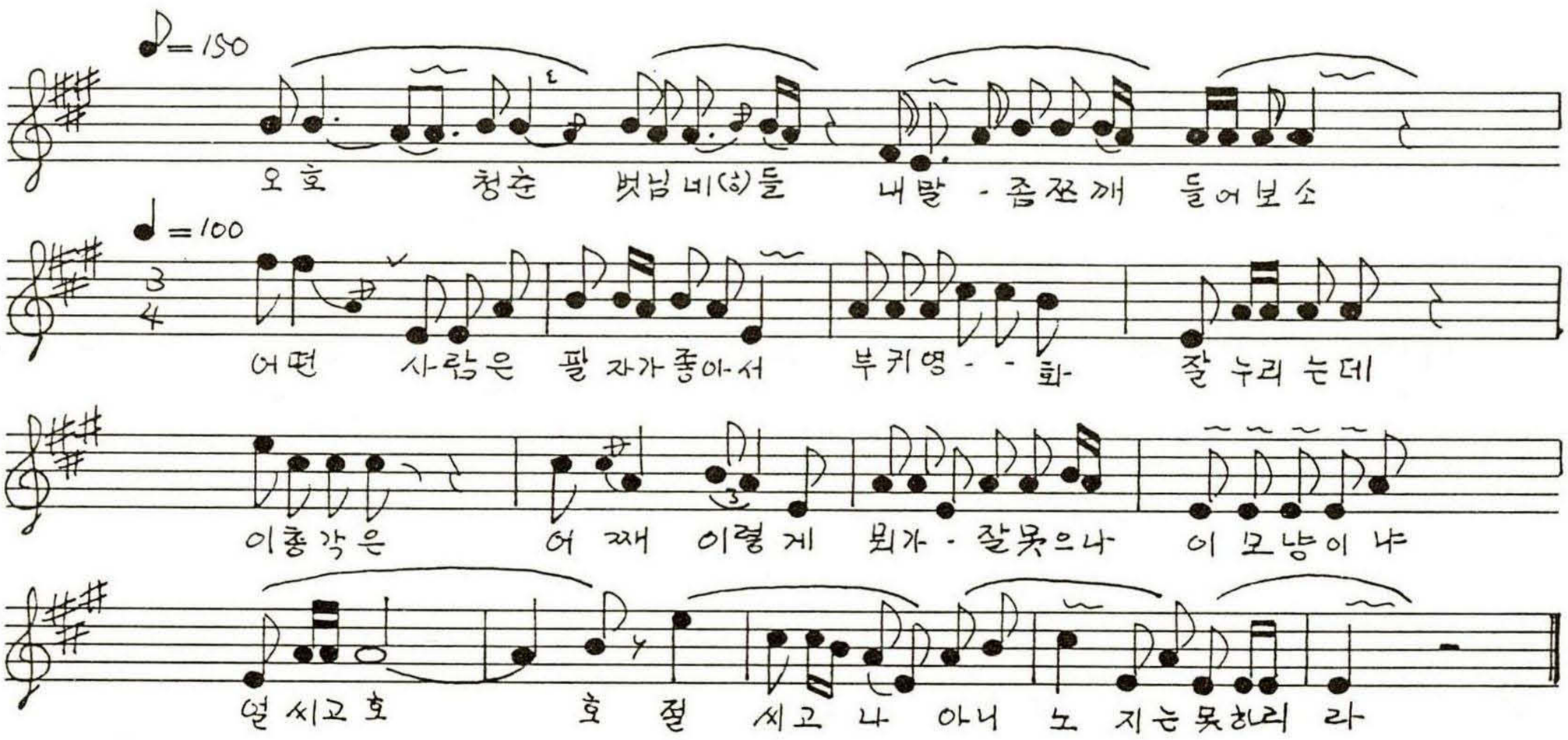
윤종필(1900.남.土民)창
素. 87-4-17[B]



〈홍주 203〉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나 뭇 군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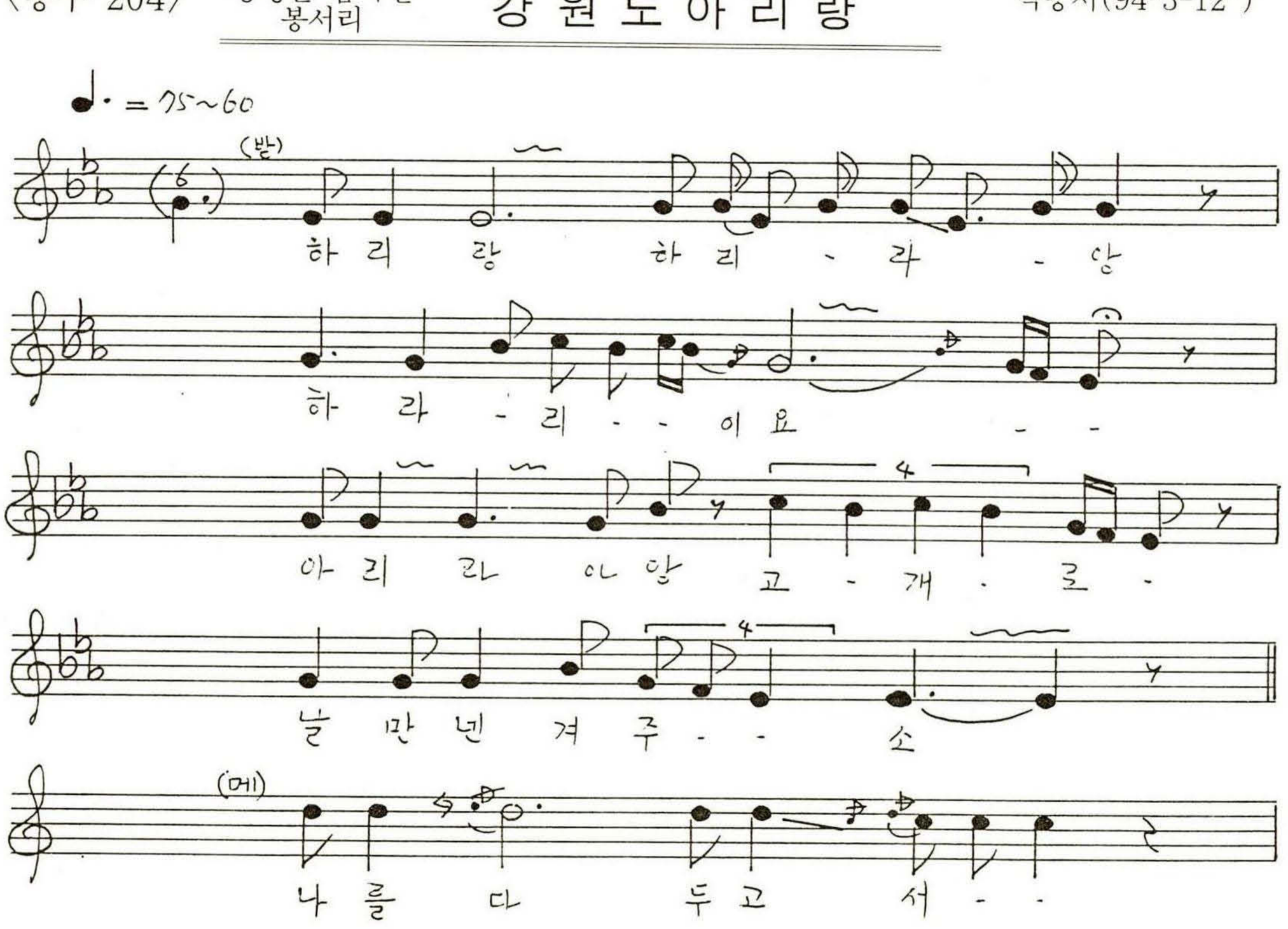
김용세(1928.남.土民)창
素. 86-3-26Ⓑ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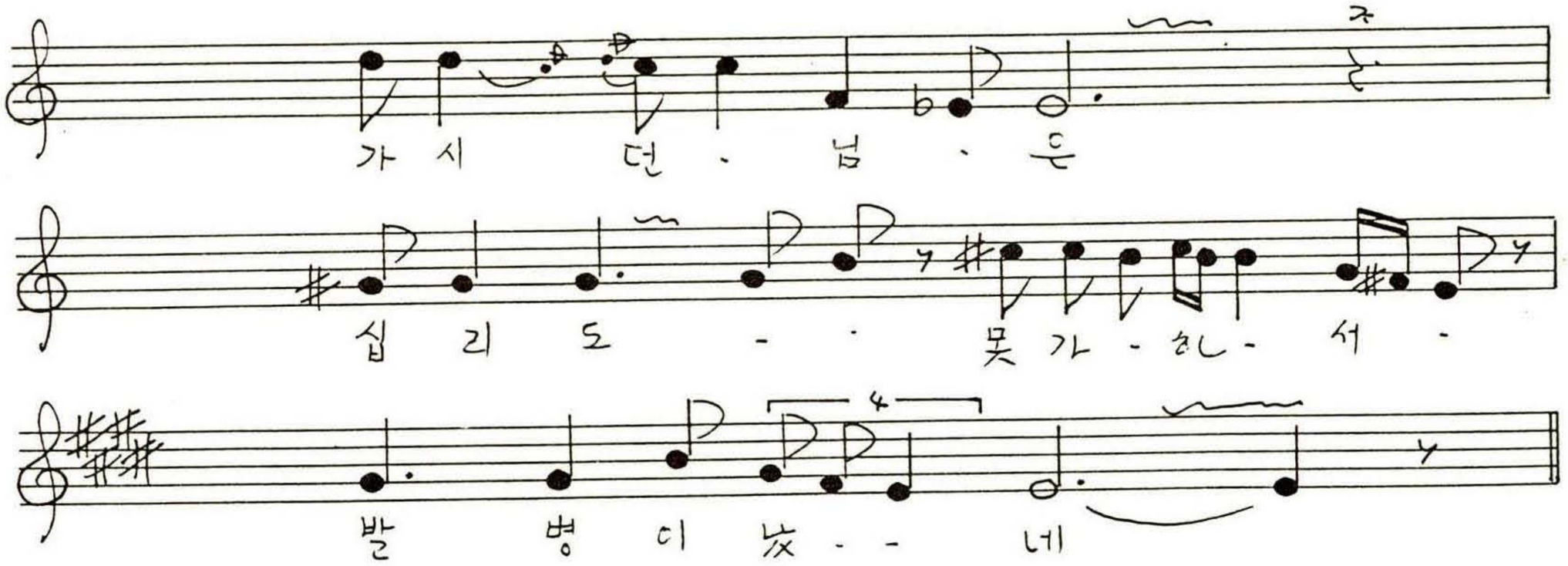


〈홍주 204〉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강 원 도 아 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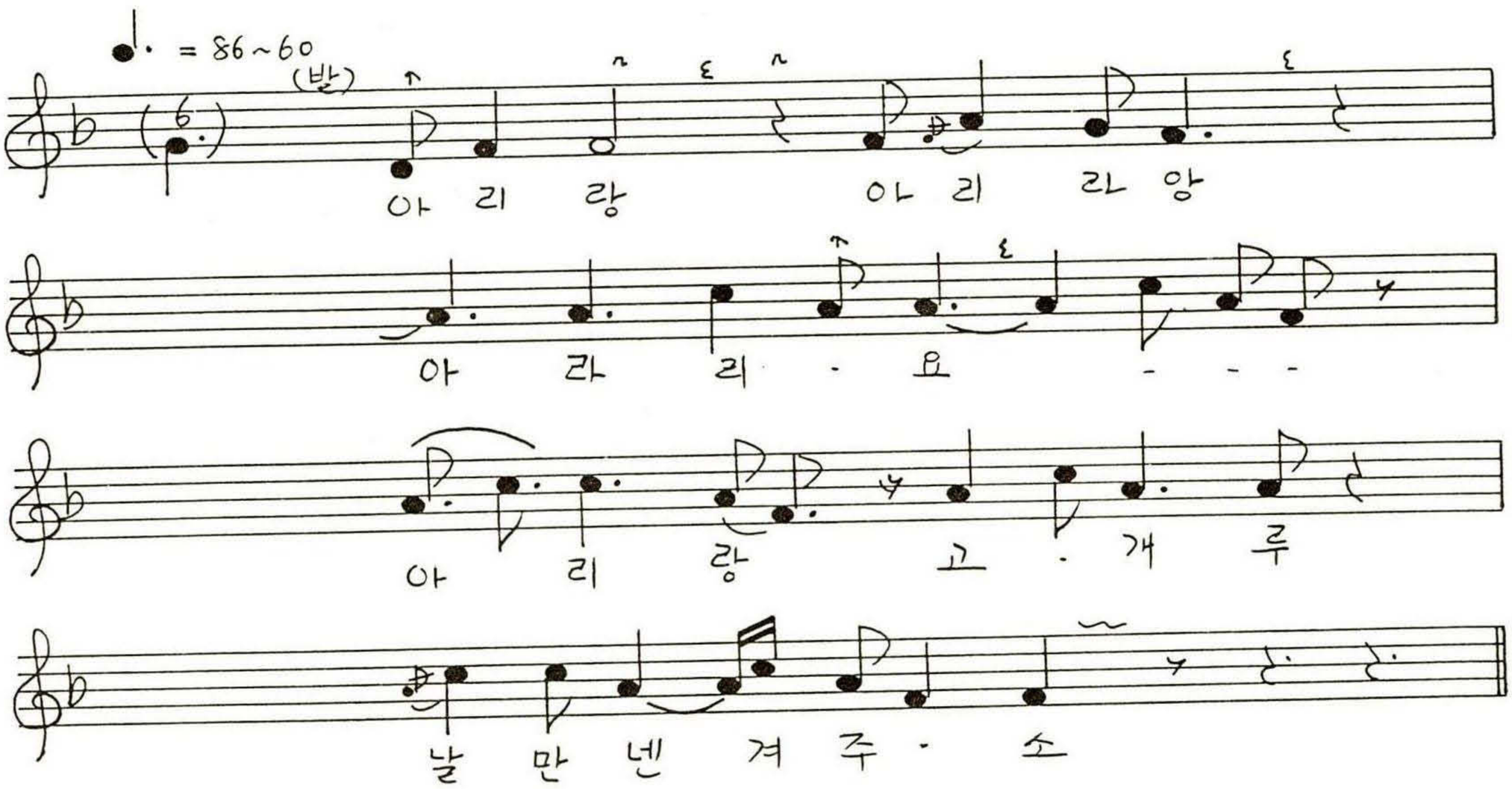
박종서(94-3-12ᴮ)





(받) 하리랑 하리랑
하라리요
하리라아앙 고개로
날만 넨겨 주시오

〈홍주 205〉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 **아 리 랑** 최주복(94-2-27③B)



〈홍주 206〉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강 원 도 아 리 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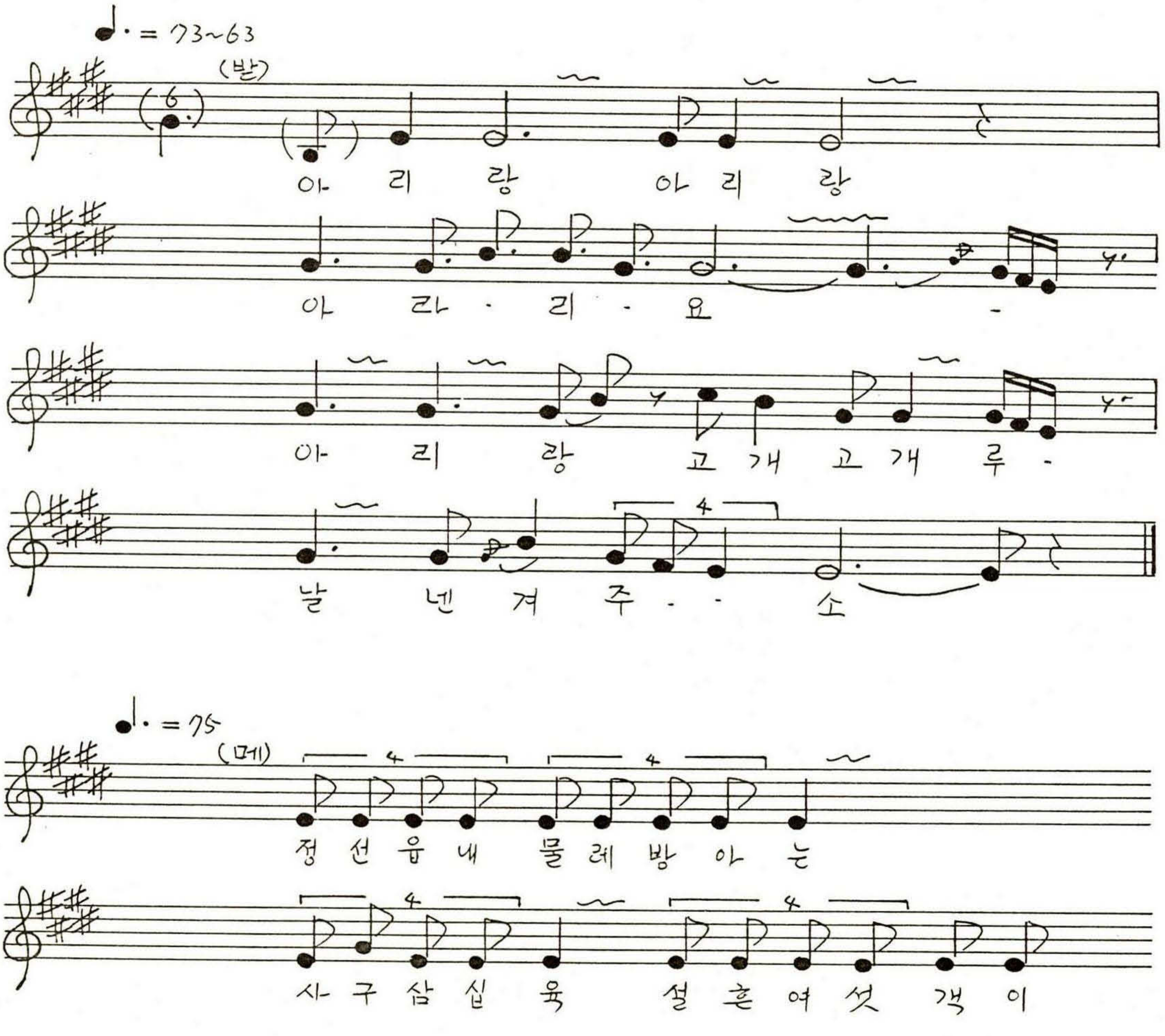
이사용(94-3-13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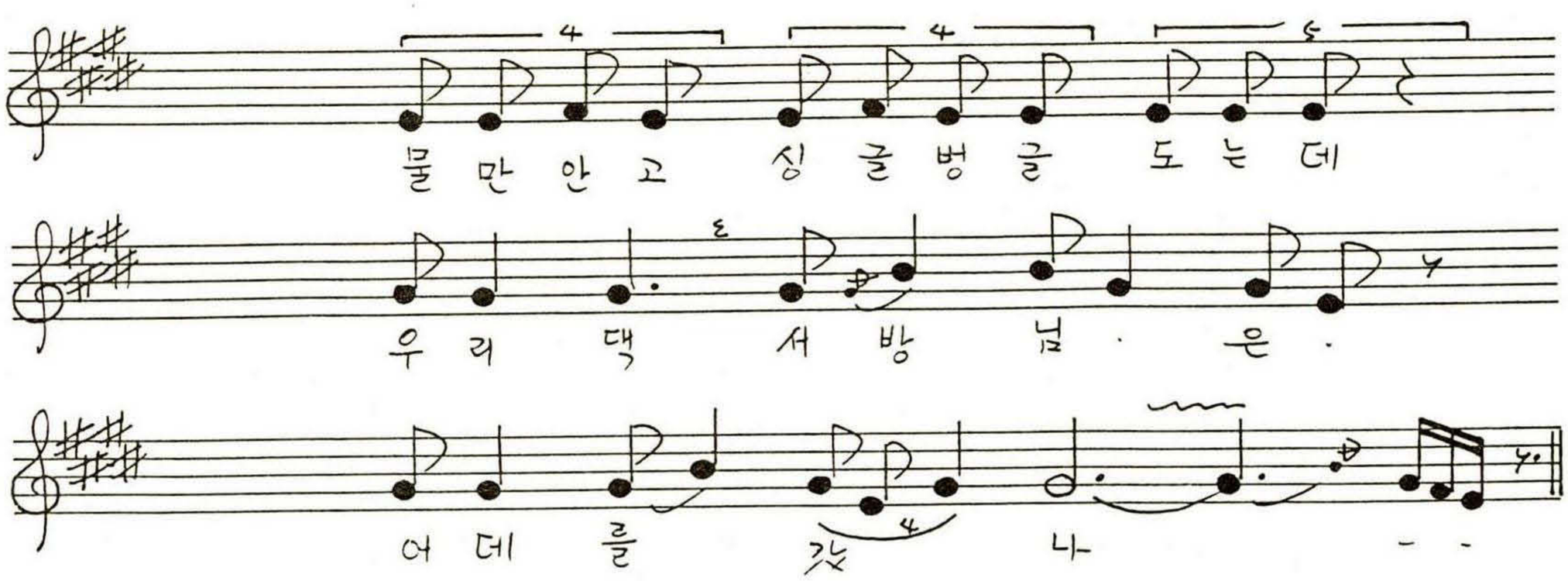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만넨겨주게
저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금년에도 또다시 묵었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루 날만넨겨주게

〈홍주 207①〉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엮 음 아 리 랑

송학기(1926.남.土民)창
素94-2-28A





〈홍주 207②〉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엮 음 아 리 랑 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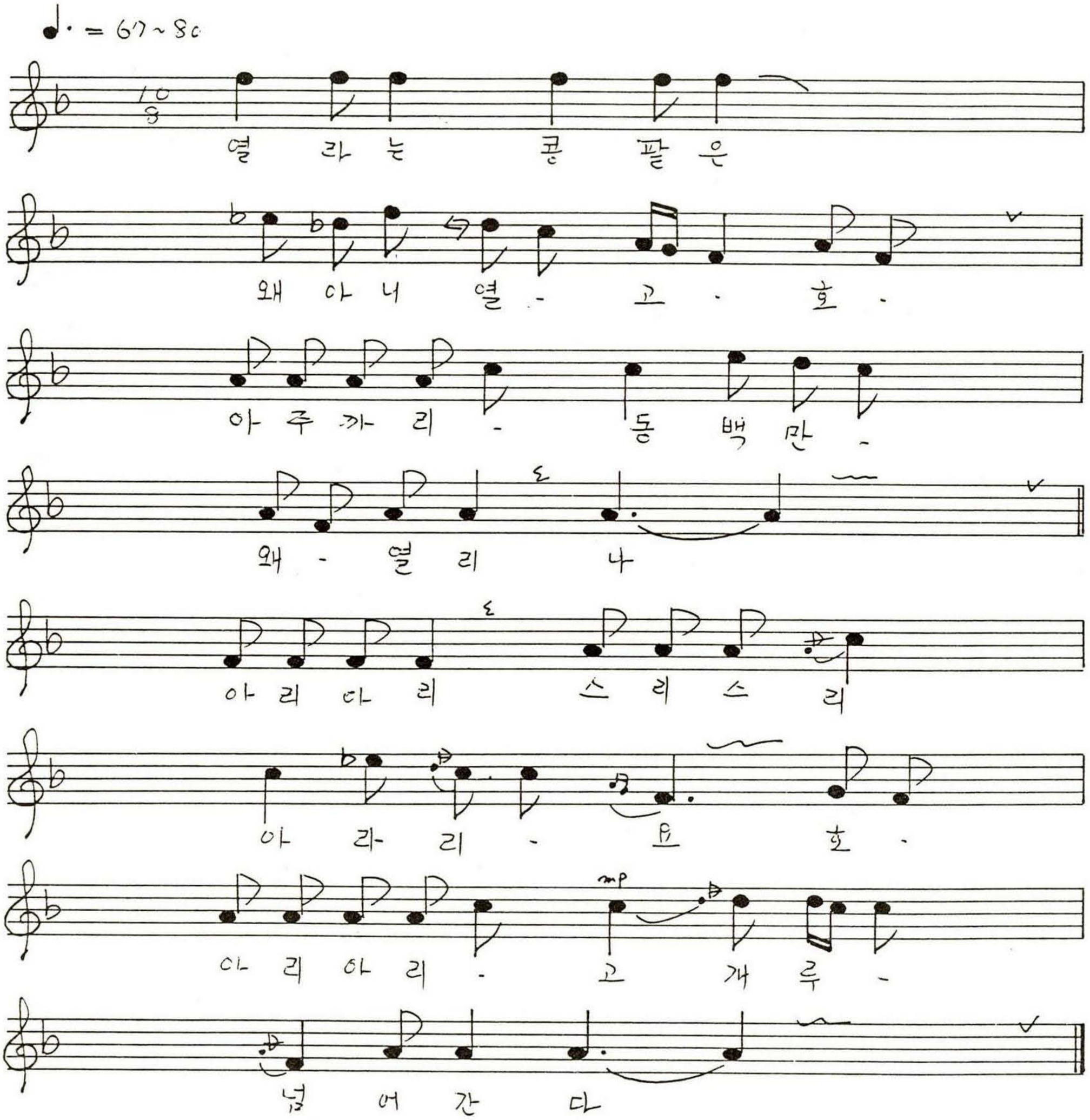
민 재 식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넘겨주소
강원도라 금강산 일만이천삼만구암자
유점사 법당지어 칠성당 돋워매고
팔자없는 아들딸 낳라고~
백일정성 드리러
명산대천 불공말고
타관객지 어려운사람
괄세를 마라
아리랑 아리랑아
고개고개루 날 넨겨주소

〈홍주 208〉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자 진 아 라 리

이관수(1925.남)창
素94-3-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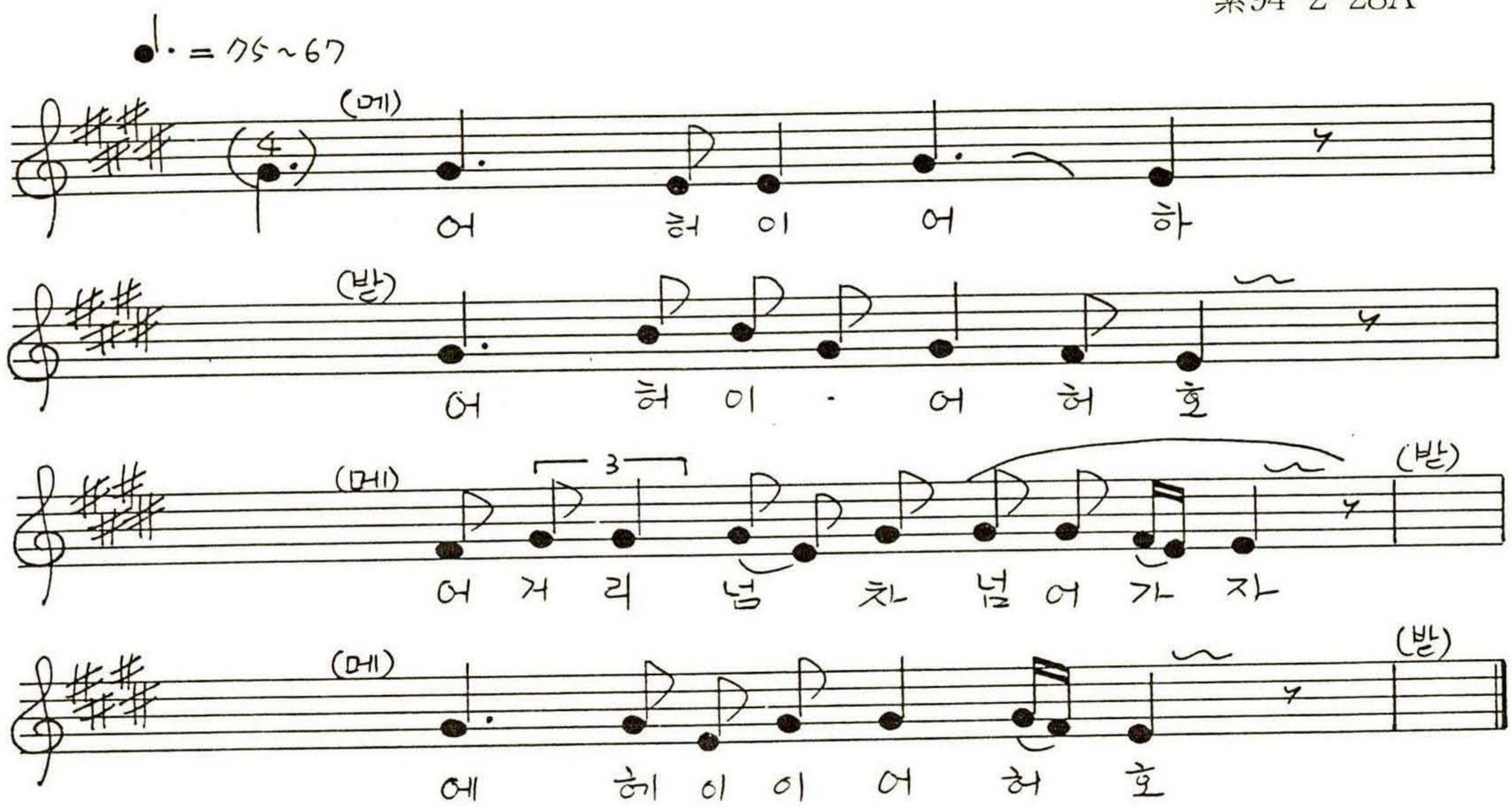
○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만, 만나보세
○ 수수밭 도지는 내물어줄께
구시월까지만 잡아주게

○ 아리랑 고개는, 무슨고개
만나면 이별하는, 아리랑고개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가세

〈홍주 209〉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지 게 상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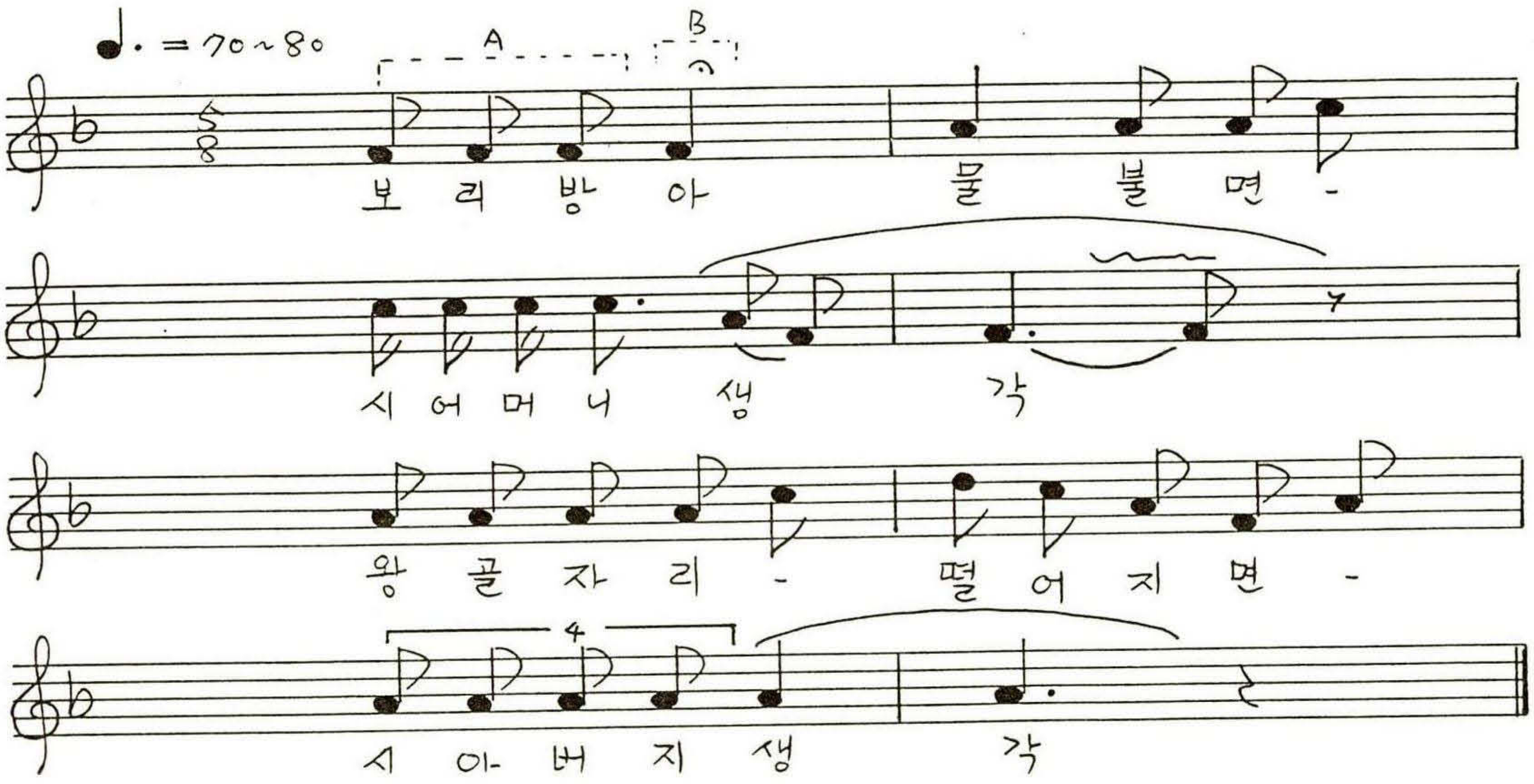
(메) 김윤환
(받) 송학기
素94-2-28A



〈홍주 210〉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자 진 아 라 리 曲

송학기(1926.남.土民)창
素94-2-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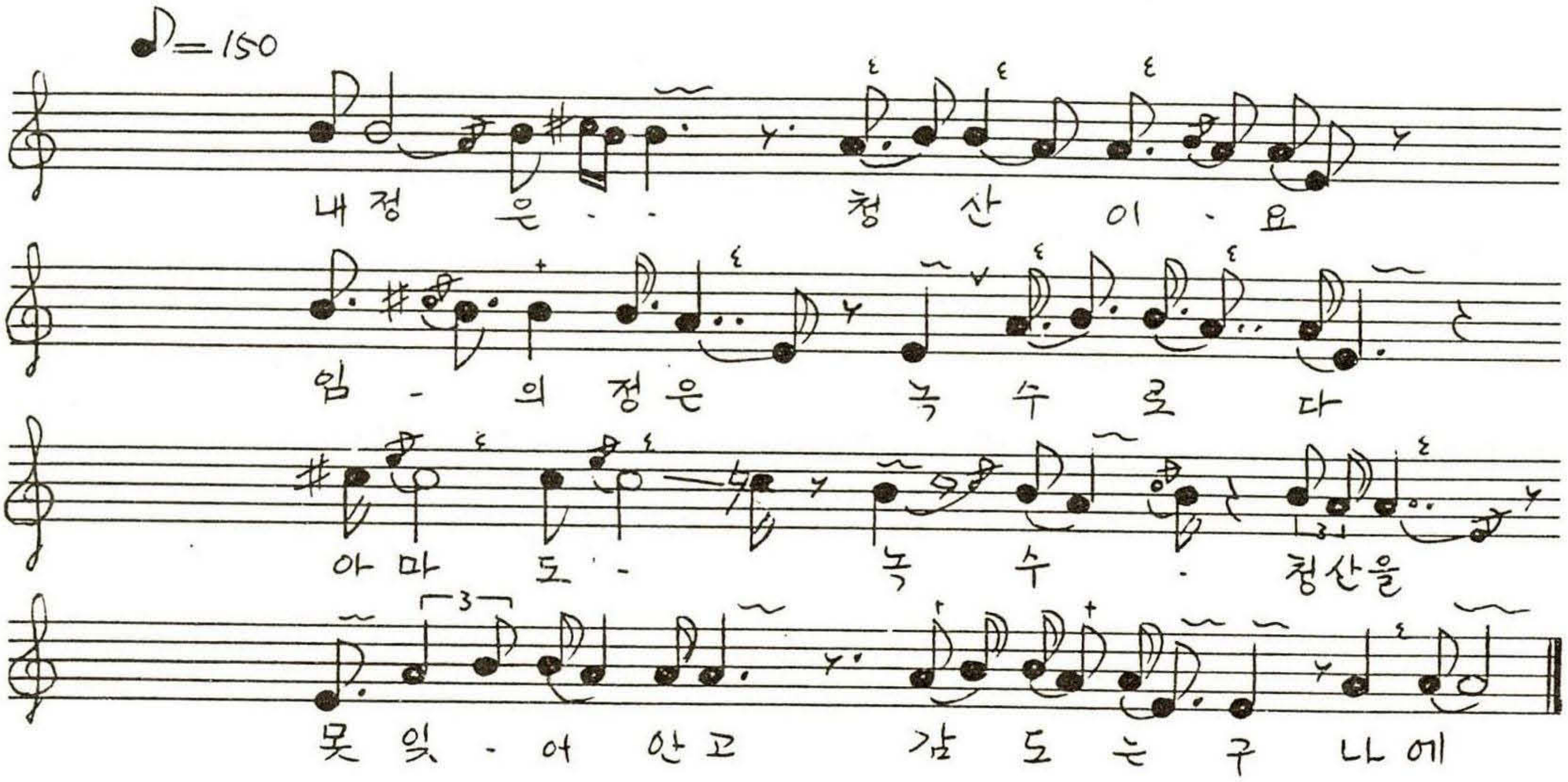


※ 5/8박으로 기보했으나 이를 구성하는 A : B는 엄격히 3 : 2로 되는 것이 아니고 B가 A보다 약간 짧은 경향일 따름임.

〈홍주 211〉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원성호 보부상들이 고개 넘어가며 부르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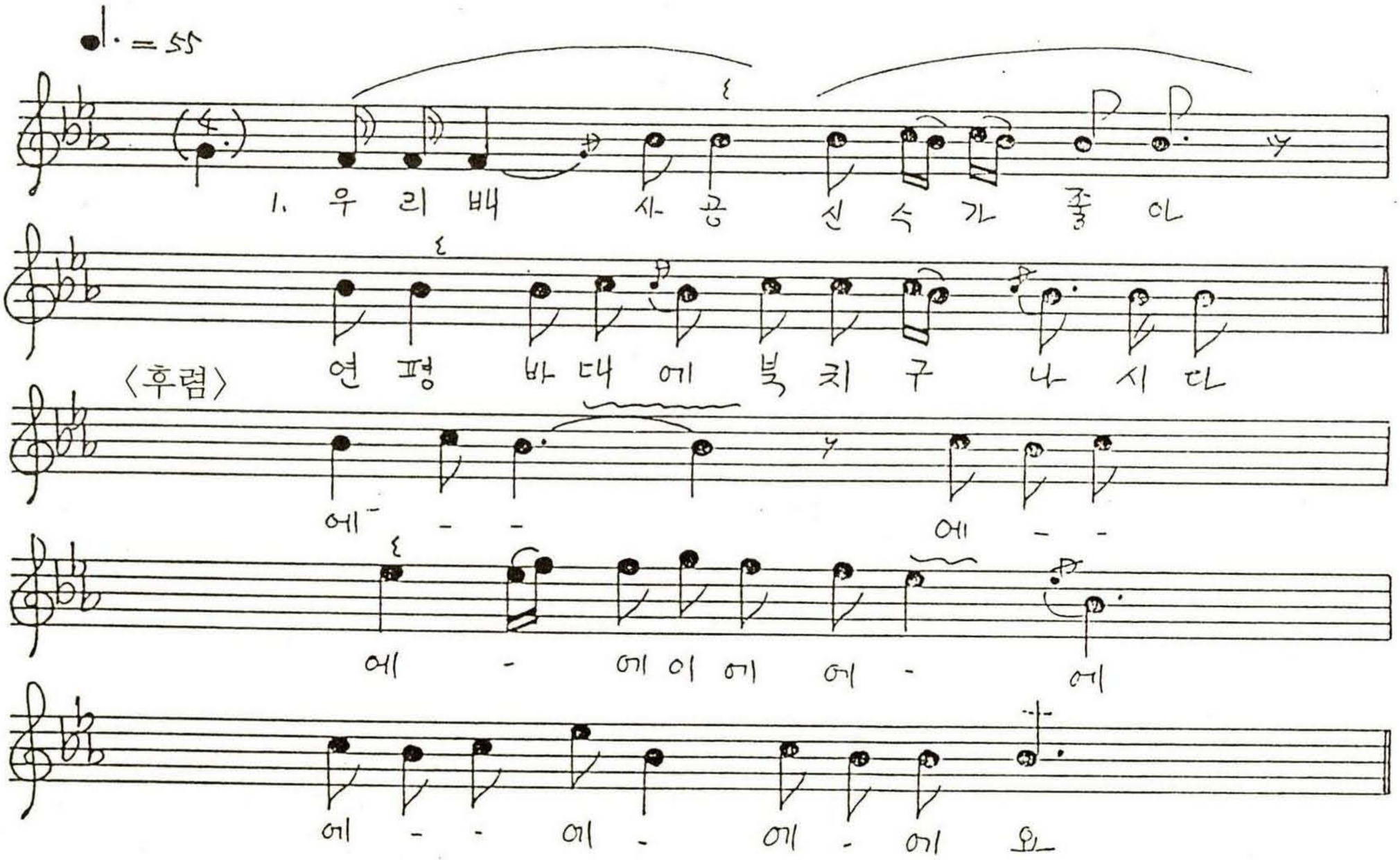
정철규(1929.남.3대째 거주 土民)창
素90-2-1①B



〈홍주 212〉 홍성군 걸성면 성호리

봉 기 타 령

정철규 창
素90-2-1②A



〈四物〉

2. 어여디여 북치구 났네
우리배 유덕선 장원을 했이다
〈후렴〉, 〈四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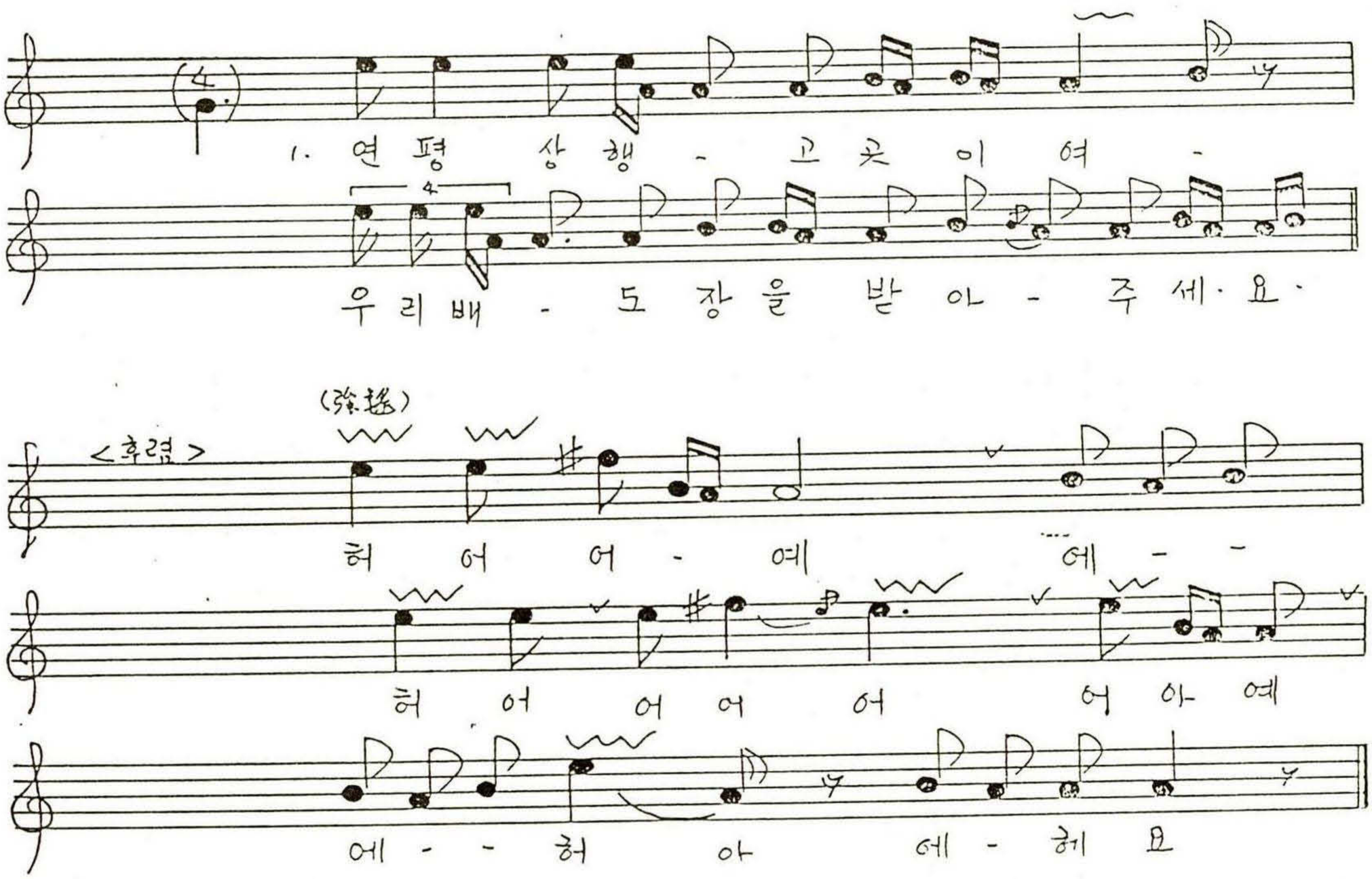
〈김재동 唱〉

3. 우리배 임자 신수가 좋아
오만 칠천냥 풀어다 놓고
합조개 바탕이 들어를 갔다
에—, 에헤헤 에이 에

〈홍주 213〉 홍성군 결성면 성남리

봉 기 타 령

최양섭(1922.남.土民)창
素90-2-2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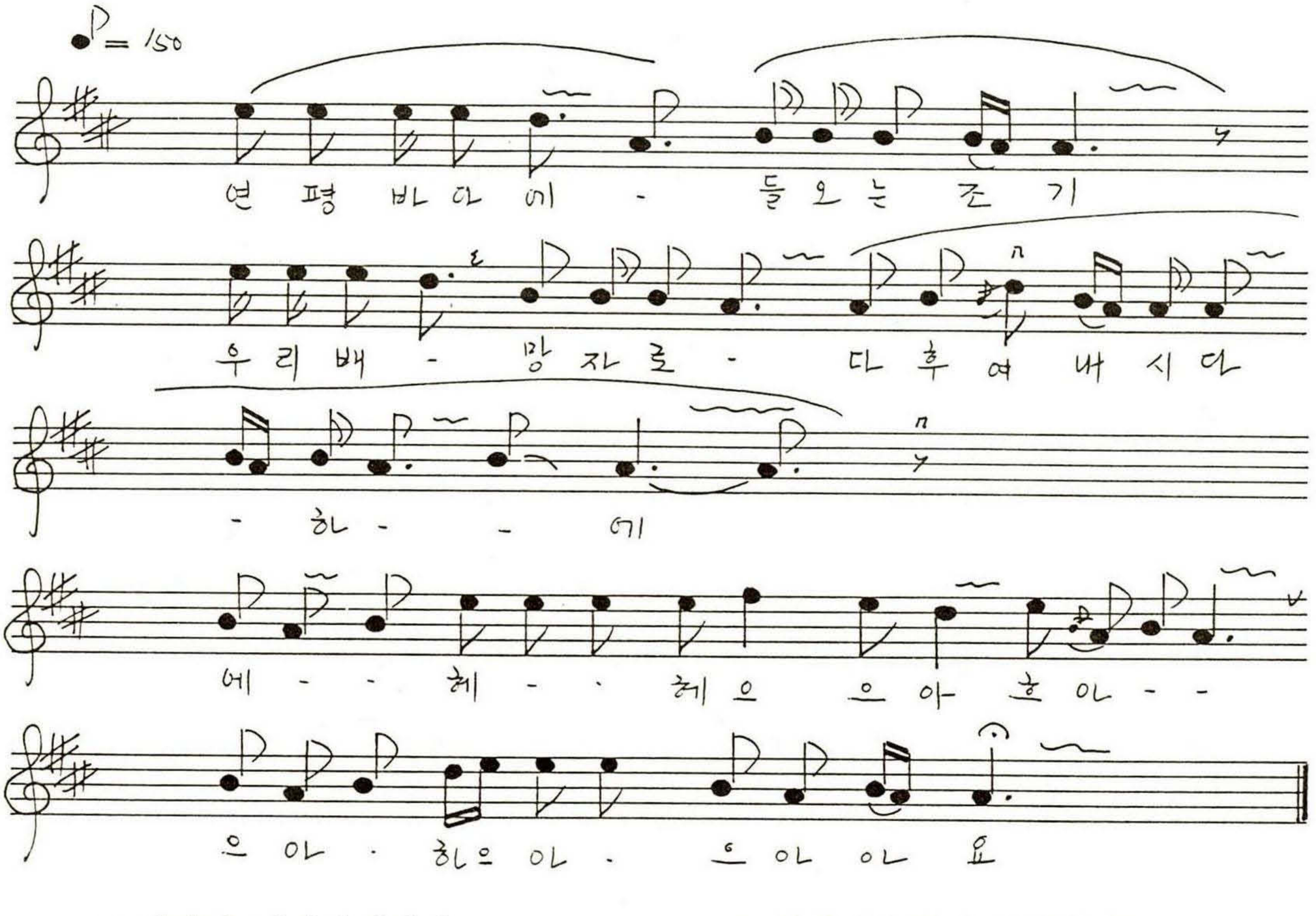


2. 연평상행 고곳이요
유덕선 장원을 주세요
〈후렴〉

〈홍주 214〉 홍성군 서부면 선홍동

배 치 기

엄대섭창
素94-3-12③B



○ 어거차 너시렁대시다
어-에 헤에 헤에 헤에어 허하요
○ 만배등 장원은 우리가 합시다
아에, 에헤헤 어어허, 어허어하요

○ 본봉산무니에 니러신디고
함박산 무덕선 밥풍년 좋시다
에헤 헤으으
으아 으아하요

〈홍주 215〉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Ⅰ. 고기퍼는 소리
Ⅱ. 뱃노래(일반조)

김재동(1928.남.원성호출생 1975년경에 은하면 이주)
素90-2-2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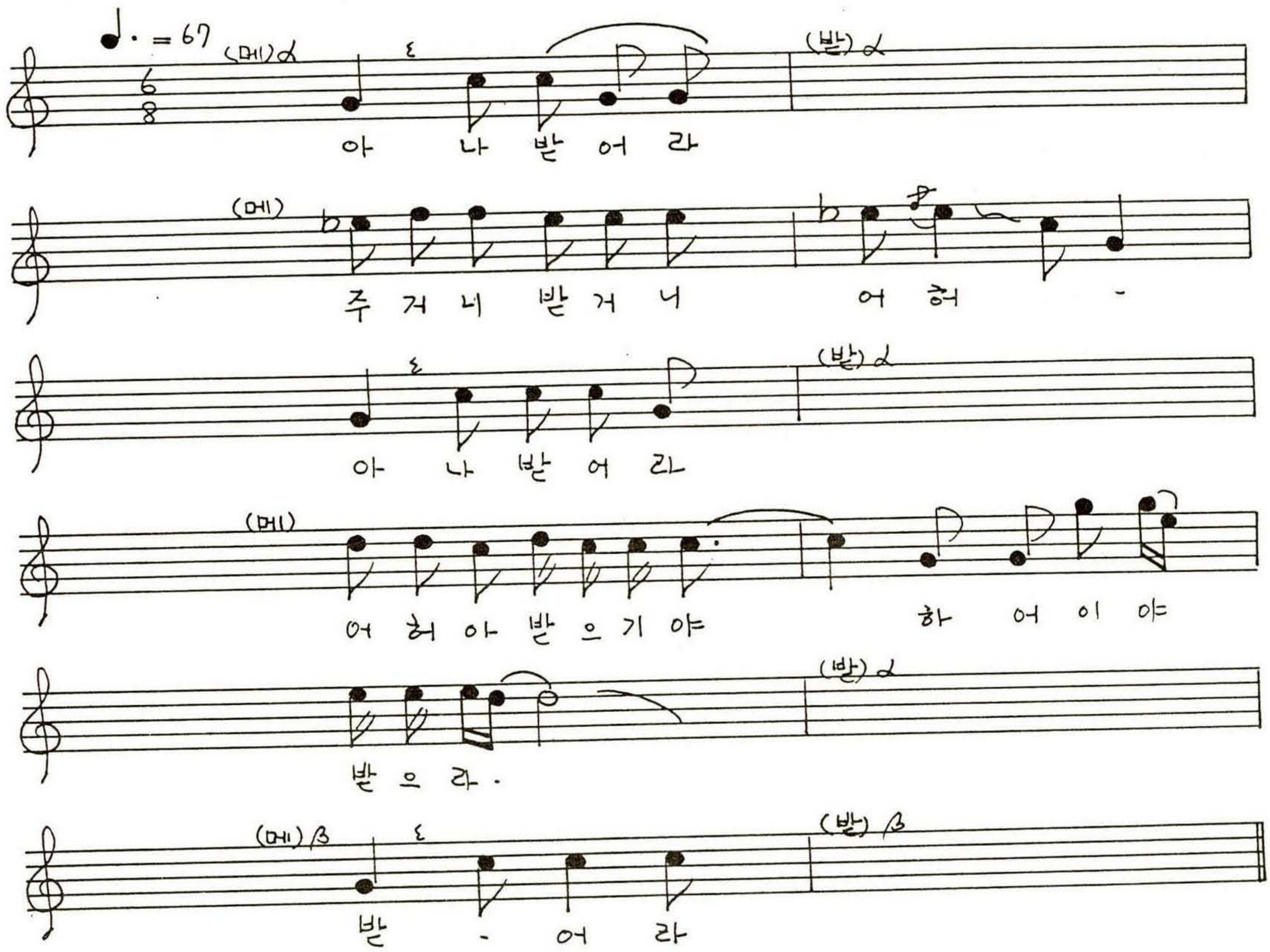
Ⅱ. 석양 꼭대기 실안개 도는데
어야차 디야라 어야차 디야라
거기 들오는 조기랑은 우리배로 다 잡자
어야루 디야루 어야루 어기 어여차
얼씨구 좋구나

〈홍주 216〉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고 기 푸 는 소 리

이상순(90-2-2ⓘB)

★참고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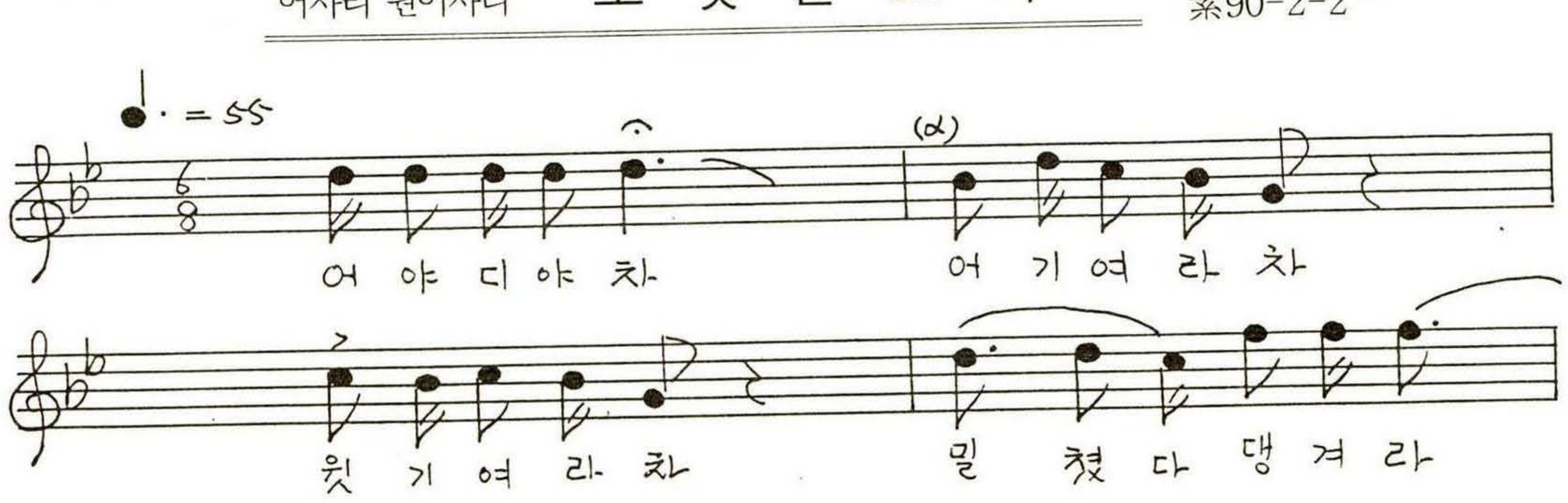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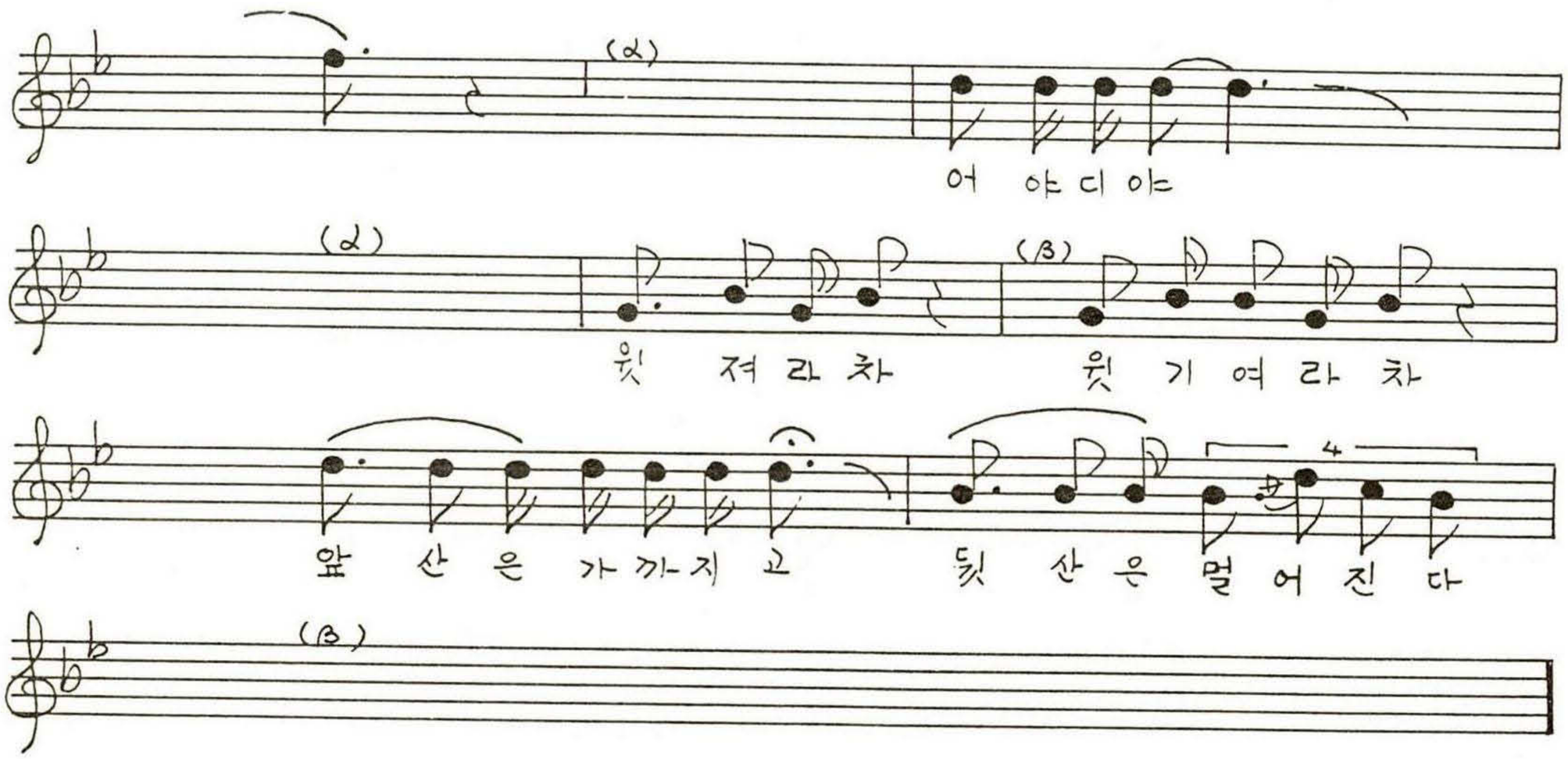
아나 받어라 -
주거니 받거니
어기야 받으기야 -

〈홍주 217〉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원어사리

노 젓 는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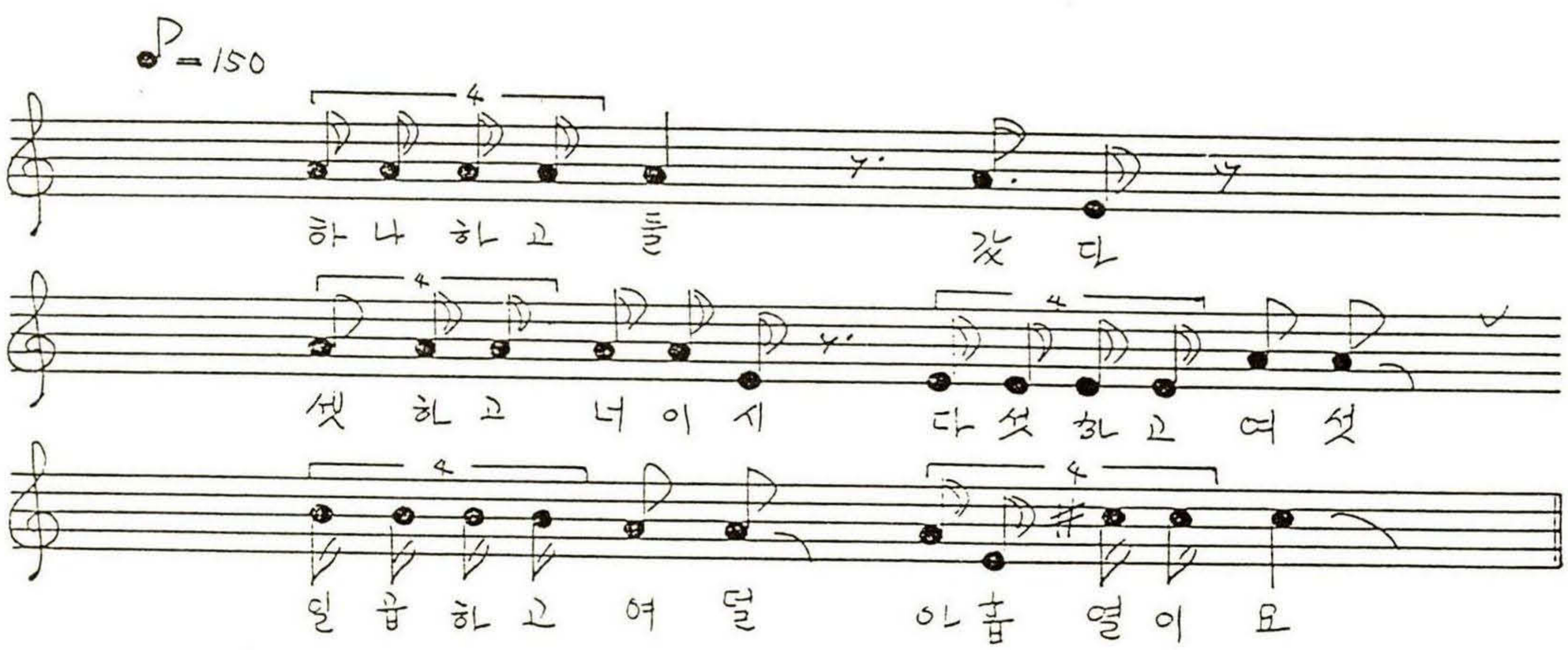
이상순(1926.남.土民)
素90-2-2⑥B





잘도간다 잘도간다 /
우리배는 잘도간다
읫기여라차
어기여라차
어여디여차
읫기여라차

〈홍주 218〉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산세는소리(조기 · 칼치)** 정철규 창 素90-2-1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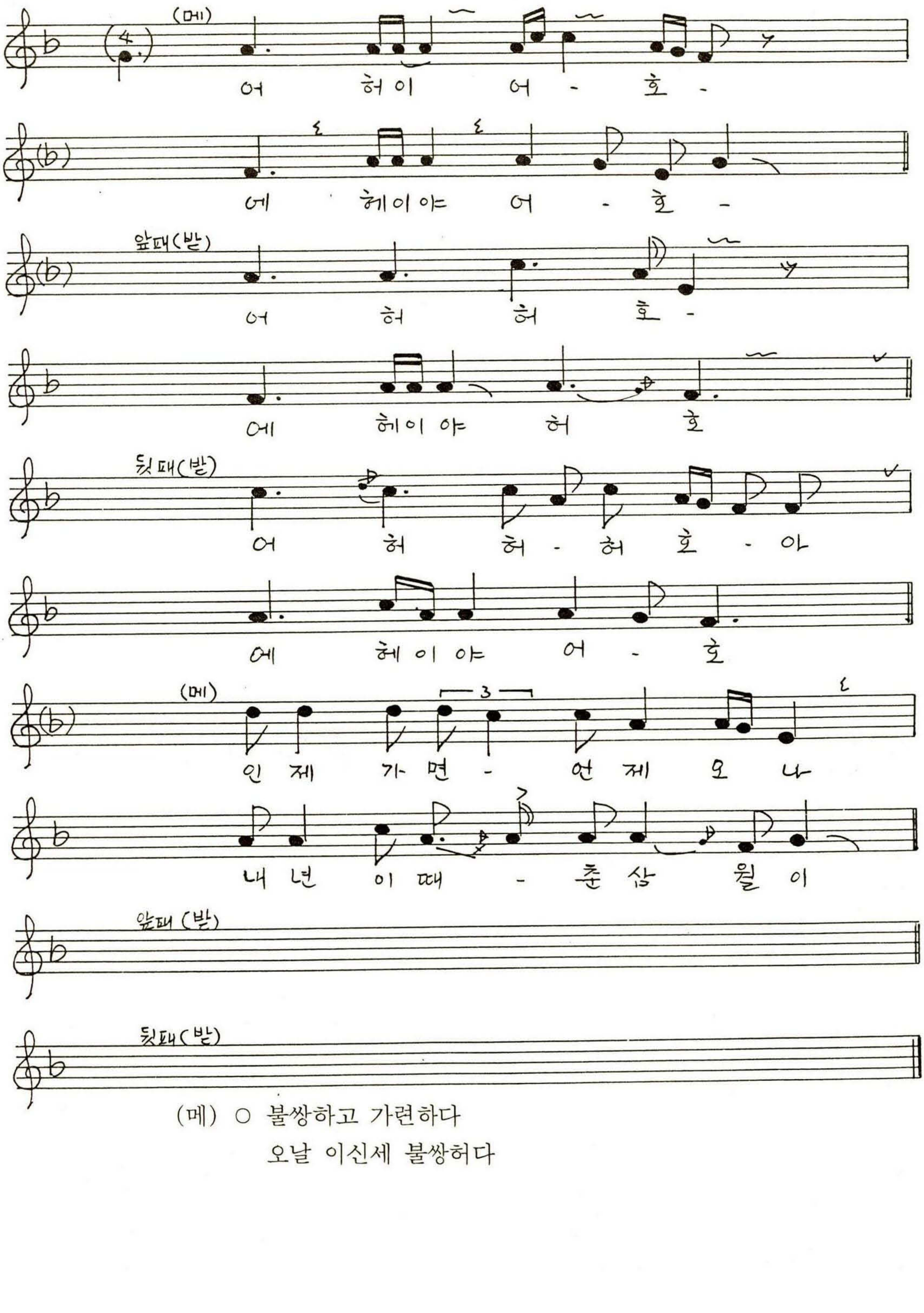
(10개 = 1뭍 100개 = 1단 100뭍 = 1동)

〈홍주 219〉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행 상 소 리

(메)전원표(1933.남.장곡면 산성리 출생. 15세에 옥계리이주)
(받)옥계리 주민들
素94-3-13①A

〈실음은 4도 더 낮음〉 ♩. =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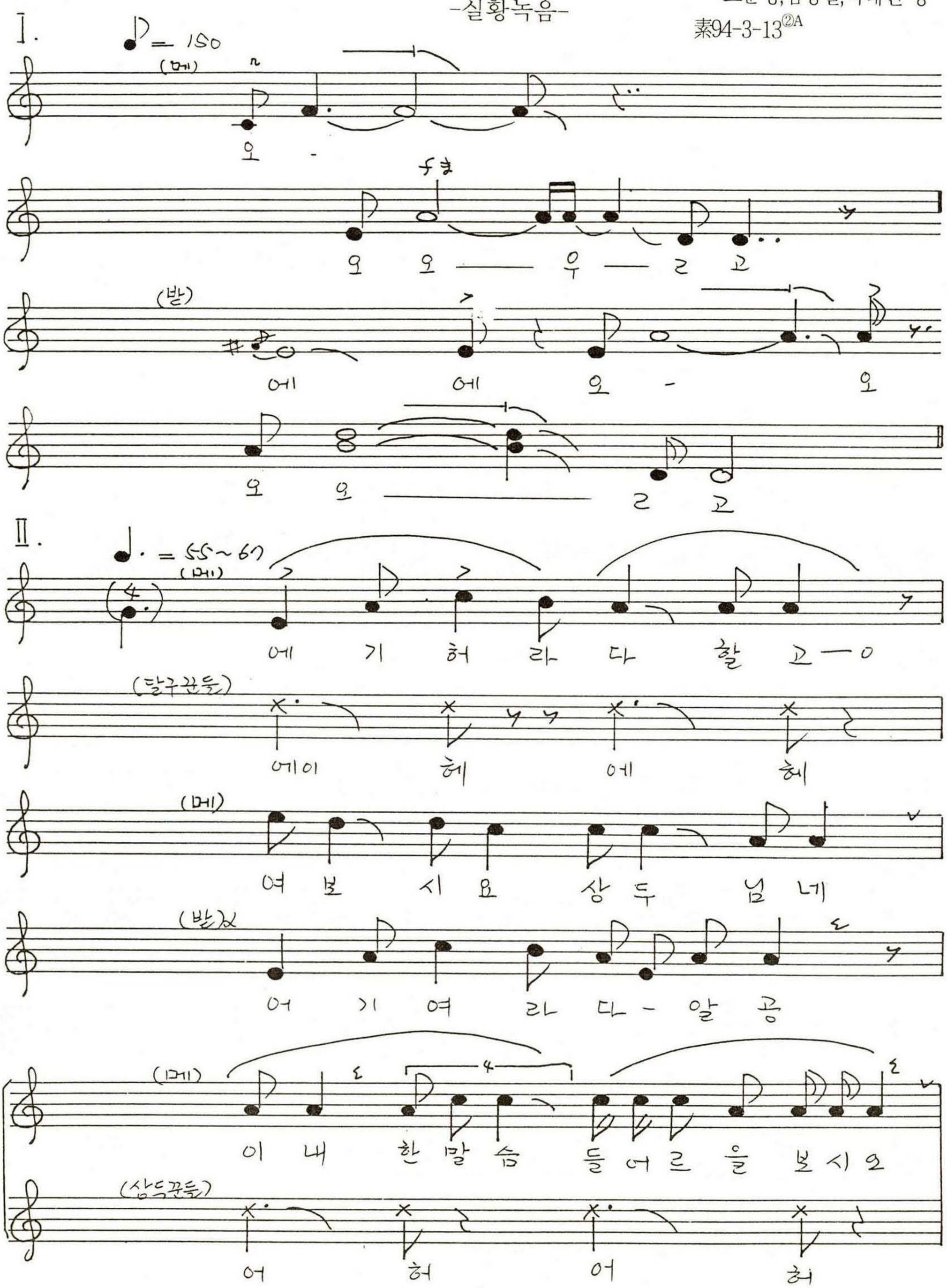
(메) ○ 불쌍하고 가련하다
오날 이신세 불쌍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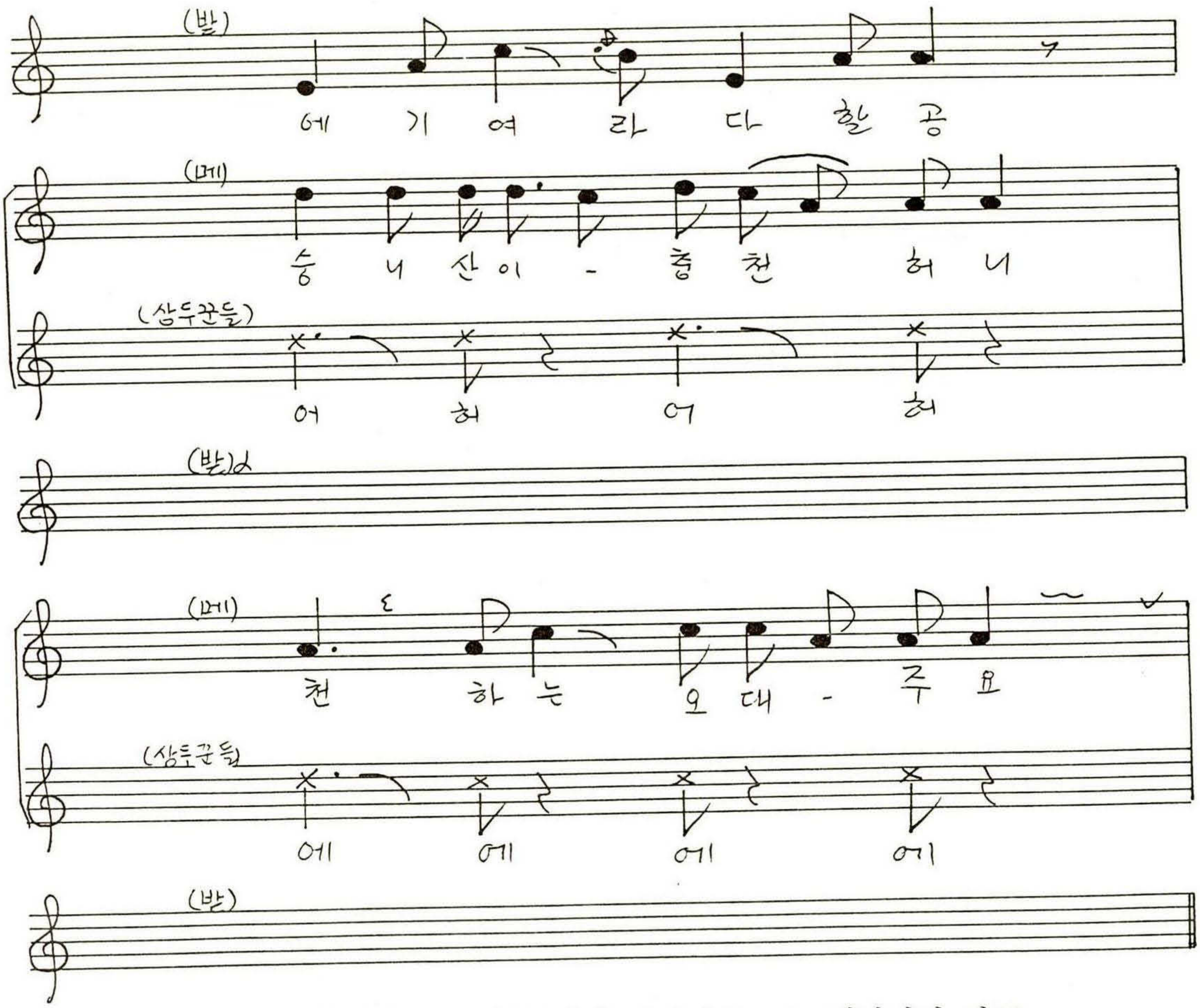
〈홍주 220〉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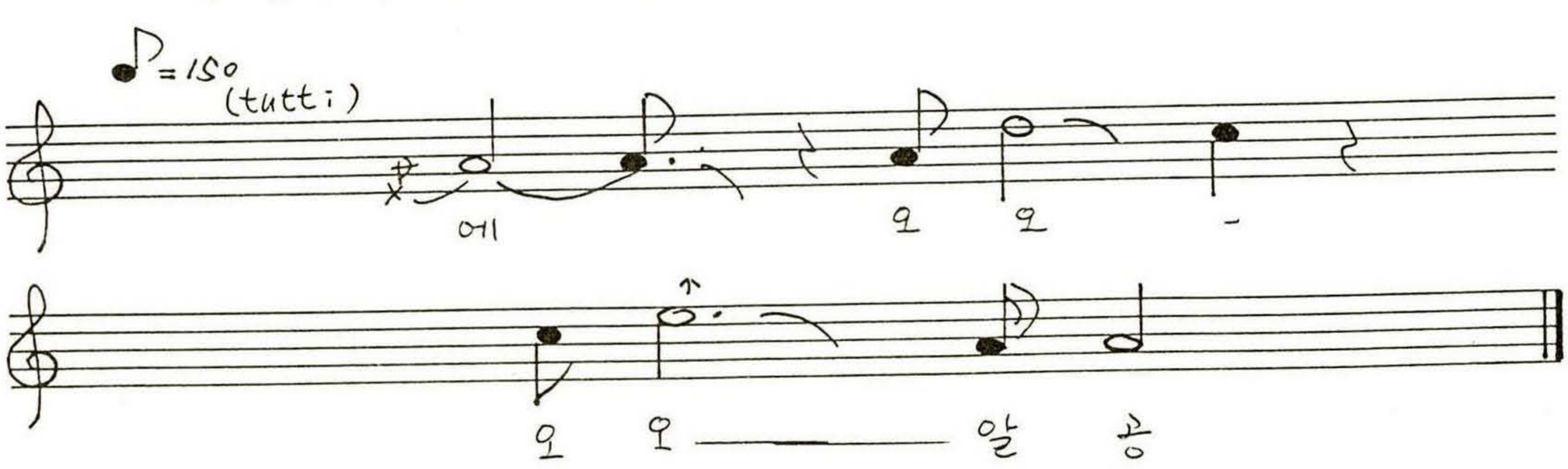
(메)이종필(1942.남.土民)
(받)이연두,이순필,전원표
조춘성,심상일,박태선 등
素94-3-13②A

-실황녹음-





(메) ○ 곤륜산에 내린맥이 ○ 주류성이 둘러싸코 ○ 에이여라 달공
○ (여기까지 내렸구나) ○ 무한한 무한천은 ○ 여보시오 상두님네
○ 충청도라 계룡산도 ○ 내고장의 명천일세 ○ 다리도 아프구 목도 마르니
○ 내고장의 명산이요 ○ 바로우의 상바위는 ○ 쉬어가지고 다시합시다
○ 오서산에 백호맥은 ○ 상여바위가 명바위요 (또는 "고만저만
○ 천하의 명당이요 ○ 백제의 (원혼)담은 파양궁합시다").
○ 내고장의 학성산은 ○ 한도많고 슬픔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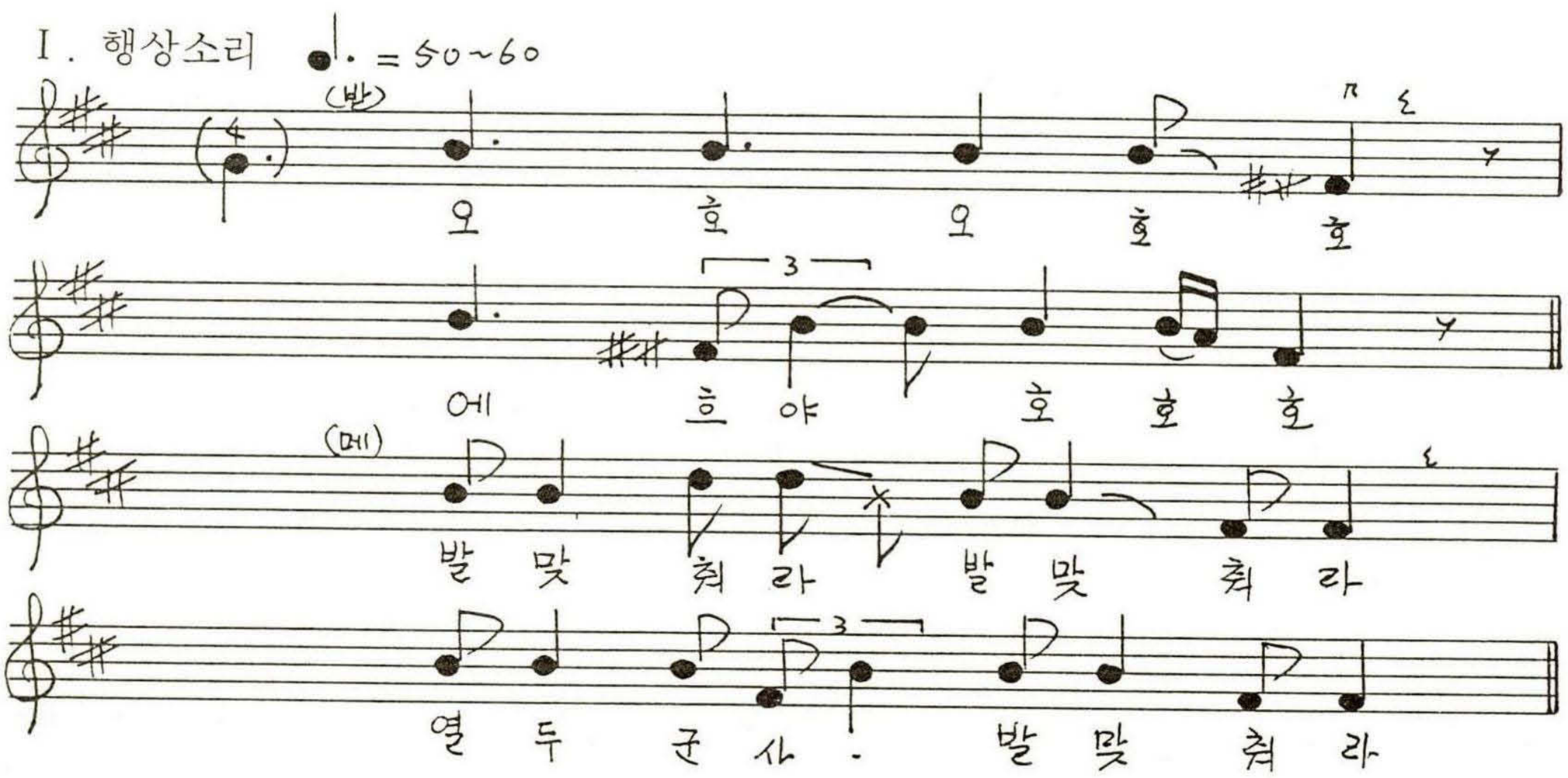


〈홍주 221〉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상 부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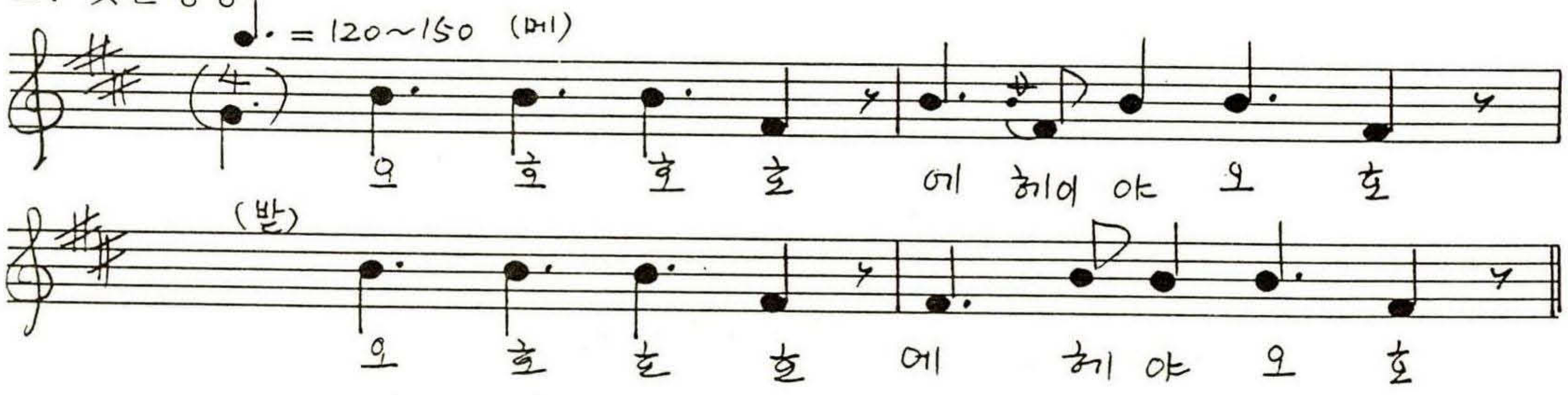
이태훈(90-2-2⑤A)

Ⅰ. 행상소리 ♩. = 5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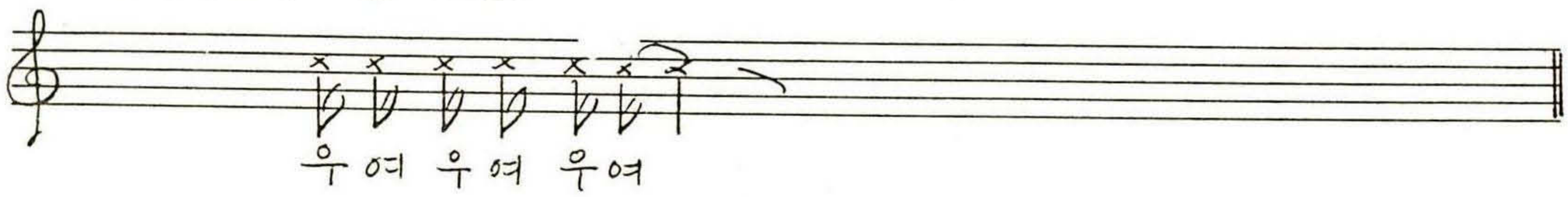
(메) ○ 불쌍하고 가련하다
어흐 허호
○ 아침나잘 성턴몸이
저녁나잘 병이들어
○ 부르느니 어머니요
찾느니(냉수로다)

Ⅱ. 잦은행상 ♩. = 120~150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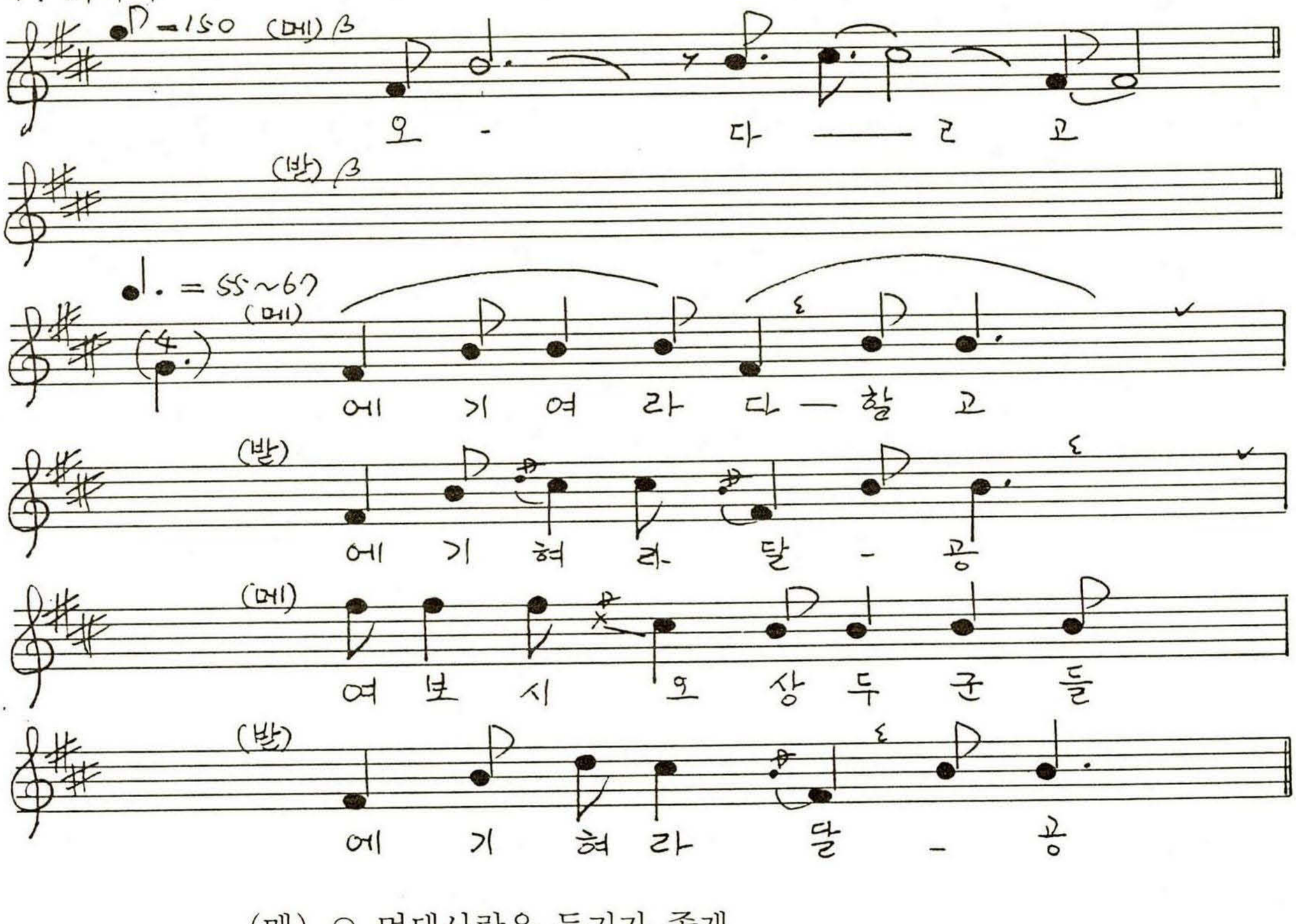


Ⅲ. 널액막음소리 "중상이요 -"(바가지 깨고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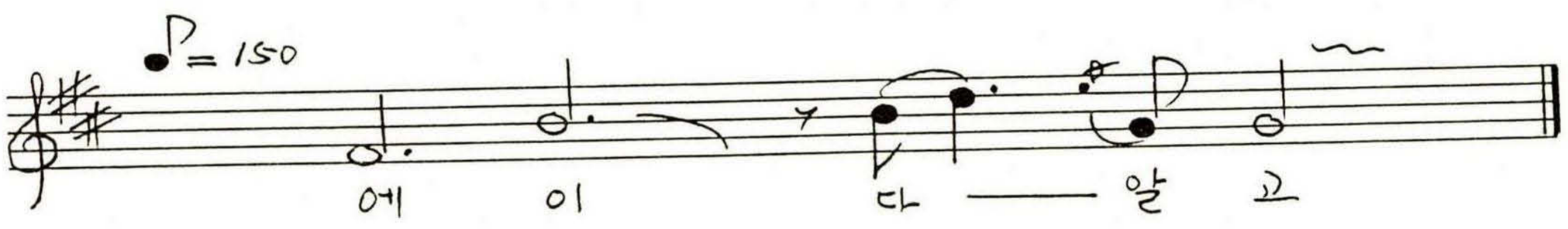
Ⅳ. 상여내릴때 ♩ -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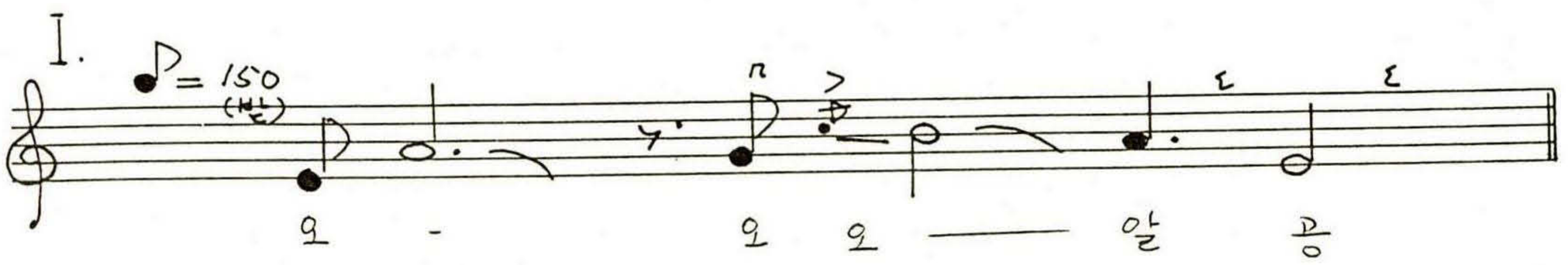
V. 회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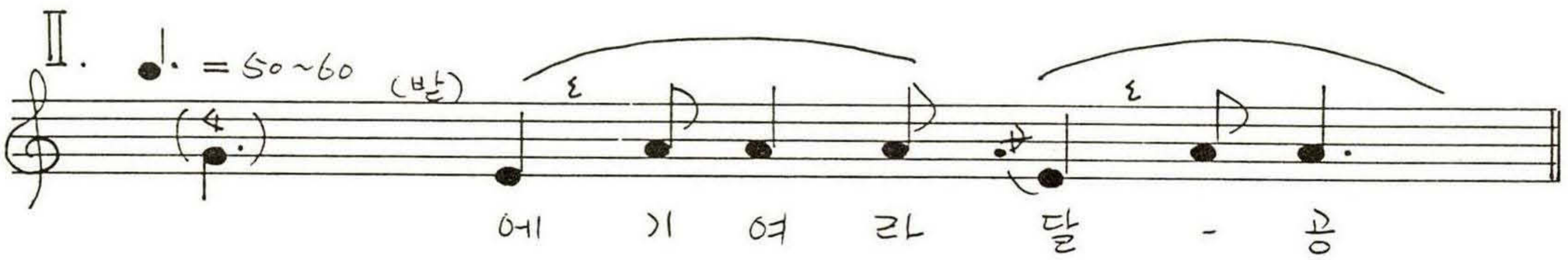


(메) ○ 먼데사람은 듣기가 좋게
○ 가깐데 사람은 보기가 좋게
○ 어 여라 달공
○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니
○ 이만 저만 파양궁합시다



〈홍주 222〉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달 공** 이태훈(94-3-13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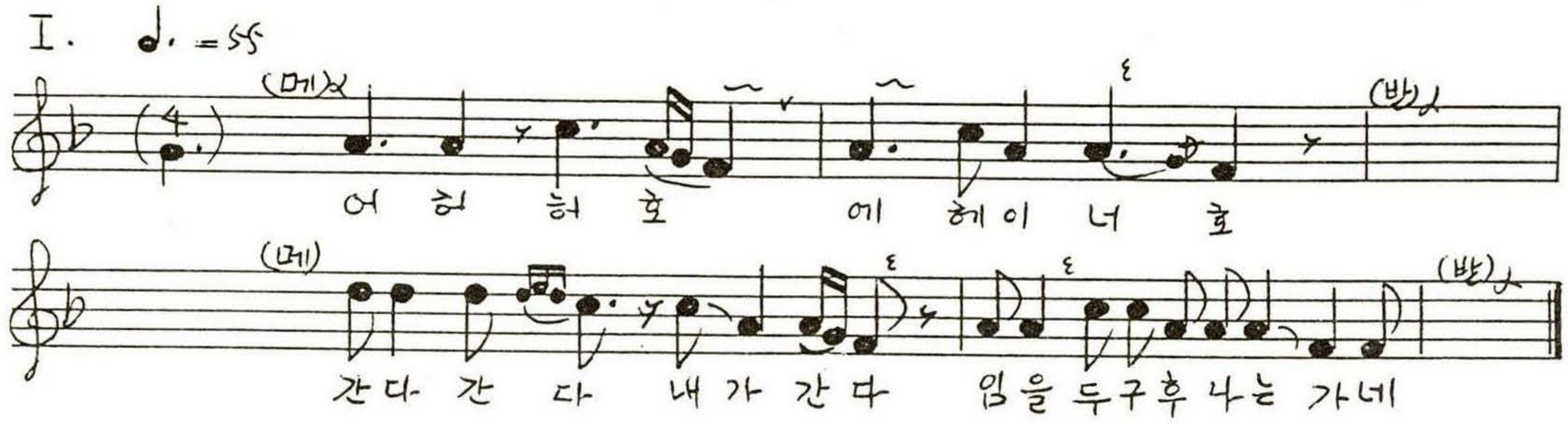


(메) ○ 여보시오 상두군들
○ 요내말슴 들으를 보시오
○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 수지조종은 황해수라
○ 먼디사람은 듣기 좋게
○ 가깐데사람 보기를 좋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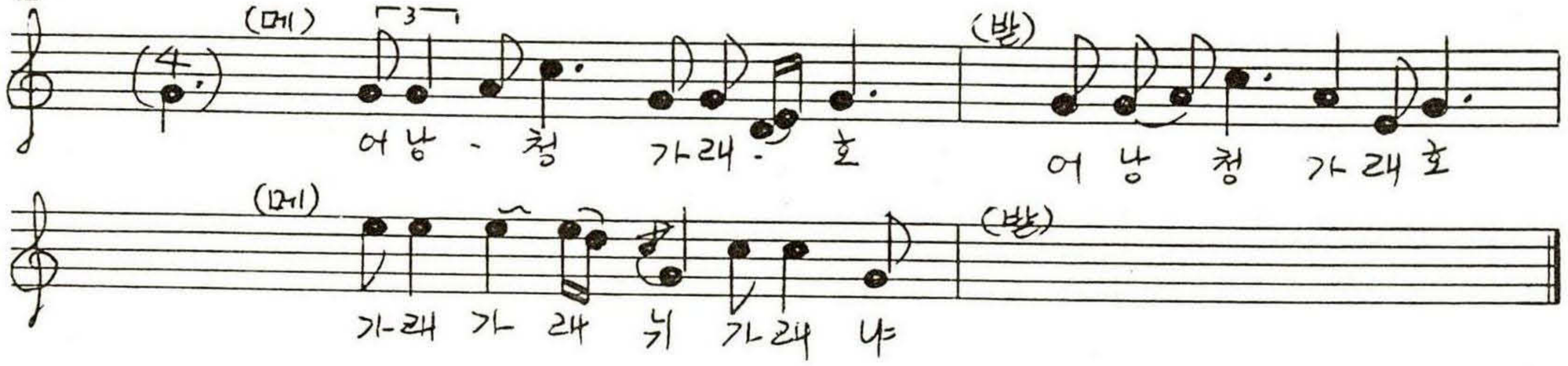
〈홍주 223〉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Ⅰ. 상여소리
Ⅱ. 떼뜨는 가래질소리
Ⅱ. 회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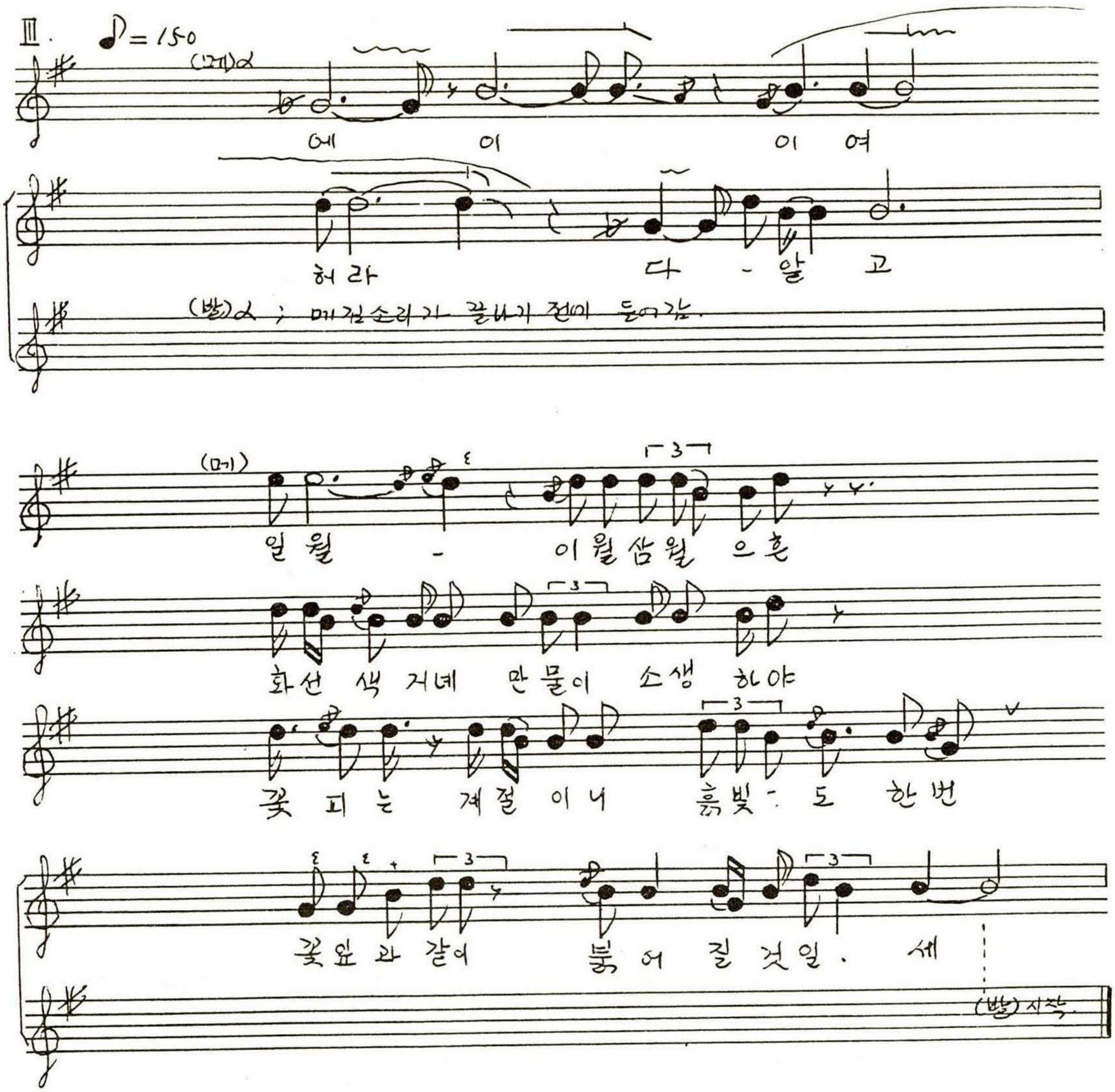
(메)김향경(1920.남.土民)
(받)김향경,김옥성,이문갑
素90-2-3①A



(메) 내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들 너 잊을소냐 /
북망산천이 머다더니, 문밖이가 거기로구나 /



(메) 은하면 대천리 통대가래 / 여러 역꾼들 들으를 보시오 /
요만 내이고 술달래 먹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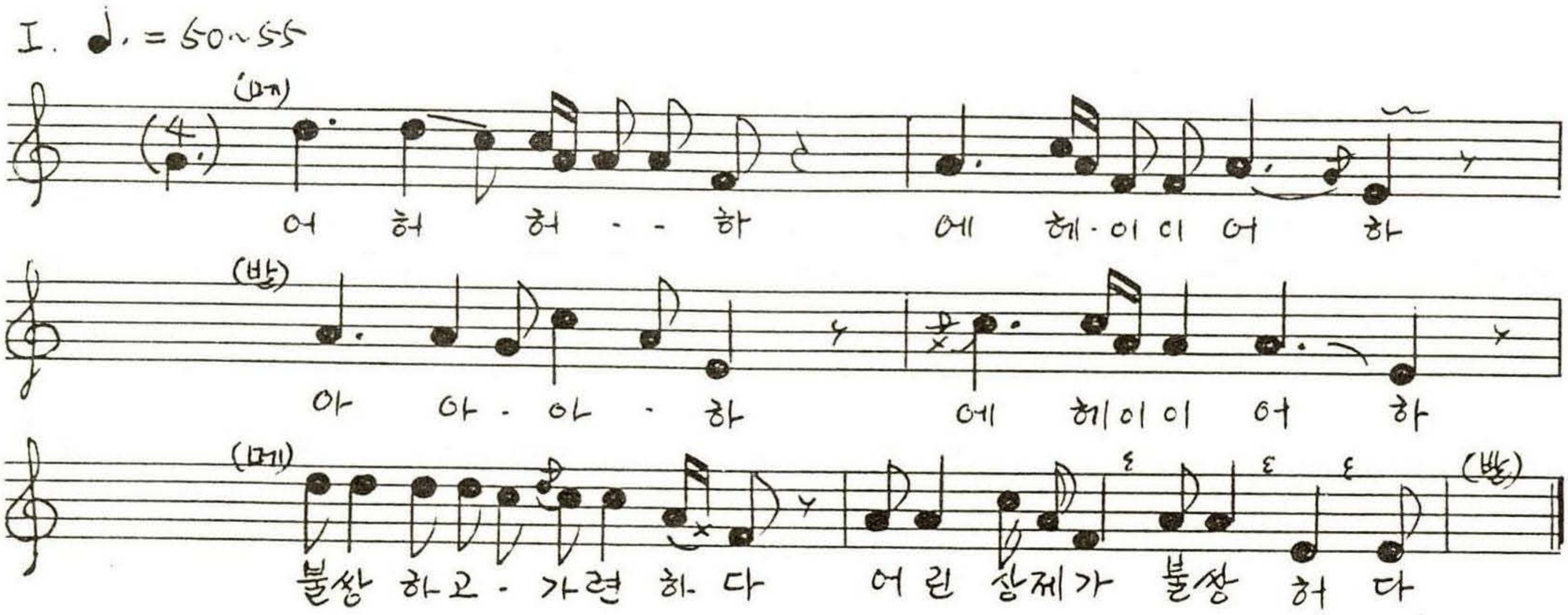


(메) 어허 유월칠월은, 만물이 소생하야서 잎이피고 꽃이피어
녹음계절이니 풀잎과 같이 흙도 한번 검어질 것이네 /
구월시월 동지섣달은, 만물이히 녹어 백발이 되였으니
흙빛도 눈빛과 같이 한번은 희여질 것일세 /

〈홍주 224〉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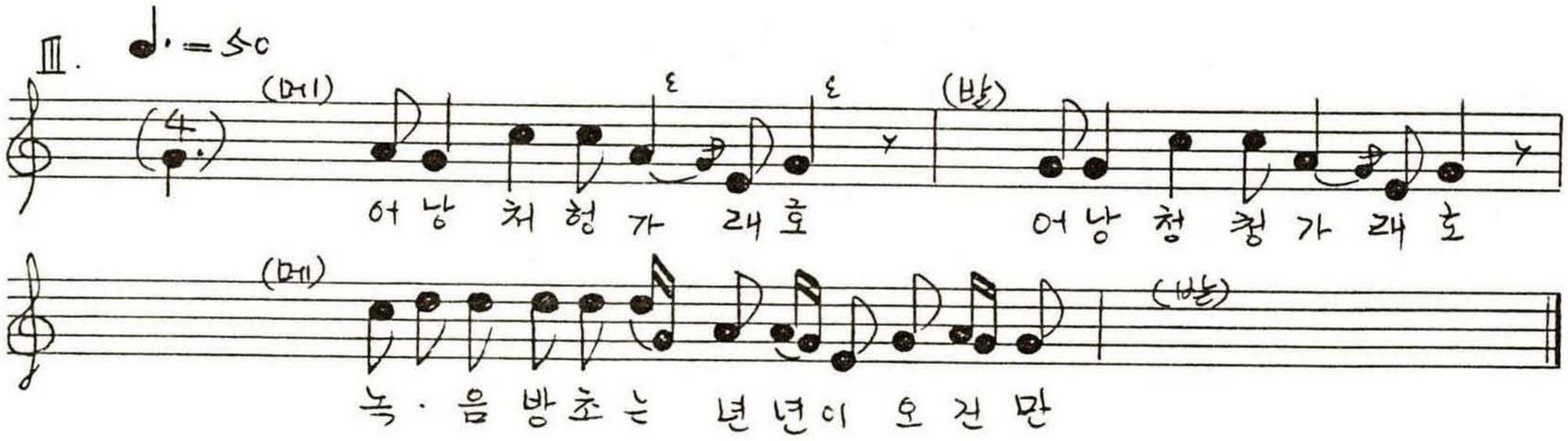
Ⅰ. 상여소리, Ⅱ. 가래질 Ⅲ. 회다지

(메)배선직(1928.남.土民)
(받)배인희,배만희,배신희
素90-2-1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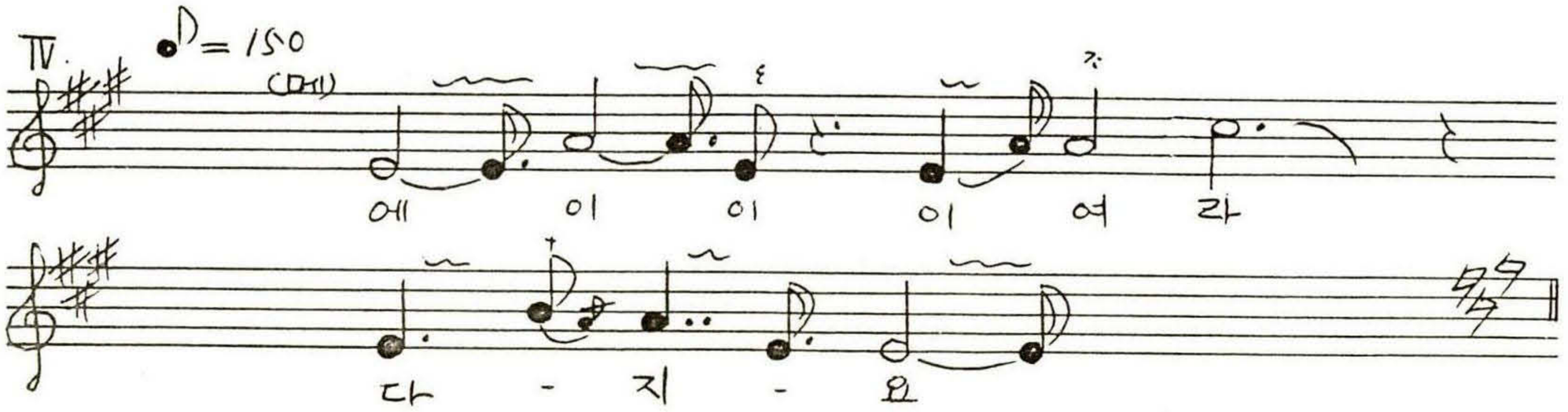


(메) 간다간다 나는간다 너를 두고서 나는간다 /
이제가면 언제오나 오는날이나 일러주소 /

Ⅱ. 〈관을 내릴때〉 "우여 우여 우여 우여"



(메) 한번 간 임은 영 무소식이라 /



(받) 이 이 이 · 여 라 다 알 고

(메) 산 찬 초 목 은 푸 르 나 가 건 · 만

우 리 인 생 은 나 날 이 - 늙 네

(받) 에 이 - 이 · 여 라

다 알 고

〈홍주 225〉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행 상

박동식(1938.남.土民)창
素94-3-12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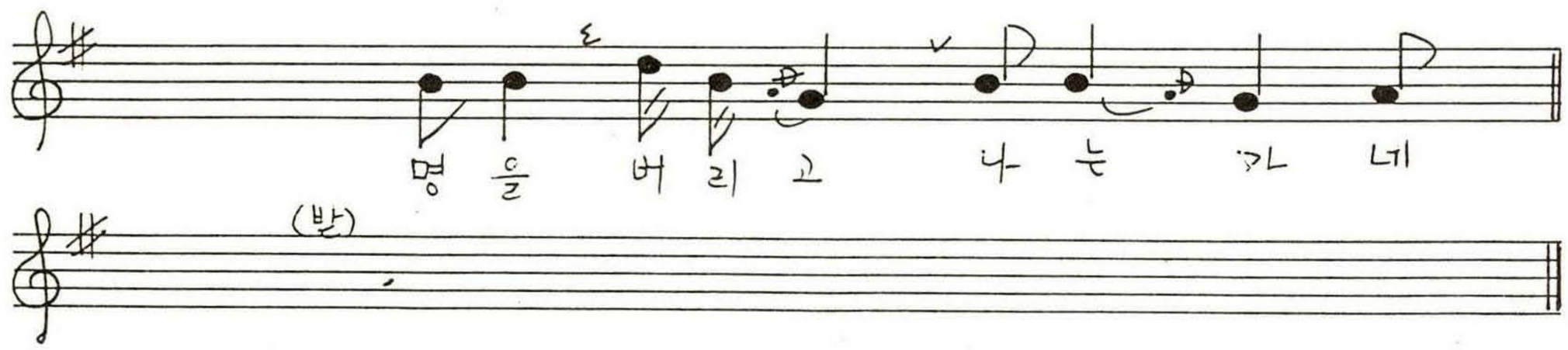
(메) 오 호 호 - 호

호 호 - 호 - 하 -

(받) 에 헤 이 어 화

에 헤 이 어 화 -

(메) 간 다 간 다 나 는 간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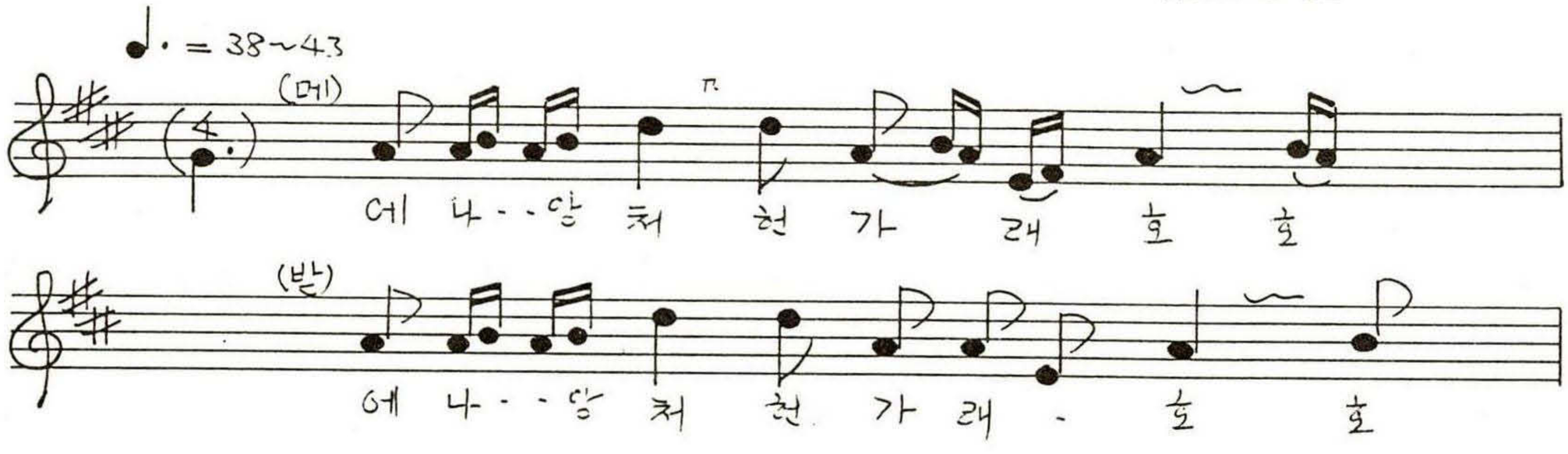


(메) ○ 내가 가면 아주가나
아주 간들 잊을소냐
○ 용관대관 본을받아
임금님께 급간하고
○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자
○ 배고픈이 밥을주어
기사공덕 하였더냐
○ 목마른이 물을주어
급수공덕 하였던가
○ 짚은물에 다리놓아
월천공덕 하였더냐
○ 에허 허호, 오호여 허하
○ 병든사람 약을 주어
활인공덕 하였더냐
○ 높은산에 불당지어
중생공덕 하였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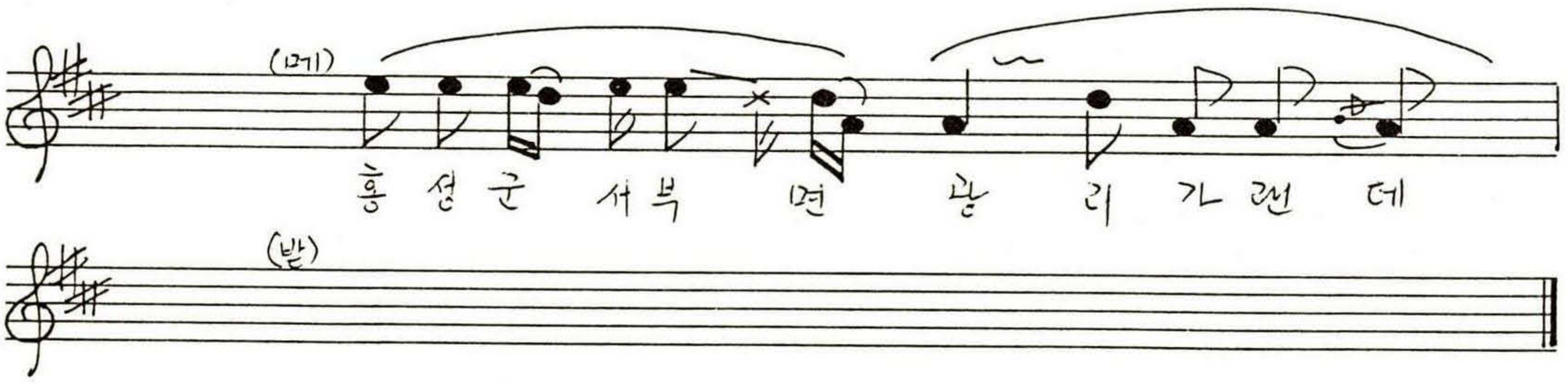
〈홍주 226〉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가 래

(메)엄대섭(1928.남.土民)
(받)박동식(1938.남.土民)
素94-3-12③A



(메) 그 너 가래, 뉘가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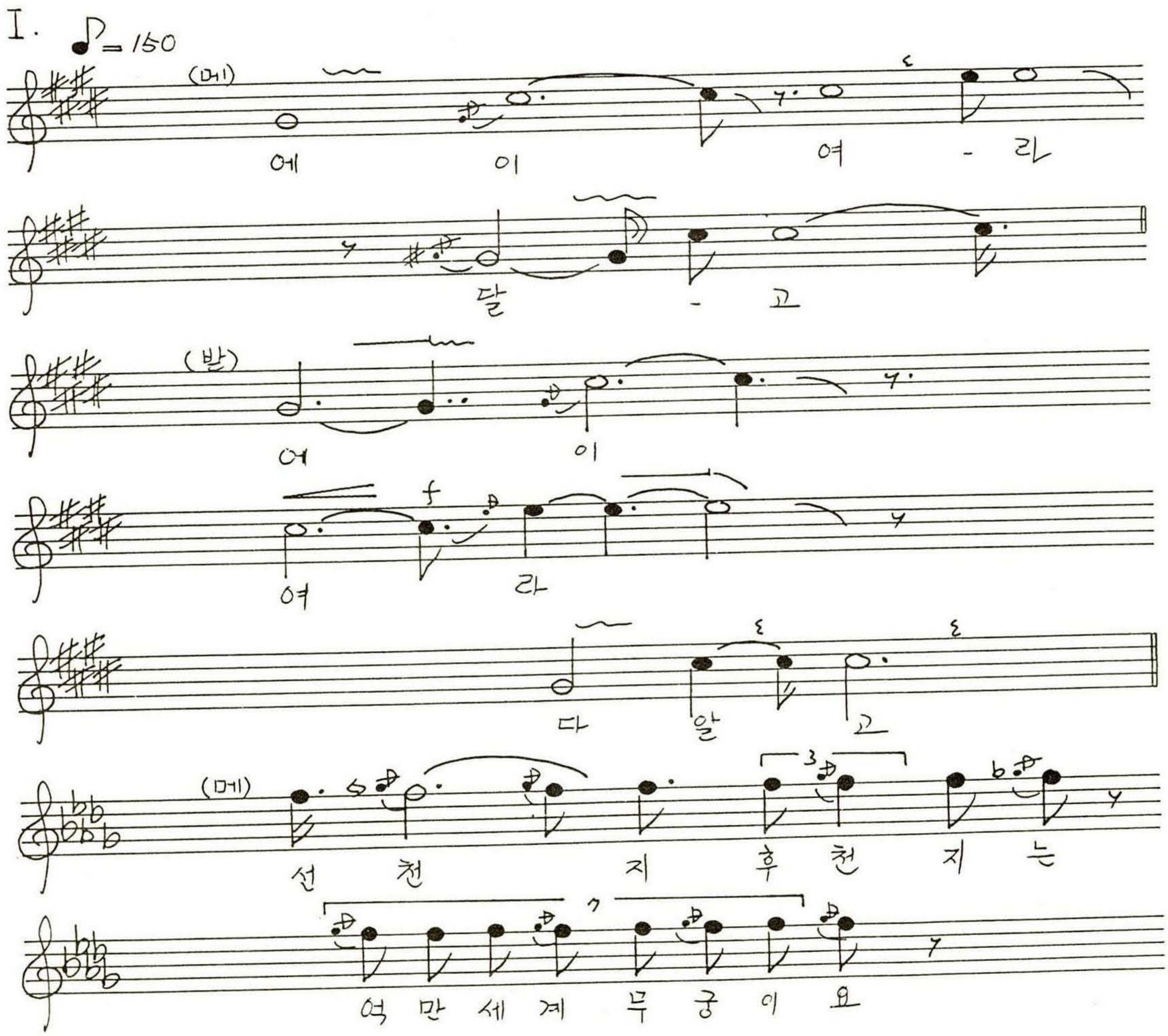
(메) ○ 일심동력 힘을 다 모아서 /
○ 하날일을 하여를 봅시다
○ 명사십리 해동화야
○ 꽃진다 잎진다 서러를 말고
○ 성장중일 더운 날에
○ 너는 다시 피련마는
○ 우리인생 한번가면
○ 다시오기 어려웁네
○ 에 낭천 가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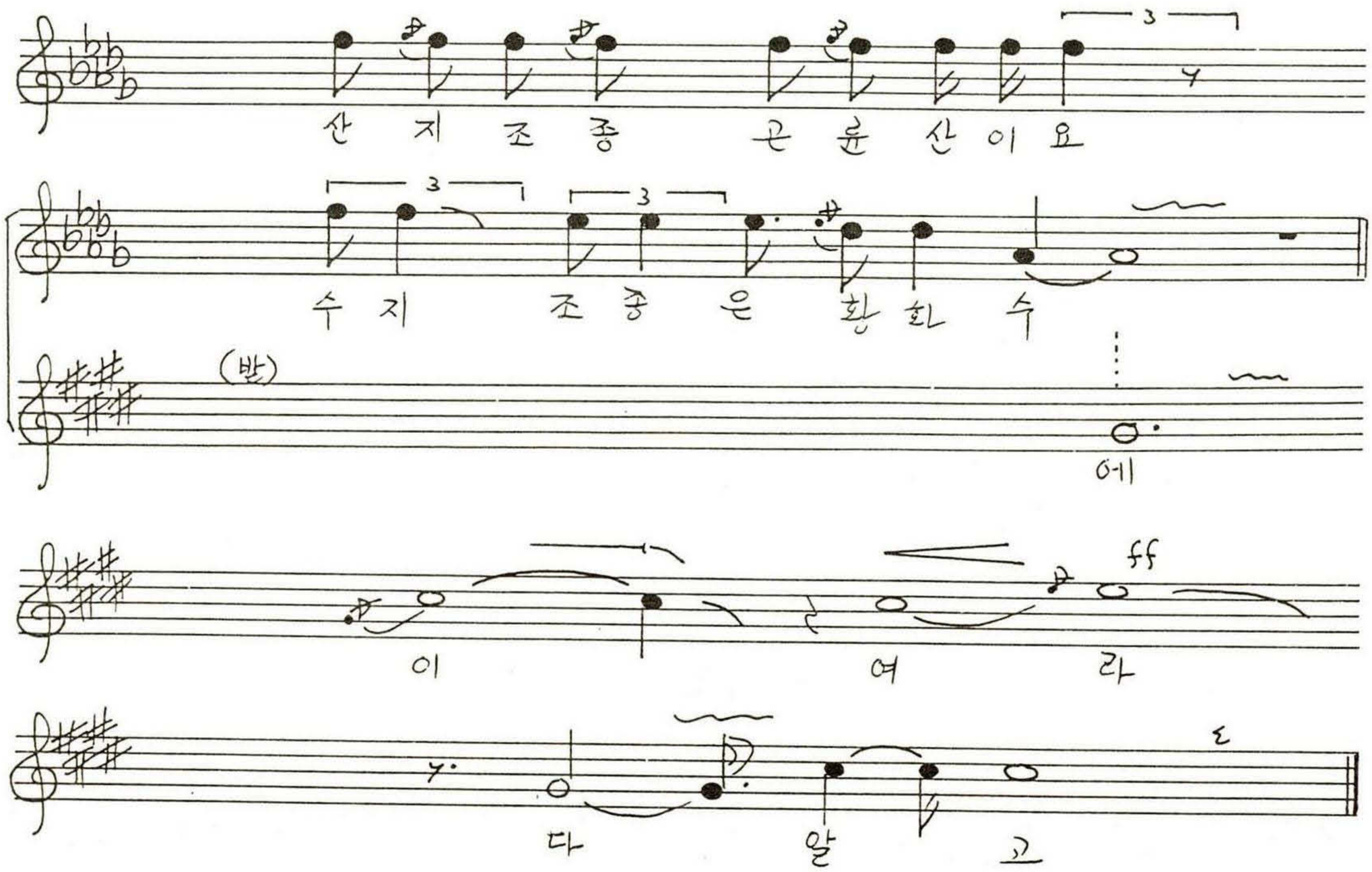
○ 산은 첩첩 천봉이라도
○ 높고 얕은걸 분별을 하는데
○ 우리인생 죽엄네는
○ 어느 누가 알을 소냐
○ 어지오늘 성턴몸이
○ 저녁나절 병이드니
○ 부르나니 어머니요
○ 찾느니 냉수로다

〈홍주 227〉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Ⅰ. 긴달고
Ⅱ. 잦은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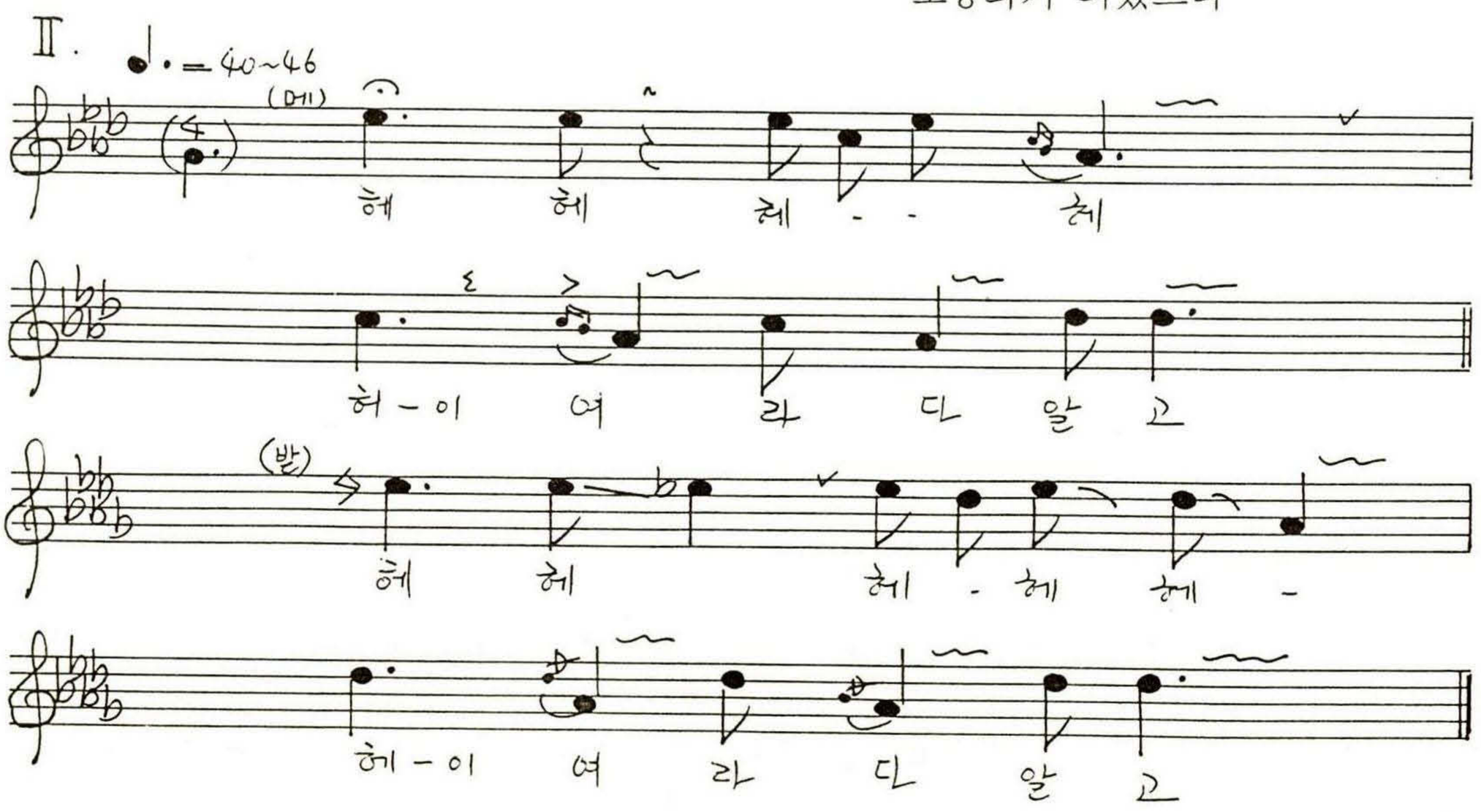
(메)박동식
(받)엄대섭
(素)94-3-12③A





(메) ○ 곤륜산 일지맥이 조선이 생겼으니
백두산은 주산이요
한라산은 서안이요
두만강은 청룡이요
압록강은 백호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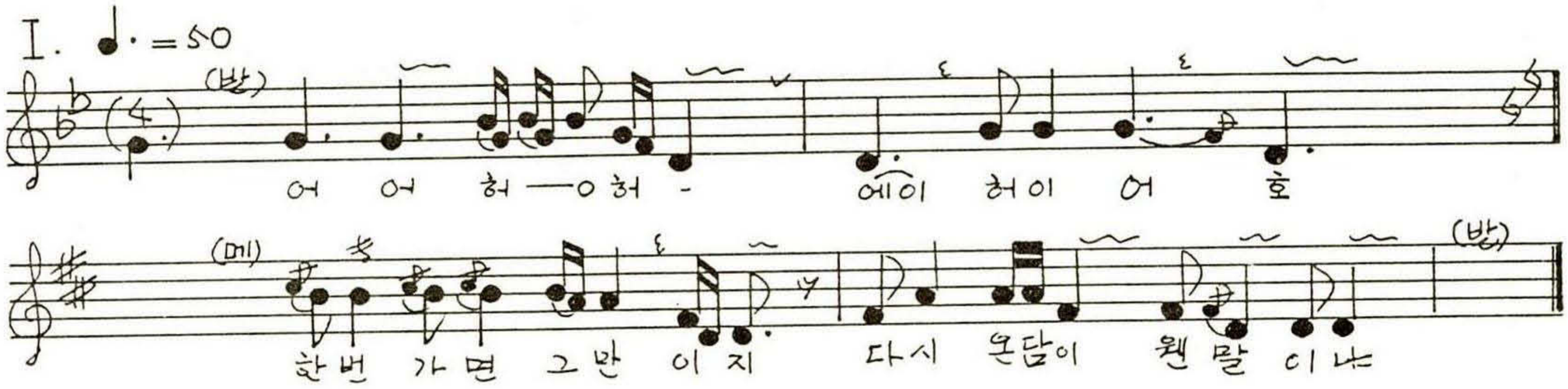
○ 혼연히 개벽후에
별계는 내렸으니
치세도 좋거니와
풍경은 더욱 좋아
문문이 밝았으니
소중화가 되였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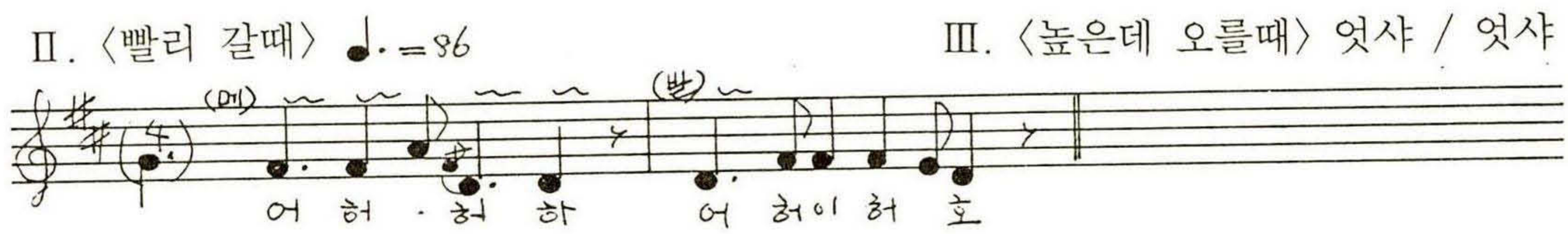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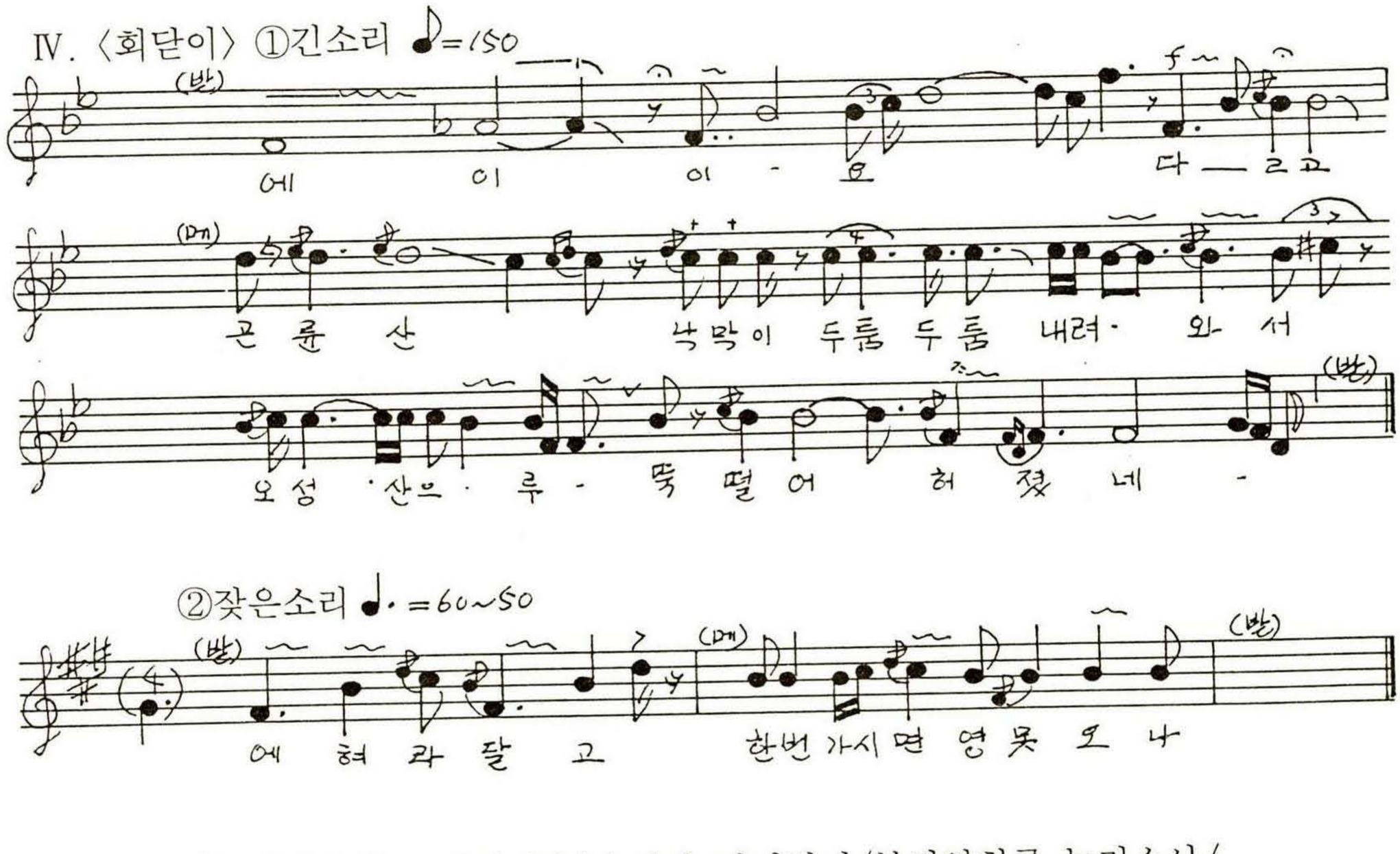
〈홍주 228〉 홍성군 장곡면 가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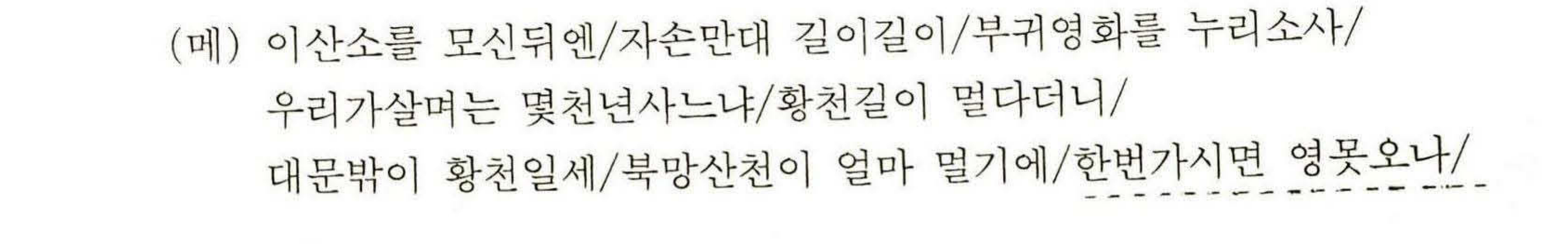
상 여 소 리

우준(1940.남.土民)唱
素87-3-30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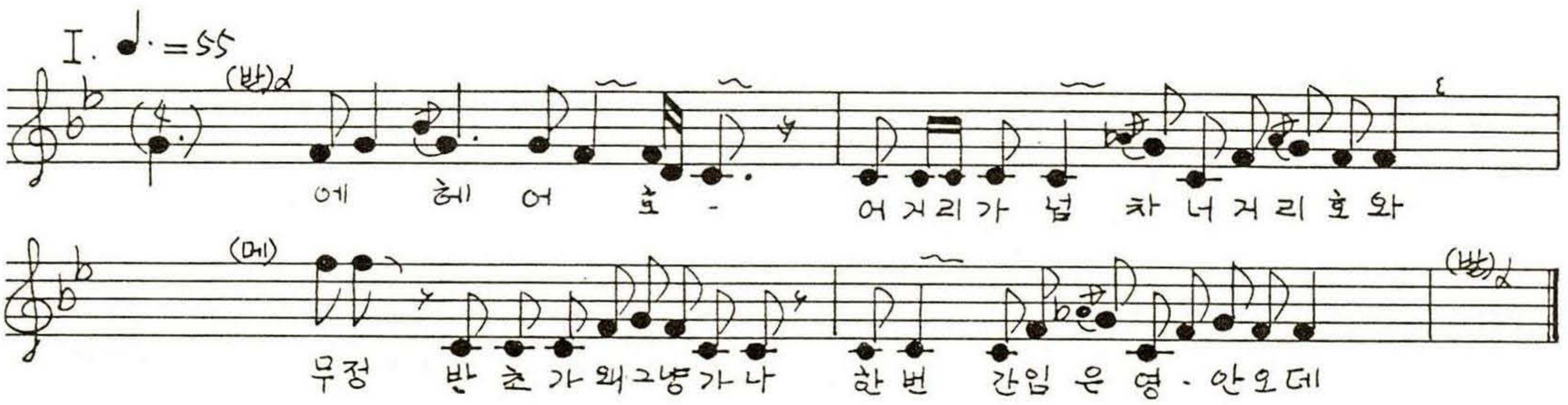


(메) 이산소를 모신뒤엔/자손만대 길이길이/부귀영화를 누리소사/
우리가살며는 몇천년사느냐/황천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황천일세/북망산천이 얼마 멀기에/한번가시면 영못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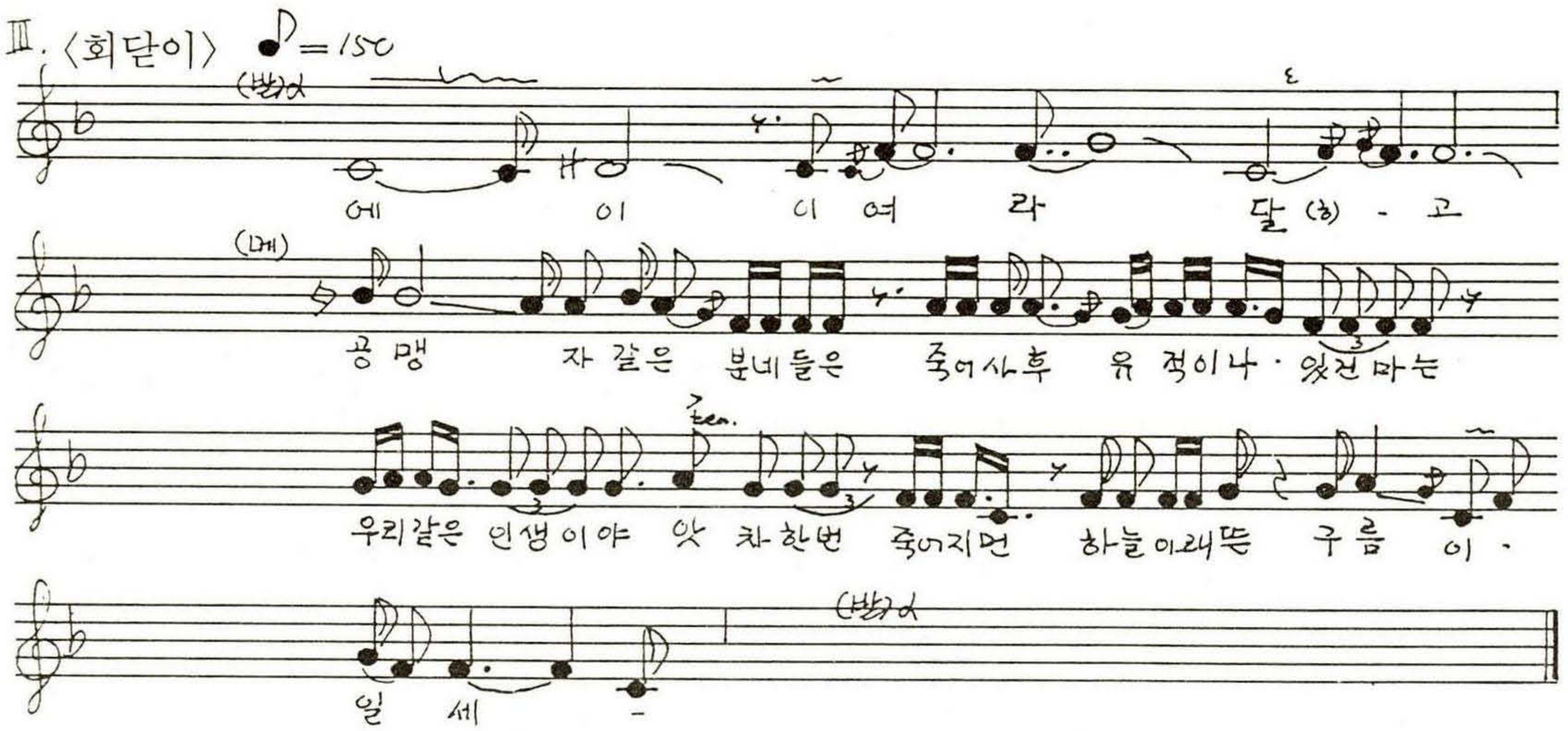
〈홍주 229〉 홍성군 결성면 형산리

상 여 소 리

김용세(1928.남.土民)唱
素86-3-25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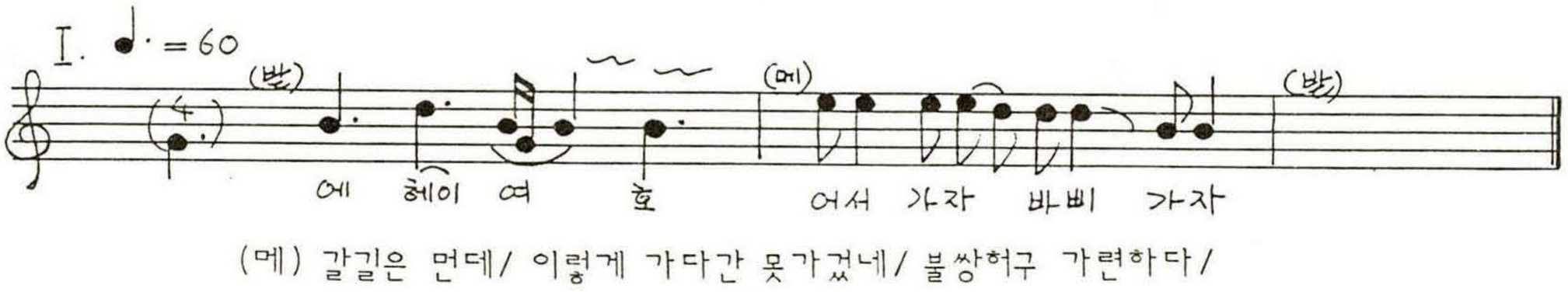
Ⅱ. 〈가파른데〉 윗차 윗차 /



〈홍주 230〉 홍성군 은하면 목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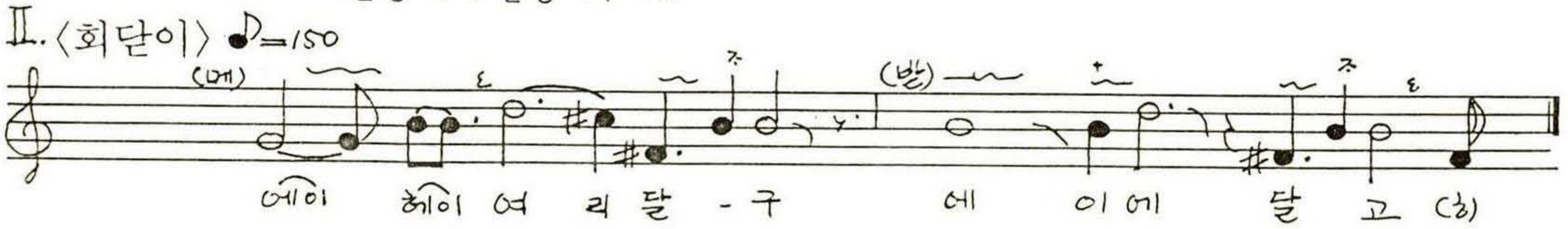
상 여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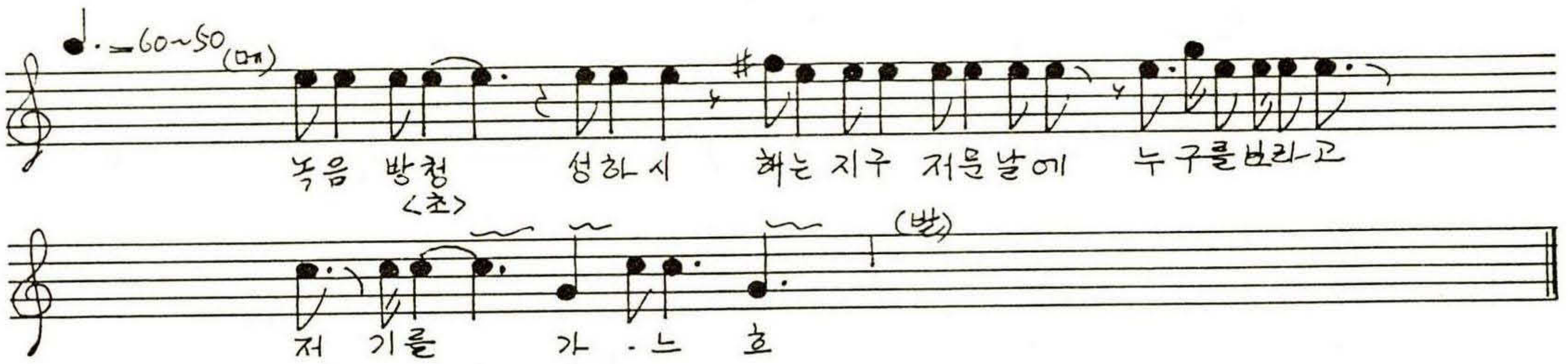
오정산(1921.남.土民)唱
素87-3-30②B



(메) 갈길은 먼데/ 이렇게 가다간 못가겠네/ 불쌍허구 가련하다/

어린상제가 불쌍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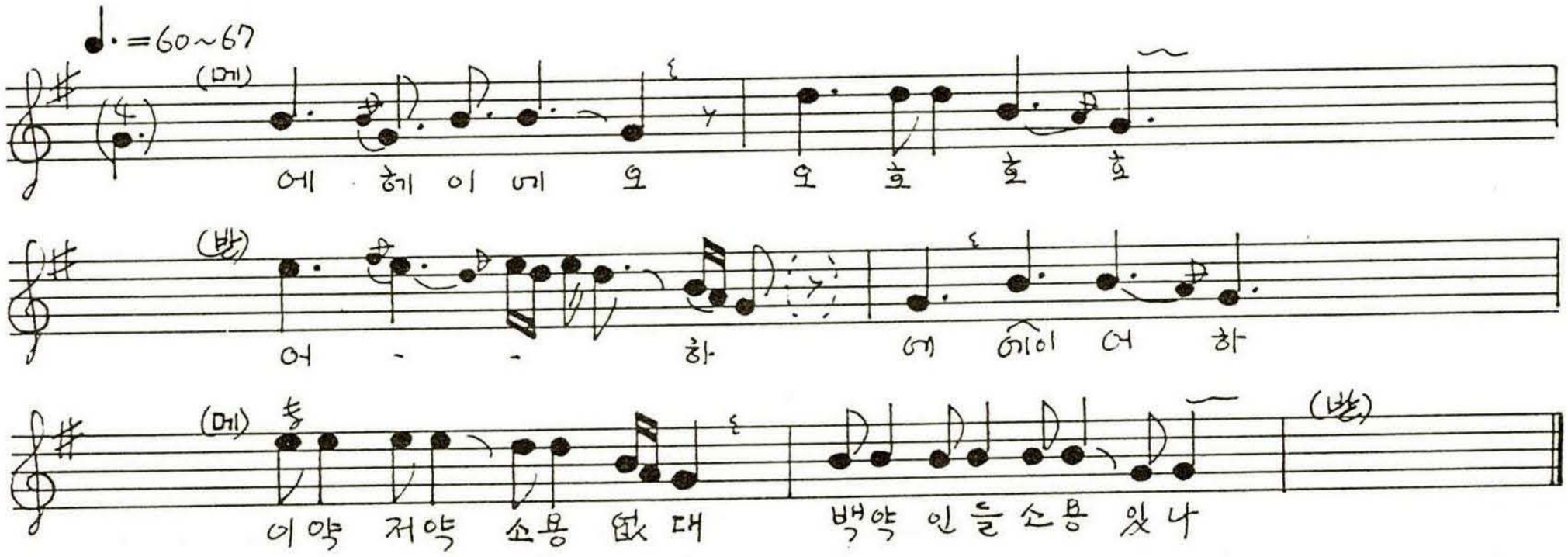


(메) 중부 계룡산서부텀 강원도로 썩들어와 제주도까지 가보니 잡을자리가 정말없네/
계룡산서 하루저녁 쉬어가지고 충청도로 썩들어서니 계룡산만한디도 정말없구나/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우리네인생은 한번죽으면 고만일세/
해는지고 저문날에 옷갓을 하고가느니 이게 웬일이더냐/

〈홍주 231〉 홍성군 홍북면 석택리

상 여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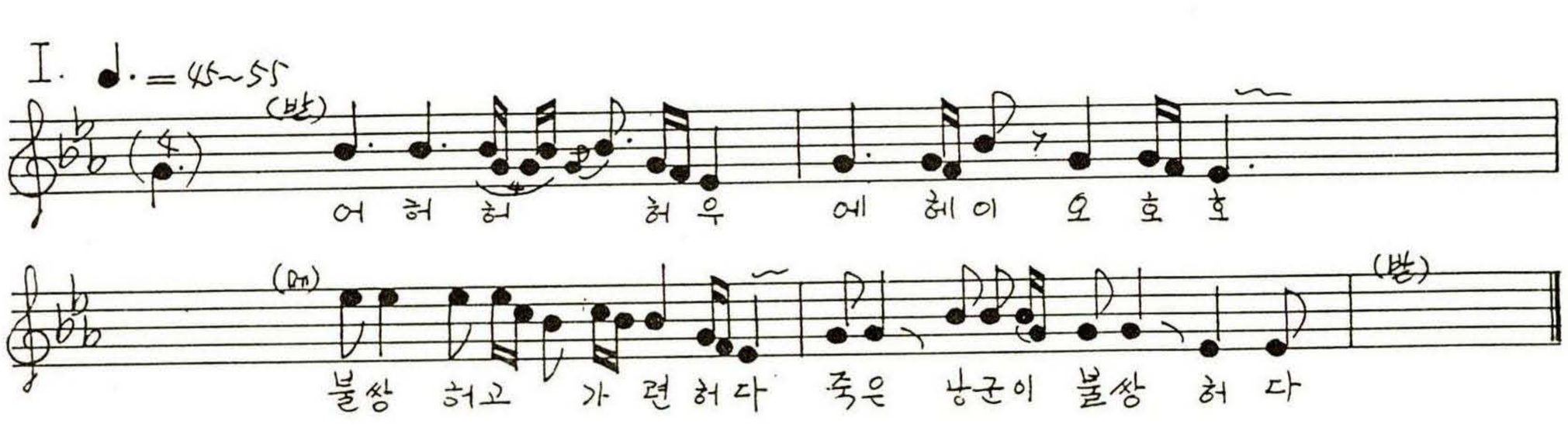
(메)김세원 (받)최인석
素87-3-30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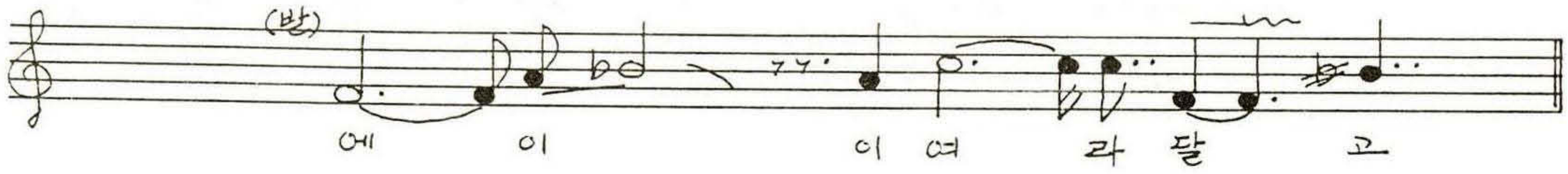
〈홍주 232〉 홍성군 홍성군 운월리

상 여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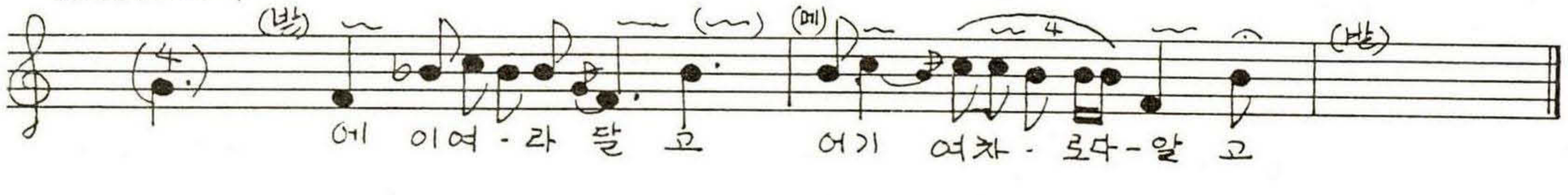
주정순(1927.남.土民)唱
素87-4-17A



Ⅱ. 〈회닫이〉 ♪=150 ①긴소리



②잦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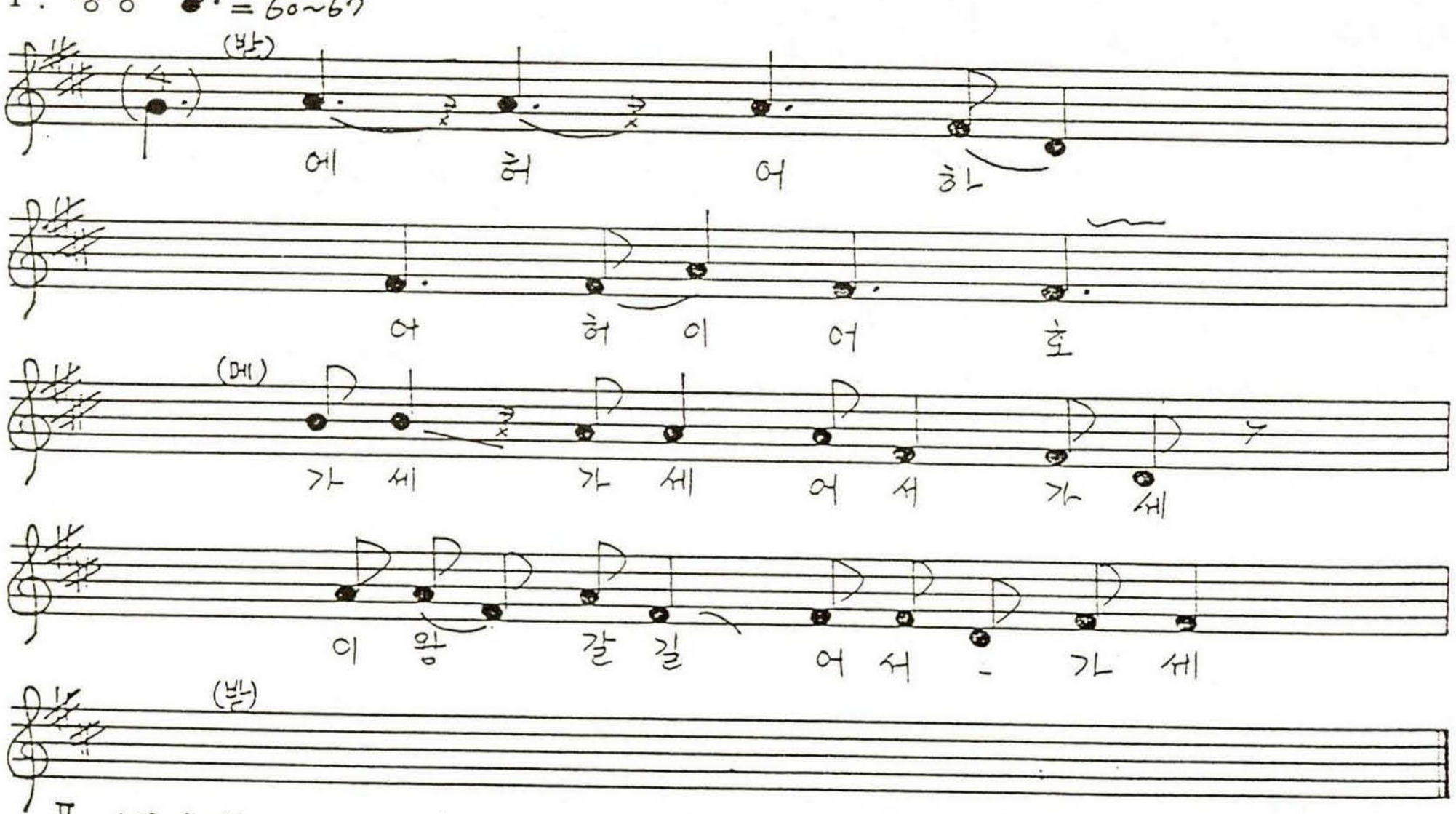
(메) 여기저기 콩콩 눌러라/요기조기 잘도 밟어라/
자손만대 부귀영화/누릴명당이 이 아닌가/

〈홍주 233〉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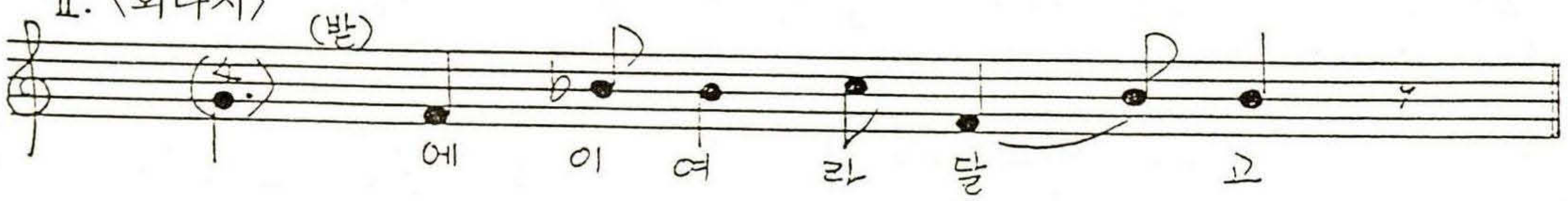
상 부 소 리

(메)김형안
(받)정철규
素 90-2-1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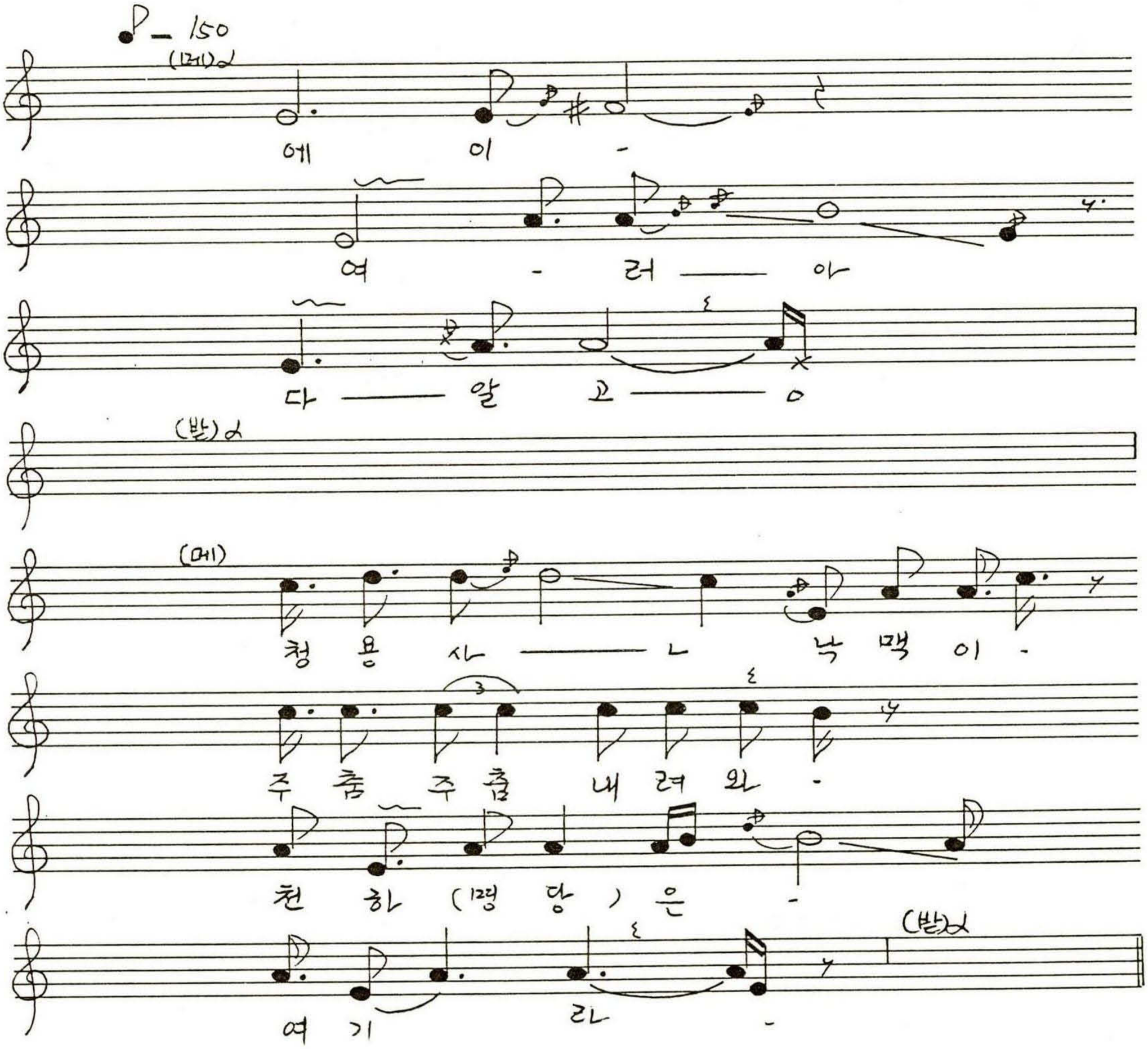
Ⅰ. 행상 ♩.=60~67



Ⅱ. 〈회다지〉



〈홍주 234〉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회 다 지** 최광순(89-11-28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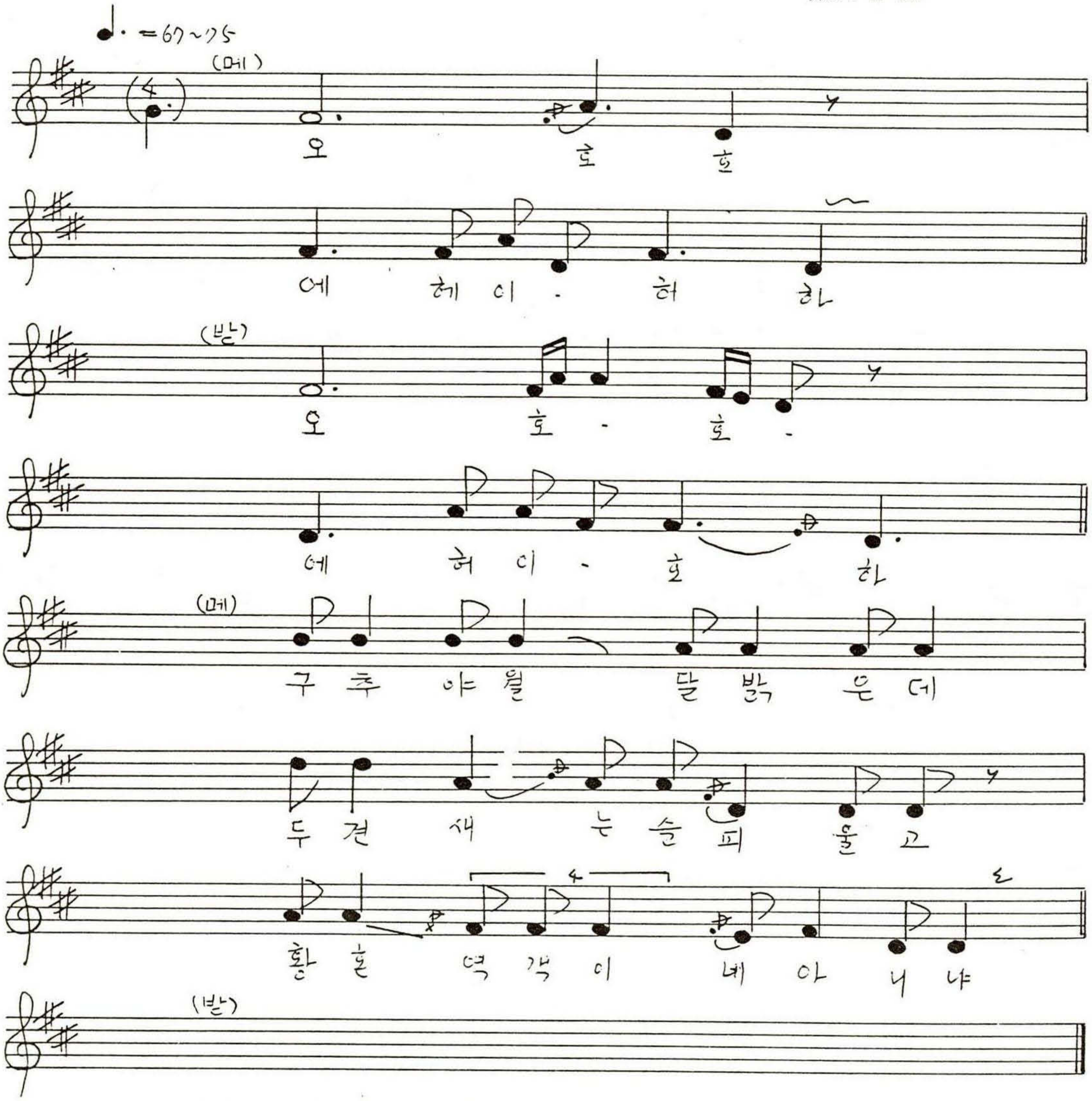


(메) 계명산 추야월(에) 좌향을 살펴보니
옥통소 슬피불어 대지가 분명하고
상주님들 곡성소리 전후좌우 둘러보니
산천초목 슬퍼하고 노적봉이 분명하고
호상오신 여러손님 앞산을 바라보니
눈물지어 강수가 되느니 문필봉이 분명하네

〈홍주 235〉 홍성군 금마면
월암. 봉서

행 상

(메)최병현(1921.남.월암土民)
(받)박종서(1925.남.봉서土民)
素94-3-12[A]



(메) ○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이라
○ 이승질을 떠나가면
어느천년에 돌아오나
○ 상춘화류 번화시에
해당화도 피었건만
우리인생 죽어지면
다시 살기는 어렵도다

〈홍주 236〉 홍성군 금마면

Ⅰ. 긴달고
Ⅱ. 잦은달고

(메)최병현
(받)박종서
素94-3-12[B]

Ⅰ. ♪= 150

(메) ○ 산지지중은 곤륜산이요 수지지중은 황해순데,
곤륜산 명기가 뚝떨어져, 한국을 좀 구경하고싶어
슬쩍건너올적에 압록강을 건너와
백두산에와 기봉해 있데이 -

○ 백두산~ 상봉에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백두산 상봉리 팔십림 등용에 못이 있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는건 두만강이요
서쪽으로 흘러가는건 압록강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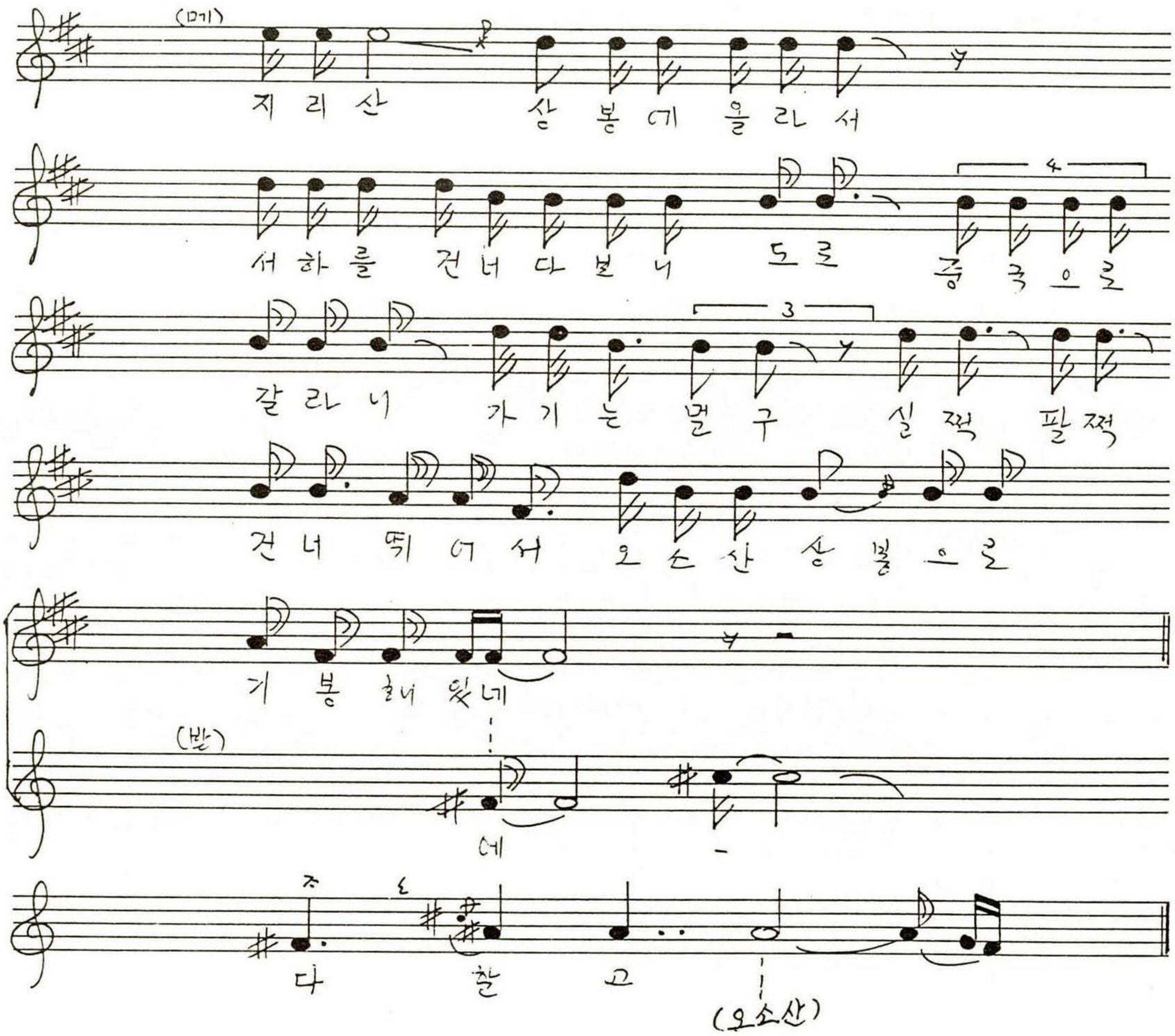
○ 그산 명기를 백두산에서 슬쭉 건너서,
태백산으로 한줄기 내려가고
한줄기는 어드로 온고허니 평안도 묘향산으로
건너서 있네-

○ 묘향산 상봉에 올라 앉어 슬쭉이 살펴보니
이수중분 백로주로
슬쭉 물이 갈라져있고, 슬쭉 건너서
서울터를 잡을적에 삼각산에와 기봉해 있네

○ 삼각산 상봉에 올라가 쳐다보니
청와대 뒷산이 주산이요, 북악산은 백호요
왕십리는 청룡이요. 안산은 남산인데
한강을 둘렀으니 가히 오백년 도읍지지가 아닐소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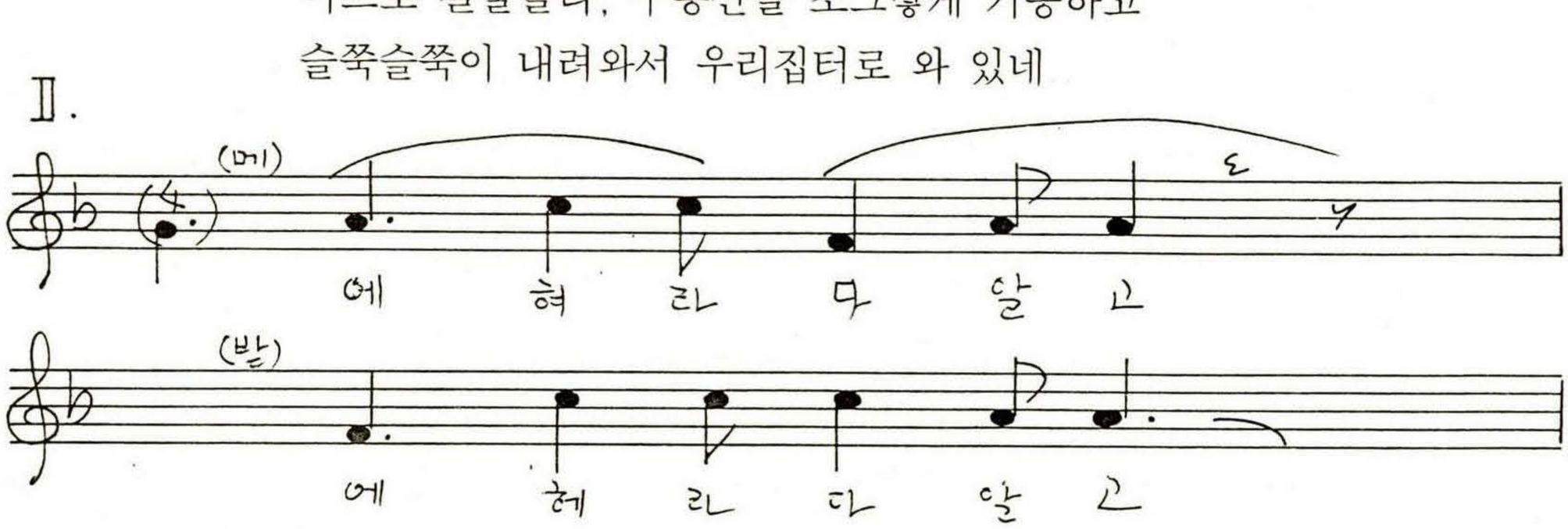
○ 그산 명기가 뚝떨어져 어드로 갈줄 모르다가
충청도로 들어설제 계룡산으로 들어갈제
8백년 도읍지지가 분명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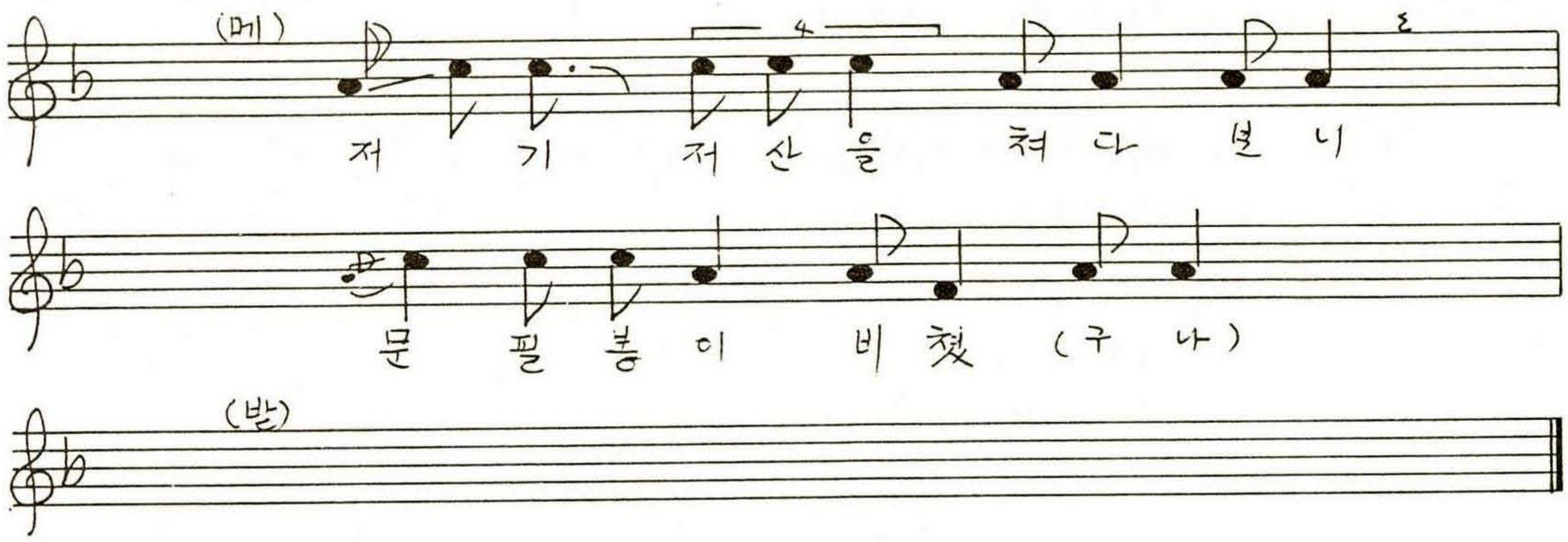
○ 그산명기가 뚝떨어져 또 어드로갈줄 모르다가
슬쭉 건너뛰어서, 전라도지리산 하루 갈적에
천년 도읍지지가 분명허다



(메) ○ 오소산에 와 앉어 슬쭉 쳐다보니
이루저루 살펴볼 적에 슬쭉
봉서산으로 건너서 와있네
○ 봉서산 상봉에 올러 사방을 둘러보니
어드로 갈줄몰라, 구룡산을 조그맣게 거동하고
슬쭉슬쭉이 내려와서 우리집터로 와 있네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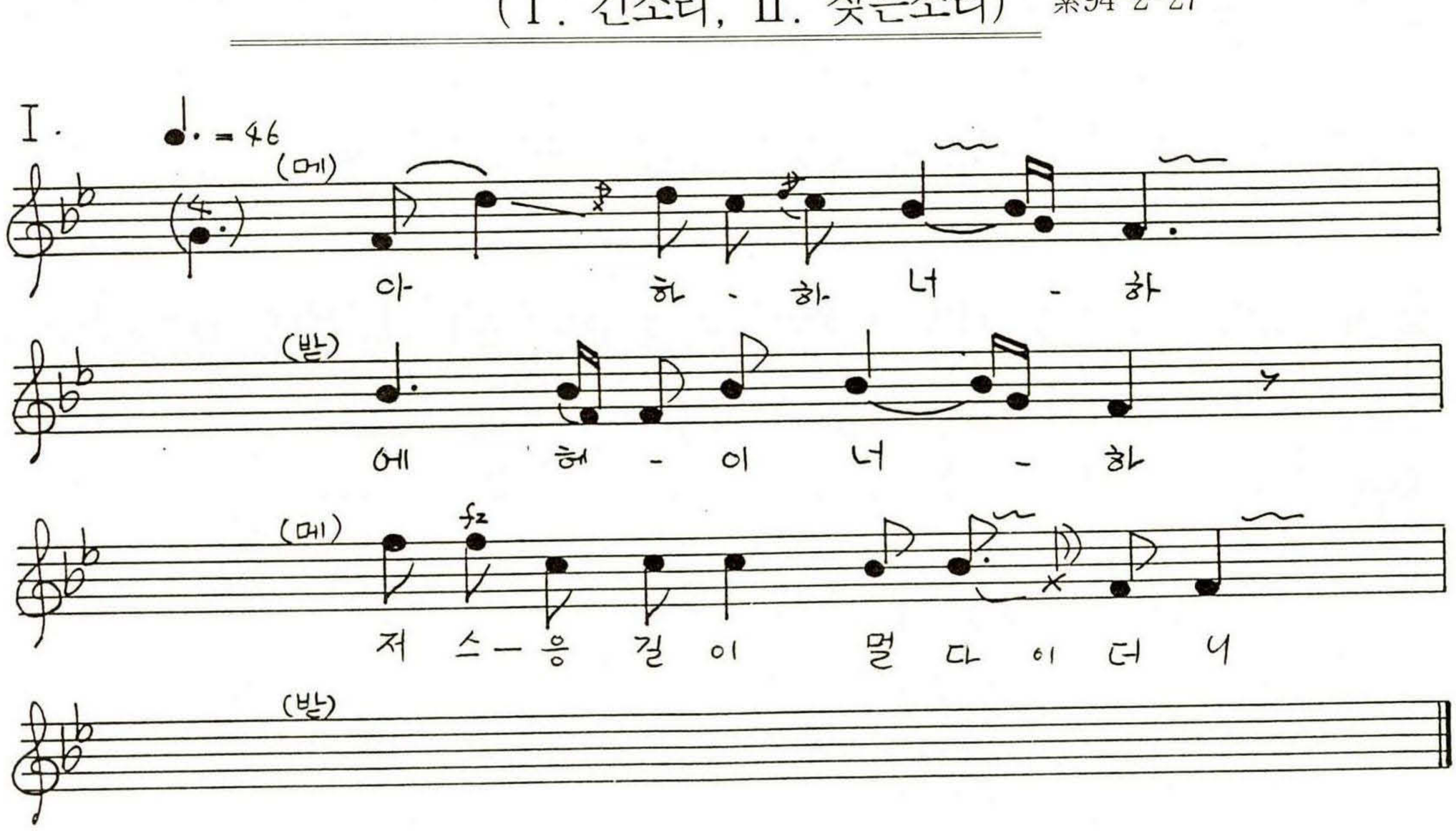




(메) ○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날 봉이요
○ 만인갑묘 을친손사
병오정미 (임)신 계유
이십사방을 둘러보니
못쓸봉이 하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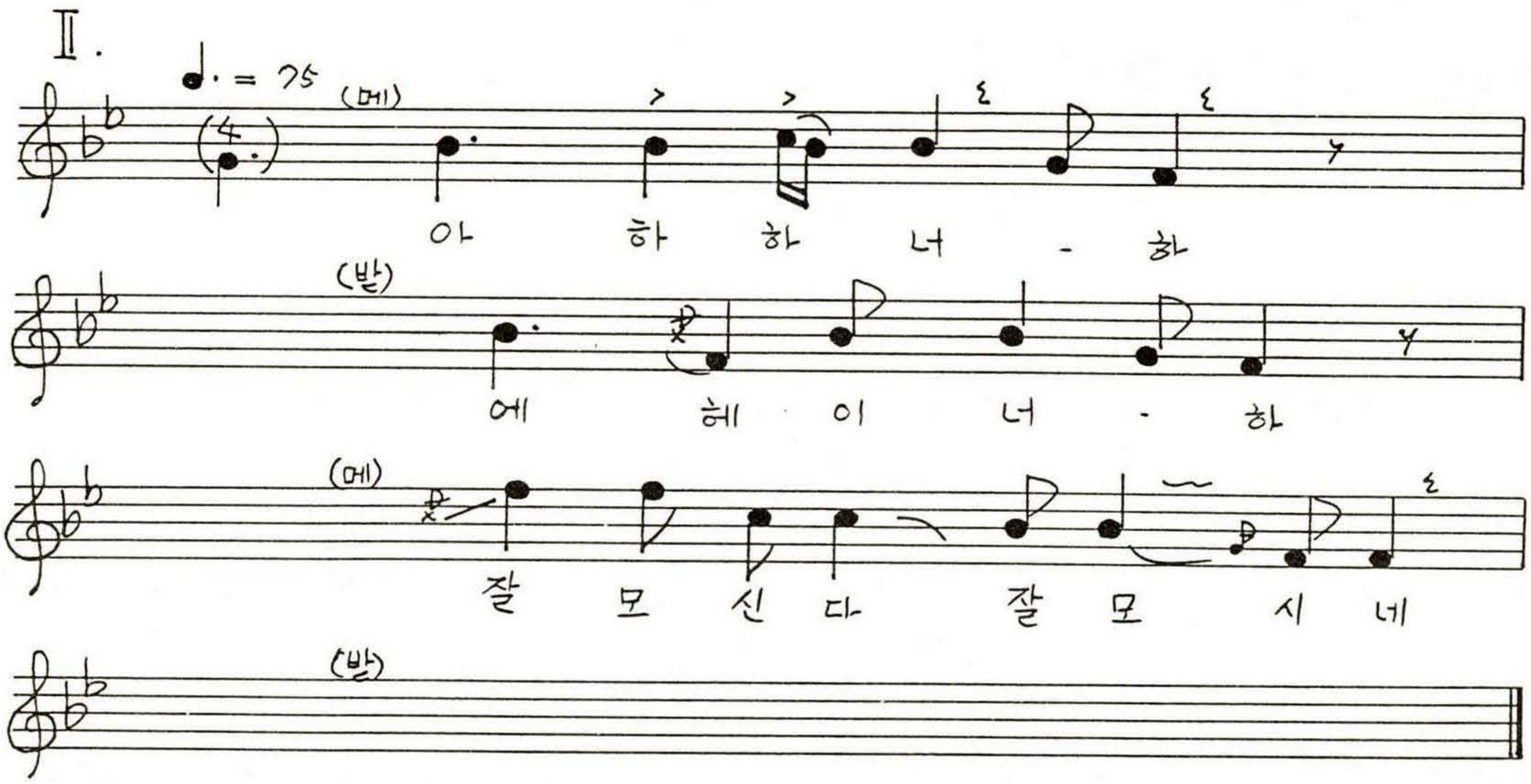
〈홍주 237〉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행** **상** (메)고복근 (받)윤민식,이능세,공철영 素94-2-27

(Ⅰ. 긴소리, Ⅱ. 잦은소리)



(메) ○ 대문밖이가 저승일세
○ 아하하 너하
○ 옆으로 보니 갓상주요
○ 앞으로 보니 영정공포

○ 뒤로 보니 어린상제
○ 아하하 너 하
○ 어서가요 어서가요
○ 발맞춰라 발맞춰요
○ 우리군중 발맞춰요
○ 아하하 너하
○ 잘 모신다 잘 모시네
○ 아하하 너하
○ 불쌍하다 불쌍하다
○ 아하하 너하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인제가면 언제 오나
○ 내년 이때 오는 날짜
○ 아하하 너하



(메) ○ 아하하 너하
○ 니가 간다고 아주갔나
○ 내년이때 오는 날짜
○ 아하하 너하
○ 저승길이 멀다더니
○ 대문밖이가 저승일세
○ 오 호하 너하
○ 아하하 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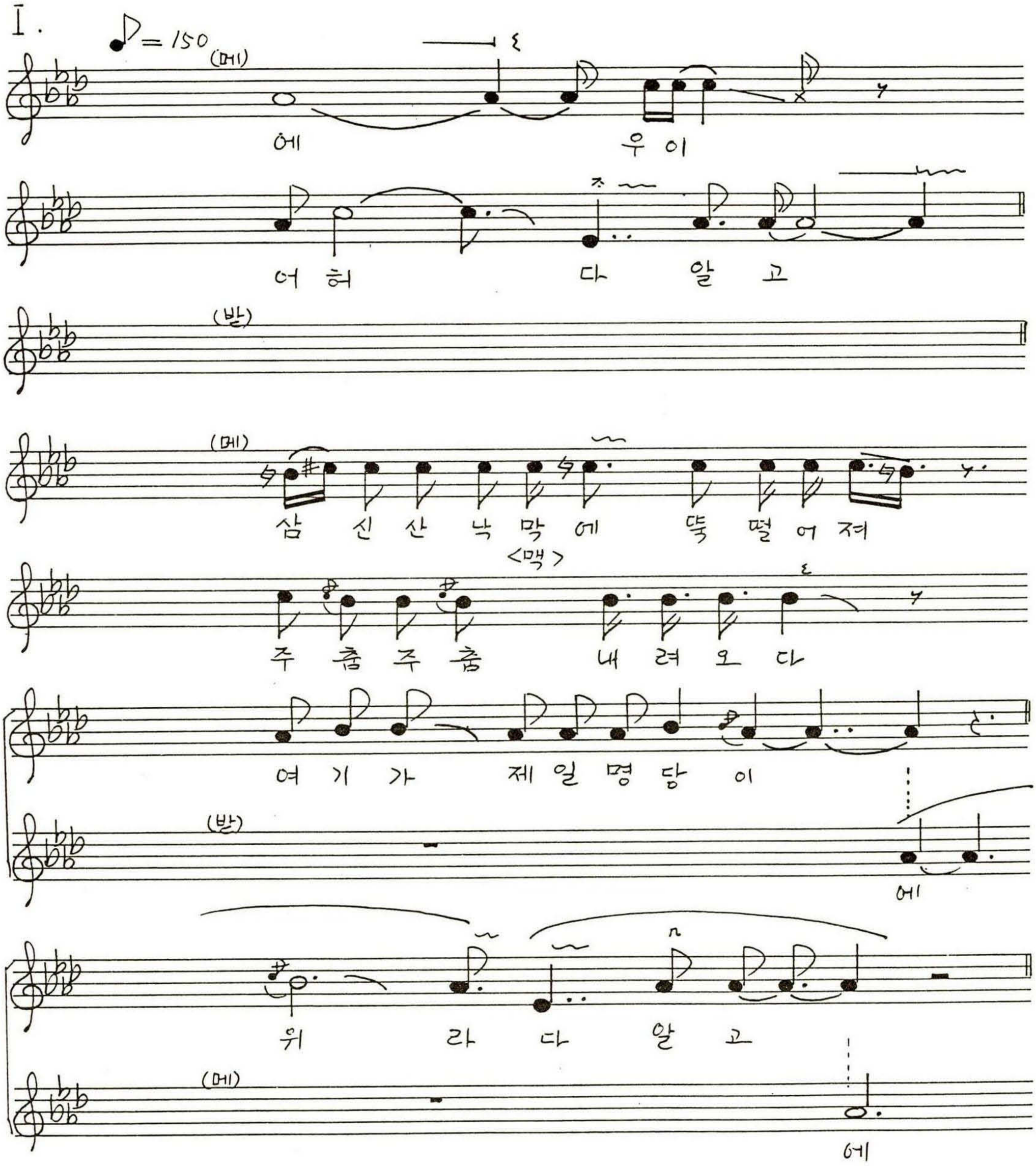
〈홍주 238〉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달 고

(Ⅰ. 긴소리, Ⅱ. 잦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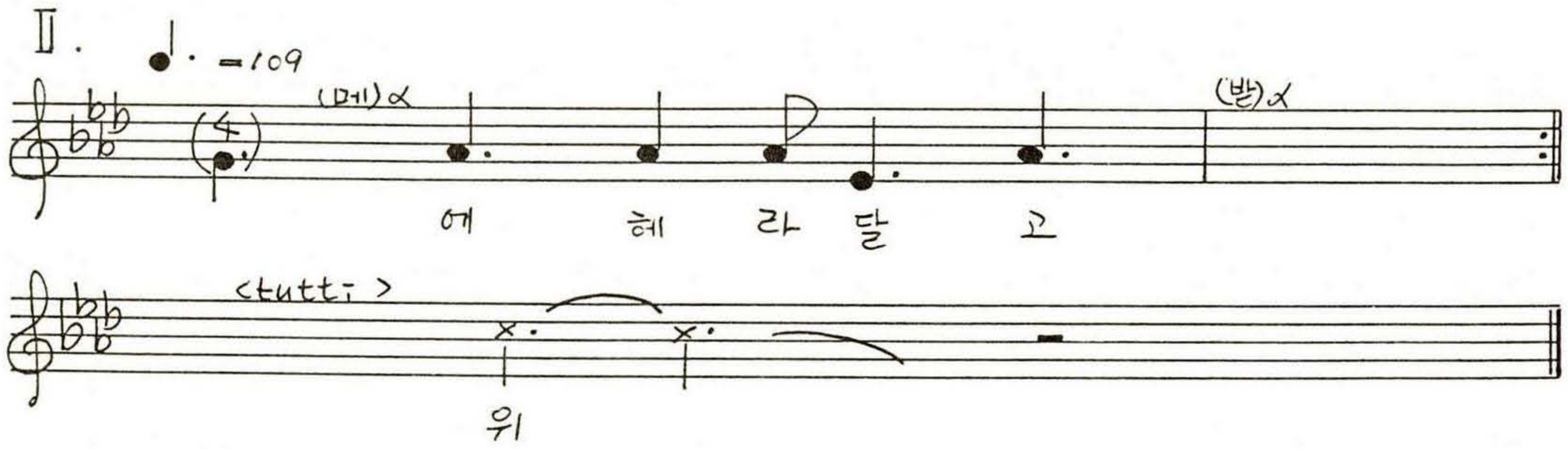
(메)공철영
(받)윤민식,고복근
素94-2-27③A

Ⅰ.



위 - 어허 - 다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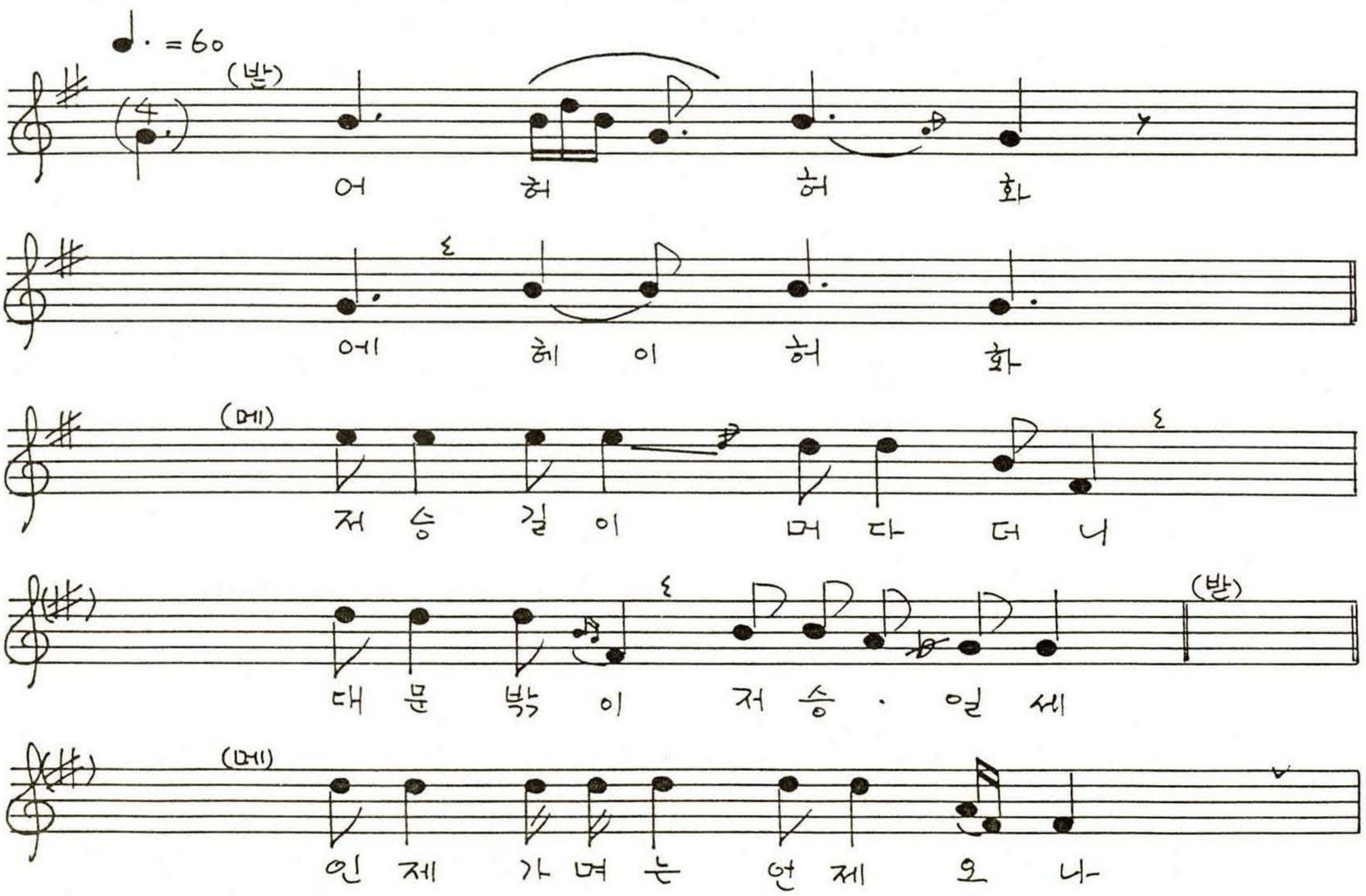
(메) ○ 이 성국이 무슨 성국이냐, 목마른 사슴이
〈형국〉
물먹는 성국이 에 -
○ 봉황이 알품어 이 성국이 둥지 성국이 에 -
○ 삼치 꽁치 뛰는데 우리네 군중은 왜 못뛰나 에 -
○ 에 위 -, 어허 달고
○ 콩콩 밟어라 회당아소리 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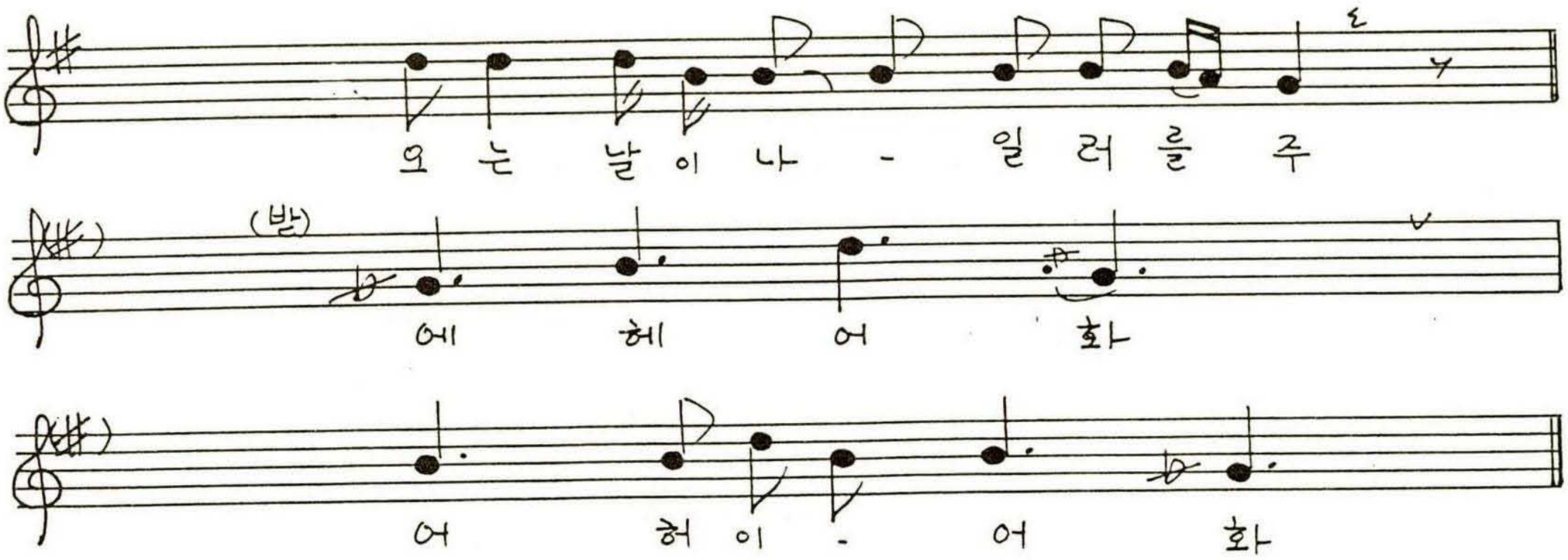


〈홍주 239〉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행 상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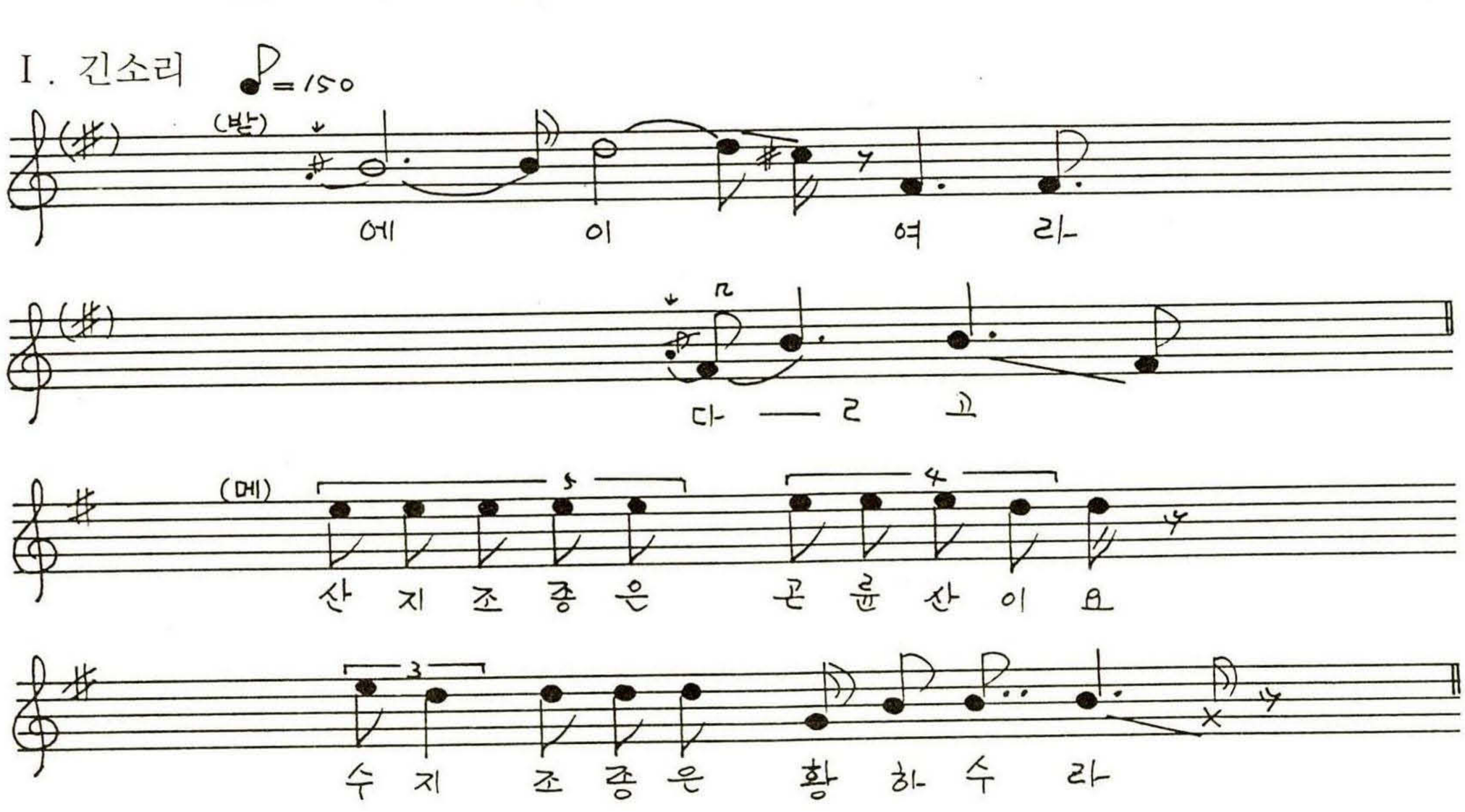
윤봉성(89-11-29②B)





(메) ○ 활등같이 굽은 길로
손빠같이 곧게가네
(가파른데 오를때 : "어샤", "어샤"
상여 내릴 때 : "우여 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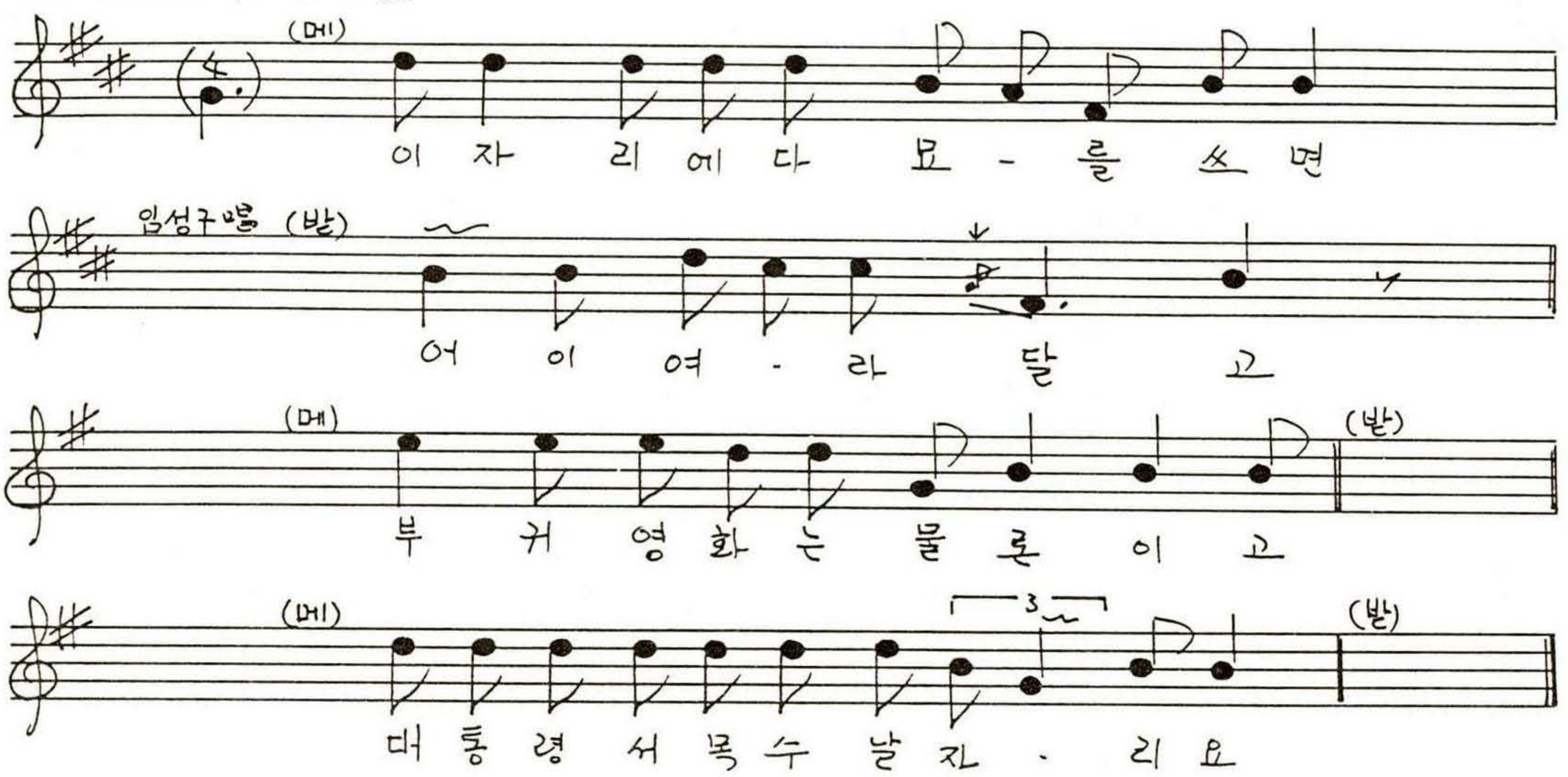
〈홍주 240〉 예산군 삽교읍 / 홍성군 홍북면 **회 다 지** 윤봉성(89-11-29②B)



(메) ○ 곤륜산 낙맥이 뚝떨어져 주춤 주춤 주춤 나려와
어디로 간줄을 몰랐더니 강원도 금강산이 생겼구나
○ 충청도 계룡산 생긴후에 계룡산 뚝떨어져 주춤 주춤 주춤 나려와
오수산 생기구

○ 오수산 낙맥이 주춤 주춤 내려와 예산군 덕산면 대산이 생기구
○ 대산이 생긴후에 남현군산두 뚝떨어져 주춤 주춤 주춤 내려와 간곳을 몰랐더니 홍성군 홍북면 용봉산 생겼구
○ 용봉산 생긴후에(그 낙맥이) 뚝 떨어져 주춤 주춤 주춤 내려와 간곳을 몰랐더니 홍북면 대동리 이 자리와 뚝 떨어졌구나

Ⅱ. 잦은소리 ♩.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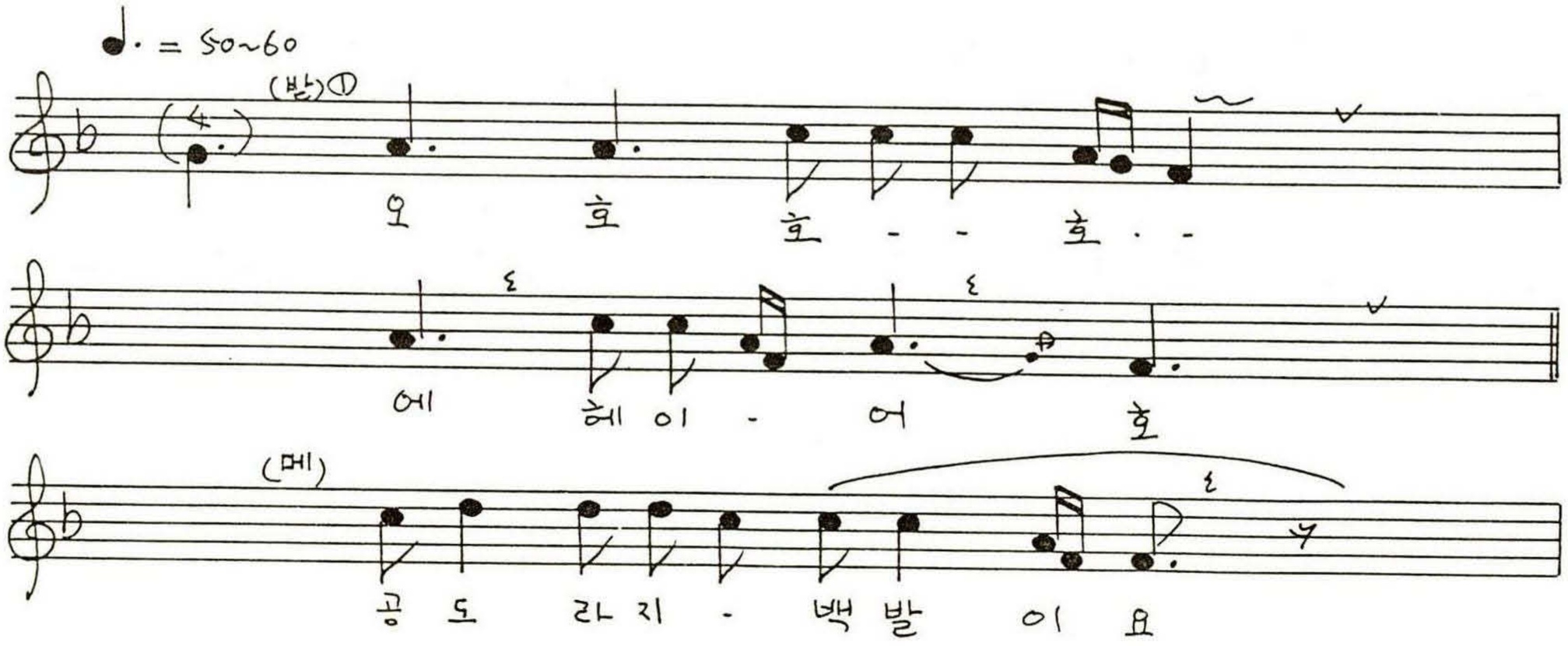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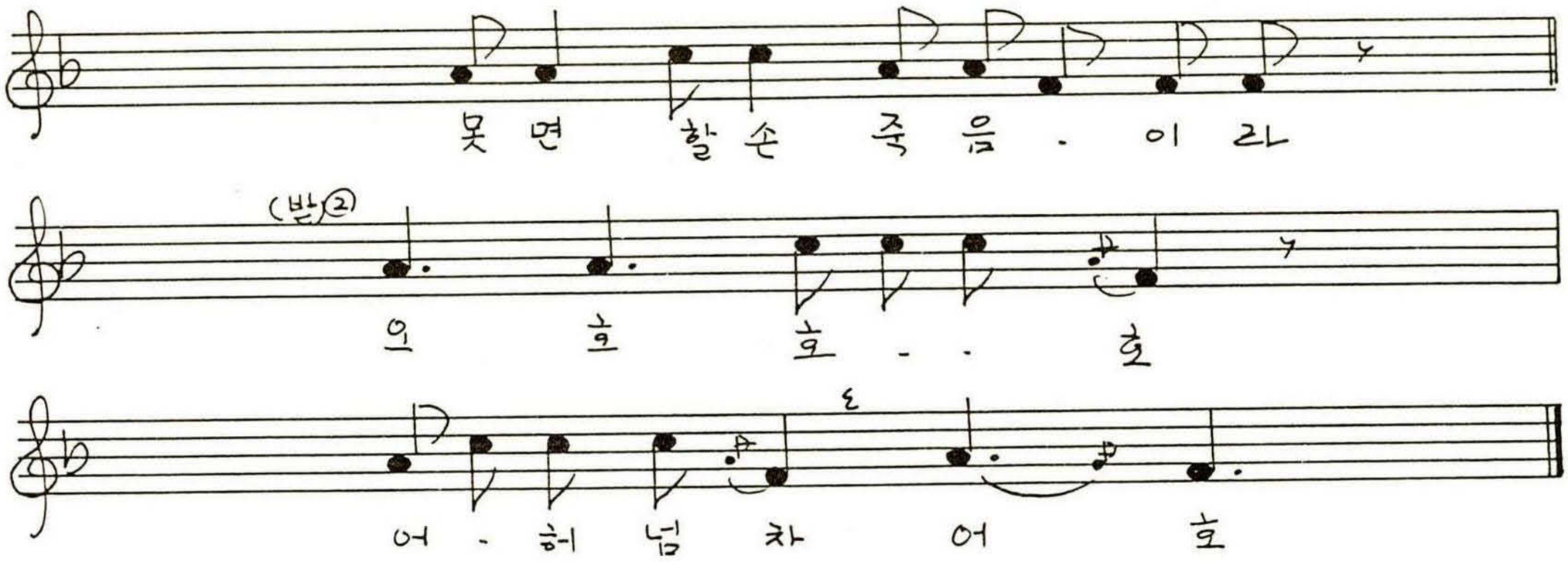
(메) 국회의원도 날자리라

〈홍주 241〉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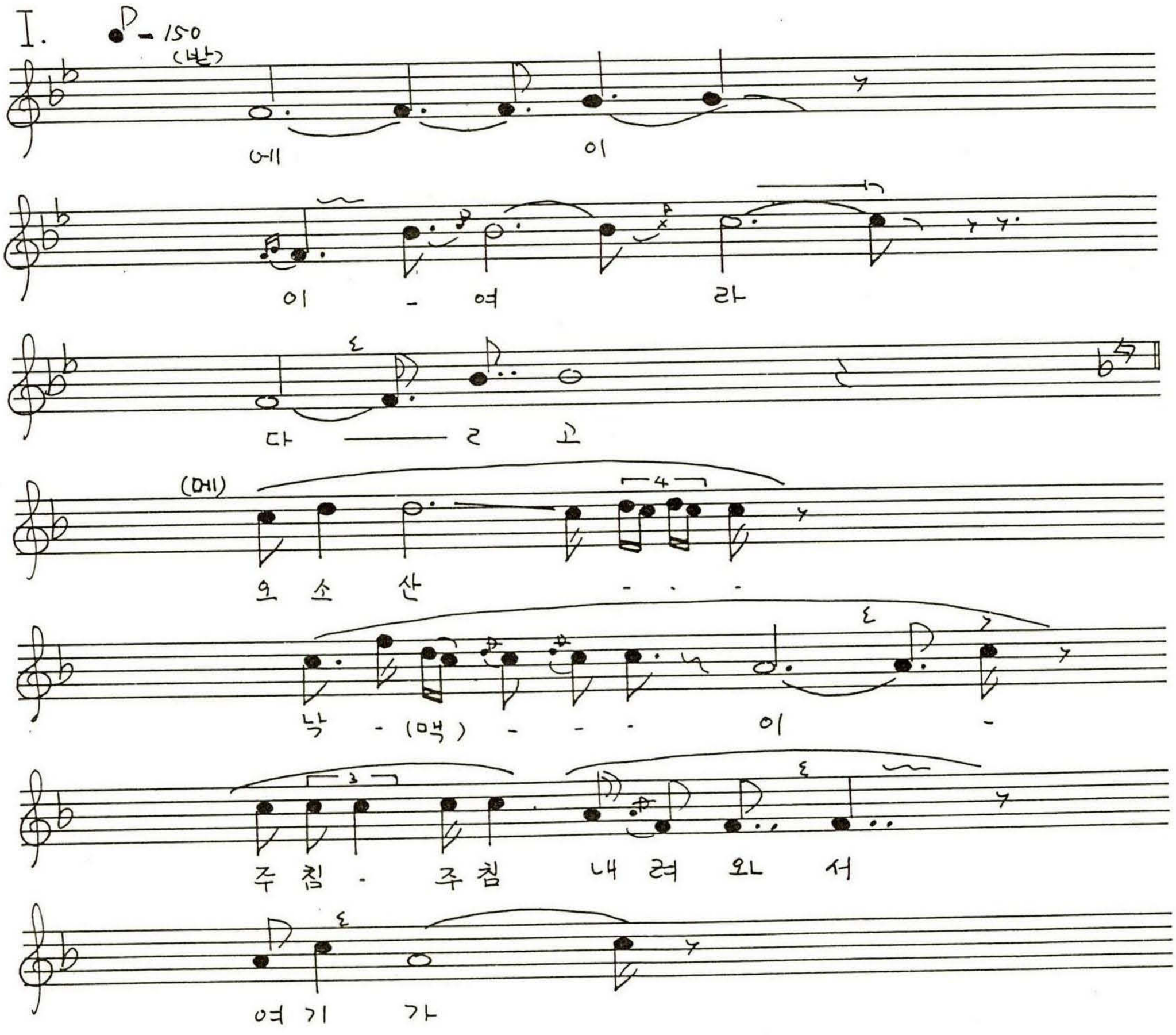
행 상 소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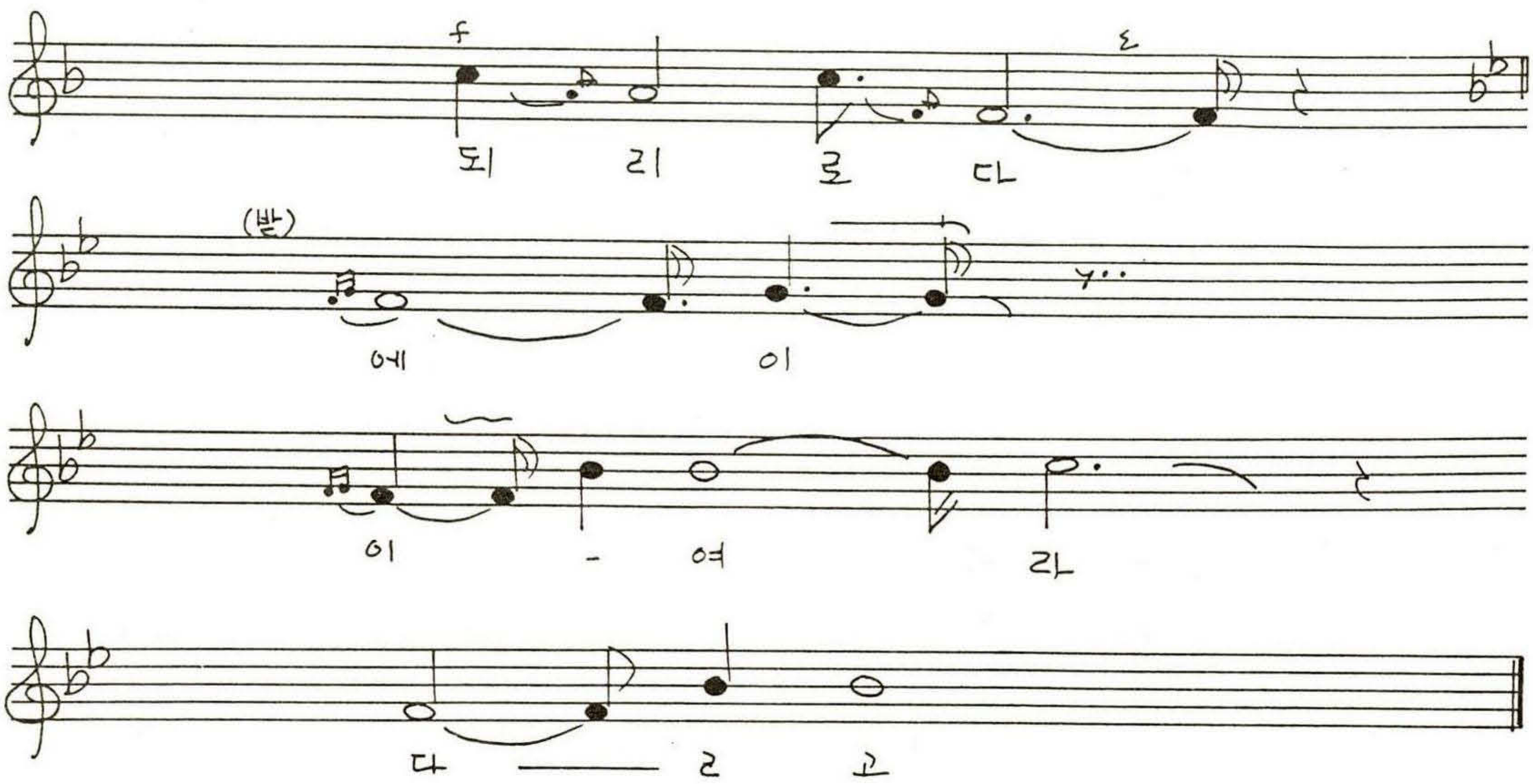
안산옥(1919.남.土民)
素89-11-2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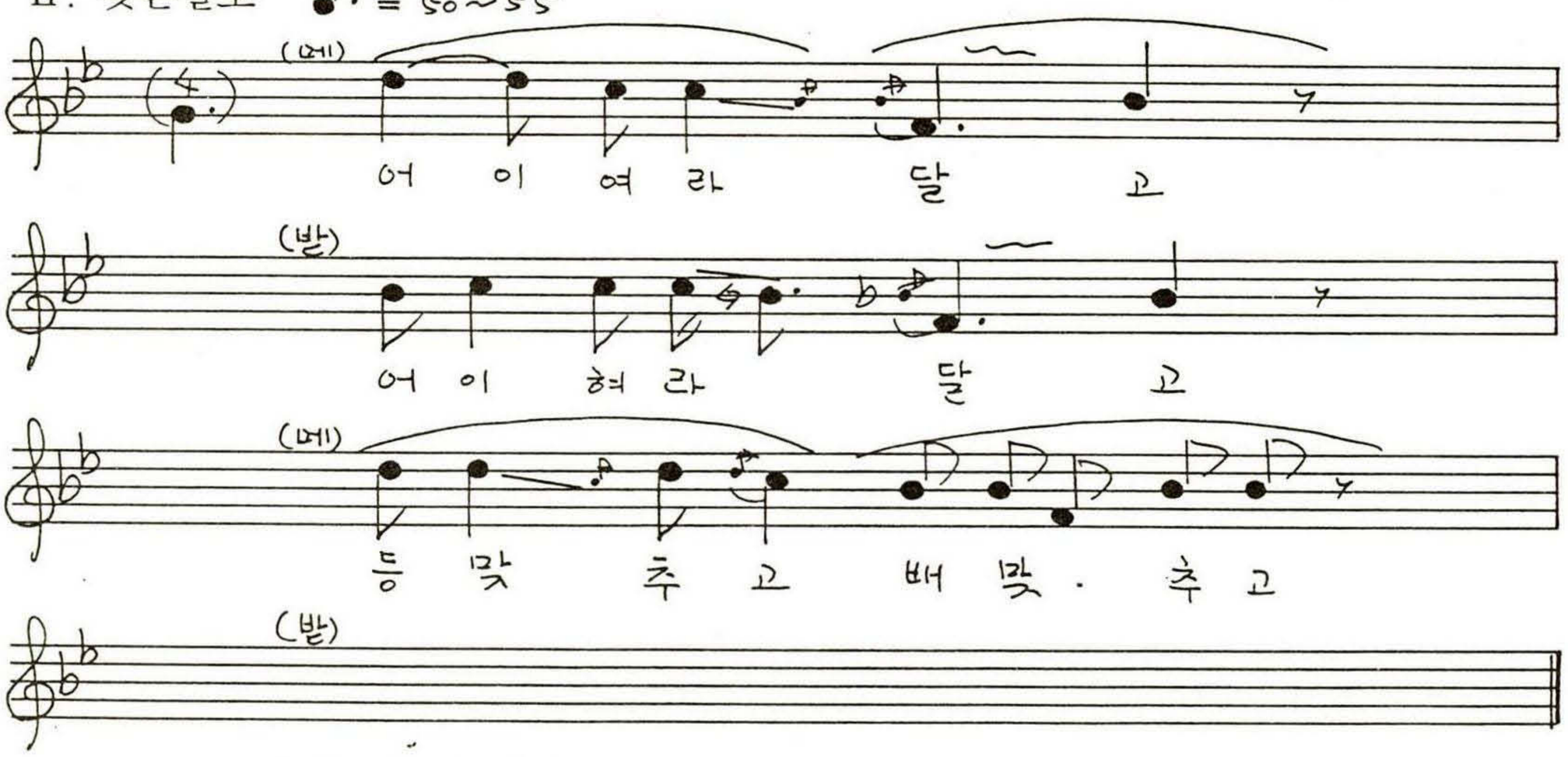


〈홍주 242〉 홍성군 장곡면 오성리 **회 다 지** 안산옥(89-11-28B)





Ⅱ. 잦은달고 ♩. = 5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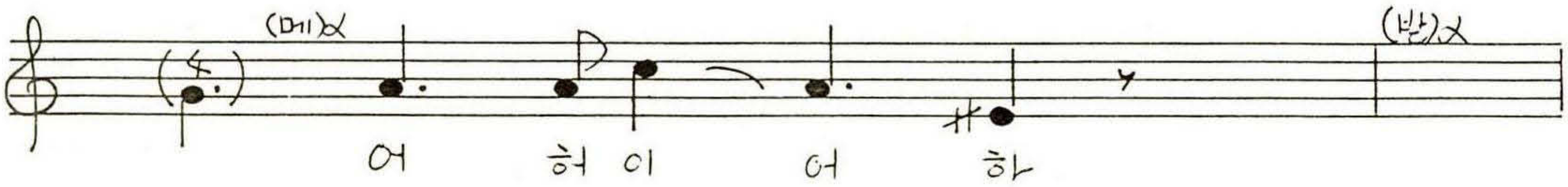
(메) 쾅 쾅 다져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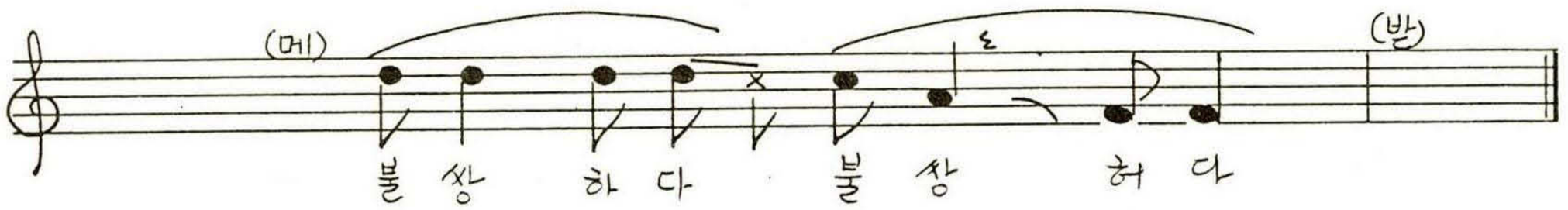
〈홍주 243〉 홍성군 장곡면 월계2구

행 상 소 리

최주복(94-2-27③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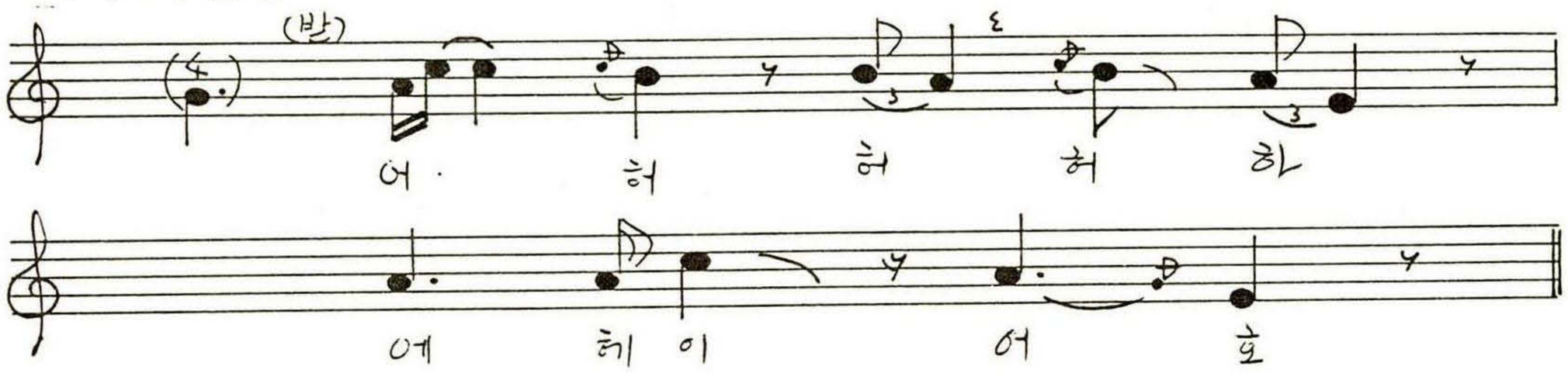
Ⅰ. 實音은 4도 더 낮음.





(메) 어린상제 불쌍허다

Ⅱ. 〈호상일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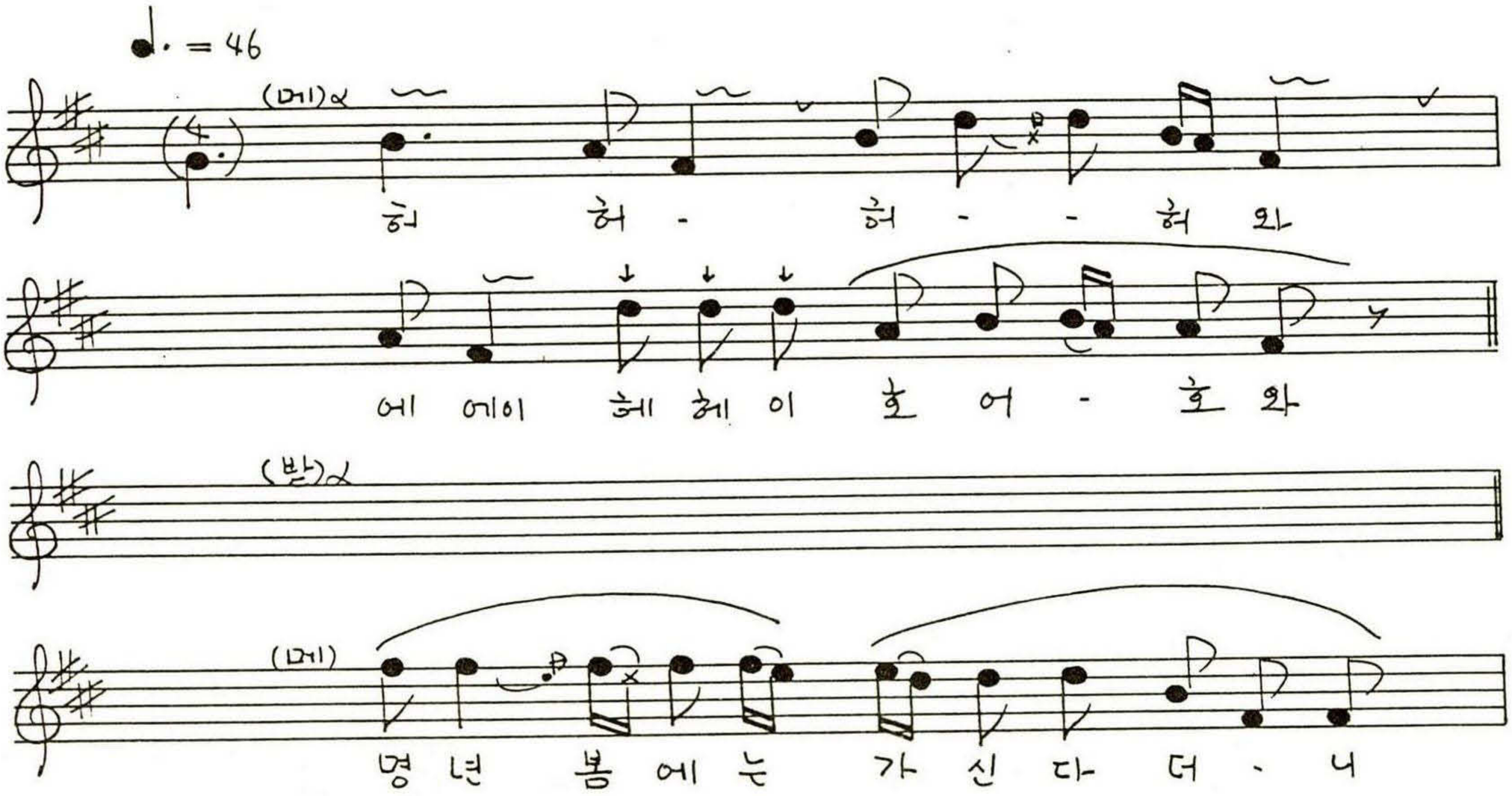
Ⅲ. 〈상여내릴때〉 "우여 우여 우여 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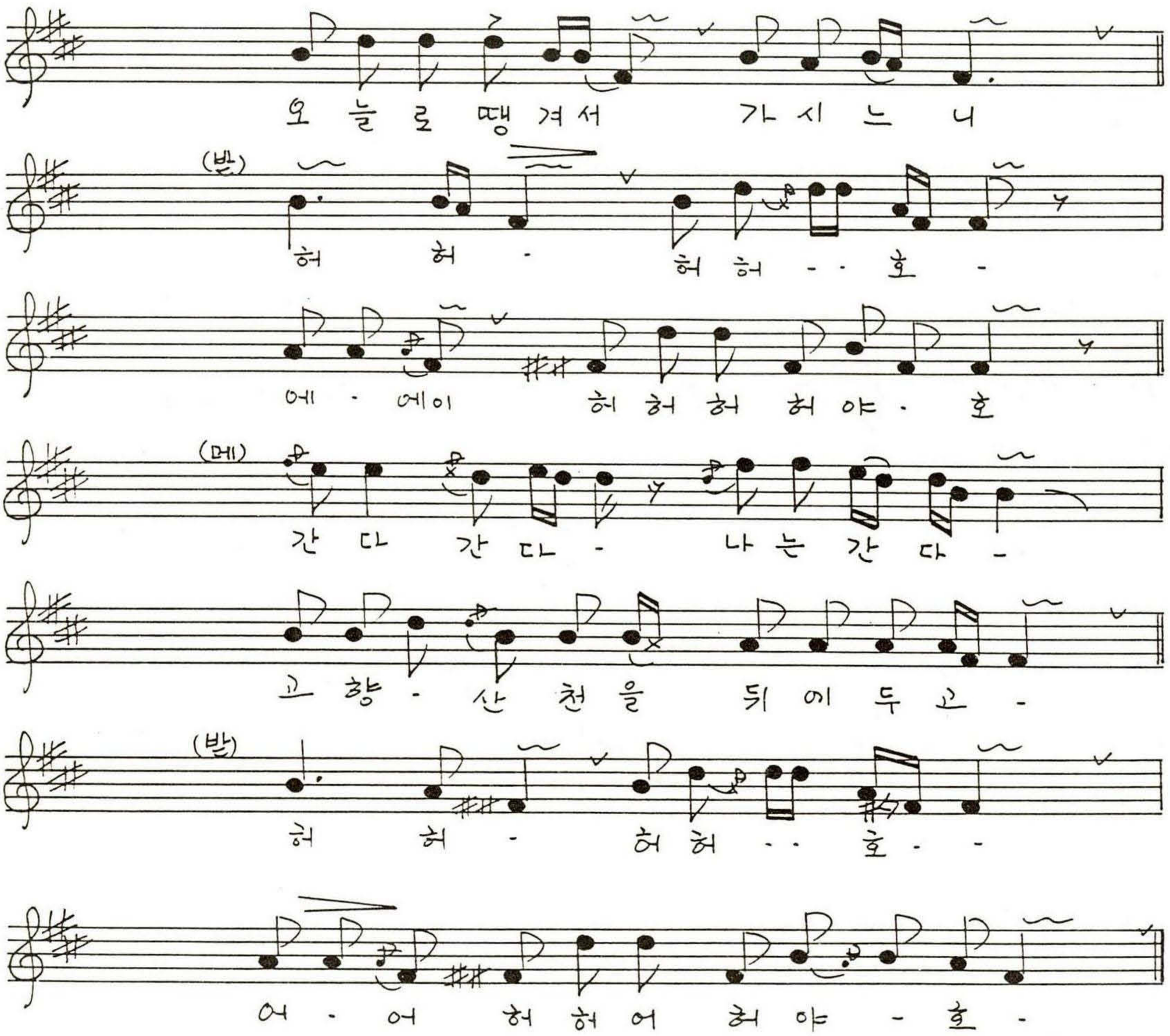
Ⅳ. 〈상여를 어깨에 올릴때〉 "우여라, 우여차"

〈홍주 244〉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행 상 소 리

윤진복(1943.남)창
素89-11-2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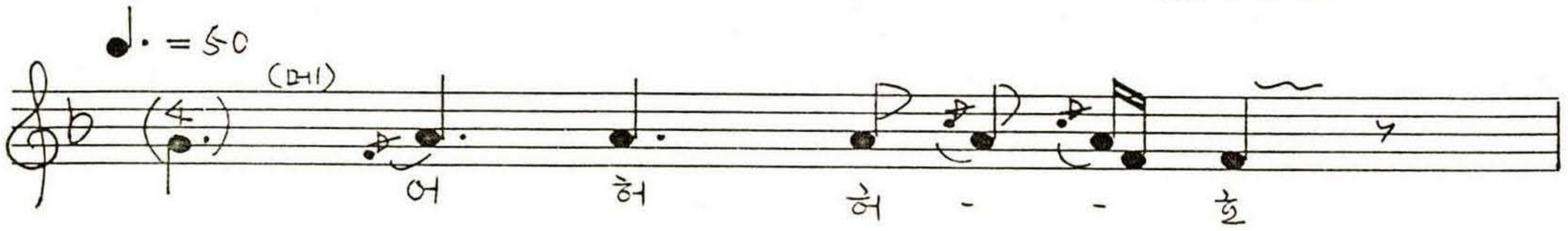




(메) ○ 명년삼월 꽃이피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 어제오늘 성턴몸이
저녁나절에 병이들어

〈홍주 245〉 홍성군 홍북면 대인리 **행 상**

(메)이석희(1924.남.土民)
(받)임동순,성한용 등 노인회원들
素94-3-11[B]



어 허 이 어 허 호

(받) 어 허 이 · 어 허 하

에 헤 이 어 하

(메) 가 네 가 - 네 나 는 가 네

(집을 떠나서) 북 만 산 천 나 는 가 네

(받) <망>

〈홍주 246〉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행 상** 송학기(1926.남.土民)창 素94-2-28[A]

♩. = 50

(받) (4.) 어 허 허 - 허 -

에 헤 이 - 어 -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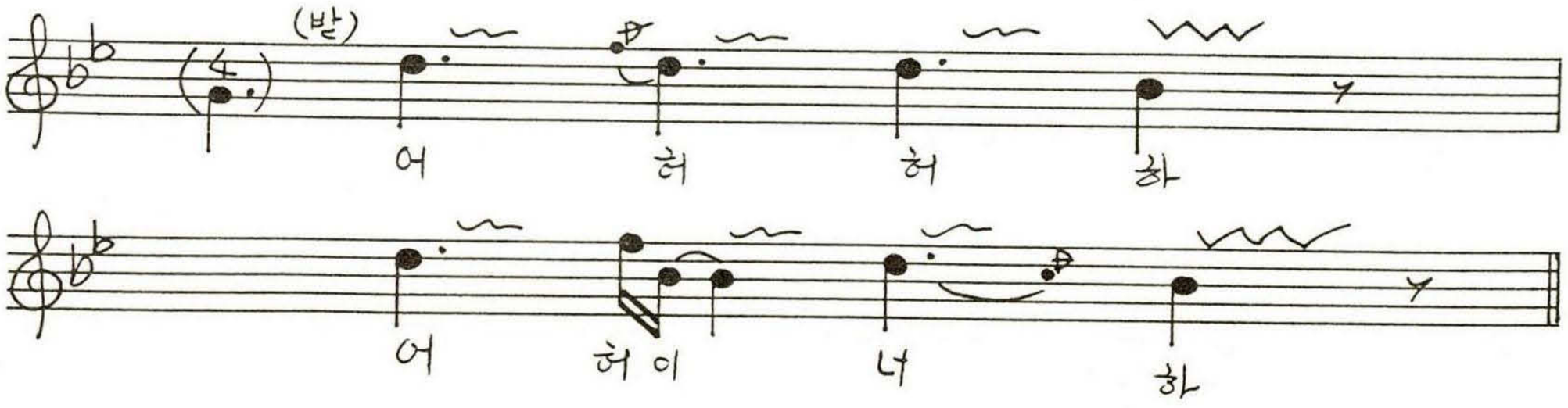
(메) 대 문 밖 이 멀 다 더 - 니

황 천 길 이 문 밖, 일 세

〈홍주 247〉 홍성군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행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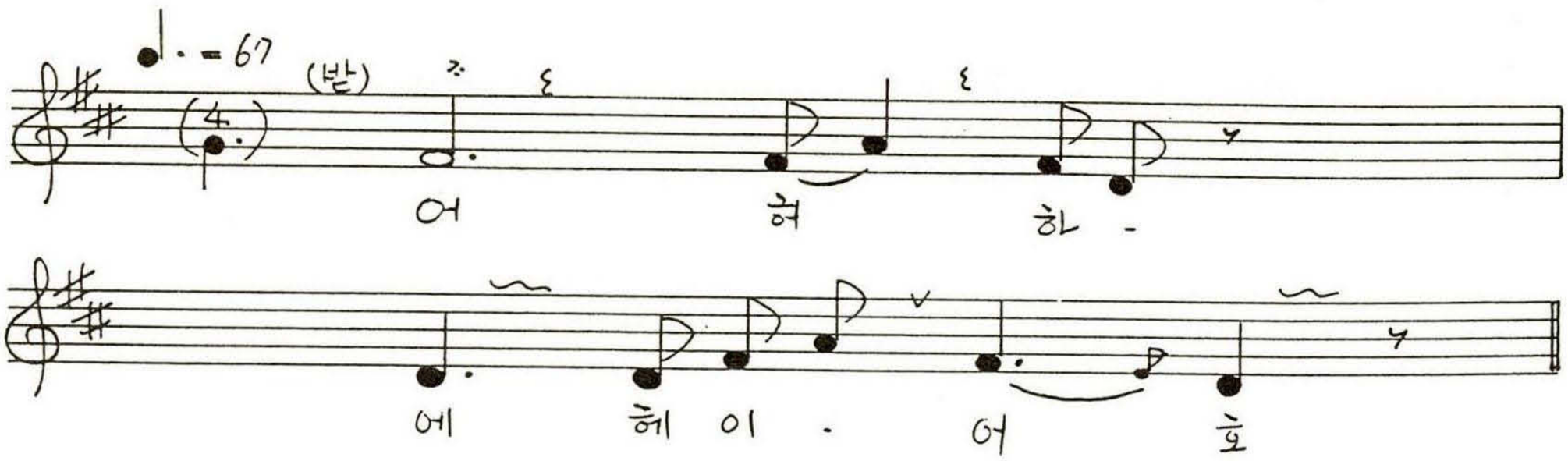
김창영 창
素94-2-28^{B}



〈홍주 248〉 홍성군 장곡면 지정리

행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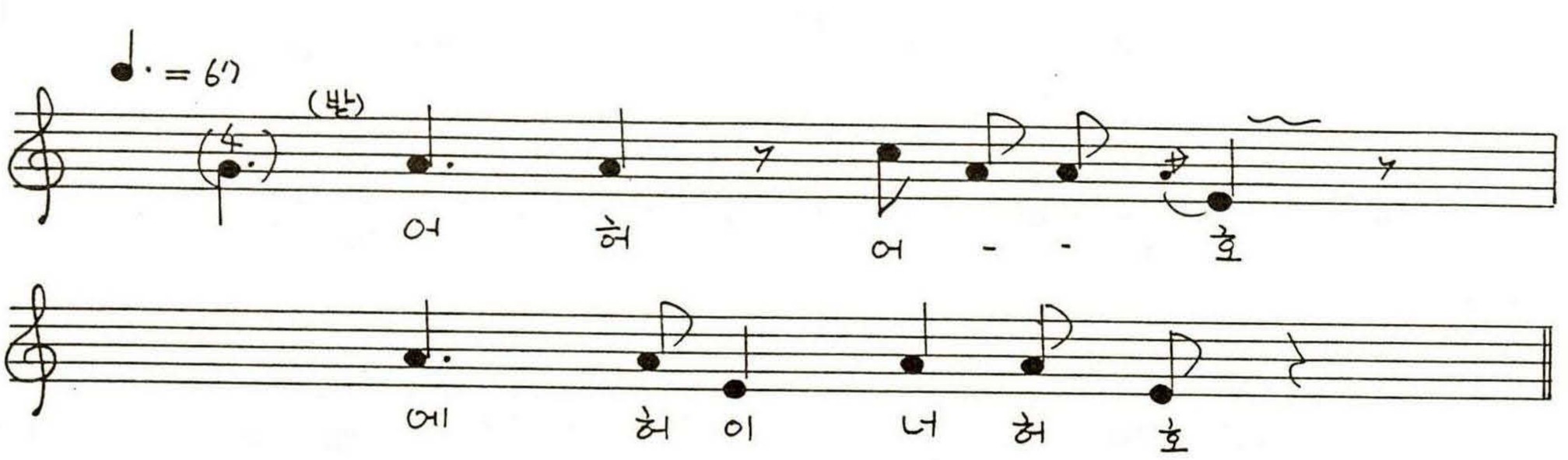
김기운(94-2-27③B



〈홍주 249〉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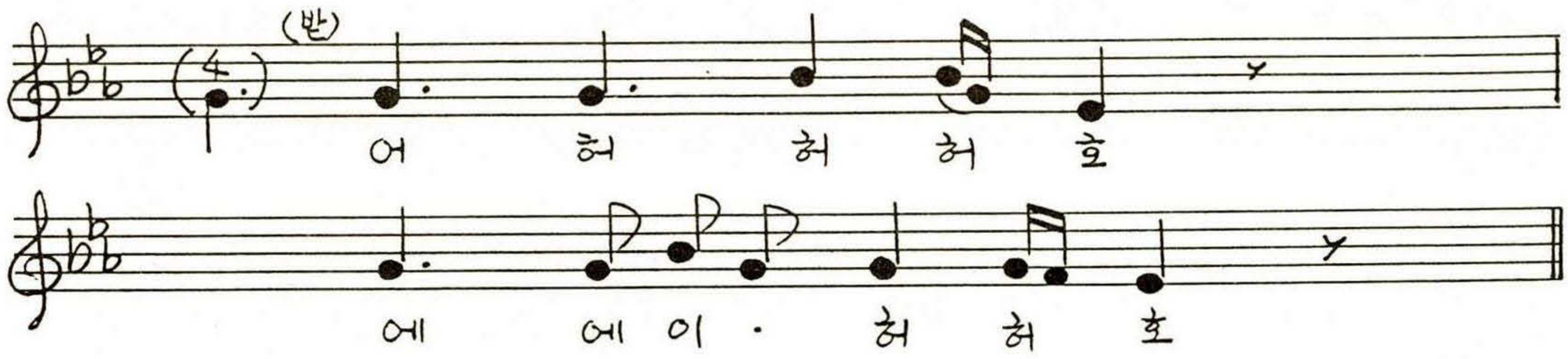
행 상 소 리

김선균(1990.2.3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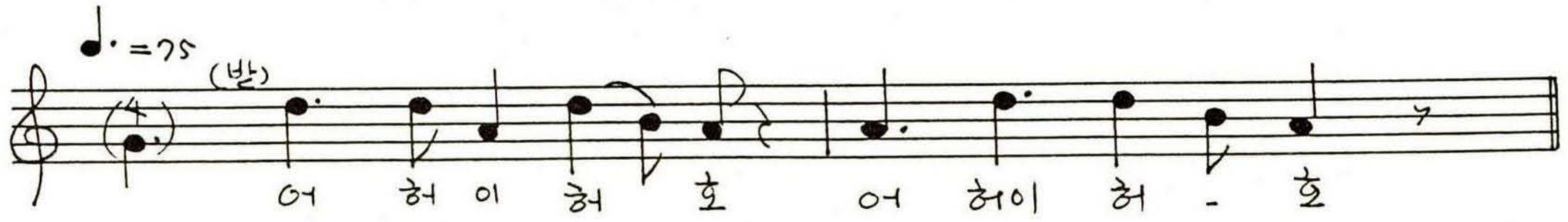
〈홍주 250〉 홍성군 장곡면 회계리 **행 상 소 리** 김윤재(90-2-2④A)

★참고用(∵녹음상태 나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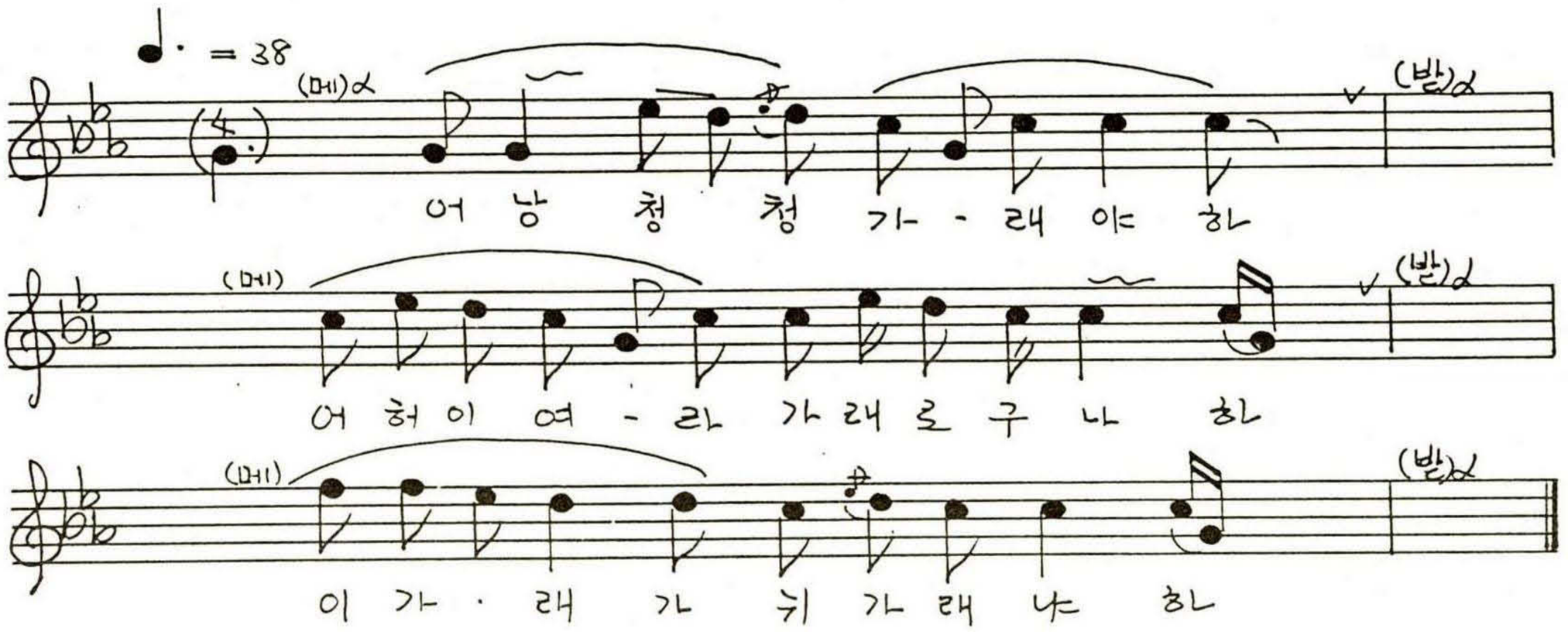


〈홍주 251〉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행 상 소 리** 이병후(90-2-3⑦A)

★참고用



〈홍주 252〉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묘쓸때의 가래질** 이상순 素90-2-2⑥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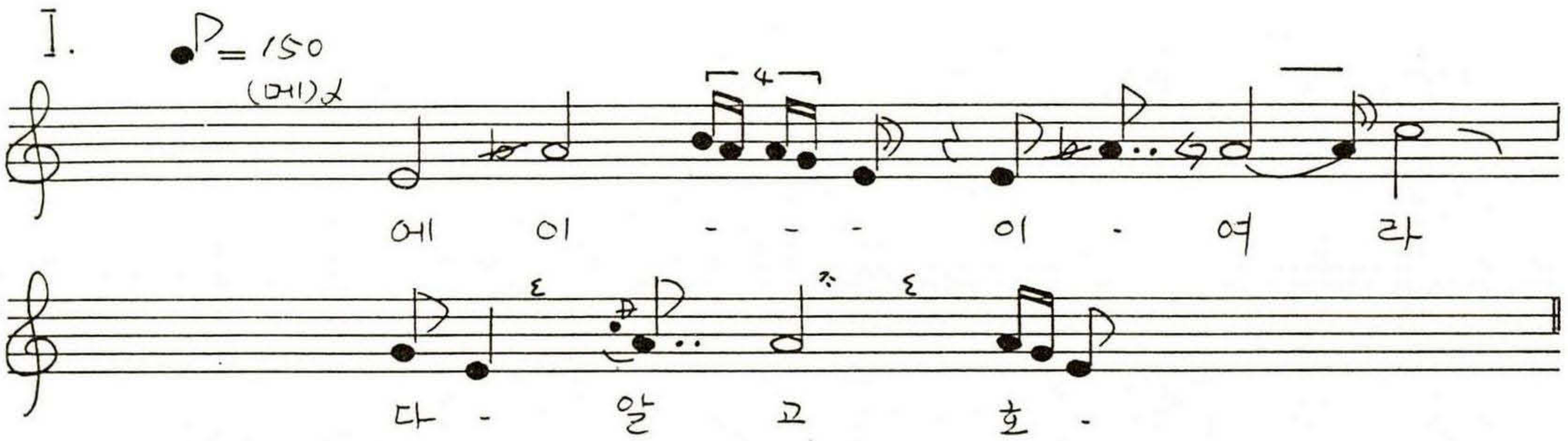
(메) ○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대동가래로구나
○ 어낭청 가래로다
— 가래끈 끊어졌으니 큰 사위 오라해—

〈홍주 253〉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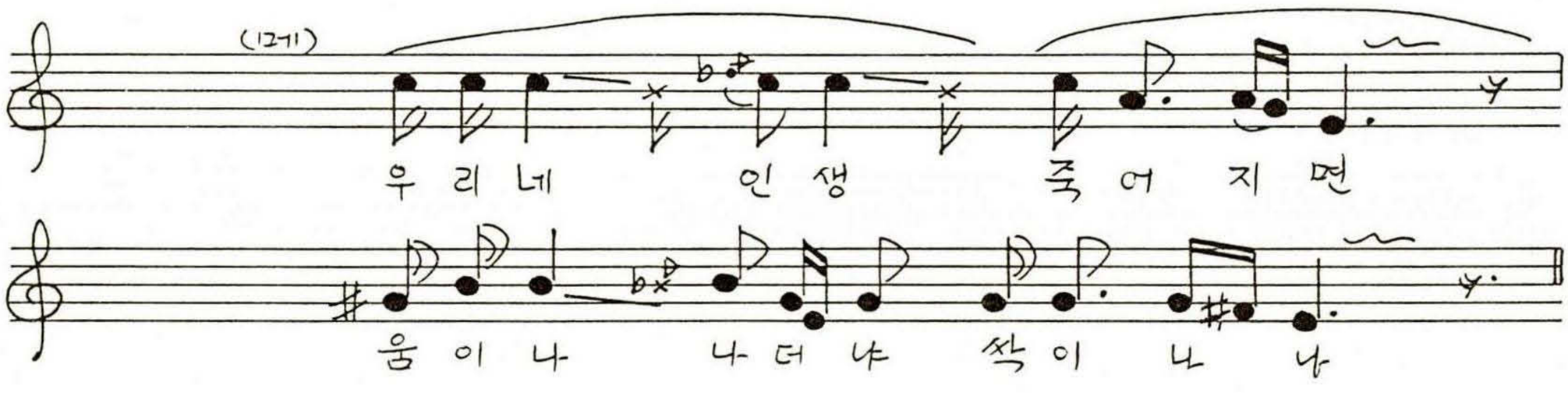
달 고

(Ⅰ. 긴달고, Ⅱ. 잦은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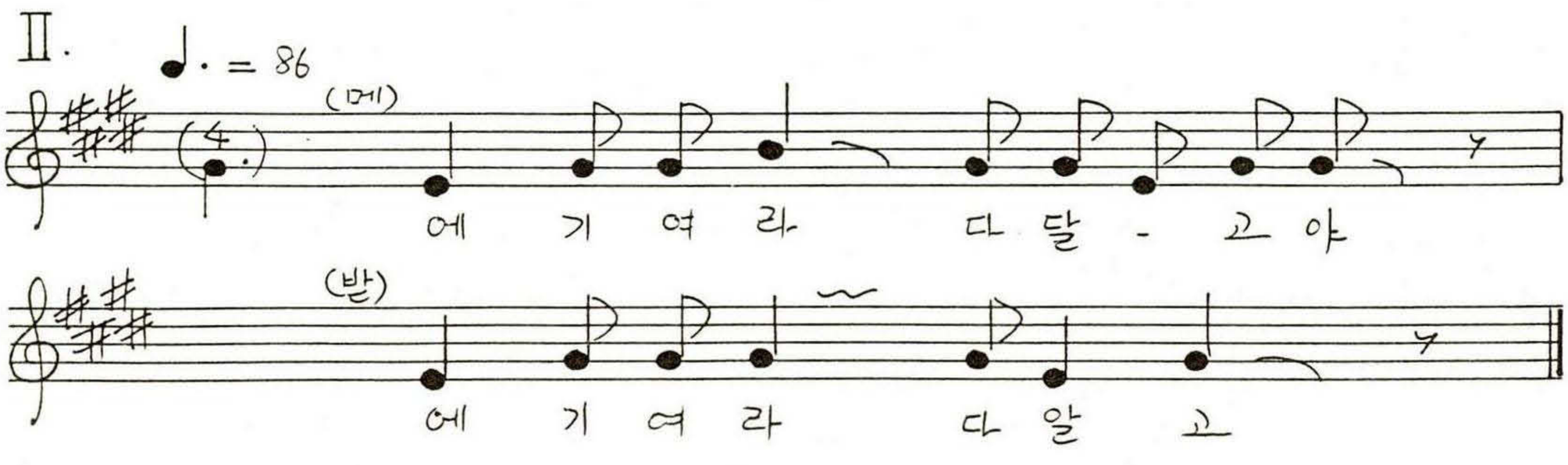
김이동 창
素94-2-28
(1994.3.1 녹음)



※ (받)ɑ:달구꾼들이 저쪽에서 쫙 - 일어나며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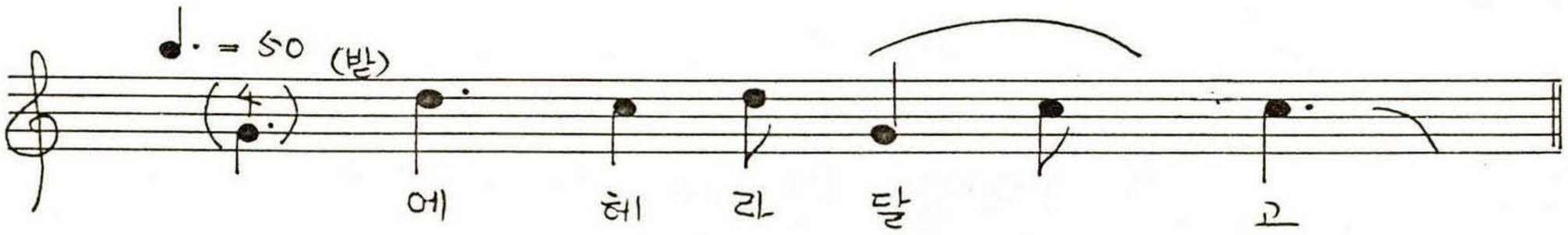
(메) 인생하번 죽어지면
영 그만 일세



〈홍주 254〉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발현

회 다 지

방종석(1934.남.土民)창
素94-2-27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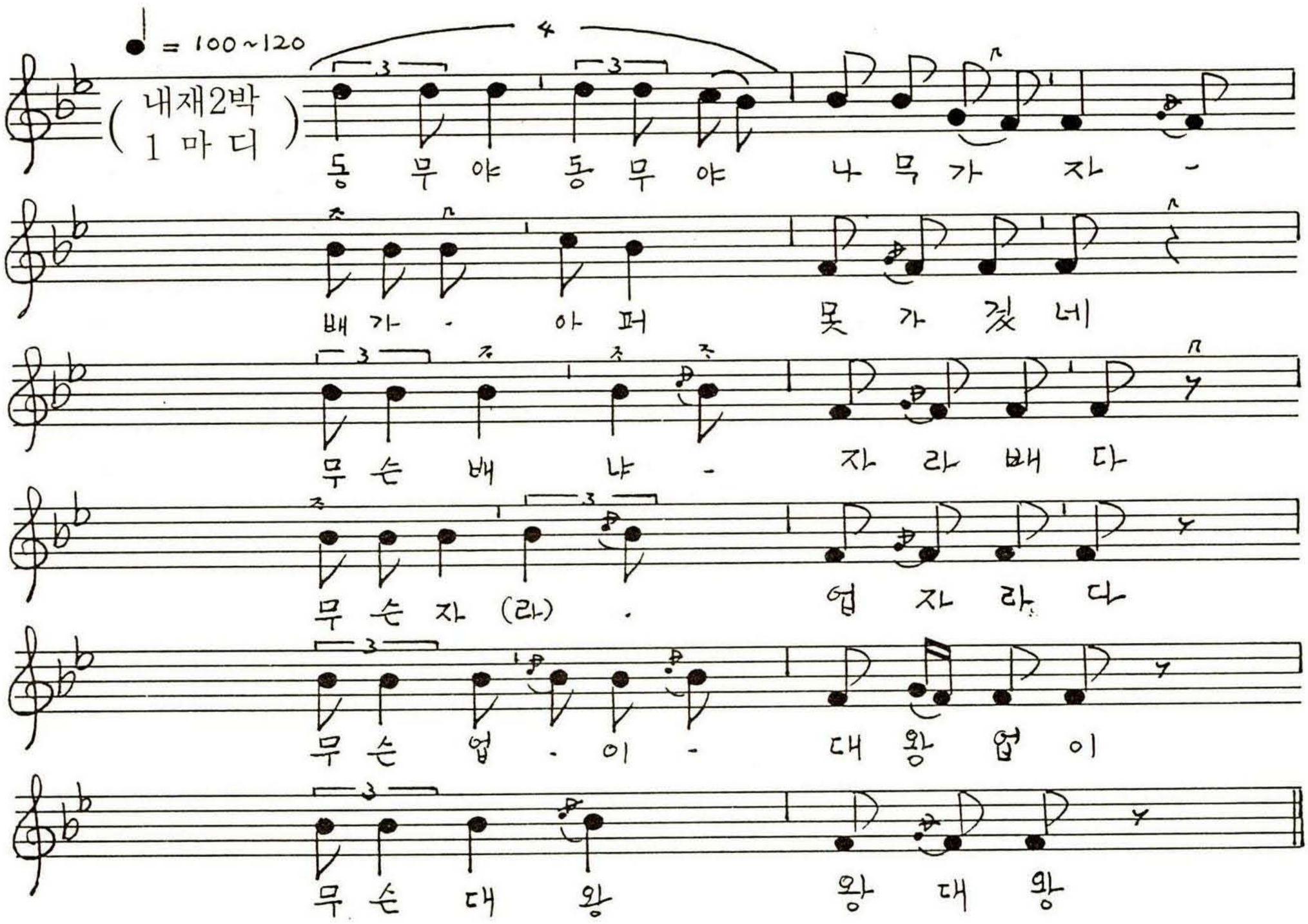


부 록(동요 · 흥민요 · 의식풍속요 등)

〈홍주 255〉 홍성군 은하면
금곡리 · 장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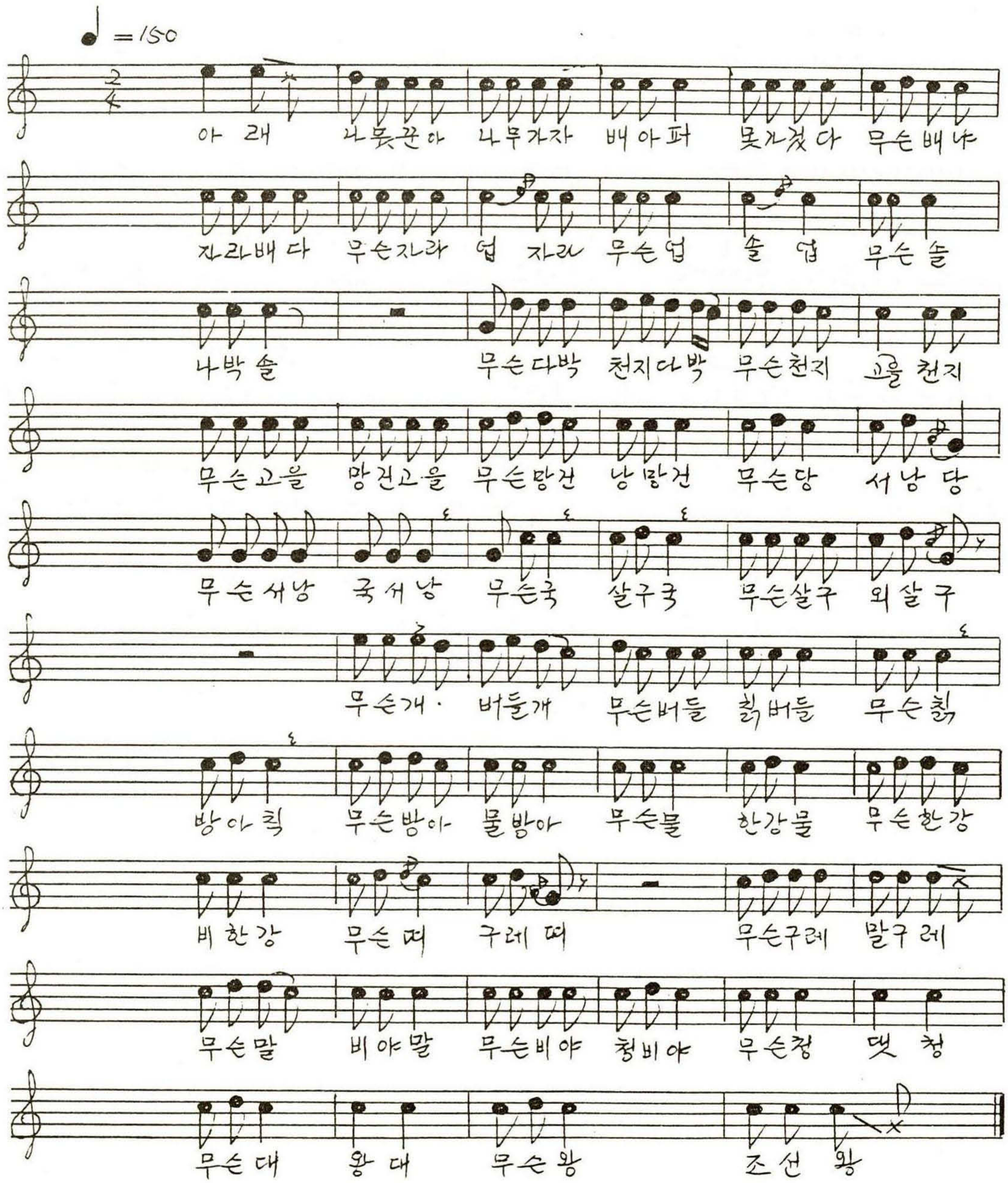
동무야 나무가자

조예현(90-1-31^{B})



무슨 왕이	조선왕이
무슨 조서	사위조서
무슨 사위	박사월세
무슨 박이	(담배박이)
(무슨 담배)	면화담배
무슨 면화	(잎 면화)
(무슨 잎이)	나무잎이
(무슨 나무)	(산 나무)
모슨 산이	고락산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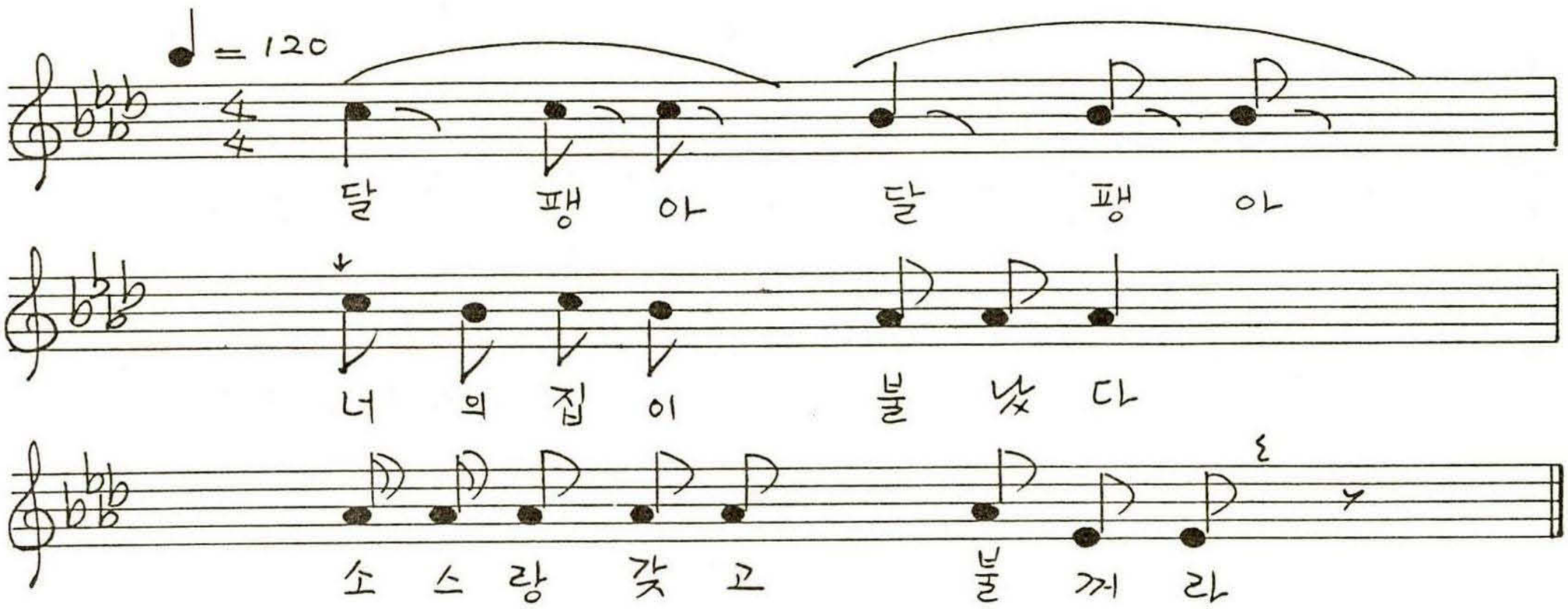
〈홍주 256〉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나무꾼 동요(문답형)** 이기훈(1918.남.土民)창 素90-2-3⑤B



〈홍주 257〉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달 팽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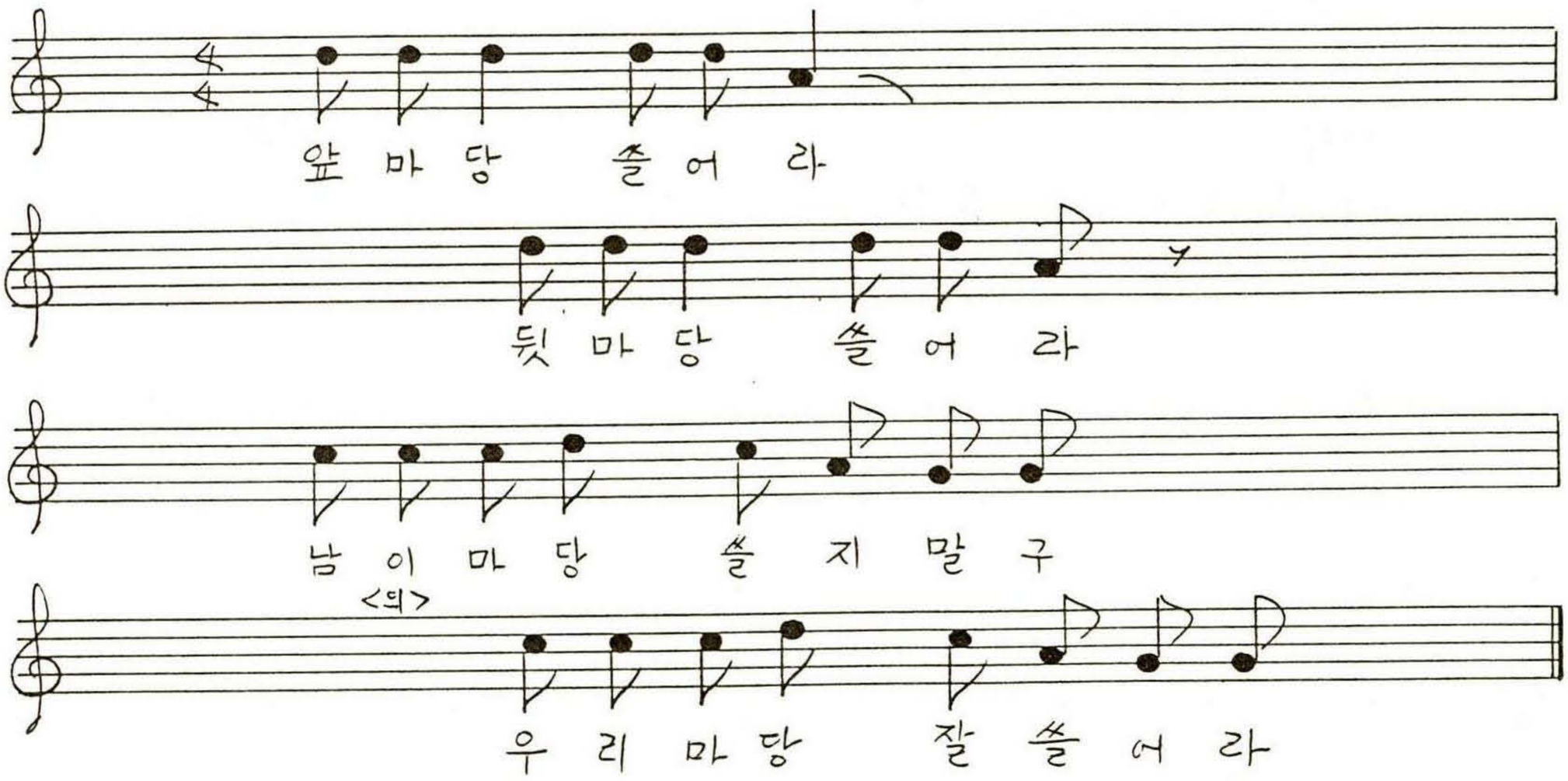
전차순(1924.여)
素94-3-13①A



〈홍주 258〉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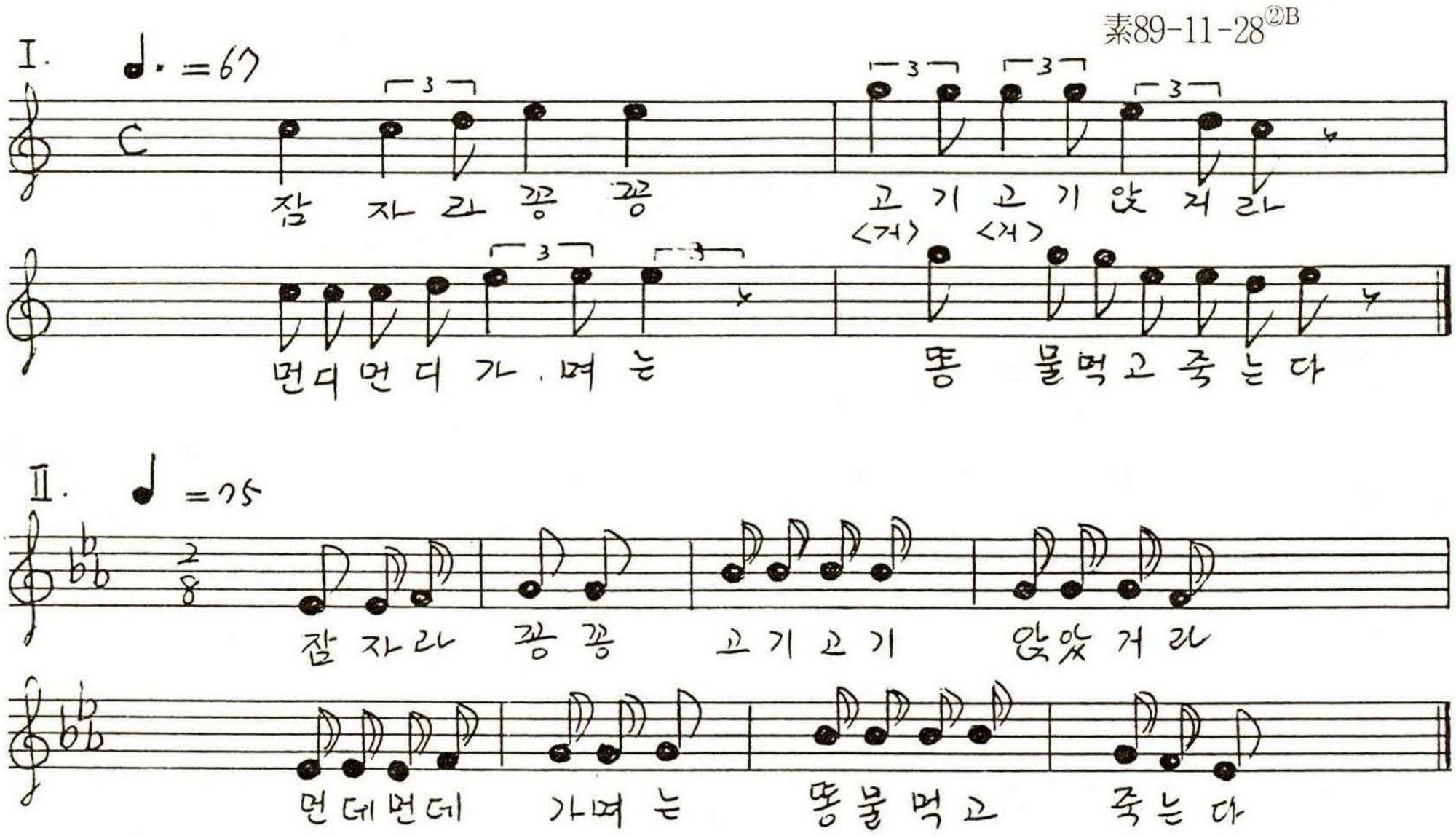
풍 뎅 이

윤민식 唱
素94-2-27③A



〈홍주 259〉 홍성군 결성면 **잠 자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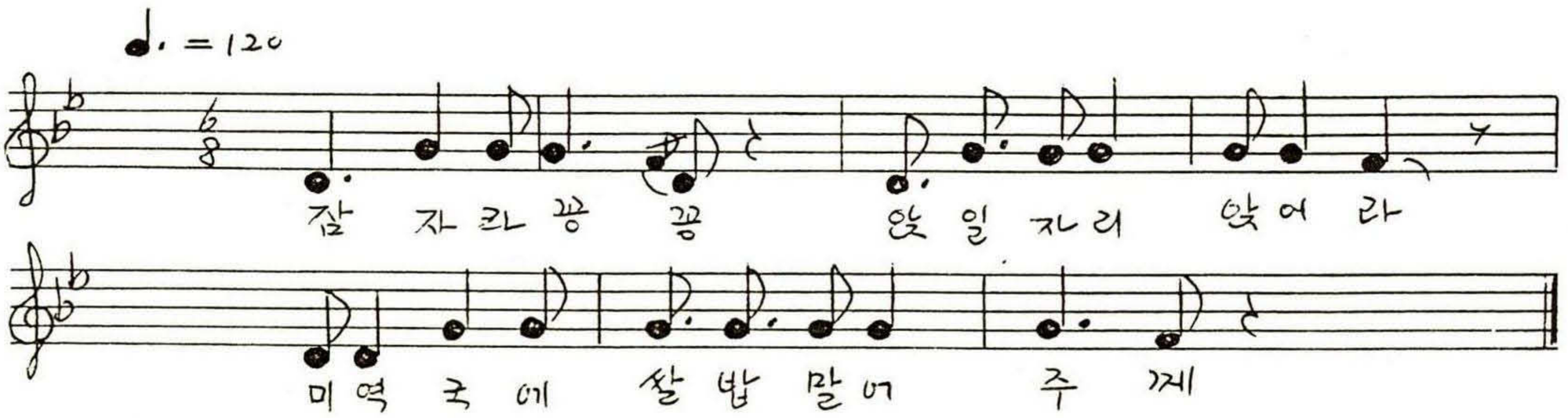
I. 최용환(1933.남.결성면 금곡리土民)창
II. 황성창(1936.남.결성면 土民)창
素89-11-28②B



※ 잠자리를 부르는 명칭이 지역마다 다양하다 충남에서는 잠자리 도는 지미리라고 하는데 비해 칠갱이(경산군), 칠베이(경주군), 철기(양산군), 동가리(상주군, 천산군), 너나(북재주군 추자도)의 예가 있다.

이와 같이 명칭은 다르더라도 잠자리 동요는 잡기 좋게, 잠자리가 얼마간 앉아 주기를 바라는 내용임에는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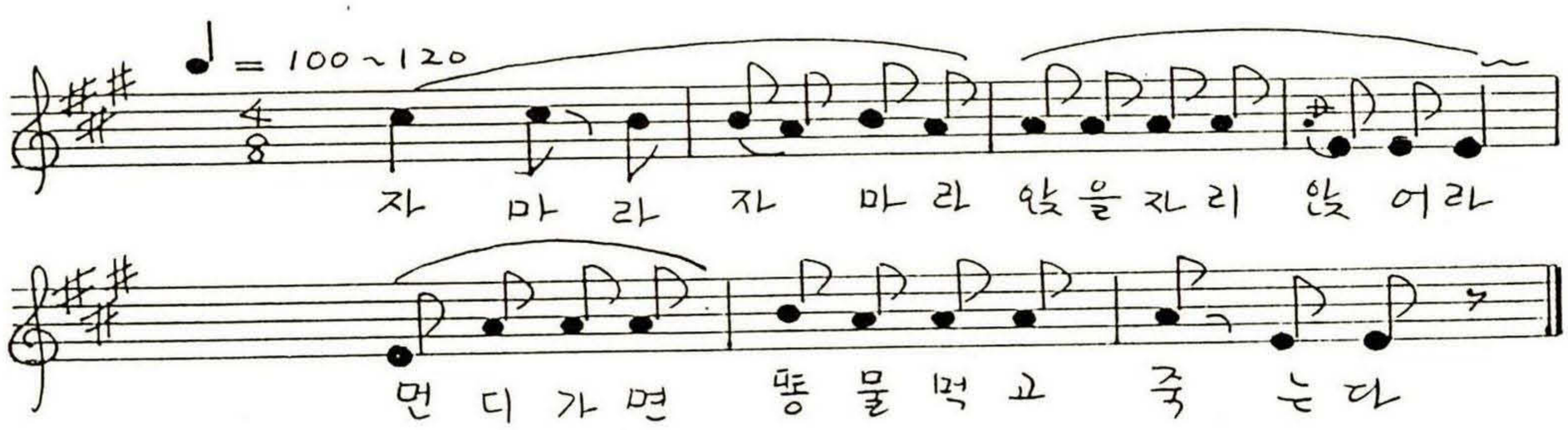
〈홍주 260〉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잠 자 리** 조용택(1917.남.土民)



〈홍주 261〉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자 마 라

전차순(1924.여)
素94-3-13①A



〈홍주 262〉 홍성군 장곡면
월계2리

자 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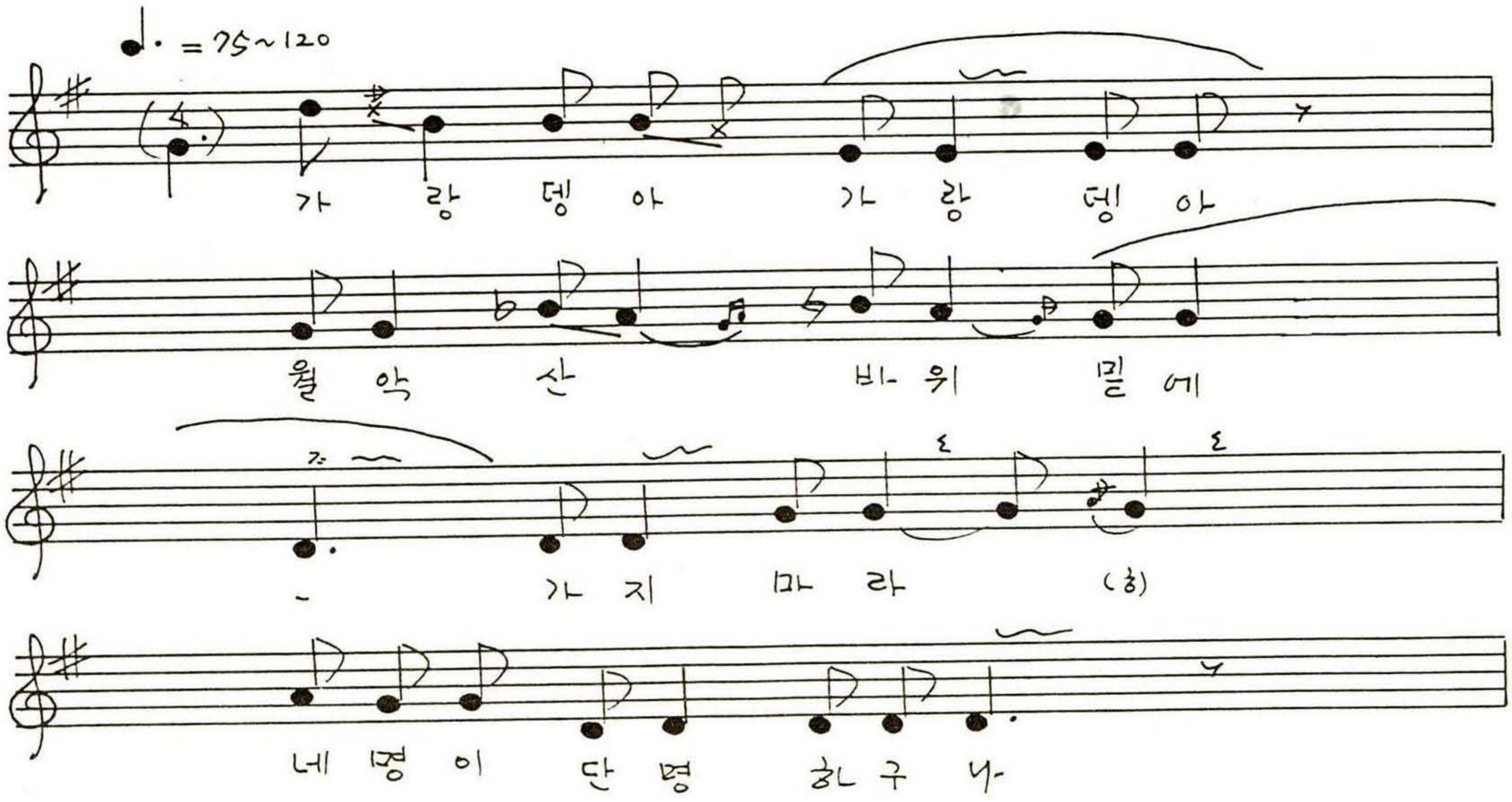
최주복(94-2-27③B)

자마라 자마라
고기고기 앉어라
멀리가면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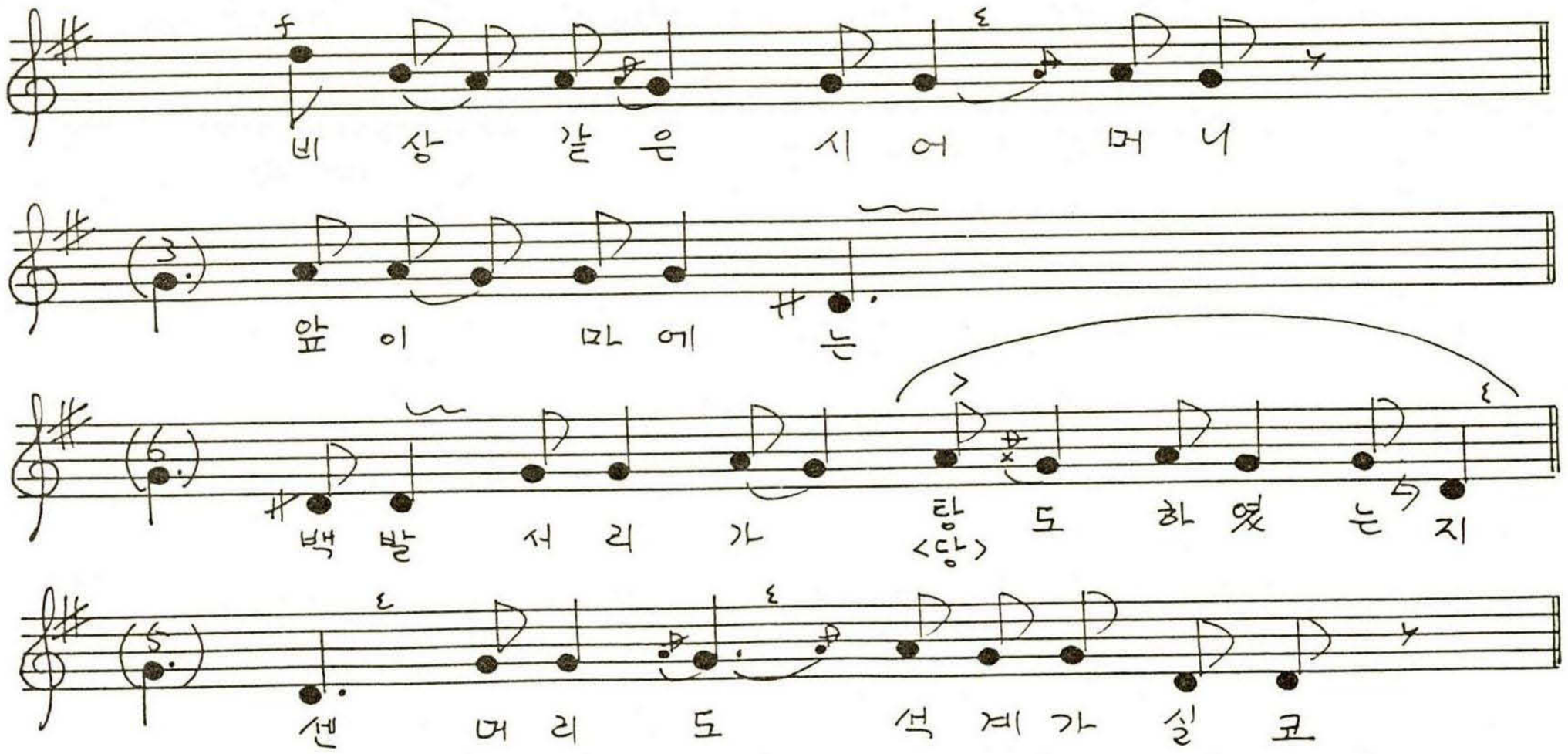
〈홍주 263〉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이 노 래

최정연(89-11-29AB)



정 수 백 이 올 라 앉 이 면
시 아 - 베 니 상 투 로
저 넉 산 보 갈 것 이 고
이 는 이 구 가 나 지 구 가 나
가 랑 뎅 이 안 구 가 자
석 계 는 귀 밀 - 에 - 실 고
<실 고>
어 쩐 지 남 자 귀 머 리 는 다
성 - 무 로 실 엇 는 지
시 어 머 니 어 둔 거 려 말 몌
느 리 돼 지 뒷 다 리 살 이
하 얀 석 회 만 실 엇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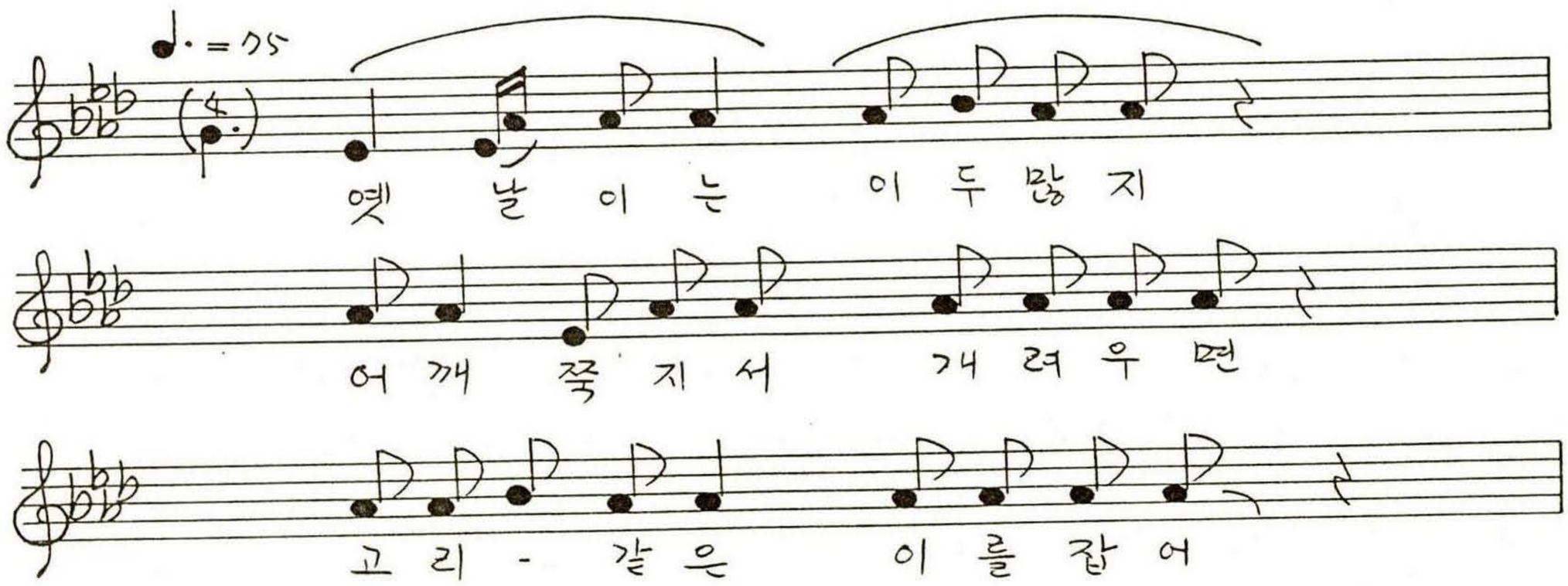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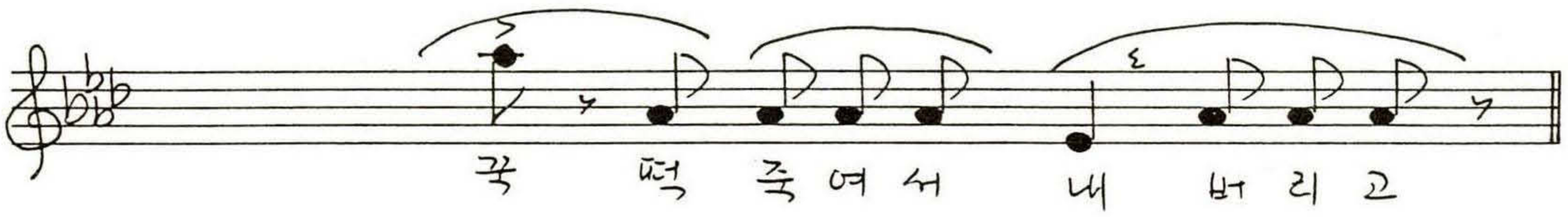
시아버니 상투밑에도 가랑뎅이 살살 내려긁어,
메누리 이 잡어주면 나 운수되어 책음내주마,
시어머니 허는말이 벼락같은 호령소리, 가마솥도 아깝고
작은 솥도 아까워, 널랑 칠둥이 칠손만 줄테니께
메누리 그것도 만점으로 생각하여라, 너는 우리집이
찾어와서 시아버지 간장에는 이잡느라고 살살 뇌기고
시어머니 말에는 일하기가 싫어서 졸기만 하구나,
이마에도 이가 내리고, 볼땍이에도 가랑이가 내려오는구나,
밑메누리 데려왔는지, 그실은 강아지 겉은년을 불러디렸는지 이만 불었고나//

〈홍주 264〉 서산군 해미면 홍천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이 노 래

김임순(1912.여.홍천리출생
.18세에 옥계리로 시집옴)
素94-3-1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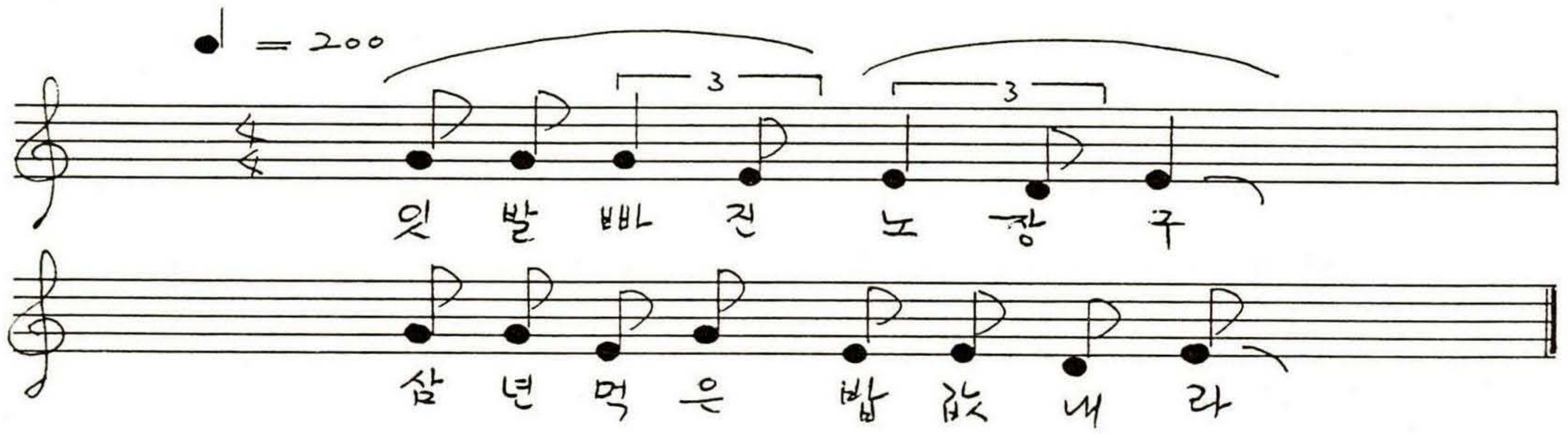


큰 챔빗으로 긁어빗어
화룻불이 넝어벌면
호두둑 툭탁 잘도 치더라

〈홍주 265〉 홍성군 결성면

잇발빠진 노장구

김청규(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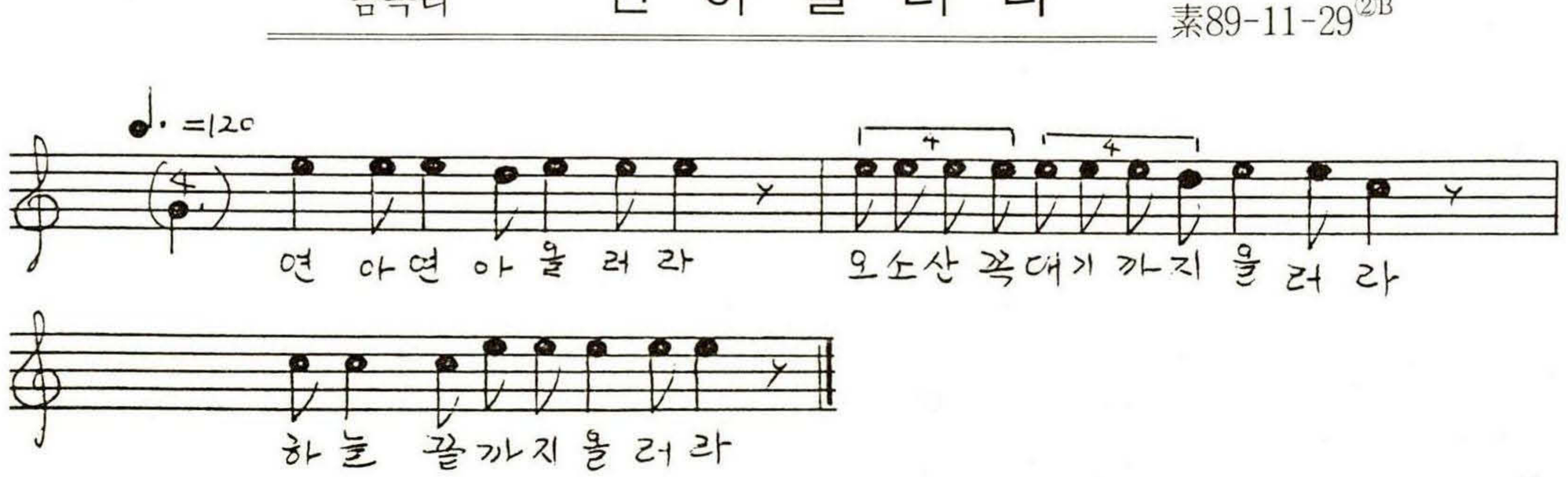
○ 잇발빠진 노장구
새암질에 가지마라(최광배氏 모친 唱)

※ 〈265〉는 잇발빠진 아이를 놀려주는 동요이다.
나주·부안·고창군 등지에서 발견되는 것도 잇발빠진 노장구라고 하는데 비해 상주군의 것과 같이 앞니빠진 갈가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어지는 명령어의 내용도 지역마다 다양하다. "삼년먹은 밥값내라" 보다 "새암질에 가지마라"가 더 보편적이다.

〈홍주 266〉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연 아 올 러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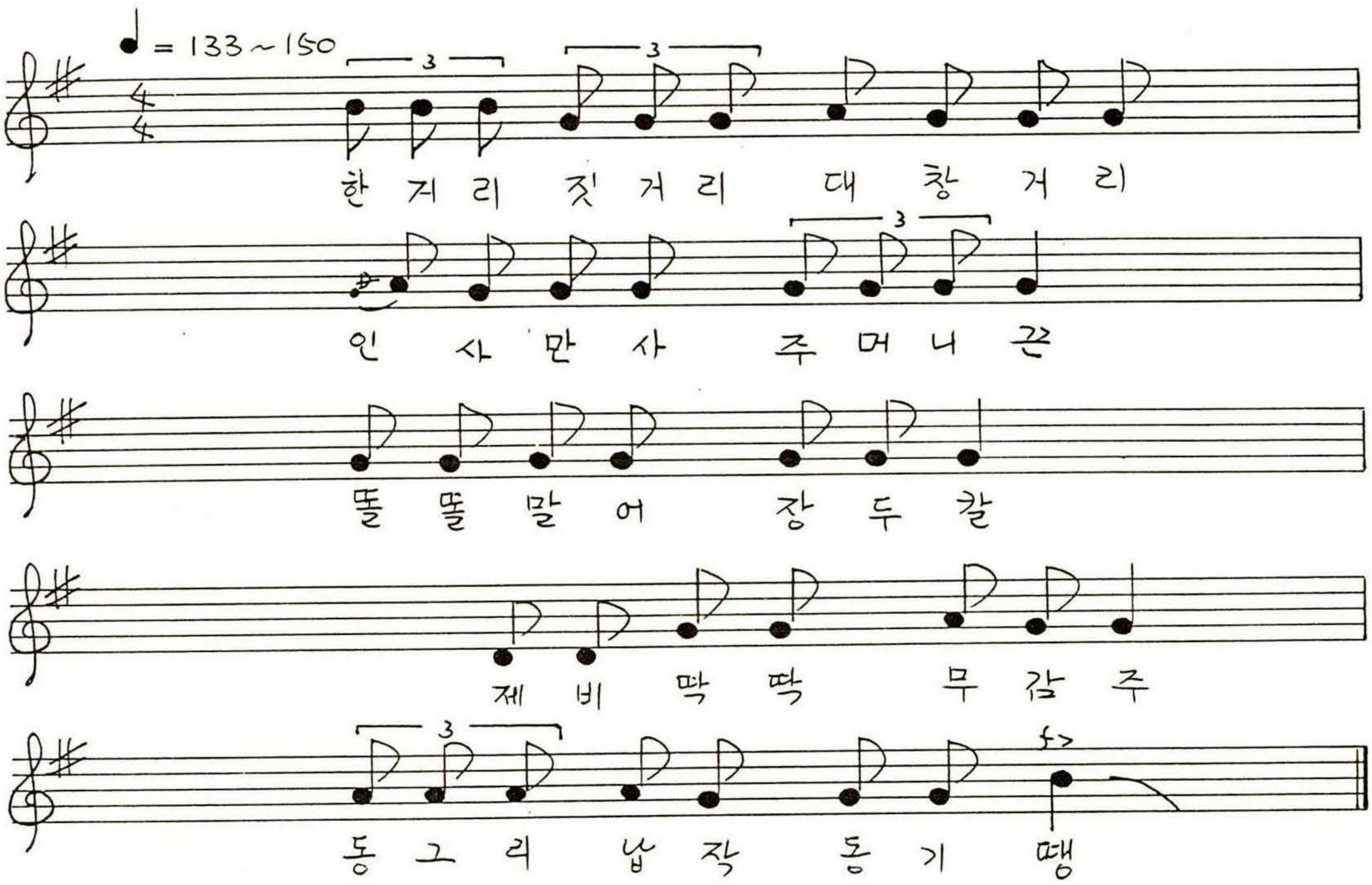
최용환(1933.남.土民)창
素89-11-29②B



〈홍주 267〉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동막

한 거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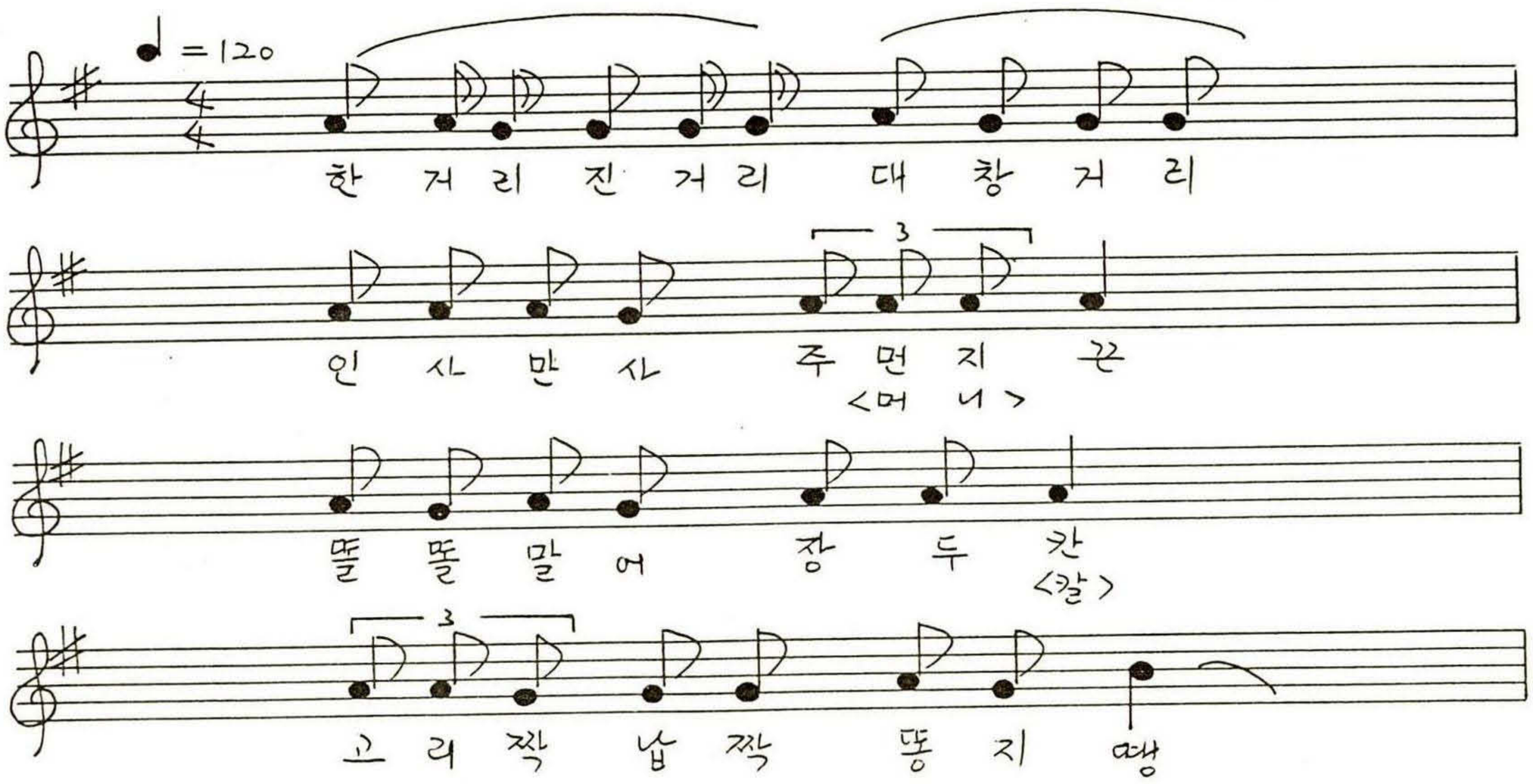
이능세 창
素94-2-27③A



〈홍주 268①〉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신안리

한거리 진거리

이부숙(1936.여.신안출생.21세에 가곡으로 시집옴)창
素94-2-27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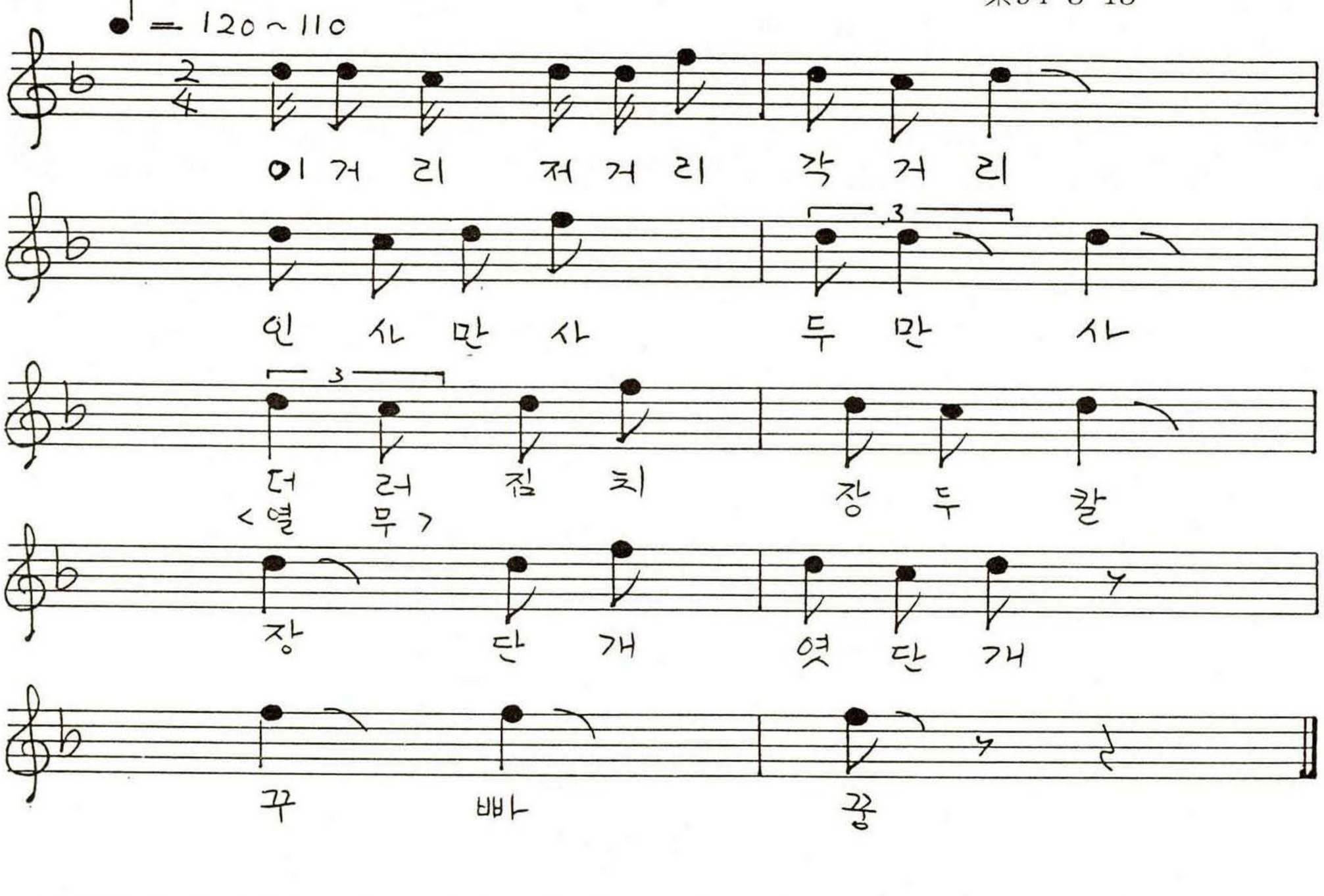
〈홍주 268②〉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한거리 진거리**

김연숙(복당리출생.21세에 가곡리로 시집옴)창
素94-2-27③A

한거리 진거리 대창거리
인사만사 주머니끈
똘똘말아 장두칼
새암건너 ( )
안경이 허리띠
고리짝 납짝 둥지 땡

〈홍주 269〉 청양군 청양읍 장성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이거리 저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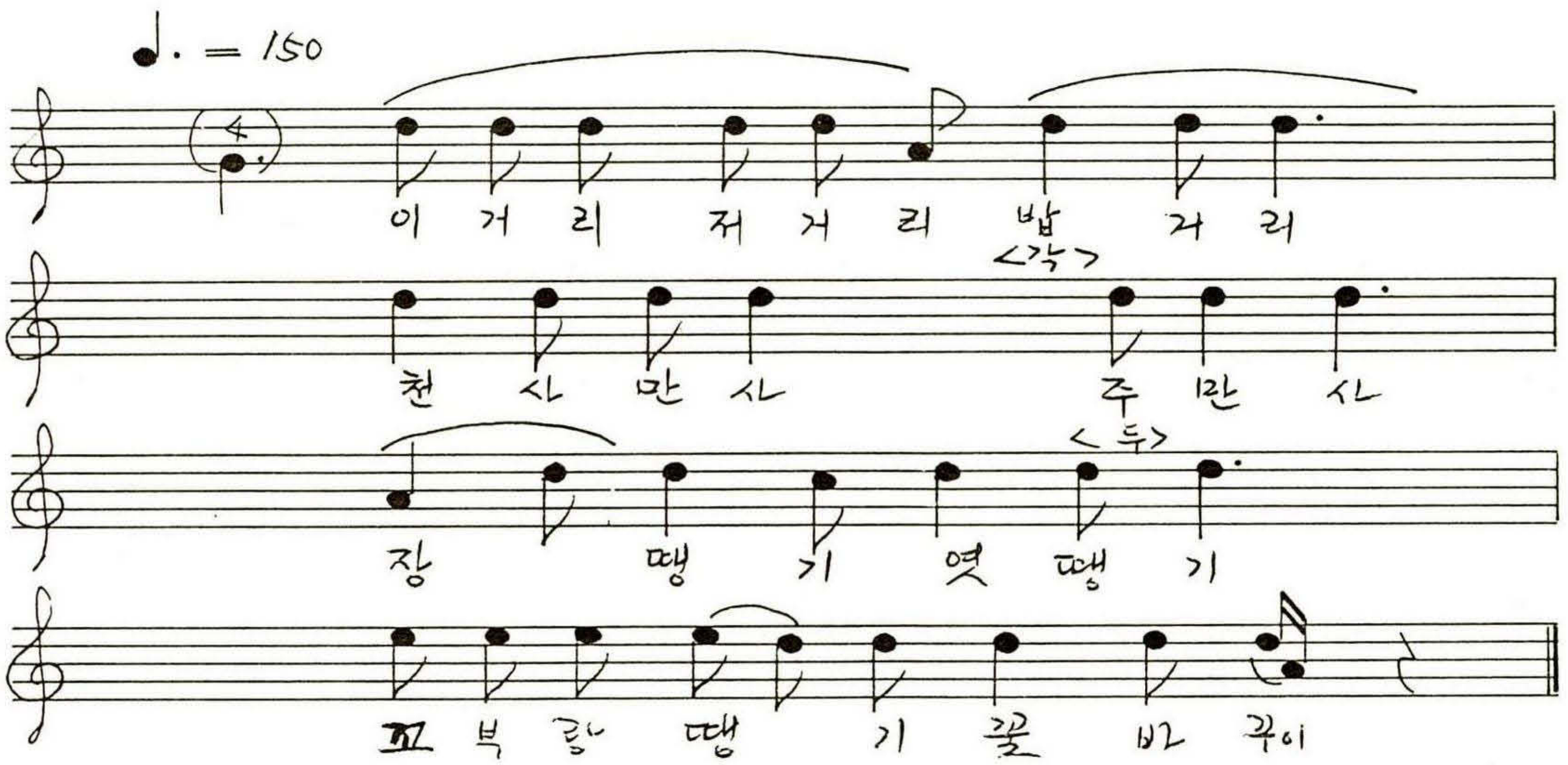
이종순(1933.여.장성리출생.19세에 옥계리로 시집옴)
素94-3-13①A



※ 이거리 저거리〈269〉는 아이들이 마주앉아 다리를 쭉 뻗어 맞물리게 하고는 노래에 맞추어 다리헤는 놀이동요이다. 매박(每拍)에 한다리 씩을 차례대로 짚어나간다. 즉, '이거리'에 다리 하나를 짚고 '저기리'에 또 하나를 짚는다. 이리하여 노래의 제일 끝박(〈269〉의 "꾸이")에 해당하는 다리는 오무린다. 맨 나중까지 오무리지 못하고 남아있는 다리의 아이가 지게된다.

이러한 종류의 다리헤는 놀이는 전국적이나 시작말이 다양하다.
이거리 저거리;상주·예천·금산·경산·양산·부여·공주·고창군
오거리 저거리;청원군(북이면)
한거리 두거리;진천군(이월면)·청원군(강내면)
한거리 진거리;천안군(성거읍)·홍성군(갈산면)
한다리 두다리;북제주군(추자도)
한다리 만다리;부안군(위도면), 북제주군(추자도)
한나 만나 ;곡성군(곡성읍)
한알대 두알대;화성군·파주군, 강원도 고성군
한울대 두알대;연백군(청용면)
한알깨 두알깨;원산시
그 밖에 〈272 II〉의 콩하나 팥하나 부여군의 구름동동, 까치달래 은달래와 금산군의 엥기 땡기, 오꼼 조꼼의 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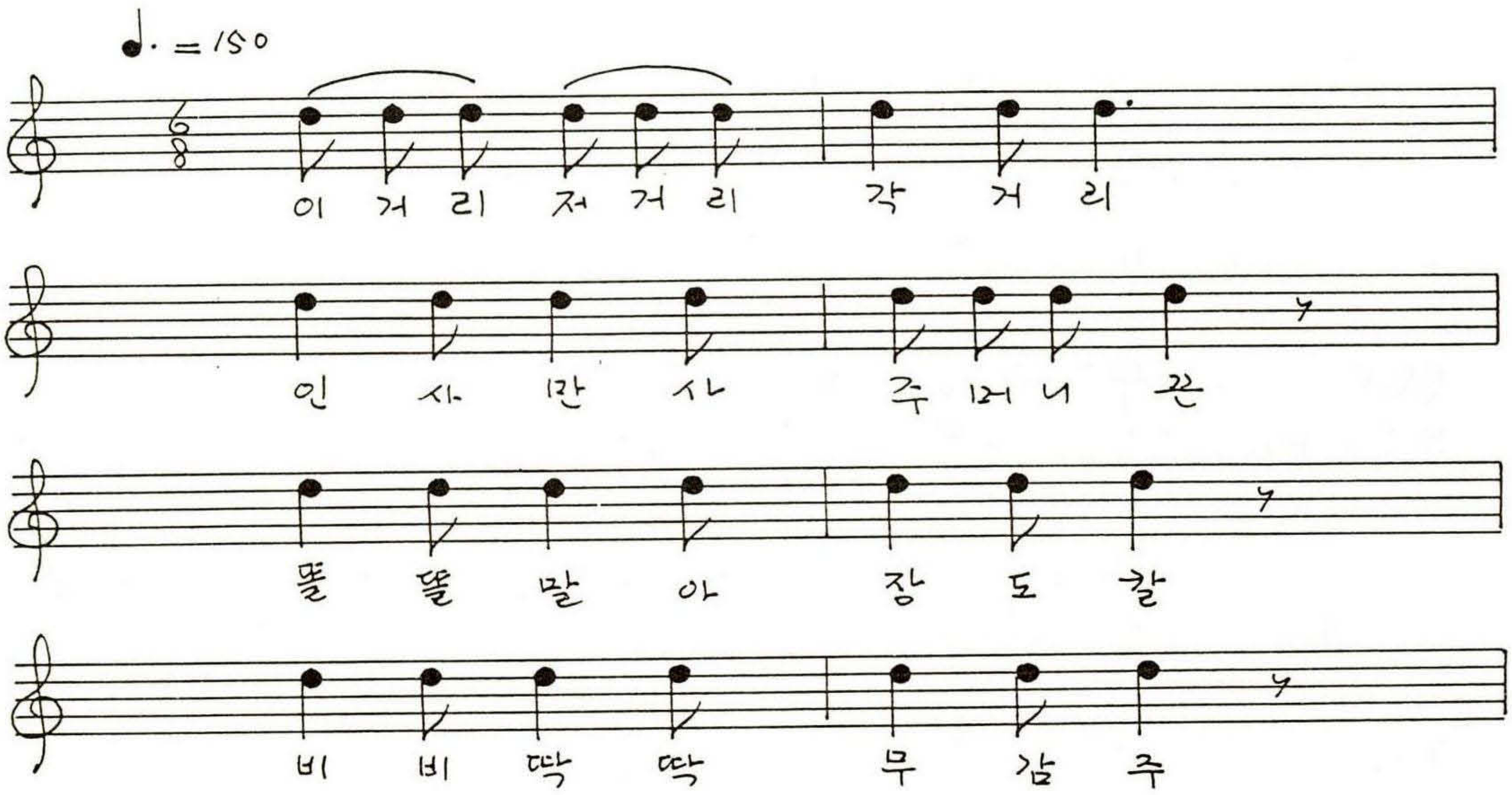
〈홍주 270〉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이거리 저거리** 최용환(89-11-28②B)



〈홍주 271〉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이거리 저거리

김항제(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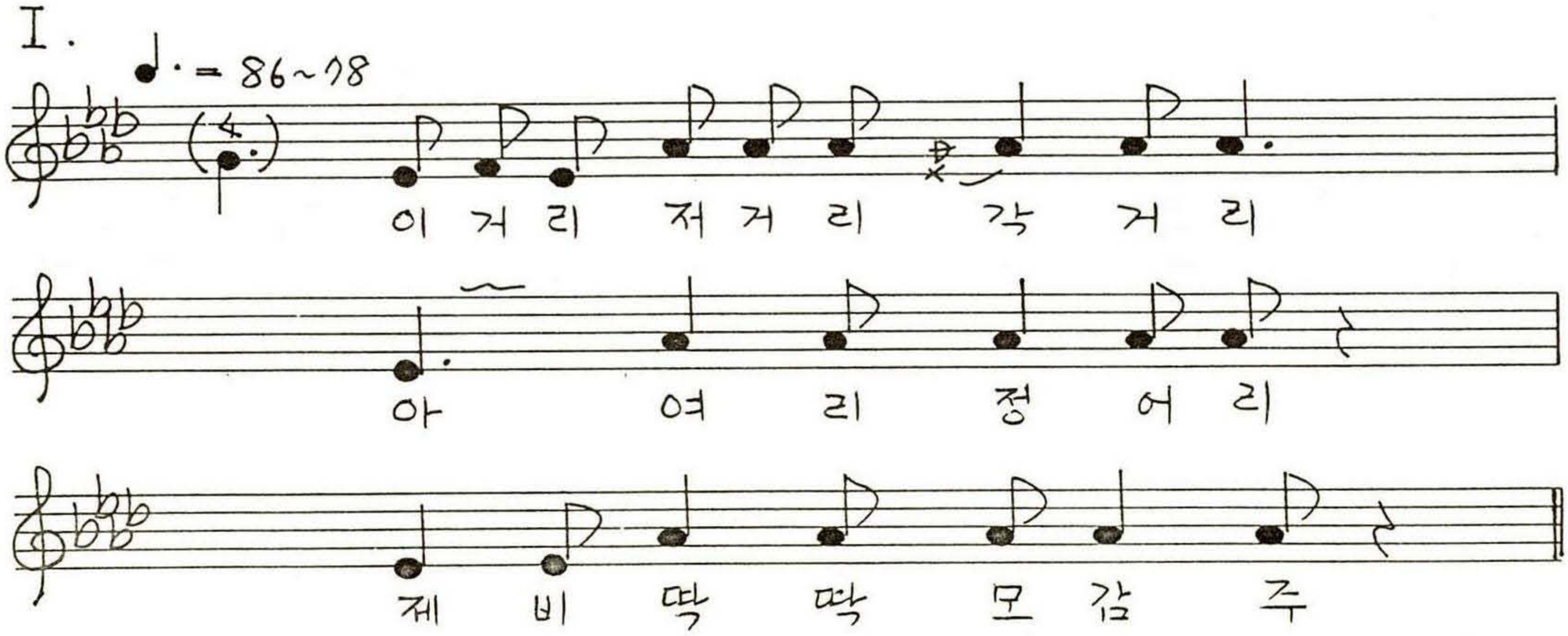
"자상전하 / 허리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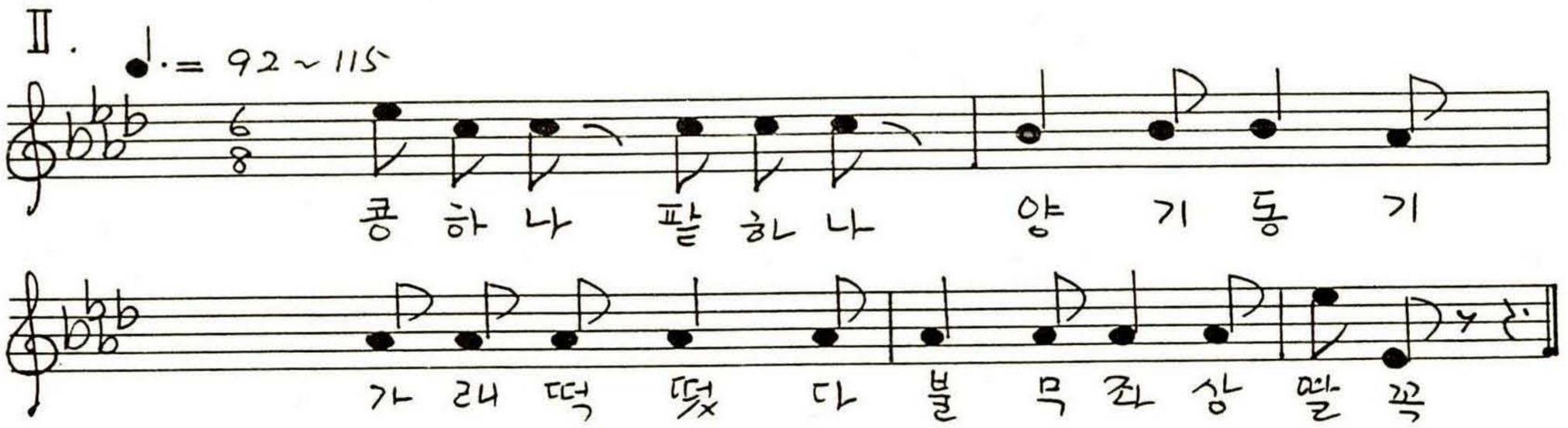


〈홍주 272〉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Ⅰ. 이거리 저거리
Ⅱ. 콩하나 팥하나

전차순(1924.여)
素94-3-1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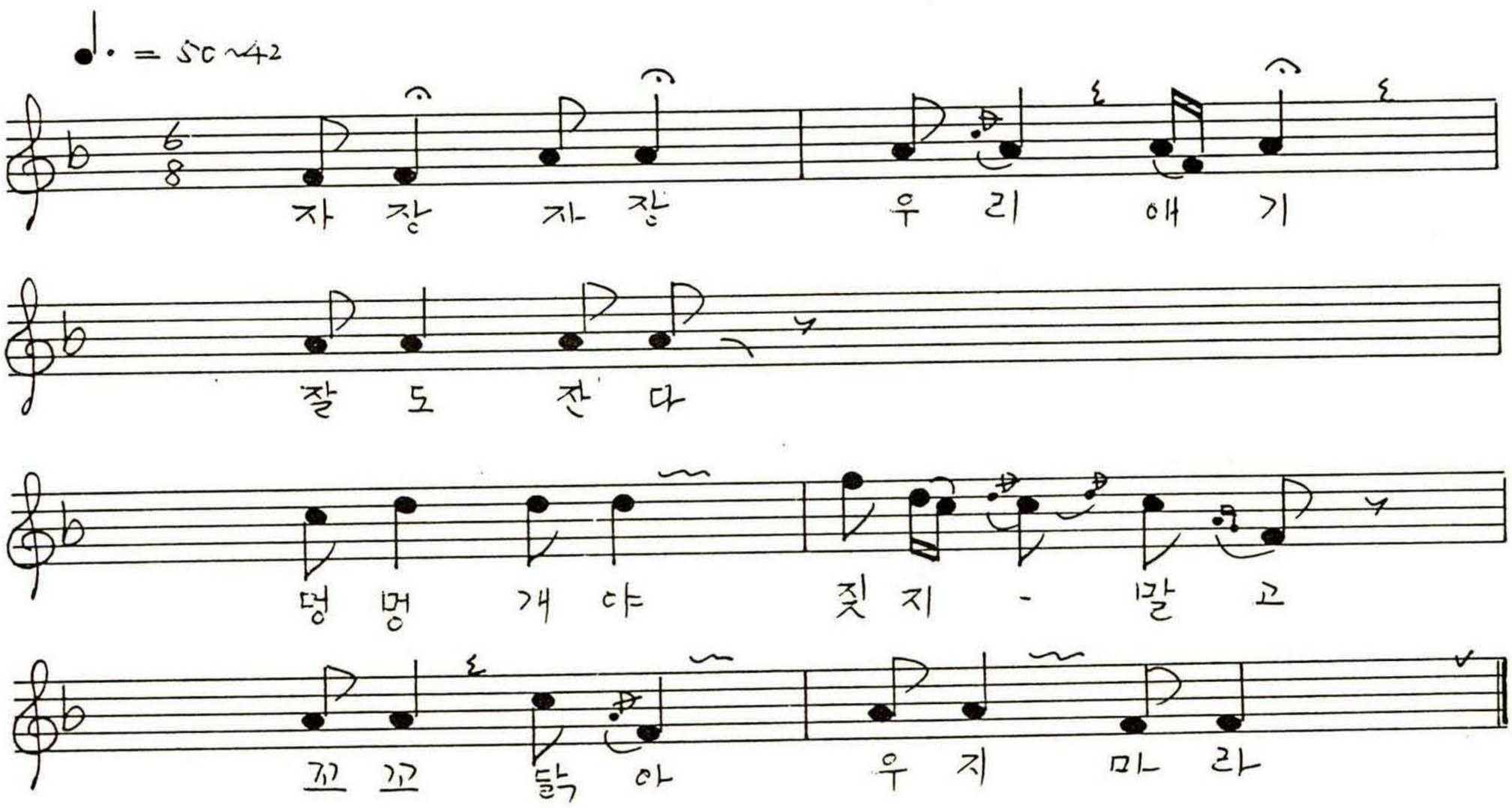




〈홍주 273〉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

자 장 가

이관수 창
94-3-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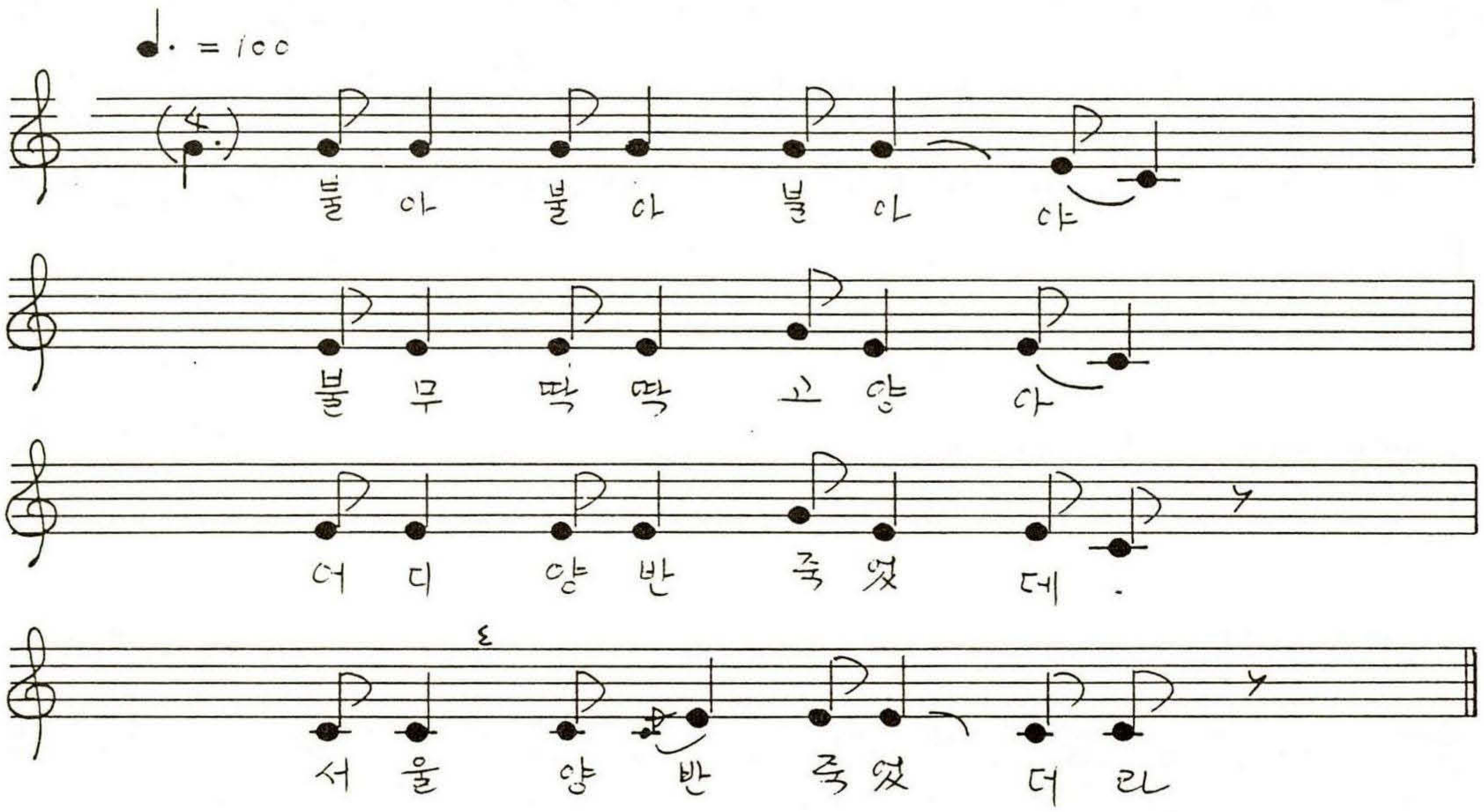


우리애기 잠못〈잔다〉
사창에 비친달은
우리애기 잠든 얼굴
곱게곱게 비쳐주네

〈홍주 274〉 홍성군 금마면

불 아

최병현 창
素94-3-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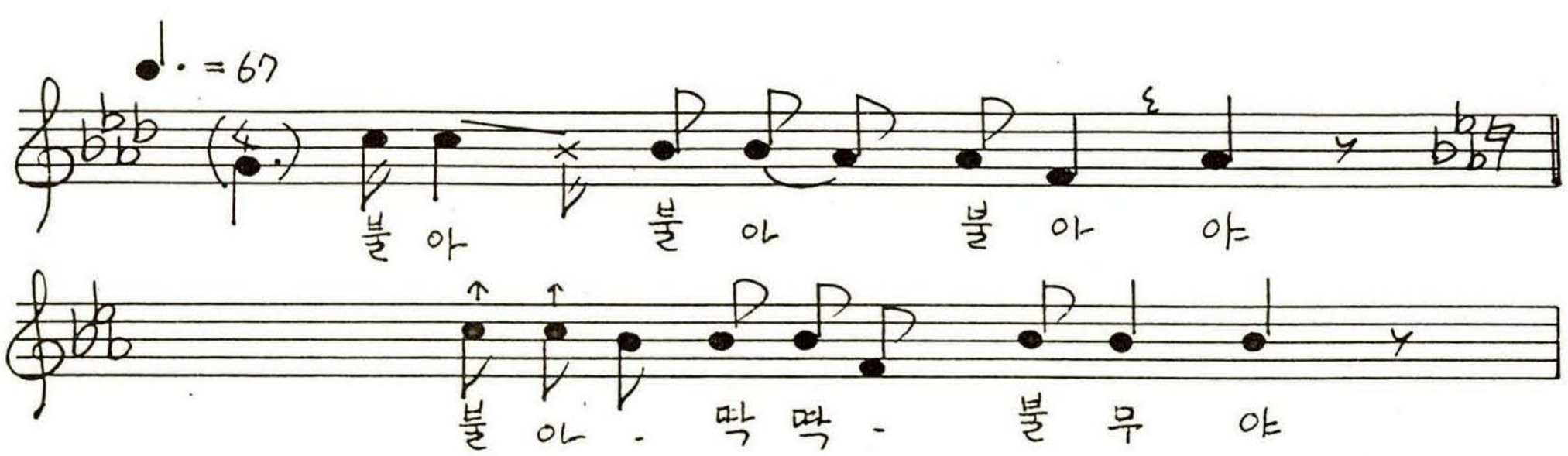
어디서 죽었더냐
개구녕이서 죽었더라
무엇무엇 조상하대
암개 숫개 조상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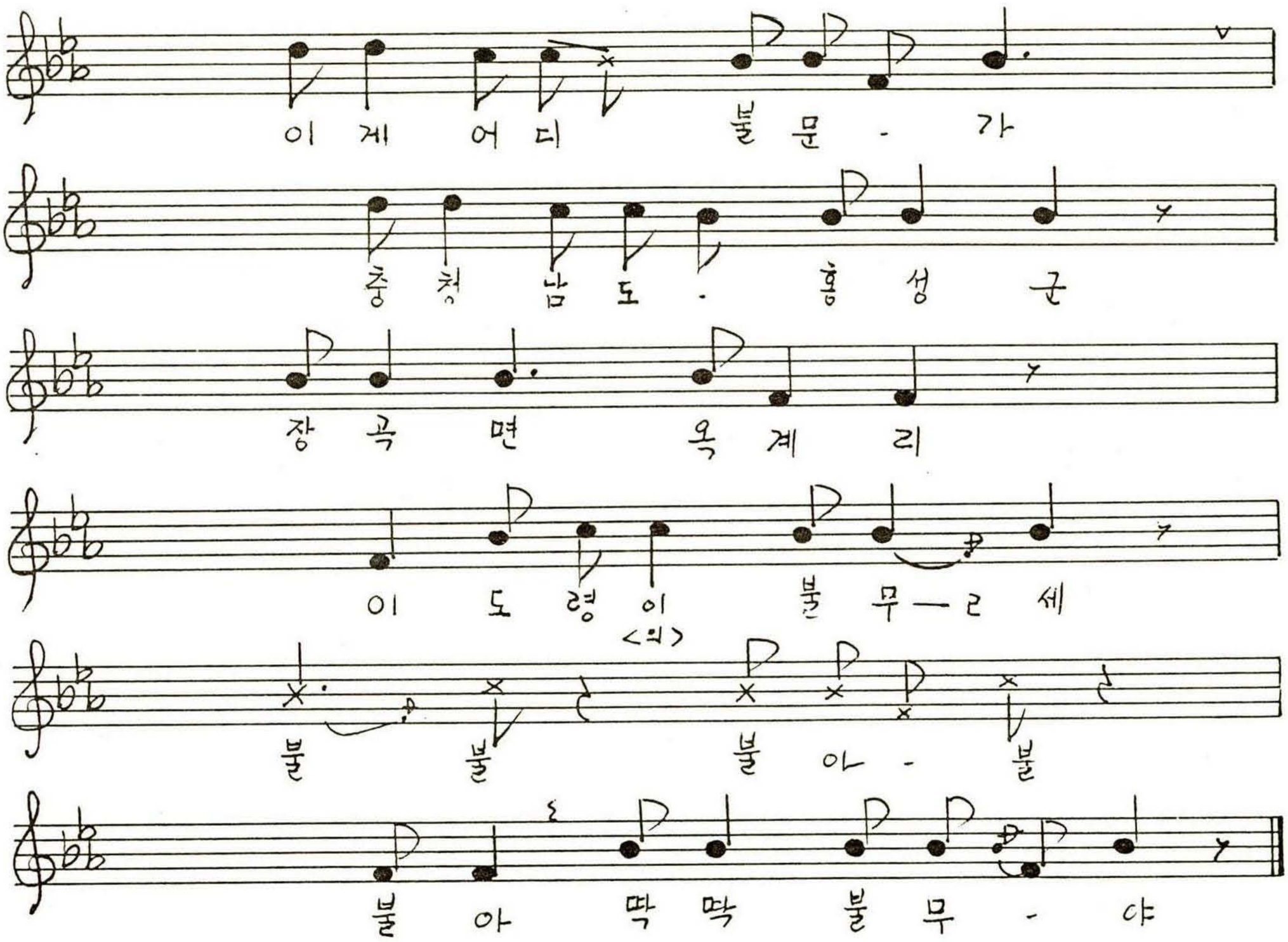
※ 애기어루는 소리로서의 불무노래는 대장간에서 풀무질로 바람을 일으키는 작업에서 연유되었다.
홍성군에서 수집한 것<274~278①>은 모두 시작말은 "불아 불아"로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중에서 <274>와 <275>가 유형적이다. <275>가 보다 일반형이며 <276>은 특수형으로서 "불무딱딱 고양아/어디양반 죽었데/서울양반 죽었더라"가 상주군에서도 발견된다.

〈홍주 275〉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불 아

이태훈(90-2-2[⑤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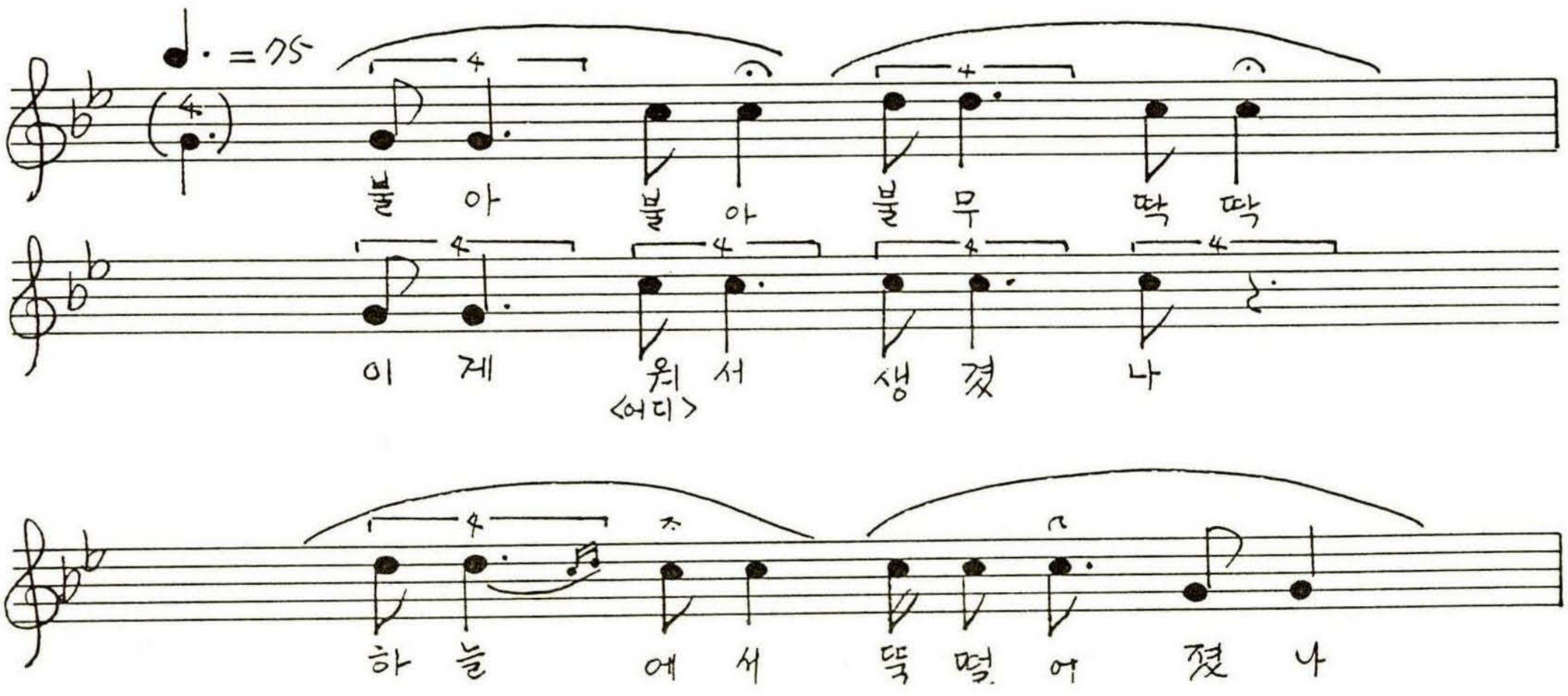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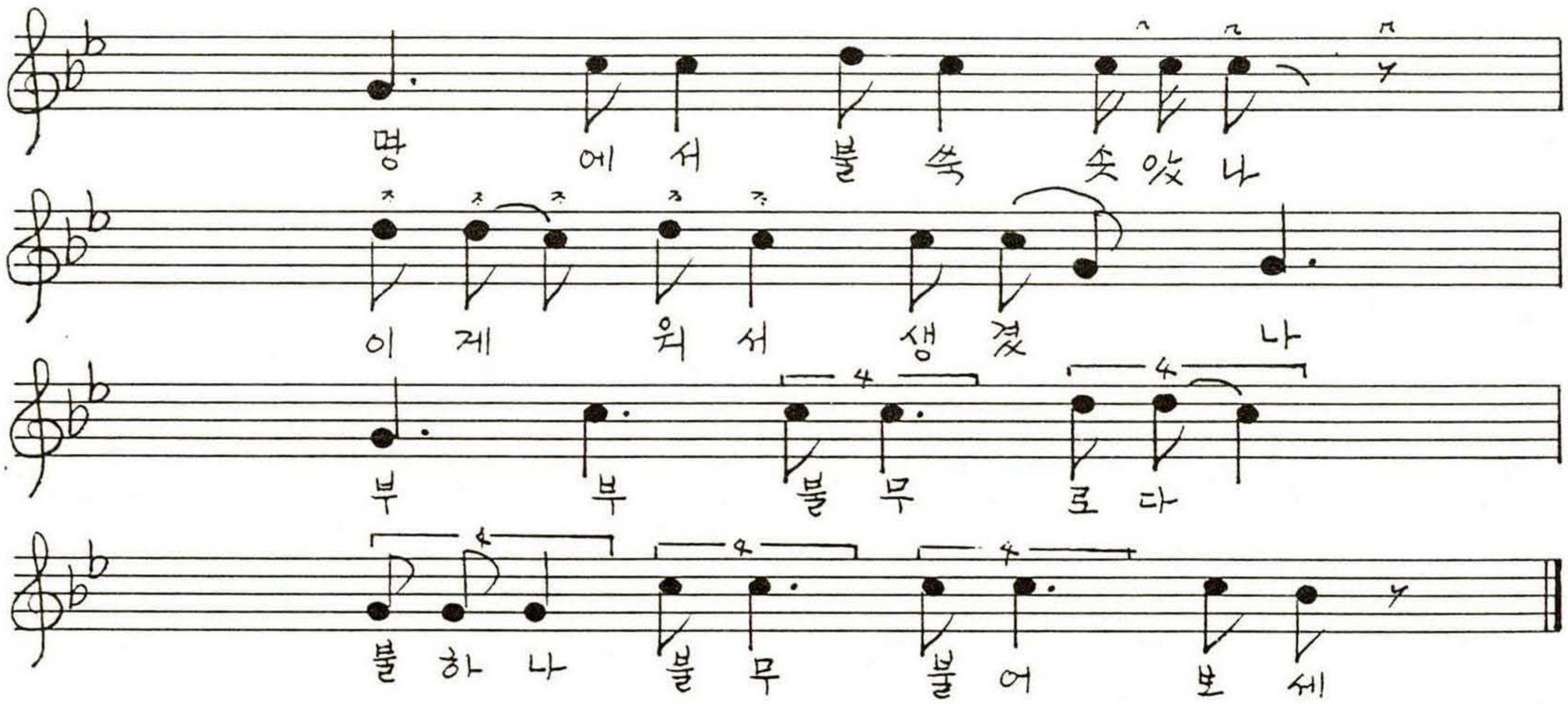


〈홍주 276〉보령군 줄포면 마강리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불 아

신현정(1934.여.마강리출생.
20세에 장척리로 시집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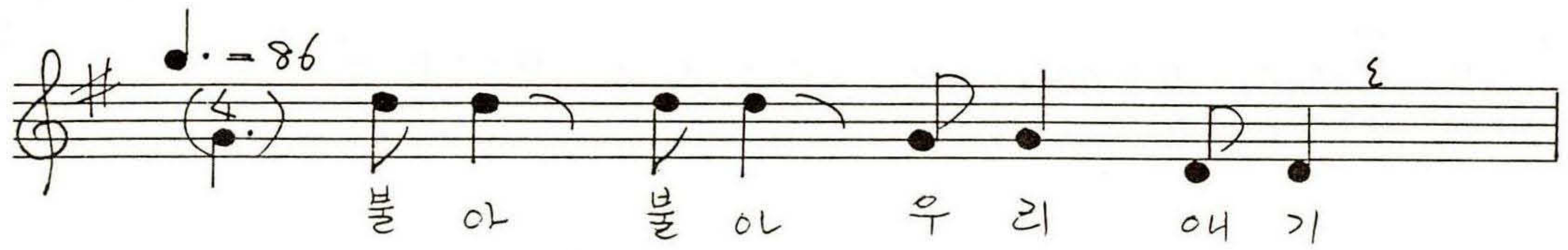


〈홍주 277〉 강원도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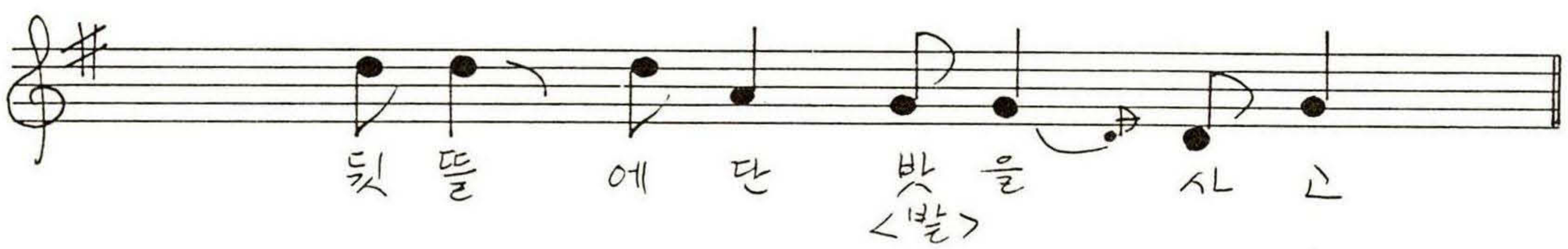
불 아

김옥녀(1917.여)
素94-3-13①B

★참고用 〈실음은 4도 더 낮음〉



방아 찧여서



앞들에다간 논을 사서
천석만석을 끌어들여

〈홍주 278〉 홍성군 은하면 서부면

①불아,②달강달강 ③이거리 저거리

손천순
素90-2-3①B

① ○ 불아 불아 불아 불아, 옥자동이냐 금자동이냐
하늘우에 신선뎅이./

② ○ 달강 달강, 우리애기 잘도헌다. 끄덕 끄덕 달강/

③ ○ 이거리 저거리 갖거리, 천사만사 주머니끈
돌돌말어라 장두 칼/

〈홍주 279〉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달 강 달 강

최용환(89-11-28②B)

♩. = 75~86

달 강 달 강 달 강 달 강

서 울 질 이 가 다 가 -

밤 한 되 줏 어 서

살 강 밑 에 다 피 를 엎 더 니

머 리 감 은 새 양 쥐 가

들 랑 달 랑 드 가 먹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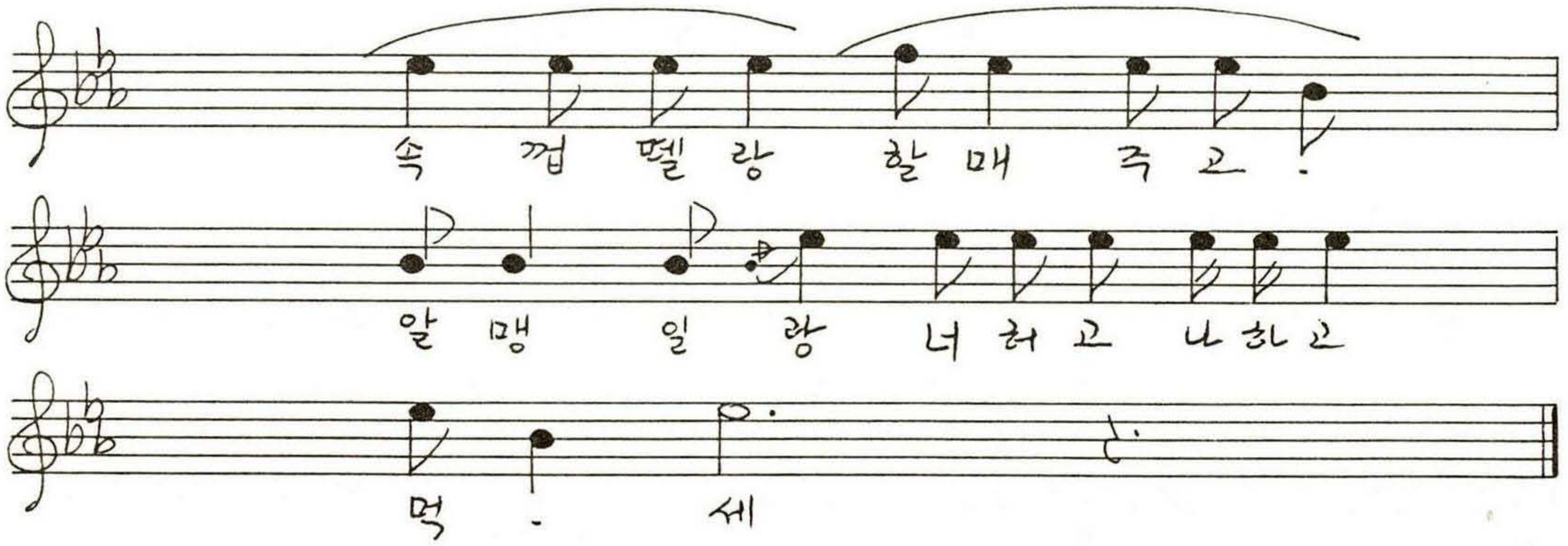
벌 레 텡 이 하 나 남 엇 는 데

가 마 솥 에 다 삶 을 、 까

밥 솥 에 다 삶 을 까

옹 솥 에 다 삶 을 까

걸 껍 떨 랑 할 아 비 죽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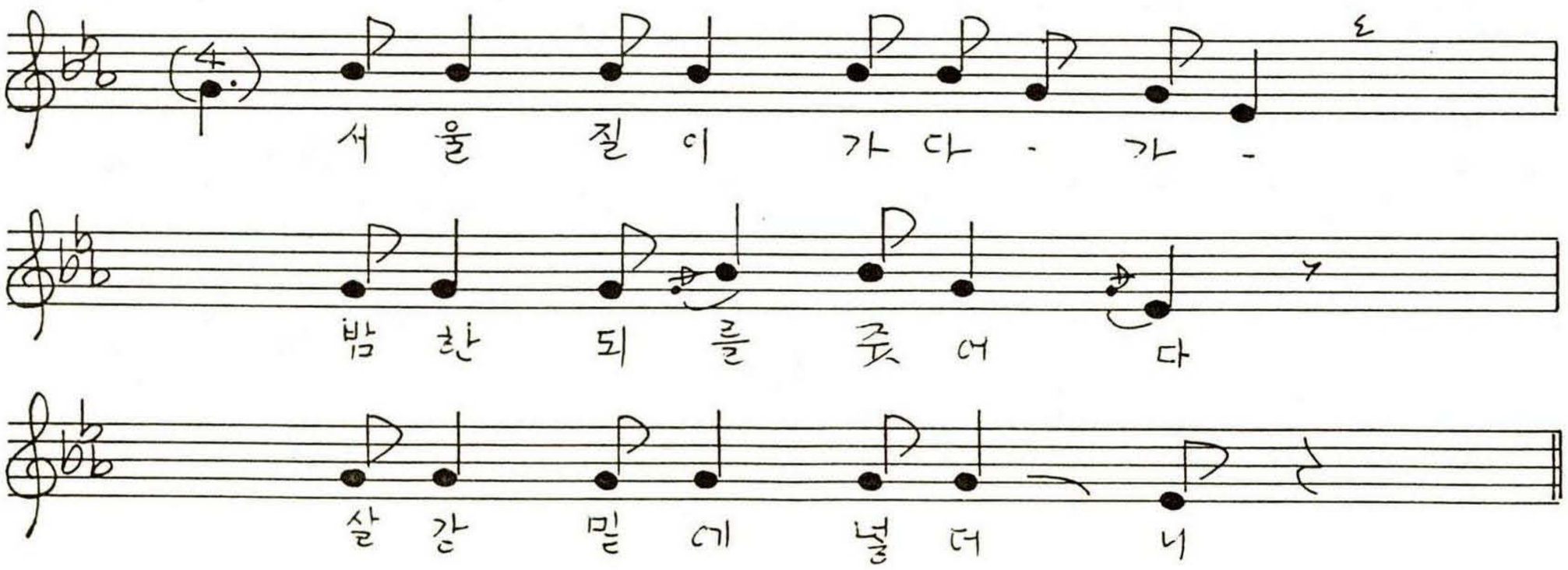


※ 〈279〉 : 달강달강은 대표적인 애기어루는 소리중의 하나이다.
민요권이 전국적이며, 돌되기전 아이의 아랫도리에 힘을 들이는 기능도 한다,
달강의 보편적인 줄거리는 밤을 한되 사뒀더니 새양쥐가 다 까먹어벼리고 다만 한알 남은 것을 껍질을 다른 식구들 주고 알맹이는 너랑나랑 먹자는 것이다.
살강이란 찬장을 의미한다. 달강류의 시작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홍성군과 상주군은 달강달강이며 부여군엔 달강달강(공주군, 괴산군)이 많은 편이나 달깡달깡(금산군, 순창군), 들강들강, 들깡달깡(부안군, 나주군, 고창군의 성내면과 고창읍) 달공달공(의령군, 강원도 고성군)도 발견된다. 그밖에 들궁달꿍(고창군 성송면), 알강달강(양산군), 세상달강(삼척군), 세상세상(안산시), 실강달강(안동군)의 型도 있다.

〈홍주 280〉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달 강** 최병현 창 素94-3-12[B]

♩. = 100~120

"달강달강, 달강달강"



오구가는 새양쥐가
들랑날랑 다까먹고
보레퉁이 하나 남었는데
가마솥에다 삶을까
옹솥에다 삶을까
가운데 솥에다 삶어서
대꼭지로 건질까
주걱으로 건질까
조랭이로 건져서
겉껍데길랑 할아버지주구
속껍데길랑 할머니주구
속알맹일랑 너허구 나허구 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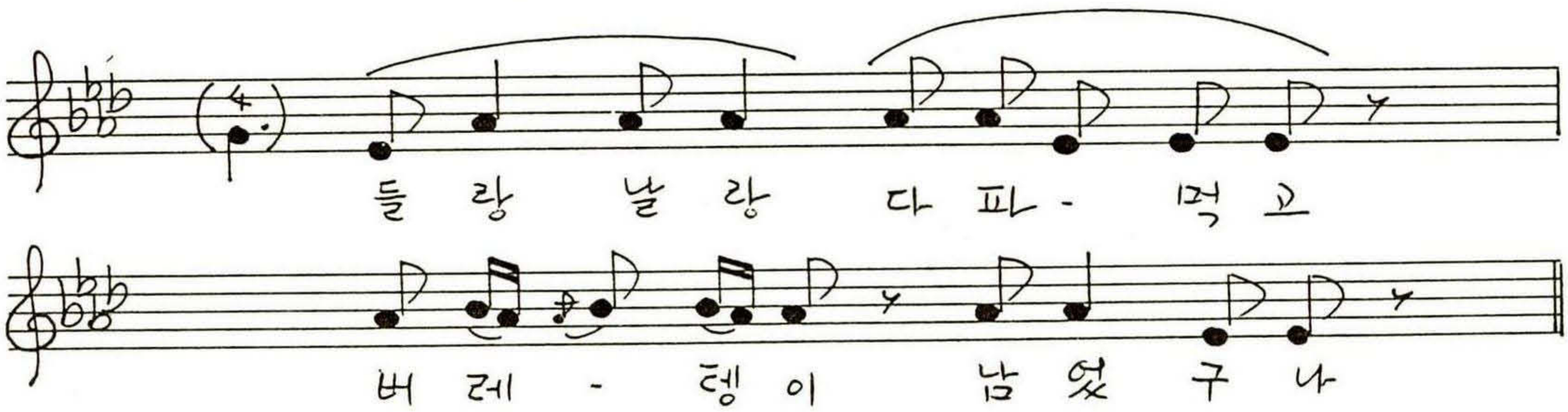
〈홍주 281〉 청양군 목면 대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달 강 달 강

전차순(1924.여.대평리출생. 15세에 동네결혼. 38세에 옥계 이주)
素94-3-13①A

♩. = 51~59

"달강 달강
너의 어머니 서울가다
군밤 닷되 줏어다가
살강 밑이 묻었더니"



"옹솥이다 삶을까
가마솥에 삶을까
옹솥이다 삶어서
왕껍델랑 아빠주고
속껍델랑 엄마주고
알맹일랑 너랑 나랑
다 까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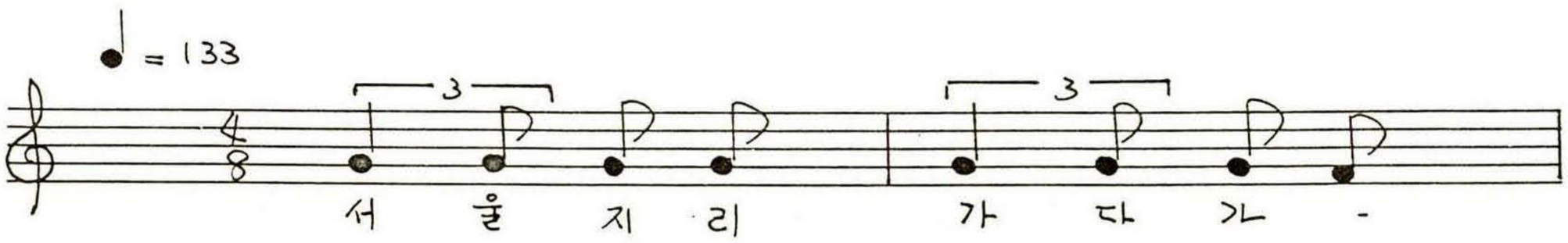
〈홍주 282①〉 갈산면 가곡리 **달 강 달 강** 이부숙 (94-2-27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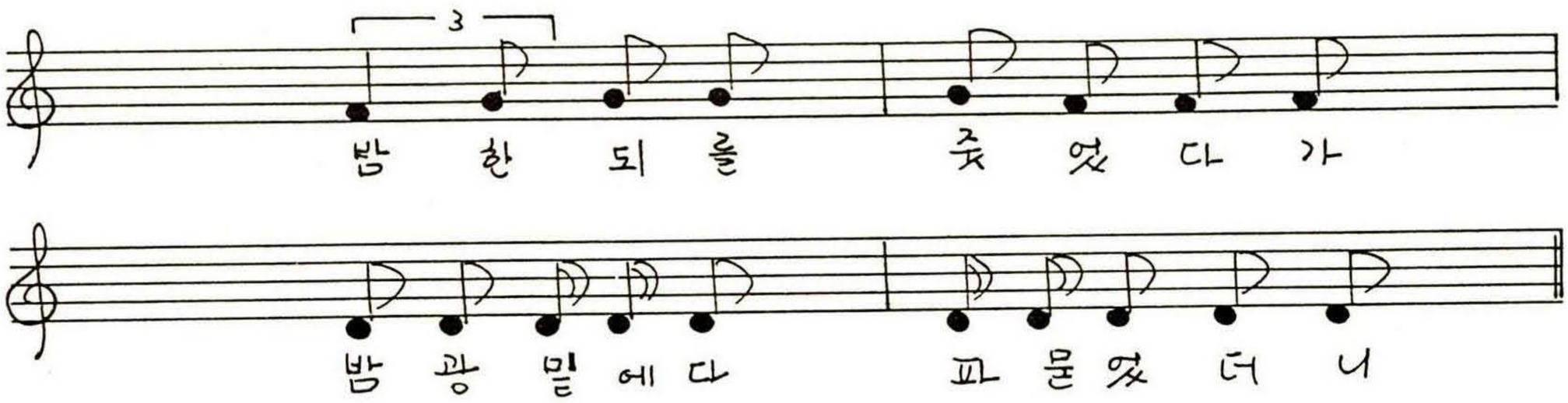
"애기 재우는 소리"라고 함.
달강달강
서울질이 갔더니
밤한되 줏어서
살강밑이 파묻었더니
들랑달랑 새양쥐가 다 까먹고
벌레텡이 하나백이 안남어서
큰솥이다 삶을까
가마솥이 삶을까
가마솥이 삶어서
선생님은 쭉데기만 주고
알맹이는 너하고 나하고 먹자

〈홍주 282②〉 장곡면 옥계리 **달 강 달 강** 이태훈(90-2-2⑤A)

달강달강달강, 서울질이 가다가서
밤한되를 줏었더니, 살강밑이 묻었더니
머리곱게 곱게 빗은 새양쥐가, 들랑날랑 다까먹고
보리챙이 하나 남었는디. 옹솥이다 삶을까
가마솥이다 삶어서, 대꼭지로 건질까
조래기로 건질까, 대꼭지로 건져서
겉껍데길랑은 증조할아버지 드리고
속껍데길랑은 할아버지 드리고
알맹일랑은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자

〈홍주 283〉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밤 한 되** 김항제(89-11-28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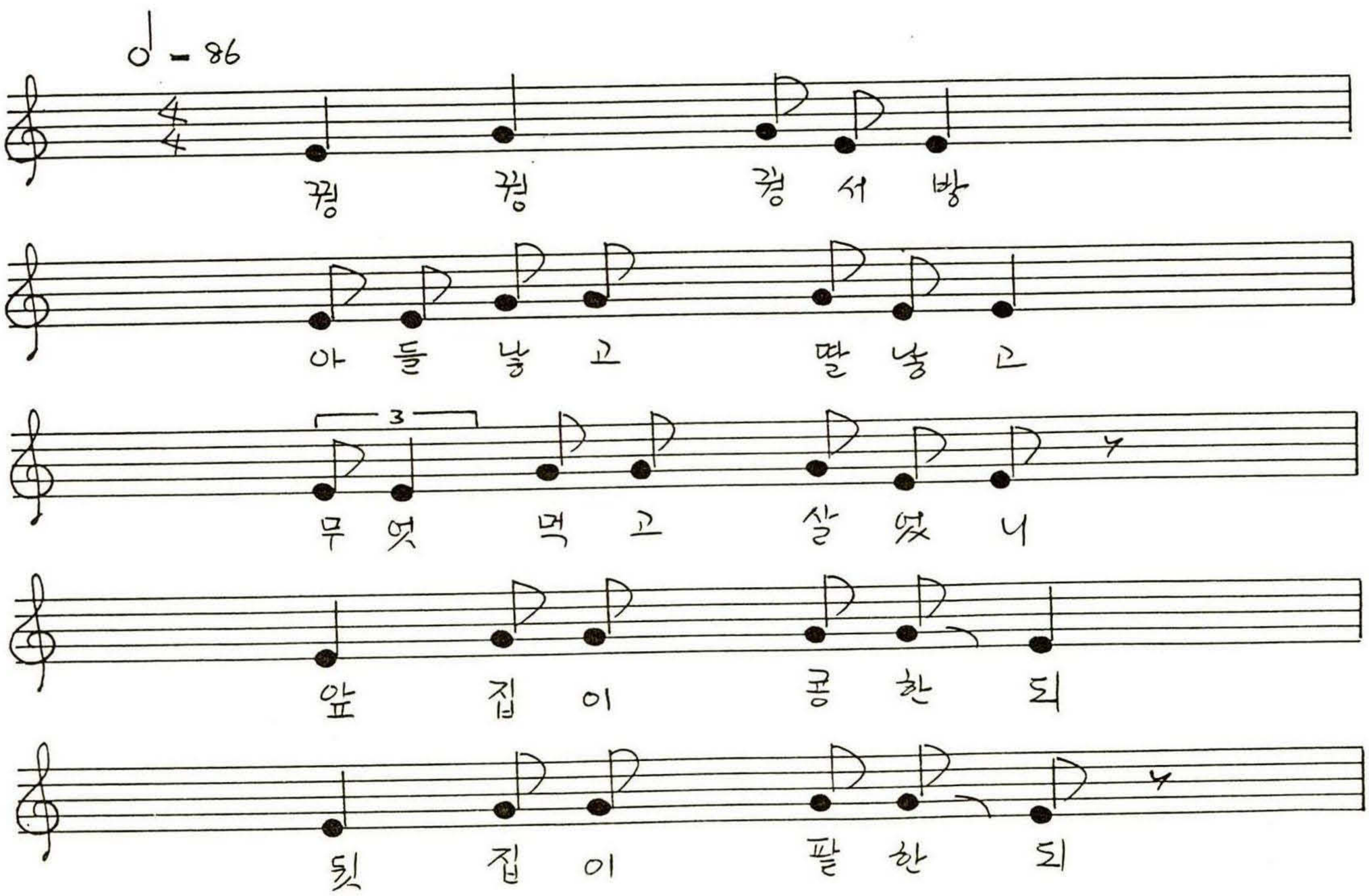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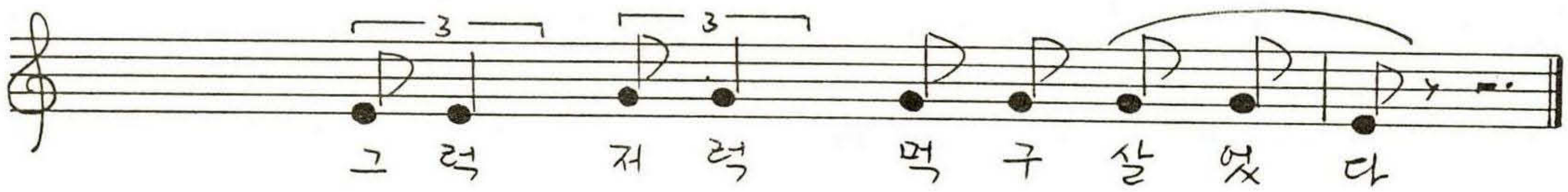
새양쥐가, 들락날락, 다까먹고
빈 쭈거니 남었구나
빈 쭈거기를 삶어서
아버지를 드릴까
할머니를 드릴까
할머니를 드렸더니
할머니가 좋아서
껄 껄 웃대 —

〈홍주 284〉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꿩 서 방

전차순(1924.여)
素94-3-13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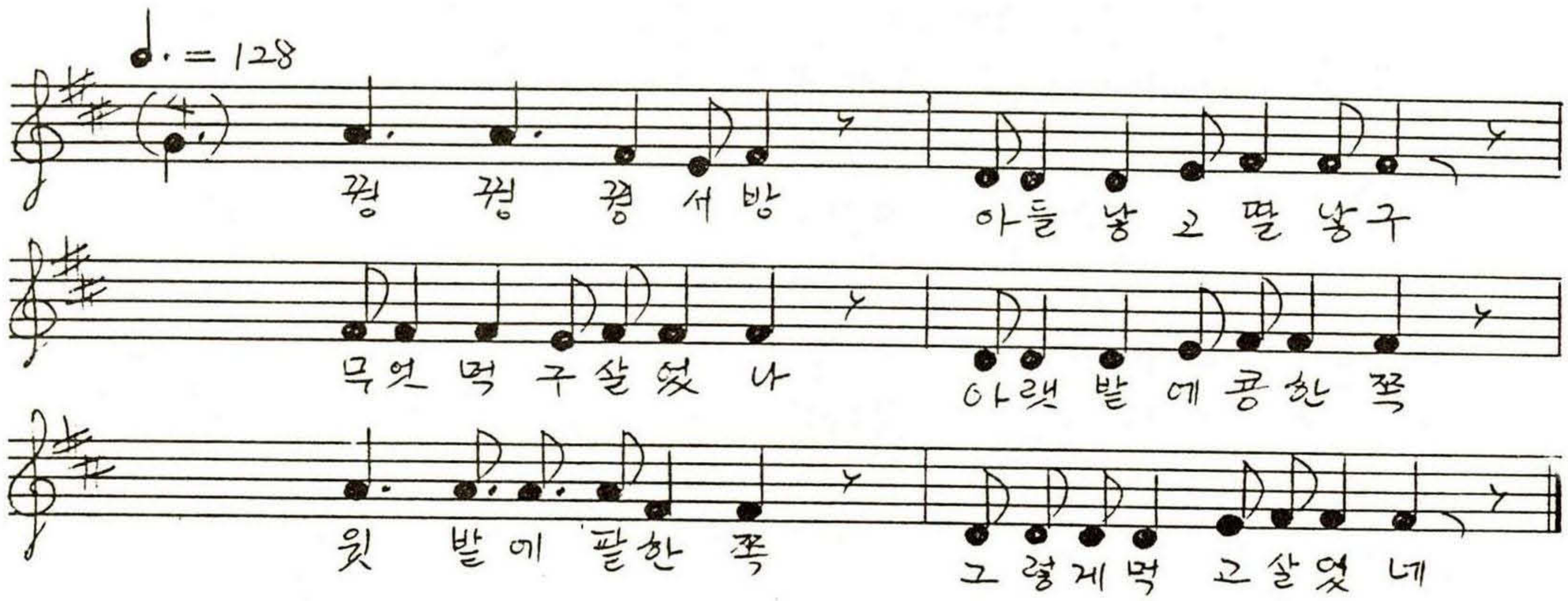




〈홍주 285〉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꿩 서 방

최용환(1933.남.土民)창
素29-11-28^{②B}



〈홍주 286〉 서부면 상황리

꿩 꿩 장 서 방

손천순(1918.여.서부면 상황리출생,18세에 은하면 대천리로 시집옴)

꿩꿩 장서방 아들낳고 딸낳구 무엇먹고 자랐니
이웃집이 콩한되, 아랫집이 팥한되 그것줘서 먹었다.
무엇덮고 잤니, 뒷동산 올라가 돌팍밑에 가랑잎 덮고 잤지

〈홍주 287〉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까 치(놀이동요)

이기춘(90-2-3^{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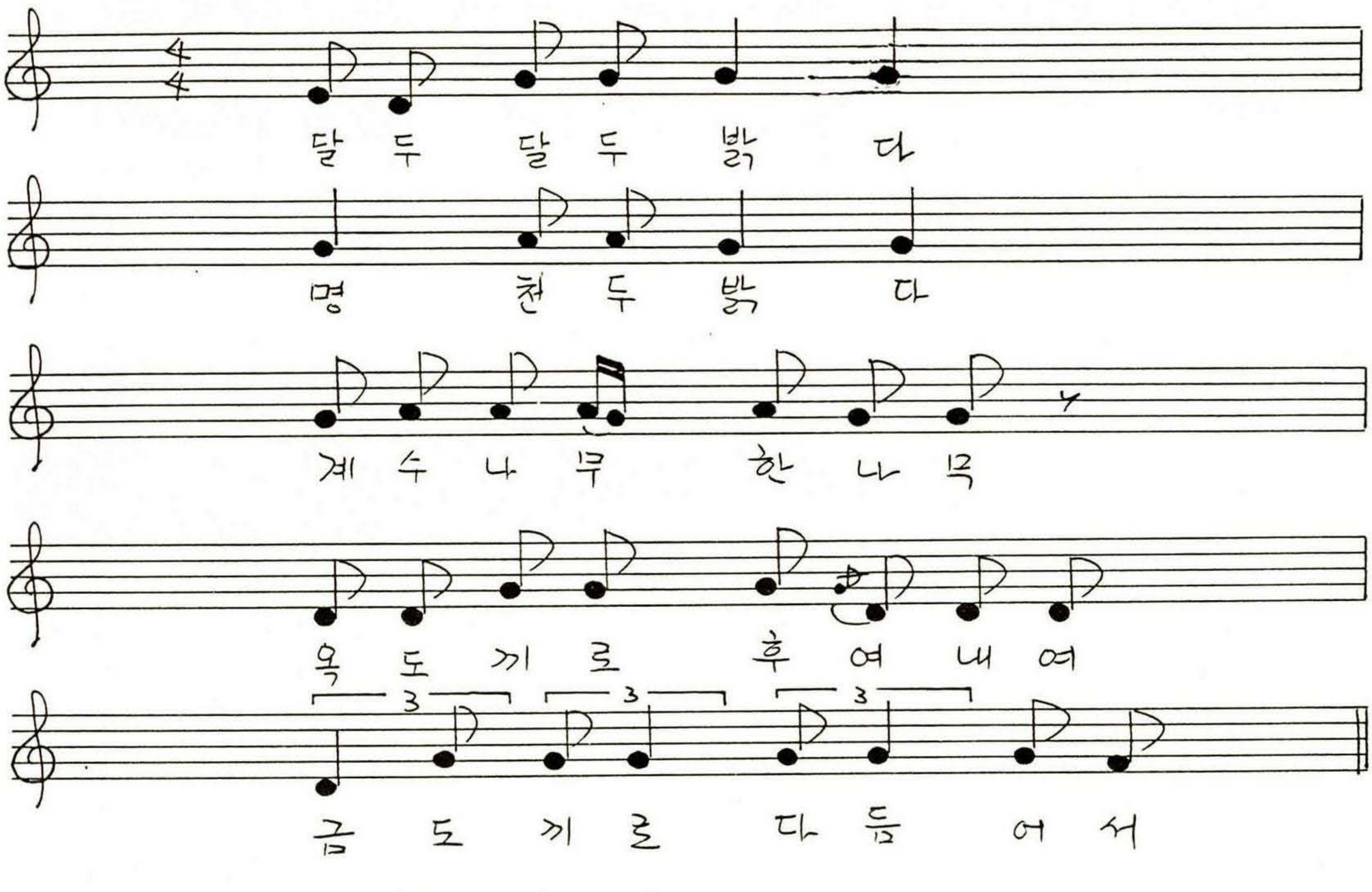
까치까치 날라까치
제비제비 포록제비
나바나비 푸럭나비
임금 한쌍 잡어놓고
아랫녁이 웃녁이 살다가
먹고 말자

〈홍주 288〉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달(동요곡 풍)

전차순(94-3-13^{①B})

★참고用(∵녹음상태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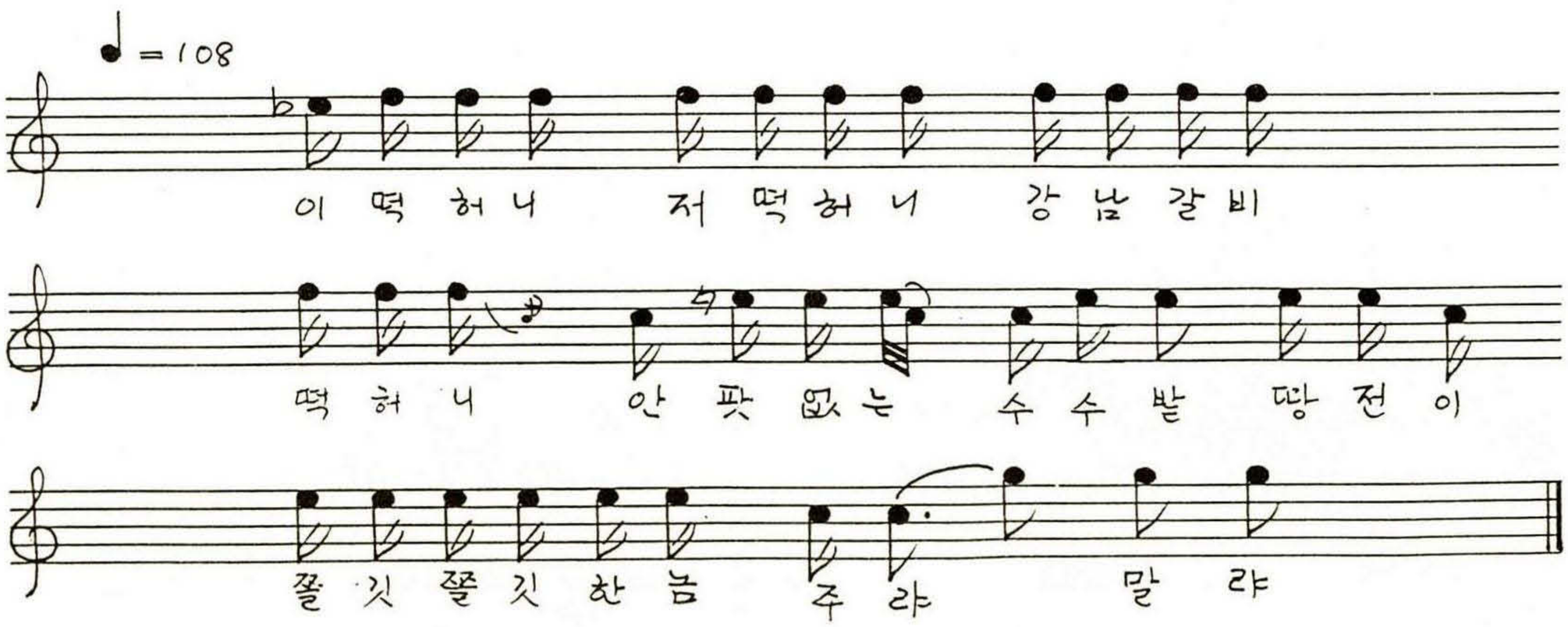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홍주 289 〉 홍성군 홍동면 금당리

싸움할때 뺨때리며

이기춘(90-2-3^{⑤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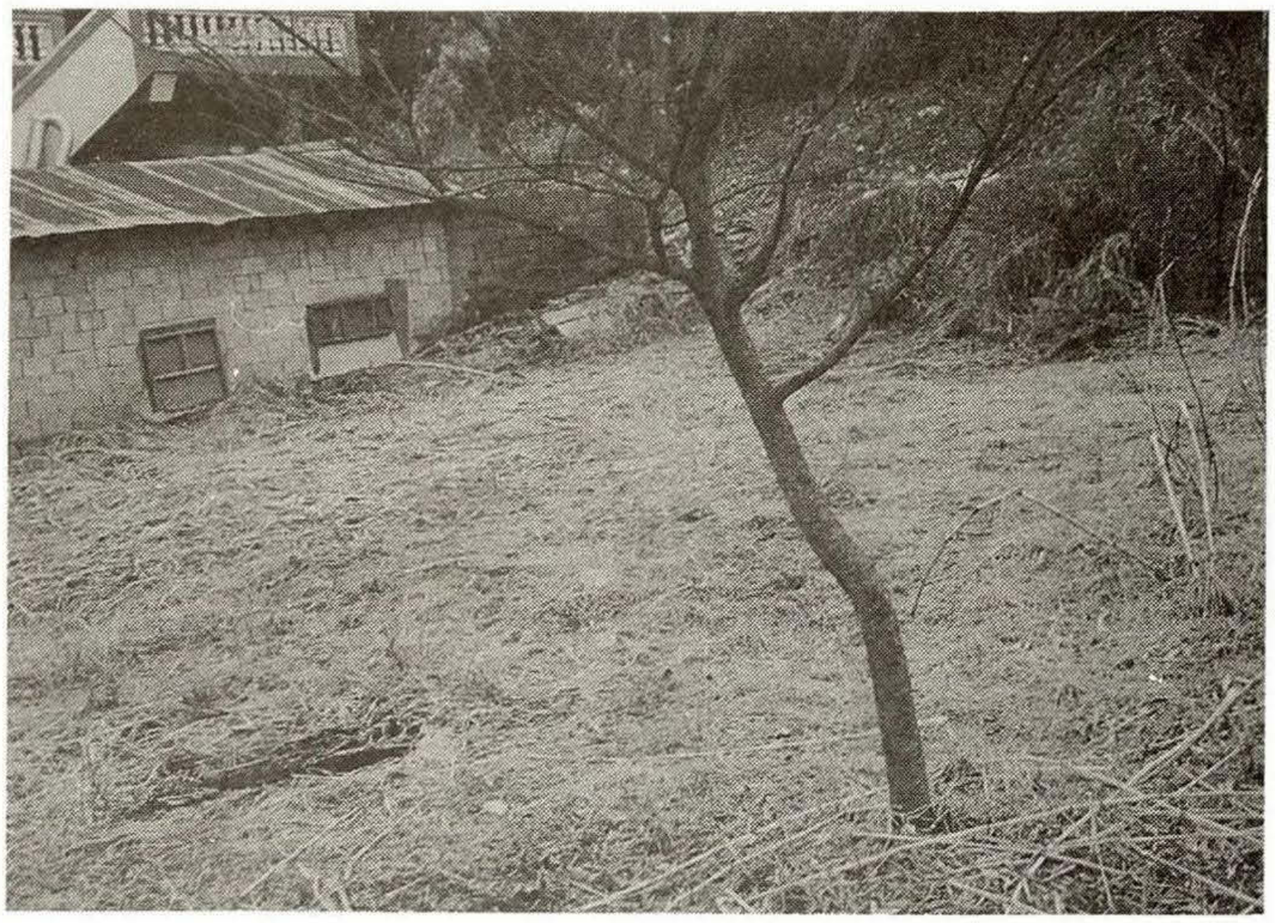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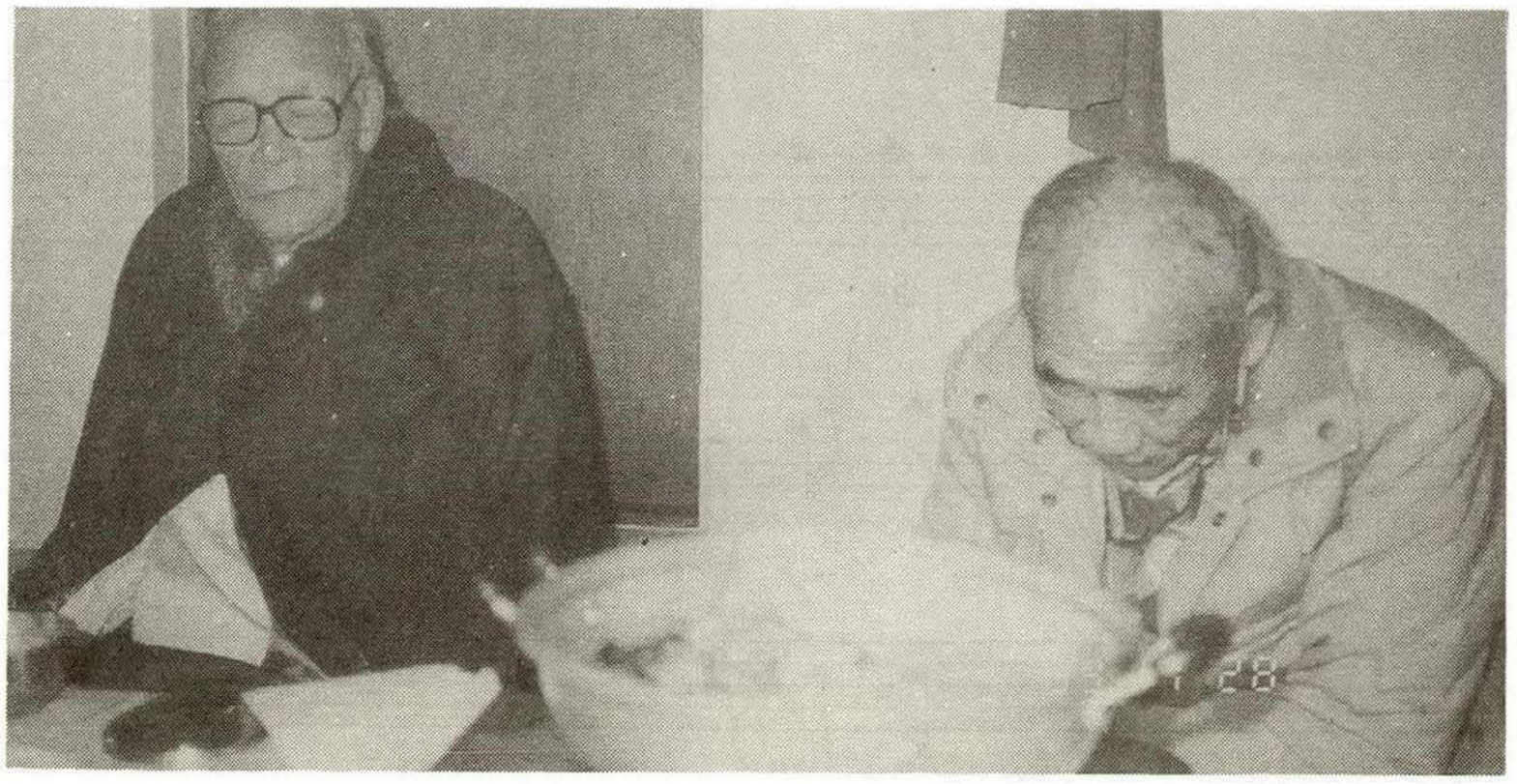


〈사진 98〉 결성면 교항리에서 용호리 김창룡 유적지를 향해 찍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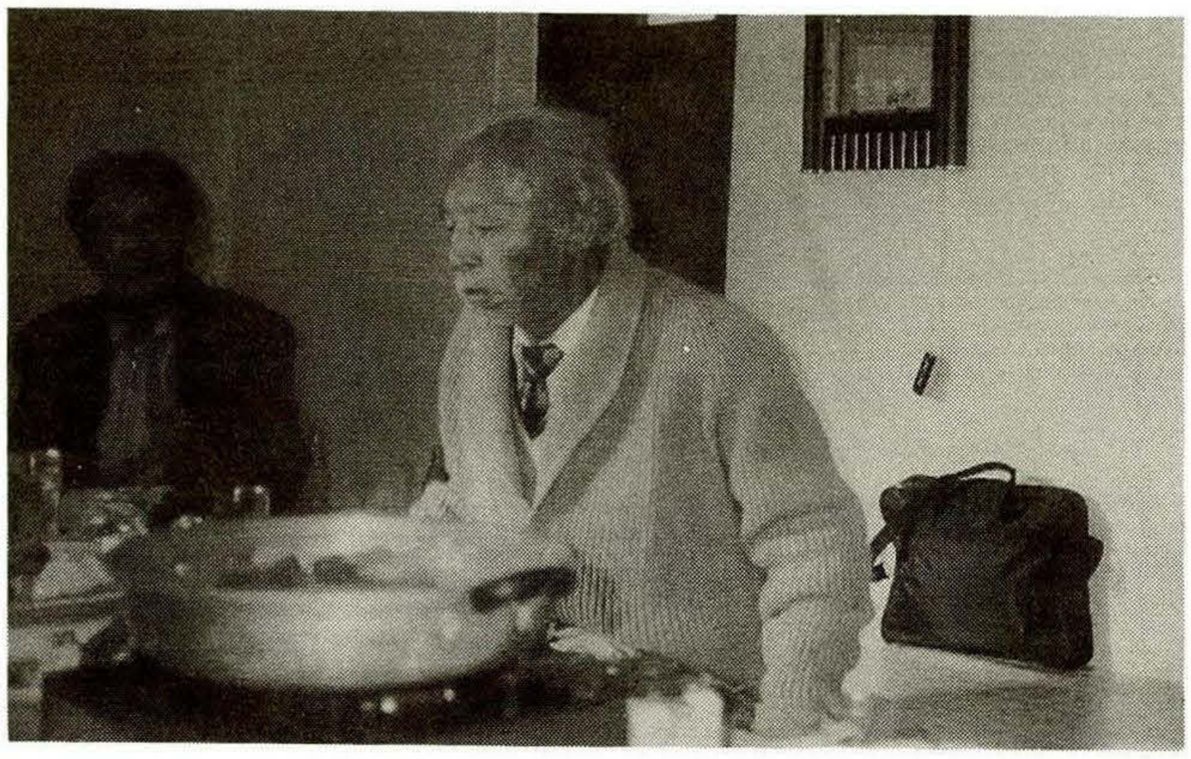
〈사진 99〉 결성면 용호리 판소리명인 김창룡이 45여년간 머물렀던 집터

金昌龍(1872~1935):충남. 서천 출생.
1932년에 그의 고향으로 이사가기 전에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조승갑氏 소유지이다.
이 마을에서는 적벽가 명인으로 호칭되었다. 큰아들은 부친을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고 딸 하나는 무당소리도 잘했다 한다.
김창룡의 식구들은 1925년 이후 뿔뿔이 헤어져 살았다고함.(고증자:백우현. 87세. 남. 용호리 김창룡 유적지의 이웃집에 거주. 27세때에 군산 모극장에서 김창룡의 판소리를 들은 바있다고 함.)





〈사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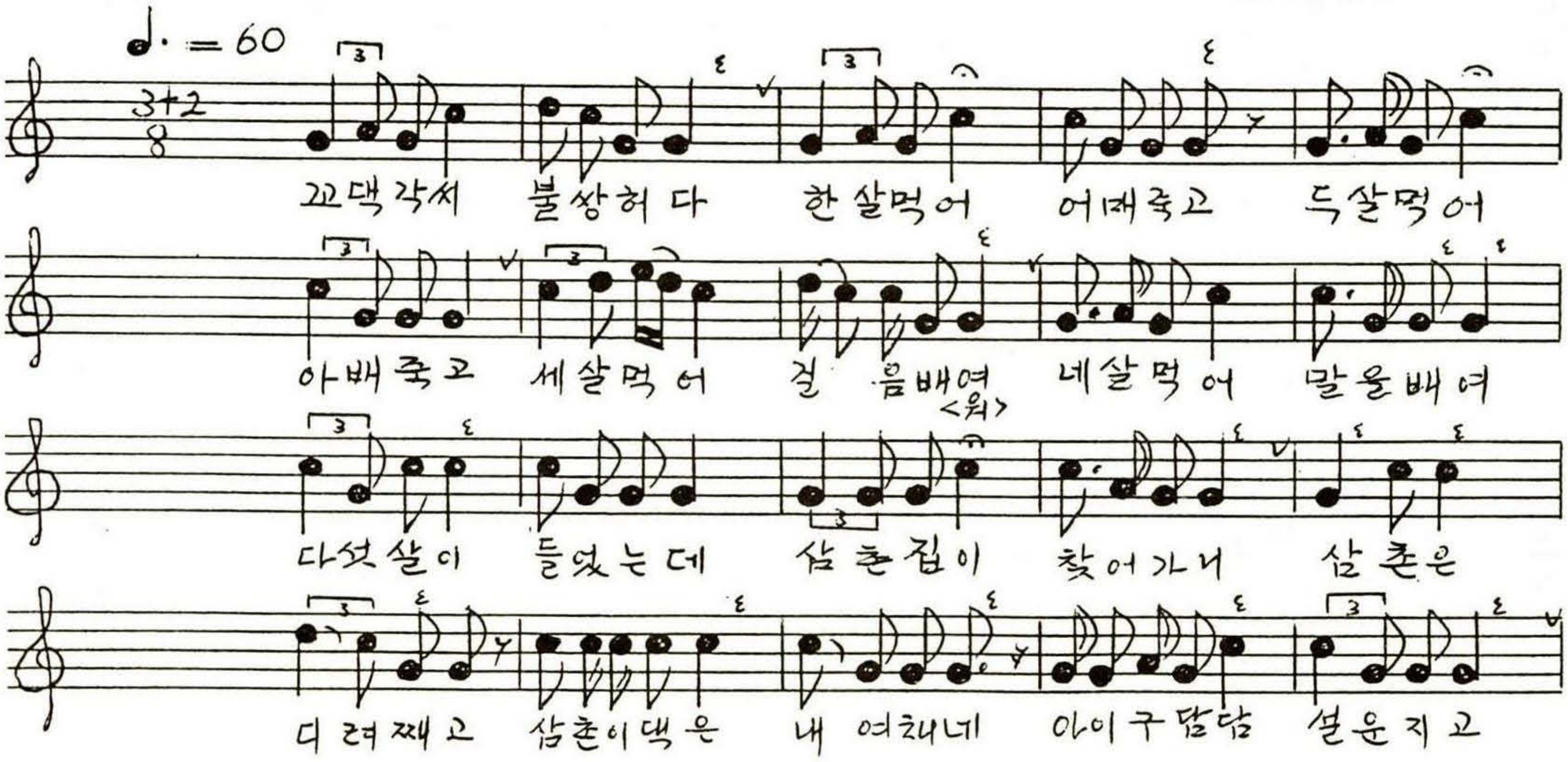
〈사진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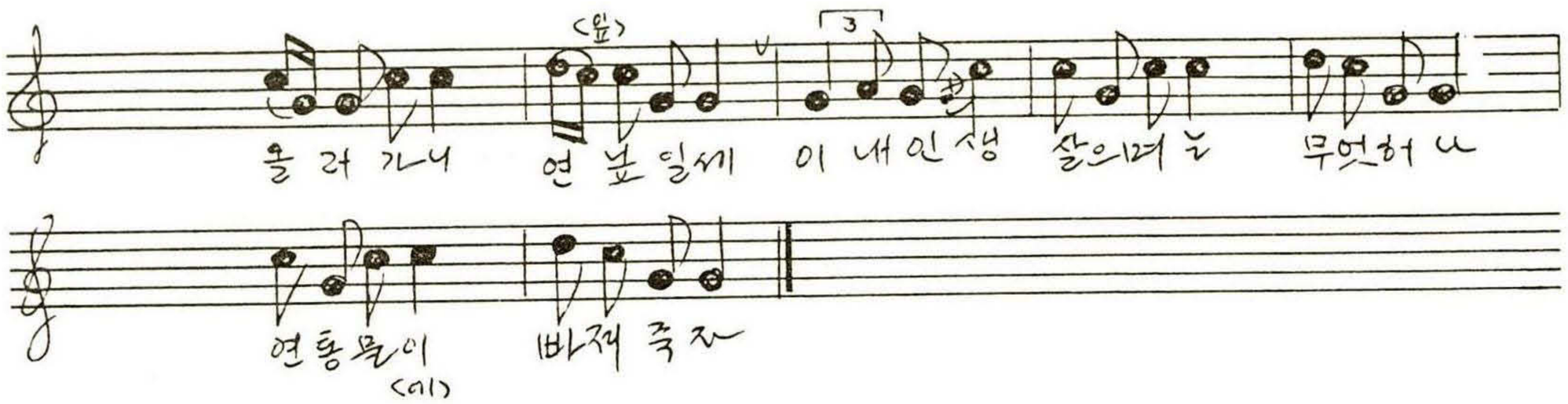
〈사진 102〉
〈사진 100~102〉 홍성읍에서 1989.11.28
이흥노 정병길 김동선
안산옥 윤진복 등

〈홍주 290〉 홍성군 은하면대천리
서부면상황리 **꼬 댁 각 시**

손천순(1918.여.상황리出生 18歲에 대천리로 시집옴)唱
素 90-2-3①A



이내설움 엇다푸나 아이구담담 설운지고 그럭저럭
칠팔세가 되엿는디 중신애비 문뜩달래 시집채엿
가노라니 삼일만이 부엌이라고 들어가니 솥동이 훌
열고보니 거미줄만 잔뜩엉켜 뒷동산이 올라가서
양지끌이 앞고사리 음지끌이 음고사리 오금지금
꺾어다가 흘르는물에 흥쳐내여 끓는물이 대떠려서
아랫반문 열어보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진지조반
잡수시오 앓다이년 고만두란 네년한밥 안먹는다
건너방문 열고보니 고재낭군 누웠잇네 고재낭군
서·방님 고사리나물, 잡수시오 예라이년 고만둬라
뉘라한밥 안먹는다 아이구담담 서른지고 이내설움
엇다푸나 연입이라고 올라가니 댓닙일세 댓닙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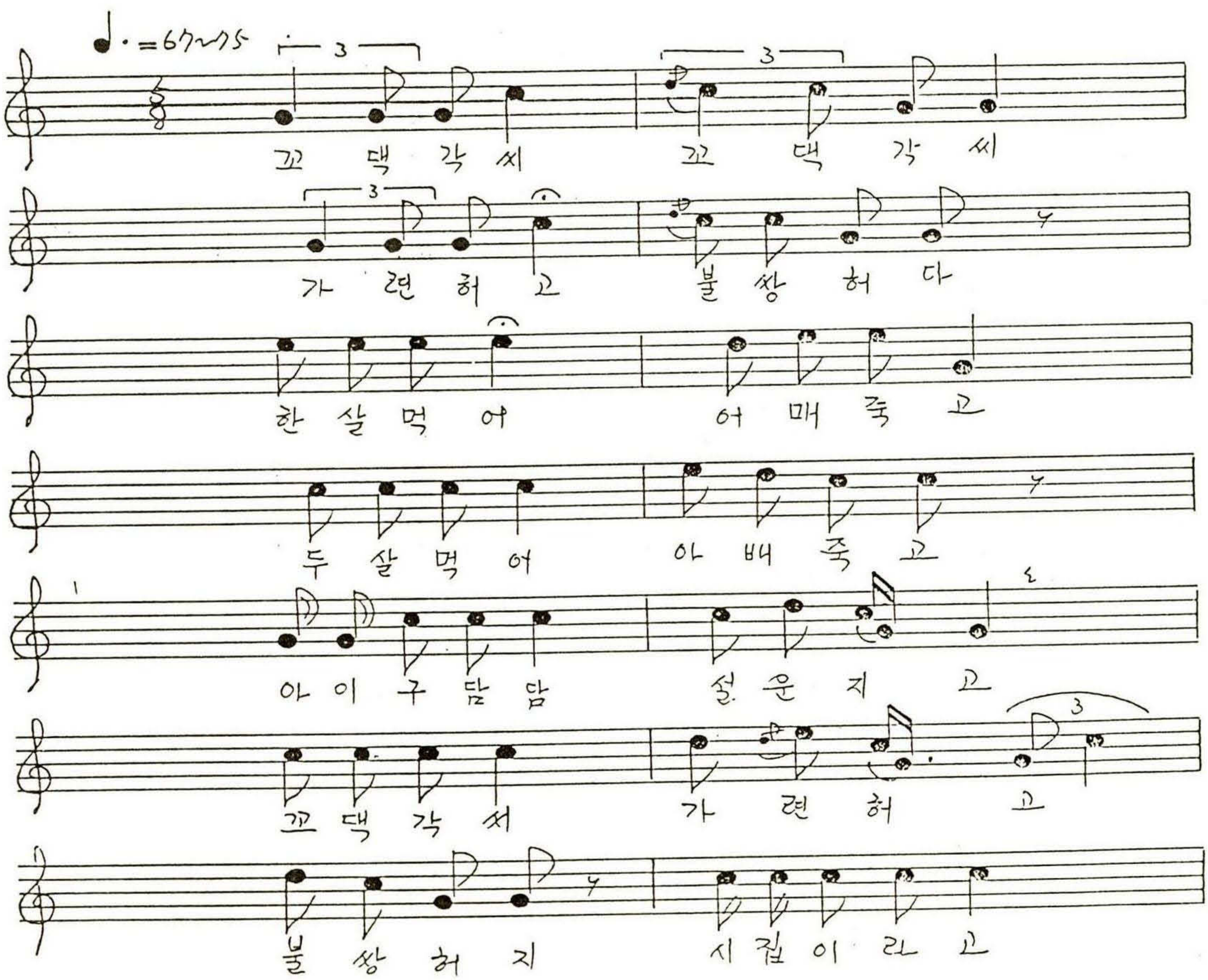
※ 〈홍주290〉과 동일 내용의 꼬댁각씨 노래를 결성면의 이성점, 서부면의 홍아지(80세. 여) 및 부여군에서도 수집하였다. 이 지역 처자들이 둘이 마주 앉아 놀면서도 잘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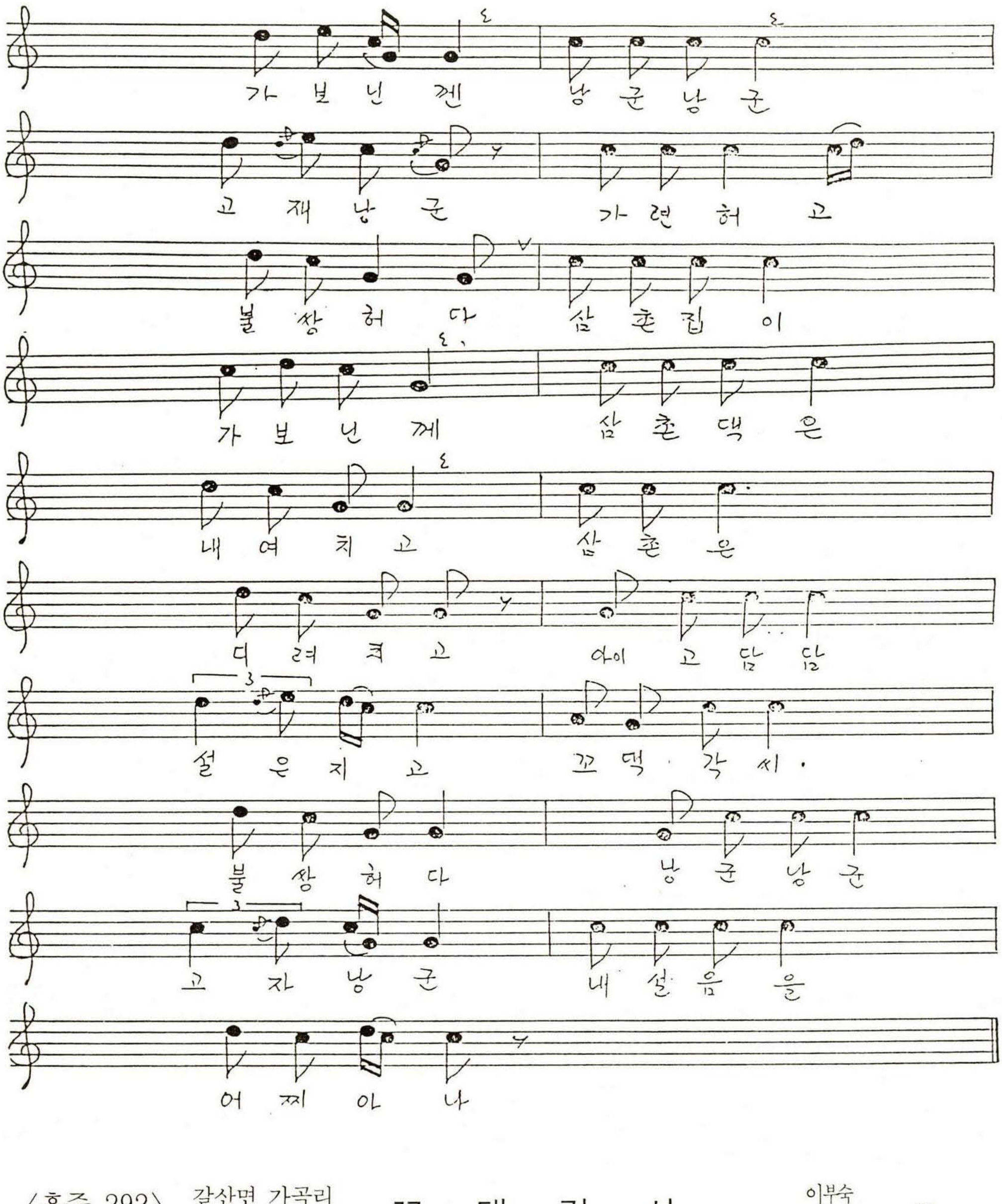
〈홍주 291〉 홍성군 결성면 갈산면

꼬 댁 각 시

이성점 唱

素 90-2-2⑥A





〈홍주 292〉 갈산면 가곡리

꼬 댁 각 시

이부숙
素 94-2-27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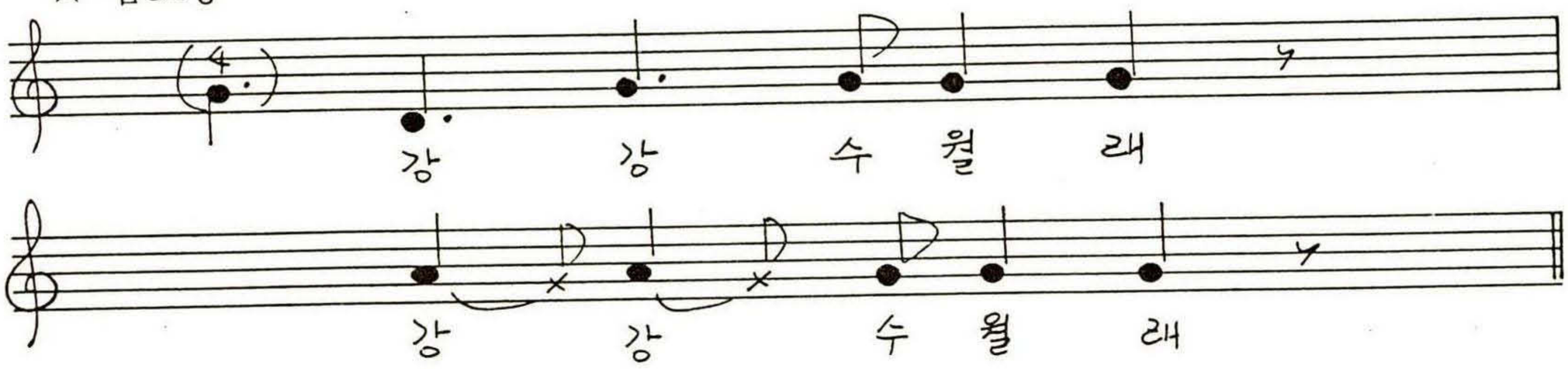
(메) 꼬댁각씨 불쌍하다
한살먹어 오매죽고
두살먹어 아버지죽고
세살먹어 삼촌이 성내 갔더니
삼촌은 찢어채고
삼촌의 댁은 내여채네
아이고 답답 설음지어
꼬댁각씨 불쌍허다.

〈홍주 293〉 서부면 은하면 **춘 양 아 씨** 손천순 素 90-2-3ⒹB

춘향아씨 춘향아씨 나이는 18세 이름은 춘향아씨/
- 이 구절만 계속 반복해 부르면 신이 오르게 된다.

〈홍주 294〉 홍성군 광천읍 운용리 **강 강 수 월 래** 이병후, 김청일 素 90-2-3⑦A

★ 참고용



〈홍주 295〉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멍 석 말 이 놀 이** 최정연 素 89-11-29②A

I ○ 고사리 대사리 꺾자
멍석말자 대문열어라
저산넘어 비들어온다 소내기 온다
※ 정월 보름 부녀자들의 놀리로, 멕이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부름.

II ○ "얘들아 둥근달밤에 맘껏 놀아보자" 사람들이 손을 잡고
"높은 산에 소내기 들어온다. 야산에 이슬비가 온다 멍석을 말아 들이자" 하면
"야- "하고 뺑 돌고 "풀러라"하면 대문연다고 시늉하곤 했다.
※ 강강술래는 안했다.

〈홍주 296〉 부여군 내사면 홍성군 광천읍 **널 뛰 는 소 리** 최정연 素 89-11-29B

대각에다 둘른나무 목재소로 들판을 맨들자. 엉덩이로 뛸까
무릎으로 뛸까. 오이씨같은 버선 신어 한번 뛰면 퉁 두번뛰어 퉁
세번뛰어 상체 좌향 둘러보자. 밥상디려라 - , 문열어라
안방건너 서방님 앞에 밥상디릴까, 아래채에 목심 수자의 영감님 밥상부텀
디려가자. 안채에 복복자의 발을 둘러 굴러다가 시어머니 밥상 디려보자. 어화 청춘
들아 열나흩날 열네번 널을 뛰면 파리춤안놓고 일년열두달에 120번만 뛰어보면 수
명장수할테닌께
대판에다 널을 뛸까, 노적우에 말판놓은듯이 널을 뛰어보자-

〈홍주 297〉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I. 널 뛰 는 소 리
II. 쌍 그 네 소 리
III. 강 강 술 래

이부숙 등

I. ○ 널뛸때 : "어매밥이 많으냐
아배밥이 많으냐
어매가슴 핀다."

II. ○ 쌍그네뛸때 : "아금 배야" ;한사람이 "아금배야"하면 다른편도 "아금배야"함.

III. (받) : 강강술래

〈홍주 298〉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그 네

최광배 모친(1932.여.土民)
素 89-11-28③A
-선율은〈홍주 169〉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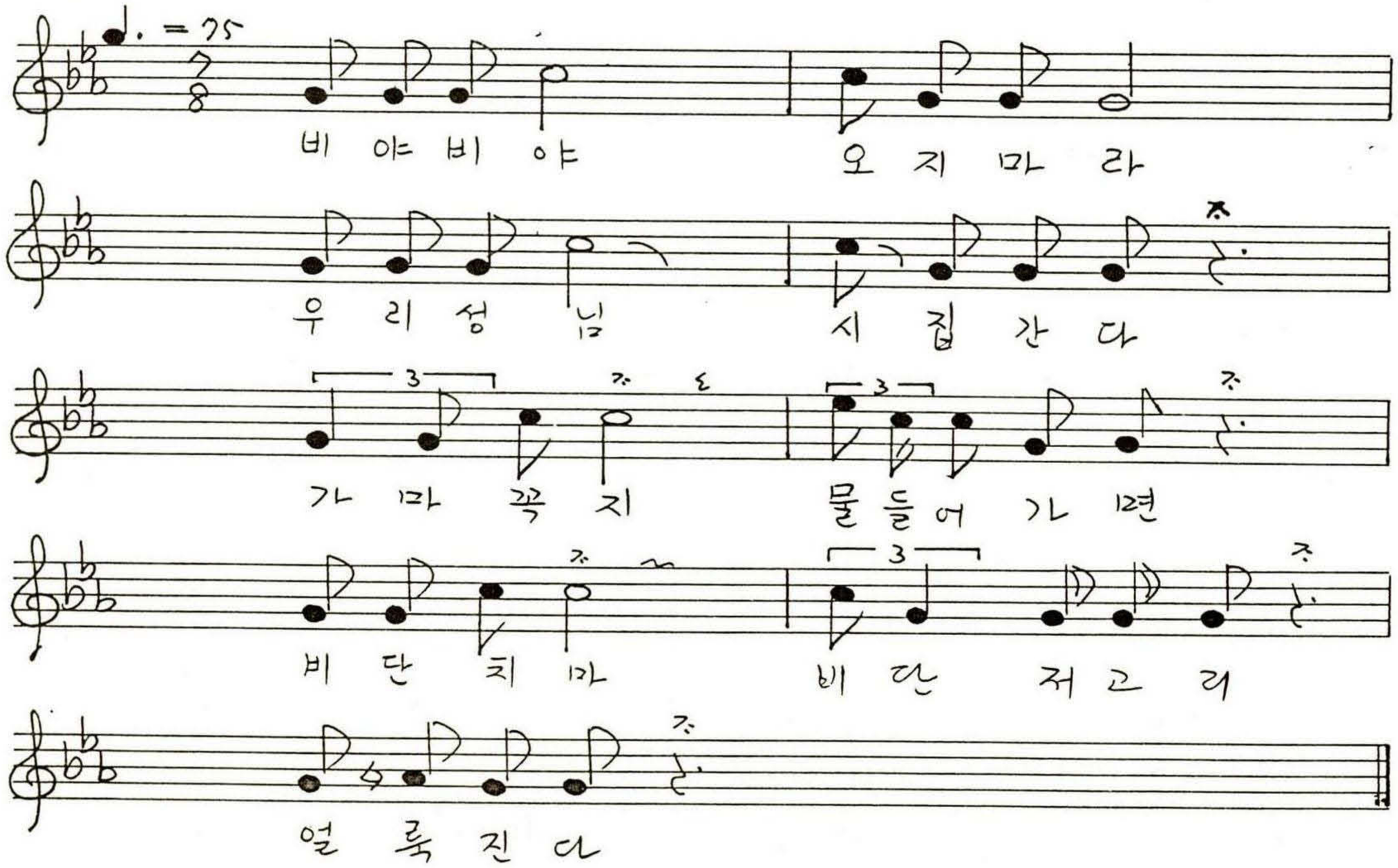
○ 세천당 세모진 가지 높더렇게 그네를 매고
내가 뛰면 니가 밀고 니가 뛰면 내가 밀고
임아 임아 슬슬 밀어라 줄끊어지면 정 떨어진다.

〈홍주 299〉 청양군 목면 대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비 야 오 지 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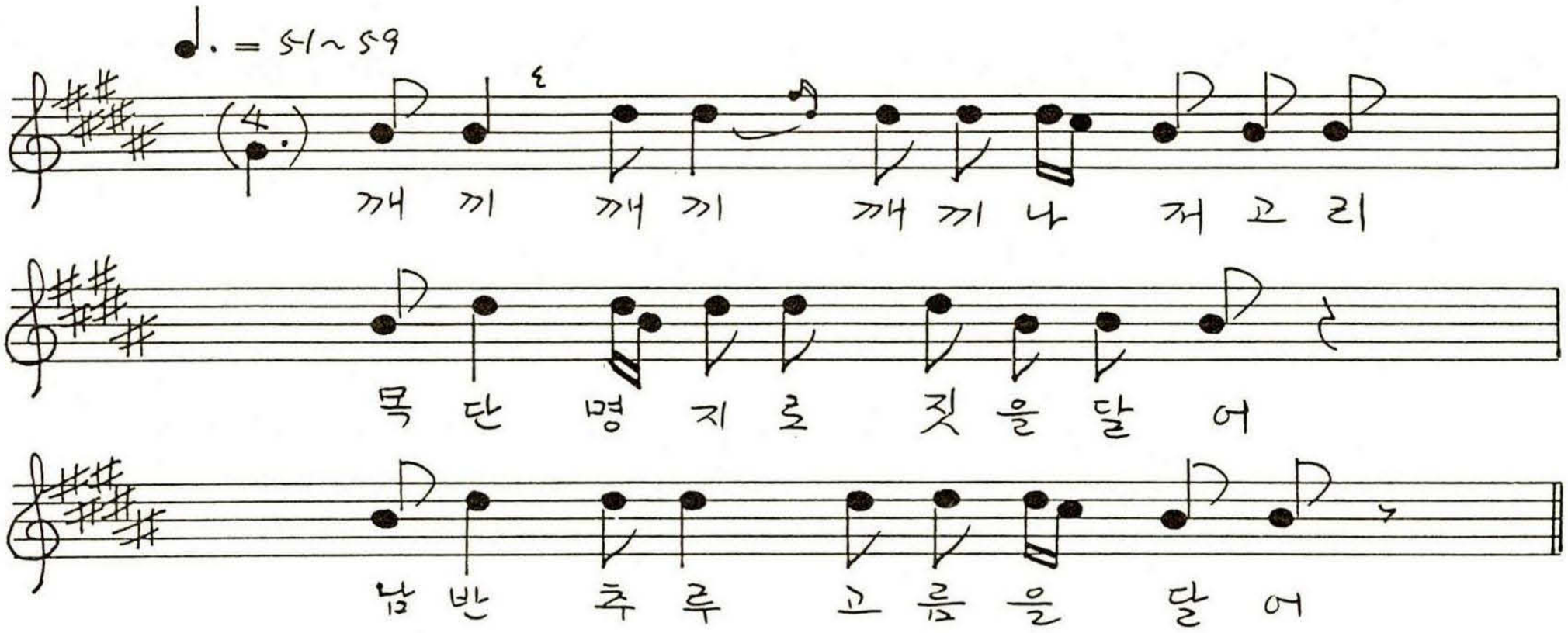
전차순(1924.여)
素 94-3-13①A

〈실음은 장3도 더 높음〉



〈홍주 300〉 청양군 목면 대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깨 끼 저 고 리**

전치순(1924.여)
素 94-3-1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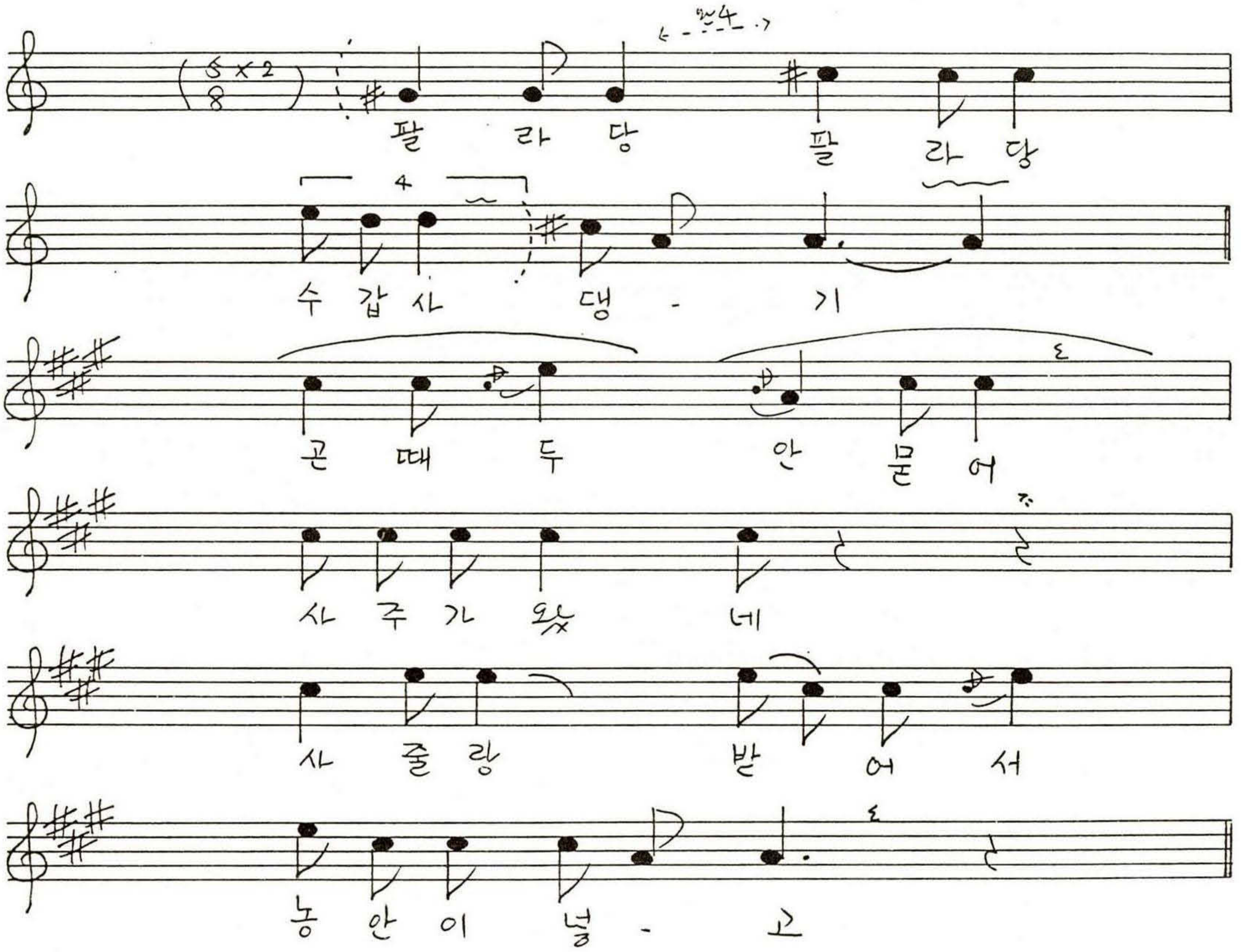


팔월이라 열나흗날
새벽바람 찬바람이
금잔디 밖이다 내여 널고
은다리미 놋다리미
아리랑 살짝쿵 다려놓고
입자 하니나 몸때묻고
만지자 하니나 손때묻어
횃대 끝이 걸어놨더니
열살먹은 시누아기
발기 발기나 다 찢었네
내가 너의 집이 올 적이는
천석을 바라고 너의 집이 왔니
만석을 바라고 너의 집이 왔니
왼달같은 반달같은
너의 오빠 하나연해
너의 집이 왔다.

〈홍주 301〉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댕 기

전차순
素 94-3-13ⓘA



책일랑 받어서
울넘어 던지세

〈홍주 302〉 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Ⅰ. 댕 기 타 령
Ⅱ. 치 마 노 래

최정연 唱
素 89-11-29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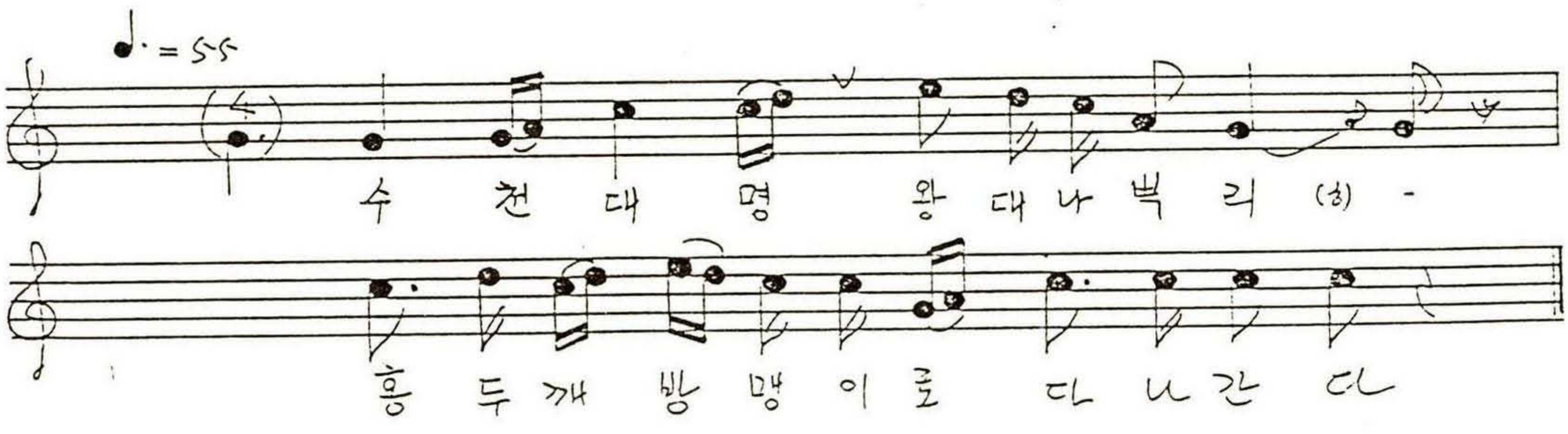
Ⅰ. 올라당 팔라당 갑사댕기. 총각님한테 받었는지 나무꾼이 둘렀나 서당선비가 갖다줬나, 시아버니 이마사돈하여 댕기감을 주었나 열나흗날 달맞이 받은댕기, 올라당 팔라당 물질러가다 다 젖었네
하루밤이 물은 열홉번 질러도 댕기끝은 안말러니 어쩌허나, 올라당 팔라당 초사흘날 도령님이 오신다더니, 생편달이 지었나 눈섶달이 지었으니 총각낭군보기는 다 틀렸네, 댕기꼬리 짧어야 총각을 만나나, 석자일곱치 댕기로도 절반같은 머리에다 줄렁 묶고 앉아서 잡을까 옆에 끼워 물동이로 끼워볼까. 댕기만 날라보면 밥고리는 술술 바람 날리도 내 댕기는 다 물질받아 바깥출입이 댕기바람 난다./

II. 이치마는 미명치마라 명지치마 공단치마 양단치마 유똥치마, 삼베치마 청포치마, 모시치마, 이리저리 둘러다 미〈무〉명석자로 치마지 앞치마로다 삼신께다 갈어놓고 자식칠남매를 길러볼때 머리끝에 물마르지않고 삼신에다 갈어서 일곱번 재배하고 내가 입고 대니던 치마- , 시집살이 헐적에는 발뒤꿈치 팔뀌고 앉었으면 거둬놓고 우에는 타코저고리 치마는 일곱폭치마 다섯폭치마 날려주고 이 치마 꼬리 반겨가며 자손 수명발원 시켜주고 다섯폭치마 아니 쌔여 쌍뎅이 포태양성 시켰구나

〈홍주 303〉 홍성군 결성면

홍 두 깨 방 맹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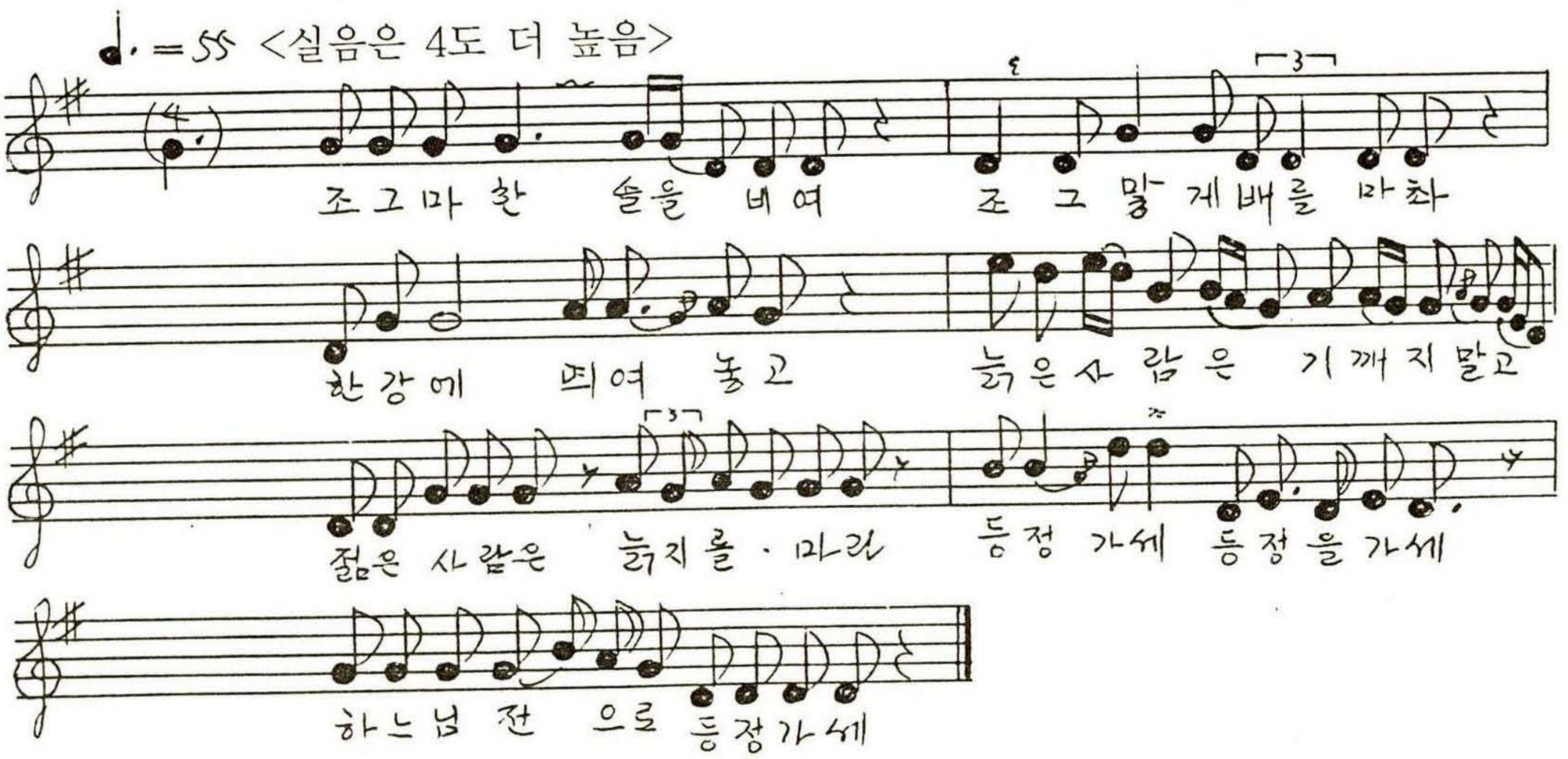
이성점 唱
素 90-2-2⑥A



〈홍주 304〉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교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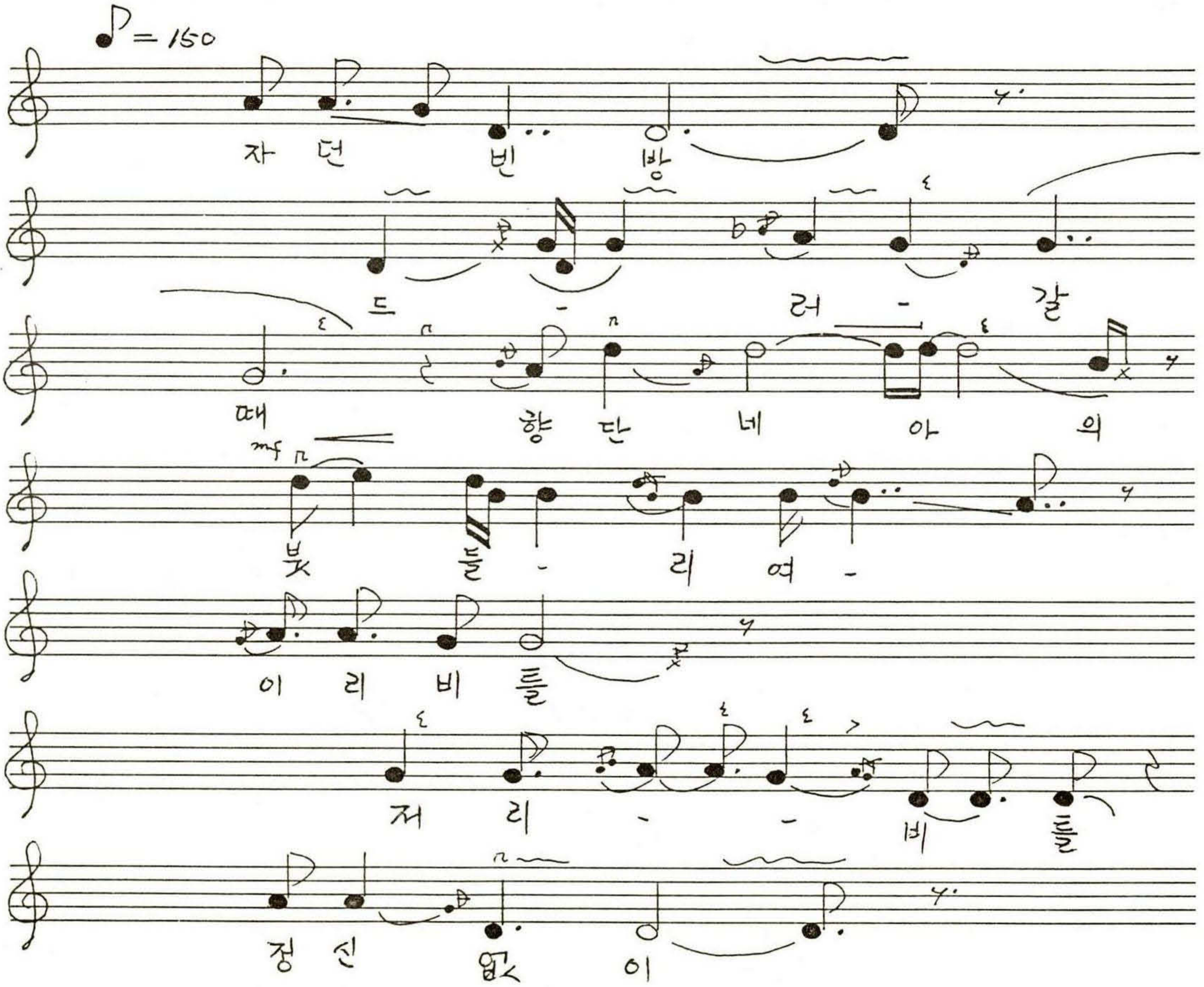
등 정 가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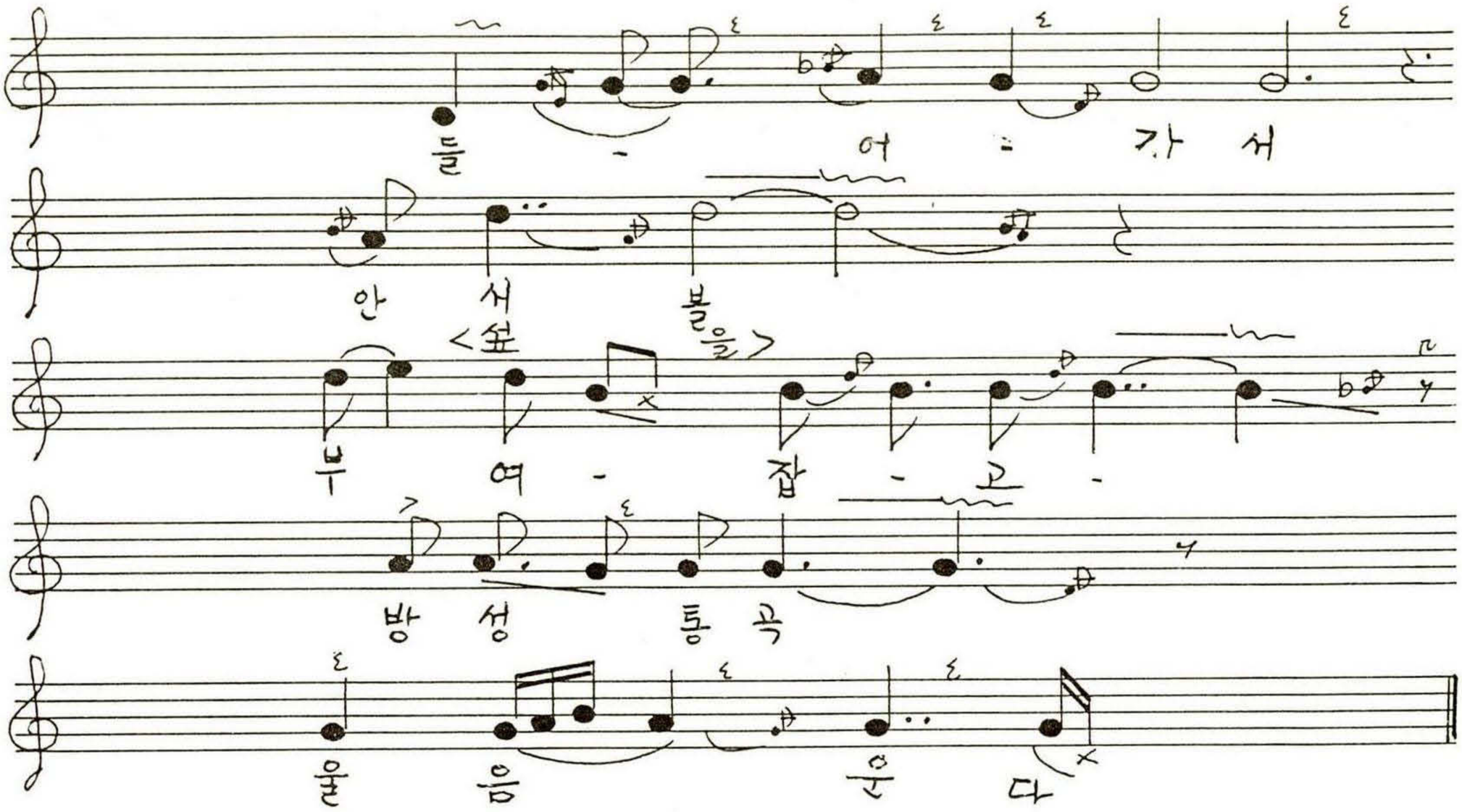
이성점(1916.여.갈산면 오두리출생) 唱
素 90-2-2⑥A



※ <304> "등정가세"는 1877년에 결성면 읍내리에서 태어난 김주경이 잘 부르던 노래로 그의 자부인 이성점이 차심부름 등을 하며 듣고 배운 것이다
김주경은 가야금·양금의 명인으로 보이며, 아들 김만균(金萬均:1914년 출생/결성면 읍내리)의 집에 그가 연주하던 양금이 보존되어 있다. 김주경의 집에 대금·해금·퉁소를 연주하던 한범수(1911~1984)가 잘 왔었다고 한다.
등정가세는 전남에서도 수집되며 동해안 무가(巫歌)에도 나온다.
한범수는 대금·해금·퉁소산조를 남긴 명인. 부여출생, 보통학교(현재의 중,고등학교)까지 부여에서 보내고 17,8세에 대천 이주. 서당(書堂)을 운영하던 부친이 일제의 간섭을 피하여 충북 보은으로 이주하자 따라서 보은으로 감. 해방이 되자 대천으로 돌아옴. 6·25동란을 서천서 겪었으며 서천서 10년간(1950~1960) 보낸 후 서울 이주(한범수의 아들인 한상일 대담.)

〈홍주 305〉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자던빈방 들어갈때** 최광순 素 89-11-28③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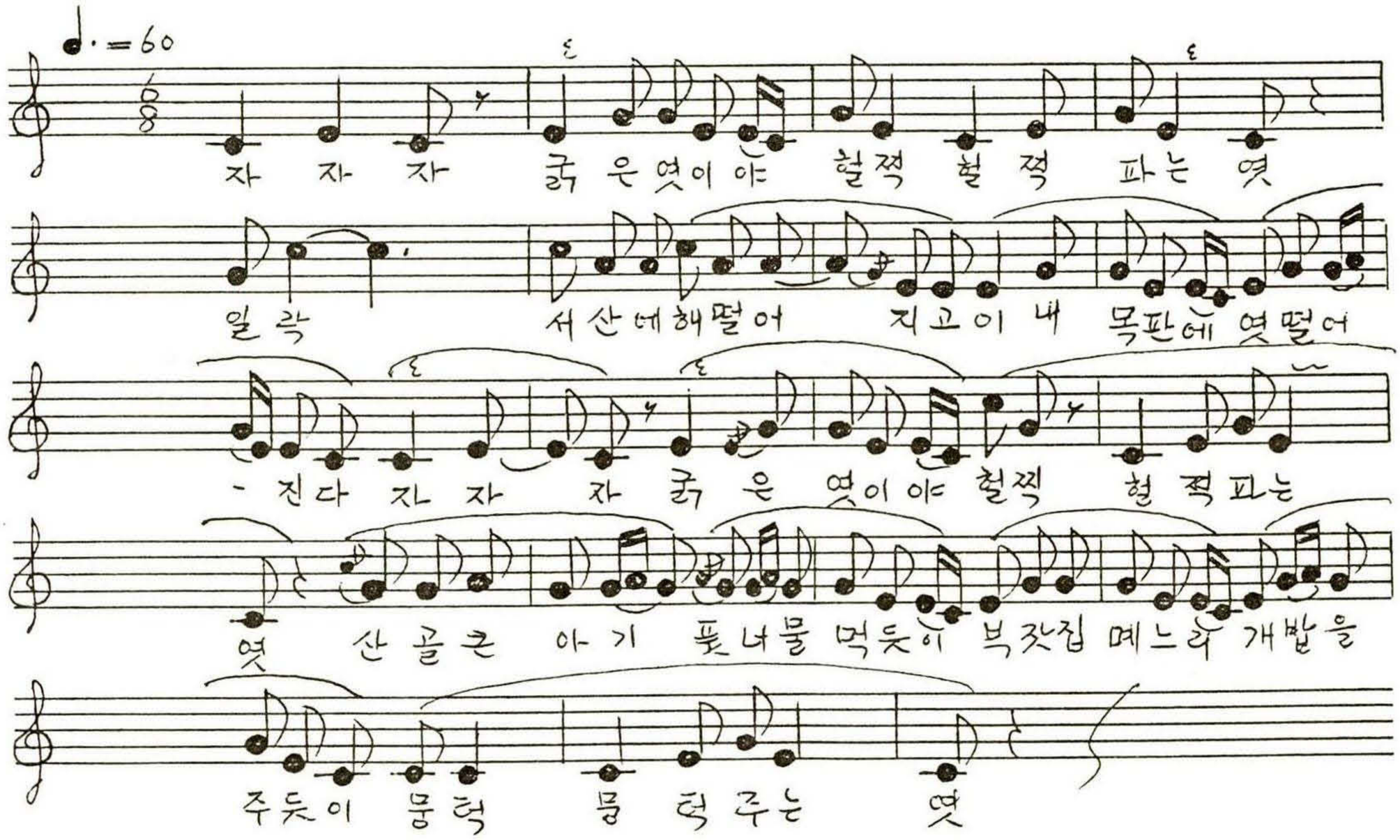



들 - 어 - 가 서
안 서 볼
<쇼 을>
부 여 - 잡 - 고 -
방 성 통 곡
울 음 운 다

〈홍주 306〉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엿 타 령

최광순(1926.남.土民)唱
素 89-11-28②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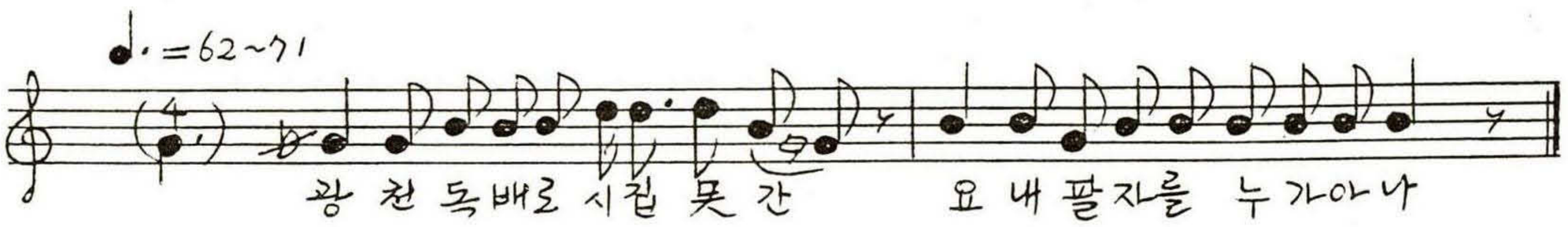
자 자 자 굵 은 엿이 야 헐찍 헐 찍 파는 엿
일 락 서 산 에 해 떨 어 지 고 이 내 목 판 에 엿 떨 어
- 진 다 자 자 자 굵 은 엿이 야 헐찍 헐 찍 파는
엿 산 골 큰 아 기 풋 너 물 먹 듯 이 복 잣 집 메 느 리 개 밥 을
주 듯 이 뭉 턱 뭉 턱 주 는 엿

말만들었지 잡사를 봤나, 침만 줄줄 흐른다.
어서와요 바삐와, 어디 가며는 거저를 주나.
어서바삐 내려와, 자자자 굵은 엿이야 헐찍헐찍 파는 엿/

〈홍주 307〉 홍성군 은하면 서부면

광 천 독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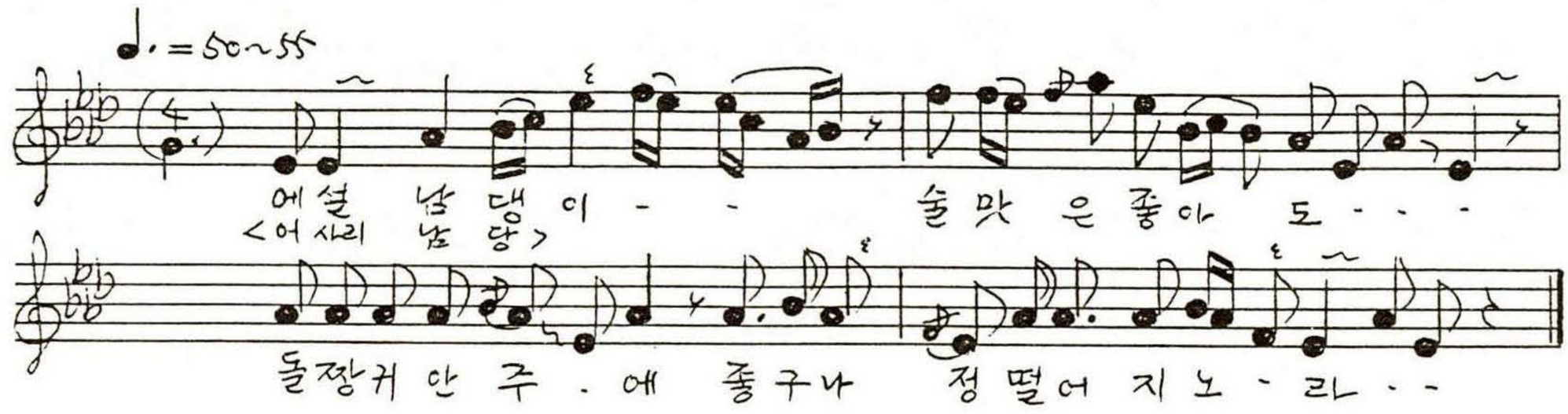
손천순(1918.여)창
素 90-2-3ⒹⒷ



〈홍주 308〉 홍성군 은하면 서부면

어사리남당노래(청춘가 곡풍)

손천순(1918.여)唱
이소라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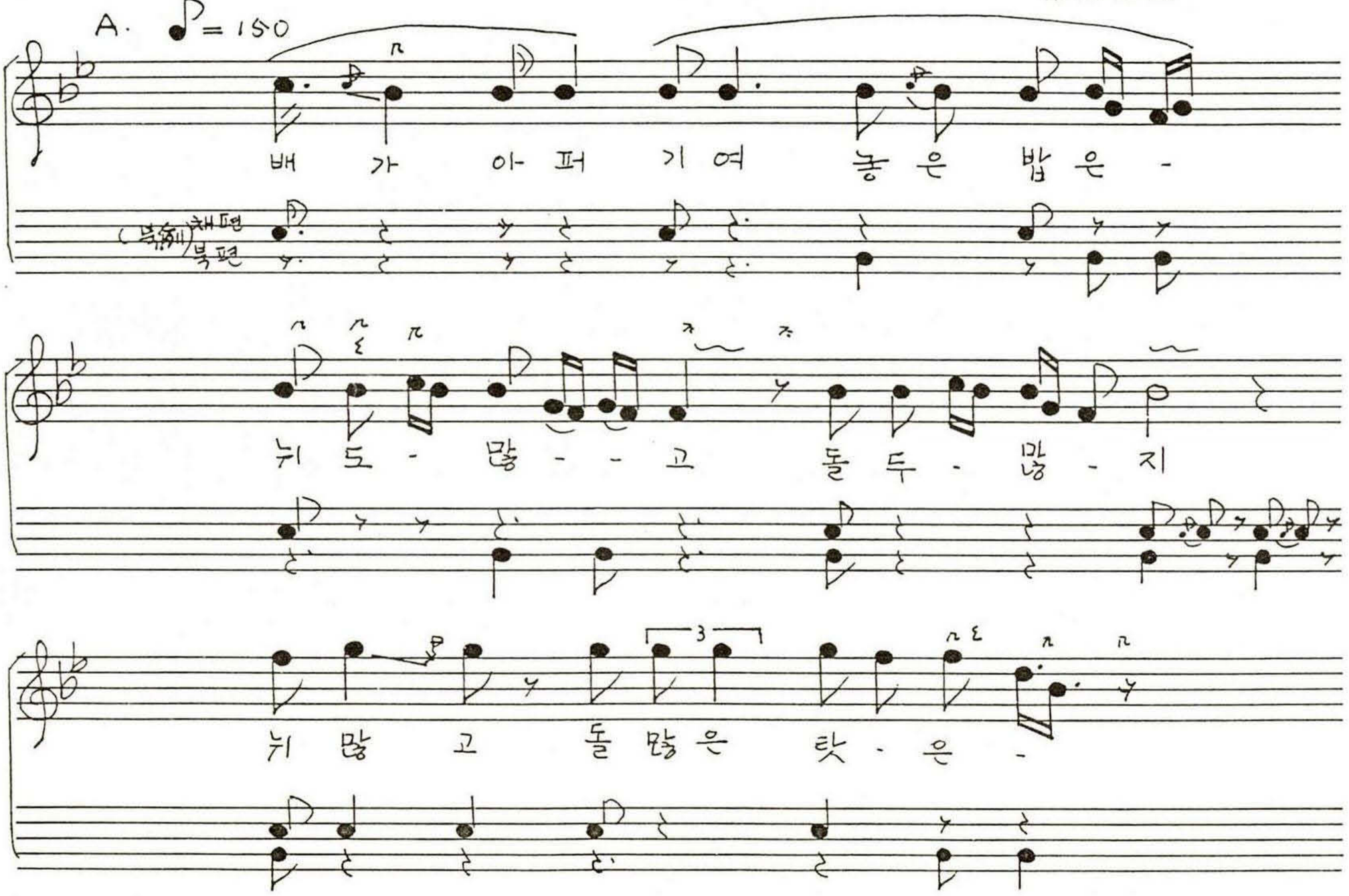


〈홍주 309〉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바 위 타 령

황규덕(1917.원천리출생. 1988년경에 광천읍 죽전리로 이주함)唱
素 89-11-30ᴬ

★ 참고용



우 리 님 이 라 안 계 신

탓 으 · 로 다

B ♩. = 70 ~ 86

그 밥 에 어 떤 돌 이 섞 였 더 냐

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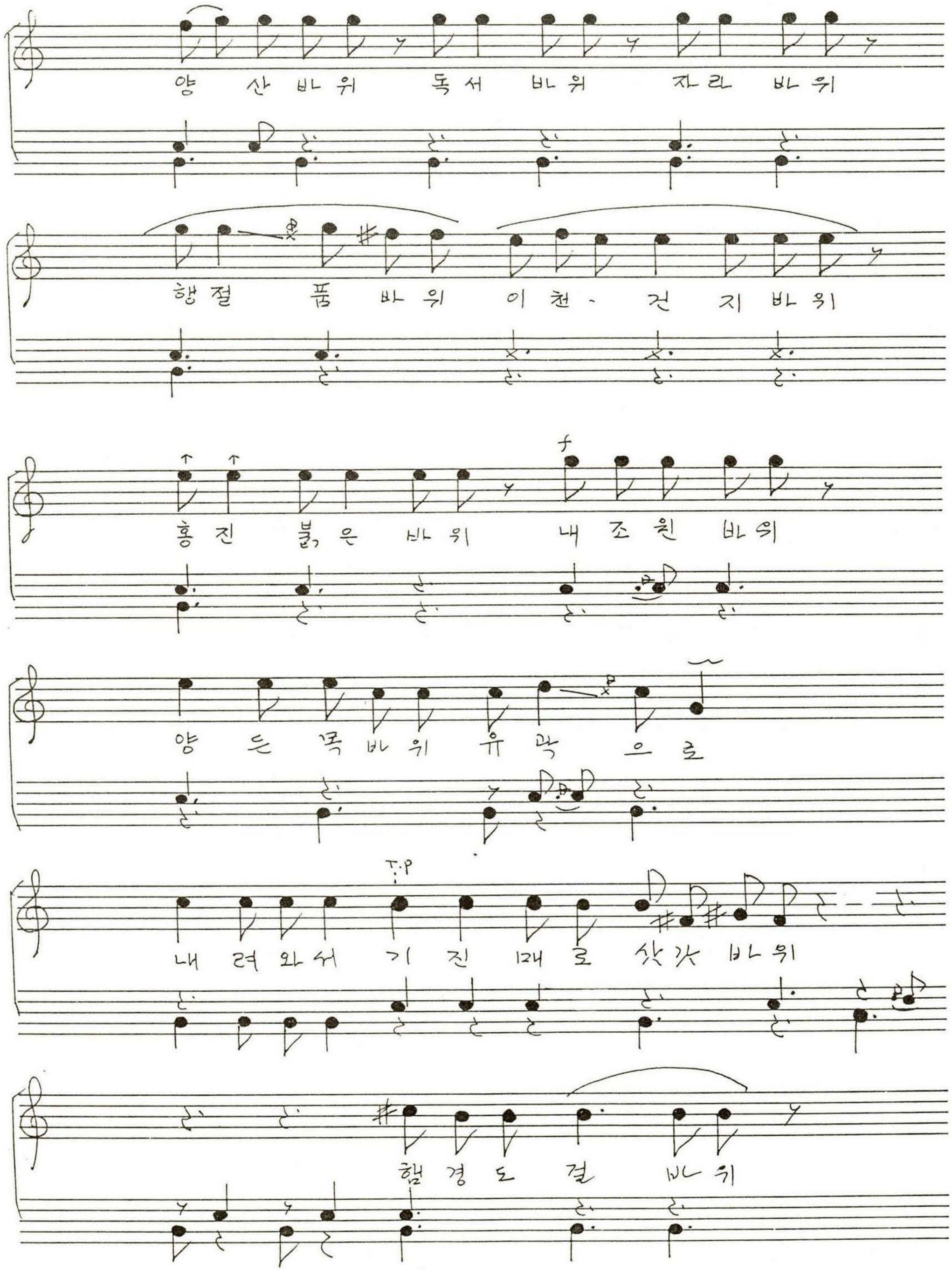
초 벌 로 올 란 생 강 거 주 바 위

T.P

문 턱 바 위 학 의 마 음 이 둥 글 바 위

(민 바 위)

— "잘 한 다" —


양 산 바 위 독 서 바 위 자 라 바 위
행 절 품 바 위 이 천 - 건 지 바 위
홍 진 붉 은 바 위 내 조 원 바 위
양 든 목 바 위 유 곽 으 로
내 려 와 서 기 진 래 로 상 갓 바 위
함 경 도 결 바 위

영 노 고 을 흉 하 게

후 덕 비 위 양 그 쪽 비 · 위 라

왕 천 녹 비 위 도 다 됐 구 나

그 밥 을 걸 물 쳐 놓 구

솥 뚜 껑 열 구 · 보 - 니 -

대 패 한 쌩 이 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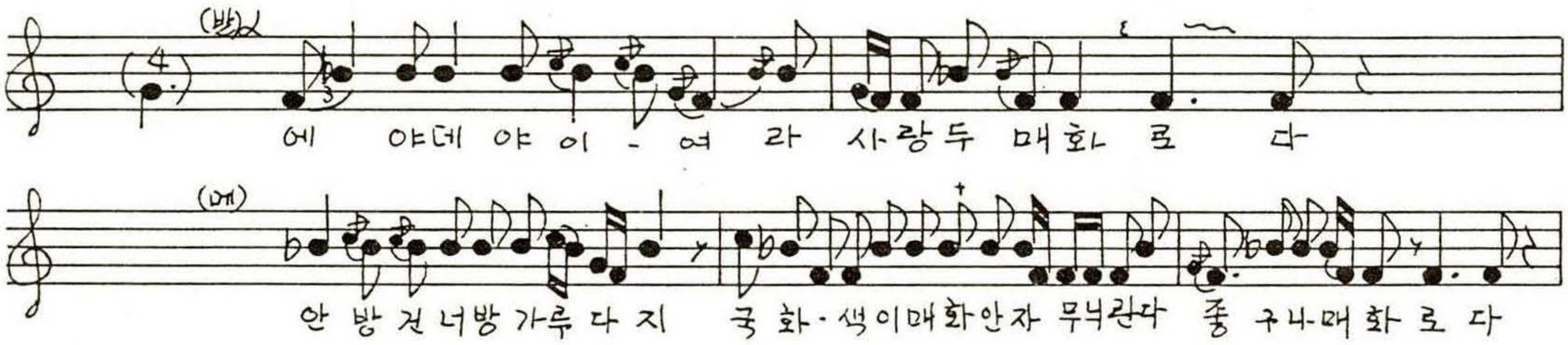
아 이 은 다

※〈309〉: 선율은 A+B+C 세부분으로 조합되어있다.
A : 노래가락곡풍
B : 휘몰이잡가풍
C : 서도소리

〈홍주 310〉 홍성군 홍북면

매 화 타 령

최화순(1914.여.土民)唱
素 87-3-3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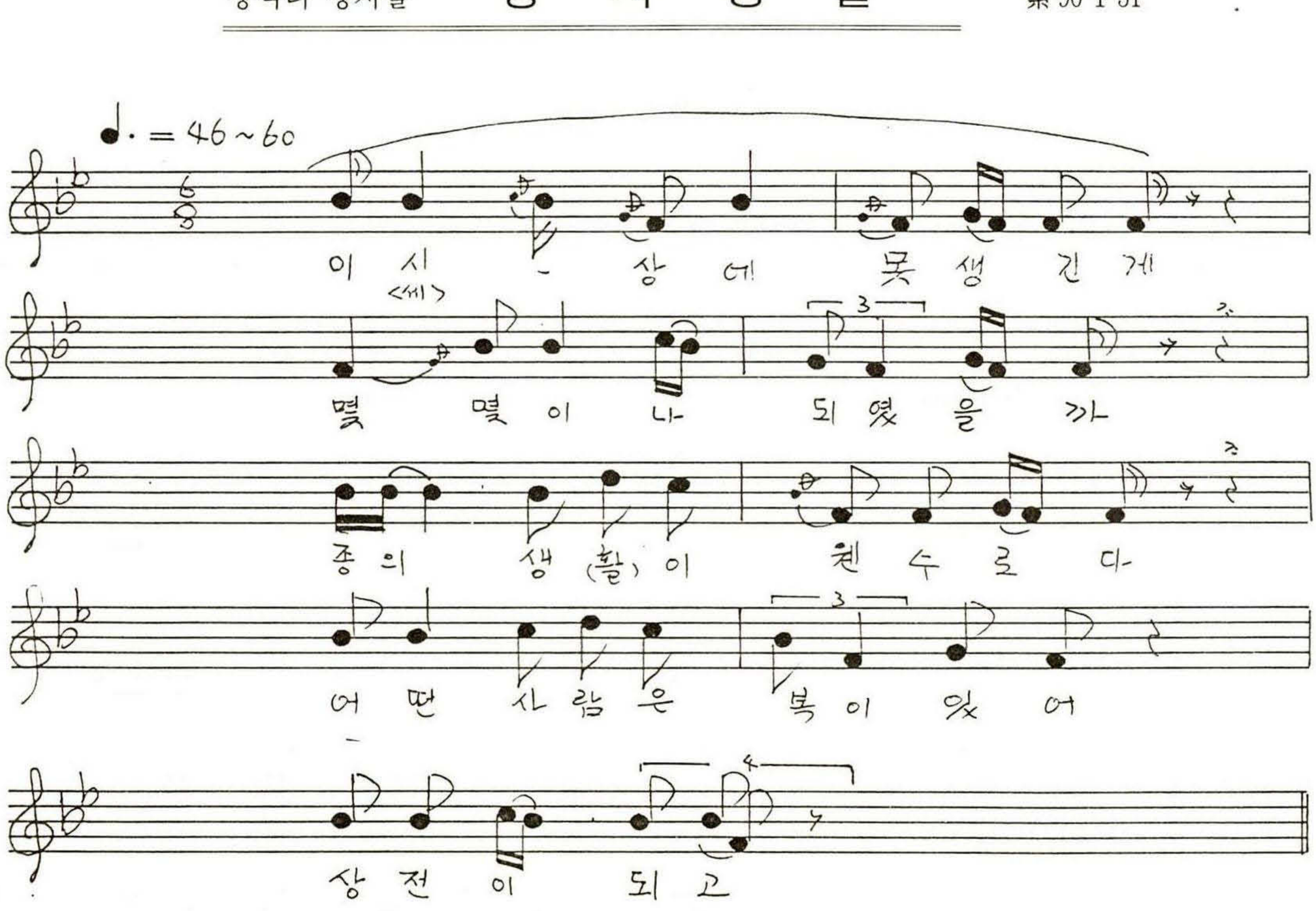


(받) α/ (메) 인간이별 만사중에 독수공방이 사랑도 매화로다/ (받)//

〈홍주 311〉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

종 의 생 활

조예현(1925.여.은하면土民)
素 90-1-3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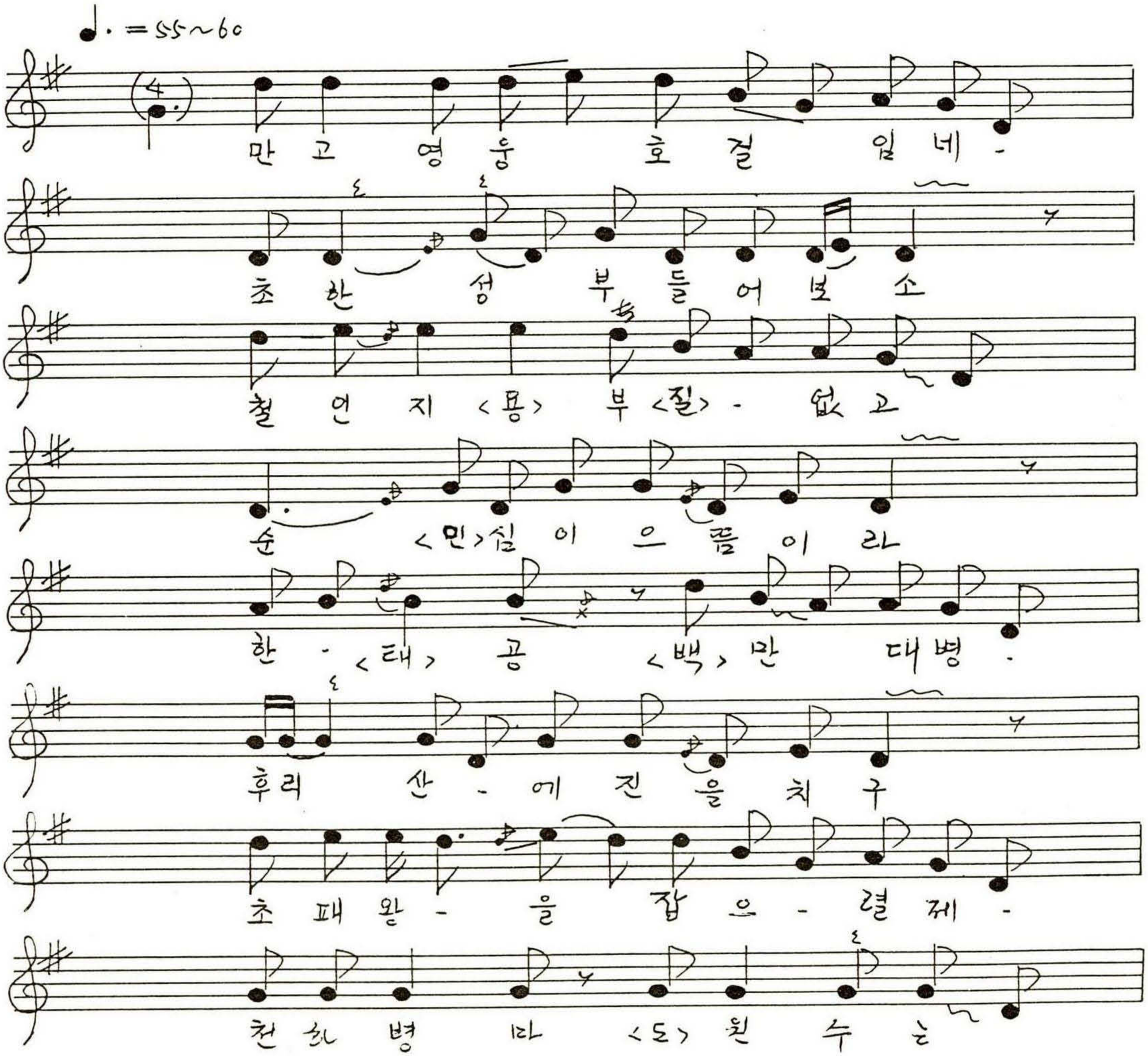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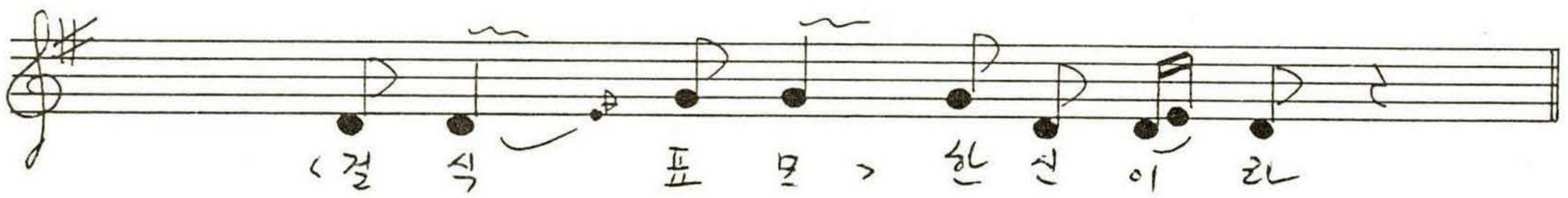
어떤사람은 복이 없어
종의생활을 평상세월을
지내(오)나
황소같은 종놈들은
지게등이 첫일이고
황소같은 종년들은
똥아리받쳐 여들이네
이놈이나 종의생활
원수로다

〈홍주 312〉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초 한 가 (창부타령 곡풍)

최광순 唱
素 89-11-28③A





대장단 높이 올러
천하 제후를 호령할 제
팽성도 오백리의
거리 거리 복병이라
곳곳마다 매복이라
산잘놓는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옥퉁소를 슬피불어
팔천제자를 흩을적에
그 노래를 하였으되
구추단풍 달밝은 밤
하늘이 높고 달이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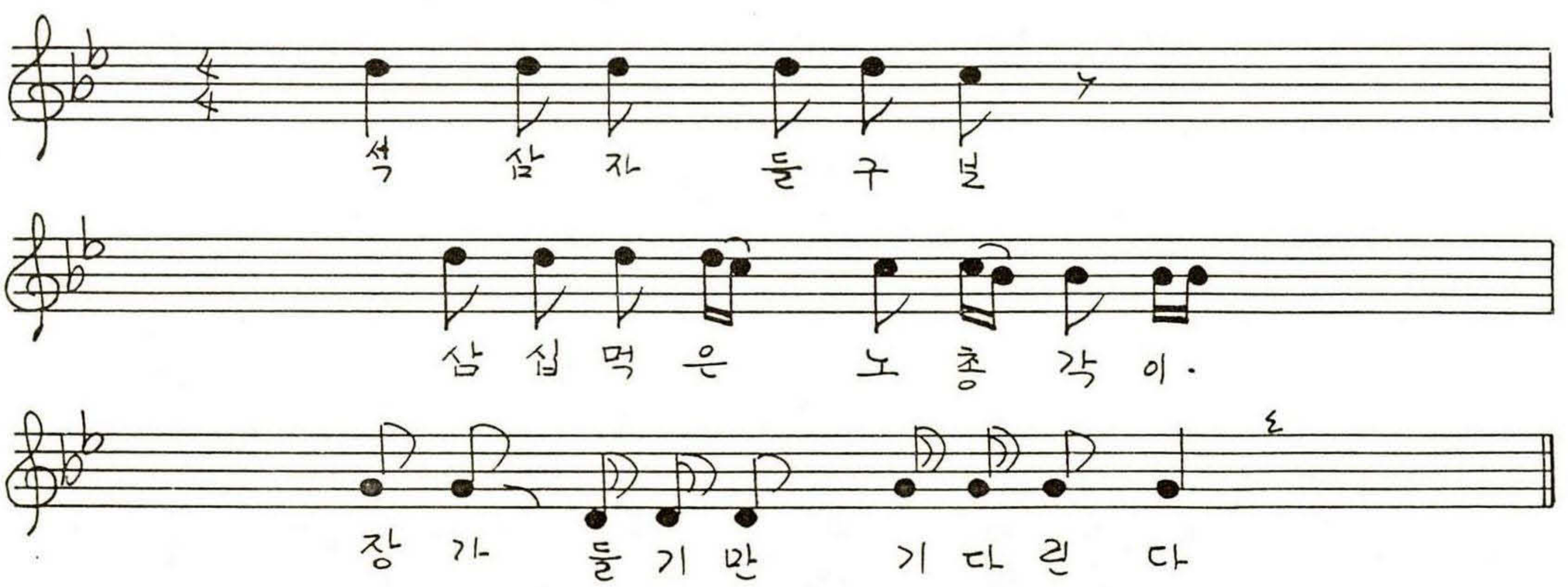
〈홍주 313〉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각 설 이

황규덕
素 89-11-30[B]

♩ = 75~86

"아 - , 한일자 들구보니, 이날이 송송 해송송
두 이자(가) 들고보니 이웃상인의 떡장사(를)
나무꾼 장사 기다린다."



"넉사자 들구보, 사시장천 밤낮없이,
아침참이 늦어가네
다섯오자 들구보, 오관(청장) 관운장
적토말을 제껴타고, 제갈이 선생 찾어간다. "

※ 각설이는 가사 2음보가 4/4박 1마디에 배정됨이 보통이다. 전래민요의 대종이 3분박 리듬인데 비하여 각설이 곡풍은 목도소리와 함께 2분박 계열의 경쾌한 리듬인지라 요즈음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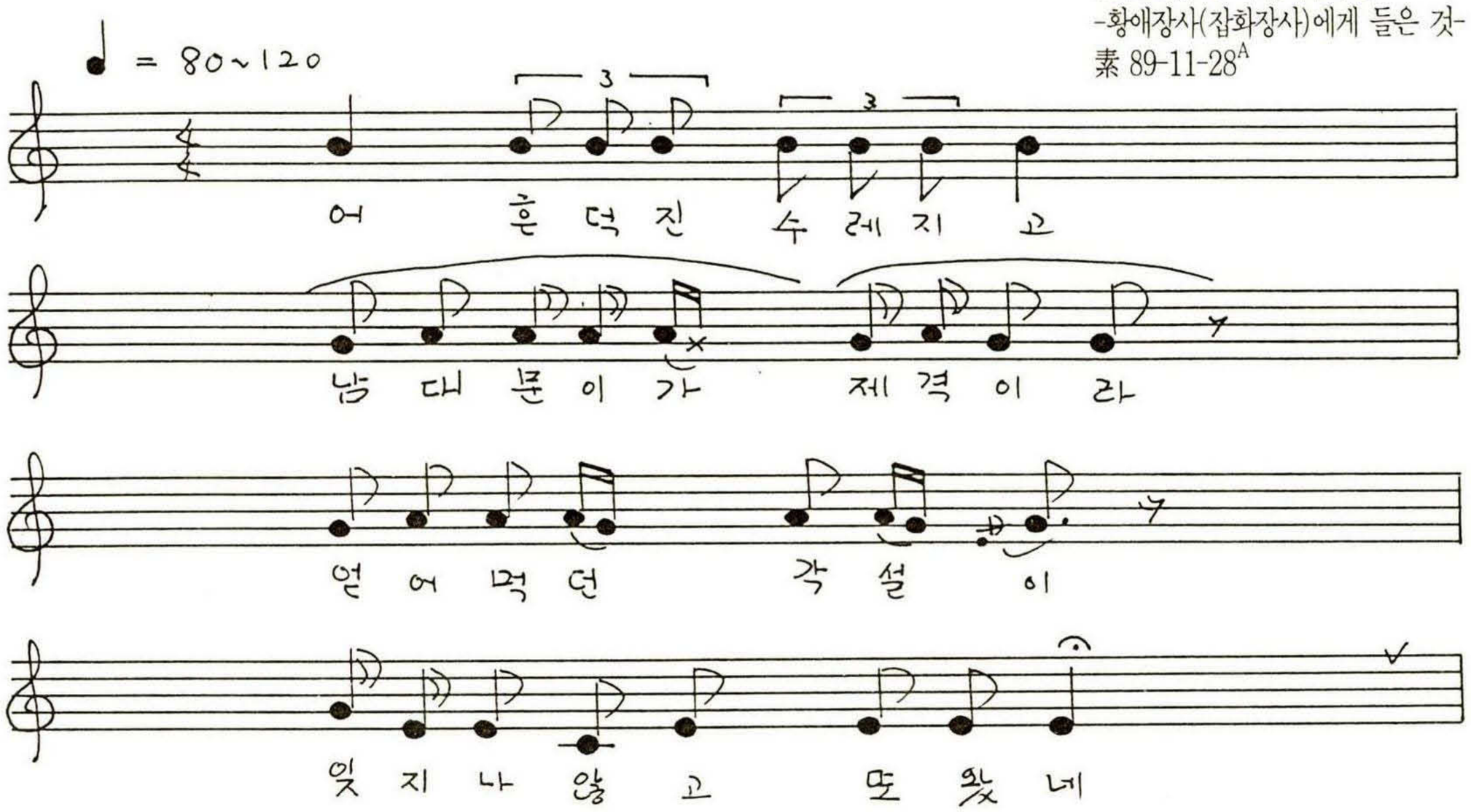
품바타령, 걸뱅이타령, 거지타령으로도 불리운다.

가사내용에 따라 장(場)의 특징을 엮어나가는 장타령과 일자부터 장자(십자)까지 읊어나가는 본조 각설이로 대별된다.
〈314①〉은 본조 각설이로 나가다가 뒷부분은 장타령이 결합되어 있다.

〈홍주 314①〉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예산군 덕산면 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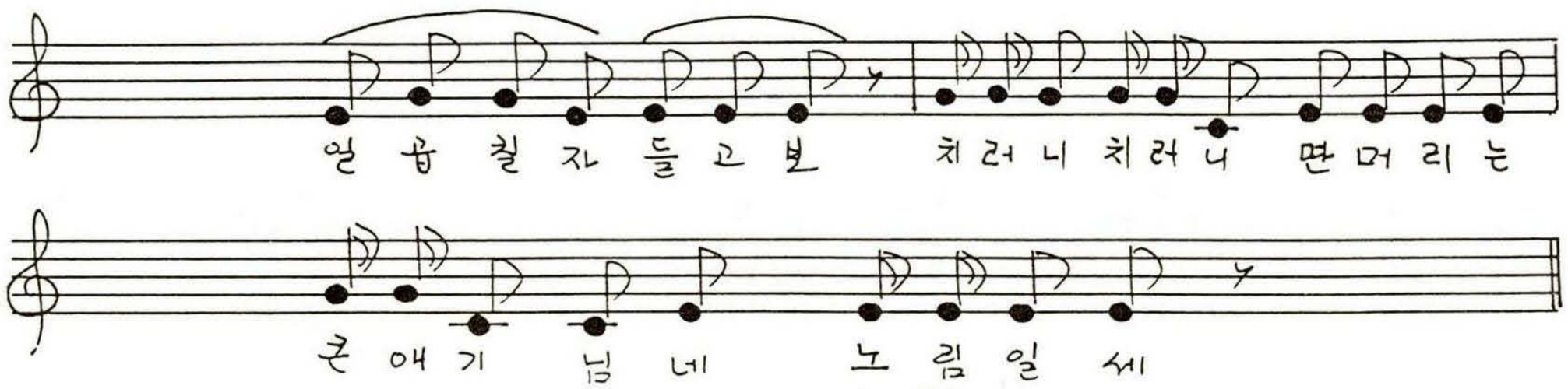
각 설 이

이홍노(1908.남.중계리 출생하여 12세에 낙상이주. 23세부터 전주에서 7년간, 공주에서 6년간 거주 1975년경에 낙상이주.)唱
-황애장사(잡화장사)에게 들은 것-
素 89-11-28[A]



품바라 품바.
일자나 한자 들고 보
일월이 송송 해 송송
밤중 새별이 완년한데

부모님 생각이 절로난다.
두이자 들고 보
이팔청춘 소년은
과것님의 놀음일세
석삼자 들고 보
삼동 짐동의 싸장사
쌀한말을 짊어지고
이장저장 매뜨린다
넉사자 들고 보
사시장천 바쁜 질
갈 질이 완연하네



〈노름〉

다섯오자 들고 보
오관청장 관운장
적토마를 빗겨타고
와룡선생을 찾어간다
여섯육자 들고 보
육지는 건지 별건지
겉봉지를 떼고 보니
이별글자가 완연하다
여덜팔자 들고 보
아들형제 팔형제
건강하게도 늘어섰네
아홉구자 들고 보
구석 구석 노적가리
부잣님의 노림일세

열십자 들고 보
  시그니 시그니 시도령
  삼오제지내려 간다네
버걱버걱 버그내장
  버걱거려 못가고
방귀탕탕 구린내장
  구린내나서 못가고
오줌 찔끔 십네장
  십네나서 못가고
한다리 두다리 목발이 장은
  다리가 짧아서 못가요
오라는데 없어도
  갈 질이 바뻐요
동전 한푼만 알었지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오

※ 마한시대나 백제시대에 삽교천의 이름이 버그내였다. 합덕에 버그내(犯斤乃)장이 섰고 덕산엔 목발場이, 공주엔 지린내場과 구린내場이 섰다.

〈홍주 314②〉 홍성군 금당리

각 설 이

조용택
素 90-2-3⑤B
-말로 읊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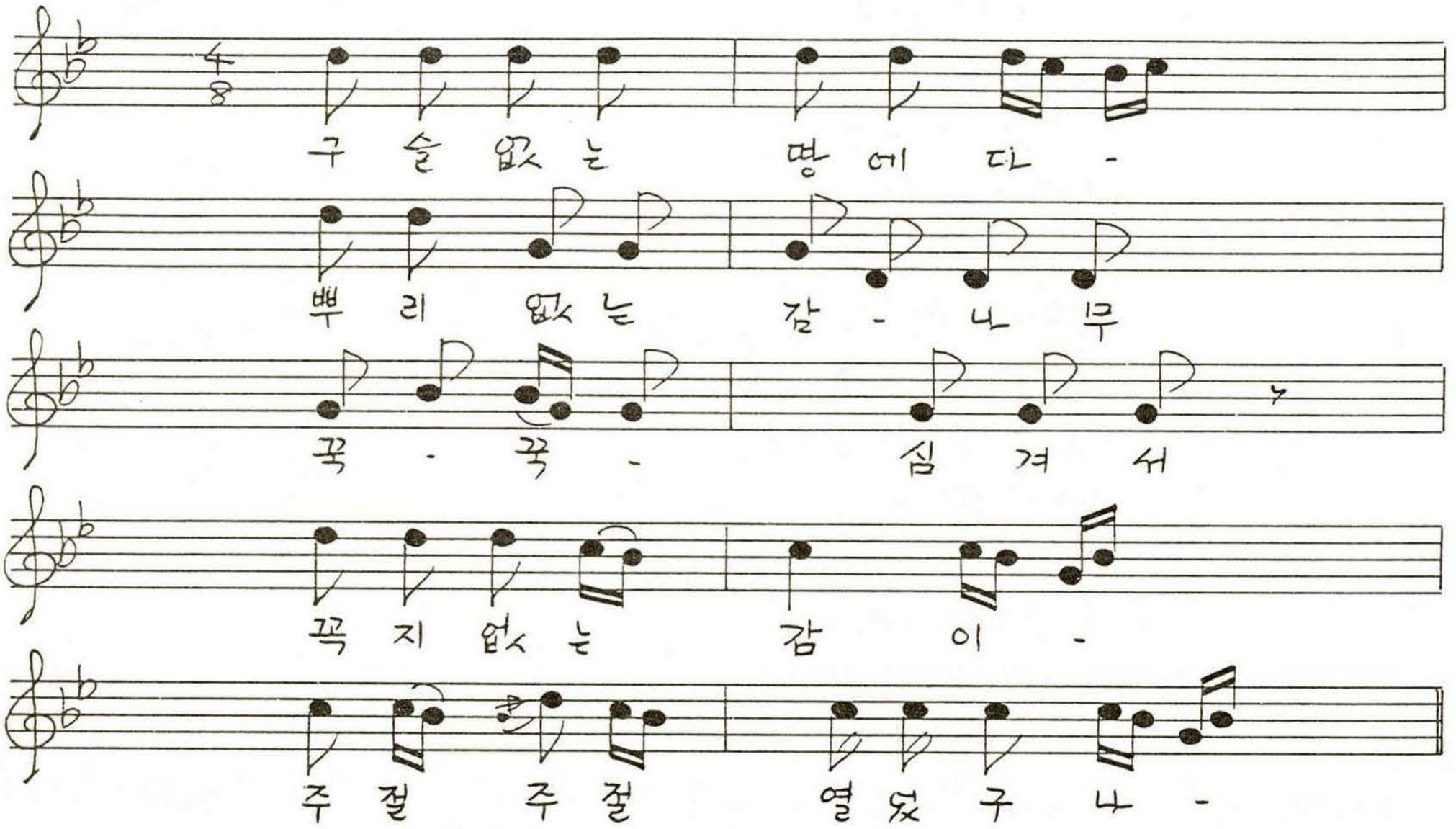
이 군 불사 못헐멍정
삼천리 강토를
사백만원에 도매했으니
오적 참이 너 아니냐
육조백관 들끓는데
칠조액이 웬말이냐
팔도인민 와글와글
구중궁궐 우리황제
십보지옥 됐구나

〈홍주 315〉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장 타 령

최광순 창
素 89-11-28㉡B

♩=75~86 〈실음은 더 낮음〉



밑빠진 광주리에다
감쩍이나 따가지고
인간없는 장에를 가
돈벼락에 맞었네
돌(아)다보니 친구요
친구대접 못하고
담배 한대로 떼웠네
돌아오는 장날 또 만나세

〈홍주 316〉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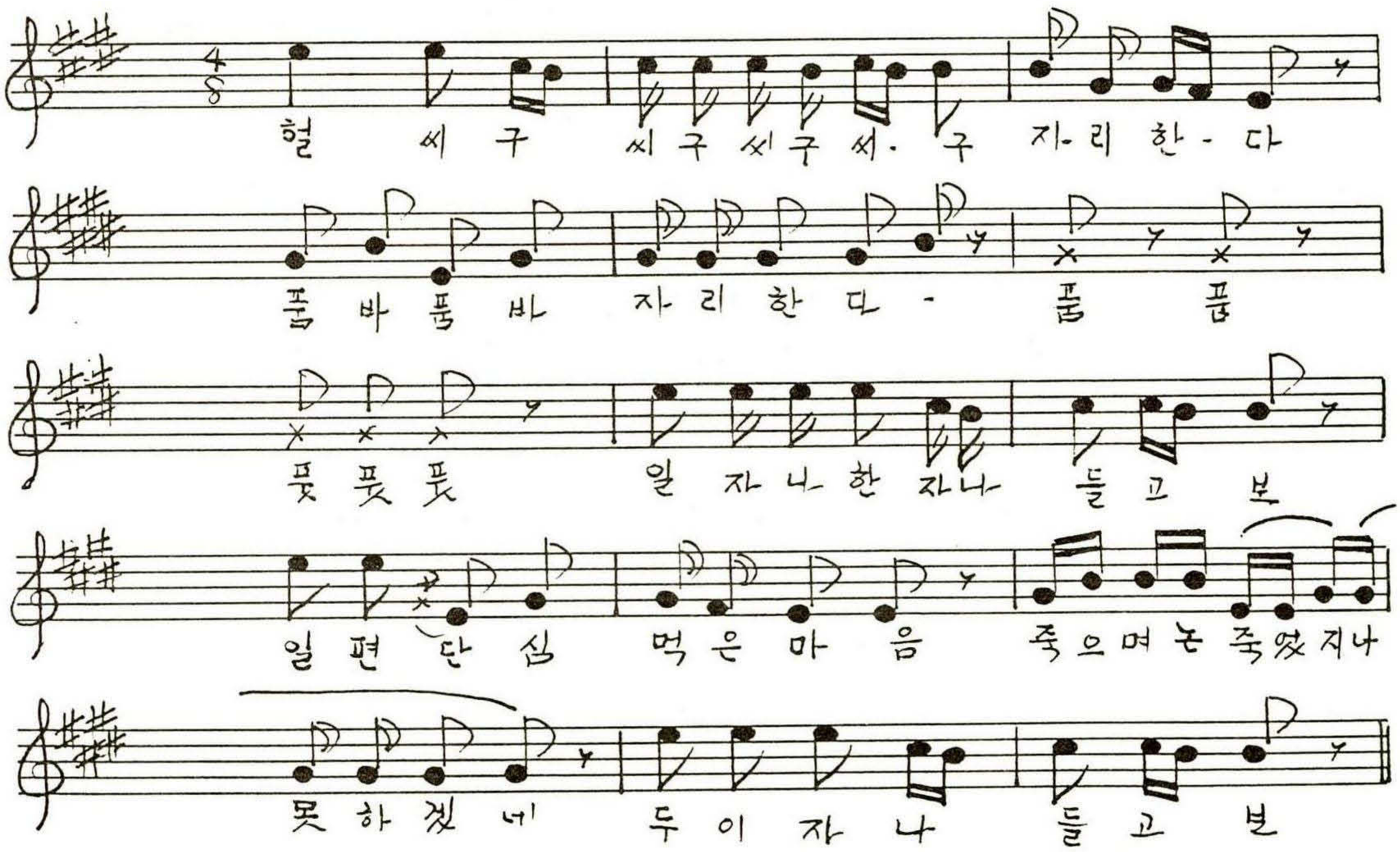
장 타 령

김순삼
素 90-2-2⑤A

♩-75

"헐 씨구씨구 씨구씨구 자리헌다
품바 품바 자리헌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나 않고 또 왔네
얼씨구 자리헌다 " "

시전서전을 읽었던지
유식하기도 자리한다
논어 맹자 읽었던지
이대문 저대문 다니면서
품바 품바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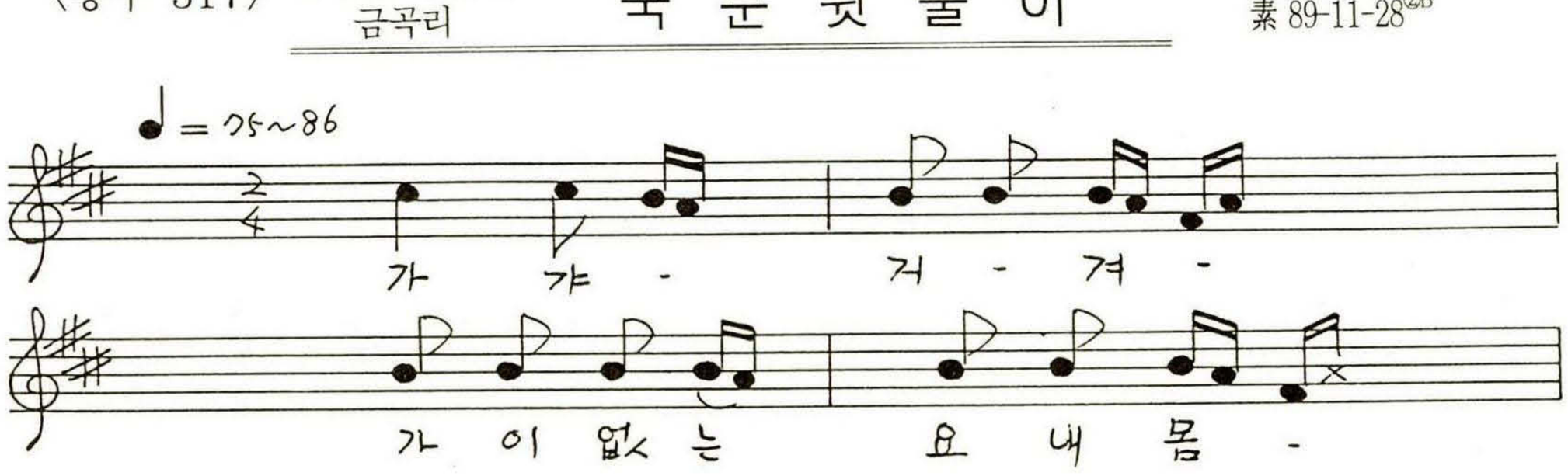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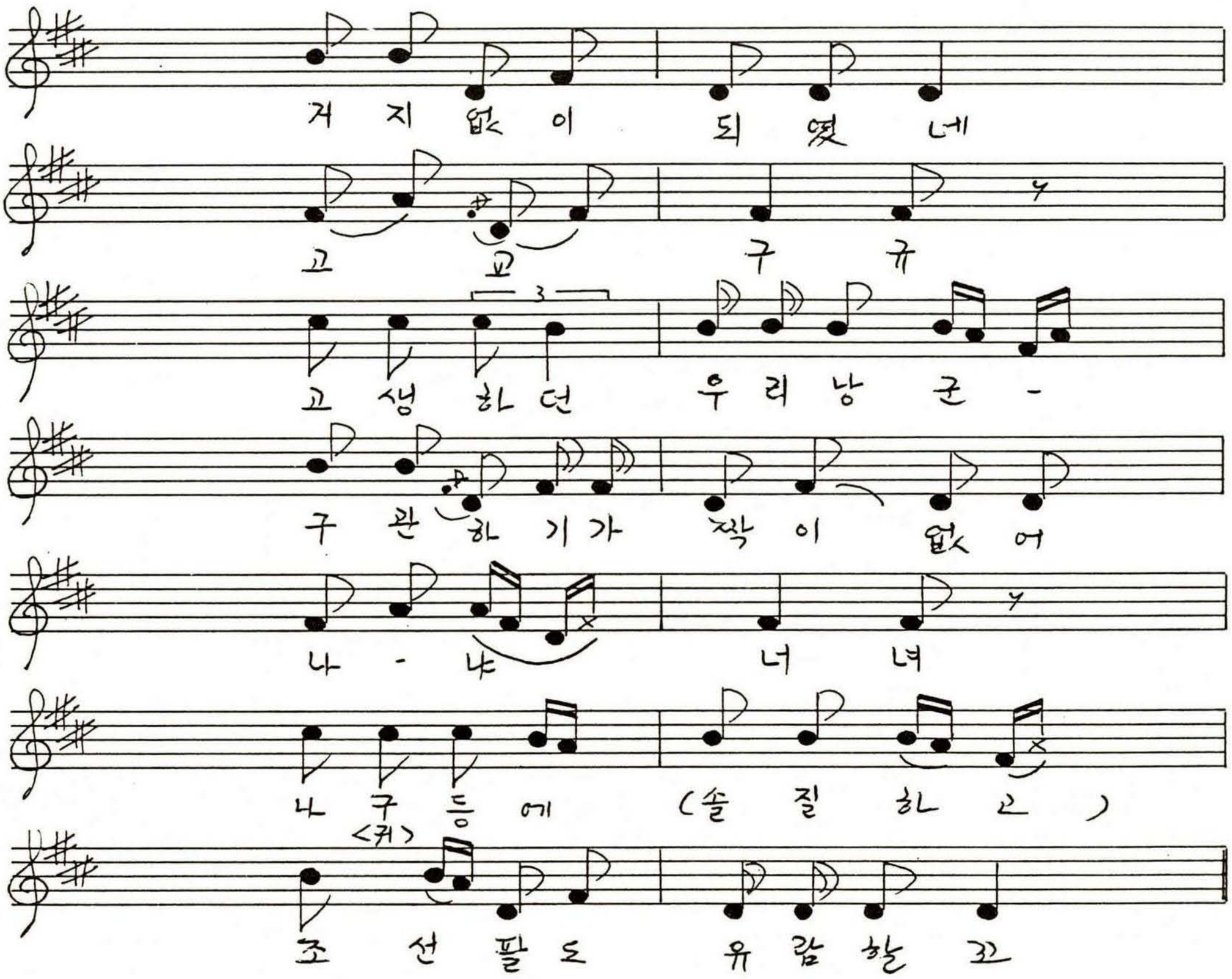
"이수중에/ 백로주/ 백구펄펄/ 나리도다/
삼월이라/ 삼진날/ 제비한쌍이/ 날라든다/
사월이라/ 초파일/ 환등놀이가/ 좋을씨고/
오자나 한자나/ 들고 보/ 오월이라/ 단오날/
처녀 총각/ 한테 모여/ 추천놀이가/ 좋을씨고/"

〈홍주 317〉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국 문 뒷 풀 이

최광순 唱
素 89-11-2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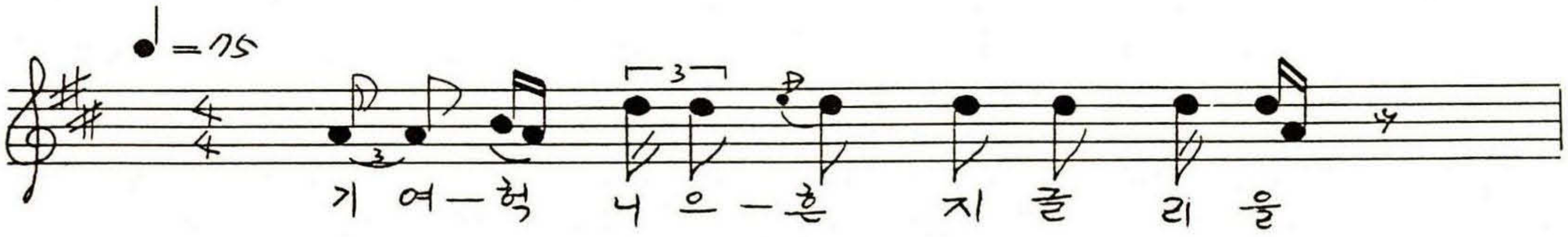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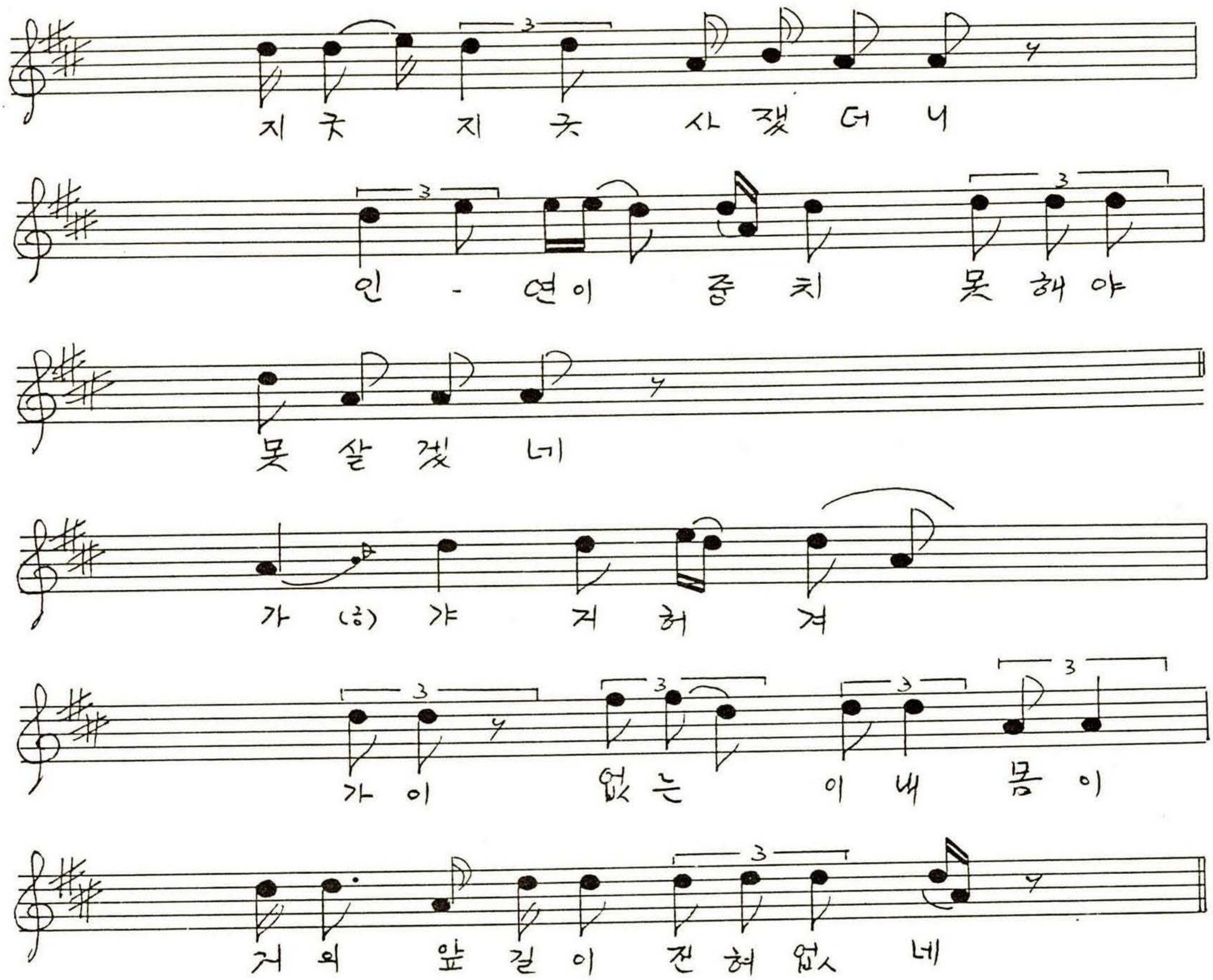
○ 노 뇨 누 뉴
노류장화 임계유지
처처마다 있건마는
○ 마 먀 머 며
마자마자 마잤더니
임의생각 목이민다
○ 보 뵤 부 뷰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싶은 임의 소래

〈홍주 318〉 홍성군 은하면 결성면

국 문 뒷 풀 이

김정난(1926.여)
素 89-11-28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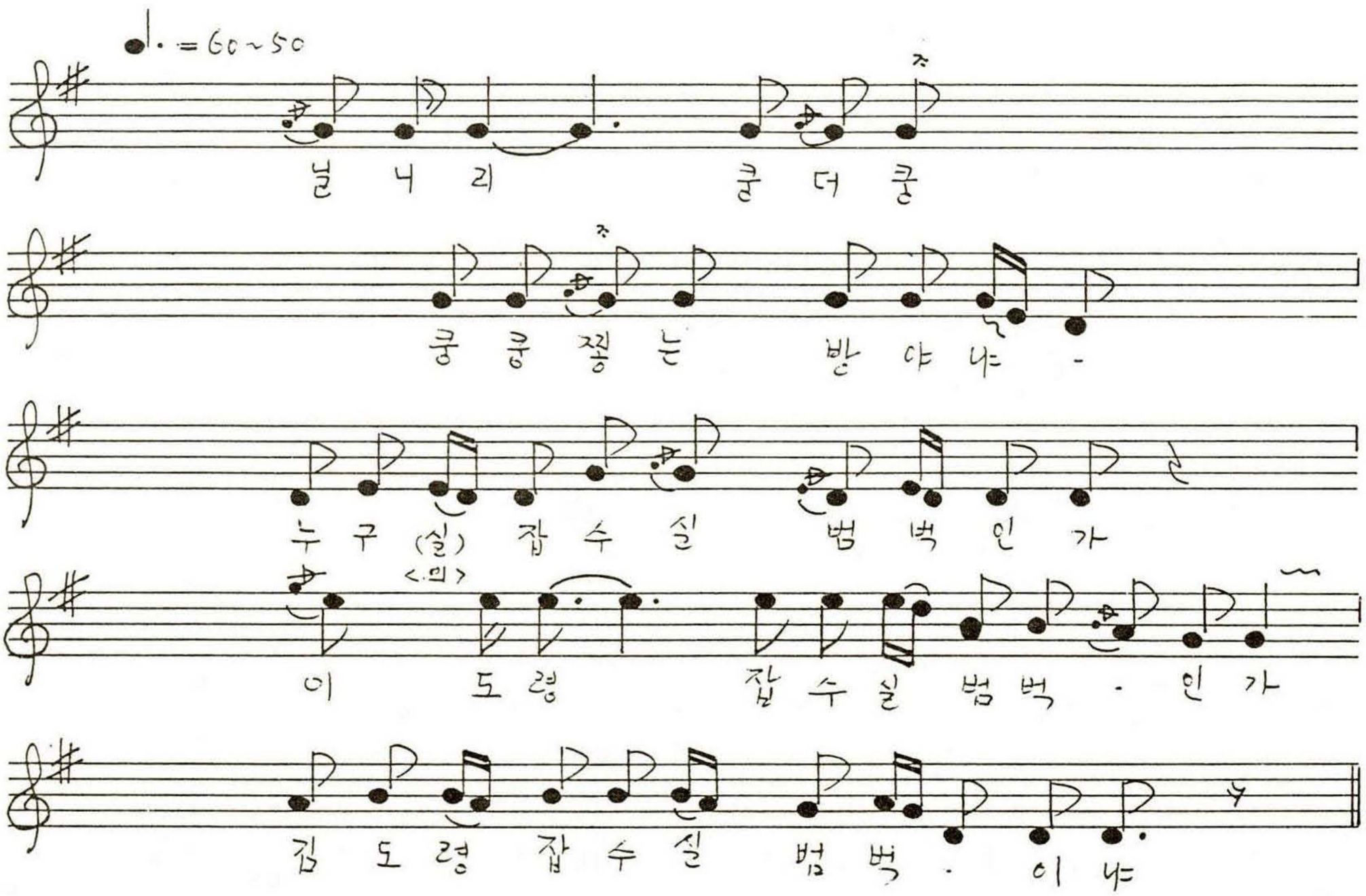
고교구규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관하기가 짝이없네
나냐너녀 나부등에 손질하여
조선 팔도 유람할까
노뇨누뉴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어지면 못노느니

다댜더뎌 다(담)덤북 안았던 손목
인정없이도 떨어진다
바뱌버벼 밥을 먹다도 임의 생각
목이 매여 못먹겄네
보뵤부뷰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의 낭군이 보고지고

〈홍주 319〉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범 벅 타 령

민재식 唱
素 94-3-12[B]



이도령은 맵쌀범벅
김 〃 찹쌀범벅
이 〃 본 냄편이요
김 〃 훗낭군이라

외방장사를 나간다고
민빗 챔빗 싸짊어지고
뒷동산에 올러가서
엿만보고 새만볼제
건넌말 김도령 거동보소
이도령 없는줄 알고
아기정 아기정 건너와서
문열어라 - 문열어라
문을 열고 썩들어가 보니
올려다보니 소라반장
내려다보니 각자장판
모란평풍 둘러치고
반달같은 민빗 챔빗 다 늘어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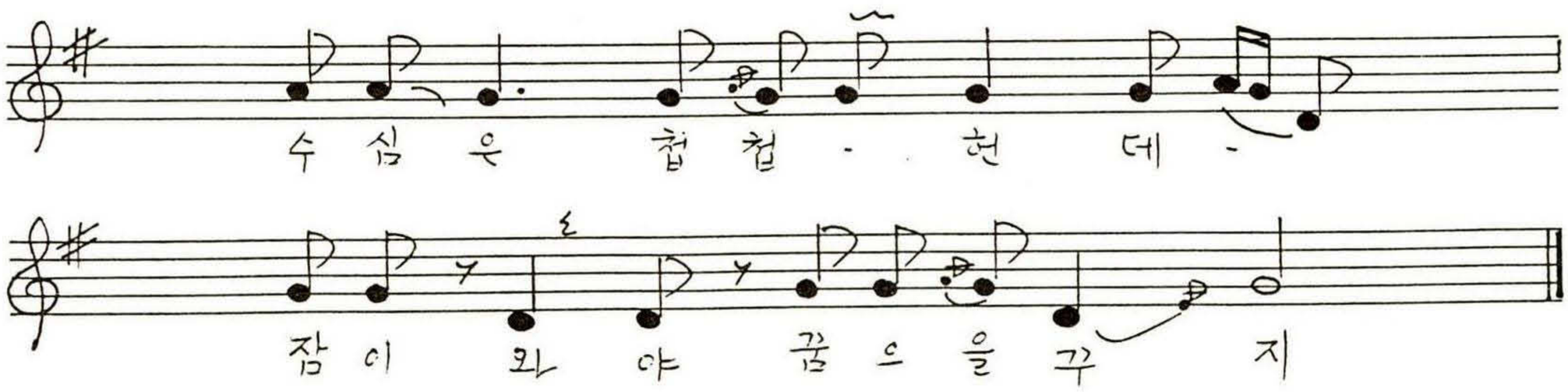
※ 일반가사는 (놋요강은)

원앙금침 잣벼개 돋워비고
두몸이 한몸이 되어
창포밭에 금잉어 놀듯
둥굴 둥굴이 잘도 논다

※ (말하듯)- 어허 그거 참 잘도 논다

계집년의 허는 말이
밤은 깊어 야심한데
무엇을 잡수리까
나 잘 먹는 건 범벅이다
범벅이면 어떤 범벅을 괴이리까
정월이는 찹쌀범벅
이월이는 씨러기범벅
삼월이는 쑥범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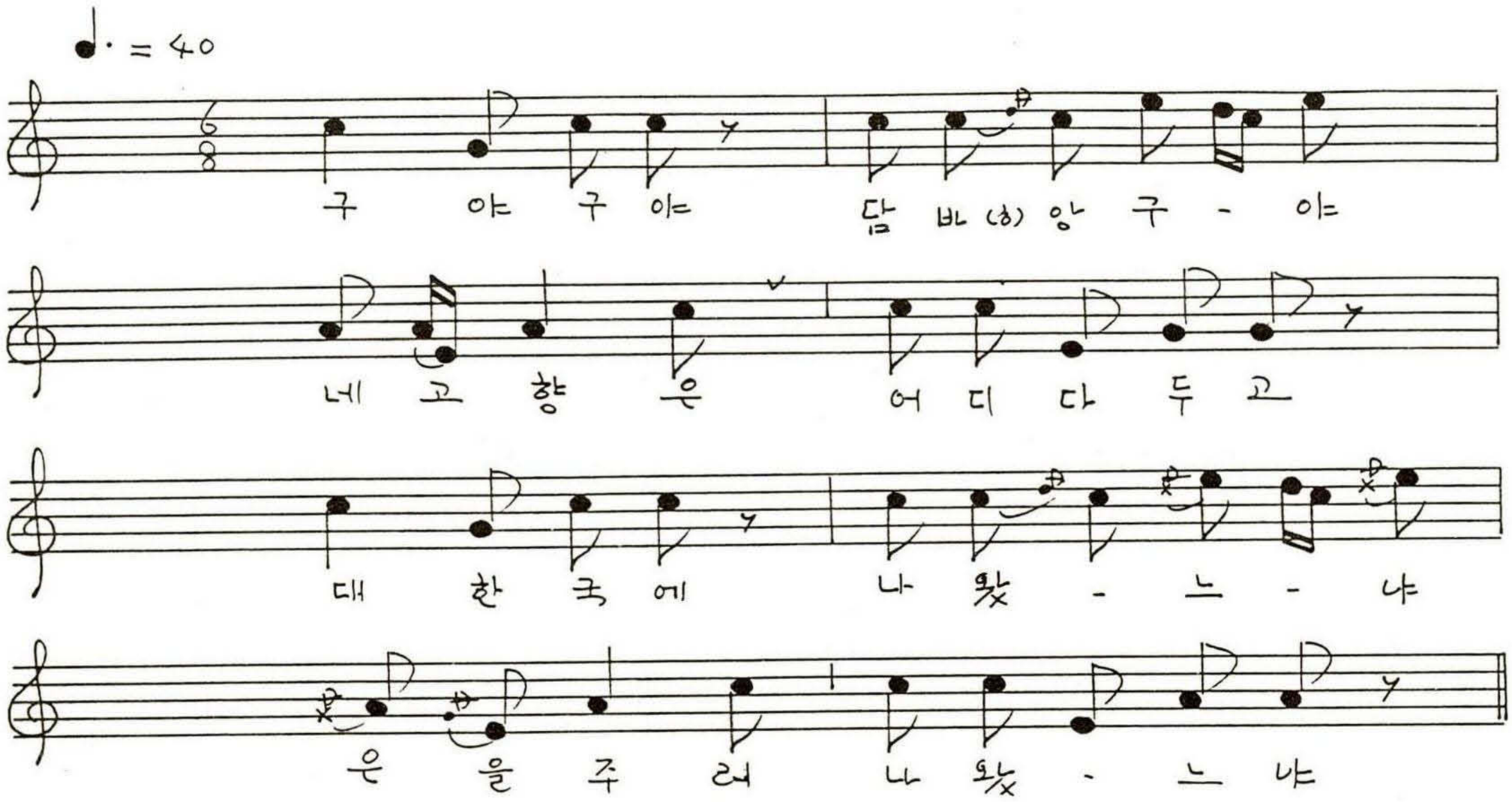
사월이는 밀범벅
오월이는 단유범벅
〈오〉
유월이는 수리치범벅
칠월이는 수수범벅
팔월이는 꿀떡범벅
구월이는 구일범벅
시월이는 무시루범벅
동짇달이는 동지범벅
섣달이는 흰떡범벅
열두가지 범벅을 객이일적에
문열어라 문열어라
벗님네 왔으니 문열어라
문열라는 소리에 깜짝놀래
(계집년 허는 말이)
김도령 처단을 어찌허나
우리집이 삼대사대 내려온 뒤지
뒤지 속에다 집어놓고
범같은 자물쇠로
이리비틀 저리비틀
떨꺼덩 잠궈놓니
이도령이 썩들어와서 하는 말이
돌팔이 만나서
금년신수를 보았더니
우리집에 삼대사대 내려온 뒤지
뒤지때문에 안된다더라
기집년이 뒤지탓이라 한말이 웬말이냐
우리집이 삼대사대 내려온 뒤지
하나뿐인데 뒤지탓이 웬말인가
이도령 거동보소
뒤지를 짊어지고
북망산천이 올러갈제
빈뒤지 속에서 오줌만
졸졸 싸고 있구나
뒤지문을 딱 떼고 보니
발개벗은 몸둥이라
너두 남의 집 외아들이요
나두 나의 집 외아들이라
기집년 행실이 걸렀지
기집년 거동을 보소
김도령 죽은 줄 알고해서
뒷동산이 올라가서
삼오제 지내구 앉었구나
넋이라도 내려오고
혼이라도 내려와서



〈홍주 320〉 홍성군 서부면 은하면

담 방 구

손천순
素 90-2-3①A



금을 주러 나왔느냐 은도 없고 금도나 없고,
담방구씨 한봉지 저건너라 상상봉에
금전수전 일러놓고 담방구씨 던졌더니
샘일만에 건너가 보니 겉닢겉대 다 씰어지고
〈삼〉
속닢속대 따먹을래 은장도로 피였다가
금장도롤 쓸어놓고 천동화로 백탄숯을
이글 이글 일어놓고 총각의 쌈지도 한쌈지에
내쌈지에 또 한 쌈지 두쌈지를 놓고나 보니
목안에서 실안개 돌어 또 한대를 얻고나 보니
청룡황룡 뒤틀어가니 저기 앉은 저 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날 사위삼게
딸은 있어도 나이가 적어 저년의 기집애 몸매를 보아라
한짝 손에 밥주걱 들고 또 한손에 밥사발 들고
부엌문앞에 썩나서며 여보 어머니 그 말씸 마오
이웃집 할머니 어머니 동갑에 외손자 봅니다
거위는 적어도 구녕을 뚫고 참새는 적어도 알만 낳고
제비는 적어도 강남을 갑디다. 난 나이탓을 마십시오

〈홍주 321〉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담 방 구

김항제 唱
素 89-11-28②A

♩. = 50

구 야 구 야 담 방 구 - 야
동 래 나 칠<울> 산 에 담 방 구 야
은 을 주 라 고 나 려 를 왔 - 나
금 으 - 흘 주 라 고 나 려 르 을 왔 나
은 도 실 고 금 도 실 고
담 방 구 씨 르 흘 가 지 고 왔 네
저 기 저 기 저 산 밀 - 에
담 방 구 씨 르 흘 던 졌 더 니
밤 이 되 면 밤 이 슬 맞 고
낮 이 되 면 낮 갓 으 을 쐬 여
곱 게 곱 게 길 렀 더 - 니
한 달 이 상 이 걸 렸 - 구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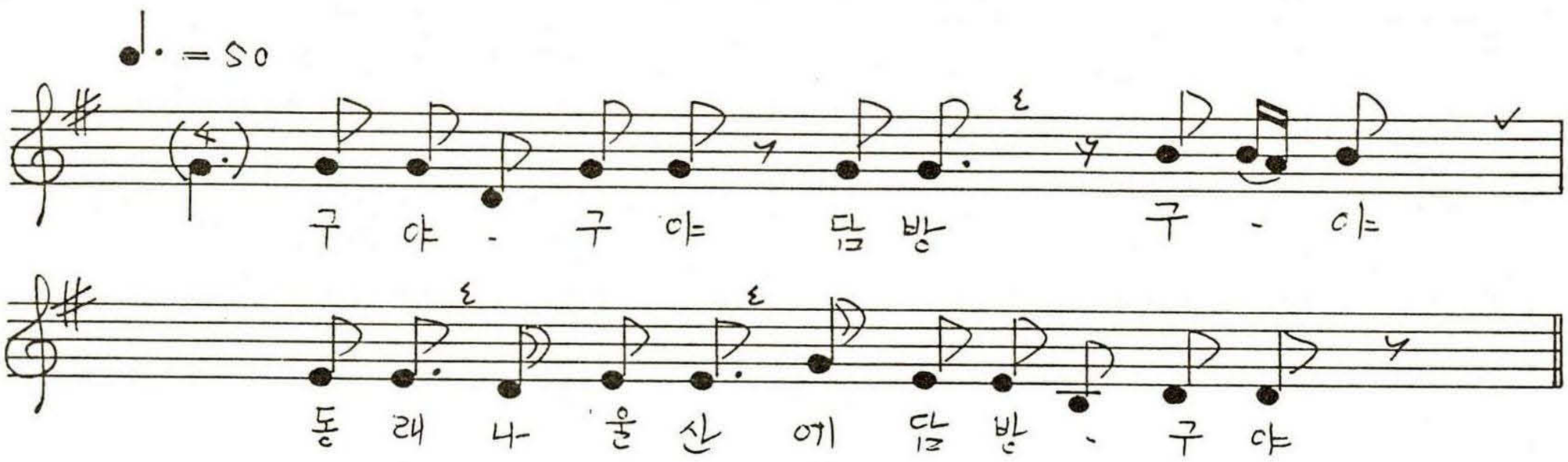
겉이 겉대, 다 바리고
속의 속닙을, 피였더니
만사 태평이, 이- 보다
(♪♪♪)
더할 수 가, 있을 소냐

※〈321〉 담방구는 광해군 시절인 1618년 무렵 일본에서 들어온 담배에 관한 내용으로 통민요에 속한다. 동래나 울산의 담방구라는 보편적인 가사로 보아 동부 경남지역에서 처음 담배재배에 성공하고 많이 경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필자의 "담방구 타령" 「엽연초 제70호」 엽연초협동조합, 1992 참조)

〈홍주 322〉 홍성군 금마면 월암리

담 바 구

최병현 唱
素 94-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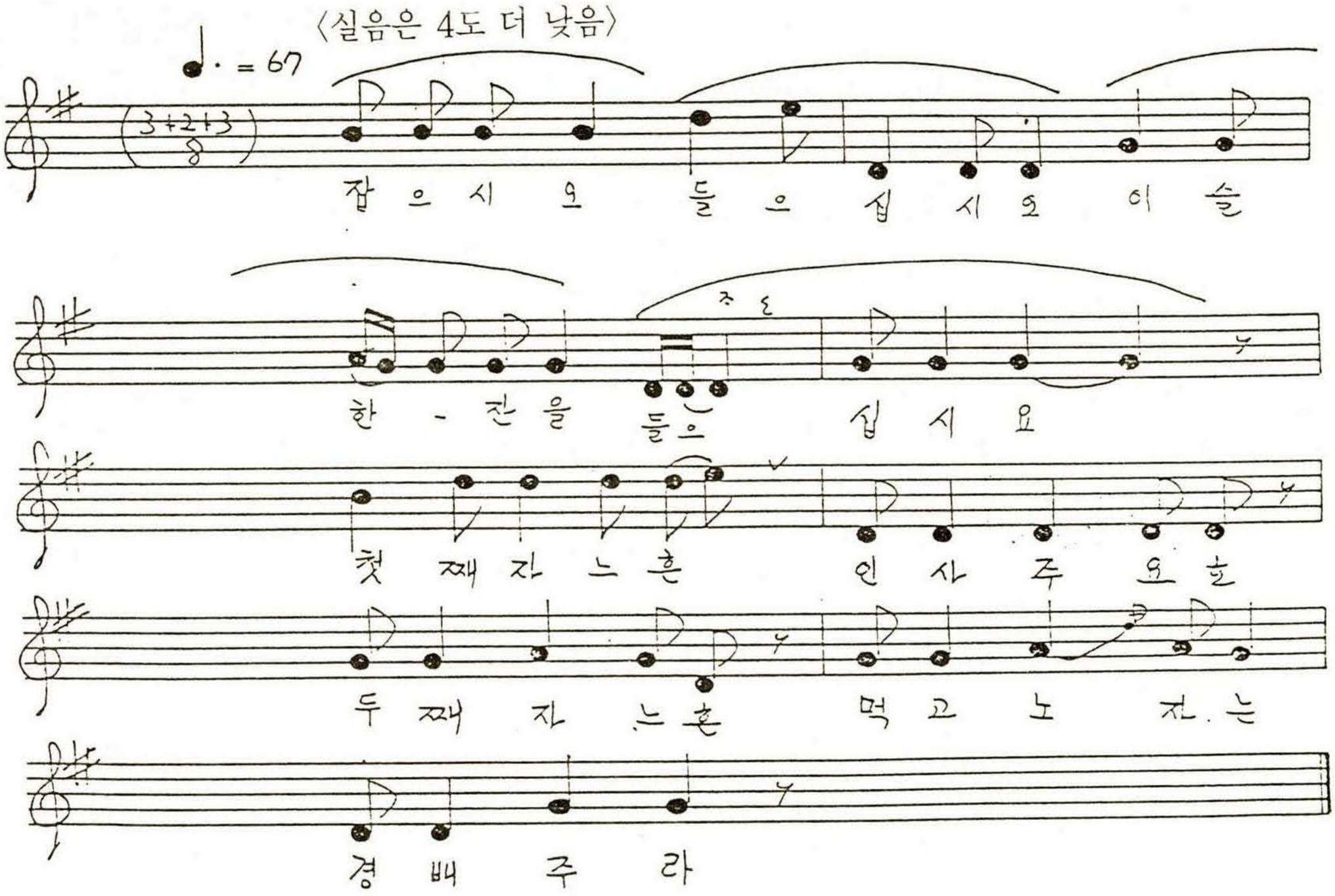
은을 주려고 나왔느냐
금을 주려고 나왔느냐
금도 없고 은도 없어
담바귀씨를 가지고 왔네
담바귀씨를 저기 저산 밑에
훌훌뿌려 심었더니
속닢나고 곁닢나서
떡닢은 제거 속닢을 키워
이세상 뭐시를 잘 커봤다
담바귀잎새를 접어다가
노인네 쌈지도 한 쌈지요
나의 쌈지도 한 쌈지라
담바귀 담배를 피여 무니
청룡 황룡이 구름틀듯
연기가 피여 올러 간다.

〈홍주 323〉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권 주 가

이성점 唱
素 90-2-2⑥A

〈실음은 4도 더 낮음〉



〈홍주 324〉 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자진아라리곡풍

전차순(1924.여)
素 94-3-13①B

○ 시아버님 죽었다고 춤췄더니
왕골자리 떨어진께 생각나네
○ 영감아 땡감아 쪽째질마라
보리방아 품팔아 시루떡 쪄줄께

〈홍주 325〉 서산군 해미면
홍성군 장곡면

성 주 풀 이

김임순
素 94-3-13①A

- 선율은 이노래 참조 -

○ 내경산 십리하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도 아차 저 모양이 되리로다
에라 만수 대신이야

○ 저건너 잔솔밭에
살살기는 저 표〈포〉수야
그 쟁끼를 잡지마라
날과 같이 임을 잃고
밤새도록 잠이 안와
임을 찾아서 헤매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홍주 326〉 청양군 목면 / 홍성군 장곡면

노 래 가 락 곡 풍

전차순
素 94-3-13①A

(선율은 "질차고 장찬밭" 참조)

세상을 비관털 말고
금전없는 건 한탄을 마오
꽃핀 후에 열매가 열고
열매후에 성공을 해요
언제나 우리도 돈 모아 가지고
꽃핀 동산에 남과 같이나
잘 살어 보세

〈홍주 327〉 청양군 목면 / 홍성군 장곡면

진 머 리 뚝 잘 러

전차순
素 94-3-13①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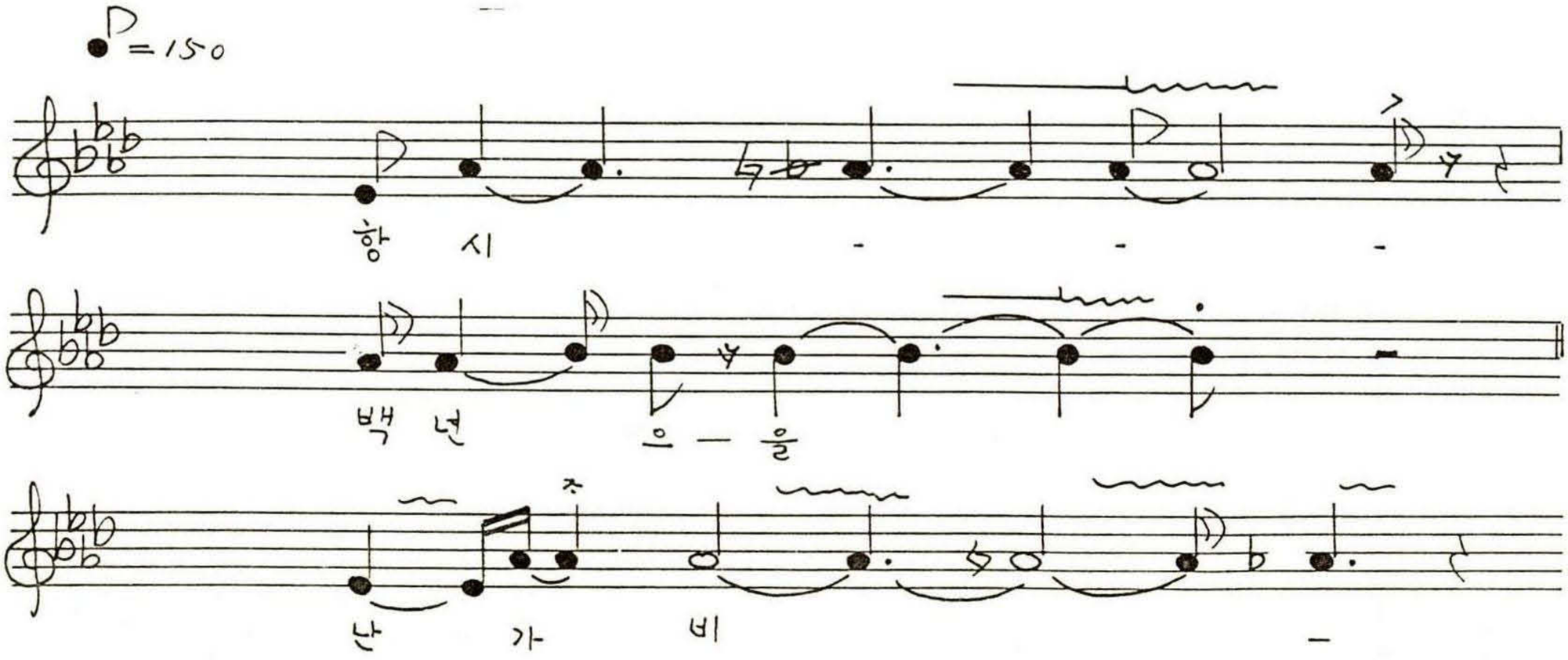
- 선율은 자의적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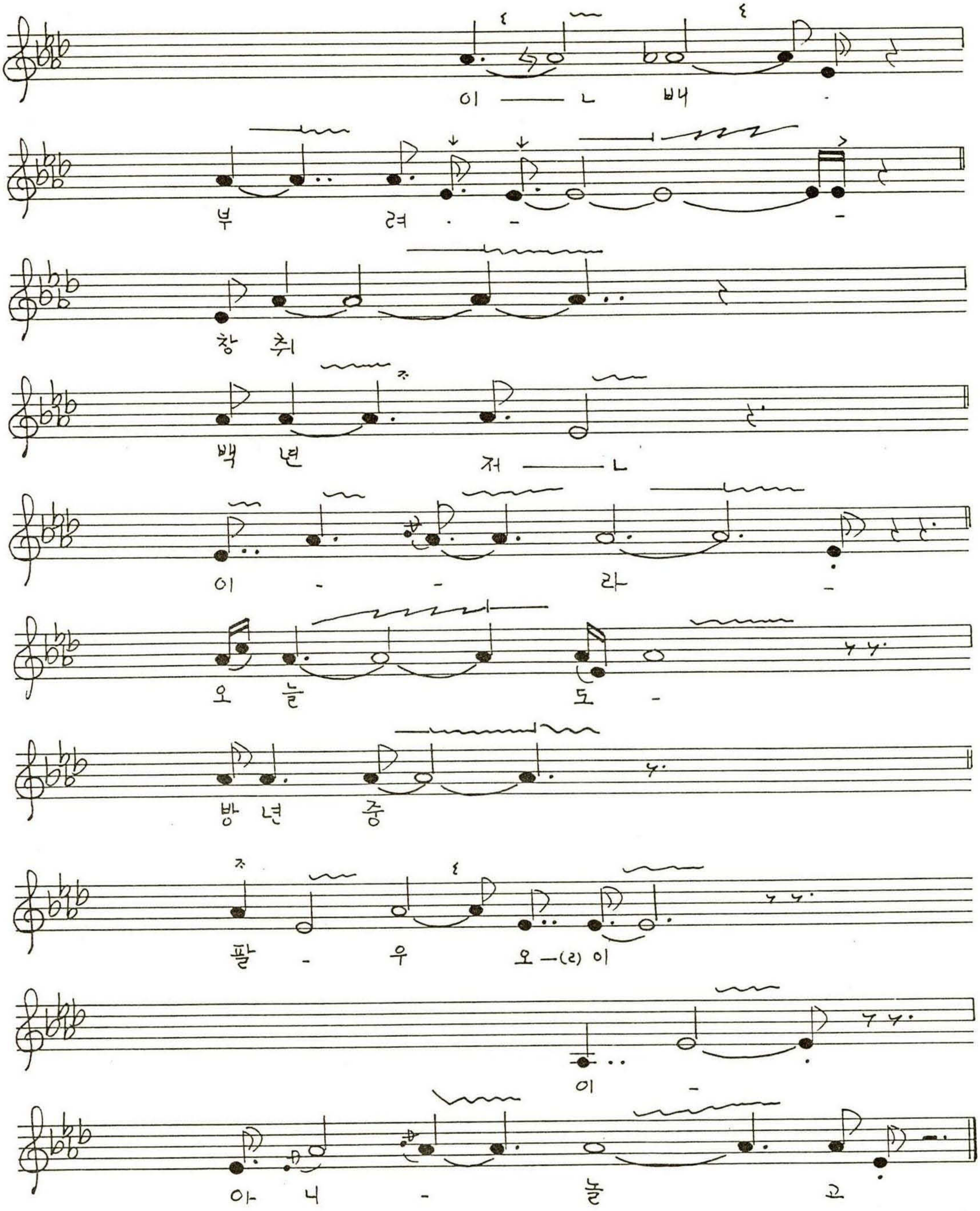
"진 머리를 뚝 잘러
단발머리로 허구요
진 치마를 뚝 잘러
반 치마를 맨들어 입고
행강수 원산이로
지치캐러 간다."

〈홍주 328〉 홍성군 홍성읍

시 조

김동선(1908.남.홍동면 출생. 5세에 홍성읍 이주)唱
素 89-11-28A





※ 〈328〉 : 시조(時調)는 가곡(歌曲)에서 파생한 음악으로 18세기 영조이후에 경제(京制)를 중심으로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 중심의 경제가 지방으로 파급되면서 서울과 다른 지방의 음악어법(音樂語法)의 영향으로 경제와 약간 다른 향제

(鄕制)를 이루었으니 충남의 내포제, 영남의 영제, 전주 중심의 완제… 등이 그것이다. 이중에서 내포제는 경제에 가장 가깝다.

내포제의 창자(唱者)로는 고종 10년 경(1906년)의 윤종선(청양), 보령의 김용래, 강진호 및 오늘날의 소동규(蘇東圭:부여)를 들먹인다. 시조사범인 박기옥은 최형내(1908년 공주출생)도 내포제의 독특한 가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홍성에서의 내포제의 시작은 홍성읍의 이기영과 대구댁이라는 여자로 부터라고 하며(김동선 대담), 김동선(82세 남. 홍동면 출생. 5세정도에 홍성읍 오관리 이주)은 내포제시조를 홍성군 은하면의 김인희·유한경에게 배웠고 김인희·유한경은 보령군의 김용래·이능인·전하진에게 배웠다 한다. 김동선과의 시조 동문으로 홍성분들인 박영균·성길용·서창순이 있다.

김동선의 내포제 시조창은 가성(假聲)을 쓰지 않고 밋밋한데 비해 소동규편에 배웠다는 안산옥창은 가성을 쓰고 보다 경제에 가깝다.

〈홍주 329①〉 홍성군 장곡면 대현리 광천읍 **기차는떠나간다(유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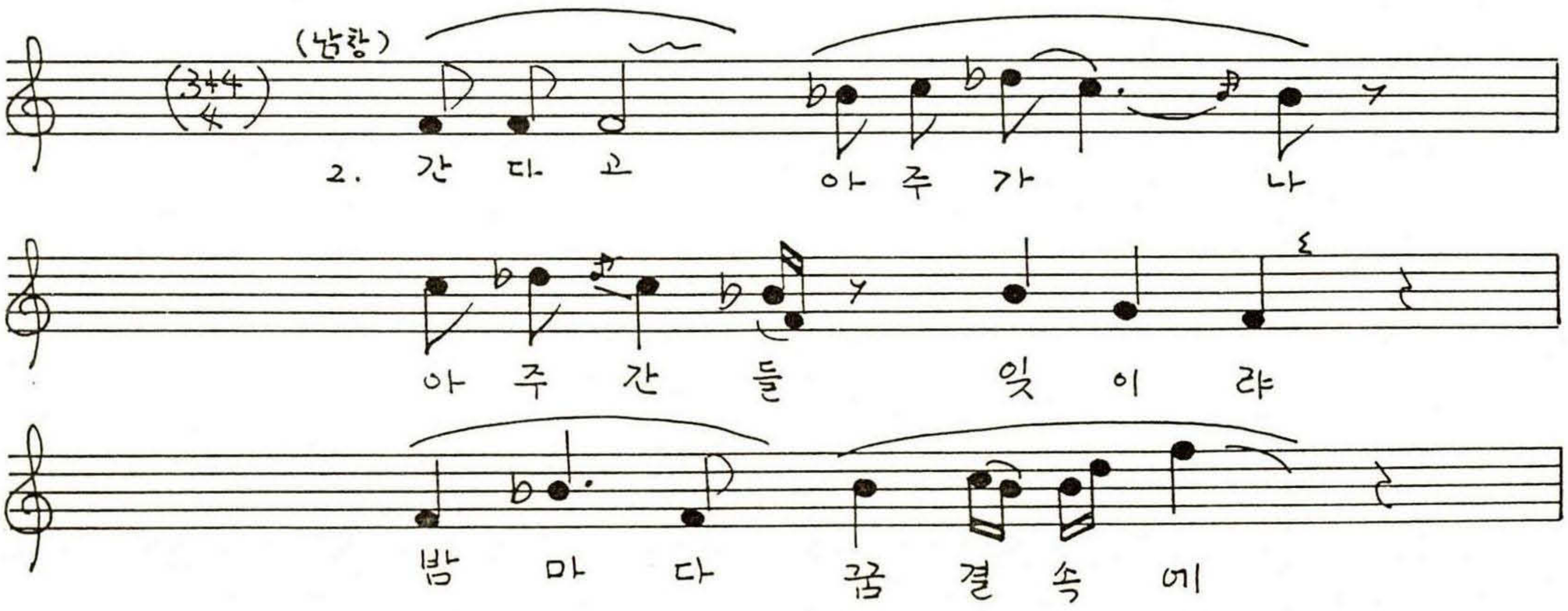
임길득(1910.남.대현리출생. 16세에 광천 이주)
素 89-11-29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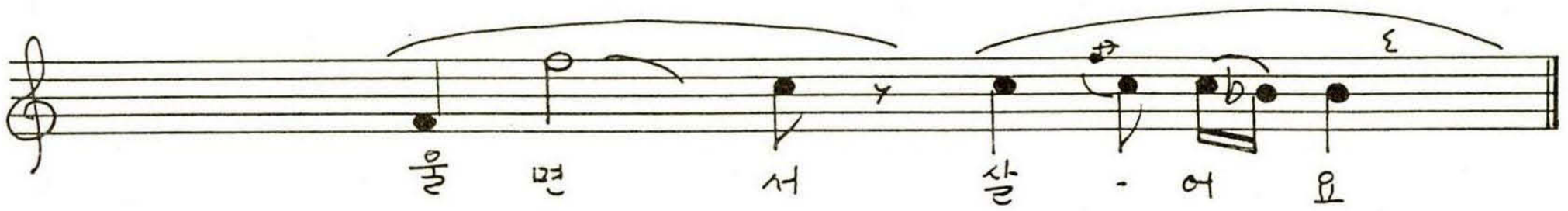
♩= 75~80

(여창)

1. 기차는 떠나간다. 부슬비를 헤치며, 정든 땅 뒤에 두고 떠나는 임이여
-〈넉두리〉- 아 임이여 가지마오 가지마오, 당신이 없는 곳은 모질고 사나운 눈보라 속이랍니다.

(대사) 차라리 차라리 가실라면 정은 두고가서 무얼하오, 정만두고 몸만가시다니 그 아니 서러울까요





-〈넉두리〉- 아 기차는 가자고 목메어 우는디 산임은 옷깃을 잡고 왜 요리 슬피우느뇨. 낭자여 잘 있으소.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 천리요. 지척이 천리라면 마음도 천리란다. 달뜨는 밤 꽃 지는 날 저녁 철마구니 소리 황혼에 처량하게 들려오는 곳. 만학천봉 구비구비 서린 샛빨간 안개를 타고 사랑의 꿈길에라도 만나리라.

-〈女子가 하는 넉두리〉- 샛빨간 거짓말. 당신은 왼갖 동산에 헤엄쳐 다니는 호랑나비가 아니랍니까. 간다는 말과 온다는 몸빛으로 사랑과 맹세를 얼마나 해왔단말이오 원망시럽소 밉살머리시럽소. 한번 꺾었다 버릴 꽃이라면 무슨 억화심정으로 꺾어놓았단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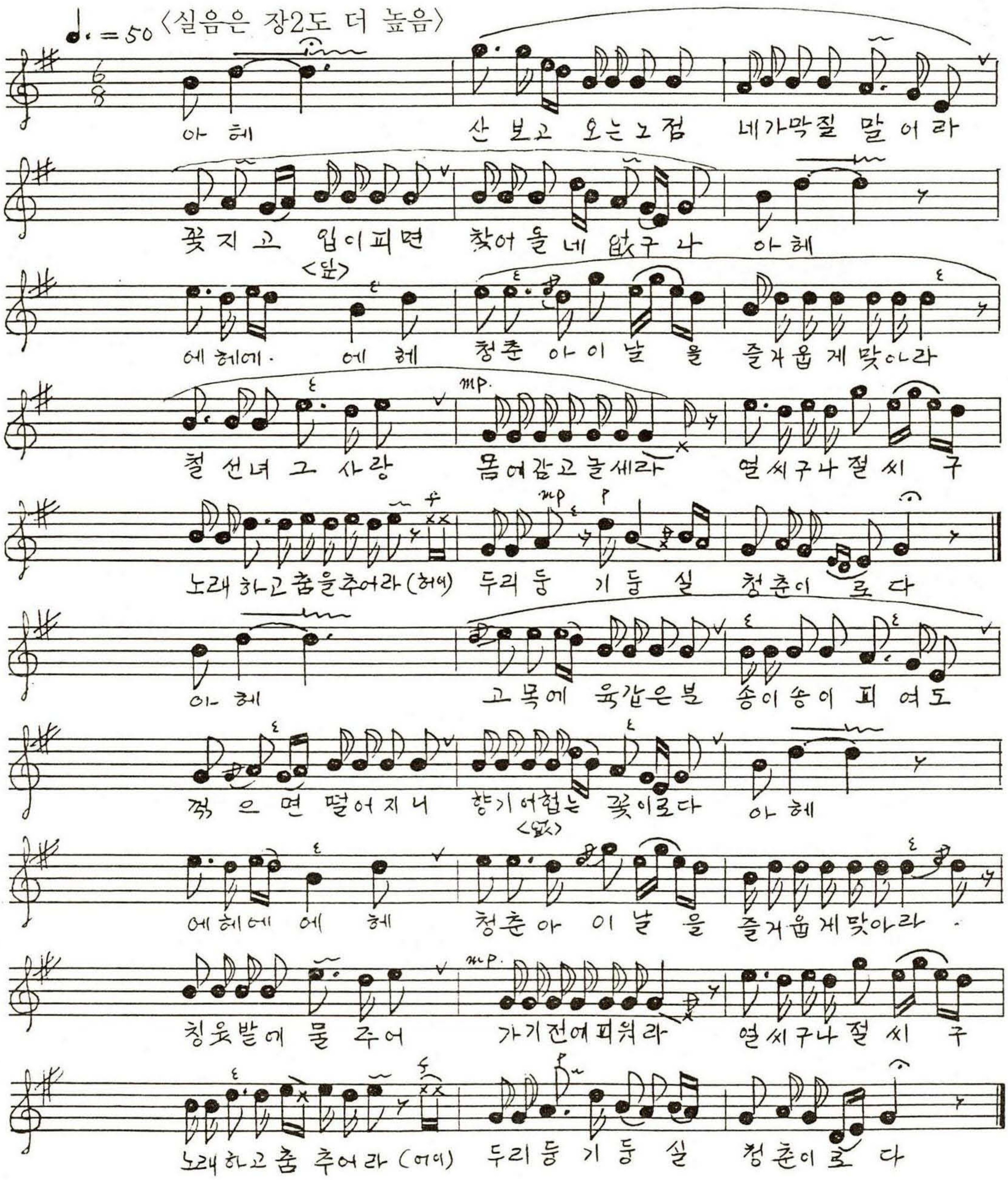
3. 임아 잔을 들어 아픈맘을 달래라. 공수래 공수거가 인생이 아니냐//

〈홍주 329②〉

五聖山仙景歌 - 은하면 배신희 제공 -

山之祖宗崑崙山은 / 冊牀바위 완연하니
사람마다 들었으나 / 仙景얻기고이하다
朝鮮中華五聖山은 / 月明空山寂寂夜에
아는 君子 누구인가 / 碧齊소리 들리난듯 亞朱仙經모신집에
奇壯하다 十二峯은 / 誦經工夫神通한데 左右山川둘러보니
小金剛이 이 아닌가 / 鳳乎鳳乎鳳頭山은 文王때를 채촉하고
朝鮮獨立主義 간직하고 / 龍乎龍乎 靑龍山은 伏羲運을 기다리네
中心淸白道을 닦어 / 九洞岩에 선바윗는 朝夕往來조수물에
降仙岩을 일워노니 / 不染 世塵자랑 하고
保寧靑蘿 얽혀있고 / 墨龍峯시 三台안은
安民大海둘러있네 / 三皇 聖德의 運敎를 안은
그 山落脈碧齊山에 / 君子 紹介하니
銀河峯이 높았으니 / 仙景 仙景일세
牽牛織女筆迹인지 / 五聖 名山 仙景일세
神仙仙字 그려있고

〈홍주 330〉 홍성군 장곡면 죽전리 **청춘타령** (잔칫집 등에서 춤추고 놀때 부름) 김항제(1917. 남. 土民)창 素 89-11-28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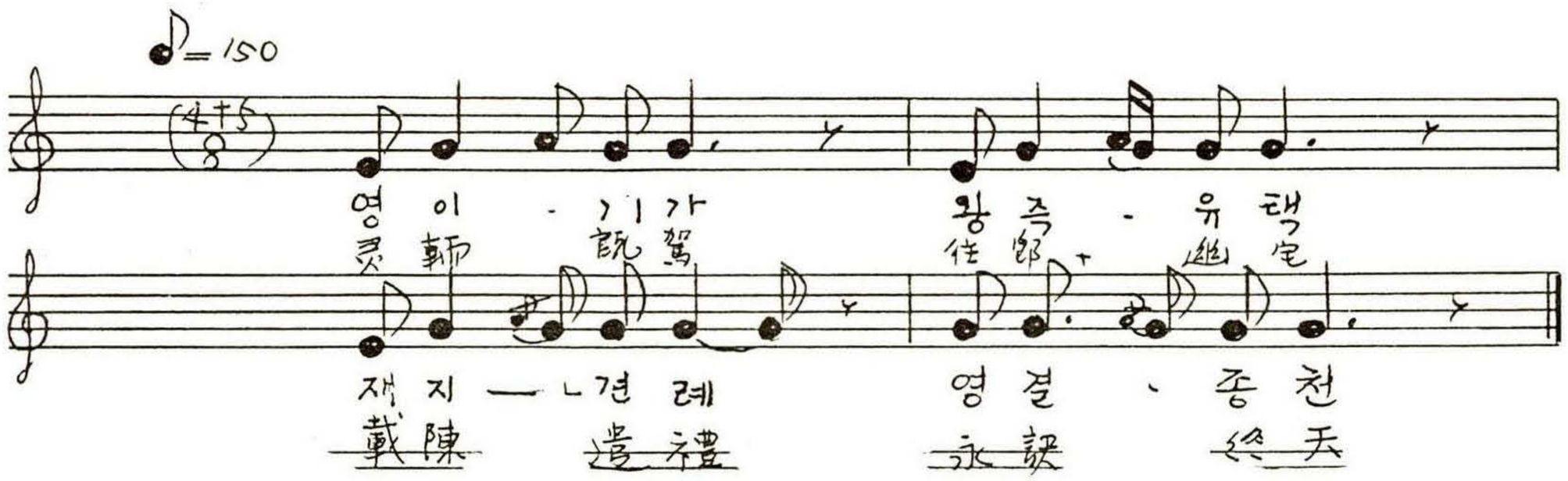


※ 〈홍주330〉 청춘타령은 광천읍 대평리노인당에서 녹음된 것인 바, 7, 8인이 함께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 애창되던 곡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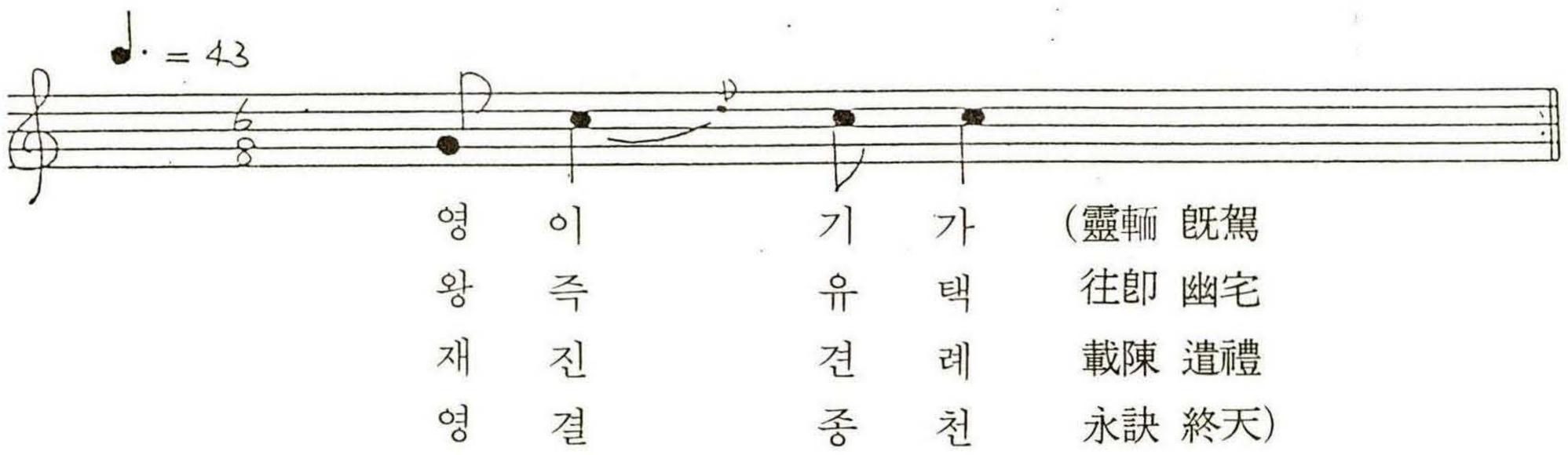
개회기시대의 신파조의 곡풍이다.

곡의 구조는 "아헤+㉠+아헤, 에헤에에헤 청춘아 이날을 즐거웁게 맞아락+㉡+얼씨구절씨구 노래하고 춤추어라(어이) 두리둥기둥실 청춘이로다"로 쓰여있다.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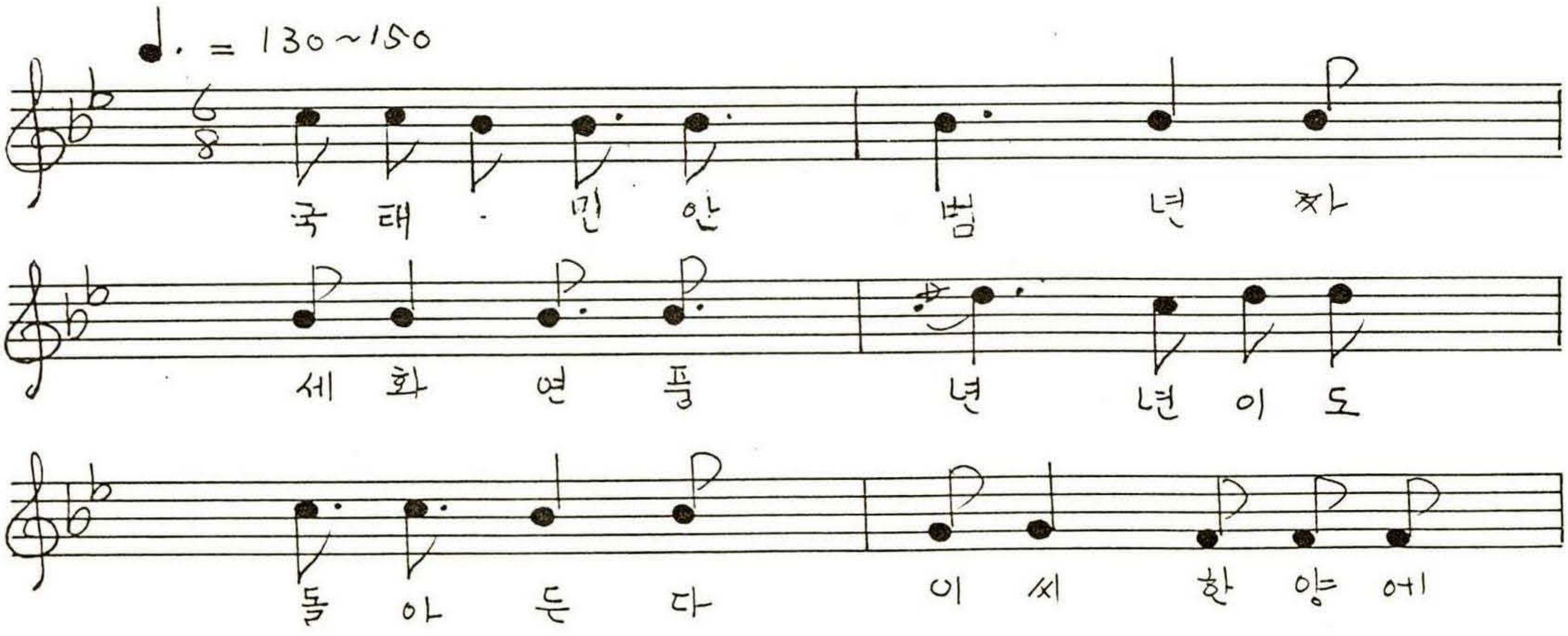
〈홍주 331〉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발 인 제** 김형안(1928. 남. 土民)창 素90-2-1①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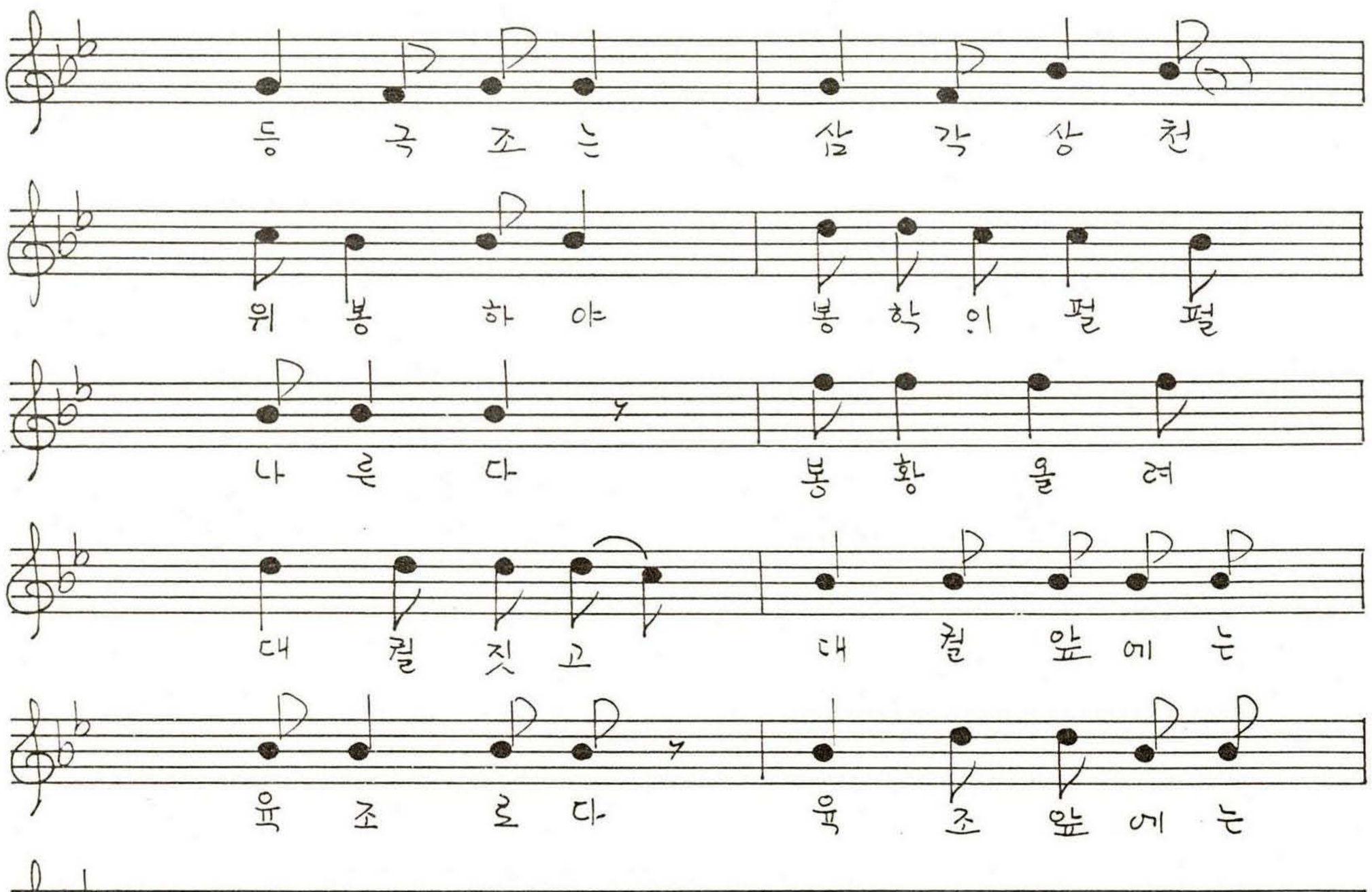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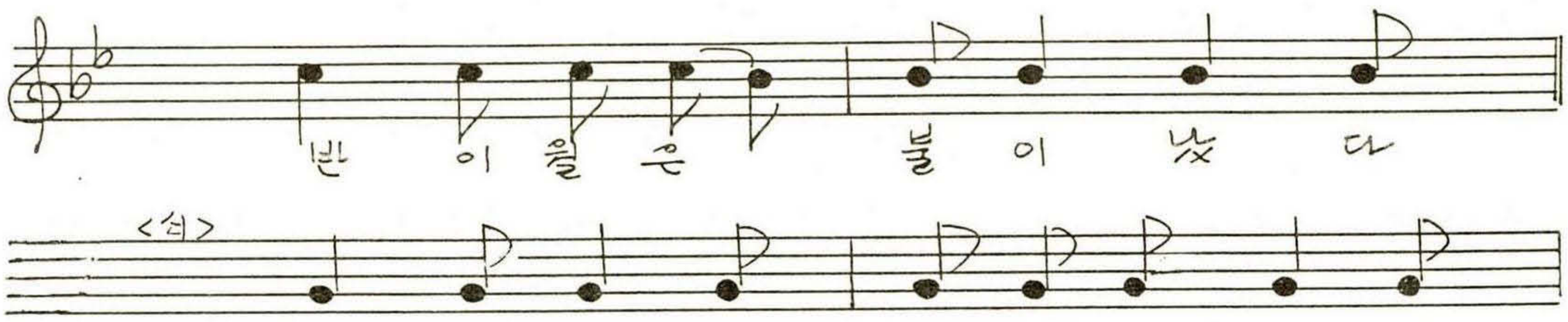
〈홍주 332〉 홍성군 결성면 무량리 **발 인 제** 김학인 창 素 90-2-2⑤B



〈홍주 333〉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고 사 소 리** 이태훈 창 素 90-2-2⑤A




등 극 조 는 삼 각 상 천
위 봉 하 야 봉 학 이 펄 펄
나 른 다 봉 황 을 려
대 궐 짓 고 대 궐 앞 에 는
육 조 로 다 육 조 앞 에 는
어 양 문 하 각 산
각 주 각 이 면 맞 은 시 에
왕 십 사 청 룡 이 요
둥 구 재 말 레 백 호 로 다
원 앙 산 이 비 쳤 으 니
한 강 수 물 이 맑 고



〈홍주 334〉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고 사 소 리(칠석)

최용환(89-11-28②B)창

♩. = 120 〈실음은 4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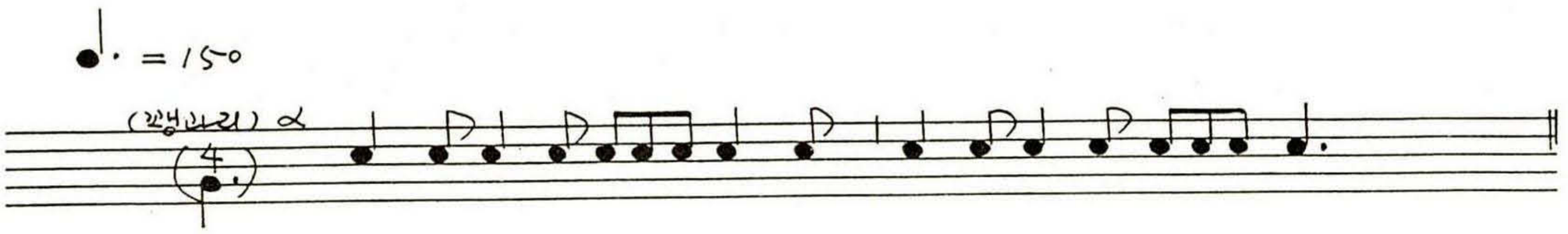
어화세상 사람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우리형제 세사람이
옥황황제 따님으로
맏형은 출가하야
월궁항화 되어있고
둘째형 등원하야
요지왕모 자부되고

동고금슬 자비하야
원앙비취 쌍쌍이라
화류춘풍 좋은시절
삼오청춘 꽃가지에
생이사별 되단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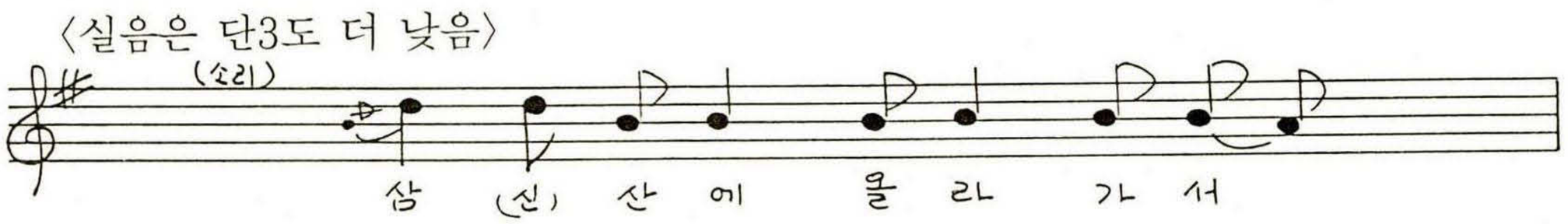
각황저방 십이기는
좌우편에 호송하고
오작교 넓은길에
선풍유 진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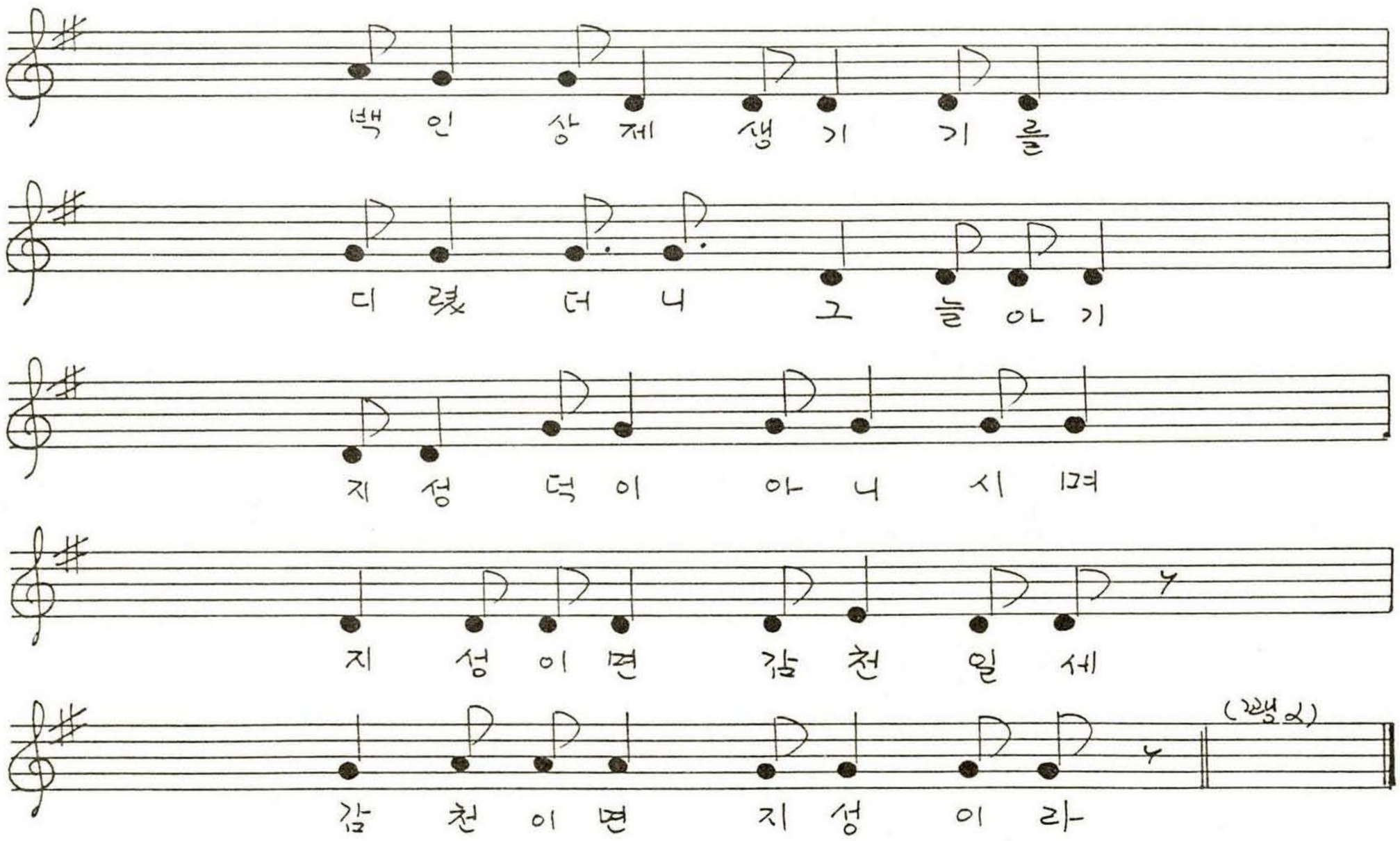
우리낭군 나오실적
천지돈지 내달어서
은하수를 보낼러라
그러다가 만난인정
샛뜻하고 향기롭다
오경밤이 덧이없어
세세정곡 다 못하고
달도지고 때도되고
좌우의 계명성에
훌훌하다 이별이야
웃기야 웃지마는
또어찌 기다릴꼬
울며불며 갈린심애
철석인들 무심하랴
어화세상 사람들아
우리인연 신기하야
처첩사랑 하지말고
백년해로 기약하소

〈홍주 335〉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고 사 소 리** 정기석(90-2-3⑦AB)



(소리) ○ 이때 질을 마련할 때
상탕에 손을 닦고
중탕에다 목욕하고
하탕이 발을 닦고/(꽹 α)





○ 질긴나무 꺾어질까, 공든탑이 무너지랴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나님전 비나니다 두손모아 빌어보고/(α)

○ 경오년 새해를 당도하니 정월허곤 초하루로다 막어내고
이월달로 당도해서 콩을 볶어서 막어내시고 삼월루다 가거들랑
삼진으루다 막아내시고/(α)

○ 오월달로 당도허니 단오루다 막어내고 유월달 가거들랑 유두로다 막어내시고
칠월달로 가거들랑 칠석으루다 막어내시오 - /(α)

○ 팔월루다 당도허니 한가위로 막어내시고 구월로다 가거들랑 구일루다가 막어내고
시월로다 가거들랑 조상국에 막어내시고 십일월로 당도허니 동지날로 막어내고
섣달로 내려가서 막음날로 막어내시고 일년도 열두달이요 과년하곤 열석달인데/(α)

○ 삼백하고 육십일을 내내 들어가더라도 근심걱정일랑 일시루다 소멸하고/(α)

○ 웃음으로 열으시고 꽃으루다 마지허고 이댁의 본명대주
석자에 자손들은 남쪽으로 가거들랑 웃음으로 연하시고
서쪽으로 가거들랑 꽃으로다 맞이하시고/(α)

○ 서쪽으로 가거들랑 자손만당 부귀영화
천만독축 빌어보고- / (α)

○ 에라 예 자손들은 나라에겐 충신하고
부모님전 효성허여 동기간이 우애익혀
친구간이 유대 있으니/ (α)

○ 자손만당 부귀영화도 하실께며 요것으로 끝마추고
신기리사는 정기석이요, 이만하고 삼랑
그만 그치겠습니다.

〈홍주 336〉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인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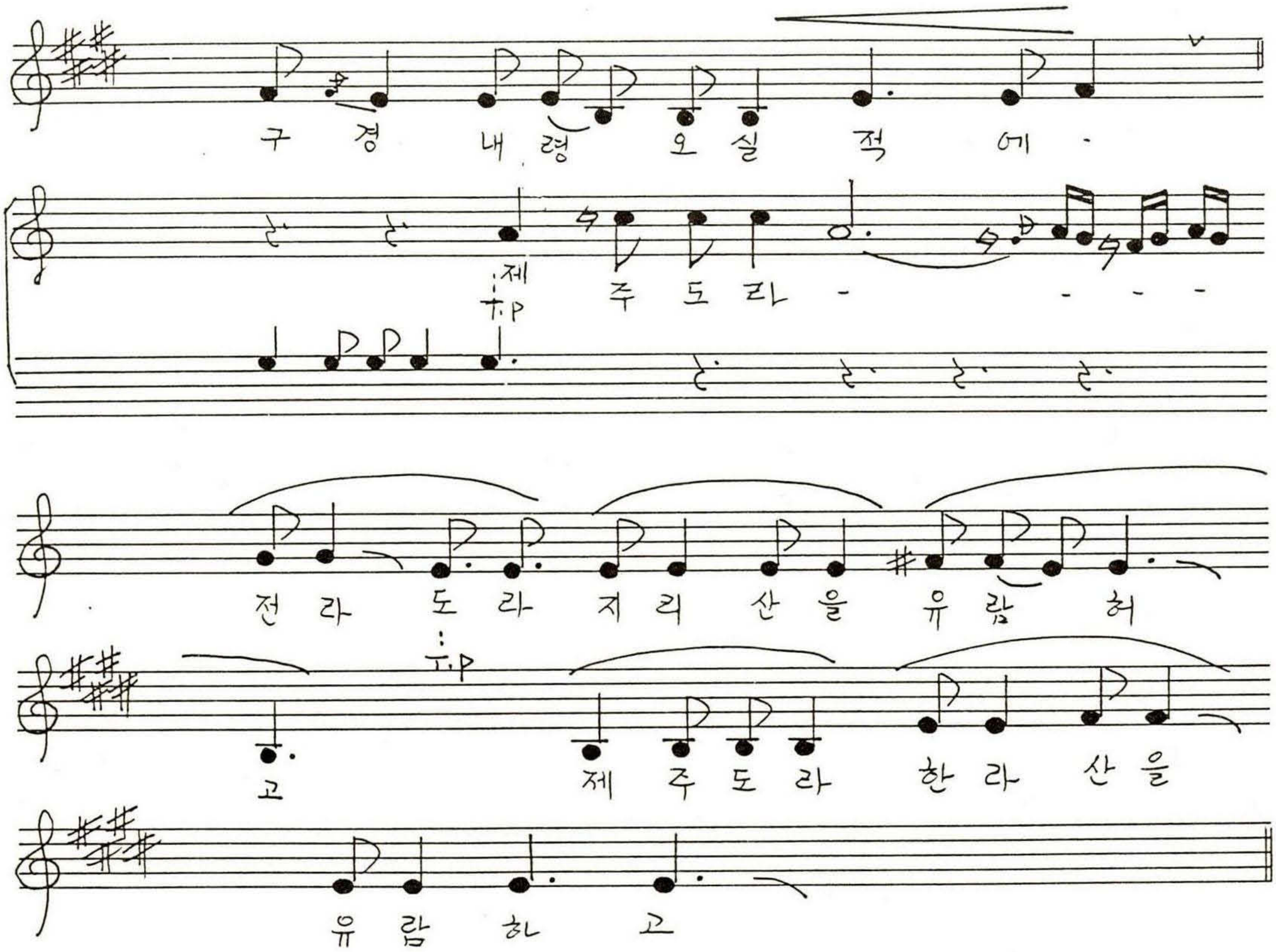
고 사 소 리

민재식(1913. 남. 土民)
素 94-3-12[A]

♩. = 100~80

- 소승이 문안드리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

제 석 님 이 어 디 계 셨
<깽>
던 가 삼 신 삼 천 선 나 라 에
계 셨 더 라 ⁞ 인 간 나 리 내 려 —。
오 실 적 에 한 손 에 는
복 을 - 들 고 또 한 손 에 는 병 을
들 고 조 선 삼 천 리 강 산
명 산 대 천 유 람 하 고



♪
경상북도 태백산을 유람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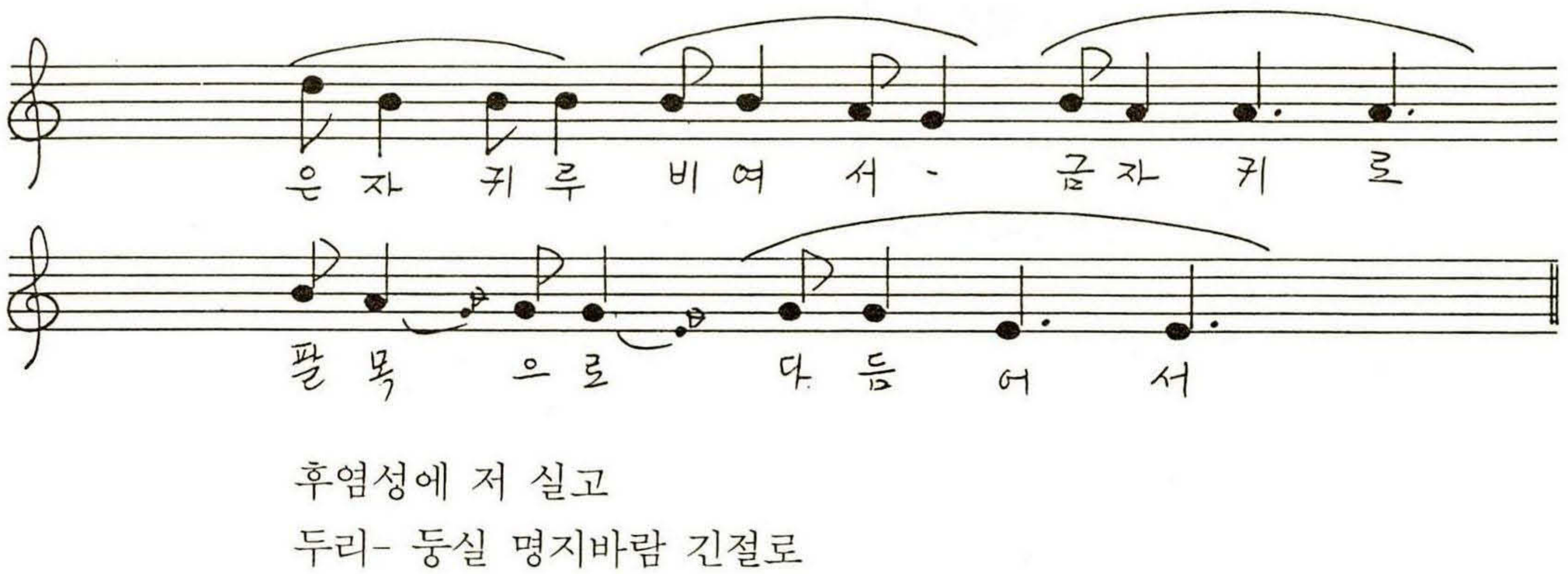
♪
강원도라 금강산을 유람하고
함경북도 태백산을 유람허고
평양에 모란봉을 유람하고
황해도에 구월산을 유람허고
경기도 삼각산을 유람허고 ♪♪♪♪

♪
충청도로 내령 와서
계룡산을 유람허고 보니
마마부인 만나서
백년가약 맺을 적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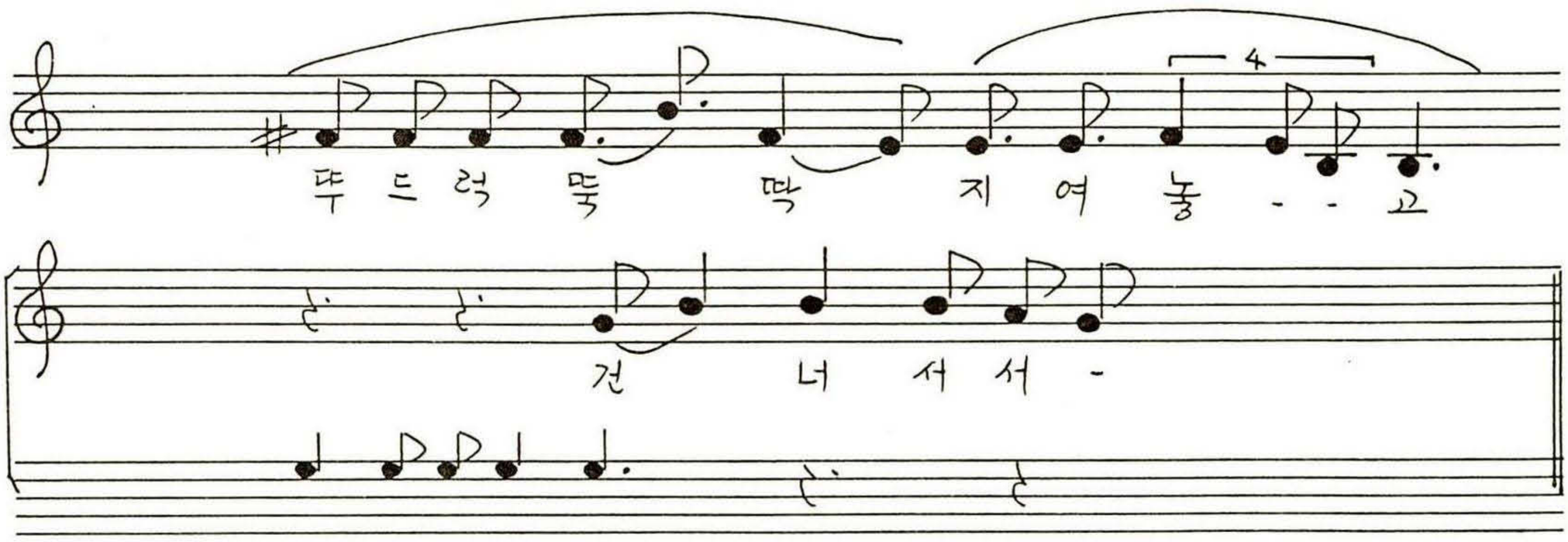
♪
귀밑머리 마주 피고
청실홍실 늘어놓고

암탉 수탉 마주 놓고
댓닢솔닢 꽂아놓고
양산대가 마주서서
북향재배 올릴적에 ♪♪♪♪
♪
우리가 -
집을짓고 사자며는
지관풍속 디려서
집터를 잡을적에 ♪♪♪♪
♪
지관 풍수허는 말이
이 집밑에다 집을 지면
맏이로 딸아기를 탄생헐것이요
지위로다 집을 지며는
아들아기 두형제를
탄생하리로다 - ♪♪♪♪
♪
맏이로 딸아기를 낳며는
여보시오 -
이터에다 집을 지며는
맏이로 딸아기를 탄생하며는
중의 사위 본다는데
다른 터를 잡읍시다
이터에다 집을 지며는
아들아기 9형제를 탄생헌다는디
다른 명당이 어디 있으리요 ♪♪♪♪
♪
높-은데를- 문겨다
얕은데를 재길적에 ♪♪♪♪
♪
금가래는 금줄달고
은가래는 은줄달고
쇠가래는 짚줄달고
동네분들 집터다지러 올적에 ♪♪♪♪

♪
어기여차 지점이오
일세중방 주추 밑에는
봉학한쌍 들었으니
봉의머리 다칠세냐
어기여차 지점이오
이세남방 주추밑에는
청룡 황룡 함께 묻혔으니
용의머리 다칠세냐
어기여차 지점이라 ♪♪♪♪
♪
삼세서방 주추밑에는
두꺼비한쌍 묻혔으니
두꺼비머리 다칠쏘냐
사바세 죽방 밑에는
족제비 한쌍 들었으니
족제비머리 다칠세냐
어기여차 지점(이라) ♪♪♪♪
♪
여-보시오 주인공덕님네
나무가 있어야 집을 아니짓나 ♪♪♪♪
지열기로, 심심바댓키로
이십리가 훨씬 흘러가
명사대천 찾어들어가서 ♪♪♪♪♪
좋은 나무를 후여잡구보니
만물짐생이 뚝떨어져
그 나무도 부정쿠나 ♪♪♪♪
♪
(이 세~) 또 한나무를 후여잡고보니
청룡황룡이 뚝 떨어져
이나무도 부정쿠나
또 한나무를 후여잡고보니
임금 왕자가 그려있어
산천영기가 다 그려있네



후염성에 저 실고
두리- 둥실 명지바람 긴절로
고대광실 높이 지은 집



하말년 굴피로 기둥밑에 괴와 논후에다
놋쇠기둥 구리좀반 네 귀텡이 풍경달어
고대광실 높이 질러놓고 ♩♪♪♩
♩.
구리 좀뱅이 썩을 새냐 -
무쇠짐생이 썩을 새냐 - ♩♪♪♩
♩.
동남풍만 불게 되며는
산천명기 봉서단 명기루
가야산 명기루
훨훨 두루건다-
동남풍만 불게되며는
풍경소리는 땡그렁 땡그렁-
삼천리강산 정기가

강월노인정으로 다들어가네
신령님네요 안녕하십니까
여기오신 할아버지들
만수무강하셨다가
천년만년 살으시고
제반복을 마저 누리고
자손만대 부귀영화 시켜놓고
나라에는 충신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동기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고
곱게곱게 길르시고
할아버지들
만수무강하소서
- 관세음보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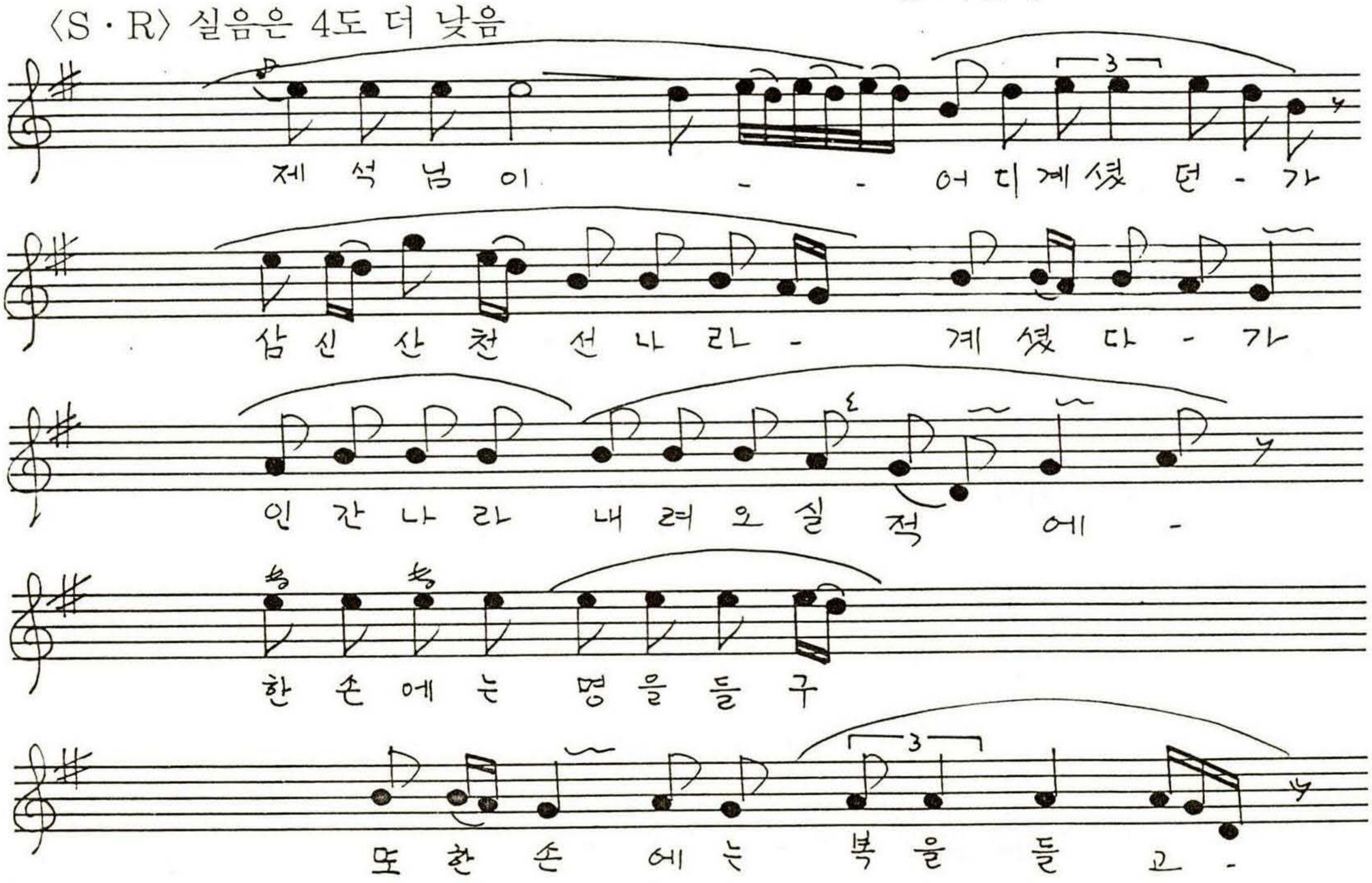
〈홍주 337〉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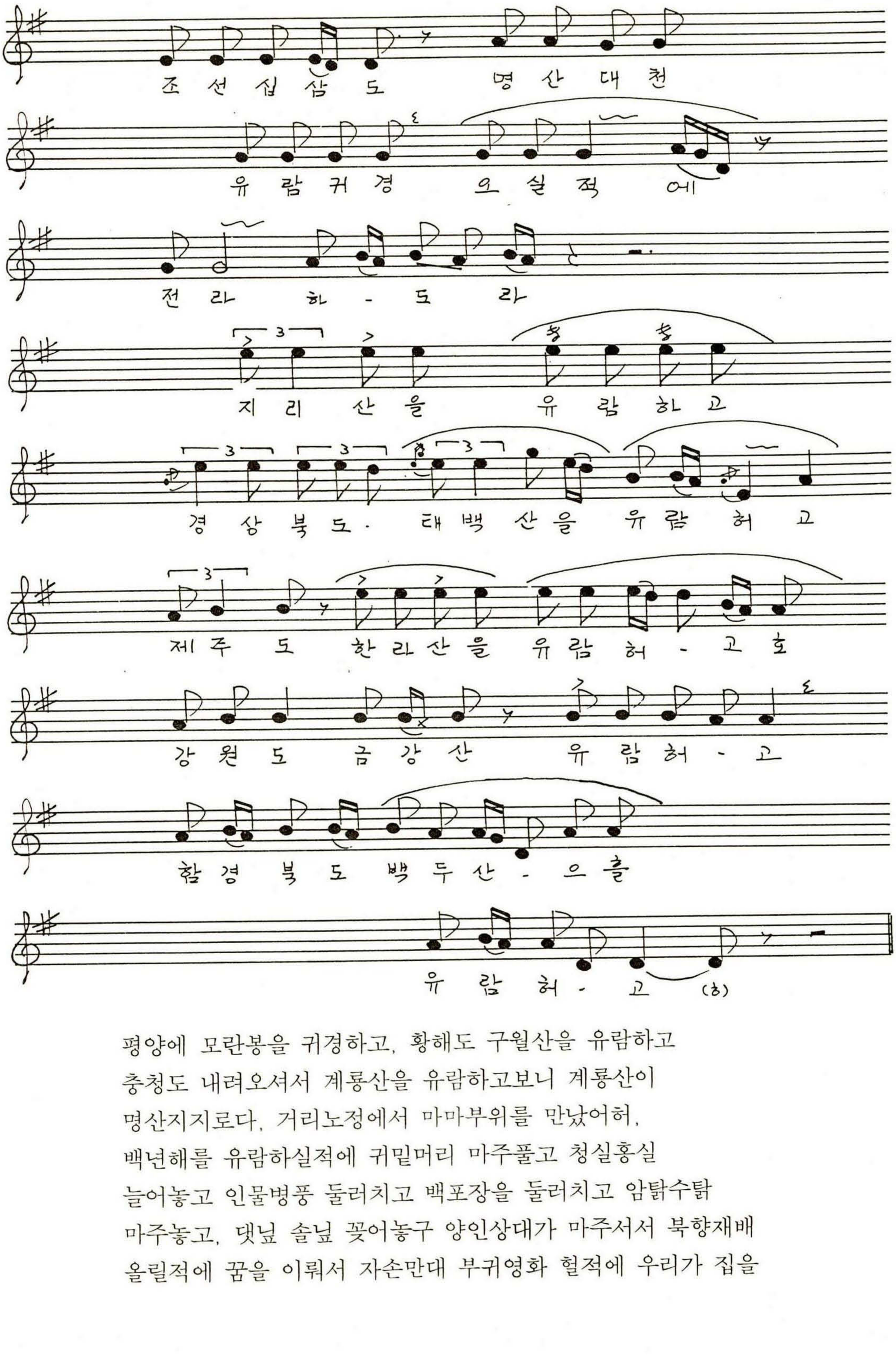
고 사 소 리

민재식(1913. 남. 土民)창
素 89-11-29②B

♩ = 95~100 - 집 지을때-

〈S · R〉 실음은 4도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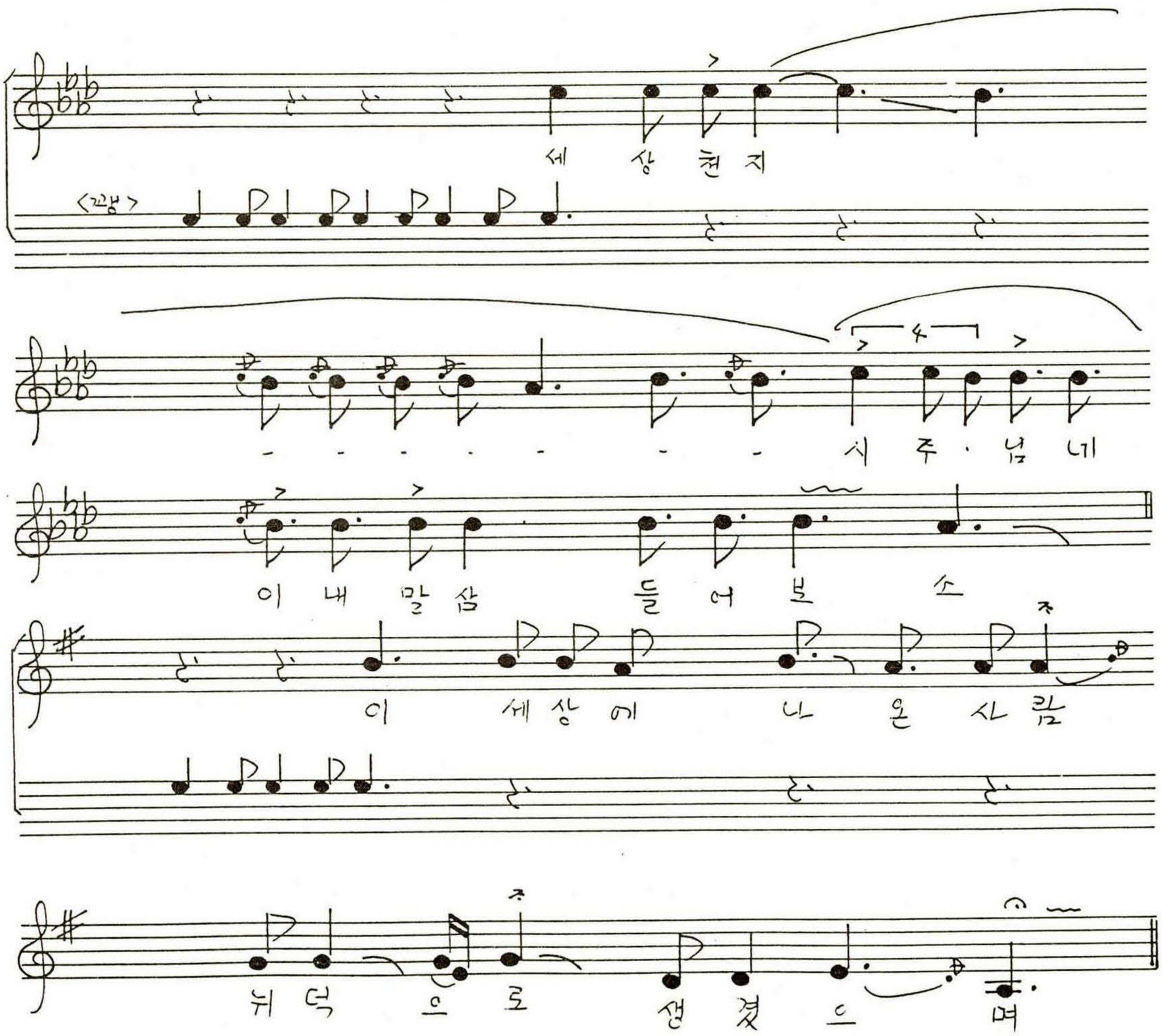
평양에 모란봉을 귀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을 유람하고
충청도 내려오셔서 계룡산을 유람하고보니 계룡산이
명산지지로다, 거리노정에서 마마부위를 만났어허,
백년해를 유람하실적에 귀밑머리 마주풀고 청실홍실
늘어놓고 인물병풍 둘러치고 백포장을 둘러치고 암탉수탉
마주놓고, 댓닢 솔닢 꽂어놓구 양인상대가 마주서서 북향재배
올릴적에 꿈을 이뤄서 자손만대 부귀영화 헐적에 우리가 집을

지자면 어늬곳에 지리까. 제관 풍수 명성지를 불러들여서
제관풍수하는말이 제일 밑에다 집을 지며는 아주 딸 애기를 탄생하고
지루다 집을 지며는 아기아들 구형제를 탄생하리로다.
제석님네, 마마부인은 마다 맏딸을 탄생하시면
중의 사위를 보리로다. 제석님네 맏 딸을 낳면 중의 사위를
본다니 딴 터를 봅시다. 이 터에다 집을 지며는 아들애기
구형제를 탄생한다더니 어디 명산이 있으리이까.
집터를 잡을적에, 아랫역꾼 윗역꾼을 불러들여서
높은데를 빌려다 얕은데를 차여놓고 지정도다 어기여차-
일세중방 주초밑에는 봉학한상을 묻혔으니
봉이머리 다칠소냐. 어기여차 지점이오. 이세남방 주초밑에는
청룡황룡 한쌍 묻혔으니 용의머리 다칠소냐, 어기여차 지점이오
삼세서방 주초밑에는 두꺼비 한쌍들었으니 두꺼비머리
다칠소냐 어기여차 지점이야. 사세북방 주초밑에는
쪽제비한쌍 묻혔으니 쪽제비머리 다칠소냐 어기여차 지점이오.
제석님네- 낭구가 있어야 집을 짓지, 앞으로 십리바대
뒤강 이십리 사강 훨씬 건너가 명산대천 들어가서
좋은나무 골라 잡으니 한나무는 만물짐생이 등을 눌러서
그나무도 부정쿠나. 또 한나무는 휘여잡고보니 청룡황룡이
뚝 떨어져 그 나무 부정쿠나, 또 한나무는 휘여잡고보니
임금왕자 그려 있으니 삼천명기가 다 그려있구나
금도끼로 찍어서 은자귀로 다듬어서 위엄삼이 실고
두둥둥 둥둥할적에 명지바람 긴줄로 고대광실 높이
뚜드려 뚝떡 지어놀적에 만년굴피로 지둥에라 무쇠지동에
구리쇠 좀방이-. 네구텅이 풍경달어 지었으니
동남풍만 불게되며는 풍경소리는 윙그렁 뎅그렁, 구리좀벵이
썩을쇠냐, 무쇠지댕이 썩을쇠냐, 삼천 명기가 다 들어닿네.

〈홍주 338〉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회 심 곡** 민재식(1913. 남. 土民)창 素 94-3-12[A]

♩. = 75~86

- 소생이 문안드립니다
여러 할아버지들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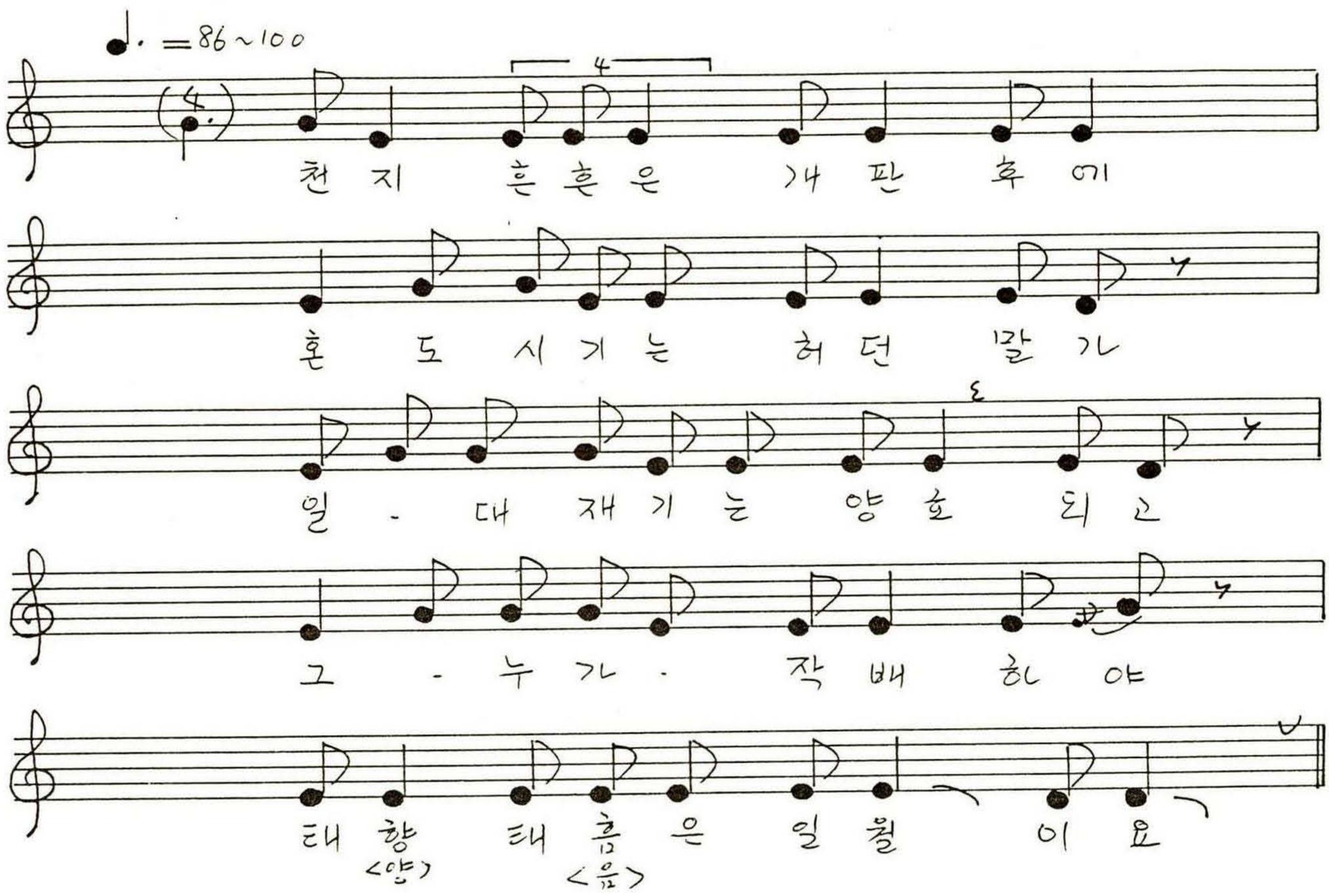
하나님 은덕으로
아버님전 뼈를 타고 ♩♪♪♩
[♩.
[어머님전 살을타고- ♩♪♪♩
인생일신 탄생하니
그 어머니 날 곱게 기릴적에- ♩♪♪♩
[♩.
[진자리는 어머니가 눕고
마른자리 골러내야 ♩♪♪♩
[♩.
[오뉴월이라 단월 밤에-

다 떨어진 살부채 손에 들고
모기빈대 뜯을소냐
곤곤하신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 ♪♩ ♩
동지섣달이라 설한풍이
추워헐새냐 더워헐새냐
덮어 덮어 주어 -허-
음식을 맛을 보아서
단것은 애기를 멕이고
쓴것은 어머니가 잡수시고 ♩♪♪♩
♩
그 애기 허는 말이
두 - 둥둥 둥둥 아가
금을 준들 너를사랴
은을 준들 너를사랴
만첩청산이 보배로다 ♩♪♪♩
♩
어려선 철을 몰러서 ♩♪♪♩
♩
오늘날에 이삼십을 당하니
다복한 고생살이 부모은공 못다 갚아
무정세월 야속해라
일수백발 달려드니~
인생 칠십 고령래라
없던 망령 절로나고
망령더러 이를 소냐 ♩♪♪♩
♩
이팔청춘 소년들아
늙은이 망녕 숭보지마라
눈어둡고 귀먹으니 ♩♪♪♩
♩
구석구석 울던뭐냥
절통하고 애닯다 -
할일없고 할일없다 - ♩♪♪♩
♩
홍안백발 되였스니
다시 젊지는 못하는 인상아 - ♩♪♪♩ ♩♪♪♩

〈홍주 339〉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고 사 축 원

가사:조춘성 口述참조
이연두기록
이기옹(1936. 남. 5대째거주)창
素 94-3-13②A



소음소양은 생수로다
생수 근본을 들어보소
산은 곤륭지 근본이요
수는 동해지 근본이라
근본없이 광대하리
정지 정첩하고
천개자 하날이 생기시고
지덕에 추당을 마련
수인씨는 물을 마련 하시고
화인씨는 불을 마련하시고
신농씨는 농사를 마련하시고

★ 참고用

- 장곡면 옥계리 (고사축원) 1980년 조춘성 口述.이연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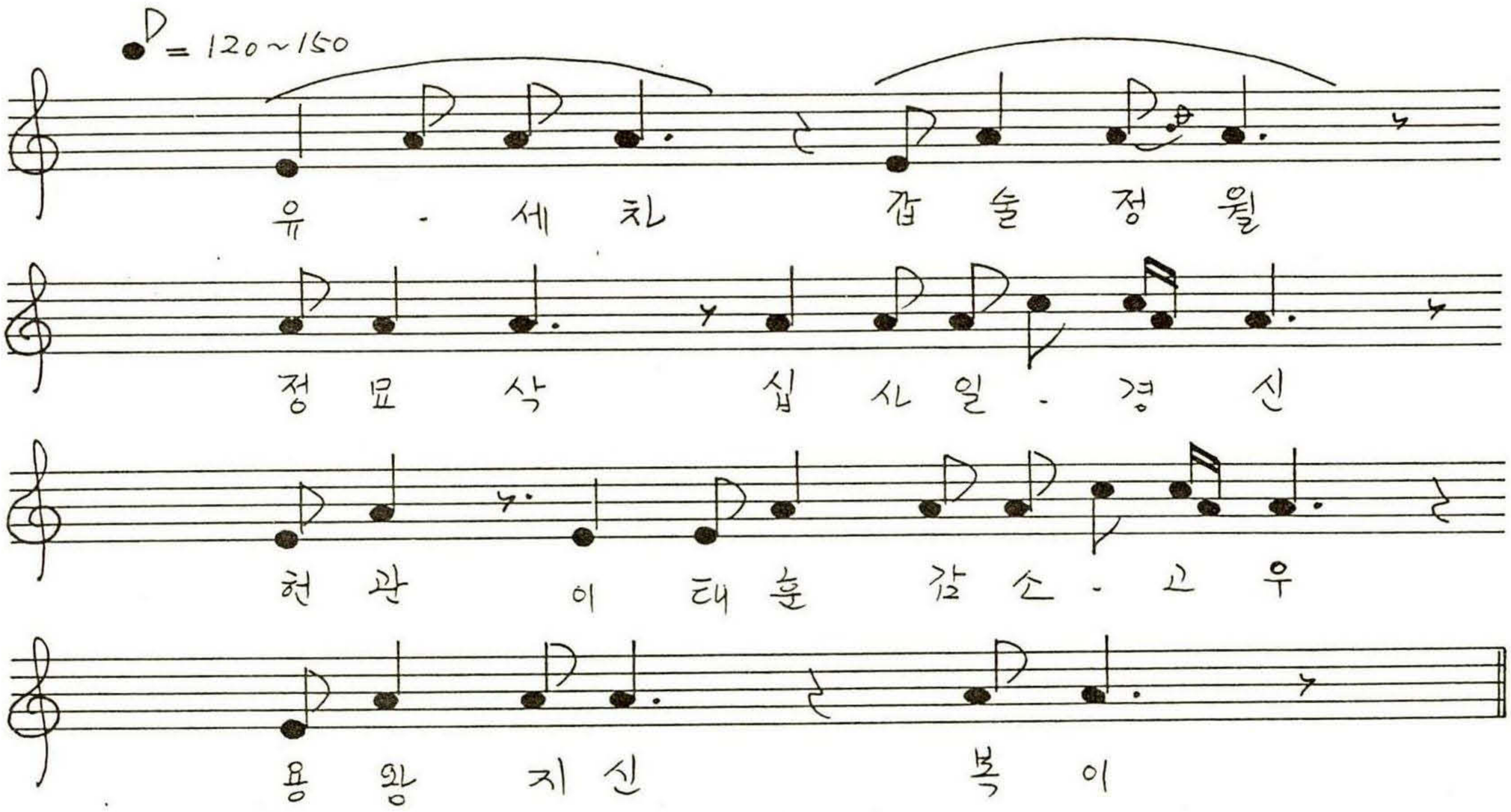
천지현 왕 개판후에 혼도식이하던말과 일大지는 양우데고 건우가 작배하야
태양태음은 日月이요 소음소양은 山水로다 山水근본을 들어보소
山은 곤륜지中이요 水는 동해지근본이라 근본없이 光大하리
증지증첩하고 天개자 한알이 생기시고 지벅에 추당을 마련하시고
수인氏는 물을 마련하시고 火人氏는 불을 마련하시고 신농씨는 농사를 마련하시고
녹희氏는 시옥팔괘을 마련하시고 농사는 天下之大本이라
농사한철을 지어볼가 앞들뒷들 신방들 물이 출렁수답이며 물말르다 건답이며
수답건답 다저처놓고 골수답으로 지을적에 어떠한 부침을 부쳤느냐
광주문안에 사발벼 여주이천에 자채벼 해다덧다 정근벼 보기좋다
청청벼 여기저기심어 찰벼 한침을 심어볼가 걸궉푸두둣장기
찰두령너머 우령찰벙거지곡大기상무찰 여기저기 심어놓고 밭농사을 지여보세
콩 팥 고추 호박 심어놓고 동네방네 선모슴는 지게이다저 듸리고
한님네는 동아리바처어 듸리고 앞두노적 뒤두노적 담불담불 노적봉이요
집한채를 지어볼가 명당에다 터를닦고 지을적에 자좌오양으로 지어놓고
네귀에다 풍경달고 윙그렁뎅그렁하는 소리 만고복녹이 떠도려온다
말을먹이면 용마가되고 소를먹이면 우컥뚤이 자박뚤로 구월이 홰뿔이이며
개를먹이면 청쌉싸리 닭을먹이면 부엉덕새 이런경사가 또있을손가
조선국이 좋단 말을 듣고 서산나귀솔질하여 순금안장을 지어놓고 외씨같은 삼승버선
맵씨있게 신으시고 궁초갑사 소강불려 맵씨있게 잡어매고 귀등에 선듯 올여 한양으로
오루실데 가자가자 어서가자 하루이틀 득달하니 팔도선배 다모였네
글제를 바라보니 바람풍자 봄춘자다 만춘풍이 걸렸는데 글제를 생각하니
음주비주는 천인지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리 가자가자 나려가자
하루이틀 득달하니 이런경사 또있더냐 집안살이나 풀어보세
마루대청 성질살 우마간에는 우마살방안을로 드려와 올려다보니
천궁살 이벽저벽 벽팔살 화대밑에는 넉마살 부역샤 간자 바드니
아궁에는 금덕구신 굴뚝에는 구루대장군 달거리 가세다하니 달거리나 풀어보세
정칠月이팔月 삼구月 사시月 오동지 육 성달 정월테기드는 액는
이월이라 초하루날로 막어내고 이월한테기드는액은 사月 삼진날 터다보아라
제비등으로 막어내고 삼月 한대기 드는 액은 사月이라 초파일날 관등불로 막어내고
사월한테 기드는 액은 오月이라 단오날 건이<그네>줄로 막어내고,
오月 한테 기드는 액은, 유月, 유두날로 막어내고, 유月한테 기 드는 액은
칠월칠석날 까치등으로 막어내고 칠月한테기드는 액은
팔月이라 한가위날 오리송편많이빚어 더다보아라 왕강에다 수면하고

팔月한테 기드는 액은 구月 구일날로 막어내고 시月한테 기 드는 액은
시月이라 상달 무시루떡 많이쪄서 이웃끼리 노나먹고
동짓달한테기 드는 액은 섣달이라 막음달로 막아내고
섣달한테 기 드는 액은 정月이라 大보름날 저녁에 원강에다 수면하니
만사는 대통이요 소원성취가 발원이요 만사대길하고 소원성취 발원이요

〈홍주 340〉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용 왕 제 축 문

이기옹(1936. 남)독축
素 94-3-13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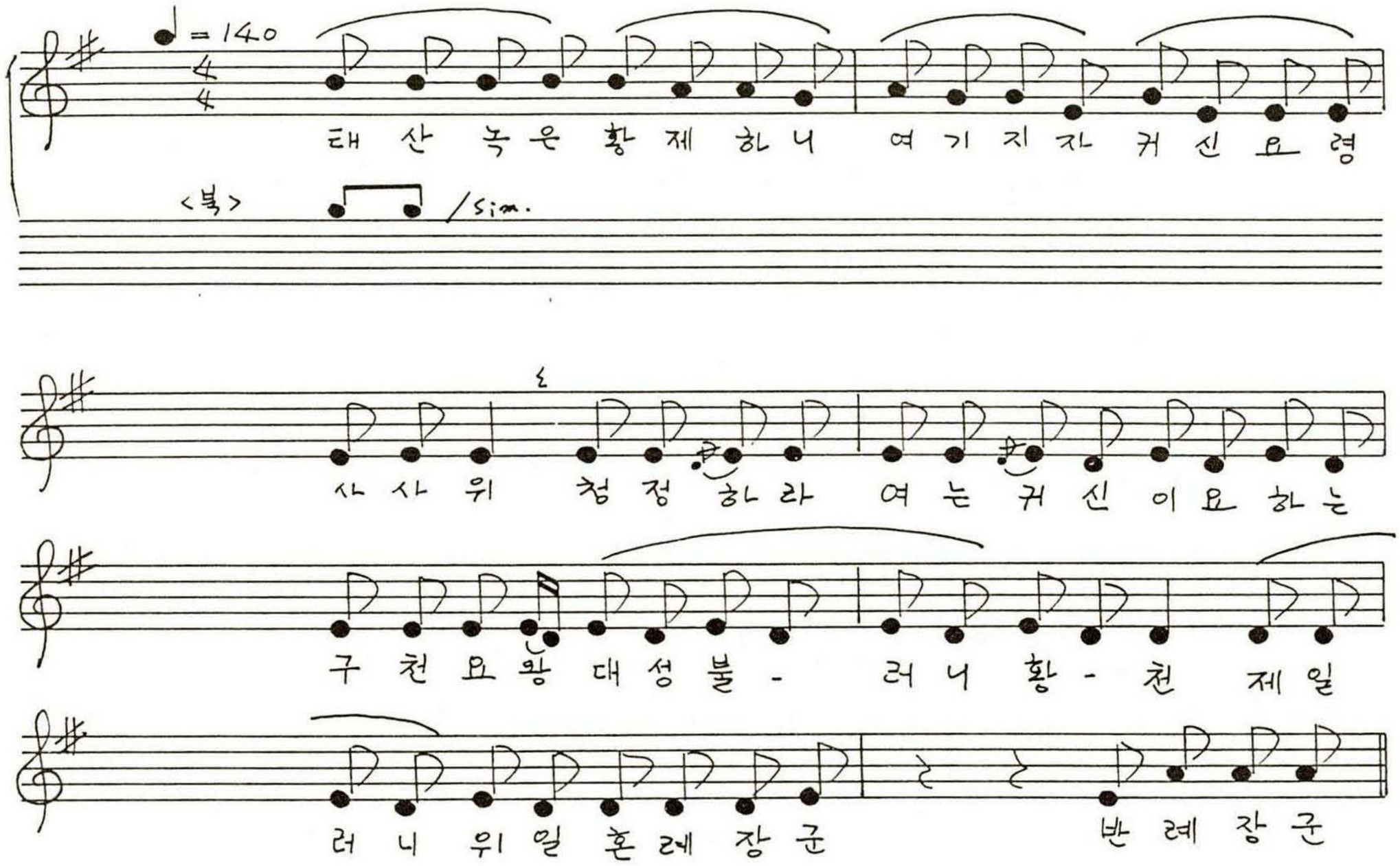
維歲次甲戌正月丁卯朔十四日庚辰
敢官李泰勳敢昭告于
龍王之神伏以天壤之間萬物之中
惟人最貴惟神最靈惟我本洞
玉溪處在洪城郡長谷面玉溪一
陽冥保各姓扶養不成今年元月
旬四日擇其吉辰敢敬微誠謹以菲
薄之奠祝于四海
龍王之神泉列如海伏願時氣厲氣
染疾虎豹盜賊逐出境外官災
口舌一時消滅富貴福祿永世
不絕實賴
神休鎮我殘村安過荐享俾無後艱
用伸虔告謹告

〈홍주 341〉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동 토 경**

이경수(1935. 남. 하만리출생, 20세경에 담산이주)창
素 89-11-29②A

★ 참고用

實音은 4도 더 낮음



도부춘정 삼천명 거나리고 여등극함몰하리라, 여하 여항시 너워친지
야용시 도저천하고 인사자도 제천하니 인제 상사는 천기연월이내
망 기와동토사상 지구라도 여차로 처칭하리라 유면지감 노진척하니
금일금왕 여왕시에 수포천리하리라 천조가 후천지 동장군
망지장군 오방만리나 만경반관에 바로 신령시로 붕와 유모갑을,
유모갑을 유모각영 유소가지 다짐오교 사범응사 함노신고 디깐시중 사지
방능송사경기 여행 하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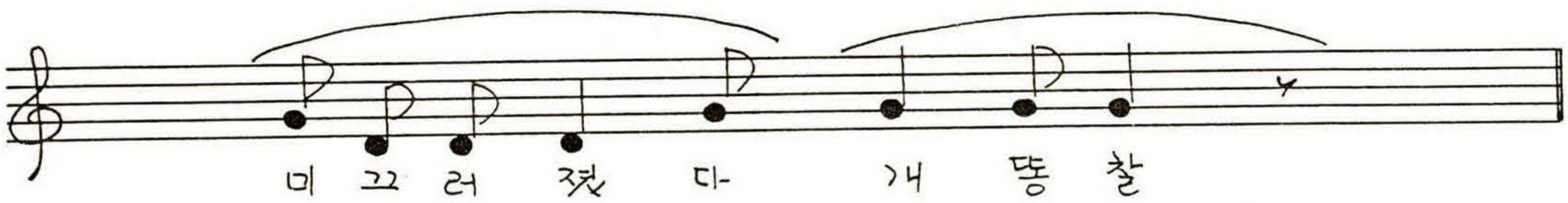
〈홍주342〉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걸 립 소 리

손천순(90-2-3①AB)

♩. = 120

바람 살살 불려나고, 국태민안 세화연풍 년년이 돌어가고,
년년이 돌아올때 삼각산 기봉하야 뭉치뭉치 내린줄기
풍악이 둔재 생겼더냐, 풍악앞에 대궐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육조 앞에 대학사는 각도 계명을 마련할 때
물실었다 수답이냐 물말렀다 건답이냐
건답 수답 다 걸어놓고 무슨벼를 부쳐볼까
꺼구덕 꺼구덕 쟁끼찰, 해넘어간다 누렁찰



논농사는 지었거니와 밭농사를 지어볼까 무슨곡식을 부쳤느냐
올콩졸콩 전대콩, 방정맞다 진저리콩, 만리타국에 강남콩,
우뚝섰다 선달팥, 아랫가지 우윗가지 오폭소폭 열려놓고
황소같은 남의 종놈 지게 밭을 져드리고 황소같은 요해종놈
똥아리 밭을 여들일때, 난데없는 부엉덕새 상상봉에
새끼를 쳐서, 한날개 툭턱쳐니 일이 만석이 쏟아지고
또 한날개 톡탁치니 삼남자 바라본다. 삼남자 도령님
글공부를 외어볼까, 하늘천 따지 천자책을 디려놓고
허허 글을 다 배웠네. 통감천을 디려놓고 어허 그글 다 외웠네.
맹자 공자를 읽어볼까. 어허 그를 다 배웠네.
과거 소식을 들어보고, 서울장안에 올러갈때
한강수를 다다르니 무슨배를 잡어탈까,
흘배를 잡어타니, 허허 그배 못타겄네.
뒤고 풍덩이 허여지고, 남의 비를 잡어타니, 어허 그배 못타겠네
뒤고 풍덩이 깨어지고, 돌배를 잡어타니 어허 그배를 못타겄네
뒤고 풍덩이 갈아앉고, 적도마를 잡아타고 한양성을 썩 건너서
장원에를 다달어서 글한귀를 던졌더니 알장급제-
한림학사로 책봉되어 어사화를 머리꽂고 청패 홍패를 허리다 둘르고
준마 백마에 두렷이 앉어 삼현육각 갖추면서 주춤주춤 내려와보니
이 터 명당이 내 명당일세

〈홍주 343〉 홍성군 서부면 은하면

대 내 림 소 리

손천순(90-2-3ⒹB)

♩= 80~86

일 천 장 사 황 태 조
이 군 불 사 지 황 초
삼 국 삼 인 조 자 룡
삼 일 충 태 초 패 왕
오 관 청 장 관 운 장
육 국 가 라 진 시 황
신 열 지 기 로 한 삼 오
왁 자 천 자 꾹 자 위
천 열 피 도 진 도 감
왈 자 한 대 공 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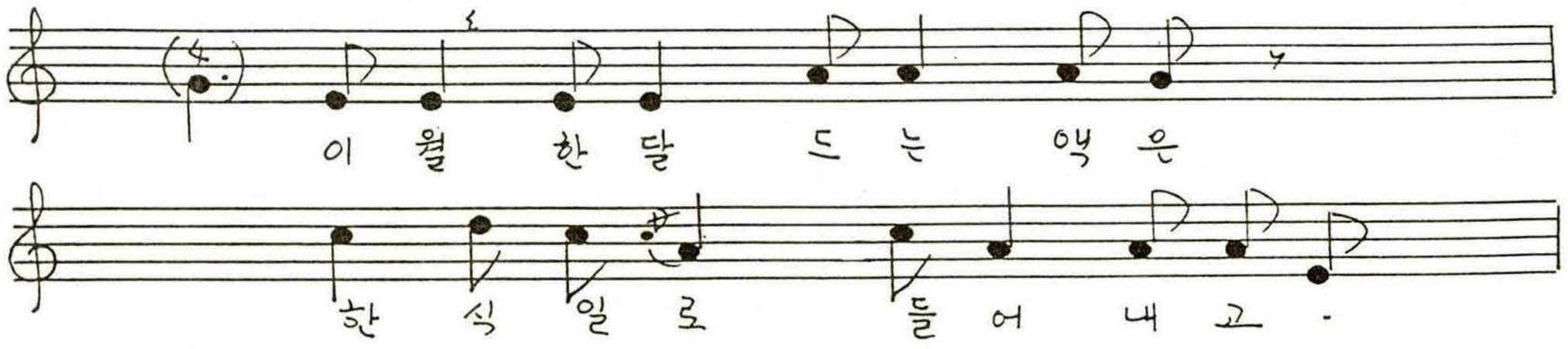
〈홍주344〉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독배

거 리 굿

최정연(89-11-29^{A})

"국산준령 거리노정 태산준령 거리노정 양산준령 거리노정
동방갑을 청제노정 남방병정 적제노정 서방경신 백호노정
북방인계 현무노정 중앙부진능사 황제노정 앉은자리 노정님 전에도
입은덕이 연연에다 태산같이 입었거니와 금년 햇수에도 새로 새덕을
또 입을려 하거리 더터이 중거리 더터이노 상거리 찾어들어
지극정성 발원하실때 왼시루 떡반에두 중시루 공양에다 오곡잡곡
금일 제성에도 백미단상에는 함미 중미 져쪄다가 오백미에다
삼월은 이십일에 스물한번 쓸곳으로 다 제발 심지 불밝히신후
다 동해바대〈다〉 부디부디 돌던 제석, 원산말뚝에도 평창하고
탕수공양, 야채공양, 각의 신물 다 바쳐 놓고 이정성을 봉창하실때에
미물불견이라 미뤄놓기 다따블 금수같은 인간들은
눈이있어 살피지 못하고 귀가있어 듣지 못하야 동녁이나 훤하면
세상인줄 알고 반말은 하직이 큰 매를 지어 셋을 얻어
삼세처를 더먹이 세월을 보낼 때에, 무삼은 이를 안다 하오리까
천번에 불노지심 만번에 불노 지심 인간 잘잘못헌 일이 있더래도 이 정성에
이 발원으로 낱낱이 베풀어시어 부처님은 명산마다 사대금강 팔대보살 모셔다가
인간들의 불노지심 불으시고 신도신령님은 천상에는 사십사만 밝혀내고 지상에는
이십삼만 살피시고, 사해로는 68만으로 길흉과 복을 베풀어 지극정성
마련하실때 신장님은 갑옷을 입어 백자천성 만대영화를
누리신다 하길래, 오늘날에도 거리노정 찾어들었으니 이 정성을
봉창하오시면 금년햇수다. 제사 장사 주당살을 풀으시고
현대사 부지출이 막어내고 생년 생월 생시 드는 액은
굴어내고 앉인자리 이 정성을 봉창 하옵시면 금년 햇수
정월 상달에다 열나흘 달맞이로다
한달 30일을 번개같이 살피시고"

〈실음은 단3도 더 낮음〉 ♩. = 86~96



삼 월 이 라 드 는 액 은 -
삼 진 날 로 풀 어 주 고
사 월 한 달 드 는 액 은 -
석 가 세 존 부 처 님 전
탄 생 일 로 다 - 풀 으 시 고
오 월 한 달 드 는 액 은
단 (오) 날 로 다 · 풀 어 내 고
유 월 액 달 드 는 액 은
유 월 유 둣 날 로 - 다 저 쳐 주 고
칠 월 이 라 드 는 액 은
칠 월 군 의 북 두 이 (칠) 성

칠 석 날 로 풀 으 시 고
팔 월 한 달 드 는 액 운
한 가 위 로 다 - 풀 으 시 고
구 월 상 달 드 는 액 운
구 월 (구 -) 일 로 막 어 내 고
시 월 이 라 드 는 액 운
신 덕 일 로 풀 으 시 고
동 짓 달 에 드 는 액 운
동 짓 날 로 막 어 주 고 -
납 병 월 에 드 는 액 운
납 병 일 로 다 풀 으 시 고

정칠월에 이팔월 삼구월에 사시월 오동지 육섣달 번개같이 들어갈때 남아에는
삼보를 풀어주고 아낙네는 열일을 베풀어 거리노적님이 찾어들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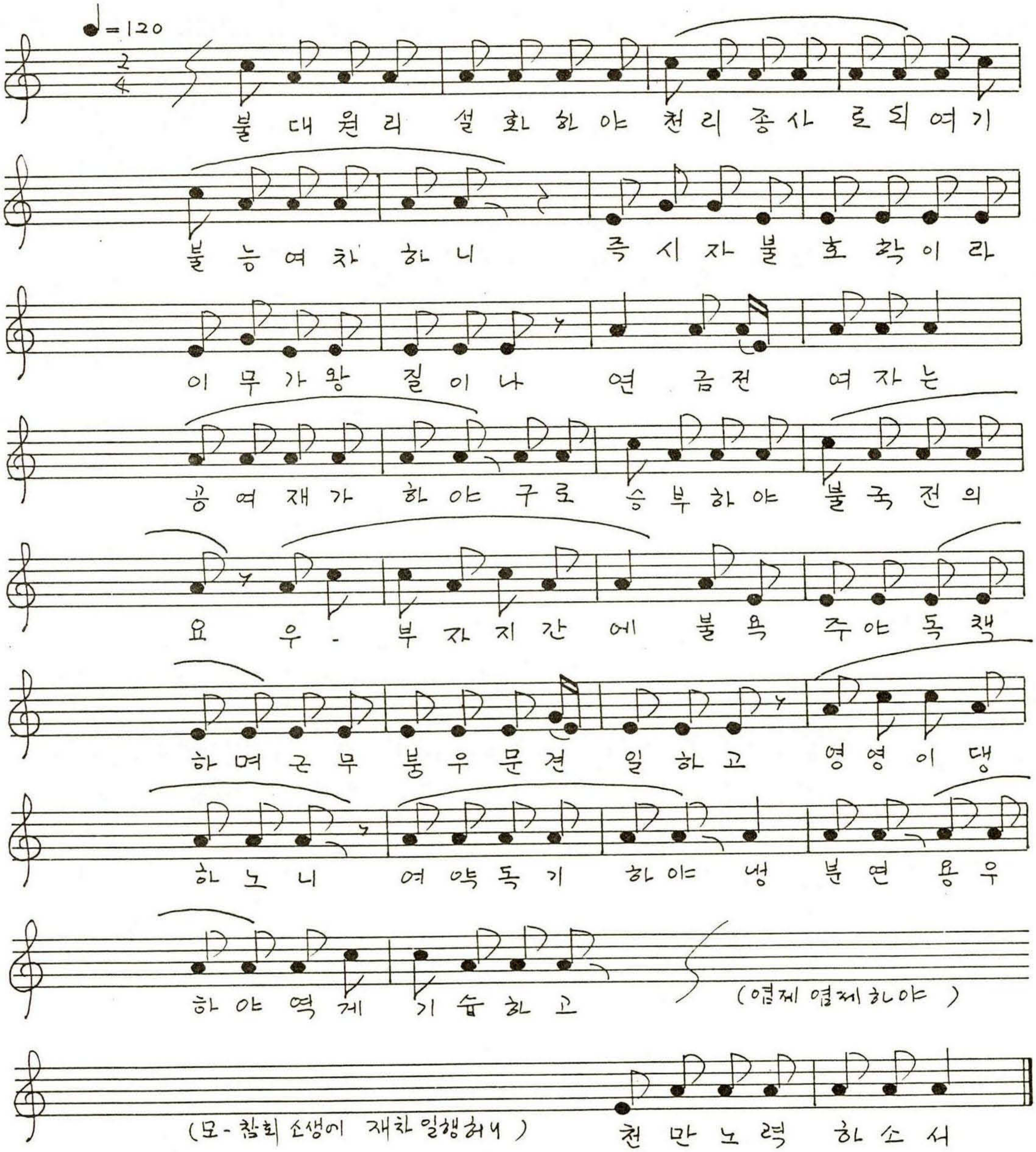
화살바지 총살바지 원자폭탄에 다 수명긴 수배신 청천벽력에간 수배신
대수대명에도간 수배신, 인간살인 살상에도 간 수배신, 앉일내중 미목구이간 수배신,
다 거리낙마간 수배신, 수중고혼간 수배신, 구중고원간 수배신
인간들로다 부부 낙마에도 절망간수배신 수배들은 거리노정에도 다,
인간 앞질바지 뒷질바지 호요가로 둘러서니다 노정길에 산길 철길
아스팔트 육로길 선왕길, 거리노정 불러볼지라도 이 정성에다
낱낱이 받어먹어 꿈자리 대자리 산란하고 사대삭신 육천마디
목발모발 갱겨다가 채귀바퀴 열기간상알이 복중알이, 심중알이
험난한 일진으로 병고액만 들어서다 호지조리 있더래도 거리 노정님들 봉창하신연후,
다 만방지수로 받으시고 금년햇수에도 액운액살있더래도
못막았단 말 말로다 봉사같은 수배신 다 앞질 받이다
탄수에 따러드는 수배신, 한자욱에 절명수배, 두자욱에 군웅수배,
세자욱에 갑을병정수배, 머리우에 전신수부, 이마전에 풍파수부,
눈에 설격수부, 말마다 상내나는 수배야 어깨망진수부, 손질에도
살인수부, 좌욱에도 청룡수부 오는거리 가는거리
수배신이 있더래도 노적님전에 모도 다 봉창하옵시어,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어
금년햇수 불행행로를 되지말라 동방에 불노대작하니, 동방갑을 청제대장
보니 팔문금사지문을 호화으뜸을 훌렀으니 너 갈길이 망연하고
남방에 불노대작하니 남방병정에 주작대장군 팔문금사지문을 호화
호통으로 훌흘렀으니 너 갈길이 망연하고서 향에 불노대자하니 서방경신
백호대장군이 팔문금사지문을 벽력같이 울울렀으니 너갈길이 망연하고
북방에 불노대자하니 북방인계 현무대장군이 팔문금사시문을 벽력같이
울울렀으니 너 갈 길이 망연하고 중앙으로 불로대좌하니 중앙에도 황제대장군
팔문금사지문을 벽력같이 울울렀으니 너 갈길이 망현하고 천상에 불노대좌하니
천하대장군이 팔문-- 지하에 불노대좌하니 지하에도 여장군이 팔문
아서라- 거리 노정님전에 만반제수차려놓고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니
금년햇수에 다 오는 액운 가는 액운 쌓인 근심 노진추제줄어
화재수재 인명에다 삼재 팔난 오재지에 신물 더해 긴간 액운
일체병고 낱낱이 둘러다가 일시소멸하옵시고 지성덕도 도우시고
정성덕도 입히시어 지성이면 감천이라 노적님은 내년 이때
이 정성을 둘러갈지라도 올해 후년에는 이 정성을 받아 천만마가
대길대통시키시고 춘하추동 사시절을 둘러볼때 수배신들은 이 정성을
받아 인가마다 말마다 상내나게 헐것없이 삼거리에서 판심받어다가
일심봉천하신듯이 이자리 꼭 지켜갖고 다 봉청하소사- 노적님전

〈홍주 345〉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無 故 안 택**

최용환(89-11-28⑫B)창

★ 참고用

〈실음은 5도 더 낮음〉



〈홍주 346〉 홍성군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옹암당산제(부정굿)

최정연(1923. 여. 부여군 내산면 土民 40여년전부터 광천읍 거주)唱
素 89-11-28③B

♩. = 100~67

옹암상동에 배동에다 - 당제봉창하실때
전신부정 중천부정 하천부정 동서남북 이십사방
둘러다가 대동중인 일동에서다 동방에는
천제부정 남방병정 주작부정 서방경신 백구이
부정 북방임제 법제복정 중앙황제 부정
동서남북 이십사방 천진난만 할지리도
년월일시 사부정 부르시고 우마절축
살성부정 부러내고 등네방네 상문부정 살을
<생> <불러>
부르 시고 인간마다 마을마다 상세
<한>
나는 부정살을 부르시고 당할아버지의
당할머니 본당에도 도와주오 버라주오 우리

제물 제차 둘러 다가 오늘 · 날에 일심 봉청 하옵 시어
유 세차 - 정월 이라 초엿 새 · 일진 받아
인간 마다 청색 홍색 · 정려 들어 앞 질 떠른 부정
뒷 질 떠른 부정 상 아래 오요 비루 제물 제차
앞 머리 뒷머 리 오요 비루 떠른 부정 자 축
기묘 진사 오미 신유이 술해 방에 깃발 풀 른 듯 이
시흔 엇저 넉에 날 · 날이 거둬 다가 원구 천리
수구 천리 만리 지혜 · 로도 서며 나실 때 정 · 지를
인심 ( ) 나를 수종 삼고 · 올 쳐 라 사시 월 임 아
오 동 지 육나 발 일체 부정 중 로 부정 축살 부정 계견 복정
용 왕 상 · 동네 본당 산신 제물 제차 부정 경을 시 흔 것전
허게 날 - 날이 거둬 다가 길 우에 참봉 길 아래 참봉 물우에
참봉 물 아래 참봉 월에 월광 으로 멍 성열 · 하소 사

※ 〈346〉의 가창자 최정연(1923년에 부여군 내산면 출생. 19세에 서천군 한산면으로 시집감)은 20대(代)에 신기(神氣)가 왔으며 37.8세부터 본격적인 무업(巫業)을 시작했다. 광천읍엔 40여년전에 이주 옹암당산제의 무가는 옹암당산제의 무녀였던 진덕배네 할머니(지금 살았으면 90살 넘었음)께 배웠다.

충청도의 무굿은 앉은 굿 형태의 것이 많은데, 홍성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보다는 여러가지로 축소되었을망정 1990년도에도 어김없이 음력 정월 초엿새날에 제를 올린 광천읍 옹암리의 옹암당산제를 예로 들면 무녀 최정연이 자그마한 태징을 앞에 놓고 앉아 〈홍주 346〉와 같은 가락에다 가사만 바꾸어 가며 계속 읊조리는 유형이었다.

부여의 은산별신제와는 달리(은산별신제에서는 사물(四物:징, 꽹과리, 북, 장구)에다 젓대 피리까지 얹어 반주하고 무녀는 일어서서 노래하고 춤춘다.) 태징만 동동거리는 반주를 하는 것은 옹암이 제비형상 때문이라 다른 건 안치고 쇠만 친단다. 옛날의 단골 할머니들도 그랬다 하고 최정연의 전임자인 진덕배네 할머니도 그랬단다. 그전에 양판이라고 징만한 것을 쳤으나 지금은 대넘시럽고 해서 꽹과리보다 조금 큰 것을 친다고 했다.

옹암리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산제 기록을 보면 굿의 제차(祭次)로 지신(地神)·성주(城主)·제석(祭席)·군응(軍應)·성황(城皇)·도당거리가 차례로 적혀 있다. 지신굿을 처음에 하고 성주굿은 원굿으로 들어가서 한다고 한다.(최정연 대담)

말하듯 읊조리는 무가의 유형은 판소리 중고제(中古制)의 특색으로 일컬어지는 '옛선비가 글을 읽는 듯한 가풍(歌風)'과도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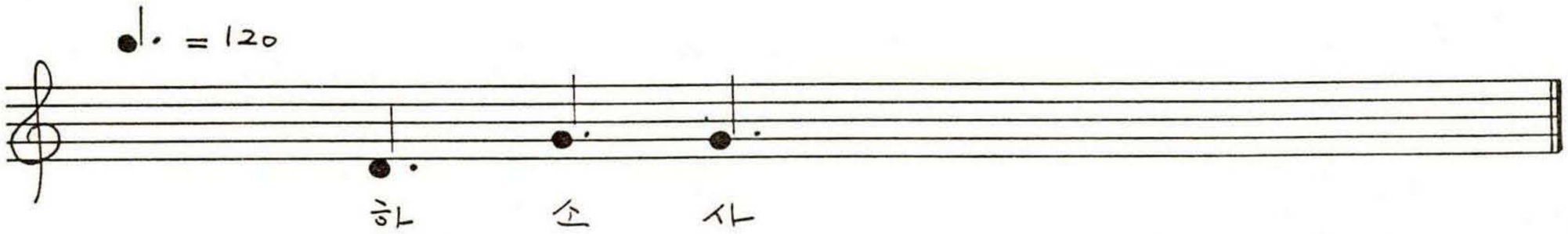
〈홍주 347〉 홍성군 광천읍 독배 **옹 암 당 산 제** 素 89-11-29[A]

- 五方六將 굿 - (선율은 산신굿 참조)

일심봉청, 옹암상동네 동민일돔에다 대장군을 봉창하실때
상탕에 머리목욕 중탕에 몸목욕, 하탕에 수족재계 천주단발
신연 백목하신연후 옹암상동네 하회받아 대장군님 봉창하실때,
동방갑을 청제대장군 남방병정 주작대장군 서방경신 백호대장군
북방임계 현무대장군, 중앙부진 명사 황제대장군, 천상은 천하대장군
지하에는 여장군, 앉인자리 대장군을 봉창하실때
연연에 입은덕은 태산같이 입었거니와 금년대수에도 새로 새덕을
입으려고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니, 왼시루공양 봉창하고 진시루공양 봉창하고
제석공양, 각의 신물 다 봉창하옵시며 탕수야채신물 봉창하신연후

앉인자리 옹암삼동의 동민으로다 당주에도 보와주 금와주 축관 제주에다 합심시키시어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며 인간들에 천번만번에 불노지심 있더래도
이정성 이 발원으로 낱낱이 베풀으시고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천심으로 감응하신연후 이자리는 오방대장군 님은 다 옹암상동네 쳐들고 받들어
금년 햇수에도 도아 줍시랴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니 동서남북24방 진날 갠날 없이
천진난만 할지라도 오방대장군님 전에서 하회받으신 연후 주당살, 군웅살,
낙상에 인다질병, 화재 수재 인명 삼재팔난 오재지액 심물누에
시원 거뜬허게 능수능멸 하옵시고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 육섣달 번개같이 들어갈제 이 정성 봉창하옵시면,
앉인자리 도와〈돌아〉보면 응암 동민에도 청룡 백호 둘렀으니 연연에 부귀를
이룰 것이고, 동자동이 둘렀으니 있는 자손 다 명장수 복장수 점지시키시고
없는 자손들은 보태 양성시켜 생남 발원시키시고, 문필봉이 둘렀으니
옹암상동네 문필관록 날것이라, 충신봉이 둘렀으니 나라님전 충신자가
날것이고 부모앞에 효자자손 점제시키시고 형제간에 의수좋게 화목시키시고
집안간에 후회목적 시켜주고 형제간에 의수좋게 화목할때다 부모님은
열자식을 팔삭이고 형제자매 삼남매 불만액이라, 동민일동에도
일생이생 삼생에 연분을 제수할때 전실에 인연맺고 홍실에 근원매와
전지같이 반〈빛〉난백년, 일월같이 백년해로, 일월같이 반난 백년
천지같이 백년해로, 오동나무 상상지에 봉학같이 백년해로,
강산절벽 노송에도 청학같이 백년해로, 소년시절 반난백년 일편단심
변함없이 한오백년 해로할때, 자손만대 부귀영화로도 고대광실
높은집에, 호의호식으로 잘 살으려고 옹암상동네 본당에다 오방대장군
제를 봉창하옵시니 금년햇수에도 동민일동 가가호에 대주의 권세를
알리시고, 제주의 복도주고, 자손창생에 운마절축 번성일에 아름다운
가절안정이 이 정성을 봉창하신연후 동민일동 천만사가 대길대통
하게 점제하실때, 나무함에 든 일에 스물역관 시키시고,
제함에 든 일에 스물역관하옵시고, 수와철에 든 일에
스물역관 하옵시고, 옹암상동네 들러 금년햇수에 전신수비, 중천수비
하천수비, 동방갑을 청제수배, 남방병정 주작수비, 서방경신 백호수비
북방임계 현무수비 중앙부진병사 황제수비, 좌에는 천귀수비 축방에는
천애수비 인방에는 천분수배 묘방에 천파수배, 진에는 천관수배
사에는 천운수배 오에는 천복수배, 미에는 처녀수배 신에는 천고액운수배,
유방에 천인수배, 술에는 다 천에수배, 해에는 천수수배,
신등아, 옹암상동네 금년햇수 앉어먹고 누워먹어

천상 바래같은 수배신이 있더래도 다 이정성을 봉창하옵시면
오방대장군님 전에서 팔문금사 진언을 벽력같이 우러렀으니,
응암상동네에 불길은 수와 없이다, 추들고 받들어주게
점제 발원하옵시고, 앉인자리 정월 상달 초엿새 지극정성 발원하신후
이월 3월 4월 5월 유월, 7월 8월 9월 시월 동지 섣달
번개 같이 들어갈때와 일친지에 소멸시키시고,
오는내수 가는재복 받어다가 옹암상동네 불러다가
먹고남고 쓰고남게 도우시고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며, 낮에는 일월같이
밝히시고 밤으로는 달월같이 도우시어,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고
오방대장군님 전에다 하회같이 받으시고 태산같이 받으시어,
지극정신 받으실때 맘정성, 몸정성 진더이 받어다가 웃목당상에
좌체로 안위안정



〈홍주 348〉 광천읍 독배 **뱃 고 사** 최정연 89-11-29[B], 89-11-29[②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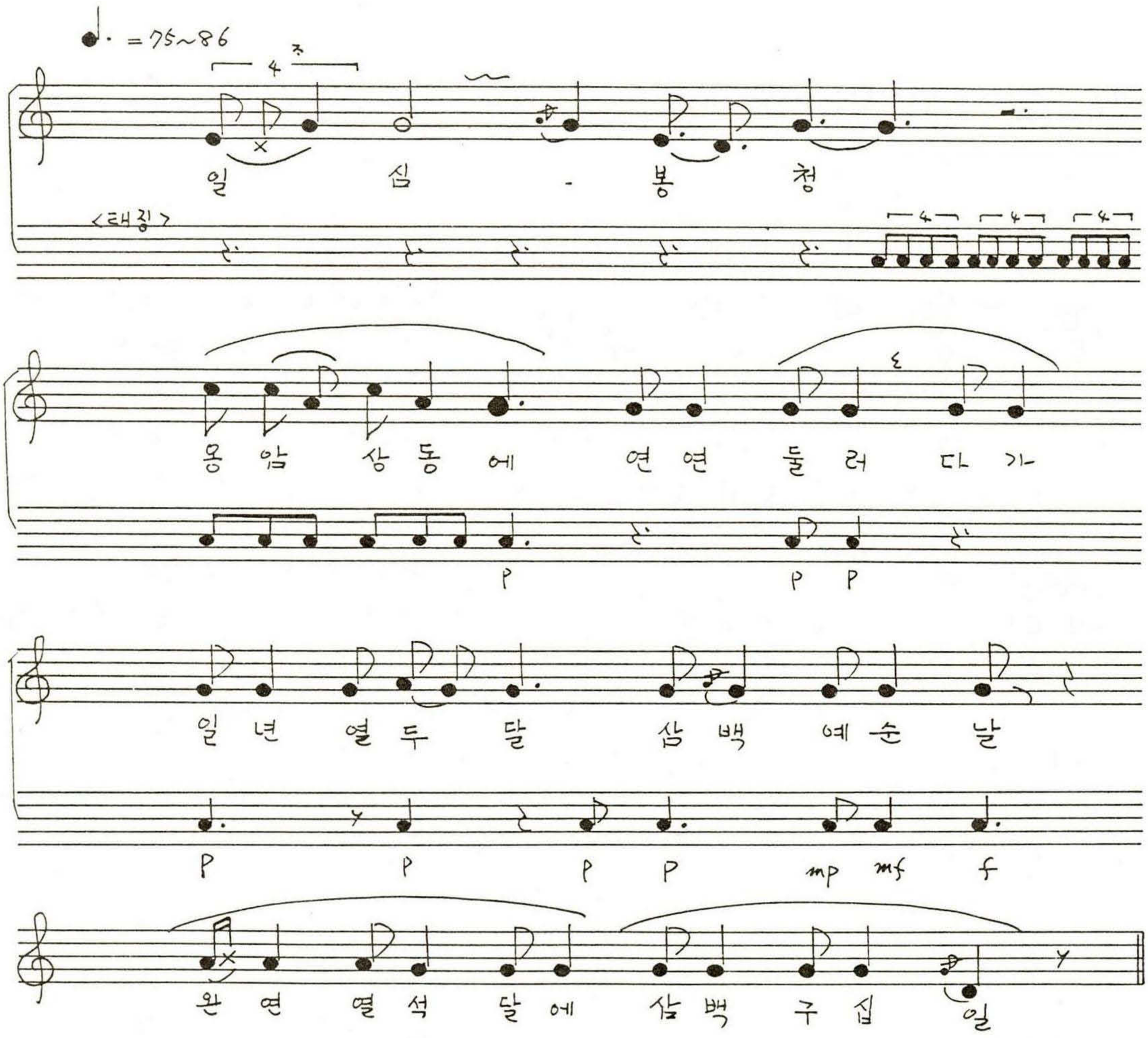
일심봉청, 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조선 동양대한민국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 사차가중 김氏 대한가중 유세차 금년 태세나 기사년에 일년열두달 삼백이라 예순날 한달에도 삼십일 일일주야 스물네시간, 일일은 십이시로 길흉과 복을 베풀어 하궤 중궤 풀어 상궤로 지극정성 발원하옵실때 양주백년 슬하자손에는 한맘 한뜻으로도 상탕에 머리목욕 중탕에 몸목욕 하탕에 수족재계 전주단발 신연 백록하신연후 문전에는 황토발인 문안은 수문대장 방안은 성주상침 봉창하고 금년햇수 수술용왕 홀홀용왕 사해용왕님을 봉창하실때 날마다 지성이 아니시고 달마다 공덕이 아니시니 금일〈제〉차 일시로도 용궁님을 봉창하옵시(고), 천관은 천살풀으시고 지관은 지액을 풀어내고 서관은 서핵을 베풀어 나 앉인자리 수술용왕 홀홀용왕둘러다가 사해바다 용궁님을 봉창하실때 대복천하 용왕대신 제석천왕 용왕대신 청용백호 용왕대신 금궤대덕 용왕대신 현무주작 용왕대신 상방하방 용왕대신 동해용왕 남해용왕 서해용왕 북해용왕 중앙용왕 올려다는 천상지상 사해 바대 용왕님을 봉창하옵시어, 용왕님은 연연에 도곤도곤 태산같이다 도왔거니와 금년햇수에도 새로 새덕을 도울랴고 용왕맞이에는 왼시루공양에 중시루공양 맞이공양 야채공양 제석공양 각의 신물 다 바쳐 놓고,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니 용왕님은 다 김씨댁의 대한 가정 금년햇수에도 다 죽은

나무 가로다 물우에 가로 디고 슬렁 슬렁 슬렁 슬렁 돌려놓는 뱃머리 태풍이라도 젖혀주고 풍파자란 풀어내고 만경창파 구비구비 둘러 인물수배 고물수배 좌우에 수배신은 젖혀놓아 돈실러간다. 돈실러 가요. 만경창파에 구례전답 점제한듯이 한물에는 이물에 싣고 두물에는 고몰에 싣어 삼채 좌향둘러다 장안에도 가득실어 만선을 할때 마른바대 물짠 듯이 뱃머리 깃발둘러 선주님이 깃발주고 선장으로다 기관장 삼오장 화장성원 영자선원 일동에도 선주님이다 운수받고 채수받아 마른바대 물짠듯이 썩썩 이 실어들이시고 다 물묻은 바가지 깨들어이 부뜩 벗어나는 용궁님과 같이 먹고남고 쓰고남아 높이 성공하고 널리 번영하야 올해후년에도 한물두물서물, 한살이 한달 두살이 두세번씩 만선장원을 시켜주시고 용왕님은 다 묵은 책력을 덮어놓고 새 책력을 줄줄이 살피실때 낮에는 일월같이 살피시고 밤으로는 달월같이 더위시어 선주님의 대주는 몸주대감 제주는 다 아 칠성대감 배에는 열두대감님이 둘러다 올려다는 천존대감님이 의사들고 둘러다는 용궁대감님이 먹을전 입을전에 담불담불 받아들여, 내려다 구례 전답을 제수하고 올려다는 선노적을 받어들여 용왕님은 다 구비구비 둘렀던 풍파사란 풍기풍난 젖혀놓고 뱃머리 등에다 혼백붙인 선원들일랑 년수 월수 범수에 쳐들고 받들어 무량대복을 빌어 만수무강 시키시고, 뱃머리 고사축원 용궁님이 고사축원 발원하실때 앉어먹은 누워먹어 봉사같은 수배신은 대명천지 밝은날에 일월같이 살피시고 겜신녁에 사차가정 이정성을 봉창하옵시어 남생기 여복덕에 자손장성이 우마절죽 번성이 아름다운 가절은 안정이, 선망후망 본당추와우이 조상님은 안영일 금목수화토에 황토일성 닿는날에 뱃머리 출항일은 자에는 천구일 인에는 천근일 오에는 천복일에 만사가 대길대통할것이며 앉인자리 제자몸은 신두신령님의 하회를 받어 천상에는 사십사만 살펴주고 천하로는 이십사만 살펴놓고 사해로는 육십팔만을 살피시어 금년햇수 김씨녁에 사차가정 쌓인 근심 노진 후지출이 화재수재 인명에다 삼재팔난 오재지에 병고액난에 오는액운 가는액운 일체수확을 내려긋고 훌훌이 걷어 좌우로 시원 거뜬허게 둘러줄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에술해 방에 깃발 두른듯이 천수경을 줄줄이 외워다 길우에 참봉 길아래 참봉 물우에 참봉 물아래 참봉 월에 월광으로 능수능멸하소사. 공덕을 디리신연후 사찬가중 선주님이 일동에 하회받고 선원의 일동에 합심지어 시원지고 인연지어다 짧은 명은 빌어서 서렴서렴 이어놓고 다긴명을 빌어줄때에 삼천갑자 술을 빌고 강태공의 명을 빌어 산발치 복발치에 일백은 육십세를 빌어 점제시키시고 복일랑 만고일봉에도 슬슬이 복을 빌어 점제하옵시어 날이면 날마다 공을 디려 진지나무 객킬시며 달이면 달마다 공을 디려 공든탑이 무너질손가. 말일랑 제길공량〈제갈공명〉 세변쟁이 말을 빌어 점제하옵시고..글일랑은 공자맹자님의 풍월을 빌어 점제시키시고 필적일랑 이태백이 필적을 빌어 점제하옵시어 보끌보끌심중선 성체하실때 일끝마다 도와주고 말끝마다 성사하고 병고자는 쾌차시키시어 어장사업 배사업에 장원하실때 높이 성공하고 널리 번영하야 김씨녁에 사차가중 소원성취 발원하소사//

〈홍주 349〉 홍성군 광천읍 독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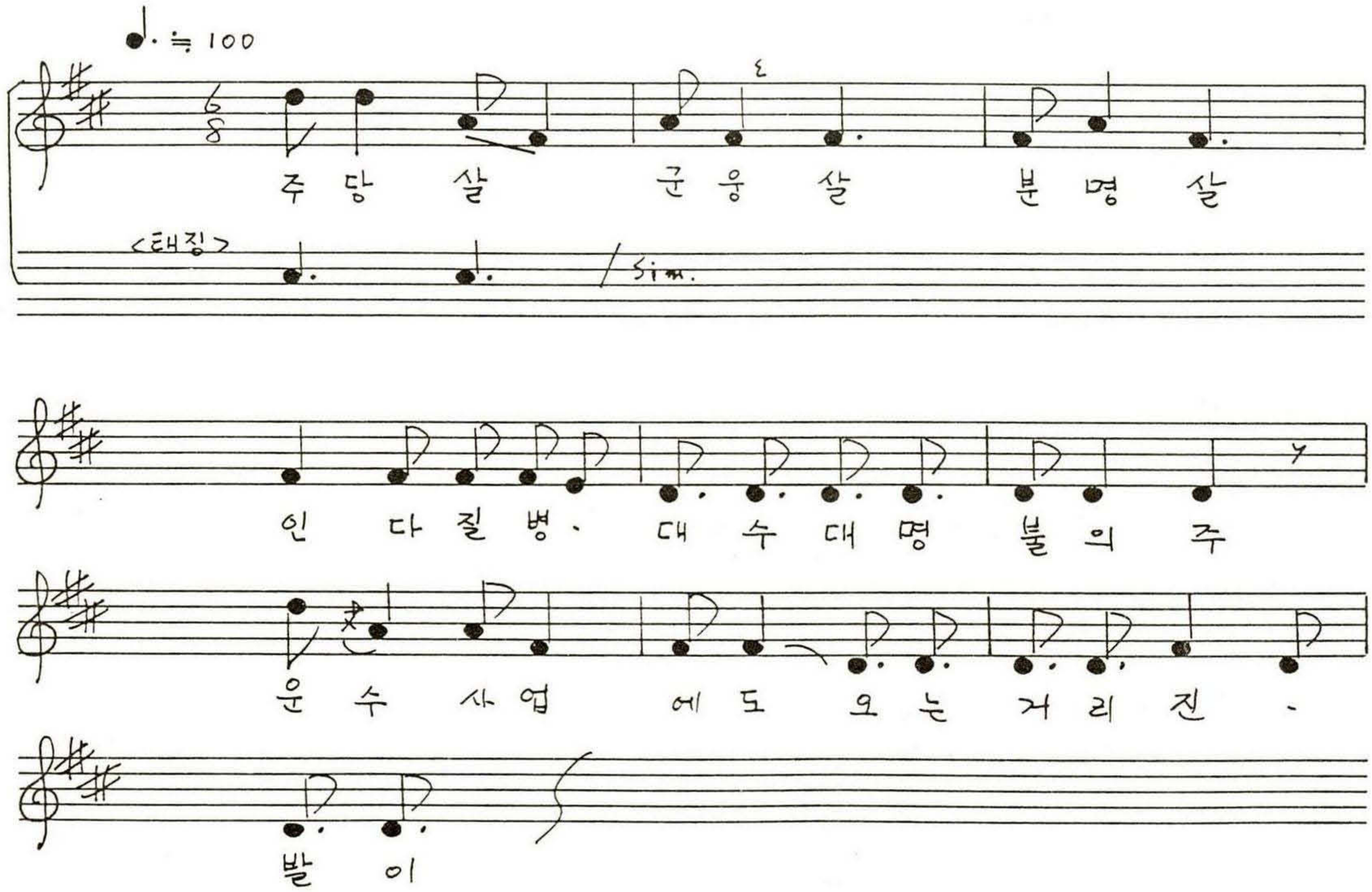
산 신 굿

최정연
素 89-11-28③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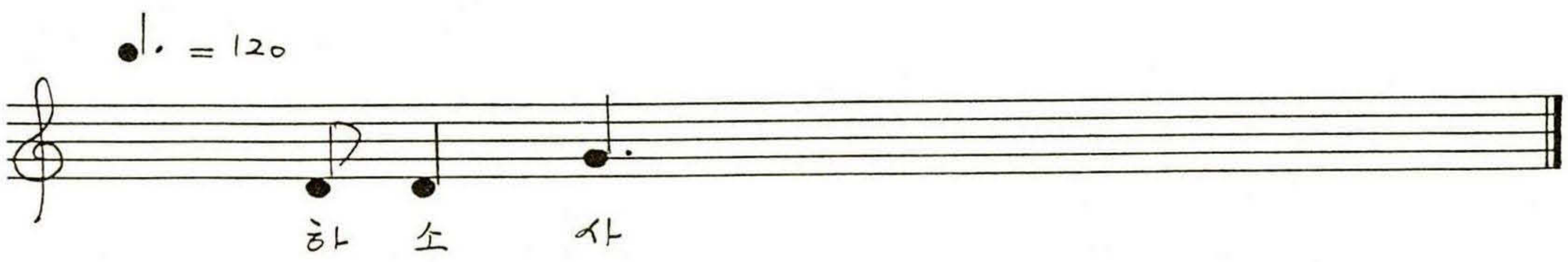
한달은 삼십일 일일주야 성월 대신아, 일일은 십이시로기로 하하복을 베풀어
주야로 일진받아, 앉은자리 하루이틀 사흘나흘 닷새엿새 오늘날은 연연이 둘러다
옹암상동에 산신전에 지극정성 봉창하옵시니, 옹암삼동네 대동리일동에는
상탕엔 머리목욕 중탕에 몸목욕, 하탕에 수족자기 진부남발 신연 백록하신연후
앉인자리 진우개착 봉창하실적에 일심봉청하신연후 옹암상동 산신전에
오늘날에 지극정성 봉창하실때 전관은 전살부르시고 제관은 제액을 풀어내고
소관은 소액을 베풀으시고 오늘날에는 다 다와도에다 당주 금와동 동민일동이다
합심받어다가 북한준령 산왕대신 태산준령 산왕대신 태산서산 산왕대신
대각소각 산왕대신 청룡백호 산왕대신 등개대덕 산왕대신, 언문이 저자 산동대신

상방하방 산왕대신, 동서남북 이십 사방 산왕대신, 앉을자리 둘러보와
사방에 상왕대신 오소산 산왕대신 본당 산왕대신 동서남북, 이십사방 삼왕대신 전에
학침받아 좌축인방 산왕대신 여진사방에 산왕대신 우리신방 산왕대신 요수래방에
산왕대신 옹암상동에 동민일동에 학침받아 개문 개착 동참하실적에
산신전에 제석공양에 왼시루공양에다 가기신물 다 바치신 연후
야채각구 하침시켜 일배주에 동참하고
동방갑을 청룡주를 봉창하고 남방경정 주작주를 봉창하고
북방임계(북풍)주를 봉창하고 중앙부진병사 황용주를 봉창하고 올려다는 은하수를
내려 비러놓고 오방에 구복수를 봉창하고
사해로는 오룡수를 빌어다가 옹암상동에 안가태평을 이루려고
산신전에 지주정성 봉창하옵시니 나 앉인자리 이 정성을 빌으시면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계사에 병오신미 임신계유
갑서을해 병자정축 무인계묘 경진신사 임오계미
갑신을유 병술정해 무자을축 경인신묘 임진계사
갑오을미 병신정유 무술기해 경자신축 임인계묘
갑진을사 경오정미 무신계유 경술신해 임자계축
갑인을묘 병진병사 무오을미 경신신유 임술계해
六十六甲을 계룡과 복을 베풀어다 확 베풀어 놓고 중궤 풀어놓고
상궤를 베풀어 옹암상동에 동민일동 가가호호로다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면
산신전에 지극정성 발원시키시면 다 지성덕을 더우이시고
정성덕을 입히시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옹암상동에 동민일동에는다
가가호에 대주에는 권세이래 지주에 복덕이 자손에는 창성이래
봉화 절축 본성이 아름다운 가절에는 안정이,
금목수화토에 황토길성 닿는 날에 계룡복을 빌으시고
삼신은 생성이래 자손에도 보태양성 빌어다가 옹암상동에다 아하
자손만복을 내리시고 이정성을 산진전에 지극정성 발원하실적에
오늘날은 정월 상달에 초엿새 일진받아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면
동민일동에다 농사철은 농수농역을 시켜 영영 대풍년을 이루시게 하옵시고
공업에도 택일대통하야 문필관록 날것이라, 상업에도 택일대통하야
억수만금을 풀어주실때에 있는 재물은 담불담불 쓸어주고, 없는 재물
벌어들이시고 나간 재물 받어들이시고 옹암에도 운수사업허는 가정에는다 산길 철
길 사시발도 육로길에 동서남북 이십사방 천진난만 할지라



가는거리 발발이 새로비, 이정성을 봉창하옵시면 옹암에도 다 가가호호
일동에다 엄숙한 산신전에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면 다 어린자손들이
성공발원시키시고 없는 자손 생남발원시키시고 이정성을 봉창하옵시면
산신전에게 천만사가 대길대통시키시며, 앉인자리 옹암에도
쌓인근심 노진후지주지 병고액난 있더라도 시원거뜬허게 낱낱이 거둬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방에 깃발두른듯이 낱낱이 둘러다
이 길우에 참봉 길 아래참봉 물위에 참봉 물아래참봉, 월에월광을
능수능멸시키시고 다몬 부지 중에 산신전에서 시원 거뜬하게 거둬 만수산에 구름걷
듯 끓는가마 정한수에 재긴듯이 수하간에 찌른듯이 가신몸매 가신앤듯 불던바람
재워주고 억수장마 갠듯이, 일시 쾌차를 시키시고 금년햇수에도 정7월 이팔월 삼구
월 오동지 여섯달에도 번개같이 들어갈제는 다 봄 석달에 드는 액을 화산봉집으로
다 풀어주고 여름석달 드는 액으는 눅운 맘 들어들어주고 가을석달 드는액은 황국
단풍으로다 자처주고 겨울석달 드는 액운은 택설광산으로 풀으시고 일심개 이구종
천 삼마절제 사중구 우상에 육중은 목은 칠와 절명 팔전분 오늘의 택일하야, 앉인자
리 오늘 정월이라 초엿새 탕탕에 산신전에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면 지성덕을 입혀주
고 정성덕을 도우시어 지성이면 감천이라 -
옹암상동에다 당할아버지로 합심받어 산신전에 엄숙하게 공덕을 봉창하옵시면 오늘

에 일진에도 초엿새 지극정성 발원하실제 석달열흘에도 택일정성에도 받으시고 소식후일 지성으로 받으시고 삼칠은 이십일에 공덕일로 받으시고 한이레 수명일로 받으시고
금일주야 일시루 디린 지성 천만사가 대길대통허게 점재로 하옵시면 산신전에다 나무아미 든 이래 숭물역관치 함에든 이래 수물역관하옵시고 수와절에 드니,
세세명찰조화수 노라실 때 비모 불견이라
미련허고 얕아바 금수같은 인간들은 눈이 있어 살피지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야 응력이나 범이면 다 세상인줄알고
빈막은 다 시기 히 금매올리 시술얻어 삼신절을 범하고 세월을 보낼때에 무삼은이를 안다 하오니 천번에 불노지심 만번에 불노지심 있더래도 이정성으로 낱낱이 다 베풀으시고 다 옹암상동에 산신에서 다 택한 일에 합심하고 낮에는 의사돌고 밤에는 순양돌고 동서남북 24방에 동민일동이 천진난만 하더래도 국난은 부디 줄이옵시다. 도와주고 섬겨줍시라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니 앉은자리 지극정성 받으시고 동민일동으로다, 짧은 명은 밀어다 서렴서렴히 호평관으로 쓸어놓고 긴명은 밀어다 삼천갑자 수를 빌고 강태공의 명을 빌어 섬발치 복발치 일백은 육십칠월 빌어 점제하옵시고 복일랑은 만고일고에 석순이 복을 빌어 점제시키시고 날이면 날마다 하 공을 들여 심긴나무 개킬소나 날이면 날마다 공을 들여 공든 탑이 무너질손가
말일랑 제갈공량 세든쟁이 말을 빌어 점제하옵시고, 글일랑은 공자맹자님의 풍월을 빌어 점제시키시고 신첩일 이태백이 필적을 빌어 점제하옵시고
꺼꿀로 굴 심중서 범 성체를 하실적에 일끝마다 성사하고 말끝마다 벼슬관록시키시고 병 본자는 쾌차하고 옥중자는 구출하고 태중자는 늑차시키시고 옹암상동의 동민일동이 합심말 산신전에 엄숙하게 지극정성 발원하옵시니 다 이 정성을 봉창하옵시고, 일광불 월광불 광명불 도덕불 성광불 무량불 석가세존불 보불 베풀어다 본당에도다 산신전에도
지극정성을 들인연후 금년대수에 쌓인근심 의진 구지출이다
일체액운은 오는 액운 가는 액운 일 새로 능수능멸을 시키시고
다 엄숙한 선왕대신 산신님은 다 본당자체로도 안위안중을



〈홍주 350〉 결성면 성호리

上下五方堂축문(1990년)

상당 축문 : 維

歲次 己巳年壬戌朔三十日辛卯幼學 ○ ○ ○ 敢昭告于
神堂之神 神之感應 百祿維降久玆
星湖實賴 神功一里 四業无咎

永眞敢用 素飡祇伸 微誠神基恕之庶幾顧
饗

하당 축문 : 維

歲次 己巳年2月壬戌朔三十日辛卯學 ○ ○ ○ 敢昭告于
神堂之神 民等久蒙 神休 營業順成 每歲上元
鼓吹詠誦世道變易生利踈薄今以財力 不及

未伸誠意依舊敢具薄需祇薦尊儀有久慰悅之道
不勝憂懼之忱神鑑民情百恕 尙
饗

維
歲次 庚午年正月壬辰朔初一日壬辰幼學 ○ ○ ○ 敢昭告于
五方神將之位 今玆星湖久蒙休佑
每逢歲首卜日良復祈來者之無咎
敢薦菲薄之牲醪神鑑不遠民望以徒 尙
饗

〈홍주 351〉 홍성군

우 물 굿

① 김형안(결성면 성호리)
②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③ 이상순(서부면 어사리)

① 뜷어라 뜷어라
물구멍을 뜷어라
② 뜷어라 뜷어라
물구녕만 뜷어라
③ ○ 숨어라 숨어라
물만 숨어라
○ 먹어라 먹어라
물만 먹어라
○ 뜷어라 뜷어라
물만 뜷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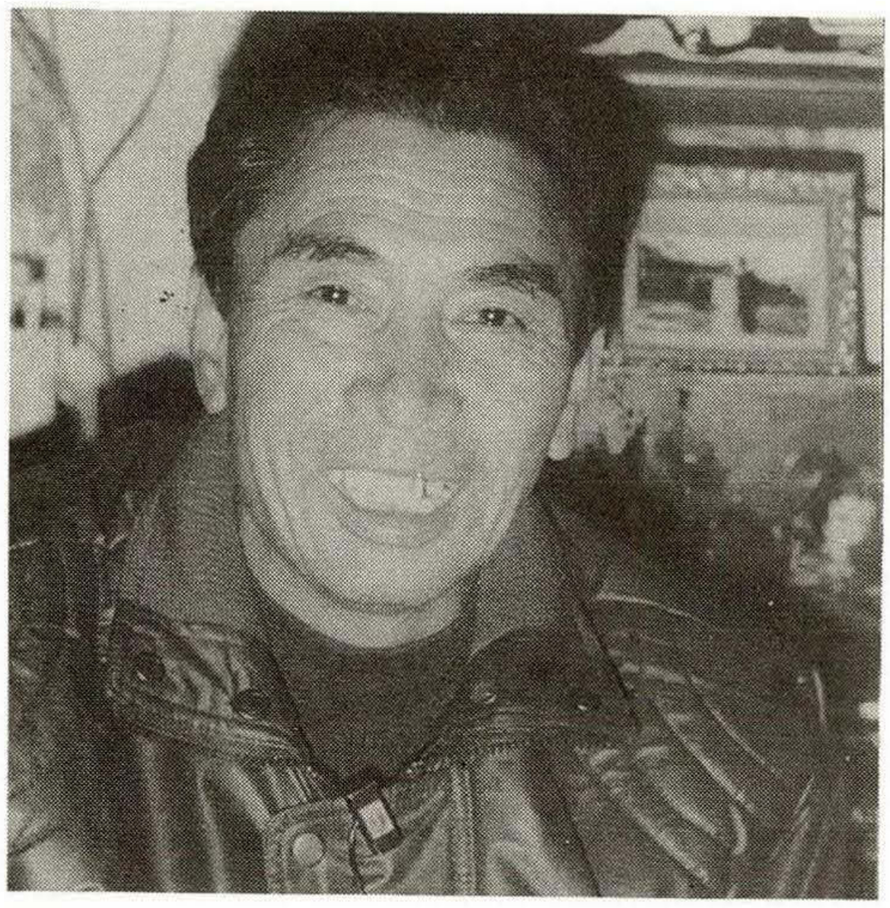
〈사진 103〉



〈사진 104〉



〈사진 105〉
〈사진 103~105〉
광천읍 옹암리 독배 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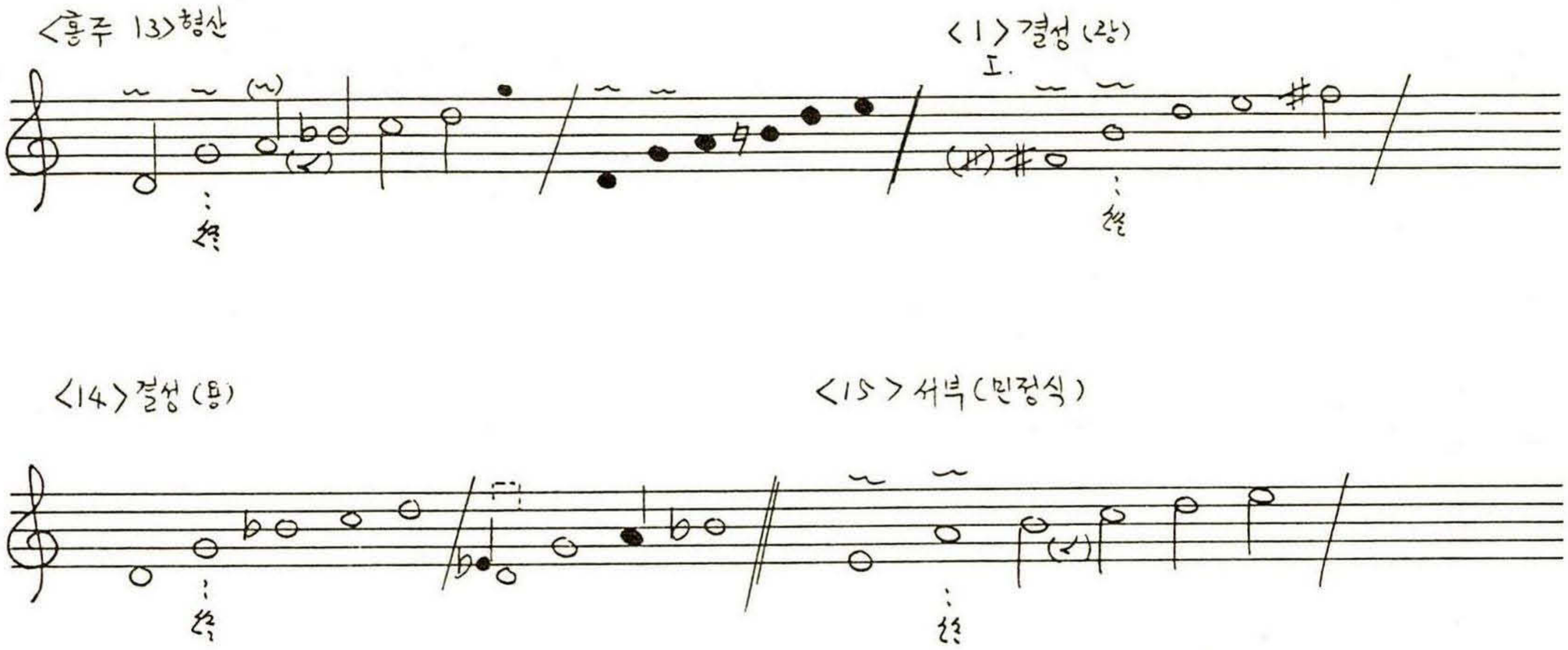


〈사진 106〉 광천읍 삼산리 자택에서
이경수(1935.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출생. 20세경에 담산리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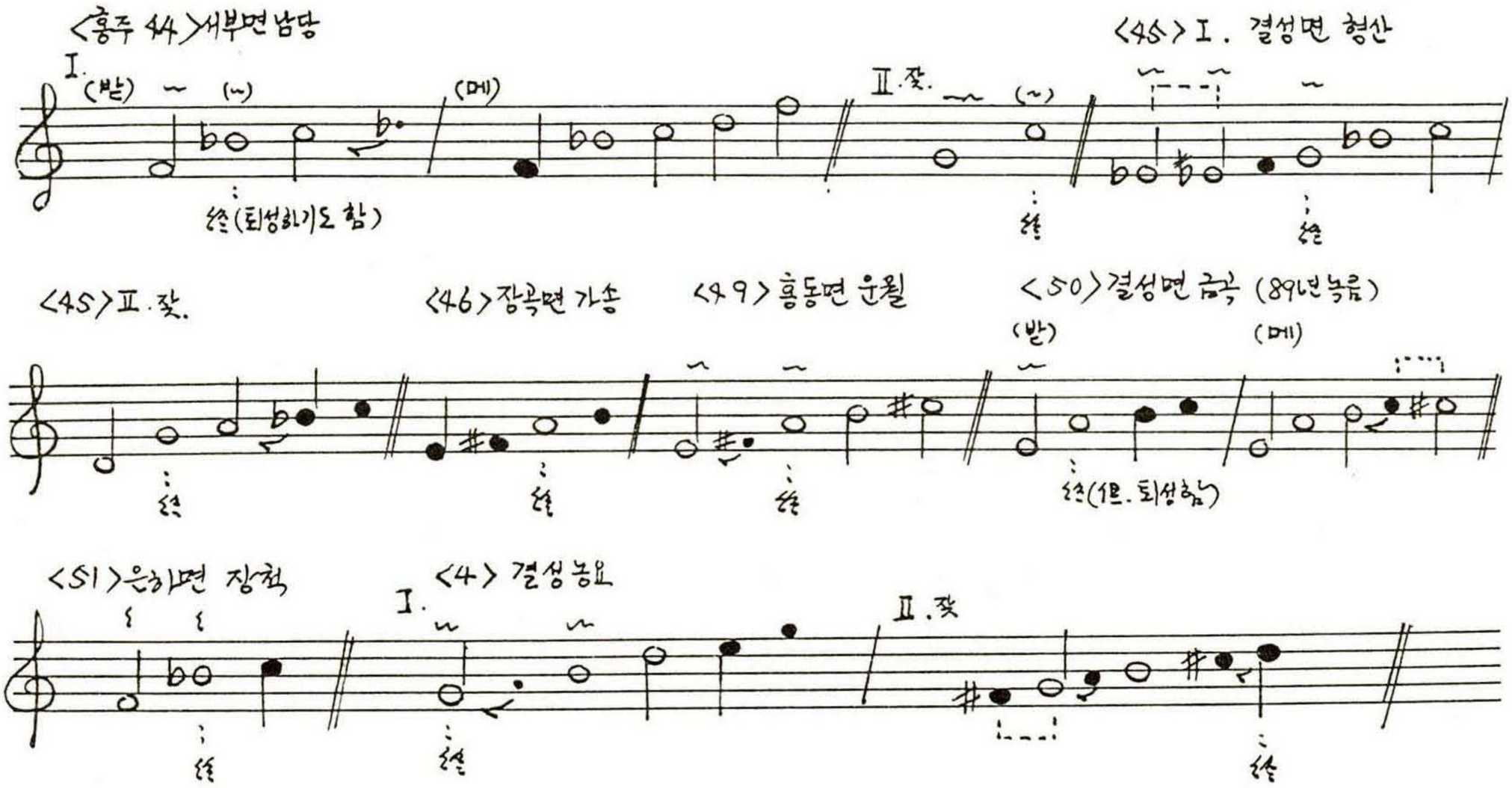


〈사진 107〉 장곡면 옥계리 용왕제 우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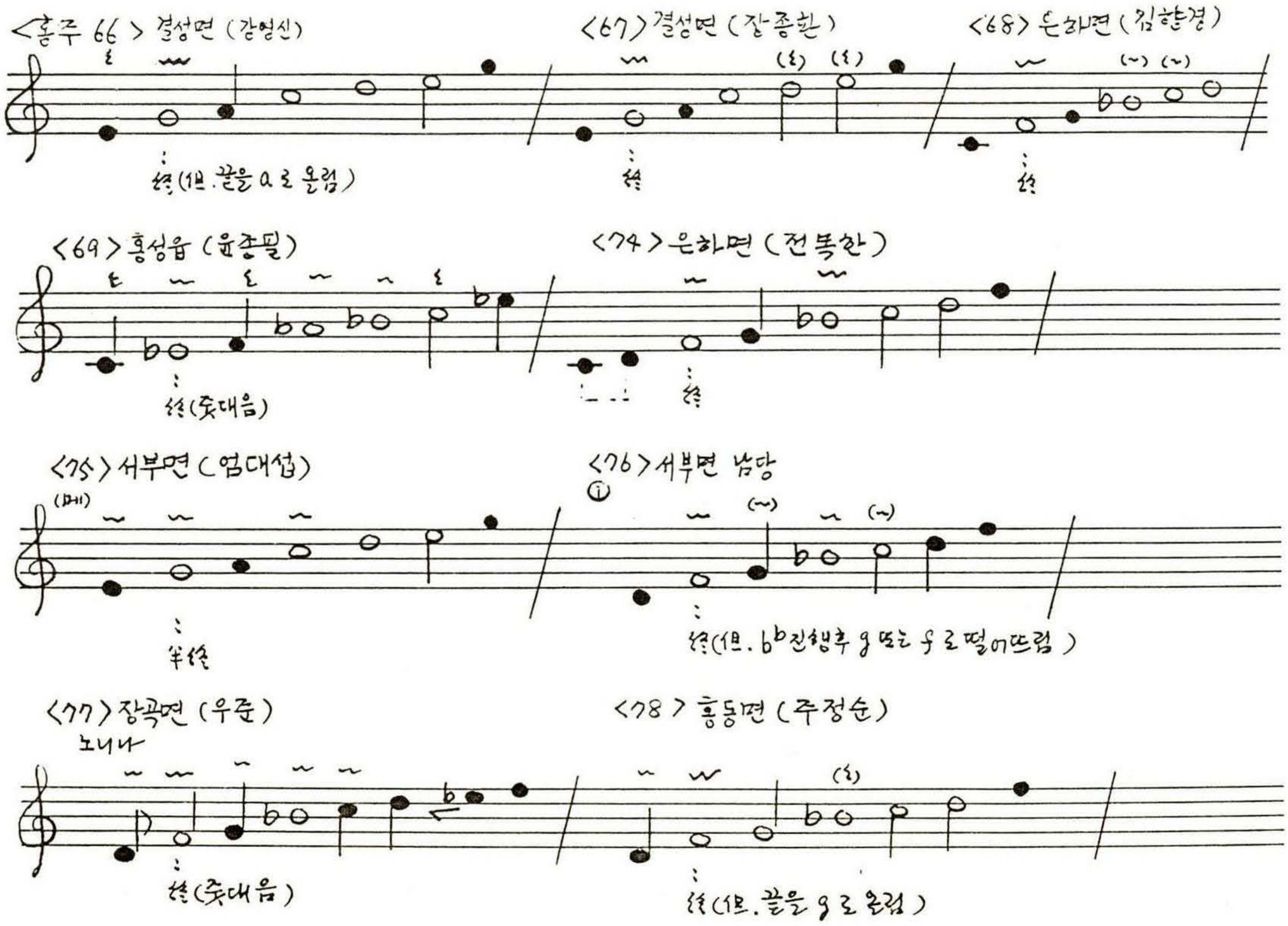
〈표 3〉 홍성군 모심는 소리의 구성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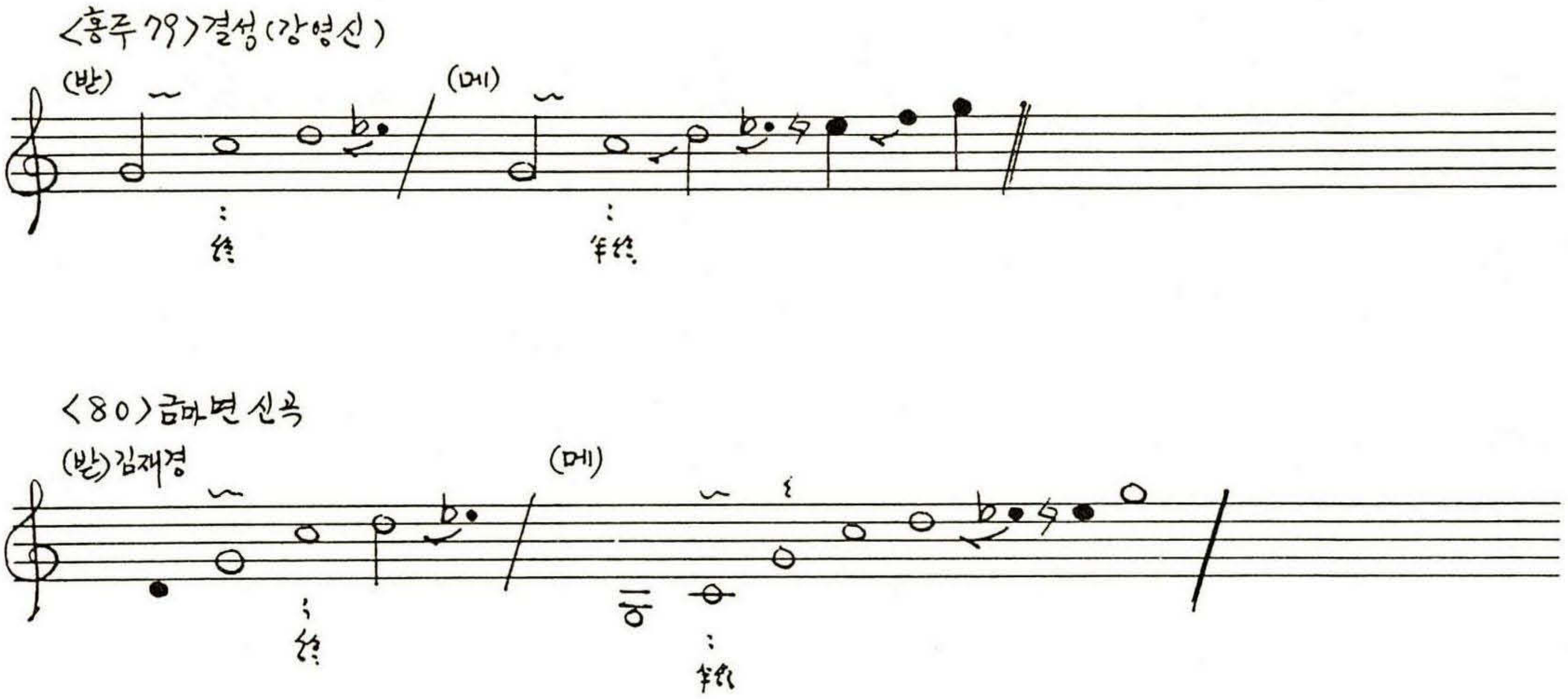
〈표 6〉 얼카덩어리의 구성음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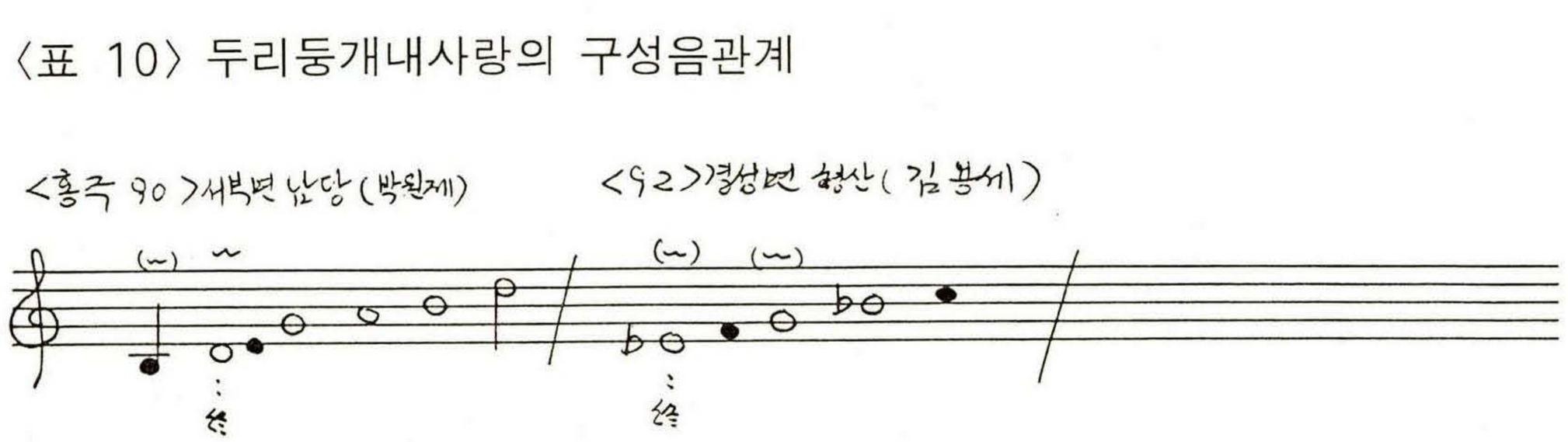
〈표 8〉 홍성군 산타령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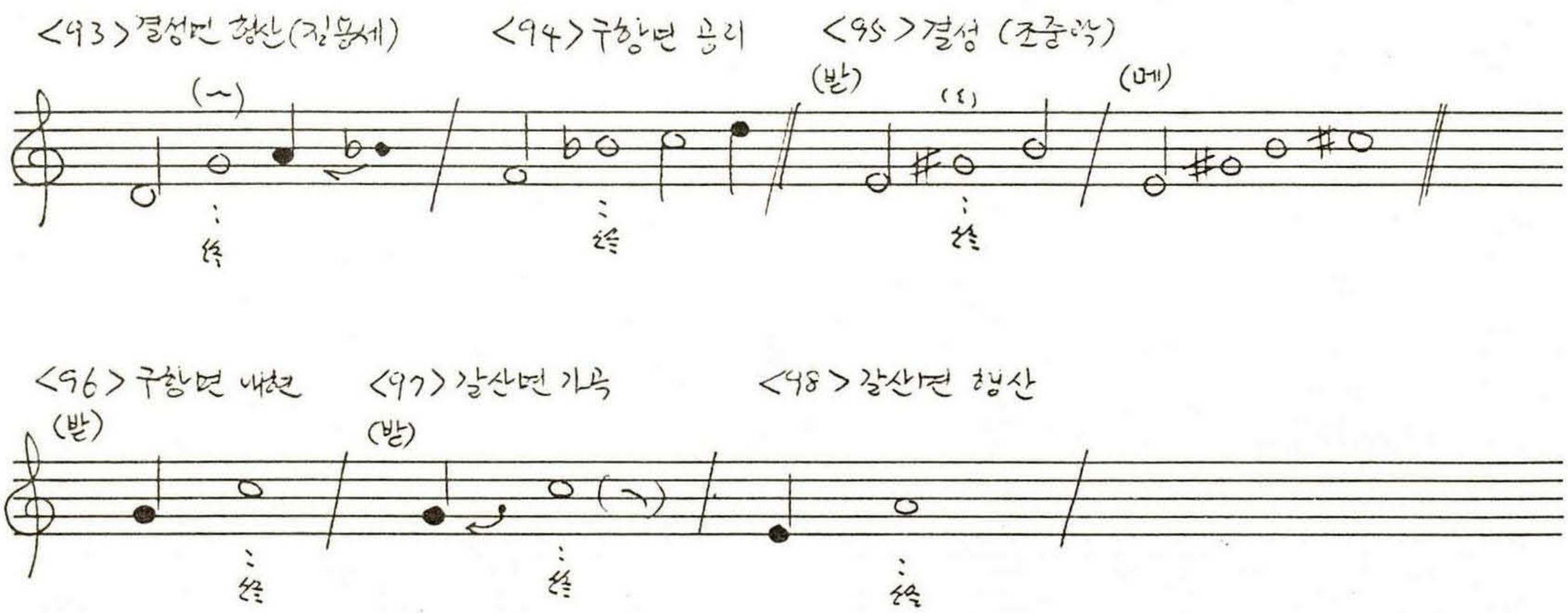
〈표 9〉 산아지曲(잦은 산타령)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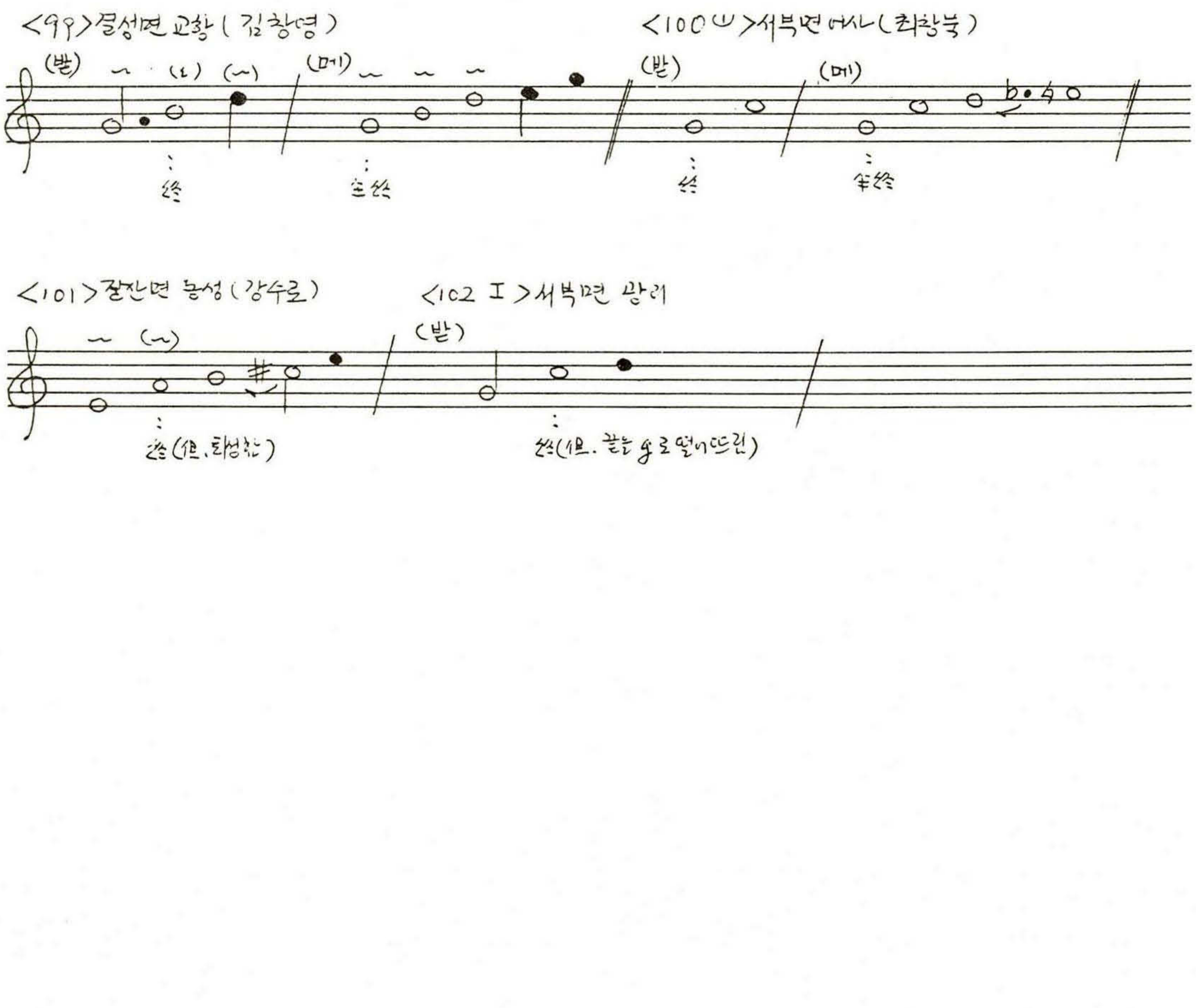
〈표 10〉 두리둥개내사랑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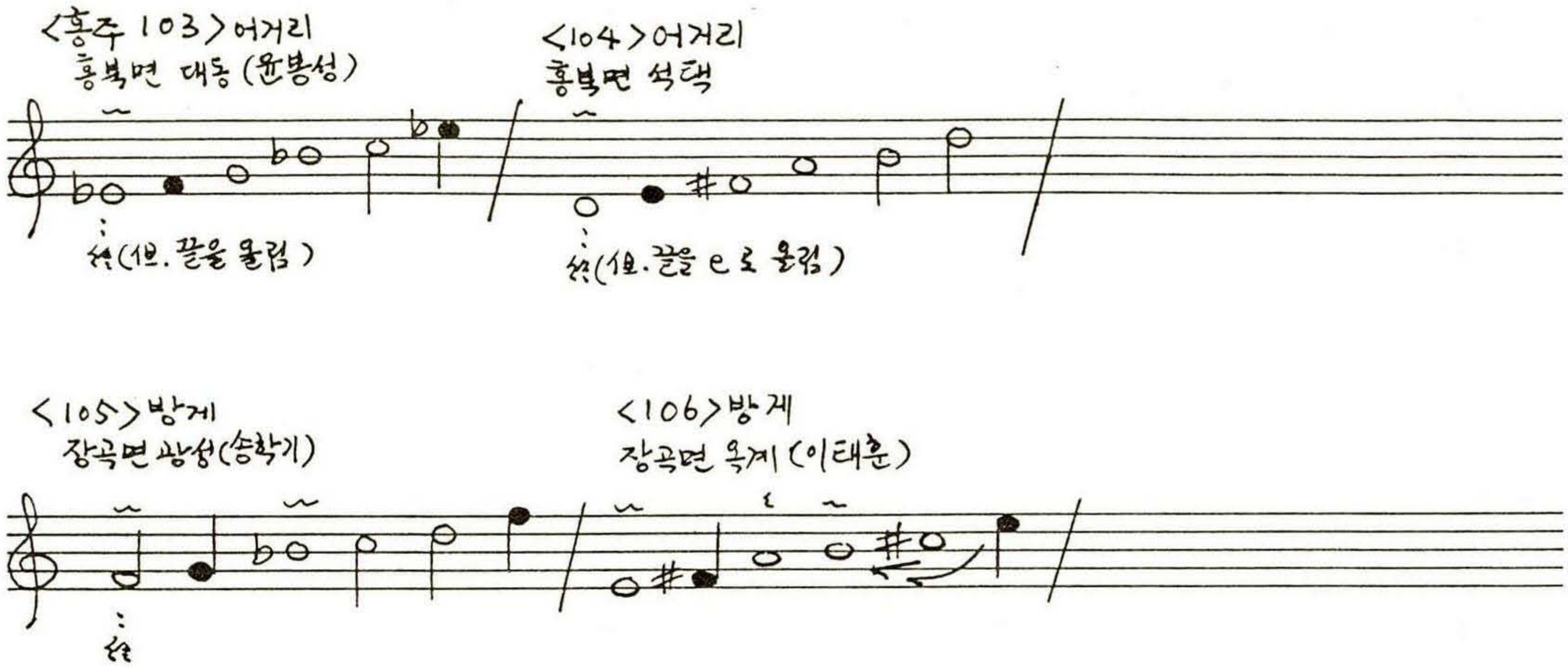
〈표 11〉 매뚜리소리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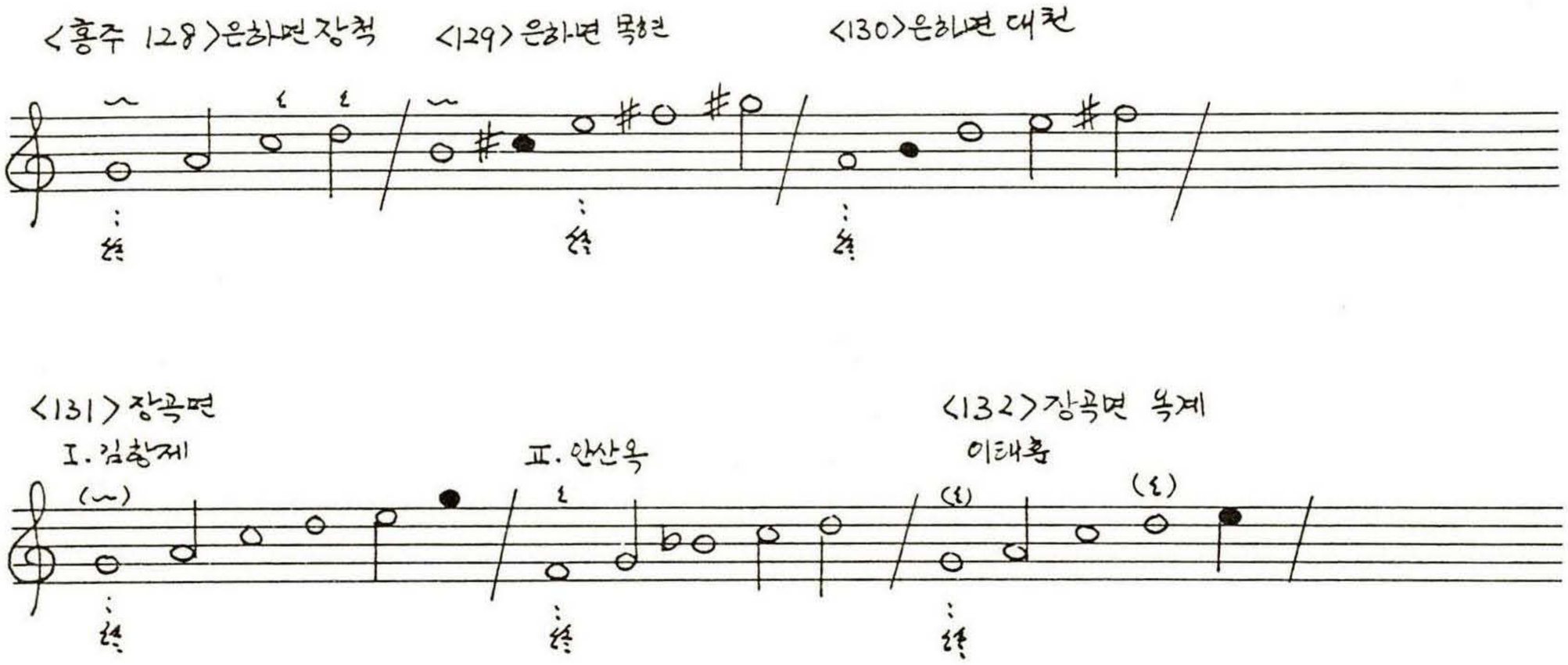
〈표 12〉 술미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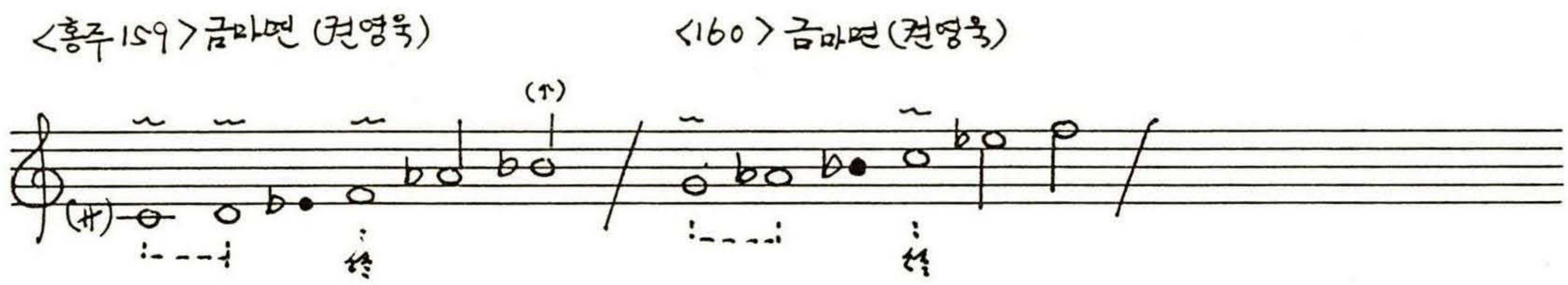
〈표 13〉 어거리 에야호 等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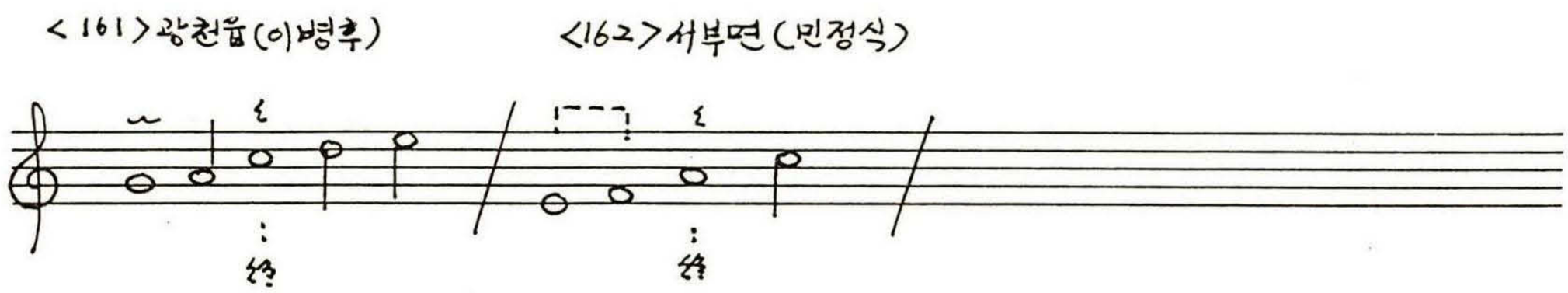


〈표 14〉 벼바숨소리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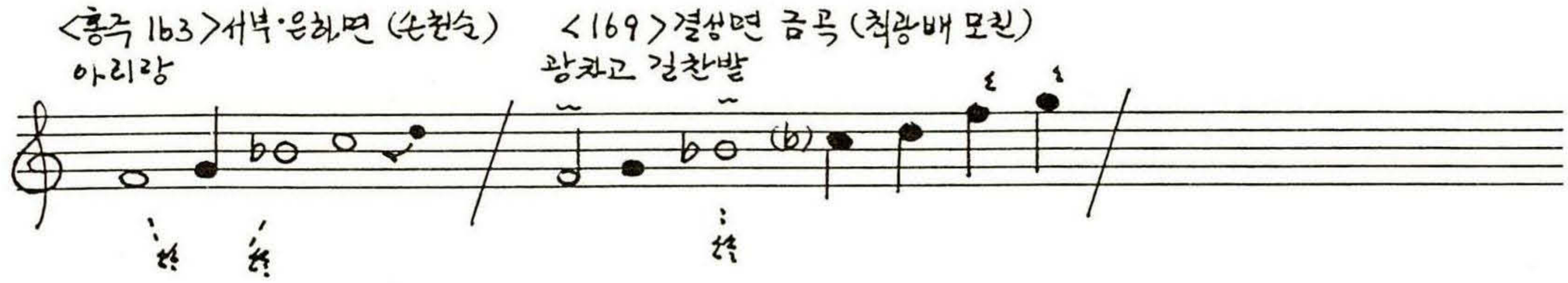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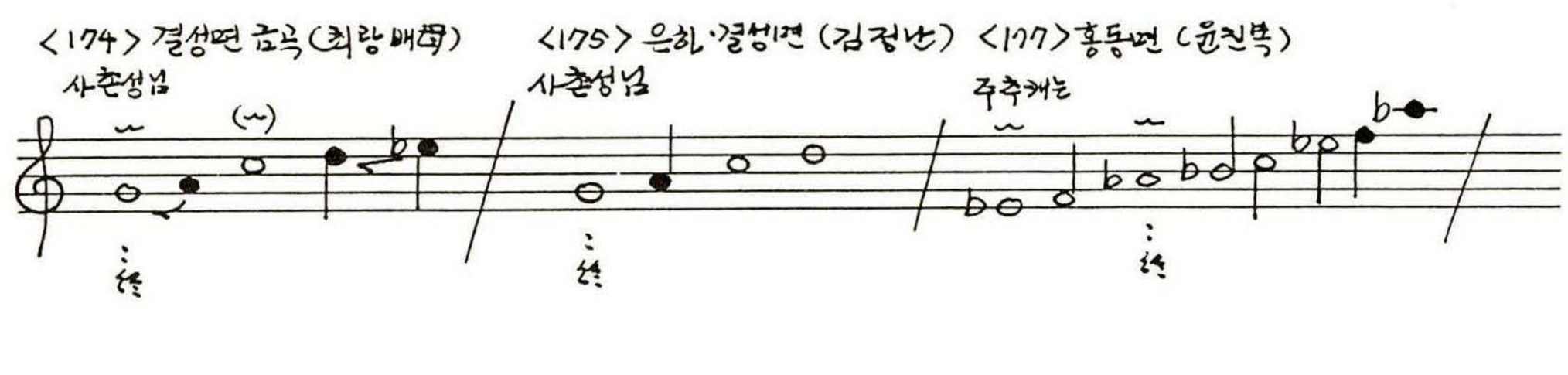
〈표 15〉 열시장사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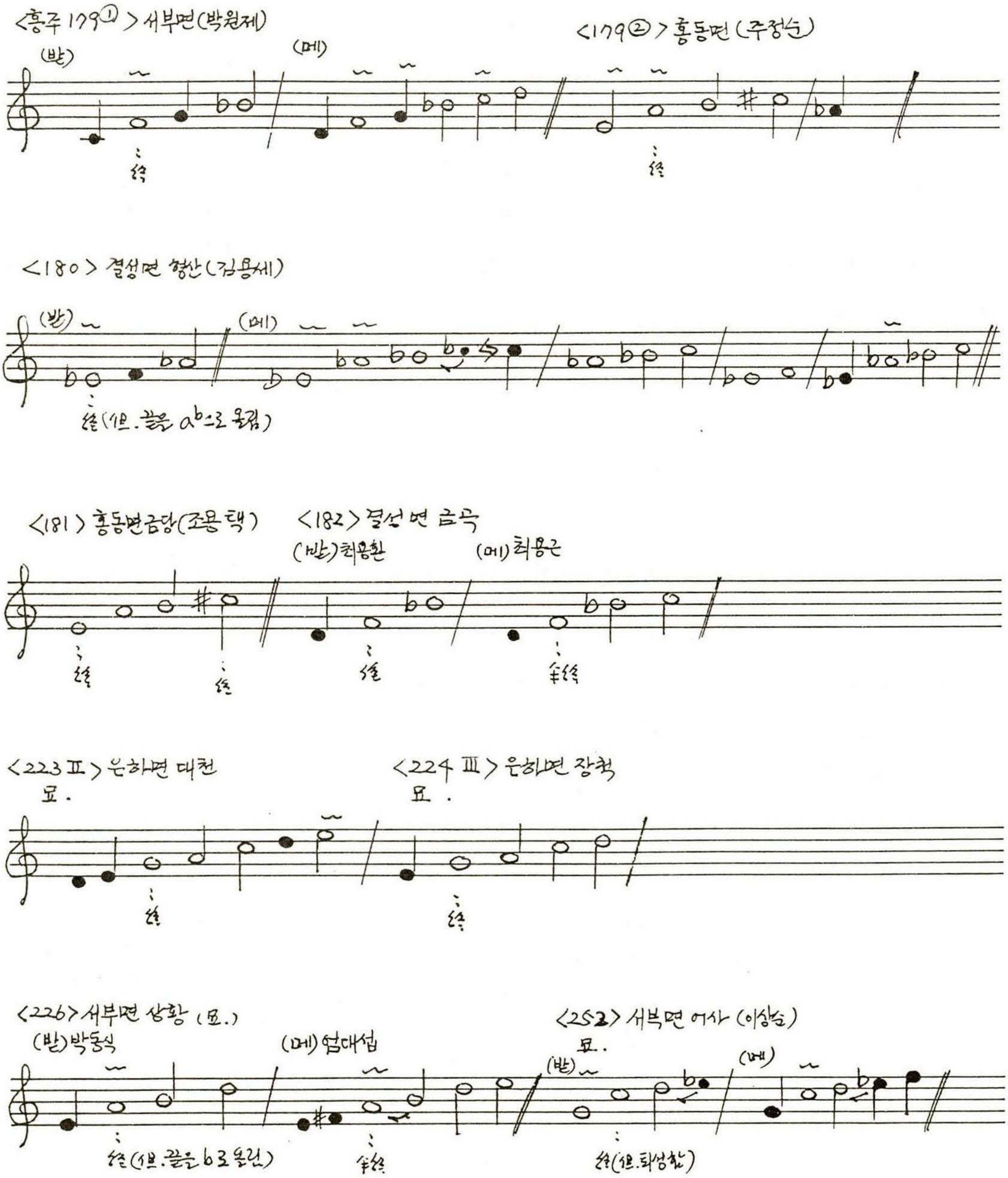


〈표 16〉 사촌성님 등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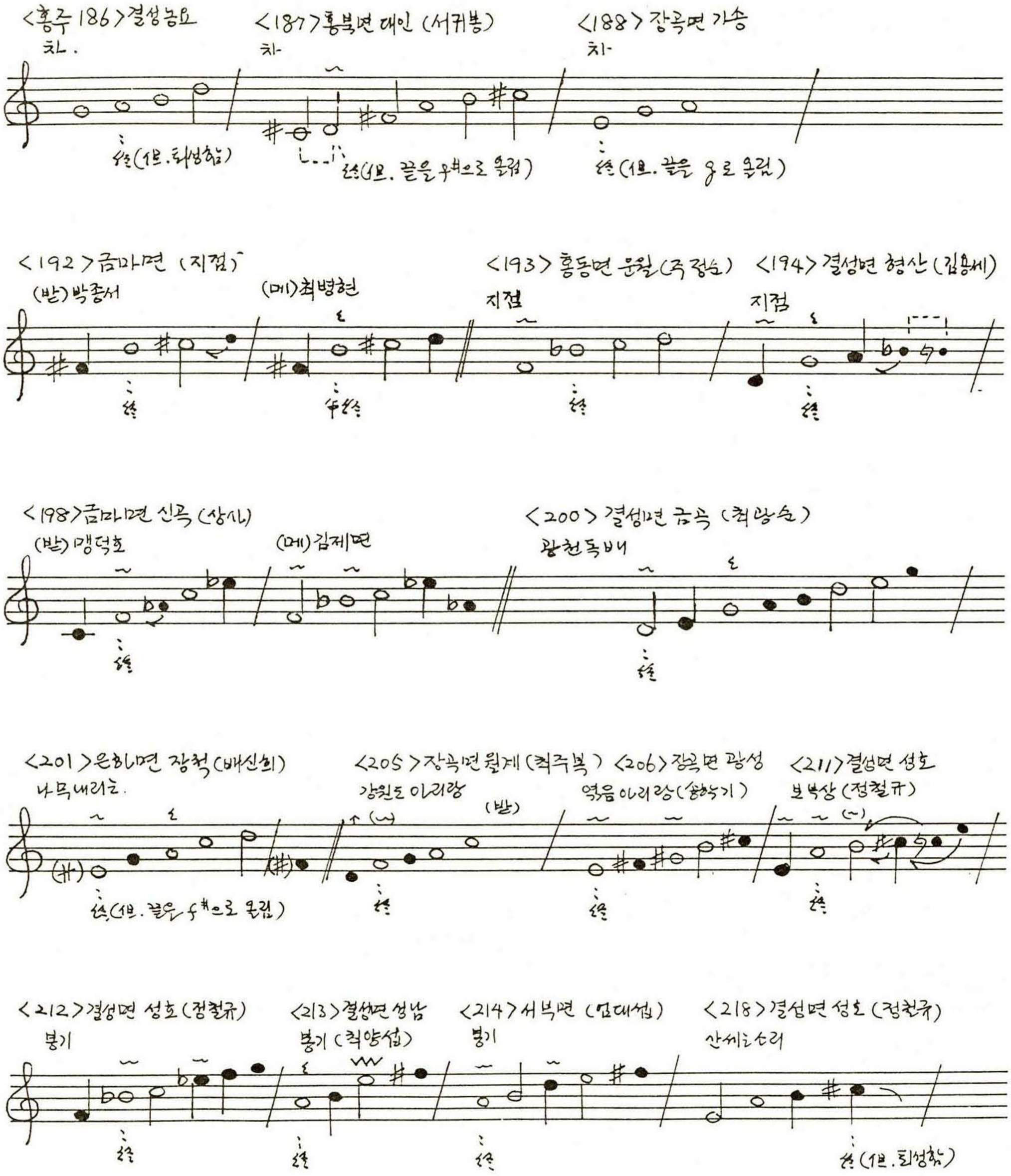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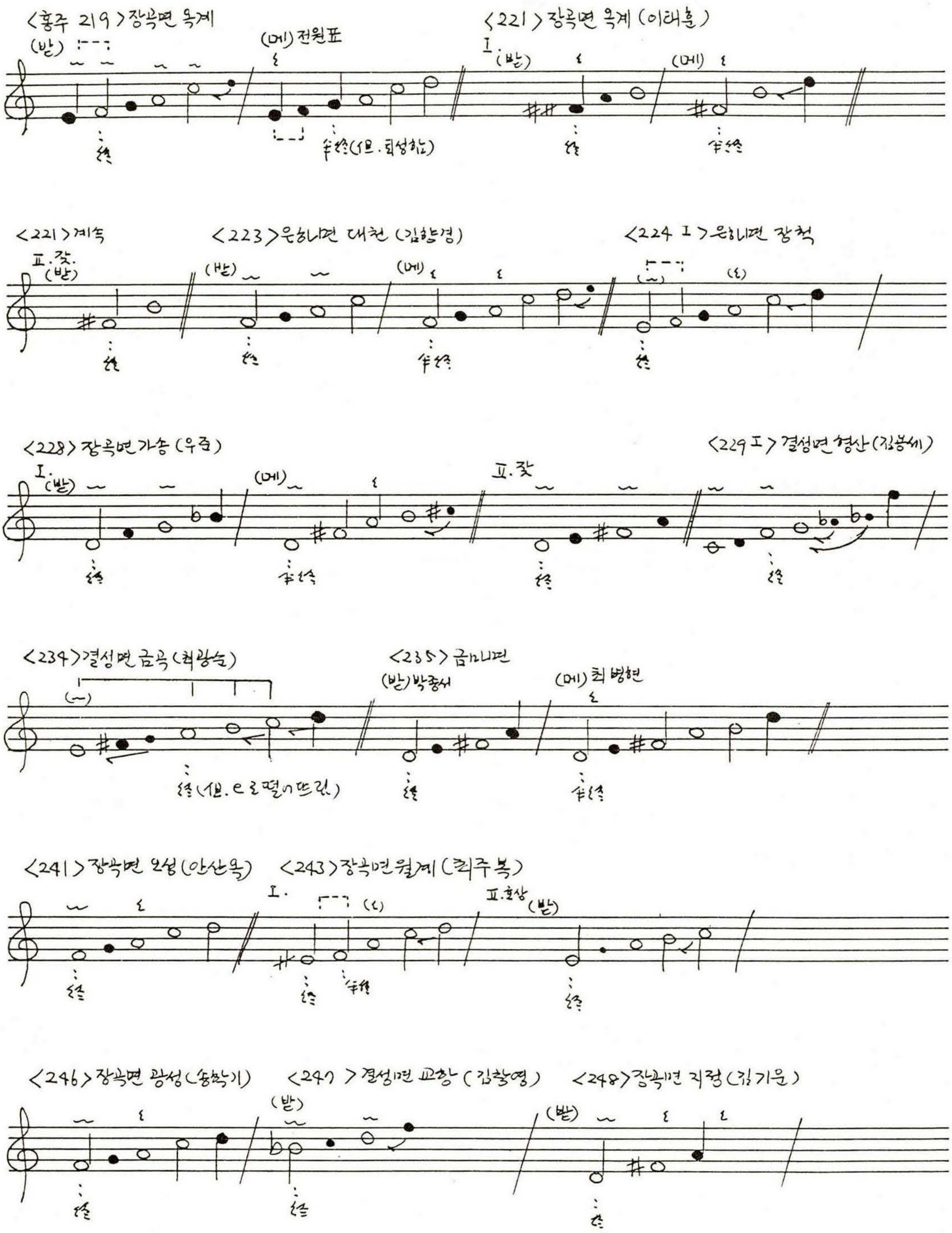
〈표 17〉 가래질소리의 구성음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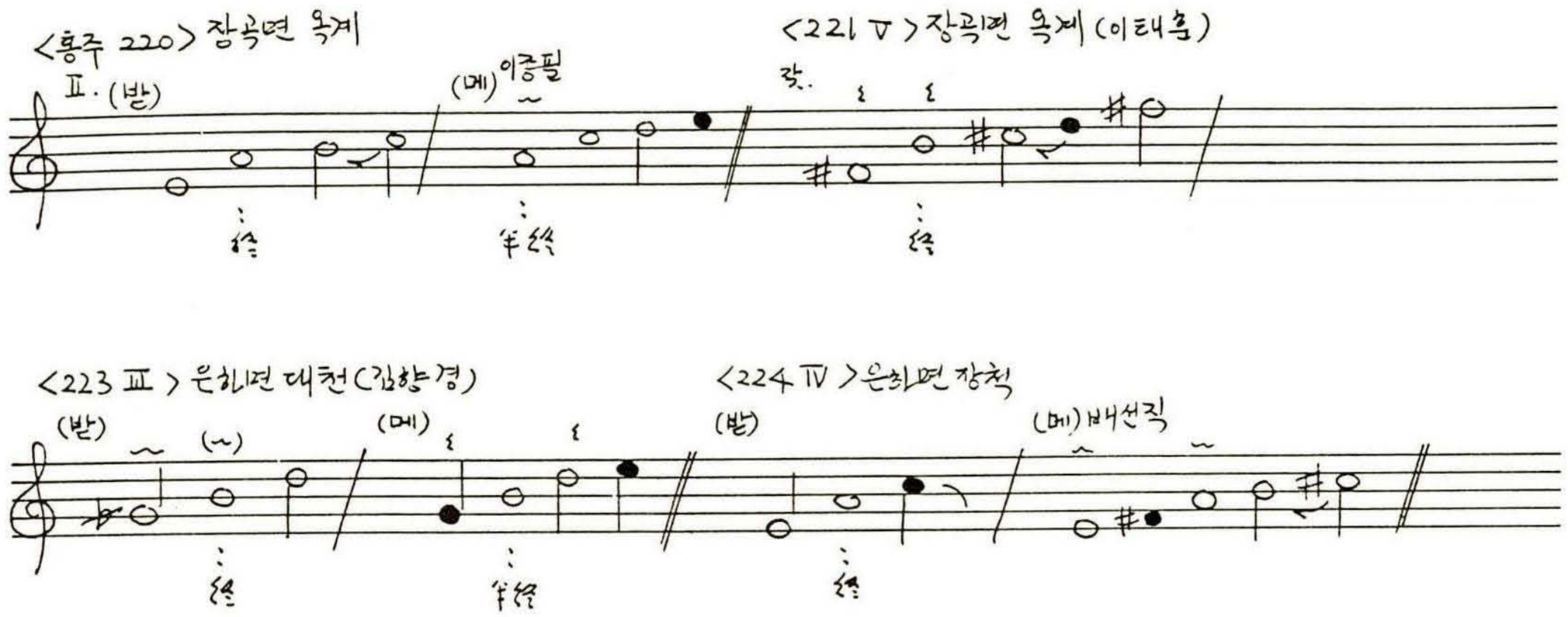
〈표 18〉 터다짐 等의 구성음관계



〈표 19〉 행상소리의 구성음관계



〈표 20〉 달고의 구성음관계



Working Songs of HONGSŎNG district

YI SO-RA

She visited and recorded the songs of this book from 1987 to Mar.1994.

She studied Korean traditional music at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ow works as a consultant of the committee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at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in Seoul and teaches the theory of folk music in CH'ŎNGJU University.

HONGSŎNG district, CH'UNGNAM Province situated in west central Korea and borders on SŎSAN, YESAN, CH'ŎNGYANG, PORYŎNG districts and the West Sea.

Its working songs build an unique song-circle of the northwestern part in CH'UNGNAM Province, because of the mountains CH'ARYŎNG.

Its forest lands are 50.9% of its gross area and rice fields 20.3%. Most fields except the plains along the river KŬMMA (KŬMMA · HONGDONG · HONGBUK-MYŎN and HONGSŎNG-ŬP ; ŬP and MYŎN are the units of semi-districts.) lie between mountain and mountain.

In 1914, HONJU district and KYŎLSŎNG district were united into the present HONGSŎNG district.

It has been said that the old HONGSŎNG area is topographically the place which will produce many scholars. Actually many scholars were produced and lived there after retireing from the world.

There are mainly two kinds of rice planting songs, the double SANGSA〈score 1〉and the HAJI SORI〈score 25〉. The one is sung on

the western part of the river KŬMMA and the other on its eastern part. But they are all in the SANGSA type.

The center of the double SANGSA is KYŎLSŎNG and it is found to be spread out to some parts of YESAN, SŎSAN and PORYŎNG districts.

There are many kinds of songs for weeding a rice paddy : ① ŎLKA TŎNGŎRI〈score 4〉 ②The MANMUL songs of KYŎLSŎNG〈scores 6~8〉 ③ MAETTURI〈scores 93~98〉 ④ SULMI〈scores 99~102〉 ⑤ ŎGIYAHA 〈scores 2〉 sung when picking up weeds with hands on the water of the rice field after rice planting. ⑥ TURI TUNGGAE〈scores 90~92〉 ⑦ ŎGŎRI EYAHO〈scores 103,104〉 ⑧ A kind of PANGGE ⑨ A kind of YANGSANDO ⑩ SUYANGSAN〈scores 66~76〉 etc.

The songs of ①~⑦ are found in the area of the double SANGSA and ⑧⑨ in the area of the HAJI SORI.

The song for the first weeding with a hoe a rice paddy in HONGSŎNG district is called ŎLKA TŎNGŎRI, of which the native places are considered to be HONGSŎNG, SŎSAN and TANGJIN districts, the northwestern parts of CH'UNGNAM Province.

It's also a characteristic of the farming songs of the western parts of CH'UNGNAM Province that there are many kinds of songs〈scores 128~158〉 about harvesting.

There is a rare song〈scores 11, 12〉 sung when uprooting seedlings in this district.

〈Scores 11, 12〉 are songs propagated from the northern West Sea area of Korea.

PONGJUK T'ARYŎNG〈scores 212~214〉 is a fishermen's feasting song transmitted from the northern West Sea area as KYŎNGGIMAN.

There are sevaral types of ramming songs sung when hardening the earth forcibly with a stone for a house building : ① CH'A type〈scores 186~191〉 ② CHIJŎM〈scores 192~197〉 ③ SANGSA〈score 198〉 ④ a foreign type〈score 199〉.

The center of ① is KYŎNGSANG Province, that of ② CH'UNGBUK Province and that of ③ CHŎLLA Province.

The coexistence of these several types and several modes is also a characteristic of HONGSŎNG work songs.

〈Scores 219~254〉 are the funeral songs. 〈Scores 219, 225, 231〉 are sung when carrying a bier and 〈scores 220, 222, 234〉 sung upon hardening the earth with feet and a wooden pole〈photo. 95〉 when making tomb.

(메) solo part of a method of singing, "MEG-BAT form".

(받) Chorus part of a method of singing, "MEG-BAT form" that is in call and response form, the leader singing changing verses, the chorus in a constant refrain.

T.P transition point.



① an irregular beat.

② an irregular measure

𝄪 < ♯ < 𝄪 (or. 𝄪♯) < 𝄫

𝄫 < 𝄬 < ♭ < 𝄬

weak and grazing sound or recitative sound.

instable tone.

delicately lower than a standard pitch.

delicately higher than a standard pitch.

shorter than a standard length.

longer than a standard length

a forceful appoggiatura executed on the original tone, as is done in playing "Komungo".

a descending, vibrating glissando.

gliss.

after stretching out, to draw down and disappear.

to draw down the end.

to draw up the end.

a weak vibration.

土民 a native farmer.

falsetto.

S.P a part interpretated by this writer.

도·표 색인

〈도 1〉 홍성군의 녹음지역 18
〈도 2〉 산경도 19
〈도 3〉 홍성군의 주요산지와 하천 20
〈도 4〉 홍성군의 위치와 주요 지역간의 접근도 20
〈도 5〉 써레질 36
〈도 6〉 홍성군의 모심는 소리 78
〈도 7〉 홍성군의 논매는 소리 분포도 98
〈도 8〉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대기구조 102

〈표 1〉 읍·면별 임야 및 답의 비율 17
〈표 2〉 홍성군의 전래민요 녹음조사 지역(1986~1994) 29
〈표 3〉 노동요의 종류 33
〈표 4〉 하지소리의 받음구 79
〈표 5〉 긴 얼카덩어리 90
〈표 6〉 얼카덩어리의 구성음 관계 424
〈표 7〉 수양산曲의 받음구 91
〈표 8〉 홍성군 산타령의 구성음관계 424
〈표 9〉 산아지曲(잦은 산타령)의 구성음관계 425
〈표 10〉 두리둥개내사랑의 구성음관계 425
〈표 11〉 매뚜리소리의 구성음관계 426
〈표 12〉 술미의 구성음관계 426
〈표 13〉 어거리 에야호 等의 구성음관계 427
〈표 14〉 벼바숨소리의 구성음관계 428
〈표 15〉 열시장사의 구성음관계 429
〈표 16〉 사촌성님 등의 구성음관계 429
〈표 17〉 가래질소리의 구성음관계 430
〈표 18〉 터다짐 等의 구성음관계 431
〈표 19〉 행상소리의 구성음관계 432
〈표 20〉 달고의 구성음관계 433
〈표 21〉 홍성군의 널액막음 소리 142
〈표 22〉 홍성군의 두마디 행상의 받음구 143

사 진 색 인

〈사진 1〉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 고인돌 21
〈사진 2〉 여양현 옛터라고 말하여지는 장곡면 광성리 21
〈사진 3〉 남산고개 21
〈사진 4〉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대흥면 경계 22
〈사진 5〉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대흥면 경계 22
〈사진 6〉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광시면 22
〈사진 7〉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광시면 23
〈사진 8〉 홍성군 금마면↔예산군 광시면 23
〈사진 9〉 예산군 광시면에서 홍성군 장곡면 월계리로 들어가는 경계 지점인 도로 23
〈사진 10〉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지점 24
〈사진 11〉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지점 24
〈사진 12〉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와 청양군 비봉면과의 경계가 되고 있는 磻川의 반계교 24
〈사진 13〉 磻川의 반계교 25
〈사진 14〉 磻川의 반계교 25
〈사진 15〉 청성교 25
〈사진 16〉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와 보령군 청소면 의식리 옻배미마을과의 경계지점 26
〈사진 17〉 홍성군 은하면↔보령군 천북면 군계인 댓고개 26
〈사진 18〉 천북면 신죽리 댓고개에서 은하면 장척리로 넘는 고개 26
〈사진 19〉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와 서산군 고분면 양천리와의 경계인 완만한 고개 27
〈사진 20〉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와 서산군 고분면 양천리와의 경계인 완만한 고개 27
〈사진 21〉 홍성군 갈산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군계인 구성교 27
〈사진 22〉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과의 군계인 고개 28
〈사진 23〉 범티고개(장곡면 오성리와 광천읍 가정리와의 경계지점) 28
〈사진 24〉 홍주 오사대밭과 결성 오사대밭의 경계 28
〈사진 25〉 장원질 장면 49
〈사진 26〉 용신제 장면 50
〈사진 27〉 모심는 소리 장면 50

〈사진 28〉 받는소리때의 모심는 소리 장면 50
〈사진 29〉 결성 농요마을 앞들에서의 논매는 소리 장면 51
〈사진 30〉 50여년전에 들판에서 사라진 이후 처음으로 결성농요를 결성 들에서 재현한 주역들 51
〈사진 31〉 논맴소리 에염싸는 장면 51
〈사진 32〉 잦은 얼카뎅이의 끝맺는 장면 52
〈사진 33〉 가래질소리 장면 52
〈사진 34〉 지대기소리 장면 52
〈사진 35〉 모심는 장면 78
〈사진 36〉 장곡면 옥계리에서 81
〈사진 37〉 장곡면 옥계리 제2차 녹음장면 81
〈사진 38〉 장곡면 화계리에서 82
〈사진 39〉 김이동, 공수마을 자택 앞에서 82
〈사진 40〉 조용택, 홍동면 금당리 자택에서 82
〈사진 41〉 갈산면 가곡리 동막 윤민식 이장댁에서 83
〈사진 42〉 장곡면 광성리 녹음 83
〈사진 43〉 최주복, 장곡면 월계2구 83
〈사진 44〉 광천읍 노인정에서 84
〈사진 45〉 김기운, 장곡면 지정리의 자택에서 84
〈사진 46〉 송상현, 장곡면 행정1구 자택에서 84
〈사진 47〉 눈에 덮인 은하면 장척리 장자울에서 84
〈사진 48〉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대기의 용포 100
〈사진 49〉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용포의 용머리쪽 年代記 101
〈사진 49②〉 구항면 황곡리의 오래된 용대기 용포 101
〈사진 49③〉 구항면 황곡리의 오래된 용대기 용포 102
〈사진 50〉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의 영기 102
〈사진 51〉 서부면 광리 중광마을 녹음 103
〈사진 52〉 은하면 화봉리 야동의 가창자인 정동의 103
〈사진 53〉 은하면 대천리 대실마을에서 103
〈사진 54〉 구항면 내현리 발현마을 104
〈사진 55〉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에서 104
〈사진 56〉 홍동면 신기리·금당리 녹음 104
〈사진 57〉 서부면 어사리 105
〈사진 58〉 홍북면 대동리 105

〈사진 59〉 금마면 신곡리 신곡 녹음 105
〈사진 60〉 광천읍 운용리 106
〈사진 61〉 금마면 덕정리 2차방문 106
〈사진 62〉 금마면 덕정리 1차방문 106
〈사진 63〉 투병중인 은하면 장곡리 전복환댁에서 107
〈사진 64〉 광천읍 운용리 김유돈 107
〈사진 65〉 광천읍에서 107
〈사진 66〉 홍북면 대인리 녹음 108
〈사진 67〉 홍성군 광천읍 가정리에서 108
〈사진 68〉 결성농요마을 제1차방문 108
〈사진 69〉 결성면 금곡리 최광순 댁에서 109
〈사진 70〉 결성농요마을 용대기 109
〈사진 71〉 결성면 성남리 녹음 109
〈사진 72〉 결성농요조사 110
〈사진 73〉 결성면 읍내리 노인정에서 110
〈사진 74〉 결성농요 장원질소리에 대한 고증조사 장면 110
〈사진 75〉 결성농요 테입제작을 위한 가창자들과 녹음관계자들 111
〈사진 76〉 벼바숨소리장면 118
〈사진 77〉 결성농요의 거둠도구들 118
〈사진 78〉 결성의 나무가래 118
〈사진 79〉 삼을 말리는 정경 122
〈사진 80〉 은하면 대천리 월실자택에서 122
〈사진 81〉 결성면 읍내리 교촌의 김만균가족 123
〈사진 82〉 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123
〈사진 83〉 광천읍 독배당산굿에서 123
〈사진 84〉 서부면 죽도에서 124
〈사진 85〉 장곡면 옥계리 녹음 124
〈사진 86〉 장곡면 옥계리 山에서 124
〈사진 87〉 갈산면 가곡리 동막에서 125
〈사진 87②〉 서부면 광리 출토 마곡석 125
〈사진 88〉 보부상 비 139
〈사진 89〉 서부면 죽도 139
〈사진 90〉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에서 140
〈사진 91〉 김재동 140

〈사진 92〉 이연준 140
〈사진 93〉 옥계리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장곡면의 행상 145
〈사진 94〉 장곡면 옥계리의 첫번 회다지 장면 146
〈사진 95〉 장곡면 옥계리의 제2회 회다지 장면 146
〈사진 96〉 달굿대와 발의 위치 146
〈사진 97〉 회다지를 마치고 147
〈사진 98〉 결성면 교항리에서 346
〈사진 99〉 결성면 용호리 판소리명인 김창룡의 집터 346
〈사진 100〉 홍성읍에서 346
〈사진 101〉 홍성읍에서 347
〈사진 102〉 홍성읍에서 347
〈사진 103〉 광천읍 옹암리 독배 당제 421
〈사진 104〉 광천읍 옹암리 독배 당제 421
〈사진 105〉 광천읍 옹암리 독배 당제 421
〈사진 106〉 이경수, 광천읍 삼산리 자택에서 422
〈사진 107〉 장곡면 옥계리 용왕제 우물에서 422

악 보 색 인

〈홍주 1〉 모심는 소리 결성농요단 53
2 건젱이 〃 55
3 가래질 〃 57
4 얼카덩어리 〃 58
5 지대기 조종락 등 60
6 산여, 두레 최양섭, 최광순 62
7 마루, 줗다 결성농요단, 최광순 64
8 몸돌산여 최양섭, 결성농요단 65
9 장원질소리 결성농요단 66
10 종게줗소 최병호(결성면) 67
11 모찌는 소리 최홍식(결성면 금곡리) 151
12 〃 민병국(서부면 광리) 152
13 모심는 소리 김용세 등(결성면 형산리) 153
14 〃 최용근,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154
15 겹상사 민정식(서부면 광리) 156
16 상사리 반복형(모심기) 김향경(은하면 대천리) 156
17 겹상사 임희종(갈산면 행산리) 157
18 모심기 김세원, 최인석(홍북면 석택리) 158
19 〃 김옥환(구항면 공리) 158
20 〃 박원제(서부면 남당리) 158
21 〃 강수로(갈산면 동성리) 159
22 〃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159
23 〃 전복한, 김명복(은하면 장곡·유송리) 159
24 모심는 소리 우준(장곡면 가송리) 160
25 하지소리 〈S.R〉 161
26 모심는 소리 이사용 등(장곡면 옥계리) 162
27 〃 이태훈, 김순삼(〃) 165
28 상 사 이태훈 (〃) 166
29 모심는 소리 박종서, 민재식(금마면 봉서·인산리) 166
30 〃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167
31 〃 최주복(장곡면 월계리) 168
32 사지소리(모심기)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169

33	하지소리(모심기)	안산옥(장곡면 오성리) 169
34	모심는 소리	강창식(장곡면 대현리) 170
35	〃	김윤제(장곡면 화계리) 171
36	모심는 사지	김기운, 이은기(장곡면 지정리) 172
37	모심는 사디	송상현(장곡면 행정1구) 172
38	〃	김이동(광천읍 월림리) 173
39	사지소리(모심기)	배선직 등(은하면 장척리) 173
40	모심는 소리(사디)	김유돈(광천읍 운용리) 174
41	사디소리(모심기)	최사방(광천읍 상정리) 175
42	모심기	주정순 등(홍동면 운월리) 175
43	〃	황후성(광천읍 매현) 176
44	얼카덩어리	박원제 등(서부면 남당리) 176
45	〃	김용세 등(결성면 형산리) 177
46	〃	우준, 윤청영(장곡면 가송리) 178
47	〃	김세원, 최인석(홍북면 석택리) 178
48	〃	오정산(은하면 목현리) 180
49	〃	주정순 등(홍동면 운월리) 180
50	〃	최광순 등(결성면 금곡리) 181
51	〃	배신희 등(은하면 장척리) 182
52	〃	고복근 등(갈산면 가곡리) 183
53	〃	황후성(광천읍 매현) 184
54	〃	진병옥, 김옥환(구항면 공리) 184
55	〃	서귀봉(홍북면 대인리) 184
56	〃	전복한, 김명복(은하면 장곡·유송리) 185
57	〃	김향경 등(은하면 대천리) 186
58	〃	민재식 등(금마면 덕정리 강월노인정) 187
59	〃	안산옥(장곡면 오성리) 187
60	〃	조병태(금마면 봉서리) 188
61	〃	김재경, 김대곤(장곡면 신곡리) 188
62	〃	최주복(장곡면 월계2구) 188
63	〃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189
64	〃	정기석(홍동면 신기리) 189
65 Ⅰ	〃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189
65 Ⅱ	매화	〃 189

66	산타령(벼베기, 두벌매기)	강영신(결성면 성호리)	190
67	〃 (수양산系)	장종환(결성면 금곡·성남리)	191
68	〃	김향경(은하면 대천리)	192
69	만물소리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193
70	산타령(논맴)	김학인(결성면 무량리)	193
71	논맴소리	김유돈(광천읍 운용리)	195
72	만물소리	정동의(은하면 화봉리)	196
73	〃	배선직(은하면 장척리)	196
74	수양산	전복한(은하면 장곡리)	197
75	〃	엄대섭(서부면 상황리)	198
76	〃	박원제 등(서부면 남당리)	199
77	논맴소리	우준(장곡면 가송리)	200
78	〃	주정순(홍동면 운월리)	201
79	잦은 산타령	강영신(결성면 성호리)	202
80	산아지	김대곤, 김재경(금마면 신곡리)	203
81	〃	이연준(서부면 남당리)	203
82	산타령(자진)	김세원(홍북면 석택리)	204
83	잦은 산타령 메김소리(나무꾼)	한동석(서부면 어사리)	204
84 Ⅰ	잦은 산타령	유종근, 김제면·맹덕호(금마면 죽림·신덕리)	205
84 Ⅱ	어야디여	〃	
85	산이로구나	이환성(금마면덕정리)	205
86	만물소리	최병현, 박종서(금마면)	206
87	논맴소리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206
88①	산아지	전복한(은하면 장곡리)	207
88②	두덩덩실	〃	207
89	세벌소리	〃	208
90	만물매는 소리(Ⅱ)	한상진, 김덕진 등(서부면 남당리)	209
91	두리둥개내사랑	최창묵(서부면 어사리)	210
92	만물소리	조인해, 김기한 등(결성면 형산리 고들미)	210
93	맷돌소리	김용세(결성면 형산리 고들미)	211
94	(잦은)만물소리	김옥환, 진병옥(구항면 공리)	211
95	매뚜리소리(논맴)	조종락(결성면 형산리 구수동)	212

96 매뚜리 전정환, 방종석(구항면 내현리) 212
97 〃 윤민식, 공철영(갈산면 가곡리) 213
98 〃 임희종(갈산면 행산리) 213
99 술미 김창영(결성면 교향리) 213
100 〃 최창묵, 한동석(서부면 어사리) 214
101 만물매는 소리 강수로(갈산면 동성리) 215
102 어하술미 민병국, 민정식(서부면 광리) 215
103 만물소리 윤봉성(홍북면 대동리) 216
104 만물매는 소리 김세원, 최인석(홍북면 석택리) 216
105 방아가 논다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217
106 방게소리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218
107 만물매는 소리 서귀봉(홍북면 대인리) 219
108 논매는 양산도 김청일, 이병후(광천읍 운용리) 219
109 〃 우준(장곡면 가송리) 220
110 배꽃타령 민정식(서부면 광리) 220
111 상사(만물소리) 하재신(금마면 송강리) 221
112 밀가는 소리 최유엽, 최광순 등(결성면 성남·금곡리) 221
113 산여, 두레 최양섭 등(결성면 성남리) 222
114 산여, 두레, 좋다 최양섭(〃) 224
115 산여 〈S.R〉 225
116 좋다 〈S.R〉 226
117 두레, 좋다 〈S.R〉 227
118 마루, 좋다 〈S.R〉 228
119 문성이, 좋다 최양섭, 최광순(결성면) 229
120 몸돌소리 최양섭(결성면 성남리) 230
121 논 훔치는 소리 최주복(장곡면 월계2리) 230
122 쌈쌀때(몬돌할 때) 신세진(결성면 금곡리) 231
123 만물매는 소리 오정산(은하면 목현리) 231
124 장원질소리 김윤재, 이태훈(장곡면 화계·옥계리) 232
125 꽃서는 소리 김학인 등(결성면) 232
126 지와밟기 김윤환,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232
127 〃 박홍하(갈산면 와리) 233
128 벼바숨(개상질) 배신희 등(은하면 장척리) 233
129 자리개질 오정산(은하면 목현리) 234

130	벼바숨(개상질)	김향경, 김옥성(은하면 대천리)	234
131	〃	김항제, 안산옥(장곡면)	235
132	〃	이태훈, 김순삼(장곡면 옥계리)	236
133	〃	이사용 등(〃)	236
134	〃	김윤재(장곡면 화계리)	237
135	〃	최주복(장곡면 월계2구)	238
136	〃	우준, 윤청영(장곡면 가송리)	239
137	〃	결성농요단	239
138	〃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240
139	〃	김종대(광천읍 대평리)	241
140	〃	황후성(광천읍 대현)	242
141	〃	주정순(홍동면 운월리)	242
142	〃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242
143	〃	김명복(은하면 유송리)	243
144	〃	김재경(장곡면 신곡리)	243
145	죽드림(죽가래질)	김세원, 최인석(홍북면 석택리)	243
146	〃	김용세(결성면 형산리)	244
147	〃	주정순(홍동면 운월리)	244
148	나부질	〃	244
149	죽가래와 나비질	송학기, 김윤환(장곡면 광성리)	245
150	죽가래질	민정식, 이영규(서부면 광리)	245
151	〃	이사용(장곡면 옥계리)	245
152	〃	이태훈(〃)	246
153	〃	강수로(갈산면 동성리)	246
154	나부질	김윤재(장곡면 광성·화계리)	246
155	보리바심	최광순, 최용근,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246
156	도리깨질	민정식, 이영규(서부면 광리)	247
157	볏단 쌓는소리	김용세(결성면 형산리)	247
158	말되는 소리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248
159	삼삼는 소리	권영욱(금마면 덕정리 내가)	248
160	삼삼기	〃	249
161	〃	이병후(광천읍 운용리)	249
162	강원도 열시장사	민정식(서부면 광리)	249
163	삼삼는 소리	손천순(서부면 상황, 은하면 대천)	250

164	길쌈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교낭천읍)	252
165	물레	최화순(홍북면)	252
166	베틀	김옥녀(장곡면 옥계리)	253
167	〃	전차순	253
168	〃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254
169	광차고 길찬밭	최광배 모친(결성면 금곡리 원금곡)	256
170	질차고 장찬 밭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257
171	시집살이	〃	257
172	얼카덩어리(밭매기)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258
173	밭매기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259
174	사촌성님	최광배 모친(결성면 금곡리)	261
175	〃	김정난(은하면, 결성면 성남리)	262
176	〃	손천순(서부면, 은하면)	262
177	주추캐는 처녀	윤진복(홍동면 홍원리)	263
178	맷돌노래	최정연(부여군, 홍성군 광천읍)	265
179	가래질	박원제, 주정순(서부면, 홍동면)	266
180	〃	김용세, 김기한 등(결성면 형산리)	266
181	〃	조용택(홍동면 금당리)	267
182	〃	최용근,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267
183	〃	김윤환(장곡면 광성리)	268
184	〃	공철영(갈산면 가곡리)	268
185	〃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268
186	터다짐(차)	최양섭, 결성농요단	269
187	〃	서귀봉(홍북면 대인리 매산)	269
188	지경닺이	우준, 윤청영(장곡면 가송리)	270
189	터다짐(차)	최용근(결성면 금곡리)	270
190	지경닺이	서귀봉(홍북면 대인리)	270
191	터다짐	최주복(장곡면 월계2리)	271
192	지점	최병현, 박종서(금마면 월암·봉서리)	271
193	지경닺이	지정순(홍동면 운월리 운곡)	272
194	〃	김용세, 조인해 등(결성면 형산리 고들미)	272
195	터다짐	윤봉성, 임성구(홍북면 대동리)	273
196	〃	김창영(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273
197	지점	공철영, 윤민식, 고복근(갈산면 가곡리 동막)	273

198 지경닻이 김제면, 맹덕호(금마면 신곡리 여술) 274
199 말박는 소리 오정산(은하면 목현리) 274
200 나무꾼소리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274
201 나무내리는 소리 배신희(은하면 장척리) 275
202 동풍가 윤종필(홍성읍 송월리) 275
203 나무꾼소리 김용세(결성면 형산리) 276
204 강원도 아리랑 박종서(금마면 봉서리) 276
205 〃 최주복(장곡면 월계리) 277
206 〃 이사용(장곡면 옥계리) 278
207① 엮음아리랑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278
207② 〃 민재식(금마면 인산리) 279
208 자진아라리 이관수(금마면 송강리) 280
209 지게상여 김윤환,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281
210 자진아라리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281
211 보부상 정철규(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282
212 봉기타령(배치기) 정철규(〃) 282
213 〃 최양섭(결성면 성남리) 283
214 〃 엄대섭(서부면 선흥동) 284
215 고기퍼는 소리, 뱃노래 김재동(결성면 성호리) 284
216 고기퍼는 소리 이상순(서부면 어사리) 285
217 노젓는 소리 〃 285
218 산 세는 소리 정철규(결성면 성호리) 286
219 행상소리 전원표 등(장곡면 옥계리) 287
220 달고 이종필 등(〃) 288
221 상부소리 이태훈(〃) 290
222 달공 〃 291
223 상부소리 김향경, 김옥성, 이문갑(은하면 대천리) 292
224 〃 배선직, 배만희 등(은하면 장척리) 294
225 행상소리 박동식(서부면 상황리) 295
226 떼뜨는 가래소리 엄대섭, 박동식(〃) 296
227 달고 〃 297
228 상여소리 우준(장곡면 가송리) 299
229 〃 김용세(결성면 형산리) 300
230 〃 오정산(은하면 목현리) 300

231	상여소리	김세원, 최인식(홍북면 석택리)	301
232	〃	주정순(홍동면 운월리)	301
233	상부소리	김형안, 정철규(결성면 성호리)	302
234	회다지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303
235	행상소리	최병현, 박종서(금마면 월암・봉서리)	304
236	달고	〃	305
237	행상소리	고복근, 이능세 등(갈산면 가곡리)	307
238	달고	공철영, 윤민식 등(〃)	309
239	행상	윤봉성(예산군삽교읍, 홍성군홍북면 대동리)	310
240	회다지	〃	311
241	행상	안산옥(장곡면 오성리)	312
242	회다지	〃	313
243	행상	최주복(장곡면 월계2구)	314
244	〃	윤진복(홍동면홍원리)	315
245	〃	이석희, 임동순, 성한용 등(홍북면 대인리)	316
246	〃	송학기(장곡면 광성리)	317
247	〃	김창영(결성면 교항리)	318
248	〃	김기운(장곡면 지정리)	318
249	〃	김선균(갈산면 상촌리)	318
250	〃	김윤재(장곡면 화계리)	319
251	〃	이병후(광천읍 운용리)	319
252	묘쓸때의 가래질	이상순(서부면 어사리)	319
253	달고	김이동(광천읍 월림리)	320
254	회다지	방종석(구항면 내현리)	320
255	동무야 나무가자	조예현(은하면 금곡・장척리)	323
256	나무꾼 동요	이기춘(홍동면 금당리)	324
257	달팽이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25
258	풍뎅이	윤민식(갈산면 가곡리)	325
259	잠자리	최용환, 황성창(결성면)	326
260	〃	조용택(홍동면 금당리)	326
261	〃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27
262	〃	최주복(장곡면 월계2구)	327
263	이노래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327
264	〃	김임순(서산군 해미면,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329

265	잇발빠진 노장구	김청규(결성면) 330
266	연아 올라라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330
267	한거리	이능세(갈산년 가곡리) 331
268①	한거리 진거리	이부숙(갈산면 가곡・신안리) 331
268②	〃	김연숙(예산군 덕산면, 홍성군 갈산면 가곡리) ... 332
269	이거리 저거리	이종순(청양군 청양읍,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 332
270	〃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333
271	〃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334
272 I	〃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34
272 II	콩하나 팥하나	〃 334
273	자장가	이관수(금마면 송강리) 335
274	불아	최병현(금마면 월암리) 336
275	〃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336
276	〃	신현정(보령군 줄포면,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 337
277	〃	김옥녀(강원도,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338
278①	〃	손천순(서부면, 은하면) 338
278②	달강달강	〃 338
278③	이거리 저거리	〃 338
279	달강달강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339
280	〃	최병현(금마면 월암리) 340
281	〃	전차순(청양군 목면 대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341
282①	〃	이부숙(갈산면 가곡리) 342
282②	〃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342
283	밤한되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342
284	꿩서방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43
285	〃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344
286	〃	순천순(서부면 상황리, 은하면 대천리) 344
287	까치	이기춘(홍동면 금당리) 344
288	달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45
289	뺨때리는 소리	이기춘(홍동면 금당리) 345
290	꼬댁각시	손천순(서부면 상황리, 은하면 대천리) 347
291	〃	이성점(갈산면, 결성면) 349
292	〃	이부숙(갈산면 신안・가곡리) 350

293 춘향아씨 순천순(서부면, 은하면) 351
294 강강수월래 이병후, 김청일(광천읍 운용리) 351
295 망석말이 놀이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351
296 널뛰는 소리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351
297 I 〃 이부숙(갈산면 신안·가곡리) 352
II 쌍그네소리 〃 352
298 그네 최광배 모친(결성면 금곡리) 352
299 비야 오지마라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52
300 깨끼저고리 〃 353
301 댕기 〃 354
302 I 〃 최정연(부여군 내산면, 홍성군 광천읍) 354
II 치마노래 〃 354
303 홍두깨 방맹이 이성점(갈산면 오두리, 결성면 읍내리 교촌) .. 355
304 등정가세 〃 355
305 자던빈방 들어갈때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356
306 엿타령 〃 357
307 광천 독배 손천순(서부면·은하면) 358
308 어사리 남당 〃 358
309 바위타령 황규덕(홍동면 원천리, 광천읍) 358
310 매화타령 최화순(홍북면) 362
311 종의 생활 조예현(은하면 장척리) 362
312 초한가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363
313 각설이 황규덕(홍동면 원천리) 364
314① 〃 이흥노(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예산군 덕산면 낙상) 365
314② 〃 조용택(홍동면 금당리) 367
315 장타령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368
316 〃 김순삼(장곡면 옥계리) 368
317 국문뒷풀이 최광순(결성면 금곡리) 369
318 〃 김정난(은하면, 결성면) 370
319 범벅타령 민재식(금마면, 인산리) 372
320 담방구 손천순(서부면, 은하면) 374
312 〃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375
322 담방구 최병현(금마면 월암리) 376

323 권주가 이성점(갈산면 오두리, 결성면 읍내리) 377
324 자진아라리(영감아땡감아)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377
325 성주풀이 김임순(서산군 해미면, 홍성군 장곡면) 377
326 노래가락곡풍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378
327 진머리 뚝잘러 전차순(청양군 목면,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378
328 시조(항시 백년을) 김동선(홍성읍) 378
329① 기차는 떠나간다 임길두(장곡면, 광천읍) 380
329② 五聖山歌 배신희 제공 381
330 청춘타령 김항제(장곡면 죽전리) 382
331 발인제 김형안(결성면 성호리) 383
332 〃 김학인(결성면 무량리) 383
333 고사소리 이태훈(장곡면 옥계리) 383
334 칠석고사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385
335 고사소리 정기석(홍동면 신기리) 387
336 〃 민재식(금마면 인산리 인홍) 389
337 집짓는 고사소리 〃 394
338 회심곡 〃 396
339 고사축원 이기옹(장곡면 옥계리) 399
340 용왕제 축문 〃 401
341 동토경 이경수(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402
342 걸립소리 손천순(서부면, 은하면 대천리) 403
343 대내림 〃 404
344 거리굿 최정연(광천읍 옹암리 독배) 405
345 무고안택 최용환(결성면 금곡리) 409
346 옹암당산제(부정굿) 최정연(광천읍 옹암리 독배) 410
347 〃 (오방대장군) 〃 412
348 뱃고사 〃 414
349 산신굿 〃 416
350 성호리 오방당 축문 (결성면 성호리) 420
351 우물굿 김형만·이태훈·이상순 420

엮은이 이소라(李素羅)

○ 약　　력

- 경기여고 졸업, 서울법대 졸업, 서울음대 작곡과, 서울음대 대학원 국악과 졸업
- 문화체육부 문화재전문위원(현)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강사(현)

○ 주요논저

「한국의 농요 제1~5집」 「대전웃다리농악」 「漁勞謠모음」 「치리섬 별신제(남해안 풍어제)」「형가·집녕·용광과 그 관련곡」「충남의 옛소리」「日本高槻市의 田植之唄와 韓國 釜山市 水營農廳農謠의 모심는 소리의 相互關聯性」「全南의 줄메는 소리類型」「한국농요의 가창방법」「농사와 농요의 관계」「피리의 숨쉬는 곳」「주암댐유역의 民謠」「양산의 민요」「금산의 풍악과 소리共著」「부여의 민요」「한국농요모음집①」「겨레노래選」"지신밟기음악" "모심는 소리의 유형과 그 형식"

홍성군지·김포군지·안산시지·안양시지·과천시지의 민요편 집필 등이 있음.

洪城의 勞動謠

인 쇄 1994년 12월 5일
발 행 1994년 12월 30일

발 행 처 홍 성 문 화 원
전화 (0451)32-3613
저 자 이 소 라
발 행 인 황 규 철
인 쇄 처 ㈜ 계 문 사

※ 용도에 따라 악보의 기보가 달리될 수 있는 관계로 무단 사용을 금(禁)합니다.

〈정가 : 30,000원〉

